발 간 등 록 번 호
11-1290472-00005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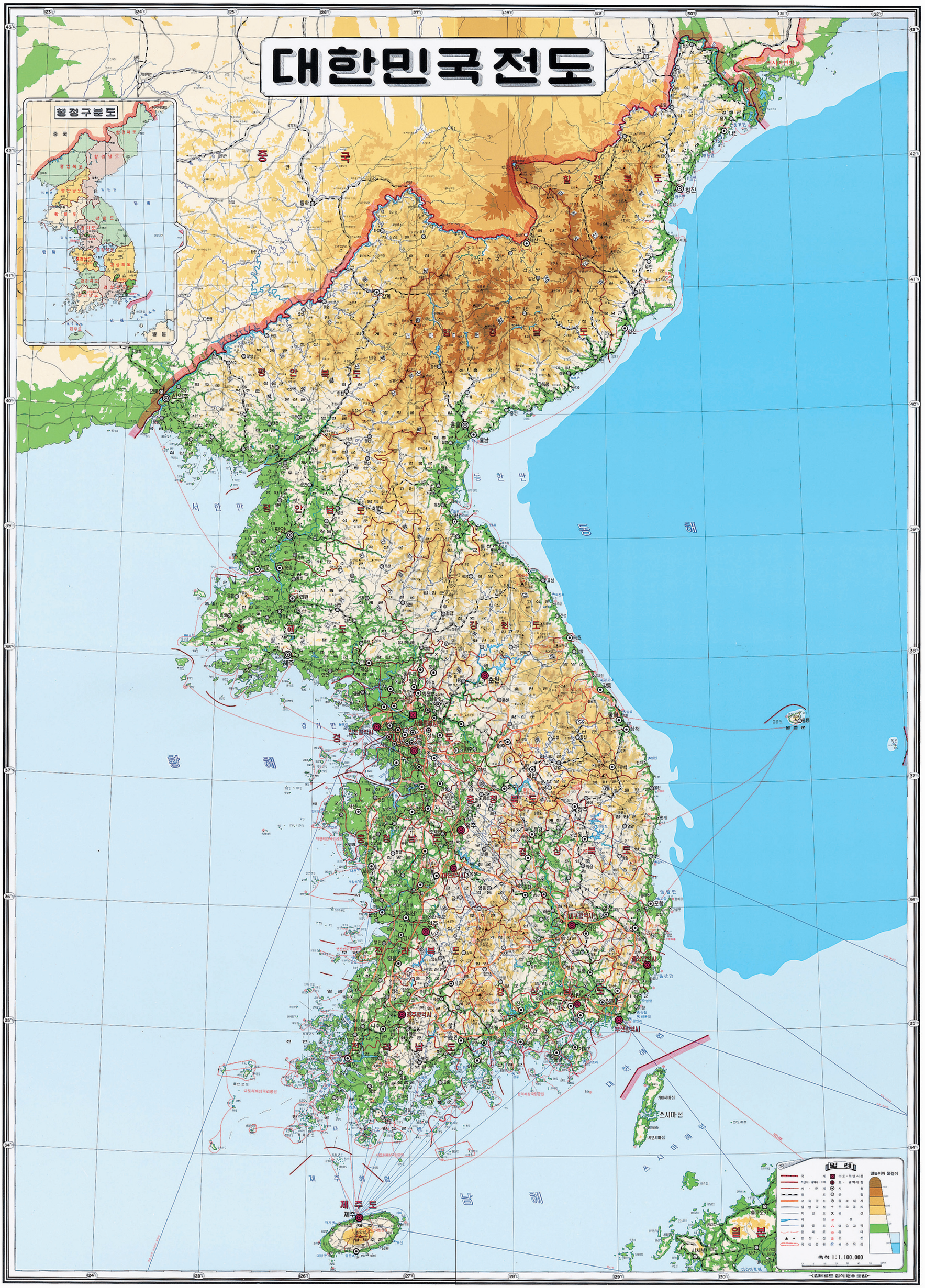
ISSN 1739-2705

6·25戰爭史 8

中共軍 총공세와 유엔군의 재반격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대한민국전도
행정구분도
중국
함경북도
함경남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도
일본
동해
황해
남해
서한만
동한만
경기만
대한해협
쓰시마해협
제주해협
범례
축척 1:1,100,000

6·25戰爭史 8

中共軍 총공세와 유엔군의 재반격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8

중공군 총공세와 유엔군의 재반격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서 문



금년은 6·25전쟁이 발발한 지 61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6·25전쟁은 5천여 년에 걸친 우리 민족의 역사를 통해 가장 치열했던 동족상잔의 비극으로서 결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역사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정부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를 6·25전쟁 60주년 기념 사업 기간으로 설정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한 수 많은 참전용사들과 유엔 참전국에 감사를 표하고 이를 기억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군사편찬연구소에서는 『6·25전쟁사 제8권』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6·25전쟁사 제8권』은 군사편찬연구소가 지난 2003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6·25전쟁사 편찬사업의 결실로서, 중공군의 제3차 공세 이후 우리 정부의 전시조치를 비롯하여 1·4후퇴시 피난민 상황, 국군과 유엔군의 전쟁지도, 중공군의 제3차~제5차 공세와 유엔군의 반격 상황 등을 소상하게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6·25전쟁사 편찬은 세계냉전이 종식된 이후 6·25전쟁 당사국의 새로운 비밀문서들이 속속 공개되는 시점에 맞춰 추진됨으로써 사실에 의한 객관적인 분석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높으며, 그 결과 전쟁사 연구와 관련하여 국내·외적으로 많은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출간되는 『6·25전쟁사 제8권 : 중공군 총공세와 유엔군의 재반격』을 통해 국민들이 6·25전쟁시 우리의 자유수호의지, 미국을 비롯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유엔 우방국들의 지원, 그리고 국군의 용전분투상 등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나아가 국가안보와 국방 정책수립에 기여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울러 6·25전쟁 중에 조국과 민족을 위해 싸우다 산화하신 전몰장병과 무명용사들의 명복을 빌며, 앞으로 계속해서 편찬될 6·25전쟁사가 그 분들과 참전자 모두의 분전 상황을 더욱 진솔하게 담아낼 것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분석과 집필에 노력을 아끼지 않은 군사편찬연구소장과 집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원고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애써주신 백선엽 자문위원장님을 비롯한 군 원로 및 관련학자 여러분의 조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1년 6월

국방부장관 김 관 진

발 간 사



올해는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비극인 6·25전쟁이 발발한 지 6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은 동족상잔의 비극을 불러온 민족사적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채로 여전히 우리의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사는 미래를 내다보는 거울이다"라는 말과 같이 우리는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두의 지혜와 슬기를 한 곳에 모아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군사편찬연구소의 전신인 전사편찬위원회에서는 민족상잔의 참혹한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일찍이 1967년부터 국내와 미국의 자료를 바탕으로 6·25전쟁사 전집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그 후 30여 년이 경과함에 따라 2003년부터 우리 연구소에서는 적성 국가를 포함한 전쟁 당사국들이 공개한 사료와 참전자들의 증언, 연구소의 다양한 연구결과 등 방대한 자료를 종합하여 6·25전쟁사를 새롭게 재조명하는 연구 편찬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이번에 여덟 번째 산물인 『6·25전쟁사 제8권 : 중공군 총공세와 유엔군의 재반격』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번에 발간된 『6·25전쟁사 제8권』에서는 집필자들이 1950년 12월 31일 신정공세부터 휴전회담 개시 직전인 1951년 7월 9일까지 중공군의 제3차~제5차 공세와 유엔군의 방어 및 반격작전, 해군과 공군작전 그리고 1·4후퇴와 피난민 상황 등 전쟁 전반에 관한 내용을 생생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엔군과 공산군의 전쟁지도와 정부의 전시조치, 후방지원 상황 등을 객관성 있는 사료를 활용하여 상세하게 수록하고 있습니다.

『6·25전쟁사 제8권』의 발간은 미·소와 남·북 관계에 관한 역사적 접근이 가능한 시점에서, 전쟁에 참여했던 국가들의 새로운 사료를 바탕으로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6·25전쟁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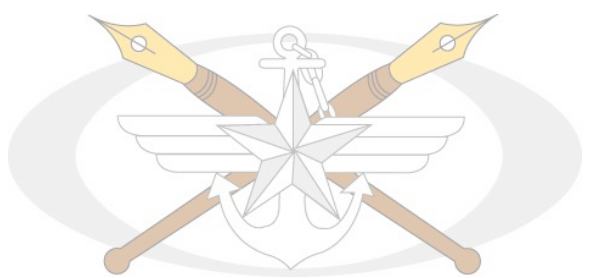
아무쪼록 집필진의 혼신의 노력으로 출간된 이 책자가 6·25전쟁 당시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자유수호에 대한 굳은 의지와 미국을 비롯한 유엔 우방국들의 헌신적인 지원, 그리고 국군의 용전분투 등에 대해 우리 국민 모두가 새롭게 인식하는 장이 되는 동시에 국내·외 전쟁사 연구관계자들에게는 6·25전쟁의 실상을 이해함에 있어서 유용한 지침서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자료의 분석과 집필에 열과 성을 다해준 집필자 여러분과 인쇄를 맡아준 국군 인쇄창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원고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고견을 내어주신 백선엽 자문위원장님을 비롯한 자문위원과 감수위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1년 6월

군사편찬연구소장 **최 북 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본 저작물은 정부예산으로 발간하였으므로 기관(부대) 자산으로 영구보존하시기 바라며, 보관이 불가능 할 경우 당 연구소로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러 두 기

1. 이 책의 장·절·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 표기하였다.
   장 : 제1장, 제2장, 제3장, ……
   절 : 제1절, 제2절, 제3절, ……
   항 : 1, 2, 3, ……
   목 : 1), 2), 3)

2. 이 책에 사용된 부호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 ) : 인명·지명·숙어 등 해당 한자를 묶거나 해설, 보충한 경우의 표시
   " " : 인용문이나 대화체 문장의 표시
   ' ' : 인용문이나 대화체 문장의 일부분을 간추리거나 강조 표시
   『 』: 서명이나 신문매체를 표시

3.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따랐다. 문장은 한글 위주로 가급적 평이하게 썼으며, 혼동할 우려가 있는 용어나 고유명사 등은 한자 또는 영어 등 원래의 단어를 ( ) 안에 표기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지명의 경우 과거에 한자로 표기했던 지명들 중 널리 알려져 있는 지명은 한글로 바꾸어 표기했으나 잘 알려지지 않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지명은 한글로 표기한 후 ( ) 안에 한자를 병기했다.

4. 외국의 인명·지명 등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표기했다.
   (1)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외국어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가급적 해당국 언어의 발음에 가깝도록 한글로 표기하고 ( ) 안에 원어를 넣었다.
   (2) 각 장 별로 처음 나오는 고유 명사는 ( ) 안에 원어를 병기했다.

5. 본문에 인용된 외국어 자료는 원래의 뜻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능한 한 평이한 문체로 번역했다. 다만 그 의미상 불가피하게 그대로 사용해야 할 고유명사나 관용어 등은 그대로 사용했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6. 주기(註記)는 후주(後註)로 하여 각 장 끝부분에 수록했다. 본문의 내용 중에 추가 설명이나 해설이 필요한 경우에도 후주에 수록했다.

7. 집필자는 각 장의 마지막 부분에 명기했다.

8. 상황도는 주로 1950년대 1:5만 군사지도를 사용했다. 개요의 상황도는 개요 마지막 부분에, 본문의 상황도는 해당 부분에 각각 수록했다.

9. 북한군과 관련된 용어는 국방부의 '정신교육지침'과 대외 공식간행물인 『국방백서』의 수준에 준하여 전쟁사의 맥락에 맞도록 북한군, 인민군 등으로 적절하게 표현했다. 또한 전쟁 후에 달라진 북한지명은 과거의 지명을 표기하면서 ( ) 안에 현재의 지명을 명시했다.

10. 중국의 인명과 지명은 가급적 중국어 발음을 기준으로 표기했으며, 필요시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했다. 아울러 인용된 중국어 자료는 모두 번자체로 통일해 표기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목 차

▌서문

▌발간사

▌일러두기

제 1 장 총 개요 / 1

제 1 절 북한군 남침 이후 상황 요약 ····· 5
제 2 절 양측의 전쟁지도 및 작전개황 ····· 11
제 3 절 각 장별 수록 범위 및 내용 ····· 17

제 2 장 유엔군과 공산군의 전쟁지도 /21

제 1 절 국내외 정세 ····· 23
제 2 절 공산군의 전쟁지도 ····· 46
제 3 절 유엔군과 한국정부의 전쟁지도 ····· 52
제 4 절 분석 및 교훈 ····· 84

제 3 장 중공군의 제3차 공세와 1·4후퇴 /97

제 1 절 개요 ····· 99
제 2 절 중공군의 신정공세와 유엔군의 방어 ····· 105
제 3 절 1·4후퇴 시 피난민 대책 ····· 188
제 4 절 분석 및 교훈 ····· 19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4 장 유엔군 재반격과 중공군의 제4차 공세 / 207

제 1 절 개요 ····· 209
제 2 절 유엔군의 재반격 ····· 217
제 3 절 중공군 2월 공세와 유엔군의 반격 ····· 280
제 4 절 분석 및 교훈 ····· 342

제 5 장 유엔군의 38도선 확보와 후방지역 작전 / 357

제 1 절 개요 ····· 359
제 2 절 38도선 확보작전 ····· 366
제 3 절 후방지역작전 ····· 393
제 4 절 분석 및 교훈 ····· 423

제 6 장 공산군의 제5차 공세와 유엔군의 재반격 / 431

제 1 절 개요 ····· 433
제 2 절 중공군의 4월 공세와 유엔군의 방어 ····· 439
제 3 절 중공군의 5월 공세와 유엔군의 방어 ····· 493
제 4 절 분석 및 교훈 ····· 557

제 7 장 해군작전 / 573

제 1 절 작전 개요 ····· 575
제 2 절 북한해군과 유엔해군 상황 ····· 580
제 3 절 유엔 및 한국 해군작전 ····· 585
제 4 절 분석 및 교훈 ····· 64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8 장 공군작전 / 659

제 1 절 작전 개요 ····· 661
제 2 절 북한 및 소련공군 활동 ····· 671
제 3 절 유엔 및 한국공군 작전 ····· 687
제 4 절 분석 및 교훈 ····· 740

제 9 장 총 평 / 751

제 1 절 전쟁지도 ····· 753
제 2 절 작전 및 전술 ····· 757
제 3 절 결론 ····· 768

부 록 / 771

1. 영문약어 ····· 773
2. 연 표 ····· 775
3. 국군 작전명령 ····· 800

참고문헌
찾아보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표 목 차〉

〈표 3-1〉 중공군 및 북한군 보유 장비 ····· 108
〈표 3-2〉 중공군 제3차 공세 전투편성 ····· 114
〈표 3-3〉 중공군 전투서열 및 지휘관 ····· 114
〈표 3-4〉 북한군 전투서열 ····· 115
〈표 3-5〉 중공군 및 북한군 제대와 임무 ····· 116
〈표 3-6〉 양측의 지상군 병력 규모(1951. 1. 기준) ····· 119
〈표 3-7〉 미 제8군의 방어 배치 ····· 128
〈표 3-8〉 양측의 전투서열 및 지휘관 ····· 131
〈표 3-9〉 전투서열 및 지휘관 ····· 146
〈표 3-10〉 양측의 참가부대 및 지휘관 ····· 154
〈표 3-11〉 양측의 전투서열 및 지휘관 ····· 171
〈표 3-12〉 전투서열 및 지휘관 ····· 180
〈표 3-13〉 1951년도 각도 피난민 상황 ····· 193
〈표 4-1〉 공산군의 전투편성 ····· 222
〈표 4-2〉 중공군 각 군 지휘부 편성 ····· 223
〈표 4-3〉 미 제8군 및 제1군단 전투서열 ····· 227
〈표 4-4〉 미 제9군단 전투서열 ····· 228
〈표 4-5〉 미 제10군단 전투서열 ····· 229
〈표 4-6〉 국군 제3군단과 제1군단 전투서열 ····· 230
〈표 5-1〉 중공군 제19병단 예하 각 군 지휘부 편성 ····· 370
〈표 5-2〉 중공군 제3병단 예하 각 군 지휘부 편성 ····· 371
〈표 5-3〉 중공군 제9병단 지휘부 편성 ····· 371
〈표 5-4〉 북한군 전투서열 ····· 372
〈표 5-5〉 미 제8군 및 제1군단 전투서열 ····· 377
〈표 5-6〉 미 제9군단 전투서열 ····· 378
〈표 5-7〉 미 제10군단 전투서열 ····· 379
〈표 5-8〉 북한군 점령지역 내에서의 당조직 체계 ····· 396
〈표 5-9〉 1951년 1월 31일 현재 호남지구 게릴라 부대 현황 ····· 402
〈표 5-10〉 제3기 작전간 게릴라 사살 및 생포 수 ····· 405
〈표 6-1〉 축선별 주요부대 배치 ····· 440
〈표 6-2〉 중공군 주요 부대편성 ····· 448
〈표 6-3〉 북한군 주요 부대편성 ····· 450
〈표 6-4〉 중공군 제3병단 예하 각 군 지휘부 편성 ····· 45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표 6-5〉 중공군 제9병단 예하 각 군 지휘부 편성 ····· 451
〈표 6-6〉 중공군 제13병단 예하 제39, 40군 지휘부 편성 ····· 451
〈표 6-7〉 중공군 제19병단 예하 각 군 지휘부 편성 ····· 452
〈표 6-8〉 북한군 전투서열 및 지휘부 편성 ····· 452
〈표 6-9〉 축선별 주요부대 배치 ····· 453
〈표 6-10〉 미 제1군단 전투서열 및 지휘부 편성(1951. 4. 22 현재) ····· 456
〈표 6-11〉 미 제9군단 전투서열 및 지휘부 편성(1951. 4. 22 현재) ····· 458
〈표 6-12〉 미 제10군단 전투서열 및 지휘부 편성(1951. 4. 22 현재 ····· 458
〈표 6-13〉 국군 제3군단과 제1군단 전투서열 및 지휘부 편성(1951. 4. 22 현재) ·· 460
〈표 6-14〉 유엔군측 예비대 전투서열 및 지휘부 편성(1951. 4. 22 현재) ··· 461
〈표 6-15〉 축선별 주요부대 배치 ····· 494
〈표 6-16〉 지역별 주요부대 배치 ····· 495
〈표 6-17〉 5월 공세기간 중 공산군 전투편성 ····· 505
〈표 6-18〉 중공군 제9병단 지휘부 편성 ····· 506
〈표 6-19〉 중공군 제3병단 지휘부 편성 ····· 507
〈표 6-20〉 중공군 제19병단 지휘부 편성 ····· 507
〈표 6-21〉 5월 공세 당시 북한군 지휘관 인적사항 ····· 508
〈표 6-22〉 축선별 주요부대 배치 ····· 510
〈표 6-23〉 미 제1군단 전투서열 및 지휘부 편성(1951. 5. 16 현재) ····· 512
〈표 6-24〉 미 제9군단 전투서열 및 지휘부 편성(1951. 5. 16 현재) ····· 513
〈표 6-25〉 미 제10군단 전투서열 및 지휘부 편성(1951. 5. 16 현재) ····· 515
〈표 6-26〉 국군 제3군단과 제1군단 전투서열 및 지휘부 편성 ····· 516
〈표 6-27〉 유엔군측 예비부대 전투서열 및 지휘부 편성(1951. 5. 16 현재) ····· 518
〈표 6-28〉 국군 제3군단 수습병력 현황 ····· 540
〈표 7-1〉 미 극동해군의 지휘체계(1950. 9. 12) ····· 584
〈표 7-2〉 황해도 도서별 피난민 및 청년장정 수용인원 ····· 616
〈표 7-3〉 기뢰처리 종합통계표 ····· 646
〈표 8-1〉 유엔공군 지휘관계(1951년 6월 말 기준) ····· 665
〈표 8-2〉 공군 주요부대 및 지휘관(1951. 6. 30. 기준) ····· 669
〈표 8-3〉 1951년 4월 기준 북한공군 조직도 ····· 672
〈표 8-4〉 1951년 4월 기준 북한공군 전력 현황 ····· 673
〈표 8-5〉 소련 제64전투비행군단 편성(1951. 1～1951. 6) ····· 681
〈표 8-6〉 소련 전투비행사단 전투성과(1950. 11. 1～1951. 9. 15) ····· 686
〈표 8-7〉 1951년 1월～6월간 비행활동 ····· 690
〈표 8-8〉 1951년 1～6월 중 주·야 항공기형태별 비행활동 현황 ····· 69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표 8-9〉 1951년 1월~6월 작전형태별 비행운영 ····· 691
〈표 8-10〉 1950. 6. 27~1951. 6. 30 극동공군 전과 현황 ····· 692
〈표 8-11〉 1950. 6. 27~1951. 6. 30 극동공군 항공기 손실 현황 ····· 693
〈표 8-12〉 공대공 비행활동 및 공대공 전투간 피·아 항공기 손실 ····· 693
〈표 8-13〉 1950년 6~12월 근접항공지원 비행활동 현황 ····· 700
〈표 8-14〉 1951년 1~6월 무장정찰/항공차단 비행활동 현황 ····· 709
〈표 8-15〉 1951년 1월~6월간 제5공군 공산군 차량파괴 현황 ····· 716
〈표 8-16〉 1951년 1~6월 공수비행 활동 ····· 722
〈표 8-17〉 한국공군 지휘관계(1951년 6월 말 기준) ····· 727
〈표 8-18〉 1951년 4월~5월 전과 현황 ····· 735
〈표 8-19〉 정찰전대 월별 항공기 보유현황 ····· 737
〈표 8-20〉 정찰전대 비행활동(1950. 12. 13~1951 6. 30) ····· 737

〈상황도 목차〉

〈상황도 3-1〉 중공군의 제3차 공세 경과(1950. 12. 31~1951. 1. 8) ····· 103
〈상황도 3-2〉 임진강 지역 전투(1950. 12. 31~1951. 1. 3) ····· 132
〈상황도 3-3〉 동두천 지역 전투(1950. 12. 31~1951. 1. 3) ····· 144
〈상황도 3-4〉 중동부 지역 전투(1950. 12. 30~1951. 1. 1) ····· 167
〈상황도 3-5〉 현리 지역 전투(1950. 12. 31~1951. 1. 3) ····· 170
〈상황도 3-6〉 원주 지역 전투(1951. 1. 6~1. 12) ····· 177
〈상황도 4-1〉 유엔군의 재반격과 중공군 제4차 공세 ····· 215
〈상황도 4-2〉 김량장리와 151고지 전투(1951. 1. 25~27) ····· 236
〈상황도 4-3〉 수리산 전투(1951. 1. 31~2. 6) ····· 243
〈상황도 4-4〉 모락산 전투(1951. 1. 31~2. 4) ····· 247
〈상황도 4-5〉 관악산 전투(1951. 2. 9~2. 10) ····· 250
〈상황도 4-6〉 영월 부근 전투(1951. 1. 19~2. 24) ····· 263
〈상황도 4-7〉 미 제10군단의 라운드업 작전(1951. 2. 5~2. 10) ····· 270
〈상황도 4-8〉 국군 제8사단의 횡성부근 공격(1951. 2. 5~2. 10) ····· 272
〈상황도 4-9〉 횡성전투 경과(1951. 2. 11~2. 13) ····· 294
〈상황도 4-10〉 미 제23연대와 제5기병연대의 지평리 전투 ····· 307
〈상황도 4-11〉 미 제9군단의 킬러 작전(1951. 2. 21~3. 4) ····· 311
〈상황도 4-12〉 강림-안흥 전투(1951. 2. 23~3. 6) ····· 31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4-13〉 유엔군의 리퍼 작전(1951. 3. 7～3. 31) ····· 321
〈상황도 5-1〉 유엔군의 38도선 확보작전 ····· 363
〈상황도 6-1〉 중공군의 4월 공세(1951. 4. 22～30) ····· 441
〈상황도 6-2〉 설마리-금굴산 전투(1951. 4. 22～25) ····· 464
〈상황도 6-3〉 파평산 전투(1951. 4. 22～25) ····· 471
〈상황도 6-4〉 김화-포천 지연전(1951. 4. 22～23) ····· 474
〈상황도 6-5〉 사창리-가평 전투(1951. 4. 22～24) ····· 477
〈상황도 6-6〉 소양강 부근 전투(1951. 4. 22～25) ····· 481
〈상황도 6-7〉 서울 방어배치(1951. 4. 29) ····· 484
〈상황도 6-8) 매봉-한석산 전투(1951. 5. 7～10) ····· 489
〈상황도 6-9〉 설악산부근 전투(1951. 5. 7～11) ····· 491
〈상황도 6-10〉 중공군의 5월 공세(1951. 5. 16～22) ····· 497
〈상황도 6-11〉 중공군 5월 공세 작전계획 ····· 501
〈상황도 6-12〉 국군 제7사단 방어편성 ····· 520
〈상황도 6-13〉 중공군 제60사단 제178연대 제2대대의 종심기동 ····· 522
〈상황도 6-14〉 국군 제7사단의 철수 ····· 523
〈상황도 6-15〉 유엔군의 수정 방어선 ····· 531
〈상황도 6-16〉 국군 제9사단의 방어계획 ····· 533
〈상황도 6-17〉 국군 제3군단의 철수로 ····· 537
〈상황도 6-18〉 미 제2사단의 방어계획 ····· 541
〈상황도 6-19〉 미 제2사단 전투상황도 ····· 544
〈상황도 6-20〉 벙커고지 전투 ····· 546
〈상황도 6-21〉 유엔군의 반격 전환(1951. 5. 23) ····· 549
〈상황도 6-22〉 용문산 전투(1951. 5. 16～21) ····· 553
〈상황도 7-1〉 황해도 피난민 철수작전(1951. 1. 5～1. 31) ····· 614
〈상황도 7-2〉 제2차 인천상륙작전 ····· 624
〈상황도 7-3〉 영흥만 도서 확보작전 ····· 628
〈상황도 7-4〉 여도 상륙작전 ····· 629
〈상황도 7-5〉 원산만 근해 소해완료된 구역 ····· 642
〈상황도 7-6〉 해주만 근해 소해완료된 구역 ····· 643
〈상황도 7-7〉 장산곶 근해 소해완료된 구역 ····· 64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1 장 총 개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1 절	북한군 남침 이후 상황 요약
제 2 절	양측의 전쟁지도 및 작전개황
제 3 절	각 장별 수록 범위 및 내용

6·25전쟁은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적화통일을 위하여 기습적으로 불법 남침한 전쟁이며, 유엔군측과 공산군측이 1953년 7월 27일 휴전에 합의하기까지 3년 1개월 2일간 한반도에서 전개하였던 전쟁이다. 이 전쟁은 한반도의 분단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아픔을 남긴 채 종전이 아닌 정전 또는 휴전의 형태로 멈추어졌다.

6·25전쟁은 동족상잔인 동시에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이후 5년도 되기 전에 발생한 대규모의 무력 충돌로서 한반도는 물론 세계사의 흐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다.

6·25전쟁은 우선 남북한에 커다란 소용돌이를 몰고 왔다. 3년 1개월 동안 계속된 전쟁기간에 국군과 유엔군의 인원손실은 77만 6천여 명이나 되었고, 북한 및 중공군의 인원피해도 2백만여 명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전투원이 아닌 민간인의 피해도 남한 100만여 명, 북한 150만여 명 등 250만여 명이나 발생하였다. 이 숫자는 그 당시 남북한 전체 인구를 합한 2,500만여 명의 10%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였다. 여기에다 개인의 가옥과 재산은 물론, 미미한 수준에 있었던 국가기간산업시설과 공공시설마저도 송두리째 파괴되었으며, 이로 인한 재산 손실만도 320억 달러에 이르렀다. 또한 320만 명의 피난민과 30만 명의 전쟁미망인, 10만 명의 전쟁고아 등 사회적 기반을 뿌리 채 뒤흔드는 국가적 어려움이 초래되었다. 그 결과 남북한 간의 이질화는 심화되었고 체제경쟁 속에 통일의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지게 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 전쟁은 세계사적으로도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동북아 지역의 한반도에서 시작된 전쟁이 급기야 세계 6대주의 25개국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국제전으로 확대되었고 특히 동서 양대 진영의 중심축을 구성한 초강대국들이 이 전쟁에 모두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6·25전쟁은 1950년대의 세계사에서 동·서 냉전의 무대에 제물로 바쳐진 희생양과도 같은 것이었으며, 미·소를 중심으로 하는 냉전체제의 구축과 군비경쟁의 신호탄이 되었다. 또한 핵의 위협 속에 치른 제한적, 국지전적 성격 때문에 양 진영이 재래식 무기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6·25전쟁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평가는 정치적 입장이나 이념적 시각에 따라 다양한 편이다. 즉, “공산주의의 침략에 대응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전쟁이었다”라는 해석에서부터 “해방 이후 지속되어 온 한반도 내에서의 이념적 갈등의 연장선에서 빚어진 전쟁이다”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내전에 강대국이 개입한 전쟁이었다”라는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 의견을 종합해 볼 때, 6·25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소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세계공산화 책략의 일환으로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지원을 받아 ‘김일성이 일으킨 전쟁으로 국제전이면서 내전’이었다. 동시에 6·25전쟁은 동족상잔의 비극이었지만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무력남침을 저지함으로써 공산주의 국가들의 침략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수호한 전쟁이었고, 자유진영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과 유엔참전국들이 함께 공산주의의 팽창 확산을 저지한 ‘자유수호전쟁’이며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승리한 전쟁’이었다.

『6·25전쟁사 제8권 : 중공군의 총공세와 유엔군의 재반격』의 제1장 총 개요는 4개의 절로 구성했다. 먼저 제1절은 독자들이 1950년 12월 말부터 1951년 6월 초까지 진행된 중공군의 3차례에 걸친 총공세와 유엔군의 방어 및 재반격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950년 6월 25일, 전쟁 시작으로부터 중공군의 참전에 따라 유엔군이 38도선으로 철수한 1950년 말까지의 상황을 요약, 수록했다. 이어 제2절은 본 책자의 주요 내용인 중공군의 제3~제5차 공세와 유엔군의 재반격 상황(1950년 12월 31일~1951년 7월 9일까지)에 대한 요약으로 양측의 상황 및 작전개황에 이어 공산군 측과 유엔군 측의 작전의도와 작전수행 내용에 대해 수록했다. 마지막 제3절에서는 본 책자의 연구범위와 각 장별 수록 내용 및 참고자료에 대해 요약하여 수록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1 절 북한군 남침 이후 상황 요약

1. 북한군의 기습남침과 국군의 서울 피탈

북한군은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소련과 중국의 도움을 받아 38도선 전역에서 기습남침을 시작했다. 200여 대의 T-34전차를 앞세우고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국군의 방어선을 곳곳에서 돌파하였다.

다음날인 6월 26일 오후 13시경에는 서울의 관문인 의정부를 함락시켰다. 육탄공격으로 맞서는 국군의 방어선을 연이어 무너뜨리고 북한군의 선두부대가 6월 28일 01시경 미아리고개를 넘어서면서 국군은 수도 서울을 불과 3일 만에 북한군에게 내어 주고 말았다. 미아리 방어선 후방에 북한군 전차가 출현했다는 보고에 채병덕 총참모장이 한강교 폭파를 명령하여 국군 공병부대가 그날 02시 30분에 한강교를 폭파하였다. 때문에 한강 북쪽에 남아 있던 150만 서울시민을 북한군 치하에 방치하였을 뿐 아니라 미처 철수하지 못한 수많은 국군의 철수로를 차단함으로써 국군의 전투력을 크게 약화시켰다.

그러나 국군 제6사단은 춘천지역에서 북한군 제2군단의 남진을 저지함으로써 그들이 수원으로 진출하여 서울의 후방을 차단하려는 전략적 기도를 좌절시켰다. 또한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이 서울에서 지체하고 있는 사이 국군은 전선에서 삼삼오오로 철수해 오는 병력을 재편성해 한강방어선을 구축하는 한편,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6일 동안 북한군의 한강도하를 저지하였다. 이로써 미군을 주축으로 한 우방 국가들이 지원군을 파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유엔군의 참전과 지연전

유엔이 승인한 대한민국이 북한군의 기습공격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접한 미국 정부의 조치는 신속했다.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과 미국 정부는 지체 없이 참전을 결정했다. 그리고 미국의 요청으로 6월 26일, 긴급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군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38도선 북쪽으로 철수를 요구했다. 이어 28일, 유엔은 권고를 무시한 채 남침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군에 대해 군사적인 제재를 결정했다. 이를 위해 7월 7일 유엔은 역사상 최초로 유엔군을 창설하였다. 유엔의 결정에 따라 미국 등 자유우방국들은 유엔의 기치(旗幟) 아래 지원군을 파병하였다. 초대 유엔군사령관에는 미국의 극동군사령관 맥아더(Douglas A. MacArthur) 원수가 임명되었다. 당시 한국은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맥아더 원수는 국군을 지휘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이승만 대통령은 7월 14일, 맥아더 원수에게 서한을 보내 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했다.

그 사이 일본 동경에 위치해 있던 미국 극동군사령부는 남진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군을 저지하기 위해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24사단을 파병하였다. 그러나 전투 준비가 부족했던 미 제24사단은 오산·평택·천안전투에서 잇달아 패배했다. 국군과 유엔군은 계속해서 금강선을 연하는 선으로 후퇴해 북한군을 저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 제24사단은 압도적으로 우세한 북한군의 전력과 그들의 측방기동 및 후방차단 전술에 밀려 금강방어선을 지키지 못하고 물러섰다. 이어서 7월 20일에는 중부의 전략적 요충지인 대전을 북한군에게 피탈 당하고 사단장마저 실종되는 어려운 국면에 처하였다.

북한군의 공세는 거침이 없었다. 미 제8군사령부는 극동군사령부 명에 의거 7월 24일 일본에서 대구로 지휘소를 이전시키고 이어서 제25사단, 제1기병사단, 제29독립연대 등을 잇달아 한반도에 전개시켰으나 북한군의 남진을 소백산맥을 연하는 방어선에서도 저지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 하에서 국군과 유엔군은 공간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내어주면서 시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지연전을 펼치면서 유엔군의 증원을 보장하고 재편성에 의한 전열 재정비와 전투력 복원에 진력하였다. 마침내 7월 말에는 방어에 유리한 낙동강을 연하는 지역까지 철수했다.

그 무렵 국군과 유엔군이 확보하고 있던 지역은 경북지역 일부와 경남지역에 불과하였다. 이제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국군과 유엔군은 필사의 각오로 최후의 거점인 낙동강 교두보를 반드시 지켜내야만 했다.

3. 낙동강방어선전투

낙동강방어선은 마산-남지-왜관-낙정리-영덕으로 이어지는 방어선과 동해, 남해로 둘러싸인 직사각형 모양의 지역을 포괄하고 있었다. 유엔군은 대구 북서쪽 왜관으로부터 남쪽으로 낙동강을 따라 창녕-마산 진동리에 이르기까지 112km 구간을 담당하고, 왜관으로부터 북동쪽으로 낙정리-구미동-청송-영덕을 연하는 138km 구간을 국군이 담당했다. 이로써 국군과 유엔군은 6·25전쟁이 발발된 이후 처음으로 좌우가 완전하게 연결된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군의 공세는 매서웠다. 유엔군이 담당하는 마산·왜관 일대와 국군이 담당하는 다부동·기계·포항 일대의 지역에서는 운명을 건 쌍방 간의 공방전이 계속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9월이 되면서 양측의 전투력은 역전되기 시작했다. 미군을 주축으로 한 자유우방국의 지원병력이 속속 도착하면서 유엔군의 전투력이 급속히 향상된 것이 주 요인이었다. 국군의 전투력도 빠르게 향상되고 있었다. 반면 북한군은 가용한 거의 모든 전투력을 낙동강방어선 돌파에 투입했다. 그러나 북한군의 공세는 한계에 봉착하고 있었다. 전쟁 초기에 막강한 위용을 자랑했던 T-34전차도 겨우 100여 대가 남아있을 뿐이었다. 게다가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던 유엔공군의 끊임없는 후방차단으로 대부분의 보급을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해상보급도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는 유엔 해군에 의해 차단되었다.

그렇지만 전장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8월 말부터 시작된 북한군의 집요한 공격에 의해 낙동강방어선 곳곳이 돌파되고 있었다. 특히 유엔군이 담당하고 있던 대구 북쪽의 왜관·다부동 일대와 국군이 담당하고 있던 영천 일대의 상황은 심각했다. 북한군의 압력을 견디지 못한 미 제8군사령관 워커(Walton H. Walker) 장군은 방어선을 마산-밀양-울산을 연하는 선으로 철수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 유엔군이 인천상륙작전을 준비하고 있어 모든 역량을 낙동강방어선에 투입한 것은 아니었지만 최악의 상황인 것만은 확실했다. 객관적인 전투력으로 볼 때 결코 국군과 유엔군의 상대가 될 수 없었던 북한군이 그 같은 9월의 위기 상황을 만들어 낸 비결은 전장의 주도권을 북한군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4. 인천상륙작전과 38도선 회복

북한군은 1950년 8월부터 9월 중순까지 국군과 유엔군을 낙동강 이남지역으로 몰아붙이며 최후의 공세를 계속했다. 그러나 전반적인 전황은 국군과 유엔군에 유리하게 변화하고 있었다. 북한군은 유엔 해군과 공군의 후방차단으로 추가적인 증원과 보급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던 반면 국군과 유엔군의 경우 미국 본토로부터 막대한 장비 및 물자들과 함께 자유우방국들이 파병한 병력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사이에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원수는 전세를 결정적으로 역전시킬 반격작전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9월 15일을 기해 미 제10군단이 중심이 된 상륙부대를 인천에 상륙시켰다. 인천의 지형적 불리점 등 많은 제한요인과 관련된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맥아더 원수의 상륙작전 성공에 대한 신념은 확고했다. 그리고 인천상륙작전은 역사상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대승리를 거두었다. 이에 따라 낙동강 일대에 투입된 북한군 13개 사단의 주력은 후방이 차단되었다. 낙동강방어선의 국군과 유엔군이 반격에 나서자 그 사이에 갇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힌 북한군은 붕괴되었다. 남침 이후 국군과 유엔군을 연거푸 격파하며 기세등등했던 북한군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어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한 국군과 유엔군은 9월 말에는 38도선까지 진출하는 데 성공했다.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에서 반격을 시작한 지 불과 15일 만에 전선을 전쟁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켰고 이는 최초 유엔이 결의했던 전쟁목표를 달성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열망은 남과 북이 합쳐진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미국과 유엔 역시 북한군이 남침하기 이전부터 추구해 왔던 한반도 통일정부 수립의 기회를 포기할 수 없었다.

5. 38도선 돌파와 북진

1950년 10월 1일, 동해안 지역의 국군이 38도선을 돌파한 후 북진을 시작했다. 이어 유엔의 북진결의에 따라 10월 9일, 서부지역의 유엔군도 38도선을 돌파했다. 국군과 유엔군의 북진은 거침없이 진행되었다. 모든 역량을 낙동강 일대에 투입했던 북한군은 그들의 주력이 붕괴된 후부터 실질적인 저항의지와 능력을 상실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군과 유엔군의 북진작전은 10월 19일, 평양을 탈환하면서 절정에 달했다. 그리고 남은 과제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연하는 국경선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10월 21일, 평양 북쪽 순천에 도달한 국군 제6사단 제7연대 제2대대는 “이날 중으로 순천 북쪽 50㎞ 지점에 위치한 개천을 점령하라”는 명령을 수령했다. 명령을 접수한 대대장은 전 병력을 차량에 탑승시켜 전조등을 밝히고 개천으로 향했고 대대는 당일 중으로 개천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어 10월 26일에는 제6사단 제7연대가 초산 북쪽의 압록강까지 진출했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동부전선에서도 미 제7사단이 혜산진에, 미 제1해병사단이 장진호 일대에 그리고 국군 제1군단도 해안선을 따라 청진 일원까지 진출하고 있었다. 그러나

1950년 10월 25일 이후 중공군의 기습적인 제1·2차 공세가 감행됨에 따라 전쟁은 뜻하지 않은 전혀 새로운 상황으로 바뀌었다.

6. 중공군 참전과 유엔군의 철수

국군과 유엔군은 30만에 달하는 중공군의 출현으로 미처 방어태세를 갖출 겨를도 없이 철수하였다. 서부전선의 미 제8군은 12월 4일 평양에서 철수하였고, 12월 중순에는 38도선 북방까지, 12월 말에 이르러서는 임진강-연천-춘천 북방-양양을 연하는 38도선 부근까지 철수하여 방어선을 형성하고 중공군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1군단은 중공군에게 퇴로를 차단당하게 됨으로써 부득이 흥남으로 철수하여, 12월 14일부터 12월 24일 간에 부산으로 해상철수를 실시하였다. 당시 유엔군은 중공군의 공세가 강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38도선으로부터 낙동강 선까지 수개의 방어선을 계획한 다음, 적절한 시기에 반격으로 전환한다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청천강을 넘어 평양을 점령한 중공군 제13병단은 12월 하순 개성-철원 북방까지 진출하였다. 그리고 중공군 제9병단은 장진호-함흥 축선에서 미 제10군단의 병참선을 차단하고 미 제1해병사단을 포위하였으나, 이 미군 사단과의 전투에서 50% 이상의 많은 피해를 입게 되어 재편성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대신 북한군 제3, 제5군단과 제2전선부대인 제2군단이 동부전선으로 남하하여 38도선 북방에 전개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군은 국군 8개 사단과 미군 2개 사단을 38도선 방어를 위하여 배치하고, 국군 2개 사단과 미군 5개 사단을 평택-원주-삼척선에서 운용하기 위하여 예비로 확보하였다.

1950년 12월 하순 38도선 북방에 전개를 완료한 공산군은 12월 31일을 기해 제3차 공세인 38도선 돌파작전을 개시하였고, 국군과 유엔군은 공산군에게 다시 서울을 내어주고 사전에 계획된 방어선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2 절 양측의 전쟁지도 및 작전개황

1. 양측의 상황 및 작전개황

1950년 12월 31일 공산군은 주공을 철원-의정부-서울 축선으로 지향시키고, 화천-춘천-원주 축선에 조공을 지향시켜, 38도선을 돌파하기 위한 공격작전, 즉 제3차 공세를 개시하였다. 공산군은 이러한 공격에 앞서 북한군 제2군단의 부대들을 12월 20일경, 중동부 전선에 사전 침투시켜 국군과 유엔군의 후방을 교란하였다. 이로 인하여, 38도선을 방어 중이던 국군과 유엔군은 전방으로부터의 압력과 측후방의 위협으로 격전을 치르면서 다시 38도선에서 물러나게 되었으며, 1월 7일에는 37도선인 평택-삼척선으로 철수하여 새로운 방어선을 편성하였다.

한편 중공군은 남침을 계속하여 1월 7일에는 수원-여주-강릉 선까지 진출하는데 성공하였지만, 그동안에 입은 전력 손실로 인하여 더 이상 남진하지 못하고 방어로 전환하였다. 이와 같이, 중공군의 공격역량이 한계점에 다다른 것을 간파한 국군과 유엔군은 1951년 1월 25일을 기하여 일제히 반격작전을 개시하였다. 유엔군은 지역의 확보보다는 공산군부대의 격멸에 작전의 주안을 두고 축차적이며 협조된 작전을 전개하였다. 국군과 유엔군이 한강 남안-횡성 선에 이르렀을 때 다시 중공군의 제4차 공세(1951 2. 11~2. 18)가 전개되었고 이에 따라 공산군 측과 유엔군 측이 서로 맞부딪쳐 횡성 지평리, 원주 일대에서 한 차례의 공방전을 치렀으나, 국군과 유엔군은 공산군 측의 공세를 격파하고 진격을 계속하였다. 국군과 유엔군은 3월 15일을 기해, 1·4후퇴 이후 70일 만에 다시 서울을 탈환하였으며, 이 여세를 몰아 전진을 계속하여 3월 말에는 38도선을 또 다시 회복하였다. 이때, 유엔군은 38도선 방어에 유리한 지역으로서 일명 캔사스선으로 불리는 임진강-영평천-화천저수지-남애리를 연하는 요지를 점령하였고, 캔사스선을 발판으로 중부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에서는 와이오밍선으로 불리는 철원-금화로 다시 진격을 계속하였다. 이때, 중공군은 다섯 번째 공세가 되는 춘계공세를 개시하였다. 이 공세는 중공군이 6·25전쟁에 참전한 이후 최대병력을 동원한 마지막 공세이기도 하였다. 당시 중공군의 가용 병력은 3개 병단 11개 군 35개 사단 규모였다. 중공군은 이 병력과 북한군을 총동원하여 4월(4.22일~30일)과 5월(5.16일~22일) 두 차례에 걸쳐 인해전술로 총공세를 취하였다. 4월에는 서부전선(개성-화천)에, 5월에는 동부전선(양구-인제)에 공세를 집중시켰다. 국군과 유엔군 역시 가용전력을 총동원하여 사력을 다해 공산군의 공세에 대응하였고, 그 결과 공산군은 유엔군의 압도적인 화력에 큰 손실을 입고 구파발-홍천-하진부리-강릉을 연하는 선에서 공격을 저지당했다.

국군과 유엔군은 공산군의 대규모 춘계공세를 저지하는 데 성공하자, 곧 반격작전을 개시하여 5월 말에는 세 번째로 38도선을 회복하고, 6월 15일에는 문산-연천-철원-김화-화천-간성에 이르는 주요 지역을 점령한 다음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이 무렵 유엔군이 공격을 중단하고 방어선을 구축하게 된 이유는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전세가 유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전의 원래 상태에서 휴전을 모색하려는 미국의 정치적인 고려 때문이었다. 반면에 이 시기 중공군이 방어로 전환하게 된 이유는 춘계공세에서의 치명적인 인명손실 등으로 인하여 급격히 전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때부터 전선은 고착화되었으며, 전투는 국지전 형태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휴전협상에서의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심리적인 주도권을 쟁탈하기 위한 소모전만을 반복하게 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중공군의 의도 및 작전수행

1950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분석해 볼 때 제2차 공세에 투입되었던 중공군 제9병단은 장진호 전투에서 입은 손실로 인하여 함흥 부근에서 재편성 중에 있었으며, 38도선까지 진출한 제13병단도 2차에 걸친 동계공세에서 많은 손실을 입고

탄약을 비롯한 보급 부족에 직면해 있었다. 북한군 역시 아직 재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공군 지도부는 제3차 공세를 위한 작전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38도선 돌파 여부를 놓고 내부적으로 중국 정치지도부와 격론을 벌였으며, 제3차 공세를 완료한 시점부터는 38도선 이남으로의 진출 강행 여부를 놓고 북한 지도부 및 소련 군사고문단 등과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 중공군 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는 제2차 공세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인 1950년 12월 8일 마오쩌둥(毛澤東)에게 38선을 넘지 말고 충분히 준비를 한 후에 다음 해인 1951년 봄에 공세를 재개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 마오쩌둥은 제1, 제2차 공세의 결과를 높게 평가하여 한반도에서 미군을 축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까지 판단하고 있었다. 따라서 마오쩌둥은 "이번 기회는 아군이 대거 적을 섬멸해 조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매우 좋은 기회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작전목표를 확대하여 38도선을 돌파하고 서울을 점령할 것을 결심하였다. 이 무렵 김일성도 12월 하순에 당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세를 위한 작전방침을 하달하였다. 그는 "적이 38도선 방어를 강화하기 전에 전선동부의 산악지형을 이용하여 적 방어가 약한 전투지경선 부근으로 침투한 후 후방에 강력한 제2전선을 깊숙이 형성하고, 중서부전선의 중공군이 주저항선을 돌파하면 이들과 연결작전을 실시하여 포위망을 구축한 후 적을 섬멸하라"고 강조하였다. 제3차 공세가 종료된 직후 펑더화이는 "1951년 1월 8일까지 아군은 이미 적군을 37도선 부근의 평택-안성-제천-삼척선까지 축출하였다. 적군은 계획적으로 철수작전을 실시해서 아군을 깊숙한 곳까지 유인한 후 아군 측후방에 상륙작전을 실시하려는 기도이며--(중략)--아군은 추격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산군은 유엔군이 반격작전을 전개하자 곧이어 제4차 공세를 개시하였다. 공산군은 서부전선에서는 일부 부대로 유엔군의 전진을 견제하고 일부는 한강 남안에 교두보를 확보하는 한편, 주력을 동부전선에 집결시켜 유엔군을 종심 깊이 유인한 다음 공세로 전환한다는 전략적 기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공세를 실시한 공산군은 동부전선에서 진행된 국군과 유엔군의 근접항공지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엄호 하의 축차적인 지연작전과 지평리 고립방어 전투에서 막대한 인명 손실을 입었다. 그 결과 공산군은 수적인 우세를 이용한 작전목표 달성이 저지되었고 심리적인 타격을 받아 사기가 급격히 저하되어 공격개시 1주일 만에 공세작전을 종료하고 북으로 철수하였다.

유엔군이 38도선 북쪽으로 반격작전을 펼치는 동안 중공군은 제4차 공세의 참패로 실추된 위신을 만회하고 다시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할 목적으로 지휘체계를 정비하면서 새로운 대규모 공세작전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공산군은 서부지역의 문산 축선과 중동부 전선의 사창리 일대에서 부분적으로 국군과 유엔군의 방어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하기도 하였지만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국군과 유엔군의 압도적인 전력에 밀려 큰 피해를 입고 공세를 중단하였다.

공산군의 지휘부는 4월 말경 국군이 담당하고 있는 중동부전선이 돌출되자 국군에게 대규모 타격을 가하여 4월 공세 시에 당했던 참패를 설욕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군을 고립시키고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5월 공세를 펼치기로 하였다.

5월 공세시 공산군은 현리일대에서 방어중이던 국군 4개 사단을 양익포위로 섬멸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웠다. 이에 제9병단을 주공으로 좌익(양구-인제)에서 상남리-속사리, 한계-풍암리로 우회시키고, 북한군 제2, 제5군단을 우익으로 현리 동쪽과 속사리 방향으로 기동시킴으로써 다중의 양익 포위망을 형성하기로 하였다. 공산군은 6·25전쟁에 중공군이 참전한 이래 최대 규모의 병력을 동원하여 중동부전선의 속사리-하진부리선까지 돌파구를 확장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유엔군의 우세한 화력에 압도당하여 더 이상 진출하지 못한 채 심대한 인적, 물적 손실을 입고 다시 38도선 이북으로 물러났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 국군과 유엔군의 의도 및 작전수행

국군과 유엔군은 중공군의 제1·2차 공세로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자

전쟁지도 방향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했다. 유엔군은 1950년 말 공산군의 제3차 공세로 인해 38도선까지 밀리게 됨으로써 이제 '철군이냐, 확전이냐' 하는 전략적 선택을 해야만 했고, 아울러 한국정부의 제주도 이전 계획을 수립하는 등 향후 대응전략 마련에 부심하였다. 이때 미국은 중공의 참전에 대한 대응전략의 하나로 핵무기 사용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였고, 이는 즉각적인 국제적 반향을 일으켰으며, 특히 영국 수상의 워싱턴 방문으로 연결되었다. 미·영 영수회담 결과 유엔군의 작전방침은 대체로 전전상태인 38도선을 기준으로 전쟁을 종결짓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러한 방향은 한국정부의 정책과는 다른 것이었다. 당시 유엔에서 활동 중인 임병직 외무장관은 휴전 무드가 조성되는 것을 간파하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유엔 참전국들의 분위기를 보고했고, 이 대통령은 장 대사에게 이 문제와 관련된 대미 교섭을 수차례 지시하였다.

한편 국군과 유엔군이 서울에서 철수하였지만, 미 제8군사령관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장군은 미 합참에 "중공군의 신정공세로 아군이 잠시 어려운 상황에 처하긴 하였으나 미군은 아직 중공군을 대적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방어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였다. 이에 따라 공산군이 제3차 공세를 멈추고 추격을 중단하자 유엔군은 1951년 1월 하순부터 접적을 유지한 가운데 적정을 파악하기 위해 방어선 전방으로 정찰대를 파견하여 울프하운드 작전(Opration Wolfhound)을 전개하였고, 곧이어 라운드업 작전(Operation Roundup)을 전개해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후 국군과 유엔군의 계속된 진격에 대응하여 공산군이 제4차 공세, 일명 구정공세 또는 2월 공세를 감행하였으나 지평리전투에서 심대한 피해를 입고 철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 합참은 1951년 3월 15일에 "한국문제를 정치와 군사 두 노선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해결하되, 정치적으로는 통일독립국가를 이룩하고 군사적으로는 침략을 격퇴하고 평화를 회복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이때 유엔군의 우선적 관심은 공산군의 공세준비가 명백해 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양호한 방어진지를 구축 할 수 있는 중요지형을 점령하는 것에 있었다. 이에 따라 국군과 유엔군은 임진강 남쪽 제방을 연하여 동쪽으로 뻗어 화천저수지로 연결된 후 동해안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의 양양으로 이어지는 캔사스(Kansas)선을 진출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38도선으로 진출한 부대가 이 선으로 진격하는 요철작전(Operation Rugged)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국군과 유엔군은 계속해서 다음 단계 목표를 미 제1군단과 제9군단이 철의 삼각지대를 통제하는데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곡-철원-김화-화천저수지를 잇는 와이오밍(Wyoming)선을 설정, 철원-김화를 연하는 지역까지 공격하는 불굴작전(Operation Dauntless)을 펼쳤다.

한편 유엔에서는 유엔군의 반격작전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자 그동안 거론되었던 철군문제 논의를 일단락하고 다시 휴전에 관한 전쟁지도 전략을 다각도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영국을 비롯한 대다수 유엔 회원국들은 군사력으로 38도선을 넘기 전에 평화적인 협상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었다. 이 무렵 국군과 유엔군은 중공군의 제5차 공세로 인해 방어진지 일부가 돌파되어 30~65km를 물러나는 위기에 봉착했으나, 강력한 화력과 기동력을 이용하여 공산군의 공세를 저지하고 반격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이때 특히 국군이 용문산과 대관령에서, 그리고 미군이 벙커고지와 운두령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쟁취하였다. 공산군의 제5차 공세를 격퇴한 후 유엔군 지도부는 차후 작전방침을 더욱 활발하게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 5월 17일에 최종 전쟁전략(NSC 48-5)을 확정하였다. 이때 채택된 전략의 핵심 내용은 작전의 목표를 군사와 정치 둘로 구분하며, 한반도 통일 문제는 군사적 수단과는 별도로 정치적 수단에 의거 계속 추구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책과 전략에 따라 6·25전쟁은 개전 1년 만에 전선이 교착되었고, 교착된 전선에서의 열전과 협상 테이블에서의 설전이 교차하는 새로운 양상의 전쟁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3 절 각 장별 수록 범위 및 내용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지난 1971년에 시작하여 1980년까지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한국전쟁사』전 11권과 1995년에서 1997년 사이에 국방군사연구소에서 발간한『한국전쟁』(상·중·하)를 기초로 공산권 붕괴 이후 새롭게 밝혀진 중국 및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권의 자료와 추가로 비밀 해제된 미국의 자료 등을 활용하여 6·25전쟁을 재조명하는 '6·25전쟁사 전 11권 연구편찬사업'을 지난 2003년에 시작하여 2013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이번에 발간되는『6·25전쟁사 제8권 : 중공군의 총공세와 유엔군의 재반격』은『6·25전쟁사 제7권 : 중공군 참전과 유엔군의 철수』에 이어 중공군의 제3차 공세가 개시된 시점인 1950년 12월 31일부터 중공군의 제5차 공세가 유엔군 측에 의해 저지되고 국군과 유엔군의 재반격으로 전선이 전전상태로 회귀한 1951년 7월 9일까지의 전쟁 및 작전상황에 대해 기존의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1990년대 이후에 공개된 미국, 소련, 중국, 북한 등의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심층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기술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 책에는 먼저 해당 기간 중에 이루어진 공산군 측과 유엔군 측의 전략적 의도 및 전쟁지도 내용에 대해 수록했다. 그리고 중공군의 제3차 공세와 1·4후퇴, 유엔군의 위력수색정찰과 반격작전, 중공군의 제4차 공세와 유엔군의 방어 작전, 중공군의 제5차 공세와 유엔군의 방어에 이은 반격작전 전환 등에 대해 양측의 작전기도 및 작전 목표, 작전 내용 등에 초점을 맞추어 상세하게 기술했다. 아울러 해군 및 공군작전에 대해서도 심층 깊게 연구하여 별도의 장에 수록하였다. 각 장별 수록 내용 및 참고자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장 "유엔군과 공산군의 전쟁지도"는 유엔군의 전쟁정책과 신전략, 유엔군

내부와 한미 정부의 정책 갈등, 중공의 작전방침과 이를 둘러싼 북한과 중국 간의 갈등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해 수록했다. 주요 내용 중 유엔군의 전쟁지도에 관해서는 미국의 외교문서(FRUS)와 국가안전보장회(NSC) 자료 등을 활용하여 새롭게 기술하였고, 공산군의 전쟁지도 내용은 구 소련의 『한국전쟁 관련 비밀외교문서』와 중국의 공간사인『抗美援朝戰爭史』등의 자료를 토대로 새롭게 기술했다.

제3장 "중공군의 제3차 공세와 1·4후퇴"는 조·중연합사령부의 작전방침, 유엔군사령부의 작전방침과 신방어선 편성, 임진강 및 동두천 부근 전투, 서울 철수작전, 춘천·원주·현리 부근 전투 상황과 1·4후퇴 상황, 그리고 한국정부의 전시조치, 피란민 상황 등에 대해 분석하여 수록했다. 관련 자료로는 기존의 한국전쟁사 제5권(1972) 제38장 "제2차 38도선 방수작전"을 기초로 최근 공개된 유엔군사령부의 작전보고서와 CIA보고서를 비롯한 미국자료, 구소련의 외교정책과 관련된 미밀문서 및 군사고문단 보고서 그리고 중국 측 자료인『抗美援朝戰爭史』,『彭德懷自述』,『毛澤東軍事文選』등을 분석하여 활용하였다.

제4장 "유엔군의 재반격과 중공군의 제4차 공세"는 기존의 한국전쟁사 제5권(1972) 제39장 "동부지구 반격작전"과 제40장 "중서부지구 반격작전"을 기초로 새롭게 발굴된 자료를 종합해 수록했다. 특히 최근 공개된 중국측 자료를 참고해 공산군측과 유엔군측의 부대 편성과 지휘관 인적사항을 추가했으며, 중공군 제3차 공세 직후 유엔군의 정찰과 반격상황 등을 새롭게 보완하였다. 아울러 전선별 전투 내용은 유엔군사령부 및 미 제8군사령부의 작전보고서(Operation Repts),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보고서 및 소련군 총참모부의 전투일지 그리고 중국의『抗美援朝戰爭史』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수정 보완했다.

제5장 "유엔군의 38도선 확보와 후방지역작전"은 기간 중 진행된 주요 작전의 경과와 함께 후방지역에서의 대비정규전 활동 및 북한지역에서의 유격대 활동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등을 새롭게 정리하였다. 참고자료는 기존의 한국전쟁사(1972) 제5권 제38장 "제2차 38도선 방수작전"과 제40장 "중서부지구 반격작전"을 기초로 육군본부의 『육군역사일지 : 전투상보』, 미 제8군사령부의 작전보고서(Operation Repts),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보고서 및 소련군 총참모부의 전투일지 그리고 중국의 『抗美援朝戰爭史』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수정 보완했다. 특히 북한유격대 관련 내용은 『북한군 빨치산 자료집』과 미 제10군단 작전보고서 등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제6장 "중공군 제5차 공세와 유엔군의 반격"은 기존의 한국전쟁사(1972) 제6권 제43장 "제1차 춘계 공방전" 및 제44장 "제2차 춘계 공방전"과 국방군사연구소에서 발간한 한국전쟁(1996) 중권 제6장 "공산군의 춘계공세"를 기초로 유엔군 작전보고서와 중국 측 자료인 『抗美援朝戰爭史』, 일본에서 발간된 『일본의 6·25전쟁연구』 등을 활용하여 두 차례의 공세 및 주요 국면별 작전내용을 비롯한 기존의 춘계공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 보완했다. 특히 중공군의 5월 공세에 대해서는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육군군사연구소에서 심층 깊게 연구하여 수차례의 검증과정을 거침으로써 신뢰도를 인정받은 『현리-한계 전투』(2009)를 중점적으로 활용하여 공세 전반과 현리-한계 전투의 성격에 대해 새롭게 규명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7장 "해군작전"은 해당 기간 중에 진행된 해상봉쇄작전, 원산항 포위작전, 항공차단작전, 전략도서 확보작전, 소해작전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수록하였다. 연구를 실시하면서 기존의 한국전쟁사 제5권(1972) 제38장 "제2차 38도선 방수작전", 제39장 "동부지구 반격작전", 그리고 제40장 "중서부지구 반격작전"을 기초로 새롭게 발굴된 자료들을 활용하였으며, 특히 『미 해군 한국전 참전사(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 Korea)』를 비롯한 미 해군자료와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등 구 소련자료를 집중적으로 활용하여 주요 내용을 수정 보완했다.

제8장 "공군작전"은 해당 작전기간 중에 이루어진 국군과 유엔 공군의 지상작전 지원 활동과 함께 소련 및 북한 공군의 작전 유형별 비행활동과 중공 공군의 참전준비 활동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여 수록했다. 이때 참고자료로는 기존의 한국전쟁사 제5권(1972) 제39장 "동부지구 반격작전"과 제40장 "중서부지구 반격작전"을 기초로 새롭게 발굴된 '일일 정보상황보고서'를 비롯한 미 공군의 6·25전쟁 관련 보고서를 활용하였다. 아울러 공산군측 자료인 라주바예프보고서, 제64비행군단 활동보고서 등 최근 공개된 구 소련 문서와 중국 측 자료인 항미원조전쟁사, 홍쉐즈(洪學知) 회고록 등을 활용하였다.

제9장 "총평"은 제2장~제8장에 수록된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한 다음 분석 및 평가결과 도출된 교훈적인 요소를 정리하여 수록했다.

참고로 이번『6·25전쟁사 제8권 : 중공군의 총공세와 유엔군의 재반격』에서는 전체적으로는 중공군의 제3차 공세가 개시된 시점인 1950년 12월 31일부터 중공군의 제5차 공세가 유엔군 측에 의해 저지되고 국군과 유엔군의 재반격으로 전선이 전전상태로 회귀한 1951년 7월 9일 까지의 전쟁 및 작전상황에 대해 기술하였다. 그러나 물리적인 지면의 한계로 인해 유엔군의 반격작전이 개시된 1951년 5월 20일 이후의 구체적인 작전상황에 대해서는『6·25전쟁사 제9권 : 휴전회담 개시와 고지 쟁탈전』에서 기술할 예정임을 밝혀둔다.

(집필 : 김상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2 장 유엔군과 공산군의 전쟁지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1 절	국내외 정세
제 2 절	공산군의 전쟁지도
제 3 절	유엔군과 한국정부의 전쟁지도
제 4 절	분석 및 교훈

제 1 절 국내외 정세

1. 국제 정세의 추이

1) 유엔 참전국의 동향

1950년 말에 접어들면서 미국은 당시 6·25전쟁에 참전 중인 14개국 외에 다른 유엔회원국들의 참전을 확대시킬 필요성을 절감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1] 1951년 2월 23일 미 국무장관 애치슨(Dean G. Acheson)은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로부터 각각 1개 대대 규모씩 증원하기 위해 접촉 중이며, 캐나다에는 최초 제의했던 여단급 규모대로 파병인원을 요구할 것임을 국방부에 통보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나 터키에게도 자발적인 파견을 장려할 것이며, 이미 파병을 제의한 바 있는 우루과이, 에티오피아, 쿠바와도 군사기술적인 지원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하였다.[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러한 미국의 증원 노력에 의거 2월 8일 아르헨티나 정부가 차관에 의한 미국 항공기의 공급조건으로 2개 대대 파병을 고려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에 통보하였다. 당시 미국은 상당한 군사적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파병은 명목상의 전술적 가치 이상으로 다른 남아메리카 국가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이후에 아무런 추가적인 조치가 없었다.

반면 캐나다 정부는 2월 21일 지원부대를 갖춘 2개 대대를 추가로 파병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했다. 그리고 노르웨이 정부도 3월 9일 유엔 사무총장에게 1개 야전병원의 파병 의사를 통보하였고, 이들은 5월 25일까지는 파병준비를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 국방부는 3월 31일 국무부에 유엔회원국의 더 많은 참



캐나다군의 참전준비 모습

가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이는 미군으로 하여금 휴식을 취하고 재정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전략적 지역에 부대를 재배치할 수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상징적인 지원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은 추가 파병이 가능한 상황이며, 몇몇 남아메리카, 특히 브라질과 멕시코도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 국무부는 미 합동참모본부가 타이완 등 특별히 참전을 배제시킨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하여 참전 가능성을 검토하였지만, 더 이상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국방부로 통보하였다.

이때 영국은 서유럽의 안보를 우선시 하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유엔 회원국들의 추가적인 지원을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오스트레일리아는 4월 28일 총선 이후에야 논의가 가능하였으며, 뉴질랜드는 파병에 앞서 다른 영 연방국들과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캐나다도 현재 파병준비 중인 부대 외는 추가 증원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리고 터키는 미국의 충분한 안보 공약을, 그리스는 추가적인 재정원조를 제공한다면 파병 가능성이 있었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은 중동지역의 악화로, 파키스탄은 카슈미르 분쟁으로 제외되었고, 필리핀 또한 국내 치안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남아메리카 지역에서도 외무장관 회의에 파병문제가 거론되었으나 브라질 사단과 페루 연대전투단의 요청은 더 많은 토의가 필요하였다. 그리고 볼리비아, 칠레 및 우루과이는 파병 문제를 고려하기로 동의하였으나 멕시코는 파병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3] 이와 같이 유엔과 미국은 유엔회원국들의 참전 확대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유엔 의료지원국 도착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1951년 4월 말까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한편 1950년 12월에 접어들면서 유엔 회원국들 중 많은 서방국가들이 미국의 전쟁수행 정책에 대해 회의를 갖거나 비판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었다. 서방국가들은 자신들의 직접적인 국가이익인 유럽안보를 위해 유엔에서의 발언권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소련대표의 복귀로 인해 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서방국가들은 미국이 가장 어려운 시기와 조건에서 서유럽 국가들을 극동의 전쟁에 개입시키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의 입장은 6·25전쟁을 중국지역 등으로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한반도로 국지화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군사작전을 충실히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영국은 6·25전쟁에서 서방국가들이 중국과의 전쟁에 휩싸여 군사력을 분산시키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련을 유리하게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4] 심지어 영국의 여론은 전쟁을 평화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을 유엔에 가입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시켜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이었다. 이들은 영국정부가 유엔 결의를 존중하여 한국에서 공산군의 침략을 격퇴하는 데는 찬성하지만, 공산 측에 대해 그 이상의 적극적인 강경책은 반대하는 분위기였다.

이에 영국의 애틀리(Clement Attlee) 수상은 한국이 전략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극동에 과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고, 가능한 중국정부와 직접 접촉해 중국의 위기감을 해소시켜 줄 방안을 강구하기도 했다.[5] 그는 미국 정부가 영국의 입장과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으며, 유엔군이 만주지역에 대해 군사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한다고 강조하였다.

영국을 포함한 많은 유엔 참전국들은 유엔의 역할이 바로 한반도 평화와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라 강조하고, 현재 국경지역이 한국과 중국 양측의 정당한 상호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무렵 유엔에서는 중국정부와의 물밑 협상을 추진하고 있었다. 유엔이 중국과 협상을 진행시킬 수 있었던 것은 유엔 폴란드 대표의 의견에 의한 것이었다. 폴란드 대표는 유엔에서 "압록강 이남지역 60km 깊이의 완충지대를 북한이 통치하고 미 제7함대가 타이완 해협에서 철수하여 장제스(蔣介石)에 대한 군사물자 지원을 종료한다면, 중국이 한국으로부터의 군대철수를 논의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6]

서방국가들은 중국과 전쟁을 피하느냐, 아니면 서유럽 안보를 보장받기 위해 한반도에서 미국의 정책을 지지해야 하느냐의 정책적 판단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다. 영국의 베빈(Ernest Bevin) 외상도 한국문제에 더욱 깊이 개입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소련 등 공산주의자들에게 더욱 유리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거듭 경고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유엔의 평화제의와 공산 측의 반응

(1) 유엔의 휴전 논의

유엔에서는 중공군 참전 무렵부터 전쟁이 확대되지 않도록 몇몇 회원의 국가대표들이 노력하고 있었다. 그 후 1950년 12월 5일 인도를 중심으로 아시아-아랍위원회 13개국이 중국과 북한 당국에 38도선을 넘지 않도록 요청했고, 38도선에서의 휴전에 관한 쌍방의 의사를 타진하였다.[7] 이에 대해 미국과 영국은 동의하였으나 중국과 북한에서는 직접적인 반응이 없었다.

당시 작전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공산군은 유엔의 제안 이상으로 큰 정치적 목표 달성을 기대하고 있었다. 공산군의 입장은 유엔 중국 특별대표 우수츄안(伍修權)을 통해 드러났다. 즉, 유엔 사무총장 트리그브 리(Trygvy Lie)와 인도, 영국, 스웨덴 대표 등이 유엔에 머물고 있던 중국 특별 대표에게 군사행동 중지 조건을 타진하였고, 중국정부가 그 조건을 제시해 왔던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정부는 유엔을 제한적이나마 대화 창구로 활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중국은 "유엔이 평화를 파괴하는 침략자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비난했지만 타이완문제 토의를 위해서는 유엔의 초청을 받아들인 바 있었다. 그들은 자국의 참여 없는 유엔은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을 것이라 비난하면서 특별대표를 유엔에 파병해놓고 있었다.[8]

중국 특별대표의 보고를 받은 외상 저우언라이(周恩來)는 유엔의 문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정치적 조건을 제시하였다. 그는 중국 특별대표에게 하달할 지침서에 「한국에서의 군사행동의 중지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즉, 1) 한국으로부터 모든 외국군의 철수, 2) 타이완해협과 타이완지역으로부터 미군 철수, 3) 한국문제의 한국민족에 의한 해결, 4) 중국대표의 유엔 참가와 타이완 정부의 유엔 탈퇴, 5) 일본과의 평화협정 준비를 위한 4대 강국 외무장관 회의 소집 등이었다.[9] 이는 전쟁 이전부터 중국이 주장하던 요구사항을 모두 포함시킨 극동정치에 관한 조건이었다.

이에 앞서 저우언라이는 동년 12월 7일에 주중 소련 대사 로신(N. V. Roschin)을 통해 중국의 조건을 소련 정부에 문의하면서 신속한 답변을 요청하였으며, 당일 스탈린(Joseph V. Stalin)으로부터 답신을 받았다. 즉, 스탈린은 "우리는 한국에서의 군사행동 중지에 관하여 귀하가 제시한 조건들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우리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유엔의 전쟁중지와 평화를 위한 결의(1950년 12월)

이 조건들이 완전히 충족되지 않는 한 군사행동은 중지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미국의 첩자국이라 할 수 있는 세 국가의 대표들에게 지나치게 솔직하거나 우리의 계획을 미리 보여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중략) 더욱이 중국의 5개 조건은 미국에 의해 유엔에 대한 모욕으로 해석,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게 그러한 빌미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10]라고 회신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우수츄안 등 중국의 대표들

그는 이어 다음과 같은 중국의 대처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첫째, 중국정부도 영국・인도・스웨덴 대표 등

귀측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의 군사행동이 신속히 종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중국은 중국과 한국에 강요된 군사행동을 신속히 종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둘째, 중국정부는 평화 조건에 관한 유엔과 미국의 입장을 알기를 원하고 있고, 귀국이 유엔이나 미국과는 달리 평화조건에 관하여 이야기할 권리를 위임받지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셋째, 중국정부는 한국에서의 군사행동 중지조건에 대한 유엔과 미국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등이었다.[11]

이와 같이 유엔의 의사타진에 관한 중국의 반응은 실질적으로 공산군 측의 전쟁지도를 주도하고 있었던 소련에 의해 포장되어 나타났으나, 어쨌든 그 조건은 실제 유엔군 측이 수용할 수 없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었다. 중국의 전략 목표는, 이미 1950년 12월 4일에 펑더화이(彭德懷)에게 전달한 '조선전쟁의 전개방향에 대한 마오쩌둥(毛澤東)의 견해와 의견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엔군의 축출에 있었고 휴전도 이 목표 달성을 전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38도선에서 휴전을 모색하려는 유엔의 제안 내용과는 거리가 멀었다.

즉, 마오쩌둥은 "적군은 정전을 요구할 것이다. 이때 미 제국주의는 조선에서의 철수를 반드시 인정해야 하는데, 우선은 38도선 이남까지 철수해야만 우리는 정전회담에 응할 수가 있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평양을 수중에 넣을 뿐만 아니라 서울도 수복하는 것이며, 중요한 것은 적을 섬멸하는 것이다. 먼저 남조선군을 섬멸시켜야 미 제국주의 철수를 촉진시키는 데에 더욱 큰 힘이 될 것이다"[12]라고 하여 내부적으로 유엔 측의 제안을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유엔 3인위원회의 휴전안 제의

공산측이 유엔의 휴전안을 거부하였으나, 유엔 내 아시아-아랍위원회는 유엔에서 공산측을 이해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였다. 이 위원회는 1950년 12월 12일 다시 정식으로 휴전에 중점을 둔 결의안을 유엔 총회에 제출하였다. 그것은 한국의 휴전을 주선할 3인위원회 설치(이란, 캐나다, 인도 등)와 평화회의 개최 요구 등 2개의 결의안이었다. 다음날 총회에서 3인위원회 설치안만이 채택되었지만, 그것으로써 유엔은 '선휴전 후교섭' 원칙을 확인하였다.[13]

3인위원회 설치안과 평화회의 개최 요구안은 무조건 휴전을 주장하는 미국의 주장을 충족시키면서 중국에게는 보다 광범한 아시아 문제에 대한 고려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확신시켜 양측을 만족시키기 위한 방안이었다. 이중 휴전 결의안은 총회의장인 이란의 엔테잠(Nasrollah Entezam)을 위원장으로 하고 캐나다의 피어슨(Pierson)과 인도의 라우(Benegal Rau) 대표를 포함한 3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위원회가 한국 내에서 만족할 만한 휴전이 이루어질 기준을 결정하고 가능한 한 조속히 총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14]

평화회의 개최 요구안은 비록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지 못했지만 한국에서의 적대행위 정지와 정전 경계선을 설정한 후 7개 국(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이집트, 인도, 중국 등) 평화회담 개최를 요구한 것이었다.

한편 미국은 3인위원회가 결의안을 총회에 상정한 동년 12월 11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내부적으로 휴전을 고려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휴전조건을 논의하였다. 그것은 "유엔군에게 군사적 불이익을 부과하지 않고 정치적 양보를 내포하지 않아야 하며, 휴전에 관한 세부사항은 유엔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휴전을 수락하기 전에 협상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구체화되었다.[15]



유엔 3인위원회 대표들(좌로부터 피어슨, 엔테잠, 라우)

이때 미국의 입장과 조건은 38선을 휴전의 조건으로 하고 휴전을 위해 다른 문제가 전제조건이 되어서는 안 되도록 '선휴전 후교섭'이라는 원칙을 유엔의 정전안에 포함시키는 것이었다. 이는 사실상 유엔의 새 전쟁지도 지침으로서 휴전 정책이 확정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때부터 미 합참도 처음으로 휴전에 관한 군사적 조건을 정식으로 검토하여

동년 12월 13일 「NSC 95」로 회람하였다.[16] 국무부가 이를 간략히 정리하여 동월 15일 유엔 3인위원회의 요청에 부응하는 형태로 휴전조건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전 한반도에서 정전, 38선 부근을 남방경계선으로 한 20마일 폭의 비무장지대 설치, 부대 병력의 보강과 교대 및 장비 물자의 보충 금지, 전 한반도에 접근 가능한 유엔 정전감시위원회의 설치, 일대일 원칙으로 포로교환, 유엔총회가 정전협정을 확인하여 유엔이 조치를 결정하기까지 협정은 유효하다는 것 등을 포함하는 총 8개 항목이었다.[17]

유엔 총회의 결의에 따라 활동에 들어간 유엔 3인위원회(이란, 캐나다, 인도 등)는 휴전조건에 관한 미국의 조건을 받아내었다. 이어 중국정부에게는 휴전이 이루어지면 곧바로 아시아-아랍위원회가 마련한 세부계획에 따라 정치협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이해시키면서 협조를 요청하였다. 즉, 한국 전역에서의 군사행동 중지, 38도선에 약 20마일의 비무장지대 설치, 모든 부대는 비무장지대 후방으로 철수, 유엔이 휴전조건 이행을 감시, 모든 병력 및 부대의 교대 또는 증원을 즉시 중지, 포로는 1 : 1의 비율로 교환, 군대의 안전보장, 피난민의 이동, 비무장지대의 통제 등 제반문제의 처리규정 작성 등이었다.

(3) 공산 측의 유엔제의 거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50년 12월 21일 중국은 자국의 참여 없이 취해진 유엔의 모든 결의는 불법이라는 이유로 3인위원회의 제의도 거절하였다.[18] 중국 내부 자료에 의하면, 당시 중국의 반응은 매우 복잡했음을 알 수 있다. 조·중연합군사령관 펑더화이는 중공군이 계속 38선 이남으로 진격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하고 미군이 한반도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북한 측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지어 저우언라이에게 전보를 보내 유엔의 3인위원회의 정전협정 대안을 거절하는 것에 반대했다.[19] 그러나 마오쩌둥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진격을 정지하고 군대를 휴식시키자는 현지 지휘관의 주장을 지지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38선 이남으로 진공하도록 명령하였다.

중국의 휴전거부 의사는 12월 23일에 수신된 저우언라이의 전문에 의해 재확인

되었다. 그 내용은 중국이 유엔결정에 참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엔 3인위원회 결정은 무효이며, '선휴전 후교섭' 방식은 유엔군의 정비여유를 확보하기 위한 미국의 계략이라고 비난하였다.

저우언라이는 "38선 분계선은 유엔군의 북한 영토 침범에 의해 영원히 무효가 되었고, 또 중국은 휴전문제를 극동지역 정세와 분리시켜 고려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는 이어 "한국에서 외국군의 철수, 한국국민 스스로에 의한 한국문제의 해결, 타이완에서 미군의 철수, 그리고 중공대표의 유엔에서의 합법적 지위 승인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요구하였다.[20] 이는 12월 7일에 중·소간에 합의된 내용을 표명한 것으로서 당시의 유엔 3인위원회의 평화 노력에 종말을 고하는 것이었다.

유엔의 휴전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중공군과 북한군이 1950년 12월 31일 38선을 넘어 공격하자, 유엔 3인위원회는 이 시점에서 휴전과 관련한 어떠한 논의나 건의도 무용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 의견을 유엔총회에 보고하였다. 미국은 종래의 7개국 결의에 대신할 새로운 침략자결의 채택을 결단하고 외교적인 압력행사를 전개한다는 방향으로 진행시켰다.[21] 그러나 7개 결의국과 인도, 캐나다가 협상의 가능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므로 미국은 중국의 의향을 확인하기 위해 침략자 결의안 제출을 일시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22]

유엔 3인위원회는 중공군의 신정공세가 끝난 후 1951년 1월 11일 북경의 요구사항 중 일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평화계획안을 작성하여 다음의 5단계를 거쳐 극동의 평화를 수립하도록 다시 제안하였다. 이 5단계 평화안의 핵심은 1) 한국전쟁의 즉각 휴전, 2) 평화를 촉진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모색, 3) 한국으로부터 군사력의 철수와 더불어 한국국민이 자신들의 정부에 관한 희망을 표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장치 마련, 4) 한국의 통일 및 그곳의 평화와 안전보장의 유지를 위한 잠정협정 체결, 5) 극동문제, 타이완의 지위, 중국의 유엔 대표권을 포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영국·소련·중국 대표를 포함한 적절한 기구의 설치 등이었다.[23]

이것은 극동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 3인위원회에서 작성한 문서를 최종적으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미국이 받아들인 것이었다. 정치문제를 포함하는 유엔의 5단계 평화안을 지지하는 것은 미국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단이었다.[24] 이 제안은 1951년 1월 13일, 미국이 지지하고 소련이 반대하는 가운데 유엔 정치위원회와 그 후 총회를 통과하였고 중국정부에 통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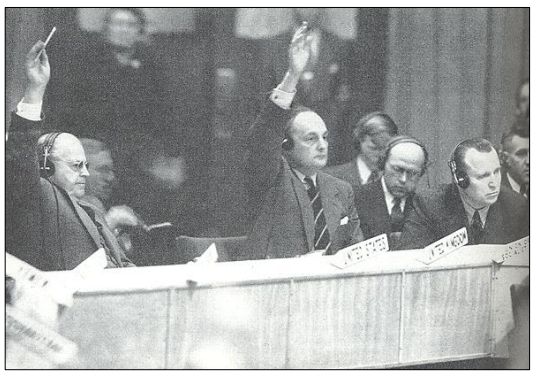
현지 지휘관인 조·중연합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는 유엔의 제의를 적어도 전략상 이용할 수 있는 기회로 평가하였고, 11일 곧바로 중국과 북한 양국이 한시적이라도 정전을 지지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25] 그러나 마오쩌둥(毛澤東)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승기를 잡은 상황에서 흥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으며 미군의 반격이 개시되자 28일부로 공격을 명령하였다. 자신감에 차있던 마오쩌둥은 군사적으로 한반도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나아가 그것은 소련의 기대에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26]

전장의 주도권을 확보한 중국은 무조건적인 휴전이 미국에게 차후 도발을 위한 빌미를 주는 것이라 거부하였고, 1월 17일에 정치적 협상이 없는 휴전은 수락할 수 없다고 천명하고 협상의 대가로서 중국의 유엔가입, 타이완으로부터 미군의 철수 등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하는 대안을 제출하였다. 저우언라이(周恩來)는 정전 이전에 먼저 교섭하자고 요구하였다.

중국의 거부는 이미 소련이 1월 11일 유엔에서 3인위원회의 건의안을 반대했으므로 다른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미 마오쩌둥의 본심은 신정공세가 끝난 후 한반도 전체를 점령한다는 작전목표를 건의안을 반대한 이유로써 제출한데서도 분명히 드러난다.[27] 소련의 스탈린은 미군의 전력소모를 목표로 하고 있었으므로 중국군에 무기를 지원하고 마오쩌둥과 펑더화이를 독려하여 현재 제기된 유엔의 5단계 평화방안을 중국이 거부하도록 하는데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소련의 결정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이에 미 국무장관 애치슨은 중국이 유엔제안을 완전히 거부했다고 선언하고 중국에 대하여 압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행시켰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침략자 결의안' 채택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였으며, 이때 제시된 침략자 결의안 내용은 1) 유엔이 단결하여 중국의 침략을 사실로 인정, 2) 중국의 군사적 능력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유엔에서의 중국 침략자 결의 (좌로부터 미, 영, 소 대표)

을 제한하기 위한 경제적인 규제, 3) 유엔과 미국이 평화적인 해결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 등으로 정리되었다.[28]

1951년 1월 20일 유엔 미국대표 오스틴(Warran W. Austin)은 유엔총회에 침략자 결의안을 정식으로 상정하였다. 영국 등 서방동맹국은 침략자 결의안의 '집단적 조치'가 맥아더(Douglas MacArthur) 장군에게 새로운 전쟁확대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닌지 우려했다.[29] 그러나 침략자 결의 내용은 군사적 조치라기보다는 경제적 조치였다. 국무부는 결의안에 대해 국방부와 토의한 후 1월 29일 일부 수정하였다. 최종 결의안은 2월 1일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이때 영국과 캐나다는 찬성하였으나 인도가 반대하였다.[30]

이제 미국은 중국이 유엔의 제의를 거부한 이상 침략자 결의의 채택으로 보다 외교 면에서 중국에 대하여 압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교섭에 있어 유리한 입장을 확보했다. 여기서 미국이 자국의 입장을 고수하고 중국에 대한 강경 자세로 전환한 것은 당시 군사상황의 변화를 반영한 측면이 있었다. 1951년 1월 중순 안정화된 전선으로 미국은 자신이 간절히 바라던 자국군의 안전을 위한 즉각 휴전 제의의 필요를 기초부터 허물고 만 것이다.

결국 미국은 중국이 휴전안에 반대하고 계속 공세를 취함으로써 한국에서 유엔군을 축출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으며 또 유엔에 대한 도전을 멈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유엔회원국들에게 중국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는 주장을 펼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은 지난 12월 16일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데 이어 이해 1월 20일에는 중국을 침략자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유엔 총회에 상정하여 통과시켰다.[31] 이로써 중공군의 참전과 더불어 추진된 유엔에서의 휴전 노력은 무위로 돌아가고 말았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국내 정세의 추이

1) 정치·경제적 동향

중공군의 개입과 2차에 걸친 공세로 전세는 뒤바뀌고 말았다. 정부는 중공군이 계속하여 제3차 공세를 개시하자 1·4후퇴로 서울에서 다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부산으로 수도를 옮겨 경남도청 청사를 전시 중앙청으로 정하고 비상대책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이어 국가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국민총력체제를 확인하는 한편 긴급 병력동원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강구하였다.[32]

정부는 이에 앞서 1950년 12월말 전국의 각 국민들에게 시민증과 도민증을 발급 배부하여 적 오열(간첩)의 침투를 봉쇄하는데 진력하였고, 또 사전에 급박한 전황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림으로써 1·4후퇴 시 주민들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1·4후퇴 당시 자유를 찾아 북한에서 남하한 동포를 포함하여 많은 피난민들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피난민 문제는 당시 큰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정부는 당시 피난민들이 대구, 부산 등 도시에만 집중함으로써 주택난과 식량난을 야기하게 되자 제주도와 거제도 등 지방으로 분산시키는데 주력하였고, 각지의 집단수용소에 수용하여 식량과 의류 등의 구호물자를 공급하기도 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51년 봄 치안 상태가 어느 정도 회복되자 국민 생활안정을 위해 4월까지 단계적으로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1951년 3월 20일 국무원 공포 제11호와 4월 4일의 동 제12호에 따라 지역별로 치안이 회복되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을 해제한 것이다.[33]

기간 중 경제상황은 해방 이후 가장 악화될 정도로 심각한 국면을 봉착하였다. 특히 인플레 현상은 국민생활을 크게 위협하는 수준이었다. 1951년 1월 임시수도 부산의 물가지수는 전쟁직전에 비해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폭등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인플레 하에서 전 국민의 생활은 이미 도탄의 정도를 넘어 거의 생사지경에 헤매고 있는 상황이었다. 인플레가 격화된 원인은 생산위축과 정부의 심대

한 재정지출에 있었다. 이때 전비조달을 위한 재정적자는 부득이한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시간이 감에 따라 더욱 악화되어 1951년 6월말에 이르면 부산의 도매물가 지수는 개전당시에 비하여 30배까지 폭등하였으며 부산에서의 백미 1두(斗) 시세가 13만 5천원을 상회하였다. 이에 반해 군인과 경찰의 봉급은 하사관과 순경의 경우 약 2만 원 남짓으로 1주일분의 잡비에도 미달하였다.[34]

전국의 식량은 수요의 80%를 외국미곡에 의존하는 실정이었으며, 전시 신생활운동으로 전국 요정 80%를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을 비롯한 대구 등 대도시에서는 전시체제가 용이하게 갖추어지지 않았다. 일반의 사회범죄는 국민생활고를 단적으로 반영하고 있었으며 수감자수의 70%가 절도범들이었다.[35]

한편 1950년 말 기준으로 화폐발행고는 2,293억 원이었다. 당시 재무부는 당시 유통되던 100원권 화폐를 새로운 화폐와 교환하였다. 이미 제1차는 경상남북도 일대에서 9월에 실시하여 175억 원을 교환하였고, 제2차는 서울시와 경기도 및 강원도 일대에서 10월에 실시하여 도합 217억 원을 교환한 바 있는데 11월 중순부터 12월에 이르기까지 4차에 걸쳐 실시하였다. 이때에는 제1차, 제2차에서 실시되지 않은 전 지역에서 교환하였는데 그 액수는 232억 원에 달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차는 전 지역에서 누락된 것을 구제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는데 교환액은 81억 원이었다. 그런데 1차부터 4차까지의 교환에서 발견된 위폐가 1억 6천만 원이나 됨으로써 전란 중 통화 유통질서의 혼란상을 들어내 주고 있었다.[36]

또한 1·4후퇴로 인해 우리나라 산업의 중심지인 서울과 인천 지구는 완전히 폐허로 변하였다. 이때의 피해총액은 대략 정부와 경제협조처(ECA)의 집계에 의하면 미화 약 10억불에서 15억불에 달하였다.[37]

이와 같은 쓰라린 경험에 비추어 정부는 철수 시 공업시설들을 안전지대로 소개할 것을 고려한 바도 없지 않았으나 전시의 제반 악조건으로 그것도 여의치 않았다. 결국 당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산업시설이라고는 겨우 부산 주변의 작은 시설들에 불과하게 되었다. 물론 정부로서는 유엔과 미국의 원조에 의한 전쟁부흥과 복구 사업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이 역시 전쟁이 종료된 후에야 가능한 일이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편 국회는 일진일퇴의 변화무쌍한 전황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산에서 개원 중이었다. 국회는 중공군 참전 이후 정부의 시책과 재정지출 등이 난맥에 빠진 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부심하였다. 특히 1950년의 행정과 재정 상황을 조사하지 않고서는 신년도 예산을 심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서 국정 전반에 걸쳐 감사를 단행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1951년 4월 3일부터 4월 26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시책의 많은 부당성과 문제점들을 적발하게 되었으며, 이 부당한 시책들 가운데 특히 내외에 파문을 던지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고조시킨 사건은 국민방위군사건과 거창 사건이었다.[38]

마침내 국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격렬한 논란이 벌어졌다. 이리하여 국회결의로 구성된 조사단은 현지 조사결과 5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결의하기에 이르렀다.[39] 이 사건들을 계기로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은 급기야 내무, 국방, 법무 3장관에게 인책 사직을 요구하였다. 이에 조병옥 내무부장관은 4월 24일에, 김병로 법무부장관은 동월 26일에 각각 사표를 제출하였고 신성모 국방부장관도 뒤이어 사표를 제출하였으며, 결국 이들의 사표는 5월 5일 수리되었다.

이와 같이 비상시국 하에 주요 각료들이 공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후임자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었다. 이 대통령은 숙고와 논의 끝에 5월 7일 내무장관에 이순용, 국방부장관에 이기붕, 법무부장관에 조진만, 그리고 농림부장관에 임문항 등을 각기 임명할 것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국회나 일반여론은 중요한 각료 자리에는 진실로 시국을 담당할만한 역량과 신망을 겸비한 인물이 임명될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사에 대해서 적지 않은 불만의 기색을 나타냈다. 그리하여 국회에서는 정부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더욱 고조되었다.

이처럼 국회와 정부 간의 마찰이 첨예화되었을 때, 5월 9일 갑자기 이시영 부통령이 사임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 부통령은 국정의 혼란에 대한 책임과 아울러 본인이 이를 수습할 능력이 없음을 호소하는 서한과 함께 사표를 국회에 제출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였던 것이다. 이 돌발적인 사표는 국내외에 비상한 충격을 주었다. 국회는 일단 그의 사표를 반환하기로 결의하였으나, 이 부통령이 13일 재차 사표를 제출하였음으로 그 다음날 부득이 사표를 수리할 수밖에 없었다.[40]

아울러 즉시 후임 부통령의 선거에 착수하여 15일 투표를 실시한 결과 야당 지도자로 대표적인 인물인 김성수가 그 후임으로 당선되었다. 김성수 부통령은 처음에는 취임을 고사하였으나 5월 18일 이를 수락하였다.

이상과 같은 정부와 국회간의 대립은 동시에 국회 내에서도 정부를 지지하는 측과 야당적 입장에 있는 측 사이의 대립을 더욱 촉진시켰다. 특히 정부는 최근의 정세와 관련하여 부통령 선거에서 야당 측이 승리함으로써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정부로서는 이 상태로서는 항상 국회의 반대에 봉착하게 되어 국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국회 내에 정부를 지지하는 안정 세력을 확보할 필요성을 통감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여당은 국회 내 교섭단체인 신정동지회와 공화구락부의 합당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하여 5월 29일 마침내 양자를 합당하여 공화민정회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 여당은 그 후 10여 명의 의원들이 탈퇴하였으나 그래도 90여 명을 규합하여 원내 제1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41]

그 결과 정부는 어느 정도 국회의 신임을 얻을 수 있게 되었으나, 그 대신 여야 간의 정쟁은 더욱 더 격화되었다. 국회와 정부, 그리고 국회 내에서의 정부 측과 야당 측의 대립이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 대통령은 국내정세가 날로 악화되자, 대통령직선제와 양원제를 제의하는 개헌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42]

개헌안을 촉구하는 성명에 이어 이 대통령은 그 내용을 정식으로 국회에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국회는 이 두 개헌안을 부결시킴으로써 정쟁은 그칠 날이 없었고, 이에 따라 정부 측을 지지하는 신당 창립의 태동이 일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혼란한 국내정세 속에서도 전 국민은 일치단결하고 분연히 궐기하여 한국을 또다시 분단하려는 정전에 결사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기도 했다. 6월 5일 국회는 3월부터 끈덕지게 꼬리를 문 미국 측의 정전설에 “침략자 중공이 침략행위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지, 철퇴하고 대한민국 주권 하에 완전 자유통일을 선결 조건으로 하는 이외의 여하한 정전에도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43]

이를 시작으로 전국 방방곡곡에서는 38도선 정전반대를 위한 국민궐기대회가 개최되어 "3천만의 총의로서 공산침략자에게 시간과 재침기회를 주려는 정전에 결사적으로 반대한다"고 결의하였다.

또 25일에는 반공총궐기대회가 전국에서 열려 "유엔 가맹국들은 자유를 위하여 싸우는 약소민족을 방관치 말아야 할 것이며, 유엔 정신을 해치는 소련은 마땅히 유엔에서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민족의 분노를 참전국 원수들과 유엔 사무총장 및 유엔군 사령관에게 전달하였다.[44]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은 유엔과 미국의 휴전정책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명하고 한국정부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천명하였다. 그는 6월 27일 "침략자에게 벌을 주려는 것인가 상을 주려는 것인가, 38도선으로의 한국의 분할은 결국 전쟁을 낳았고 장차에도 똑같은 상태에서 전쟁을 유발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여 정전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일침을 가하였다.[45] 이로써 향후 휴전정책과 휴전반대 입장은 유엔군사령부 및 미국정부와 한국정부와의 심각한 갈등으로 치달을 수 있는 위기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국민방위군 사건

(1) 국민방위군 창설과 사건 발생

국민방위군 사건은 1950년 12월 17일 제2국민병을 소집한 날로부터 1951년 3월 31일 국민방위군 교육대를 실질적으로 해산하는 약 3개월, 105일 동안 국민방위군 장정들이 남쪽으로 이동, 수용, 훈련하는 과정에서 다수가 사망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국민방위군사령부와 예하 교육대의 부실운영 및 방위군 간부들의 예산횡령과 군수품 부정처분 등으로 방위군 장병들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거나 질환을 갖게 되었고, 국회와 군 수사기관의 조사를 걸쳐 관련자 5명이 군사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공개총살형에 처해진 사건이었다.

국민방위군 편성은 1950년 12월 말 전력증강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중공군 제2차 공세 직후인 동년 12월 중순 국민들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평양을 철수한 유엔군의 후퇴가 계속되자, 정부는 국가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국민총력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중공군과 맞서 싸우려면 많은 병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소요병력을 조속히 동원할 목적으로 국민방위군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동년 12월 21일 아래와 같은 요지의 국민방위군설치법을 제정하고 국민방위군을 편성하게 되었다.[46]

① 국민으로서 만 17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남자는 지원에 의하여 국민방위군에 편입할 수 있다.
② 국민방위군은 지역단위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방장관이 정하는 기관은 기관별로 편성할 수 있다.
③ 국민방위군은 육군참모총장 명에 의하여 군사행동을 하거나 군사훈련을 받는 이외에 정치운동이나 일반치안에 관여할 수 없다.
④ 전시 또는 사변에 즈음하여 군작전상 필요시에는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단적으로 국민방위군을 소집할 수 있다.
⑤ 국민방위군에 사관을 두되, 국방부장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등급은 육군의 편성과 직위에 준하게 한다.
⑥ 국민방위군의 병력, 배치, 편성, 훈련, 복무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육군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국민방위군을 지휘 감독한다.

이에 따라 각 도시별로 소집된 제2국민병 장정들은 국민방위군 설치법에 따라 경상도와 제주도 지역에 설치된 52개 교육대로 분산 이동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서울, 경기 지역에서 교육대가 있는 경상도로 이르는 경부가도 및 호남국도는 군사 작전 및 보급로로 유엔군이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정들은 소로나 산길을 통해 이동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1951년 극심한 추위와 장기간 행군에 따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민방위군 대원들의 남하하는 모습(1951. 1월)

피로의 누적, 그리고 식량 부족으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더구나 각 교육대로 이송된 후에도 교육대의 수용시설의 미비 및 의료 약품 부족 등으로 많은 추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국민방위군 사건은 방위군으로 소집된 장정들의 사고는 이동, 수용, 교육받는 과정에서 전쟁 중이라든지 또는 겨울철이라든지 하는 요인보다는 교육대 부실운영과 공금 횡령 등 방위군 간부들의 인재(人災)에 의한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였다. 즉, 교육대 장정들의 사상 발생은 주로 기아, 동상, 질병 등으로 야기된 것이었다. 이는 준비 부족과 부실 경영, 그리고 간부들의 예산 횡령과 전용, 군수품 부정처분 등으로 인하여 식사와 의약품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47]

(2) 사건 처리 결과

국민방위군 사건은 헌병사령부에서 맡아 조사한 후 군법회의로 넘어갔다. 그러나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얽혀있어 조사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사건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대한 견해 차이도 많았다. 일부에서는 이 사건을 단순한 '경리부정 사건'이라고 하고, 다른 일부에서는 경리부정과 군수물자 부정 처리와 함께 인명 피해를 가져온 사건으로 규정했다.

헌병사령부는 국민방위군 사건조사 과정에서 신성모 국방장관의 방해를 받았다. 신 국방장관은 처음에 이 사건을 "문제 삼을 것 없다"고 하면서 조사를 하지 못하게 하다가, 대통령이 '철저히 조사하라'는 지시를 하자 그때서야 헌병사령관에게 "사령관 김윤근은 구속하지 말고 조사하라"고 압력을 넣었다. 이리하여 처음에는 주모자급 6명만을 조사하게 되었는데, 5명은 구속조사하고 김윤근은 사령부내에서 연금 상태로 조사하였다.[48]

당시 군법회의에 회부된 국민방위군 사건 연루 간부들에 대한 법 적용이 문제가 되었다. 국회에서는 4월 30일 국민방위군 폐기법안이 3시간의 격론 끝에 투표에 붙여져 통과되었다.[49]

그럼에도 1951년 5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국방부 정훈국장 이선근 육군 준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군법회의 제1차 공판에 대해 김윤근 사령관에 대해 기소 각하, 윤익헌 부사령관은 징역 3년 6개월, 그리고 나머지 4명은 징역 1년 6개월 등 사건의 중대성을 간과한 채 가벼운 형량을 선고하였다. 이와 같이 형량이 가볍게 결정된 것은 본 사건을 경리부정사건으로 취급하여 '국방경비법'을 적용하였기 때문이다.[50]

재판결과가 언론에 발표되자 국민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이들을 극형에 처해야 된다는 소리가 비등하였다. 이때 거창 사건의 폭로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상태에서 설상가상으로 국민방위군 사건에 대한 정부의 무성의한 처리에 국민들이 극도의 불만을 표시하였다. 이에 이승만 대통령은 급기야 5월 5일 신성모 국방장관의 사표를 전격 수리하고 이틀 후인 5월 7일 이기붕을 국방장관에 임명하기에 이르렀다.

국회에서도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하였다. 즉, 국민방위군 의혹사건을 검찰이 철저히 규명하여 엄중히 처단할 것. 국방경비법과 비상조치법을 적용하여 군법회의에서 재심할 것. 사건 관련자는 사건 판결 시까지 휴직시켜 수사에 지장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 없도록 할 것 등이었다.[51]

또한 이시영 부통령이 5월 9일 국민방위군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사퇴하자, 여론은 더욱 들끓게 되었다. 대통령은 신성모 국방장관을 교체한데 이어 6월 23일 지휘선 상에 있는 정일권 총참모장과 강문봉 작전국장을 해임하여 미 지휘참모대학 입교 명령을 내리고, 후임에 이종찬 소장과 이용문 준장을 임명하였다.[52]

신임 국방장관 이기붕은 국민방위군 사건을 재조사 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종찬 소장도 이 사건을 고등군법회의에서 공평무사하게 처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리하여 국민방위군 사건은 재조사를 받게 되었고, 5월 17일 이기붕 국방장관은 재수사와 관련하여 "국민방위군 사령관 김윤근이 구속되어 조사받고 있다"고 국회에 통보하였다.

헌병사령부는 1951년 6월 10일 재수사를 마치고 국민방위군사령관 김윤근 준장, 부사령관 윤익헌 대령, 재무실장 강석한 중령, 조달과장 박창원 소령, 보급과장 박기환 중령, 군수처장 김희 대령, 회계과장 장의두 소령, 회계과장보좌관 노용식 대위, 제15교육대장 박철 중령, 제27교육대장 임병언 대령, 제10단장 송필두 대령 등 11명에 대해 비상조치법을 적용하여 엄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첨부하여 고등군법회의로 송치하였다.[53]

본 재판의 관할관이자 총참모장인 이종찬 소장은 재심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본 사건은 '비상사태 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사건'이라는 죄명 하에 비상조치법이 적용되어 육군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재심하기로 하고 신망 있는 인물로 재판부를 구성했는데, 재판장에는 병기감 심언봉 준장을, 그리고 재판관에는 작전국장 이용문 준장, 감찰감 안춘생 준장 등을 선정하였다.

재판은 7월 5일 국민방위군사령부(대구 동인초등학교 강당)에서 개정되어, 7월 8일에는 결심 공판(구형)이 7월 19일에 언도 공판(판결)이 각각 진행되었다. 제2차 재판에서 이들의 죄목은 근무태만, 정치관여, 군수물자 부정처분, 횡령, 문서위조 등 비상조치법 위반으로 국민방위군 사건의 핵심간부인 김윤근, 윤익헌, 박기환, 강석한, 박창원 등 5명에게는 사형, 기타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다.[54]

사형을 선고받은 이들 국민방위군 간부 5명은 선고 후 약 2주일만인 1951년 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월 13일 대구 교외에서 이례적으로 공개 총살형에 처해졌다. 이로써 국민방위군 사건은 1·4후퇴라는 당시 국가적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 모든 국민이 공산군에 맞서 분투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개인의 영달을 위해 국가 자원을 낭비하였고, 이로 인해 결국 말할 수 없는 참상을 초래하였던 것이었다.

3) 거창사건

(1) 사건의 발생

거창사건은 1951년 2월 8일~12일 공비토벌을 위해 출동한 육군 제11사단 제9연대 제3대대가 경남 거창군 신원면에서 주민 수백 명이 공비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주민들을 집단 처형한 사건이었다.[55]

신원면 일대에는 1950년 12월 초순부터 공비들이 출몰하여 경찰지서를 습격하고 경찰관을 살해하는 만행을 자행하였다. 신원면 일대는 대부분 지역이 치안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였다. 당시 9개 동리 가운데 6개가 공비 주요 출몰지역이었고 경찰이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경남계엄사령부에서는 이들 공비를 소탕하기 위하여 국군 제11사단에 공비들을 토벌하도록 명령했다. 사단장은 예하 제9연대장(연대장 대리 오익경 중령)에게 1개 대대를 차출하여 거창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도록 했다.

이에 제9연대 제3대대(한동석 소령)는 제9연대 작전명령 제5호[56]에 따라 1951년 2월 5일 06시 거창군 신원면 청연동에서부터 이동을 개시하였다. 대대는 정오경 거창 과정리에 도착하여 경찰과 청년방위대들로부터 적정제보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다시 이동하였다. 대대장은 경찰과 주민들의 적정제보가 있었으나 특이사항이 없다는 보고를 한 후 다시 이동을 재개하였다.[57]

대대는 각 2개 중대로 나뉘어 차황면 황산장과 오부면 오전리에 도착한 다음, 날이 저물어 야영하였다. 이때는 이미 이 일대에서 활동하던 공비들이 대대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입산 도주한 이후였으므로 특별한 접적상황이 없었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다. 따라서 대대는 다음날 아침인 2월 6일 다시 이동을 개시하여 함양군 화촌리와 산청군 함양리에 각각 도착하였다.[58] 제3대대가 산청과 함양으로 이동하자 도망갔던 공비들이 다시 거창군 신원면으로 내려와 신원면지서를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으로 경찰과 청년방위대원 10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을 입는 손실을 입었다.

제3대대는 다시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신원면으로 복귀하였다. 대대의 토벌작전에 관한 경과내용은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건 내용은 대대가 신원면의 대현, 와룡, 성탄, 중유 등 6개 부락에 남아 있던 1,000여 명의 주민 중에서 군, 경 및 공무원 가족을 제외한 500여 명을 공비와 내통하였다는 이유로 총살하였다는 것이다.[59]

(2) 사건의 결과

거창사건으로 국회와 행정부는 심각하게 대립되는 한편, 정부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고조되자 정부는 이 사건의 관련자 전원을 군사재판에 회부하여 실형에 처하였으며, 국방, 내부, 법무 등 3부 장관을 인책 해임시켰다.

국민방위군사건과 거창사건 이후에도 잇따른 불상사로 인하여 국회와 정부 간의 마찰이 날로 첨예화되었고 여·야 간의 분열이 더욱 심화되었다. 이런 가운데 이시영 부통령이 국정의 어지러움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임을 결단함으로써 수습하려 하였다. 그의 후임으로 선출된 김성수 부통령도 불안한 정국을 수습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정치적 난맥상은 계속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2 절 공산군의 전쟁지도

1. 내부의 전략적 갈등

유엔군은 중공군의 2차 공세에 밀려 위기에 처하자 비밀리에 대한민국 정부의 이전 계획과 유엔군의 철수계획까지 수립하면서 중공군의 기도와 전선 상황의 추이에 초미의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다. 이 무렵 중공군은, 유엔군의 판단과는 달리, 전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었고 유엔군의 후퇴를 철수의 징후로 보지 않고 자신들을 유인 격멸하기 위한 전략으로 판단하고 있었다.[60]

중공군은 제1·제2차 공세에 투입된 총 30개 사단 중 2차로 투입된 제9병단(3개 군, 12개 사단)이 장진호 전투에서 입은 손실로 인하여 함흥 부근에서 재편성되었고, 38도선까지 진출한 제13병단(6개 군, 18개 사단)은 2차에 걸친 동계공세에서 많은 손실을 입고 약 23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탄약 및 보급이 바닥을 드러낸 실정이었다. 북한군은 3개 군단 약 7만 5,000명이 전방으로 전개하였으나 미처 재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61]

그리하여 중공군은 신정공세 작전계획 수립단계에서 38도선 돌파 여부를 놓고 내부적으로 중국 정치지도부와 격론을 벌였으며 또 작전을 완료한 시점부터는 남진강행 문제를 놓고 북한 지도부 및 소련 군사고문단 등과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

최초 중공군 지휘관 펑더화이(彭德懷)는 2차 공세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인 1950년 12월 8일 마오쩌둥에게 38도선을 넘지 말고 충분히 준비를 한 후에 내년 봄 다시 전투를 재개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는 당시의 전선 상황을 다음과 같이 중국 군사위원회에 보고하였다.[6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동부전선의 중공군 제9병단은 장진호 전투에서 큰 피해를 입어 함흥지역에서 2개월간 휴식 및 정비를 실시키로 계획하였다. 그리고 서부전선의 제13병단은 2개월 동안 계속된 작전으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여 몹시 지쳐 있다.

또한 아군은 병참선이 남쪽으로 신장됨에 따라 유엔공군의 항공폭격에 취약하여 솜옷, 담요, 이불 등의 월동피복은 도중에 소실되었고, 또 유류, 식량, 부식 등의 보급물자는 수송수단이 부족하여 적시에 보급되지 못하고 있으며 쇠약한 자와 환자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

지난해 10월과 11월에 실시한 전투는 공격 중인 국군과 유엔군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아군이 기습공격을 실시함으로써 성과를 얻을 수 있었으나 차후 작전은 38도선에 방어진지를 구축한 적을 공격하는 진지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아군은 진지전에 대한 경험과 교육도 불충분한 상황이다.

반면 적은 방어로 전환하여 전선을 축소시켜 병력을 집중 배치함은 물론 방어종심도 강화하였고, 또 제병과 협동작전도 유리하게 되었다. 또한 군의 사기는 종전보다 다소 저하되기는 하였으나, 현재 약 26만여 명의 병력을 보유하여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원군은 겨울 동안 충분한 휴식과 부대정비를 실시하고, 또 증원부대인 제19병단이 참전한 이후인 1951년 2~3월경에 제3차 공세를 개시하여 적 주력부대를 격멸시킬 것을 계획하고 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펑더화이는 적을 섬멸하지 못하면 다시 38도선에서 작전을 종료하고 충분한 준비를 갖추어 후일을 도모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동안의 전투에서 볼 때 중공군이 절대 우세가 아닐 뿐만 아니라 병력들이 대단히 지쳐 있으며 보급 부족, 병참선 신장 등으로 2~3개월간의 휴식과 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63]

펑더화이의 건의를 검토한 저우언라이(周恩來)도 그의 견해에 동의하여 "서울 진격을 내년 3월까지 미루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신병을 배치할 수 있고 그때가 되면 공중출격이 가능합니다"라고 의견을 첨부하여 마오쩌둥(毛澤東)

을 설득하였다.[64]

그러나 마오쩌둥은 국제정치적인 관점에서 38도선을 돌파해야 하며, 1951년 1월 15일 이전까지 완수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마오쩌둥은 제1, 제2차 공세의 결과를 높게 평가하여 미군 축출이 가능하다고까지 판단하고 있었다. 마오쩌둥은 "이번 기회는 아군이 대거 적을 섬멸해 조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매우 좋은 기회이다"라고 하였다.[65] 그는 초기 작전목표를 확대하여 38선 돌파와 서울 점령을 달성하도록 결정하였던 것이고, 전장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상황 하에서 장기적인 지구전 전략을 허용치 않았다.

이 무렵 김일성도 12월 하순에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정공세의 작전방침을 하달하였다. 그는 "적이 38도선 방어를 강화하기 전에 전선동부의 산악지형을 이용하여 적 방어가 약한 전투지경선 부근으로 침투한 후 후방에 강력한 제2전선을 깊숙이 형성토록 하였다. 그리고 중서부전선의 중공군이 주저항선을 돌파하면 이들과 연결 작전을 실시하여 포위망을 구축한 후 적을 섬멸하라"고 하였다.[66]

그러나 펑더화이는 현지사령관으로서 어려움을 깊이 절감하여 1950년 12월 19일 중앙군사위원회에 현실적인 작전방침을 재차 건의하였다.[67]

"조선전쟁은 상당히 장기적이며 어려운 전쟁이 될 수 있다. 적군은 공격에서 방어로 전환하였고, 전선은 축소되고 짧아졌으며, 병력이 집중되고 방어정면이 협소하여 자연히 종심이 강화되었고 합동작전에 유리하게 되었다.(중략) 정치적으로 볼 때, 적군이 이 시점에서 조선을 포기하게 되면 제국주의에 매우 불리할 것이기에 영국·프랑스도 미국이 조선을 포기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적은 다시 한두 번 패배를 겪더라도, 또 다시 2~3개 사단이 섬멸되더라도 아마 몇 개의 교두보 진지(부산, 인천, 군산)까지 물러나면서 방어할 것이며 결코 조선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이다"

위와 같은 현지사령관으로서 펑더화이의 판단은 당시의 전력으로 중공군이 승리를 거두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작전수행조차 어렵다고 인식한 결과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러한 판단하여 펑더화이는 제2차 공세 이후 중공군에 이미 휴정(休整, 휴식과 부대 정비)하도록 조치해 놓고 있는 상황이었다.[68]

2. 승리확대 전략

마오쩌둥은 현지 지휘관인 펑더화이(彭德懷)의 휴정(休整) 건의에도 불구하고 소련과 북한측의 요청-특히 스탈린의 입장-을 고려하여 재차 38도선을 돌파하여 유엔군을 대량 살상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는 나아가 조기에 전쟁을 종결해야 한다는 정치적 결심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펑더화이에게 전달하였다.[69]

"적(유엔군)은 아군(공산군)을 정전(停戰)으로 유인하여 휴식기간을 가진 후 재공격할 음모를 기도하고 있고, 또한 유엔군을 파병한 국가들 간에도 전쟁에 대한 인식이 상충되어 혼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군을 집중적으로 섬멸하면 미군과 유엔군을 고립시킬 수 있고, 그 후 미군 몇 개 사단만 섬멸하면 한반도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이다. 현재 아군이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으므로 적의 약점을 이용하여 38도선을 넘어 다시 일전을 치른 후 1~2개월 동안 휴식과 정비를 취하면서 춘계공세를 준비토록 하라"

이 명령에 의거 지원군사령관은 "겨울 동안 휴정(休整)한다"는 당초의 계획을 바꾸어 3차 공세를 실시키로 결정하였다. 마오쩌둥은 펑더화이의 판단에 동의하면서도 38선을 돌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그는 3차 공세 지침을 하달하면서 "이번 전역을 마친 후 주력은 스스로 철수하여 휴식과 재정비를 갖추게 해야 한다. 그래야 아군이 춘계에 다시 적을 섬멸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하였다.

결국 펑더화이(彭德懷)는 어쩔 수 없이 마오쩌둥의 정치적 결정과 전선에서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군사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계획을 다시 수립하였다. 이때의 방침은 38도선을 돌파한 후 정황을 파악하고 주둔을 결정하며 38도선 이북으로 후퇴할 필요가 있으면 철수한다는 것이고, 적을 추격하여 남진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70]

마오쩌둥은 12월 21일 펑더화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전역이 끝난 후 지원군 주력은 휴식과 정비에 유리한 지역까지 철수하여 한두 달 휴정해야 한다"고 하여 장거리 추격이나 전면 공격을 강요하지는 않았다.[71]

공세 개시 이틀 전에 마오쩌둥은 전문에서, "우리는 적군이 서울과 37도선 이북구역을 사수하는 것은 두렵지 않지만 그들이 이 전선에서 물러나 대구, 부산 등 협소한 지역으로 철수할 경우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고 펑더화이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도 대비하라고 지시하였다.[72] 3차공세의 목표는 제1차, 2차 공세에서 획득한 승리를 확대하여 서울을 점령해 정치·군사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 37도선까지 진출하여 부대 재정비와 새로운 부대를 증원받아 춘계공세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중국지도부는 1950년 12월 중순까지 북한이 잃었던 38도선 북쪽의 영토를 대부분 회복하고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자 전쟁목표를 더욱 확대하여 38도선 이남으로 공격할 것을 결정하였던 것이다. 결국 중국군의 3차 공세는 정치적 고려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정치적 목적과 군사적 임무를 모두 완수하도록 한 것이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마오쩌둥의 명령에 따라 펑더화이는 12월 31일 신정공세를 개시하여 한강 남쪽으로 유엔군을 추격하였으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유엔군의 대량 섬멸에는 실패하고 말았다. 유엔군이 평택-안성-제천-삼척선으로 물러나자 공산군을 유인하기 위한 철수작전이라고 판단하고 1951년 1월 8일 신정공세를 종료하였다.[73] 신정공세가 종료된 직후 펑더화이는 공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951년 1월 8일까지의 작전에서 아군은 이미 적군을 37도선 부근의 평택-안성-제천-삼척선까지 축출하였다. 아군의 공격 간에 적군의 병력을 대량으로 섬멸하지 못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아마도 적군은 계획적으로 철수작전을 실시해서

아군을 깊숙한 곳까지 유인한 후 아군의 측방과 후방에서 상륙작전을 실시하려는 기도를 품은 것 같다. 그러므로 아군은 너무 멀리 전진하여 적에게 이용당하는 것을 막고 앞으로의 작전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추격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74]

공산군 측은 추가적인 증원 없이는 유엔군을 밀어낼 여력이 없었으며, 일단 38도선 이남, 서울까지 진출하여 정치·군사·심리적 이점을 확보하고 춘계공세를 준비하겠다는 전략이었다. 당시로서는 유엔군의 철수를 인천상륙과 같은 상륙작전으로 자신들을 포위하기 위한 유인전략으로 판단하고 더 이상의 진출을 유보하였다. 이때 마오쩌둥은 "수원-홍천 선에서 공세를 중단하고 부대정비를 할 것"이란 사실을 스탈린(Joseph V. Stalin)에게 알렸으며 "싸울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는 2~3개월 내에 결정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덧붙였다.[75]

중공군은 유엔군을 대전과 대구로 계속 추격하면 전쟁 초기 북한군이 낙동강전선에서 그랬던 것처럼 중공군의 병참선이 신장되어 오히려 위기에 봉착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판단하여 추격을 중지하였던 것이다. 이는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장군이 지적하였듯이 중공군의 공격력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준 것이었고, 서울 교두보선에서 마치 훈련하듯 계획된 철수를 실시한 유엔군은 곧이어 반격의 실마리를 마련하였다.[76]

결과적으로 중공군은 신정공세에서 미국을 압박하는 등 정치적인 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중공군은 제3차 공세의 성공이 자력으로 성취한 것이 아니라 유엔군의 계획된 철수작전의 결과란 사실을 전투과정을 통해 잘 분석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펑더화이(彭德懷)는 서울을 점령한 후 전과에 대해 지나치게 선전하지 않도록 통제하였고, 소련장비의 투입 시기에 대해 재삼 확인하고 다음 전역에 관해 중앙군사위원회와 협의하였다.[7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3 절 유엔군과 한국정부의 전쟁지도

1. 유엔군의 전쟁지도

1) 유엔군의 신전략

(1) 새로운 전략의 모색

유엔군은 1950년 말 공산군에 의해 38도선까지 밀리게 됨으로써 이제 '철군이냐, 확전이냐'라는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했고, 아울러 한국정부의 제주도 이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전쟁의 대기로(大岐路)에 봉착하게 되었다.

중공군의 제2차 공세로 중공의 참전이 확인되자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발전하여 북한군의 격멸과 북한의 응징을 목표로 전쟁을 지도해 온 유엔군 측에게 새로운 상황에 대한 지도노선의 수립이 강요되었다. 이에 따라 유엔군은 1950년 12월부터 미 합동참모본부와 유엔군사령부를 중심으로 전쟁을 중공으로까지 확대하자는 주장, 38도선에서 휴전하자는 주장, 그리고 불가피한 선택으로 한반도에서 철수 주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도지침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논의에서 미국과 유엔군 측은 중공이 '두 번째 적'이며 진짜 적은 소련이므로 미국이 중공과의 전쟁에 깊이 말려들어 군사력의 주력을 투입해 전면전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유엔이 한국을 결코 포기해서도 안 되고 일본의 방위를 위해 주한미군의 병력과 부대를 재앙에 다다르지 않도록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 새 전략수립의 초점이 되었다. 특히 미국의 지도부는 중공의 침략에 대한 대처 방안도 반드시 유엔의 집단안전보장 조치를 통해 강구되어야 한다며 서방 유엔회원국의 결속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확전이나 철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보다는 유엔주도하에 38도선에서 휴전을 이루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고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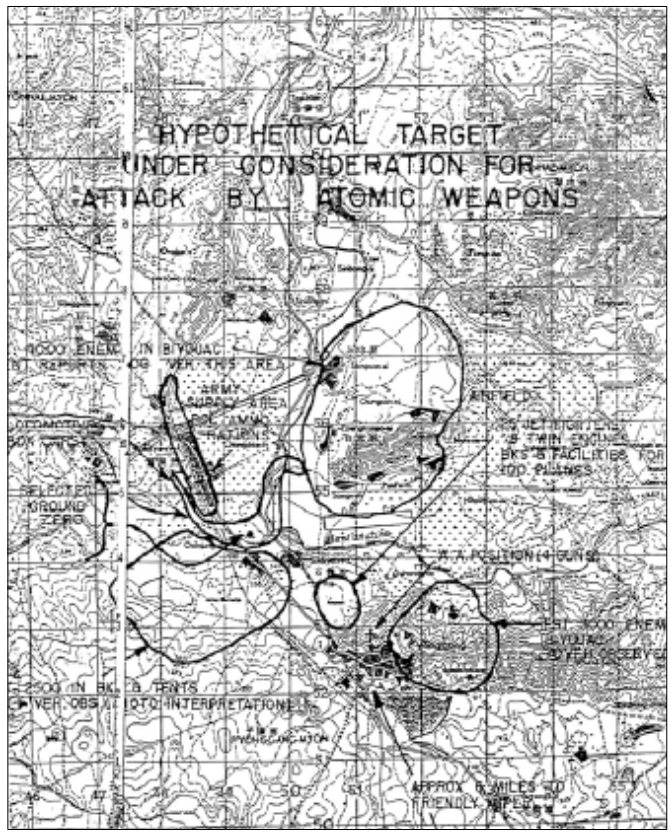
그러나 한국의 유엔대표단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한국의 통일은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에 의할 뿐이다. 중국의 개입은 북한의 침략과 마찬가지로 유엔에 대한 도전이다. 유엔의 참전은 침략을 격퇴하기 위해서이다. 그런 정신으로 중국도 격퇴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우방국에 우리의 통일 정책목표와 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그 문턱에서 휴전-어쩌면 전쟁 전 현상인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될 휴전은 한민족의 소망에 상치되는 것임을 역설하였다.[78]

특히 이 무렵 미국은 중국의 참전에 대한 새 대응전략의 하나로 핵무기 사용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였다. 미국은 미 지상군을 투입한 시기부터 핵무기 운용계획을 검토 발전시켜 왔으며 중공군의 공세로 유엔군이 위기에 처하자 이의 사용 가능성이 갑자기 높아지게 되었다. 이때 미 국방부는 유엔군이 재앙에 직면하게 되면 대통령에게 핵무기 사용을 건의하고 언제 승인될지라도 이를 신속히 운용할 능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이후 극동군사령부와 긴밀한 협의하에 ‘지상군 근접지원 핵무기 긴급사용(Emergency Use of Atomic Bombs in Close Support)’ 계획을 수립하고 투발 준비를 추진하였다. 극비리에 추진되어 온 이 핵무기 운용계획은 유엔군의 철수방침이 정해진 이튿날인 1950년 11월 30일에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직접 핵무기 사용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현안으로 부상되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중공군의 참전으로 불안해하는 우방국, 특히 한국전쟁에 유엔군을 파병한 회원국을 안심시키려는 의도로 회견 벽두에, “유엔군은 한국에서 임무를 포기할 의도가 전혀 없다”라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는 뒤따른 기자 질문에 “미국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의 사용을 포함하여 군사 상황에 대처할 어떠한 조치도 취할 것이다. 핵무기의 사용에 대해서도 늘 적극적으로 고려해 왔다.”라고 대답하였다.[79]

이는 즉각적인 국제적 반향을 일으켰으며, 특히 나토(NATO)의 안보이익의 관점에서 극동에서 전쟁이 확대되는 것을 바람직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영국 수상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핵무기 공격을 고려한 평강지역 가상표적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워싱턴 방문을 몰고 오기까지 하였다.

12월 4일부터 8일까지 개최된 영국의 애틀리(Clement Attlee) 수상과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새로운 전쟁지도 전략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 영국 수상은 이에 앞서 프랑스 플레빈(Rene Pleven) 수상과도 중공의 참전에 따른 상황전개와 관련해 협의를 가진바 있어 사실상 서유럽의 대표 격이어서, 이 회담은 유엔군의 새 전략수립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회담이었다.

양측은 유엔의 권위의 신장, 전면전을 회피해야 한다는 등 기본적인 문제는 쉽게 합의하였다. 그러나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는 다소 견해를 달리하였다. 우선 양측은 극동의 긴박한 상황에 대해, 휴전을 추구할 때가 왔다는 데에는 합의하였으

나 적대행위 종식의 대가로서 미국은 조건 없는 휴전을, 영국은 타이완문제의 양보와 중국의 유엔 가입을 주장하다가 전자(타이완 문제의 양보 주장)를 포기하는 대신 후자(유엔 가입)를 계속 주장하였다.

확전과 관련한 핵무기 사용 문제는 미국이 공식적인 발표나 약속을 기피하였기 때문에 영국과 협의 없이는 사용을 고려하지 않기로 구두 약속하는 선에서 조정하였다. 제한전을 주장하고 있었던 영국은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하여 핵무기 사용에 반대 입장이었다. 철군문제에 관하여 유엔군의 자발적 철수는 고려할 수 없다는 데에는 합의하였으나, 강압에 의한 철수의 경우 미국은 유엔에서 중국을 침략자로 규정하는 등 군사, 정치, 경제적 보복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데에 반하여 영국은 이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논의된 여러 사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을 전쟁 이전의 경계선-38도선-을 토대로 종결짓겠다는 합의였다.[80] 물론 여기에는 중공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양보 여부가 남아 있기는 하였지만, 이는 중국과 전쟁을 하는 유엔군 전쟁지도 노선의 대원칙으로 채택되었다.

이러한 전략의 채택은 비록 불가피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한국 정부의 정책목표와 한민족의 소망과는 상치되는 것이었다. 이로써 유엔의 '6.28 대한민국 지원결의(6.28일)와 통한(統韓)결의(10.7일)'를 토대로 북한의 침략에 대한 응징과 이의 연장선에서 군사작전 즉 힘에 의해 추구하던 민족통일의 희망은 잠들게 되고 통일은 오직 휴전 후 정치적 수단에 의한 타결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미국은 유엔에서의 휴전논의가 한창인 1950년 12월 11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휴전을 고려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휴전조건을 논의하였다. 그것은 "유엔군에게 군사적 불이익을 부과하지 않고 정치적 양보를 내포하지 않아야 하며 휴전에 관한 세부사항은 유엔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휴전을 수락하기 전에 협상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구체화되었다.[81] 이는 사실상 유엔의 새 전쟁지도 지침으로서 휴전정책이 확정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 무렵 한국정부도 미국이 전쟁을 휴전으로 종결지으려 한다는 분위기를 감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승만 대통령과 신성모 장관의 리지웨이 사령관 방문

하고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이 장면(張勉) 주미 대사에게 그 저의를 파악하도록 지시하였다. 장 대사는 네 차례나 국무성과 백악관을 방문하여 "본국정부의 지시에 따라 한국 국민은 공산주의와 대항하여 끝까지 싸울 것임을 재천명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서두를 꺼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휴전이란 있을 수 없다. 우리에게는 전선으로 나가기를 열망하는 50만 명의 반공 청년들이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들 50만 명의 무장이다. 그것을 지원해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미국이 중공군에 유화정책으로 대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노골적으로 미국정부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였다. 장 대사는 베빈(Ernest Bevin) 영국 외상이 미·중공 간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하여 한반도에 완충지대 설치안을 제의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거론하였다. 국무성 부차관보에게 "한국정부는 한국영토 안에 완충지대가 설정되는 데 대해 찬성할 수 없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미국과 유엔은 공산 침략자를 끝까지 격퇴하려는 결의를 굳혀 주면 좋겠다. 이 같은 한국의 입장을 트루먼 대통령에게 전해 주기 바란다"라며 정부의 입장을 전하였다.[8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임병직과 미 오스틴 대표

당시 유엔에서 활동 중인 임병직(林炳稷) 외무장관은 휴전 무드가 조성되는 것을 간파하고 이 대통령에게 강력한 대 중공 제재가 필요함을 보고했고 이 대통령은 장 대사에게 대미 교섭을 지시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장면 대사는 트루먼 대통령을 면접하고 "100만 명의 청년이 훈련을 받으며 무기 지급을 기다리고 있다"며 미국의 지원을 간곡히 요망하였다. 12월 11일, 유엔에서 38도선 재획정 문제가 논의 될 때 그는 다시 국무성을 방문하여 "한국으로서는 38도선의 재획정을 절대로 반대한다. 압록강 이남에 완충지대를 설치하는 것도 잠정적이건 아니건 적극 반대한다"고 못을 박는 등 정부의 휴전반대 의지를 강력히 천명하였다.[83]

(2) 확전과 철군 논쟁

중공군의 참전으로 제기된 철군과 확전 논쟁은 1950년 12월 초순, 영국과 미국의 영수회담에서 6·25전쟁을 유엔의 후원 하에 휴전으로 해결하기로 전쟁지도 방침을 정하고 휴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자 잠시 주춤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산군측의 반대로 휴전위원회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중공군의 공세가 계속되자 철군과 확전조치에 관한 전략논쟁이 다시 일게 되었다.

우선 미 합동참모본부는 이와 관련하여 12월 22일에 대단히 중요한 결정을 하였다. 즉 6·25전쟁에 미군과 유엔군의 투입을 가져온 유엔의 최초결의(지시)는 이제 시효가 지났으며 수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중공군이 전력증강에 뒤이어 강력한 공격을 가해 그들의 의도가 유엔군을 한국에서 몰아내려는 것임이 명백해 진다면 정부 수준에서 가능한 빨리 유엔군(미군)의 철수 결정을 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이러한 의견을 모은 이유는 중공의 침략에 대해 유엔이 추가적인 전력을 한국전쟁에 투입하고 그들로 하여금 값비싼 대가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치르게 하여 침략 의도를 포기하게 응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판단하였지만 당시 국제정세와 유엔의 분위기로 보아 유엔군의 실질적 증강이나 미군의 추가 투입이 불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신임 미 제8군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의 시찰 모습

특히 미국은 한반도가 그들로서 주요전쟁을 할 장소가 아니라는 일관된 정책기조 하에 중공의 참전으로 전면전의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세계 전략상 중공과의 싸움에 나머지 지상군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었다. 따라서 현 작전부대의 보존을 위해 유엔군의 강제 축출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그들은 이와 같이 강압에 의한 철군정책 결정을 내리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12월 29일에 유엔군사령관에게 통보하였다.[8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의 어느 방어선에서 북한·중공의 침략에 대한 저항과 중공의 정치적·군사적 위신의 실추가 미군에 심각한 손실을 끼침이 없이 성취될 수 있다면 우리의 국가 이익에 대단히 중요하다. 적군에게 가능한 한 큰 손실을 가하면서 부대안전을 주로 고려하는 조건으로 12월 7일자 전문에 설명한 대로 축차적인 진지에서 방어하도록 지시한다.

사태가 우리의 철수를 강요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특히 일본에 대한 위협을 고려하여 군의 질서정연한 철수에 대비, 양호한 기회를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금강과 거기로부터 동쪽으로 연한 진지로 철수를 강요당하고 그 후 중공군이 우리를 한국에서 밀어 내려는 명백한 가능성을 보이며 방어선으로 대부대를 집중시킨다면 이 조건하에서 일본으로 철수를 시작하도록 명령하는 것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맥아더 장군에게 이 지시는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려는 의지를 상실한 것으로 보였다. 그는 다음날(12월 29일) 회신에서, 이와는 달리 방어를 위한 강력한 보복조치(확전조치)를 요구하였다. 그는 중공의 전 군사자원이 유엔군과의 전투에 투입되어 만주와 한반도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취약하나 기존정책은 이 기회의 이용을 금지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중공 당국에 의해 전쟁상태가 강요되었음을 인정하기로 결정할 경우”에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책을 제시하였다.[85]

① 중국의 해안 봉쇄
② 중국 공업의 전쟁수행 능력을 해·공군의 폭격으로 파괴
③ 자유중국 부대로 유엔군 증원
④ 자유중국군에게 중국본토에 대한 견제공격의 허용

맥아더 장군은 이 조치를 통하여 유엔군 측은 상대적으로 적은 군사력의 투입으로써 중국의 침략전쟁 수행능력에 심각한 손상을 가하고 크게 무력화시킬 수 있으며, 아시아가 그들에게 먹히지 않도록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유엔군에 대한 압력이 완화될 것이므로 그때 전쟁을 계속 수행할 것인가 아니면 해·공군으로 중국에 대한 작전을 계속 펴면서 근해 도서에 재배치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그는 이러한 방책과 주장이 주요전쟁을 도발할 것 같다는 이유로 앞서 거부된 일이 있지만 이제는 중국이 전쟁에 완전히 개입한 이상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 없다면서 보복조치의 시행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는 소련의 참전여부는 ‘투기의 문제’이며 오직 상대적 전력과 능력에 기초하여 그들 스스로 결심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였으며, 그들의 일본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고 있음에 유의하여 4개의 주(州) 방위사단을 극동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로 요청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개입할 것이라고 생각 해 본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전략 배치의 우선순위에 대해 유럽의 안보요구를 이해하고 그 지역의 지원에 동의하나, 다른 모든 지역의 패배 후에는 유럽의 패배도 반드시 초래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극동의 현 위기에 대한 부대 운용이 국가전략 기본개념을 해치지 않는다며 극동에 대한 우선적 지원을 강조하였다.

결론에서 맥아더 장군은 유엔군에 대한 제한이 계속된다면 합동참모본부의 판단에 동의한다며 철군은,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부산 교두보까지 방어선을 남으로 축차적으로 축소해 가면서 강행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전쟁지도 노선의 갈등은 적의 신정공세 기간 중에 속개된 합동참모회의와 국가안보회의에서 현안과 관련하여 유엔군 측이 취할 군사적 방책과 정치적 지도지침을 확정함으로서 일단락되었으며 1월 12일의 전문 지시에 이어 15일에는 콜린스, 셔먼의 두 합동참모가 도쿄와 서울을 방문하여 정책을 조율하였다. 우선 맥아더 장군이 요청한 보복조치에 관하여, 신중을 요한다는 전제하에, 해안봉쇄는 전선이 안정되든가 철군을 완료하였을 때의 상황에 따라 시행하며, 중국본토의 폭격은 중공이 한반도 외부로부터 유엔군을 공격할 경우에 승인할 수 있다고 했다. 자유중국군의 유엔군 편성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한편 다른 지역에서 그의 운용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채택이 곤란하다는 유보적 입장을 취하였다. 다만 자유중국군의 작전제한 제거안만 수용되어 대(對)공산권 작전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군수지원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추가적 병력증원에 대해서는, 한국의 방어선이 안정될 경우 2개의 주방위사단을 일본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일본으로 전개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그 목적은 한국으로부터 철수하는 부대로 달성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트루먼 대통령은 중국본토에 대한 직접적 군사조치의 요구에 대해 “우리의 군사력이 건설될 때까지 적대행위 지역의 확대에 관한한 아주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그 자체로서 정당화될 수 있고 한국전쟁에 도움이 되는 조치들일지라도 그로 인해 일본이나 서유럽이 대규모 적대행위에 말려든다면 결코 이롭지 못하다[86]고 경고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결론적으로 이들은 유엔군이 직면한 엄중한 상황을 직시하고 맥아더 장군으로 하여금 적에게 최대의 피해를 가하면서 축차적 진지에서 방어하되, 인력과 물자의 심대한 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불가피 할 경우 일본으로 철수하라는 지침을 하달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군사적으로 한반도에서 계속적인 저항이 불가능할지라도 철수 후 제주도와 같은 근해 도서에서 저항을 계속할 것을 제의하였다.

특히 한국으로부터 꼭 철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군사적 필요에 의거 불가피한 것이어야 하나 그 결과는 침략이 시정될 때까지 군사적·정치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온 세계에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여기에는 철수는 하되 결코 한국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강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으나 동시에 확전은 억제해야 한다는 의지도 내포되었다. 이러한 전쟁지도 정신에 따라 당시 미국 정부는 최악의 경우 망명정부를 유지하여 저항을 계속하도록 한국을 지원할 것을 정책목표의 하나로 설정하였다.[87]

(3) 한국정부의 제주도 이전 계획

미국 정부가 1951년 1월 12일 중공군의 참전과 관련하여 결정한 유엔군의 전쟁지도지침에는, 강압에 의한 철수 시 유엔군은 일단 일본으로 철수하되, 한국 정부와 군경을 제주도로 이전시켜 저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중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즉 한국정부로 하여금 제주도에 망명정부를 설치하고 본토 수복을 위해 저항을 계속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유엔군사령부가 수립한 초기의 철군계획(1950. 12. 6)에서부터 고려되었으며 1951년 1월 12일의 정책결정에 따라 1월 15~19일 콜린스와 반덴버그 장군의 도쿄 방문 시 구체적으로 검토되었다. 그러나 철군계획 자체가 철저한 보안 하에 논의되었기 때문에 이 중대 사안도 비밀에 부쳐져 전혀 노출되지 않은 채 워싱턴과 도쿄에서 현안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다만 우리 정부에게는 계획의 입안 초기단계에서 군사 상황에 따라 최악의 경우 불가피하게 미군이 떠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정도로 의사 타진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1950년 12월 6일(워싱턴 12월 5일) 맥아더 장군이 어쩌면 유엔군이 한국에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떠날지도 모른다는 전황 보고를 해왔다는 보도에 접한 장면 대사가 미 국무부에 들어가 "유엔군이 중공군을 격퇴하지 못하고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경우엔 한국국민은 죽어버릴 것이 아니냐"라고 하자, 국무부(러스크)에서는 "미국은 한국전쟁을 포기하거나 군사적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철군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한 다음 아래와 같은 의미심장한 뜻을 전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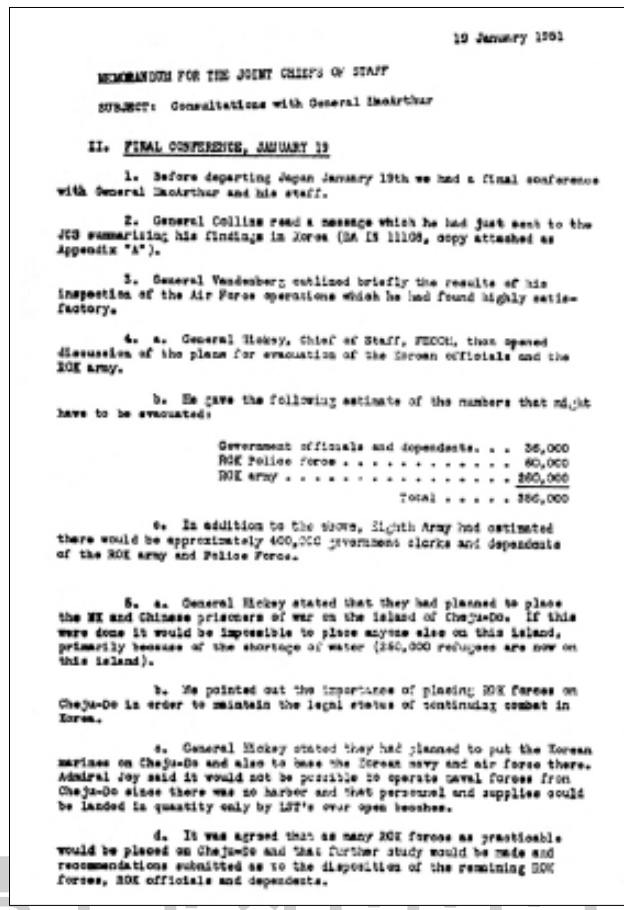
즉, "미국은 군사적으로 강요당하지 않는 한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다시 강조한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미군이 한반도를 떠나야 할 경우,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 한국 망명정부 수립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대사가 원한다면 그것에 대한 의견을 알고 싶다"[88]는 것이었다.

장면 대사는 그에 대해 국군과 유엔군의 전면철수가 있을 경우 제주도와 오키나와가 가능할 것이며 그 때 공무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향후에 유용하게 활용될 군대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89] 물론 이 의사타진은 본국으로 전달되었다. 당시 미국이 극비리에 추진한 이 계획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법적 정통성을 유지하고 전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국정부 이외에도 군경을 제주도로 이전한다"라고 전제하고 그 대상 인원을 행정부 관리와 그 가족 3만 6,000명, 한국 육군 26만 명, 경찰 6만 명, 공무원, 군인 및 경찰 가족 40만 명을 포함하고 기타 요원을 고려해 도합 100만 명으로 판단하여 수송계획까지 발전시켰다.

정부 위치는 제주도를 적격지로 결정하였으나 이곳에는 이미 25만 명에 달하는 피난민과 포로가 수용되어 있어 식수가 부족하여 추가 수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이곳에 수용된 포로들을 먼저 근해도서로 이송하기로 하였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한국인을 일본으로 이동시키지는 않기로 하였다.

맥아더 장군은 이 계획의 검토과정에서 "한국인의 철수와 관련된 제반 문제는 유엔(회원국)과 협의 하에 결정되어야 한다. 철수 장소, 급식문제, 의료지원을 비롯해 최종적 처리문제는 수년간 계속될 문제들이다. 이에 따른 비용 등에 대해서는 유엔군의 철군여부를 결정할 때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유엔군은 제공권과 제해권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중공군의 신장된 병참선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부산 교두보(낙동강 방어선)를 상당기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특히 그는 철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19 January 1951

MEMORANDUM FOR THE JOINT CHIEFS OF STAFF

SUBJECT: Consultations with General MacArthur

II. FINAL CONFERENCE, JANUARY 19

1. Before departing Japan January 19th we had a final conference with General MacArthur and his staff.

2. General Collins read a message which he had just sent to the JCS summarizing his findings in Korea (DA IN 11108, copy attached as Appendix "A").

3. General Vandenberg outlined briefly the results of his inspection of the Air Force operations which he had found highly satisfactory.

4. a. General Hickey, Chief of Staff, FECOM, then opened discussion of the plans for evacuation of the Korean officials and the ROK army.

b. He gave the following estimate of the numbers that might have to be evacuated:

Government officials and dependents. . .	36,000
ROK Police force	60,000
ROK army	260,000
Total	356,000

c. In addition to the above, Eighth Army had estimated there would be approximately 400,000 government clerks and dependents of the ROK army and Police Force.

5. a. General Hickey stated that they had planned to place the NK and Chinese prisoners of war on the island of Cheju-Do. If this were done it would be impossible to place anyone else on this island, primarily because of the shortage of water (240,000 refugees are now on this island).

b. He pointed out the importance of placing ROK forces on Cheju-Do in order to maintain the legal status of continuing combat in Korea.

c. General Hickey stated they had planned to put the Korean marines on Cheju-Do and also to base the Korean navy and air force there. Admiral Joy said it would not be possible to operate naval forces from Cheju-Do since there was no harbor and that personnel and supplies could be landed in quantity only by LST's over open beaches.

d. It was agreed that as many ROK forces as practicable would be placed on Cheju-Do and that further study would be made and recommendations submitted as to the disposition of the remaining ROK forces, ROK officials and dependents.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정부 이전계획 극비문서(1950. 12)

군 시 한국국민의 처리는 유엔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철군여부의 결정은 정치적 결단에 속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90]

이와 같이 1·4후퇴는 한 민족의 운명이 걸려 있는 기로였으며 실제 그 운명을 결정할 계획이 추진되고 있었다. 유엔군 측 지도부는 철군계획을 최고비밀(TOP SECRET)로 유지하고 미군과 유엔군의 철군계획과 한국 정부와 군경의 도서 이전계획을 수립하였음은 물론, 이후 전면전이라는 우발상황에 대비한 유엔군의 재배치 계획과 한국정부와 군·경의 다음 단계의 이동계획까지 수립하고 있었다.

이들은 철군을 고려하고 있다는 전략이 적에게 누설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보다도 이 결정이 알려질 경우 아군부대, 특히 한국군에게 미칠 영향을 보다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었다. "철군 지시는 하달 후 곧 알려질 것이 확실하며, 이는 한국군의 부분적인 붕괴를 초래하기 마련이며 이로써 유엔군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부산교두보에 도달하여 실제 철군에 필요한 기간 동안 그곳을 확보할 능력을 대단히 위태롭게 할 것이다"라고 판단함으로써 이를 한국정부와도 구체적으로 협의하지 않은 채 극비에 부쳤던 것이다. 그들은 철군 결정 시점을 전선이 금강선으로 남하할 때로 판단하였지만 부산교두보에 도착할 때까지는 철군을 위한 예비명령을 작성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유엔군 측은 극비리에 대한민국정부의 이전계획과 유엔군의 철수계획까지 수립해두고 중공군의 기도와 전선 상황의 추이에 초미의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다. 1·4후퇴는 분명 국운이 걸린 위기였으며 역사의 대전환점이었다. 이때 유엔군 측은 중공의 참전 실체가 밝혀지면서 5억 인구에 500만 명의 병력을 보유한 그들의 대잠재력에 압도되고, 또 소련이 그 뒤에 버티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전면전의 위험성에 대비하면서 새 전쟁전략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공산군 측은 추가적인 증원 없이는 유엔군을 밀어붙일 여력도 없었으며 일단 38도선 이남, 서울까지 진출하여 정치·군사·심리적 이점을 확보하고 춘계공세를 준비하겠다는 전략이었다. 당시로서는 유엔군의 철수를 제2의 인천상륙과 같은 상륙작전으로 자신들을 포위하기 위한 유인전략으로 판단하고 종심 깊은 진출을 기도하지 않았다. 게다가 신정공세에서 막대한 전사자가 발생함으로써 실제 더 이상의 전진이 불가능하였다.[91]

결과적으로 철군 시행 50km를 남겨둔 37도선에서 국군과 유엔군이 적을 저지하고 또한 적이 공세를 멈춤으로서 철군과 정부의 이전계획은 시행되지 않았지만, 당시 피아의 상황 판단은 분명 역사의 아이러니였다. 물론 이 계획의 시행시 정부와 군이 유엔군사령부의 계획에 따라 도서로 이전할지, 아니면 유엔군이 철수하더라도 부산교두보에서 끝까지 저항을 하기로 선언할지 그 선택은 오직 우리의 몫으로서 별개의 상황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그 밖에도 이 계획은, 한국 국민의 처리는 유엔이 담당해야 할 문제로 지적하였을 뿐, 후에 월남 패망 시 나타난 바와 같이, 자유를 위한 보트 피플이 얼마나 많이 발생할 지 그 가능성과 대책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아무튼 이 상황은 우리 민족에게는 도서로 정부를 이전하느냐 아니면 교두보에서 저항하느냐의 운명적 선택의 기로가 될 수 있었다. 아울러 이 상황은 전시에 상대의 기도와 전략의 오판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가-국가 운명을 기로로까지 몰고 갈 수 있다는 귀중한 교훈을 남기고 있다.

2) 미국의 현상유지정책 채택

미국 내부의 전쟁지도 노선의 갈등은 적의 신정공세 기간 중에 속개된 합동참모회의와 국가안보회의에서 현안과 관련하여 유엔군 측이 취할 군사적 방책과 정치적 지도지침을 확정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당시 미 정책 당국의 결정은「NSC 101」과「NSC 101/1」의 형태로 정리되었다. 이는 자국의 목적이 아시아 근해의 방위선을 유지하고 타이완을 방어하며 실행 가능한 한 남한을 지원함과 더불어 대소 전면전을 회피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구체적인 조치로서 한국전선의 안정 또는 일본으로의 철수, 극동주둔 미 지상군의 병력 제한, 일본의 방위력 강화 준비 및 한국으로부터의 증강, 대중국 경제봉쇄 및 해안봉쇄 준비, 중국 해안과 만주의 공중정찰, 타이완에 대한 원조 증대, 타이완군 작전제한 철폐 및 게릴라 지원, 한반도 외 지역에서의 중국 도발 시 대중국 폭격, 기타 아시아 지역에 대한 군사원조 강화 등을 들고 있다.[92]

특히 트루먼 대통령은 중국본토에 대한 직접적 군사조치의 요구에 대해, "우리의 군사력이 건설될 때까지 적대행위 지역의 확대에 관한 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그 자체로서 정당화될 수 있고 한국전쟁에 도움이 되는 조치들일지라도 그로 인해 일본이나 서유럽이 대규모 적대행위에 말려든다면 결코 이롭지 못하다"[93]라고 경고하였다.

결국 확전전략 논쟁은 실제 전황을 확인하고 돌아온 양군 참모총장이 전황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호전과 함께 철군 위기가 종식되었음을 보고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전선을 직접 방문하여 위력 정찰전을 지켜 본 콜린스와 반덴버그 장군 일행은 한반도에 남아 싸우는 것은 가능하다는 낙관적인 평가를 내렸다.[94] 이로써 유엔군이 다시 반격을 본격화하고 38도선을 목표로 진출하였고, 미국은 자신의 조건에 기초하여 휴전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3) 유엔군의 신전략과 전선 상황

(1) 38도선 확보전략

유엔군측은 1951년 1월 하순 반격을 재개하여 국군과 유엔군이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공격작전을 펼치자 지난 12월에 심각하였던 철군문제 논의는 일단락되고, 지난해 10월 38도선을 돌파하기 직전처럼 다시 38도선에 관한 전쟁지도전략 연구를 다각도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미행정부와 합참은 3월 15일에 "한국문제를 정치와 군사 두 노선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해결하되, 정치적으로는 통일독립국가를 이룩하고 군사적으로는 침략을 격퇴하고 평화를 회복해야 한다"고 합의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치를 남겨두고 있었다. 여기에는 군사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유엔군은 적에 대하여 계속 최대의 손실을 가해야 하고 38도선 남쪽 영토의 통제를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방위력도 증강되어야 한다. 유엔 지상군은 전술 상황에 의하여 요구될 수도 있는 38도선 북쪽의 16~32km까지 '공세적 방어작전'을 실시토록 허용되어야 한다. 아군이 군사작전으로 38도선에 도착하면 미국은 1950년 12월에 유엔 휴전위원회에 통보한 그 선에 따라 휴전을 추구해야 한다. 만일 적이 잠정 협정의 수락을 거부한다면 유엔군은 적에게 계속 손실을 가해야 한다. 유엔군은 적의 균형을 파괴하고 적의 공격 준비를 분쇄시키기 위하여 38도선 북으로 제한된 기습을 가할 수는 있으나 전면적인 진격을 하여 북한

영토의 확보를 시도해서는 안된다"[95]

결국 군사적으로 전쟁 이전의 상태를 회복한 후 휴전에 의거 전쟁을 해결하며 통일국가수립은 그 후 정치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었다. 한국 국민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이었으나 중공군이 38도선 북쪽에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인 대안이었다.

이러한 전략개념을 구상하고 있을 무렵 지상군이 38도선에 접근해 감에 따라 미행정부로서는 평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에 호기를 맞게 되었다. 전쟁 전의 현상도 거의 회복하였고 유엔군도 공산군과 어느 정도 동등한 힘의 토대에서 협상할 수 있는 입장에 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엔 회원국들도 군사력으로 38도선을 넘기 전에 평화적인 호소를 제기할 것을 강력히 지지하였기 때문이다.



트루먼 대통령과 맥아더 장군

미 합참본부는 3월 20일 극동군사령관에게 대통령이 유엔군사령부는 휴전을 기꺼이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유엔군을 파병한 국가의 동의를 얻어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유엔군이 38도선 이북으로 진격하면 안 된다는 유엔의 일반적인 견해를 전달하면서 차후 적과 협상이 개시될 때 유엔군의 안전과 협상을 지속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 조언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전쟁의 해결에 대해 외교적 수단보다 군사적인 방법을 선호하는 맥아더 원수는 3월 24일 미행정부에 아무런 통고도 없이 "중공군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없다"고 지적하는 등 중공군의 군사력을 경시하고 또한 교전이 지속될 경우

중공을 공격할 수 있다는 등 위협적인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다른 국가들이 트루먼의 계획된 성명의 진실성을 의문시 하는 국제적 혼란이 초래될 것을 우려한 미 행정부는 공개적인 선언을 유보하게 되었다.[96] 트루먼 대통령은 맥아더원수의 태도가 단순한 정책에 대한 불만의 수준을 넘어 미국과 유엔 정책에 대한 고의적이고 사전에 계획된 도전이라고 생각하였다. 결국 트루먼은 자신의 휴전계획 발표를 취소하였다.

이 무렵 전선에서는 국군과 유엔군이 38도선을 넘을 단계에 있었으나, 유엔군사령관과 제8군사령관은 곧 기동전이 종료되고 전선이 교착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때 미 제8군은 개성 지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진강을 도하하여 철수중인 북한군 제1군단을 공격하며 예성강으로 진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적이 이미 예성강 북쪽으로 철수하였고 공격제대가 동측방에 배치된 중공군으로부터 포위될 우려가 있어 이 지역 작전은 수색과 전투정찰대의 활동으로 제한하기로 하였다. 군사령관은 그 대안으로 중부전선의 평강-철원-김화를 공격하기로 하였다. 이때 기자들이 좀 더 극적인 표현을 하고자 철의 삼각지대로 이름 붙인 이 지역은 원산과 서울의 중간지점에 위치한데다 철도와 도로망이 발달된 교통의 요지였다.[97] 당시 이곳은 적의 전방지역 병참 중심지로써 적은 이 지역으로 병력과 물자를 집중적으로 수송하고 있었다. 이 지역을 공격함에 있어 미 제8군사령관의 우선적 관심사항은 철의 삼각지로 아군의 계속적인 진출을 보장할 수 있고, 또 적의 공세준비가 명백해 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양호한 방어진지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지형을 점령하는 것이었다.

이때 선정한 방어선이 임진강 남쪽 제방을 연하여 동쪽으로 뻗어 화천저수지로 연결된 후 동해안의 양양으로 이어지는 선으로서, 이를 캔사스(KANSAS)선으로 명명하였다. 이 선은 서부에서는 38도선 북쪽으로 5~15km, 동부에서는 대체로 10마일 정도 북쪽에 있는 중요지형지물을 연결하여 선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선은 38도선을 전술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지형으로서 3월 15일의 신전략방침에 부합되는 결정이었다. 지난 전선 절단작전(Operation Ripper) 시 38도선으로 진출한 부대가 이 선으로 진격하는 작전을 요철작전(Operation Rugged)이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고 명명하였다.

그 후 군은 다음 단계로 미 제1, 제9군단이 철의 삼각지대를 위협할 수 있도록 유타(Utah)선과 와이오밍(Wyoming)선[98]을 설정하고 철원-김화까지 공격할 계획이었다. 그리고 만일 공격 중에 적의 강력한 공격을 받으면 양개 군단을 캔사스선으로 철수하도록 하고 불굴작전(Operation Dauntless)라고 명명하였다. 이때 맥아더 장군은 리지웨이 장군에게 아군이 선으로 진출하면 그 북쪽의 작전은 대대급 규모 이하의 전투정찰로 제한하도록 지시하였다.[99]

(2) 맥아더 원수의 해임과 전선 상황

중서부전선의 국군과 유엔군이 캔사스선으로 진출하자 미 제8군사령관은 지상 및 항공정찰과 포로 심문 등을 통하여 공산군의 공세징후가 전 전선에 걸쳐 현저하게 증가되고 있음을 간파하였다. 그는 그들의 병력과 장비와 보급물자가 집중되고 있는 전략적 요충인 철의 삼각지대를 점령하여 중부전선에서 캔사스선의 방어종심을 강화하고, 공산군의 공세준비를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였다.

이에 전곡-철원-김화-화천을 연하여 설정한 와이오밍선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공격을 결심하였다. 미 제8군이 이 선상에 진지를 확보하게 되면 철의 삼각지대의 적은 큰 위협을 받게 될 것이므로 와이오밍선은 전략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 목표선에 이르기 위한 1단계 목표선인 유타(Utah)선은 캔사스선 11마일 전방 임진강-금학산-광덕산-백운산으로 연결되며 활처럼 굽어져 있었다. 이 작전에는 미 제1군단의 미 제3, 제25, 제24사단이 공격하며 제9군단의 좌전방 영 제27여단도 단거리 진격을 할 계획이었다.

이 계획에 의거 공격제대들은 4월 11일 불굴의 작전(Dauntless Operation)을 개시하였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날 트루먼 대통령은 맥아더를 유엔군사령관, 주일연합군사령관, 극동 미군사령관, 극동 미 육군사령관의 직위에서 해임하고 제8군사령관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중장을 그 후임에 임명하였다. 그리고 리지웨이 장군의 후임에는 밴플리트(James A. Van Fleet) 장군을 4월 14일부로 임

명하였다.[100]

맥아더 장군은 북한의 남침 2주째인 1950년 7월 8일에 유엔군사령관에 임명되어 1951년 4월 11일 해임될 때까지 북한군과 중공군의 침략을 차례로 응징, 격퇴하고 전쟁전의 경계선을 회복하는데 공헌한 훌륭한 지휘관이었다. 그는 낙동강선에서 북한군의 공세를 저지하고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하여 그들의 주력을 섬멸하였으며, 그 여세로 적을 한중 국경선으로 몰아붙여 한민족으로 하여금 자유 민주통일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이때 개입한 중공군의 침략에 대한 상황판단의 착오와 그들의 인해전술로 국군과 유엔군이 37도선까지 후퇴하는 위기를 맞기도 하였으나 다시 이를 격퇴하는데 성공하였다. 맥아더장군은 이 과정에서 전쟁지도상 워싱턴과 여러 차례 갈등을 빚게 되었고, 결국 이로 인하여 사령관직을 떠나야 하였다.

제1단계 불굴작전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리지웨이 장군은 14일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군단장 회의를 소집하여 최근 적의 공세징후와 적의 공격으로 아군이 캔사스선 남쪽으로 철수 시 적용할 우발계획을 토의하였다. 이 계획에는 3개의 통제선이 설정되었는데 이 선은 중공군의 신정공세 때 국군이 점령하였던 B선(문산-화천-양양), C선(서울남쪽-홍천-원포리), 서울교두보선과 흡사하였다. 첫 번째 선인 델타(Delta)선은 춘천을 중심으로 동서해안에 이르는 선이며 두 번째 선은 네바다(Nevada)선으로 서울 남쪽의 한강변을 따라 북동쪽으로 뻗어 양양에 이르는 선이었다. 그리고 서울방어를 위한 골던(Golden)선은 서울 서북쪽 10km의 행주에서 네바다선상의 양평을 반원형으로 연결한 선이었다. 그리고 이 회의에 모인 지휘관들은 가까운 장래에는 적이 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날 신임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 장군이 도착하여 정식으로 사령관직을 인수하였다. 밴플리트 장군은 제2차 세계대전이 절정에 달했던 1944년 6월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연대장으로 참전하여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였으며, 이후 9개월 동안 사단장을 거쳐 일약 군단장으로 발탁된 유능한 지휘관이었다. 그는 1948년 중장 승진과 더불어 그리스의 미 합동군사고문단장을 역임하였다. 그는 이때 그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스 정부를 도와 공산주의자들의 지원을 받는 반정부활동을 잠재우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그는 이러한 야전지휘관으로의 능력과 공산주의자들과의 투쟁경력에 의해 제8군사령관의 적임자로 인정되어 군사령관에 부임하게 되었다.

리지웨이 장군은 밴플리트 장군에게 지휘권을 인계하면서 유타선 이북으로 군대를 진출시킬 경우 사전에 통고하고 또 와이오밍선 이북으로 대부대를 이동시킬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지시하였다.

이때 전선에서 제1단계 불굴작전을 개시한 공격제대들은 철의 삼각지 부근으로 접근할수록 적의 저항이 점점 강화되었고, 또한 폭우로 인하여 도로 상태마저 불량하여 공격제대의 진출은 매우 느렸다. 이런 상황에서도 20일을 전후하여 미 제3사단은 연천을, 미 제25사단은 금학산을, 미 제24사단은 문혜리를, 그리고 영 제27여단은 사창리로 진출함으로써 유타선을 점령하였다.

국군과 유엔군이 유타선과 캔사스선에 위치하거나 그 부근에 도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의 공격이 즉각 개시될 조짐이 없자 리지웨이 장군의 후임으로 부임한 밴플리트 장군은 4월 21일 와이오밍선을 목표로 불굴의 작전 제2단계를 개시토록 하였다.

이에 좌전방 미 제1군단의 미 제24사단과 제25사단이 철원-김화를, 우전방 미 제9군단의 국군 제6사단과 미 제1해병사단은 김화-화천을 목표로 각각 공격을 개시하였다. 미 제9군단의 2개 사단은 접적이 없어 캔사스선에서 북쪽으로 2~5마일을 진출하였다. 그러나 미 제1군단의 우전방 광덕산으로 진출한 미 제24사단은 우인접의 국군 제6사단과 연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접적을 회피하였지만, 좌전방 보개산에서 철원을 공격한 미 제25사단(터키 여단 배속)은 적의 포격으로 오전 중에 공격이 돈좌되었다. 미 제1군단과 제9군단은 22일 공격을 재개하였으나 상황은 어제와 같이 미 제9단은 2~3마일을 전진하였으나 미 제1군단의 2개 사단은 적의 강력한 저항으로 진전이 불가하였다.

이때 적의 저항은 한층 강화되고 또 공세징후가 현저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항공정찰에 의하면 북쪽과 북서쪽에서 적의 전방지역으로의 이동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 지역에서는 아군의 치열한 포격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에도 불구하고 적은 전방지역 중앙으로 집결하였고 또 임진강변에서는 적이 도하 준비를 위한 정찰활동이 증가되었다. 그리고 전방지역에서는 생포되는 포로의 수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중공군이 야간에 대규모 공세를 개시할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국군과 유엔군이 우려했던 대로 중공군은 해가 저물자 제일 먼저 국군 제6사단의 사창리 지역으로 춘계공세를 개시함으로써 불굴의 작전은 중단되고 도리어 수세로 전환되었다.

(3) 종전정책으로의 전환

전쟁이 개시된 이후 춘계공세에 이르기까지 쌍방은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밀리고 미는 격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어느 일방의 결정적 승리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감내하기 어려운 막대한 인적 물적 손실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다.

미국으로서는 자유진영 국가들로부터 전쟁의 조기 종결 압력을 받게 되었음은 물론 무한정한 인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중국과 이들에게 물자를 지원하는 소련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승리를 확신할 수 없었다. 반면 중국도 5차에 걸쳐 최대 80개 사단(북한군 포함)을 투입하여 공세작전을 펼쳐보았지만, 막강한 화력과 기동력을 앞세운 유엔군을 한반도에서 축출한다는 당초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병력보충과 물자 지원에도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경험과 인식으로 인하여 쌍방은 전쟁수행 1년 만에 전선이 전쟁전의 현상으로 회귀하여 38도선 부근에서 교착되자, 군사적 수단 대신 정치적 수단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국군과 유엔군은 1951년 초, 중공군의 신정공세로 인한 1·4후퇴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1월 말 평택-삼척 선에서 재반격작전으로 전환하여 서울을 재탈환하였고, 3월 말 38도선으로 진출함으로써 전쟁전의 상태를 회복하였다. 그리고 4월 초 전술적으로 방어하기 유리한 지형을 연결한 이른바 캔사스(Kansas)선[101]까지 점령하였으며, 그 후 중부전선의 방어력을 강화할 목적 하에 철의 삼각지 저변을

연결하는 와이오밍(Wyoming)선[102]으로 진격을 계속하였다.

이 무렵 미 행정부 내에서는 대한(對韓) 정책을 수정하여 '적절한 휴전장치 하에 전쟁을 종결하고 전쟁 전의 상태로 복귀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새 정책을 모색 중이었다. 이에 따라 미 제8군의 임무는 적에게 충분한 피해를 가하여 적들로 하여금 미국의 이러한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제한되었다.[103]

그러나 한국 정부의 통일정책은 변함이 없었고, 통일을 염원하며 휴전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소리가 점차 높아 갔다. 마침내 1951년 4월 3일 장면(張勉)[104] 국무총리는 국토 분단을 초래하게 되는 어떠한 결정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는 당시 휴전을 반대하는 정부 정책의 천명인 동시에 국민의 총의를 대변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한국전쟁에 참전하고 있는 우방 제국에 대하여 한국 정부와 국민은 진심으로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한국전쟁의 유일한 목적은 통일된 독립 민주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며, 이는 유엔도 수차 반복하여 언명한 바 있다. 한국은 한국인 스스로가 모르는 가운데 국토가 남과 북으로 분할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전쟁이 불가피하였던 것이니 통일을 저해하는 어떠한 일도 다시 있어서는 안되겠다. 한국인은 합법적으로 수립된 자주 국가의 시민으로서 우리의 조국을 분할하는 여하한 결정도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10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와 같이 전쟁수행 정책 결정을 두고 한·미간의 갈등이 표출되는 와중에 미국은 4월 11일 그간 행정부의 대한(對韓) 정책에 잦은 불화를 초래해 왔고, 휴전협상 제안에 마찰을 빚은 맥아더 원수를 해임하고 그 후임으로 리지웨이 장군을 임명하였다.[106]

리지웨이 장군의 부임으로 대통령, 국무 및 국방장관, 그리고 합동참모본부 등 전쟁지도부와 야전군사령부가 전쟁을 제한하려는 정책목표를 일사불란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107]

이때 극동 해·공군사령관에게 하달된 별도의 지시에서도 똑같이 전쟁 제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 제8군의 군사작전을 직접 지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련영토로부터 20마일 이내, 북위 32도 북쪽의 중공 영토로부터 3마일 이내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특히 극동군사령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한·중(韓中) 또는 한·소(韓蘇) 국경선을 넘어서는 안 되며, 나진이나 압록강상의 수력발전 시설에 대하여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적의 춘계공세를 격퇴한 후 유엔군의 작전방침에 관한 정책 결정 논의는 더욱 발전되어 미국무부와 국방부의 긴밀한 협조를 거쳐 5월 16일에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승인(NSC 48-5)을 받았고, 다음날 트루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확정지었다. 4월 15일 잠정 결정된 후, 1개월간의 검토 끝에 5월 15일 확정된 대한정책의 핵심은 목표를 둘로 구분한 것이다. 최종목표로서 한반도에 통일·독립민주국가의 수립문제는 군사적 수단과는 별도로 정치적 수단에 의거 계속 추구한다. 당면목표로서 전쟁의 해결은 유엔 기구를 통하여 추구하되 적절한 휴전협정으로 적대행위를 종결하며,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38도선까지 미칠 수 있도록 경계선은 그 북쪽에 설정하며 이러한 당면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침략자에 대하여 응징을 가한다는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 새로운 정책에 기초하여 1951년 6월 1일 리지웨이 장군에게 유엔군사령관으로써 임무를 아래와 같이 재규정하여 하달하였다.[10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귀하는 유엔군사령관으로서 휘하의 부대안전과 더불어 최소한 아래와 같은 한국전쟁의 해결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국의 지리적 경계선과 그 인접 해역 내에서 작전하는 북한군과 중공군의 인원 및 물자에 최대한의 손실을 가한다.

1) 적절한 휴전협정으로 적대행위를 종결한다. 2) 행정이나 군사적 방위를 둘 다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또 어떠한 경우에도 38도선 이남이 아닌 곳에 위치한 북방 경계선 남쪽의 전 한국에 대한 대한민국의 통치권을 수립한다. 3) 한국에서 외국군의 단계적 철수를 가능하게 한다. 4) 북한의 새로운 침략을 격퇴할 수 있도록 한국군의 충분한 전력 증강을 허용한다.

이 임무를 추구함에 있어서 유엔군사령관은 한국의 영토와 그 인접 해역 내에서 필요하다거나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해·공군작전을 수행할 권한을 인정받았다. 이 권한은 만주 소련, 혹은 압록강의 발전시설에 대한 작전의 실시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한중 국경선 부근의 작전 제한은 종전의 15마일에서 12마일까지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다소 완화되었다. 지상군의 작전한계는 대체로 화천저수지를 지나는 38도선 북쪽 약 10km의 일반적인 선으로 기술되었다.

당시 육군 총참모장 이었던 정일권 장군은 "유엔군의 작전제한 정책을 결정하는 중대 사안이 전쟁 당사국인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가 없었음은 물론, 현지 군사령관에 지시가 하달된 것도 사후에 알게 되었다며 일국의 총참모장으로써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회고하고 있어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특히 이 결정이 있은 직후인 1951년 6월 8일 미 국방장관 마샬(George C. Marshall)이 도쿄를 경유 대구의 미 제8군사령관을 방문하고 우리 정부와 아무런 협조도 없이 귀국하였는데, 아마도 새로운 정책에 관한 설명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 이 대통령은 국방장관 이기붕과 육군참모총장 정일권을 경무대(부산)로 불러 진노한 목소리로 "대한민국 건국 이래 미국의 수많은 정부 요인들이 다녀갔지만 이러한 무례한 일은 없었다. 이는 미국의 전쟁수행을 책임진 국방장관이 우리를 무시하는 처사이다.(중략) 우리가 지금 미국과 유엔의 지원으로 싸우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주권을 업신여기거나 배신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국방장관은 국회와 국민 여론을 환기시켜 우리의 전쟁수행 결의를 국내외에 반영토록하고, 육군참모총장은 장병들의 북진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독자적인 작전을 준비하라"고 당부하였다.[109]

유엔군사령관에 대한 6월 1일자 지시는 이에 앞서 유엔군이 캔사스, 와이오밍선에 도달하였을 시 합동참모본부가 작전을 통제하기 위하여 하달한 것과 유사한 것이지만, 작전목표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데 특징이 있었다. 이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군사적 방책의 중점을 적대행위에 대해 협상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둔다는 것이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한국정부의 전시조치

1) 정부와 국회의 전시조치

1950년 12월 31일 중공군 제3차 공세가 개시되어 국군과 유엔군이 철수하게 되자, 정부와 국회는 1951년 1월 3일 수도 서울을 포기하고 재차 부산으로 이동하였다. 정부는 부산 경남도청 청사를 임시 중앙청으로 정하고 집무를 개시하였으며, 국회는 부산극장을 임시의사당으로 삼아 정상적인 의회활동을 개시하였다.[110]

정부는 우선 중공군 제2차 공세 이후 특히 서울시민들이 무사히 피난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울였다. 서울시민들은 전세가 갑자기 반전되어 국군과 유엔군이 밀리게 되자 12월초부터 크게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정부가 피난민 철수계획을 수립한 것은 유엔군이 평양을 포기했을 무렵부터였다. 평양, 원산 지역에서 중공군을 저지하지 못하면 서울을 방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리하여 12월 중순경 정부는 동빙고, 마포에 부교를 설치하여 부녀자와 노약자들이 먼저 피난하도록 포고문을 게시하였고, 이어 12월 24일 서울 시민 소개령(疏開令)을 발표하였다.[111] 남쪽으로 가는 간선도로가 작전용으로 쓰이게 되어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자 시민들은 다른 길로 남하하게 되었다.

또한 많은 서울 시민들이 열차를 이용하여 남쪽으로 이동하였다. 1950년 12월 말까지 대체로 약 40%의 시민들이 피난을 떠났으며 마지막으로 1951년 1월 3일까지 30여만 명의 서울 시민들이 한강을 넘었다.

그 후 3월 14일 국군과 유엔군이 수도 서울을 재차 탈환하였으나, 정부는 곧바로 환도하지 않고 그대로 부산에 머무르면서 전국의 일진일퇴에 동요됨이 없이 장기전태세에 돌입하여 기 조직된 전시선전대책위원회를 강화하고 범국민적인 총력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는 등 전시 국정을 수행하는데 주력하였다.[112]

전시 국정을 능동적으로 처리해야 했던 정부는 대내 정쟁에도 불구하고 식량난에 대처하기 위해 1951년 5월 6일 미가 조절 긴급대책으로 정부미 20만석을 방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하였다. 동시에 정부보유 달러를 불하하여 민간 무역업자로 하여금 외국산 양곡을 수입하도록 조치하고 공무원에 대한 무상양곡 배급을 실시하였다.

또한 정부는 누증하는 범죄의 단속과 부상군경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처우, 전재민문제, 주택문제, 유행성 질병문제 등 당면한 산적한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정부는 동년 7월 2일 유엔에 대하여 전재 복구비 계상에 의거 70억 달러를 요청하는 계획서를 발송하고, 이어 대일 배상액이 최소한 6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발표하였다.

기간 중 치안문제에 있어서는 국군 제8사단이 전선으로 복귀함으로써 경찰만으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이 시기 더욱 발호하고 있는 공비들을 토벌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약 8천여 명으로 추산된 공비들이 후방경비의 소홀을 기회삼아 전국 산간벽지를 무대로 갖은 만행을 자행하고 있어 민심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한편 국회도 부산극장을 임시의사당으로 재개한 후 점차 정상적인 활동을 개시하게 되었는데 국회의 당면한 중요과제는 1951년도 예산안 심의였다. 그러나 전쟁 이후 혼란정국으로 인하여 정부나 국회의 시정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재정지출 또한 난맥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국회는 앞서 지난해 연말 국민들로부터 큰 불만을 샀던 부역행위 특별심사법안과 사형금지 법안을 의결하였다.[113] 전자는 부역자의 처벌을 신중히 하기 위하여 중앙과 지방에 '부역행위 특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부역용의자는 반드시 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처벌하기 위한 것이었고, 후자는 부역행위의 과죄를 빙자하여 인권을 유린하는 지나친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하부 기관에서는 이러한 입법정신을 무시하고 옥석을 가리지 않는 과도한 권력남용이 자행되어 민심을 동요시킨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었다.

이후 국회는 1951년 3월 20일 지난해의 행정 실태와 재정 상황을 조사하지 않고는 예산을 심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우선 국회가 전반에 걸쳐 조사를 단행하기로 결의했다. 그리하여 4월 3일부터 국정조사반이 각 지방에 파병되어 4월 26일까지 조사를 완료하였는데, 그 결과 많은 부당성을 적발하였다.[11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편 전황이 호전되어 1951년 3월 14일 국군과 유엔군이 서울을 다시 탈환하고 38도선까지 회복하게 되자, 유엔군과 미국 지도부에서는 휴전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미국 지도부에서 휴전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국내에 알려지자, 한국 국민들은 통일을 염원하며 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 뒤 4월 11일에 유엔군사령관이 맥아더 장군에서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장군으로 바뀌고 공산군이 다시 춘계공세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하자 그러한 논의는 일시적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2) 정부의 총력전 태세 구축

(1) 정부의 총력전 노력

가. 총력전 의지 표명

1·4후퇴의 위기를 넘기면서 37도선에서 간신히 전선의 안정을 기하였으나 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9일 평양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환영대회에 참가할 무렵까지만 해도 조국통일이 목전에 찾아 온 듯하였다. 불과 며칠 사이에 중공군의 참전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전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전쟁 국면의 반전 상황이 온 것이다.

정부는 이 기간 중 중공군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기 위하여 총력전 결의를 다지면서 대응조치를 강구하였다. 우선 신성모 국방장관의 담화문을 통하여 총력전으로 맞설 결의를 천명하였다.[115]

불법남침을 개시한 북한군이 국군과 유엔군에게 무참히 패배하여 북한의 산악지대에서 그 여명을 유지하고 있는 이때 새로운 침략세력으로 드디어 그 정체를 나타내며 중공군이 성스러운 한국 영내(領內)에 대담하게 불법침범을 감행하는 동시에 북한 북한군을 원조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사실은 우리가 전혀 예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하지 않은 돌발적인 일은 아닌 것이며, 또 놀랄 것도 아니다.(중략) 이 불법 침략의 말살은 오직 시간문제일 뿐이며, 북한군의 전멸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이다. 그러나 전국(戰局)은 바야흐로 중대한 단계에 돌입하였다. 이 중대한 시기에 이르러 우리 전 국민의 거족적인 분기와 민족역량의 총집결이 요구된다.

그 후 중공군의 2차 공세 직후 유엔군이 38도선 이남으로 철수하고 전 세계의 이목이 전쟁의 추이에 집중되고 있었다. 이때 이 대통령은 전쟁이 우리의 자유 독립을 위한 최후 결전단계임을 선언하고, 국민총력전으로 이를 극복하겠다는 중대 성명을 발표하였다.[116]

국민 여러분에게 전쟁의 형편을 간단히 말하려고 합니다.(중략) 우리국군과 유엔군이 소련의 꼭두각시인 인민군을 소탕하고 평양과 함흥을 해방시켜 전장에는 적군의 잔해만 남아 있어 통일완수가 목전에 이르렀습니다.(중략) 사태가 이렇게 되자 공산제국주의자들은 다시 전쟁을 시작키로 결정하고 거대한 중공군을 은밀히 침투시켜 국군과 유엔군에게 다수의 피해를 주었습니다. 지금 확실히 밝혀진 것은 한국에 있는 유엔군을 전멸시켜 그들의 근본계획을 완성하려는 것입니다.(중략) 이 전쟁은 우리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는 최후결전임을 애국동포들은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중략) 우리는 남녀를 막론하고 다 한마음 한뜻으로 이 광폭한 원수에 대항해서 우리의 역량을 있는 대로 다 전장에 공헌해야 될 것입니다.(중략) 전 국민이 한 사람처럼 일제히 궐기해서 어깨를 겨누고 소련과 중공군이 우리나라에 가져온 공산괴질을 청소해야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결전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정부는 전쟁초기에 이어 두 번째로 남한 전 지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으며, 12일 15:00에는 중공의 침략을 물리치고 통일대업을 완수하기 위한 국민결의 대회가 이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애국단체 총연맹 주체로 서울운동장에서 성대히 거행되었고, 결의문도 채택하였다.[11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 중국 공산군이 한국을 침략하여 우리는 새로운 적과 싸우고 있다. 인류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한국의 통일과 자주를 위하여 한국내서 적을 완전 소탕하고자 우리는 총궐기하였다. 2. 즉시 전투에 참가할 수 있는 100만 애국청년에게 무기를 달라 우리는 반공투쟁에 총 매진코자 한다. 6·25의 실패를 거듭하지 않으려면 완전무장이 절대로 시급하다. 3. 민주의 보루 대한민국을 수호코자 3천만 전 국민이 총 단결했다.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자유는 한국의 안정 없이는 바랄 수 없음을 선언한다.

그리고 유엔군이 북한지역에서 부분적인 철수를 개시한 무렵 "우리의 힘으로 이 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청·장년은 총칼을 들고 국민은 정신의 무기를 들고 내 강토를 지키자"는 멸공무장국민대회를 서울운동장에서 열기도 하였다.[118]

이때 소집영장을 기다리던 청년들 사이에는 자진입대를 간청하는 인원이 증가하였고, 이들 중에는 "나는 화랑도의 정신을 갖고 있다. 전쟁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이다"라는 혈서를 쓰고 지원한 사람들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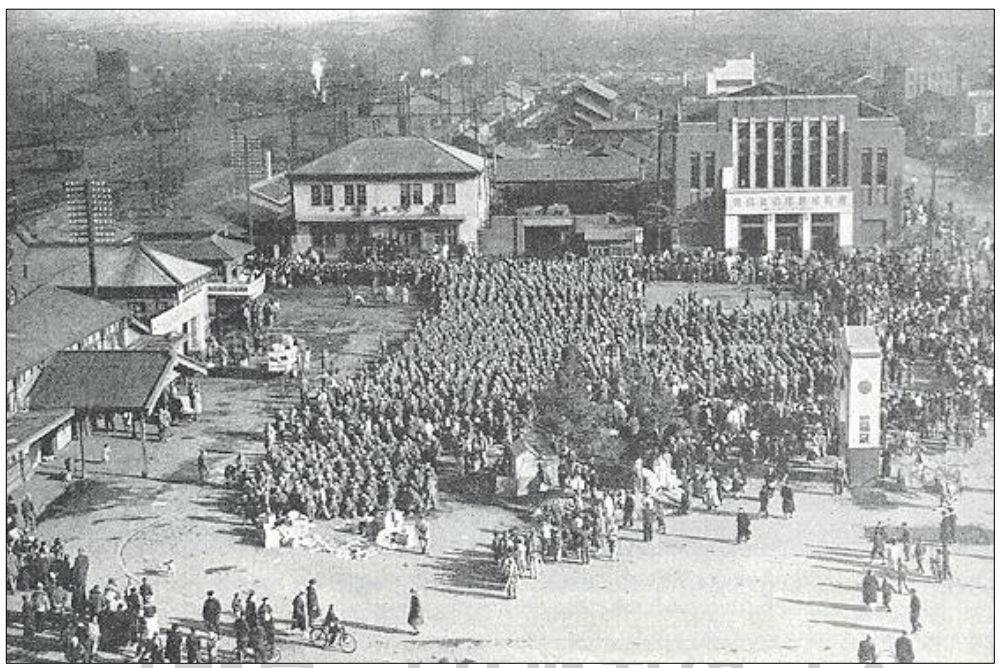
1월 5일 부산에서는 백만 명의 무장을 요청하는 부산시민 총궐기대회가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우리의 조국방위전선은 날로 피 끓는 젊은이를 부르고 있고 새로운 사태에 새 무장을 할 때는 정히 오늘 이때를 두고는 없다. 오직 실력만이 괴뢰 중공군 일파의 무도한 개입야욕을 송두리째 분쇄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100만 우리 장정을 급속히 장비시킬 수 있는 우수한 무기를 서슴지 말고 달라"고 촉구하였다.[119]

나. 한국군의 전력증강 시도

중공군의 참전을 계기로 정부와 국민들은 전쟁이란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엄숙한 현실임을 직시하게 되었다. 비록 유엔군이 전선에서 분투 중임을 감사하게 생각하나 중국의 침입을 맞아 후퇴하는 그들을 바라보고 수수방관만 할 수는 없었다. 나라를 지키고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나서야만 하였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손에 적을 무찌르기 위한 무기를 확보하는 것이 선결 과제였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한 이 대통령은 대한청년단 50만 명을 무장시키기로 결심하고 미국에 장비 제공을 요구하였다.[120]



한국청년들의 참전 지원 모습(대구역 광장)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 무렵 국무총리로 임명되어 이임 인사차 백악관을 방문하게 된 장면 대사는 직접 트루먼 대통령에게 대한청년단 50만 명을 무장시켜 줄 것을 제의하였다. 그는 "기초 훈련을 받은 100만 명이 무기지급을 기다리고 있으니, 미국의 조속한 무기지원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하였다.[121]

사실 이때는 유엔군의 추가파병을 획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미국 역시 추가 파병할 가용부대가 없어 유엔군의 전력보강이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국군의 확장이 유엔군의 전력증강을 위한 최선의 방안임이미 국무부에 의해 고려되기도 하였다.

무기지원의 필요성과 정부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미 국방부와 합참본부는 이를 검토하게 되었다. 미 합동전략기획위원회는 이 계획에 찬성하고 무기의 가용 재고를 조사한 후, 7만 5,000~10만 명의 한국인을 특수부대로 조직하여 병참선을 경계시키고 적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서 게릴라로 운용하도록 제안하였다.

그러나 맥아더 장군은 기존부대의 임무수행 상태가 너무나도 좋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부대의 창설에는 이점이 없다고 반대하였다.[122] 그리고 그는 대한청년단은 기존 부대의 보충요원으로 운용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하였다. 결국 미국 정부는 극동군사령관의 판단을 수용함으로써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던 대한청년단의 무장계획은 결실을 보지 못하고 말았다.

(2) 외교활동의 강화

정부는 국민방위군의 편성, 대한청년단의 무장 시도 등 총력전태세 구축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유엔을 무대로 외교 활동도 강화하였다. 이때 정부는 중공의 불법 침략을 알리고, 또 세계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지원을 얻는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참석한 외무장관 임병직(林炳稷)은 다음과 같이 공산군을 비난하면서 국제사회에 협력을 호소하였다.[12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대한민국에 대하여 중공정부는 범죄적이며 야만적이며 난폭하다. 또한 변명할 수 없는 침략을 행한데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나는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군대를 철수시키는 동시에 군민을 막론한 포로를 석방하도록 요구한다. 오늘날 동양의 평화와 세계평화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가 세계 제패의 광란을 중지하지 않는 한 여하한 평화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광란은 응당 저지되어야 한다. 이것은 엄숙한 현실이다.(중략) 중공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돌연 대한민국 영토에 침입해 온 것이다. 주로 공산주의 본거지로부터 각종 무기를 보급 받은 막대한 중공군이 선린국인 한국에 대한 야만적인 전쟁에 투입되고 있다. 중공군의 포탄과 탄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군과 유엔군,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살해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변명의 여지가 없는 침략이다.

또 장면 주미대사가 귀국기자회견에서 중공과의 타협은 항복 이외는 아무것도 의미하는 것이 없다고 지적하고, 새로운 침략에 대응하여 최후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어서 임 외무장관은 유엔정치위원회에서 침략자들은 힘이 정의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음으로 유엔은 어떠한 방법으로나 중공에 대하여 유화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124]

3) 후방 지원의 확대

국군과 유엔군은 1951년 1월 초 적에게 서울을 빼앗긴 후 전열을 정비하고 반격작전을 전개하여 봄에는 다시 38도선 부근까지 진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군은 많은 병력과 장비를 손실하였다. 따라서 국군의 각 지원 부서들은 국군이 다시 전투력을 회복하여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125]

인사지원 면에서 이 기간 동안 육군은 인사 군기를 강화하여 지휘관의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최대한 인력 손실을 막고, 각 군이 인사체제를 정비하여 병력의 확보 및 인사 운영에 노력하였다. 모병에 있어서는 지역 병사구사령부의 폐지와 제2국민병 점검 및 소집, 국민방위군의 구성과 해체 그리고 국군 제5군단(예비)의 창설과 예하부대의 노무사단으로 전환 등이 이루어졌다. 교육에 있어서는 각 군 제병학교들이 재창설 또는 개교되었다. 인사제도와 운영 면에 있어서는 신상필벌 제도와 인사 운영상의 진급, 후생, 복제 등이 마련되기도 했다. 또한 전쟁포로 및 민간인 억류자 관리에서는 거제도 포로수용소가 설치되고, 정부의 민간인 억류자 석방 노력이 이루어졌다.

군수지원 면에서 국방부 제3국(관리국) 중심으로 보급체계, 정비체계 등을 수립하였고, 각 기술병과 지원부대들이 발전을 거듭하여 많은 업적을 내었다. 또한 이 기간 국내 군수산업도 발전하여 생산 능력을 향상시켰다.

민사지원 면에서 이 기간에 이재민과 피난민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정부의 노력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우방 국가들과 유엔의 적극적인 지원활동이 이루어졌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4 절 분석 및 교훈

1. 양측의 작전 상황과 의미

중공군 제3차 공세와 유엔군의 축차 방어작전은 새로 부임한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미 제8군사령관과 중공군 지원군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가 최초로 격돌한 한 판 승부였다. 특히 양측 모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작전을 수행하였으므로 양측 지도부의 전쟁지도는 작전의 승패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1950년 말 유엔군의 전쟁지도 방침은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의 출혈을 강요하면서 반격의 계기를 조성한다는 것이었으며, 공산군의 전쟁지도 방침은 전투력과 보급이 제한된 상황 하에서 마오쩌둥(毛澤東)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공세를 지속하여 전과를 계속 확대한다는 것이었다.

국군과 유엔군은 30만에 달하는 중공군의 출현으로 미처 방어태세를 갖출 겨를도 없이 철수하였다. 서부전선의 미 제8군은 12월 4일 평양에서 철수하였고, 12월 중순에는 38도선 북방까지 후퇴하게 되었으며, 12월 말에 이르러서는 임진강-연천-춘천 북방-양양을 연하는 38도선 부근에 방어선을 형성하고 중공군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다.

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과 한국군 제1군단은 중공군에게 퇴로를 차단당하게 됨으로써 부득이 흥남에서 철수하여, 12월 14일~24일 간에 부산으로 해상철수를 실시하였다. 그 후, 미 제10군단은 부산에서 예비가 되었으며, 국군 제1군단은 동부전선의 38도선 방어에 투입되었다. 이때, 유엔군은 국군 8개 사단과 미군 2개 사단을 38도선 방어에 배치하고, 국군 2개 사단과 미군 5개 사단을 평택-원주-삼척선에서 운용하기 위하여 예비로 확보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당시 유엔군은 중공군의 공세가 강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38도선으로부터 낙동강 선까지 수개의 방어선을 계획하고 이 계획된 방어선에서 축차적으로 중공군의 전력을 약화시킨 다음 반격으로 전환한다는 전략개념을 수립하고 있었다. 38도선상의 방어편성은 약 220km의 방어정면 중 미군이 서부(문산, 포천 정면)의 45km를 담당하였고 국군이 나머지 175km에 달하는 중부와 동부 지역을 담당하였다. 이때, 한국군 사단의 방어정면은 평균 22km에 달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청천강을 넘어 평양을 점령한 중공군 제13병단은 대부분의 병력을 경의선과 중부의 성천-양덕-곡산-철원 축선으로 투입하여 12월 하순에는 개성-철원 북방까지 진출하였다.

그리고 중공군 제9병단은 장진호-함흥 축선에서 미 제10군단의 병참선을 차단하고 미 제1해병사단을 포위하였으나, 미군 사단과의 전투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러므로 제9병단은 더 이상 계획대로 남진작전에 참가할 수 없게 되었다. 공산군은 그 대신 북한군 제3, 제5군단과 제2전선부대인 제2군단이 동부전선으로 남하하여 38도선 북방에 전개하였다.

이와 같이 12월 하순, 38도선 북방에 전개를 완료한 공산군은 12월 31일 주공을 철원-의정부-서울 축선으로 지향하고, 조공을 화천-춘천-원주 축선에 지향하여, 38도선을 돌파하기 위한 제3차 공세(신정공세 : 1950. 12. 31~1951. 1. 8)를 개시하였다. 공산군은 이 공격에 앞서 북한군 제2군단의 부대들을 12월 20일경, 양구-인제 지역에서 홍천, 현리-평창 방면으로 사전 침투시켜 유엔군의 측 후방을 교란 및 위협하여 정규전과 비정규전을 배합하여 작전의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38도선을 방어 중이던 국군과 유엔군은 전방으로부터의 압력과 측후방으로부터의 위협으로 격전을 치르면서 다시 38도선에서 물러나게 되었으며, 1951년 1월 4일에는 서울을 빼앗기고 1월 7일에는 평택-삼척선으로 후퇴하여 그곳에 신방어선을 편성하였다.

제3차 공세로 남진을 계속하여 1월 8일에는 수원-여주-강릉 선까지 진출하게 된 중공군도 그동안에 입은 전력의 손실로 인하여 그 곳에서 더 이상 진출하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못하고 수세로 전환하였다. 그동안 중공군은 6·25전쟁에 개입한 이후 청천강 선으로부터 1일 평균 10km의 속도로 남진하고 공격개시 38일 만에 수원-강릉 선까지 진출할 수 있었으나, 이 선이 그들 능력으로는 최대한의 진출선이 되고 말았다.

이와 같이 중공군의 공격역량이 한계점에 다다른 것을 간파한 국군과 유엔군은 1951년 1월 25일을 기하여 일제히 반격작전을 개시하였다. 유엔군은 지역의 확보보다는 공산군부대의 격멸에 작전의 주안을 두고 축차적이며 협조된 작전을 전개하였다. 국군과 유엔군이 한강 남안-횡성 선에 이르렀을 때 다시 중공군의 제4차 공격(2월 공세, 1951. 2. 11~2. 18)에 부딪쳐 지평리, 원주 일대에서 한 차례의 공방전을 치렀으나, 이를 격파하고 진격을 계속하였다.

국군과 유엔군은 3월 15일, 1·4후퇴 이후 70일 만에 서울을 다시 탈환하였으며, 이의 여세를 몰아 전진을 계속하여 3월 말에는 38도선을 또다시 회복하였다. 이때 유엔군은 38도선 방어에 유리한 캔사스 선으로 불리는 임진강-영평천-화천저수지-남애리를 연하는 요지를 점령하고, 중부지역에서는 와이오밍 선으로 불리는 철원-금화로 진격을 계속하였다.

이때 중공군의 다섯 번째의 공세가 되는 5차 공세(춘계 공세)가 시작되었다. 이 공세는 중공군의 참전 이후 최대병력이 동원된 마지막 공세이기도 하였다. 당시 중공군의 가용 병력은 4개 병단 16개 군 51개 사단 규모였다. 중공군은 이 병력과 북괴군을 총동원하여 제1단계 제5차 공세(4월 공세, 4. 22~30)과 제2단계 제5차 공세(5월 공세, 5. 16~22) 두 차례에 걸쳐, 4월에는 서부전선(개성-화천), 5월에는 동부전선(양구-인제)에 전력을 집중시켜 인해전술로 총공세를 취하였다. 국군과 유엔군도 사력을 다하여 이를 저지하였으며, 무제한적인 화력을 운용하여 이들에게 심대한 손실을 입힘으로써 이들의 공세는 구파발-홍천-하진부리-강릉을 연하는 선에서 저지되었다.

중공군의 춘계공세는 쌍방 간 서울공방에 초점을 두고 실시되었던 작전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국군과 유엔군은 이러한 공산군의 대규모 춘계공세를 저지하는 데 성공하자, 곧 반격작전을 계속하여 5월 말에는 세 번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로 38도선을 회복하고, 6월 15일에는 문산-연천-철원-김화-화천-간성에 이르는 주요 지역을 점령한 다음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중공군도 그 북쪽에서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이때 유엔군이 공격을 중단하고 방어선을 구축하게 된 이유는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전세는 유리한 상태에 있었으나 전쟁전의 원상상태에서 휴전을 모색하려는 미국의 정치적인 고려 때문이었다. 또 중공군이 수세로 전환하게 된 이유는 춘계공세 이래 연이은 치명적인 손실로 인하여 급격한 전력의 약화를 초래하여 공격능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때부터 전선은 교착되었으며, 전투는 진지전 형태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전술적, 심리적 주도권 쟁탈을 위한 소모전만을 반복하게 되었다.

2. 양측의 전쟁지도

1) 공산측의 전쟁지도

중공군은 제1, 제2차 공세의 전과에도 불구하고 제3차 공세의 작전계획 수립단계에서 38선 돌파 여부를 놓고 내부적으로 중국 정치지도부와 격론을 벌였으며 또 작전을 완료한 시점부터는 남진강행 문제를 놓고 북한 지도부 및 소련 군사고문단 등과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

최초 중공군 지휘관 펑더화이(彭德懷)는 1950년 12월 8일 마오쩌둥에게 38선을 넘지 말고 충분히 준비를 한 후에 내년 봄 다시 전투를 재개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동안의 전투에서 볼 때 중공군이 절대 우세가 아닐 뿐만 아니라 병력들이 대단히 지쳐있으며 보급 부족, 병참선 신장 등으로 2~3개월간의 휴식과 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마오쩌둥(毛澤東)은 현지 지휘관인 펑더회이의 휴정(休整) 건의에도 불구하고 김일성과 소련 군사고문관들의 요청-특히 스탈린의 남진권유 입장-를 고려하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재차 38도선을 돌파하여 유엔군을 대량 살상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는 나아가 조기에 전쟁을 종결해야 한다는 정치적 결심을 하달하였다.

결과적으로 중공군은 신정공세에서 미국을 압박하는 등 정치적인 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중국군은 제3차 공세의 성공이 자력으로 성취한 것이 아니라 유엔군의 계획된 철수작전의 결과란 사실을 전투과정을 통해 잘 분석하고 있었다.

펑더화이는 1951년 2월 하순 유엔군이 반격작전을 전개하자 휴정계획에도 불구하고 제4차 공세를 앞당겨 실시하였다. 제4차 공세 역시 마오쩌둥과 스탈린(Joseph V. Stalin)의 적극적인 공세 권유가 작용한 것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유엔군의 근접항공지원과 축차적인 지연작전 그리고 고립방어 등에 의해 큰 타격을 받아 1주일 만에 공세작전을 종료하고 말았다.

공산군의 지휘부는 4월 말경 중공군이 담당하고 있는 중동부전선이 돌출되자 국군을 대량 섬멸하여 4월 공세 참패에 대한 책임을 조기에 수습함은 물론 미군을 고립시켜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5월 공세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중공군은 예상되는 휴전회담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목적으로 참전한 이후 최대 규모의 병력을 동원하여 공세작전을 개시하였으나, 유엔군의 압도적인 화력에 밀려 더 이상 진출하지 못한 채 엄청난 인적, 물적 손실의 대가를 치루며 작전을 종료하였다. 펑더화이는 물론이고 마오쩌둥도 더 이상 공세작전을 수행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유엔에서 제의한 휴전협상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유엔군과 한국정부의 전쟁지도

유엔군은 1950년 말 공산군에 의해 38도선 부근까지 밀리게 됨으로써 이제 철군이냐, 확전이냐를 비롯하여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했고, 아울러 한국정부의 제주도 이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전쟁의 기로에 봉착하게 되었다.

특히 미국의 지도부는 중공의 침략에 대한 대처 방안도 반드시 유엔의 집단안전보장 장치를 통해 강구되어야 한다며 서방 유엔회원국의 결속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확전이나 철수보다는 유엔주도하에 38도선에서 휴전을 이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고려되었다.

미국은 유엔에서의 휴전논의가 한창인 1950년 12월 11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휴전을 고려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휴전조건을 논의하였다. 이는 사실상 유엔의 새 전쟁지도 지침으로서 휴전정책이 확정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공산군측의 반대로 휴전위원회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중공군의 공세가 계속되자 철군과 확전에 관한 전략논쟁이 다시 일게 되었다. 미 합참은 강압에 의한 철군정책 결정을 내리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12월 29일에 유엔군사령관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맥아더 장군은 그 지시가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려는 의지를 상실한 것으로 보고 방어를 위한 강력한 보복조치를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전쟁지도 노선의 갈등은 중공군의 신정공세 기간 중에 속개된 합동참모회의와 국가안보회의에서 유엔군 측이 취할 군사적 방책과 정치적 지도지침을 확정함으로서 일단락되었다.

결론적으로 유엔군이 직면한 엄중한 상황을 직시하고 맥아더 장군으로 하여금 적에게 최대의 피해를 가하면서 축차적 전지에서 방어하되, 인력과 물자의 심대한 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불가피 할 경우 일본으로 철수하라는 지침을 하달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군사적으로 한반도에서 계속적인 저항이 불가능할지라도 철수 후 제주도와 같은 근해 도서에서 저항을 계속할 것을 제의하였다.

당시 미 정책 당국의 결정은 「NSC 101」과 「NSC 101/1」의 형태로 정리되었다. 여기서 미국의 목적이 아시아 근해의 방위선을 유지하고 타이완을 방어하며 실행 가능한 한 남한을 지원함과 더불어 대소 전면전을 회피하는데 있다고 분명히 하였다. 이 과정에서 맥아더 장군은 전쟁지도를 두고 워싱턴과 여러 차례 갈등을 빚게 되었고, 결국 이로 인하여 사령관직을 떠나야 했다.

한편 미국으로서는 자유진영 국가들로 부터 전쟁의 조기 종결 압력을 받게 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었음은 물론 무한정한 인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중공과 이들에게 물자를 지원하는 소련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승리를 확신할 수 없었다.

이 무렵 미 행정부 내에서는 대한(對韓) 정책을 수정하여 '적절한 휴전장치 하에 전쟁을 종결하고 전쟁 전의 상태로 복귀 한다'는 새 정책을 모색하였다. 결국 이러한 경험과 인식으로 인하여 양측은 전쟁수행 1년 만에 전선이 전쟁전의 상황으로 회귀하여 38도선 부근에서 교착되자, 군사적 수단 대신 정치적 수단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한편 1950년 12월에 접어들면서 유엔 회원국들 중 많은 서방국가들이 미국의 전쟁정책에 대해 회의를 갖거나 비판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었다. 서방국가들은 자신들의 직접적인 국가이익인 유럽안보를 위해 유엔에서의 발언권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영국은 6·25전쟁에서 서방국가들이 중국과의 전쟁에 휩싸여 군사력을 분산키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련을 유리하게 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이 무렵 유엔에서는 현재 참전중인 14개국 외에 다른 유엔 회원국들의 참전을 확대시킬 필요성을 절감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은 추가 파병이 가능한 상황이며, 몇몇 남아메리카, 특히 브라질과 멕시코도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유엔은 호주와 뉴질랜드로부터 각각 1개 대대규모, 캐나다에는 여단병력의 파견인원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나 터키에게도 자발적인 파병을 장려하고 있었고, 이미 파견제의를 한 바 있는 우루과이, 에티오피아, 쿠바와도 군사기술적인 지원 문제를 협의하고 있었다.

캐나다 정부는 2개 대대를 추가로 파견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노르웨이 정부도 1개 야전병원의 파견 의사를 통보하였다. 영국은 중공군 참전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유엔회원국들의 지원을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호주는 국내 총선 이후에야 논의가 가능하였다.

그리고 터키는 미국의 충분한 안보 공약을, 그리스는 추가적인 재정원조를 제공한다면 파견 가능성이 있었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은 중동지역의 정세악화로, 파키스탄은 카슈미르 분쟁으로 제외되었고, 필리핀 또한 국내 치안문제에 봉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착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남아메리카 지역에서도 파병문제가 거론되었으나 브라질 사단과 페루 연대전투단의 요청은 더 많은 토의가 필요하였다. 그리고 볼리비아, 칠레 및 우루과이는 파병 문제를 고려하기로 동의하였으나 멕시코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유엔은 유엔회원국들의 참전 확대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1951년 6월까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한편 이 무렵 한국정부는 중공군의 제3차 공세에 의한 국가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해 국민총력태세를 전개하고 있었으며 중공군에 대적하기 위한 소요병력을 동원하는데 주력하였다. 아울러 미국으로부터 보다 강력한 지원을 얻기 위하여 다각적인 외교활동을 강화하였다.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은 유엔과 미국정부에 대해 중공군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한국의 100만 애국청년에게 무기를 지원해 주도록 촉구하였다.

1951년 3월 중순 전황이 호전되어 서울을 재탈환한 후 유엔군과 미국 지도부가 휴전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자, 한국정부는 통일을 염원하며 휴전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것은 당시 휴전을 반대하고 한반도의 통일을 염원하는 한국 국민들의 총의를 대변한 것이었고, 차후 한국정부와 유엔군사령부와의 심각한 갈등을 예고하는 중요한 사안이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주(註)

1) 1950년 말까지 유엔참전국은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캐나다, 프랑스, 필리핀, 터키, 타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스, 스웨덴, 인도 등이었다.

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역), 『미 합동참모본부사』(상)(서울 : 삼아, 1990), 389~390쪽.

3) Matthew B. Ridgway, 김재관(역), 『리지웨이 한국전쟁』(서울 : 정우사, 1984), 101쪽.

4) 영국의 중국정책에 관해서는 주로 김계동, 「중국의 한국전 개입에 대한 영국의 정책」, 박두복 외, 『한국전쟁과 중국』(서울 : 백산서당, 2001), 370~382쪽을 참고하였다.

5) *Bevin to Peking No.1891 & 5180*, 18 & 22 November 1950, FK(1023/139, FO371/84116, PRO, 위의 논문, 379쪽 재인용.

6) U.S. Dep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 Vol.Ⅶ(Washington D. C.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2). pp.931~932.

7) U.S. Dep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 Vol.Ⅶ. pp.1399~1400. 아시아-아랍 13개국은 아프가니스탄, 버마,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레바논, 파키스탄,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예멘 등이었다.

8) Bevin to Peking No.5171, 21 November 1950, FK(1023/132G, Fo371/84116, PRO, 김계동, 「중국의 한국전 개입에 대한 영국의 정책」, 380쪽 재인용.

9) 외무부(역), 『한국전쟁관련 소련외교문서』(2), 1994년(미간행), 60쪽. 이 문서는 러시아 옐친 전 대통령이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한국전쟁관련 구 소련외교문서이며, 한국 외무부에서 번역한 자료이다.

10) 외무부(역), 『한국전쟁 관련 소련 외교문서』(3), 127쪽.

11) 위와 같음.

12)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소 편저, 전략문제연구소(역), 『중공군의 한국전쟁사』(서울 : 세경사, 1991), 79쪽.

13) U.S. Dep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 Vol.Ⅶ, pp.1524~1525.

14) 정일형, 『유엔과 한국문제』(서울 : 신명문화사, 1961), 31쪽.

15) U.S. Dep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 Vol.Ⅶ, pp.1517~1520.

16) NSC 95(1950.11.13.)는 미국의 휴전협상에 관한 기본 입장을 정리한 것이었다. *Ibid.*, pp.1528~1531.

17) *Ibid.*, pp.1549~1550.

18) 정일형, 『유엔과 한국문제』, 31~32쪽.

19) 牛軍, 「중국 참전과 국제정치」,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의 새로운 연구』 제2권, (서울 : 신오성, 2002), 409쪽.

20) U.S. Dep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 Vol.Ⅶ, pp.1594~1598.

21) *Ibid.*, pp.6~9.

22) *Ibid.*, pp.130~13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3) *Ibid.*, pp.95~96.

24) Harry S. Truman, *Public papers of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States*(Washington. D. C. : USGPO, 1966), pp.2~3.

25)「펑더화이가 마오쩌둥에게」(1951.1.27), 정부기록보존소,『한국전쟁관련 중국자료선집』Ⅱ(대전 : 신진기획, 2002), 327쪽.

26) 楊奎松,「중국군의 정전협상전략」, 군사편찬연구소,『한국전쟁의 새로운 연구』제1권(서울 : 신오성, 2001), 603쪽.

27) 牛軍,「중국 참전과 국제정치」, 410쪽.

28) U.S. Dep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 Vol.Ⅶ, pp.133~151.

29) *Ibid.*, p.9.

30) *Ibid.*, p.117.

3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역),『미 합동참모본부사』(상), 336쪽.

32) 국방부,『한국전란 1년지』(서울 : 국방부, 1951, 국방부), C166쪽.

33)「국무원 공고 제12호 비상계엄 해제에 관한 건」행정자치부,『관보 1951년 4월 4일자』『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main.jsp.

34)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6권(서울 : 서울신문사, 1973), 19~20쪽.

35) 위의 책, 20쪽.

36)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5권(서울 : 서울신문사, 1972), 27쪽.

37)「동아일보」1951년 2월 9일자.

38) 국방부,『한국전란 1년지』, A77쪽.

39)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6권, 18쪽.

40) 위의 책, 19쪽.

41) 위의 책, 20쪽.

42) 국방부,『한국전란 1년지』, A77쪽.

43)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6권, 20쪽.

44) 위와 같음.

45) 국방부,『한국전란 1년지』, A77쪽.

46) 전사편찬위원회,『국방사』제2집(서울 : 국방부, 1987), 352~354쪽.

47) 중앙일보사,『민족의 증언』제3집(서울 : 중앙일보사, 1985), 324~325쪽 및「최경록 헌병사령관 증언」,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증언록, HA04874 ; 국민방위군사건에 관해서는 주로 남정옥,「국민방위군」, 군사편찬연구소,『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제1권의 내용을 주로 참조하여 발제 정리하였다.

48)「경향신문」1951년 4월 24일자.

49)「국민방위군 해산에 관한 건」, 대통령기록관,『이승만대통령기록물』(1951년 5월 12일), http://www.pa.go.kr/online.contents.

50) 동아일보사,『비화 제1공화국』제2집(서울 : 홍우출판사, 1975), 233쪽.

51)「경향신문」1951년 5월 8일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52) 중앙일보사,『민족의 증언』제3권, 349쪽.

53)「경향신문」1951년 6월 13일자.

54) 남정옥,『국민방위군』, 232쪽.

55)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6권, 18쪽.

56) 국군 제9연대「작전명령」제5호(1951. 2. 2.)

57) 서울대법학연구소,『거창양민학살사건자료집』Ⅰ(서울 : 서울대출판부, 2003), 37쪽.

58)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제59권(1951.2.6, 국군 제11사단 제9연대 상황)

59) 국방부,『국방사』제2권, 33~34쪽.

60) 中國軍事科學院軍事歷史硏究部,『抗美援朝戰爭史』第2卷, 軍事科學出版社, 2000, 188~189쪽 ; 전략문제연구소(역),『중공군의 한국전쟁사』, 94쪽.

61) 전략문제연구소(역),『중공군의 한국전쟁사』, 93쪽.

62) 中國軍事科學院軍事歷史硏究部,『抗美援朝戰爭史』제2卷, 163~165쪽.

63) 위의 책, 163~165쪽.

64) 沙江,「항미원조전쟁의 군사목표와 전쟁지휘」, 정부기록보존소,『한국전쟁관련 중국자료선집』Ⅱ, 324쪽.

65) 洪學智,『抗美援朝戰爭回憶』(北京 : 解放軍文藝出版部, 1990), 99쪽 ;「마오쩌둥이 펑더화이에게」(1950.11.28),『한국전쟁관련 중국자료선집』Ⅱ, 84쪽.

66) 사회과학원,『조선전사』제26권(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248쪽.

67) 沙江,「항미원조전쟁의 군사목표와 전쟁지휘」,『한국전쟁관련 중국자료선집』Ⅱ, 325쪽.

68) 編纂委,『彭德懷自述』(北京 : 人民出版社, 1981), 192쪽.

69) 中國軍事科學院軍事歷史硏究部,『抗美援朝戰爭史』제2卷, 164~165쪽.

70) 牛軍,「중국군의 38도선 남진 배경」, 484~485쪽.

71) 沙江,「항미원조전쟁의 군사목표와 전쟁지휘」, 325쪽.

72)「마오쩌둥이 펑더화이와 고강에게」(1950.12.29), 군사편찬연구소,『한국전쟁의 새로운 연구』제1권(부록)(서울 : 신오성, 2001), 508쪽.

73) 전략문제연구소(역),『중공군의 한국전쟁사』, 92쪽. 중공군은 이번 신정공세에서 30여만 명(중공군 6개 군 23만여 명과 북한군 3개 군단 7만여 명)을 투입하여 서울을 재점령하고, 37도선 부근으로 진출하였으나 북한군 2,700명을 포함하여 85,000여 명이 전사하였다.

74) 위의 책, 92쪽. 공산군 측은 신정공세 기간 공산군 전사자를 8,500명(북한군 2,700명 포함)으로 밝히고 있다.

75) 위의 책, 327쪽.

7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역),『미 합동참모본부사』(상), 321~323쪽. 중공군 신정공세 시 동부전선에 배치된 국군은 집중적인 공세를 받아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유엔군은 전선조정을 위해 불가불 D방어선(평택-안성-장호원-원주-원포리)까지 철수하게 되었다.

77) 解方,『關于朝鮮開城停戰談判的回憶』,『한국전쟁관련 중국자료선집』Ⅱ, 215쪽.

78) 한표욱,『한미외교 요람기』(서울 : 중앙일보사, 1984), 113쪽.

7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역),『미 합동참모본부사』(상), 273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80) 위의 책, 291~299쪽.

81) 위의 책, 302쪽.

82) 한표옥,『한미외교 요람기』, 125쪽.

83) 위의 책, 129쪽.

8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역),『미 합동참모본부사』(상), 315~315쪽.

85) 위의 책, 315~316쪽.

86) 위의 책. 332쪽

87) 위의 책. 329쪽.

88) 한표옥,『한미외교 요람기』, 126~127쪽.

89)「덜레스, 철수 및 한국의 망명정부 문제에 관한 장면과의 대담」, 국방군사연구소,『미 국무부 한국 한국 국내상황 관련문서 XV(*The U.S. Department of State Relating to the Internal Affairs of Korea XV*, 한국전쟁 자료총서』제53집, 1996, 500~501쪽.

9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역),『미 합동참모본부사』(상), 339쪽.

91) 위의 책, 92쪽에는 신정공세 시 공산군측 전사자를 8,500명(북한군 2,700명 포함)으로 기술하고 있다.

92) U.S. Dep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 Vol.Ⅶ, p.70, pp.79~81.

93) *Ibid.*, pp.68~70.

94) *Ibid.*, pp.102~105.

9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역),『미 합동참모본부사』(상), 365~366쪽.

96) 위의 책, 367쪽.

97) Mossman, Billy C., *United States Army in Korea War : Ebb and Flow November 1950-July 1951*(Washington, D. C. :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90), pp.348~349.

98) 유타(Utah)선은 전곡(임진강 서쪽)-금학산-광덕산-사창리 선이다.

99) Billy C. Mossman, *Ebb and Flow*, p.350.

100) *Ibid.*, p.362.

101) 캔사스선(Kansas Line)은 임진강하구-전곡-화천저수지-양양을 연하는 약 186km를 연결하는 선이다.

102) 와이오밍선(Wyoming Line)은 임진강하구-전곡-철원-김화-화천저수지로 연결되는 전진 한계선이다.

10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역),『미 합동참모본부사』(상), 374쪽.

104) 정부는 1950년 11월 국회로부터 끊임없이 정부쇄신 요구를 받게 되자, 동년 11월 22일 장면 주미대사를 국무총리에 지명하고 국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10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5권(서울 : 서울신문사, 1972), 28쪽.

106) 위의 책, 26쪽.

10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역),『미 합동참모본부사』(상), 378쪽.

108) Billy C. Mossman, *Ebb and Flow*, p.49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09) 정일권, 『정일권 회고록』 (서울 : 광명출판사, 1996), 398~399쪽.
110) 국방부, 『한국전란 1년지』, B33쪽.
111) 위의 책, B80쪽.
112) 위의 책, B116쪽.
113) 위의 책, C68쪽.
114) 대한민국 국회, 『국회사』 (서울 : 국회, 1972), 498쪽.
115) 국방부, 『한국전란 1년지』, C25쪽.
116) 위의 책, C27쪽.
117) 위의 책, C30쪽.
118) 위의 책, B76쪽.
119) 「민주신보」 1951년 1월 6일자.
120) 「대구매일」 1951년 1월 9일자.
121) 국방부, 『한국전란 1년지』, C166쪽.
12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역), 『미 합동참모본부사』 (상), 310쪽.
123) 국방부, 『한국전란 1년지』, C167~169쪽.
124) 「서울신문」 1950년 12월 14일자.
125) 육군본부, 『6·25사변 후방전사』 (인사편), 18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3 장 중공군의 제3차 공세와 1 · 4후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1 절	개요
제 2 절	중공군의 신정공세와 유엔군의 방어
제 3 절	1 · 4후퇴 시 피난민 대책
제 4 절	분석 및 교훈

제 1 절 개 요

1. 전선 상황 요약

국군과 유엔군은 중공군의 제2차 공세에 밀려 평양과 흥남일대에서 철수하였고 1950년 12월 20일경 임진강 하구-연천-춘천 북방-양양을 잇는 38도선 선상에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그러나 방어정면이 광대하여 1개 사단이 30km가 넘는 넓은 정면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부대배치상의 공백지대가 많이 생기게 되어 중공군과 북한군의 침투를 저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무렵 중공군은 38도선 부근으로 남하하여 서울을 목표로 개성-문산-서울과 철원-의정부-서울의 2개 축선 상에 전투력을 집중 투입하였으며, 이들의 일부부대가 원주를 점령함으로써 중앙선 축선을 따라 남진할 수 있는 발판을 확보하였다. 이와 별도로 철의 삼각지대에 제2전선을 형성했던 북한군 제2군단은 인제-현리-평창 축선을 따라 침투하고 있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 중요한 시기에 유엔군 측에서는 미 제8군사령관 워커(Walton H. Walker) 중장이 12월 23일 의정부 북방에서 차량 충돌사고로 전사하는 불운이 발생하였고, 이 사고로 큰 불안감이 감돌았다. 그리하여 후임사령관인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중장이 곧바로 임명되어 12월 26일 대구에 도착하였다. 그는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을 방문하여, 중공군을 격멸하고야 말겠다는 지상군 최고지휘관으로서의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이 때 중국 정부는 청천강과 장진호에서 유엔군을 격파한 것을 계기로 중공군이 마치 세계 최강의 군대나 된 것처럼 자기모순에 빠져 있었다. 이들은 유엔총회에서 인도를 포함한 중립국들이 제안한 결의안을 소련과 더불어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이때를 전후하여 휴전안을 모색하고 있던 자유진영 측에

대해 오히려 굴복을 강요하였다.

이러한 정황 속에서 중공군은 1951년 1월 1일 이른 새벽에 전 전선에서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소위 중공군 제3차 공세(신정 공세)는 6개월 전의 북한군이 남침한 양상과 흡사하여 중공군 주공인 제13병단이 철원-의정부-서울 축선 상에서 맹렬한 기세로 남하하였다. 이때 중동부전선에서는 북한군이 돌파구를 확대하여 안동부근까지 침투하고 있었다. 그들은 사전에 침투한 게릴라부대들과 연결을 시도함으로써 서부전선 방어선을 크게 위협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1951년 1월 3일, 중공군이 수도권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게 되자 미 제8군사령관은 무초 주한 미 대사를 경유하여 수도 서울의 포기를 한국정부에 알려왔다. 유엔군은 다음 날 1월 4일부터 서울 남쪽 60km 지점의 평택-삼척을 잇는 북위 37도선으로 철수를 개시하여, 1월 7일 새로운 방어선을 형성하였다. 이때 리지웨이 사령관의 작전구상은 "철수하면서 적에게 최대한의 타격을 가하다가 그들의 보급능력이 한계에 도달하였을 때 반격으로 전환한다"는 것이었다.

공산군은 1월 8일에는 수원-여주-강릉 선까지 진출하게 되자, 그 동안에 입은 전력의 손실로 인하여 그 곳에서 더 이상 진출하지 못하고 수세로 전환하였다. 지금까지 중공군은 압록강을 넘어 6·25전쟁에 개입한 이후 청천강 선으로부터 1일 평균 10km의 속도로 남진할 수 있었으며, 공격개시 약 38일 만에 수원-강릉 선까지 진출하였다. 그러나 이 선이 중공군의 능력으로는 최대한 진출할 수 있는 한계였다.

이에 앞서, 한국 정부는 12월 24일 수도권에 대한 피난령(避難令)을 내리고, 다음해 1월 3일 부산으로 이동하였다. "1·4후퇴"라고 부르게 된 이 두 번째의 서울 철수와 국군과 유엔군의 37도선으로의 철수로 인하여 서울과 그 밖의 지역에서 남쪽으로 내려간 피난민은 약 220만 명에 이르고, 전국적으로는 764만여 명의 주민이 피난길에 올라 엄동설한 속에서 방황하게 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작전지역의 특징

1) 서부 작전지역의 특징

서부지역 작전지역 내에는 옛 고려 수도 개성을 필두로, 행주산성과 벽제관의 전적지,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산성과 봉수대가 산재하고 있다. 이 지역은 예로부터 북쪽 오랑캐의 주된 침공 지역이었으며 임진왜란 시에는 왜적의 공격축선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곳은 고대로부터 전략, 전술적으로 중요시 되고 있는 군사상의 요충지가 많은 지역이며 행정구역상으로는 연백군과 개풍군(현재 휴전선 이북) 및 파주, 고양과 연천, 양주군의 일부지역이 포함되어 있다.[1)]

작전지역은 대체로 임진강을 중심으로 하여 남북으로 분리되며, 북쪽인 38선 분계선 일대는 예성강을 중심으로 다시 서쪽과 동쪽지역으로 세분된다. 지역 내의 지형은 38도선을 잇는 북쪽이 그 주변지세의 영향으로 구릉과 고지로 형성된 반면에 그 이남은 배천과 청단평야를 비롯하여 임진강과 예성강 등 저지대를 형성하고, 파평산이 임진강 남쪽에서 강류를 따라 남서로 능선을 뻗쳐 강과 더불어 횡격실을 이루었으며 기타지역은 구릉 내지는 평지이다.

개성과 그 동쪽 일대 또한 개성 동편 9㎞ 지역에서 남북으로 흐르는 사천과 임진강으로 인하여 작전상 적지 않은 제한을 받게 되어 있었다. 특히 방어지역 우측의 장파리-적성(구읍리) 간의 38도선 경계지대는 임진강이 그 지대 남쪽 2~5㎞ 지점을 동-서로 흐르기 때문에 철수작전에 적지 않은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었다.[2)]

예로부터 이 지역 일원의 교통망은 대단히 발달되어 있었다. 그중에서도 금천(개성 북쪽 22㎞)-개성-문산-서울 축선 상에 있는 경의도로 및 경의선 철로, 교량 중 예성강철교 및 임진강 철교(경의선 철도)는 피아작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지형지물이었다.[3)] 개성과 임진강 하류 일대는 1950년 말부터 결빙되어 도섭이 가능하여 작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작전 기간 중 기온은 평균 섭씨 영하 10도 내외였으며 바람은 서남풍이 대체로 20m로 불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편 중서부지역은 서울－원산을 연결하는 3번 도로, 포천－의정부를 연결하는 43번 도로, 그리고 일동－서파－퇴계원－서울을 연결하는 47번 도로(전쟁 당시 391번 도로)가 서울을 향해 남북으로 잘 발달되어 있었다. 특히 이들 도로 사이는 종적으로 발달된 천보산맥(天寶山脈)과 광주산맥(廣州山脈)이 형성되어 있어 방어 입장에 있는 아군에게는 인접부대와의 횡적인 연계와 종심배치가 불리한 반면, 공격하는 공산군 입장에서는 기계화 부대의 운영과 국군의 종심지역 공격에 매우 유리한 지리적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2) 동부 작전지역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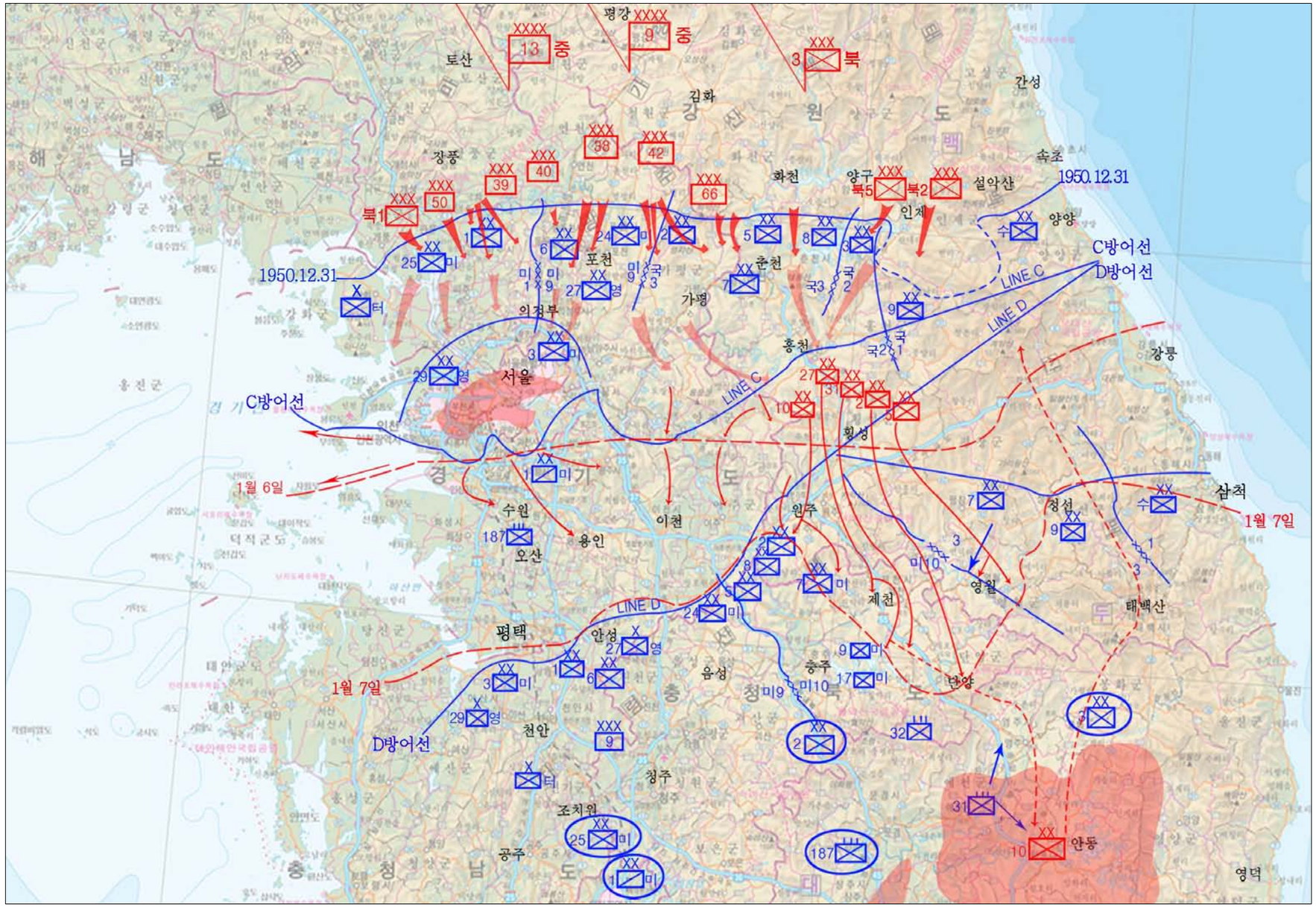
동부 작전지역은 험준한 산악과 불규칙한 지형으로 이어져 있는 것이 가장 특징이다. 먼저 중동부지역은 험준한 산악지역에다 남쪽과 서쪽으로 흐르는 북한강과 소양강 등 천연장애물로 이루어져 방어에 유리한 지형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4] 지역 내 도로망은 화천－춘천－홍천을 잇는 5번 도로와 양구－춘천－가평간 46번 도로, 인제－홍천－서울을 연하는 44번 도로와 인제－현리－홍천간의 451번 도로가 있었다.[5] 그러나 노면상태가 불량하고 동서로 횡단하는 도로가 발달되어 있지 않음으로 횡적인 연락과 작전지원에 불리하였다.

이 지역의 기후는 한반도의 동북부에 위치하고 넓은 산악지대를 이루고 있어 겨울철에 한랭건조하며, 혹한기인 1월의 평균기온이 동해안 저지대의 경우 영하 3~6도, 서북부 고지대는 영하 16~19도로 겨울철 기온의 동서차가 매우 크다. 강수량은 서북부 고원지대가 600~700㎜고 동부 해안지대는 800~900㎜를 나타낸다.[6]

동부지역은 주문진－강릉－옥계－삼척 등 해안 도시로 이어지는 해안선 일대를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이 험준한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해안선으로부터 20~30㎞ 내륙지역에서 동해안과 평행선을 이루며 남북으로 뻗은 태백산맥은 오대산(1,563), 계방산(1,577), 태백산(1,546) 등의 준령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동서간의 교통이 크게 제한받고 있다.[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3-1> 중공군의 제3차 공세 경과(1950. 12. 31～1951. 1. 8)



제 2 절 중공군의 신정공세와 유엔군의 방어

1. 개 요

1950년 12월 하순 38도선 북방에 전개를 완료한 공산군은 12월 31일 주공을 철원-의정부-서울 축선으로 지향시키고, 화천-춘천-원주 축선에 조공을 지향시켜, 38도선을 돌파하기 위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 공격을 중공군의 제3차 공세 또는 신정공세라고 부른다. 공산군은 이 공세에 앞서 먼저 12월 20일경 북한군 제2군단의 부대들을 양구-인제 지역에서 홍천, 현리-평창 방면으로 사전 침투시키고, 유엔군의 측방과 후방을 위협하여 정규전과 비정규전을 배합한 작전을 기도하였다.

이로 인하여, 38도선을 방어 중이던 국군과 유엔군은 전방으로부터의 압력과 측 후방으로부터의 위협으로 격전을 치르면서 다시 38도선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급기야 1951년 1월 4일에는 서울을 빼앗기고 1월 7일에는 사전에 예비방어선으로 설정하였던 37도선인 평택-삼척선으로 철수하여 그 곳에 신 방어선을 편성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신정공세로 남침을 계속하여 1월 8일에는 수원-여주-강릉 선까지 진출하게 된 중공군도 그 동안에 입은 전력의 손실로 인하여 그 곳에서 더 이상 진출하지 못하고 수세로 전환하였다. 무엇보다 중공군 지휘부는 유엔군이 공산군의 남하를 유인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 동안, 중공군은 6·25전쟁에 개입한 이후 청천강 선으로부터 1일 평균 10km의 속도로 남진할 수 있었으며, 공격개시 38일 만에 수원-강릉 선까지 진출할 수 있었으나, 37도선에서 그들의 능력은 더 이상 진출하지 못한 한계를 보였다. 유엔군은 37도선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더 이상 적의 공세기미가 없다고 판단되자 대대적인 반격을 준비하였다.

2. 상황평가 및 의도

1) 공산군측 상황평가 및 의도

(1) 상 황

조·중연합사령부는 제3차 공세를 위해 1950년 12월 23일 서부전선 중공군 각 부대가 38선 부근으로 이동하고 금천, 구회리, 삭령, 연천, 철원, 화천지구에 도착 집결했으며, 차후 공격명령에 따라 돌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강조하였다. 이어 27일에는 공산군 각 군은 은폐 하에 공격준비 위치로 진출하였다.

중공군 각 부대들은 제50군이 개성동쪽 지구에, 제39군이 구화리 지구에, 제40군이 삭녕 지구에, 제38군이 연천지구에, 제42군이 철원 동남지구에, 제66군이 금화 이남과 하천 이북 지구에 각각 도착하였다. 그리고 북한군 제1군단은 사리원과 그 이남 지구에, 제2, 제5군단의 5개 사단은 은폐 하에 홍천지구에, 기타 부대는 인제지구에 각각 도착하였다.

제3차 공세 시 공산군의 공격방향은 중공군 제13병단이 주공으로 개성-서울 축선과 의정부-서울 축선에서, 북한군이 조공으로 화천 동쪽 지역을 담당하여 부대를 전개하였다. 공산군은 공세에 앞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준비하고 있었다.

첫째, 중공군이 개입한 이래 최초로 북한군이 대규모 작전에 참가함에 따라 양군은 연합작전을 위한 연합사령부를 12월 초순에 설치하고 작전범위 및 전선에 관련되는 모든 활동을 결정하였다. 둘째, 참전이 결정된 중공군 제19병단을 다음해 3월경 전선에 도착하도록 계획을 추진하였다. 셋째, 보급문제의 개선을 위해 보급 창고를 증설하고, 여러 지역의 철도와 도로, 교량 등을 수리 및 복구하였다. 또한 북한의 협조 하에 약 3만 톤의 식량을 현지에서 조달하였다. 넷째, 12월 27일경 지정된 공격지점으로의 병력배치를 완료하였다. 다섯째, 진지를 공격할 경우, 반드시 절대적으로 우세한 병력 또는 화력을 집중하여 돌파구를 열도록 준비하고 공격개시일을 12월 31일로 결정하였다.[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조・중연합사령부의 지휘부 모습(중앙에 김일성과 펑더화이)

그리하여 공산군은 공세를 위해 제일선에 병력을 중공군 6개 군 23만여 명, 북한군 3개 군단 약 7만 5,000여 명 등 총 30여만 명을 배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군은 수송력의 부족으로 후방지원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었다. 제3차 공세 직전 중공군은 베이징(北京)과 텐진(天津)에서 차량 246대를 차출하였고, 소련에서 주문한 차량도 도착하여 중공군 각 군에 30여 대의 차량을 추가로 배차하였지만 턱없이 부족하였다.[9]

중공군은 제3차 공세를 위한 식량보급과 수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량은 현지조달로 하기로 결정하고, 평양 동쪽과 남쪽, 38선 이북 지구에 대해 구역을 정하고 구체적인 식량조달 방법을 규정하였다. 즉, 군, 사단, 연대별 정치부 주임 혹은 주정치위원을 지정하여 식량 차용정책 업무만 지도하도록 했다. 이들을 통해 식량 조달부대를 조직하고 지원하도록 했다. 북한정부나 혹은 북한의 각 개인으로부터 빌린 식량은 모두 차용증을 발급하고 추후 중국정부가 모두 상환해 주도록 했다. 서부전선의 6개 군에서는 2만 톤, 동부전선의 제9병단에서는 1만 톤의 식량조달이 필요했다.[10] 중공군은 대체로 공세 직전 북한정부와 주민들로부터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협조를 받아 급한 대로 식량을 조달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공군의 공세작전은 주로 단기전으로 전개되었고, 지속일자도 대체로 20일 이상을 지속할 수 없었다. 이러한 원인은 보급체계와 기동수단, 그리고 화력운용의 취약성에 있었다. 먼저, 중공군의 보급문제는 건실하지 못한 보급체계와 병참선의 신장으로 작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들의 수송 및 기동수단은 전혀 기동화 되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유엔공군의 폭격으로 인한 도로봉쇄와 파괴, 겨울철의 적설로 인해 제한을 받았다. 따라서 전선의 각 병사는 작전개시에 앞서 5~10일 분의 식량과 탄약 및 의약품 정도를 지급받았을 뿐이었다.[11]

또한 중공군의 화력은 다량의 탄약을 필요로 하는 박격포와 기관총, 수류탄에 의존하였으나, 본래 충분한 탄약을 확보하지 못한데다 야간기습과 같은 탄약 소모가 많은 작전으로 인해 38도선에 이르렀을 무렵 탄약이 거의 고갈될 정도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병사들이 신체적으로도 추위와 배고픔으로 인해 사기가 저하되어 있었고, 계속된 공세로 인해 휴식과 정비 및 보충이 시급한 상태였다. 더욱이 장티푸스 및 감기 환자의 속출은 공격작전에 많은 차질을 불러왔다.[12]

<표 3-1> 중공군 및 북한군 보유 장비

구 분	대 포			박격포		전차/자주포	항공기
	76㎜ 이상	45~75㎜	37㎜	60㎜	81㎜ 이상		
중공군	1,097	141	128	2,487	1,048		120
북한군	117	67	27		230	67	30
합계	1,244	208	155	2,487	1,278	67	150

중공군은 강습 도하하고 돌파작전을 준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돌파하여 종심을 향해 진출할 수 있는 작전을 구상하고 또 이를 위한 포병지원을 계획하였다. 또한 포병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각 군, 사단, 연대가 모두 임무에 따라 아군의 배치 및 종심지형 상황을 파악하고, 폭탄묶음 등 폭파기자재를 준비하도록 했다. 병사들에게는 공격 시 대전차공격, 거점공격, 철조망파괴, 사다리타기, 산악공격 등을 특히 강조하였다.[13]

중공군은 12월 30일까지 각 군 부대가 전개를 완료하였다. 특히 제39군은 공격 하루 전, 한국군 제1사단과 접촉하기 위해 영하 25도의 혹한 속에서 지형, 적설, 볏짚 등을 이용하여 돌격부대 7,500여 명, 화포 70여 문을 위장 은폐시키고 공격 준비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14]

(2) 작전목표와 기도

중공군은 작접목표 수립 전에 국군과 유엔군 방어배치와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국군과 유엔군이 적과 접촉을 단절하고 38도선 부근에서 주저항선 구축에 주력하는 동안 적은 공격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당시 미 제8군의 정보 부서들은 적의 가용병력이 17만 4천여 명 정도라고만 판단하였을 뿐 그들의 위치나 기도를 모르고 있었다. 이에 미 제8군사령관은 전방사단에 정찰대를 적진 깊숙이 침투시켜 적의 위치와 규모를 탐지토록 명령하였다.

미 제8군사령관은 4일간의 전선시찰을 통하여 적의 공세가 아군의 경계가 느슨해질 연초에 시작될 것임을 예상하고 서울로 복귀하였다. 이 무렵 미 제8군 정보참모도 적의 공격이 임박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이 보고에 의하면 서부전선의 개성-문산 축선에 북한군 제1군단과 중공군 제50군이, 임진강 상류지역에는 중공군 제39군이, 연천-의정부 축선에는 중공군 제38군과 제40군이 배치되었고, 중부전선의 철원-화천 일대에는 중공군 제66군과 제42군이 배치되었다고 보고되었다. 그리고 화천 동쪽에서 동해안까지 국군이 방어중인 중동부전선에는 북한군 제5군단과 제2군단이 배치되었고, 또 함흥에 위치한 북한군 제3군단과 중공군 제9병단도 중동부전선으로 투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때 중공군은 2차에 걸친 공세작전으로 입은 병력손실을 보충하기 위하여 중공에서 고참병 8만 4천명을 차출하여 전선부대에 보충하였고, 보급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의선(정주-맹중리), 만포선(회천-개천)의 일부 철도도 긴급 복구하였다. 조·중연합사령관인 펑더화이(彭德懷)는 유엔군의 철수와 방어 배치상황 등을 파악하여 공격작전을 논의한 후 12월 22일 중공군 예하 각 군 지휘관들에게 다음과 같이 사전계획을 하달하였다.[1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 지금은 부대 수송, 기후, 한강 등의 상황이 어렵다. 예정된 계획대로 제38, 제39, 제40군을 집중하여 한국군 제6사단, 제1사단을 소멸한다. 제42군과 제66군 주력은 춘천 서북 지구의 한국군 제2사단과 제5사단 1개 연대를 소멸하고, 제66군은 1개 사단으로 하여금 화천에서 남진하여 춘천 이북과 동북의 한국군 제2사단 주력과 제7사단을 향해 양공한다. 먼저 한강, 임진강에 배치되어 있는 한국군을 해결하고 38선을 장악하여 미영의 38선을 이용한 정전음모가 물거품이 되게 한다. 이것이 비교적 타당한 방법이다. 다른 의견이 없다면 이대로 구체적 계획을 하기 바란다.

2. 제50군은 고랑포리로 근접하여 집결한다. 인민군 제1군단은 개성으로 집결하고 제2, 제5군단의 양구, 인제에서의 남진은 변함없다.

(3) 작전계획

공격준비가 완료되자 펑더화이(彭德懷)는 정식으로 제3차 공세의 작전계획을 하달하였다. 그는 북한군 3개 군단과 중공군 6개 군의 협동작전으로 국군과 유엔군이 방어중인 38도선을 돌파하고, 임진강 동쪽과 북한강 서쪽에 배치된 국군 제1, 제2, 제5, 제6사단의 일부를 섬멸토록 하였다. 그리고 상황이 순조롭게 전개된다면 계속 공격하여 신속하게 서울과 춘천, 홍천, 양양, 강릉일대를 점령하도록 했다. 서울을 점령한 다음에는 휴식과 정비를 진행하면서 춘계공세를 준비한다는 작전방침을 정하고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공격명령을 하달하였다.[16]

1) 우전방 5개 군(제38, 제39, 제40군, 인민군 제1군단)은 주공으로 동두천, 서울 방향으로 공격하며, 좌전방 2개 군(제42, 제66군)은 가평, 춘천을 공격한다. 그리고 인민군 2개 군단(제2, 제5군단)은 자은리, 홍천 방향으로 공격한다.

2) 인민군 제1군단은 문산 지역을 양공하여 중공군의 공격을 지원하고, 중공군의 우측방을 엄호한다. 그리고 일부 부대는 적의 상륙에 대비하여 해주 해상을 방어한다.

3) 제50군은 고랑포리에서 제39군과 협조하여 국군과 유엔군의 증원을 차단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거나 한국군 제1사단을 공격한다.

4) 제39군은 일부 부대는 신산리로 진출하여 한국군 제1사단의 퇴로 및 증원을 차단하고, 주력은 제50군과 협조하여 한국군 제1사단을 포위 공격한다.

5) 제38군은 일부부대는 칠봉산으로 진출하여 한국군 제6사단의 퇴로 및 증원을 차단하고, 주력은 제40군과 협조하여 한국군 제6사단을 포위 공격한다.

6) 제40군은 동두천 방면으로 공격하고 제38군과 협조하여 한국군 제6사단을 포위 공격한다.

7) 제66군은 지암리로 진출하여 제42군과 협조하여 한국군 제2사단을 포위 공격한다. 그리고 일부부대는 춘천을 공격하여 한국군 제5사단을 고착 견제하여 인민군 제2, 제5군단의 공격을 지원한다.

8) 제42군은 제66군과 협조하여 한국군 제2사단을 포위 공격한다.

9) 인민군 제5군단은 양구, 인제로 진출하여 한국군 제1, 제2군단의 전투지경선을 따라 공격하여 홍천으로 진출한다. 퇴로가 차단된 국군을 전방부대와 협조하여 포위 공격한다.

10) 인민군 제2군단은 공세가 개시되기 전에 은밀하게 38도선에 침투한 후 홍천 동남방으로 진출하여 전선부대와 연결 작전을 준비한다.

11) 인민군 제3군단은 원산을, 제4군단은 서해안을 각각 방어한다. 그리고 제9병단은 함흥지역에서 계속 정비와 휴식을 실시한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 계획에 의거 제3차 공세를 준비한 공산군은 12월 27일 공격준비지역을 은밀하게 점령하였다. 이때 북한군 제1군단은 사리원 남쪽에, 중공군 제50군은 개성 동쪽에, 제39군은 구화리 지역에, 제40군은 삭녕 지역에, 제38군은 연천지역에, 제42군은 철원 동쪽에, 제66군은 금화 남쪽으로 각각 진출하였다. 그리고 북한군 제2, 제5군단의 5개 사단은 홍천 지역으로 진출하고 있었고, 잔여부대는 인제에 집결하고 있었다.[17]

아울러 공산군 사령부는 38선 지역이 산맥이 이어져 있고 하천이 종횡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또 국군과 유엔군이 산과 하천 그리고 기존에 구축된

진지를 중심으로 종심방어를 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하달하였다.[18]

첫째, 공격 지역 안에서는 절대 우세한 병력과 화력을 집중한다. 예정된 공격선을 향해 맹렬하게 약점을 돌파하고 분할 포위하여 각개 섬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종심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둘째, 돌파 예정지역이나 주력의 도하 등을 엄호하는 전투에서는 반드시 포병을 이용한다. 공병과 제2제대 보병은 포병을 위한 도로작업. 교량건설, 진지공사, 진지 투입 그리고 대공사격 조직을 위해 이를 대폭 지원하고 엄호한다. 셋째, 정찰과 특과병 정찰을 조직하여 공격 목표에 대한 공사상황과 공격로상의 하천의 흐름, 교량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한다. 가능한 한 교량을 이용하고 도섭을 피하여 전투력을 보존한다. 넷째, 방공망을 크게 조직한다. 위장, 은폐, 엄체호 구축을 주로 함과 동시에 반드시 대공화망을 조직한다. 다섯째, 각 군은 계획적으로 몇 개의 정예정찰대를 조직한다. 미군과 한국군의 종심과 그 후방에 깊이 침투하여 파괴 습격활동을 한다.

중공군은 상기와 같이 제3차 공세 시 사전에 방어준비가 된 한국군과 유엔군을 대상으로 공격작전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크게 고려하고 있었다. 중공군 각 군은 계획대로 정찰을 통해 아군의 방어준비 상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강습 도하와 돌파작전을 준비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또 돌파한 후 종심을 향해 진출할 수 있도록 강조하였다.

이 무렵 유엔군 항공정찰대는 적의 대규모 포병진지가 주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 제1, 제9군단의 전투지경선인 연천-의정부 도로에 중점적으로 배치되었고, 또 임진강변에서 다량의 교량용 물자들이 비축되어 있는 것도 관측하였다. 그리고 생포된 포로들도 적의 주공은 서울로 지향되었으며, 공격은 12월 31일 밤에 시작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19] 이에 국군과 유엔군은 사전에 계획된 방어 및 철수작전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예하부대에 강조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편 북한군은 연합사령부의 작전방침에 따라 1950년 12월 중순 북한군 제2전선 부대와 연계하여 북한군 제1군단이 개성 부근에, 북한군 제2군단과 제3군단이 양구에, 북한군 제5군단이 화천에 각각 집결하였다.

북한군의 작전방침은 제2전선 부대의 주력 북한군 제10사단 및 길원팔 유격부대 병력을 전선동부에서 아군 종심으로 깊숙이 침투시켜 춘천-원주-대구의 중앙도로에 연한 주요 지점을 선취하여 중동부전선 주력의 남하에 호응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20] 이러한 작전방침에 따라 중동부전선의 북한군은 주력집단의 작전개시에 선행하여 12월 하순부터 제2전선(12월 말에 제2군단으로 개편)의 길원팔 유격부대와 제10사단을 투입하기 시작하였다.

곧 양구 서쪽의 국군 제8사단 지역에는 북한군 제10사단의 일부병력이 12월 22일부터 산악을 타고 침투하기 시작하였으며, 동쪽 국군 제9사단 우측의 태백산맥과 그 좌일선의 산악지대에는 길원팔 유격부대가 침투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북한군 제2전선부대는 12월 30일 양덕원리(홍천 서남 10km)에 진출하였고 주력은 평창-영월 및 단양-안동부근에까지 침투하였다.

이렇듯 공산군은 정찰과 도하준비를 완료한 후 기습을 달성하기 위하여 1950년의 마지막 날을 공격개시일로 결정하고, 이날 17시에 약간의 공격준비사격을 개시하였다. 이로써 12월 중순이후 소강상태가 유지되었던 한반도의 38도선은 다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되었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4) 전투편성

조·중연합사령관 겸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인 펑더화이(彭德懷)는 1950년 12월 13일 마오쩌둥(毛澤東)의 지시에 따라 계속하여 38선 일대에 배치된 국군 및 유엔군의 주력부대를 공격하고, 이들이 후퇴할 경우에는 차후 서울을 점령하고 이어 가평과 춘천을 점령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공산군은 화천을 경계로 서쪽은 중공군이, 동쪽은 북한군이 담당하여 38선 일대를 돌파할 준비를 갖추었다.

펑더화이는 동년 12월 22일 정식으로 임진강 동안에서 북한강 서안에 이르는 지역 일선에 배치되어 있는 국군 제1, 제6, 제2, 제5사단을 섬멸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전투부대를 편성하였다.[21]

서부지역은 중공군 제38, 제39, 제40, 제50군과 북한군 제1군단이, 동부지역은 중공군 제42, 제66군과 북한군 제2, 제5군단이 공격집단을 형성했으며, 현재 부대 정비 중인 제12, 제15, 제60군 및 북한군 제3, 제4군단을 예비로 두었다. 아래의 표는 중공군 3차 공세시의 전투편성이다.[22]

<표 3-2> 중공군 제3차 공세 전투편성

구 분		편 성 부 대	비 고
서부전선	중공군	제38, 제39, 제40, 제50군	
	북한군	제1군단	
동부전선	중공군	제42, 제66군	
	북한군	제2군단	
동서해	중공군	제42, 제66군	
	북한군	제3, 제4군단	
제2전선	북한군	제5군단	
예비	중공군	제20, 제26, 제27군	함흥

이에 따른 중공군 사령부 예하 각 군의 편성을 보면, 제38군은 제112 · 제113 · 제114사단, 제39군은 제115, 제116, 제117사단, 제40군은 제118, 제119, 제120사단,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표 3-3> 중공군 전투서열 및 지휘관

소 속	성 명	편 성 부 대	비고
사령관 겸 정치위원	펑더화이(彭德懷)		
부사령관	덩화(鄧華), 홍쉐즈(洪學智), 한센추(韓先楚)		
참모장	셰팡(解方)		
제38군장	량싱차오(梁興初)	제112, 제113, 제114사단	
제39군장	우신촨(吳信泉)	제115, 제116, 제117사단	
제40군장	원위청(溫玉成)	제118, 제119, 제120사단	
제42군장	우루이린(吳瑞林)	제124, 제125, 제126사단	
제50군장	쩡쩌성(曾澤生)	제148, 제149, 제150사단	
제66군장	샤오신화이(蕭新槐)	제196, 제197, 제198사단	

제42군은 제124, 제125, 제126사단, 그리고 제50군은 제148, 제149, 제150사단, 제66군은 제196, 제197, 제198사단을 예하에 두었다. <표 3-3>은 중공군 전투서열이다.[23]

조·중연합사령부 예하 북한군 총참모부 각 군의 편성을 보면, 제1군단은 제8, 제47사단, 제17기계화사단, 독립연대로 이루어졌으며, 제2군단은 제2, 제4, 제9, 제10, 제19, 제31사단으로, 제3군단은 제1, 제3, 제13, 제15사단, 제4군단은 제41, 해방 제1여단, 제71독립연대, 전차연대로, 제5군단은 제6, 제7, 제12, 제27, 제38, 제43사단으로 각각 이루어졌다. 아래의 표는 북한군 전투서열이다.[24]

<표 3-4> 북한군 전투서열

소 속	계급	성 명	편 성 부 대	비고
제1군단장	상장	이권무(李權武)	제8, 제47사단, 제17기계화사단, 독립연대	
제2군단장	상장	최 현(崔 賢)	제2, 제4, 제9, 제10, 제19, 제31사단	
제3군단장	상장	유경수(柳京洙)	제1, 제3, 제13, 제15사단	
제4군단장	상장	박종덕(朴鍾德)	제41, 해방제1여단, 제71독립연대, 전차연대	
제5군단장	상장	방호산(方虎山)	제6, 제7, 제12, 제27, 제38, 제43사단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공군 주공부대는 서울방면을 지향한 제38, 제39, 제40, 제50군이었으며, 우일선 부대로 포병 제1, 제8사단 등 총 6개 포병연대를 배속 받았다. 이들은 서쪽 고랑포리에서 동쪽 영평에 이르는 지역의 국군 제1, 제6사단 공격하도록 했으며, 국군이 후퇴할 경우 남쪽으로 공격을 확대해 서울을 점령하도록 했다.

북한군 제1군단은 개성-문산 방면을 공격하여 미 제25사단을 고립시키고 전곡-서울 축선을 공격중인 주공의 우측방을 엄호할 계획이었다.[25] 이때 펑더화이, 김웅, 박일우 명의로 북한군 제1군단 일부로 하여금 해주에 위치하여 경계하도록 하고, 주력은 개성지구에서 문산의 적을 향해 광정면에서 양공하여 문산의 적을 견제하고 중공군 작전과 협조하도록 했다.

북한군 제2군단의 일부는 이미 38선을 넘은 상황이었다. 제5군단 대부분이 이미 38선에 근접해 있었고, 일부는 춘천, 가평을 향해 전진하고 있었다. 12월 22일의 배치명령은 제5군단과 제2군단 일부로 하여금 양구, 인제, 음양리, 부평리에서 동서부 전선 한국군 제1, 제2군단의 전투지경선을 공격하고 성공 후에는 기회를 보아 홍천을 향해 공격하도록 했다. 한편 북한군 제3군단은 총참모부 예비로 평강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26]

<표 3-5> 중공군 및 북한군 제대와 임무

구 분	제 대	임 무
중공군	제38군 · 제39군 · 제40군 · 제50군	주공방향인 고랑포-영평 돌파, 국군 제1 및 제6사단 섬멸 후 서울로 남진
	제42군 · 제66군	영평-화천을 돌파, 국군 제2 및 제5사단 섬멸 후 가평 · 청평으로 전과확대, 경춘가도 장악
	제9병단	함흥지역 집결 후 휴식 및 재정비
북한군	제1군단	양동작전(문산 방향) 실시 후 중공군 우익종대로 국군 제1사단 공격
	제2군단 · 제5군단	양군 좌우측에서 국군 제1, 제2군단 방어진지 돌파
	제3군단 · 제4군단	원산(제3군단) 및 서해안(제4군단) 방어
	해군 4개 여단	동해안 방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조공으로 가평 방면을 담당한 중공군 제42군, 제66군은 포병 1개 연대를 배속받았으며, 서쪽 영평에서 동쪽 마평리에 이르는 국군 제5사단과 제2사단을 공격할 계획이었다. 이들 주력은 영평에서 용소동에 이르는 지구에 집결하고, 먼저 절대 우세한 화력과 병력을 집중하여 국군 제2사단을 공격하도록 했다.

2) 유엔군측 상황평가 및 의도

(1) 상 황

국군과 유엔군은 38도선으로 철수하는 동안 적의 추격이 경미하여 순조롭게

철수가 이루어졌다. 사리원에서 남천으로 이동한 국군 제1사단은 위천리와 구화리 일대의 축차적인 지연진지를 점령하여 아군의 철수를 엄호하면서 지역 내 패잔병 소탕작전을 실시하였다. 사단은 미 제1군단 주력부대의 철수가 완료되자, 12월 14일을 기해 제11연대를 고랑포, 제12연대를 법원리, 그리고 제15연대를 신산리에 배치하였다.[27]

이로써 국군 제1사단은 6개월 만에 전쟁발발 이전의 진지로 다시 돌아온 셈이 되었다. 38도선으로 철수한 미 제1군단은 김포반도에 터키여단을, 개성-문산 도로를 가로지르는 임진강 하류에 미 제25사단을, 고랑포-적성 일대에 국군 제1사단을 배치하여 주저항선을 편성하고, 영연방 제29여단은 군단예비로 고양군 신둔리에 집결시켰다.

한편 신계에서 철수한 미 제9군단은 국군 제6사단을 연천-의정부 축선상의 전곡 일대에, 미 제24사단을 김화-의정부 축선상의 영평 일대에 배치하고 영연방 제27여단을 군단예비로 덕정 부근에 집결시켰다. 시변리 일대에서 지연전을 전개하던 군단의 좌전방인 국군 제6사단은 제7연대를 한탄강 남쪽에, 제19연대를 백의리 일대에 배치하여 주저항선을 구축하고, 제2연대는 사단예비로 동두천에 집결시켰다.[28]

이와 같이 미 제1군단과 미 제9군단이 방어선을 구축하는 동안 미 제8군사령관은 서울 고수에 주력하라는 맥아더 원수의 지시에 따라 현 방어선의 취약점인 얕은 방어종심, 넓은 배치 공간, 국군 부대들의 과도한 방어정면을 보강하기 위해 군 예비인 미 제1기병사단을 퇴계원 일대에 배치하여 춘천 방면에서 서울로 진출하는 적을 차단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영등포에 집결한 미 제2사단을 충주로 이동시켜 중앙이나 동쪽에서 적이 국군의 방어지역을 돌파하면 이를 저지하고, 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과 미 제9군단이 철수할 경우 이들에 대한 우측방의 엄호임무를 부여하였다. 또한 서울 북쪽에 저장된 보급품을 한강 이남으로 이동시키고, 인천항에 비축된 물동량도 줄이도록 지시하였다. 미 제8군사령부도 최소한의 인원만 잔류시키고 주력은 대구로 이동 조치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부전선의 국군 제3군단은 1950년 12월 10일 공비토벌작전을 완료한 국군 제9사단과 제11사단을 육군본부로 원복 조치하였다.[29] 그리고 군단은 양평으로 이동해 국군 제2사단과 제5사단, 제8사단을 배속 받아 군단 창설 이후 최초로 전선에 투입되었다.

국군 제2사단은 가평으로 이동하여 제17연대를 철원 부근, 제32연대를 의정부 부근, 그리고 배속된 제5사단 제35연대를 구화리 부근에 배치하여 연대별로 패잔병 소탕작전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국군 제5사단도 춘천으로 이동하여 제27연대를 청평 동쪽의 호명산 일대, 제36연대를 가평 북쪽의 지암리, 사단에 배속된 제2사단 제31연대를 홍천에 배치해 주저항선을 구축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군단의 우전방인 제8사단의 진출이 지연되어 군단의 방어진지 편성은 다소 차질이 발생하였다.[30] 철수과정에서 적으로부터 기습을 받아 많은 손실을 입었다. 사단은 연천으로 철수한 후 원주로 이동하여 국군 제3군단에 배속 전환되어 화천저수지 남쪽 전선에 투입되었다.[31]

한편 육군본부는 12월 15일을 기해 국군 제3사단의 방어종심을 보강하고, 유사시 증원부대로 운용하기 위해 홍천에서 정비중인 국군 제7사단을 춘천으로 이동시켜 육군 예비로 확보하였다.

동부전선을 담당한 국군 제2군단은 북한군 제2, 제5군단의 패잔병들이 평강-김화-화천 도로를 차단하고 있어 군단은 부득이 연천을 경유하여 철수를 단행하여 12월 14일에서야 원주에 도착하였다. 군단은 재정비할 겨를도 없이 육군본부 명령에 의거 청천강 교두보와 시변리에서 전투를 전개한 제7사단을 육본 직할로, 제8사단을 제3군단으로 배속 전환하는 대신 동부전선의 광정면을 방어하고 있던 제9사단과 함흥에서 구룡포로 해상 철수한 제3사단을 배속 받았다.[32]

그러나 군단이 방어선을 구축하기도 전에 동부전선의 방어력을 보강하기 위한 육군본부의 조치에 따라 흥남에서 철수한 국군 제1군단이 묵호에 상륙하여 동해안지역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제9사단이 다시 제1군단으로 배속 전환됨으로써 군단은 홍천으로 진출한 제3사단으로 인제 남쪽의 부평리-관대리 간을 방어하였다. 제3사단은 좌인접 국군 제3군단 제8사단과 우인접 국군 제1군단 제9사단과 연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하여 주저항선 방어에 임하였다.

국군과 유엔군 병력은 철수과정에서 많은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편제에 상당히 미달되는 수준이었다. 미 제8군은 미군 4개 사단(제1기병사단·제2사단·제24사단·제25사단)과 국군 4개 사단(제1사단·제6사단·제7사단·제8사단), 그리고 영국군 2개 여단(제27여단·제29여단)을 비롯한 기타 유엔군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 중 완전한 병력은 제1기병사단과 제24사단, 제25사단의 미군 3개 사단, 국군 제1사단, 영연방 제27여단과 제29여단이었다. 아군의 병력은 총 36만 5,000명이나 그 중 전투 병력은 국군 14만과 미군 10만 그리고 그 외 유엔군 1만 명으로 불과 25만 명에 지나지 않았다.

<표 3-6> 양측의 지상군 병력 규모(1951. 1. 기준)

한국군 및 유엔군	북괴군 및 중공군
• 한국군 보병사단 : 10 해병연대 : 1 병력 : 약 22만 4,000명	• 북한군 보병사단 : 27 (신편 및 재편성중) 전차사단 : 1 기계화사단 : 1 보병여단 : 7 병력 : 약 12만 명
• 미국군 보병사단 : 6 해병사단 : 1 연대전투단 : 2 병력 : 약 17만 8,000명	
• 영국군 보병여단 : 2	
• 터키군 보병여단 : 1	• 중공군 보병사단 : 30 (19개 군) 병력 : 약 30만 명
• 기타 유엔군 보병대대 : 5 병력 : 약 2만 1,000명	
총병력 : 약 42만 3,000명	총병력 : 약 42만 명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잔여 병력 중 사단 규모를 유지하고 있던 국군 제6사단은 예하 연대들의 전투력이 많이 저하되어 있었다. 그리고 앞선 전투에서 손실이 컸던 국군 제7사단은 약 6,800명, 제8사단은 약 5,760명만이 재집결함으로써 총인원의 50%가 수습되었

지만, 전투력은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미 제2사단과 터키여단은 전투력을 상실하고 부대를 재정비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예비대로서 대 게릴라 작전에 투입되었던 국군 4개 사단은 훈련부족으로 전선 투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33]

그러나 유엔군의 현대화된 무기체계는 중공군에 비해 여전히 압도적인 수준이었다. 특히 미군의 보유 화포는 구경이 크고, 사정거리가 길어 화력이 우세하였다. 반면에 국군의 무기체계는 미군이나 영국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었고, 특히 전차를 보유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보병사단의 기본화기는 30구경인 M-1소총과 브라우닝 자동소총 그리고 기관총이었고, 또한 45구경 콜트권총, 카빈소총, 45구경 M-3기관총, 60과 81㎜ 그리고 4.2인치 박격포는 계속 사용되었다. 로켓발사기는 2.36인치 대신 보다 강력한 3.5인치로 대체되었고, 57과 75㎜ 무반동총이 새로 보급되었다. 사단에 배치된 전차는 M-24(샤피)와 M4A3(셔먼), M-26(퍼싱)과 M-46(패튼)이 주류를 이루었다.

사단의 편제된 야포는 105㎜와 155㎜ 곡사포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 당시보다 2문이 증가된 6문으로 편성함으로써 사단 포병은 54문의 105㎜와 18문의 155㎜ 곡사포를 보유하였다. 또한 대공포대대는 쌍열 40㎜ 기관포와 4정의 50㎜ 기관총으로 장비되었고, 일부 대공포대대는 이외에도 90㎜포를 장비하기도 하였다.

미군은 무기와 장비 면에서 뿐만 아니라 현대전의 경험을 지니고 있어 전투력이 비교적 강한 편이었다. 더욱이 교육훈련에 있어서도 장교들은 각급 군사학교 훈련을 이수하였고, 사병들도 정규교육을 마쳐 전투기술이 비교적 숙련되어 있었다.[34]

한편 육군본부는 동부전선에 국군 제1군단을 긴급 투입하여 방어력을 강화하였다. 국군 제1군단은 묵호로 상륙하여 제2군단으로부터 제9사단이 방어중인 관대리-현리-서림-양양을 연하는 방어선을 인수하였다. 군단은 주저항선을 보강하기 위해 좌전방 관대리-서림에 제9사단, 우전방 서림-양양에 수도사단을 배치하여 주저항선을 구축하고, 군단 후방지역에는 3개 경비대대를 영월과 정선, 하진부리에 각각 배치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군단이 방어진지를 재편성하는 동안 적 제69여단은 양양 북쪽에서 재편성을 완료하였고, 북한군 제2군단 예하의 패잔병들이 인제 부근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특히 2,000여 명의 패잔병들은 오대산을 중심으로 유격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35] 이에 국군 수도사단장은 제1연대에 적의 공격에 대비하여 진지를 강화하도록 지시하고, 제1기갑연대와 제26연대는 서쪽의 오대산 지역을 수색 정찰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로써 국군은 미 제1군단의 미 제25사단이 방어하고 있는 문산 북쪽과 미 제9군단 제24사단이 방어중인 포천 북쪽을 제외한 38도상의 전 지역에 방어편성을 완료하고 적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⑵ 작전목표와 기도

한·중 국경에서 철수한 국군과 유엔군은 1950년 12월 20일 38선상에 부대를 배치하여 방어준비에 전력하고 있었다. 서에서 동으로 미 제1군단(국군 제1사단, 미 제25사단, 터키여단)이 고랑포리-문산 간에, 미 제9군단(국군 제6사단, 미 제24사단, 영 제27여단)이 의정부 정면에, 국군 제3군단(국군 제2, 제5, 제8사단)이 춘천정면에, 국군 제2군단(제3사단, 제7사단)이 원대리-관대리 간에, 국군 제1군단(수도, 제9사단)이 양양-서림리-현리-원대리 간에 각각 배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제일선 부대들의 철수 시에 차기 행동을 준비하기 위하여 국군 제7사단과 미 제2사단은 원주부근에, 그 후방 대구에는 미 제10군단사령부와 미 제7사단이 진출하였으며 미 제1해병사단은 마산에서 재편 중에 있었다. 그리고 서부전선의 미 제9군단 후방 의정부에는 미 제1기병사단이, 미 제10군단 후방인 평택부근에는 미 제3사단이 각각 제1선부대로 기용할 만한 상태에 있지 못한 채 제2선부대로서 진지점령과 재편성을 서두르고 있었다.

전선은 220km에 달하는 산악지대였으며 전투에 지친 제1선 사단의 정면은 20km~30km에 달하여 각 사단은 소대와 중대 단위의 거점식 진지로 주저항선을 구축하였으며 강력한 예비대를 보유하지 못한 채 종심 없는 진지를 형성하였으므로 한 개 지점이 돌파된다면 전 정면이 붕괴될 위험성이 있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당시 아군의 병력은 총 36만 5,000명이나 그 중 전투 병력은 국군 14만 명과 미군 10만 명 그리고 그 외 유엔군 1만 명으로 불과 25만 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당시 아군진지 전면으로 남하한 적의 총병력은 중공군 30개 사단 약 30만 명(당시 추정 21개 사단 27만 6,177명)과 북한군 12개 사단 및 게릴라 부대 등 16만 7,283명을 합하여 제1선 부대만도 총 47만 명에 달하였다. 한편 참전준비를 끝낸 65만 명이 만주에서 대기 중이었으며 25만 명의 부대가 역시 만주로 이동하고 있었다.

이 무렵 유엔군은 어디까지 후퇴할 것인지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일례로 동년 12월 9일에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이 "싸우지 않고 서울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언명하였다는 신문보도가 있자, 다음날 제8군 대변인을 통해 "서울 방어의 언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발표한 바가 있었다.[36]

실제로 유엔군총사령부의 중국본토로의 전쟁확대 주장이 미 행정부에 의하여 거부되고 제한된 전쟁을 계속한다는 상황에서 유엔군이 일본으로 철퇴할 경우까지 상정된 바도 있었다. 당시의 유엔군총사령부 및 미 제8군이 판단한 병력대비로서는, 증원이나 만주폭격 등 적 보급로를 차단하지 않는 한 적을 격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미 제8군은 아군의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인다는 입장에서 38도선으로부터 부산까지 단계별 방어진지를 마련하여 점차적인 철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12월 23일에 미 제8군사령관 워커(Walton H. Walker) 중장이 의정부 북쪽에서 자동차 충돌사고로 순직하고, 그 후임으로 당년 55세인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중장이 임명되었다. 12월 26일에 대구의 사령부로 부임한 신임사령관은 전선의 현황과 후퇴에 대한 준비계획을 보고받고 곧 각전선의 방어진지를 강화토록 명령하고 전선시찰에 나섰다.

이때에 공산군은 서부에 중공군 제13병단이, 중부에 중공군 제9병단 및 북한군 제5군단이, 동부에 북한군 제1, 제3군단이 각각 투입되어 다시 38도선을 넘어 남침할 것을 획책 중이었다. 유엔군은 적이 주공목표를 서울에 두고, 국군 제1사단의 고랑포 정면과 미 제9군단의 의정부 북방으로 공격하면서, 조공은 춘천 북방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워커 장군과 신임 미 제8군사령관 리지웨이 장군

에서 돌파에 의한 포위를 기도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12월말의 아군측 상황은 동부전선에 제1군단(김백일 소장)과 제2군단(유재흥 소장) 중부전선의 춘천-가평 북쪽에 제3군단(이형근 준장), 서부전선의 포천-동두천 북쪽에 미 제9군단(B. E. Moore 소장), 적성-문산 일대에 미 제1군단(Frank W. Milburn 소장)이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적의 주공이 예상되는 고랑포 정면을 맡은 제1사단은 군단 우익으로서 제12연대를 사단 우일선으로 임진강과 한탄강의 합류점인 도감포-마포리-가월리 일대에, 제11연대를 좌일선으로 가월리-주월리-두지리-자장리-자하리-장파리 일대에, 그리고 제15연대는 예비대로 그 주력을 적성-마지리 남쪽에 각각 배치하였다. 아울러 사단은 진지진입 이후 공병대를 각 연대에 배속하여 전면에 지뢰매설과 철조망가설 및 교량폭파 등의 공사를 강화하는 한편 12월 20일에는 고랑포에서 임진강을 도하한 2개 중대 규모의 중공군을 제11연대 제7중대가 격퇴하였으며, 각 연대는 경쟁적으로 수색대를 강 대안에 보내어 적정을 수집하는 등 결의를 새롭게 하고 있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⑶ 작전계획

미 제8군사령관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장군은 부임한 당일(1950년 12월 26일) 피아 전력과 전선 상황 등 다방면에 걸쳐 세심히 검토한 결과 유엔군의 추가적인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38도선으로부터의 반격이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지연전을 통해 적의 전력을 소모시킴으로써 공세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검토하였다.

그는 예하부대의 전선 상황을 치밀하게 분석한 결과 "공세적 방어작전을 반복함으로써 공수의 전환을 도모한다"는 전략 방침을 확고히 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단계별 방어선을 확정하였다.[37]

제1통제선 : 3도선 진지로, 임진강 남안에 연하는 선에서 양양에 이르는 선이다. 이 선에 국군 제1, 제2, 제3, 제5, 제6, 제8, 제9사단과 미 제24사단, 미 제25사단 등 10개 사단을 배치하는 동시에 평택-삼척 선상에 국군 제7사단과 미 제1기병, 제2, 제3, 제7사단 및 미 제1해병사단을 예비로 배치하여 부대의 재편과 방어진지를 구축한다.

제2통제선 : 수원-양평-홍천-주문진을 연하는 선이다. 이 진지 설정의 목적은 38도선 상에서 후퇴하는 제1선부대의 수용과 삼척-평택선의 방어준비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얻는데 있다.

제3통제선 : 37도선 진지로 평택-안성-원주-삼척 선이다. 이 선은 38도선 다음 제2차 저항진지로 한반도에서 가장 방어정면이 협소하여 방어에 유리한 지역이다.

제4통제선 : 금강선으로 금강 남안과 소백산맥으로 연하는 선이다.

제5통제선 : 소백산맥 진지 선으로 이 산맥의 험준한 지형을 이용하여 낙동강 방어선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선이다.

제6통제선 : 1950년의 낙동강방어선으로 유엔군이 최대한의 저항을 시도할 진지이다. 이 방어선마저 무너지면 유엔군은 일본으로, 국군은 연안 도서로 철수시킬 계획이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 방어계획은 미 제8군이 낙동강방어선까지 몇 개 선으로 구성되는 방어진지를 준비하여 한 선에서 적에게 최대의 타격을 가하고 다음 선으로 이동하는 소위 기동방어 계획이었다. 이 계획은 적이 38도선 일대로 공격을 재개할 경우 한국군 8개 사단과 미군 2개 사단으로 방어선을 고수하는 동안 한국군 1개 사단과 미군 5개 사단은 삼척-평택의 방어선의 구축과 재편성을 이룬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38도선에서 철수하면 주문진-홍천-양평-수원을 연하는 선에서 일단 전선을 정리한 다음 삼척-원주-안성-평택의 사전에 준비된 방어진지로 철수하며, 마지막으로 삼척-평택 이남에서는 금강선에 이어 소백산맥선과 낙동강을 연하는 선에서 축차적으로 방어진지를 준비한다는 것이었다.

리지웨이 사령관은 부임 다음날 서부전선의 전방지역을 시찰한 후 38도선 상의 진지 강화와 아울러 적의 주공이 예상되는 서부의 미 제1, 제9군단에 대하여 상호 협조 하에 재차 철수하도록 계획을 세울 것을 지시하였다. 이때 미 제1군단은 전선의 서부를 맡아 적성-문산 일대의 임진강 남안에서 우익에 제1사단, 좌익에 미 제25사단을 배치하고 있었으나, 철수에 있어서는 제1사단이 먼저 전선에서 이탈하고 미 제25사단은 이를 엄호한 다음 그 뒤를 이어 철수하도록 조치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제1사단은 우측의 도감포로부터 장파리 일대에서 사단 우일선인 제12연대와 좌일선인 제11연대에 각각 방어진지를 구축하였으나, 강남안의 굴곡이 심한 지형과 넓은 방어정면으로 인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예비대인 제15연대의 주력을 제11, 제12연대 전투지경선 남쪽에 미리 배치함으로써 방어력을 보강하고 철수를 엄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 연대는 결빙전의 적의 강습도하를 전제로 몇 가지 방안을 검토하였다. 즉 최대한의 시간과 공간을 벌어들일 수 있는 지연전을 전개하는 한편 철수에 있어서는 일단 운암리 남쪽-경신리-신촌-법원리 일대에서 적을 저지하면서 각 대대별로 고양 일대의 주요 지역에 집결할 것을 계획하였다.

한편 유엔군의 축차방어 개념이 확정되자 이를 설명하기 위한 한·미 양군의 연합작전회의가 개최되었다. 리지웨이 제8군사령관은 이 회의에서 상황판에 제시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8도선에서 낙동강까지 약 300km 종심에 6개의 방어선에 대하여 “이 6개의 방어선은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까지 물러나기 위하여 설정된 단계별 저지선이 아니다. 아군이 각 단계마다 중공군에게 최대의 출혈을 강요하고, 기회를 보아 즉시 반격으로 전환하여 적을 섬멸하기 위한 선”임을 주지시켰다. 그리고 “37도선 아래로는 절대 철수하지 않을 것임”도 강조하였다.[38]

리지웨이 장군은 미 제1, 제9군단장과 작전회의를 거쳐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전방부대들의 서울 남쪽으로의 철수 시 이를 엄호하여 혼란을 방지할 목적으로 서울 북쪽에 중간통제선인 저지선을 설정하였다.

저지선은 한강에 설치된 부교들이 공산군의 포격 사정권에 들지 않도록 종심을 유지하기 위하여 행주부근의 한강제방-의정부 남쪽-서울 동쪽을 연하는 반원형으로 설정하였다. 양 군단이 이 선으로 철수 시에는 공격해 오는 적을 공격하면서 철수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적이 통과할 도로변의 감제고지에 보병과 기갑으로 편성된 강력한 부대를 배치하여 주력부대들이 저지선으로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적의 진출을 저지할 것을 기대하였다.

한편 12월 말에 적의 공격을 우려한 미 합참본부는 “만일 중공군이 전력을 다해 공격한다면 유엔군을 한국에서 축출할 만한 충분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리지웨이 장군은 우발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난 9월에 세웠던 낙동강 방어계획을 되살려 종전의 낙동강 방어선뿐만 아니라 이 선과 부산사이에 마산-동해안, 진해-동해안, 낙동강하구-동해안을 연하는 3개의 방어선을 추가로 설정하였다. 각 방어선은 마산, 진해, 부산항만을 둘러싸며 남해안과 동해안을 반원형으로 연결토록 되어 있었다. 그는 제2군수사령관에게 한국인 노무자와 가용한 전 물자를 동원하여 이 선에 강력한 요새화 진지를 구축하도록 명령하였다.[39]

이러한 미 제8군의 축차적인 방어계획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우선 평양에서 철수한 이후 국군과 유엔군 장병들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됨은 물론 전의마저 상실되었고, 지휘관들의 통솔력에도 결함이 있었다. 특히 아군의 후방지역을 교란하고, 중요병참선을 차단하기 위하여 동부전선으로 침투중인 북한군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격멸여부가 가장 긴급한 사안이었다. 리지웨이 장군은 무엇보다 전투력을 보존하여 장병들의 사기를 회복하고 지휘통솔력을 제고하는데 주의를 기울였다.

(4) 전투편성

서부전선의 미 제8군은 1950년 12월 13일까지 1주일에 걸쳐 38도선 이남으로 철수를 완료하였고, 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은 12월 24일 흥남항에서 최종적인 해상철수를 실시하여 부산지역에서 집결을 완료하였다. 철수작전 과정에서 미 제8군은 맥아더의 12월 8일 명령에 따라 방어선을 확정하고 임진강에서 38도선에 이르는 모든 전선에 부대를 배치하였다.

한반도 250㎞를 횡단하고 종심이 60㎞인 전 전선에 두 개의 기본 방어선을 편성하였다. 제1방어선인 「A선」은 서쪽의 임진강 하구에서 시작하여 동으로 문산을 경유 38도선을 따라 동해안 양양까지 연결되었다. 제2방어선인 「B선」은 서쪽 고양에서 시작하여 동으로 의정부, 가평, 자은리를 경유 동해안의 동덕리까지 연결되었다. 또한 방어종심의 확대를 위해 영등포에서 한강 남안을 따라 양평-횡성-강릉으로 이어지는 「C선」과 수원에서 이천-원주-평창-삼척을 연하는 「D선」, 37도선을 따라 평택-충주-삼척을 연결하는 「E선」의 방어선을 편성하였다.[40]

한편 미 제8군은 김포반도-임진강-화천-양양을 연하는 선을 주저항선으로 선정한 후 포천-김화 도로를 중심으로 중서부전선은 미군에, 동부전선은 국군에 방어임무를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중서부전선의 좌측방인 미 제1군단은 좌측의 터키여단이 서울 서쪽 염하수로 하구-김포지역을, 중앙의 미 제25사단이 서울 북방의 임진강 하류 제방을, 그리고 우측의 국군 제1사단이 임진강 진지-33번 도로를 각각 방어하였고, 군단 예비대인 영연방 제29여단이 서울 근교 1번 국도를 따라 집결하였다. 중서부전선의 우측방인 미 제9군단은 좌측의 국군 제6사단이 주월리-양문리를, 우측의 미 제24사단이 의정부-포천의 3번 국도의 방어를 각각 담당하였다. 그리고 군단 예비대인 영연방 제27여단은 33번 국도와 3번국도 교차로 부근을, 마찬가지로 군단 예비대인 미 제1기병사단도 서울-춘천 도로의 방어를 각각 담당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동부전선의 좌측방인 국군 제3군단은 좌측의 제2사단이 양문리-탑두울을, 중앙의 제5사단이 탑두울-배후령을, 그리고 좌측의 제8사단이 경운산-추전리의 방어를 각각 담당하였다. 또한 전선 중앙의 국군 제2군단은 제3사단이 추전리-갑둔리 지역의 방어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우측의 국군 제1군단은 좌측의 제9사단이 갑둔리-도채동 지역을, 우측의 수도사단이 도채동-동해안 지역의 방어를 담당하였다.[41]

<표 3-7> 미 제8군의 방어 배치

구 분	군 단	편성부대	담 당 지 역
중서부전선	미 제1군단 (Frank W. Milburn 소장)	터키 여단 (Tahsin Yazici 준장)	서울 서쪽 염하구-김포지역
		미 제25사단 (William B. Kean 소장)	서울 북방 임진강 하류 제방
		국군 제1사단(백선엽 준장)	임진강 진지-33번 도로
		영연방 제29여단 (Thomas Brodie 준장)	서울 근교 1번 국도
	미 제9군단 (Bright E. Moore 소장)	국군 제6사단(김종오 준장)	주월리-양문리
		미 제24사단 (John H. Church 준장)	의정부-포천 3번 국로
		영연방 제27여단 (Basil A. Coad 준장)	33번 국도와 3번 국도 교차로
		미 제1기병사단 (Hobart R. Gay 소장)	서울-춘천 국도
동부전선	국군 제3군단 (이형근 준장)	국군 제2사단(함병선 준장)	양문리-탑두울
		국군 제5사단(민기식 준장)	탑두울-배후령
		국군 제8사단(이성가 준장)	경운산-추전리
		국군 제7사단(신상철 준장)	춘천 및 횡성지구
	국군 제2군단 (유재흥 소장)	국군 제3사단(최석 준장)	추전리-갑둔리
	국군 제1군단 (김백일 소장)	국군 제9사단(김종갑 준장)	갑둔리-도채동
		국군 수도사단(송요찬 준장)	도채동-동해안
예 비 대	기 타	미 제2사단 (Robert B. McClure 소장)	제천-홍천
		미 제187공정연대 (Frank S. Bowen, Jr. 준장)	군포비행장
	미 제10군단 (Edward M. Almond 소장)	미 제3(Robert H. Soule 소장) · 제7((David G. Barr 소장) · 제1해병사단(Oliver P. Smith 소장)	부산 일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미 제8군의 예비는 미 제3사단과 제7사단, 그리고 미 제1해병사단으로 편성된 미 제10군단이었다. 그러나 미 제7사단과 미 제1해병사단은 부대정비 중에 있었고, 흥남항을 최종적으로 출발한 미 제3사단은 상륙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 무렵 병력증강을 위해 한국에 들어오도록 계획된 병력은 전무하다시피 하였다. 그리고 미 제2사단은 군우리 전투에서 입은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으나, 네덜란드와 프랑스 대대의 증원을 받고 충주에 위치하고 있었다. 또한 서쪽의 미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은 타일랜드 대대를 배속 받아 수원에 집결하고 있었다.

이들 병력 외에 이용할 수 있는 부대는 남한의 여러 곳에서 대 게릴라 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국군 제11사단과 12월 중순 한국에 도착해 8주간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던 캐나다군 경보병대대가 있었다. 그리고 뉴질랜드 제16야전연대와 미 제2공수특전중대 및 제4공수특전중대가 각각 12월 31일 도착 예정이었다.[42]

3. 전투 경과

1) 서부 지역 전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 임진강 지역 전투(1950. 12. 31~1951. 1. 3)

임진강 지역 전투는 국군 제1사단이 1950년 12월 31일부터 1951년 1월 3일까지 제3차 공세를 개시한 중공군 제39군에 맞서 임진강 일대에서 도하저지작전을 수행하고 이어 고양 봉일천을 거쳐 한강 남쪽 영등포 일대로 축차적으로 철수하면서 적을 지연한 방어 전투이다.

국군 제1사단은 전쟁발발 이후 6개월 동안 전황의 추이에 따라 임진강-낙동강-청천강으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임진강변으로 철수함으로써 두 번이나 이 지역에 방어진지를 구축하게 되었다. 사단 내에는 주변 지형에 익숙한 다수의 고참병들이 남아 있어 방어진지 편성이나 정찰활동에는 별로 어려움이 없었다.

사단은 38도선 서부전선 방면으로 철수하는 동안 적의 추격이 경미하여 비교적 순조롭게 철수를 완료하였다. 사리원에서 남천으로 이동한 사단은 위천리와 구화리 일대의 축차적인 지연진지를 점령하여 아군 부대들의 철수를 엄호하면서 지역내 적의 패잔병 소탕작전을 실시하였다. 미 제1군단 주력부대의 철수가 완료되자, 사단은 고랑포, 법원리, 신산리 일대에 부대를 배치하였다.[43] 이로써 국군 제1사단은 다시 6개월 만에 전쟁발발 이전의 진지를 다시 점령하게 되었다.

사단의 작전지역은 대체로 임진강을 중심으로 하여 남북으로 분리되고, 북쪽인 38선 일대는 예성강을 중심으로 다시 서쪽과 동쪽지역으로 세분된다. 지역 내의 지형은 38도선을 잇는 북쪽이 그 주변지세의 영향으로 구릉과 고지로 형성된 반면에 그 이남은 배천과 청단평야를 비롯하여 임진강과 예성강 등 저지대를 형성한다. 임진강 남쪽에서 파평산이 강류를 따라 남서로 능선을 뻗쳐 강과 더불어 횡격실을 이루었으며 기타지역은 구릉 내지는 평지이다.

미 제8군사령부는 중공군이 주공의 목표를 서울방면에 두어 미 제1군단 예하 국군 제1사단의 고랑포 정면과 미 제9군단 예하 국군 제6사단의 의정부 북방으로 공격하고, 조공을 춘천 북방에 두어 돌파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사단장 백선엽 준장은 적의 주공이 지향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랑포 정면 임진강 남쪽의 장파리-마포리-도감포 일대의 주저항선을 강화하였다. 사단은 방어정면이 넓어 좌전방 제11연대를 비장리 일대에, 우전방 제12연대를 도감포 일대에 중점적으로 배치하였다. 그리고 사단예비인 제15연대는 방어가 취약한 전방연대의 전투지경선 부근을 보강함과 동시에 유사시 전방연대들의 철수를 신속히 엄호하기 위하여 적성 남쪽의 마지리 일대에 배치하였다. 사단은 방어진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뢰와 철조망을 가설하는 동안 수색대를 강북으로 침투시켜 적정을 탐지하는데도 주력하였다.

한편 중공군은 12월 30일까지 각 군 부대의 배치를 완료하였다. 중공군 제39군은 국군 제1사단 방어정면에 예하의 제115, 제116, 제117사단 등을 배치하였다. 이들은 공격 하루 전 국군 방어진지를 공격하기 위해 영하 25도의 혹한 속에서 지형, 적설, 볏짚 등을 이용하여 돌격부대 7,500여명, 화포 70여문을 위장하여 공격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준비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44]

중공군 제39군은 강습 도하와 돌파작전을 준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신속히 돌파하여 종심을 향해 진출할 수 있는 작전을 구상하고 또 이를 위한 포병지원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였다. 포병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각 군, 사단, 연대가 모두 임무에 따라 아군의 배치 및 종심지형 상황을 파악하고, 폭탄묶음 등 폭파기자재를 준비하고 있었다. 병사들에게는 특히 공격 시 대전차공격, 거점공격, 철조망파괴, 사다리타기, 산악공격 등을 강조하였다.[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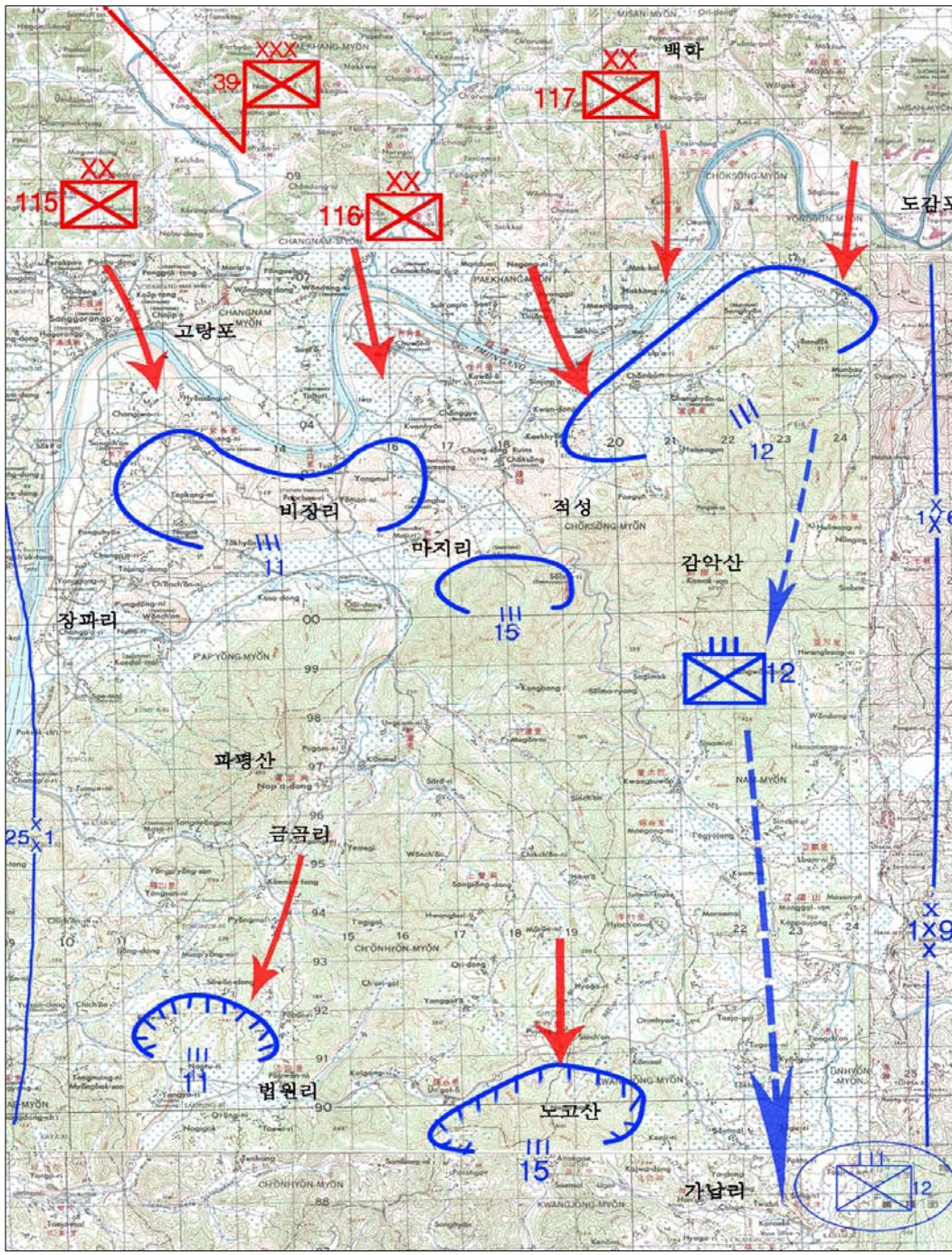
국군 제1사단의 전력 현황은 제11, 제12, 제15연대와 제17포병대대 등 병력 약 1만여 명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보유 장비는 사단 T/E의 약 90% 수준이었으나, 장병들이 비교적 지형에 익숙하여 방어에 유리하였다. 임진강 부근 전투 시 양측의 전투서열 및 지휘관 편성은 다음의 표와 같다.[4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표 3-8> 양측의 전투서열 및 지휘관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국군	제1사단장		준장	백선엽(白善燁)	
	제11연대	연 대 장	중령	문형태(文亨泰)	
		제1대대장	중령	유중수(柳重秀)	
		제2대대장	소령	배두룡(裵斗龍)	
		제3대대장	중령	정영홍(鄭永洪)	
	제12연대	연 대 장	대령	김점곤(金點坤)	
		제1대대장	중령	한순화(韓順華)	
		제2대대장	중령	조성래(趙成來)	
		제3대대장	중령	김기용(金基容)	
	제15연대	연 대 장	대령	조재미(趙在美)	
		제1대대장	중령	유재성(劉載成)	
		제2대대장	중령	최병순(崔炳淳)	
		제3대대장	중령	안병건(安秉健)	
	공병대대	대 대 장	중령	김영석(金永錫)	
	제17포병대대	대 대 장	소령	박영식(朴永湜)	
중공군	제39군	군 단 장		우신촨(吳信泉)	
		제115사단장		장갈성(張竭誠)	
		제116사단장		왕양(汪洋)	
		제117사단장		뢰천윤(儡天允)	
	제8포병사단 제45연대			?	

<상황도 3-2> 임진강 지역 전투(1950. 12. 31~1951. 1. 3)



서부전선 문산-적성 일대의 방어를 전담한 미 제1군단은 임진강 차안에서 우익에 국군 제1사단, 좌익에 미 제25사단을 배치하고, 철수작전에 있어서는 국군 제1사단이 먼저 전선에서 철수하고 미 제25사단은 이를 엄호한 다음 그 뒤를 이어 철수하도록 조치하였다.

국군 제1사단은 우측의 도감포로부터 마포리-율포리-주월리-두지리-장파리 일대에서 사단 우일선인 제12연대와 좌일선인 제11연대에 각각 방어진지를 구축케 하였으나, 강남안의 굴곡이 심한 지형과 넓은 방어정면으로 인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예비대인 제15연대의 주력을 제11, 제12연대 전투지경선 남쪽에 미리 배치하여 방어력을 보강하였다.

사단장 백선엽 준장은 당시 상황을 "사단 방어지역은 전쟁직전 제1사단이 배치되었던 곳에서 다소 동쪽으로 옮겨간 위치였다. 넓은 정면에 비해 병력은 부족하였고, 그해 겨울의 유난했던 혹한으로 임진강은 꽁꽁 얼어붙어 하천방어의 이점을 기대할 수 없었다. 철조망과 지뢰 등을 주요 접근로에 설치하고, 언 땅을 파서 진지와 교통호를 구축하였다. 사기가 땅에 떨어진 병사들을 독려하며 방어준비에 온 힘을 기울였다"고 회고하였다.[47]

사단 예하 각 연대는 결빙전의 적의 강습 도하를 전제로 하는 몇 가지 방안을 포함하는 방어작전을 책정하여 최대한의 시간과 공간을 벌어들일 수 있는 지연전을 기도하는 한편 철수작전 시에는 일단 운암리 남쪽-경신리-신촌-법원리 일대에서 적을 저지하면서 각 대대별로 고양 일대의 주요 지역에 집결할 것을 계획하였다.

1950년 12월 31일 17시 중공군은 그동안의 소강상태를 깨고 38도선에 연한 전 전선에서 제3차 공세를 개시하였다. 임진강 정면의 중공군은 1개 군단 이상의 대규모 병력으로 인명을 돌보지 않고 강습 도하와 돌파로 우회와 포위의 양면작전을 전개하여 공격하였다. 결국 사단은 이날 밤부터 적중 고립을 피하고 차선책으로 사전 계획된 철수를 단행하게 되었다.[48]

사단이 야간 철수하기 전까지 초전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군 제1사단 우측인 제12연대 정면의 제39군 예하의 중공군은 저녁 무렵 일제히 각종 포문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열어 공격준비 사격을 집중하였다. 이어 적은 2개 연대 규모로써 임진강을 넘어 18시경에는 이미 연대 우일선인 제2대대의 좌측 돌출부, 즉 마전리 남안과 정면 마포리 일대로 공격하는 한편, 사단 좌측인 제1대대 진지 전방 율포리 남쪽으로 공격하였다.[49]

제12연대 예하 각 대대는 적을 저지하고자 화력을 집중하였으나, 임진강 차안은 굴곡이 심하여 방어정면이 넓은데다가 적이 후속부대를 계속 투입하였기 때문에 방어가 용이하지 않았다. 적은 제2, 제1대대 사이를 돌파하는 동시에 제1대대 우측인 계월리로 우회 침투를 시도하였고, 각 대대는 포위된 상황에서 더 이상 진지를 지탱하지 못하고 분산 철수하고 말았다.[50]



국군 방어진지 모습

제2대대의 주력은 예비 진지인 적암리 남쪽 고지를 점령하였으나 계속되는 적의 압박으로 결국 진지를 지탱하지 못하고 19시 30분에는 다시 적암지 동서쪽 고지로 철수하였다. 그런데 이 부근에는 예비대인 제3대대가 통신두절로 전반적인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고 있던 중, 제2대대를 추격하는 적과 우연히 조우하였다. 제3대대는 우파리 남쪽 고지에서 제2대대의 철수를 엄호한 다음, 한산리에서 적을 격퇴하고자 했다.

제1대대는 율포리 남쪽 정면으로 침공한 적과 치열한 교전을 전개하였다. 대대는 야음과 여러 방향에서 나는 징과 꽹과리, 그리고 북과 피리소리의 상황을 정확히 분간하지 못한 가운데 적의 공격을 받았다. 적은 1개 대대가 우측으로 송현에서, 또 다른 1개 대대가 좌측으로 계월리에서 각각 양익포위를 기도하였다. 대대는 감악산 일대로 철수하여 적을 저지하였으나 전력의 열세로 불가피하게 다시 철수하게 되었다.

한편 사단 좌일선인 제11연대는 예비대인 제3대대와 제1대대가 임진강 석교-원당리에 집결한 적을 역습하는 등 도하를 저지하였다. 그러나 18시 30분경 연대 우일선인 제1대대가 제12연대 제1대대를 돌파한 적의 공격을 받았다. 대대는 배후인 주월리로 침투한 1개 대대 규모의 적에 대하여 역습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적은 토정에서 도하한 후속부대와 함께 20시 15분경에는 주월리 남쪽의 관현 일대까지 계속 은밀히 침투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된 제11연대장 문형태 대령은 제1대대에게 진지를 고수하도록 명령하고, 식현리에 집결중인 제3대대에 정후(솥뒤)-두지리 고지 일대에 배치하였다. 그런데 적은 이미 연대 정면을 잇는 방축동-석포-고랑포-자지포-원당리 87고지를 연하는 선까지 진출하였고, 제12연대 방어선 돌파에 호응하여 특히 석교-87고지 일대에서 강습 도하를 시도하였다.

이 무렵 제15연대는 예비대로서 제2, 제3대대를 적성 남쪽 고지일대 즉 제11, 제12연대 전투지경선 남쪽에 배치하고 있었다. 19시 20분경 분산된 제12연대 일부가 적성-광수원 간 도로로 철수하였다. 이미 날은 어두워져 피아를 식별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연대는 대단히 불안한 상황이었다. 적은 분산된 제12연대 병력과 뒤섞여 연대 방어진지 정면으로 접근하였고, 이미 제10중대를 공격하여 182고지를 점령하였다.[51]

이렇게 하여 제3대대 정면이 맥없이 돌파되었을 뿐 아니라 일부의 적이 우측에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14고지로 우회하고 있었다. 연대장은 곧 부연대장 김진위 중령에게 예비대 1개 중대를 지휘하여 제3대대를 지원할 것을 명령하였다.

제2대대는 두지리-마지리 등을 거쳐 침공하는 1개 대대 규모의 적과 교전을 전개하였다. 이때 제5중대는 포위를 기도하는 적을 역습하던 중 중대장마저 전사하는 등 큰 위기에 봉착하였다. 대대 좌일선 180고지에서는 제3대대를 돌파한 적과 치열한 교전을 수행하였으며, 장병들은 진지 정면으로 접근한 적과 육박전을 전개하면서 적을 저지하였다.

중공군 제3차 공세 이틀째인 1951년 1월 1일에는 전날에 이어 밤새 공방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새해의 첫날이 밝았으나 국군 제1사단 장병들은 송구영신의 기쁨은 고사하고 적의 신정공세로 방어와 철수를 반복하는 등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적의 진출을 지연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였다.

당시 국군 제1사단의 방어에 대하여 중공군의 공식 전사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제39군의 주력은 31일 17시 40분에 임진강을 돌파하였으나 제117사단은 도중에 5차에 걸친 강력한 저항을 받아 1일 05시에 동두천 남서쪽 비상리, 선암리로 진출하였다"라고 하였다.[52]

국군 제12연대는 지난밤 분산되었던 제1대대가 경신리 비석거리 부근에서 재집결하여 연곡리 일대를 경계하였고, 적의 포위망을 돌파한 제2, 제3대대는 동두천 서남쪽에서 다시 포위되어 가납리 서쪽으로 이동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15연대는 제3대대의 일부가 01시경에 감악산 서록의 도로 양측고지에서 제12연대의 일부 병력과 함께 배치되었으나 아군의 낙오병과 뒤섞인 채 계속 밀려드는 적의 압력으로 다시 철수하였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출동하였던 예비대마저 295고지 부근에서 적의 기습을 받아 분산되고 말았다.

제2대대는 적과 격전 끝에 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결국 180고지에서 철수하였다. 연대장은 보충대 병력을 180고지 남쪽에 있는 357고지 서봉(300고지)에 배치하였다. 그러나 적은 이내 보충대 진지를 공격하여 총검과 수류탄 공격에 이어 백병전까지 시도하면서 동 고지를 점령하였다. 적은 이어 웅담리 일대를 거쳐 06시경에는 대천리까지 진출하였다.

제2대대는 부득이 대대관측소를 노파동으로 옮기고 공병대 일부를 194고지 좌측에 배치한 가운데, 정확한 관측에 의한 포격을 요청하였다. 이에 포병 대대는 계속 접근중인 적에 대해 포격을 집중하여 거의 1개 대대 규모의 적을 궤멸시켰다. 그 후 제2대대는 연대장의 명령대로 금곡리 북방을 확보하였다.

제15연대장은 사단으로부터 구암리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연대장은 제1대대를 직접 이끌고 신촌부근에 진출하여 좌측의 사단 대전차대대와 함께 역습을 전개하고자 했다. 그러나 09시 30분경에 1개 대대 규모의 적이 먼저 공격을 시작하였으므로 유엔 항공기의 지원 하에 적을 격퇴하였다. 날이 밝자 적은 아군의 항공폭격과 포병사격으로 인해 공세가 다소 주춤하였고, 전선은 잠시 소강상태를 유지하였다.[53]

저녁 무렵 적은 다시 공격을 재개하였다. 국군 제15연대는 제2대대에 은곡리 일대의 고지를 점령하도록 함으로써 비로소 상성동에서 신촌 서쪽으로 통하는 작전도로를 장악하였다. 또 사단의 지시에 따라 연대장은 지휘소를 연풍리로 옮기고, 20시경 다음 날의 철수 명령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22시경 제1대대와 사단 대전차대대가 적의 공격을 받아 이미 방어진지가 무너졌다. 적은 법원리로 통하는 작전도로와 그 부근 고지에서 접근하고 있었다. 제2대대도 적이 접근하자 양면에서 협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다시 은곡리 일대로 이동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날(1일) 사단 좌일선 제11연대는 연대 오른쪽 제1대대가 지난 밤부터 계속 적의 위협을 받고 있었으며, 제3대대가 적성으로 남하한 적의 공격을 받아 방어진지가 돌파되었다. 적은 아군을 추격하여 마지리까지 진출하였다.

이때 사단의 철수명령이 하달되었다. 이에 앞서 미 제8군사령관은 미 제1, 제9군단의 서울저지선(행주-의정부-퇴계원) 점령에 앞서 양 군단장에게 서울저지선으로 철수 시 긴밀히 협조하여 강력한 지연전을 펼치면서 철수토록 하고, 철수도 아군의 항공폭격이 가능한 주간에 실시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 미 제1군단장은 접적이 경미한 문산 일대에 배치된 미 제25사단을 국군 제1사단의 엄호 하에 이동시켜 1번 도로 좌측의 원당 일대를, 군단예비로 신둔리에

집결 중인 영 제29여단을 도로 우측의 고양 일대를 점령하게 하였다. 군단의 철수를 탐지한 중공군은 오후 내내 국군 제1사단 정면을 돌파하기 위하여 공격을 하였으나 모두 격퇴되었다. 이 틈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기동한 미 제25사단과 영 제29여단은 자정 무렵에 저지선을 확보하였고, 국군 제1사단의 철수를 엄호하게 되었다.[54]

이때 미 제1군단장은 제25사단장 킨 소장과 제29여단장 브로디 준장에게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저지선을 방어하도록 당부하였다. 그러나 이미 미 제8군사령관은 이 선을 최후의 결전장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군의 사기를 고려하여 큰 손실을 입지 않고 적에게 최대한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전토록 지시하였다.[55]

아군이 저지선을 점령한 이후 적의 결정적인 공격은 없었으나 중공군이 최소한 이 선에서 15km 내에 있거나 그보다 더 가까이 접근해 있었다. 또 그들의 부대배치와 전진속도로 미루어 보아 저지선에 대한 본격적인 공격은 3일로 예상되었다. 당시 중공군은 저지선 지역에 4개 사단이 공격중인 것으로 식별되었고, 그들의 예비로 개성에 위치한 제50군은 1번 도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금화에 집결중인 제42군은 3번 도로를 따라 서울로 공격하거나 춘천, 가평으로 진출이 가능하였다.

국군 제11연대는 이날(1일) 07시경부터 단계적인 지연작전을 전개하였다. 먼저 제2대대가 개석리에서 고사동에 이르는 고지일대를 점령한 다음, 제1, 제3대대가 금곡리-법원리 북쪽 도로를 따라 철수하였고, 이어 제2대대도 두포리-금곡리 일대로 철수하였다.[56]

제11연대는 다시 공격하는 적에게 일격을 가하고 23시경까지는 금곡리-법원리 도로를 중심으로 제1, 제3대대를 각각 배치하고, 제2대대는 금병산 부근에 배치하였다. 이때 사단사령부는 신산리에서 서울 녹번동으로 이동하였다.

중공군 제3차 공세 개시 3일 째인 1월 2일 서울을 둘러 싼 중공군의 압박이 점차로 가중되었다. 미 제8군사령관 리지웨이 중장은 예하 각 군단장과 사단장들로부터 상황판단에 대한 보고를 받은 다음, 서울 남쪽 방어선으로의 철수를 결정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군 제1사단은 군단명령에 따라 이날 아침에 사령부를 안양으로 옮긴 가운데 전방의 각 연대를 축차적으로 한강 차안으로 철수하도록 하였다. 이미 서울 북방에 이르고 있던 제12연대는 본부를 과천으로 이동시키고 시흥군 신동면으로부터 동작동-흑석동-한강철교에 이르는 한강 이남의 방어선을 논의하였다. 제15연대는 이미 전날 20시부로 다음과 같은 철수명령을 하달하였다.[57]

① 사단은 1월 2일 07시를 기하여 지연전을 계속하면서 한강 남안으로 철수한다.
② 연대는 현진지를 계속 방어하고 1월 2일 07시를 기하여 지연전을 계속하면서 철수한 다음 사단 좌일선으로서 한강철교-영등포구청 및 여의도일대의 진지를 점령하려 한다.
③ 제1대대는 현 진지를 계속 방어하고 1월 2일 07시에는 덕도리-오산리일대에서 연대의 철수를 엄호한 다음 오산리에서 소사현을 넘어 고양리로 집결하라. 철수완료 후에는 연대 우일선으로 노량진일대의 진지를 점령하라.
④ 제2대대는 은곡리-비암리 전진바위 일대에서 연대철수를 엄호하고 고양리에 집결하라. 철수완료 후에는 연대 좌일선으로 영등포일대의 진지를 점령하라.
⑤ 제3대대는 현 집결지(무태안)로부터 가업리 부근에 이동하여 의정부 본도를 확보하고, 철수 시에 의정부-송추-일영리를 경유하여 고양리로 집결하라. 철수완료 후에는 연대 전초부대로서 여의도의 진지를 점령하라.
⑥ 배속 사단 대전차공격대대는 지연전을 계속하면서 철수하여 원대에 복귀하라.
⑦ 각 대대장은 예하 장병을 장악하여 분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장비의 손실을 근절하며 타군단 전투지경선을 범하지 않도록 유의하라.

이러한 제15연대 철수명령으로 제3대대는 이미 전날에 철수를 개시하였고, 제1대대와 대전차공격대대는 이미 전날 밤에 돌파된 상황이었다. 제2대대는 법원리에서 1개 대대 규모의 적과 치열하게 교전을 수행하고 있었으나, 제11연대의 제1, 제3대대의 간격으로 침투한 적으로부터 배후 기습을 받고 진지가 무너지고 말았다. 제2대대는 대육리 일대에 병력을 집결시켜 방어진지를 편성하였고, 연대 지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가 분수리로 이동한 05시경까지도 계속 진지를 고수하고 있었다.

곧이어 연대본부는 다시 시흥으로 이동하였고, 연대는 제1대대가 명령대로 고양으로 철수함으로써 전 대대가 차량으로 영등포로 이동하였다. 제3대대는 명령 이전에 주력과 대대장이 서로 이탈하여 분산되는 혼란을 빚기도 하였다.[58]

제11연대는 계속 법원리 일대를 방어하던 중, 제1대대가 상성동으로부터 접근하는 1개 대대 규모의 적과 혼전을 벌이기도 하였으나, 곧 사단 지시에 따라 축차적인 철수를 시작하여 미군의 차량지원을 받으며 한강 이남으로 이동하였다.

이때 교두보선을 확보하고 있던 미 제25사단과 영 제29여단은 국군 제1사단의 철수를 지원하였다. 미 제8군사령관은 방어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영 제29여단에 태국대대를 배속하였고, 경주에서 전방으로 이동 중인 미 제10군단의 제92, 제96포병대대를 적의 주공을 사격할 수 있도록 미 제1, 제9군단 후방지역에 배치시켰다. 그리고 미 제1, 미 제9군단장에게 예하부대가 적에 의해 포위공격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지를 방어토록 다시 강조하였다.[59]

중공군 제3차 공세 4일째인 1월 3일 이제 국군 제1사단은 제11연대가 한강 이남으로 철수를 계속하는 가운데 동작동-노량진-영등포 일대의 한강 이남에 제12연대가 우일선을, 제15연대가 좌일선을 맡아 각각 방어진지를 담당하였다.

사단은 동계작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협조로 진지공사를 성공적으로 진행시켰으며, 아울러 부대정비에도 착수하였다. 이날 사단은 제2훈련소로부터 632명의 병력을 인수하여 제12연대에 400명, 사단 대전차공격대대에 232명을 보충하였다.[60]

그런데 이날 아침 미 제8군사령관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중장은 전날(2일)에 결정한 수원-양평-홍천-주문진 선으로의 철수명령을 하달하였다. 이 명령에 의하면 “미 제1, 제9군단은 미 제25사단의 엄호 하에 병행 철수하여 수원-양평 선에 방어진지를 준비하라”고 하였다. 미 제1군단에 배속된 국군 제1사단도 이 명령에 따라 수원으로 철수할 준비를 갖추었다.

미 제8군의 철수는 이날 오후부터 시작되었다. 이때 공병이 미리 가설한 한강 부교를 통해 많은 차량들이 길을 메웠다. 더구나 여기에 공산군의 치하에 들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강 도하철수를 위한 부교 설치 작업

않기 위해 남하하려는 시민들이 강변에 쇄도하여 그야말로 사상최대의 집단피난이라고 할 만한 상황이었다.

국군 제1사단은 다음 날(4일) 서울 철수를 완료하였고 사령부를 안양에서 수원으로 이동시켰다. 사단장 백선엽 준장은 작전회의차 안양의 군단사령부에 갔다가 미 제1군단장 밀번(Milburn) 소장으로부터 "최악의 경우 일본으로 철퇴한다"는 말을 듣고 크게 낙심하였으나, 반면 한국군의 지휘관으로서 최악의 경우를 만들지 않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다짐하기도 하였다.[61]

이 무렵 이미 중공군 정찰대가 서울 서남쪽 교외까지 침투하고 있었고, 중부전선에서는 홍천이 적의 수중에 떨어져 수원-양평 선의 지탱도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미 제8군사령관은 다시 예하부대에게 평택-안성-원주-삼척을 잇는 37도선으로 철수하도록 명령하였다. 국군 제1사단은 안성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방어진지 구축을 시작하였으며, 미 제1군단의 엄호부대인 미 제25사단 제27연대도 철수 엄호를 완료하고 마지막으로 철수를 시작하였다.[6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유엔군의 수원 철수 모습

국군 제1사단은 임진강 부근에서부터 중공군 제39군의 공격을 축차적으로 방어하면서 군단 계획에 따라 안성일대에서 새로운 방어진지를 점령하였다. 사단장은 전투에서 선전한 제15연대 제2대대(최병순 중령) 등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하고 모범장병에 대한 표창 격려와 아울러 각 연대를 순시하면서 장병들의 사기와 군기를 강조하였다.

사단은 임진강 부근 전투에서 제11연대와 제15연대의 경우, 적 사살 1,151명, 부상 150명의 전과를 획득하였고, 아군 전사 63명, 부상 153명, 실종 490명의 손실을 입었다.[63]

국군 제1사단은 1951년 1월 6일에 천안 입장으로 이동하여 초등학교에 지휘소를 설치하고, 광주 판교를 거쳐 철수한 제12연대는 예비대로 안성 일대에 배치하였다. 제15연대는 전방부대로서 안성천 남안의 진지를 강화하였으며, 제11연대는 제3대대가 과천 부근에서 적을 격퇴한 후 안성 서쪽으로 철수하여 경부국도 연변을 경계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때 사단 우측에서는 미 제9군단이 장호원-죽산 북쪽 선을 담당하여 제6사단(장도영 준장)이 우인접부대로서 방어진지를 편성 중이었으며, 좌측에서는 미 제3사단이 평택 일대의 진지를 점령하였다. 이 무렵 적은 아군과의 접촉이 끊어졌다. 이에 1월 7일에 미 제8군사령관은 미 제27연대로 하여금 오산으로 진출하여 적을 수색하도록 했으나 적을 찾지 못했다.

이러는 동안 국군 제1사단은 부대정비와 교육훈련 및 장병의 사기진작에 노력하고 있었다. 1월 7일 육군 보충대로부터 약 1천여 명의 신병을 인수하여 제12연대에 250명, 제15연대에 450명, 사단 전차공격대대에 293명을 각각 보충하였다. 사단 예하 각 연대는 1월 7일 작전계획 및 화망구성법에 대한 교육을 비롯하여 각 대대 중대별 사격훈련, 중화기교육대 강화 등 훈련에 박차를 가하였다.

(2) 동두천 지역 전투(1950. 12. 31~1951. 1.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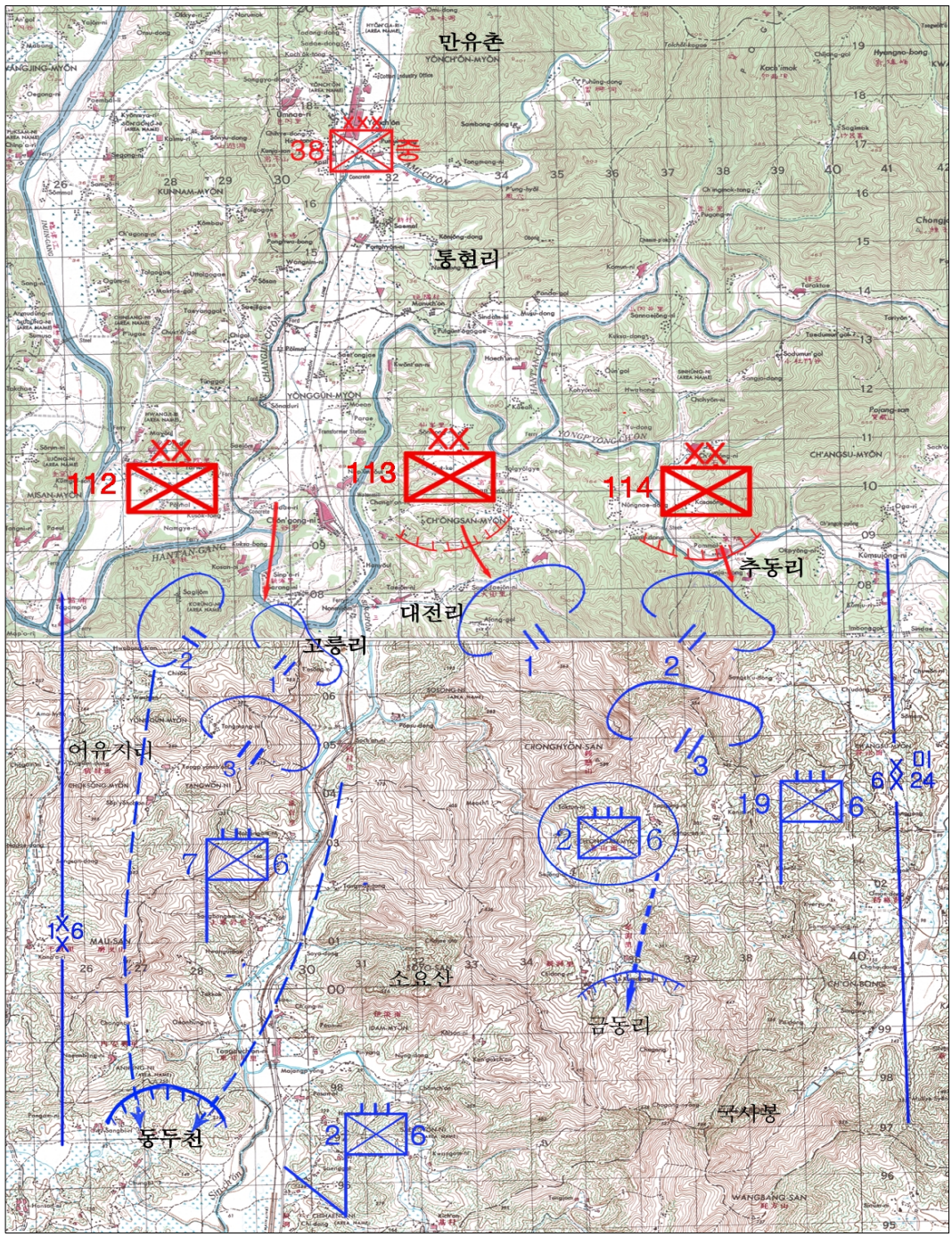
동두천 지역 전투는 동두천-의정부 북쪽 38선 일대에서 방어편성을 하고 있던 국군 제6사단이 1950년 12월 31일 중공군 제38군으로부터 제3차 공세를 받아 1951년 1월 3일까지 4일간 소요산과 마차산 일대로 철수하면서 적을 지연시킨 방어 전투이다.

1950년 12월 중순 국군 제6사단(장도영 준장)은 방어계획의 일환으로 미 제9군단장 무어 소장으로부터 "동두천 북쪽 10~12km의 38도선 일대를 방어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64] 이때에 사단이 담당하였던 방어정면은 연천군과 포천군 그리고 양주군이 상호 인접하는 서부전선의 요충 지대였다.

이 지역은 연천으로부터 동두천~의정부를 거쳐 서울에 이르는 가장 가까운 접근로인 3번 도로를 중앙에 끼고 동쪽에는 종현산(588)과 서쪽에는 마차산(587)이 높이 솟아 앞쪽에 대한 감제가 가능하였다. 전면의 한탄강은 단애와 굴곡이 심하여 자연장벽을 이루는 요충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반면에 3번 국도는 개전초기 적이 주공을 지향하던 곳으로서 도보부대 및 기계화 부대의 기동이 용이한 접근로일 뿐만 아니라 중서부의 여러 도로가 서로 교차되어 있다. 이 지역은 적에 의해 돌파될 경우 수도 서울은 물론이고 광주산맥을 넘어 청평 방면의 중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3-3> 동두천 지역 전투(1950. 12. 31~1951. 1. 3)



전선마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전략적 요충 지대였다.

그런 까닭으로 중공군은 대병력을 투입하여 공격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더욱이 엄동에 접어든 혹한과 강설로 인하여 대소 하천이 결빙됨으로써 진지전면의 한탄강도 적의 도하가 가능하였을 뿐 아니라 우전방의 종자산(643고지)일대에는 능선과 계곡이 많아 적의 활동을 탐색하기 어려웠다.

국군 제6사단은 동두천 일대로 철수한 후 38선 부근에 사단 주저항선을 편성하였다. 사단은 전곡-동두천 도로 좌측의 고능리 부근에 제7연대를, 우측의 추동리에 제19연대를 배치하였다. 이때 사단의 책임지역 내에는 한탄강과 도처에 단애지역이 산재해 있어 방어에 유리하였다.

그리고 제2연대는 사단의 방어종심을 유지하기 위하여 마차산과 소요산일대의 예비진지에 배치하였다. 포병대대는 동두천 북쪽의 봉암리에서 포진지를 점령하였고 공병대대는 덕정리에 배치하여 결전을 준비하였다. 사단의 우익에는 미 제24사단이 포천 북쪽을 담당하였으며, 좌익에는 국군 제1사단이 적성면 일대를 점령하고 서로 호응하면서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국군 제6사단은 1950년 12월 중순부터 보름 동안 방어진지를 강화하면서 진전정찰도 강화하였다. 또 적의 예상접근로인 연천-동두천 도로에 대전차지뢰와 기타 장애물을 설치하여 적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당시 눈이 쌓이고 지반이 동결되어 진지를 구축하는데 무척 어려움이 있었으나 대체로 월말까지 작업을 완료하였다.[65]

사단의 방어정면으로는 12월 말에 접어들면서 량싱차오(梁興初)가 지휘하는 중공군 제38군이 출현하여 그 지휘소를 연천에 개설하고 일부의 정찰대가 전곡부근의 선화동-오리동-신점-신흥리-353고지-회춘리 등의 방어지역 전면에 출몰하면서 사단의 배치상황을 탐지하고 산발적인 공격을 시도하였다. 제38군은 제112, 제113, 제114사단 등 3개 사단 총병력 약 2만 7,000명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66]

국군 정찰대가 12월 23일 한탄강 북쪽으로 진출하여 중공군 2명을 생포함으로써, 중공군 제38군의 주력부대가 연천 일대에 집결해 있으며 불원간 공격을 개시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연말이 가까이 다가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수록 적 정찰대의 규모와 정찰 횟수도 눈에 띄게 증가되었다.

이 무렵 국군 제6사단은 거의 완전한 3개 연대와 기타 예, 배속 부대를 포함하여 약 1만여 명에 달하는 병력과 대체로 편제상의 사단 장비를 갖추었으며 포병 제27대대가 지원하였다. 사단 장병들 중에는 일부 실전경험이 부족한 신병들도 있었으나 전 장병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혹한과 폭설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38도선을 지키려는 결의가 충만해 있었다. 이 무렵 양측의 전투서열과 지휘관 편성은 다음 표와 같다.[67]

<표 3-9> 전투서열 및 지휘관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유엔군	미 제9군단장		소장	무어(Bright E. Moore)	
	제6사단장		준장	장도영(張都映)	
	제2연대	연 대 장	대령	김봉철(金鳳喆)	
		제1대대장	소령	이성혜(李星蕙)	
		제2대대장	소령	김경철(金京哲)	
		제3대대장	대위	최훈대(崔勳大)	
	제7연대	연 대 장	대령	임부택(林富澤)	
		제1대대장	중령	김용배(金龍培)	
		제2대대장	중령	김종수(金鍾洙)	
		제3대대장	중령	인성관(印聖琯)	
	제19연대	연 대 장	대령	박익순(朴益淳)	
		제1대대장	소령	김준교(金俊敎)	
		제2대대장	소령	김욱전(金旭篆)	
		제3대대장	대위	박종길(朴鍾吉)	
	공병대대		중령	이기련(李琪練)	
	제27포병대대장		소령	김 성(金 聖)	
중공군	제38군	군 단 장		량싱차오(梁興初)	
		제112사단장		장용후이(江擁輝)	
		제113사단장		탕칭산(唐靑山)	부군단장
		제114사단장		쥬오중루(翟仲儒)	
	제1포병사단 제25연대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군 제6사단은 1950년 12월 말 미 제9군단의 좌익을 담당하여 “아군은 최소한의 손실로서 적에게 최대의 피해를 가하면서 서울 북쪽의 요충지대인 영평천(포천 북쪽)과 한탄강을 연하는 선에서 방어한다”는 군단 작전개념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68]

① 사단은 추동리-백의리-대전리-고능리을 연하는 현 전선에서 지역방어를 실시한다.

② 3번 도로(경원가도)를 중심으로 하여 우일선에는 제19연대를, 좌일선에는 제2연대를 각각 전개하여 강력한 주진지를 점령하는 한편 제2연대의 2개 대대를 일선연대의 종심깊이 배치하여 저지진지를 형성하고 방어종심을 유지토록 한다.

③ 3번 도로 일대에는 대인 및 대전차 장벽을 설치하여 적의 도보부대 및 기계화 부대의 기동을 차단하고 도로와 교량경계를 철저히 하다가 전황에 따라 이를 파괴 또는 사용 불능케 할 준비를 한다.

④ 제19연대 우전방의 종자산(△463)을 이용한 적의 예상 집결지와 회춘리-백의리, 연천-전곡 등의 예상 접근로 일대에는 화집점을 설정한 강력한 화력계획을 수립하여 적의 부대행동과 침공기도를 분쇄한다.

⑤ 부단히 정찰전을 전개하여 적의 동향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고 공중폭격 지원 요청하여 미리 적의 전투능력을 격파한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군 제6사단은 1950년 12월 31일 연말을 맞아 특별경계 경보가 발령된 상황에서도 특식으로 지급된 떡을 먹으면서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날 저녁 중공군 제38군은 제112사단을 선두로 제113, 제114사단의 3개 사단, 약 2만 7,000명의 병력으로 일시에 공격을 감행하였다.[69]

이때 중공군은 대대 규모 이상으로 추측되는 포병의 화력지원을 받으면서 비무장의 양민을 앞세워 지뢰지대를 통과하도록 하는 야만적인 공격을 감행하였으며, 이어 주력부대가 인해전술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들은 주로 야습과 우회를 혼용하고 교란작전을 배합하여 공격을 기도하였다. 이들은 계속적인 진출에 따라

사기가 양호하고 전의가 높은 편이었다.[70]

국군 제6사단 예하 제7, 제19연대는 전곡 도로와 회춘리, 고소성리 일대로 진출을 기도한 중공군의 파상공격을 최후 방어사격으로 저지하였다. 제19연대 정면으로는 연대 규모의 중공군이 회춘리 부근에서 공격하여 그 선두 2개 대대가 진전 2km의 353고지와 전곡 부근의 126고지로 접근하였다. 그 뒤를 바로 이어 사단 규모의 대병력이 파상적으로 공격하였으며, 동시에 적의 포병이 유동과 오리동 부근에서 지원사격을 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제2대대는 진투전단에까지 육박한 적에 맞서 치열한 격전을 전개하였으며, 제1대대는 상대전리에서 최후 방어사격으로 적에게 극심한 타격을 가하면서 방어하였다.

국군 제7연대의 정면으로는 전곡으로부터 한탄강을 건너 대규모의 적 주력이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연대 전 장병은 혼연일체로 진지를 고수하고 이미 계획된 전 화력을 집중하여 적에게 타격을 가하였다. 이때 사단 포병대대도 포격을 지원하고 유엔 공군기가 출격하여 적의 공격 전열을 무너뜨렸다. 이에 결국 전선의 적은 퇴각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기회를 포착한 제7연대 일부병력이 전곡까지 추격하여 전과를 확대하였다.

이와 같이 국군 제6사단은 최후 방어사격으로 적을 일단 저지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18시 40분경 적의 포격이 다시 계속되었다. 더구나 사단은 좌인접 국군 제12연대 지역을 돌파한 적의 일부가 사단의 후방지역인 안흥리 부근으로, 우인접 미 제24사단을 돌파한 일부 적이 동두천을 기습 공격함으로써 위기를 맞고 있었다.

중공군 제3차 공세 이틀차인 1951년 1월 1일 새벽 중공군이 사단의 후방지역으로 침투하면서부터 사단의 전세는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02시 20분경에 좌인접 제1사단이 돌파됨으로써 적은 급속히 공격하여 동두천 서북쪽 5km지점인 안흥리 부근으로 침입하였으며, 03시경에는 우인접 미 제24사단의 정면으로 공격한 적이 사단의 측후방으로 우회하여 그 일부가 동두천 부근을 공격하였다.[71]

이와 같이 주진지가 적중에 고립될 상태에 이르게 되자 사단장 장도영 준장은 부대를 덕정부근의 예비진지로 철수시킬 결심을 하고 전방지휘소를 덕정리로부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서울 북쪽의 창동으로 이동 개설하는 한편 주력은 제2연대의 엄호 하에 예비진지로 철수토록 하였다.

제19연대장은 "신속히 부대를 철수하여 회암리와 송우리 일대의 예비진지를 점령하고 적의 남하를 저지 격멸하라"는 요지의 철수명령을 받았다. 이에 연대병력들은 03시 40분경에 기동하기 시작하여 삼정리 부근에서 연대지휘소와 주력이 산곡간의 계곡을 따라 동두천으로 철수하였다. 일부의 병력은 미 제24사단의 정면을 돌파한 중공군으로부터 기습을 받아 분산되었다. 이때 연대장은 신속히 병력을 수습한 후 적의 포위망을 돌파하여 계속 덕정리로 향하여 철수를 재개하였다.

제7연대는 예비 진지인 용암리와 매정리 부근으로 철수하려 하였으나 적의 공격이 계속되어 08시경까지 치열한 교전을 전개하였다. 연대는 제2연대 제2대대의 엄호를 받으면서 철수하기 시작하여 덕정리로 이동하였으나, 그곳은 이미 적이 점령한 이후였으므로 다시 의정부를 경유하여 창동으로 집결하였다.

이 무렵 미 제9군단장 쿨터(John B. Coulter) 소장은 퇴로가 차단된 사단을 증원하기 위하여 군단예비인 영 제27여단을 덕정 부근에 투입하였다.[72] 당시 미 제8군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은 미 제1, 제9군단의 서울교두보선(행주-의정부-퇴계원) 점령에 앞서 양 군단장에게 서울저지선으로 철수 시 긴밀히 협조하여 강력한 지연전을 펼치면서 철수토록 하고, 철수도 아군의 항공폭격이 가능한 주간에 실시토록 강조한 바 있었다.[7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편 제2연대는 인접 사단을 돌파한 적이 양측방에서 동두천을 공격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방어진지를 점령하였다. 이때 사단으로부터 "전방주력의 철수를 엄호한 다음 창동으로 집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제1대대는 동두천 동북쪽 5km 지점인 걸산리로 이동하다가 동두천 부근에서 불의의 기습을 받게 되어 적과 치열한 교전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면의 적으로 인해 점차 불리하게 되어 덕정리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대대는 덕정에서도 적의 기습을 받았다. 대대는 악전고투 속에서도 전열을 갖추고 접적을 유지하면서 21시경에는 창동으로 후퇴하였다.[74]

또한 제2대대는 계속 상봉암리 일대에서 안흥리 쪽으로 침투하는 적을 견제하고

있다가 08시 30분경에 제7연대가 철수하게 되자 이를 엄호한 다음 10시 30분경에 철수를 시작하였다. 이때 대대는 신속한 기동을 요하였지만 이때는 이미 동두천 일대를 적이 선점하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산길을 택하였다. 그러나 대대는 적을 우회하여 덕정리 북쪽 4km 지점에 이르렀을 때 13시경 적에게 포위되는 위기에 처하였다. 대대장은 악조건 속에서도 병력을 수습하고 가까스로 적의 포위망을 돌파하여 창동으로 철수하였다.

제3대대는 이날 04시 30분경에 연대로부터 "제3대대는 신속히 덕정리로 이동하여 사단 지휘소를 경비하라"는 명령을 받고 06시경 덕정리에 도착한 다음 병력을 전개하였다. 그때 이미 용암리(덕정리 서북쪽 2km)부근까지 중대 규모의 적 선두부대가 출몰하였다. 대대는 즉각 반격을 가하여 이를 격퇴시킨 다음 경계임무를 수행한 후 사단지휘소와 함께 창동으로 이동하였다. 이날 사단지휘소는 창동에서 다시 서울 시내의 구의동으로 추진하여 개소하였다.

중공군 제3차 공세 3일차인 1월 2일 국군 제6사단은 주력의 대부분을 창동에 집결시키고 수도권 방어를 위해 부대를 재편성하였다. 그러나 미 제8군이 미 제1군단 예하 영국군에게 의정부 방어진지를 점령하도록 했기 때문에, 사단은 미 제9군의 예비가 되어 축차진지인 한강방어선으로 이동하게 되었다.[75]

제2연대의 제1대대는 09시경에 차량으로 창동을 출발하여 한강 남안의 신장리로 이동한 다음 16시경 한강 남안 일대를 점령하고 진지를 구축하였으며, 제2대대는 광장교로 이동하여 22시 30분경에 진지를 점령하였다. 제3대대는 그 뒤를 이어 신장리로 이동한 다음 부대를 정비하였다. 이날 일부의 낙오병들이 광장리와 신장리로 속속 도착하여 부대 재편성에 포함되었다.

제7연대는 07시경에 창동을 출발하여 23시경에는 경기도 광주에 도착한 다음 부대를 재편성하였으며 제19연대는 의정부 및 창동에서 병력을 수습하여 19시 30분경에 광주군 중부면의 수진리로 이동한 다음 부대를 재편성하였다. 이와 같이 사단 주력은 이날 한강 이남으로 이동하여 부대를 재편성하고 차후 작전에 임할 태세를 갖추었으며, 사단지휘소는 12시경에 동림리(용인군 모현면)에 개설되었다.

중공군 제3차 공세 4일째인 1월 3일 국군 제6사단은 제2연대로 하여금 계속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한강남안 일대를 점령하고 방어진지를 강화토록 하는 한편 다른 연대는 후속병력을 수습하여 부대를 재편성한 다음 전술적으로 배치하였다.

제2연대의 제1대대는 전날 점령한 진지를 계속 강화하였으며 제3대대는 광장리로 이동하여 17시경까지 제2대대의 진지를 인수하였다.[76] 제2대대는 진지를 인계한 후 성내리에 집결하여 부대정비에 임하였다. 제7연대는 광나루에 도착한 후속병력을 광주로 집결하여 부대를 재편한 다음 계속 전투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제19연대는 인원과 장비를 수습하여 남한산(344고지) 동북쪽의 고등리(광주군 대왕면)로 이동한 다음 병력을 전개하고 진지를 점령하였다.

국군 제6사단은 동두천 부근 전투에서 담당지역을 고수하고 적의 공격을 저지하였으나, 좌우의 인접사단이 무너지게 되자 적진 중에서 고전을 치렀다. 사단은 1월 3일 한강남안으로 철수하여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있을 때 미 제9군단으로부터 전선조정을 위해 차기 방어선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국군 제6사단은 동두천 부근 전투에서 방어진지 정면을 고수하고 그 임무를 완수한데 대한 전공으로 대통령 표창과 미 제9군단장 부대표창을 수여받았다. 사단은 이 전투에서 적 사살 594명(추정), 포로 22명, 기관총 7정, 각종 소총 97정 등을 노획하였으며, 아군 손실로 장교 7명, 사병 43명이 전사하는 희생을 치렀다.[77]

동두천 부근 전투 직후 적은 북한군 제1군단과 중공군 제38, 제39, 제41군 등의 대병력이 서울을 목표로 급속하게 진출하여 3일 의정부를 거쳐 4일 서울을 점령하였다.[78] 동시에 적의 일부는 인천과 수원까지 남하하면서 계속 진출을 기도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당초 기대했던 “서울에 진입하면 보급문제는 현지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아군의 치밀한 계획에 의하여 무너졌다. 또한 전선이 연장됨에 따라 보급상태가 불량한데다가 설상가상으로 곳곳에서 아군의 육·해·공군 합동작전에 의하여 극심한 타격을 받게 되자 점차로 전의가 상실되어 가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국군 제6사단은 미 제9군단의 계획에 따라 부대를 오산-삼척선으로 철수하여 전열을 갖춘 다음 반격전을 결행할 계획으로 지연전을 펴면서 각 연대를 축차적으로 철수하였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제2연대는 4일에 광주로 집결하여 인원과 장비를 수습한 다음 5일에는 금량장을 거쳐 6일에는 안성 동북쪽의 일죽면에 도착하여 이곳에서 새로운 방어진지를 점령하였다. 또 제7연대는 광주에서 양지리를 거쳐 6일에는 용인 구봉산 부근까지 다다라 백암리 일대를 점령하였고 제19연대는 만등리에서 죽산을 거쳐 진천 북쪽의 대풍리로 철수하였다.

이와 같이 사단은 지휘소를 충북 진천에 개설하고 1월 6일까지 주력을 그 북쪽 일원의 신전구로 이동시킨 다음 7일부터 전력의 보강과 수색전을 전개하면서 반격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⑶ 서울 철수 작전

1950년 12월 26일 신임 미 제8군사령관으로 부임한 리지웨이 중장(Matthew B. Ridgway)은 처음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 “우리는 한반도에서 물러나지 않고, 군대를 신속히 재정비하여 다시 공세작전을 펼칠 것이다”라고 공언하였다.[79] 그러나 전선의 상황은 그의 의도와는 사뭇 달랐다.

국군과 유엔군이 중공군의 제3차 공세를 받고 불과 며칠 사이에 38도선 부근의 주저항선에서 물러나는 위기를 맞았다. 그것도 적에게 최대한의 피해를 주면서 물러난 것이 아니라 적의 전면공격 기도가 보일 때 철수한다는 사전계획에 의한 것이었다. 38도선에서 물러난 미 제1군단과 미 제9군단이 서울방어를 위하여 저지선을 점령하고는 있었으나 서울 고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리지웨이 장군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서울철수를 결심하게 되었다.

그가 조기에 서울 철수를 결심하게 된 동기는 1월 2일 한강 상에 설치된 교량을 통제하던 공병부대의 보고에 의하여 유발되었다. 공병부대는 서울에서 철수하는 민간인들이 교량이 아닌 한강을 도보로 횡단하는 모습을 보고, 한강이 도보로 도하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 결빙되었음을 즉시 보고하였다. 이는 적의 전면 공격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결빙된 한강을 통한 우회공격을 해올 경우 포위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난민들이 결빙된 한강을 이용하기 위하여 철수를 계속하면 중공군은 피난민을 엄폐물로 역이용하여 아군 진지로 쉽게 접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유엔군의 한강 도하 철수 장면

할 수도 있었다. 또한 도강에 성공한 피난민 대열이 아군의 주병참선을 이용하여 남쪽으로 철수하게 되면, 이는 아군의 부대기동과 보급품 수송을 제한하여 차후 작전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 분명하였다.

둘째 이유는 동부전선의 불안이었다. 리지웨이 장군은 2일 저녁 무렵 주저항선의 방어를 보강하기 위하여 미 제10군단을 중부전선에 투입하고 한국군 군단들의 부대와 책임지역도 조정하였다. 즉 제1군단(제9, 수도사단)과 제3군단(제3, 제7사단)으로 험준한 태백산맥과 그 동쪽 지역의 홍천-원포리 선을 점령토록 하고, 제3군단의 제2, 제5, 제8사단은 미 제10군단에 배속하였다. 그리고 국군 제2군단(제11사단 배속)은 대전으로 이동하여 후방지역 공비토벌작전을 전담하도록 하였다.[80]

그러나 3일까지도 동부전선의 한국군 부대들이 C방어선(양평-홍천-원포리)을 점령하지 못하자 리지웨이는 이 방어선을 점령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작전참모는 현 상황에서는 D방어선(평택-안성-장호원-원주-원포리)의 점령도 어렵다고 건의하였다. 또 원주가 피탈되면 서부전선 부대들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 무렵 중공군 제66군은 제42군의 지원을 받아 가평을 점령하였고, 3일 8시에는 중공군의 긴 종대가 서울-춘천 도로를 따라 가평 남서쪽으로 이동 중이었다. 그 선두 부대는 퇴계원일대를 방어중인 미 제1기병사단의 15마일 전방으로 진출하고 있었다.[81] 이때 중공군이 기병사단을 우회하여 서쪽으로 공격한다면 1번 국도를 차단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농후하였다.

<표 3-10> 양측의 참가부대 및 지휘관

군 단	지 휘 관	사 단	비고
미 제8군 (Matthew B. Ridgway)	미 제1군단 (Frank W. Milburn 소장)	국군 제1사단(백선엽 준장)	배속
		미 제25사단 (William B. Kean 소장)	
		영 제29여단 (Thomas Brodie 준장)	
		터키여단 (Tahsin Yazici 준장)	
	미 제9군단 (Bright E. Moore 소장)	미 제24사단 (John H. Church 준장)	
		미 제1기병사단 (Hobart R. Gay 소장)	
		영 제27여단 (Basil A. Coad 준장)	
		국군 제6사단(김종오 준장)	배속
중공군 제13병단 (鄧華)	제38군 량싱차오(梁興初)	제112사단 (江擁輝)	
		제113사단 (唐靑山)	
		제114사단 (翟仲儒)	
	제39군 우신촨(吳信泉)	제115사단 (張竭誠)	
		제116사단 (汪洋)	
		제117사단 (傅天允)	
	제40군 원위청(溫玉成)	제118사단 (鄧岳)	
		제119사단 (남센원)	
		제120사단 (徐國夫)	
	제50군 쩡쩌성(曾澤生)	제148사단 (?)	
		제149사단 (?)	
		제150사단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황을 종합 분석한 미 제8군사령관은 유엔군의 전체적인 위기 상황이 결정적 시기에 도달하였다고 결론짓고, 3일 정오 무렵에 교두보에 배치된 부대에 이날 늦게 교두보에서 철수할 준비명령을 하달하였다. 이때 적의 공격 자체는 위협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한강을 통한 7만 5,000명의 병력과 그들이 휴대한 장비의 이동과 정부 및 서울 시민을 소개(疏開)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 무렵 조·중연합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는 국군과 유엔군의 서울 철수를 간파하고 전과를 확대하기 위하여 3일 공격을 계속하도록 명령하였다. 공산군의 우공격제대(중공군 제38, 제39, 제40, 제50군, 북한군 제1군단)는 서울, 인천, 수원, 양평을, 좌공격제대(중공군 제42, 제66군, 북한군 제2, 제5군단)는 홍천, 횡성, 양양, 강릉을 각각 점령할 기도였다. 그리고 중공군 양 제대가 목표선으로 진출하면 즉시 공격을 중지하고 휴식과 재정비를 실시하며 차기 공세작전을 준비하도록 계획하고 있었다.[82]

1번 국도(개성-문산-서울)를 따라 진출한 중공군 제50군은 3일 03시경 미 제25사단을 공격하기 시작하였고, 이어서 아침 무렵에는 33번 도로(철원-연천-의정부)를 따라 진출한 중공군 제39군의 일부가 영 제29여단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이 공방전은 역습에 역습을 반복하면서 오후까지 계속되었다. 그리고 동쪽의 미 제9군단 지역에서도 중공군 제38군과 제40군의 일부부대가 새벽 5시경부터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이 공격은 오전에 멈추었다.[83]

미 제8군사령관은 3일 오후에 미 제1, 제9군단이 협조된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저지선에서 철수토록 명령하였고, 한강 교량의 통제는 미 제1군단장에게 위임하였다. 이때 저지선에서 철수하면 미 제1군단은 서울비행장, 김포공항, 그리고 인천에 있는 부대와 시설의 철수를 엄호하기 위하여 부대를 배치하고, 미 제9군단은 영등포에서 남한강과 북한강의 합류점까지 한강 차안을 따라 부대를 배치키로 하였다.

이때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장군은 아군의 사기를 고려하여 사용 가능한 장비는 유기하지 말고, 부상, 또는 전사자는 반드시 후송하도록 강조하였다. 그리고 적에게 최대한의 피해를 주어 진출을 지연을 시키고 아군 부대는 전투력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유지하도록 강조하였다. 이에 양 군단장은 교두보선에서 철수할 계획을 준비하고 조정하였다. 최초에는 미 제1군단은 서울 바로 남쪽의 2개의 교량을 이용하고 제9군단은 멀리 떨어진 동쪽의 1개 교량을 이용할 계획이었으나 미 제9군단의 일부도 남쪽교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당시 한강에 설치되었던 기존 교량들은 파괴된 채 방치되었고, 미 공병대가 가설한 여러 개의 임시 교량을 통하여 국군과 유엔군은 물론 피난민까지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한강을 도하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때 서울 서쪽의 미 제1군단 지역에는 M-4 부교와 중장비를 도하시킬 수 있는 부교가 설치되었고, 동쪽의 미 제9군단 지역에는 M-2 부교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피난민들은 주로 5개의 도보교를 이용하였다.[84]

미 제1군단의 철수는 미 제25사단의 일부가 미 제9군단의 영 제27여단과 협조하여 군단 주력의 철수를 엄호하도록 하였다. 주력부대의 철수가 완료되면 미 제25사단을 터키 여단과 국군 제1사단 사이의 염창동일대에 배치하고, 영 제29여단을 군단예비로 수원에 집결시킬 계획이었다. 군단이 철수를 개시할 무렵인 3일 16시경까지 교두보지역에서는 소강상태가 지속되었으나 중공군 제50군과 제39군의 선두부대는 교두보 바로 외곽까지 진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무렵 항공정찰대가 "적의 대부대와 야포를 포함한 장비들이 1번 국도와 33번 도로를 따라 남하 중이며, 경춘국도로 진출하여 미 제9군단을 공격할 중공군 제38군과 제40군의 공격은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함으로써 미 제1군단 전방의 중공군은 교두보를 공격하여 추격 작전을 펼칠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되었다.[85]

군단은 미 제25사단 제27연대의 엄호 하에 사단주력이 차량으로 철수를 완료하자 이어서 18시 40분경에 영 제29여단이 이동을 개시하였다. 영 제29여단이 이동하고 있을 무렵인 자정 무렵 중공 제39군의 주력부대가 철수중인 영 제29여단의 후미를 기습 공격하였다. 그러나 군단은 엄호부대인 제27연대를 제외한 전 부대가 이미 한강 이남으로 철수함으로써 증원부대의 투입이 어려웠다. 이 과정에서 영 제29여단은 200~300명의 인원과 10대의 전차 손실을 입었으나 여단주력은 강남으로 철수하였다. 이 철수는 4일 03시 30분경 완료되었다.[8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마지막으로 교두보선 부대의 철수를 엄호한 제27연대도 철수를 준비하였다. 연대는 제1대대로 하여금 적이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한강변과 경의선 철도, 그리고 1번 국도에 각각 1개 중대씩 배치하여 연대의 철수를 엄호토록 계획하였다. 이때 적의 일부가 연대주력의 철수를 저지하고자 기도하였으나 연대는 성공적으로 적과 접촉을 단절하고 철수하였다. 새벽 무렵 1개 대대규모의 적이 철로 주변에 배치된 중대를 공격하였으나 항공포격의 지원으로 적의 돌파를 저지하였다.

이 전투로 연대의 철수는 다소 지연되어 11시경에야 적과 접촉을 단절하고 철수를 개시하였고, 13시경에 전부대가 한강 남쪽으로 이동을 완료하였다. 아군의 철수완료를 기다리고 있던 한강 교량통제반은 14시에 임시가교를 폭파시켰고, 이로써 서울 철수작전은 종료되었다.[87]

한편 미 제9군단의 철수는 적의 방해가 없어 마치 훈련을 하듯이 진행되었다. 3일 오후 영 제27여단의 엄호 하에 미 제24사단이 차량으로 철수하였고, 이어서 영 제27여단의 제일 마지막 대열은 4일 02시에 철수를 종료하였다. 이어서 공병부대가 M-2 조립교를 분해하기 시작하였고, 공병대는 5시간 동안 해체작업을 실시하였으나 혹독한 추위에 부품들이 얼어붙어 별 효과가 없었다. 교량통제를 맡고 있던 부사단장(Davidson)은 07시 30분경 교량을 폭파토록 명령하였다.

항공관측에 의하면 교량이 폭파된 지 1시간이 경과할 무렵 중공군이 서울에 입성하였으며 얼마 후 서울 시청 건물에 인공기가 나부끼는 것이 목격되었다. 태극기와 인공기가 3번째 바뀌는 순간이었다. 이로써 아군은 수도 서울을 두 번째 적의 수중에 넘겨주고 D방어선(평택-안성-원주- 삼척)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미 제8군사령관은 국군과 유엔군이 서울교두보와 C방어선으로 철수함으로써 경인지역에 설치된 보급소가 위태롭게 되자 1월 3일 군수지원사령관에게 D방어선 북쪽에 위치한 보급시설을 철수토록 하고, 또 인천항은 4일 정오에 폐쇄토록 명령하였다.

당시 군수지원사령부는 전방부대가 평양에서 철수를 개시한 12월 초부터 인천항과 김포비행장에 축적된 군수물자를 점차적으로 감소시켜 최저의 보급수준만 유지하고 있어 물자 후송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4일 정오까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유엔군의 인천 철수 작전

유조선과 철도궤도 등을 후송할 수 있는 특수선박이 부족하여 약간의 물자가 남아 있었다. 군수지원사령관은 미 제1군단의 철수 시간에 쫓겨 인천항, 김포공항, 부평보급소에 있던 160만 갤런의 석유 제품과 9천 톤의 공병자재, 그리고 12대의 화물차에 실린 탄약을 파괴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포비행장과 인천항을 파괴시킬 요원들만 잔류시키고 기타 지원부대 요원들은 육로와 비행기로 부산으로 철수시켰다.[88]

오후가 되자 김포비행장의 잔류요원들은 건물, 항공유, 네이팜탄 등을 차례로 파괴한 후 마지막으로 인천과 김포간의 송유시설을 파괴하였다. 이어서 항만건설중대 요원들이 인천항을 폭파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항만건설중대는 1개의 부두시설과 월미도로 연결되는 도로만 제외한 모든 시설을 파괴시켰는데 여기에는 조류를 조절하는 갑문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폭파작업은 5일 3시까지 계속되었다.

당시 긴박한 철수 시간과 가용한 만조시간 등을 고려하면 물자의 파괴는 피할 수 없는 것이었으나 모든 항만시설을 파괴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 적으로 하여금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항만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점에서는 이론상으로는 타당한 것이었지만, 유엔군이 해상의 주도권을 완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인천항의 파괴는 과도한 조치였다.

이외에 수원비행장에도 육군과 공군의 군수물자가 비축되어 있었고, 이 물자를 후송하는데 24~36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리지웨이 장군은 4일 정오경 철수 준비명령을 하달할 때 전투부대들이 D방어선으로 철수하기 이전에 이 물자를 후송시킬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 제1, 제9군단장에게 강력한 지연전을 펼칠 것을 강조하였다.

리지웨이 장군은 수원에 있는 보급품의 후송 작업이 5일 정오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D방어선으로 철수를 명령하였다.[89] 그러나 그는 5일 아침 수원과 그 남쪽 비행장에 축적된 물자를 정오까지 후송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물동량도 많을 뿐만 아니라 서울 일대에서 내려온 피난민 10만여 명이 수원역 부근에 집결하여 열차의 운행을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90] 리지웨이는 미 제1, 제9군단장에게 군수물자의 후송이 완료될 때까지 현재진지를 고수하도록 긴급히 명령하였다. 이 조치로 수원에 비적되었던 보급품도 후방으로 후송되었다.

국군과 유엔군이 38도선 진지에서 철수하자 이 일대에 거주하고 있던 지역 주민들도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피난민들의 철수가 작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미 제8군사령관은 2일 특별 훈령으로 피난민의 전선 진지 통과를 금지토록 하고, 서울-인천 간의 이동도 경인국도가 아닌 좌우측의 보조도로를 이용하도록 유도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교두보선 철수명령을 내린 직후 리지웨이 장군은 중공군이 그들의 전진을 엄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간인들을 이용하는 전술을 취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3일 15시를 민간인들이 한강을 도하할 수 있는 최종시간으로 결정하였고, 그가 승인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력히 통제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를 정부에도 통보하여 서울시민들에게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당시 상황을 정일권 총참모장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나는 경무대로 대통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령을 방문하여 작전경과를 설명하고 서울을 떠나야함을 보고하였다. 대통령은 군사작전을 위해서라면 따라야겠지, 서울시민과 피난민들에게 면목 없다. 지난 6월에는 혹독한 추위만은 없었는데 금년 정월은 유난히도 추운데, 어린이와 부녀자, 그리고 노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라고 걱정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한강도하를 위해 임시가교를 튼튼히 준비하도록 지시하였다.[91]

이번 민간인의 철수는 초기 전투 시 무질서한 피난민의 철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정부와 군은 지난 2주 동안 필수요원을 제외한 정부 관리와 그 가족, 입원환자, 고아원의 원아, 북에서 내려온 피난민, 수감자와 행정부처의 문서, 주요 문화재, 발행권 등도 후송하였다. 당시까지 서울에 잔류하고 있던 인원은 일부 정부 관리와 시청 직원, 유엔사절단, 종교계통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이 주류를 이루었고 이들에게는 1번 국도를 이용할 수 있는 특별통행증이 발부되었다. 2일 미 제1군단은 강남에 도강통제소를 설치하였고, 경찰은 도강을 적절히 통제하고 안내하기 위하여 시내에 교통통제소를 설치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산으로 갈 정부 관료들이 철수함으로써 이날 철수작전은 차질 없이 완료되었다. 그러나 일부 민간인들은 4일 낮까지 도보교와 빙판을 가로질러 철수하였다. 그리고 미처 피난하지 못한 민간인들의 대부분은 한강 북쪽의 가까운 시골로 피난을 떠나 서울 시내는 텅 빈 상황이었다.[92]

국군과 유엔군이 서울에서 철수하였지만, 그때 미 제8군사령관은 방어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였다. 당시 그는 "중공군은 단지 수적으로만 우세할 뿐 무기체계에서는 양이나 질적인 면에서 매우 열등하다. 그리고 항공지원 능력도 없고, 빈약한 통신장비와 소수의 기갑차량을 갖고 있을 뿐이다"라고 평가하였다.[93]

미 제1, 제9군단이 서울 교두보선에서 철수를 준비하는 동안 중공군의 위협적인 공세는 없었으나 아군이 D방어선(평택-안성-장호원-원주-원포리)으로 철수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동부전선이 돌파되었기 때문이다.

접적이 경미한 미 제1, 제9군단은 5일 아침 철수준비를 완료하고 대기 중이었으나, 수원에 비축된 보급물자의 후송이 지연됨에 따라 차후 명령 시까지 현진지를 고수하도록 명령을 받았다.[94] 이날 밤 적 1개 연대규모가 한강을 도하, 관악산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넘어 국군 제1사단 전선을 정찰하였다. 6일 아침부터 대대 규모의 적이 국군 제1사단의 중앙지역을 돌파코자 오전 내내 공격을 시도하였으나 격퇴되었다. 이후 접적이 없는 상황에서 미 제1군단과 미 제9군단이 평택-안성-장호원을 연하는 선을 점령함으로써 서부전선 부대들의 철수작전은 일단락되었다.

미 제1군단은 평택 남쪽의 1번국도 좌측 서해안 지역에 영 제29여단(배속 : 태국대대)을, 우측 구릉 지역에 미 제3사단을, 17번 도로 우측 안성 일대에 국군 제1사단을 배치하여 주저항선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방어중심을 유지하기 위하여 미 제25사단과 터키 여단을 천안에 집결시켜 군단예비로 하였다.[95]

미 제9군단도 국군 제6사단을 좌인접 국군 제1사단과 연결하여 죽산리 일대에, 영 제27여단을 법천리 일대에, 미 제24사단을 장호원 일대에 배치하여 주저항선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미 제1기병사단 주력은 군단예비로 충주에 집결하여 병참선을 방호하도록 하고 제5기병연대는 단양 일대에서 활동 중인 적 유격대의 공격에 대비 충주-문경 간 도로를 점령토록 하였다.

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과 미 제9군단이 평택-안성-장호원을 연하는 D선에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할 무렵 리지웨이 장군은 양 군단이 철수 시에 적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지도 못하고, 실질적인 지연전도 펼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였다.

한편 중공군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는 한강 남쪽으로 국군과 유엔군을 추격하였으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대량 섬멸에 실패하자, 이를 국군과 유엔군이 의도적으로 평택-안성-제천-삼척선으로 물러나 중공군을 유인하기 위한 철수작전이라고 판단하고 8일 추격 작전을 중지시켰다.[9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중동부 지역 전투

(1) 춘천 지역 전투(1950. 12. 30~1951년 1월 1일)

춘천 지역 전투는 국군 제2군단 예하 제3사단이 1950년 12월 30일 38선 일대

소양강 부근에서 북한군 제2군단 예하 제2사단의 정면 공격과 후방 유격대의 공격에 맞서 1951년 1월 1일 평창으로 이동하기까지 3일간 적을 막아낸 방어 전투이다. 이 시기 춘천 서쪽에는 국군 제3군단 예하 제5, 제7, 제8사단이 명지산, 지촌리, 내평리 일대에 배치되어 방어작전을 수행하였고, 그 우인접 춘천 일대에 국군 제2군단 예하 제7사단, 인제 남쪽 관대리 일대에는 제3사단이, 그리고 우인접 현리일대에는 국군 제1군단 예하 제9사단이 각각 배치되어 공산군을 방어하였다.

국군과 유엔군이 38도선 부근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던 1950년 12월 하순 서부전선은 대체로 소강상태를 유지하였다. 반면 국군이 전담하고 있는 동부전선에서는 북한군이 후방지역인 홍천, 현리 일대로 제2전선부대를 침투시켜 거점 확보를 기도함으로써, 토벌작전이 끊이지 않았다.[97]

국군 제3사단은 앞서 홍남에서 부산으로 철수한 직후 제2군단(유재흥 소장)으로 배속 변경되어 12월 15일 “제3사단장은 부대를 원주로 진출시킨 다음 인제지구의 38도선 상에 배치하여 남진하는 적을 포착 섬멸하라”는 제2군단 작명에 의거하여 각각 인제를 목표로 북상하였다.[98] 이와 함께 제26연대는 수도사단의 제18연대(임충식 대령)와 예속이 전환되었다. 사단 주력은 이날 작명에 의거하여 38도선 상의 진지를 점령하기 위한 이동을 개시하였다.[99]

이 무렵 동해안 주문진에서 서쪽 소양강 일대를 연하는 38선 북쪽에는 중공군 제9병단 예하부대와 북한군 제2군단 부대(제2전선 부대)들과 대치하고 있었다. 이 중 춘천 북쪽 화천-인제 지구의 중동부전선에는 미 제10군단이 철수작전을 완료(12월 24일)한 이후 북한군 제2군단(제2, 제10, 제12사단 혼성병력) 병력이 주로 담당하고 있었다. 이들 혼성 병력의 규모는 약 4만 5,000여명 정도의 규모로 판단되었다.[100]

북한군 제2군단은 아군의 총반격작전 시기 북한군 패잔병들을 모아 편성한 혼성 유격부대로서 아군이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북진할 무렵에는 낭림산맥과 태백산맥 및 철원-금화-평강 일대를 거점으로 하면서 아군의 후방을 교란하였다. 그러나 이 무렵에는 원통리-인제-양구-화천 일대에 주력을 배치하여 춘천과 홍천을 거쳐 원주로 남하할 기도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군 제3사단이 38선 부근 소양강 남단에 배치하였을 때, 전면에는 북한군 제2사단이 진지를 강화하고 있었다. 제2사단 예하에는 제4, 제6, 제17연대 총병력 약 2,700여 명, 그리고 제10사단과 제12사단 병력 일부가 혼성 편입되어 있었다. 적은 1950년 12월중에 재편되었고 신병이 대부분이며 장비는 중박격포 및 자동화기 등을 갖추고 있었으나 열악한 편이었다. 게다가 이들은 혹한으로 말미암아 동상자가 속출하고 있었다.[101] 이들의 작전기도는 우선 아군의 후방에 침투하여 보급로 및 통신망을 차단하는 한편 38도선 북쪽에서 부대를 재편하여 국군의 방어진지를 돌파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었다.[102]

국군 제3사단은 1950년 12월 20일경 춘천 부근 방어를 위해 홍천에 집결을 완료하였다. 군단장 유재흥 소장은 원주에 개설한 군단지휘소에서 새로 편입된 제3사단의 전술적 운용과 함께 춘천 동쪽 38도선 일대의 전선구성에 대한 전반적인 작전을 계획하였다. 군단은 소양강 일대의 B방어선 진지를 구축하여 남하하는 적을 진지전단에서 격멸한다는 방침을 정하였다.[103]

이때(20일) 그간 제2군단 예하였던 제9사단을 비롯하여 제1, 제2, 제3경비대대 등이 제1군단으로 배속 변경되었고, 대신 제3사단과 제7사단이 제2군단에 배속되었다. 제7사단은 이미 춘천부근에서 진지를 점령하고 있었으므로 계속 현 임무를 수행하였고, 제3사단은 제7사단 우측에서 인제 남쪽의 38도선을 중심으로 하는 중동부전선에 진지를 점령하여 적의 남침을 저지하게 되었다.[104] 이에 제2군단은 제3사단에 홍천 동북쪽 38도선 일대의 방어임무를 부여하는 동시에 1개 연대로 하여금 홍천에 집결시켜 군단후방을 경계하고 연대주력을 38도선 상의 진지를 방어하도록 했다.[105]

국군 제3사단장 최석 준장은 홍천에 개설한 사단의 전방 지휘소에서 “군단 작명에 의거 조속히 38도선에 진출하여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남하하는 적을 섬멸하려 한다”고 강조하고 작전명령을 예하 각 부대에 하달하였다.[106]

사단 주력은 인제-홍천 도로를 방어하기 위하여 소양강변의 관대리 일대에 주저항선을 구축하였다. 이 무렵, 사단 전면 상수내리에는 북한군 제2사단 예하부대 병력이 증강되었으며, 사단의 후방지역인 창봉리에도 적이 출현하였다. 이 무렵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사단 우인접 국군 제9사단의 현리 지역을 돌파한 적 1개 연대가 국군 제3사단의 후방을 교란하기 위해 횡성 북쪽의 창봉리에 출현하고 홍천으로 북상 중이었다.[107]

이때 제3사단장은 전방연대에 적 제2사단을 방어하도록 하고, 사단 예비인 제23연대에게 사단을 증원하기 위해 횡성에서 북진 중인 미 제2사단 제23연대와 협조된 공격작전을 펼쳐 후방 퇴로를 차단중인 북한군을 격멸토록 하였다. 이에 한·미 양사단의 제23연대는 북쪽과 남쪽에서 포위공격을 펼쳐 삼마치 일대에서 적을 격퇴하고 연결함으로써 사단의 퇴로를 확보할 수 있었다.

국군 제23연대 제2대대는 홍천-구성가도를 횡단하여 양덕원리 방면으로 향하려는 북한군 2개 대대와 치열한 교전을 수행하였으며, 제3대대는 하송상 부근의 적을 역습하여 격퇴하였다.[108] 제22연대는 이날 담당 지역을 제18연대에 인계하고 자은리로 전진함에 따라 제18연대가 사단의 제일선에 위치하였다.

이날(30일) 국군 제9사단은 전황이 매우 악화되어 일시 분산 상태에 빠져 상남리에 집결하고 있었다. 제8사단은 춘천 동쪽에서 계속 B선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제7사단은 양덕원에서 야편촌으로 이동하여 차후 작전에 대비하고 있었다.

중공군이 전 전선에 걸쳐 제3차 공세를 개시한 12월 31일에는 북한군 제2군단 예하 혼성부대들이 공세에 호응하여 중동부전선에서도 일제히 공격을 재개하였다.[109] 국군 제3사단은 북한군 제2사단의 대대적인 공격을 받았다. 사단 예하 제22연대와 제18연대는 포병의 지원 하에 적에게 저지사격을 집중시켰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적세가 증강되어 역부족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날이 어두워질 무렵 사단의 방어진지 일각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적의 주력부대는 공격과 동시에 신속하게 자은리의 협로를 따라 자은리-홍천-원주를 목표로 남하를 기도하였다.

이날 사단 좌인접 국군 제7사단의 정면에서도 북한군 제10사단이 홍천-구성을 목표로 대대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었으며, 좌우측 전선에서도 적의 대규모 공세로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 국군 제3사단 좌측전선에서는 국군 제3군단 예하 국군 제2사단, 제5사단도 대규모의 중공군 공세를 받고 진지가 돌파되는 위기를 맞고 있었고, 우측전선에서는 국군 제1군단 제9사단과 수도사단이 각각 적의 대규모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공세에 직면해 있었다.[110]

국군 제3군단 좌일선인 국군 제2사단은 적의 초기 공격에 주저항선이 돌파되어 좌전방 제17연대와 우전방 제32연대가 철수를 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좌우 인접사단과의 전투지경선 부근으로 침투한 적에 의하여 퇴로가 차단되어 분산 철수하였다. 이에 제2사단장은 즉시 예비인 제31연대로 하여금 가평 북쪽의 목동리로 진출중인 적을 차단토록 하였다. 그러나 이후 연대와 사단은 물론 사단과 군단간에도 지휘통신이 마비되어 상황파악이 불가능하였다.

국군 제3군단 중앙일선인 국군 제5사단은 좌전방 제36연대가 북한강 동쪽 지암리 일대에서, 중앙의 제35연대는 북한강 서쪽의 송암리에서, 우전방 제27연대는 고성리 일대에서 각각 중공군의 공격을 받았다.[111] 이때 제35연대와 제27연대는 적의 공격이 경미하여 지연전을 펼치면서 춘천 부근으로 집결하고 있었다. 그러나 좌전방 제36연대는 적의 공격도 완강할 뿐만 아니라 좌인접 제2사단 제32연대를 돌파한 적이 후방으로 진출함으로써 퇴로 차단을 우려한 연대도 부득이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제36연대는 가평으로 철수하기 위하여 신당리에 집결하여 목동리로 이동코자 하였으나 중공군이 한발 앞서 진출하고 있었다.

제36연대는 이 적을 저지하고 있는 제31연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먼저 1개 대대를 파견하였으나 중공군이 증원부대를 목동리로 투입함으로써 제36연대는 완전히 적중에 포위되었다. 부득이 연대는 동쪽의 북배산과 용문을 경유 양평으로 철수하였다.[112]

국군 제3군단 우일선인 국군 제8사단은 접적이 경미하여 계속 내평리 일대의 주저항선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좌우인접 사단이 철수하면서 부터 적중에 고립될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사단도 홍천으로 철수하였다.

한편 이날(31일) 야간 사단 우인접인 제9사단의 현리부근 진지가 적에게 돌파당하고 이어 국군 제3사단 좌인접 국군 제7사단의 춘천 동북쪽의 진지도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북한군 제2군단 예하 부대들은 이 돌파구를 우회 남진하여 사단 후방인 원주-홍천 간에까지 진출하여 사단 후방과 측방을 교란할 뿐 아니라 퇴로마저 차단하려는 기세를 보였다.[113] 그러므로 이날 사단 전방의 상황보다 오히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후방의 상황이 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 무렵 미 제8군사령관은 서부전선과 중동부전선의 상황을 종합한 후 미리 계획하고 있었던 전 전선에 걸친 단계적인 철수작전을 명령하였다.[114] 그동안 적의 보급로 신장과 전력 손실 등을 감안하여, 보다 유리한 고지를 장악하기 위한 작전모색의 결과였다. 즉, 국군과 유엔군은 전 부대를 38도선 상의 B선에서 C선으로 철수한 다음 다시 B선으로 전진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단은 주력을 38도선 상에서 철수하여 자은리선으로 이동하고 여기에서 다시 C선인 한계리로 집결하게 되었다.[115]

국군 제3사단의 춘천 부근 방어진지가 돌파된 직후, 육군본부는 1951년 1월 1일 17:00 임무변경에 관한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 그 중 핵심내용은 "국군 제2군단은 가능한 한 속히 원주로부터 대전으로 이동하여 국군 제11사단과 배속부대를 통합 지휘하고 원주 출발과 동시에 국군 제3사단을 배속 해제한다. 제3사단은 육본 직할로 편성되며 군 예비로 평창으로 이동하라"는 것이었다.[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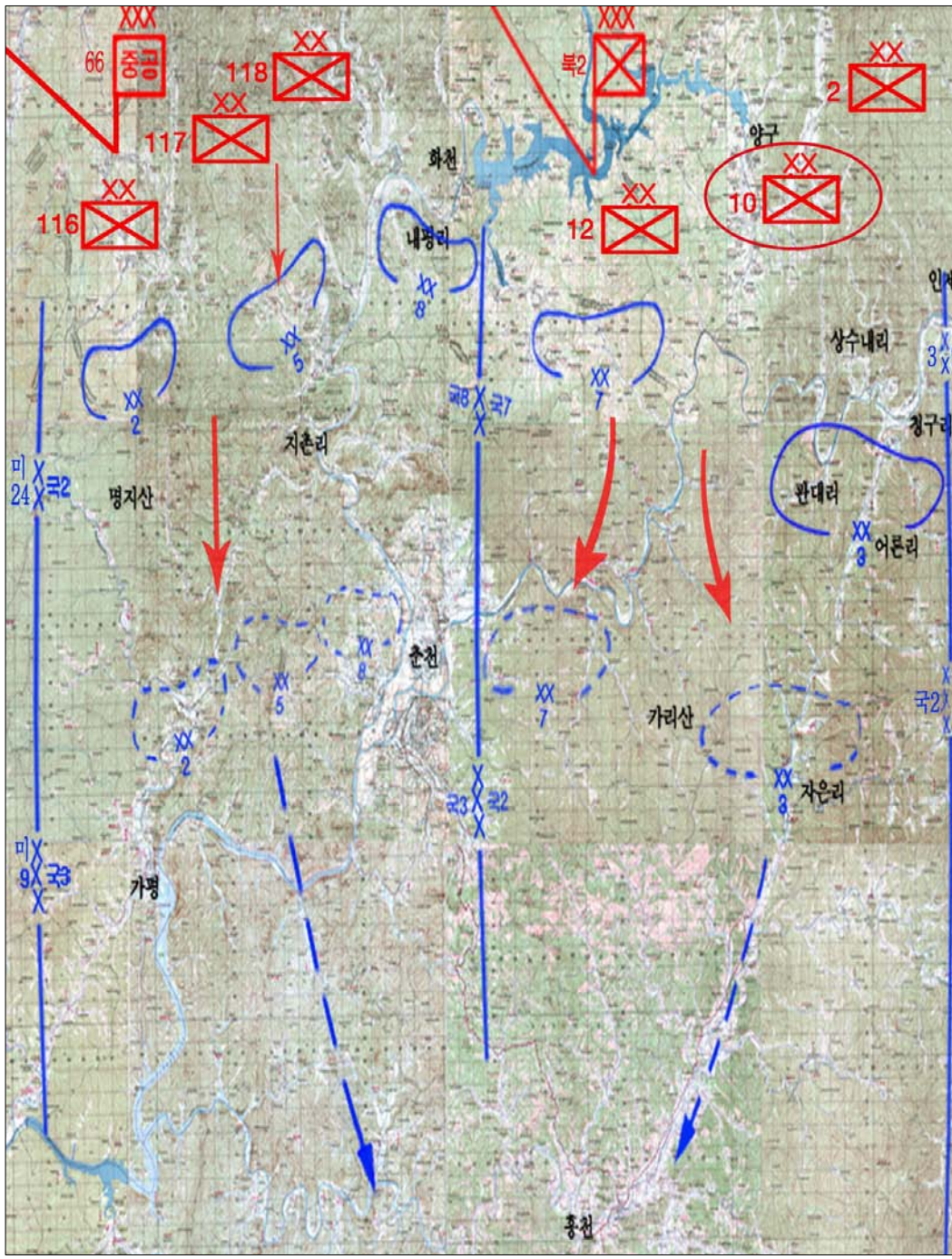
사단은 1950년 12월 30일부터 1일까지 춘천 부근 전투에서 적 사살 321명, 포로 59명, 다발총 10정, 소제장총 19정, 수류탄 9점, 기타 소창 10정 등을 획득하였으며, 아군 전사 18명, 부상 52명, 실종 58명, 소총 등 50여정 등의 손실을 입었다.[11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군 제3사단은 당일 군단작명에 따라 "제18연대와 제22연대를 축차적으로 한계리-홍천으로 이동하고 제23연대를 홍천부근과 사단 후측방인 홍천-구성에 이르는 도로를 경비토록 한다"는 요지의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에 사단의 전 부대는 평창을 목표로 축차적인 이동을 하기 시작하였다.

다음날 1월 2일 사단은 다시 육군본부로부터 "제3사단은 계속 평창으로 이동하여 담당지역 내 하처에서라도 적의 공격에 대해 반격할 수 있도록 또 후방지역의 적 출현을 격멸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라"는 요지의 명령을 받았다.[118] 이에 사단은 계속 이동하여 제22연대가 선두로 평창에 집결을 완료하고 1월 4일까지 사단 전 병력이 이동을 완료하고 차후작전을 준비하게 되었다.

<상황도 3-4> 중동부 지역 전투(1950. 12. 30~1951. 1. 1)



(2) 현리 지역 전투(1950. 12. 31～1951. 1. 3)

현리 지역 전투는 국군 제9사단이 1951년 12월 31일 공산군 제3공 공세 시에 현리 일대에서 북한군 제10사단의 공격을 받고 진지 일부가 돌파되는 위기에 처하면서 1951년 1월 3일까지 적을 지연시킨 방어 전투이다.

서부전선의 국군과 유엔군이 중공군의 제3차 공세를 받고 있을 무렵, 동부전선의 국군 제2군단(국군 제3사단 배속) 및 제1군단(국군 제9·수도사단 배속)의 상황은 서부전선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양 군단은 정면공격보다 오히려 제3차 공세 이전에 후방으로 침투하여 퇴로를 차단한 북한군 제2군단과 제5군단 예하의 혼성부대들과 격전을 벌이게 되었다.[119]

이 지역의 작전적인 특징은 주로 험준한 산악이 산재하여 양호한 기동로가 없다는 것이었다. 사단 우인접 수도사단과의 사이에는 북쪽에서부터 설악산(1,708)-오대산(1,563)-대관령을 잇는 해발 1,000m 이상에 달하는 태백산맥의 대소 연봉이 가로 지르고 있으며, 좌인접인 제3사단과의 사이에도 길향산(943)-가득봉(1,060)으로 연하는 산악이 남북으로 가로막고 있었다. 그리고 더욱이 담당지역 중앙에도 1,073고지와 방태산(1,436)이 자리 잡고 있어 사단은 사실상 좌우인접 사단과의 상호 협조와 주력부대 상호간의 전선 연계가 어려운 조건하에 있었다.

지역 내 교통망은 현리-서림 간을 잇는 동서의 소로와 현리에서 서남으로 뻗은 현리-하남리-상남리-침교-풍암리를 통하는 도로가 홍천-창촌-홍천간의 도로와 서로 연결하는 정방형의 도로망이 구성되어 있었으나, 동서의 산악으로 말미암아 노면이 협소하고 단애와 굴곡이 심하기 때문에 큰 부대의 기동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무렵에는 영하 20℃로 혹한과 계속적인 강설로 노면이 결빙되어 기동에 큰 불편을 가중시켰다.

북한군 길원팔 유격부대는 태백산맥과 그 지맥으로 형성된 험준한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아군의 후방을 교란하고 있었으며, 태백산맥의 북단에서 낭림산맥 일대에는 북한군 제2전선 부대가 편성되어 아군의 동서간의 전선 연결과 후방보급을 위협하고 있었다. 북한군 제2전선부대나 길원팔 유격부대는 모두 아군의 총반격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때에 그 퇴로를 차단당한 패잔병 위주로 편성된 부대들이었다.[120]

길원팔 유격부대는 제2전선부대와 연계 하에 활동하였으며 병력규모는 약 1만여 명에 달하였다. 그간 태백산맥을 거점으로 강릉-주문진-인제-춘천등지와 삼척-영원-영주 등지에 출몰하여 아군의 후방을 교란시키고 있었다. 이 부대는 당시 제1, 제2병단과 제1, 제3, 제5여단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제2전선부대가 38도선으로 남하하여 제2군단으로 개편될 때 같이 편입되었다.

이와 같은 유격부대를 통합 지휘하게 된 북한군 제2군단장 최현 중장은 국군의 주력이 38도선 일대의 B방어선에 진지를 편성하자, 그 주력인 제2, 제9, 제10사단을 인제-양구-화천 지구에 배치하여 국군 제1, 제2군단의 정면을 공격하게 하고, 길원팔 유격부대를 국군 제9사단의 우측방인 오태산-대관령-태기산-보현산 일대에 침투시켜 전반적인 후방교란을 획책하였다. 북한군 제2군단은 주력을 홍천-원주선으로 지향시켜 우회와 포위전술을 기도하였다.[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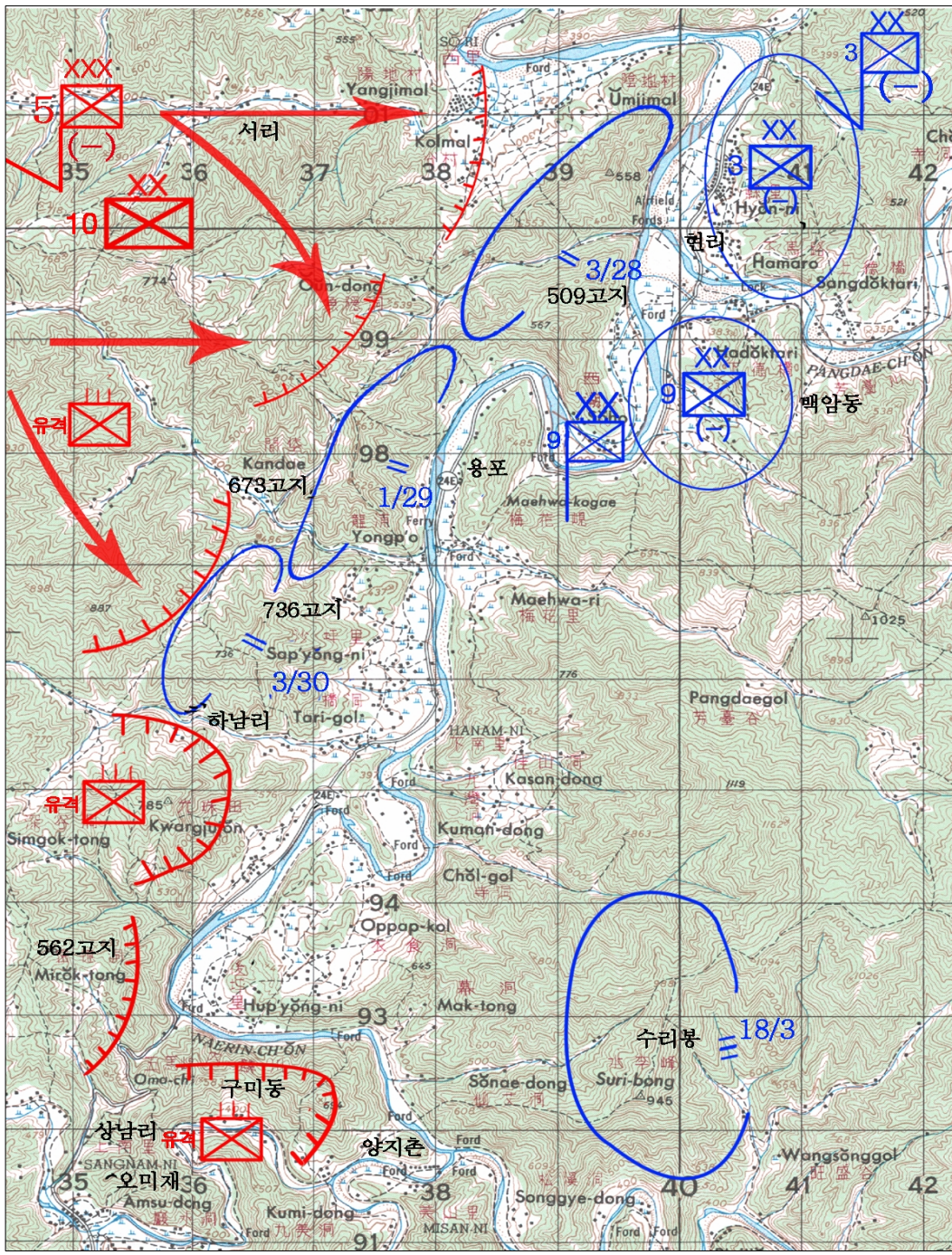
이 무렵 적의 사기는 중공군의 참전이후 크게 고조되었지만 화력과 장비의 성능, 보급의 문제, 그리고 혹한의 날씨 등으로 인해 크게 떨어져 있었다. 북한군 제2군단의 총병력은 4만여 명으로 추산되었고 장비로서는 개인장비인 소식소총, 수류탄, 중경기관총 외에 122mm 곡사포, 76mm 유탄포, 120, 82, 60mm의 박격포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군 제9사단은 몇 가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고 있었다. 즉, 사단의 담당 방어정면이 통상 방어전면의 무려 3배에 가까운 30km 이상에 달하였고, 더구나 동측 태백산맥과 서측의 산맥이 남북으로 가로지르고 있어 좌우 사단 및 주력부대 상호간의 전선 연결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또 사단은 창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투경험이 적었으며,[122] 상대적으로 적은 길원팔 유격대가 오랫동안 이 지역을 무대로 좌익 토착세력과 연계하여 전투경험이 많은 편이었다. 사단은 이러한 여러 난점들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국군 제9사단은 예하에 제28연대, 제29연대, 제30연대 및 제30포병대대와 제9야전 공병대대를 보유하였으며, 병력이 약 1만여 명 정도 수준이었지만 훈련과 전투경험의 미비로 다른 사단에 비해 전력이 취약한 편이었다. 현리 부근 전투 직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3-5> 현리 지역 전투(1950. 12. 31～1951. 1. 3)



양측의 전투서열과 지휘관 편성은 다음의 표와 같다.[123]

<표 3-11> 양측의 전투서열 및 지휘관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국군	제1군단장	소장	김백일(金白一)	
	제9사단장	준장	김종갑(金鍾甲)	
	제28연대장	대령	임충식(任忠植)	
	제1대대장	소령	김상운(金祥雲)	
	제2대대장	소령	김인문(金寅文)	
	제3대대장	소령	이성열(李成烈)	
	제29연대장	대령	고백규(高白圭)	
	제1대대장	소령	조용춘(趙鏞春)	
	제2대대장	소령	장태환(張泰煥)	
	제3대대장	소령	이영호(李永鎬)	
	제30연대장	대령	고시복(高時福)	
	제1대대장	소령	김상의(金相義)	
	제2대대장	소령	김종환(金鍾煥)	
	제3대대장	소령	김재강(金在康)	
	제30포병대대장	소령	장경석(張庚石)	
	제9야전공병대대	소령	나남호(羅南琥)	
북한군	제2군단장	상장	최 현(崔 玄)	혼성 유격부대
	제10사단장		?	
	길원팔부대장		길원팔(吉元八)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군 제9사단장은 1950년 12월 21일 제1군단장 김백일 소장으로부터 38도선에 연하는 신진지 점령하라는 육본 명령을 수령하였다.[124] 당시 사단 좌인접에는 국군 제3사단이 홍천에, 우인접에는 수도사단이 인구리에 각각 집결해 있었다. 육본 명령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하달된 것이었다.

① 제1군단장은 수도사단, 제9사단 및 제1, 제3경비대대를 지휘하여 담당지구 내 방어진지 B선상의 가장 유리한 지형을 점령 방어하라.

② B선 부근이나 혹은 현 진지가 B선 이북일 경우에는 현 진지상의 가장 유리한 지형 상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 축성 공사를 실시하라.

③ 각급 지휘관은 인접부대 상호간에 서로 긴밀히 협의하여 전투지경선상의 간극을 소멸하고 방어에 만전을 기하라.

이러한 군단 작전명령을 수령한 제9사단장은 우선 다음과 같은 작전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였다. 먼저 이 지역 내의 작전은 적 유격부대의 태백산맥으로의 침투 남하를 가능한 한 저지 하면서 원통-인제 부근에서 남하할 것을 예상하는 적 주력부대를 격멸하여 서림-현리-원대리를 연한 B선을 확보한 후, 서림-현리-상남리-도관리-홍천 가도와, 서림-창촌-서석-횡성간을 연결하는 기동로를 장악하여 동측의 수도사단과 서측의 제3사단과의 전선연계를 도모할 것 등이었다. 사단장은 즉시 적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작명을 하달하였다.[125]

① 제28연대장은 제1대대의 진지를 제3사단 제22연대에 인계하고 주력으로써 현리-원대리선을 점령하라.

② 제29연대장은 제1대대의 진지를 수도사단에 인계하고 연대를 풍암리-하남리로 진출시켜 주력으로써 하치전-현리선을 점령하라.

③ 제30연대장은 진지를 수도사단에 인계하고 창촌으로 이동 집결하는 즉시로 후방경계를 담당하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에 따라 즉시 제28, 제29연대는 38선상의 방어진지를 점령하였고, 제30연대는 창촌 일대에 집결하여 후방경계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사단 예하의 각 부대들은 방어진지를 인계받은 날로부터 연일 적의 공격에 직면하였다. 특히 12월 29일부터 30일 양일간의 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단 정면의 적은 계속 남하하여 오대산-태기산 방면으로 돌파를 기도하고 있었다. 사단은 12월 29일 후방으로 침투한 적으로 인해 제29연대 후방지휘소가 적의 기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제28, 제29연대의 보급로마저 차단당하는 상황이

었다. 사단은 그 후 긴급한 부대보급은 항공기 수송으로 충당해야 했다.

이와 같이 모든 요건이 점차로 불리하게 되자 제29연대는 이날 다시 제1대대를 갈전곡봉 남쪽으로부터 서북방으로 진출케 하고 현리 남쪽에서 하남리로 전진한 제3대대를 현리 남쪽으로 진출시켜 부근의 적을 격퇴하면서 적 후속부대의 남하에 대비케 하였다. 이날 연대의 전방지휘소와 제2대대는 상남리에 있었다.

이와 같이 제9사단의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군단 우익인 수도사단장은 군단장의 지시를 받고 기갑연대로 하여금 서림을 출발하여 하치전 남쪽으로 진격케 하였고 또한 주문진에서 송천으로 이동 배치하였던 제26연대 제3대대도 제30연대의 전투지역과 연결하기 위하여 갈전곡봉 남쪽으로 진출케 하였다.[126]

이러한 가운데 제30연대는 이날 원당동 일대의 적을 역습하기 위하여 준비를 갖추었다. 먼저 제1대대가 먼저 공격하여 무려 3시간에 걸친 치열한 교전 끝에 원당동에 돌입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제2대대는 연대장의 지시에 따라 연대 예비대로서 창촌에 집결하였고, 그 중 1개 중대가 광원리에서 일시 적에게 포위되었으나 전력을 다하여 포위망을 돌파하고 원대로 복귀하였다.

이날(29일) 오후 제28연대는 사단장의 지시를 받고 현리 서남방에 배치한 주력부대를 철수시킨 다음 제1대대를 부봉 동쪽에 제2대대를 침교에, 제3대대를 제1대대의 우일선에 각각 배치하였고, 제29연대는 상남리에서 하남리 서북방 대암산(1091)의 적 거점을 점령하기 위하여 제2대대를 상남리 북쪽 좌일선에, 제3대대를 그 우일선에 각각 배치하였다. 이때 제1대대는 갈전곡봉 서북방으로 진출하고 있었다.

12월 30일 새벽 제28연대는 사단 좌일선 침교 북쪽 일대에서 연대 규모의 적 병력을 격퇴하기 위해 공격하였으나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 그러나 제2대대가 침교에서 그 서측방인 가득봉(1060)으로 진출하는데 성공하였다.[127]

제29연대는 하암산(1091)고지 북방으로 진격을 시도하였으나 제28연대 정면의 적으로부터 연대 배후를 위협받아 저지되었다. 제30연대는 생둔리 일대에서 계속 방어력을 강화하면서 원당리 일대로 침투한 적을 격퇴시켰다. 그런데 이날 송천에서 창촌-광원리 선상의 제30연대와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급히 서진중인 제2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연대의 제3대대는 대사리까지 진출하여 20시경에 부근에 출현한 적 약 1,000명과 충돌하여 치열한 화력전에 이는 백병전을 전개하였다.

결국 지난 12월 중순 이후 하치전-현리 일대로 침투한 북한군 제2군단 주력부대는 이제 제9사단과 수도사단과의 접촉부인 갈전곡봉 동측으로 침투하여 오대산 깊숙이 침투하였다. 그 중 일부의 적은 사단의 후방지역을 교란할 목적으로 기습을 기도하였다.[128]

공산군의 제3차 공세가 개시된 12월 31일에는 제28연대 방어 정면에 다시 적 제10사단의 병력이 축차적으로 증가되고 있었다. 제28연대는 사단의 명령에 따라 다시 침교 북쪽의 적을 공격하였다.[129] 연대는 사단 포병의 지원사격을 받으면서 공격을 재개한 끝에 적을 격퇴하는데 성공하였고, 방어진지를 강화하면서 주변 잔적을 소탕하였다. 제2대대는 가득봉(1059)의 동북쪽에서 서남으로 진격하던 중 침교 북쪽에서 400여 명의 적을 격퇴하였다.

그러나 이날 제28연대 좌인접인 제3사단 제22연대는 연대 정면인 상수내리로 남하한 적 제10사단 주력부대의 공격을 받고 치열한 전투를 수행하였다. 제28연대의 서남방에 있는 용포동과 하송상 방면에는 하득봉 부근에서 남하한 길원팔 유격부대가 출현하였다. 적의 유격부대는 제9사단과 제3사단의 전투지경선을 방호하던 제3사단 제23연대 제5중대를 포위 공격하였다. 이에 제23연대가 1개 대대를 투입하여 적을 격퇴하였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제28연대는 좌측으로부터 뜻하지 않은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편 사단의 우일선인 제29연대는 주력으로 1091고지를 공격할 준비를 갖추는 한편 갈전봉 남쪽의 제1대대를 연대주력이 방어중인 상남리로 이동시켰다. 제26연대는 정면의 적이 오대산-평창 방면으로 도주하자 제3대대로 추격전을 전개하였다.

1951년 1월 1일에 사단장이 교체되어 신임 제9사단장 김종갑 준장이 취임하였다. 이날 사단은 상남리 북방에서 38도선상의 C방어선을 점령하기 위하여 진출하고 있었다. 제28연대는 금부리로부터 상남리-1091고지로 진출하였고. 제29연대는 1091고지 동측으로부터 광주동-늑태곡-용포 전방과 그 동쪽으로 진출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날 12시경 사단은 금부리 전방으로부터 적 제2군단 주력 약 1,000명의 공격을 받았다. 이에 적의 공격을 물리치고 추격전까지 전개하였으나, 적이 제10사단 주력을 투입함으로써 점차 고전하게 되었다. 사단은 2일 18:00까지 적과 치열한 전투를 계속하였으나, 진지를 유지하지 못하고 늑태곡 일대로 철수하였다. 더구나 제29연대 제3대대가 늑태곡 전방에서 적 1개 연대로부터 포위되어 퇴로를 잃고 고립되고 말았다. 사단은 포위망 돌파를 위해 1개 대대를 투입하였으나. 대대 역시 적의 공격을 받아 분산되고 말았다.[130]

한편 욱두동 고지와 영월 동북 고지 일대에 북한군 제2전선부대들이 침투하자, 군단장은 즉시 경비대대를 투입하여 적을 소탕하도록 했다. 욱두동과 770고지 일대로 적 1개 대대가 침투하자, 제1경비대대가 2일 미명 동 고지를 공격하여 적을 격퇴하였다. 적은 전의를 상실하고 두일리로 도주하였고, 곧이어 수도사단 제26연대 제3대대의 두일리 진출로 말미암아 또다시 무천으로 도주하였다. 제2경비대대도 영월 동북쪽 25km의 무명고지에 적 병력 약 250여 명이 출현하자, 즉시 출동하여 1일 20시부터 6시간 동안 적에 대한 포위 공격을 감행하여 적을 북쪽으로 격퇴하였다.

현리 지역의 국군 제9사단은 1월 3일 13시경에 제1군단에서 제3군단으로 전속되고 차기 방어선을 점령하기 위해 철수작전을 단행하였다.[131] 그러나 이미 적이 사단 후방지역에 침투하여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고 또 계속 후방을 교란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예정 방어선을 점령하는 데는 많은 난관이 있었다.

더구나 금부리와 1091고지 및 광주동에서 늑태곡과 상남리 일대로 철수한 제28연대와 제29연대는 그 후방에 침투한 적에 의하여 퇴로가 차단되었고, 또한 사단 사령부 및 좌우부대간의 연락마저 두절된 상황이었다.

이에 제28, 제29연대는 각기 연대장의 단독지휘로 사단사령부가 위치한 속사리를 목표로 도보 철수를 단행하였다. 양 연대는 적 제10사단의 주력이 침교 남쪽 행와에 1천여 명, 생둔리에 1천여 명, 하리현에 1,800여 명을 각각 투입하고 있었으므로 사실상 적에게 포위된 상황이었다. 사단은 전투와 철수를 적절히 운용하여 적의 포위망을 돌파하고 4일 마침내 창촌을 경유 속사리에 집결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그런데 이 무렵 오대산으로 침투한 적 2천여 명이 평창으로 남하한 뒤 동쪽으로 돌진하여 광사리(정선 남북3km)부근에서 사단 후방을 차단하려 기도하였으며, 좌인접 제3사단 지역인 구성 역시 적 제12사단 주력으로부터 위협을 받았다.

이리하여 제3군단장 이형근 준장은 제3사단과 아울러 황우선(영월-삼척)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제9사단장에게 하달하였다. 이에 사단은 제30연대 제3대대가 속사리 진지를 점령하여 사단 주력부대를 수용하였으며, 사단주력은 속사리를 거쳐 황우선으로 철수하였다.

현리 부근 전투 기간 국군 제9사단은 많은 손실을 입었으나 전과와 손실에 대한 기록이 없어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동부전선 후방지역에 대한 수도사단의 기록만이 집계되어 있어 토벌상황을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기간 중 제26연대가 오대산 부근에서 적 사살 225명, 포로 26명, 소제소총 106정 획득 등이었고, 아군 전사 11명, 부상 22명 등의 손실을 입었으며, 제1기갑연대가 도채동 부근에서 적 사살 26명, 소제 소총 16정 및 99식 소총 5정 획득 등의 전과를 달성하였으며, 아군은 전사 1명, 부상 2명의 손실을 입었다.[132]

(3) 원주 지역 전투(1951. 1. 6~1.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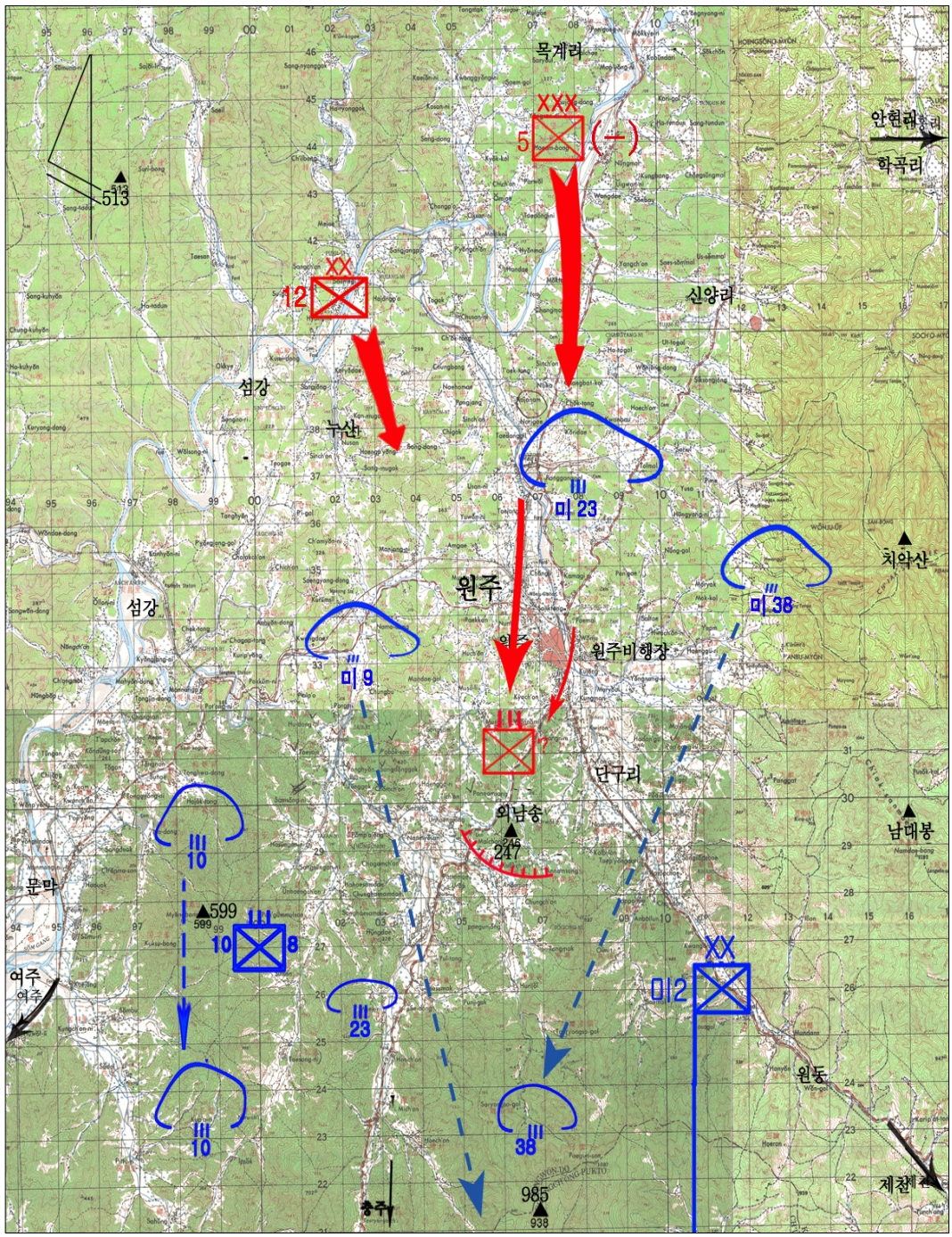
원주 지역 전투는 미 제2사단(프랑스 및 네덜란드 대대 배속)이 1951년 1월 6일부터 원주 부근에서 북한군 제5군단의 공격에 맞서 1주일간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였고 1월 12일 마침내 적을 격퇴하고 원주를 탈환한 전투이다.

원주 지역은 중부전선 제일의 요충지로써 적이 점령할 경우 충주를 거쳐 대전과 김천으로 진출하여 서울지구의 아군을 고립시킬 수 있으며, 또 동남으로 제천-영주를 지향하여 안동과 대구를 압박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인 위치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미 제2사단이 제3차 공세 기간 중 원주에서 치열한 혈전을 수행한 것은 그것의 쟁탈여부가 금후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컸기 때문이었다.[133]

원주의 작전상의 의미는 국군 제3군단과 미 제10군단(국군 제2, 제5, 제8, 미 제2, 제7사단)의 차기 반격작전을 위한 좌측 축선 또는 미 제9군단의 우측 축선의 중심역할을 담당한다는 데 있었다. 즉, 동부전선의 국군 제2, 제3군단의 C방어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3-6> 원주 지역 전투(1951. 1. 6~1. 12)



(수원-양평-홍천-주문진)과 D방어선(평택-안성-장호원-원주-삼척)으로 철수, 그리고 E방어선(영월-삼척)으로 철수작전을 각각 엄호하여 적의 급속한 남하를 지연키는 것이었다.

이때 중부전선에 배치된 적은 북한군 제2군단(제2, 제4, 제9, 제10, 제31사단)과 제5군단(제6, 제7, 제12, 제27, 제38, 제43사단) 도합 10개 사단이었다.[134] 미 제8군은 작전상 단계별 방어선을 확정하여 예하부대에 하달하고 있었다. 그러나 12월 31일 공산군의 제3차 공세로 중부전선이 먼저 돌파되기 시작하였다. 북한군 제2, 제5군단이 춘천-원주축선을 공격하여 제3, 제5, 제8사단의 춘양정면을 돌파하였다. 이에 호응하여 적의 유격부대가 각처에서 아군의 퇴로 및 보급로를 차단하였다.[135]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북한군이 대전이나 대구부근까지 진출하여 아군 전선이 동서로 절단될 위험이 있었다.

이에 제8군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은 이러한 위기가 계속되면 현재의 작전구상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1951년 1월 2일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하였다. 즉, "18시부로 원주의 미 제2사단과 아울러 국군 제3군단(제2, 제5 및 제8사단)을 미 제10군단(미 제7사단 포함)에 배속하여 종래의 제3군단 지역을 방어하라"는 것이었다.[136] 이 명령에 의해 국군 제2군단 및 제3군단 편성과 배치가 조정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 무렵 제2전선으로 미 제10군단 사령부가 대구에 설치되는 가운데 미 제1해병사단이 마산에, 미 제7사단이 대구에, 국군 제7사단과 미 제2사단이 원주부근에, 그리고 미 제1기병사단이 의정부 부근에, 미 제3사단이 평택에 각각 집결하여 부대의 재편성과 진지 점령을 서두르고 있었다.

미 제10군단장 알몬드(Edward M. Almond) 소장은 원주의 미 제2사단으로 하여금 중부전선의 한국군 철수를 엄호토록 하는 한편 대구부근에 배치된 미 제7사단을 제천으로 북상시켰다. 그러나 1월 3일 오전 이와 같은 위기에 더하여 서울이 위기에 처하자 철수명령을 하달하였다.[137]

이에 따라 국군과 유엔군은 전 전선에 걸쳐 C방어선으로 철수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적의 전세가 갈수록 증강되어 1월 4일에 홍천마저 피탈되어 C방어선의

형성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았다. 이에 미 제8군사령관은 1월 5일 12시를 기하여 다시 D방어선(삼척-평택선)을 점령하고 당면의 적을 저지 격멸하라는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138]

이때 중부전선의 미 제10군단도 서부전선과 연결하기 위하여 전 부대를 37도선 상으로 철수하는 한편 원주부근의 미 제2사단은 한국군 제2, 제5 및 제8사단의 철수를 엄호하기 위하여 역습을 감행하였다.

중동부전선의 철수작전이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미 제2사단은 엄호를 위해 원주정면을 확보 중이었다. 사단 당면의 북한군 제5군단은 국군 제3군단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1월 2일에 춘양-가평선에 진출한 다음 남진을 계속하였다. 이들은 이미 양덕원리(홍천 서남 10km)의 남쪽 한계선까지 진출한 적 제2전선부대와 호응하면서 양덕원리의 국군 제5사단과 제8사단의 철수부대를 급습한 후 여주방면을 지향하였다. 북한군 제5군단 주력인 제6, 제7, 제12사단 등은 국군 제3, 제8사단의 간격으로 침투 남하하여 1월 4일에는 홍천을, 6일에는 횡성을 각각 점령하였다.

1951년 1월 6일 북한군 제5군단 주력부대가 횡성 지구에 육박하기에 앞서 1월 5일 육군본부는 국군 제1, 제3군단의 병력을 E선인 영월-삼척간의 황우선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에 현리부근의 제9사단은 창촌을 경유 속사리에 집결하였고, 홍천의 제3사단은 홍천-횡성을 경유하여 평창에 집결하였다. 또 제7사단은 춘천 동북쪽에서 철수하여 목계-창동 선으로 철수하였고, 제5사단은 가평-횡성 선을 경유하여 여주에 집결하고 있었다. 제2사단은 여주에서 제5사단과 합류하였다.

이 무렵 횡성 일대에 배치되어 있던 미 제2사단은 중동부전선의 국군이 6일 현재 E선(황우선) 상으로 철수하자, 갑자기 좌우양측이 돌출되어 적에게 고립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원주 방어가 절실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미 제2사단은 예하에 제9, 제23, 제39연대, 프랑스 대대, 네덜란드 대대, 그리고 미 제37야전포병대대를 두었으며, 병력은 1만 5천여 명 정도 수준이었다. 사단은 프랑스 대대를 제23연대에, 네덜란드 대대를 제38연대에 각각 배속하고, 미 제10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군단장 알몬드 소장의 명령에 따라 원주-횡성 간의 방어진지를 점령하고 있었다. 양측의 부대 전투서열과 지휘관 편성은 아래와 같다.[139]

<표 3-12> 전투서열 및 지휘관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유엔군	미 제10군단장		소장	Edward M. Almond	
	미 제2사단	사 단 장	소장	Robert B. MaClure	
		제9연대장	대령	Edswin J. Messinger	
		제23연대장	대령	Paul L. Freeman	
		제38연대장	대령	George B. Peploe	
	프랑스 대대		소령	Lemire	배속부대
	네덜란드 대대		중령	M.P.A. den Ouden	
	미 제37야전포병대대		중령	John B. Hector	
북한군	제5군단		상장	방호산(方虎山)	혼성병력
	제6, 제7, 제12, 제27, 제38, 제43사단			?	

미 제8군사령관은 1951년 1월 5일 12시경을 기하여 각 군단에 D방어선(삼척-원주-안성-평택선)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고, 미 제10군단장은 영주의 미 제7사단을 제천으로 북상시키는 한편 횡성지역의 미 제2사단 주력부대를 D방어선상의 원주로 철수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미 제2사단장은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하였다.[140]

① 제9연대는 주력부대의 원주 집결을 엄호한 다음, 봉양면 장평림(제천 서쪽 8km) 부근으로 이동하여 원주-제천간의 작전로를 경계하라.
② 제23연대는 현 진지를 철수하여 원주 교외 서북쪽에서 진지를 점령하라.
③ 제38연대는 현 진지를 철수하여 원주 외곽 동북쪽에서 진지를 점령하라.

그리하여 미 제2사단장 맥클루어 소장은 1월 5일 20:30에 지휘소를 충주에 개설하였다. 사단 우일선인 제38연대는 네덜란드 대대와 합동하여 추동리-횡성 간의

진지에서 적과의 치열한 교전을 전개한 다음 횡성에 집결하였다.[141] 제23연대는 좌일선으로 상창봉리(횡성 서북 15km)를 점령하였다. 연대에 배속된 프랑스 대대는 전날 유동리(횡성 동북 15km)에서 적의 기습을 받고 횡성을 거쳐 원주로 철수할 준비 중에 있었다.



프랑스 대대의 전투 장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편 사단 예비대인 제9연대는 원주의 D방어선을 점령하고 사단 주력부대의 철수를 엄호하던 중, 이날 05시 30분경에 횡성 서북쪽 도로를 차단하고 있던 1개 중대가 200명 규모의 적의 기습을 받자 치열한 교전 끝에 장교 1명과 사병 10명의 전사자를 내고 횡성으로 집결하였다. 이날(5일) 미 제10군단 예하 미 제7사단 제17연대는 제천에 집결하였고, 제31연대와 제32연대는 단양으로 진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국군 제1102야전공병단이 이날 미 제10군단에 배속되었다.[142]

다음날(6일) 미 제2사단은 전일에 이어 횡성 방어선을 철수하여 D방어선상의 요충인 원주를 고수하기 위하여 진지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사단 좌일선 제23연대는 원주를 목표로 철수한 다음 학성리(원주 서북)-만경리를 연하는 야산에 진지를 점령하였다. 우일선 제38연대는 횡성에서 제23연대의 철수를 엄호한 다음

원주로 이동하여 홍양리-청암리-장양리 간의 진지를 점령하였다.[143]

이와 같이 사단 주력부대가 원주에 집결을 완료하게 되자 제9연대는 원주-제천 간의 기동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날 봉양면 장평리(제천 서쪽 10km)로 이동하였다. 미 제7사단 제31연대와 제32연대는 단양으로 이동 중이며, 제17연대는 단양에서 제천으로 이동하였다.

원주 외곽진지를 점령한 사단 주력부대는 7일 동북서 삼면으로부터 북한군 제5군단 예하 제12사단의 공격을 받고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였다.[144] 이날 원주에 있는 원형진지의 점령은 제38연대와 네덜란드 대대가 홍양리(원주 동북)-수암리-장양리 간의 대소 능선상을 확보하면서 신기에서 원주로 통하는 42번 도로와 횡성-원주가도를 차단하였으며, 제23연대와 프랑스 대대는 학성리(원주의 서북)-만경리 지역을 점령한 다음 횡성-원주가도의 동측과 원주-여주 도로를 차단하였다. 그리고 원형진지의 중앙에는 제37야전포병대대가 대대주력을 지향하여 주력부대의 작전을 직접 지원하였다.[145]

따라서 원주의 상공에는 포병화력의 목표를 유도하는 관측기가 선회하고 있었으며, 현지 요청에 따라 미 제5공군의 전폭기편대가 폭격과 근접지원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무렵 산야에는 무릎을 덮는 백설로 뒤덮여 있었으며 기온이 영하 12도를 상회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북한군의 선두부대는 원형진지의 1km 전면까지 접근한 다음 이날(7일) 05:00경에는 제38연대 진지인 원주 동북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연대는 무난히 적을 격퇴하였다. 낮에는 전폭기 편대에 의한 폭격으로 적을 강타하였다. 이날 밤 북한군 제5군단의 3개 사단은 폭격을 피해 다시 동북서의 삼면에서 일제히 공격을 재개하였다.[146] 이에 제37야전포병대대가 18문의 포문을 열어 주저항선 전면에 탄막을 구성하고 1문 당 500발 이상의 화력을 집중하여 적을 저지하였다.

방어진지 내 모든 방어병력이 일제히 박격포와 기관총 그리고 소총과 수류탄 등으로 적의 접근을 저지하였다. 적은 수차례 파상공격을 계속하여 사주방어진지 중앙에 있는 포진지 20m까지 접근해 들어왔다. 아군 포병은 사수와 탄약수까지 모조리 동원하여 적을 저지하고 백병전까지 감행하여 포진지를 사수하였다. 진지

전면에는 적의 시체 600명이 널브러져 있었다. 이와 같이 사단 주력부대는 피아를 구분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하자 자정 무렵 원주가도를 벗어나 남으로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사단 주력부대는 8일 06시경에는 원주 남쪽 5km의 관설리-단곡리-홍등리간에 방어진지를 점령하였다. 이로부터 원주시내의 적에 대한 포 화력의 집중을 유도하는 정찰기가 선회하는 가운데 제37야전포병대대와 제5공군 전폭기의 화력이 적진에 집중되었다. 포병과 항공 화력의 지원을 받은 사단 주력은 적중에 수색대를 투입하는 한편 제23연대 제2대대가 09시 45분경 역습을 개시하였다. 대대는 1개 대대 규모의 적과 치열한 교전을 전개한 끝에 200여 명을 사살하였으며, 포병대대는 이날 8km 사거리 내에 밀려든 적의 기마대를 포격하여 수백 명의 인마를 살상하였다.[147] 이날 포병대대가 발사한 포탄의 수는 대략 1만 여발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 무렵 사단 예비대인 제9연대는 주포리(제천 서쪽 10km) 북쪽 3km에 있는 주천강 양안의 고지일대에 저지진지를 구축하였다.

이와 같이 원주 일대의 전황이 심각해지자 미 제8군사령관은 이날(8일) 12시경에 "미 제187공수연대전투단은 지체 없이 안동으로 이동하여 미 제10군단의 우측방을 방어하고 의성-안동-영주간의 모든 보급로를 경비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사령관은 피아의 모든 전세를 분석 검토한 결과 다시 휘하 병력을 E방어선(영월-삼척) 상으로의 철수를 모색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미 제8군사령부는 9일 다음과 같은 요지의 작전계획을 하달하였다.[148]

① 군은 휘하 각 군단으로 하여금 앞으로 하달하는 D일 H시에 E방어선으로 협조된 철수를 실시한다.

② E방어선은 금강에 연하여 동으로 충주-제천-통리-금성리에 이르는 선이다.

③ 제9, 제10군단의 작전지경선은 목계동-하금단-박달산(825)-덕가산(857)-갈동리-상주를 연하는 선으로 상정한다.

④ 한국군 제3군단과 미 제10군단의 지경선은 소사리(횡성 동쪽)-주천리-영월-남대리-원천동-안동을 연하는 선으로 상정한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미 제8군사령부는 이날(9일) 06시에 다시 “미 제10군단은 E방어선으로 철수하고 안동-영주-제천간의 철로선과 그 시설을 방호하라. 또한 적을 분리 고립시키기 위하여 계속 엄호부대를 배치 활용하라”고 명령하였다.[149]

이에 따라 미 제2사단은 엄호부대로써 원주-제천-충주-원주를 연결하는 ‘△’형의 전구에 종심진지를 구축하고 계속 지연전과 핵심지역 고수에 주력하고 있었다. 우일선인 제38연대와 네덜란드 대대는 이날 주보급로인 원주-제천도로를 서쪽으로 횡단하고 제23연대와 프랑스 대대는 이날 아침 위업동에서 서평을 목표로 공격하였으며 제1대대는 주포리(제천 서쪽 10km)고지에 저지진지를 확보하였다.

한편 사단의 예비대인 제9연대 주력은 계속 원주-제천간의 주보급로를 정찰하였는데 이날, 제2대대는 제천-충주간의 도로를 정찰중 원월리(제천 서남 24km)에서 200명 규모의 적과 조우하여 격전을 전개한 후 격퇴하였다.

미 제2사단 주력은 다음날인 10일 원주부근의 적과 교전을 계속하였다. 제23연대 제3대대와 제38연대의 제1, 제3대대가 흥업리의 방어진지를 점령하는 한편, 공격제대인 프랑스 대대와 제23연대 제2대대와 제38연대 제2대대가 그 전방으로 진출하여 뇌옹정(원주 남쪽 3km)-외남송-은행정-상성동(문막 동쪽 5km)선상을 점령하였다.

이들은 16시 30분경 진지의 양익포위를 기도하는 적과 치열한 교전을 전개하여 24시경에는 격퇴하였다. 예비대인 제9연대는 주포리(제천 서쪽 10km) 1km 전방 좌우고지, 신림역, 그리고 신림리에 각각 1개 대대를 배치하여 제천-원주간 도로를 따라 종심진지를 구축하였다. 이날 미 제7사단 제17연대는 제천에, 그리고 제32연대는 영주, 안동에 각각 배치하여 안동-영주-단양-제천선을 확보하고 있었다.[150] 원주 지구에 대한 적의 공격 기세는 이날(10일)을 고비로 크게 격감되었다. 그 이유는 우익 창촌 횡선간을 점령한 국군 제3군단(제3, 제7 및 제9사단) 주력부대가 1월 6일 09시 원주를 우회하여 제천-영월 간으로 남하하였기 때문이다.

11일 북한군은 제3군단 철수에 따라 군단좌측 미 제10군단과의 전투지경선을 통하여 침투하기 시작하였다.[151] 그중 북한군 제2사단은 이미 안동-의성지구에 침투한 제10사단과 연결하기 위하여 원주-제천-안동선을 따라 남하하여 12일에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원만허 일대에 집결하였다. 또 적 제9사단과 제31사단은 국군 제3군단 방어선인 황우선 남쪽인 춘양-횡성-영주간을 확보하려 했다. 제9사단은 주문리(남대리 서북 10km)로 침투하였으며 제31사단은 남대리로 침투하였다.

이리하여 미 제10군단장은 이날(11일) 제8사단을 황강(충주 동쪽 12km)에, 제2사단을 단양에, 그리고 제5사단을 영주로 진출시켜 미 제7사단과 미 제187공수연대 전투단)과 더불어 원주-제천-단양-영주-안동-의성을 연하는 중앙선에 방어종심을 강화하였다.

이리하여 미 제8군은 안동-의성간에 침투한 북한군 제10사단과 남진 공격하는 북한군 제2사단과의 연결을 차단하는 동시에 적 제10사단을 고립 섬멸시킨다는 작전을 구상하였다. 제8군사령관은 마산에서 재편 중이던 미 제1해병사단(Oliver P. Smith 소장)을 안동-영덕선에 투입하여 적을 격멸하도록 했다.[152]

이러한 상황에서 이날(11일) 오전까지 미 제2사단은 원주를 재탈환하기 위한 진지강화와 일부 전선의 정리를 단행하는 한편, 남하중의 적에 의한 측방공격을 분쇄하고 있었다. 제9연대를 원주-제천 도로상에, 그리고 제23연대와 제38연대를 원주-충주 도로상에 각각 종심 배치하였다.

제9연대는 신림리, 만복동으로 예하부대를 추진시키고 신림역의 제3대대를 공격제대로 하여 금창리(신림리 북쪽 4km)로 진출시켰다. 제23연대와 제38연대는 원주-충주간을 점령하고 외남송(원주 남쪽 3km)-행가리 간에 전초진지를 점령하고, 구억말-은행정-하승안동 간의 주저항선에는 제23연대와 제38연대 제1대대, 그리고 네덜란드 대대를 배치하였으며, 그 후방 6km 지점인 한촌에는 제38연대 제3대대를 예비대로 배치하였다. 이날 제23연대 본부는 매지리에, 제38연대본부는 운남리에, 그리고 사단사령부는 목계리(충주 북쪽 17km)에 각각 위치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사단의 주력부대가 원주-제천도와 원주-충주도상에서 종심으로 진지점령을 완료한 이날(11일) 오후 무렵, 200명 규모의 적이 원주-제천 간의 회륜굴(원주 동남 10km) 부근에 출현하였다. 이에 포병중대가 2km 전방에 있는 적에 대하여 화력을 집중하여 격퇴하였다.[153]

미 제2사단 각 부대는 12일 미명 제천-원주선과 충주-원주선을 따라 원주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탈환하기 위한 총공격을 개시하였다. 사단 우일선으로 제천-원주선을 따라 북상한 제9연대 제3대대는 금창리에서 진격을 시작하여 금대리 해미산성(원주 동남 6km)을 점령하였다. 충주-원주선을 따라 북상한 제23연대와 제38연대는 원주의 서측방을 공격하여 소수의 적을 격퇴하고 시내에 진입하는데 성공하였다.[154] 이후 적은 몇 차례 소규모 역습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격퇴되었다.

이 무렵 은행정-하승안동 간에 진출한 좌일선 부대들은 원주 시내에 돌입하는 우일선 부대를 엄호하면서 북으로 진격하여 사제리 일대의 적을 격퇴하였고, 계속 공격하여 마침내 420고지-339고지-243고지 등 대소 고지들을 모두 탈환하는데 성공하였다.

1951년 1월 12일에 원주를 탈환한 미 제2사단은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사주방어에 들어갔다. 적은 다음 날 04시경부터 제23연대 진지로 역습을 시도하였고, 07시에는 제38연대 진지를 공격하였으나 모두 격퇴되었다.

미 제2사단은 14일 미 제8군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제천일대에 배치된 미 제7사단과 연계하기 위하여 영월-모산리(제천 북쪽)-죽관리(목계 동북)-담암리(장호원 동북) 선으로 철수하였다. 이리하여 마침내 원주 공방전은 종료되었다.

북한군 제5군단은 제12사단 등 전 부대를 원주로 투입하여 아군과 최후의 일전을 기도하였으나 오히려 많은 인명손실은 물론 탄약마저 바닥나 원주를 장악하는데 실패하였다. 이곳에 투입된 적 사단은 개전초기 낙동강까지 진출하였던 북한군의 정예부대이었으나 원주전투에서 재편성이 요구될 정도로 결정적인 피해를 입었다. 북한군은 제27사단을 전방에 배치하여 접적을 유지토록 하고 군단 주력 모두가 횡성 부근으로 철수함으로써 원주전투는 아군의 승리로 일단락되었다.[155]

미 제2사단은 원주 전투 기간 중 1일 평균 1,000여 명의 적을 살상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로써 미루어 추산하면, 북한군 제5군단 병력의 인명손실은 도합 1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으로써 미 제2사단은 중동부전선의 한국군 철수작전을 엄호하는 동시에 적의 급격한 남침 활동을 저지하였으며 차기의 반격작전을 위한 요충지를 고수하였다.[156]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4. 전투 결과 및 교훈

중공군은 한강 남쪽으로 국군과 유엔군을 추격하였으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대량 섬멸에 실패하자, 유엔군의 계획된 차기 방어선인 평택-안성-제천-삼척선 전방에서 추격을 단념하고 공격을 중지하였다. 제3차 공세 시 전선별 전투결과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임진강 부근에서 방어전투를 수행한 국군 제1사단은 임진강 부근에서부터 중공군 제39군의 공격을 방어하면서 군단 계획에 따라 안성일대에서 새로운 방어진지를 점령하였다. 동두천 부근에서 방어한 국군 제6사단은 담당방어 정면을 고수하고 그 임무를 다하였으며, 미 제9군단의 계획에 따라 부대를 오산-삼척선으로 철수하여 전열을 갖춘 다음 반격전을 결행할 계획으로 지연전을 펴면서 각 연대를 점차적으로 철수하였다.

접적이 경미한 미 제1, 제9군단은 철수준비를 완료하고 이후 접적이 없는 상황에서 평택-안성-장호원을 연하는 선을 점령함으로써 서부전선 부대들의 철수는 일단락되었다. 이 때 리지웨이 장군은 양 군단이 철수 시에 적에게 결정적인 손상을 가하지 못하였고, 지연전도 펼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였다.

한편 중동부지역 국군 제3사단은 춘천 지역 방어진지가 돌파 된 직후, 육본 직할로 전환되어 평창이후 이동한 후 군 예비가 되었다. 현리 지역의 국군 제9사단은 제1군단에서 제3군단으로 전속되어 철수작전을 단행하였으나, 이미 적이 계속 후방을 교란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원주를 탈환한 미 제2사단은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사주방어에 들어갔다. 사단은 중동부전선의 한국군 철수작전을 엄호하는 동시에 적의 급격한 남침 활동을 저지하였으며 차기의 반격작전을 위한 요충지를 고수하였다. 따라서 사단이 본 전투에서 거둔 성과는 청천강전선에서의 패전 오명을 씻고도 남았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3 절 1 · 4후퇴 시 피난민 대책

1. 1·4후퇴

유엔군이 평양에서 철수하기 시작하자 서울 시민들은 불안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전쟁초기 겪은 악몽이 되살아나 다시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1950년 12월 하순 유엔군이 아예 한국으로부터 완전히 철수한다는 소문이 퍼져, 정부나 국민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이 소문은 충분히 근거가 있었던 것으로 트루먼 행정부가 실제 철수계획을 진지하게 고려한 바 있었고, 또한 이 때문에 1백만 명의 일본 이주계획까지 세운 일이 있었다.[157]

이에 대해 당시 김용주 주일공사에 따르면, "1950년 12월 하순 최소 1백만 명은 일본으로 옮겨야겠다고 생각하고 이를 조이 제독, 스트레이드 메이어 중장과 상의하였으며, 요시다 수상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고 약속하였다. 12월 24일 이를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에 보고했으나 회신이 없어 1951년 1월 8일 부산에 가서 이 대통령께 보고하였다. 이때 무초 대사는 일개 공사가 대통령의 사전 승낙도 없이 그런 큰일을 외국정부와 교섭했다고 크게 격분하였다. 다행히 1월 10일 유엔군이 한국서 철수하지 않는다는 트루먼 성명이 발표되어 1백만 이동계획은 필요 없게 되었다"라고 하였다.[158]

이 문제는 신임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장군이 12월 27일 이승만 대통령을 예방하고 미군이 한국을 철수하지 않는다고 다짐함으로써 해소되었지만, 이 때문에 오히려 정부와 시민의 철수계획 자체에는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다. 즉, 12월 23일에는 이대통령은 이미 공식적으로 시민들의 피난을 명령했고 25일에는 이기붕 서울시장이 비전투원의 소개를 권고했는데, 리지웨이 장군의 다짐을 받은 다음날인 28일에는 다시 그 명령을 번복하여 "시민들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라"는 시장 담화를 발표하게 되었던 것이다.[159]

이 무렵 내무장관은 무초 대사에게 "50만의 피난민들이 이미 서울을 떠났으며 징용대상자 3만 명의 젊은이들이 매일 군의 통제 하에 남하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국회는 26일 폐회하여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즉시 철수할 것을 결정하였다고 전하였다.[160] 정부는 그로부터 1주일이 지난 1951년 1월 3일 리지웨이 장군으로부터 서울 포기의 통고를 받았다.



서울을 떠나는 피난민들(1951. 1)

이와 같이 사태의 급변과 엄동설한 속에서도 흔히 1·4후퇴라고 부르는 정부와 시민 소개는 전쟁 초의 교훈을 살려 대체로 성공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즉, 정부는 12월 하순부터 피난 수송 및 구호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었다.[161]

당시 총무처장 비서 김덕보에 의하면, "12월 24일 총무처 직원과 정부 각 부처 중요문서와 물자를 부산으로 소개하는 책임을 맡았어요. 부산 천도는 1월 3일

끝났습니다. 1·4후퇴 때에는 12월 하순부터 단계적으로 천도를 서둘러 모든 공무원과 가족이 피난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에는 후퇴즉시 정부나 국회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120여만의 서울시민과 북한에서 남하한 50만, 그리고 남한 각처 50만 등 도합 220여만의 피난민을 소개 구호하는데 있어서는 사회부 및 교통부 관계자들의 노고가 많았다"고 하였다.[162]

따라서 서울 시민의 경우 12월 30일까지는 이미 84만 명이 철수했고, 1월 3일까지는 나머지 30만 명이 피난하여 1월 5일 중공군이 서울에 들어왔을 때 수도는 완전히 텅 빈 유령의 도시로 변해 있었다. 그리고 정부자체도 12월 하순부터 소개를 시작하여 1월 3일의 각료철수를 마지막으로 부산 도청에 천도를 마쳤고,[163] 1월 17일 사회부장관은 대구와 부산에 운집한 대규모 피난민을 각 지역별로 산개계획을 발표하여 피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164]

2. 피난민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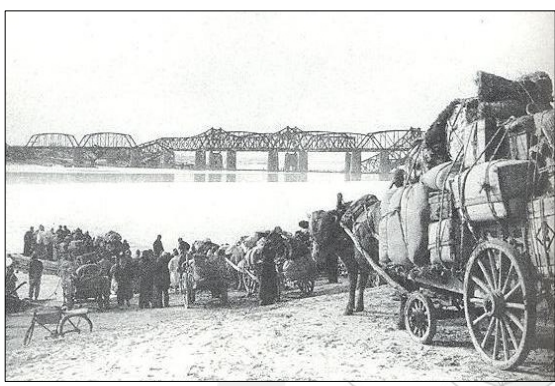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정부는 중공군 참전이후 만약을 위한 피난민 대책 특히 서울시민들이 무사히 빠져나갈 길을 확보하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서울시민들은 전세가 갑자기 반전되어 국군과 유엔군이 밀리게 되자 12월초부터 크게 동요하기 시작하였으며, 좌익 게릴라들의 활동도 눈에 띠게 증가되고 있었다.[165]

정부가 2차 피난민 철수계획을 수립한 것은 유엔군이 평양을 포기했을 무렵부터였다. 평양, 원산 요부에서 중공군을 저지하지 못하면 서울을 방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리하여 12월 중순경 정부는 동빙고, 마초에 부교를 설치하여 부녀자와 노약자들이 먼저 피난하도록 포고문을 게시하였고, 이어 12월 24일 서울 시민 소개령을 발표하였다. 당시 한강은 얼어있긴 하였지만 걸어가기엔 불충분한 상태였으므로 교량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였다. 동빙고와 마포에 부교가 가설되었으며 남쪽으로 가는 간선도로가 작전용으로 쓰이게 되어

일반인 출입 통제되자 시민들은 제2도를 따라 남하하도록 유도하였다.[166]

1950년 12월 말까지 대체로 약 40%의 시민들이 피난을 떠났으며 1951년 1월 3일까지 마지막으로 30여만 명의 서울 시민들이 한강을 넘었다. 대부분의 서울시민들이 피난을 떠나게 된 것은 전쟁초기 피난 가지 못하고 잔류하여 온갖 시달림을 받은 경험 때문이었다.[167]



서울시민들의 한강도강 모습

1·4후퇴 직후 서울시민들의 피난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시세일람』에 의하면, 1951년 12월 현재 서울 상주인구가 64만여 명이며 이 숫자는 이미 서울이 재수복되어 귀환한 수치임을 고려할 때 1·4후퇴 직후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피난을 떠났음을 알 수 있다.[168] 2차 피난 시기는 남침 직후의 초기상황과는 달리 적의 진격이 대체로 오산-제천-영월-삼척선에서 저지되었으므로 피난민들을 전국 그 남쪽 각지에 분산 수용할 수 있었다.

사회부에서는 국방부, 내무부와 협의하여 피난장소를 전국적으로 나누어 경상남북도, 전라남도의 일부, 전라북도의 전 지구, 충청남도, 제주도로 정하는 한편 각지 소개민은 그 이재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정장소로 소개 계획이 이루어졌다. 즉, 38선 이북의 피난민은 충청남도 및 전라남북도로 지정되었고, 서울과 경기도지구의 피난민은 2분하여 일반 시민은 전라남북도, 기타 피난민은 경상남북도로 지정되었다. 정부는 피난민의 수용계획을 약 2백만 명으로 가정하고 피난 도중의 급식과 보건을 계획하였다.[169]

사회부에서는 장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 피난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직 수원에 15여 명의 피난민들이 모여 있지만 이들을 수송할 예정이나 수송기관도 없는 상황이었다. 충북에서 보내온 차관 보고에 의하면 현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각지 피난민들이 식량부족, 구호시설미비로 극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170]

국회에서는 1월 27일부터 피난민 상황을 점검하여 열흘 전까지만 해도 백만 이상의 전재 피난민이 수원, 조치원 등지 노상에서 동사, 아사 직전의 비참한 상황하에 있었으나, 이미 약 50~60만 명은 충북, 충남 등지로 소개를 완료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들 중 약 15만 명 정도의 서울, 강원지구 피난민들이 전황이 다소 호전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귀환하고 있었다.[171] 그러므로 위원들은 우선 피난민의 북상 방지를 설득한 다음, 국방부, 보사부 등 관계당국에 긴급 방역대책과 기타 적절한 구호대책을 요구하고 또한 충북지역에 집결된 도민 120여만 명에 피난민 5,60여만 명에 대한 식량대책을 긴급 요구하였다.[172]



피난민들의 처참한 모습

전선 부대들은 각 지역의 피난민들로 인해 적지 않은 문제에 봉착하고 있었다. 이에 헌병들이 피난민들을 검문소, 교통통제소 등에 집결시켰고, 피난민수용소에서 한국경찰의 지원을 받아 피난민 심사 작업을 실시하였다.[173] 그러나 이주하기를 꺼려하는 수천의 피난민들은 산악지역에 산재한 촌락 및 농가에 잔류하고 있어 작전에 큰 장애가 되었다.

중공군 제3차 공세 직후 각 도별 피난민 수용인원이 최고에 달했을 때 현황은 1951년 3월 25일 1백 7십 2만 9,516명이었고, 귀향민을 포함하여 정부가 구호한 피난민의 숫자는 5월 16일 2백 5십 8만 6,265명으로 최고였다. 이 숫치는 덕적도 등 서해도서의 피난민을 포함한 수치이다.

1·4후퇴 직후 전세의 호전으로 일부 피난민들이 고향으로 귀환하였으나 여전히

피난민 총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었고, 1951년 초 설상가상 국민방위군의 해체로 또 다른 피난민 수십만 명이 늘어나고 있었다.[174] 다음의 표는 1951년도 1~2월 전국 피난민 숫치를 파악한 통계이다.[175]

<표 3-13> 1951년도 각도 피난민 상황

내용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경기	계	피난민수
피난민수	921500	515702	433500	1004343	1368586	530703	96570	19930	4890339명	3639471
수용인원	100000	305364	243500	312950	32537	194772	28767	19930	1237820명	1084642
수용소	37	55	32	159	66	117	24	-	490개	462
조사월일	2.4	2.5	1.15	1.29	2.7	2.9	2.4	1.20	-	2.3일 현재
피난민수	-	845830	533353	-	1383208	637866	162959	-	-	2628511
수용인원	-	-	-	-	-	-	-	-	-	922827
수용소	682	125	169	-	330	805	99	-	-	281
조사월일	3.20	5.19	5.5	-	3.6	5.5	3.20	-	-	1.27 현재

1·4후퇴 직후 전체 피난민의 규모는 4백만 8십 9만 339명으로 파악되었으며 가장 많은 피난민이 집결된 지역은 경북지역, 그 다음으로는 전남, 충북, 경남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마련한 피난민 수용소는 707개에 불과하여 200만 명 이상의 피난민이 정부의 수용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176]

한편 1·4후퇴 시기 북한 피난민은 공습을 피하여 상대적으로 안전한 남한으로 귀환하려는 자가 급증하게 되었고, 평양, 흥남, 원산 등에서처럼 군의 지원을 받은 경우 외에는 도보로 남하하거나 작은 선박으로 피난하는 경우가 많았다.[177]

1·4후퇴의 2차 피난 시기동안 북한 민간인이 대규모로 월남하게 된 동기는 기본적으로 북한 공산치하에서 탈출하려는 것이 가장 컸으며[178], 다음으로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있었던 유엔공군의 폭격과 공습을 피해 월남한 것을 들 수 있다.[179] 또한 2차 피난시기의 비극적 양상은 몇 가지 이유로 인해 1차 피난시기 보다도 오히려 참혹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중공군의 참전을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런 피난으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속출하였으며, 겨울 혹한 속의 피난이란 점에서 동사상자가 많이 발생하였다는 점, 대규모의 북한 피난민이 발생하여 피난민수가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 그리고 피난 이동의 거리가 멀었다는 점 등이 주요 참상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4 절 분석 및 교훈

1. 작전의 성격과 의미

중공군의 제2차 공세 이후 전선은 한동안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으나, 1950년 12월 마지막 날부터 다시 제3차 공세(신정 공세)를 개시하면서 격전이 전개되었다. 중공군은 12월 31일 17시경 단시간의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한 후에 약 200km에 걸친 전 전선에서 공세를 개시하였다. 먼저 서부전선에 배치된 중공군은 공격준비사격과 함께 임진강을 도하하여 공격하기 시작했다. 공격이 개시된 후 약 1시간이 지난 후부터는 이미 유엔군의 방어진지의 전방은 물론이고, 좌우 및 후방으로부터 중공군의 공격이 거세게 실시되었다.

이때 중공군은 문산 우측의 국군 제1사단과 동두천의 국군 제6사단 등 한국군 부대를 집중적으로 공격하였다. 국군은 계획된 대로 준비된 진지에서 최대한 적을 저지하였으나 중공군 주공부대의 집중적인 목표가 되어 병력의 열세를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51년 1월 1일 새벽, 중공군의 대부대가 국군 2개 사단의 후방지역으로 진출하면서부터 전세는 급격히 악화되어 방어진지의 일부가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날이 밝고 08시가 되어 항공지원이 시작되면서 겨우 적과 접촉을 단절하고 예비진지로 철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때 전투현장을 시찰하던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장군은 국군 제1, 제6사단의 정면에 형성된 돌파구가 예상외로 심각하고, 중동부 전선의 국군 제3군단도 북한군의 집중공격을 받아 포위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리지웨이는 미 제8군의 지휘권을 인수한지 6일 만인 1951년 1월 1일 정오, 전 부대에게 한강-양평-홍천 선으로 철수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어서 1월 3일

오후에는 미 제1군단과 미 제9군단에게 한강선에서 철수하여 평택-안성선으로 철수하도록 명령하였다.

미 제8군사령관의 서울 철수명령에 따라 한강 이북의 모든 부대들은 한강에 설치된 임시교량을 이용하여 철수하였으며, 1월 4일 13시경 엄호부대인 미 제25사단 27연대가 마지막으로 철수함으로써 한강 이북의 모든 부대가 철수를 완료하였다. 이어서 14시에 임시교량을 폭파시킨 지 얼마 안 된 15시경 중공군은 서울을 점령하였다. 한강선에서 철수한 유엔군은 수원과 오산을 지나 단숨에 37도선까지 후퇴하였으며, 1월 6일 평택-안성을 연하는 선에 방어선을 편성하였다.

한편 중부전선 국군 제8사단과 제3사단이 배치된 홍천-자은리 방향에서는 12월 중순경부터 이미 북한군 제10사단이 태백산맥의 험준한 지형을 따라 아군 후방으로 사전 침투하여 그 지역에서 활동 중이던 유격대와 합류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군은 정면에서 공격하는 2개 군단과 함께 전후방에서 동시 공격을 감행하여 국군 2개 사단을 돌파하였으며, 원주-평창-영월-단양 일대까지 진출하였다. 이로써 유엔군은 후방 병참선이 적에게 위협을 받는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리지웨이는 1월 3일부로 미 제10군단에 국군 제3군단(3개 사단)을 배속하여 미 제2, 7사단 등 5개 사단으로 양평-홍천 간의 48km에 달하는 방어선을 점령하도록 하였다. 1월 8일까지의 작전에서 아군은 평택-안성-제천-삼척선까지 철수하였다. 그러나 중공군 병사들은 계속된 동계전투로 추위와 피로에 대단히 지쳐있었고, 과도한 병참선의 신장과 유엔군의 공중공격으로 인해 보급품 또한 고갈된 상황이었다.

이때 펑더화이(彭德懷)는 중공군의 공세기간 중 유엔군의 주력을 섬멸하지 못한 것은 유엔군이 계획적으로 철수작전을 실시해서 중공군을 유인한 후 측 후방에서 상륙작전을 실시하여 반격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더 이상의 추격은 유엔군의 유인전술에 자칫 이용당하게 된다고 하고, 또 장차 춘계공세에 대비하기 위해서 추격을 정지하였다. 그리하여 1951년 1월 8일을 기해 제3차 공세를 종료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작전술 차원에서의 분석

미 제8군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은 제3차 공세 직전 유엔군이 작전한계점에 도달하기 이전 적절한 시기에 방어에서 자의에 의한 철수로 작전의 형태를 변경하되, 적에게 화력을 통한 최대한의 피해를 강요하도록 결정하였다. 그에게 부여된 최우선의 임무는 인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었다. 유엔군 지휘부가 수행한 작전적 차원에서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80]

첫째, 미 제8군사령관은 서부전선의 유엔군에게 철수명령을 하달하면서 미 제1, 9군단이 상호협조 하에 철수하되 병력의 손실이 없도록 강조하였다. 즉 부상자와 전사자는 반드시 후송시키며, 사용 가능한 장비를 유기하지 말며, 적에게 최대한 피해를 강요하면서 철수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미 제1, 9군단의 부대는 중공군이 전과확대 및 추격으로 전환하여 철수하는 부대를 공격하였으나 성공적으로 접적을 단절하고 순조롭게 철수할 수 있었다.

둘째, 유엔군 지휘부는 중동부전선이 위기에 처하자 홍남에서 철수한 미 제10군단을 조기에 투입하였다. 즉 한국군 제2, 제5, 제8사단이 담당한 춘천 정면이 돌파됨으로써 서부전선에 배치된 유엔군 주력의 우측방이 위협을 받게 되자, 1월 2일 미 제10군단의 투입을 결정하고 군단간의 전투지경선과 예하 부대의 배속을 일부 조정하여 전투편성을 새로이 구성하였다.

셋째, 유엔군은 철수작전 시 아군의 장비와 물자를 수송하거나 적이 사용할 수 없도록 거부대책을 적절히 시행하였다. 리지웨이 장군은 철수 시 북쪽에 위치한 보급시설들을 철수시켰다. 김포비행장의 건물, 항공유, 네이팜탄 등을 파괴하였으며, 인천과 김포간의 송유시설을 파괴하여 적의 사용을 거부하였다.

한편 조·중연합사령관 펑더화이는 유엔군과의 2차에 걸친 작전에서 미군은 병참선이 차단되면 쉽게 붕괴된다는 약점을 지닌 반면에 중공군은 최소의 보급지원 하에서도 전투할 수 있고, 도보에 의한 산악 주파 능력이 뛰어나다는 장점을 중요시하였다. 중공군 지도부가 수행한 작전적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육군본부 군사편찬연구소

첫째, 중공군의 기습작전과 유엔군 후방 종심으로의 기동이었다. 유엔군 후방 종심으로의 기동을 위해서는 이미 유엔군이 견고하게 방어진지를 구축한 상태였으므로 우선 우세한 병력과 화력을 집중해서 돌파구를 개척한 후, 유엔군에 대한 분할포위를 진행함과 동시에 종심을 향해 진격을 감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전투력을 편성하였다. 또한 동부전선의 배치가 취약하고 방어간격이 비교적 넓으며 한국군만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감안해서 동부전선을 압박함과 동시에 서부 미군의 우측방과 후방을 위협하여 교란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둘째, 중공군 지도부는 중공군의 병참선이 과도히 신장되어 작전한계점에 이르지 않도록 작전을 구상하였다. 펑더화이는 제3차 공세 시 유엔군이 그토록 빨리 철수한 것이 중공군의 공격력 한계에도 기인하지만, 유엔군의 유인작전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는 유엔군의 유인에 말려들어 너무 깊숙이, 너무 멀리 들어가지 않도록 하였으며, 38도선을 돌파 후 상황의 추세에 따라 추격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였다.

셋째, 중공군은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전투근무지원의 문제점을 최대한 해소하고자 하였다. 중공군은 부족한 보급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경의선(정주-맹중리), 만포선(희천-개천) 선로를 보수하고 도로와 교량의 보수를 위한 공병을 증강하였다. 북한지역에서 조직적인 현지조달을 실시하여 3만 톤의 식량을 확보하였으며, 이 외에도 후방의 보급수송과 후방기구를 강화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 전술적 차원에서의 분석

리지웨이 장군은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장군으로부터 인적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았다. 따라서 그는 우선 전력을 보존하고 정비한 다음 적절한 시기에 공세로 이전한다는 복안을 갖게 되었다. 기간 중 유엔군의 전술적 차원에서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81]

첫째, 리지웨이 장군은 지휘통솔력을 회복하는 것을 무엇보다 우선시했다. 당시 유엔군은 중공군 제2차 공세시기까지 지휘통제 상의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계속적인 후퇴와 그에 따른 패배의식이었으며, 예하 지휘관들의 통솔력에도 많은 결함이 있었다. 특히 병력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패배의식이 만연한 것은 지휘관의 전의가 부족한데서 오는 것이었다. 따라서 미 제8군에게 연락을 유지하도록 하고, 무분별한 철수로 인해 측방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부단한 전선시찰과 솔선수범을 통해 부대원이 전의를 회복하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강조하였다. 이로써 중공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종의 경외심, 신비감 등을 제거하고 심리적인 작전거리를 증대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둘째, 적에 대한 정확한 정보 평가였다. 유엔군은 중공군의 공세지속능력을 판단하고 이를 작전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이용하였다. 리지웨이는 중공군의 공세능력이 1주일~10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공세기간 동안의 작전거리도 40~50km를 넘지 않는다는 것을 간파하였다. 중공군 1개 사단의 일일 보급량은 미군 사단이 600~800톤이었음에 비해 불과 50톤 이내였기 때문에 미군에 비교해 볼 때 1/4의 보급량으로 싸울 수밖에 없었다. 각개 병사의 경우 미군은 60파운드였으나 중공군은 8~10파운드로서 1/6에 불과하였다. 탄약은 화포의 경우 1문 당 10~20발, 경기관총 정당 300발, 중기관총 1,000발, 자동소총 100~200발, 수류탄은 개인당 4발씩 휴대했다. 따라서 중공군의 실제 공세기간은 5~7일 이상 지속하기가 어려웠다.

셋째, 축차 방어작전의 전개였다. 38도선 이후의 축차진지는 서울 남쪽 55km의 37도선 부근이 적당하다는 판단이었다. 37도선으로 물러나면 한반도의 지형은 동서의 폭이 좁아지고, 또한 중공군은 그들 자체의 제한사항 때문에 전진을 멈추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축차 방어작전 개념은 지연전과 유사하지만 작전목적 측면에서 공간을 양보하고 시간을 획득하기보다는 전투력 보전에 그 중점을 둔 것이었다. 이때의 전략지침이 아군의 인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었고, 전장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전투력의 보전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적의 진출을 저지하여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계속적이고 연속적인 방어작전의 반복을 통해 중공군과 북한군의 출혈을 강요하고 궁극적으로는 공세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었다.

넷째, 효율적인 화력운용이었다. 리지웨이는 보유분의 화력을 최대한 사용하기 전까지는 화력지원 요청을 지양하도록 강조했다. 그는 "나는 훈련에서는 물론, 유럽 전선에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화포가 아직 반이나 남았는데도 지원을 요청하는 지휘관을 실제로 보았다. 나는 부대가 가지고 있는 소총, 전차포, 고사포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사용하여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 지원요청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런 한편, 화력밀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낀 리지웨이는 즉시 야전포병 10개 대대를 급파시켜 줄 것을 국방성에 요청하였다.

다섯째, 보급 통제를 엄격히 유지했다는 점이다. 리지웨이는 그동안 유엔군이 많은 무기와 보급품을 유기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 실제로 그 손실양은 제2차 세계대전시의 미군에 견주어 볼 때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모든 군수품이 1만 4,000km나 떨어진 먼 곳에서 수송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무기나 보급품 등을 분실, 파기시키거나 유기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계급 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집필 : 양영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주(註)

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1권, (서울 : 국방부, 1977), 395쪽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 편)』(서울 : 삼화, 1985), 146~148쪽.

2) 6·25당시에는 적성 면사무소가 위치한 구읍리가 적성면의 중심지였으나, 전쟁기간 중 구읍리는 폐허화되고 전후에 다시 복구되면서 그 남서쪽 1㎞ 지점의 마지리가 적성면의 중심지가 되었다.

3) 한국정신문화연구원,『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제25권 (서울 : 삼화, 1991), 526쪽.

4) 강원도,『강원도사』(역사편)(춘천 : 강원일보사, 1995), 113쪽.

5) 당시는 화천-춘천-홍천간 도로 17번, 양구-춘천간 도로 29번, 인제-홍천-서울간 도로 24번, 그리고 인제-현리-홍천간 지방도로는 24E의 도로번호가 사용되었다.

6)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강원도 화천군·춘천시 군사유적 : 지표조사 보고서』『유적조사보고』제8집(서울 : 육사, 2001), 8쪽.

7) 강원도,『강원도사』(역사편), 104~112쪽.

8) 軍事科學院軍事歷史硏究部,『抗美援朝戰爭史』第2卷(北京 : 軍事科學出版社, 2000),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군사편찬연구소(박동구) 역,『중국군의 한국전쟁사』2 (서울 : 정문사, 2005), 270~273쪽.

9) 위의 책, 272쪽.

10) 위의 책, 271~272쪽. 현지조달을 위해 각급 정치기관의 간부들을 차출하여 식량조달부대를 조직하였다.

11) Roy E. Appleman, *Disaster in Korea : The Chinese Confront MacArthur*(Texas : A&M Univ. Press, 1989), p.156.

12) 군사편찬연구소(역),『중국군의 한국전쟁사』2, 250쪽.

13) 위의 책, 273쪽.

14) 위의 책, 275쪽.

15) 위의 책, 266쪽.

16) 위의 책, 268쪽 ;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소 편저, 전략문제연구소(역),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 항미원조전사』(서울 : 세경사, 1991), 82~84쪽.

17) 전략문제연구소(역),『중공군의 한국전쟁사』, 86쪽.

18) 군사편찬연구소(역),『중국군의 한국전쟁사』2, 268쪽.

19) 육군본부(역),『밀물과 썰물』(서울 : 육군본부, 1992), 193쪽.

20) FEC GHQ, *The History of North Korean Army*, 1952(Unpublished), p.69, 군사편찬연구소 자료 HC00320.

21) 군사편찬연구소(역),『중국군의 한국전쟁사』2, 267쪽.

22) 위의 책, 562~563쪽.

23) 위의 책, 562~563쪽.

24) 위의 책, 563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5) 소련군총참모부(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역),『소련군 총참모부 전투일지 : 1950년 6월 25일 ~1951년 12월 31일』(미발간), 240쪽.
26) 위와 같음.
27)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5권(서울 : 서울신문사, 1972), 388쪽.
28) 국방군사연구소,『한국전쟁』(중)(서울 : 신오성, 1996), 252~253쪽.
29) 육군본부,「작전명령 제251호」(1950. 12. 10).
30) 보병 제8사단사령부, 『오뚜기 약사』(서울 : 인쇄창, 1969). 209쪽.
31) 국방군사연구소,『한국전쟁』(중), 255쪽.
32) 위의 책, 257쪽.
33) HQS, EUSAK, *Periodic Information Report, No. 142*, 1 December 1950 ; Billy C. Mossman, *Ebb and Flow*(Washington, D.C : USGPO, 1990), p.149.
34) 군사편찬연구소(역),『중국군의 한국전쟁사』2, 13~14쪽.
35) FEC, *The History of North Korean Army*, p.43.
36) 국방군사연구소,『한국전쟁』(중), 289~290쪽.
37) 위의 책, 290쪽.
38) 정일권,『정일권 회고록』(서울 : 광명출판사, 1996), 339쪽.
39) 육군본부(역),『밀물과 썰물』, 192쪽.
40) HQS, EUSAK, *Command Report No.1(1-31 December 1950)*, 10 April 1951.
41) Billy C. Mossman, *Ebb and Flow*, pp.180~182.
42) *Ibid.*, *Ebb and Flow*, p.182.
43)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5권, 388쪽.
44) 군사편찬연구소(역),『중국군의 한국전쟁사』제2권, 275쪽.
45) 위의 책, 273쪽.
46)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5권, 386쪽.
47) 백선엽,『군과 나』(서울 : 대륙출판사, 1989), 146쪽.
48)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5권, 389쪽.
49) 군사편찬연구소(역),『중국군의 한국전쟁사』2, 275쪽.
50)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5권, 390쪽.
51) 위의 책, 390~391쪽.
52) 전략문제연구소(역),『중국군의 한국전쟁사』, 87쪽.
53)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5권, 390쪽.
54) GHQ UN, *G-3 Operations Report, No.191*(1951.1.1), 군사편찬연구소, 자료목록 No. 151.
55) 육군본부(역),『밀물과 썰물』, 199쪽.
56)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5권, 391~392쪽.
57) 국군 제1사단 제15연대「작전명령 제38호」(1951. 1. 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58)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5권, 393쪽.
59) 국방군사연구소,『한국전쟁』(중), 307~308쪽.
60)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5권, 393~394쪽.
61) 백선엽, 『군과 나』, 149쪽.
62) GHQ UN, *G-3 Operations Report, No.194*(1951.1.4).
63)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5권, 395쪽.
64) 위의 책, 372쪽.
65) 위의 책, 373쪽.
66) 군사편찬연구소(역),『중국군의 한국전쟁사』2, 562쪽.
67) 위의 책 ;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5권, 371쪽.
68)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5권, 379~380쪽.
69) 군사편찬연구소(역),『중국군의 한국전쟁사』제2권, 쪽.
70)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5권, 381쪽.
71) 군사편찬연구소(역),『중국군의 한국전쟁사』제2권, 276쪽.
72) 육군본부(역),『밀물과 썰물』, 201쪽.
73) 국방군사연구소,『한국전쟁』(중), 308쪽.
74)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5권, 382~383쪽.
75) GHQ UN, G-3 *Operations Report, No.192*(1951.1.2).
76)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5권, 383~384쪽.
77) 위의 책, 385쪽.
78) 군사편찬연구소(역),『중국군의 한국전쟁사』2, 283~284쪽.
79) 국방군사연구소,『한국전쟁』(중), 351쪽.
80) 위의 책.
81) 군사편찬연구소(역),『중국군의 한국전쟁사』2, 277~278쪽.
82) 위의 책 ; 전략문제연구소(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90쪽.
83) 군사편찬연구소(역),『중국군의 한국전쟁사』2, 277쪽.
84) 육군본부(역),『밀물과 썰물』, 205쪽.
85) 국방군사연구소,『한국전쟁』(중), 312쪽.
86) 위의 책.
87) 위의 책, 313쪽.
88) 위의 책, 315쪽.
89) 위와 같음.
90) 육군본부(역),『밀물과 썰물』, 220쪽.
91) 정일권,『정일권 회고록』, 342쪽.
92) 김재관(역),『리지웨이의 한국전쟁』, 114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93) 국방군사연구소,『한국전쟁』(중), 318쪽.
94) GHQ UN, *G-3 Operations Report, No.195*(1951.1.5).
95) GHQ UN, *G-3 Operations Report, No.196*(1951.1.6).
96) 전략문제연구소(역),『중공군의 한국전쟁사』, 92쪽.
97)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5권, 355쪽.
98) 국군 제2군단「작전명령 제100호」(1950. 12. 15).
99) 국군 제6사단「작전명령 제61호」(1950. 12. 15).
100) FEC, *The History of North Korean Army*, pp.43~44.
101) *Ibid.*, p.55.
102)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5권, 354쪽.
103) 제2방어선인 B방어선은 서쪽 고양에서 시작하여 동으로 의정부, 가평, 자은리를 경유 동해안의 동덕리까지 연결되는 선이다.
104)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5권, 357쪽.
105) 국군 제2군단「작전명령 제102호」(1950.12.20.).
106) 국군 제3사단「작전명령 제63호」(1950.12.26.).
107) FEC, *The History of North Korean Army*, p.55.
108) 육군본부,『전투상보』제21권, 홍천지구전투 참조.
109) FEC, *The History of North Korean Army*, p.46.
110)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5권, 367~368쪽.
111) 위의 책, 368쪽.
112) 국군 제5사단사령부,『제5사단 부대역사』, 111쪽.
113) FEC, *The History of North Korean Army*, pp.44~45.
114) GHQ *UN, G-3 Operations Report, No.191*(1951.1.1).
115) 제3방어선인 C선은 영등포에서 한강 남안을 따라 양평-횡성-강릉 선이다.
116) 육군본부,「작전명령 제256호」(훈령 제2호 부록).
117) 육군본부,『전투상보』제21권, 홍천지구전투 참조.
118) 육군본부「작전명령 제257호」(1950. 1. 2.).
119)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5권, 342쪽.
120) FEC, *The History of North Korean Army*, p.44.
121) *Ibid.*, p.44.
122)「제28연대장 이창정 대령 증언」, 군사편찬연구소 소장,『증언록』.
123) 군사편찬연구소(역),『중국군의 한국전쟁사』제2권, 562쪽.
124) 국군 제1군단「작전명령 제127호」(1950. 12. 21).
125) 국군 제9사단「작전명령 제3호」(1950.12.21).
126)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5권, 349~350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27) 앞의 책, 350쪽.
128) FEC, *The History of North Korean Army*, p.44.
129) 제9사단,「작전지시 제4호」(1951.1.1).
130)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5권, 351쪽.
131) 육군본부,「작전명령 제257호」(1950.1.3.)
132) 육군본부,『전투상보』(제26연대 1951.1.3.일자),『전투상보』(제1기갑연대 1950. 12.30일자).
133)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5권, 422쪽.
134) 군사편찬연구소(역),『중국군의 한국전쟁사』제2권, 563쪽.
135) FEC, *The History of North Korean Army*, p.48.
136)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5권, 423쪽.
137) GHQ UN, *G-3 Operations Report, No.193*(1951.1.3).
138)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5권, 424쪽.
139) FEC, *The History of North Korean Army*, p.43 ;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5권, 425쪽.
140) GHQ UN, *G-3 Operations Report, No.195*(1951.1.5.) ;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5권, 426쪽 재인용.
141) GHQ UN, *G-3 Operations Report, No.195*(1951.1.5).
142) *Ibid.*
143)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5권, 427쪽.
144) FEC, *The History of North Korean Army*, p.71.
145) GHQ UN, *G-3 Operations Report, No.197*(1951.1.7).
146) FEC, *The History of North Korean Army*, p.71 ; 군사편찬연구소(역),『라주바예프의 6·25 전쟁 보고서』제1권, 396쪽.
147) GHQ UN, *G-3 Operations Report, No.198*(1951.1.8).
148)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5권, 429쪽.
149) 위의 책, 430쪽 재인용.
150) 위와 같음.
151) FEC, *The History of North Korean Army*, p.55.
152) GHQ UN, *G-3 Operations Report, No.201*(1951.1.11).
153)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5권, 432쪽.
154) GHQ UN, *G-3 Operations Report, No.202*(1951.1.12).
155) FEC, *The History of North Korean Army*, p.76.
156)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5권, 433쪽.
157) 위의 책, 313~314 ; *CIA DAILY REPORT KOREAN BULLETIN*(1950.12.23일자), 국방군사연구소,『한국전쟁 자료총서』제17집(서울 : 신오성, 1994).
158) 중앙일보사,『민족의 증언』제3권(서울 : 중앙일보사, 1984), 321쪽.
159) 위의 책, 313~314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60) *CIA DAILY REPORT KOREAN BULLETIN*(1950.2.26일자).
161) 부산일보사, 『임시수도 천일』(하), 316쪽.
162) 「총무처장 비서 김덕보 증언」, 위의 책, 315쪽.
163) 위의 책, 313~314쪽.
164) *CIA DAILY REPORT KOREAN BULLETIN*(1951.1.17일자).
165) *CIA DAILY REPORT KOREAN BULLETIN*(1950.12.8일자).
166) 중앙일보사, 『민족의 증언』 제3권, 260쪽.
167) 중앙일보사, 『민족의 증언』 제3권, 316쪽. 허장장관에 의하면, 12월 20일경 이미 가평 방면의 피난민이 서울에 밀려들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168) 서울특별시, 『시세일람』(서울 : 서울시, 1957), 8쪽.
169) 「조선일보」(1950년 12월 18일자).
170) 「특별위원회의 활동」, 대한민국 국회, 『국회사』, 488쪽.
171) *CIA DAILY REPORT KOREAN BULLETIN*(1951.3.27.일자).
172) *CIA DAILY REPORT KOREAN BULLETIN*(1951.2.10일자).
173) 「피난민 소개와 양곡에 관한 긴급질문」(1951.1.20), 『국회사』, 498~502쪽.
174)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지원사』(서울 : 서울인쇄, 1995), 409쪽.
175) 사회부, 「피난민구호상황주보」 제4호(1951.1.28~2.3).
176) 대한민국 국회, 『국회사』, 555쪽.
177) 부산일보사, 『임시수도 천일』(하), 225쪽.
178) *CIA DAILY REPORT KOREAN BULLETIN*(1950.12.8일자), (1951.12.12일자).
179) 이동춘, 『서울시민과 한국전쟁 : 잔류, 도강, 피난』, 53쪽.
180) 전종순, 「중공군 정월공세 시 리지웨이와 펑더화이의 작전지도」, 군사편찬연구소, 『군사』 제45호, 97~99쪽 ;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중), 314~315쪽.
181) 위의 논문, 89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4장 유엔군 재반격과 중공군의 제4차 공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1절	개요
제2절	유엔군의 재반격
제3절	중공군 2월 공세와 유엔군의 반격
제4절	분석 및 교훈

제 1 절 개 요

1. 전선 상황 요약

국군과 유엔군은 중공군의 제3차 공세로 서울에서 철수한 후 1951년 1월 7일 평택-삼척을 연하는 37도선에서 전열을 재정비하였다. 37도선은 유엔군의 계획된 방어선이었지만 상황에 따라 쉽게 포기할 수도 있는 가변적인 방어선이었다. 포기와 사수의 결정은 전적으로 공산군의 공세능력과 유엔군사령관의 상황판단에 따라 정해질 사안이었다.

다행히도 1월 7일 이후 서부전선에서는 예상과 달리 너무나도 평온한 상황이 도래하였다. 유엔군의 꼬리를 물고 공세를 감행할 것으로 판단했던 중공군의 모습은 전선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 당시 중공군은 서울을 점령한 후 전력이 소진돼 평택까지 진출할 능력도, 더 이상 밀어붙일 힘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중공군은 국군과 유엔군이 쉽게 방어선을 포기하고 일찌감치 주력을 남쪽으로 후퇴시킨 것을 두고서 자신들을 유인하기 위한 작전이라고 판단했다. 즉 그들은 유엔군이 자신들을 깊숙이 유인한 후 배후에서 또다시 상륙작전을 실시하려는 기도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지원군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는 1월 8일을 기해 중동부전선으로 침투 중이던 북한군을 제외한 전군에 추격을 정지하도록 명령하였다.

중공군이 처한 상황과 의도를 알 수 없었던 국군과 유엔군은 갑자기 전선에서 사라진 중공군으로 인해 초조감이 더욱 커지고 장병들의 사기도 급격히 악화되었다. 여기에 중동부 전선의 원주 돌파구가 계속 확대되면서 국군과 유엔군 내에는 패배의식이 만연해져 갔다.

평온함 속에서의 긴장감이 감돌던 서부전선과는 달리 1월 중 중동부전선의 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황은 매우 숨 가쁘게 전개되었다. 공산군은 서울을 점령한 후 주공을 중동부지역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서부와 중서부전선의 미군에 비해 전력이 약하고 험준한 지형으로 인해 화력지원이 어려웠던 중동부전선의 국군을 무력화시켜 그곳에 대돌파구를 형성한다는 계산 하에서 취해진 행동이었다. 이 공격에는 북한군 2개 군단이 동원되었으며, 중동부전선의 요충지인 원주가 그들의 주요 공격 목표였다. 공산군은 원주를 점령함으로써 중앙선을 통제하고 나아가 대전 또는 대구로의 진출에 용이한 접근로를 확보하려고 하였다.

원주 방어를 위해 투입된 미 제2사단이 북한군 제5군단의 공격에 맞서 1주일간 치열한 공방전 끝에 1월 12일 마침내 북한군을 격퇴하고 원주를 탈환함으로써 중동부전선의 위기는 일단 수습되었다.

1월 12일을 전후해 '원주의 위기'가 수습되면서 중동부전선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되고 서부와 중서부 전선에서 공산군의 남하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자, 미 제8군사령관은 전선에서 사라진 중공군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 제8군사령관은 중공군이 인해전술로 공세를 취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일정한 지역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우세한 화력과 기동력을 앞세워 중공군을 타격해 그들의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미 제8군사령관은 위력수색작전을 통해 적정을 확인한 후 축차적인 작전통제선을 설정하여 반격을 감행한다는 작전계획을 세웠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8군사령관은 1951년 1월 15일을 기해 미 제1군단과 제9군단에 위력수색작전을 실시하도록 명령했다. 위력수색작전의 결과로 유엔군은 수원-여주 이남지역에는 중공군의 소규모 부대만이 배치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를 토대로 국군과 유엔군은 1월 25일을 기해 일제히 반격작전을 감행하여 작전의 주도권을 만회하였으며, 2월 초순에 김포-안양-양수리-지평리-횡성-하진부리를 연하는 선까지 진출했다.

국군과 유엔군으로부터 강력한 반격을 받은 중공군은 서부전선의 위기를 돌파하고자 중동부전선에 대해 집중 공격을 감행했다. 중공군은 2월 11일 밤에 횡성-홍천간의 삼마치고개와 지평리 일대에 9개 사단을 집중 투입하여 일제히 공격을

개시했다. 이른바 중공군의 제4차 공세(일명 '2월 공세')로 불리는 이 공격으로 인해 전술적 요충지인 지평리와 횡성-원주 지구에서는 피아간에 일대 격전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 때 미 제2사단 제23연대는 지평리에 전면방어진지를 편성하여 끝까지 이를 사수한 후 중공군을 격퇴시켰으며, 미 제10군단은 원주-제천에 형성된 돌파구로 남하 중인 중공군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결국 중공군의 제4차 공세는 실패로 끝났다. 중공군의 제4차 공세 기간 중 중동부전선을 담당하던 국군의 피해가 상당히 컸지만, 한편으로 유엔군은 중공군의 공세작전이 보급문제로 인해 통상 5~6일밖에 지속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중공군의 제4차 공세를 격퇴한 국군과 유엔군은 재반격작전으로 전환해 중동부지역으로 침투한 공산군을 격멸하기 위한 '킬러작전(Operation Killer)'을 전개했다. 이 작전의 결과로 국군과 유엔군은 1951년 3월 초에 한강 남안-횡성-강릉을 잇는 선까지 진출하였다. 이후 국군과 유엔군은 서울의 재탈환과 38도선 진출을 목적으로 한 '리퍼작전(Operation Ripper)'을 3월 말까지 전개해 문산-동두천-춘천-현리-양양을 잇는 선까지 진출하는 데 성공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작전지역의 특징

1) 서부지역

서부 작전지역은 경부 국도인 서울-수원-오산-평택을 주 축선으로 한 지역이다. 작전지역의 특징을 주요 도로망, 도시 및 마을, 고지군 및 하천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요 도로망으로서 1번 국도와 경부 철도가 남북으로 잘 발달되어 있었고, 이를 중심으로 주요 전투가 진행되었다. 그 외에 동쪽으로 용인에서 안성에 이르는 도로와 서쪽으로 아산-예산-청양-군산, 아산-유구-정산-부여, 천안-행정리-

공주에 이르는 도로가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어 차량 및 전차 기동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도로 이외의 지역은 고지 또는 논으로 형성되어 있어 전차 및 차량 기동이 어려웠다.

주요 도시 및 마을은 1번 국도를 따라 북쪽으로부터 문산, 서울, 수원, 오산, 평택, 천안이 위치해 있었으며, 이곳들은 당시 교통의 요충지였다. 즉 평택은 서쪽으로 아산만과 연결되어 있고 동쪽으로는 안성과 연결되는 곳이었으며, 안성은 오산, 용인, 죽산, 진천으로 갈 수 있는 곳이었다.

그리고 주요 고지로는 서울의 관문에 위치한 관악산, 수리산, 모락산, 광교산 등이 대표적이었다. 그 외의 지역은 대부분 100~200m의 야산으로 형성되어 있어 기계화부대의 기동이 비교적 용이하였다.

주요 하천으로는 북쪽으로부터 임진강, 한강, 오산천, 안성천 등이 있었으나 한강과 임진강을 제외하면 도섭이 비교적 용이하였다. 작전기간이 겨울일 때에는 결빙으로 인해 방자(防者)보다는 공자(攻者)에게 유리하였지만, 해빙기에는 유속이 빨라져 방자에게 유리하였다.

2) 중서부지역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서부지역은 의정부, 포천, 남양주, 광주, 이천, 여주 등 주요 거점도시를 포함하고 있으며, 지역 내의 지형은 고지대의 경우 표고 400~800m의 고지군과 계곡이 어우러져 기복이 심하고 삼림이 울창한 반면에 논과 밭이 산재해 있는 저지대는 표고 100~200m의 구릉지대로 기복이 완만하며 도로망이 발달되어 있다.

중서부지역은 서울-원산을 연결하는 3번 도로, 포천-의정부를 연결하는 43번 도로, 그리고 일동-서파-퇴계원-서울을 연결하는 47번 도로가 남북으로 잘 발달되어 있다. 특히, 이들 도로 사이에는 종적으로 발달된 천보산맥과 광주산맥이 형성되어 있어 인접부대와의 횡적인 연계가 불리한 반면 기계화부대의 운용에 유리한 지리적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주요 하천으로는 한강과 남한강이 서쪽으로 흐르고 있어 방어에 유리한 지형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3) 중동부지역

차령산맥과 소백산맥 사이에 위치한 작전지역은 춘천, 홍천, 원주, 충주, 제천 등의 주요 거점도시를 포함하고 있으며, 남북으로 통하는 5번 도로 축선을 따라 좁은 기동공간과 충청북도와 경상북도 북부지방에 걸친 약 70㎞의 긴 종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차령산맥이 단절되는 북저남고(北低南高) 형상으로 대부분이 고산지대이며, 기복이 심하고 삼림이 울창하다.

지형은 태백산맥에서 분기된 소백산맥이 남서쪽으로 뻗어내려 평균 600~1,000m 내외의 준봉이 추풍령－지리산으로 이어져 영남과 호남의 분수령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중동부지역은 험준한 산악과 불규칙한 지형, 그리고 남쪽과 서쪽으로 흐르는 북한강과 소양강 등 천연장애물로 이루어져 방어에 유리한 지형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지역내 도로망은 화천-춘천-홍천을 잇는 5번 도로와 양구-춘천-가평간 46번 도로, 인제-홍천-서울을 연하는 44번 도로와 인제-현리-홍천간의 451번 도로가 있었다. 그러나 노면상태가 불량하고 동서로 횡단하는 도로가 발달되어 있지 않아 횡적 연락 및 작전지원에 불리하였다. 또한 지역내의 교통망으로는 중앙선이 양평-원주-제천－단양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 동해안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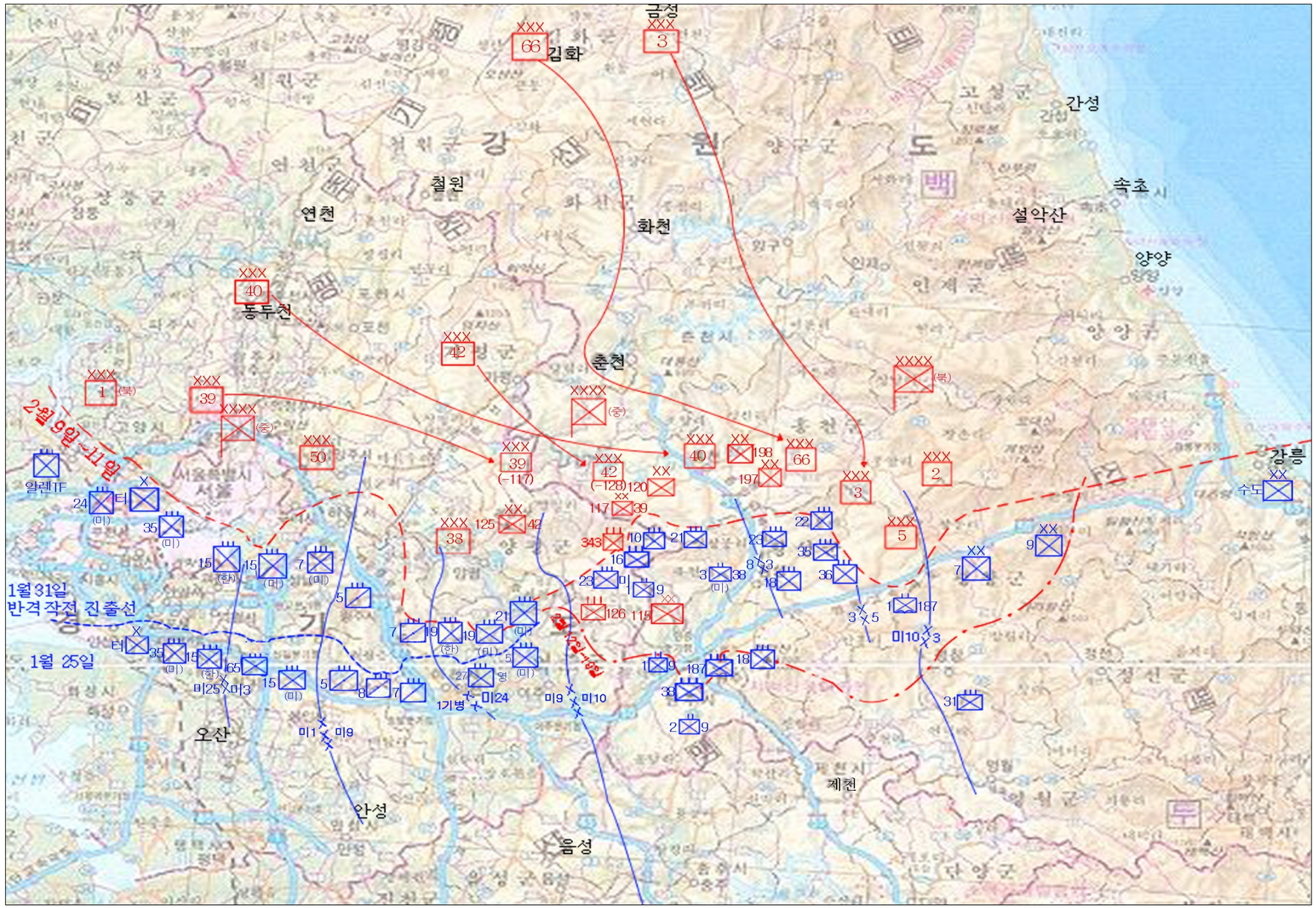
동해안지역은 양양-주문진-강릉－옥계－삼척－울진－영덕 등 해안 도시로 이어지는 해안선 일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이 험준한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해안선 서쪽 20~30㎞에서 동해안과 평행선을 이루며 남북으로 뻗은 태백산맥은 오대산(△1,563), 석병산(△1,055), 두타산(△1,353), 태백산(△1,546), 일월산(△1,219), 백암산(△1,004) 등의 준령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동서간의 교통을 크게 제한한다. 험준한 산악으로 이루어진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게릴라와 같은 소규모 병력의 은밀한 침투는 유리하나 대부대 기동은 불리하며, 피아간에 관측 및 사계(射界)가 크게 제한되었다.

지역내의 주요 작전로(作戰路)는 동해안을 따라 남북으로 뻗어있는 7번 도로가 종적으로 주축을 이루고, 횡적으로 양양-인제간 도로, 삼척-영월간 도로, 울진-영주간 도로, 영덕-안동간 도로가 동서를 연결한다. 이 도로들은 노폭이 좁고 굴곡이 심한데다가 지세마저 험준하여 기갑부대의 기동을 크게 제한하였다.

동해안지역은 태백산맥으로 인하여 내륙과 단절된 별개의 전선을 형성하였으며, 지역 내에는 해안선과 연한 동해안 도로가 유일한 기동로였다. 그러나 이 도로는 태백산맥에서 동해로 향한 크고 작은 하천에 의해 잘리고 교량이 많아 군사적으로 큰 취약점을 안고 있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4-1> 유엔군의 재반격과 중공군 제4차 공세



제 2 절 유엔군의 재반격

1. 개 요

유엔군의 재반격작전은 중공군의 제3차 공세로 평택-원주-단양-정선-삼척을 연하는 37도선까지 철수한 국군과 유엔군이 1951년 1월 15일부터 반격작전에 돌입해 중공군의 제4차 공세(일명 '2월 공세')가 시작되기 전인 2월 11일 김포-양수리-횡성-하진부리 선까지 진출한 작전이다.

중공군은 제3차 공세를 전개하여 중동부전선에 원주-단양-정선을 잇는 대규모 돌파구를 형성하였다. 수세에 몰리고 있던 유엔군은 1월 20일을 전후하여 중공군이 제3차 공세에 이어 제4차 공세를 전개할 것이라는 적정 판단을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군과 유엔군의 상황은 매우 비관적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당시 국군과 유엔군 내에서는 '중공군이 공격해 오면 철수할 수밖에 없다'는 패배의식이 만연해 있었다. 미 제8군사령관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장군은 무엇보다도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고서 예하 지휘관들에게 직접 전선을 시찰하고 장병들을 격려하도록 지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월 12일을 전후해 '원주 돌출부의 위기'가 수습되면서 전선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되었다. 제8군사령관은 중공군이 인해전술로 공세를 취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일정한 지역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우세한 화력과 기동력을 앞세워 중공군을 타격해 그들의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위력수색작전을 통해 적정을 확인한 후 축차적인 작전통제선을 설정하여 반격을 감행한다는 작전개념을 세웠다.

이 무렵 중공군과 북한군은 수원-원주-강릉을 연결하는 선에 전투부대를 전개하고 있었다. 중공군과 북한군은 제3차 공세를 통해 국군과 유엔군을 37도선까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철수하도록 강요했지만 주력을 무력화시키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이로써 그들은 더 이상의 남진을 시도하지 않았다. 당시 지원군사령관 펑더화이는 국군과 유엔군이 쉽게 방어선을 포기하고 일찌감치 주력을 남쪽으로 후퇴시킨 것이 자신들을 유인하기 위한 작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그는 1월 8일 중동부전선으로 침투 중이던 북한군을 제외한 전군에 추격정지명령을 내렸다.

서부와 중서부 전선에서 공산군의 남하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자, 미 제8군사령관은 1951년 1월 15일을 기해 미 제1군단과 제9군단에 위력수색작전을 실시하도록 명령했다. 1월 15일 미 제1군단의 미 제25사단이 연대전투단을 편성하여 위력수색작전을 개시해 수원까지 진출하였으며, 미 제9군단의 미 제1기병사단도 1월 22일 수원-여주 선까지 진출하는 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유엔군은 수원-여주 이남지역에는 중공군의 소규모 부대만이 배치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위력수색작전의 결과를 토대로 국군과 유엔군은 1월 25일을 기해 일제히 반격작전을 감행하여 작전의 주도권을 만회하였다. 국군과 유엔군은 2월 초순에 김포-안양-양수리-지평리-횡성-하진부리를 연하는 선까지 진출했다.

2. 상황평가 및 의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 공산군측 상황평가 및 의도

(1) 작전기도 및 방침

중공군과 북한군은 제3차 공세 이후 병력 보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중공군의 병력은 한반도에 들어올 당시 제38, 제39, 제40, 제42군이 각각 45,000~50,000명이었다. 비교적 인원이 적은 제50군과 제66군도 각각 36,000명과 30,000여 명이었다. 그러나 제3차 공세가 끝난 후 중공군은 제39군의 45,000명을 제외하고, 제38군이 34,000여 명, 제40군이 35,000여 명, 제42군이 36,000여 명,

제50군이 32,000여 명, 제66군이 25,000여 명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제일선의 중공군 6개 군은 포병 제1사단을 포함해 총병력이 217,000명에 불과했으며, 계속되는 작전으로 인해 물자보급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다.[1)]

1951년 1월 8일 지원군 당위가 중앙군사위원회에 보내는 다음과 같은 보고 내용은 당시 중공군이 처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두 달 남짓 전투에서 서부전선의 6개 군은 세 차례의 공세에서 약 3만 명의 사상자와 더불어 약 2만에서 2만 5천 명의 동상, 질병, 도망병이 발생하였다. 동부전선 제9병단의 사상, 동상, 질병, 도망병은 약 4만 명이다. 현재 상황은 전투부대의 병력이 부족하고, 보급이 매우 좋지 않으며, 체력이 쇠약해 있다. 휴식과 정비 보충, 수송 보급을 개선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작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2)]

이에 조·중연합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는 1월 8일을 기해 중동부전선으로 침투중이던 북한군을 제외한 전군에 추격정지명령을 내리고 휴식과 정비에 들어갈 것을 지시했다. 이 때 중공군과 북한군의 휴식과 정비를 위한 배치는 중공군 제50군과 제38군 제112사단이 한강 남안 교두보 진지를 장악하고, 제42군 제125사단이 남한강 동쪽에 위치하며, 북한군 제1군단의 2개 사단이 한강 이남에 위치하여 유엔군의 공격에 대비하는 가운데 나머지 부대들이 서울, 고양, 동두천, 마석우리, 가평과 김화 지구에 집결하여 휴식과 정비를 실시하기로 계획되었다.[3)]

이 시기 중공군과 북한군의 휴식과 정비는 춘계공세를 준비하기 위한 일종의 준비기간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마오쩌둥(毛澤東)은 1951년 1월 14일 펑더화이에게 보낸 전문에서 전쟁의 형세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춘계공세의 필요성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또한 마오쩌둥은 1월 19일 펑더화이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춘계공세를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춘계공세 준비가 '한반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준비'라고 판단하였다.

춘계공세에 관한 마오쩌둥의 구상은 1월 14~15일 김일성과 스탈린에게 전달되었으며, 북한과 중국내에서 동시에 춘계공세 준비가 시작되었다. 이에 의하면, 중국 동북지역에서 훈련 중인 약 10만 명의 북한군 신병들을 소련제 무기로 무장시켜 전선의 북한군 각 군단과 사단에 보충하고, 북한군 사단을 15개 사단으로 통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합하여 춘계(4월과 5월)에 중공군과 더불어 강력한 공격을 수행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마오쩌둥의 구상은 중공군과 북한군이 2~3개월의 공격준비 기간을 가진 후 전 전선에서 강력한 공격을 가하면 유엔군이 한국을 포기하고 철수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 것이었다.[4)]

그러나 1월 하순 유엔군이 전 전선에서 반격을 가하자 공산군은 휴식과 정비를 중지하고 즉시 방어작전으로 전환하였다. 이와 더불어 공산군은 중동부전선에서 대규모의 공세를 벌여 국군과 유엔군의 진격을 최대한 지연시킨다는 방침을 마련하였다.

⑵ 작전계획

공산군은 계속된 작전으로 인해 많은 병력 손실을 입고 피로에 지쳐 있었으며, 과도한 병참선의 신장(伸長)과 유엔군의 공중공격에 의해 보급품 조달이 원활하지 못했다. 또한 그들은 후방지역에 대한 유엔군의 상륙작전을 우려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지원군사령관 펑더화이는 1월 8일을 기해 중동부전선으로 침투 중이던 제2전선 부대를 제외한 전 주력부대에 추격정지명령을 하달했다. 이에 따라 중공군은 수원-김량장리-이천-여주-원주 선에서 추격을 멈추고 전선을 형성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공산군은 제3차 공세로 38도선에서 남쪽으로 80~110㎞의 지역을 확보했지만, 많은 인명 손실을 입은 상태였다. 특히, 1월 12일 미 제2사단의 역습으로 유엔군이 원주를 회복하고 계속해서 공격을 감행함에 따라 북한군 제2군단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었다. 상황이 불리해진 북한군 전선사령부는 1월 20일에 후방침투작전을 중지하고 평창부근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하달하기까지 했다.

이 무렵 공산군의 부대 배치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았다. 중공군 제50군은 제150사단이 수원-김량장리에 이르는 도로 북쪽에서 경계를 담당하고, 주력이 서울-수원 간에 위치하였다. 중공군 제38군은 제112사단이 광주 경안리 지역의 경계를 담당하고 주력이 금곡리와 사릉리 지역에, 제39군은 문산 지구에, 제40군은 의정부, 동두천, 영평 지구에, 제42군은 제125사단이 양덕원리 서북쪽에 위치하고 주력

이 가평 지구에, 제66군은 김화 지구에 각각 위치하였다. 그리고 북한군은 제1군단이 인천-영등포 지구에, 제2군단이 횡성 지구에, 제5군단이 홍천-횡성 간에 위치하였다.[5] 공산군은 1월 12~14일까지 집결지에 도착하여 휴식과 부대정비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반도에 추가 투입하기로 계획된 중공군 제19병단이 아직 투입되지 않은 상태였고, 함흥에 있던 제9병단도 병력충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즉시 작전에 투입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전선에 투입할 수 있는 병력은 제3차 공세에 참여한 중공군 6개 군과 북한군 3개 군단이 전부였다.[6]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군의 반격이 시작되자 펑더화이는 매우 당황했던 것으로 자료상에 나타난다. 펑더화이는 유엔군의 주력이 와해된 것은 아니지만 계속된 철수와 피해로 인해 적어도 2월까지는 반격을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7] 의외의 반격에 직면한 그는 장비와 식량, 병력 등 모든 면에서 부족하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심리적인 이유를 들어 서울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다.

펑더화이는 1월 27일부로 휴식중지명령을 내리고 다음과 같은 작전계획을 구상하였다. 그는 유엔군의 주공이 지향되는 서부전선에서 유엔군의 진격을 최대한 지연시켜 시간을 벌고, 중부전선에서는 상대를 깊숙이 유인한 뒤 주력을 집중하여 반격을 시도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국군과 유엔군의 1~2개 사단을 타격해 서부전선의 측면을 위협, 유엔군의 공격을 최대한 늦춘다는 것이었다.[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 지휘관계 및 전투편성

국군과 유엔군이 1950년 1월 15일 재반격작전을 개시할 무렵, 중공군과 북한군의 배치는 서쪽에서부터 북한군 제1군단, 중공군 제50, 제38, 제39, 제40, 제42, 제66군, 북한군 제2, 제3, 제5군단 순이었다. 지휘체계는 조·중연합사령부(사령관 펑더화이) 예하에 3개 전방지휘소가 있었으며, 덩화(鄧華)가 중공군 제39, 제40, 제42, 제66군을, 한셴추(韓先楚)가 중공군 제38, 제50군과 북한군 제1군단을, 그리고 김웅(金雄)이 북한군 제2, 제3, 제5군단을 각각 지휘하였다.

조·중연합사령부는 사령원 겸 정치위원에 펑더화이, 부사령원에 덩화와 김웅

(북한측), 부정치위원에 박일우(북한측)로 주요 지휘관이 구성되었으며, 중공군과 북한군을 통합 지휘하였다. 다음의 표는 공산군의 전투편성을 나타낸 것이다.

<표 4-1> 공산군의 전투편성

구 분	편 성 부 대	
중 공 군	제38군	제112, 제113, 제114사단
	제39군	제115, 제116, 제117사단
	제40군	제118, 제119, 제120사단
	제42군	제124, 제125, 제126사단
	제50군	제148, 제149, 제150사단
	제66군	제196, 제197, 제198사단
	제26군	제76, 제77, 제78, 제88사단
북 한 군	제1군단	제8, 제17, 제19, 제47사단
	제2군단	제2, 제9, 제27, 제31사단
	제3군단	제1, 제3, 제15사단
	제5군단	제6, 제7, 제10, 제12, 제43사단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공군의 주요지휘관을 살펴보면, 사령원 겸 정치위원에 펑더화이, 부사령원 겸 부정치위원에 덩화, 부사령원 홍쉐즈(洪學智)와 한센추, 참모장 세팡(解方), 정치부주임 두핑(杜平)으로 편성되었다. 그리고 예하의 각 군장은 제38군장 량싱차오(梁興初), 제39군장 우신촨(吳信泉), 제40군장 원위청(溫玉成), 제42군장 우루이린(吳瑞林), 제50군장 쩡쩌성(曾澤生), 제66군장 샤오신화이(蕭新槐), 제26군장 장런추(張仁初)였다.[9]

<표 4-2> 중공군 각 군 지휘부 편성

구 분	제38군	제39군	제40군
군 장	량싱차오(梁興初)	우신촨(吳信泉)	원위청(溫玉成)
부 군 장	장용후이(江擁輝)	탄요우린(譚友林)	차이정궈(蔡正國)
참 모 장	관쑹타오(管松濤)	선치셴(沈啓賢)	닝셴원(寧賢文)
정치위원	류시위안(劉西元)	쉬빈저우(徐斌州)	위안성핑(袁升平)
부정치위원	-	탄요우린(譚友林)	-
정치부주임	우다이(吳垈)	리쉐싼(李雪三)	리보추(李伯秋)
구 분	제42군	제50군	제66군
군 장	우루이린(吳瑞林)	쩡쩌성(曾澤生)	샤오신화이(蕭新槐)
부 군 장	후지청(胡繼成)	-	전팡런(陳坊仁)
참 모 장	랴오중푸(廖仲符)	쉬싱(舒行)	류쑤(劉蘇)
정치위원	저우뱌오(周彪)	쉬원례(徐文烈)	왕쯔펑(王紫峰)
부정치위원	궈청주(郭成柱)	-	장롄쿠이(張連奎)
정치부주임	딩궈위(丁國鈺)	허윈훙(何運洪)	장롄쿠이(張連奎)
구 분	제26군단		
군 장	장런추(張仁初)		
부 군 장	장즈슈(張鉦秀)		
참 모 장	펑딘싼(馮鼎三)		
정치위원	리야오원(李耀文)		
부정치위원	-		
정치부주임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그리고 북한군의 전투편성은 총사령관 김일성(金日成)을 비롯하여 부사령관 최용건(崔庸健) 대장과 참모장 이상조(李相朝) 상장이었으며, 총사령부 예하의 각 군단장은 제1군단장에 이권무(李權武) 상장, 제2군단장에 최현(崔賢) 상장, 제3군단장에 김광협(金光俠) 상장, 제5군단장에 방호산(方虎山) 상장 등이었다.

2) 유엔군측 상황평가 및 의도

(1) 작전기도 및 방침

중공군의 제3차 공세를 맞아 국군과 유엔군은 주저항선을 37도선 부근의 평택-안성-장호원-원주-하진부리-주문진을 연하는 D방어선으로 조정하였다.[10] 이러한 방어선 조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이점을 고려한 조치였다. 첫째는 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과 중서부전선의 미 제9군단이 북동쪽으로부터 지향되는 공산군의 포위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었으며, 둘째는 중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3군단, 그리고 동부전선의 국군 제1군단이 방어에 유리한 지형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한 것이었다.[11] 그러나 국군이 담당한 중동부와 동부전선에서는 북한군이 태백산맥의 험준한 산악지형을 이용해 계속해서 침투작전을 펼침에 따라 원주-주문진 선에 방어진지를 편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8군사령관은 1월 5일 D방어선을 원주-주문진에서 64㎞ 남하시켜 원주-삼척선으로 수정하고 국군 제1군단과 제3군단을 이 선으로 철수하게 하였다.[12]

새 방어선이 형성되고 '원주의 위기'가 수습되면서 전선이 안정되자 제8군사령관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중장은 유엔군의 대규모 증원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군이 일정한 방어선을 장기간 점령할 경우 큰 피해만을 입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제8군사령관은 일정한 지역을 확보하는 것보다 공산군이 이동 중일 때 공격하는 것이 그들에게 최대한의 피해를 주고 국군과 유엔군의 전투력도 보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결론지었다. 제8군사령관은 공세작전으로 전환할 것을 결심하고, 1월 14일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작전방침을 하달하였다.[13]

① 아군은 병력의 우세를 바탕으로 하는 중공군의 인해전술을 제압하기 위해 화력과 기동력의 우세를 최대한 활용한다. 화력과 기동력에 의한 살상전술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해 보(步), 포(砲), 기갑(機甲) 등 제병과의 긴밀한 협동작전을 수행한다. 해·공군은 지상작전에 대한 화력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지원에 중점을 둔다.

② "나의 목표는 지역의 확보보다는 오로지 적을 살상하는 것이다"라는 말과 같이 작전의 주 목표는 아군 손실을 최소화하고 적의 인원, 물자에 최대의 출혈을 강요하는 데에 둔다.

③ 공격은 모험적인 작전을 회피하고 최초 소단위부대의 위력수색을 실시하여 적정을 확인한 후에 보다 강력한 전투정찰 또는 제한목표를 탈취하기 위한 전면공격으로 확대한다.

④ 공격간에는 공격의 속도보다는 인접부대와의 횡적인 협조와 연결을 긴밀히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해 축차적인 통제선을 설정한다. 그리고 공격부대에 의하여 아군 전선이 크게 돌출되거나 적을 우회하여 진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공격부대는 군단장급 지휘관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통제선을 통과한다.

⑤ 적의 대규모 공세가 개시되면 아군은 인접부대간의 연락과 협조를 유지하면서 사전 계획된 축차 방어선으로 질서있게 후퇴하되, 어느 한 부대의 급속한 철수로 인해 전선의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적에게 돌파구나 후방 침투를 허용하지 않도록 한다.

⑥ 후퇴간 모든 부대는 일방적인 철수가 아니라 반드시 적과의 접촉을 유지하면서 지연전을 감행하고 모든 가용한 기회를 포착하여 최대의 출혈을 강요하면서 적의 주력을 아군의 화망 속으로 유도한 다음 지상 및 항공화력으로 집중 강타한다.

⑦ 적의 공격기세가 한계점에 도달하면 아군은 지체없이 공세로 전환하여 반격을 개시해 지속적인 기동전을 수행함으로써 적의 소모와 출혈을 강요하여 전투력을 소모시킨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른바 '분쇄기식 전술(粉碎機式 戰術)'이라고 알려진 이러한 미 제8군사령관의 작전방침에 따라 국군과 유엔군은 전전상태(戰前狀態), 즉 38도선으로의 복귀를 전제로 한 단계적인 공격작전을 펼치게 되었다.[14]

(2) 작전계획

미 제8군사령관의 작전방침에 따라 우선 서부전선에서는 접촉이 단절된 중공군의 배치, 규모, 장차의 기도 등을 탐색하고, 중동부 지역에서의 적의 압력을 견제하기 위해 제한된 위력수색작전(Operation Wolfhound)을 계획하였다. 이 작전에는 미 제1군단에서 1개 연대전투단이, 미 제9군단에서 1개 대대전투단이 참가하였다. 미 제8군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1월 15~22일까지 실시된 위력수색작전의 결과, 수원-여주 이남지역에는 중공군의 소규모 부대만이 배치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월 23일 제8군사령관은 울프하운드 작전보다 더 강력한 부대로 신속하게 종심 깊이 실시하는 파괴적 위력수색작전을 구상하고, 이를 썬더볼트 작전(Operation Thunderbolt)이라고 명명했다. 썬더볼트 작전은 미 제1군단과 제9군단이 전차로 증강된 미군 1개 사단과 필요시 국군 1개 연대를 추가로 투입하여 한강까지 수색작전을 펼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제8군사령관은 작전부대간의 연결을 유지하고 공격제대의 안전한 진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군단지역 전방에 8㎞ 간격으로 5개의 작전통제선을 설정하였고, 통제선 통과는 군단장에게 위임하였다. 그리고 작전부대가 충분한 화력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엔 공군의 근접항공지원과 유엔 해군의 함포사격지원을 계획하였다.[15] 이와 더불어 제8군사령관은 중동부전선에서 공산군의 대규모 병력이 홍천 일대로 집결한다는 첩보를 수집하고서 이를 포위 격멸한 후 중동부지역의 전선을 북상시킨다는 목적하에 라운드업 작전(Operation Roundup)을 계획하였다.[16]

기간 중 제8군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의 작전계획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었다. 첫째는 우세한 기동력과 화력을 활용해 최대한 적을 찾아 살상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작전의 목표가 '지역확보'가 아닌 '병력의 섬멸'에 우선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는 중공군의 우회침투를 방지하고 아군에 대한 분할포위를 막으면서 동시에 유엔군의 가장 큰 장점인 화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격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공산군의 각 부대가 서로 연결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었다. 셋째는 공격제대가 수행하는 공격방법의 전환이었다. 리지웨이 장군은 도로로만 진격하던 종전의 방법에서 탈피해 우선 화력으로 타격하여 돌파한 후 보병이 소탕작전을 전개하도록 하였으며, 전선이 불균형하게 형성되지 않도록 부대간의 좌우가 완전히 연결된 상태에서 북진하게 하였다.[17]

(3) 지휘관계 및 전투편성

국군과 유엔군이 반격작전을 실시할 무렵, 부대배치는 서쪽에서부터 미 제1군단, 미 제9군단, 미 제10군단, 국군 제3군단, 국군 제1군단 순이었다. 평택-안성선에 배치된 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은 미 제3사단, 미 제25사단, 국군 제1사단, 영 제29여단, 터키여단으로 편성되었다. 미 제3사단은 제7, 제15, 제65연대, 미 제25사단은 제24, 제27, 제35연대, 국군 제1사단은 제11, 제12, 제15연대를 예하에 두었으며, 영 제29여단과 터키여단은 각각 3개 대대로 구성되었다. 미 제1군단의 주요 지휘관

<표 4-3> 미 제8군 및 제1군단 전투서열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미 제8군	사령관	중장	Matthew B. Ridgway	
미 제1군단	군단장	소장	Frank W. Milburn	
미 제3사단	사단장	소장	Robert H. Soule	
	제7연대장	대령	Tames O. Boswell	
	제15연대장	대령	Dennis M. Moore	
	제65연대장	대령	William W. Harris	
미 제25사단	사단장	소장	William B. Kean	
	제24연대장	대령	John T. Corley	
	제27연대장	대령	John H. Michaelis	
	제35연대장	대령	Henry G. Fishir	
국군 제1사단	사단장	준장	백선엽(白善燁)	
	제11연대장	대령	문형태(文亨泰)	
	제12연대장	대령	김점곤(金點坤)	
	제15연대장	대령	김안일(金安一)	미 25사단 배속
영 제29여단	여단장	준장	T. Brodie	
터키여단	여단장	준장	Tahsin Yazici	미 25사단 배속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은 군단장 밀번(Frank W. Milburn) 소장, 미 제3사단장 소울(Robert H. Soule) 소장, 미 제25사단장 킨(William B. Kean) 소장, 국군 제1사단장 백선엽(白善燁) 준장, 영 제29여단장 브로디(T. Brodie) 준장, 터키여단장 야찌스(Tahsin Yazici) 준장이었다.

장호원-남한강에 배치된 중서부전선의 미 제9군단은 미 제1기병사단, 미 제24사단, 국군 제6사단, 영 제27여단으로 편성되었다. 미 제1기병사단은 제5, 제7, 제8기갑연대, 미 제24사단은 제5, 제19, 제21연대, 국군 제6사단은 제2, 제7, 제19연대를 예하에 두었으며, 영 제27여단은 3개 대대로 구성되었다. 미 제9군단의 주요 지휘관은 군단장 무어(Bright E. Moore) 소장, 미 제1기병사단장 게이(Hobert R. Gay) 소장과 팔머(Charles D. Palmer) 소장, 미 제24사단장 처치(John H. Church) 소장과

<표 4-4> 미 제9군단 전투서열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미 제9군단	군단장	소장	Bright E. Moore	
미 제1기병사단	사단장	소장	Hobert R. Gay	
		소장	Charles D. Palmer	1951. 2. 5부
	제5기병연대장	대령	Marcel B. Crombez	
	제7기병연대장	대령	James K. Woolnough	
	제8기병연대장	대령	Eugean J. Field	
미 제24사단	사단장	소장	John H. Church	
		소장	Blacksheas M. Bryan	1951. 1. 25부
	제5연대장	대령	John L. Throckmorton	
	제19연대장	대령	Ned D. Moore	
	제21연대장	대령	Richard W. Stephens	
국군 제6사단	사단장	준장	장도영(張都暎)	
	제2연대장	대령	김봉철(金鳳喆)	
	제7연대장	대령	임부택(林富澤)	
		대령	양중호(梁仲鎬)	1951. 2. 28부
	제19연대장	대령	임익순(林益淳)	
영 제27여단	여단장	준장	Basil A. Coad	
태국 대대	대대장	중령	Kriengkrai Attamamtna	기병사단 배속
그리스 대대	대대장	중령	Arboutzis Dionysios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브라이언(Blacksheas M. Bryan) 소장, 국군 제6사단장 장도영(張都映) 준장, 영 제27여단장 코드(Basil A. Coad) 준장이었다.

남한강-원주선에 배치된 중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은 미 제2사단, 미 제7사단, 국군 제2사단, 국군 제5사단, 국군 제8사단으로 편성되었다. 미 제2사단은 제9, 제23, 제38연대, 미 제7사단은 제17, 제31, 제32연대, 국군 제2사단은 제17, 제31, 제32연대,

<표 4-5> 미 제10군단 전투서열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미 제10군단	군단장	소장	Edward M. Almond	
미 제2사단	사단장	소장	Robert B. McClure	
		소장	Clark L. Ruffner	1951. 1. 14부
	제9연대장	대령	Edwin J. Messinger	
	제23연대장	대령	Paul L. Freeman	
	제38연대장	대령	George B. Peploe	
미 제7사단	사단장	소장	David G. Barr	
		소장	Claude B. Ferenbaugh	1951. 2. 12부
	제17연대장	대령	Royal Reynolds, Jr.	
	제31연대장	대령	Lloyed R. Moses	
	제32연대장	대령	Charles M. Mount, Jr.	
국군 제2사단	사단장	준장	함병선(咸炳善)	
	제17연대장	대령	이정석(李貞錫)	
	제31연대장	대령	박노규(朴魯珪)	
	제32연대장	대령	권동찬(權東贊)	
		대령	조재미(趙在美)	1951. 1. 18부
국군 제5사단	사단장	준장	민기식(閔耆植)	
	제27연대장	대령	이상철(李相喆)	
	제35연대장	대령	박현수(朴炫洙)	
	제36연대장	대령	황 엽(黃 燁)	
국군 제8사단	사단장	준장	최영희(崔榮喜)	
	제10연대장	대령	권태순(權泰順)	
	제16연대장	대령	이존일(李存一)	
	제21연대장	대령	하갑청(河甲淸)	
미 제187공정연대	연대장	대령	Frank Bowen	
네덜란드 대대	대대장	중령	M.P.A. denOuden	미 2사단 배속
프랑스 대대	대대장	중령	Ralph Monclar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군 제5사단은 제27, 제35, 제36연대, 국군 제8사단은 제10, 제16, 제21연대를 예하에 두었다. 미 제10군단의 주요 지휘관은 군단장 알몬드(Edward M. Almond) 소장, 미 제2사단장 맥크루어(Robert B. McClure) 소장과 러프너(Clark L. Ruffner) 소장, 미 제7사단장 바르(David G. Barr) 소장과 페렌바우(Claude B. Ferenbaugh) 소장, 국군 제2사단장 함병선(咸炳善) 준장, 국군 제5사단장 민기식(閔機植) 준장, 국군 제8사단장 최영희(崔榮喜) 준장이었다.

또한 영월-정선에 배치된 중동부전선의 국군 제3군단은 제3사단, 제7사단, 제9사단으로 편성되었다. 제3사단은 제18, 제22, 제23연대, 제7사단은 제3, 제5, 제8연대, 제9사단은 제28, 제29, 제30연대를 예하에 두었다. 국군 제3군단의 주요 지휘관

<표 4-6> 국군 제3군단과 제1군단 전투서열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국군 제3군단	군단장	소장	유재흥(劉載興)	
제3사단	사단장	준장	최 석(崔 錫)	
	제18연대장	대령	임충식(任忠植)	
	제22연대장	대령	장춘권(張春權)	
	제23연대장	대령	김종순(金淙舜)	
제7사단	사단장	준장	김형일(金炯一)	
	제3연대장	대령	정 진(鄭 震)	
	제5연대장	대령	김인철(金仁哲)	
	제8연대장	대령	이현진(李賢進)	
제9사단	사단장	준장	김종갑(金鍾甲)	
	제28연대장	대령	이창정(李昌禎)	
	제29연대장	대령	고백규(高白圭)	
	제30연대장	대령	고시복(高時福)	
국군 제1군단	군단장	소장	김백일(金白一)	
수도사단	사단장	준장	송요찬(宋堯讚)	
	제1연대장	대령	한 신(韓 信)	
	제26연대장	대령	서정철(徐廷哲)	
	제1기갑연대장	대령	김동수(金東洙)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은 군단장 유재흥(劉載興) 소장, 제3사단장 최석(崔錫) 준장, 제7사단장 김형일(金炯一) 준장, 제9사단장 김종갑(金鍾甲) 준장이었다. 그리고 동해안 지역의 국군 제1군단은 수도사단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지휘관은 군단장에 김백일(金白一) 소장, 수도사단장에 송요찬(宋堯讚) 준장이었다.

이 밖에 미 제8군 예비로 미 제1해병사단(사단장 Oliver P. Smith 소장), 필리핀대대(대대장 Dionisio S. Ojeda 중령), 캐나다대대(대대장 J. R. Stone 중령), 벨기에대대(대대장 Crahay 중령)가 있었다.

3. 전투 경과

1) 서부·중서부지역의 한강선 진출 작전

(1) 위력수색작전

오산-한강선 진격전은 1951년 1월 15일부터 2월 10일까지 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이 북한군 제1군단과 중공군 제50군 예하의 병력을 물리치고 한강선까지 진출한 작전이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미 제8군사령관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장군은 37도선으로 철수한 이후 공세작전에 앞서 공산군의 배치와 규모, 그리고 작전 기도 등을 탐색하고 중동부전선에 대한 압력을 견제하기 위해 서부전선에서 제한된 규모의 위력수색작전을 계획하였다. 제8군사령관은 오산-수원 간에 집결된 공산군을 공격목표로 선정하고, 미 제1군단으로 하여금 최소한 1개 전차대대로 증강된 부대를 투입하여 이틀 동안 이 지역을 정밀 탐색하도록 명령하였다. '울프하운드 작전(Operation Wolfhound)'이라고 명명된 이 작전은 중공군 개입 이후에 유엔군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반격이었다.[18]

위력수색작전을 명령받은 미 제1군단장은 이 임무를 군단예비인 미 제25사단에 부여하였다. 미 제25사단장 킨(William B. Kean) 소장은 제27연대(연대장 John H. Michaelis 대령)에 전차·포병·공병 각각 1개 대대씩을 증원시켜 정찰대를 편성하였다.[19] 군단에서는 정찰대의 측방과 후방을 엄호하기 위해 제24연대(연대장 John T. Corley 대령)의 2개 대대와 제90야포대대를 지원부대로 배치하였으며, 수원-김량장리 간의 도로를 차단하기 위해 미 제3사단의 제15연대 제1대대와 제15전차중대, 그리고 제65연대의 제2대대와 제65전차중대에 북상 명령을 하달하고 국군 제1사단 제12연대 제2대대를 김량장리 남쪽 5㎞ 지점의 천리(泉里)에 배치하였다.[20]

작전의 중요성이 매우 컸던 만큼 미 제8군사령관 리지웨이 장군도 이 작전에 관심을 집중하였다. 그는 1월 14일 15시 50분에 미 제1군단사령부가 위치한 천안을 방문해 최종적으로 작전의 준비상태를 점검하고 기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21]

위력수색작전은 1월 15일 새벽에 개시되었다.[22] 제27연대의 2개 대대는 1번 도로를 따라 오산으로, 1개 대대는 서해안을 따라 발안장으로 북진하였다. 제27연대는 북진 중에 별다른 접적이 없었으나 파괴된 도로 및 교량과 지뢰 등의 장애물로 인하여 진출이 지연되었다.[23] 이로 인해 제27연대는 수색작전 첫날에 주력이 오산 북쪽에, 그리고 서해안 39번 도로(평택-발안장-수원)로 진출한 1개 대대가 발안장 부근에 각각 진출하는 것으로 이 날의 작전을 종료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편 미 제27연대를 지원하도록 임무가 부여된 국군 제1사단 제12연대 제2대대는 이날 목표지점인 17번 도로상의 천리까지 별다른 접적 없이 진출하였다. 하지만 동일축선으로 기동한 미 제3사단 제15연대 제1대대와 2개 전차중대는 천리 북쪽의 김량장리 부근에서 약 600~800명으로 추정되는 중공군과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함에 따라 수원으로 연결되는 20번 도로를 목전에 두고서 더 이상 진출하지 못했다.[24]

울프하운드 작전 부대는 16일 계속해서 작전을 수행하다가 10시 30분에 하달된 군단장의 명령에 따라 서해안에서 오산 남쪽의 진위천을 연하는 군단 전초선으로 철수했다.[25] 철수에 앞서 제27연대장은 수원에서 발견된 적에게 최대한의 피해를

가하기 위하여 차량화 보병중대와 전차중대를 신속히 수원으로 진격시켰다. 정찰대는 수원 남쪽 500m 지점에 이르렀을 때 중공군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여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고 항공폭격의 엄호하에 철수하였다. 군단 전초선으로 철수한 미 제27연대는 석촌리-황구지리-노곡리 선에 배치되었다.[26] 이틀간에 걸쳐 실시된 서부전선의 위력수색작전으로 미 제1군단은 1,375명(항공작전 1,180명, 지상작전 195명)의 적을 사살하고 5명의 포로를 획득하였다. 이에 반해 미 제1군단 작전부대의 손실은 전사자 3명과 부상자 7명뿐이었다.

이틀간 진행된 위력수색작전의 의의에 대해 제8군사령관은 작전의 결과보다도 중공군의 개입으로 사기가 저하된 유엔군 장병들의 공격 의지가 고양되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27] 이 작전으로 유엔군은 '중공군의 방어선이 수원-이천을 연하는 선이며, 화력지원과 보급 수준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과 '중공군이 가까운 시일 내에 대규모의 공세를 취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제8군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은 총공세작전으로 전환하기에 앞서 한강 남쪽에 배치된 공산군의 방어진지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였다. 1월 23일 제8군 정보참모는 중공군 제13병단의 주력이 한강과 수원-여주 사이에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항공정찰에서도 공산군이 한강 남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목격되었다. 정황상 반격으로의 전환시기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었지만, 리지웨이 장군은 총공세 대신에 울프하운드 작전보다 강력한 위력수색작전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아직 이 지역에서 공산군의 조직적인 방어활동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에 제8군사령관은 울프하운드 작전 때보다 더 강력한 부대로 신속하게 종심 깊이 실시하는 파괴적 위력수색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썬더볼트 작전(Operation Thunderbolt)'이라고 명명하였다.[28]

썬더볼트 작전은 1월 23일에 계획되었으며, 미 제1군단과 제9군단이 전차로 증강된 미군 1개 사단과 필요시 국군 1개 연대를 추가로 투입하여 1월 25일부터 작전을 개시해 한강까지 수색작전을 펼친다는 것이었다.[29] 이 계획에 따라 각 군단의 공격제대는 1월 24일 밤에 울프하운드 작전으로 이미 수색이 완료된 방어선 전방의 서해안-오산-천리-여주를 연하는 공격개시선에 집결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수원 장안문(1951. 1. 25)

제8군사령관은 작전에 앞서 24일 공산군의 위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 직접 정찰기에 동승하여 2시간 동안 미 제1군단과 제9군단의 전방 32㎞까지 항공정찰을 실시하였다. 정찰 결과 한강 이남에는 공산군의 대규모 병력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작전부대가 쉽게 이 지역을 확보할 것으로 확신하였다.[30]

리지웨이 장군은 작전부대간의 연결을 유지하고 공격제대의 안전한 진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군단지역 전방에 8㎞ 간격으로 5개의 작전통제선을 설정하고, 통제선 통과의 권한을 군단장들에게 위임하였다.[31] 이와 더불어 제8군사령관은 작전부대에 충분한 화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 제5공군이 25일부터 이틀 동안 최대한의 근접항공지원을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또 인천 외항에 있는 미 제95기동함대의 순양함과 2척의 구축함으로부터 함포사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32]

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은 미 제25사단을 선봉으로 하여 1월 25일 07시 30분을 기해 썬더볼트 작전을 개시하였다. 이때 미 제25사단은 5개의 공격제대를 구성하였는데, 미 제25사단 수색중대로 구성된 제1제대가 서해안을 따라 진출했으며, 미 제35연대 1개 대대로 구성된 제2제대가 발안장으로부터 북상하였다. 그리고 제35연대 주력으로 구성된 제3제대가 1번 국도를 따라 진격했으며, 터키여단 제1, 제3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대대로 구성된 제4제대가 오산 동쪽에서 북상하고, 터키여단 제2대대로 구성된 제5제대가 군단의 가장 동쪽에서 김량장리의 남동쪽으로 진격하였다.[33]

미 제1군단이 썬더볼트 작전을 개시한 1951년 1월 25일은 중공군이 개입한 후 후퇴작전을 계속하던 국군과 유엔군이 재반격으로 이전(移轉)하는 전환점이 되는 날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컸다.

(2) 용인 전투

용인 전투는 미 제1군단 제25사단에 배속된 터키여단이 썬더볼트 작전의 일환으로 1951년 1월 25일부터 용인 김량장과 151고지 점령을 목표로 공격을 개시해 27일 치열한 백병전 끝에 목표를 탈환한 전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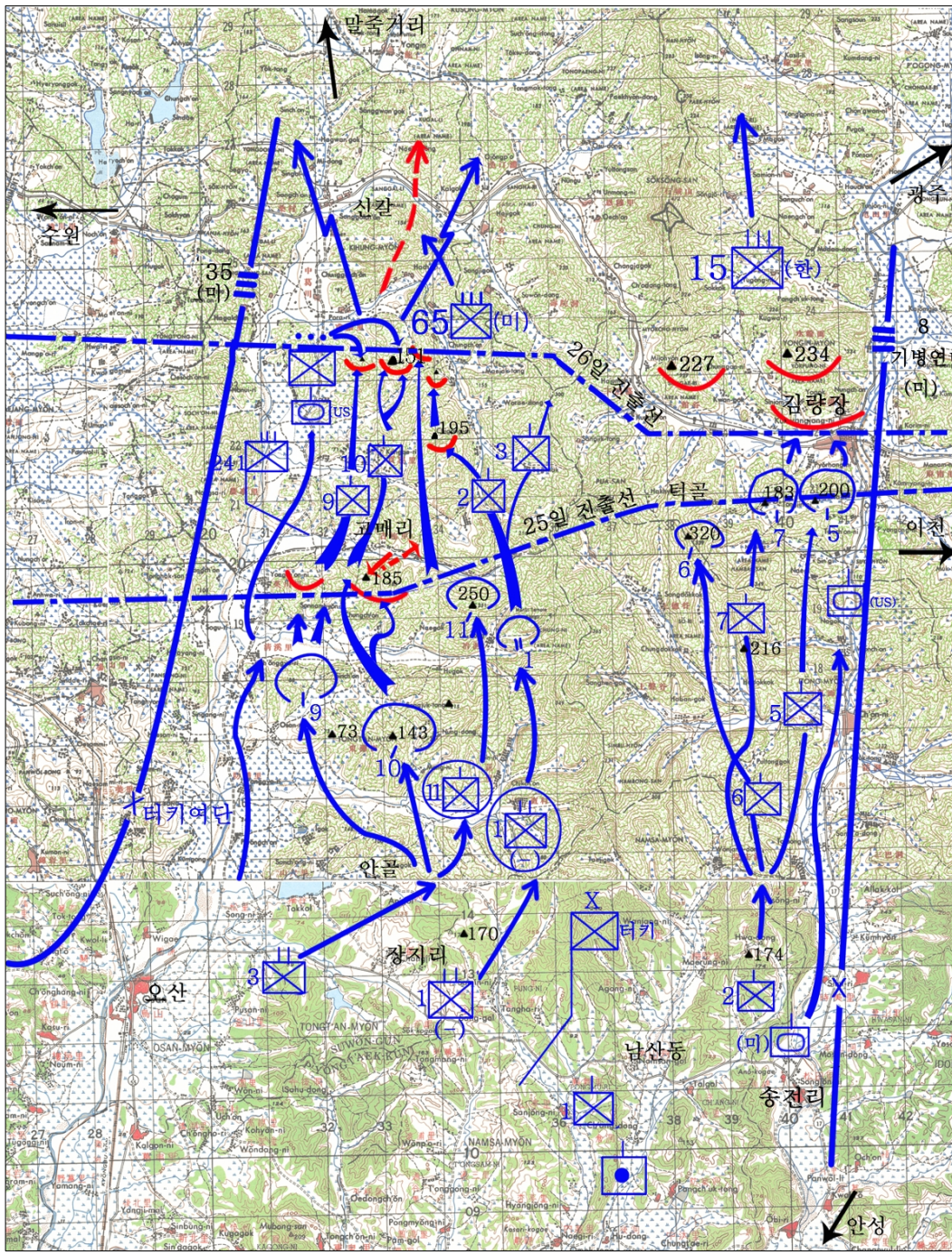
미 제8군의 썬더볼트 작전계획에 따라 미 제1군단의 우전방 공격을 담당하게 된 터키여단은 1월 24일 16시에 제1대대와 제3대대가 동막리 부근에, 제2대대가 송전리 부근에 각각 집결을 완료하고 공격 준비에 들어갔다.[34]

작전 개시일인 25일 터키여단(여단장 Tahsin Yazici 준장)은 07시 30분에 제2대대와 제3대대가 각각 김량장리와 신갈을 목표로 공격을 개시했다. 터키여단은 이미 울프하운드 작전으로 수색이 완료된 지역을 비교적 쉽게 통과해 제1통제선을 점령했다. 동막리에서 진격한 제3대대(대대장 Lutfu Bilgin 소령)는 10시 30분경 선납재의 92고지에서 40~50명의 중공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지만 이를 격퇴하고 185고지 부근까지 진출했으며, 송전리에서 진격한 제2대대(대대장 Mithat Uluunlu 소령)는 12시경에 대촌까지 진출하는 데 성공하였다.[35] 제1통제선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터키여단은 포로들로부터 “전방 48㎞ 지점에 중공군 제50군 예하 2개 사단이 위치하고 있으며, 그들의 전초진지는 3~8㎞ 북쪽에 있다”는 정보를 획득하였다.[36] 이 위치는 공교롭게도 수원에서 20번 도로를 따라 여주 북쪽의 한강변에 이르는 유엔군의 제2통제선과 일치하였다.

김량장리의 탈환을 목표로 한 터키여단 제2대대는 진격을 서둘러 이날 15시에 김량장리 남쪽 500m 지점까지 진출하였다. 이 때 제5중대(중대장 Olhan 대위)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4-2> 김량장리와 151고지 전투(1951. 1. 25~27)



도로 남쪽에 있는 200고지를 점령하고, 제7중대(중대장 Turhan 대위)가 200고지에서 1㎞ 남쪽에 위치한 183고지를 점령하였다. 그리고 제6중대(중대장 Gunay 대위)가 제7중대 진지에서 1.8㎞ 서남쪽에 위치한 320고지에 배치되어 서측방을 엄호하였다. 제2대대는 이곳에 견고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김량장리 시가지와 그 북쪽에 배치된 중공군의 적정을 탐색한 후 다음날 김량장리 공격을 감행하기로 결정하였다.[37]

그리고 신갈의 151고지를 목표로 공격을 개시한 터키여단 주력은 선납재의 92고지를 무난히 점령했지만, 185고지 점령에는 큰 어려움을 겪었다. 185고지로 진격한 제3대대 제10중대는 1개 소대를 정면에 투입하고 2개 소대를 서쪽으로 우회시켜 고지 점령에 나섰지만 중공군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쳐 한동안 진출이 저지되었다. 이 때 고지정면으로 공격하던 1개 소대가 은폐와 엄폐물을 활용해 적 진지까지 접근해 백병전을 전개하고, 우회한 2개 소대가 가세함에 따라 185고지를 점령하는 데 성공하였다. 대대는 제1일차 공격목표인 92고지와 185고지를 점령한 후 적의 야간 기습공격에 대비해 사주방어진지를 급편하고 다음날로 예정된 151고지 전투에 대비하였다.[38]

다음 날(26일) 터키여단 제2대대는 09시에 제7중대와 제5중대를 각각 좌·우 공격부대로 정하여 공격개시선을 통과했다. 제2대대의 공격을 지원하기 위해 포병을 비롯한 모든 지원화기가 김량장리 시가지와 그 북쪽의 능선에 포격을 가하고 유엔 공군의 전폭기 편대가 근접항공지원을 제공했다.

제2대대의 선두부대가 시가지의 동북쪽 철길까지 진출하였을 때, 시가지 북쪽 고지에 배치된 중공군이 일제히 집중 사격을 가해 제2대대 선두부대는 많은 손실을 입고 진출이 저지되었다. 이때부터 김량장리 일대에서는 고착된 상황을 타개하려는 터키군의 돌격과 결사적으로 현 진지를 고수하려는 중공군의 격렬한 저항으로 일진일퇴의 공방전이 계속되었다. 특히 이날 오후 들어 중공군이 화력을 증강함에 따라 이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터키여단 제2대대의 진출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제2대대장은 근접항공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각 중대장에게 항공지원이 끝남과 동시에 최종 돌격을 감행하라고 명령하였다. 유엔 전폭기의 항공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원에 힘입은 제2대대는 시가지 중심부로 돌진해 치열한 백병전을 벌여 1월 26일 일몰직전에 김량장리를 탈환하였다.[39] 하지만 제2대대는 시가지로부터 북쪽 고지군에 이르는 200m 가량의 개활지를 돌파하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지원사격이 제한되고 대치거리가 200m에 불과한 중공군의 야간 기습공격의 가능성 등을 고려해 대대장은 현 위치에서 500m 후방에 위치한 200고지와 183고지로 병력을 철수시켰다. 이날 각 중대로부터 들어 온 전과 및 피해를 종합한 결과, 제2대대는 중공군 약 200명을 살상하고 전사 5명과 부상 14명의 손실을 입었다.[40]

한편 신갈의 151고지를 목표로 공격 중이던 터키여단 주력은 1월 26일 4개 중대를 동원해 공격을 재개하였다. 좌로부터 제9중대가 100고지(151고지 서쪽 800m)를, 제10중대와 제11중대가 각각 중앙과 우측에서 151고지를 공격하였으며, 제1대대 제2중대가 195고지(151고지 남동쪽 1.5㎞)를 점령한 후 151고지 남동쪽 600m 지점에 위치한 능선을 점령하도록 임무가 부여되었다. 그리고 미 전차중대가 오산-신갈 도로를 따라 진출하면서 중공군의 좌측방을 공격하고 터키군이 최종 돌격할 때에 배후에서 적의 진지를 포격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다.

터키여단 주력은 26일 아침부터 각종 포격과 항공 폭격의 지원하에 제10중대를 선두로 하여 고매리-119고지-151고지를 향해 공격을 개시하였다. 정오 무렵 제10중대를 후속한 제9중대가 좌측에서 병진 공격에 가담하면서 양 중대는 적진 200m 지점까지 접근하였다. 이 무렵 제3대대와 연대 CP가 고매리 서북쪽 고지에 추진되었으며, 지원 포대들도 오산 북쪽의 '새강이' 부근까지 축차로 포진지를 이동하였다.[41]

이날 정오부터 시작된 151고지 전투는 17시 30분 제10중대가 공격목표 지점을 완전히 탈환할 때까지 약 5시간에 걸쳐 피아간에 처절한 격전으로 진행되었다. 제3대대는 군우리 전투에서 명령없이 철수하여 얻게 된 회교 윤리상 용서받을 수 없는 치욕적인 불명예를 이번 기회에 만회하기 위하여 작렬하는 탄막 속을 뚫고 용감하게 전진하였다. 후에 확인되었지만 중공군은 이 고지에 유엔군의 직사포 사격에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였고, 진지마다 기관총도 배치하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있었다. 그리고 원형의 사주방어진지 내부는 박격포진지까지 구축한 강력한 요새였다. 제3대대는 포병의 지원사격 아래 그들이 믿는 '알라'를 외치면서 돌격하여 백병전으로 고지를 탈환하고 중공군을 격퇴하였다. 목표를 점령한 제3대대는 전면방어진지를 구축하고 다음날의 공격을 위해 전력을 재정비하였다. 이 전투를 계기로 제3대대는 군우리에서의 불명예를 일거에 씻어버릴 수 있었다.

151고지를 점령한 터키군 주력은 27일 07시 30분에 공격을 재개, 중대 간격을 1㎞로 한 4개 중대 병진대형으로 5.6㎞를 진격했으나 중공군이 이미 퇴각한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접적은 없었다. 이에 터키군 주력은 미 제3사단 제65연대에 진지를 인계하고 사단에서 지원된 차량편으로 수원비행장에 이동해 차기 작전을 준비하였다.[42]

신갈의 151고지에서 터키군 주력이 전장 정리를 하는 동안 김량장리의 제2대대도 갑작스런 중공군의 퇴각에 따라 이날 오전에 목표 지점을 탈환하였다. 눈 덮인 고지에서 26일 밤을 지낸 제2대대는 제1중대를 배속받아 전날과 같은 공격대형으로 08시에 공격을 개시했다. 그러나 적은 이미 지난 밤에 은밀히 퇴각했기 때문에 제2대대는 김량장과 북쪽 고지군을 교전 없이 점령하였다. 이날 정오에 제2대대는 국군 제15연대에 김량장리의 진지를 인계한 후 여단과 합류해 수원으로 이동하였다.[43]

1951년 1월 25~27일 3일간 진행된 김량장리 및 151고지 전투에서 터키 장병들은 총검에 의한 백병전으로 적을 무찌름으로써 '용감한 터키군'의 진면목을 전 세계에 과시하였다. 3일간의 전투에서 확인한 중공군의 시체만도 김량장리 전투에서 77명, 151고지 전투에서 397명 등 총 474명이었다. 이들 중공군 전사자의 대부분은 개머리판에 의하여 턱이 깨지고, 총검에 찔린 흔적이 있었다.

이 전투를 계기로 터키군의 용감성은 유엔군의 귀감이 되었고, 참전국들은 백병전 하면 터키군을 연상하게 될 정도로 '인류 역사상 길이 빛날 터키군의 전공'이라고 극찬하였다. 터키군이 151고지에서 압승한 30분간의 백병전 상황은 U.P.I 기자에 의해 생생한 모습으로 전 세계에 타전되었다. 여단은 이 전공으로 1951년 7월 6일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부대표창을 받았으며, 1952년 9월에는 대한민국 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미 제25사단에 배속된 터키여단 병사들이 전투 후 점령지역에 자국의 국기를 세우고 있다.

통령으로부터 부대표창을 받는 영광을 누렸다.

⑶ 수리산 전투

수리산 전투는 미 제25사단 제35연대와 터키여단이 서울 재탈환을 위해 1951년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중공군 제150사단과 공방전을 펼친 전투였다.

수리산은 영등포로 통하는 국도와 안산을 거쳐 소사 또는 인천으로 통하는 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감제고지였다. 유엔군이 서울을 재탈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리산과 관악산을 점령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했다. 이에 따라 서부전선을 작전지역으로 하는 미 제1군단은 서해안으로부터 터키여단, 미 제25사단, 국군 제15연대, 미 제3사단을 병진 배치하고 국군 제1사단 주력을 예비로 하여 전면 공격 태세를 갖추었다.

수리산의 전술적 중요성 때문에 공산군 측에서도 이 지역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중공군 포로를 심문한 결과, 수리산에서 양평 서쪽의 양자산까지 중공군 제50군의 제148, 제149, 제150사단과 중공군 제38군의 제112, 제113, 제114사단이 횡으로 방어하고 있음이 드러났으며, 유엔 공군의 공중정찰에서 이 지역에 수많은 진지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44] 1월 27일 조·중연합사령관 펑더화이는 예하부대에 "한강 남안의 교두보 진지를 확보해 춘계대공세로 적을 섬멸하고, 충분한 병력을 집중해 침범하는 적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게 다시 한 번 큰 타격을 가해야 한다. 각 군은 즉각 이를 위한 작전을 준비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명령을 하달하였다. 나아가 1월 28일에는 마오쩌둥이 펑더화이에게 "국제적 관점에서 보면 적이 인천과 서울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조 양 부대가 적의 공격부대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좋겠다"라고 하면서 방어작전을 독려하였다.[45]

미 제25사단이 1월 27일에 구룡곡(수원 서쪽 12㎞)-부곡리-미륵동(수원 북쪽 4㎞) 선까지 진출하자, 다음 날 사단장 킨(William B. Kean) 소장은 "서쪽으로부터 터키여단, 미 제35연대(전차 1개 중대 포함), 국군 제15연대를 병진하여 수리산을 탈취하려 하며, 공격개시선은 현 접촉선으로 하고 공격개시 시간은 1월 31일 아침으로 한다"는 내용의 작전명령을 예하부대에 하달하였다.

공격계획에 의하면, 미 제25사단은 미 제35연대(연대장 Henry G. Fishir 대령)를 주공으로 하여 수리산을 점령하고, 좌측에서 터키여단이 소사 방면으로, 우측에서 국군 제15연대(연대장 김안일 대령)가 모락산을 목표로 공격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이틀간에 걸쳐 공격준비를 완료한 미 제25사단은 1월 31일 07시 30분을 기해 50분간의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한 후 일제히 공격에 나섰다. 수리산을 목표로 공격을 개시한 미 제35연대는 제2대대를 공격제대로 하여 수리산을 목표로 정면과 우측에서 각각 진격하게 하였다. 제2대대는 공격준비사격이 끝나자 F중대가 대야동의 250고지로 돌진해 정오경에 무난히 목표 고지를 점령하였고, 우측에서 용호동의 210고지를 목표로 공격한 E중대도 13시경 고지 탈환에 성공하였다. 이로써 수리산의 제1선 진지는 무난히 유엔군의 수중에 들어오게 되었다.[46]

제2대대 E중대가 210고지를 탈취하고 나서 재편성을 끝낼 무렵, 고지 전방의 253고지에서는 중공군이 능선상으로 진지 구축을 강화하고 있었다. 중대장은 적이 제1선 진지를 너무 빨리 탈취 당하였기 때문에 황급히 병력을 제2선인 253고지에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곧바로 공격할 것을 결심한 중대장은 대대장에게 화력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대대장은 항공지원을 요청하였으니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회신을 보내왔다. 2시간이 지나도 항공지원은 없었고 15시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하달된 공격명령에 따라 E중대가 공격에 나섰지만, 결국 공격 시기를 놓쳐 이날 253고지 공격은 아무 성과 없이 좌절되었다.

다음 날(2월 1일) 미 제35연대는 제2대대가 09시 30분에 둔대동을 출발, 13시 30분경 253고지 남쪽과 남동쪽으로 진출해 고지 점령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제1대대가 09시 30분에 당정리 진지에서 용호동을 거쳐 12시 05분에 용호동-도장동-도내당리 선으로 진출하였으며, 제3대대가 봉성리에서 당리로 진출하였다.

이 무렵 미 제35연대의 좌측에서 공격하던 터키여단은 제1대대(-)가 부곡리에 위치하고, 1개 중대가 판서골 서쪽 고지(266고지)에 위치하면서 253고지에 대해 정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리고 제2대대는 바람고개 방면에서 수리산을 정찰 중이었으며, 제3대대가 안산 월피동 방면에서 공격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47]

사단에서는 미 제35연대에 터키여단과 합동으로 수리산 공격을 실시하라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작전지시 제64호'를 하달하였다. "제35연대는 지구내에서 공격을 계속하고 수리산을 탈취하기 위해 좌측의 터키군과 협조된 공격을 하라. 연대는 일몰 전까지 수리산에서 좌측의 터키군과 연결하고, 우측의 국군 제15연대와 평봉성에서 연결하라."[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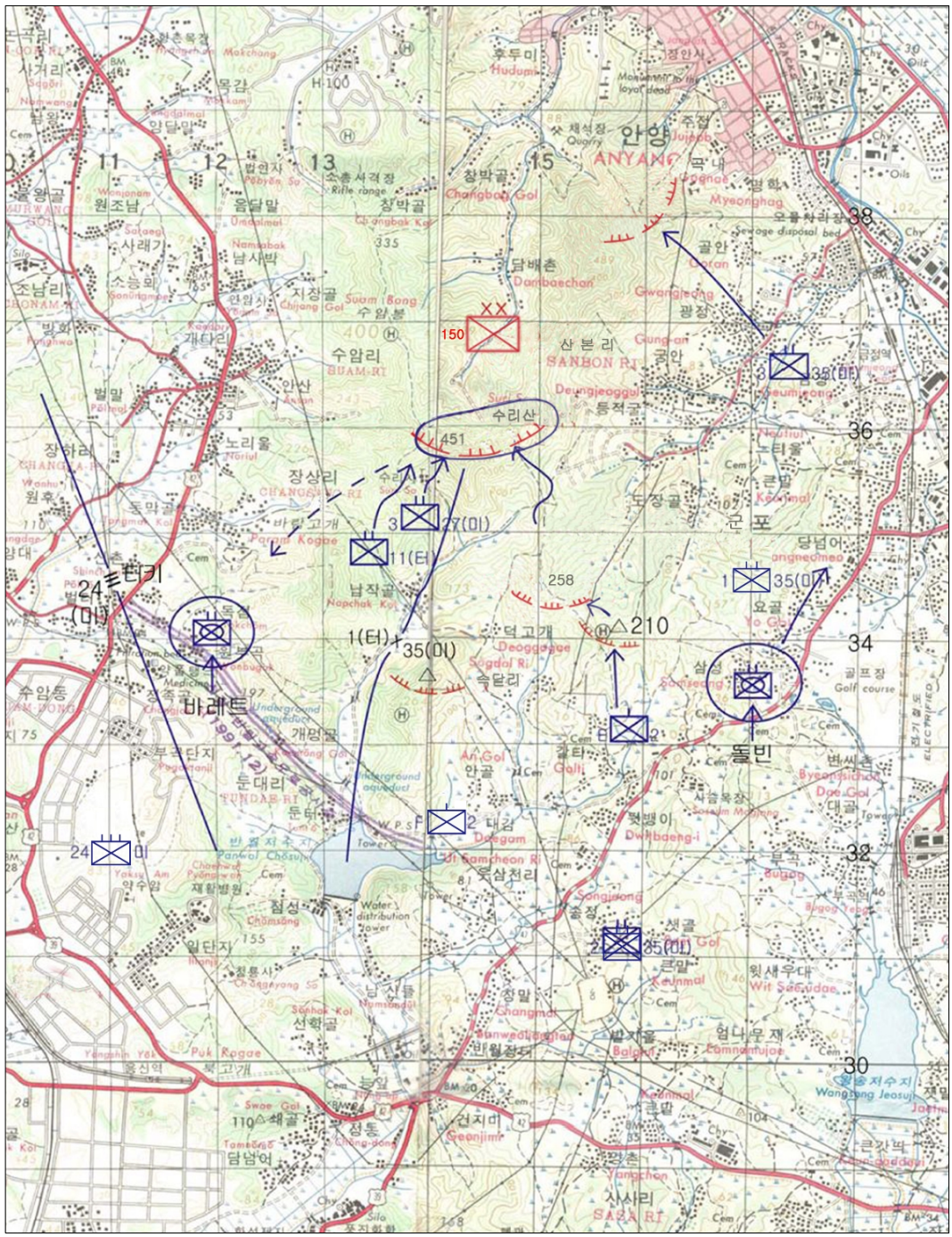
이 명령에 따라 미 제35연대와 좌측의 터키군은 합동작전으로 수리산 확보를 위한 공격을 감행하였다. 주공인 제35연대는 삼성(三城)의 무명고지와 227고지에서 공격을 시작하여 253고지를 점령하였지만 수리산 정상부근에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고 있던 1개 연대 규모의 중공군으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다. 이로 인해 연대는 더 이상 진출하지 못하고 산 중턱에서 사격전만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오후가 되면서 검은 구름이 짙게 덮여 포나 박격포의 지원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공격은 다음 날로 미루어졌다.

수리산 좌측을 공격하는 터키여단도 205고지와 75고지간에 전개하여 수리산의 서쪽 기슭에 위치한 무명고지를 점령하였지만 제35연대와 마찬가지로 중공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더 이상 진출하지 못했다.

2월 2일, 미 제35연대는 11시를 기해 제2대대와 제1대대가 수리산의 남쪽과 동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4-3> 수리산 전투(1951. 1. 31~2. 6)


안양
ANYANG
수리산
451
150
XX
바레트
24미
24터키
(미)
1(터)
35(미)
27(미)
11(터)
35(미)
35(미)
35(미)
210
258
돌빈
골프장
Golf course
Water distribution Tower
Underground aqueduct
Underground reservoir
Tower
Pumping Station
Tower
Water distribution Tower
Tower
Tower

에서 일제히 공격에 나섰고, 1시간 후인 12시에 터키군이 서쪽에서 공격해 나갔다. 전 포병화력이 수리산 정상 부근의 중공군 진지에 집중되는 가운데 공격 부대들은 연막탄으로 중공군의 시야를 교란하면서 한발씩 전진해 나갔다. 특히 산본리로 이동한 미 제89전차대대의 전차들이 공격부대들을 직접 조준사격으로 지원함에 따라 점차 공격 속도가 빨라졌다. 미 제35연대 제2대대의 선두 공격부대인 E중대는 12시가 조금지나 수리산(474고지)을 점령하였다. 한편 좌측의 터키군도 이날 15시 45분경에 서북쪽으로 우회해 440고지(수리산 정상에서 서쪽으로 약 800m)와 431고지(440고지와 동쪽으로 연결된 고지)를 탈환하는 데 성공하였다.[49]

그런데 이때 중공군은 440고지의 남쪽 기슭에 위장이 잘된 진지를 구축하고 머리 위로 지나가는 터키군의 이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낮 시간을 숨죽이고 진지에서 움직이지 않던 중공군은 20시경에 이르러 미 제35연대가 점령하고 있는 474고지를 서쪽에서 공격하고, 431고지 북쪽에 급편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던 터키군을 배후에서 공격하였다. 이 공격으로 터키군은 431고지에서 각종 무기와 탄약을 유기한 채 철수를 강요당했으며, 474고지의 미 제35연대 E중대는 2월 3일 10시까지 중공군과 치열한 백병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미 제35연대 E중대의 처절한 혈투로 수리산은 끝까지 사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수리산 서쪽의 440고지는 여전히 중공군이 강점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점령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였다. 이에 미 제25사단에서는 사단예비로 있던 제27연대 제3대대를 투입해 터키여단과 더불어 440고지를 점령하게 하였다. 제27연대 제3대대와 터키여단은 총 4차례에 걸쳐 440고지를 공격한 끝에 2월 6일 마침내 고지 점령에 성공하였다.[50]

이로써 일주일간 진행된 수리산 전투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 전투로 인해 중공군은 수원 일대에서 물러나 북쪽인 안양 방면으로 후퇴하게 되었고, 유엔군은 한강선 확보를 목적으로 계속해서 북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무렵 경부국도를 따라 진격한 유엔군은 이미 과천을 지나고 있었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4) 모락산-관악산 전투

모락산-관악산 전투는 국군 제1사단이 서울 재탈환을 위한 교두보 확보를 위해 1월 31일부터 2월 9일까지 모락산과 관악산 일대에서 중공군과 격전을 벌인 전투였다.

국군 제1사단(사단장 백선엽 준장)이 배속된 미 제1군단은 1951년 1월 30일 수원-김량장리 선까지 진출한 후 31일부터 한강 진출을 위한 최후 공세를 시작했다. 당시 유엔군의 한강선 진출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1번 도로 서쪽의 수리산과 동쪽의 관악산이었다. 그런데 수리산과 관악산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1번 국도를 사이에 두고 수리산과 병렬해 있는 모락산을 반드시 점령해야만 했다. 모락산은 수원-서울간 1번 국도를 감제할 수 있는 고지였으며, 또 관악산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었다. 이러한 전술적 중요성으로 인해 공산군 측에서도 이곳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미 제1군단장은 한강선에 접근할수록 보다 강력한 적의 저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미 제3사단을 적정이 강한 수원 동쪽의 55번 도로 축선에 투입하는 한편, 신갈-김량장리에서 혈전을 펼친 터키여단을 서해안으로 이동시키고, 안성에서 군단예비로 주보급로를 경계 중인 국군 제1사단의 제15연대를 모락산 공격에 투입하였다.[51]

모락산 점령 임무를 부여받은 국군 제15연대(연대장 김안일 대령)는 1월 31일 미 전차의 지원하에 2개 병진대형으로 미륵동(彌勒洞) 일대에서 공격을 개시하였다. 제1대대(대대장 유재성 중령)가 미륵동 동북방으로부터 왕곡리 동쪽-백운사 일대로 진출한 후 모락산을 목표로, 제2대대(대대장 최형순 중령)가 통산(通山)-곡정(谷井)일대에서 모락산을 목표로 각각 공격을 시도했다.[52]

왕곡리 동쪽-백운사에 진출한 제1대대는 1월 31일 13시에 제2중대를 우로, 제3중대를 좌로 전개하는 즉시 공격을 시작했다. 1개 대대 규모로 판단된 적은 모락산에 주방어진지를 구축하고, 모락산 남쪽 1㎞ 지점에 위치한 213고지 일대에 1개 중대 병력을 배치해 국군 제15연대의 전진을 저지하고자 했다. 우측에서 공격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을 개시한 제1대대 제2중대는 13시 50분에 213고지를 탈환하였고, 좌측으로 공격을 개시한 제3중대는 213고지, 237고지, 200고지로 둘러싸인 오마동(五馬洞)에 집결중인 적을 포위 공격하여 17시경 213고지의 서쪽 능선 일대를 점령하였다.

한편 통산-곡정 일대에서 공격을 시작한 제2대대는 제6중대와 미 전차중대, 그리고 중화기 중대의 지원하에 제7중대가 237고지의 적을 정면공격하였으며, 좌측에서 제5중대가 내곡(內谷)으로 진출한 다음 237고지의 서쪽능선을 공격하였다. 이때 이곳을 방어하고 있던 2개 중대 규모의 적이 모락산(383고지)에 있는 1개 대대로부터 화력지원을 받으면서 격렬하게 저항하였다. 그러나 국군 제15연대 제2대대는 15시경 200미터 능선까지 진격한 다음 20분간의 백병전을 벌여 고지를 점령하였다. 제1, 제2대대가 고지 점령을 위한 전투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 예비대인 제3대대는 상광교(上光敎)부근에서 주력을 후속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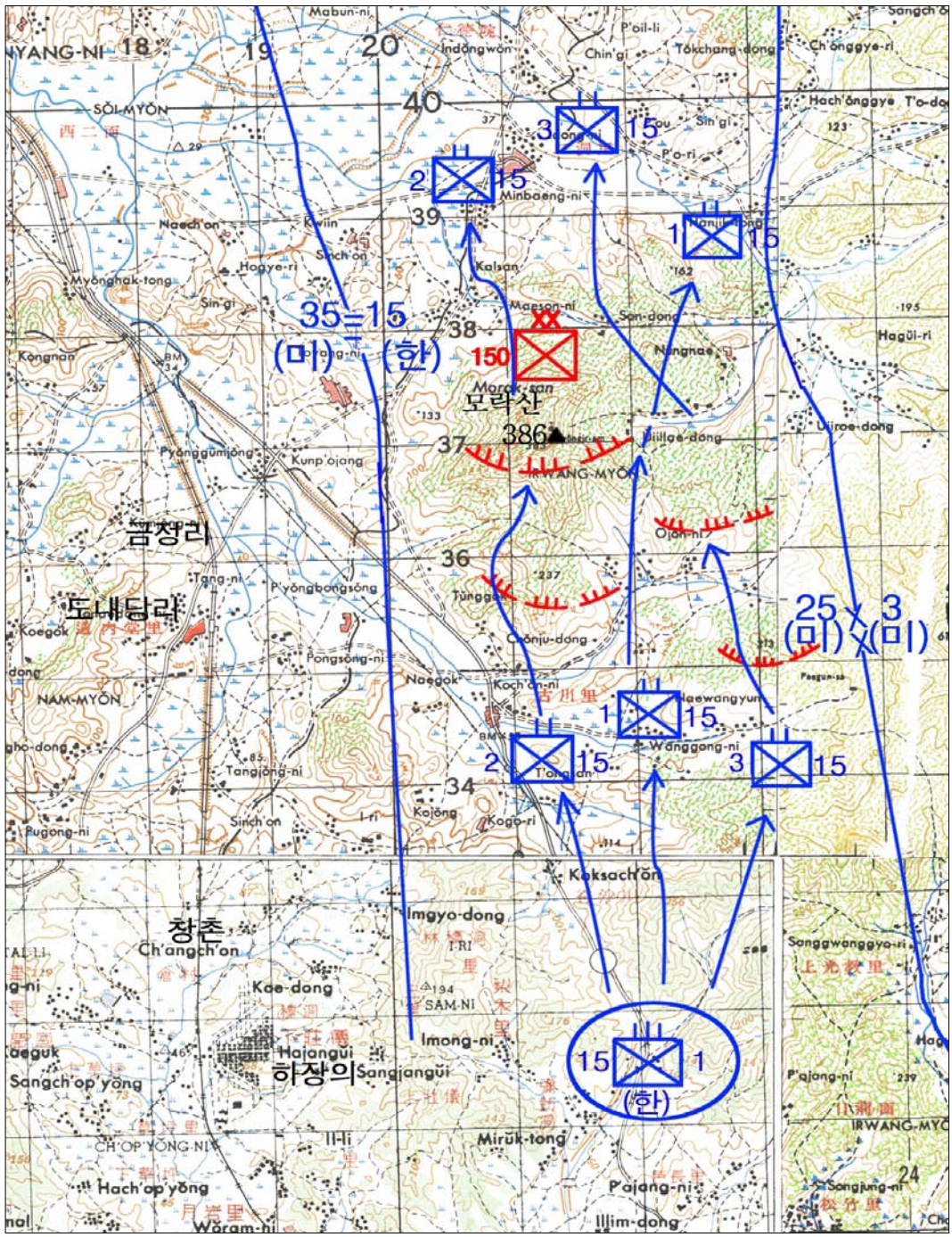
국군 제1사단 제15연대는 2월 1일 좌우 인접부대와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잠시 전진을 멈추고 전날에 점령한 진지를 보강하였는데 제1대대는 213고지에서 제2대대는 237고지에서 각각 진지를 구축하였으며, 예비대인 제3대대는 상광교 부근에서 다음 작전을 대기하고 있었다. 다음 날(2월 2일) 제15연대의 제1대대는 백운산과 광교산의 적을 견제함으로써 우인접 부대인 미 제3사단 제65연대의 진출을 엄호하는 한편, 정면에 있는 200고지 일대를 수색하였다. 그리고 제2대대는 제6중대가 237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제7중대와 교대한 다음 공격준비를 갖추고 경계태세에 임했으며, 예비대인 제3대대는 상광교 부근에서 계속해서 다음 작전을 대기하였다. 이 모든 조치는 2월 3일로 예정된 모락산 점령을 위한 총공격의 준비였다.

국군 제15연대장 김안일 대령은 2월 2일 18시부로 다음과 같은 요지의 '작전지시 제2호'를 예하 각 대대에 하달하였다.

"① 연대는 2월 3일 06:30을 기하여 현재의 배치선으로부터 작전명령 제4호에 의한 공격을 재개하여 F선까지 진출하려 한다. ② 제1대대는 내손리(內蓀里) 북쪽의 237고지를 공격하라. ③ 제2대대는 모락산 일대를 공격하라. ④ 제3대대는 제1대대 후방 1㎞를 속행(續行)하면서 연대 우측의 경계 및 잔적 소탕의 임무를 수행하라. ⑤ 예정된 진출을 완료하면 제1대대는 모락산 동북쪽-237고지 북쪽-학의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4-4> 모락산 전투(1951. 1. 31~2. 4)



일대에, 제2대대는 군포장 북쪽 덕현리-133고지-모락산 일대에 각각 병력을 배치하고 제9중대는 원대로 복귀하라."[54]

이 명령에 따라 제15연대는 2월 3일 진격을 다시 시작하였다. 제1대대는 우선 전방에 있는 200고지를 점령하고자 09시 50분에 포병과 전차의 엄호사격을 받으며 제2중대가 우측, 제3중대가 좌측으로 전진을 시작하였다. 200고지 일대에서는 1개 대대 규모의 적이 집요하게 저항하였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공격하는 지형의 불리와 적의 저항으로 제1대대는 일단 200고지 산록으로 물러서게 되었다. 200고지를 두고 제1대대와 적과의 전투는 이날 야간에도 계속되었다.[55]

한편 좌일선 공격제대인 제2대대는 07시 30분에 공격을 시작하여 미 전차대대의 지원을 받으며 16시경 모락산을 점령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 때 예비대인 제3대대가 상광교 서북쪽으로 진출하였으며, 제2대대에 배속된 제9중대가 237고지 일대를 확보하였다.[56]

제2대대의 모락산 점령에도 불구하고 제1대대는 다음 날 새벽까지 교전을 계속하였다. 2월 3일부터 계속된 200고지 공격에서 제1대대는 야간에도 일진일퇴를 되풀이 하다가 4일 04시경 예비대까지 모두 공격에 투입함으로써 마침내 07시 15분에 200고지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제1대대는 큰 피해를 입어 제3대대와 임무를 교대하게 되었다.[57]

국군 제15연대가 2월 4일 모락산을 탈환하고, 미 제35연대가 2월 6일 수리산을 탈환하는 데 성공하자, 미 제1군단장은 알렌 특수임무부대(Task Force Allen)[58]를 편성하여 미 제25사단 전방의 적 진지를 돌파한 후 한강으로 진출, 인천에서 영등포에 이르는 도로를 차단하고 김포공항 서쪽의 적을 공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우전방 미 제3사단으로 하여금 검단산(檢丹山)과 청계산(淸溪山)을 경유하여 한강까지 진출하도록 하였다.

이 무렵 공산군은 서부전선을 담당하던 중공군 제50군과 북한군 제1군단 주력이 한강 이북으로 철수하고 일부 병력만을 한강 이남에 배치하였다. 이러한 배치는 한셴추(韓先楚)의 건의를 받은 펑더화이가 2월 5일 저녁에 지시를 내림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날 펑더화이가 내린 명령의 주요 내용은 "중공군 제50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주력과 북한군 제1군단 주력이 6일 저녁 강북을 향해 이동하기 시작하고, 북한군 제1군단의 4개 대대, 중공군 제50군의 1개 연대와 1개 대대 병력이 한강 남안의 교두보 진지를 통제하면서 주력의 철수를 엄호한다"는 것이었다.[59]

이렇듯 공산군은 2월 6일을 기해 주력을 한강 이북으로 철수시키고, 일부 병력만을 한강 남안에 배치하여 유엔군의 진출을 지연시키고자 하였다. 특히 관악산을 중심으로 적은 방어거점을 강화하고자 인천에 대기 중인 북한군 제17사단 예하 병력을 이 지역으로 증원하였다.

한강 진출의 마지막 관문인 관악산을 점령하기 위해 제8군사령관은 제1군단장에게 관악산 점령을 독촉하는 한편 극동 해군사령관에게 적의 증원을 차단하기 위하여 인천 지역에 대한 위장상륙작전을 요청하였다. 사령관으로부터 관악산 점령을 독촉 받은 미 제1군단장은 모락산 공격을 담당한 국군 제15연대에 관악산 점령 임무를 부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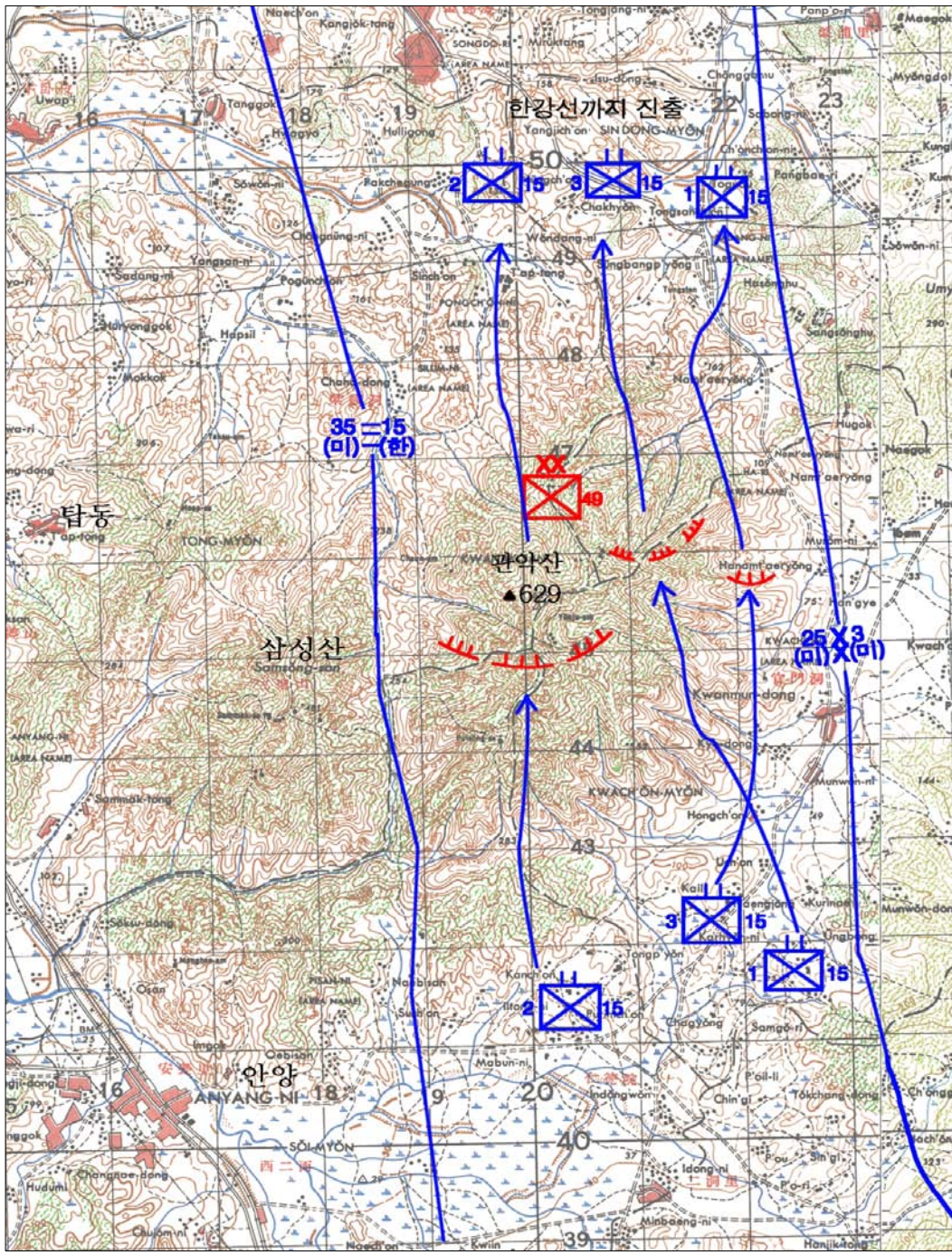
국군 제1사단 제15연대는 2월 9일 08시를 기해 제2대대와 제3대대를 관악산 공격에 투입하였다. 제15연대의 공격이 개시되자 적은 한강 남쪽의 마지막 방어거점인 관악산을 고수하기 위해 고지 정상에 자동화기를 배치하고 박격포사격으로 완강하게 저항하였다. 이날따라 고지 정상부근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지형식별은 물론 항공지원도 불가능하였다. 연대는 이러한 악조건하에서도 좌전방 제2대대와 우전방 제3대대가 험난한 지형을 극복하고 협조된 공격을 펼쳐 10시 20분에 고지를 점령하고, 계속해서 적을 추격하여 10일 11시 30분경에 노량진-영등포로 이어지는 한강선까지 진출하는 데 성공하였다.[60]

이로써 미 제1군단 예하의 미 제25사단(터키여단, 국군 제15연대 배속)이 1951년 1월 15일부터 수행한 서부전선의 오산-한강선 진격전은 2월 10일을 기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일단락되었다. 미 제1군단은 우인접 부대인 미 제9군단의 공격에 보조를 맞추는 한편, 서울 탈환을 위한 공격 준비에 들어갔다. 이와 더불어 미 제1군단은 김포와 인천지역의 잔적 소탕작전을 병행하면서 인천-영등포-대모산(大母山)으로 진출해 서울 공격을 목전에 두게 되었다.

이후 미 제1군단은 제8군사령관의 추격 정지명령에 따라 더 이상의 진출을 멈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4-5> 관악산 전투(1951. 2. 9~2. 10)



추고 정찰활동을 강화하면서 한강 도하준비에 주력하였다. 미 제1군단이 한강 남쪽에서 정지한 것은 제8군사령관의 전술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제8군사령관은 '서울 탈환'이 군사적으로 큰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강 이북에 부대를 배치할 경우 배후의 한강이 장애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때문에 제8군사령관은 서부전선의 방어선을 한강 이남으로 제한하고 중서부와 중동부전선 부대들의 북상에 따라 보조를 맞춰 서울 탈환 작전을 진행하고자 계획하였다.[61]

2) 중동부지역의 제2전선 차단작전과 위력수색작전

(1) 적성리 전투

적성리 전투는 1951년 1월 12일부터 1월 15일까지 미 제10군단 예하 특수작전단(Special Activities Group)의 작전통제를 받고 있던 국군 특공대대가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적성리 계곡에서 북한군 제2군단 제10사단 소속의 1개 연대를 섬멸시킨 전투였다.

서부와 중서부전선에서 국군과 유엔군이 중공군의 제3차 공세로 인해 37도선으로 철수하여 방어선을 구축하는 동안에 중동부와 동부전선에서는 북한군 제2군단 예하 4개 사단(제2, 제9, 제10, 제31사단)이 홍천-횡성-원주 선으로 종심 깊게 침투하여 단양, 문경, 영주, 안동 일대에 제2전선을 형성하였다.

북한군 제2군단의 침투로 인해 중동부와 동부전선의 국군 제3군단과 국군 제1군단은 홍천-주문진의 방어선을 유지하지 못하고 1951년 1월 5일 20시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258호'(수정명령 제1호)에 의거해 영월-삼척선(일명 '황우선')으로 철수하였다.[62]

1월 9일 이형근 준장의 후임으로 제3군단장에 부임한 유재흥 소장은 영월 북쪽으로 흐르는 남한강을 따라 좌전방 제7사단을 영월 북동쪽 완택산(完澤山) 일대에, 우전방 제9사단을 정선 부근에 각각 배치하였다. 그리고 군단의 전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배속된 국군 제3사단을 군단예비로 춘양에 배치하였다. 이로써 국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3군단은 10일부터 태백산맥의 험준한 지형을 이용해 침투하는 적의 이동을 차단할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하게 되었다.

북한군 제2군단은 낙동강 전투 이후 동부 산악지대로 철수하면서 북한군 낙오자와 패잔병들을 모아 화천-김화-양덕 일대에서 재편성한 부대로, 유엔군이 평양에서 철수할 때 게릴라전을 수행한 부대였다. 이에 따라 이들은 중동부와 동부 산악지형에 익숙하고 침투전술에 능하였다.[63] 북한군 제2군단은 중공군의 제3차 공세로 국군 제3군단과 미 제10군단 사이에 간격이 생기자 이를 통해 제10사단을 선두로 병력을 추진시켜 국군과 유엔군의 후방을 교란시키려고 하였다. 이들 침투 부대의 최종 목표는 단양을 거쳐 대구에 도달하는 것이었다.

중동부전선의 상황을 분석한 제8군사령관은 이 지역의 최대 위험 요소가 원주로 내려오는 북한군 제5군단이 아니라 이 통로로 침투 중인 제2군단이라고 판단하고서 미 제10군단에 지역내의 통로 차단과 북한군의 격멸을 명령하였다. 그리고 1월 11일 제8군 예비로 상주 부근에 대기하고 있던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을 안동으로 이동시켜 미 제10군단에 배속하였다. 이와 더불어 북한군이 안동-영덕 간의 도로 남쪽으로 진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함흥에서 철수하여 마산에 대기중이던 미 제1해병사단을 영천-경주-포항 지역으로 이동시켜 후방지역 경계를 강화하였다.[64]

미 제10군단장은 제천-영월 사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문막 동쪽에 위치하던 국군 제5사단을 이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국군 특공대대(대대장 배동걸 소령)로 하여금 황장산(黃場山) 기슭의 적성리(赤城里)를 수색 정찰하도록 임무를 부여하였다.[65] 적성리는 점촌에서 단양으로 침투한 북한군이 엄폐가 용이한 계곡통로를 이용해 영주, 문경, 점촌, 예천으로 나갈 수 있는 요충지였다. 당시 이곳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약 500명이었으며, 피란을 가지 않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곳의 지형은 소백산맥의 주류에 속하는 지대로 북쪽에 해발 1,000m가 넘는 수리봉과 황장산이 솟아있고, 서쪽에 천주봉(△823)이 남쪽으로 이어져 있으며, 동쪽으로 해발 600~700m의 산들이 펼쳐져 있었다. 작전이 실시되던 당시의 기온은 평균 영하 15℃ 정도였으며, 약 15cm의 적설량을 기록하고 있었다.[6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미 제10군단장으로부터 수색 정찰 명령을 받은 국군 특공대대는 30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미 제10군단 예하 특수작전단(Special Activities Group)[67]의 하인즈(Haynes) 중령이 직접 통제하였다. 특공대대는 3명의 미 군사고문관으로부터 작전을 지원받았으며, M2 칼빈소총, 자동소총, 경기관총, 로켓포, 중화기 등을 보유하여 다른 대대에 비해 화력이 비교적 강했다.

국군 특공대대는 1월 11일 안동에서 차량으로 점촌에 도착하여 12일 미명에 다시 적성리를 목표로 전술 행군을 시작했다.[68] 대대는 제2, 제1, 제3중대의 순으로 전진해 13시경 제2중대가 동로면 장기부락에 도착했다. 중대는 이곳에 도착하기 전 수평리(적성리 남쪽 8km)에서 경찰 및 청년방위대원 약 60여 명과 합류해 이들의 안내를 받아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선발부대인 제2중대는 적의 기습을 대비해 동로면 지서 뒤쪽의 능선 일대에 방어진지를 구축하였고, 제2중대에 이어 14시경에 본대가 도착하였다.

12일 14경 대대 병력이 모두 적성리에 도착하자 대대장 배동걸 소령은 북쪽에 제2중대, 동쪽에 제1중대, 서남쪽에 제3중대를 각각 배치하고, 경찰 16명과 청년방위대원 42명을 대대본부 방어에 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황장산 계곡 일대에 수색대를 파견하였다. 이날 20시경 벌재 쪽에서 총성이 울린 후 청년방위대원 1명이 복귀하여 "적이 이곳으로 넘어오고 있으며, 함께 있던 군인들이 적과 교전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당시 북한군 제10사단 소속의 연대 병력은 벌재를 넘어오다가 아군 경계부대와 조우하게 되자 아군이 적성리에 주둔하고 있음을 감지하고서 주요 지점을 점령하였다. 곧이어 적은 사방에서 접근하여 아군 진지를 포위하기에 이르렀으나 이때까지 특공대대는 적의 움직임을 포착하지 못했다.[69]

특공대대는 12일 밤 영하 18℃의 추위 속에서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러던 중 1월 13일 05시경 꽹과리와 북소리를 신호로 하여 적이 동쪽과 북쪽에서 기관총과 소총사격을 대대 진지에 집중하였다. 약 30분간 사격을 가한 후 적은 05시 30분경부터 적성리의 아군 진지로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적의 첫 번째 공격은 동쪽의 제1중대 정면에 가해졌다. 제1중대는 지근거리 사격으로 적의 공

격을 저지하였고, 적은 06시경에 많은 시체를 남기고 퇴각하였다.

대대장은 적의 우세한 공격에 직면하자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때 대체적인 의견은 이곳에서 철수하자는 것이었다. 회의에서는 "후속부대가 없는 수색부대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적과 교전할 필요가 없으며, 계속해서 교전할 경우 전멸할 수도 있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미 고문관들도 대대장의 결심을 촉구하였다.

대대장은 이곳을 탈출할 수도 있겠지만 대신에 많은 희생이 동반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적이 동·서·북의 삼면에서 공격을 가하는 데 남쪽의 아군 보급로를 그대로 방치해 놓았을 리가 없다는 것이 대대장의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대대장은 현 진지에서의 방어를 결심하고 진지사수를 명령했다.[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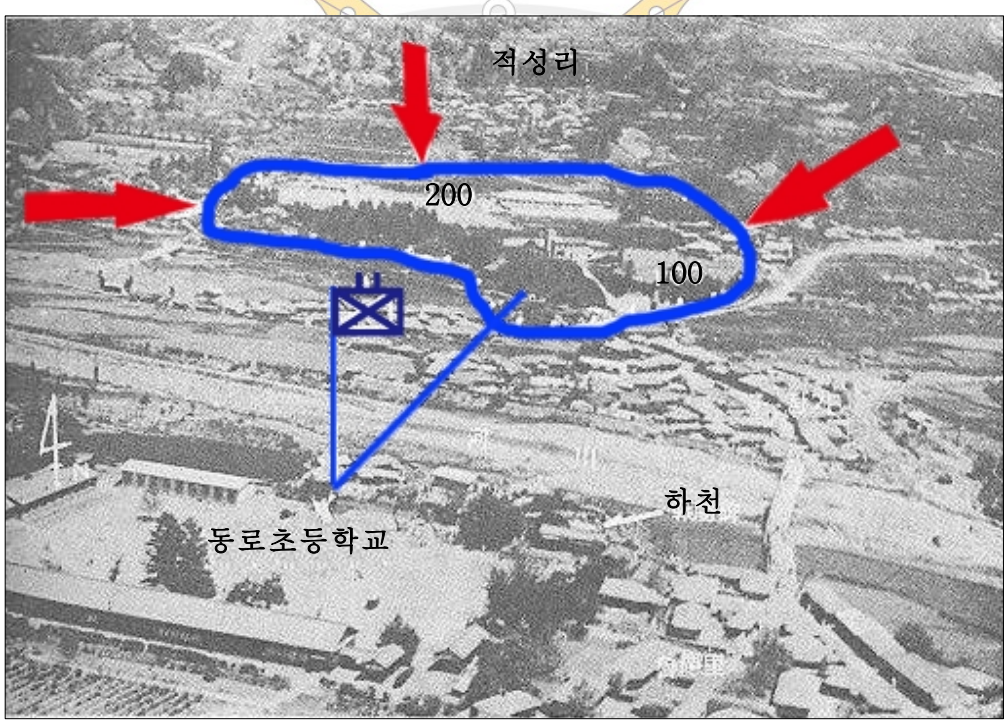
북한군의 제2차 공격은 제2중대 정면인 적성리 쪽에서 시작되었다. 동이 트기 시작한 상황에서 적은 희생을 무릅쓰고 파상적으로 공격을 가해 왔다. 제2중대는 3.5″로켓포와 기관총 사격을 집중하여 적의 공격을 저지하였으나 06시 40경에 제2중대 방어정면의 중앙이 돌파되기 시작하였다. 제2중대원들은 진지로 접근한 적을 상대로 백병전까지 전개하면서 그들의 공격을 막아냈다.

북한군은 제2차 공격에서 많은 희생자만 남기고 목표 달성에 실패하자 이번에는 제3중대 정면인 서쪽과 서남쪽에서 공격을 가해 왔다. 그러나 아군 진지의 서남쪽에는 석벽과 아군의 토치카진지가 있었고, 또 서쪽에는 공격시에 엄폐가 어려운 밭이 정면에 존재하였기 때문에 지형상 북한군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은 무모하리만큼 아군의 진지정면에 대한 공격을 시도했다. 그 결과 그들은 진전 50m를 넘지 못하고 많은 시체만을 남긴 채 퇴각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와 같이 3차례의 공격이 실패하자 북한군은 주간 공격을 단념하고 야간 공격으로 전환하여 1월 14일 01시경 전면 공격을 가해 왔다. 배동걸 대대장은 탄약 수량을 감안하여 각 병사들에게 적이 10~20m의 근거리에 이르렀을 때 정확한 사격을 가하도록 강조하는 한편 결정적인 시기에만 수류탄을 사용하도록 지시했다. 적도 전날의 막대한 손실 때문인지 공격력을 강화하여 집중 공격을 계속하였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특공대대는 정확한 사격통제 하에 사격을 실시하면서 날이 밝을 때까지 교전을 계속했다. 그러다가 1월 14일 09시 30분경 유엔 공군의 F-51전폭기 4대가 상공에 출현해 미 고문관들의 무선유도를 받으면서 적진에 기관총과 네이팜탄 공격을 가함으로써 특공대대의 사기가 충천하였다. 유엔 전폭기들이 북한군 집결지를 강타하고 복귀한 후에는 헬리콥터가 날아와 탄약과 보급품을 동로초등학교 교정에 투하해 주었다. 대대장은 즉시 병력을 보내어 보급품을 운반하도록 했다. 보급품 운반과정에서 미 연락장교인 해리슨(Harrison) 소령과 통신병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지만, 특공대와 청년방위대원들은 빗발치는 적의 포탄 속을 뚫고서 보급품을 옮기 기는데 성공하였다. 이때 제2차로 F-51 전폭기 4대가 근접항공지원을 제공하였다.



적성리의 전경과 당시의 상황

북한군은 14일 밤 재차 공격을 가하였다. 하지만 특공대대는 이날 오후에 탄약과 보급품을 지원받은 상태였고, 또 적의 공격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감으로 충만되어 있었다. 대대는 10m 앞까지 적을 유인한 후 수류탄을 투척하고 사격을 가하는 방식을 되풀이 하면서 적의 공격을 저지하였다. 수차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희생자만 계속해서 늘어나자 적은 1월 15일 오전에 공격을 중지하고 엄호부대만을 남겨둔 채 퇴각하기 시작했으며, 11시 30분경에 이르러서는 이들 엄호부대마저 완전히 퇴각하였다.[71]

이로써 1951년 1월 12~15일 3일간 진행된 적성리 전투는 국군 특공대대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 이 전투에서 대대는 1,247명의 북한군을 사살하였으며, 장교 7명과 사병 72명을 생포하였다. 또한 박격포 2문과 각종 소총 370정을 획득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이에 반해 아군의 손실은 전사 9명, 부상 2명, 미군 부상 2명, 민간인 사망 4명, 경찰 부상 1명, 청년방위대원 전사 7명 등이었다.

이와 같은 전과를 보고 받은 미 제10군단장 알몬드 소장은 헬리콥터로 참모들을 대동하고 직접 특공대대를 방문해 격려하였으며, 육군본부에서도 부관감을 현지에 파견해 장병들을 격려하였다. 1월 16일 특공대대는 미 제10군단장의 명령에 의하여 충주방면으로 이동하였다.[7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남대리 부근 전투

남대리 부근 전투는 국군 제3군단 예하의 제3사단이 주축이 되어 1951년 1월 14일부터 22일까지 영월 동남쪽의 남대리 일대로 침투한 북한군 제31사단을 옥석산, 어래산 등지에서 격멸한 전투였다.

남대리는 강원도, 경상북도, 충청북도의 분기점이었다. 이 지역에는 태백산(△1561)-구경산(△1341)-마구령(△792)-형제봉(△1178)-죽령 등으로 연결되는 소백산맥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뻗어 있었다. 이 지역의 도로망은 삼척-장성-춘양-내성-영천간의 35번 도로와 춘양-서벽리-녹전-영월간의 998번 도로, 내성에서 남대리 남쪽을 지나는 915번 도로가 있으나 노면이 협소하고 굴곡이 많아 매우 불량한 상태였다. 당시 작전지역의 기온은 영하 12~20℃를 오르내렸으며 강설과

결빙이 잦아 기동에 어려움이 컸다. 그러나 적에게는 침투 시 기동력의 약점을 역이용할 수 있고 또 퇴각시에는 태백산맥을 이용할 수 있는 지형상의 이점을 제공하는 곳이기도 했다.

국군과 유엔군의 후방지역을 교란하기 위해 중동부전선으로 침투한 북한군 제2군단은 1951년 1월 12일 현재 제10사단이 단양-안동지역에, 제2사단이 단양군 원춘면 원만허(남대리 서쪽 15km)에, 제9사단이 영월 동남쪽 옥동리를 경유 주문리(남대리 서북 10km)에, 제31사단이 남대리에, 제27사단이 망경대산(주문리 북쪽 4km)에 각각 침투 중이었다.[73]

이에 국군 제3군단은 제9사단을 군단의 우측부대로 송계리-정선-후천 간에, 제7사단을 군단의 좌측부대로 후천-완택산(△916)-두평(영월 동쪽 4km) 간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군단예비로 춘양에 집결 중이던 제3사단을 남대리에 투입하였다.

국군 제3사단이 군단으로부터 전선 이동 명령을 하달 받은 것은 1월 9일이었으며, 이 명령에 따라 사단은 1월 10일 '사단작명 제4호'로 예하부대를 12일까지 남대리 방면으로 추진시켰다.[74] 이 무렵 군단사령부에서 판단한 적정은 다음과 같았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① 옥동리를 경유하여 주문리 일대와 마대산 방면으로 침투한 적 제9사단의 제3, 제244연대는 14일 주력을 곡구에 집결하여 목실리를 점령한 제7사단 제5연대 제3대대 진지를 돌파하고 춘양-영월간의 본도를 차단할 기세로 보인다.

② 남대리 방면에 침입한 적 제31사단의 일부 병력 약 500명은 야간기동으로 14일 02:00에 수가(水家)에 집결한 다음 선견부대는 주실령을 넘어 06:00에 제22연대의 전면인 서벽리 서측방으로 침투하고 있었는데 이 적의 기도는 장차 내덕리-춘양간의 998번 도로를 차단할 목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③ 남대리-와곡 부근의 적 제31사단의 후속부대로 중공군과 북한군으로 혼합 편성된 3,000명 규모의 적이 영월부근에서 남하하고 있는데 이들의 작

전기도는 제31사단과 호응하여 춘양-내성-영주간의 기동로를 차단하고 군단 사령부가 위치한 내성을 일거에 점령할 목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④ 이러한 적의 동향에 따라 군단의 주진지인 황우선상, 즉 송계리-정선-후천-두평(영월 동쪽 4km)선의 전면에는 강력한 적의 저항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오히려 군단의 주력부대도 방어선 후방의 위협을 제거해야만 할 상황에 놓였다.[75]

이러한 적정 판단에 따라 군단장 유재흥 소장은 다음과 같은 작전을 구상하였다. 즉 "적의 주력이 이미 황우선의 후측방으로 침투하였기 때문에 황우선의 주력부대는 적 후속부대의 남하를 저지하고, 그 좌측방인 영월부근의 적을 격멸하는 동시에 예비대를 전용하여 방어선 후방에 침투한 적을 측면과 후방에서 공격한다. 이를 위해 군단의 예비사단인 제3사단을 북상시켜 협공을 통해 적을 섬멸한다"는 것이었다. 군단장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명령을 구두로 예하사단에 하달하였다. 이 때 제3사단에 하달된 군단장의 명령은 "제23연대로 하여금 제7사단 제5연대를 지원하게 하고 제22연대의 1개 대대를 군단의 후방을 방어하기 위해 주문리로 이동시키며, 제18연대를 남대리로 북상시키라"는 것이었다.

군단장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제3사단장 최석 준장은 이날 미명에 다음과 같은 요지의 '사단작명 제5호'를 예하부대에 하달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8연대는 물야면으로 진출하여 남대리-의풍리 일대의 적을 격멸하고, 제22연대는 제1대대를 서벽리-주실령 일대로 전진시켜 후방경계에 임하며, 제23연대는 녹전으로 이동하여 제7사단장의 작전지휘를 받으라"는 것이었다.[76]

사단의 각 연대는 1월 14일 전투담당지역을 목표로 기동을 시작하였다. 제18연대는 장동에서 사단과 연대의 전 차량을 동원한 차량기동으로 이날 밤 물야면에 집결하였다. 그 뒤를 이어 제22연대가 서벽리-주실령 부근의 북한군을 공격하기 위하여 제1대대의 주력과 제2대대의 일부 병력을 출동시켰으며, 제23연대가 법전을 출발해 녹전으로 이동하였다.

국군 제3사단의 남대리 부근 전투는 1월 15일 제22연대의 주실령 공격으로부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시작되었다. 제22연대는 공격에 앞서 주실령의 북한군을 삼면에서 포위하였다. 연대는 제1대대를 주실령 정면에, 제2대대를 좌측의 옥석산 방면에, 제3대대를 주실령 서남쪽 4km의 수가에 각각 배치하였다.

병력 배치가 완료되자 06시경에 제1대대가 주실령의 북한군 400명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1시간에 걸친 치열한 교전 끝에 대대가 북한군의 방어선을 돌파하자 적은 수가 방면으로 후퇴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북한군은 수가에서 제3대대와 충돌하게 되자 당황하여 다시 북쪽의 박달령을 향해 탈출을 기도했다. 이 때 연대 수색대가 조제리에서 남하 중에 이들을 역습하여 궤멸적인 타격을 입혔다.

제22연대가 주실령 공격을 감행하는 동안에 제18연대는 선달산 공격에 나섰다. 제1대대는 연대의 우측 부대로서 물야면 오록리를 출발한 다음 954고지를 점령하고 계속해서 전진해 이날 13시 20분경 선달산에서 적 1개 대대와 격돌하였다. 제1대대는 화력전과 백병전을 전개하였으나 일몰 이후부터 전투가 교착상태에 들어갔다. 그러나 18시경에 적이 야음을 틈타 기습을 감행함으로써 무려 4시간에 걸친 치열한 공방전 끝에 적을 격퇴하였다. 그동안 제2대대는 06시에 대율동을 출발하여 1051고지-마구령-1096고지를 점령하였으며, 제3대대는 연대 예비로 오록리에 위치하였다.

남대리 동남쪽 3km 지점을 점령한 제18연대 제1대대는 선달산으로부터 공격하는 적을 16일 04시에 완전히 격퇴하였다. 제1대대는 06시부터 반격을 단행하여 정오 무렵 선달산(△1236)을 점령하는 데 성공하였다. 적은 이날 야음을 이용해 3차에 걸쳐 야간공격을 시도했지만 모두 격퇴되었다. 제1대대가 반격을 시도한 후 제2대대도 우일선의 제1대대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남대리의 적을 서남방에서 압박하였다.[77]

제18연대의 주력부대는 17일 포병과 항공기의 지원을 받으며 06시 30분에 공격을 재개하여 북한군 제31사단의 거점인 남대리 일대를 13시경에 완전히 점령하였다. 이후 제18연대는 서북쪽의 미사리어구-명생동-어래산을 점령한 제23대와 협공으로 의풍리 공격에 나섰다. 이 때 제18연대 제1대대는 의풍리 우측 무명고지를 점령하였으며, 제2대대 역시 송내-중마-마흘천-어은동을 연한 선으로 진격하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여 의풍리 좌측 고지를 점령하였다. 제3대대는 연대의 후측방을 방호하기 위하여 11시에 수화-탑평 일대의 고지로 이동하였다.

제18연대는 1월 19일 남대리 부근의 작전 임무를 제23연대에 인계하고 주력을 후방으로 이동시켰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이 지역의 작전은 국군 제7사단에 배속된 제23연대가 전담하게 되었다. 제23연대는 19일 08시 30분경에 우측의 제7사단 제3연대와 병진 공격하여 골어구-거석-와석일리 간에 배치된 적을 13시경에 섬멸하였다. 이로써 북한군 주력 부대는 큰 타격을 입고 서북쪽의 영월방면으로 퇴각하였다.[78]

국군 제3사단의 남대리 전투로 적은 큰 타격을 입고 주력이 영월-제천간의 국군 제7사단과 미 제7사단의 간극을 통하여 서북 방면으로 퇴각하였으며, 그 일부는 남대리에서 서쪽의 형제봉일대로 분산 도주하였다. 작전 기간 중 국군 제3사단은 1,462명의 북한군을 사살하고 67명을 생포하였으며, 박격포 2문과 각종 소총 133정을 노획하였다. 반면에 사단의 피해는 전사 42명, 부상 113명, 실종 43명이었다.[79]

(3) 영월 부근 전투

영월 부근 전투는 국군 제3사단이 남대리 전투에서 동북방면으로 공격하는 동안에 국군 제7사단과 배속된 제3사단 23연대가 1951년 1월 19일부터 24일까지 석항-두평 등 북쪽에서 영월을 공격한 전투였다.

국군 제7사단은 1951년 1월 8일 영월로 철수한 후 제3군단의 좌측 방어부대로서 제3연대가 영월 동쪽 두평에서 원택리까지, 제8연대가 신촌에서 연하동까지 배치되어 적의 후방 침투를 저지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사단이 담당한 전투지역내의 지형은 동쪽으로 태백산맥이 위치하고 그 서쪽으로 뻗은 지맥들도 평균 1,000m에 이르러 피아간의 기동에 제한을 주었다. 정선과 평창에서 흘러온 남한강의 지류가 영월 남단에서 합류해 단양 쪽으로 흐르지만, 이러한 하천은 작전기간 동안에 결빙되어 보병의 기동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주요 도로는 영월을 중심으로 석항-녹전리(영월 동남쪽 18km)-춘양, 영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평창-대화, 영월-제천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보급로인 동시에 차량부대의 기동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영월은 피아간에 주요 쟁탈 목표가 되었다. 작전 기간 중의 날씨는 대체로 맑았으나 기온이 낮아 전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큰 편이었다.[80]

정선-영월지역으로 공격하던 북한군은 최현 상장이 지휘하는 북한군 제2군단이었다. 북한군 제2군단은 제9사단이 망경대산과 용봉산을 장악하고 일부가 마대산(옥동리 남쪽)과 소백산맥 쪽으로 남진하고 있었다. 또한 북한군 제2사단의 선봉부대가 풍기까지 침투하였으며, 제10사단이 영월에서 국군 제7사단과 대치중이었다. 그리고 길원팔 유격부대가 영월에서 국군 제8연대와 교전 끝에 평창으로 퇴각하여 분산된 부대를 규합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군 제3군단은 전장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적의 차기공세를 사전에 분쇄하기 위하여 원주-강릉 선에서 적에게 큰 손실을 주고, 이어 제천-영월-정선-삼척선 남쪽으로 공격하는 적을 격퇴하는 즉시 공세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영월지역에서 전투를 벌이게 된 국군 제7사단은 1월 14~15일 사이에 부대 배치를 완료하였다. 제8연대는 북쪽 완택산에서 석항간을 점령하였는데, 제3대대가 완택산을, 제2대대가 935고지를, 제1대대가 815고지를 각각 점령하고 일전을 준비하였다. 제5연대는 14일에 대야리(영월 남동쪽 10km)로 진격하여 남한강 연변에 진지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제3연대는 14일에 석항-녹전리간에 위치하였다. 이때 제1대대가 예미산을, 제2대대가 이목리를, 제3대대가 운적산을 각각 점령하였다.[81]

국군 제7사단은 정선-영월간의 전선을 확보하면서 담당 전투지역을 공격하는 적을 격멸하는 동시에 영월을 탈환하여 유리한 지형을 이용,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반격작전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사단장 김형일 준장은 적의 증원부대가 투입되기 전에 지역 내에 침투한 적을 포착 섬멸하고 영월을 탈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의 '사단작명 제74호'를 하달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① 사단은 1951년 1월 19일 H시를 기해 제8연대를 우일선, 제3연대를 좌일선으로 하여 현 접촉선인 석항-운적산에서 서쪽으로 공격한 다음 영월 중앙으로 흐르는 남한강 연안까지 진격하여 지역내에 침공한 적을 격멸하고 계속하여 영월을 탈환하려 한다.

② 제3연대는 사단의 주공이 되어 망경대산과 용봉산을 점령하고 의명, 영월을 탈환하라.

③ 제8연대는 북쪽 신병산에서 공격할 수 있는 적을 견제하며 일부병력으로 석항-영월간의 도로를 따라 동부 영월을 점령하라.

④ 제5연대는 최초 사단 예비대가 되어 현 위치(△935)에서 석항 북쪽 진지를 점령할 준비를 갖추면서 대기하라.

⑤ 포병 제16대대는 사단 정면을 일반 지원하라. 화력의 우선권을 제3연대 정면에 둔다.[82]

이 명령에 따라 국군 제7사단은 1월 19일 08시를 기해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여 망경대산에서 저항하던 2개 대대 규모의 적과 치열한 교전 끝에 고지 점령에 성공하였다. 사단은 우측에서 석항, 좌측에서 주문리까지 진격하여 지역 내 적을 압박하는 동시에 정선-영월간의 전선을 유지하였다.

제3연대는 이날 예미산(△989)-이목리를 연하는 선에서 망경대산의 정면과 좌측방을 공격했다. 이곳을 방어하던 1개 대대 규모의 북한군도 고지의 중요성으로 인해 저항을 쉽게 굽히지 않았지만, 정면에서 공격하던 제1대대가 3시간에 걸친 치열한 교전 끝에 14시경 만경대산을 점령하였다. 대대는 계속해서 퇴각하는 적을 추격해 만경대산의 서쪽 끝까지 진출하였다. 이 무렵 제2대대는 적 1개 중대 규모의 병력을 격퇴한 후 만경대산의 서쪽으로 우회하면서 주문리(녹전 서쪽 7km)까지 적을 추격하였고, 제3대대는 운적산에서 제1, 제2대대의 공격을 지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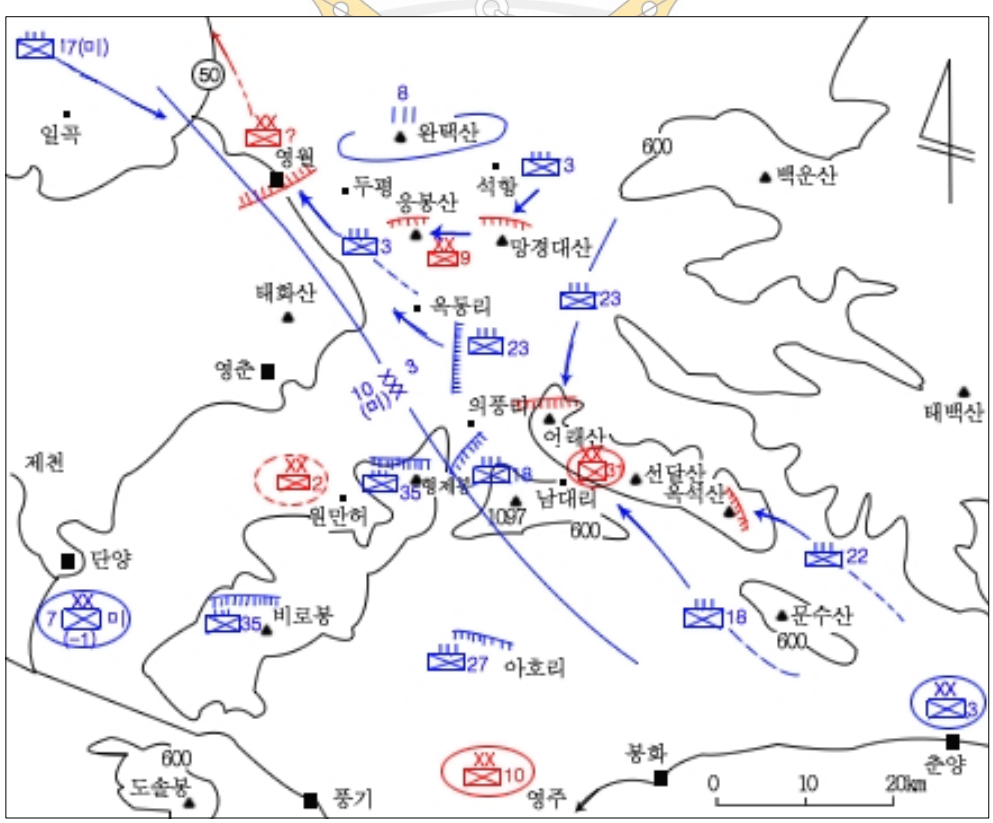
제7사단의 조공 연대인 제8연대는 부여된 임무와 지형 조건을 고려하여 연상리(815고지)의 제1대대만을 공격에 투입해 1개 중대 규모의 적을 격퇴하고 694고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만경대산 서북쪽 3km)를 점령하였다. 대대는 제3연대의 공격에 호응하여 우측방에서 망경대산의 적을 협공하였는데, 이날 적 23명을 사살하고 전사 5명, 전상 3명의 손실을 입었다. 한편 제2, 제3대대는 제1대대의 공격을 지원하면서 935고지-완택산간을 확보하고 북쪽 신병산에서 공격할 것으로 예상되는 적과 대치하였다.[83]

제3, 제8연대의 상황을 보고받은 제7사단장은 이날(19일) 15시에 정선-영월선을 확보하고 있던 병력이 공격으로 전환함에 따라 덕천리(석항 북쪽 7km)에서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적에 대비하여 제5연대를 석항의 821고지-875고지간에 배치하였다.

<상황도 4-6> 영월 부근 전투(1951. 1. 19~2. 24)



한편 제7사단에 배속되어 영월 부근 전투에 가담 중이던 제3사단 제23연대는 1개 대대 규모의 적 병력을 격퇴하고 제1대대가 외용리(녹전 남서쪽 7km)의 930고지, 제2대대가 의풍리(녹전 남서쪽 11km), 제3대대가 예비로 어래산에 위치하였다.

국군 제7사단은 전날에 이어 20일에도 공격을 계속해 용봉산과 적의 근거지인 옥동리를 협공하였다. 제3연대는 적이 용봉산(△1013)을 고수하기 위해 전초진지 역할을 하는 988고지-832고지를 연하는 능선에서 완강하게 저항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연대는 예비대를 공격부대의 후미에 근접 배치하고 공격을 전개하였다. 이때 제1대대는 망경대산에서 용봉산으로 이어지는 능선을 따라 공격을 감행하던 중 964고지의 적 경계부대를 격파한 후 988고지에서 적과 격전을 벌였다. 988고지의 적이 소화기와 수류탄으로 완강하게 저항하자 제1대대는 모든 포화를 이곳에 퍼부으면서 일진일퇴의 격전을 반복하다가 11시경 고지 점령에 성공하였다. 이 무렵 제2대대는 예미촌까지 진격하여 832고지에서 저항하는 적과 3시간에 걸친 공방전을 벌여 고지를 점령하였다. 이때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예비대로 망경대산 서쪽에 위치하던 제3대대가 용봉산의 좌측방으로 공격에 나서 고지 점령에 성공하였다. 제8연대는 이날 2개 대대로 공격을 전개하여 제1대대가 785고지(연하리 남쪽), 583고지를 차례로 점령한 후 용봉산의 제3연대와 연결하였으며, 제2대대가 935고지에서 완택산을 거쳐 남서쪽으로 진격하여 872고지(연하동 서북쪽)를 점령한 다음 남쪽으로 뻗은 능선을 따라 병력을 배치하여 제1대대와 연결하였다.[84]

제7사단은 1월 21일 영월에서 단양으로 흐르는 남한강변까지 진격하여 적의 퇴로를 차단하고 지역내의 잔적을 소탕하기 위한 작전을 전개하였다. 이를 위하여 사단장 김형일 준장은 제8연대장에게 "귀 연대에 부여된 임무인 영월-계족산을 이날 미명을 기하여 신속히 점령하고 퇴각하는 적을 격멸하라"고 명령하였다. 이 명령에 따라 제8연대는 미명을 기하여 기습공격을 감행한 결과 연대 정면의 적을 격파하고 제1대대가 계족산을 점령하였다. 이 무렵 제2대대는 완택산에서 서남쪽으로 뻗은 능선을 따라 영월을 목표로 돌진하여 적의 퇴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를 차단하고 적을 격파한 후 남한강 연안에 급편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이때 적은 영월 방어의 교두보 역할을 하던 계족산을 잃고 퇴로마저 차단을 당하게 되자 분산된 상태로 남한강을 건너 서쪽의 미 제10군단 지역으로 퇴각하였다. 이와 같이 제7사단은 21일을 기해 지역 내에 침공한 적을 격퇴하고 정선-영월선을 확보함으로써 사단 후방지역에 대한 적의 위협을 제거하였다.

국군 제7사단은 1월 22~23일 양일간 군단의 작전계획에 따라 좌측의 미 제10군단이 단양-제천 선에서 영월-제천 선을 연한 지구로 진격하는 경우를 대비해 현 진지를 보강하고 영월 탈환을 위한 공격을 준비하였다. 이때 국군 제3군단장 유재흥 소장과 미 제10군단장 알몬드 소장은 적에게 부대를 재편성할 시간을 주지 않고 격파하기 위하여 24일 영월을 협공할 것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국군 제7사단장 김형일 준장은 미 제7사단장 바르(Barr) 소장과 상호 연결작전에 대해 협의하였다.[85]

국군 제7사단은 1월 24일 영월 공격을 위한 다음과 같은 요지의 '사단작명 제75호'를 예하부대에 하달하였다.

① 사단은 이날 미명을 기하여 영월을 공격 점령한 다음 미 제7사단과 연결하여 이 선을 확보하려 한다.
② 제3연대는 영월을 공격 점령하라.
③ 제5, 제8연대는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되 제8연대는 최초 제3연대의 공격을 지원하라.
④ 제23연대는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며 일부병력으로 가동리(대야리 서쪽 3km)를 목표로 진격한 다음 미 제7사단의 후속부대와 협력하면서 적의 패잔병을 격멸하라.
⑤ 포병 제16대대는 제3연대의 공격을 직접 지원하라.[86]

영월 공격 임무가 부여된 제3연대는 제2대대를 주공으로 영월의 중심부를 돌파하여 북쪽의 675고지를 점령하고, 제1대대로 하여금 봉래산을 점령하도록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하였다. 그리고 제3대대는 예비대로서 영월로 진격하여 서측방을 방어하는 동시에 일곡에서 미군과 연결하도록 했다. 연대장은 각 대대에 명령을 하달한 다음 04시에 부대를 진두지휘하여 녹전리에서 남한강 동쪽 삼옥일리-덕포리 간으로 은밀히 기동한 후 07시 30분을 기해 일제히 공격을 감행하였다. 주공인 제2대대는 영월로 진격한 다음 화력전과 백병전을 반복하다가 675고지 두목일대를 무난히 점령하였으며, 제1대대도 봉래산을 점령한 후 퇴각하는 적을 섬멸하였다. 이때 적의 시체와 소화기 등은 처리가 곤란할 정도로 산재해 있었다. 한편 주공 대대와 거의 동시에 영월에 돌진한 제3대대는 남한강 연안을 점령하였으며 14시에는 좌측에서 공격하던 미 제17연대와 일곡에서 연결하였다. 포병 화력은 주로 적의 퇴로를 차단하여 증원을 막고 또 퇴각하는 적을 격멸하였다.

이로써 1월 19일부터 진행된 영월 부근 전투는 1월 24일 국군 제7사단이 영월을 장악함으로써 마무리되었다. 이 전투를 끝으로 북한군은 옥동리를 근거지로 춘양-영주 선까지 침투하려던 자신들의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군의 일부는 마차리(영월 북쪽 8km) 북쪽으로 철수하였으며, 주력은 평창-창리(마차리 북쪽 10km) 지역에서 재편성 중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국군 제7사단은 6일간에 걸쳐 지역내에 침공한 적을 격파해 승리를 거두고, 북한의 덕천에서 고전한 사단의 명예를 회복하였다. 전투 기간 중에 국군 제7사단은 북한군 1,044명을 사살하고 41명을 생포하였으며, 2문의 박격포와 총기류 237정을 노획하였다. 반면에 사단의 피해는 전사 71명, 부상 90명, 실종 2명이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 홍천 포위 공격

서부와 중서부전선에서 유엔군의 진격이 한강선에 다다르고 있을 무렵, 중동부전선에서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3군단은 1월 24일 제2전선 차단작전을 종료하고 1월 29일부터 지평리와 횡성 일대에서 위력수색작전을 실시하였다. 미 제10군단 예하의 미 제2사단은 한강진출작전의 동측방을 엄호하기 위하여

여주-원주를 연하는 선을 점령하고 일부 부대로서 지평리(砥平里)까지 수색정찰을 실시하였다.

미 제2사단과 제24사단의 합동정찰대는 1월 29일 중공군이 보급품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평리 부근의 쌍터널을 목표로 정찰을 실시하였다. 중공군 제42군 제125사단은 터널을 내려다볼 수 있는 감제고지에서 정찰대를 지켜본 뒤 퇴로를 차단하고 기습공격을 가하였다. 정찰대는 항공폭격과 미 제23연대 제3대대와 프랑스 대대의 증원으로 구출되기는 하였으나 다수의 피해를 입었다. 다음 날(2월 1일) 철수했던 적은 새벽에 2개 연대를 투입하여 반격을 재개함으로써 쌍방은 쌍터널 부근에서 하루종일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펼친 끝에 적은 아군의 포격과 항공 폭격에 큰 피해를 입고 북쪽으로 철수하였다.[87]

미 제10군단은 쌍터널전투의 승리 이후 홍천 점령을 위한 작전에 돌입했다. 1951년 1월 말 미 제8군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적이 24번 도로와 29번 도로의 교차점인 홍천 부근에 집결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북한군 제5군단은 24번 도로를 따라 남서쪽으로 이동하여 지평리를 경유 여주와 충주로 진격하거나 29번 도로를 따라 횡성을 경유하여 원주로 공격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미 제10군단장은 적의 이러한 이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홍천을 군단의 주요 공격목표로 선정하였다. 홍천은 서울-지평리-강릉을 연하는 방어선의 중앙에 위치한 춘천의 관문으로 북동쪽의 인제, 북서쪽의 춘천, 남서쪽의 양평, 그리고 남동쪽의 횡성, 원주로 연결되는 교통의 중심지였다.

미 제10군단장은 전략 및 전술적 요충지인 홍천 지역을 신속히 양익포위하여 적의 증원거점을 분쇄하고, 동시에 후방침투에 실패한 후 국군 제3군단 정면에서 퇴각 중인 북한군 제2군단을 추격 섬멸함은 물론, 아군이 홍천-대관령-강릉 선으로 진출하여 차기공격에 유리한 발판을 확보할 목적으로 국군 제3군단과 협조된 공격을 계획하였다. 이 작전을 '몰이', 즉 포위한다는 의미로 라운드업(Round-up)작전이라고 명명하였다.[88]

미 제10군단장은 2월 1일 라운드업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 자리에는 미 제10군단의 모든 주요 지휘관들과 국군 제3군단장이 참석해 작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협조 상황 등을 논의하였다.

제8군사령관은 2월 1일 미 제10군단장의 작전계획을 승인하고 작전기간 중 미 제10군단장이 국군 제3군단을 작전통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제8군사령관은 한강진출작전을 수행 중인 미 제9군단에게 우측방 경계에 유의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2일에는 국군 제1군단장에게 동해안의 강릉을 점령하여 좌인접 국군 제3군단의 진출을 지원하도록 하였다.[89]

미 제10군단이 2월 1일 마련한 라운드업 작전계획은 2월 5일을 공격 개시일로 설정하고 보다 구체화되었다. 라운드업 작전의 목표는 Q-Q선(석항리-횡성-방림리)으로부터 R-R선(양평-홍천-풍암리)까지 진출하는 것이었다.[90] 이를 위해 미 제10군단은 지평리-횡성에 미 제2사단을, 횡성 남동쪽 치악산 북쪽에 미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을, 평창 남서쪽 주천리(酒泉里) 일대에 미 제7사단을 각각 배치하여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공격제대로 좌전방에 국군 제8사단, 우전방에 국군 제5사단을 투입하여 홍천을 포위 공격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미 제2사단은 1개 야포대대(증강), 자동화기포대, 차량화 보병부대로 편성된 제21지원부대를 편성하여 국군 제8사단을 직접 지원하도록 하였고, 미 제7사단도 이와 유사한 규모의 제7지원부대를 편성하여 국군 제5사단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추가로 미 제2사단에서 2개 중대 규모의 보전조(步戰組)를 편성하여 국군 제8사단에 배속시켰다.

이때 미 제10군단의 우인접 부대인 국군 제3군단은 영월-정선 선에서 북진하여 공격개시일인 2월 5일까지 평창에 도착, 북한군 제2군단을 공격해 미 제10군단의 우측방을 엄호하도록 임무가 부여되었다.[91]

이 계획에 의거해 2월 1~4일 미 제10군단은 부대 재배치를 실시했다. Q-Q선에는 좌로부터 미 제2사단(지평리 부근), 제187공정연대전투단(횡성 부근), 미 제7사단(평창 부근)이 배치되었다. 그리고 이번 작전의 주공으로 투입될 국군 제5사단과 제8사단이 제천, 영주 부근의 후방지역 경계임무를 국군 제2사단에 인계하고 원주 북쪽으로 이동하였다. 2월 4일 국군 제8사단이 능우리(陵隅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5사단이 평장리(平庄里) 부근의 공격 대기지점으로 이동을 완료하였다.[92]

횡성지구 위력수색작전, 즉 라운드업 작전은 미 제10군단 계획과 2월 2일자 육본 작전명령 제262호에 의거해 2월 5일 08시를 기해 시작될 예정이었다. 미 제10군단과 육군본부의 작전개념은 동일한 것이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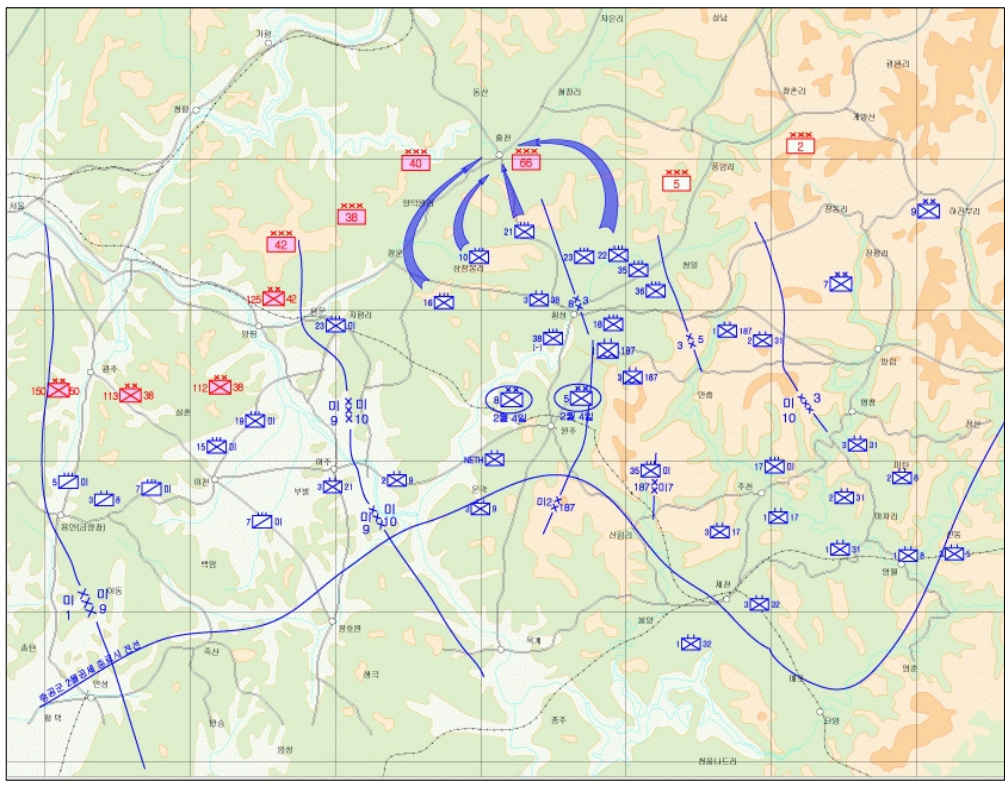
① 제5사단은 군단 우익으로서 횡성 동북방의 적을 격멸하고 홍천 동측방을 포위 공격한 다음 풍암리-홍천선을 확보하라.
② 제8사단은 군단 좌익으로서 횡성북방의 적을 격파한 다음, 홍천-용두리선을 확보하라.
③ 미 제7사단은 평창-횡성간 도로선까지 진출하여 군단 예비가 되어 제5사단의 후측방을 엄호하며, 미 제2사단은 원주-지평리에서 군단 예비가 되어 제8사단의 측후방을 엄호하라.
④ 미 제187공정연대전투단 전차대는 홍천 정면에서 제5, 제8사단의 공격을 지원하라.
⑤ 미 포병 2개 대대는 제5, 제8사단을 직접 지원한다.[9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와 같은 군단 계획을 접한 제8사단장 최영희 준장은 자체의 진출 계획을 마련하였다. 사단장은 작전지역이 홍천-용두리(龍頭里)-횡성을 연결하는 삼각형 내의 산악지대로 전진 축선상에 성지산(聖智山), 갈기산(葛基山), 매화산(梅花山), 오음산(五音山) 등의 크고 작은 고지군이 종횡으로 연결되어 있어 산세가 험악하고 전투정면이 21㎞나 되는 광정면임을 감안하여 기계화 부대의 운용이 용이한 5번 도로(홍천-횡성)와 6번 도로(신촌 삼거리-용두리)를 양축으로 하면서 병력을 축차로 약진시킨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94]

사단장은 2월 4일 '사단 작명 제110호'를 예하부대에 하달하였다. 이 작전명령에 의하면, 주공인 제21연대는 전차소대와 보전조를 편성하여 5번 도로(횡성-홍천)를 따라 벽학산(碧鶴山)-독재봉-오음산으로 신속히 기동하여 홍천을 점령

<상황도 4-7> 미 제10군단의 라운드업 작전(1951. 2. 5~2. 1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하고, 중앙의 제10연대는 성지산을 점령한 후 상오안리(上吾安里, 홍천 서남쪽 6㎞)-양덕원리로 진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좌전방 제16연대는 6번 도로(횡성-용두리)를 따라 증안리(曾安里)로 진출, 화채봉(畵綵峰, △443)을 넘어 용두리를 확보하도록 하였다.[95]

국군 제8사단은 계획대로 2월 5일 08시를 기해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날의 전진목표는 횡성 서북쪽 6㎞ 지점인 신촌(新村) 삼거리로부터 6번 도로 이남을 점령하여 전진 거점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제21연대, 제16연대, 제10연대 순으로 5번 도로를 따라 공격을 개시한 사단은 적의 미약한 저항을 물리치면서 이날 신촌 삼거리로 진출하여 전진 거점을 확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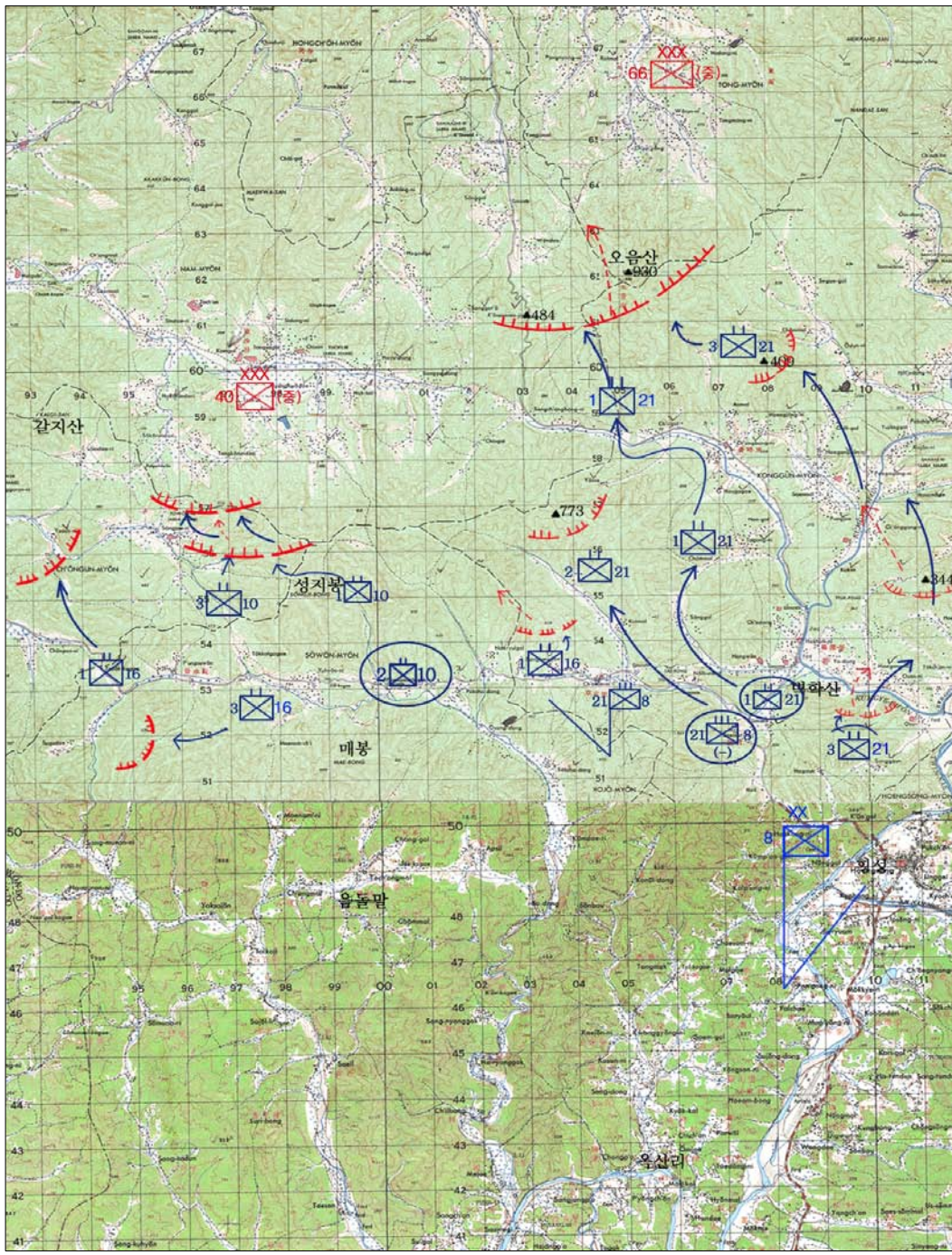
전날에 이어 국군 제8사단은 2월 6일에도 계속해서 공세를 취했다. 제21연대는 제3대대가 전날 벽학산을 점령한 후 계속 전진하여 벽학산 동북쪽 3㎞ 지점의 독재봉(△342)을 공격하던 중 2개 중대 규모의 적과 2시간 동안의 격전 끝에 적을 부창리 방면으로 격퇴하고 이날의 목표선을 점령하였으며, 제2대대가 773고지까지 진출하였다. 하지만 좌측의 제16연대는 풍수원(豊水院) 일대로 진출하였을 때 적과 조우하여 치열한 격전을 펼치게 되었다. 제16연대 제1대대는 밤골 부근의 692고지에서 대대 규모의 적과 교전을 벌였으며, 제2대대와 제3대대는 제21연대 제2대대의 진출 전면을 인수하여 부근 산악지대를 수색하면서 전진하다가 태봉산 북쪽에 있는 467고지에서 대대 규모의 적과 격전을 벌였다. 제16연대의 진출이 지연되자 국군 제8사단장은 중앙의 제10연대를 투입하여 제16연대를 지원하게 하였다.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제10연대는 제1대대가 안밤골 계곡으로 우회하여 제16연대 제1대대의 정면에서 저항하는 적의 좌측을 공격하였으며, 제2대대가 신촌 서남쪽의 573고지로 진출하여 제16연대 전선 후방으로 침투하는 약 1개 중대 규모의 적을 치열한 접전 끝에 격퇴하였다. 이로써 제8사단은 적의 저항 거점을 점령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2월 7일부터 당초 사단의 계획대로 각 연대를 전면 전개하여 공격을 개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공격개시 3일째인 2월 7일 국군 제8사단은 좌전방 제16연대가 증안리를, 중앙의 제10연대가 이목동을, 그리고 우전방 제21연대가 대삼마치-오음산 남쪽으로 진출하여 최초 작전계획이었던 3개 연대 병진공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하였다. 이날 국군 제8사단의 부대배치 현황은 다음과 같았다. 좌일선의 제16연대는 제1대대가 중앙리, 제2대대가 748고지, 제3대대가 매남치(풍수원 동남쪽 2.5㎞)에 각각 위치하였으며, 중앙의 제10연대는 제1, 제2대대가 이목동, 제3대대가 응봉산(△559) 일대에 위치하였다. 그리고 우일선의 제21연대는 제1대대가 505고지-339고지간, 제2대대가 773고지, 제3대대가 779고지-489고지간에 위치하였다.[96]

사단의 공격은 8일 우전방 제21연대가 홍천 진출의 관문인 5번 도로상의 대삼마치(大三馬峙)와 지대내의 주변 고지들을 감제할 수 있는 오음산(△930)을 공격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4-8> 국군 제8사단의 횡성부근 공격(1951. 2. 5~2. 10)



하면서부터 고지를 선점한 중공군 제66군 예하의 제198사단과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게 되었다. 적도 이 지역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완강하게 저항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으로 계속해서 병력을 증원하였다. 2월 8~9일 대삼마치와 오음산에 대한 제21연대의 강력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적이 예비대를 투입하여 병력과 화력을 계속해서 증강함에 따라 전선이 점차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국군 제8사단은 이번 작전의 최대 난관인 두 지점을 탈취하기 위하여 2월 10일 항공지원과 보병, 전차, 포병의 협조된 공격을 펼쳤으나 목표탈취에는 실패하였다. 제21연대가 오음산 쟁탈전을 전개하는 동안에 제16연대와 제10연대는 전선 돌출을 우려하여 증안리, 도원리(桃源里) 일대에서 수색정찰에 주력하였다. 이 무렵 국군 제8사단의 우인접 부대인 제5사단이 중공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전선을 재조정하였으며, 좌인접 부대인 미 제2사단이 서남쪽에서 돌출부를 형성하여 제8사단은 사실상 군단 전선 중에서 가장 돌출된 지역에 위치하게 되었다.[97]

한편 홍천 우측방을 공격하게 된 국군 제5사단은 전투정면이 홍천 남서쪽의 20㎞나 되는 광정면이고, 또 죽림산(△640), 어답산(△789), 봉북산(△1028), 발교산(△998), 덕구산(△668) 등이 종횡으로 연결된 산악지대로 협조된 공격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작전하게 되었다. 사단장 민기식 준장의 공격계획은 우선 제27연대를 적정이 미약한 동측방 조항리(鳥項里)-소사리(所思里)-둔방내리(屯坊內里)-화동리(禾洞里) 지역으로 신속히 기동시켜 화동리-삽교리(霅橋里) 선을 점령해 적의 퇴로를 차단하고, 주공인 제36연대를 산전리(山田里)-포동리(浦洞里)-유동리(柳洞里)에 이르는 도로를 따라 진출시켜 초현리(草峴里)-유동리 선을 확보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공격제대들이 초현리-유동리-화동리-삽교리 선을 점령하면 전선을 조정한 후 제2단계 작전으로 홍천을 공격할 계획이었다.[98] 이 계획에 따라 사단에서는 2월 4일 13시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작명 제22호'를 예하부대에 하달하였다.

① 사단은 홍천 남방에서 준동하는 적을 포위 섬멸하려 한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② 제27연대는 조항리, 소사리를 점령한 다음 둔방내리-삽교리-화동리로 급속히 진격하여 적의 퇴로를 차단하고 포위 섬멸하라.
③ 제36연대는 하대리-산전리-용둔리를 점령하고 포동리를 탈환한 다음 유동리-초현리로 진격하라.
④ 제35연대는 사단 예비가 되어 현 위치에서 차후 지시를 받으라.
⑤ 포병 제26대대는 제27연대를 직접 지원하라.
⑥ 제36연대는 미 포병 1개 대대가 공격간 연대를 직접 지원한다.
⑦ D일 H시는 2월 5일 08:00이다.[99]

국군 제5사단은 2월 5일 08시를 기해 공격개시선인 평창-횡성간 도로선에서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여 조항리-소사리-하대리-상하가리까지 적으로부터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진출하였다. 그러나 공격 둘째 날인 6일부터 사단은 북한군 제5군단 예하 제6사단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치기 시작했다. 이날 사단은 둔방내리-울둔-양지촌-용둔리선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여 우일선인 제27연대가 주봉(△896), 용마봉(△1,026), 자주봉(△889)을 점령하고 둔방내리(조항리 북쪽 7㎞)로 진격하는 데 성공했지만, 좌일선인 제36연대가 하궁리와 용둔리 일대에서 강력한 적의 저항에 부딪쳐 더 이상 진출하지 못했다. 이에 사단은 7일 제36연대를 지원하기 위해 예비인 제35연대를 좌전방에 투입함으로써 3개 연대 병진대형으로 공격을 재개하였다.

이날 항공관측과 수집된 첩보에 의하면 국군 제7사단과 제5사단 정면에 활발한 적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서부전선의 중공군 일부 병력이 홍천으로 이동 중임이 확인되었다. 이에 미 제10군단장은 군단 예비인 미 제2사단과 미 제7사단에 군단 좌우측방의 경계를 강화하도록 지시하고 국군 제5사단과 제8사단의 홍천 공격을 독려했다.[100]

국군 제5사단장 민기식 준장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제27연대로 하여금 화동리를 장악, 적의 퇴로와 증원을 차단하게 하고, 제36연대와 제35연대로 하여금 조속히 적의 주저항선을 돌파한 다음 적의 주요 거점인 포동리와 유동리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점령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2월 8일 사단의 우전방 부대인 제27연대가 화동리를 점령하고 일부 병력으로 적의 후방거점인 유동리를 기습하려 하였으나 적의 역습으로 실패하였다. 여기에 중앙의 제36연대는 암곡산(岩谷山) 후방으로 연결된 종격실 능선을 따라 지연진지를 구축한 북한군 제6사단의 1개 연대와 3일 동안 일진일퇴의 공방전만 거듭할 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사단장은 주공인 제36연대의 공격이 지연되어 제27연대 지역이 돌출되자 제27연대를 소사리-조항리-유용리 선으로 철수시켰다. 다만 추가로 투입된 좌전방의 제35연대가 적의 거점을 서측에서 감제할 수 있는 국사봉(國士峰)을 점령함으로써 사단의 공격에 숨통을 트이게 했다.

제35, 제36연대는 공격개시 5일째인 2월 9일 적 주력이 4일 동안 완강하게 저항하던 방어거점인 317고지-412고지-247고지를 돌파하고 섬강(蟾江) 남쪽으로 진출하여 북한군 제6사단의 지휘소가 위치한 포동리를 양면에서 포위공격하게 되었다. 제36연대의 엄호하에 제35연대는 10시경 포동리를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북한군 제6사단이 포동리에서 철수한 후였다. 사단은 적 지휘소를 수색하여 다수의 문서와 탄약 25상자를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101]

이 무렵 미 제10군단장은 공격부대들이 처음 3일간은 미군의 강력한 포병 및 기갑부대의 화력지원으로 5~10㎞를 전진하였으나, 8일부터 공격 초기와는 달리 고지를 선점한 적의 저항이 완강할 뿐만 아니라 험준한 지형으로 인해 전차의 기동과 포병진지의 이동이 제한되어 화력지원마저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였다. 군단장은 이로 인하여 공격제대의 공격이 예상외로 부진하다고 판단하고서 주공인 국군 제8사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병력의 투입을 고려하였다.

이때 투입할 수 있는 부대는 군단예비로 대기 중인 국군 제2사단이었지만 중공군의 제3차 공세에서 큰 손실을 입고 아직 전투력을 회복하지 못하여 투입이 불가능하였다. 그렇다고 공격 중인 국군 부대의 후방에서 공격부대를 지원 중인 미 제2사단과 미 제7사단 전력의 일부를 투입할 수도 없었다. 그리고 군단에 배속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인 제187공정연대전투단도 다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곧 미 제10군단 전선에서 철수할 것이라는 제8군사령관의 통고가 있어 새로운 임무를 부여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군단장은 제8군사령관에게 국군 제3군단의 예비로 있는 국군 제3사단의 증원을 요청하였다.[102]

이 무렵(2월 8일) 국군 제3군단은 적의 산발적인 경미한 저항을 물리치고서 좌전방 제7사단이 평창 북쪽의 창동으로 진출 중이며, 우전방 제9사단도 정선 부근의 한강 계곡을 통과하여 하진부리 남쪽으로 진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국군 제7사단을 후속하고 있던 미 제7사단 제17연대가 평창 북쪽으로 진출하여 국군 제7사단을 증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제8군사령관은 홍천 포위작전 기간 동안 국군 제3사단을 미 제10군단에 임시로 배속 조치하였다.[103]

홍천 공격부대들이 적과 격전을 벌이고 있을 때 국군 제3사단이 창리(倉里) 부근에서 이동하여 2월 10일 홍천포위공격의 우전방 제대로 국군 제5사단의 좌전방 지역인 횡성-홍천 도로의 우측방을 인수받았다. 이때 사단의 좌전방 부대로 제23연대가 송전리에, 우전방 부대로 제22연대가 대문동에 각각 진출하였으며, 제18연대가 사단예비로 평장리(平庄里) 동쪽에 집결하였다. 그리고 작전지역을 제3사단에 인계한 제5사단은 제3군단과의 전투지경선 부근으로 이동하여 북한군의 홍천 증원을 차단하게 되었다.[10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공격제대들이 전선을 조정하는 동안 국군 제8사단의 대전차포대대는 작전지역 전방을 수색하던 중 2월 11일 제21연대와 제10연대의 전투지경선 부근인 대삼마치 북쪽에 사단 규모로 추정되는 중공군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단장 최영희 준장은 수집된 첩보를 종합한 결과 각 연대의 정면에 중공군의 대병력이 기동 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알몬드 군단장에게 이목동-장봉리 선에서 방어로 전환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군단장은 적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여 이 건의를 묵살하고 계속해서 공격을 강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사단장 최영희 준장은 일단 부대를 현 전선에서 방어로 전환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에 따라 제16연대가 증안리-도원리에, 제10연대가 도원리-상유동(上楡洞)에, 제21연대가

상창봉리-오음산에 각각 배치되어 경계를 강화하였다.[105] 이와 관련해 당시 제8사단장이었던 최영희 준장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 "군단장은 매일 독촉했어요. 직접 나와서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공격을 하라는 거야. 공격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공격하라는 거야. 연대에서 공격하고 있었거든. 독전을 하기 때문에 공격하는데 이 이상 더 나갔다가는 나중에 24㎞가 아니라 50㎞로 전면이 더 확대되겠다 말이야, 그래서 안나갔지. … 매일 전투를 하는데 사흘 동안 하니까 적 주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더 진출할 수가 없고, 또 연대장들은 뭐냐하면 적의 화력이 점점 강해지고 공격이 점점 강해진다 … 그래서 내가 그날 섬멸 당하는 그 전날 암만해도 예감이 그렇고 또 포로가 이렇게 3개 군단에서 나오고…(그래서) 적어도 3개 군단이 우리 앞에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말이야. 이것은 전쟁이 안된단 말이야. 방어에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방어를 했더니 알몬드가 시시각각 전화를 걸어왔어요."[106]

위의 증언에서 알 수 있듯이 제8사단장은 전선 상황을 고려해 2월 10일 방어로 전환하였다. 이때 제8사단의 우측에서 주간공격을 펼친 국군 제3사단이 삼배리에서, 그리고 제5사단이 유동리에서 각각 야간경비로 전환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홍천 포위작전은 공격개시 7일이 되었지만 국군 제3사단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진전이 없었다. 오히려 이 지역으로 중공군의 대병력이 집중되고 있음이 곳곳에서 확인되었다. 이는 그동안 후퇴작전에 몰두하던 공산군이 반격작전으로 전환하려는 기도로써 그들의 공격이 임박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실제로 이 무렵 공산군은 서부전선에서 일부 병력으로 한강 남안에 교두보를 확보하고 유엔군의 전진을 견제하는 한편, 주력을 중동부전선에 집결시켜 유엔군을 종심깊이 유인한 후 공세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이것이 이른바 중공군의 제4차 공세, 즉 '2월 공세'로 이어지게 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 전투 결과 및 교훈

중공군과 북한군은 제3차 공세를 통하여 서부전선에서는 약 1주일, 중·동부전선에서는 약 2주일 동안 국군과 유엔군의 방어를 흔들었다. 그러나 그들은 많은 사상자를 내고 더 이상의 공격을 지속하지 못하였다. 이는 국군과 유엔군이 공간과 시간을 유리하게 확보하면서 화력을 최대로 활용하는 전술을 적용시킨 결과였다.

하지만 유엔군은 중공군이 언제 다시 공격해 올지 모른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었으며, 또한 한국에 영구히 머물러 싸울 수 있는지 아니면 한반도에서 철수해야만 하는지에 대하여 확신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매우 초조해 하였다.

제8군사령관은 무작정 중공군의 공격을 기다리는 것으로는 결코 땅에 떨어진 부대의 사기를 회복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전선에서 사라진 중공군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 전선에 정적이 오고 난 얼마 후에는 반드시 대공세를 받았던 경험을 몇 차례나 겪었기 때문에 유엔군은 우선 적정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청천강 이북에서 그랬던 것처럼 공중정찰은 결코 절대적인 정보수집 수단이 되지 못하였다. 공산군은 주로 야간에 은밀히 준비하고 기동하기 때문이었다. 이럴 때 가장 확실한 정보파악 방법은 위력수색과 전투였다. 강력한 수색대를 편성하여 적극적으로 적정을 파악한다는 작전계획에 따라 실시된 것이 울프하운드 작전과 썬더볼트 작전이었다. 위력수색작전의 결과 유엔군은 중공군이 개입한 이후 만연해 있던 '패배의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공세'로의 전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1951년 1월 25일부터 실시된 썬더볼트 작전 시기에 유엔군은 작전개념을 수색정찰에서 지역확보로 전환하는 등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자신감을 되찾았다. 썬더볼트 작전 중 국군과 유엔군은 매일 지정된 통제선을 목표로 공격하고 중공군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그 선을 넘지 못하도록 철저히 통제되었다. 작전지역 내에서 중공군이 발견될 때는 일차적으로 무자비한 포격과 폭격을 퍼부어 대규모 살상을 가한 후에 보병이 신중하게 접근하여 잔적을 소탕하고 지역을 확보하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방식으로 공격하였다. 이때 전차와 장갑차는 가까운 거리에서 사격지원을 하였으며, 공군은 지상군 공격에 앞서서 폭격하거나 또는 지상군이 적을 진지 밖으로 몰아내었을 때에 맞추어 공격을 가함으로써 썬더볼트 작전은 여러 병종이 하나의 거대한 팀워크를 이루며 조직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2월 10일경 서부전선에서의 썬더볼트 작전은 공산군의 남한산 교두보를 제외하고 본래 목표로 삼은 한강 남안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다.

서부전선에서 썬더볼트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중동부전선에서는 라운드업 작전이 이루어졌다. 이 작전은 중동부전선에서 적의 압력을 제거하고 서부전선의 썬더볼트 작전과 보조를 맞추어 한강 남안에서 홍천으로 연결되는 선을 확보함으로써 서울 탈환의 여건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작전 과정에서 국군이 선봉을, 미군이 후속부대의 임무를 분담하면서 연합작전을 실시한 것은 서부전선의 썬더볼트 작전과는 정반대되는 병력운용의 방법이었다.

라운드업 작전은 예정대로 2월 5일 개시되었다. 공격은 대개 썬더볼트 작전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험준한 산악지형 때문에 서부와 중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과 제9군단처럼 철저한 지상 수색작전은 불가능하였다. 미 제10군단 지역에서 국군 제5사단과 제8사단은 여러 종대로 공격하였으나 복잡한 지형의 모든 통로를 통제하지는 못하였다. 어려운 지형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군은 작전개시 후 약 3일 동안에는 예정대로 계획된 제한목표들과 통제선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후 공산군의 주 저항선에 부딪치면서 더 이상의 전진이 어려워졌다. 오히려 공산군은 미 제10군단의 우측과 국군 제3군단의 좌측지역으로부터 강력한 반격을 시도해 왔다. 결국 공격 제대는 공산군의 강력한 방어와 빈번한 역습으로 말미암아 홍천을 장악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3 절 중공군 2월 공세와 유엔군의 반격

1. 개 요

중공군의 2월 공세와 유엔군의 반격작전은 2월 11일부터 시작된 중공군의 제4공세를 국군과 유엔군이 저지하고 3월 31일 38도선까지 진출한 작전이다.

1951년 1월 15일부터 시작된 위력수색작전의 결과로 유엔군은 수원-여주 이남 지역에는 중공군의 소규모 부대만이 배치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를 토대로 국군과 유엔군은 1월 25일을 기해 일제히 반격작전을 감행하여 작전의 주도권을 만회하였다. 국군과 유엔군은 2월 초순에 김포-안양-양수리-지평리-횡성-하진부리를 연하는 선까지 진출했다.

국군과 유엔군으로부터 강력한 반격을 받은 중공군은 서부전선의 위기를 돌파하고자 중동부전선에 대한 집중 공격을 감행했다. 중공군은 횡성-홍천간의 삼마치고개와 지평리 일대에 9개 사단을 집중 투입하여 2월 11일 밤에 일제히 공격을 개시했다. 흔히 '중공군의 2월 공세'라고 불리는 이 공격으로 인해 전술적 요충지인 지평리와 횡성-원주 지구에서는 피아간에 일대 격전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때 미 제2사단 제23연대는 지평리에 전면방어진지를 편성하여 끝까지 이를 사수한 후 중공군을 격퇴시켰으며, 미 제10군단은 원주-제천에 형성된 돌파구로 남하중인 중공군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결국 중공군의 2월 공세는 실패로 끝났다. 중공군의 2월 공세로 인해 중동부전선을 담당하던 국군의 피해가 상당히 컸지만, 한편으로 유엔군은 중공군의 보급지원 체계가 대단히 취약해 공세작전을 통상 5~6일밖에 지속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결과 유엔군은 중공군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중공군을 능히 격퇴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공군의 2월 공세를 격퇴한 국군과 유엔군은 재반격작전으로 전환해 중동부지역으로 침투한 적을 격멸하기 위한 '킬러 작전(Operation Killer)'을 전개했다. 이 작전의 결과로 국군과 유엔군은 1951년 3월 초에 한강 남안-횡성-강릉을 잇는 선까지 진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후 국군과 유엔군은 서울의 재탈환과 38도선 진출을 목적으로 한 '리퍼 작전(Operation Ripper)'을 3월 말까지 전개해 문산-동두천-춘천-현리-양양을 잇는 선까지 진출하는 데 성공했다.

2. 상황평가 및 의도

1) 공산군측 상황평가 및 의도

(1) 작전기도 및 방침

2월로 접어들면서 공산군은 가평-홍천 지역 집결과 원산에서 재편성한 중공군 제9병단이 중부전선을 강화하기 위하여 춘천으로 이동 중이었다. 이때 공산군은 일부 부대로 서부전선에서 유엔군을 교착 견제하고 주력을 동부전선에 집결시켜 유엔군을 종심 깊이 유인한 다음 공세로 전환한다는 전략을 수립하였다.[107] 이 계획에 의거해 공산군은 북한군 제1군단과 중공군 제50군을 인천-영등포에, 중공군 제38군을 한강 교두보에 각각 배치하였다. 그리고 유엔군이 중동부전선에서 홍천 포위공격을 개시하자 조·중연합사령부는 중공군 제42군을 지평리 부근으로, 제39, 제40, 제66군을 양덕원리-홍천 일대로 추진 배치하고 동부전선의 북한군 제2, 제3, 제5군단도 홍천 동쪽으로 집결시켰다.

공산군의 홍천 일대 집결은 2월 9~11일 사이에 완료되었다.[108] 부대가 이동하는 동안에 평더화이는 전선의 유동적인 상황을 주시하면서 어느 부분을 공격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것인가를 고민하였다. 이때 유엔군의 진지는 지평리 지역과 횡성 지역이 모두 돌출되어 있었는데 공격 지역을 선정하기에는 양쪽 모두 장단점이 있었다. 펑더화이(彭德懷)는 예하 지휘관과의 여러 차례 토의를 거듭한 후에 2월 9일, "지평리는 유엔군 병력이 집중되어 있고 이미 진지가 마련되어 공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1~2일 안에 상대에게 타격을 입히지 못한다면 유엔군이 신속히 증원되어 우리가 도리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된다. 반면, 횡성일대는 병력은 많으나 대부분 한국군이어서 전투력이 비교적 약하고, 기동중이어서 측방을 노출하고 있으므로 신속하게 포위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횡성 지역을 먼저 공격하기로 결정하였다.[109]

공격은 덩화(鄧華)가 지휘하기로 했으며, 각 부대는 2월 10일까지 집결 완료한 후 다음 날인 2월 11일 17시에 공격을 개시하기로 하였다. 이 작전과 관련해 덩화는 다음과 같은 지침을 예하부대에 하달했다.

"이번 전역에서 아군은 9개 사단의 절대 우세한 병력을 집중하여 횡성과 그 이북 지구의 적 4개 연대(미군 1개 연대, 한국군 1개 사단)를 층층이 절단 분할하고 포위 섬멸한다. 객관적 상황을 보면 우리가 완승할 수 있다. 전승의 관건은 제66군 주력이 신속하게 횡성 이남에 도착하여 적 퇴로를 차단하고, 제42군 주력이 한국군 제8사단의 횡성도주 퇴로를 차단하며, 제40군과 제198사단이 정면과 측면에서 동시에 적을 각각 분할 섬멸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속전속결할 수 있도록 연속 공세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 특히 유의한다.

첫째, 제42군은 비교적 잘 알고 있으나 기타 군은 모두가 방금 도착하여 지형이나 적정에 대해 아직 잘 모르고 있어 작전에 직접 영향이 있을 것이다. 각 부대는 반드시 시간을 내어 신속하게 정면의 적의 배치, 화력 및 공사구축 상황 등을 확실히 파악하여 전방의 공격 목표 및 종심을 향한 침투로를 선정하도록 하고, 자체 병력, 화력 등을 잘 조정하여 전투가 시작되면 더욱 순조롭게 발전되도록 한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둘째, 전역이나 전술을 막론하고 모두 적을 분할하고 우세한 병력을 집중하여 신속하게 적을 각개 섬멸한다. 적을 향한 공격 조직은 반드시 적 측후 또는 접합부(전투지경선)를 선택 공격한다. 우회 임무를 맡은 부대는 도로를 연해 저지하는 적(소수 병력이나 화력으로 구축 또는 감시)에 구애받지 말고, 주력은 신속하게 예정된 목표를 향해 맹공하고 이를 저지한다.

셋째, 반드시 각종 화기를 조직 사용하는 데에 특히 주의한다. 국부적이고 짧게 절대 우세한 화력으로 아군 보병의 공격을 엄호한다. 일반적으로 정면에서 공격하는 부대는 반드시 군의 야전유탄포를 참전시켜 배합한다. 우회하는 부대도 산포를 휴대하는 방법으로 하여 연대 포병화력을 잘 조직하고 보병을 직접 지원하는 방법으로 한다.

넷째, 주간작전 준비도 충분히 한다. 하루 저녁 전투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반드시 주간작전(적과 혼전이 되면 적의 항공기도 식별을 못한다)으로 신속하고 철저하게 적을 섬멸한다.

다섯째, 현재 적은 감제고지의 산 정상을 공격 탈취하는 데에 주의하고 있다. 우리의 각 공격 부대는 감제고지를 탈취 점령한 후 소수 병력으로 이를 장악하고 신속하게 간단한 진지공사를 하고 항시 적의 반격을 타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여섯째, 각 부대는 정예 소부대를 조직하여 적진지 후방으로 침투하고, 오로지 적 포병진지를 타격하거나 정찰대로 하여금 적 연결을 차단하고 습격하도록 한다."[11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러한 덩화의 지시에 따라 중공군 각 군은 2월 9~11일 집결장소에 도착한 후, 5~17시간 동안 공격 준비 태세를 갖추었다.[111] 중공군의 2월 공세는 2월 11일 17시에 개시하는 것으로 예정되었다.

(2) 작전계획

조·중연합사령관 펑더화이는 1월 27~29일 마오쩌둥(毛澤東)과의 전문 회신을

가진 후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작전구상을 결정하였다. 즉 일부 병력으로 서부전선에서 유엔군의 공격을 견제하고, 중동부전선의 국군 2~3개 사단을 섬멸한 후 계속해서 종심으로 돌진해 측방에서 서부전선의 유엔군 주력을 위협, 유엔군의 공격을 저지한다는 것이었다. 펑더화이는 1월 30일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하는 병력운용계획을 예하부대에 하달했다.

"제38군 주력은 2월 1일 저녁 먼저 한강을 건너 경안리(현재 경기도 광주 북쪽), 용두리 북쪽과 동쪽 지역에 집결하여 이천 방향으로 출동할 준비를 한다. 제42군 주력도 2월 1일 저녁 먼저 출발하여 용두리, 지평리 지구에 집결하여 문막리와 동남 지구를 향해 출동할 준비를 한다. 북한군 제5군단은 횡성, 학골리, 거리평(모두 횡성 동쪽) 지구에 집결하여 신림리 방향으로 출동할 준비를 하고, 북한군 제2군단은 상안흥리, 운교리(모두 원주 동북쪽) 이남 지구에 집결하여 제천 방향으로 출동할 준비를 한다. 의외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군 제1군단은 제17전차사단을 한강 북안으로 추진시킨다. 주력은 면목리 일대에, 각 1개 연대는 뚝도, 한강리 지구에 위치하도록 한다. 2~3개 중대를 한강 남안으로 보내 교두보를 구축하도록 하고, 사단은 제50군과 전화연락이 되도록 한다."[11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펑더화이는 즉시 병력의 이동계획을 예하부대에 하달하고, 제26군을 철원으로 보내 중공군의 예비대로 삼았다. 그리고 유엔군이 측방과 후방에서 상륙작전을 벌이지 못하도록 북한군에게 계속해서 동·서해안 방어임무를 맡기는 한편 원산 일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제9병단 예하 제20, 제27군을 동해안 방어임무에 투입하였다.[113] 그리고 1월 31일 펑더화이는 마오쩌둥에게 다음과 같은 부대운용계획을 전보로 보고하였다.

"신발, 탄약, 식량은 보충되지 않았다. 2월 6일은 되어야 겨우 완료할 수 있다. 제13병단 주력이 현지에서 출동하여 홍천, 횡성 집결지까지 약 200㎞가

된다. 우리는 2월 7일 저녁 출동하고, 12일 저녁 공격을 시작할 계획이다. 덩화 동지가 제39, 제40, 제42, 제66군을 지휘한다. 먼저 미 제2사단을 섬멸한 후 제천의 미 제7사단 혹은 한국군 제8사단, 제2사단을 공격한다. 성공 후에는 상황을 본다. 한셴추 동지는 서울로 가 제38군, 제59군과 북한군 제1군단을 지휘하여 한강 남안 진지를 고수하고, 기회를 보아 주력과 배합하여 출동한다. 김웅 동지는 평창으로 가 북한군 제2, 제5군단을 지휘하여 먼저 한국군 제7사단을 소멸하고 성공 후에는 영주를 향해 전진한다."[114]

이와 같은 펑더화이의 계획에 의거해 서부전선에서는 중공군 제50군과 제38군 제112사단, 북한군 제1군단이 유엔군의 진격을 최대한 지연시키다가 2월 7일에 일부 엄호부대를 제외하고 한강 이북으로 철수하였다. 그리고 제38군은 중서부전선의 측방을 엄호하기 위해 남한산과 양자산 일대의 한강 남쪽의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특히, 펑더화이는 제42군과 제66군 예하 제198사단으로 유엔군의 공격을 지연시키면서, 후방지역에 집결 중이던 중공군의 주력부대인 제39, 제40, 제66군(-)을 중부전선 일대로 집중시켰다. 제39군은 고양 일대에서, 제40군은 동두천 일대에서, 제66군(-)은 김화 일대에서 각각 2월 5~6일에 출발하여 홍천 이남, 지평리 이북 일대로 80~130㎞를 야간에만 강행군하여 2월 9~11일 사이에 이동을 완료하였다.[115]

당시 공산군의 전투력 수준은 계속된 작전과 장거리 진격으로 인해 최소한 2~3개월 이상의 휴식이 필요한 상태였다. 중공군은 한반도에 추가 투입되기로 계획되었던 제19병단이 아직 투입되지 않은 상태였고, 함흥에 있던 제9병단도 병력충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즉시 작전에 투입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중공군은 제3차 공세를 담당했던 중공군 6개 군과 북한군 3개 군단이 전투력의 핵심이었다. 펑더화이가 1월 31일 마오쩌둥에게 보낸 다음과 같은 전문 내용은 당시 중공군의 전투력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전문에 의하면, 중공군 제9병단은 제16군의 총 8개 연대만이 출동이 가능하며, 2월 18일이 되어야 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원에 도착해 예비대가 될 수 있었다. 또 나머지 병력은 동상으로 모두 행군할 수가 없으며, 4월이 되어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계속해서 펑더화이는 공산군과 유엔군의 전투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제4차 공세에서 보병은 서로 대등하지만 사기는 적보다 높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다. 적 2~3만 명을 섬멸한 후 적이 기술의 우세를 이용한다면 우리는 2~3개월의 휴식과 정비를 할 수 없다. 제3차 공세는 약간의 억지성이 있었지만, 이번 제4차 공세는 억지성이 더욱 많다. 만약 주력의 출동이 저지되면 한반도 전국은 잠시 피동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제19병단을 신속하게 안동에서 출발시켜 전선으로 이동시켜 보충해 줄 것을 건의한다."[116]

펑더화이의 분석에 의하면, 공산군은 사기 측면을 제외하고 유엔군에 비해 전체적으로 열세에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같은 날 후방근무부대에 하달한 명령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 명령에 의하면, 중공군의 병력은 보충되지 않고 식량, 탄약 등의 어려움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급식문제가 언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펑더화이는 정치기관에서는 간부를 보내 협조하도록 하고, 후방근무 인원은 모든 인력과 차량을 조직해 식량을 수송하는 데 전력하도록 지시하였다.[11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 지휘관계 및 전투편성

중공군의 제4차 공세 시기 공산군의 조직 및 전투서열은 이전 시기와 동일하였다.[118] 조·중연합사령부(사령관 펑더화이)는 예하에 3개 전방지휘소를 설치하고 덩화(鄧華)가 중공군 제39, 제40, 제42, 제66군을, 한센추(韓先楚)가 중공군 제38, 제50군과 북한군 제1군단을, 그리고 김웅(金雄)이 북한군 제2, 제3, 제5군단을 각각 지휘하게 하였다.

조·중연합사령부는 사령관 겸 정치위원에 펑더화이, 부사령관에 덩화와 김웅

(북한측), 부정치위원에 박일우(북한측)로 주요 지휘관이 구성되었으며, 중공군과 북한군을 통합 지휘하였다.

중공군의 주요지휘관을 살펴보면, 사령원 겸 정치위원에 펑더화이, 부사령원 겸 부정치위원에 덩화, 부사령원 홍쉐즈(洪學智)와 한셴추(韓先楚), 참모장 셰팡(解方), 정치부주임 두핑(杜平)으로 편성되었다. 그리고 예하의 각 군단장은 제38군장 량싱차오(梁興初), 제39군장 우신촨(吳信泉), 제40군장 원위청(溫玉成), 제42군장 우루이린(吳瑞林), 제50군장 쩡쩌성(曾澤生), 제66군장 샤오신화이(蕭新槐), 제26군장 장런추(張仁初)였다.[119]

그리고 북한군의 전투편성은 총사령관 김일성(金日成)을 비롯하여 부사령관 최용건(崔庸健) 대장과 참모장 이상조(李相朝) 상장이었으며, 총사령부 예하의 각 군단장은 제1군단장에 이권무(李權武) 상장, 제2군단장에 최현(崔賢) 상장, 제3군단장에 김광협(金光俠) 상장, 제5군단장에 방호산(方虎山) 상장 등이었다.

2) 유엔군측 상황평가 및 의도

(1) 작전기도 및 방침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동부전선에서 공산군의 활동이 증가하자 미 제8군사령관은 미 제10군단의 좌인접 부대인 미 제9군단이 한강이남 교두보의 적을 격퇴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 제2사단이나 국군 제8사단 주력부대가 돌출되어 고립되거나 군단의 전투 정면이 과도하게 신장될 것을 우려하였다. 그리고 적의 공격이 임박할 당시 홍천 포위작전을 개시한 국군 공격부대와 미 지원부대, 그리고 공격개시선 사이에 배치된 부대들이 복잡하게 편성되어 있어 적의 공세시 지휘 및 통제 유지가 곤란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미 제8군사령관은 공격제대의 가장 좌측인 제2사단의 진출을 정지하도록 명령하였다.[120]

2월 10일 미 제8군사령관은 중공군의 전략과 전술방책에 관한 정보참모부의 정보판단을 보고받았다. 이 정보판단은 신정공세 이후 약 1개월간 지속된 소강상태

가 공산군의 전략이 '유엔군의 격멸'에서 '견제'로 전환한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군수지원 문제로 그러한 것인지를 밝히는데 초점이 두어졌다. 미 제8군 정보참모 대리인 퍼거슨(Robert G. Ferguson) 대령은 리지웨이 장군에게 긴 소강상태는 중공군의 재보급, 수송 그리고 병력 증강의 어려움에 있다고 보고하였다. 퍼거슨은 일단 중공군의 군수문제가 해결된다면 공산군은 유엔군을 한국에서 몰아내기 위해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인원 손실을 감수하면서 공세를 재개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는 또 중공군의 집결은 북한강에 있는 북서쪽을 경계로 하는 지역과 북동쪽에 이르는 양평과 홍천 사이에 있는 24번 국도 근처가 될 것이고, 집결 병력은 중공군 제39, 제40, 제42, 제66군의 약 11만 명이라고 추산하였다. 그는 이 모든 부대가 서쪽 중앙 지역으로 자리를 옮겨가는 것을 완료했는지 확신을 가지지 않았으나, 향후 적의 진로는 영주를 향한 한강 계곡과 29번 국도를 남하하여 원주로 가는 진로이며 이 두 진로는 거기에서 양쪽 모두 충주를 향하여 방향을 바꿀 것으로 보았다. 또한 그는 공산군이 전진하는 동안 병참선의 신장으로 재보급의 문제 때문에 적은 지속적인 공격보다는 간헐적으로 재편성을 하고 재보급을 받아 가며 종심이 얕은 포위공격을 연속적으로 실시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하였다. 끝으로 그는 중공군의 공세 시기가 원산에서 재편성 중인 중공군 제9병단이 전선에 도착하는 2월 15일경이 될 것으로 추측하였다.[121]

결과적으로 제8군 정보참모부의 판단은 공격일자의 예측을 제외하고는 실제 상황에 대단히 근접한 것이었다. 하지만 제8군사령부에서는 중공군의 공세에 대비할 것을 예하부대에 지시하였을 뿐 적극적인 방어준비를 구상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국군과 유엔군은 기존의 작전개념과 작전계획을 그대로 적용해 38도선으로의 복귀를 전제로 한 단계적인 공격작전을 계속해서 수행하게 되었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 지휘관계 및 전투편성

중공군의 2월 공세와 유엔군의 재반격작전이 실시된 2월 중순에서 3월 말까지의 기간 동안에 국군과 유엔군의 부대배치는 이전과 동일하게 서쪽에서부터 미 제1군단, 미 제9군단, 미 제10군단, 국군 제3군단, 국군 제1군단 순이었다.

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은 미 제3사단, 미 제25사단, 국군 제1사단, 영 제29여단, 터키여단으로 편성되었다. 미 제3사단은 제7, 제15, 제65연대, 미 제25사단은 제24, 제27, 제35연대, 국군 제1사단은 제11, 제12, 제15연대를 예하에 두었으며, 영 제29여단과 터키여단은 각각 3개 대대로 구성되었다. 미 제1군단의 주요 지휘관은 군단장 밀번(Frank W. Milburn) 소장, 미 제3사단장 소울(Robert H. Soule) 소장, 미 제25사단장 킨(William B. Kean) 소장과 블래들리(J. S. Bradley) 소장,[122] 국군 제1사단장 백선엽 준장, 영 제29여단장 브로디(T. Brodie) 준장, 터키여단장 야찌스(Tahsin Yazici) 준장이었다.

중서부전선의 미 제9군단은 미 제1기병사단(그리스 대대 배속), 미 제24사단, 미 제1해병사단, 국군 제6사단, 영 제27여단(태국 대대 배속)으로 편성되었다. 미 제1기병사단은 제5, 제7, 제8기병연대, 미 제24사단은 제5, 제19, 제21연대, 미 제1해병사단은 제1, 제5, 제7해병연대, 국군 제6사단은 제2, 제7, 제19연대를 예하에 두었으며, 영 제27여단은 3개 대대로 구성되었다. 미 제9군단의 주요 지휘관은 군단장 무어(Bright E. Moore) 소장과 호게(William H Hoge) 소장,[123] 미 제1기병사단장 팔머(Charles D. Palmer) 소장, 미 제24사단장 브라이언(Blacksheas M. Bryan) 소장, 국군 제6사단장 장도영 준장, 영 제27여단장 코드(Basil A. Coad) 준장이었다.

중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은 미 제2사단, 미 제7사단, 국군 제2사단, 국군 제5사단, 국군 제8사단으로 편성되었다. 미 제2사단은 제9, 제23, 제38연대, 미 제7사단은 제17, 제31, 제32연대, 국군 제2사단은 제17, 제31, 제32연대, 국군 제5사단은 제27, 제35, 제36연대, 국군 제8사단은 제10, 제16, 제21연대를 예하에 두었다. 미 제10군단의 주요 지휘관은 군단장 알몬드(Edward M. Almond) 소장, 미 제2사단장 러프너(Clark L. Ruffner) 소장, 미 제7사단장 페렌바우(Claude B. Ferenbaugh) 소장, 국군 제2사단장 함병선 준장, 국군 제5사단장 민기식 준장, 국군 제8사단장 최영희 준장이었다.

그리고 미 제10군단의 우인접 부대인 중동부전선의 국군 제3군단은 제3사단, 제7사단, 제9사단으로 편성되었다. 제3사단은 제18, 제22, 제23연대, 제7사단은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제3, 제5, 제8연대, 제9사단은 제28, 제29, 제30연대를 예하에 두었다. 국군 제3군단의 주요 지휘관은 군단장 유재흥 소장, 제3사단장 최석 준장, 제7사단장 김형일 준장, 제9사단장 김종갑 준장과 이성가 준장[124]이었다. 그리고 동해안 지역의 국군 제1군단은 수도사단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지휘관은 군단장에 김백일 소장, 수도사단장에 송요찬 준장이었다.

3. 전투 경과

1) 횡성 전투

1951년 2월 5일, 미 제10군단은 국군 제5, 제8사단으로써 홍천-풍암리선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격을 개시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적의 저항이 거세지자 2월 11일에는 새로 배속받은 국군 제3사단까지 투입하여 제1단계 목표인 오음산-포동리선까지 진출하였다.[125] 그러나 바로 이날 중공군의 제4차 공세인 이른바 '2월 공세'에 부딪혀 또 한 차례의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중공군의 공세가 원주 점령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그 접근로상에 위치한 횡성일대에서 피아간에 대혼전이 전개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미 제10군단이 새로이 조우한 적은 중공군 4개 군과 북한군 2개 군단이었다. 이들 공산군은 중공군 제40군(제124, 제125, 제126사단)이 양덕원리 북방 일대에, 중공군 제66군(제196, 제197, 제198사단)이 삼현리 일대에, 중공군 제42군(제124, 제125, 제126사단)이 지평리 북쪽에서 공격을 서두르고 있었으며, 예비로 중공군 제39군(제115, 제116, 제117사단)이 양덕원리 일대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북한군 제5군단은 횡성 북방 풍암리 일대에서 재편성을 하며 중공군의 공격을 지원할 준비 중에 있었고 북한군 제3군단은 예비로서 양구-인제 부근에서 제5군단의 뒤를 받치고 있었다.

한편 아군은 제8사단이 증안리-오음산에 이르는 18㎞의 광정면에 제16, 제10연대,

대전차공격대대, 제21연대를 모두 일선에 배치하고, 제3사단이 위섬배-추동리에 이르는 2.4㎞의 정면에 제23, 제22연대를 배치하고 제18연대를 사단예비로 하여 옥동리에 위치시켰다. 그리고 제5사단이 구방리-하대리에 이르는 10㎞의 정면에 제35, 제36연대를 배치하고 제27연대를 예비로 하여 공격준비를 서둘렀다. 또한 국군 제8사단의 서측방에는 미 제2사단 제23연대가, 국군 제5사단 동측방으로는 미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이 각각 배치되었다.

이렇게 넓은 전투정면에 국군 3개 사단과 미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이 배치되어 홍천-풍암리선의 공격작전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적의 저항이 점차적으로 완강해지면서 미 제8군은 중공군의 대병력이 홍천 남방 일대에 집결하여 대대적인 공격준비를 하고 있고, 그들의 공세가 임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126]

이러한 피아간의 상황하에서 1951년 2월 11일 17시를 기해 중공군은 서쪽 거슬치(居瑟峙)에서 동쪽 삼거리에 이르는 약 33㎞ 지역에서 횡성공격을 시작하였다. 덩화가 지휘하는 중공군은 상이한 시간대의 짧은 화력급습(火力急襲)을 한 후 차례로 공격을 시작하였다. 우선 제42군의 제124사단이 신속하게 상물안리(上物安里), 석자동(石子洞)을 공격해 제39군 제117사단과 제42군 제125사단을 위한 진격로를 개척했으며[127], 다음으로 제66군 주력이 2월 11일 19시에 공격을 시작하였다. 이들의 공격은 국군 제8사단에 집중되었다.

국군 제8사단장 최영희 준장은 1단계 공격 후반에 조우한 적의 저항과 공격이 심상치 않음을 여러 차례에 걸쳐 군단에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건의하였으나 그때마다 군단에서는 측방 및 후방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도 없이 신속히 진출하라는 독촉이 있었을 뿐이었다.[128]

중공군 제66군의 제198사단은 2월 11일 20시경에 국군 제21연대의 전방을 공격한 후 양측방으로 부대를 이동시켜 특히 서측방에서 무려 8㎞에 이르는 제10연대와의 넓은 공간을 뚫고 후방으로 침투하였으며, 또 다른 부대는 우측방으로 우회하여 횡성 쪽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중공군의 기습공격을 보고받은 제8사단장은 제21연대장에게 조금만 철수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미 연대를 휩쓸고 지나간 중공군 제198사단은 22시경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5번 도로를 따라 신속히 남진하여 제21연대 후방 창봉리에 배치되어 있던 미 제21지원부대와 B지원팀을 우회해 그 남쪽 4.5㎞ 지점에 있는 교량을 파괴하고 도로를 봉쇄하였다.[129]

2월 12일 01시에 이르자 국군 제8사단 사령부와 모든 연대 간은 물론 연대 상호간 그리고 그들의 예하 부대간의 통신 연락이 두절되었다. 01시 15분경 제21연대 장병들이 창봉리에 있는 미 제21지원부대의 주변으로 하나 둘씩 들어오자 지원부대장인 케이스(John W. Keith) 중령은 미 제2사단 포병사령관 헤인스(Loyal M. Hanynes) 준장에게 이 상황을 보고한 후 약 5㎞ 후방의 5, 6번 도로가 교차하는 신촌 일대로 제21지원부대의 철수를 요청하였다. 이와 더불어 그는 미 제21지원부대와 B지원팀이 이동태세를 갖출 때까지 국군 제21연대의 철수를 중지시켜 달라고 헤인스 준장에게 요청했다. 이 요청에 따라 미 제2사단 포병사령관은 국군 제8사단장과 무선 교신을 하였다. 국군 제8사단장은 제21연대가 사단과의 교신이 두절된 상태이지만 자신이 일찍이 단거리 후퇴만을 명령했기 때문에 더 멀리는 철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130]

이 무렵 도로가 봉쇄된 것을 알게 된 국군 제21연대장 하갑청 대령은 지원된 미 전차소대를 선두로 도로 차단 지역에 대한 돌파작전을 전개하기로 결심하였다. 하지만 이미 도로가 파괴되고 야음이 겹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05시에 각 부대에 휴대 가능한 장비를 제외한 모든 장비를 파괴하고 적중을 돌파하여 집결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연대장의 명령을 수령한 각 대대는 추격하는 중공군과 교전을 벌이면서 겹겹이 쌓인 적의 포위망을 헤치고 횡성 쪽으로 철수를 시작했다.[131] 중공군 제198사단의 공격이 성공하자 국군 제3사단 지역으로 공격하던 중공군 제197사단 소속의 병력 약 300여 명이 남서쪽 방향으로 침투한 후, 창봉리에서 미 제21지원부대를 엄호하던 미 제38연대 제1대대 진지로 접근하였다. 중공군의 공격에 직면한 제21지원부대는 12일 03시에 횡성을 향하여 철수를 개시했다. 그러나 제21지원부대가 철수대열을 갖추려고 할 때 선두에 편성된 제503포대가 적의 집중공격을 받아 포대장이 포로가 되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고 그 후 철수 과정에서도 교전이 잇달았다. 특히 대대의 후위인 A중대가 많은 피해를 입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지원부대장은 적의 화력에 의해 차단된 지점을 돌파하여 부대를 신촌에 위치한 제38연대 제3대대와 합류시키기로 했다.

제21지원부대는 결국 10시경에 미 제38연대 제3대대 진지 주변에 도착하였으나 철수 중에 제503포대 A포대의 105밀리 포 1문을 제외하고 모든 화기를 유기하는 등 많은 손실을 입었다. 지원부대장은 곡사포의 유기사실을 사단에 보고하고 아울러 이들 무기에 대한 공중폭격을 요청해 10시 30분부터 공중폭격이 개시되었다. 이 전투에서 제21지원부대는 400명이 넘는 인원 손실을 보았다.[132]

중공군 제198사단의 공격과 거의 같은 시각에 제120사단은 국군 제10연대의 방어선을 돌파하여 진내로 깊숙이 침투하였다. 이들은 야음을 틈타 일부 부대를 미리 전선 후방으로 투입한 후 하초원리 부근에서 6번 도로를 폭파하고 이에 호응하여 사면에서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로 인해 국군 제10연대는 걷잡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빠져들었다.

중공군 제120사단은 갈기산을 넘어 제10연대의 정면을 공격하는 한편, 일부 부대로서 자정을 전후하여 제10, 제16연대의 전투지원부대가 위치한 하초원리와 5번 도로 사이를 차단하여 국군 제50포병대대와 제20포병대대(-), 그리고 미 제21지원부대의 A팀을 분산시켰다. 이에 국군 제8사단장은 제10연대 지휘소, 제16연대 지휘소, 제20포병대대, 제50포병대대를 하초원리까지 이동하게 하고 분산 상태에 이른 수색대대로 하여금 하초원리 북쪽 773고지를 점령, 적의 종심 깊은 돌파에 대비하도록 명령하였다.[133] 이에 따라 적 포위망에 고립된 제50포병대대가 미 전차의 엄호하에 적진을 돌파하여 철수를 시도하였지만 이미 도로가 차단되거나 파괴되어 부득이 도로를 따라 철수하는 것을 단념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제20포병대대(-)만은 도로가 파괴되기 직전에 미 전차 2대의 엄호하에 철수를 감행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10연대장 권태순 대령이 전사하였으며, 예하 부대들은 적의 포위망을 뚫고서 사방으로 분산된 채 남쪽으로 철수하였다.[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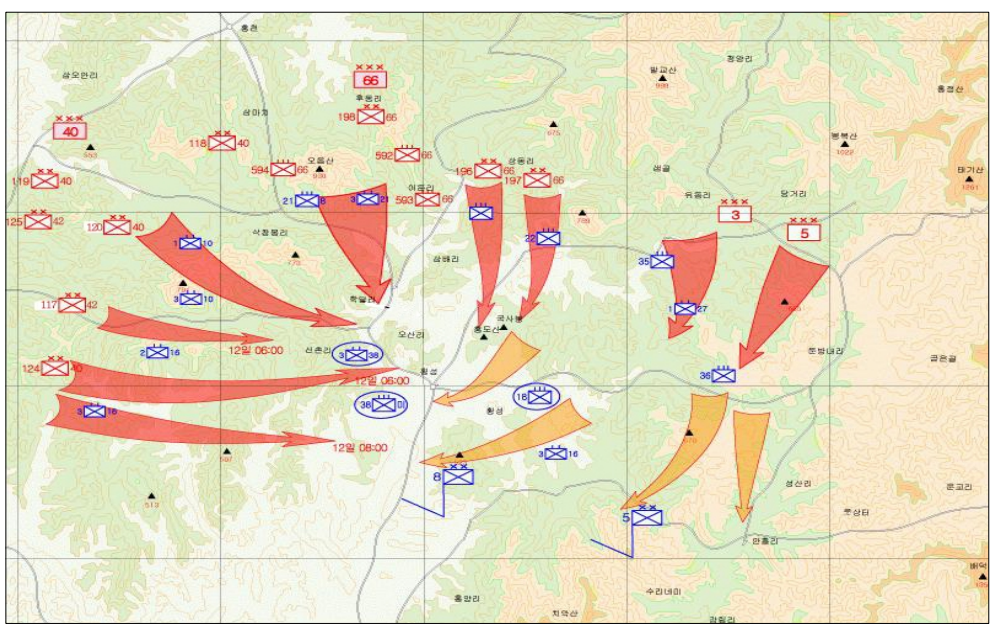
이 무렵 중공군 제39군의 제117사단은 국군 제16연대의 정면을, 제116사단의 제346연대는 제16연대의 서측방을 공격하였다. 이 부대들은 연대의 서측방을 돌파한 다음 횡성으로 통하는 6번 도로 아래로 펼쳐진 고지군에 병력을 투입해 동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측으로 깊숙이 침투하여 사단의 후방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국군 제16연대는 이와 같은 전방과 측후방 양면 공격의 상황하에서 끝내 좌전방 제3대대의 방어선이 무너짐에 따라 전 연대가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제16연대는 풍수원에 집결한 제1대대의 엄호하에 전방의 제2, 제3대대가 지연전을 펼치면서 석촌동 부근으로 철수해 저지선을 형성하고 사단 주력의 철수를 엄호하였다. 이 과정에서 후방으로 침투한 적에 의해 연대지휘소가 기습을 받아 연대장과 부연대장이 부대지휘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상황도 4-9> 횡성전투 경과(1951. 2. 11~2. 13)



이렇듯 국군 제8사단의 3개 연대 모두가 중공군의 기습공격으로 사면이 포위된 상황에서 뿔뿔이 흩어져 횡성 쪽으로 내려오고 있을 때 중공군의 선두부대는 12일 04시에 횡성까지 침투하여 사단지휘소를 기습 공격하였다. 하지만 제8사단 사령부 요원들이 이들과 맞서 교전을 벌인 끝에 2개 소대 규모의 적을 물리치고 일시적으로나마 지휘소의 안정을 회복하였다.

이렇게 횡성에 위치한 사단지휘소가 기습을 받고 각 연대가 적중에 포위된 채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을 때, 미 제10군단장으로부터 "① 제8사단은 주포리 일대로 철수하여 부대를 재편하고 차후 명령을 대기하라. ② 배속된 전차소대와 포병부대는 철수간에 운용한 후 원대로 복귀시켜라"는 명령이 국군 제8사단에 하달되었다. 이는 횡성을 포기하고 원주에서 적의 공세를 방어하려는 군단 작전 개념에 의한 전선조정과 재배치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135]

그러나 이 무렵 국군 제8사단은 각 연대와의 지휘통신망이 두절된 데다 전 예하부대가 이미 적중에 포위되어 각 부대별로 분산되어 철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기적인 철수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또한 포병대대와 미 전차소대도 제20포병대대의 2개 포대와 전차 2대만을 제외하고는 그 대부분이 적중에서 퇴로를 잃고 자체 방호력을 상실한 채로 고전하고 있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하에서 국군 제8사단장은 12일 09시에 군단에서 지원된 L-19기를 이용하여 철수명령서를 부대 자루에 넣어 각 연대지휘소에 공중 투하하였다.[136] 이때 하달된 명령은 다음과 같다.

- 사단은 주포리 일대로 철수하여 부대를 정비하고 차후 명령을 대기한다.
- 각 부대는 가용한 모든 기동로를 통하여 적진을 돌파하고 주포리 일대로 집결하라.
- 포병 제20대대와 미 전차소대는 철수하는 즉시 원대로 복귀하라.
- 각 부대는 철수에 앞서 추진이 곤란한 모든 장비를 파괴 또는 사용 불가능하게 하고 이동간 낙오자 수용에 최선을 다하라.[13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월 12일 10시부터 횡성은 철수하는 병력과 차량들로 큰 혼잡을 이루었다. 국군 제8사단장은 12시에 지휘소를 주포리 일대로 이동하는 한편, 횡성-문막과 원주-제천 간에 낙오자선을 설치하여 병력을 재수습하였다. 이때 국군 제8사단은 제1군단으로 배속이 전환되었다. 이후 국군 제8사단은 2월 15일에 지휘소를 황강리에 두고 제10연대가 선매리 일대로, 제16연대가 사창리 일대로 각각 이동하여

부대를 정비하였으며, 제21연대가 사단 작명 제113호(1951. 2. 17)에 의거해 2개 전투대대를 신편하고 제천으로 이동하여 제5사단의 석기암 전투를 지원하게 되었다.[138]

횡성 전투 결과, 국군 제8사단은 잔여병력이 장교 263명과 사병 3,000여 명에 불과했고 이 중의 반 이상이 사단 근무요원이었다. 사망하거나 실종된 인원은 장교 323명으로 여기에는 제10연대장과 전 참모, 제16연대의 부연대장, 7명의 대대장과 30명의 중대장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사병은 7,142명이었다. 또한 사단 장비손실은 포 14문, 대전차포 5문, 트럭 68대, 무전기 249대, 박격포 87문, 로켓포 137정, 기관총 164정, 자동화기 102정, 카빈소총 2,389정, 소총 4,096정이었다.[139]

한편 홍천 우측방 29번 도로(홍천-횡성-원주-제천) 동쪽에서 공격 중이던 국군 제3사단과 제5사단도 좌인접 제8사단과 마찬가지로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국군 제3사단은 중공군 제197사단, 국군 제5사단은 북한군 제3, 제5군단 병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국군 제3사단은 12일 9시경 중공군 제197사단을 향해 공격을 시도하였으나 13시경에 오히려 정면으로 진출한 중공군의 강력한 공격을 받아 1개 연대가 포위되자 횡성으로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중공군 제66군은 신속히 기동하여 횡성 후방의 곡교리(曲橋里)-덕고산(德高山) 간의 차단진지를 점령, 유엔군의 퇴로를 차단할 계획이었으나 국군 제3사단의 완강한 저항으로 진출이 지연되어 퇴로차단에 실패함으로써 공산군의 공격은 차질을 빚게 되었다.[140]

사단이 철수하는 동안 제23연대는 마옥리(磨玉里) 부근에서 사단의 철수를 엄호하기도 하였고, 제18연대는 미 제2사단의 우전방으로 배속 중인 제187공정연대 전투단에 재배속되어 횡성 북쪽의 섬강(蟾江) 부근에 진출해 창봉리에서 철수하는 미 제21지원부대를 엄호하였다.

이때 국군 제3사단의 우인접 부대인 국군 제5사단은 12일 아침 군단 전투지경선 부근의 공격목표를 향해 북동쪽으로 이동하다가 북한군 제5군단의 강력한 반격과 중공군의 후방위협을 받게 되자 정오 무렵에 철수를 개시하였다.

전면 철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미 제10군단장은 12일 정오가 조금 지나 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주의 사령부를 방문한 제8군사령관과 군단작전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군단장은 횡성을 포기하고 원주를 방어하는 계획을 제안하였다. 군단장은 이날 늦게 지평리-원주 간의 새로운 방어선을 선정하고 전선을 조정하였다. 미 제2사단은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을 배속받아 지평리에서 원주 북쪽 29번 도로를, 그리고 군단보다 북쪽에 진출해 있는 우인접의 국군 제3군단과 전선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29번 도로에서 원주 북동쪽의 군단 전투지경선까지에 국군 제3, 제5사단을 배치할 계획이었다. 그리고 한국군 사단을 증원하기 위하여 미 제7사단 제31연대를 평창 남쪽의 도돈리(道敦里)에 배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군단장은 국군 제3, 제5사단의 통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국군 제1군단사령부를 배속시켜 줄 것을 건의하였다. 국군 제1군단장과 군단참모들은 지난 연말 흥남 철수작전시 군단과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어 합동작전에는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었다. 제8군사령관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국군 제1군단사령부가 이동하였고, 그 예하의 수도사단은 국군 제3군단이 통제하여 계속 동해안을 방어하게 되었다.[141]

미 제10군단장의 명령에 따라 철수를 하던 제3, 제5사단은 북한군 제5군단으로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받았다. 양 사단은 다수의 피해를 입고 점령하여야 할 원주-평창 선보다 훨씬 남쪽으로 계속 철수하여 제3사단은 원주 남동쪽에, 제5사단은 제천 북쪽에 새로운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미 제10군단장은 적이 횡성 남쪽지역으로 강력한 공격을 펼칠 것으로 예상하고 원주 고수를 강조하였으나 적은 14일 공격 이후 재공격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15일 원주 방어선에서는 국지적인 탐색전만이 전개되었으며, 16일 이후에는 접전이 없었다.

그러나 북한군 제5군단 예하 3개 사단(제6, 제7, 제12사단)은 신정공세시 제2군단이 사용한 통로를 이용하여 제천을 목표로 돌파구를 확대하려고 진출하였다. 신정공세의 전철(前轍)을 우려한 미 제10군단장은 2월 15일 강릉에서 이동한 국군 제1군단장에게 국군 제3, 제5, 제8사단의 작전통제권과 원주-평창 선의 방어임무를 부여하였다. 이때 군단의 좌전방 제3사단은 성남리(城南里) 부근에, 우전방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5사단은 주천리(酒泉里) 부근에 방어진지를 편성하였고, 제8사단은 군단예비로 주포리(周浦里)에 집결하고 있었다. 군단의 최우선 목표는 전방사단의 배치 공간 지역에 제8사단을 신속히 투입, 적의 돌파구 확대를 저지하여 제천을 확보하는 것이다.[142]

제천을 목전에 둔 북한군 제5군단은 국군 제1군단 전방에 집결하여 16일 아침부터 국군 제3사단과 제5사단을 공격하였다. 국군 제3사단은 책임지역을 고수하였지만 주천리를 방어 중이던 국군 제5사단 제36연대가 방어진지를 돌파당해 8㎞를 철수하였다.

이로 인해 국군 제3, 제5사단의 철수가 단행되었으며, 제3군단의 좌전방에 약 30㎞에 달하는 공백지대가 생겼다. 이 지역으로 북한군 제2군단의 쇄도를 우려한 국군 제3군단은 횡성 동쪽의 창동리 선에 배치된 제7, 제9사단을 약 20~25㎞ 남쪽으로 철수시킬 수밖에 없었다. 국군의 철수를 추격해 온 북한군 제9, 제27사단은 평창을 점령한 다음 평창-영월 도로를 따라 남하하여 영월을 점령하려고 기도하였다. 당시 국군 제3군단은 좌전방 제7사단이 평창-영월 도로를 따라 영월로 남진하는 북한군 제2군단을 저지하는데도 벅차서 좌인접 국군 제5사단과의 11㎞에 달하는 공백지대를 메울 수가 없었다.

이에 제8군사령관은 17일 미 제10군단장에게 이 지역으로 미군부대를 투입하여 북한군을 격퇴하고 국군 제3군단과 연결하도록 명령하였다.[143] 미 제7사단 제31연대가 이 지역으로 투입되면서 국군 제1, 제3군단 간의 측방노출이 해결되었고, 국군 제3군단은 17~18일 양일간 계속된 북한군 제2군단의 공격을 저지하고 도돈리-정선 간의 방어진지를 고수하였다. 이후 북한군 부대들은 지금까지의 전투로 지친 전력으로는 견고한 국군의 방어선을 더 이상 공격하기 힘들게 되었다. 그들이 점령하였던 대부분의 지역은 국군의 역습으로 다시 국군과 유엔군의 수중에 들어왔으며, 18일 저녁 이후부터는 접적보고가 들어오지 않았다. 이로써 2월 11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중공군의 2월 공세는 사실상 종료되었다.

횡성 전투에 대해 중공군 공간사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중공군은 "국군과 유엔군 12,000여 명을 살상하고, 각종 포 139문, 로켓발사기 122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각종 총기 6,200여 정, 전차 7대, 차량 550대를 노획하였으며, 각종 포 21문, 각종 총기 1,232정을 잃고, 4,14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그들은 작전 성과와 관련해 "유엔군을 동부전선에서 26㎞ 후방으로 물러나게 하여 전 전선에서의 유엔군 반격을 늦추는데 소정의 역할을 하였다"고 자평하였다. 이와 더불어 그들은 작전지도 면에서의 몇 가지 특징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① 지원군은 공격목표 선택을 잘하였다. 지원군 주력이 휴식과 정비 지역에서 출동을 한 후 횡성과 지평리에서 모두 적을 섬멸할 수 있는 유리한 기회가 있었으나 지평리의 적은 주로 미군으로 병력이 집중되고 전투력이 강하여 만약 지원군이 2주야를 전투하여 해결을 보지 못한다면 동·남·서 3방향의 미군과 한국군이 모두 증원할 수 있어 지원군이 아주 불리한 태세에 처하게 될 것이었다. 반면에 횡성의 적은 주로 한국군으로서 전투력이 약하여 지원군이 한번의 포위로 그 1개 사단을 포위할 수 있었다. ② 절대 우세한 병력과 화력을 최대한 많이 집중하였다. 예정한 적 섬멸 목표는 한국군 1개 사단과 미군 1개 연대뿐이었으나 지원군은 적을 확실하게 섬멸하기 위해 4개 군 총 11개 사단 총병력 약 12만 5,000명을 집중하였다. ③ 기습을 달성하였다. 리지웨이는 전 전선에서 반격을 시작한 후 주력을 서부전선에 집중하였다. 유엔군은 지원군 주력이 서울 방향에 있고, 횡성 지구에는 북한군만 방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동부전선 미 제10군단이 지휘하는 부대는 대담하게 북쪽을 향해 전진하였다. 지원군 주력은 휴식과 정비 지구에서 출동한 후 5~17시간 만에 공격출발진지에 도착하여 공격을 시작하고 완전 기습을 달성하였다. ④ 전역에서는 다층우회포위(多層迂回包圍) 전법을, 전술 면에서는 분할포위(分割包圍) 전법을 채택하였다. 각 사단은 전역에서의 분할포위 외에 전술적으로도 분할포위섬멸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포위된 적을 또 약간 작게 분할 섬멸하고, 또한 적군의 포병진지를 파괴하여 보병이 포병의 화력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원만한 작전결과를 얻었다."[144]

이러한 중공군의 작전 평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전투에서 국군 3개 사단은 많은 인원과 장비의 손실을 보았다.[145] 하지만 유엔군측에서도 중공군의 2월 공세를 통해 중동부전선에 투입된 중공군의 규모, 공격 및 침투전술 그리고 장차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작전의 기도 등을 파악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있을 전투에 대비할 수 있는 교훈을 얻는 계기가 되었다.

2) 지평리 전투

지평리 전투는 1951년 2월 13일부터 16일까지 미 제2사단 제23연대(프랑스대대 배속)가 원주 북방의 지평리에서 중공군 제39군 예하 3개 사단의 집중공격을 막아낸 방어 전투이다.

당시 지평리는 홍천-여주 축선상에서 병참선의 중심지였다. 이에 따라 유엔군과 공산군 양측은 이곳의 점령을 작전의 주요 목표로 삼았다. 특히 유엔군의 입장에서 볼 때 지평리는 인접지역의 전체 도로망을 통제하고 한강선으로 진출할 수 있는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하던 곳이었으며, 또 미 제10군단의 좌측방을 방어할 수 있는 강력한 방어진지인 동시에 남한강 서쪽의 광주 지역에 있던 적을 위협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다.[146] 이에 따라 미 제10군단은 미 제2사단 제23연대, 프랑스대대, 제37야포대대, 제1특공중대, 제503야포대대 B포대, 제82대공자동화기 고사포대대 B포대, 제2공병대대 B중대로 구성된 미 제23연대전투단을 2월 3일부터 지평리에 배치하였다.[147]

제4차 공세(2월 공세)를 준비하던 중공군의 펑더화이와 각 군 사령관들은 2월 7~8일 이틀간 지평리 지구와 횡성 지구 중 어느 곳을 먼저 공격할 것인가를 놓고 열띤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 결과 지원군사령부는 전투력이 약한 횡성지구의 국군을 먼저 공격해 와해시킨 후 계속해서 지평리 지구를 공격하기로 결정하였다.[148] 이로써 중공군의 제4차 공세는 공세 초기에 중공군의 주력이 횡성지구에 집중되고 일부 병력이 지평리 지구의 미군을 견제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2월 9일 14시에 하달된 덩화의 공격계획 명령에 의하면, 중공군 제39군 예하 제115, 제116사단과 제42군 예하 제126사단과 제125사단 제375연대가 지평리 지구의 미군을 견제하는 부대로 정해졌다. 이들 견제부대의 임무는 중공군 제39군(-)이 용두리 동남쪽에 배치되어 횡성지구로 진출하는 중공군 주력의 우측방을 엄호한 후 지평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리로 향해 미군을 감시하고, 제42군 병력이 제39군사령관의 지휘하에 주읍산과 지평리 북쪽 지역을 장악해 지평리의 미군을 견제하는 것이었다.[149]

중공군 제39군(-)은 2월 공세 개시일인 2월 11일에 남한산에서 지평리로 이동을 완료하였다. 이날 17시에 시작된 중공군의 2월 공세로 횡성지구의 유엔군 방어선이 급속하게 무너지자, 지원군사령관 펑더화이는 12일 08시에 덩화와 제39군 사령관 우신촨(吳信泉), 제39군 정치위원 쉬빈저우(徐斌洲)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하달하였다. "한국군 제8사단은 이미 대부분 섬멸되고 … 전역의 돌파구가 열려 적이 동요하고 있다. 제39군 주력과 제126사단의 사용을 검토하고 일부가 정면에서 지평리의 적을 포착하고, 주력은 적 측후로 침투하여 적이 철수할 때를 틈타 운동전으로 이를 섬멸하는 것이 좋겠다."[150] 이 지시에 따라 덩화는 제40군 제119사단으로 하여금 제39군 주력 및 제42군 제126사단과 함께 13일 저녁 지평리의 미 제23연대를 포위 섬멸하라고 명령하였다.[151]

중공군은 12일 저녁 곡수리(지평리 남쪽 6km)-지평리, 구둔리(지평리 동남쪽 5km)-지평리 간의 기동로를 각각 차단하고, 2월 13일 아침부터 지평리를 여러 겹으로 포위하였다.[152] 이때 중공군 제42군 제126사단이 곡수리-지평리간 도로를 점령하여 미 제23연대의 이천 방면 퇴로를 차단하였으며, 제40군 제119사단과 제120사단 제359연대가 하고송과 상가리로 진출하여 지평리의 동북쪽을 위협하였다. 그리고 제39군은 제116사단을 지평리 동남쪽 단석리에 진출시켜 여주와 문막리로 통하는 도로를 차단하였으며, 13일 저녁 제115사단의 일부 병력을 가내동과 삼산리로 진출시켜 제116사단과 연결하는 한편 사단 주력을 지평리 동쪽의 계량과 송정 일대에 예비대로 배치하였다.[153]

중공군이 지평리 공격을 준비하는 동안에 미 제10군단은 한때 제23연대를 지평리에서 철수시키는 것을 고려하기도 했다. 2월 13일 오전, 지평리에서 전운이 감돌자 제10군단장 알몬드 소장은 헬리콥터 편으로 지평리를 방문해 제23연대장 프리만(Paul L. Freeman) 대령으로부터 지평리의 경계상황과 적정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프리만 대령은 연대가 여주로 철수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하였다.[154] 군단장은 원주 방면에 병력을 집중할 필요성과 제23연대의 긴박한 상황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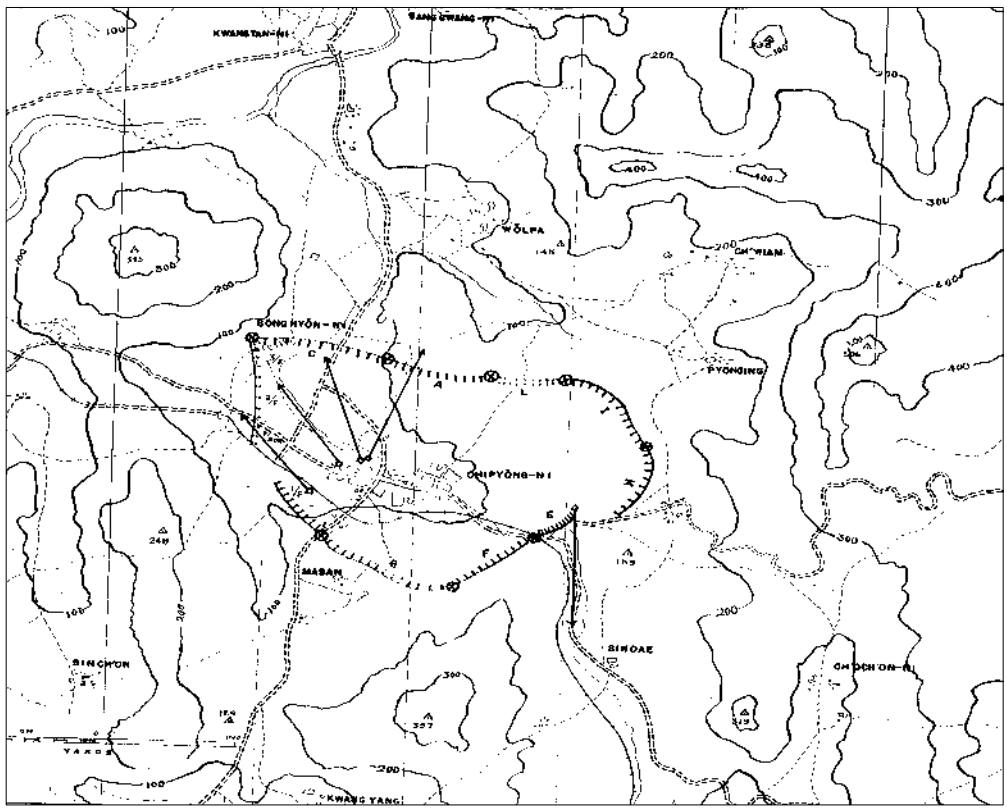
등을 감안하여 연대장의 철수 건의를 받아들이고, 이를 곧 제8군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에게 보고하였다.

지평리의 긴급 상황을 보고받은 제8군사령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군단장의 철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지평리를 포기하면 인접한 제9군단의 우측이 개방되어 제9군단이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제9군단이 적의 공격을 받게 되면 현재 진행 중인 썬더볼트 작전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 전선의 균열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반격에 중요한 거점을 잃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제8군사령관은 "적이 이번 공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지평리 점령의 필요성이 절대적이다. 따라서 아군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평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요지의 작전명령을 하달했다.

① 제10군단은 문막리에 위치한 군단 예하 제2사단의 제38연대로 하여금 지평리의 제23연대를 증원하게 하라.
② 제9군단은 군단 우익의 한국군 제6사단과 영 제27여단을 지평리와 문막리 사이로 이동시켜 제10군단 전면의 간극을 폐쇄하라.[155]

제8군사령관의 지평리 사수명령에 따라 제23연대장 프리만 대령은 지평리 사수를 결심하고 방어진지를 강화하였다. 지평리는 마을을 중심으로 하여 직경 5km 주위에 망미산(△379)[156], 248고지, 345고지, 207고지, 212고지 등이 원형으로 연결되어 있어 이 지점들을 연결하면 천혜의 원형진지를 형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원형진지는 둘레가 18km에 달하여 연대의 병력 4개 대대(제1, 제2, 제3, 프랑스대대)로는 진지를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연대는 다음의 <배치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확보가 가능한 범위로 축소하여 마을을 중심으로 직경 1.6㎞의 원형진지를 구축하였다. 이로써 제23연대는 제1대대가 북쪽 207고지의 남단을, 제2대대가 남쪽 망미산 하부 능선을, 제3대대가 동쪽 212고지 동남사면을, 그리고 프랑스대대가 서쪽 분지의 논 가운데와 양평으로 향하는 철도연변을 각각 분담하여 간극 없이 사주를 경계하게 되었다. 그러나 원형진지를 최소한으로 축소하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지평리의 미 제23연대(프랑스대대 배속) 배치도

출처 : Hq. X Corps, "Battle of Chipyong-ni", Command Report, February 1951, Inclosure No. 1, RG 407, Entry No. 429, Box No. 199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음에도 불구하고 둘레가 6km에 이르러 완벽한 사주 방어태세를 갖추기는 어려웠다.

연대장 프리만 대령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13일 예비 병력으로 연대에 1개 중대와 각 대대에 1개 소대씩만을 남기고 전 병력을 제1선에 투입하였다. 또한 미 제23연대는 전차중대를 일선 외곽에 배치하고 진지 주위에 지뢰를 설치하였으며 각 부대간의 모든 간극을 자동화기의 화망으로 구성하였다.[157]

중공군은 13일 13시에 덩화 명의로 지평리에 대한 최종 공격계획을 예하부대에 하달하였다. 이 명령에 따라 이날 17시 30분을 기해 지평리에 대한 중공군의 공격이 개시되었다. 중공군 제40군 예하 제119사단의 제356연대가 상고송에서, 제

357연대가 광탄리에서 지평리를 향해 공격했으며, 제42군 제375연대가 황거리에서 지평리 동남쪽의 초왕리를 향해 공격했다. 그리고 제42군 예하의 제126사단 제376연대와 제377연대가 서쪽과 서남쪽에서 지평리를 향해 공격하고 제378연대가 이포리에서 유엔군의 증원 병력을 견제하였다.[158]

중공군은 미 제23연대 진지의 사방에서 횃불을 들고 포위망을 압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2시 15분에 북서쪽과 북쪽, 그리고 남서쪽에서 미 제23연대의 방어진지를 향해 포탄이 날아들기 시작했으며, 곧이어 적의 부대들이 방어진지 북쪽의 제1대대 A와 C중대를 공격하였다. 또한 방어선 남쪽에 위치한 제2대대도 적으로부터 포격을 받았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전 방어선에 걸쳐 적의 공격이 전개되었다.[159]

미 제23연대는 전 화력을 집중하여 진지주변에 빈틈없는 탄막을 구성하였다. 이날 밤에 연대의 포 1문 당 평균 250발을 집중 발사하여 가공할 위력을 발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도 연대 CP 주위에 300여 발의 포탄을 발사했다. 이로 인해 연대장이 화상을 입고, 군수참모가 전사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160]

중공군의 공격은 14일 아침까지 계속되었다. 중공군은 14일 새벽에 제39군 제115사단의 2개 연대를 추가로 투입해 공세를 강화했다. 이날 날이 샐 때까지 미 제23연대의 손실은 약 100명에 달했으며, 연대장 프리만도 다리에 박격포탄의 파편을 맞아 부상당했다. 이에 알몬드 제10군단장은 전직 군단 작전참모였던 칠레스(John H. Chiles) 대령을 지평리로 보내 연대를 지휘하도록 조치하였다. 하지만 연대장 프리만은 즉각적인 후송을 거부하고 신임 연대장을 자문하기 위해 24시간 동안 지평리에 남겠다고 하였다.[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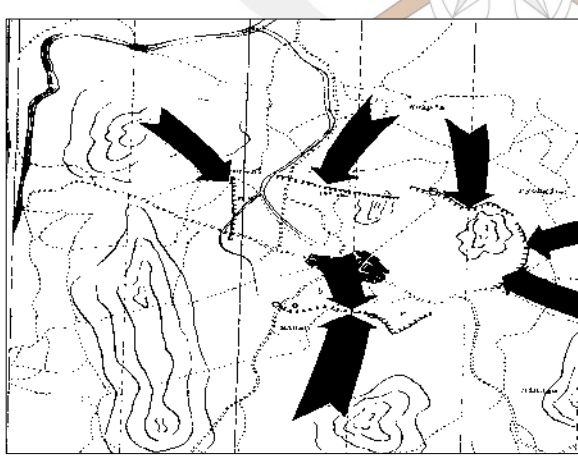
2월 14일 오전에는 강풍과 적의 박격포 및 야포 사격으로 인해 부상병의 헬리콥터 후송마저 어렵게 되었다. 또한 기상 악화로 유엔공군의 항공지원도 어려웠다. 그러던 중 오후 들어 기상이 호전됨에 따라 14시 30분경부터 세 차례에 걸쳐 유엔 공군 전폭기가 진지 남쪽 망미산 일대에 집결한 적을 공격하였다. 그리고 15시경에는 일본에서 발진한 C-119S 수송기 24대가 3시간에 걸쳐 미 제23연대 집결지에 보급품을 투하하였다. 이에 적은 간헐적인 박격포사격에만 의존하면서 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간 공격을 단념하고 야간 공격으로 전환하였다.[162]

야간 공격으로 전환한 중공군은 14일 20시 30분을 기해 K중대를 시작으로 미 제23연대 방어진지 전면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다. 특히 중공군은 주공을 남쪽의 제2대대 G중대 정면으로 지향하였다. G중대는 백병전으로 맞서면서 중공군의 공격을 저지했지만, 중공군이 G중대와 프랑스대대의 간극으로 공격해 옴에 따라 15일 3시 15분경에 진지를 상실하게 되었다. 종심이 없는 협소한 원형진지의 일부가 적에게 탈취되었다는 것은 곧 전체 방어선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원형진지의 일부가 무너지자 연대장은 제2대대장에게 연대와 대대의 예비 병력인 2개 소대를 G중대에 증원하여 진지를 탈환하라고 명령하였다. G중대는 05시 15분에 진지 탈환작전을 실시했지만 끝내 성공하지 못하고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연대 CP쪽으로 200m 가량을 철수해 축차진지를 급히 편성하였다. 이때 나머지 삼면에서는 격전을 벌이면서도 끝까지 진지를 고수하였다. 특히 서쪽에 위치한 프랑스대대는 인접한 제2대대의 진지일부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진지를 고수하였다.[163]



미 제10군단이 작성한 지평리 전투 상황도

출처 : Hq. X Corps, "Battle of Chipyong-ni", Command Report, February 1951.

지평리의 제23연대가 중공군과 격전을 벌이고 있는 동안 장호원에서 전열을 정비 중이던 미 제9군단 소속의 제5기병연대(연대장 Marcel G. Crombez 대령)가 군단장으로부터 지평리 방면으로의 진출을 명령받았다. 미 제9군단장 무어(Bright E. Moore) 소장은 제5기병연대에 "군단 우측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진지로 이동해 즉시 북·동쪽 방면을 탐색하라"고 명령했다.[164] 이 명령은 제9군단장이 지평리의 위기를 고려해 전황의 추이에 따

라 제5기병연대를 활용하려는 의도에서 취한 조치였다. 2월 14일 '군단작명 제24호'에 따라 제5기병연대는 제10군단과의 전투지경선에 위치한 여주로 북진하였다. 그런데 이날 오후 제5기병연대는 군단장으로부터 지평리의 제23연대를 지원하라는 수정된 명령을 수령하였다.[165]

제5기병연대는 17시에 남한강을 도하해 곡수리 남쪽 2km 지점의 무촌리까지 진출한 후 이 곳에서 전열을 정비한 다음 23시 30분에 곡수리 방면으로 진출하였다. 2월 15일 07시를 기해 제5기병연대는 미 제23연대와의 연결작전을 개시했지만, 곡수리 일대의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정오가 지나도록 큰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이에 제5기병연대장은 연대의 전 병력을 동원해서 중공군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제23연대와 연결하는 것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서 곡수리에서 지평리까지 전차 종대로 적중을 돌파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적중 돌파는 곡수리-지평리간 도로가 협소한데다가 도로 좌측에 주읍산, 우측에 망미산이 있어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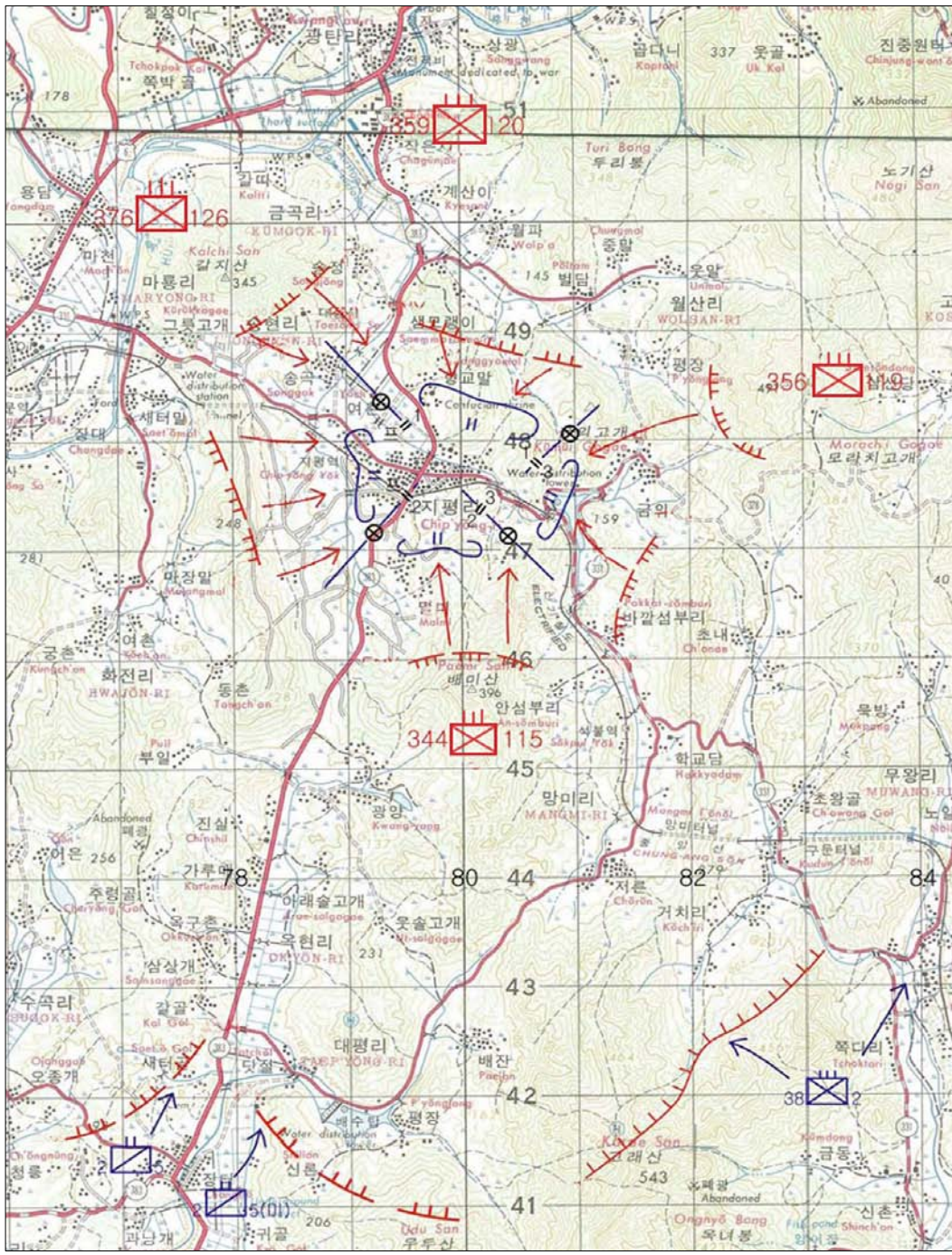
제5기병연대장은 15일 15시에 제6전차대대 D중대와 제70전차대대 2개 소대로 편성된 전차 23대에 제3대대 L중대원 160명을 탑승시켜 전차 종대를 구성했다. 유엔 공군이 곡수리 북쪽과 망미산 서쪽에 대해 항공폭격을 실시하고 제5기병연대 제1, 제2대대가 곡수리 양쪽 능선의 적을 견제하는 가운데 전차 종대는 15시 45분에 돌파작전을 개시하였다. 이때 전차 종대의 선두와 후미간의 길이가 1,500m에 달했으며, 연대장이 제5번 전차에 동승하였다.

제5기병연대 전차 종대는 적의 빗발치는 사격을 뚫고서 망미산에 근접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차를 엄호하던 제3대대장과 L중대원 60여 명이 낙오되기도 했으며,[167] 중공군의 육탄공격으로 L중대원 30~40명이 살상 당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5기병연대의 선두는 6㎞에 이르는 적중을 돌파해 제23연대와의 연결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그러나 제5기병연대가 제23연대와의 연결을 이루기 위해서는 망미산의 아랫재와 좌측 282고지 사이를 반드시 뚫어야만 했다. 기병연대의 선두 전차가 협로 입구에 들어서자 중공군의 박격포와 로켓포가 집중되어 그 중 한 발이 전차 포탑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4-10> 미 제23연대와 제5기병연대의 지평리 전투



명중하였고, 이어 D전차 중대장이 탄 전차가 로켓포 공격을 받아 중대장 히어스(Johnnie M. Hiers) 대위와 전차 승무원들이 전사하였다.[168]

제5연대장은 전차의 신속한 기동을 계속해서 독촉하였다. 전차가 단독으로 돌진함으로써 보병들의 손실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연대는 이날 17시 15분경에 지평리 남쪽의 망미산을 공격 중인 미 제23연대 전차와 연결하였다. 망미산에 배치된 적들은 제5연대의 증원으로 사기가 저하되어 철수하였고 크롬베츠 특수임무부대는 지평리의 제23연대와 연결한 후 곡수리에서 지평리에 이르는 도로를 방어하였다. 이 무렵 중공군이 지평리를 빠져 나가기 시작했다는 항공정찰 보고가 있었으며, 16일 새벽에는 중공군의 퇴각이 정찰대에 의해 확인되었다.

지평리 전투에서 미 제23연대가 중공군에 가한 손실은 총 4,946명으로 추산되었으며, 미 제5기병연대도 500명 이상의 적을 사살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미 제23연대 사상자 수는 사망 52명, 부상 259명, 실종 42명이었고, 부상자들은 헬기와 차량으로 미 제5기병연대 지역으로 후송되었다.[169]

한편 14일 미 제10군단을 지원하기 위해 출발한 미 제9군단의 영 제27여단은 미 제2사단에 배속되어 지평리 부근으로 이동하였으며, 국군 제6사단(제19연대 결)도 미 제10군단에 배속되어 미 제9연대 제1대대 좌측의 공간지대로 이동하였다. 15일 지평리-원주 사이의 북서쪽으로 진출한 영 제27여단과 국군 제6사단(-)은 16일 적의 경미한 저항을 물리치고 제6사단(-)이 간현리 일대로, 영 제27여단이 주암리 일대로 진출하였다.

수적으로 우세한 중공군과 싸워 큰 손실 없이 고립된 상태에서 제23연대전투단이 지평리를 방어하는 데 성공한 것은 국군과 유엔군에 새로운 활력이 되살아난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또한 크롬베츠 특수임무부대가 전차에 탑승한 보병들의 많은 희생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기갑부대를 운용한 것은 시기적절한 지휘관의 결정과 예하부대의 명령 복종이 나은 결과였다. 이를 계기로 미 제8군사령관 리지웨이는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공격 작전을 예하부대가 충분히 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다.[170]

지평리 전투와 관련해 중공군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첫째, 제3차 공세 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휴식과 정비를 하려다 전투로 전환했기 때문에 준비가 불충분하였다. 물자와 탄약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화력이 약하였다. 둘째, 횡성전투의 신속한 승리로 경적(輕敵)사상이 생겨나 지평리의 적을 빨리 타격하기 위해 너무 성급하게 전투에 임하였다. 셋째, 정찰의 부족과 판단 착오로 지평리의 적을 충분히 간파하지 못했다. 지평리의 적은 4개 대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으나 실제는 5개 대대 6,000여 명의 병력이 있었다. 또 포병대대와 전차중대 등의 화기도 있었다. 원래는 일반적인 야전 진지만 있는 것으로 알았지만 실제는 비교적 견고한 방어진지가 구축되어 있었고, 치밀한 방어망이 설치되어 있었다. 넷째, 병력이 분산되고 건제가 혼란하였다. 너무 급한 타격으로 충분한 준비와 치밀한 조직을 하지 못하였다. 공격 부대의 경우 4개 사단이 3개 군의 건제에 나누어 소속되었다. 다섯째, 작전술이 적절하지 못했다. 제39군 주력은 남쪽에서 접근하고, 제119사단은 북쪽에서 압박하는 식으로 남북협공을 하면 적을 섬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일반적인 전술을 사용함으로써 견고한 진지를 공격하기 위한 준비나 전술이 없었다."[171]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중공군은 지평리 전투의 교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현대화된 장비, 진지가 견고한 거점에 대한 공격은 전투 전에 반드시 상세하게 정찰하고, 적정, 지형, 진지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하며, 충분한 준비를 하여 돌파구를 잘 선택하고 절대 우세한 병력, 화력을 집중하여 중점 돌파를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화력과 병과간의 협동작전을 잘 조직해야 하며, 병력과 화력을 고르게 분산하고 조급한 공격을 지양해야 한다."[172]

1951년 4월 6일 펑더화이가 지원군 당위 회의에서 "우리는 출동하고 승리하였으나 승리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지평리가 해결되지 않았다. 설사 적을 해결했다 하더라도 물러가게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의 역량 부족으로 적 종심이 커졌다"[173]고 회상하듯이 지평리 전투는 중공군에게 치명적인 패전이었다.

반면에 유엔군의 입장에서 볼 때, 지평리 전투는 중공군과 싸워서 얻은 최초의 전술적인 성공으로써 지난 12월과 1월 초의 곤혹스러웠던 철수시기에 상실한 사기를 확실히 되찾고 새로운 각오로 전투에 임할 수 있는 전환점이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결론적으로 지평리 전투는 1950년 중공군의 개입 이후 유엔군이 처음으로 중공군 대규모 공격에 물러서지 않고 싸움으로써 진지를 고수한 최초의 전투였다. 이 전투로 중공군은 막대한 손실을 입고 2월 공세에 실패하였으며, 유엔군은 중공군이 6·25전쟁에 참전한 이후 최초로 전세를 만회할 수 있게 되어 재반격의 기틀을 다지게 되었다. 또한 중공군이 인해전술로 몰아붙이는 공세가 실패한 것도 처음이었다. 이에 따라 유엔군은 중공군에 대하여 자신감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38도선 회복을 위한 반격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다.

3) 유엔군의 38도선 진격작전

(1) 중동부지역의 킬러 작전(Operation Killer)

1951년 1월 25일 재반격작전으로 전환한 국군과 유엔군은 단계적인 공격작전을 전개하던 중 중공군의 제4차 공세(2월 공세)를 맞아 대돌파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2월 18일경 유엔군이 지평리에서 승리함으로써 중공군의 제4차 공세는 공산군의 패배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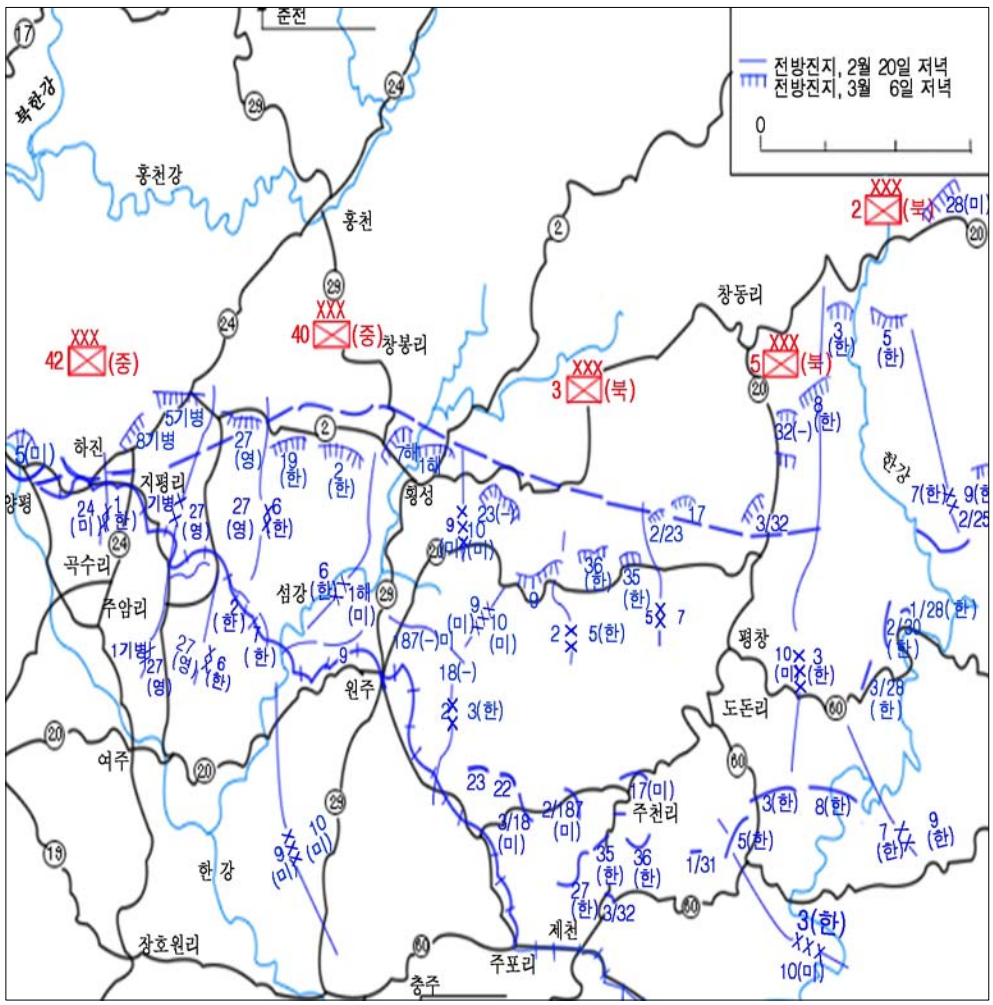
지평리의 승리로 자신감을 되찾은 제8군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은 중공군의 제4차 공세가 불과 1주일 만에 격퇴되고, 유엔군이 다시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자 적에게 새로운 공격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리지웨이 장군은 제천-영월 지역의 공산군 주력을 포위 섬멸하기 위해 즉각적인 반격작전을 계획했다. 중공군 개입 이후 두 번째 실시되는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작전이었다. 작전은 '적의 주력을 포위 섬멸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격멸 작전(Operation Killer)'으로 명명했다. 미 제9군단은 원주-횡성 방향으로,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3군단은 제천-평창 방향으로 각각 공격하기로 했다.

이때 국군과 유엔군의 전선 배치는 다음과 같았다. 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은 국군 제1사단이 김포반도와 영등포 일대, 미 제3사단이 한강선을 따라 경안리 일대, 미 제25사단이 광지원리 남서쪽의 무갑산 일대를 각각 방어 중이었다. 중서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4-11> 미 제9군단의 킬러 작전(1951. 2. 21~3. 4)



전선의 미 제9군단은 미 제24사단이 중공군의 한강교두보 남쪽과 남동쪽을 방어하고, 미 제1기병사단이 남한강 동쪽의 하진 일대, 영 제27여단이 주암리, 국군 제6사단이 판대리 부근에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있었다. 중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은 미 제2사단이 원주 서쪽 섬강, 제187공정연대전투단(국군 제3사단 제18연대 배속)이 원주, 국군 제3사단(제18연대 결)이 성남리, 국군 제5사단이 입석리 일대에

서 차단진지를 점령하고 있었다. 그리고 동부전선의 국군 제3군단은 제7사단이 마차리, 제9사단이 정선, 수도사단이 삽당령에서 강릉에 이르는 선에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있었다.

이 무렵 북한군과 중공군은 8개 군단을 한강 하구로부터 양평, 중원산, 횡성, 봉화산, 주봉, 방림리를 거쳐 하진부리에 이르는 제1선에 배치하고 있었다. 북한군 제1군단이 한강 입구에서 뚝섬, 중공군 제50군이 뚝섬에서 상팔당(上八堂), 중공군 제38군이 상팔당에서 조좌리, 중공군 제42군이 조좌리에서 매봉, 중공군 제66군이 매봉에서 정금산, 북한군 제5군단이 정금산에서 하대곡, 제3군단이 하대곡에서 아지동, 제2군단이 아지동에서 동해안까지를 담당하였다. 공산군측 전선부대의 방어종심은 25~30㎞이었으며, 각 군은 이 지역에서 1개월 동안 방어할 계획이었다.[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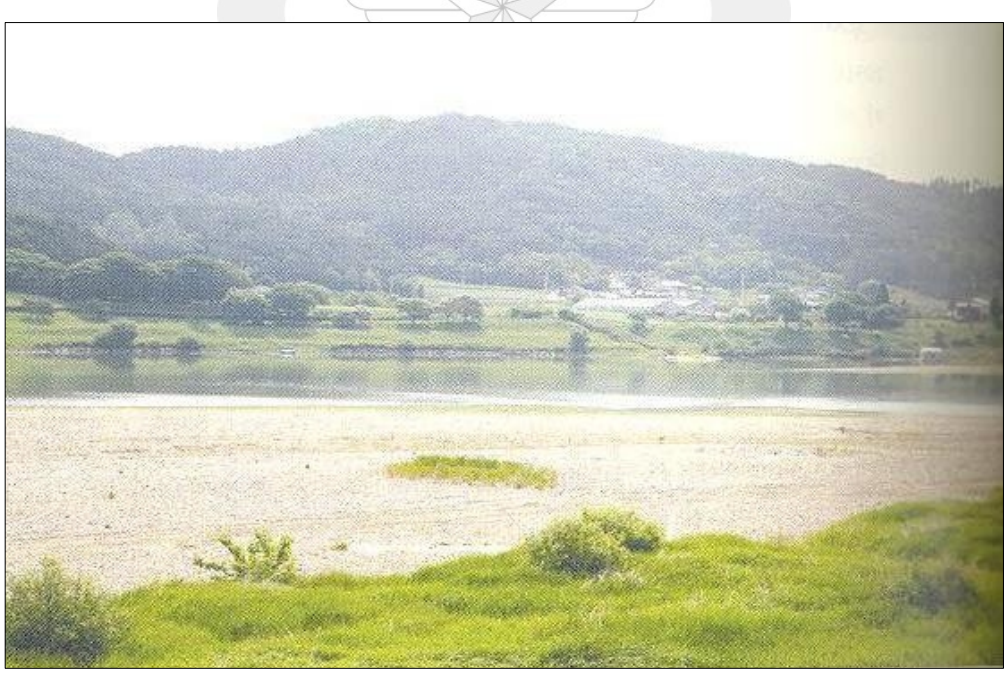
킬러 작전에 앞서 제8군사령관의 최대 관심사는 적 예비 병력에 관한 구체적인 위치, 물자 보급상태, 사기 정도, 이동상황 등이었다. 그러나 사령관은 적 후방 지역에서 진행 중인 병력 증강에 대한 정보를 제외하고 적의 예비 병력에 관해서 극히 제한된 정보만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미 제8군은 정확한 적정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킬러 작전을 개시해야 했으며, 만약 적 예비 병력이 전선에 투입될 경우에는 공격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사령관은 적 예비 병력이 24시간 이내에 전방지역까지 도착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군단장들에게 작전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주력부대를 섣불리 투입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형을 유효 적절히 이용하며, 부대기동을 통제하여 부대간 연결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강조하였다. 특히 사령관은 "적의 계략이나 또는 강력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추격하여 적에게 유인 당해 각개 격파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필요시에는 전투를 중단하고 부분적인 후퇴"를 당부하였다.[175]

이 계획에 의거해 1951년 2월 21일 10시에 미 제9군단은 횡성을 점령하기 위해 4개 사단 병진으로 공격을 시작했다.[176] 군단의 주공사단인 미 제1해병사단이 중앙에서 횡성을 향해 공격하고, 나머지 3개 사단(미 제24사단, 미 제1기병사단, 국군 제6사단)이 해병사단의 좌우측에서 각각 공격을 개시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미 제9군단은 공산군이 2월 공세에 실패한 이후 3일간 계속해서 철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격멸하려면 조금이라도 진격을 서둘러야 했다. 그러나 군단이 공격을 개시하면서부터 기상이 나빠 공격 속도를 내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공격 개시일인 21일 낮 기온이 10℃까지 상승하고 야간에도 0℃를 웃도는 이상 고온현상이 나타났으며, 22일부터 3일간 간헐적으로 비까지 내렸다. 그 결과 항공정찰과 근접 항공지원이 불가능하였으며, 도로의 노면상태가 악화되고 하천의 유빙과 급류로 인해 교량이 파손되어 도섭마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곳곳에 발생한 산사태로 터널과 도로 및 철도가 두절되는 사태가 속출하여 군수지원을 제한하기도 하였다.[177]

특히 군단의 좌전방 공격제대인 미 제1기병사단은 하상(河床)에 설치한 지휘소와 보급소를 미처 이동시키기도 전에 하천이 범람하여 유선망이 두절되고 보급품도 유실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주보급로마저 차단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사단은 24일 양평-홍천 도로 북쪽의 469고지를 점령하였다.



무어 장군이 순직한 여주 남한강변

한편 군단의 주공으로 횡성을 공격 중인 미 제1해병사단도 적이 철수하고 있어 저항은 경미하였으나 눈과 비로 뒤섞인 도로를 통과해야 하므로 어려움이 많았다. 게다가 2월 24일 전선을 시찰하던 군단장(Bryan E. Moore)의 헬리콥터가 남한강에 추락하여 군단장이 심장마비로 전사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여 해병 사단장 스미스(Oliver P. Smith) 소장이 임시로 군단을 지휘하게 되고, 부사단장이 사단을 지휘하게 됨으로써 사단의 작전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25일 사단이 횡성 공격을 목전에 두자 제8군사령관은 적의 완강한 저항이 예상되는 횡성을 해병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할 수 있도록 미 제9군단과 제10군단의 전투지경선을 조정하였다. 우전방 제5해병연대 지역을 미 제10군단에 인계하고 좌인접 국군 제6사단 지역을 제7해병연대가 인수, 사단의 좌전방으로 투입되었다. 이때 사단은 기상이변으로 지연된 보급품을 다시 제공받게 되었다.[178] 3월 1일 제7해병연대 지역에 유엔 공군의 항공폭격이 실시된 후 사단은 2일 총공세로 전환하였다. 이날 제7해병연대가 공격 중에 고지를 선점한 중공군으로부터 강력한 저항을 받아 다소간의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중공군도 그 동안 사단공격에 큰 피해를 입어 야음을 이용해 철수함으로써 제1해병사단은 3월 4일 횡성을 점령하는 데 성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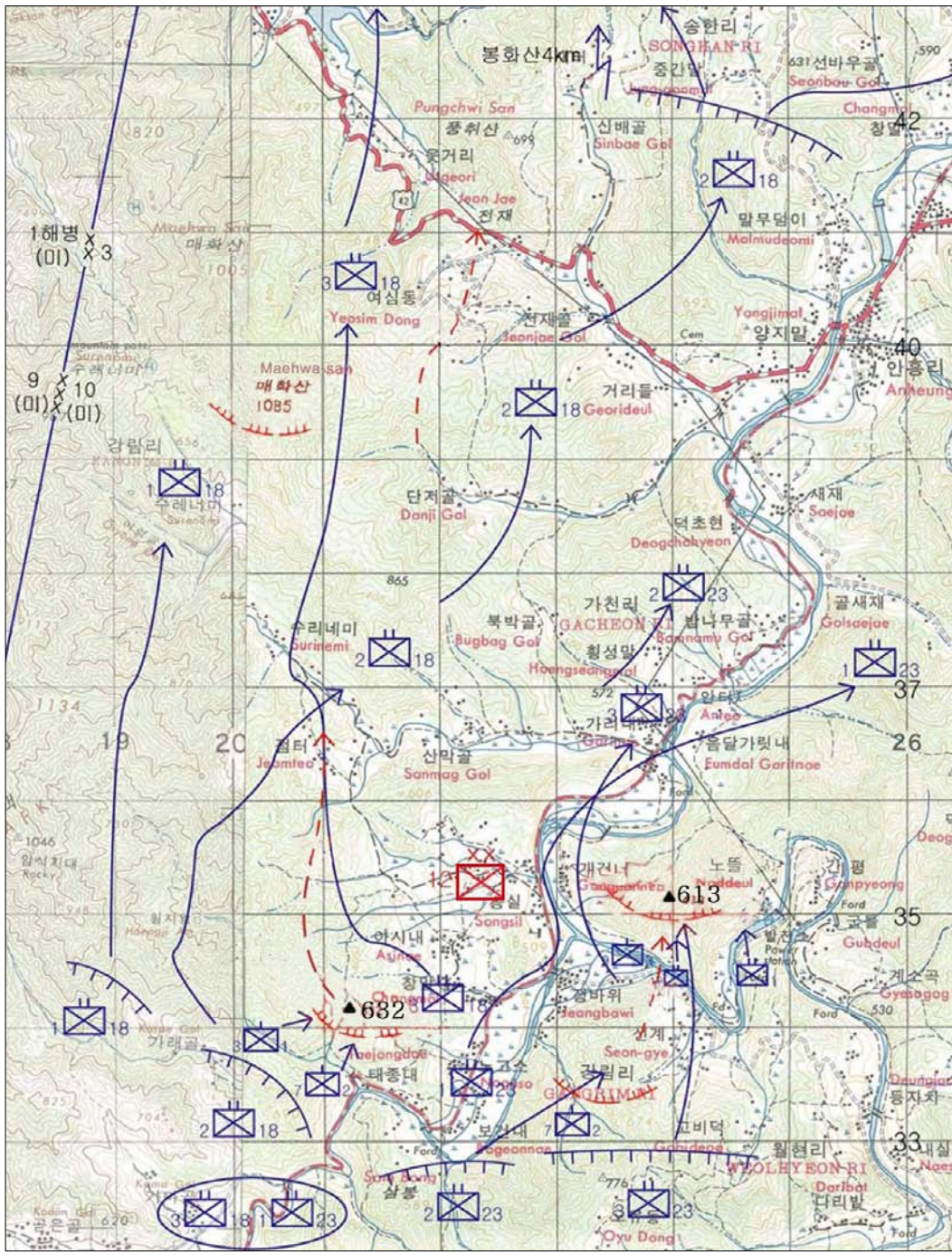
한편 중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도 2월 21일 10시를 기해 미 제7사단을 주공으로 하여 영월-평창간 도로를 따라 킬러 작전을 개시했다. 이때 군단작전의 조공으로 국군 제3사단이 미 제9군단의 제1해병사단을 엄호하면서 강림-안흥-봉화산을 목표로 공격하였다.

국군 제3사단의 공격목표인 강림-안흥-봉화산은 서쪽으로 치악산맥이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고 동쪽으로 주천강이 남북으로 흐르는 지역으로, 1m 가량의 적설을 기록하고 있던 산간도로가 유일한 기동로였다. 그리고 작전지역 내에는 북한군 유격대의 출몰이 빈번하여 사단은 정규전과 비정규전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 더하여 중공군의 2월 공세로 피해가 컸던 사단에는 2,000여 명의 신병이 보충되면서 전투력이 크게 약화되어 있었다.[179]

국군 제3사단은 좌인접 부대인 미 제1해병사단의 진출이 지연되어 23일에 이르러 좌전방에 제18연대, 우전방에 23연대로 하는 2개 연대 병진공격을 개시하였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4-12> 강림-안흥 전투(1951. 2. 23~3. 6)



사단은 강림리를 점거 중이던 1개 중대 규모의 적을 제18연대와 제23연대가 협공하여 격퇴한 후 제18연대가 수래너미재를 넘어 매화산으로 진출했으며, 제23연대가 계곡을 따라 진출 중 강림리 동쪽의 고지군에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고 저항하는 2개 중대 규모의 적을 격파한 후 안흥리를 감제할 수 있는 고지군으로 진출하였다. 사단은 26일까지 횡성-안흥리-평창 선에 진출하여 제18연대가 음달말에서 미 제1해병사단과 연결하였고, 제23연대가 안흥지구를 점령하여 미 제7사단의 공격을 지원하기 위해 군단의 중앙으로 투입된 미 제2사단과 연결하였다. 제23연대는 2월 28일 미 제8군의 공격이 순조롭게 진행되자 군단 전투지경선이 좌측으로 횡성 동쪽 두곡리까지 확장되면서 정암리 부근에서 미 제9군단의 우전방 연대인 미 제5해병연대 지역을 인수하였다.[180]

이 무렵 국군 제3사단 정면의 적은 북한군 제3군단 예하 제6, 제12사단의 5,000여 명으로 안흥리 북쪽의 봉화산(△670)과 덕어산(△664) 일대에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전선을 재정비한 사단은 3월 1일 좌전방 제23연대, 우전방 제18연대로 병진공격을 재개하였다. 그러나 사단의 공격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여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한 적과 수류탄과 총검이 난무하는 일진일퇴의 공방전만 펼칠 뿐 다수의 피해만 발생한 채 진전이 없었다. 반면 적은 봉화산을 중심으로 연결된 고지마다 강력한 거점방어진지를 구축하고 필사적으로 저항하였다. 사단은 인명 손실이 증가하자 전면공격을 중지하고 한 곳의 목표를 선정한 후 그 곳에 병력을 집중하여 목표를 점령하는 전술을 채택하고서 순차적으로 고지들을 기습 공격하였다. 사단은 4일까지 이러한 공격을 수차례 반복하였으나 적의 완강한 저항과 불리한 지형 등으로 인해 봉화산 점령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제3사단의 공격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3월 5일 12시에 육군본부는 "3월 7일 12시부로 제3사단을 미 제10군단 배속에서 해제하여 국군 제3군단에 배속한다"는 요지의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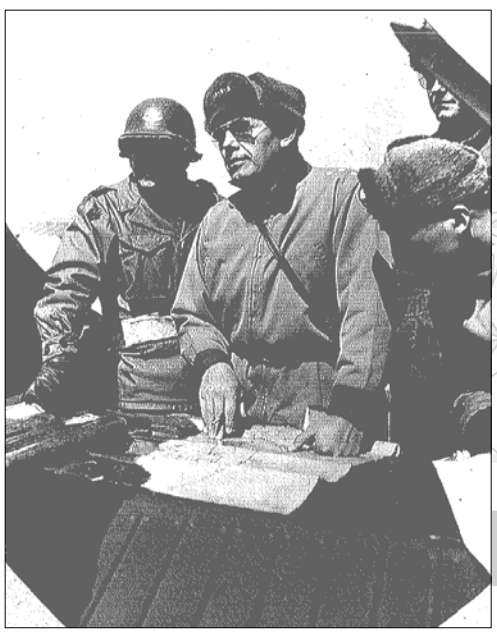
이때 사단의 우인접 부대로 원주-방림리 도로 전방의 고지를 공격하던 미 제2사단도 공산군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다행히 5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밤 북한군이 진지를 버리고 철수함에 따라 미 제10군단의 공격제대들은 공격을 재개하여 7일 원주-방림리 도로 북쪽의 감제고지를 점령할 수 있었다.

군단이 킬러 작전의 목표지점인 아리조나선까지 진출하는 데 성공한 후 국군 제3사단은 방어진지를 미 제2사단 제23연대에 인계하고 마차리-정선 일대로 철수하였다. 이때 사단은 국군 제3군단에 복귀하였다.[181]

미 제9, 제10군단과 더불어 킬러 작전의 한 축이었던 국군 제3군단은 오대산을 중심으로 수도사단이 동쪽에서, 국군 제7사단이 서쪽에서 각각 공격을 준비하였으며, 제9사단이 군단예비로 송계리 부근에 집결하였다. 국군 제3군단은 킬러작전이 시작되자 수도사단의 제26연대를 횡계리에, 제1연대를 강릉에 배치하여 방어진지를 강화하는 한편 좌인접 미 제10군단의 공격을 엄호하기 위해 2월 25일에 좌전방 제7사단을 평창-창동리 도로를 따라 공격하게 하였다. 군단장은 적의 저항이 경미하여 사단의 공격이 순조롭게 진행되자 미 제7사단의 공격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도사단의 1개 연대를 신속히 속사리 부근으로 투입해 적의 퇴로를 차단하도록 하였다.[182] 이에 수도사단장은 제26연대가 방어 중인 횡계리 부근에서 대기 중인 제1기갑연대를 속사리로 진출시켰다. 그러나 5일간 지속된 폭설로 인하여 대관령-횡계리-구산리 간의 도로가 차단됨에 따라 기갑연대는 제설작업 끝에 3월 1일에 이르러서야 경강국도를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에 각각 1개 대대씩을 투입해 병진공격을 개시할 수 있었다.



1951년 3월 7일 중동부전선에서 미 제10군단장 알몬드 중장(가운데), 미 제7사단 제32연대 부챔프 대령(좌측), 국군 제3사단장 최석 준장이 작전회의를 하고 있다.

출처 : Hq. X Corps, Command Report, Feb. 1951, RG 407, Entry No. 429, Box 199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 무렵 영월 부근에서 철수한 북한군은 발왕산, 속사리, 월정사 부근에 종심 진지를 편성하고 군단의 진출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일부는 계방산-오대산-황병산을 연하는 산악지대에 제2전선을 형성하여 유격전을 기도하였다.

기갑연대가 속사리로 향하고 있을 무렵 군단장은 거문리 일대에서 제7사단 제5연대와 교전 중인 적의 퇴로차단을 서두르기 위하여 연대에 당일(1일) 중으로 속사리에 진출할 것을 독촉하였다. 그러나 연대는 제설작업이 지연되어 3월 2일 하진부리로 진출하여 접적이 개시되었다. 연대는 거문리 일대에서 완강하게 저항하는 적을 항공지원하에 격퇴하고 속사리와 하진부리의 중간 지점인 발왕리에서 야간방어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22시경부터 제1기갑연대의 후방을 엄호하던 제26연대 제3대대와 연대의 퇴로를 차단하려는 적이 3일 04시까지 유천리 부근에서 밤새도록 격돌하였다. 제3대대는 포위공격을 시도하는 적과 치열한 백병전을 펼쳤지만 수적인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다수의 피해를 입어 08시에 차항리로 철수하였다. 이로써 속사리를 공격 중인 제1기갑연대는 퇴로가 차단되었으며, 사단의 공격은 차질을 빚게 되었다. 혹한 속에서 밤을 보낸 제1기갑연대가 여명을 기해 공격을 재개하였으나 적이 야음을 이용하여 연대를 포위하였다. 적의 포위망이 점점 압축되자 사단장은 제1기갑연대에 철수 명령을 하달하고, 제26연대에 유천리로 재진출하여 기갑연대와 연결하도록 명령하였다. 기갑연대는 방어와 적진 돌파를 반복하면서 월정동-광천리를 경유하여 4일 자정경 적의 추격에서 벗어나 대관령 서쪽 입구의 가사두(加士頭)에 집결하였다.

제1기갑연대는 철수작전에서 300여 명의 적을 사살하기도 하였으나 전사 59명, 부상 119명에 실종 802명에 달하는 인명 손실과 81㎜ 박격포 11문, 60㎜ 박격포 18문, 3.5인치 로켓포 10문 등 다수의 장비 손실을 당하였다. 그러나 실종자의 대부분은 다음날 복귀하였다.[183]

퇴각하는 적을 추격하기 위하여 기동성이 우수한 미군 사단 위주로 전개된 킬러 작전은 예상하지 못한 기상 이변으로 말미암아 공격제대가 나란히 적을 추격해 올라가는 형태의 진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악천후와 싸워 나가는 힘겨운 진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 되어 버렸다. 2월 21일부터 3월 6일까지 14일 동안의 추격작전 결과 미 제9, 제10군단이 횡성-평창의 목표선까지 도달하는 데 성공하고 적에게 큰 피해를 주었지만,[184] 목표선(아리조나선) 이남의 모든 적을 섬멸한다는 당초의 목표를 완전하게 달성하지는 못하였다.[185]

(2) 중서부전선의 리퍼 작전(Operation Riper)

리퍼 작전은 킬러 작전의 연장으로 국군과 유엔군이 3월 7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 공세작전이었다. 국군과 유엔군은 중공군의 2월 공세를 분쇄하고 킬러 작전(Operation Killer)을 벌여 1951년 3월 초에 한강 남안-횡성-강릉을 잇는 선까지 진출해 일직선으로 연결된 방어선을 확보하였다. 이로써 중공군의 개입과 공세에서 갖게 된 패전의식에서 벗어나 서울의 재탈환은 물론 38도선의 진출도 목전에 두게 되었다.

하지만 이때 미 제8군사령부는 서울의 재탈환이 정치·심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유엔군의 증원이 없는 상황에서 서둘러 진행할 경우 무리한 희생이 뒤따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제8군사령부는 현 전선의 중앙지역에 대돌파구를 형성해 서부의 중공군과 동부의 북한군을 분리시킨 후 남쪽에서의 정면 공격과 동측방에서의 측면 공격으로 서울을 양익 포위해 탈환한다는 작전전략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이번 작전을 '전선의 절단과 분리'라는 작전 목적을 고려해 '전선 절단작전(Operation Ripper)'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를 위해 미 제8군사령부는 미 제9, 제10군단이 중부전선에서 진격하고, 미 제1군단이 서울 서쪽과 한강 남안의 전선에서 적을 견제한 후 서울을 탈환하며, 국군 제1, 제3군단이 동부전선에서 적 견제 및 후방 산악지대 잔적 소탕작전을 실시하도록 계획하였다.[186]

특히, 미 제8군사령부는 미 제9군단을 주공으로 하여 서울 동쪽의 덕소-가평-춘천 북방-한계리를 연하는 목표선(Idaho)까지 진출해 전선을 양단하고 적의 보급기지로 판단되는 홍천과 춘천을 점령함으로써 동쪽 방면에서 수도권 지역을 압박하고자 했다. 이와 더불어 미 제8군사령부는 중공군의 공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전의 작전과 같이 주공 집단의 통제에 중점을 두고 3개의 통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선(알바니선, 버팔로선, 카이로선)을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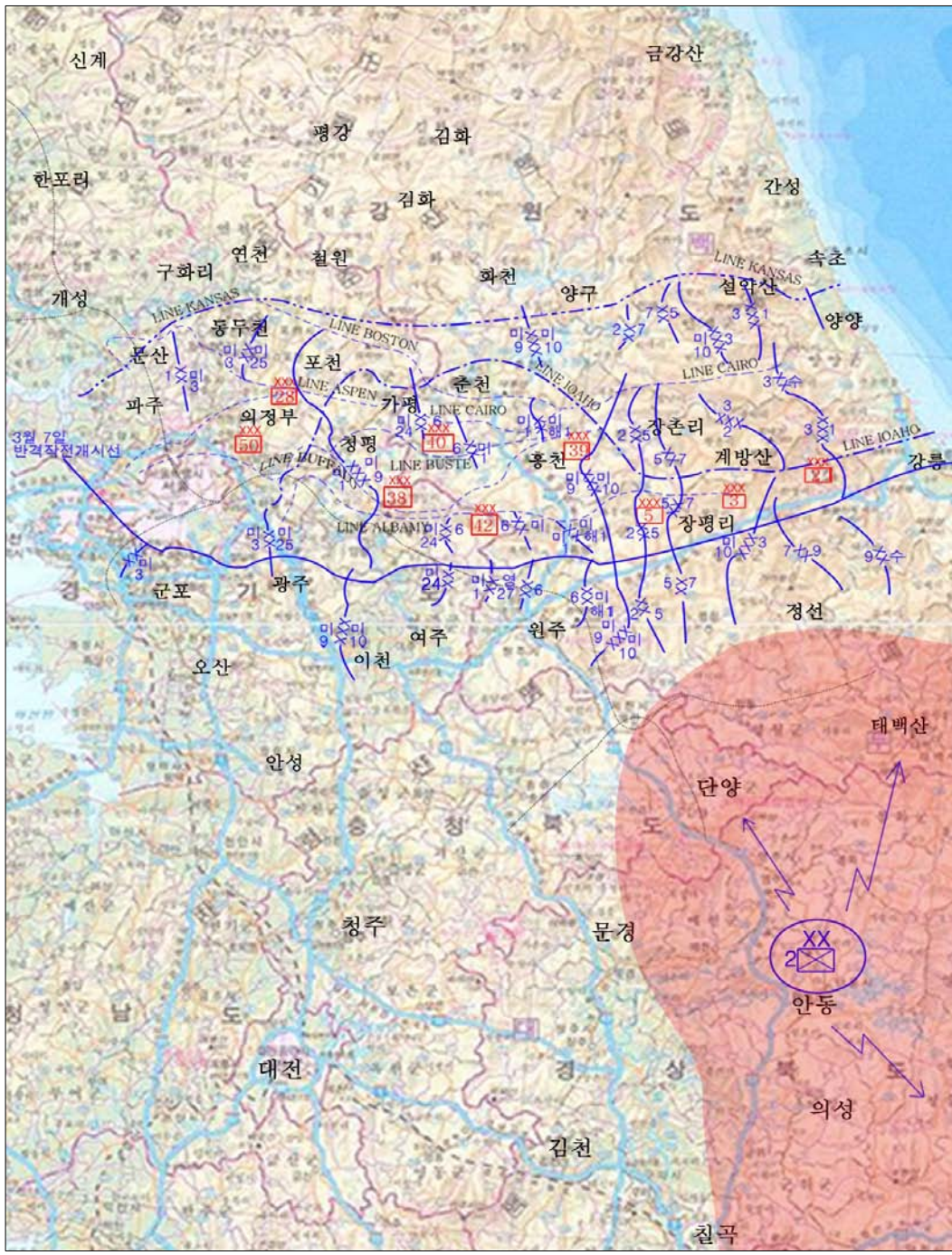
제1통제선은 미 제1, 제9, 제10군단 전방의 8~20㎞ 북쪽에 위치한 양수리-양덕원리-노천리-태기산-속사리를 연하는 알바니(Albany)선으로, 이 선을 점령하면 미 제9군단이 전술적 요충인 홍천 부근을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제2통제선은 미금리-홍천 북쪽-한계리를 연하는 버팔로(Buffalo)선으로, 이 선은 미 제1, 제9군단지역에만 설정되었다. 제2통제선으로 진출할 때 미 제9군단은 주공이 홍천을 목표로 진격하고, 미 제25사단이 버팔로선까지 진격해 서울 동쪽에 대한 포위망을 확대하도록 임무가 부여되었다. 그리고 제3통제선은 가평-춘천 남쪽-한계리 북쪽을 연하는 카이로(Cairo)선으로 미 제9군단지역에 국한되었다. 미 제9군단은 이 선을 점령한 후 최종 공격목표인 아이다호(Idaho)선까지 계속해서 북진할 계획이었다.[187]

리퍼 작전계획에 따라 주공인 미 제9군단은 29번 도로를 따라 3단계 작전으로 홍천, 춘천을 공격하고 조공인 미 제10군단은 2단계 작전으로 풍암리-태기산-운두령을 공격하여 주공의 우측방을 엄호하게 하였다. 그리고 미 제1군단의 주력은 한강선에서 적을 고착 견제하고 일부가 2단계 작전으로 예봉산-천마산을 공격, 주공의 좌측방 엄호와 서울 포위를 준비하도록 하였다. 또한 미 제10군단의 우인접 국군 제3군단은 산악지역인 운두령-황병산을 공격하고, 이미 주문진의 연곡천을 따라 설정된 아이다호선에 진출한 국군 제1군단은 점령 중인 방어진지를 강화하게 하였다.

지상작전의 성공을 위해 제8군사령관은 해군과 공군의 지원계획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해군은 리퍼작전의 주 공격을 시행할 중부 내륙지역으로부터 적의 관심을 돌리기 위하여 서해안에 상륙 양동작전을 실시하였다. 미 해군 제95기동함대의 소해정(掃海艇)이 서해안을 따라 기뢰를 제거하는 행동을 취하면서 진남포 외곽의 대동강 입구로 진입하였으며, 순양함과 구축함으로 편성된 1개 분견대가 이를 뒤따라 가상 상륙지점에 함포사격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그 다음에는 병력과 화물을 실은 수송선들이 인천에서 출항하여 북쪽으로 항해 중에 방향을 바꾸었다. 이러한 작전은 3월 5일에도 반복되어 적에게 상륙작전이 임박하였음을 과시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4-13> 유엔군의 리퍼 작전(1951. 3. 7~3. 31)



하였다. 그리고 동해안에서는 미 제95기동함대가 2월부터 계속해서 원산지역에 함포사격을 집중하였고 국군 해병 제41중대가 원산 근해의 도서를 점령하여 긴박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그리고 미 극동공군은 적의 공격준비를 저지하기 위하여 주요 철도의 교량 파괴에 역점을 두고 폭격을 실시해 적이 48㎞ 이상의 철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188]

제8군사령관은 유류 보급과 5일간의 비축물자 확보가 완료되자 3월 5일 리퍼작전의 공격개시일을 7일로 결정하였다.[189] 이 날 리퍼작전의 주공 부대인 미 제9군단에 호지(William M. Hodge) 소장이 신임 군단장으로 부임했다.[190] 제8군사령관은 작전에 앞서 미 제10군단의 작전통제를 받아 왔던 국군 제1군단사령부와 국군 제3사단을 육본 직할로 복귀시켰다. 육군본부는 국군 제3군단의 우전방 제9사단을 국군 제1군단으로, 국군 제3사단을 제3군단으로, 그리고 홍천 공격에 실패한 후 재편성을 완료한 국군 제5사단을 미 제10군단으로 각각 배속을 전환시켰다. 그리고 철저한 보안을 위해 작전계획에 대한 접근을 엄격히 통제하고 기자들에게 작전이 개시되기 전에 보도를 자제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유엔군의 중요 작전이 개시되면 통상적으로 방문하던 극동군사령관의 방문도 공격개시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191]

3월 7일 08시를 기해 킬러 작전을 종료하고 리퍼 작전으로 전환한 미 제9군단은 4개 사단 병진공격으로 좌전방 미 제24사단(국군 제19연대 배속)이 용문산으로, 중앙의 미 제1기병사단(영 제27여단 배속)과 국군 제6사단(제19연대 결)이 홍천강 남쪽 산악지대로, 우전방 미 제1해병사단이 홍천을 목표로 각각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리고 대구에서 훈련 중인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이 명령에 따라 군단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미 제9군단의 리퍼 작전이 개시된 다음날(8일) 공산군의 조·중연합사령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술지시를 예하부대에 하달하였다. "수차례의 전투에서 증명하였듯이 적은 포병, 공군, 전차 화력에 의지하여 보병이 공격할 때는 먼저 파괴사격을 실시한 후에 보병으로 돌격한다. 우리의 작전방침은 종심 방어선을 설치하여 적극 방어하고, 양호한 지형을 이용하여 적을 축차적으로 저지 지체시키고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살상하여 시간을 획득하고, 후속부대가 도착하면 전역 반격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역배치는 반드시 전경후중(前經後重)의 원칙으로 확실하게 한다." 즉 공산군의 전술은 전경후중(前經後重)의 전력배치와 유엔군의 전차 파괴와 보병 살상을 위한 화력구성으로 요약되는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그들의 작전 방침은 "유리한 지형에 의지하여 적극적인 기동작전을 전개해 작은 대가로 많은 적을 살상하고 오랜 시간을 지탱하는 것"이었다.[192]

미 제9군단은 경미하거나 통상적인 적의 저항을 물리치고 착실하게 전진하여 13일까지 국군 제6사단을 제외하고 리퍼 작전의 제1단계 목표지점인 알바니선으로의 진출을 완료했다. 그 과정에서 미 제1해병사단을 동행한 미 제2사단의 전장정리조가 중공군의 2월 공세 당시 횡성 계곡에서 피해를 입은 미 제10군단 소속의 미 제21지원부대원으로 보이는 시체 250구 이상과 그들이 철수할 때 방치한 155㎜ 곡사포 5문, M-5 견인차 6대, 분실된 전차 6대 중 4대를 후송하고 파손된 다수의 트럭을 수거하였다.[193] 또한 국군 제6사단은 제2연대 수색대가 횡성 서북쪽 초원리에서 국군 제8사단이 2월 공세 때 유기한 대전차포 7문과 105㎜ 곡사포 5문을 회수하기도 하였다.[194]

제8군사령관은 리퍼 작전의 제1통제선인 알바니선 점령이 완료되자 3월 13일 저녁 제2통제선인 버팔로선으로의 진출을 명령하였다. 미 제9군단은 적이 홍천 전방에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완강히 저항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군단은 제1기병사단과 제1해병사단을 각각 좌우측으로 하여 홍천을 양익 포위하고 미 제24사단과 국군 제6사단을 북한강 계곡의 청평호에서 홍천강 남쪽까지 진출시킨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14일 작전명령 제27호로 공격 개시에 나선 미 제9군단 공격제대들은 예상과 달리 적으로부터 경미한 저항만을 받고서 15일 제24사단이 청평호를, 국군 제6사단이 홍천강 남쪽의 고지군을, 그리고 홍천을 좌측방에서 공격 중인 제1기병사단이 홍천강변에 진지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동측방의 제1해병사단은 홍천 부근으로 진출하면서 줄곧 적의 소규모 부대에 의해 강력하게 저항을 받았다.

군단장은 16일 홍천 일대에 중점적으로 배치된 적을 분산시켜 미 제1해병사단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의 공격을 지원할 목적으로 '작전명령 제29호'를 통해 홍천강을 연하여 중간 통제선인 버스터(Buster)선을 설정하고 홍천 북방의 버팔로선과 연결하였다. 그리고 국군 제6사단, 미 제24사단, 제1기병사단에 이 선을 점령하도록 명령하였다.[195]

이때 적은 유일하게 홍천 동쪽에서 미 해병사단의 진출로상에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하여 해병사단의 전진을 저지하였다. 그러나 제7해병연대 정찰대는 적진을 돌파, 홍천으로 진입하여 읍내가 아군의 폭격에 폐허 상태로 방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도착한 사단 주력은 홍천 동북방의 고지를 점령하였다.[196]

군단의 4개 사단은 17일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여 19일 야간에 전 사단이 버스터-버팔로선 선까지 근접하였다. 그 과정에서 국군 제6사단 제2연대 제2대대가 19일 차량으로 정찰 중 홍천강 북쪽 구은동 부근의 계곡에서 집결중인 중공군 1개 대대를 포위 공격해 231명을 사살하고, 75㎜ 야포 7문, 60㎜ 박격포 6문, 82㎜ 박격포 4문 등 다수의 무기를 노획하는 전과를 올리기도 했다.[197]

군단장은 중공군이 다급하게 철수하는 양상을 보이자 19일 예하부대에 공격 기세를 유지하면서 마지막 통제선인 카이로선으로의 진출을 명령했다. 이때 제8군 사령관은 제9군단이 카이로선을 점령하면 대구에서 대기 중이던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을 22일 춘천 북쪽에 공중 투하해 제9군단과 연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공수 투하 작전은 20일과 21일 양일간 중공군이 예상보다 빨리 후퇴하고 21일 군단 최초로 미 제1기병사단이 카이로선을 확보하자 큰 수확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되었다. 카이로선에 도달한 미 제1기병사단은 21일 13시 30분경 특수임무부대를 춘천시가지로 진입시켜 춘천을 탈환했다. 특수부대를 뒤이어 22일 제7기병연대가 춘천시내로 진입함에 따라 미 제1기병사단의 리퍼 작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198]

한편 군단의 우전방 미 제1해병사단은 18일 동부전선의 여량리에서 사단으로 배속이 전환된 국군 제1해병연대가 도착하자 사단의 중앙연대로 투입하였다. 국군 제1해병연대는 사단 전투지역 내에서 가장 험준한 산악지형으로 공격을 개시하여 24일 적의 방어거점인 가리산을 확보하였다. 이를 계기로 25일 미 제1해병사단도 모든 공격제대가 사단의 공격목표인 카이로선에 도달하는 데 성공하였다.[19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 한강도하와 서울 탈환 작전

미 제9군단이 중서부전선에서 리퍼 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도 서울 탈환작전을 전개하였다. 미 제1군단의 서울 탈환작전은 3월 7일 미 제25사단이 한강을 도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사단은 2월 28일 분원리 부근의 한강 연안으로 진출한 후 6일간 도하공격을 준비해 왔다. 사단의 임무는 한강의 합류지점 부근에서 도하하여 금곡리-청평에 이르는 경춘선으로 진출해 교두보를 확보하고, 경춘선의 차단과 서울을 동북방에서 포위할 태세를 갖추는 데 있었다.[200]

미 제25사단은 서쪽으로부터 제24연대, 제27연대, 제35연대를 병행시켜 일제히 도하해 경춘선(일명 '알바니선')으로 진출한 후 배속된 터키여단이 청평을 점령하면 미 제9군단의 좌전방 부대인 미 제24사단과 연결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미 제25사단의 도하작전은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사단의 도하지점은 강폭이 150~370m나 되었고, 눈이 녹아 얼음덩어리가 혼합되어 강의 유속이 초속 2m에 달하였다. 또한 한강의 남쪽과 북쪽의 도로망은 양호했지만 강우로 인해 도로가 진흙탕으로 변해 있었고, 강 북쪽에는 대규모의 중공군이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하안(河岸)의 지형이 수륙양용차량을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못했던 것도 도하 공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었다.

1951년 2월 25일부로 킨(William B. Kean) 사단장과 교대한 브래들리(J. S. Bradley) 준장은 신중하고 면밀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유명했지만 이때는 특히 신중을 기했다. 그는 기상변화를 고려하여 중공군의 반응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이용 가능한 화력을 광주군 남종면 일대에 모두 집결시켜 도하 예행연습을 반복하게 하였다.

사단 예하의 각 대대는 한강 지류를 이용해 주정(舟艇)의 운반과 조작요령 등을 연습하고 병사들에게 모래사장을 이용한 전투요령을 교육시켰다. 그리고 지휘관이 전사하더라도 계속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교에서 사병에 이르기까지 각자가 담당할 임무를 부여하고 습득하게 하였다. 이와 더불어 사단에서는 정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확한 적정 파악을 위해 수시로 정찰대를 강 북쪽에 파견하였다.[201]

미 제25사단장은 3월 2일 우측 공격부대인 제35연대에 도하계획을 하달하였다. 제35연대는 항공 및 지상정찰을 통하여 도하지점을 탐색한 결과, 양수리로부터 상류에 이르기까지는 대부분이 단애(斷崖)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양수리 남쪽의 삼각주 부근만이 유일한 도하지점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이것을 예견한 중공군도 이곳을 방어하기 위해 강의 북쪽에 강력한 진지를 구축하고 각종 화력을 집중시켰다.

미 제25사단은 이곳에 105㎜ 야포 4개 대대, 155㎜ 야포 1개 대대, 영국군 포병 1개 대대 등 6개 포병대대와 전차 1개 중대를 배치했다. 6개 포병대대는 제청리(祭廳里)에서부터 그 북쪽으로 한강 남안을 따라 약 2㎞에 걸쳐 포진지를 구축하였으며, 전차중대는 전차 5대를 사천리 북쪽의 야지(옛 지명 고천리)에 집결시키고 나머지 전차를 제청리에 위치시켰다.

미 제35연대는 도하지점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3개 대대를 중첩시켰다. 선두 공격부대로 선정된 제3대대(대대장 James H. Lee 중령)도 3개 중대를 중첩시키고 제1제대를 K중대로 지정했다. 이들이 도하할 지점은 구실(정암산 정상에서 서북쪽 2.8㎞) 선착장 부근이었다. 현재 이곳은 팔당댐으로 인해 수몰되었지만 전쟁 당시에는 조안리(鳥安里)[202]로 이어지는 선착장이 있었으며, 하폭이 150m에 불과하였고 서쪽으로는 족자도(簇子島)가 있었다. 3월 4~6일 3일간 미 제35연대 제3대대는 도섭할 지점을 확인하고, 공격용 보트를 운반하는 등 최종 준비 작업을 실시하였다.

3월 7일 05시 50분에 미 제25사단은 20분간의 공격준비사격을 시작했다. 96문의 야포와 15문의 전차포, 48문의 박격포가 동시에 발사하는 포탄의 굉음은 귀청을 찢는 듯했고 대안(對岸) 일대는 순식간에 포염에 뒤덮였다. 이때 제8군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이 직접 하안(河岸)까지 진출해 중공군의 반응을 확인하였다. 미 공간사에는 이 공격준비사격을 "이번 작전 중 가장 작렬했던 포사격 중의 하나"라고 기술하였다.

20분간의 공격준비사격이 끝나고 아직 어둠이 거치지 않은 06시 15분경 미 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5연대 제3대대 K중대 병사들이 12인승 보트를 메고 제방으로 내려가 보트가 수면에 닿자마자 앞을 다투어 도하를 개시하였다. 10여 대의 전투폭격기가 공중대기하면서 근접항공지원과 차단임무를 맡았고, 국군 제1사단이 김포비행장 부근에서, 미 제3사단이 서울 남안에서 양동작전을 실시해 중공군 제50군이 양수리 방면으로 이동하는 것을 저지하였다.[203] 도하과정에서 미 제35연대 K중대는 강 북쪽의 중공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여러 척의 보트에 구멍이 뚫려 많은 사상자가 났지만 도하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교두보 확보에 성공하였다. 뒤이어 제3대대 잔여 병력들이 도하를 개시해 07시 40분경 도하를 완료하였다. 이 날 정오경에 미 제35연대 제3대대는 제1차 목표인 양수리의 고지들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후 미 제25사단은 중공군의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공격을 계속했다. 공격개시 4일째인 3월 10일부터 중공군의 저항이 현저하게 둔화됨에 따라 사단은 어려움 없이 진격을 계속해 15일 저녁 무렵 제24연대와 제27연대가 서울-춘천간 도로까지 진출하였다. 이때 터키여단이 경춘국도의 북쪽 2마일 지점까지 북상하여 우인접 미 제9군단 제24사단과 연결함으로써 동측방에서 서울의 적을 위협할 수 있게 되었다.[204]

한편 미 제1군단의 국군 제1사단과 미 제3사단은 매일 500~600톤의 보급물자가 하역되는 인천 지역 경계와 한강 남쪽의 진지를 방어하다가 적이 서울을 포기하는 징후들이 나타나면서 서울 탈환작전을 개시하였다. 서울 남쪽을 방어하고 있던 국군 제1사단 예하 5개의 정찰대가 14일 한강을 도하하여 서울(강북) 시내를 정찰하였으나 적과 조우하지 않았다. 이때 1개 정찰대가 중앙청으로 진출하여 청사에 태극기를 내걸었다. 또 미 제3사단 정찰대도 적의 방어상 중요 감제고지인 한강변의 매봉(△175)과 용마봉을 정찰하였으나 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항공정찰에서도 서울 북쪽 인접지역에서는 적 활동이 관측되지 않았고 서울-의정부 중간지점으로부터 3번 도로의 주변지역을 따라 적 병력과 방어진지가 광범위하게 구축되어 있는 것이 식별되었다.[205]

이 무렵 공산군은 3월 9일 조·중연합사령관 명의의 철수 명령에 따라 10일부터 제1선 부대의 철수가 단행되었다. 이때 하달된 명령은 "제1선의 각 군과 군단은 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5일 동안 고양-의정부-청평천-홍천강 북쪽-풍암리에 이르는 선까지 철수하여 제2전선의 각 군 및 군단과 교대하라"는 것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서부전선의 공산군은 10일부터 북한군 제1군단이 문산으로, 중공군 제50군이 의정부 북쪽으로 각각 철수를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14일까지 북한군 제19사단이 문산에서 고양 이북에 이르는 일선에 전개하고, 중공군 제26군이 의정부-포천 지역에 배치되었다.[206]

제8군사령관은 서울에 공산군이 없음을 확인하고 3월 15일 미 제1군단장에게 서울 북쪽의 주요 고지군을 점령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는 이를 위해 서울 북서쪽 한강변에서 북한산을 경유 용마봉을 거쳐 버팔로선과 연결하는 통제선(일명 '링컨선(Lincoln Line)')을 설정하였다. 제8군사령관은 이번 작전의 목적이 적을 공격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적의 철수를 추적하는데 있으므로 이 선을 군단의 전진 한계선으로 설정하고, 이 선 북쪽으로는 정찰대만 파견하여 접촉을 유지하도록 작전을 제한하였다.

미 제1군단장은 국군 제1사단이 1개 연대 규모로 북한산을, 미 제3사단이 1개 대대 규모와 2개 전차소대로 용마산을 각각 목표로 하여 작전을 전개하도록 하였다.[207]

서울 탈환 명령을 받은 국군 제1사단은 영등포-한강철교에 이르는 지역에 배치된 제15연대를 공격부대로 선정하였다. 연대는 3월 15일 제6중대의 도하를 시작으로 각 대대의 일부 병력만 도하시켜 적정을 탐지한 후 16일 제2대대를 선두로 제1, 제3대대가 차례로 한강을 도하하여 시내로 진출해 서울 전역을 장악하였다.[208]

이날 오후 제1사단 제15연대는 서울시가지를 경유해 외곽지대로 진출하였고 미 제3사단 제65연대 제2대대도 용마봉을 점령하였다. 이후 각 사단 정면에 가설된 교량을 이용하여 제1사단이 추가로 제11연대를 전방으로 투입하였으며, 미 제3사단도 1개 연대로서 교두보선을 강화하였다.

서울은 그동안 점령군이 4번씩이나 바뀌어 말 그대로 폐허가 되었다. 시가지내의 건물들은 폭격과 포격으로 수난을 겪었던 흔적이 역력했으며 교통, 통신 그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고 기타 공공시설이 모두 심하게 파괴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 최소한의 발전시설과 급수시설을 복구하는데도 2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었으며, 150만 명의 서울인구 중 남아 있는 20만 명에게 제공해 줄 식량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서울이 탈환된 직후 신문, 라디오와 경찰은 홍보활동을 통해 서울의 생활여건이 향상되고 행정이 정상화될 때까지 일반인의 서울 복귀를 자제하도록 홍보하였다.[209] 이에 따라 당분간 부산이 임시 수도로 계속해서 남게 되었다.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장군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정부의 서울 복귀를 만류하였다. 그는 그 이유로 첫째 지난해 9월과는 달리 공산군이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지 않았다는 점, 둘째 서울탈환은 심리적으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갖지만, 군사적 견지에서는 전투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셋째 향후 서울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210] 이를 통해 볼 때, 당시 유엔군사령부는 서울 탈환의 심리적 영향력보다는 공산군의 유생역량을 소멸하고, 무기와 장비를 파괴하는 등의 군사작전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맥아더 장군이 3월 17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서울에 들어가지 않고 춘천을 향해 진격을 준비 중이던 미 제9군단의 제1해병사단을 시찰하는 데 그쳤던 것에서도 확인된다.[21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 38선 진격작전

① 서부·중서부지역 진격작전

미 제8군사령관은 국군과 유엔군이 서울을 재탈환하고 춘천을 점령하자 3월 21일 새로운 작전을 구상하였다. 정찰 결과와 정보 소식에 따르면, 북한군 제1군단과 중공군 제26군이 의정부를 연하는 선과 그 북쪽지역에 전개해 있음이 확인되었다. 제8군사령관은 임진강을 배수진으로 하고 있는 북한군 제1군단의 3개 사단이 공격하기에 가장 용이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들 북한군은 후퇴할 경우 반드시 임진강을 건너야 했기 때문에 임진강의 도하지점만 차단되면 지리멸렬해 질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제8군사령관은 리퍼 작전을 확대하여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을

이들의 후방지역에 공중 투하하고, 미 제1군단으로 적을 압박해 격멸한다는 개념의 작전계획을 구상하였다. 제8군사령관은 이 작전을 '용기 작전(Operation Courageous)'으로 명명했다.[212]

용기 작전은 2단계 작전으로 구상되었다. 제1단계에서는 미 제1군단이 행주-의정부 부근까지 진출하여 공격을 준비하고,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이 문산 일대에 공중 투하되어 1번 도로를 봉쇄하면 군단이 즉시 공격을 개시해 24시간 내로 양 부대가 연결한 후 임진강 하구-문산 북쪽-의정부 북쪽을 연결하는 아스펜(Aspen)선으로 진출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제2단계에서는 임진강에 연하여 설정된 벤톤(Benton)선을 점령하는 것이었다.[213]

미 제1군단의 3개 사단은 3월 22일 08시에 10~16㎞ 전방의 카이로선을 향해 전진하기 시작하였다. 좌전방 공격제대로 1번 도로를 따라 진출한 국군 제1사단은 정오경 통제선에 도착하였고, 중앙에서 3번 도로로 진출한 미 제3사단과 우전방 미 제25사단도 적의 산발적인 공격을 격퇴하고 카이로선에 도착하였다. 이 무렵 군단장은 공중투하 부대와의 신속한 연결을 위해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였다. 이 부대는 미 제9군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제24사단 제6전차대대를 중심으로 미 제3사단 제7연대 제2대대, 제58기갑야전포병대대 1개 포대, 제999기갑야전포병대대 1개 대대, 제14전투공병대대 제A중대로 편성되었으며, 제6전차대대장 그로우던(John S. Growdon) 중령이 지휘하도록 하였다.[214]

제8군사령관은 22일 17시 30분에 제187공정연대전투단장, 공군 장성들, 제8군 참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작전을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제8군사령관은 작전참모 머제트(Gilman C. Mudgett) 대령의 건의에 따라 23일 09시에 공정작전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토마호크 작전(Operation Tomahawk)'이라는 명칭을 부여했다.[215]

제187공정연대전투단(단장 Frank. S. Bowen 준장)은 낙하지점으로 선정한 문산 북동쪽에 연대주력을, 그리고 남쪽에 제1대대를 투하하기로 계획하고 23일 07시에 대구비행장을 이륙하였다. 그런데 목표지역 상공에서 제1대대 요원들이 탑승 한 선두 비행기의 엔진고장으로 대구로 복귀하면서 투하계획은 차질을 빚게 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187공정연대전투단 병사들이 진격을 앞두고 산등성이에 집결하고 있다.

제1대대 지휘부가 탑승한 항공기의 회항으로 잔여 수송기들이 제1대대 병력을 연대 주력이 투하될 지역에 먼저 투하하였다. 아군이 낙하하는 동안 적의 반격은 미미하였지만 연대주력이 투하될 문산 북동쪽에 제1대대가 투입됨으로써 제3대대의 병력과 혼합되어 일시 혼란이 야기되기도 했다.

이 무렵 대구로 회항한 제1대대 지휘부가 문산 지역으로 복귀하여 계획된 낙하지점에 투하되었으나 이번에는 적중에 고립되었다. 문산 남쪽에 투하된 대대지휘소가 적의 공격을 받게 되자 먼저 투하된 제1대대 B중대가 공격을 개시하여 15시경 봉서산(鳳棲山)에 배치된 적을 격퇴하고 대대 지휘부와 연결한 후 북쪽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은 부여된 모든 목표지점을 확보하였다. 연대전투단은 이 작전에서 낙하 중 84명이 부상을 입었으나 19명만 제외하고 치료 후 전투에 참가하였다. 반면 공산군 136명을 사살하고, 149명을 생포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포로심문에 의하면 목표지역에 배치된 적은 북한군 제19사단 제36연대로서 300~500명이 이 지역을 방어하였으며, 북한군 제1군단의 잔여 병력은 아군의 공중투하가 개시되기 훨씬 이전에 임진강 이북으로 철수하였다는 것이었다. 연대는 차후 작전을 위하여 임진강 주변의 도선장과 문산-법원리 간의 도로를 정찰하였다.

한편 문산 지역에 대한 공수작전이 개시되자 미 제1군단장은 그로우던 특수임무부대(Task force Growdon)에 23일 오전 카이로선의 국군 제1사단을 초월, 1번 도로 축선으로 신속히 진출하여 공정연대전투단과 연결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군단의 주력인 국군 제1사단이 문산을, 미 제3사단이 동두천을 그리고 미 제25사단이 포천을 목표로 각각 공격을 개시하였다.

특수임무부대는 전진하는 동안 적의 저항이 없어 공격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하였으나 창릉천의 파괴된 다리를 우회할 무렵 적이 매설한 지뢰에 전차 1대가 파손되었다. 이때부터 특수임무부대는 지뢰에 의한 피해를 우려하여 지나치게 기동에 신중을 기하는 바람에 23일 18시 30분에 이르러서야 선두부대가 문산에 도착해 공정연대전투단과 연결하였다.[216] 결국 문산 공수작전은 시기가 늦었으며 연결작전도 지연되어 작전의 성과가 크지 못하였다.

한편 군단의 좌전방 국군 제1사단은 문산에 낙하한 미 제187공정연대전투단 진지를 인수받기 위하여 그로우던 특수임무부대를 후속하여 미 제64전차대대 C중대, 국군 제1사단 대전차공격대대, 공병 2개 소대로 편성된 특수임무부대를 선두로 1번 도로를 따라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때 사단은 구파발 부근에서 경미하게 저항하는 적을 격퇴하고 동거리(東巨里)-금촌으로 진출하였다. 이후 접적없이 24일 저녁 무렵 문산-법원리까지 진출한 국군 제1사단은 문산 부근의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의 작전지역을 17시에 인수하고 차후작전을 준비하였다.[217]

국군 제1사단이 경미한 저항을 받으며 진출하는 동안 중앙의 미 제3사단은 제15연대와 미 제64전차대대, 제65연대의 전차소대로 편성된 호킨스 특수임무부대(Task Force Hawkins)를 선두로 의정부에 진출하던 중 24일 예상하지 못한 중공군 제26군의 완강한 저항으로 격전을 펼치게 되었다. 이때 중공군은 의정부 북서쪽의 468고지와 북동쪽의 천보산에 견고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의정부-동두천, 의정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포천 도로를 따라 진출하는 미 제3사단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사단은 24일 아침 공격을 재개할 무렵 적으로부터 맹렬한 포격을 받았다. 이날 공격에서 사단은 천보산을 점령하였으나 468고지는 중공군의 완강한 저항으로 점령하지 못하였다.

군단장은 제3사단 정면의 적이 격렬하게 저항하자 이들을 포위 격멸할 목적으로 문산 북방에 집결한 제187공정연대전투단에 덕정리 북쪽의 228고지를 점령, 적의 퇴로를 차단하라고 명령하였다. 하지만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은 기갑부대 일부가 그간의 작전으로 연료 재보급이 필요했고, 기동 중인 전차들도 법원리-신촌(新村) 간의 기동로가 협소하여 보수(補修)가 요구되어 지체되었다. 더욱이 이날 폭우가 쏟아져 전차부대는 기동을 중지하고 문산으로 복귀하였다.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은 다음 날(25일) 아침에 신촌 부근으로 진출해 228고지를 공격했으나 적의 격렬한 저항으로 목표탈취에 실패하였다. 그러나 연대전투단의 공격이 시작되면서 미 제3사단 정면에서는 중공군의 저항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으며, 그들이 후퇴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228고지에 배치된 중공군 병력은 철수 부대를 엄호하기 위하여 더욱 격렬하게 저항하였지만,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은 27일 오전에 이 고지를 점령하고 오후에 미 제3사단과 연결하였다.

한편 미 제25사단은 좌전방 제24연대가 소리봉-해룡산을, 중앙의 제27연대가 죽엽산-왕방산을, 배속된 터키 여단이 주금산-국사봉을 목표로 경춘국도에서 공격을 개시하였다. 공격 초기에는 적의 저항이 경미하였으나 기동로 상에 설치된 장애물과 지뢰 등으로 인해 사단의 진출은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더하여 공격제대들이 포천 공격의 발판이 되는 소리봉-죽엽산-주금산 일대로 진출하자, 1개 연대 규모의 중공군이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완강하게 저항하면서 양측간에는 치열한 공방전과 함께 대포병 사격전까지 전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전 화력을 집중하여 고지 점령에 나서자 26일을 전후하여 적의 저항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으며, 결국 28일 미 제25사단은 포천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다.

미 제1군단의 38도선 진격작전으로 중공군 제26군은 큰 피해를 입고 주력이 포천 북쪽의 종현산 부근으로 철수하였으며, 일부 낙오된 병력들이 국사봉(△764)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요산 일대에서 방황하였다.[218]

② 중동부지역 진격작전

미 제10군단은 리퍼 작전의 조공으로 한계-풍암리-태기산-계방산을 연하는 아이다호선을 목표로 공격하게 되었다. 군단장은 좌측의 횡성-풍암리 간 소로와 우측의 평창-방림리-속사리 도로를 따라 진격하는데 역점을 두고서 이 도로 축선에 미 제2사단과 미 제7사단을 배치하고 국군 제5사단을 양 도로 사이의 산악지역을 담당하게 하였다.

이때 국군 제5사단은 중공군의 2월 공세 이후 국군 제1군단에 배속되어 단양-풍기 간의 주보급로 경계임무를 수행하면서 부대를 정비하던 중 3월 3일 다시 미 제10군단에 배속되어 5일 운교리-안흥리 지역으로 진출해 제36연대를 지구리(池丘里)에, 제35연대를 월암동(月岩洞)에 각각 배치하고 리퍼 작전을 준비하였다.[219]

군단은 3월 7일 벌교산-태기산-속사리를 목표로 좌전방에 미 제2사단을, 중앙에 국군 제5사단을, 그리고 우전방에 미 제7사단을 배치하여 3개 사단 병진공격을 개시하였다. 이 중 국군 제5사단의 작전지역은 대부분이 900~1,000m의 고지들로 연결된 산악지역으로 도로망이 제한되어 기갑부대의 운용은 물론 부대의 기동마저 제한되어 공격에 불리한 지형이었다. 그러나 사단은 지난 2월 초에 이 지역에서 작전을 펼친 바 있어 지형에 익숙해 있었다. 공교롭게도 사단정면의 적은 지난 2월 공세에서 일전을 펼친 바 있는 북한군 제6사단이었다. 이들은 제12사단의 1개 연대를 증원받아 태기산으로 연결되는 고지군을 점령하고 있었다.

국군 제5사단은 3월 7일 좌전방 제36연대가 봉복산(△1028)을, 우전방 제35연대가 태기산(△1261)을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였다.[220] 그러나 아군의 포격 및 항공폭격에도 불구하고 적이 격렬하게 저항함에 따라 사단의 공격은 첫날부터 고전하였다. 제35연대는 주간공격에 실패한 후 야간전투와 백병전으로 적을 격퇴하고 첫날 목표를 탈취했지만, 제35연대는 8~9일 이틀 동안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박격포 지원하에 격렬히 저항하는 적진을 돌파하는데 실패하였다.

제36연대가 주간공격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하여 3월 10일 야간공격을 개시하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적도 이날 새벽에 우전방 제35연대를 기습하였다. 이로 인해 사단은 좌우전방에서 근접사격과 총검이 난무하는 백병전을 펼치며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펼쳤다. 이 작전에서 제36연대는 적의 강력한 거점인 둔방내리 남쪽의 고지를 확보하였고, 우전방 제35연대는 자주봉(△889) 공격의 발판이 되는 둔내면 거점을 확보하였다.

공격제대가 경계를 강화하면서 부대정비에 주력하는 동안 사단장은 양지촌(陽之村)-대곡(垈谷)-매봉을 연하는 선을 점령할 목적으로 22시경 적의 거점인 자주봉 일대에 야간 근접 항공지원사격을 요청하여 적진을 강타하였다. 12일 공격을 재개한 연대들은 지난 밤의 항공폭격으로 저항이 경미할 것을 예상하였으나 밤 사이에 적이 증원된 듯 더욱 완강한 저항을 받았다. 적과 혈전을 펼쳐 제36연대는 갑천리(甲川里) 남쪽의 685고지를, 제35연대는 자주봉을 점령하였다. 사단장은 좌전방 제36연대가 그동안의 결전으로 다수의 피해를 입어 전투력이 약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예비연대로서 후속 중인 제27연대와의 교대를 준비하도록 명령하였다.

한편 생포된 포로의 진술에 의해 당시 적들이 태기산 남쪽에서 사생결단을 각오하고 지연전을 펼친 것은 11일부터 개시된 적 주력부대의 철수를 엄호하기 위한 작전의 일환이었음이 확인되었다. 또 다른 포로는 “북한군 제5, 제2, 제3군단 주력이 38도선 이북으로 철수하여 부대를 재정비하면서 새로운 공세를 준비 중”이라고 진술하였다.[221]

이러한 포로들의 진술을 입증이라도 하듯 13일을 전후하여 그동안 방어거점을 구축하고 완강하게 저항하던 적이 전선에서 물러날 징후들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를 간파한 사단장 민기식 준장은 예비인 제27연대를 좌전방 제36연대와 교대시켜 적을 추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단은 우인접에서 창동리로 진출 중인 미 제7사단의 공격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 제17연대의 대미산(大美山) 지역을 인수함으로써 작전지역을 동쪽으로 확장하였다.

추격전을 펼친 사단은 14일 적의 최후 거점인 태기산을 점령하고 신대리(新垈里)-백운동(白雲洞) 선으로 진출한 후 15일에는 북쪽의 운무산(△980)-홍정산(△1277)의 아이다호선으로 진출하였다. 제27연대 정찰대는 아이다호선 전방의 검산리(檢山里) 부근 고지에 매복 중 3월 17일 적이 후퇴하면서 은닉한 무기와 탄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을 회수해 가려고 침투한 600여 명의 적을 포착하여 425명을 사살하고 57명을 포로로 하였으며, 박격포 22문 등 다수의 장비를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222]

국군 제5사단이 공격작전을 펼치고 있을 무렵 군단의 좌전방 미 제2사단과 우전방 미 제7사단도 완강한 적의 저항과 불리한 지형조건을 극복하고 13일을 전후하여 알바니선으로 진출하였다. 이후 15일 한차례 적의 기습공격을 받았으나 양개 사단은 이를 격퇴하고 17일 최종 목표선인 아이다호선으로 진출하여 리퍼 작전을 종료하였다.

한편 리퍼 작전의 조공인 국군 제3군단은 최종 공격목표인 계방산-황병산을 연하는 아이다호선까지 약 16㎞가 남아 있어 다른 군단에 비해 진격 거리가 짧았지만 험준한 태백산맥 줄기를 따라 진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군단장 유재흥 소장은 작전지역의 기동공간이 제한되고 군단 후방지역에서 북상 중인 북한군 패잔병들의 빈번한 출몰 등을 고려하여 작전계획을 수립했다. 그는 제7사단과 배속된 국군 제1해병연대를 공격부대로 투입하고, 미 제10군단에서 복귀한 제3사단을 군단예비로 하여 국군 제1군단으로 배속이 전환되는 제9사단의 정선 일대 진지를 인수하도록 조치하였다.

국군 제7사단은 좌전방 제3연대를 상대화(上大和)에서 백적산(△1141)-잠두산(△1241)을 경유 속사리로, 우전방 제5연대를 대기(大基)에서 백석산(△1364)-박지산(△1391)-형제봉을 경유 하진부리로 각각 공격하게 하였다. 3월 6일 08시에 좌전방 제3연대는 속사리를, 우전방 제5연대는 하진부리를 목표로 2개 연대 병진공격을 개시하였고, 예비인 제8연대는 주공인 제3연대를 후속하였다. 공격제대는 잠두산과 박지산 일대에서 적의 완강한 저항을 받았으나 포병의 화력지원으로 이들을 격퇴하였다.

이 무렵 군단 정보보고에 의하면 북한군 제9사단 주력이 백적산을 고수하기 위하여 속사리에서 남하 중이며, 하진부리 부근에서 정비 중이던 북한군 제27사단도 형제봉과 박지산으로 남하해 국군 제7사단의 우측방을 위협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군단장은 국군 제1해병연대를 이 지역으로 긴급히 투입하였다.

해병연대는 북한군이 진출하기 전에 방어거점인 봉산리(鳳山里)와 발왕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458)을 선점해야 했기 때문에 신속한 기동이 요구되었다. 3월 5일 08시에 이동을 개시한 연대는 다음날 02시에 우전방 제2대대가 오장산(△735)을 경유해 발왕산으로 진출하였고, 이어서 좌전방 제3대대가 상원산(△1421)을 경유해 봉산리로 진출, 방어진지를 편성한 후 전방 정찰을 실시하였다.[223]

해병연대를 배속받아 우전방을 보강한 제7사단은 7일 공격을 재개하였다. 이때 북한군은 아군의 화력집중을 우려한 듯 백적산과 백석산에 최소 병력만을 배치하고서 고지를 점령당하면 역습과 후방지역 침투로 포위공격을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국군 제7사단의 공격은 여의치가 않았다. 공격이 부진하자 8일 사단장은 예비인 제8연대를 투입해 3개 연대 병진 공격을 시도하였다. 이날 좌전방 제3연대는 7시간 동안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펼쳐 백적산을 탈취하였다. 연대는 북한군의 야간공격을 예상하여 주력을 철수시키고 일부 경계부대만을 배치한 후 이 지역에 야포사격을 집중할 수 있도록 화집점을 설치하였다.[224] 예상대로 북한군은 2개 대대 규모로 야간공격을 개시하였으나 사단의 화력집중으로 큰 피해를 입고 철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은 하진부리-마평리(馬坪里)를 연하는 계곡 통로에 증원 병력을 집중하면서 사단 후방의 백석산을 목표로 진출을 기도하였다.

군단장은 하진부리를 조속히 점령하여 북한군의 퇴로를 차단한다는 목적하에 군단예비인 제3사단 제18연대를 전방에 투입하였다. 북한군은 3월 10일 2개 연대규모로 공격을 재개하였으나 사단의 보·포·공(步砲空) 협동작전에 의해 백적산-거문리(巨文里)-형제봉 선으로 격퇴되었다. 사단이 11일 속사리와 하진부리를 감제할 수 있는 백적산을 확보하자 적의 공격 기세는 현저히 둔화되었다. 사단은 북한군을 추격하여 공격개시 1주일 만인 12일에 최종목표인 속사리와 하진부리를 점령하고 경강국도를 통제하게 되었다.

한편 국군 제7사단의 우전방을 방어 중이던 제1해병연대는 3월 7일 봉산리의 제3대대가 좌인접 제7사단 제5연대의 철수로 인해 적중에 고립되었다. 이날부터 제3대대는 9일 제18연대가 군단의 우전방으로 투입될 때까지 공중투하 보급을 받아가면서 북한군의 기습공격을 수차례 격퇴하였다. 제18연대가 투입되면서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터 북한군이 철수하기 시작하자 제1해병연대는 13일 09시를 기해 공격으로 전환하여 최종목표인 외차래지(外車來地)까지 진출하였고, 15일 다시 차항리(車項里)로 이동하여 작전지역을 제3사단 제22연대에 인계하였다. 그리고 16일에는 미 제9군단의 미 제1해병사단으로 배속이 전환되어 홍천으로 이동하였다.[225]

국군 제3군단은 3월 25일 후방지역의 패잔병 소탕작전을 제7사단에 전담시키고 제3사단으로 하여금 경강국도에서 카이로선인 현리-하서림 도로를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도록 하였다.

제3사단은 제18연대를 주공, 제23연대를 조공, 제22연대를 예비로 하여 26일 08시에 공격을 시작하였다. 제18연대는 오대산에서 설악산으로 연결되는 산악능선을 따라 공격하여 경미하게 저항하는 적을 격퇴하고 27일 카이로선상의 하서림(下西林)을 확보하였고, 제23연대도 27일 월정동을 경유 30일 조개동(早開洞)으로 진출하였다.

③ 동해안지역 진격작전

국군 제1군단은 리퍼 작전이 개시되기 직전 미 제10군단에서 작전통제가 해제되어 3월 5일 강릉으로 복귀하였다. 이때 제3군단으로부터 작전지역 일부를 인수받고 제9사단과 수도사단을 배속 전환 받았다. 제3군단으로부터 작전지역을 인수할 무렵, 군단은 황병산-하평동으로 진출하여 이미 전선 절단작전의 최종목표인 아이다호선에 도달한 상태였다.

이 무렵 군단 작전지역내에는 북한군 제10사단이 패잔병과 지방 게릴라들을 규합하여 2,000여 명으로 재편성한 후 북상 중이었다. 이에 제1군단은 제9사단을 투입하여 이들 북한군 패잔병들을 소탕하였다. 3월 18일을 전후하여 소탕작전이 소강상태로 접어들자, 육군본부는 이날 정오경 군단에 카이로선 이남 지역에 대한 강력한 정찰을 실시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제1군단장은 양양 공격에 앞서 수도사단으로 하여금 연곡천(連谷川) 북쪽지역에 대한 강력한 수색정찰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때 제1군단 정면의 북한군은 제69여단이 북으로 철수한 제10사단의 일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병력을 증원받아 하월천리(下月川里)-만월산-명지리(明池里) 축선에 축차진지를 편성하고서 국군의 진격에 대비하였다.

위력수색에 나선 국군 수도사단 제1연대는 동해안에 배치된 미 함정의 화력 엄호하에 적의 축차진지를 격파하면서 양양 남쪽의 어성전리(魚城田里)-명지리 선으로 진출하였다. 당시 북한군은 미 함정의 집중적인 함포사격으로 많은 병력 손실을 입어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었기 때문에 제1연대의 진출을 저지하는 것이 역부족이었다.

상황이 급진전되자 수도사단장은 대관령 너머의 유천리와 차항리 일대에 배치한 제26연대를 양양 남쪽의 인구리(仁邱里)로 이동시키고, 사단예비인 제1기갑연대를 강릉에서 주문진으로 이동시켰다.

육군본부에서는 3월 25일 08시에 "제1군단과 제3군단은 3월 25~26일 양일간에 공격을 실시하여 카이로선을 점령 확보하라"는 '작전지시 제10호'를 하달하였다. 이는 '동부전선의 국군을 신속히 카이로선에 진출시키라'는 제8군사령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226] 이에 제1군단장은 수도사단으로 하여금 카이로선의 양양을 점령하고, 제9사단의 좌측방을 엄호하면서 축차적으로 진출하도록 조치하였다.

수도사단장 송요찬 준장은 3월 26일 좌전방에 제1연대, 우전방에 제26연대로 공격제대를 편성하고 공격을 개시하였다. 북한군은 양양을 고수하기 위하여 남대천 남쪽의 우암리(牛岩里)-노고봉(老姑峯) 선에 강력한 진지를 구축하고 사단의 공격을 저지하고자 했다.

수도사단은 전 화력을 집중한 후 돌격으로 북한군의 최후 방어선을 돌파하였다. 북한군은 방어선이 돌파되자 남대천을 도하해 양양 북쪽의 고지군과 한계리-인제로 통하는 설악산 입구로 철수하였다. 사단은 27일 남대천을 도하해 양양으로 진출한 후 양양-인제, 양양-서림리 간의 차단진지를 점령하였다. 당시 양양-속초 간의 북한군은 동해안에서 지원되는 함포사격에 방어진지 편성은 물론 철수도 불가능하게 되자 인제-설악산 간의 내륙지역으로 통하는 도로변에 거점을 확보하고 저항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 무렵 군단장 김백일 소장이 태백산맥 서쪽에서 작전 중이던 제9사단의 전선을 시찰하고 강릉으로 복귀하던 중 L-5기 추락사고로 행방불명되었다. 이에 부군단장 이준식 준장이 임시로 군단을 지휘하게 되었다.[227]

양양에서 철수한 북한군은 설악산 입구의 387고지에 강력한 진지를 구축하였다. 이 고지는 북한군 제2군단의 철수로인 양양-한계령-원통 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중요 감제고지였다. 수도사단은 3월 29일 387고지에 집중사격을 실시한 후 제1연대가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적의 저항도 만만치 않아 공격에 실패하였다. 다음날 제1연대는 사단이 포격으로 적을 제압하는 동안에 공격을 재개하여 387고지를 점령하였다. 북한군은 사단의 화력이 387고지 후방으로 연신되자 1개 중대 규모의 잔류부대만을 퇴로 확보를 위해 남겨 두고 주력이 오색리(五色里)를 경유하여 설악산으로 퇴각하였다. 이로써 국군 제1군단은 동해안의 전술적 요충지인 양양을 확보하게 되었다.

4. 전투 결과 및 교훈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51년 1월 중순부터 시작된 일련의 위력수색과 반격의 개시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2월 초순까지 국군과 유엔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이어졌다. 국내는 물론 미국 내에서도 전황에 대한 낙관적인 분석이 대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전쟁에서 지나친 낙관은 언제나 금물이다. 공산군은 유엔군이 위력수색작전과 소규모의 제한목표 공격을 실시하는 동안 재편성 및 재보급과정을 통하여 차기 공세를 은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공산군은 서부전선에서 아군과의 접촉을 피하면서 그동안 많은 병력을 중동부 산악지대로 이동시켰다. 그들은 유엔군 전선 중에서 취약한 중동부전선을 선택하여 돌파를 실시하고 서부전선의 유엔군 주력에 대하여 측면포위를 실시한다는 개념의 공격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중공군은 2월 9일 횡성을 목표로 하는 공격준비명령에 따라 신속히 병력을 집결시키기 시작하였으며, 예정된 진지로의 집결을 완료하자 2월 11일 17시부로 일제히 공격을 개시했다. 이 공세에 참가한 공산군은 모두 13개 사단에 이르렀다. 중공군의 공격방법은 전형적인 야간기습으로서 대병력이 사방에서부터 동시다발적으로 돌진하는 형태였다.

국군은 용전분투하였으나 워낙 중과부적이었기 때문에 퇴로까지 차단된 상태에서 큰 혼란을 겪으며 거의 지리멸렬되었다. 2월 11일 밤부터 13일까지 실시된 횡성전투에서 국군과 유엔군의 손실은 약 11,800명에 이르렀는데, 이 중 국군이 9,800명, 미군이 1,900명, 네덜란드군이 100명이었다. 그밖에 장비손실도 대단히 컸다. 국군 3개 사단은 14문의 105밀리 곡사포와 88대의 차량을, 미군과 네덜란드군은 14문의 105밀리 곡사포, 6문의 155밀리 곡사포, 280대의 차량을 상실하였다.

제8군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은 횡성전투에서의 장비손실에 대하여 매우 분개하였다. 특히 후방지원부대였던 미 제2사단 포병부대가 대량의 포병장비를 상실한 것은 직접적 전투손실이라기보다는 전적으로 지휘부의 실책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대에 감찰검열을 지시하기도 했다.

횡성전투의 결과 중동부전선에서는 1월 이후 다시 한 번 대돌파구가 형성될 위기에 놓였다. 이때 미 제23연대전투단의 지평리 방어작전이 성공함에 따라 유엔군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중공군 개입 이후 최초로 유엔군의 전술적 성공 사례였던 지평리 전투는 유엔군 전 부대에 자신감을 안겨주었다. 이를 계기로 제8군사령관은 보다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작전을 추진하는 데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킬러 작전과 리퍼 작전의 성공은 이러한 자신감의 결과였다.

결국 국군과 유엔군은 킬러 작전에 이어 서울의 재탈환과 38도선 진출을 목적으로 한 리퍼 작전을 3월 말까지 전개해 문산-동두천-춘천-현리-양양을 잇는 선까지 진출하는 데 성공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4 절 분석 및 교훈

1. 작전의 성격과 의미

유엔군의 재반격작전은 중공군의 제3차 공세로 평택-삼척을 연하는 37도선까지 철수한 국군과 유엔군이 1951년 1월 15일부터 반격 작전에 돌입해 중공군의 2월 공세를 저지하고 3월 31일 38도선까지 진출한 작전이었다.

중공군과 북한군은 제3차 공세(신정공세)를 통하여 서부전선에서는 약 1주일, 중·동부전선에서는 약 2주일 동안 국군과 유엔군의 방어를 흔들었다. 그러나 그들은 많은 사상자를 내고 더 이상의 공격을 지속하지 못하였다. 이는 국군과 유엔군이 공간과 시간을 유리하게 확보하면서 화력을 최대로 활용하는 전술을 적용시킨 결과였다.

하지만 유엔군은 중공군이 언제 다시 공격해 올지 모른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었으며, 또한 한국에 영구히 머물러 싸울 수 있는지 아니면 한반도에서 철수해야만 하는지에 대하여 확신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매우 초조해 하였다.

제8군사령관은 강력한 수색대를 편성하여 적극적으로 적정을 파악한다는 작전계획을 세우고 울프하운드 작전과 썬더볼트 작전을 시행하였다. 위력수색작전의 결과 유엔군은 중공군이 개입한 이후 만연해 있던 '패배의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공세'로의 전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1951년 1월 25일부터 실시된 썬더볼트 작전 시기에 유엔군은 작전개념을 수색정찰에서 지역확보로 전환하는 등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자신감을 되찾았다. 이와 더불어 썬더볼트 작전은 여러 병종이 하나의 거대한 팀워크를 이루며 진행된 작전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그 결과 2월 10일경 서부전선에서의 썬더볼트 작전은 적의 남한산 교두보를 제외하고 본래 목표로 삼은 한강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남안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다.

서부전선에서 썬더볼트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중동부전선에서는 라운드업 작전이 이루어졌다. 이 작전은 중동부전선에서 적의 압력을 제거하고 서부의 썬더볼트 작전과 보조를 맞추어 한강 남안에서 홍천으로 연결되는 선을 확보함으로써 서울 탈환의 여건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공격 제대는 공산군의 강력한 방어와 빈번한 역습으로 말미암아 홍천을 장악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유엔군측이 위력수색작전과 소규모의 제한목표 공격을 실시하는 동안 중공군과 북한군은 재편성 및 재보급과정을 통하여 차기 공세를 은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공산군은 서부전선에서 아군과의 접촉을 피하면서 그동안 많은 병력을 중동부 산악지대로 이동시켰다. 그들은 아군 전선 중에서 취약한 중동부 지역을 선택하여 돌파를 실시하고 서부전선의 유엔군 주력에 대하여 측면포위를 실시한다는 개념의 공격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공산군은 중동부전선에서도 지평리 지역과 횡성 지역의 두 돌출부를 놓고 상당히 심사숙고했다. 그들의 판단에 의하면, 지평리는 서부전선의 유엔군을 동요시키고 동서 양 전선을 통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지만, 그곳은 유엔군이 담당하는데다가 강력한 진지가 구축되어 있어서 공격이 용이하지 않으리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단기간에 전투를 끝내지 못하면 이천, 원주, 제천 등지로부터 유엔군 및 국군의 증원 때문에 자신들이 오히려 매우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리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반하여 횡성은 비록 상대방 병력은 많으나 국군만이 담당한 지역이어서 화력이 약하였으며 병력 또한 고정 진지가 아닌 노출상태에서 이동 중에 있었으므로 공격이 쉽고 초전 기습을 통하여 국군을 크게 혼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전에도 그랬듯이 중공군은 이번에도 미군보다는 국군의 취약지점을 찾아서 공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중공군은 2월 9일 횡성을 목표로 하는 공격준비명령에 따라 신속히 병력을 집결시키기 시작하였으며, 예정된 진지로의 집결을 완료하자 2월 11일 17시부로 일제히 공격을 개시했다. 국군은 용전분투하였으나 워낙 중과부적이었기 때문에 퇴로까지 차단된 상태에서 큰 혼란을 겪으며 거의 지리멸렬되었다. 2월 11일 밤부터 13일까지 아군의 손실은 약 11,800명에 이르렀으며, 28문의 105밀리 곡사포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문의 155밀리 곡사포, 그리고 370여 대의 차량을 상실하였다.

횡성전투에 참가한 국군과 유엔군은 철수하여 원주와 영월지역에 집결하였다. 횡성 동쪽의 국군 제7사단과 제9사단도 전후좌우로부터 북한군의 맹렬한 공격을 받고 평창, 정선방향으로 퇴각하였다. 이로써 중동부전선에서는 1월 이후 다시 한 번 대돌파구가 형성될 위기에 놓였다. 이때 미 제23연대 전투단의 지평리 방어작전이 성공함에 따라 유엔군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4일간에 걸친 지평리 고수방어 전투는 유엔군이 중공군 개입 이후 처음으로 그들의 대규모 공세에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승리한 최초의 전투였다. 중공군의 인해전술이 실패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다. 중공군 개입 후 최초로 유엔군의 전술적 성공 사례였던 지평리 전투는 유엔군 전 부대에 자신과 희망을 주었으며, 미 정책 당국에 대하여는 전세의 추이에 대한 의구심을 일소하게 하였다. 또한 이를 계기로 제8군사령관은 보다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작전을 추진하는 데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지평리 동쪽의 원주에서는 미 제10군단이 대살육작전을 전개하여 적의 공세를 완전히 좌절시켰다. 이로써 전선은 한강 남안-양평-지평리-원주-삼척선으로 이어졌으며, 다시 유엔군이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중공군의 공세를 격퇴시킨 여세를 몰아 유엔군은 곧바로 킬러 작전에 돌입했다. 2월 21일부터 진행된 킬러 작전의 결과 유엔군은 어느 정도 전선의 균형을 찾았지만 제8군사령관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작전명칭에 걸맞은 성과, 즉 적을 대량살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제8군사령관은 곧바로 새로운 작전을 구상하고 3월 7일부터 작전개시에 돌입하도록 했다. 리퍼 작전이라 명명된 이 작전은 중동부전선에서 킬러 작전의 연장선상으로 적을 계속해서 압박하는 가운데 서부전선에서 본격적인 공격을 실시해 서울을 탈환한다는 계획이었다. 리퍼 작전의 결과 중동부전선에서는 3월 13일경 청평-홍천-주문진 선을 확보하였으며, 서부전선에서는 3월 15일 국군 제1사단이 서울을 재탈환하였다. 나아가 국군과 유엔군은 킬러 작전과 리퍼 작전의 결과로 3월 말 38도선에 이르는 데 성공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작전술 차원에서의 분석

중공군의 제3차 공세 이후 제8군사령관은 무작정 중공군의 공격을 기다리는 것으로는 결코 땅에 떨어진 부대의 사기를 회복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전선에서 사라진 중공군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 제8군사령관은 중공군이 인해전술로 공세를 취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일정한 지역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우세한 화력과 기동력을 앞세워 중공군을 타격해 그들의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작전기간 중 미 제8군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의 작전지도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228]

첫째, 리지웨이는 중공군의 개입 이후에 참전한 상황에서 전황을 미 본토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던 적책[229]을 이용하여 그 실체를 맥아더보다는 더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또한 중공군의 실체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였다는 것이다. 최초에 썬더볼트 작전을 포함한 위력수색을 실시했던 이유도 중공군의 신정공세 이후 펑더화이의 기도와 중공군의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러한 작전활동을 통해서 중공군의 취약한 면을 정확하게 파악했다는 점이다. 즉 중공군은 작전간 가장 취약한 면이 보급의 문제라는 것을 분석해 내었고, 그래서 중공군은 작전기간 동안에 이러한 보급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돌파구 확장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를 확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석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리지웨이 장군은 작전술 차원에서의 중요한 요소인 '작전한계점'의 관점에서 중공군을 분석하여 그 시점에서 중공군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작전을 구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제8군사령관은 중공군의 제3차 공세 이후 적의 공세가 약화되는 상황하에서 위력수색을 통하여 과감히 공세로 이전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도는 물론 중공군의 취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했지만 제8군사령관의 탁월한 작전지도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제8군사령관의 이러한 작전지도는 '유엔군의 능력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공격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였던 펑더화이에게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당시 펑더화이는 마오쩌둥의 정치적 인식과 자신의 군사적 인식간의 견해차이로 심리적인 갈등을 겪고 있었다. 이에 펑더화이는 중공군을 제대로 휴식시키고 충분하게 정비 및 재보급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투입하는 우(愚)를 범했다. 중공군은 제4차 공세(2월 공세) 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부대를 효과적으로 운용하지 못했다.

셋째, 제8군사령관은 중공군의 '운동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중공군 개입 이후에 유엔군이 중공군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한 이유를 부대간의 간격을 통한 후방 기동과 산악을 이용한 기동로에 대한 통제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파악하였다. 이를 근거로 하여 제8군사령관은 위력수색 이후에 공세로 전환하는 작전에서 부대간의 간격을 없애고 선형으로 공격하도록 지침을 하달하였으며, 도로방향으로의 공격을 배제하고 산악 기동로에 대한 통제를 화력과 장애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중공군의 '운동전' 수행 모습과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효과적인 지침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중공군의 '운동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부임 이후에 리지웨이가 정확한 작전지도의 방향을 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집필 : 박동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주(註)

1)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박동구) 역,『중국군의 한국전쟁사』[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292쪽.

2) 위의 책, 293쪽.

3) 위의 책, 293~294쪽.

4) 위의 책, 299~300쪽.

5) 위의 책, 294쪽.

6) 홍학지 저, 홍인표 역,『중국인민지원군 부사령관 홍학지의 전쟁 회고록 : 중국이 본 한국전쟁』, 한국학술정보, 2008, 219쪽.

7)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앞의 책, 341쪽.

8) 홍학지 저, 앞의 책, 219쪽.

9)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앞의 책, 15쪽, 559~560쪽.

10) Hq. EUSAK, "Operation Plan 19", "Modified Operation Plan 19", Command Report, Section Ⅱ : Narrative, January 1951, 군사편찬연구소 사료번호 HD01503.

11) 모스맨 지음, 백선진 옮김, 『밀물과 썰물』, 대륙연구소 출판부, 1995, 258쪽.

12) 모스맨 지음, 위의 책, 263쪽.

13) 육군사관학교,『한국전쟁사』, 일신사, 1984, 361~362쪽.

14) 합동참모본부,『한국전사』, 교학사, 1984, 508쪽.

15) Hq. EUSAK, Command Report, January 1951, pp.15~20, 군사편찬연구소 사료번호 HD01503.

16) Hq. EUSAK, Command Report, February 1951, pp.8~9, 군사편찬연구소 사료번호 HD01504.

17) 조창래,「한국전시 리지웨이 장군의 작전지도에 대한 고찰」,『군사평론』제350호 부록, 2001, 163쪽.

18) '울프하운드(Wolfhound)'는 미 제27연대의 별칭으로, 이 별칭을 따서 작전명을 정하였다.

19) 울프하운드 작전에 투입된 특수임무부대(Task Force)는 미 제27연대, 제89전차대대, 제8야포대대, 제65전투공병대대의 1개 중대로 구성되었다(Hq. EUSAK, Command Report, January 1951, p.15, 군사편찬연구소 HD01503).

20) Hq. EUSAK, Command Report, January 1951, p.15, 군사편찬연구소 사료번호 HD01503.

21) Hq. EUSAK, Command Report, January 1951, p.15.

22) Hq. EUSAK, Command Report, January 1951, p.73.

23) 이들 장애물들은 유엔군이 37도선으로 철수하면서 중공군의 남하를 저지하고자 만든 것이었다(Hq. EUSAK, Command Report, January 1951, p.74).

24) 모스맨 지음,『밀물과 썰물』, 248~249쪽.

25) 25th Infantry Division, "Narrative", Command Report, January 1951, p.7, RG 319, Army-AG Command Reports, 1949-54, Twenty-Fifth Infantry Division, Narrative w/Incl COS G-1 G-2 Folders 1-3, Jan 1951, Box 337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6) Hq. EUSAK, Command Report, January 1951, p.76.

27) 모스맨 지음,『밀물과 썰물』, 290쪽.

28) 국방군사연구소,『한국전쟁』(중), 1996, 376쪽.

29) 미 제1군단은 1월 23일 22시에 '작전명령 제40호'로 썬더볼트작전을 예하부대에 하달하였다(25th Infantry Division, "Narrative", Command Report, January 1951, p.7).

30) 매튜 B. 리지웨이, 김재관 역,『한국전쟁』, 정우사, 1981, 119~120쪽.

31) Hq. EUSAK, Command Report, January 1951, p.90 ; 모스맨 지음, 『밀물과 썰물』, 253쪽.

32) 국방군사연구소,『한국전쟁』(중), 1996, 376~377쪽.

33) 25th Infantry Division, "Narrative", Command Report, January 1951, p.7; Hq. EUSAK, Command Report, January 1951, p.93.

34) 25th Infantry Division, "Narrative", Command Report, January 1951, p.40.

35) 25th Infantry Division, "Narrative", Command Report, January 1951, p.42.

36) 모스맨 지음,『밀물과 썰물』, 294~295쪽. 실제로 이 선에 배치된 중공군은 제50군 예하 1개 사단으로 제150사단이 수원-김량장리 선에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중국군의 한국전쟁사』2, 294쪽).

3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 : UN군 전사편』제11권, 1980, 329쪽.

38) 위의 책, 334쪽.

39) 25th Infantry Division, "Narrative", Command Report, January 1951, p.42.

4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331쪽.

41) 25th Infantry Division, "Narrative", Command Report, January 1951, p.43; 위의 책, 335쪽.

4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11권, 337~338쪽.

43) 위의 책, 332쪽.

44) 일본육전사연구보급회편,『한국전쟁 : 유엔군의 재반격』7, 명성출판사, 1986, 156쪽.

45)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앞의 책, 341쪽, 344~345쪽.

46) 일본육전사보급회편, 앞의 책, 164쪽.

47) Hq. 25th Inf., "Operations Report No. 2"(1951. 2. 1), Command Report, Feb. 1951, 군사편찬연구소 사료번호 HD02422.

48) Hq. 25th Inf., "Operation Instructions No. 64"(1951. 2. 1), Command Report, Feb. 1951.

49) Hq. 25th Inf., "G-3 Section Journal"(1951. 2. 2), Command Report, Feb. 1951.

5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 : 중공군 침략과 재반격작전기』제5권, 1972, 824~828쪽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11권, 341~343쪽.

51) 국군 제1사단,『전진역사』, 1966, 205쪽.

5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5권, 818쪽.

53) 육군본부,「관악산지구 전투상보」,『한국전쟁사료』(105), 1997, 949~953쪽, 956~957쪽, 967쪽.

5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5권, 824~825쪽.

55) 육군본부,「관악산지구 전투상보」,『한국전쟁사료』(105), 1997, 954~955쪽.

국방군사편찬연구소

5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5권, 825쪽.

57) 육군본부, 「관악산지구 전투상보」, 955쪽. 2월 4일 13시에 제3대대가 200고지에 진출하고 제1대대는 예비대로서 백운산 서쪽에 배치되었다.

58) 알렌 특수임무부대는 보병 2개 대대, 전차 2개 대대, 포병 1개 대대, 공병 1개 중대로 편성되었다.

59)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353~354쪽.

60) 국군 제1사단, 앞의 책, 210쪽 ; 육군본부, 「관악산지구 전투상보」, 960~961쪽. 1951년 1월 31일부터 2월 10일까지 진행된 작전 기간 동안에 국군 제15연대는 662명의 적을 사살하고 90명을 포로로 하였으며, 약 150정의 총기류를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반면에 국군 제15연대는 전사 74명, 부상 200명, 실종 15명의 손실을 입었다(육군본부, 「관악산지구 전투상보」, 964~965쪽).

61) 모스맨 지음, 앞의 책, 298쪽.

6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5권, 425쪽.

63) Hq. Far East Command, Order of Battle Information North Korea Army, October 1950, p.21.

64) Hq. X Corps, Command Report, January 1951, p.4, RG 407, Entry No. 429, Army-AG Command Reports 1949~1954, Tenth Corps Command Rept & Incl, Jan 1951, Box No. 1990.

65) 국군 특공대대는 1950년 12월 24일 오후 마지막 홍남철수부대로 연포비행장에서 미 수송기를 이용해 부산비행장에 도착한 후 12월 25일부터 부산 북방 50km 지점에 위치한 신불산(△1209)으로 추진되어 게릴라 토벌작전을 수행하고, 경주-영천을 거쳐 1951년 1월 10일에 안동에 도착하였다.

6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5권, 434~435쪽.

67) 특수작전단은 1951년 1월 1~2일 미 제10군단 전방지휘소가 청주로 이동하는 것을 엄호한 후 1월 7일 안동으로 이동해 그곳에서 대비정규전을 수행하였다. 국군 특공대대의 수색 정찰활동은 특수작전단이 수행한 작전의 일부였다(Hq. X Corps, Command Report, January, 1951, p.25, RG 407, Entry No. 429, Army-AG Command Reports 1949~1954, Tenth Corps Command Rept & Incl, Jan 1951, Box No. 1990).

68) 국군 특공대대의 작전은 1951년 2월 12일 미 제10군단 '작전지시 제69호'에 의거해 이루어졌다(Hq. X Corps, Command Report, January, 1951, p. 42, RG 407, Entry No. 429, Army-AG Command Reports 1949~1954, Tenth Corps Command Rept & Incl, Jan 1951, Box No. 1990).

6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5권, 436쪽.

70) 위의 책, 438쪽.

71) 위의 책, 439~441쪽.

72) Hq. X Corps, Command Report, January, 1951, pp.25~26, RG 407, Entry No. 429, Army-AG Command Reports 1949~1954, Tenth Corps Command Rept & Incl, Jan 1951, Box No. 1990 ; 398쪽, 위의 책, 442쪽.

7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398쪽.

74) 제3사단, '작명 제4호'(1951. 1. 10).

7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5권, 400쪽.

76) 위의 책, 400~401쪽.

77) 육군본부, 「전투상보 : 남대리 방면 공격전」, 『한국전쟁사료』 (49), 431~432쪽.

78) 육군본부,「전투상보 : 남대리 방면 공격전」, 433~435쪽.
79) 육군본부,「전투상보 : 남대리 방면 공격전」, 436쪽.
8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5권, 410쪽.
81) 제7보병사단,『상승칠성부대-전사를 중심으로(1946, 1, 29~2007. 8. 31)』, 2007, 211~212쪽.
8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5권, 412쪽.
83) 제7보병사단, 앞의 책, 213~214쪽.
8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5권, 413~415쪽.
85) 제7보병사단, 앞의 책, 214~215쪽.
86) 국군 제7사단, "사단작명 제75호"(1951. 1. 24).
87) Hq. X Corps, "Battle of the Tunnels area", Command Report, January 1951, RG 407, Entry No. 429, Army-AG Command Reports 1949~1954, Tenth Corps Command Rept & Incl, Jan 1951, Box No. 1990.
88) 모스맨 지음, 앞의 책, 305~310쪽.
89) Hq. X Corps, Command Report, February 1951, p.3, RG 407, Entry No. 429, Army-AG Command Reports 1949~1954, Tenth Corps Command Report, Feb 1951, Box No. 1995.
90) Hq. X Corps, Command Report, February 1951, p.4, RG 407, Entry No. 429, Box No. 1995.
9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5권, 483쪽.
92) Hq. X Corps, Command Report, February 1951, pp.4~5, RG 407, Entry No. 429, Box No. 1995.
93) Hq. X Corps, "Operation Plan ROUNDUP"(1951. 2. 1), "Operations Instructions No. 92"(1951. 2. 1), "Operations Instructions No. 94"(1951. 2. 2), Command Report, February 1951, p.47, RG 407, Entry No. 429, Box No. 1995.
94) 보병 제8사단, 『오뚜기역사』, 1980, 372쪽.
95) 제8사단, "사단 작명 제110호"(1951. 2. 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5권, 508쪽 재인용.
96) 보병 제8사단,『오뚜기역사』, 1980, 373~376쪽.
9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5권, 512~515쪽.
98) 위의 책, 482쪽.
99) 제5사단, "작명 제22호"(1951. 2. 4, 13:00).
10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5권, 485~488쪽.
101) 위의 책, 490~496쪽.
102) 국방군사연구소,『한국전쟁』(중), 392쪽.
103) Hq. X Corps, "Operations Instructions No. 99", Command Report, February 1951, p.5, RG 407, Entry No. 429, Box No. 1995 ; 모스맨 지음, 앞의 책, 275쪽.
104) 국방군사연구소,『한국전쟁』(중), 392쪽.
10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5권, 517쪽.
10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최영희 증언"(1965. 3. 29),『면담록』, HA03048.
107)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소 편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중공군의 한국전쟁사』, 1991, 110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08)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중국군의 한국전쟁사』2, 356쪽.

109) 홍학지 저, 홍인표 역,『중국인민지원군 부사령관 홍학지의 전쟁 회고록 : 중국이 본 한국전쟁』, 한국학술정보, 2008, 224~225쪽.

110)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중국군의 한국전쟁사』2, 359~360쪽.

111) 2월 공세의 주공 부대인 중공군 제42군은 약 40시간의 준비 기간을 가지고 공격태세를 갖추었다.

112)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중국군의 한국전쟁사』2, 345쪽.

113) 홍학지 저, 홍인표 역, 앞의 책, 220쪽.

114)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중국군의 한국전쟁사』2, 345~346쪽.

115) 위의 책, 356쪽.

116) 위의 책, 345~346쪽.

117) 위의 책, 348쪽.

118) 이전 시기 중공군과 북한군의 전투편성에 관해서는 제4장 제2절 참조.

119)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앞의 책, 15쪽, 559~560쪽.

120) 모스맨 지음, 앞의 책, 320쪽.

121) Eighth Army G-2, Estimate of Enemy Situation, 10 Feb 1951.

122) 미 제25사단장은 1951년 2월 25일부로 킨 소장에서 브래들리 소장으로 바뀌었다.

123) 제9군단장 무어 소장이 1951년 2월 23일 헬기 사고로 사망함에 따라 3월 5일 호지 소장이 군단장으로 임명되었다.

124) 국군 제9사단장은 1951년 3월 3일부로 김종갑 준장에서 이성가 준장으로 교체되었다.

125) 국군 제5사단과 제8사단의 홍천포위 공격작전에 대해서는 본 장의 제2절 중 '홍천 포위 공격' 참조.

12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횡성전투』, 1995, 95~100쪽.

127)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중국군의 한국전쟁사』2, 361~362쪽.

128)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56), 1987, 173~175쪽.

129) 모스맨 지음,『밀물과 썰물』, 327~328쪽.

130) Ltr, Hq 2d Div Arty to CG 2d Div, 16 Feb 51, Sub: Responsibility for Losses of Personnel and Equipment of Support Force 21, 모스맨 지음, 위의 책, 329쪽 재인용.

13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횡성전투』, 102~103쪽.

132) Hq. X Corps, "Battle of Hoeng song", Command Report, February 1951, Inclosure 2, RG 407, Entry No. 429, Box No. 1995.

133)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56), 1987, 173~176쪽.

13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횡성전투』, 106~108쪽.

135) Hq. X Corps, "Operational Instructions No. 103 & 104", Command Report, February 1951, p.50, RG 407, Entry No. 429, Box No. 1995.

13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최영희 증언"(1965. 3. 29),『면담록』, HA0304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횡성전투』, 109~110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37) 제8사단 사령부, “사단작명 제112호”(1951. 2. 12).

138) 보병 제8사단, 『오뚜기역사』, 384~386쪽.

139) 모스맨 지음, 『밀물과 썰물』, 330쪽.

140)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소 편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114쪽.

141) 모스맨 지음, 『밀물과 썰물』, 349~350쪽.

142) Billy C. Mossman, Ebb and Flow November 1950-July 1951, Center of Military History U.S. Army, Washington, D.C., 1990, p.293.

143) 모스맨 지음, 『밀물과 썰물』, 316쪽.

144)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363~365쪽.

145) 특히 국군 제8사단의 피해가 컸다. 이로 인해 횡성전투는 군사적, 역사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군 제8사단의 횡성지구 전투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횡성지구 전투는 무엇보다 불명확한 적정 하의 무리한 부대 운용과 압도적인 수적 우세를 달성한 중공군의 예상하지 못한 기습으로 조직적인 방어 및 철수를 하지 못하여 인원 및 장비의 대량 피해를 초래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횡성지구 전투가 국군 제8사단만의 독립 전투가 아니라 미 제8군사령부의 전략적 판단 및 지침에 의해 미 제10군단이 수행한 라운드업 작전의 일부였고, 미 제8군사령부가 의도한 대로 위력수색을 통하여 중공군의 기도를 탐지하였고 중부전선으로 중공군의 주력을 끌어들여 서부지역 작전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재평가 받아야 마땅하다. 또한 전투의 실패는 국군 제8사단의 전투수행이 문제가 아니라 적과 작전지역의 특징을 무시한 미 제10군단의 작전계획 변경 지시와 적정을 무시한 무리한 전투지휘가 원인이었다.” 황순필, 「국군 제8사단의 횡성지구 재평가」 『군사평론』 제385호, 2006, 85~96쪽.

146) Hq. X Corps, "Battle of Chipyong-ni", Command Report, February 1951, Inclosure No. 1, p.1, RG 407, Entry No. 429, Box No. 1995. 중공군의 2월 공세가 시작될 무렵 유엔군은 미 제9군단의 주력이 양평—남한산성에, 그리고 제10군단의 주력이 원주 지구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지평리에는 프랑스대대로 증강된 미 제23연대가 위치하고 있었다. 미 제23연대가 위치한 지평리는 여주-상교리(지평리 남쪽 9㎞)-주읍산(△583, 지평리 서쪽 5㎞)을 연하는 선에 설정된 미 제9군단과 제10군단의 전투지경선 바로 우측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지평리는 미 제9군단의 우측방과 미 제10군단의 좌측방을 방어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었다(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5권, 831쪽).

147) Hq. X Corps, "Battle of Chipyong-ni", Command Report, February 1951, Inclosure No. 1, p.3, RG 407, Entry No. 429, Box No. 1995.

148)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357~358쪽.

149) 위의 책, 359쪽.

150) 위의 책, 365~366쪽.

151) 위의 책, 366쪽.

152) 곡수리-지평리간 도로는 2010년 현재 70번 도로이며, 구둔리-지평리간 도로는 331번 도로이다.

153)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앞의 책, 366쪽.

154) Hq. X Corps, "Battle of Chipyong-ni", Command Report, February 1951, Inclosure No. 5, p.3, RG 407, Entry No. 429, Box No. 1995. 프리만 대령의 철수 건의는 2월 14일 오전에도 계속

되었지만, 미 제8군사령관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15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5권, 833~834쪽.

156) 현재의 지도에는 망미산이 배미산으로 포기되어 있다.

15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5권, 835~836쪽 ; Hq. X Corps, "Battle of Chipyong-ni", Command Report, February 1951, Inclosure No. 5, p.6, RG 407, Entry No. 429, Box No. 1995.

158)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앞의 책, 367쪽.

159) Hq. X Corps, "Battle of Chipyong-ni", Command Report, February 1951, Inclosure No. 5, p.6, RG 407, Entry No. 429, Box No. 1995.

16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5권, 836쪽.

161) Hq. X Corps, "Battle of Chipyong-ni", Command Report, February 1951, Inclosure No. 5, p.7, RG 407, Entry No. 429, Box No. 1995.

162) Hq. X Corps, "Battle of Chipyong-ni", Command Report, February 1951, Inclosure No. 5, p.8, RG 407, Entry No. 429, Box No. 1995 ; 모스맨 지음,『밀물과 썰물』, 357쪽.

163) Hq. X Corps, "Battle of Chipyong-ni", Command Report, February 1951, Inclosure No. 5, p.9, RG 407, Entry No. 429, Box No. 1995.

16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5권, 838쪽.

165) Hq. IX Corps, "Historical Summary of the G-3 Section Activities for the Period 0001 to 24000 Hours 14 Feb 51"(1951. 1. 15), *Supporting Documents to Command Report : G-3 Daily Journal*, 군사편찬연구소 사료번호 HM2072.

166) Hq. IX Corps, Command Report, Feb 1951, p.20, 군사편찬연구소 사료번호 HM2071.

167) 이들은 수개조로 분산하여 이날 밤까지 곡수리 남쪽에 위치한 연대본부로 복귀하였다(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5권, 840쪽).

168) 위의 책, 841쪽.

169) 모스맨 지음,『밀물과 썰물』, 367~368쪽.

170) 위의 책, 368쪽.

171)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중국군의 한국전쟁사』2, 370~371쪽.

172) 위의 책, 371쪽.

173) 위의 책, 372쪽.

174)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소 편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중공군의 한국전쟁사』, 118쪽.

175) 모스맨 지음, 앞의 책, 376~377쪽.

176) Hq. IX Corps, "Operation Order #13", Command Report No.3, Book Ⅰ, p.7, February 1951, 군사편찬연구소 사료번호 HM2071.

177) 모스맨 지음, 앞의 책, 380쪽.

17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5권, 726쪽.

179) 위의 책, 544쪽.

180) 위의 책, 552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81) 국군 제3사단은 1951년 3월 7일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263호 수정지시 추가 제1호"(1951.3.5)에 의거해 미 제10군단에서 국군 제3군단으로 배속이 전환되었다.

18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5권, 563쪽.

183) 위의 책, 576쪽. 제1기갑연대는 경강국도가 폭설로 차단되고 보급이 두절되어 식량 및 탄약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혹한으로 인한 동상환자가 다수 발생하기도 했다.

184) 당시 적 피해는 미 제9군단 지역에서만 사망 7,918명, 부상 1,469명, 포로 208명에 육박하기도 하였다.

185) 모스맨 지음, 『밀물과 썰물』, 336쪽.

186)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중), 423~424쪽.

187) Hq. EUSAK, Command Report, Section I : Narrative, Mar. 1951, pp.14~15, 군사편찬연구소 사료번호 HD02987.

188) 모스맨 지음, 『밀물과 썰물』, 384~385쪽.

189) 리퍼 작전 계획은 1951년 3월 2일 미 제8군 '작전명령 제14호'로 완성되었으며, 작전개시일이 3월 6일 08시로 계획되었다. 하지만 이 계획은 3월 4일에 수정되어 작전개시일이 24시간 연기되었다(Hq. IX Corps, Command Report : Section II- Plans, March 1951, 군사편찬연구소 사료번호 HM2075).

190) Hq. IX Corps, Command Report : Section I- General, March 1951, 군사편찬연구소 사료번호 HM2075.

191)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중), 428~429쪽.

192)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398~399쪽.

193) 모스맨 지음, 『밀물과 썰물』, 396~397쪽.

194)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21), 1987, 378쪽. 국군 제6사단은 3월 7일 풍수원 남쪽에서 공격을 개시해 11일 풍수원 북쪽 갈기산-성지봉으로 진출 중 군단의 부대 재배치 계획에 따라 12일 작전지역을 좌인접 영 제27여단과 우인접 제7해병연대에 인계하고 제1기병사단의 좌전방 제8기병연대의 장락산-용수리 지역을 인수하였다. 그리고 13일에는 3월 4일부터 미 제24사단에 배속되었던 제19연대가 사단으로 복귀하였다. 전선을 정비한 사단은 14일부터 3개 연대 병진으로 공격을 재개하였다.

195) Hq. IX Corps, Command Report : Section I- General, March 1951, p.39, 군사편찬연구소 HM2075.

196)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중), 431쪽.

197)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21), 642쪽.

198) 모스맨 지음, 『밀물과 썰물』, 407~408쪽 ; Hq. IX Corps, Command Report : Section I- General, March 1951, p.40, 군사편찬연구소 사료번호 HM2075.

19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5권, 730쪽. 25일까지 미 제9군단의 카이로선 진출작전은 사실상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미 제1기병사단 제5기병연대만은 인접한 제1군단 부대들과 진출 보조를 맞추기 위해 진격 속도를 늦춰 26일 카이로선에 진출하였다(Command Report : Section I- General, March 1951, p.40, 군사편찬연구소 사료번호 HM2075).

200) 일본육전사연구보급회편, 『한국전쟁 : 진지전으로의 전환』 [8], 63쪽.

201) 일본육전사연구보급회편, 위의 책, 64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 조안리는 옛지명으로 현재 두물머리 남쪽 약 80m 지점이었다. 현재는 팔당댐으로 인해 수몰된 지역이다.

203) 일본육전사연구보급회편, 위의 책, 66쪽.

204) 국방군사연구소,『한국전쟁』(중), 433~434쪽.

205) 모스맨 지음,『밀물과 썰물』, 404~405쪽.

206)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중국군의 한국전쟁사』[2], 399~403쪽.

207) 모스맨 지음, 앞의 책, 405쪽.

20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5권, 777쪽.

209) 모스맨 지음, 앞의 책, 406쪽.

21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 제5권, 776쪽.

211) 모스맨 지음, 앞의 책, 406쪽.

212) Hq. EUSAK, Command Report, March 1951, p.14, 군사편찬연구소 HD02987.

213) 모스맨 지음, 앞의 책, 415쪽 ; Hq. EUSAK, Command Report, March 1951, p.83, 군사편찬연구소 사료번호 HD02987.

214) 모스맨 지음, 위의 책, 417쪽.

215) Hq. EUSAK, Command Report, March 1951, p.83, 군사편찬연구소 사료번호 HD02987.

216) 모스맨 지음, 앞의 책, 418~420쪽.

217) 위의 책, 420~421쪽.

21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 제5권, 861쪽.

219) 위의 책, 596쪽.

220) 위의 책, 599쪽.

221) 모스맨 지음, 육군본부 역,『밀물과 썰물』, 363쪽.

22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 제5권, 609쪽.

223) 해병사사령부,『해병전투사』 제1집, 1962, 149쪽.

22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5권, 586쪽.

225) 위의 책, 70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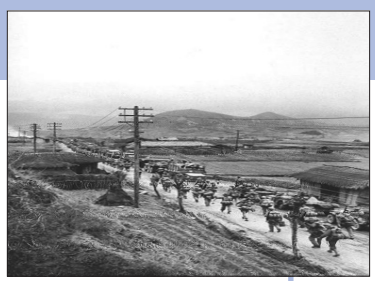
226) 위의 책, 635쪽.

227) 위의 책, 643쪽.

228) 작전술 차원의 분석은 조창래, 「한국전시 리지웨이 장군의 작전지도에 대한 고찰」,『군사평론』 제350호 부록, 2001, 161~162쪽을 참조해 작성하였다.

229) 리지웨이 장군은 1949년부터 1950년 말까지 미 육군부 작전참모차장직을 수행하면서 6·25전쟁을 보는 워싱턴의 시각, 1·4후퇴 직전과 직후의 불안한 한국과 미국정부, 제8군의 심리와 행동, 맥아더 장군과 트루먼 대통령과의 갈등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험은 리지웨이 장군이 다양한 위치에서 다각적인 시각으로 6·25전쟁을 지켜보고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5장 유엔군의 38도선 확보와 후방지역 작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1절	개요
제2절	38도선 확보작전
제3절	후방지역작전
제4절	분석 및 교훈

제 1 절 개 요

1. 전선 상황 요약

1951년 초엽의 전쟁 양상은 어느 일방에 의해서 주도되지 않는 그야말로 시소게임과 같은 공격과 반격의 반복이었다. 특히 4월 11일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맥아더 장군의 해임은 전선에도 영향을 미쳤다. 중공군의 제4차 공세(2월 공세) 이후 유엔군의 반격으로 후퇴만 하던 공산군은 대규모의 공세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신임 유엔군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은 사령관에 임명되기 전에 이미 공산군의 공세가 임박했음을 예견하고 지휘관들에게 충분한 대비를 지시하고 있었다. 때문에 공산군의 공세는 전처럼 기습효과를 발휘할 수는 없었다. 더욱이 리지웨이 장군의 후임으로 제8군사령관에 임명된 밴플리트 장군은 전임 사령관과 같은 유형의 전투지휘관이었으며, 1948년 그리스 군사고문단장을 지내면서 그리스의 공산 게릴라들을 소탕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 대비정규전에도 탁월한 지휘력을 발휘한 인물이었다.

신임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 장군은 취임사에서 “중공군이 공격해 오면 물러나고 멈추면 반격해 나가는 방식의 전투는 이제 청산되어야 하며, 유엔군은 수세가 아닌 공세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듯이 공격 제일주의를 지향했다.

밴플리트 장군은 부임 후 철의 삼각지대를 완전히 장악하는 것을 첫 번째 작전 목표로 삼았다. 돈틀리스 작전의 연장이기도 한 이 작전은 주로 미 제1군단과 미 제9군단이 협조하여 4월 21일 개시될 예정이었다. 이에 더하여 제8군사령관은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3, 제1군단으로 하여금 화천호에서부터 간성으로 이어지는 선을 확보하여 동부전선의 주요 보급로인 간성-인제 간 도로를 점령하도록 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유엔군사령관은 제8군사령관의 작전계획을 승인하면서 설정된 목표선을 초과하여 공격하지 말 것과 공산군의 병력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부대간의 원활한 상호협조를 지시하였다. 신임 유엔군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은 중공군의 공세가 곧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그러한 공세는 유엔군과 국군이 충분히 격퇴시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4월 21일 국군과 유엔군은 전 전선에서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다음날 유엔군의 공격을 예견하고 있던 중공군은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하였다. 이른바 '중공군의 4월 공세'의 시작이었다.

한편 이 시기에 후방지역에서는 국군 제11사단이 지리산과 호남지구에서, 제2사단이 안동지구에서, 제9사단이 정선지구에서 각각 게릴라 토벌작전을 수행했다. 그리고 공산군 후방지역의 부대와 병참시설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파괴·교란하여 공산군의 작전에 혼란을 초래할 목적으로 국군과 유엔군이 통제하는 유격대가 적의 후방지역에 파견되어 광범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2. 작전지역의 특징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 서부지역

서부 작전지역은 고대로부터 전략, 전술적으로 중요시 되었던 군사상의 요충지가 많은 지역이며 행정구역상으로는 연백과 개풍(현재 휴전선 이북) 및 파주, 고양, 연천, 양주의 일부지역이 각각 포함되어 있다.

미 제1군단의 작전지역은 대체로 임진강을 중심으로 하여 남북으로 분리되며, 북쪽인 38선 일대는 예성강을 중심으로 다시 서쪽과 동쪽지역으로 세분된다. 지역 내의 지형은 38도선을 잇는 북쪽이 그 주변지세의 영향으로 구릉 및 고지군이 형성된 반면에 그 이남은 백천과 청단평야를 비롯하여 임진강과 예성강 등 저지대를 형성하고, 파평산이 임진강 남쪽에서 강류를 따라 남서로 능선을 뻗쳐 강과 더불어 횡격실을 이루었으며 기타지역은 구릉 내지는 평지이다.[1)]

하천은 임진강이 수개의 만곡부를 형성하며 남서로 사행하고, 예성강이 북에서 남으로 흘러 서해에 이름으로써 임진강－예성강 사이의 개성지역과 예성강 서쪽의 연백, 청단 지역이 북쪽을 제외한 3면의 바다와 강으로 둘러싸인 하나의 반도가 되고 있다.

지역 내에는 예성강, 사천, 사미천, 임진강, 문산천, 곡릉천 등 여러 하천이 있으며, 임진강과 문산천, 곡릉천은 동에서 서로 흘러내려 방어작전에 유리하며 전술적 가치가 높았다. 또한 청단 남단의 도서지역은 간만의 차이가 심하여 청룡반도로부터 용매도에 이르는 해상 7㎞는 하루 두 차례씩의 간조 때 갯벌을 통하여 통행이 가능하였다.

개성 및 그 동쪽 일대 또한 개성 동편 9㎞ 지역에서 남북으로 흐르는 사천과 임진강으로 인하여 작전상 적지 않은 제한을 받게 되어 있었다. 특히 우측의 장파리－적성(구읍리) 간의 38도선 경계지대는 임진강이 그 지대 남쪽 2~5㎞ 지점을 동서로 흐르기 때문에 공격작전에 적지 않은 지장이 초래될 수도 있었다.

예로부터 이 지역 일원의 교통망은 대단히 발달되어 있었다. 하지만 예성강과 임진강의 일부 교량이 폭파되어 부교를 통해 건널 수밖에 없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중서부지역

중서부지역은 남양주, 의정부, 포천 등 주요 거점도시를 포함하고 있으며, 지역 내의 지형은 고지대의 경우 표고 400~800m의 고지군과 계곡이 어우러져 기복이 심하고 삼림이 울창한 반면 논과 밭이 산재해 있는 저지대는 표고 100~200m의 구릉지대로 기복이 완만하며 도로망이 발달되어 있다.

중서부지역은 서울-원산을 연결하는 3번 도로, 포천-의정부를 연결하는 43번 도로, 그리고 일동-서파-퇴계원-서울을 연결하는 47번 도로가 남북으로 잘 발달되어 있다. 특히 이들 도로 사이에는 종적으로 발달된 천보산맥과 광주산맥이 형성되어 있어 인접부대와의 횡적인 연계가 불리한 반면 기계화부대의 운용

에 유리한 지리적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주요 하천으로는 한강과 남한강이 서쪽으로 흐르고 있어 방어에 유리한 지형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3) 중동부지역

차령산맥과 소백산맥 사이에 위치한 작전지역은 춘천, 홍천, 원주, 충주, 제천 등의 주요 거점도시를 포함하고 있으며, 남북으로 통하는 5번 도로 축선을 따라 좁은 기동공간과 충청북도와 경상북도 북부지방에 걸친 약 70㎞의 긴 종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차령산맥이 단절되는 북저남고(北低南高) 형상으로 대부분이 고산지대이다. 지역의 행정, 문화, 산업, 교통의 중심지로서 전략적 요충지인 춘천이 있고, 그 일대는 회양군 사동면에서 발원하는 북한강이 그 지류인 소양강과 춘천에서 합류하여 분지를 이루고 있다. 춘천 일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험준한 산악지대로서 38도 선상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화악산(△1,287), 매봉(△1,437), 652고지, 경운산(△779), 부용산(△882)의 준령으로 이어져 있다는 지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지역의 기동로는 5번 도로가 북한강을 따라 화천－춘천－홍천으로, 46번 도로가 양구－춘천－서울로 이어진다. 따라서 당시에 기계화부대의 이동이 비교적 용이하였다.

반면에 가평-화천 축선에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발달되어 있지 않았고, 단지 가평-목동리-홍적령-고수령-신포리-시룬고개-사창리로 통하는 두개의 접근로만이 있었다. 이중 우측 접근로가 단거리인 동시에 비교적 기동이 용이하였다.

4) 동해안지역

동해안지역은 양양-주문진-강릉－옥계－삼척－울진－영덕 등 해안 도시로 이어지는 해안선 일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이 험준한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5-1> 유엔군의 38도선 확보작전



해안선 서쪽 20~30㎞에서 동해안과 평행선을 이루며 남북으로 뻗은 태백산맥은 오대산(五臺山, △1,563), 석병산(石屛山, △1,055), 두타산(頭陀山, △1,353), 태백산(太白山, △1,546), 일월산(日月山, △1,219), 백암산(白岩山, △1,004) 등의 준령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동서간의 교통을 크게 제한한다. 험준한 산악으로 이루어진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소규모 병력의 침투는 유리하나 대부대 기동은 불리하며, 피·아간에 관측 및 사계(射界)가 크게 제한되었다.

지역 내의 주요 작전로(作戰路)는 동해안을 따라 남북으로 뻗어있는 7번 도로가 종적으로 주축을 이루고, 횡적으로 양양-인제간 도로, 삼척-영월간 도로, 울진-영주간 도로, 영덕-안동간 도로가 동서를 연결한다. 이 도로들은 노폭이 좁고 굴곡이 심한데다가 지세마저 험준하여 기갑부대의 기동을 크게 제한하였다.

동해안 지역은 태백산맥으로 인하여 내륙과 단절된 별개의 전선을 형성하였으며, 지역 내에는 해안선과 연한 동해안 도로가 유일한 기동로였다. 그러나 이 도로는 태백산맥에서 동해로 향한 크고 작은 하천에 의해 잘리고 교량이 많아 군사적으로 큰 취약점을 안고 있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2 절 38도선 확보작전

1. 개 요

유엔군의 38도선 확보작전은 1951년 4월 1일부터 21일까지 국군과 유엔군이 캔사스선과 '철의 삼각지대'로 진출하기 위해 전개한 공격작전이었다.

리퍼 작전(Operation Ripper)으로 국군과 유엔군이 문산-춘천-양양 선까지 진출하자, 한국과 미국정부 내에서는 38도선의 돌파 문제가 또다시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일찍이 북진통일을 주장해 온 이승만 대통령은 정일권 총참모장에게 재북진을 당부하였지만, 재북진 여부는 작전권을 갖고 있는 미 제8군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었으며, 미국 정부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중요한 사안이었다.

당시 협상에 의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던 미국 정부는 리지웨이가 이룬 성공적인 군사작전으로 자신들의 입지가 강화된 것에 매우 고무되어 있었다. 하지만 3월 말경 공산군은 재공세를 시도할 만큼의 충분한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군과 유엔군이 38도선에서 전면 휴식상태에 들어간다면 그 틈을 이용해 공산군은 재공세를 준비할 공산이 컸다. 즉, 군사적 압박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공산군은 협상을 추구할 것 같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국은 전처럼 북한의 전 지역을 목표로 하는 북진작전은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단순히 전술적 목적을 위해 38도선을 넘는 것은 유엔군사령관과 제8군사령관이 판단하여 결정할 문제라고 표명하였다.

리지웨이 장군은 맥아더 장군의 승인하에 재북진작전을 계획하였다. 그는 제한목표 공격의 방식으로 적에게 계속적인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취지에서 계획된 것이 러기드 작전(Operation Rugged)과 돈틀리스 작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Operation Dauntless)이었다. 이들 작전의 목표는 각각 캔사스(Kansas)선과 '철의 삼각지대'였다.

국군과 유엔군은 1951년 4월 3일 러기드 작전을 개시하였다. 미 제9군단은 수리산 줄기의 험준한 산악지대를 통과하여 화천을 향해 진격하였고, 중공군은 화천댐의 수문을 열어놓는 수공작전으로 대응하였다. 이에 따라 화천댐을 놓고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은 이곳에서 격전을 벌였다. 그 동안에 미 제1, 제10군단과 국군 제1, 제3군단은 계획대로 착실하게 진격하여 캔사스선에 도달하였다.

러기드 작전에 이어 제8군은 4월 11일부터 미 제1군단과 제9군단을 주축으로 하여 돈틀리스 작전을 개시하였다. 돈틀리트 작전은 철원, 김화, 평강으로 둘러싸인 소위 '철의 삼각지대'에 집결한 공산군의 대병력을 무력화시키고 유엔군이 이곳을 장악한다는 것이었다. 이 때 공산군은 유엔군을 유인하여 공세로 전환한다는 계획하에 유엔군과의 격전을 피하면서 공세 준비를 갖추어 나갔다. 국군과 유엔군은 4월 21일 돈틀리스 작전의 목표지역인 철의 삼각지대에 근접하였다. 그러나 다음날(4월 22일) 국군과 유엔군은 이른바 '중공군의 4월 공세'에 직면하게 되었다.

2. 상황평가 및 의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 공산군측 상황평가 및 의도

(1) 작전기도 및 방침

국군과 유엔군이 러기드 작전과 돈틀리스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 공산군은 대규모 공세를 준비하고 있었다. 조·중연합사령부는 4월 초까지 장연리-청석두리-백천리-삭녕-대광리-지포리-화천-양구-인제-양양을 잇는 선에 부대배치를 완료한 상태였다.

유엔군이 공격을 개시하자 4월 5일 조·중연합사령부는 예하 부대에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했다. "적은 계속해서 캔사스선을 넘어 철원, 평강, 김화, 금성, 토산 지구에 중점을 두어 공격하고, 일부는 원산, 통천에 상륙할 가능성이 있다. …… 두 달 남짓 적극 방어하여 적을 대량으로 소모하고 피로하게 하여 다음 전역을 위한 유리한 기회를 조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각 군은 신속하게 예정한 지구에 집결하여 다음 전역에서 승리하기 바란다."[2]

이 명령에 따라 중공군과 북한군은 38도선 일대에서 저지와 반격을 결합한 전술로 북진하는 유엔군을 타격하기로 하였다. 4월 12일 조·중연합사령부는 각 부대에 다음과 같은 최후 저지선을 확정해 하달하였다. 이에 의하면, 공산군의 최후 저지선은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금천(金川), 위천리(渭川里), 삭녕(朔寧), 장거리(場巨里), 문혜리(文惠里), 산양리(山陽里) 선이었다. 조·중연합사령부는 유엔군이 70여 일 동안 계속해서 공격작전을 수행했기 때문에 부대 손실 및 피로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근거로 조·중연합사령관 펑더화이는 4월 15일 각 부대에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했다. "현재 적은 보충을 하지 못하고 매우 피로한 상태에 있다. 4월 하순, 전역 반격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적이 좀 더 깊이 들어오고 우리가 출동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 17일 밤부터 아군 제39, 제40, 제26군 주력은 모두 12일 23시에 지정한 최후저지선으로 철수한다. … 철수시 진지는 파괴한다. 전면에는 소수 부대만 남겨 적을 감시하고 상황을 정찰한다. 적이 전진하면 물러나고 굳이 저지하지 않도록 한다."

이 계획에 따라 공산군은 4월 17일 저녁을 기해 자신들이 설정한 최후 저지선으로 철수한 후 유엔군을 유인하는 작전으로 전환하였다.[3]

(2) 작전계획

조·중연합사령관 펑더화이는 유엔군의 공격을 조기에 분쇄하고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38도선에서 유엔군의 주력을 격멸한 후 그 여세를 몰아 1차로 서울을 점령하고, 그 후 한강 이남으로 공격할 것을 결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금번 작전은 서부전선의 문산에서 중동부전선의 화천에 이르는 지역 내에서 유엔군 주력부대 수개 사단을 격멸하여 유엔군의 공격계획을 조기에 분쇄하고 작전의 주도권을 쟁취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 공격시기는 유엔군이 계속된 공격작전으로 매우 지쳐 있을 뿐만 아니라 병참선의 신장과 산악지대에서 기동이 크게 제한되어 보급이 불충분하며 또한 예비병력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하면 즉시 반격을 개시하는 것이 유리하나, 아군의 전략예비대가 아직 전방으로 집결하지 못한 관계로 유엔군의 주력을 김화-문등리-간성을 연하는 선으로 유인하여 반격할 것이다. 따라서 공격개시는 유엔군의 진출 속도에 따라서 빠르면 4월 20일 전후나 5월 초순에 실시될 것이다.
- 공격 형태는 유엔군의 배치가 예비대의 부족으로 전략 종심이 얕고 일선배치 위주로 되어 있는 약점을 이용하여 전선분할과 포위전술을 병행한다. 일부병력으로 취약지역인 김화-가평 축선을 공격하도록 하여 유엔군 전선을 분할하여 동서쪽에서의 증원을 차단함과 동시에 정면공격과 양측방에서 포위공격을 실시한다.
- 후방지역에서는 유엔군의 상륙 및 공정작전에 대비하며 반격계획을 수립한다.
- 이번 작전에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참전부대는 정치사상 및 전술교육, 작전지역 정찰을 강화하고, 5일분의 야전식량을 휴대한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렇듯 공산군은 유엔군의 전선을 분할하고 포위공격을 감행한다는 작전방침 아래 4월 22일을 공격개시일로 정하고 총공세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때 조·중연합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는 새로 전선에 투입된 부대가 아직 유엔군과의 전투 경험이 없고 지형에 익숙하지 못한 단점이 있으나, 지상군 병력이 2:1로 우세하며 보급상황도 크게 개선되어 충분한 식량과 탄약이 비축되어 있어 자신들이 우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4)]

⑶ 지휘관계 및 전투편성

국군과 유엔군이 38도선 확보작전을 개시할 무렵, 중공군과 북한군은 다음과 같이 배치되어 있었다. 서부지역은 중공군 제19병단과 북한군 제1군단이, 중부와 동부지역은 중공군 제3병단과 제9병단, 그리고 북한군 제2, 제3, 제5군단이 공격집단을 형성하였다.

당시 중국인민지원군 사령부는 사령원 겸 정치위원 펑더화이(彭德懷)와 부사령원 겸 부정치위원 덩화(鄧華) 그리고 부사령원 홍쉐즈(洪學智)와 한셴추(韓先楚), 참모장 셰팡(解方), 정치부 주임 두핑(杜平)으로 편성되었다. 서부전선의 제19병단 사령원은 양더즈(楊得志), 정치위원은 리즈민(李志民), 부사령원 겸 참모장은 정웨이산(鄭維山), 정치부 주임은 천셴루이(陳先瑞)로 하고, 아래에 제63군, 제64군, 제65군을 관할하였다.

<표 5-1> 중공군 제19병단 예하 각 군 지휘부 편성

구 분	제63군	제64군	제65군
군장	푸충비(傅崇碧)	쩡쓰위(曾思玉)	샤오잉탕(簫應棠)
부군장	-	탕쯔안(唐子安)	-
참모장	두위화(杜瑜華)	마웨이화(馬衛華)	루안핑(阮平)
정치위원	룽다오취안(龍道權)	왕자오(王昭)	왕다오방(王道邦)
부정치위원	황전탕(黃振棠)	-	-
정치부주임	황전탕(黃振棠)	위안패이줴(袁佩爵)	전이구이(陳宜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그리고 중서부와 중동부 전선은 제3병단과 제9병단이 담당하였는데, 제3병단은 사령원 전경(陳慶)과 부사령원 왕진산(王近山), 참모장 왕윈루이(王蘊瑞)와 부참모장 리마오즈로 하고 예하에 제12군, 제15군, 제60군을 관할하였다.

<표 5-2> 중공군 제3병단 예하 각 군 지휘부 편성

구 분	제12군	제15군	제60군
군장	쩡사오산(曾紹山)	친지웨이(秦基偉)	웨이제(韋杰)
부군장	샤오잉인(蕭永銀)	저우파톈(周發田)	차위성(查玉升)
참모장	샤오잉인(蕭永銀)	장윈위(張蘊鈺)	덩스준(鄧仕俊)
정치위원	-	구징성(谷景生)	위안쯔친(袁子欽)
부정치위원	리전(李震)	-	-
정치부주임	리카이샹(李開湘)	처민차오(車敏樵)	리저푸(李哲夫)

제9병단은 사령원 겸 정치위원 쑹스룬(宋時輪), 부사령원 타오융(陶勇), 참모장 탄젠(覃健), 정치부주임 셰요우파(謝有法), 부참모장 왕빈(王彬)으로 하고, 예하에 제20군, 제26군, 제27군, 제39군, 제40군을 관할하였다.

<표 5-3> 중공군 제9병단 지휘부 편성

구 분	제20군	제26군	제27군
군 장	장이샹(張翼翔)	장런추(張仁初)	펑더칭(彭德淸)
부군장	랴오정궈(廖政國)	장즈슈(張銓秀)	잔다난(담大南)
참모장	위빙후이(兪炳輝)	펑딘싼(馮鼎三)	리위안(李 元)
정치위원	장이샹(張翼翔)	리야오원(李耀文)	류하오톈(劉浩天)
부정치위원	탄요우밍(譚右銘)	-	쩡루칭(曾如淸)
정치부주임	추샹톈(邱相田)	-	장원비(張文碧)
구 분	제39군	제40군	
군 장	우신촨(吳信泉)	원위청(溫玉成)	
부군장	탄요우린(譚友林)	차이정궈(蔡正國)	
참모장	선치셴(沈啓賢)	닝셴원(寧賢文)	
정치위원	쉬빈저우(徐斌州)	위안성핑(袁升平)	
부정치위원	탄요우린(譚友林)	-	
정치부주임	리쉐싼(李雪三)	리보추(李伯秋)	

그리고 북한군의 전투편성은 총사령관 김일성(金日成)을 비롯하여 부사령관 최용건(崔庸健)과 참모장 이상조(李相朝)이며, 총사령부 예하의 각 군단장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5-4> 북한군 전투서열

소 속	계급	성 명	편 성 부 대	비고
총사령관	원수	김일성(金日成)		
부사령관	대장	최용건(崔庸健)		
참모장	상장	이상조(李相朝)		
제1군단장	상장	이권무(李權武)	제8, 제17, 제19, 제47사단	중공군 제19병단 배속
제2군단장	상장	최 현(崔 賢)	제2, 제9, 제27, 제31사단	
제3군단장	상장	김광협(金光俠)	제1, 제3, 제15사단	
제5군단장	상장	방호산(方虎山)	제6, 제7, 제10, 제12, 제13사단	

2) 유엔군측 상황평가 및 의도

(1) 작전기도 및 방침

유엔군 측은 1951년 1월 하순 국군과 유엔군이 반격을 재개하여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공격작전을 펼치자 지난 12월부터 제기되었던 철군문제의 논의를 일단락 짓고, 다시 38도선에 관한 전쟁 지도전략 문제를 다각도로 연구하게 되었다. 그 결과 미 행정부와 합참은 3월 15일에 "한국문제를 정치와 군사 두 가지 노선에 따라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해결하되, 정치적으로는 통일 독립국가를 이룩하고 군사적으로는 침략을 격퇴하여 평화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고 최종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결정과 대통령의 승인만을 남겨두게 되었다. 여기에는 군사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5)]

유엔군은 적에게 계속해서 최대한의 손실을 가해야 하고 38도선 남쪽 영토의 통제를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방위력도 증강되어야 한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지상군의 작전은 전술 상황에 따라 38도선 북쪽 16~32㎞ 내에서는 '공세적 방어작전'을 허용해야 한다. 아군이 군사작전으로 38도선에 도착하면 미국은 1950년 12월에 유엔휴전위원회에 통보한 그 선에 따라 휴전을 추구해야 한다. 만일 적이 잠정 협정의 수락을 거부한다면 유엔군은 적에게 계속해서 손실을 가해야 한다. 유엔군은 적의 균형을 파괴하고 적의 공격 준비를 분쇄하기 위하여 38도선 북쪽으로 제한된 기습을 가할 수는 있으나 전면적인 진격을 하여 북한 영토의 확보를 시도해서는 안된다.

이는 군사적으로 전쟁 전의 현상을 확보한 후 휴전에 의거 전쟁을 해결하며 통일 국가수립은 그 후 정치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었다. 한국 국민으로서는 분단의 아픔을 다시 안아야 하는 슬픈 정책이나, 중공군이 38도선 북쪽에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이러한 전략개념을 구상하고 있을 무렵 지상군이 38도선에 접근해 감에 따라 미 행정부로서는 평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에 호기를 맞게 되었다. 전쟁 전의 현상도 거의 회복하였고 유엔군도 공산군과 어느 정도 동등한 힘의 토대에서 협상할 수 있는 입장에 도달하였다.

미 합참은 3월 20일 유엔군사령관에게 대통령이 휴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알렸다. 그러나 전쟁의 해결에 대해 외교적 수단보다는 군사적인 방법을 선호하던 맥아더는 미 행정부와 협의 없이 중공군을 위협하는 발언들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6] 이러한 맥아더의 행동은 휴전계획을 발표하려던 트루먼 대통령의 계획을 취소시킬 만큼 파장을 일으켰다. 트루먼 대통령은 맥아더 원수의 태도가 정책에 대한 단순한 불만의 수준을 넘어 미국과 유엔정책에 대한 고의적이고 사전에 계획된 도전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무렵 미 제8군은 개성 지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진강을 건너 철수 중인 북한군 제1군단을 추격해 예성강으로 진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적이 이미 예성강 북쪽으로 철수하였고 공격제대가 동측방에 배치된 중공군으로부터 포위될 우려가 있어 이 지역 작전은 수색과 전투정찰대의 활동으로 제한하기로 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8군사령관은 그 대안으로 중부전선의 평강-철원-김화를 공격하기로 하였다. '철의 삼각지대'로 명명된 이 지역은 원산과 서울의 중간지점에 위치한데다 철도와 도로망이 발달된 교통의 요충지였다.[7]

당시 이곳은 공산군의 전방지역 병참 중심지로, 공산군은 이 지역에 병력과 물자를 집중적으로 수송하고 있었다. 이 지역을 공격함에 있어 미 제8군사령관의 관심사항은 철의 삼각지대로 아군의 계속적인 진출을 보장할 수 있고, 또적의 공세에 대비한 양호한 방어진지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지형을 점령하는 것이었다.

이때 선정한 방어선이 임진강 남쪽 제방을 연하여 동쪽으로 뻗어 화천저수지로 연결된 후 동해안의 양양으로 이어지는 선으로서, 이를 캔사스(Kansas)선으로 명명하였다. 이 선은 서부에서는 38도선 북쪽으로 3.2~9.6㎞, 동부에서는 대체로 16㎞ 정도 북쪽에 위치한 고지군을 연결하여 선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선은 38도선을 전술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지형으로서 3월 15일의 신전략방침에 부합되는 결정이었다. 제8군은 캔사스선으로의 진출 작전을 러기드 작전(Operation Rugged)이라고 명명하였다.

그 후 제8군은 다음 단계로 미 제1, 제9군단이 철의 삼각지대를 위협할 수 있도록 유타(Utah)선과 와이오밍(Wyoming)선[8]을 설정하고 철원-김화까지 공격할 계획이었다. 그리고 만일 공격 중에 공산군으로부터 강력한 공격이 있으면, 양개 군단은 캔사스선으로 철수하도록 하였다. 제8군사령관은 작전을 '불굴작전(不屈作戰 : Operation Dauntless)'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때 맥아더 장군은 리지웨이 장군에게 아군이 이 선으로 진출하면 그 북쪽의 작전은 대대급 규모 이하의 전투정찰로 제한할 것을 지시하였다.

(2) 작전계획

전쟁 전의 상황을 유지하면서 휴전을 모색한다는 정책목표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작전지침은 전술적 상황에 의한 38도선 북쪽으로의 공격을 부분적으로 허용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 지침에 의거해 캔사스선을 확보한 미 제8군사령관은 1951년 4월 9일 공산군의 공세준비가 집중되고 있는 전략·전술적 요충지인 철의 삼각지대를 제압하기로 결심하고, 연천-고대산-와수리-대성산-화천저수지를 연결하는 새로운 통제선인 와이오밍선을 설정하였다. 이 선은 방어력이 취약한 중동부전선의 방어종심을 보강시켜 줄 뿐만 아니라 공산군의 공격발판인 철의 삼각지대를 통제할 수 있게 해주는 방어선이었다. 미 제8군사령관은 이를 점령하여 강력한 방어선을 형성하고, 그 전방지역에 대규모의 정찰대를 운용하여 접적을 유지한다는 계획으로 다음과 같은 요지의 돈틀리스(Dauntless) 작전계획을 하달하였다.

- 미 제8군은 D일 H시를 기하여 현 전선에서 공격을 개시하여 유타선 남쪽의 적을 격멸한 다음 와이오밍선으로 계속 공격한다.
- 미 제1군단은 제8군의 서측방을 방어하면서 지역 내 유타선을 점령하고 계속 와이오밍선으로 공격한다.
- 미 제9군단은 유타선을 점령한 후 계속 와이오밍선을 공격한다.
- 국군 제1, 제3군단과 미 제10군단은 현행 임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캔사스선 북방에 위력수색을 실시한다.
- 미 제1군단장과 제9군단장은 공격 중 아군의 안전이 위협받을 정도로 적의 공격을 받을 때에는 캔사스선으로 상호 협조된 철수를 명령할 수 있다.
- D일 H시는 추후 시달한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 계획에 의거해 공격준비를 완료한 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과 중서부전선의 미 제9군단은 4월 11일을 기해 제1단계 통제선인 유타선을 목표로 공격하게 되었다. 유엔군사령부와 제8군사령부는 미국의 전쟁정책이 전환됨에 따라 이루어진 사령관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타선 확보를 위한 작전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무렵 전선에서는 그동안 접적을 단절하고 후퇴만 하던 중공군의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항공정찰에서도 중공군의 공세 징후가 포착되었다. 이에 신임 미 제8군사령관은 서울을 고수한다는 방침아래 공산군에게 최대한의 손실을 강요하면서 축차적인 철수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마련하였다. 여기에는 미 제1기병사단을 군 예비로 확보하여 언제든지 서울방어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서울 외곽에 견고한 방어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이와 같이 공격과 방어계획을 동시에 마련한 상황에서 4월 19일 미 제1군단과 제9군단이 제1단계 작전목표인 유타선을 점령하는 데 성공하자, 미 제8군사령관은 공격의 여세를 몰아 공산군의 전략적 요충지인 철원, 김화를 위협할 수 있는 와이오밍선으로 공격을 계속하도록 명령하였다. 이 공격의 개시일은 4월 21일 07시로 정해졌으며, 공격부대는 공격에 앞서 2일간 휴식과 부대정비를 갖도록 하였다.[9)]

(3) 지휘관계 및 전투편성

38도선 확보작전에서 국군과 유엔군의 부대배치는 전 단계 작전과 마찬가지로 서쪽에서부터 미 제1군단, 미 제9군단, 미 제10군단, 국군 제3군단, 국군 제1군단 순이었다. 미 제1군단은 미 제3사단, 미 제24사단, 미 제25사단, 국군 제1사단, 영 제29여단, 터키여단, 미 제187공정연대전투단으로 편성되었다. 미 제3사단은 제7, 제15, 제65연대, 벨기에대대, 필리핀대대, 미 제24사단은 제5, 제19, 제21연대, 미 제25사단은 제24, 제27, 제35연대, 국군 제1사단은 제11, 제12, 제15연대를 예하에 두었으며, 영 제29여단과 터키여단은 각각 3개 대대로 구성되었다. 미 제1군단의 주요 지휘관은 군단장 밀번(Frank W. Milburn) 소장, 미 제3사단장 소울(Robert H. Soule) 소장, 미 제24사단장 브라이언(Blacksheas M. Bryan) 소장, 미 제25사단장 브래들리(J. S. Bradley) 소장, 국군 제1사단장 백선엽 준장, 영 제29여단장 브로디(T. Brodie) 준장, 터키여단장 야찌스(Tahsin Yazici) 준장이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표 5-5> 미 제8군 및 제1군단 전투서열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미 제8군	사령관	중장	Matthew B. Ridgway	
		중장	James A. Van Fleet	1951. 4. 14부
미 제1군단	군단장	소장	Frank W. Milburn	
	부군단장	소장	Terrell G. Holliday	
	참모장	준장	Rinaldo Van Brunt	
미 제3사단	사단장	소장	Robert H. Soule	
	제7연대장	대령	Tames O. Boswell	
	제15연대장	대령	Dennis M. Moore	
	제65연대장	대령	William W. Harris	
미 제24사단	사단장	소장	B. N. Bryan	
	제5연대장	대령	John L. Throckmorton	
	제19연대장	대령	Ned D. Moore	
	제21연대장	대령	Richard W. Stephens	
미 제25사단	사단장	소장	J. S. Bradley	
	제24연대장	대령	John T. Corley	
	제27연대장	대령	John H. Michaelis	
	제35연대장	대령	Henry G. Fishir	
제187공정연대전투단	연대장	대령	Frank Bowen	
국군 제1사단	사단장	준장	백선엽(白善燁)	
		소장	강문봉(姜文奉)	1951. 4. 6부
	제11연대장	대령	문형태(文亨泰)	
	제12연대장	대령	김점곤(金點坤)	
	제15연대장	대령	김안일(金安一)	
영 제29여단	여단장	준장	T. Brodie	미3사단 배속
터키여단	여단장	준장	Tahsin Yazici	미25사단 배속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서부전선의 미 제9군단은 미 제1기병사단, 미 제1해병사단, 국군 제6사단, 영 제27여단으로 편성되었다. 미 제1기병사단은 제5, 제7, 제8기병연대, 미 제1해병사단은 제1, 제5, 제7 해병연대, 국군 제6사단은 제2, 제7, 제19연대를 예하에 두었으며, 영 제27여단은 3개 대대로 구성되었다. 미 제9군단의 주요 지휘관은 군단장 호지(William M. Hodge) 소장, 미 제1기병사단장 팔머(Charles D. Palmer) 소장,

미 제1해병사단장 토마스(Gerald C. Thomas) 소장, 국군 제6사단장 장도영 준장, 영제27여단장 코드(Basil A. Coad) 준장이었다.

<표 5-6> 미 제9군단 전투서열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미 제9군단	군단장	소장	William H. Hoge	
미 제1기병사단	사단장	소장	Charles D. Palmer	
	제5기병연대장	대령	Marcel B. Crombez	
	제7기병연대장	대령	James K. Woolnough	
	제8기병연대장	대령	Eugean J. Field	
미 제1해병사단	사단장	소장	Gerald C. Thomas	
	제1해병연대장	대령	Francis M. McAlister	
	제5해병연대장	대령	Richard W. Hayward	
	제7해병연대장	대령	Herman Nickerson, Jr.	
국군 제6사단	사단장	준장	장도영(張都暎)	
	제2연대장	대령	김봉철(金鳳喆)	
	제7연대장	대령	양중호(梁仲鎬)	
	제19연대장	대령	임익순(林益淳)	
영 제27여단	여단장	준장	Basil A. Coad	
태국 대대	대대장	중령	Kriengkrai Attamamtna	기병사단 배속
그리스 대대	대대장	중령	Arboutzis Dionysios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은 미 제2사단, 미 제7사단, 국군 제5사단으로 편성되었다. 미 제2사단은 제9, 제23, 제38연대, 미 제7사단은 제17, 제31, 제32연대, 국군 제5사단은 제27, 제35, 제36연대를 예하에 두었다. 미 제10군단의 주요 지휘관은 군단장 알몬드(Edward M. Almond) 소장, 미 제2사단장 러프너(Clark L. Ruffner) 소장, 미 제7사단장 페렌바우(Claude B. Ferenbaugh) 소장, 국군 제5사단장 민기식 준장이었다.

<표 5-7> 미 제10군단 전투서열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미 제10군단	군단장	소장	Edward M. Almond	
미 제2사단	사단장	소장	Clark L. Ruffner	
	제9연대장	대령	Edwin J. Messinger	
	제23연대장	대령	Paul L. Freeman	
	제38연대장	대령	George B. Peploe	
미 제7사단	사단장	소장	Claude B. Ferenbaugh	
	제17연대장	대령	Royal Reynolds, Jr.	
	제31연대장	대령	Lloyed R. Moses	
	제32연대장	대령	Charles M. Mount, Jr.	
국군 제5사단	사단장	준장	민기식(閔機植)	
	제27연대장	대령	유의준(兪義濬)	
	제35연대장	대령	박현수(朴炫洙)	
	제36연대장	대령	황 엽(黃 燁)	
네덜란드대대	대대장	중령	M.P.A. denOuden	미2사단 배속
프랑스대대	대대장	중령	Ralph Monclar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군 제3군단은 제2사단, 제3사단, 제7사단으로 편성되었다. 제2사단은 제17, 제31, 제32연대, 제3사단은 제18, 제22, 제23연대, 제7사단은 제3, 제5, 제8연대를 예하에 두었다. 국군 제3군단의 주요 지휘관은 군단장 유재흥 소장, 제2사단장 함병선 준장, 제3사단장 김종오 준장, 제7사단장 김형일 준장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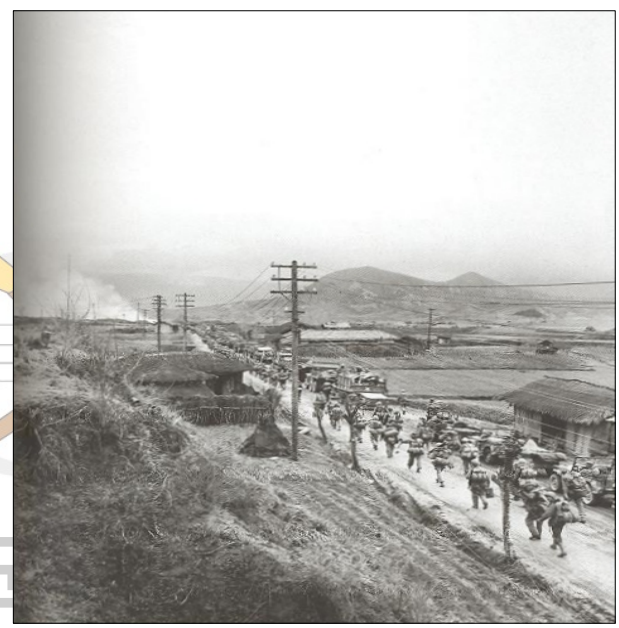
그리고 동해안 지역의 국군 제1군단은 수도사단, 제9사단으로 편성되었다. 수도사단은 제1기갑·제1, 제18연대, 제9사단은 제28, 제29, 제30연대를 예하에 두었다. 주요 지휘관은 군단장 대리에 이준식 준장,[10] 수도사단장에 송요찬 준장, 제9사단장에 이성가 준장이었다. 이 밖에 최영희 준장이 지휘하는 국군 제8사단이 육군본부 직할로 호남지구에 위치하고 있었다.

3. 전투 경과

1) 캔사스선 진출 작전

(1) 서부·중서부전선 진출전

국군과 유엔군의 캔사스선 진출작전은 서울 탈환의 계기가 된 리퍼 작전에 이어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 임진강-연천-화천저수지-양양에 이르는 이른바 캔사스선으로의 진출을 위한 작전이었다.



중동부전선에서 유엔군의 북진(1954. 4)

미국정부는 38선 재돌파 문제를 야전군사령관인 리지웨이 장군에게 일임하였다. 그러나 이때의 38선 재돌파는 1950년 10월에 있었던 북진작전의 경우처럼 대규모의 북진작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어디까지나 전술적 견지에서 유리한 방어선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이에 따라 리지웨이 장군은 중공군의 공격 기도를 사전에 분쇄하고 38선 확보를 위해 비교적 유리한 방어지역을 선정하게 되었다. 이때 선정된 방어선이 임진강-연천-화천저수지-양양으로 이어지는 선으로, 이를 캔사스선으로 명명했다.

캔사스선은 38선 북방에 위치한 길이 184㎞의 방어선으로, 서쪽의 22㎞는 한강 하구와 바다에 의해 보호되며, 16㎞에 걸친 화천저수지(파로호)를 이용할 수 있어 38㎞를 단축할 수 있는 유리한 방어선이었다.

서울 탈환의 계기가 된 리퍼 작전에 이어 4월 1일부터 9일 캔사스선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된 캔사스선 확보작전은 '전선의 요철을 정리한다'는 뜻에서 러기드 작전(Operation Rugged)으로 명명되었다.[11]

국군과 유엔군은 캔사스선 진출을 위한 러기드 작전을 개시하기 전에 군단간의 전투지경선을 조정하고 주요 전투부대도 대폭적으로 이동시키거나 교체하였다. 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은 국군 제1사단, 미 제3사단(영 제29여단 배속), 미 제24사단, 미 제25사단을 전선에 배치하고, 중서부전선의 미 제9군단은 국군 제6사단, 제1기병사단, 영 제27사단을, 중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은 미 제2사단, 국군 제5사단, 미 제7사단을 각각 전선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중동부전선의 국군 제3군단은 제2사단, 제3사단을 공격 제대로, 제7사단을 예비로 확보하였으며, 동부전선의 국군 제1군단은 수도사단을 공격 제대로 하고 제9사단을 예비로 하였다.

공격준비를 완료한 각 군단은 4월 3일 캔사스선 진출을 위한 러기드 작전을 개시하였다. 이 작전에서 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과 중서부전선의 미 제9군단은 각각 임진강과 화천저수지 사이를 공격하게 되었다. 제1군단장은 이미 캔사스선으로 진출한 좌측의 국군 제1사단과 중앙의 미 제3사단을 임진강선 방어에 전념하도록 하고, 우측의 미 제24사단과 제25사단을 3번 도로(의정부-포천-김화)를 따라서 북쪽으로 공격하도록 계획하였다.

군단장의 공격계획에 따라 4월 3일 미 제25사단은 영평천과 한탄강 사이의 계곡으로, 미 제24사단은 관음산과 국망봉으로 진격을 개시하였다. 군단이 공격을 개시하는 동안 적은 산발적인 사격만을 가해올 뿐 저항이 경미하여 6일 군단은 율우리-운산리-야미리-장암리를 연하는 캔사스선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12]

이 무렵 서부전선의 공산군은 증원부대인 제60군이 4월 6일 이천과 신계 일대에 도착하자, 38선과 그 이북 지역의 방어 배치를 조정하였다. 즉 중공군 제19병단 제63군이 예성강에서 임진강 지역까지 방어하고, 제3병단 제60군이 임진강 동쪽의 삭녕과 연천 지구를 담당하게 되었다.[13]

한편 미 제9군단도 좌전방에 영 제27여단, 중앙에 국군 제6사단, 우전방에 미 제1기병사단을 배치하여 4월 3일 공격을 개시하였다. 좌전방 영 제27여단과 중앙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북한강 유역에서 전진하는 유엔군 전차(1951. 4. 4. 춘천)

의 국군 제6사단은 적의 저항이 경미하여 6일 캔사스선에 도달하였지만, 우전방 제1기병사단은 중공군 제39군의 강력한 저항으로 캔사스선 진출이 늦어졌다.

미 제1기병사단의 전진 속도가 늦었던 것은 중공군이 화천댐을 이용한 수공작전을 전개했기 때문이었다. 일찍이 리퍼 작전의 개시가 가까워졌을 때 제8군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은 화천댐을 폭파하고 물을 방류시켜 북한강의 수위가 줄어든 후에 부대를 전진시키고자 하였다. 이는 중공군이 화천댐을 이용해 수공작전을 펼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8군 공병참모는 댐의 저수량이 절반도 되지 않으며, 현재 18개의 수문이 닫혀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 재래식 폭격으로는 댐을 폭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도 폭파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므로 화천댐이 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평가에 기초해 제8군사령관은 화천댐 폭파를 이번 작전의 목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러기드 작전이 진전됨에 따라 제9군단 공병부대장은 제8군의 평가와 상반되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화천댐의 수위가 최고일 때 적이 수문을 동시에 개방할 경우 북한강의 수위가 3~4m 정도 상승하여 캔사스선 주변 지역이 범람하고, 특히 춘천 지역이 큰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범람은 일시적이지만 아군의 횡적 이동은 물론 미 제9군단의 주보급로인 가평-춘천-화천 도로 이용이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리고 적이 이 댐을 장악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하였다.[14]

이에 제8군사령관은 화천댐을 공격목표에 포함시키고, 이 작전임무를 미 제9군단에 부여하였다. 그리고 미 제9군단과 제10군단의 전투지경선 상에 위치한 춘천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화천 간 도로와 화천댐을 미 제9군단 작전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군단의 전투지경선을 조정하였다.

미 제9군단장은 마침 특수훈련을 받은 미 제4특공중대가 4월 7일 군단에 배속되자 이들을 미 제1기병사단에 배속시켜 화천댐을 파괴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미 제1기병사단장은 군단장의 의도와는 달리 유격중대에 의한 기습공격을 준비하지 않고 댐 바로 남쪽의 캔사스선 점령에만 주력하였다. 이는 제4특공중대의 기습공격에 의한 화천댐 파괴를 고려하던 군단장의 작전개념이 사단장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15]

군단에서 우려했던 것과 같이 중공군은 4월 8일 자정 경 수공작전을 전개하였다. 중공군 제39군 제115사단 4개 대대가 4개의 수문을 완전히 개방하고 6개를 부분적으로 개방한 후 제1기병사단 제7기병연대의 전진을 강력하게 저지하였다. 이때 화천저수지의 수위는 만수위의 절반 정도였다. 군단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하류지역에서 대피함으로써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저수지의 방류가 계속되면서 북한강 수위가 2m 정도 상승해 춘천 부근의 가교들이 떠내려가는 등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화천댐 방류 후 화천저수지 일대의 중공군은 9일 아침 댐에 이르는 능선에 일부 병력만을 남긴 채 주력이 범람으로 인한 고립을 피하기 위하여 철수하였다.[16]

중공군 주력이 철수하자 미 제1기병사단은 정오 경에 캔사스선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캔사스선 진출이 완료되자 미 제1기병사단은 미 제1해병사단에 작전지역을 인계할 준비를 하였다. 그러나 군단장은 기병사단에 부대교대 이전에 반드시 화천댐을 확보하라고 명령하였다. 미 제1기병사단은 제7기병연대를 투입해 4월 9일부터 11일까지 3차에 걸쳐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기병연대는 급조된 공격계획과 도로망의 결핍으로 인한 화력지원의 부족, 그리고 도하장비의 부족 등으로 인해 화천댐 탈취에는 실패하였다.[17]

군단장은 '불굴작전(Operation Dauntless)'으로 화천댐을 탈취하기로 하고 그동안 이 임무에 투입되었던 제7기병연대를 미 제1해병사단 소속의 국군 제1해병연대와 교대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이로써 미 제9군단은 석룡산-화악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지암리-신포리-용화산을 연하는 캔사스선을 점령하고 차기작전을 준비하게 되었다.

⑵ 중동부전선 진출전

미 제9군단의 우인접 부대인 중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은 작전지역 내 도로망이 제한되고 지형이 험준하여 중서부전선의 부대들 보다 진출이 다소 지연되었다. 군단은 4월 7일 부대배치를 조정하여 조공인 좌전방 미 제2사단이 화천저수지 남쪽을, 중앙의 미 제7사단이 양구를, 주공인 우전방의 국군 제5사단이 인제를 각각 공격하도록 계획하였다.

국군 제5사단은 태기산 전투를 종료하고 부대정비와 위력수색에 주력하던 중 4월 7일 군단장의 명령에 따라 소양강 남쪽의 남전리(藍田里)-원대리(院垈里)로 진출하여 인제 방면으로의 공격을 준비하였다. 당시 사단 정면의 적은 북한군 제12사단이었으며, 이 사단을 증원하기 위하여 제15사단 및 제45사단의 1개 연대가 소양강변에 배치되어 있었다. 이들 북한군은 소양강변에 강력한 거점진지를 구축하고 국군 제5사단의 진출을 저지한 다음, 철수한 그들 주력의 재편성이 완료되면 공세로 전환할 계획이었다.[18]

사단장 민기식 준장은 사단의 목표인 인제 북쪽의 장평(長坪)-봉화봉(烽火峰)을 연하는 캔사스선을 확보하는 데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작전지역을 가로지르는 소양강 도하임을 예상하고, 좌전방 제35연대가 먼저 도하하여 교두보를 확보한 후 우전방 제36연대가 후속 도하하여 인제를 공격하게 할 방침이었다. 선봉에 나선 제35연대는 제26포병대대와 미 제7사단 포병대대의 강력한 공격준비사격이 끝난 9일 23시에 청구리(靑邱里)에서 소양강을 도하하였다. 연대는 도하장을 감제하고 있는 관대리 부근 고지에 배치된 2개 중대 규모의 적을 격퇴하고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이때 제36연대의 선봉인 제6중대는 은밀히 기동하여 10일 01시경 가로리(加路里)로 도하하였다. 중대는 소양강변에서 인제로 통하는 도로를 통제하고 있는 490고지를 기습 공격하였다. 그러나 중대의 공격은 고지를 선점한 2개 중대 규모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북한군으로부터 격렬한 저항을 받아 잠시 주춤하였다. 얼마 후 연대의 지원화력이 집중되는 가운데 제6중대는 공격을 재개해 적을 격퇴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은 즉각 역습을 재개하여 피아간에는 승패를 예측할 수 없는 공방전이 오전 내내 계속되었다. 이에 연대장 황엽(黃燁) 대령은 제2대대 주력을 도하시켜 490고지와 인제를 감제할 수 있는 539고지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오후에 대대 주력이 도하하면서부터 상황은 급속도로 호전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490고지에서 격전을 벌인 제6중대가 539고지마저 확보하였다. 인제-원통 도로를 따라 공격한 제36연대는 12일 총공세를 개시하여 이중 삼중으로 엄체호를 구축하고 완강하게 저항하는 적을 격퇴하고서 인제와 그 서쪽 고지군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좌전방 제35연대는 양구와 인제로 통하는 도로를 감제할 수 있는 개운리(開運里) 서쪽 542고지-637고지-711고지-742고지의 종격실로 연결된 능선을 따라 공격했지만 북한군이 이 일대에 강력한 방어거점을 구축하고 저항함으로써 진출이 부진하였다. 제35연대는 13일까지 포병화력의 엄호하에 북한군의 방어거점을 공격했으나 치열한 일진일퇴의 공방전만 펼쳤을 뿐 목표탈취에는 실패하였다.

사단의 우전방 제36연대와 좌전방 제35연대의 상황은 14일에 반전되었다. 우전방 제36연대가 14일 원통을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자 이번에는 북한군이 인제-원통 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합강리 서쪽의 548고지와 664고지에 강력한 방어거점을 구축하고 연대의 진출을 저지하였다. 반면에 제35연대 정면의 적정은 의외로 경미하여 연대는 3일 동안의 혈전 끝에 적의 방어거점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사단의 강력한 포병사격에도 불구하고 인제 부근의 북한군은 험준한 산악지형을 이용해 완강하게 저항하였다. 이에 따라 공격연대들은 15일 하루 종일 인제 북쪽의 640고지, 548고지, 664고지에서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펼쳤다. 그러다가 이날 540고지로 야간공격을 개시한 제36연대 제2대대가 공격 중 북한군 1명을 생포하여 적의 암구호(밤나무-소나무)를 확인하고서 이를 이용해 540고지의 북한군 진지로 접근한 후 기습공격으로 100여 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19]

사기가 오른 공격연대들은 16일 여명과 동시에 공격을 재개하였다. 산악능선을 따라 공격한 좌전방 제35연대가 사단지역 내에서 최고봉인 940고지를 탈취한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어 양구-인제 간 산간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586-567고지로 진출하였고, 우전방 제36연대도 3일 동안 쟁탈전을 벌인 적의 방어거점인 548-664고지를 확보하고 인제 북쪽의 삼거리 부근인 서호리(西湖里)로 진출하였다.

국군 제5사단은 공격개시 7일 만인 4월 17일에 우전방 제36연대가 원통 북쪽의 481고지와 봉화봉을 확보하여 캔사스선으로 진출하였으며, 좌전방 제35연대가 586고지에서 북한군의 역습을 격퇴한 후 월하리(月下里) 일대로 진출해 캔사스선을 점령하였다.

한편 국군 제5사단이 인제 부근에서 북한군과 치열한 격전을 펼치는 동안 미 제2사단은 화천저수지로 진출하였으며, 미 제7사단은 북한군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며 북쪽으로 진출해 양구 점령을 목전에 두게 되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부대가 임진강-전곡-화천저수지-양구-양양을 연하는 이른바 캔사스선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자, 유엔군은 휴전을 모색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이 선에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이렇듯 국군과 유엔군은 단계적인 공세작전으로 한반도에서 유엔군을 축출하려는 중공군의 공세를 격퇴하고, 6개월 전 북한군의 공격을 분쇄하고 38선 이북으로 진출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전쟁 전 현상을 회복하였다. 전쟁 전 상태의 회귀는 잃었던 영토를 되찾았다는 의미와 더불어 국군과 유엔군이 중공군의 실체를 파악하여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또한 이를 계기로 미국을 비롯한 유엔 참전국들은 중공군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전쟁의 해결에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철의 삼각지대 공격

캔사스선을 확보한 국군과 유엔군은 중공군의 대부대가 집결해 공격을 준비 중인 평강-철원-김화를 연결하는 삼각지대를 공격할 필요가 있었다. 이 지역은 원산과 서울의 중간 지역에 위치한 데다 철도가 연결되고 도로망이 발달한 교통의 요충지였다. 이에 따라 제8군은 캔사스선 10~20㎞ 북방에 와이오밍선을 설정해

이를 확보하기 위한 작전을 계획하고 '돈틀리스 작전(Operation Dauntless)'이라고 명명했다. 돈틀리스 작전의 목표는 와오밍선을 확보함으로써 캔사스선 방어를 위한 전초선으로 활용하고, 적의 집결지인 평강-철원-김화를 위협한다는 것이었다.

중서부전선의 국군과 유엔군이 캔사스선으로 진출하자 미 제8군사령관은 지상 및 항공정찰과 포로심문 등을 통하여 공산군의 공세 징후가 전 전선에 걸쳐 현저하게 증가되고 있음을 간파하였다. 그는 공산군의 병력과 장비 및 보급물자가 집중되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인 철의 삼각지대를 점령하여 중부전선에서 캔사스선의 방어종심을 강화하고, 공산군의 공세준비를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였다. 이에 전곡-철원-김화-화천을 연하여 설정한 와이오밍선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공격을 결심하였다. 미 제8군이 이 선상에 진지를 확보하게 되면 철의 삼각지대의 적은 큰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제8군은 와이오밍선에 이르기 위한 1단계 목표선으로 유타(Utah)선을 설정하였다. 유타선은 캔사스선 전방 임진강-금학산-광덕산-백운산으로 연결되며 활처럼 굽어진 선이었다. 이 작전에는 미 제1군단의 미 제3, 제24, 제25사단이 공격제대로 나서고, 제9군단의 좌전방 영 제27여단이 미 제1군단과 보조를 맞춰 단거리 진격을 실시할 계획이었다.[20]

이 계획에 따라 공격제대들은 4월 11일 돈틀리스 작전을 개시하였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날 트루먼 대통령은 맥아더 원수를 유엔군사령관, 주일연합군사령관, 극동군사령관, 극동미육군사령관 직위에서 해임하고 제8군사령관 리지웨이 중장을 그 후임에 임명하였다. 그리고 리지웨이 장군의 후임에는 밴플리트 장군을 4월 14일부로 임명하였다.[21]

맥아더 장군은 북한의 남침 2주째인 1950년 7월 8일에 유엔군사령관에 임명되어 1951년 4월 11일 해임될 때까지 북한군과 중공군의 침략을 차례로 응징, 격퇴하고 전쟁 전의 경계선을 회복하는데 공헌한 지휘관이었다. 그는 낙동강 선에서 북한군의 공세를 저지하고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하여 그들의 주력을 섬멸하였으며, 그 여세로 적을 한만국경선까지 몰아붙여 한민족이 통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중공군의 개입과 그로 인한 유엔군의 철수와 재반격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과정에서 맥아더 장군은 전쟁지도상 미 행정부와 여러 차례 갈등을 빚게 되었고, 결국 이로 인하여 사령관직을 떠나야 했다.

제1단계 돈틀리스 작전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신임 유엔군사령관으로 임명된 리지웨이 장군은 4월 14일 한국에서의 마지막 군단장 회의를 소집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적의 공세 징후와 적의 공격이 있을 경우 아군의 철수계획 등에 관한 내용들이 논의되었다. 이 때 논의된 철수계획은 3개의 통제선을 설정해 축차로 철수한다는 것이었다. 이 선은 중공군의 신정공세 때 국군과 유엔군이 점령하였던 B선(문산-화천-양양), C선(서울 남쪽-홍천-원포리), 서울 교두보선과 흡사하였다. 첫 번째 선인 델타(Delta)선은 춘천을 중심으로 동서해안에 이르는 선이며, 두 번째 선은 네바다(Nevada)선으로 서울 남쪽의 한강변을 따라 북동쪽으로 뻗어 양양에 이르는 선이었다. 그리고 서울 방어를 위한 골든(Golden)선은 서울 서북쪽 10㎞의 행주에서 네바다선상의 양평을 반원형으로 연결한 선이었다. 하지만 이 회의에 모인 지휘관들은 가까운 장래에 공산군의 공격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22]



M46 미군 전차가 중공군 보급기지에 기관총 사격을 가하는 모습 (1951. 4. 철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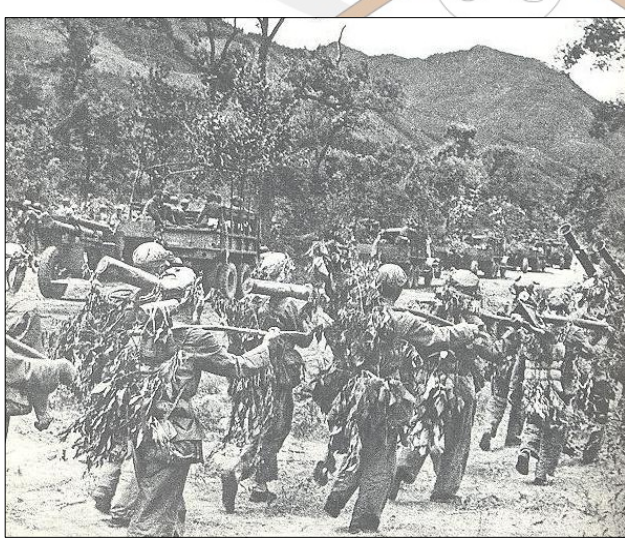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날 신임 미 제8군사령관으로 임명된 밴플리트 장군이 도착하여 정식으로 사령관직을 인수하였다. 신임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 장군은 제2차 세계대전이 절정에 달했던 1944년 6월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연대장으로 참전하여 탁월한 능

력을 발휘하였으며, 이후 9개월 동안 사단장을 거쳐 일약 군단장으로 발탁된 유능한 지휘관이었다. 그는 1948년 중장 승진과 더불어 그리스의 미 합동군사고문단장을 역임하면서 그리스 정부를 도와 공산주의자들의 지원을 받는 반정부 활동을 잠재우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그는 이러한 야전지휘관으로의 능력과 공산주의자들과의 투쟁능력에 의해 제8군사령관의 적임자로 인정되어 군사령관에 부임하게 되었다.

리지웨이 장군은 밴플리트 장군에게 지휘권을 인계하면서 유타선 이북으로 군대를 진출시킬 경우 사전에 통고하고 또 와이오밍선 이북으로 대부대를 이동시킬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지시하였다.

이때 전선에서 제1단계 돈틀리스 작전을 개시한 공격제대들은 철의 삼각지대 부근으로 접근할수록 적의 저항이 점점 강화되고, 또한 폭우로 인하여 도로 상태마저 불량하여 진출이 매우 느렸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4월 20일을 전후하여 미 제3사단은 연천을, 미 제25사단은 금학산을, 미 제24사단은 문혜리를, 그리고 영 제27여단은 사창리를 점령함으로써 공격제대들이 모두 유타선에 도달하였다.



중공군이 제5차 1단계 공세(일명 '4월 공세')를 위해 전선으로 집결하는 모습(1951. 4.)

국군과 유엔군이 유타선과 캔사스선에 위치하거나 그 부근에 도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군의 공격이 즉각 개시될 조짐이 없자 밴플리트 장군은 4월 21일 와이오밍선을 목표로 제2단계 작전을 개시하도록 하였다.[23]

이에 좌전방 미 제1군단의 미 제24사단과 제25사단이 철원-김화를, 우전방 미 제9군단의 국군 제6사단과

미 제1해병사단이 김화-화천을 목표로 각각 공격을 개시하였다. 미 제9군단의 2개 사단은 접적이 없어 캔사스선에서 북쪽으로 3.2~8㎞를 진출하였다. 그러나 미 제1군단의 우전방에서 광덕산으로 진출한 미 제24사단은 우인접의 국군 제6사단과 연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접적을 회피하였지만, 좌전방 보개산에서 철원을 공격한 미 제25사단(터키여단 배속)은 적의 포격으로 오전 중에 공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 제1군단과 제9군단은 22일 공격을 재개하였으나 상황은 어제와 같이 미 제9군단이 약간의 전진을 보였을 뿐 미 제1군단의 2개 사단은 적의 강력한 저항으로 전진이 불가능하였다.

이때 공산군의 저항은 한층 강화되고, 또 공세 징후가 현저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항공정찰에 의하면 북쪽과 북서쪽에서 전방지역으로 적의 이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관측되었다. 특히 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 지역에서는 아군의 치열한 포격에도 불구하고 적이 전방지역 중앙으로 집결하였고 또 임진강변에서는 적이 도하준비를 위한 정찰활동을 증가하고 있었다. 그리고 전방지역에서는 생포되는 포로의 수가 증가하였으며, 포로들은 중공군이 야간에 대규모 공세를 개시할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4월 17일부터 유엔군을 유인하는 작전으로 전환한 공산군은 4월 22일을 기해 이른바 '4월 공세'를 감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군과 유엔군은 공격에서 방어로 전환 할 수밖에 없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 전투 결과 및 교훈

국군과 유엔군은 38도선을 기준으로 서부에서는 3.2㎞~9.6㎞, 동부에서는 16㎞까지 북상하였다. 캔사스선은 38선 북방에 위치한 방어선인 까닭에 유리한 입장에서 미래의 군사분계선으로 선정될 수도 있는 선이었다.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이 점에 더욱 큰 의미를 두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국군과 유엔군은 철의 삼각지대를 눈앞에 두고 4월 21일 공격을 멈추게 되었다. 이제는 약 2개월 간의 공격준비를 마친 '중공군이 언제 어디로 공격해 올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다. 중공군은 3월 중순경부터 국군과 유엔군을 깊숙이 유인해 총공세를 취할 계획을 마련한 상태였다. 특히 4월 21일 조·중연합사령부의 펑더화이, 덩화, 박일우는 제5차 공세작전명령을 정식으로 하달했다. 중국 공간사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았다.

"북한군 제1군단은 먼저 개성, 장단 지구의 적을 섬멸한 후 1개 사단은 연안(延安), 백천(白川)선의 해안방어를 담당하고, 군단 주력은 임진강을 건너 문산의 적을 섬멸한 후 고양을 경유 서울을 향해 공격 전진하고, 서울을 점령한 후에는 서울 수비를 담당한다. 제6군단은 1개 사단으로 해주, 옹진반도에 위치하여 해안방어임무를 맡고, 주력은 사리원, 재령 지구를 장악하고 상륙과 공수 강하하는 적을 타격할 준비를 한다.

중공군 제19병단은 1개 군으로 신속하게 임진강 서안의 한국군 제1사단 방어선을 돌파한 후 고랑포리(高浪浦里) 부근에서 임진강을 급속 도하하여 신속하게 의정부를 향해 전역우회하고, 적 퇴로를 차단하여 적 증원을 저지한다. 성공 후에는 일부가 서울을 향해 전진하고, 기회를 보아 서울을 점령한다. 병단 주력은 고랑포리, 마전리(麻田里), 무등리(无等里) 지역에서 도강하여 먼저 감악산(紺岳山) 지구의 영 제29여단을 섬멸한 후 동두천리, 왕방산(旺方山), 포천 방향으로 공격 전진하여 서남쪽에서 동북쪽을 향해 돌격하고, 제3, 제9병단과 협동하여 영평(永平), 포천 지구의 미 제24, 제25사단을 섬멸한다.

중공군 제9병단은 먼저 절대 우세한 병력, 화력을 집중하여 신속하게 영 제27여단을 섬멸하고, 일부는 미 제24사단을 견제하여 미 제24사단과 영 제27여단의 연결을 차단한다. 성공 후에는 기산리(機山里), 만세교리(萬世橋里), 포천으로 직진하여 동남쪽에서 서북쪽을 향해 공격하고, 제19, 제3병단 주력과 협동하여 미 제24, 제25사단을 섬멸한다.

중공군 제39, 제40군은 제9병단이 지휘한다. 제40군은 가평 방향으로 돌격하여 한국군 제6사단을 섬멸하고 전역 돌파구를 열고, 춘천에서 가평에 이르는 도로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차단하여 동·서부전선의 미군 연결을 차단한다. 아울러 일부는 화천, 춘천 간의 마평리(馬坪里) 지구로 진출하여 적 퇴로를 차단하고, 제39군과 배합하여 도주하는 적을 섬멸하고 증원을 저지한다. 제39군은 일부 병력으로 화천 이북에서 적을 견제하고, 주력은 논미리(論味里), 원천리(原川里) 방향으로 돌격하여 미 제1해병사단, 미 제1기병사단의 서쪽 증원을 견제하고, 병단 좌측익 안전을 보장한다.

중공군 제3병단은 먼저 절대 우세한 병력과 화력을 집중하여 연천 지구의 미 제3사단 주력과 터키여단을 섬멸하고, 성공 후에는 초성리와 종현산(鍾懸山)을 향해 돌격하고, 제19, 제9병단 주력과 협동하여 미 제24, 제25사단을 섬멸한다.

북한전선지휘부 소속 부대는 동부전선에 위치하여 제3, 제5군단은 일부병력으로 양구 이북 지구에서 지원군 제39군과 배합하여 미 제2, 제7사단을 적극 견제하고, 주력은 한국군 제3, 제5사단 접합부인 서호리(西湖里), 인제 지구를 향해 돌격하여 먼저 한국군 1, 2개 연대를 섬멸하고, 성공 후에는 평창, 강릉 방향으로 발전 공격한다. 북한군 제2군단은 회양(淮陽), 화천 지구에 머무르다 일부로 해안경계를 담당하고, 통천, 양양 일선에서 상륙하는 적을 타격할 준비를 한다."[24]

이러한 계획 하에 중공군은 4월 22일을 기해 이른바 '춘계공세'를 대대적으로 감행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3 절 후방지역작전

1. 호남지구 게릴라 토벌작전

1) 작전 개요

호남지구 게릴라 토벌작전은 1950년 10월 4일부터 1951년 5월 11일까지 국군 제11사단과 제8사단이 지리산을 중심으로 호남지역에서 활동하던 게릴라들을 토벌한 작전이다.

중공군의 참전으로 지리산을 중심으로 백운산, 덕유산, 회문산, 불갑산, 백아산, 화학산 일대의 험준한 산악지대에 거점을 둔 게릴라들은 개전 초기와 같은 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믿고 1951년 1월 말에 이르러 대체적인 조직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유격활동을 기도하였다.

이들은 북한군 창설 기념일(2월 8일)을 계기로 가일층 지하조직을 강화하는 한편, 살인·방화·약탈 등을 통해 국군과 유엔군의 후방지역을 교란하였다. 특히 1951년 2월 중순 이후부터 게릴라들은 100명 이상의 대규모 집단을 형성하여 출몰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에 따라 국군 제11사단은 게릴라들의 근거지 파괴를 통해 게릴라의 재집결을 봉쇄하는데 목표를 두고 제9연대를 전남 지역에, 제13연대를 전북 지역에, 제20연대를 지리산 지구에 분산 배치하였다. 그리고 배속된 일부 경찰 및 청년방위대에게 주보급로와 통신망 확보임무를 부여하고, 본격적인 게릴라 토벌작전을 벌이게 되었다.

세칭 거창사건도 동 작전기간 중에 일어났다. 이는 1951년 2월 10~11일 간에 거창군 신원면에서 사단의 제9연대 제3대대가 신원지서의 협조를 받아 게릴라들

과 내통하였다고 판단되는 주민들을 살상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던 사건이었다.[25]

한편 육군본부는 거창사건으로 사기가 저하된 국군 제11사단을 2월 횡성전투 이후 대구에서 재편성을 완료한 국군 제8사단으로 교대시켰다. 국군 제8사단의 주력은 4월 3일 전주로 이동하여 제1경비대대, 제18전투경찰대대, 충남 경찰토벌대, 청년방위대 제153지대를 배속 받아 금산, 정읍, 부안 등지에서 게릴라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26]

2) 작전경과

(1) 호남지역의 게릴라 형성과정

① 북한군의 호남지역 강점과 점령정책

1950년 7월 초 한강을 도하한 북한군은 온양-예산-장항-군산을 거쳐 광주와 목포를 점령한다는 호남지역 남하계획에 따라 7월 11일 공주-대전 축선으로 남진하던 북한군 제6사단을 호남지역으로 우회시키는 명령을 하달했다. 이에 따라 북한군 제6사단은 13일 예산을 출발하여 공주 금강을 건너 호남지방에 진입, 10여일 만에 호남지방을 장악했다.[2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북한군의 호남지역 남하계획이 착수되자 육군본부는 시급히 국군 제5사단을 재편성하여 '서해안지구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호남방어에 나섰다. 그러나 기간병력의 대부분이 전쟁 발발과 동시에 전방으로 차출된 상황에서 잔여병력과 신병, 그리고 학도병으로 편성된 서해안지구 전투사령부는 전차를 앞세운 북한군을 대항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7월 22일 제26연대가 장성에서 전투 한 번 제대로 못해보고 퇴각한 이후 서해안지구 전투사령부는 23일 광주에서 퇴각해 26일 여수를 거쳐 부산으로 향했다.[28]

북한군이 호남지역을 점령한 후 지역 내에서는 조선노동당의 지역당 조직과 인

민위원회의 복구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당조직의 재건은 북한정권이 점령지역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진행한 사업이었다.[29] 이를 위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북한에서 교육받은 당 및 사회단체의 핵심요원들을 남한에 파견하였는데, 이들 요원들의 대부분은 이전에 남로당원으로 활동하던 인물들이었다.[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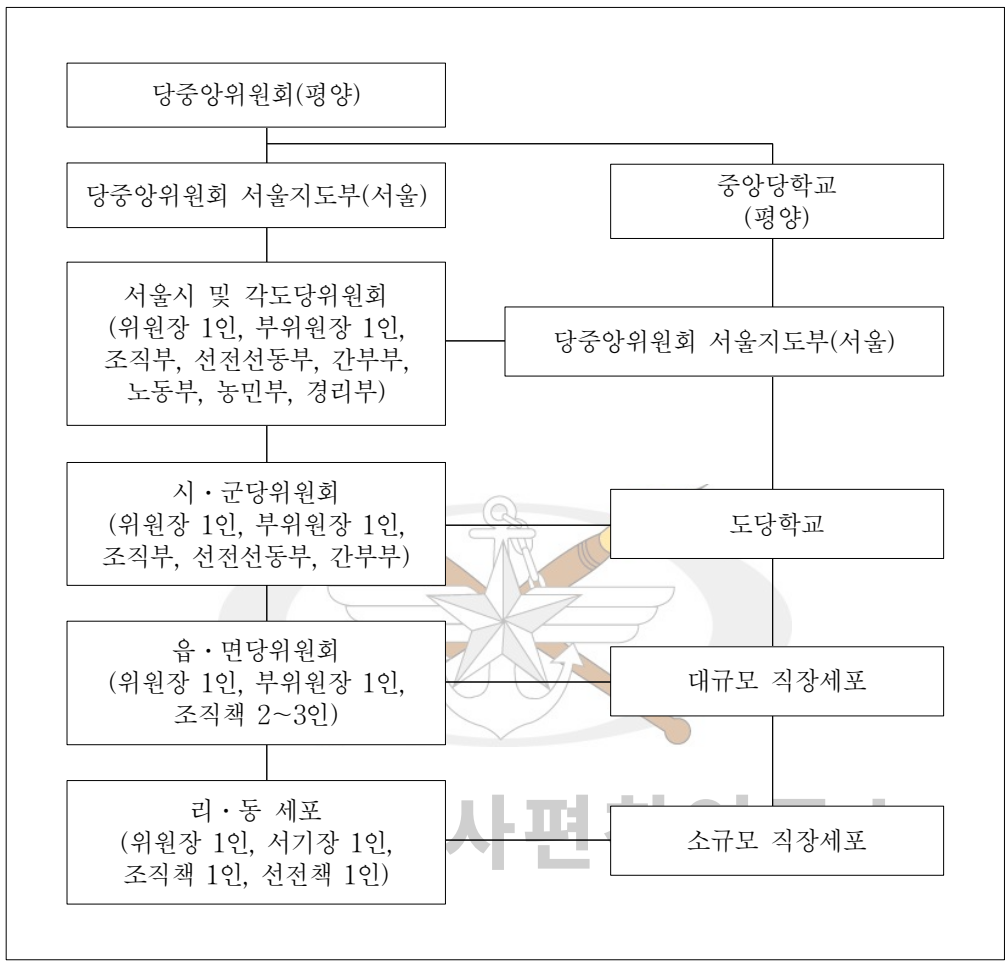
전라북도의 경우 도당위원장에 방준표(方俊杓), 부위원장에 조병하(曺秉夏)가 임명되었으며, 도당위원장 아래에 부위원장 1명, 그리고 조직부, 선전선동부, 간부부, 노동부, 경리부, 농민부 등 6개의 부서가 있었다. 그리고 군당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과 조직부, 선전선동부, 간부부 등 3개 부서가 있었으며, 면당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아래에 부서는 없고 조직선전원, 조직지도원, 선전지도원 등이 있었다.[31] 전라남도의 경우 도당위원장에 박영발(朴永發)[32], 부위원장에 김선우(金善佑)가 각각 임명되었으며, 도당위원장 아래에 조직부, 선전선동부, 노동부, 간부부, 농민부, 경리부 등이 있었다.[33]

이러한 당 간부의 인선은 대부분 중앙당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군당까지도 중앙당이 당책을 임명하였다. 북한군이 점령한 지역 내의 당조직 체계는 다음 <표 5-8>과 같다.

한편 당 간부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각 도에는 도당학교가 설치되었다. 각 도당학교에서는 당건설, 국제·국내정세, '정의의 전쟁', '해방전쟁'에 대한 강의 등 사상과 당 외곽단체의 조직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호남지역의 경우 전주와 광주에 도당학교가 설치되었으며, 각 도당학교에서는 약 100명가량을 수용해 1주일간 단기 강습을 실시한 후 당원을 배출하였다.[34] 이러한 당 재건과 함께 북한군이 점령한 지역에서는 '임시인민위원회'가 예외 없이 조직되었다. 서울시 임시인민위원회를 비롯하여 각도에는 도, 군, 면, 리임시인민위원회가 체계화되어 점령 초기에 행정기관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임시인민위원회는 문자 그대로 임시적인 조직에 불과했기 때문에 북한정권은 '대중적 지지'라는 측면에서 선거를 통한 합법적인 인민위원회의 구성을 계획하고 1950년 7월 14일 북한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의 명의로 '남한 점령지역에서의 군·면·리(동)의 인민위원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표 5-8> 북한군 점령지역 내에서의 당조직 체계



선거 실시에 관한 정령'을 발표했다. 정령의 주요 내용은 "첫째, 도를 제외한 군·면·리(동) 인민위원회 선거를 실시한다. 둘째, 선거일은 해당 도임시인민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셋째, 선거를 위한 중앙선거지도부를 구성한다"는 것이었다.[35]

이에 따라 김원봉 외 8명으로 구성된 중앙선거지도부가 구성되고, 각도에는 임시인민위원회 안에 도선거위원회가 설치되었다.[36] 그 후 북한군이 점령한 각 군, 면, 리에서는 7월 25일부터 9월 13일까지 리 총회와 군·면 대표자대회 등을 통해

인민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 때 설치된 각급 인민위원회의 수와 위원수를 살펴보면, 군인민위원회는 108개 군에 3,878명, 면인민위원회는 1,186개 면에 22,314명, 리인민위원회는 13,654개 리에 77,716명이었다.[37]

당시 인민위원회 선거에서는 북한에서 파견된 공작원들이 상당수 선출되었는데, 이들은 주로 인민위원회의 실권을 행사하는 서기장직을 맡고 지역 출신자들이 위원장직을 맡았다.[38]

전라남도의 경우 전쟁 발발 직후 국군에 의해 광주형무소에 수감되었던 국기열이 석방되어 도인민위원장에 부임하였다. 그러나 국기열은 해방 직후부터 '종파주의 활동'과 '분파주의 활동'을 했다는 것과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임명된 지 4일 만에 해임되고 김백동(金百東)이 후임 위원장이 되었다.[39] 보성 출신이었던 김백동은 해방 후 남로당 전남도당의 핵심인물로 정부수립 후 검거를 피해 월북했다가 북한군이 광주를 점령하자 정식으로 전라남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부임했다.[40] 이러한 도인민위원장의 교체는 토착 좌익세력보다는 북로당계로 북에서 파견된 자나 남로당계로서 월북한 자를 중요 간부로 인선하고자 했던 북한정권의 간부충원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도당과 도인민위원회가 결성된 이후 곧이어 각 시·군에도 당과 인민위원회가 복구되었다. 광주의 경우 국기열과 함께 광주형무소에 수감되었던 강석봉이 인민위원장에 부임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남로당 직계인 김영재(金永才)가 강석봉의 과거 전력을 문제 삼아 그를 밀어내고 인민위원장이 되었다.[41] 목포에서는 7월 24일 북한군이 무혈 입성한 이후 1개 소대병력이 남아 당조직과 인민위원회 구성을 지원하였다. 당책으로는 나주 금천 출신인 김영우가 선임되어 주민의 사상교육, 토지개혁의 지도, 인민위원회의 선거 지도 등의 역할을 담당했으며, 인민위원장에는 목포의 거물로 알려졌던 조모가 선출되었다.[42] 목포에서 인민위원회가 결성된 것과 동시에 임자, 자은 등 전남 서남해안 도서지역에도 인민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들 도서지역의 인민위원회는 내륙의 인민위원회와는 또 다른 구성상에서의 특징을 보였다. 그것은 도서지역 인민위원회가 전적으로 토착 좌익세력에 의해 형성 주도되었다는 점이다. 당시 북한군 정규군 중 단 한 명도 도서지역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에 정식 파견된 적이 없으며, 지역 출신의 '게릴라' 또한 인민위원회 구성에 직접 관여한 흔적이 없었다.[43]

한편 여수에는 7월 27일 북한군이 무혈입성한 후 약 400명의 북한군이 잔류하며 점령군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당시 여수시당 위원장에는 유목윤이, 인민위원장에는 김수평이 각각 임명되었다.[44] 7월 23일 북한군 치하로 접어든 영광에서는 군당 위원장에 정태성(丁泰聲), 인민위원장에 김방호(金芳浩)가 각각 임명되었으며, 24일 북한군 치하로 접어든 영암지역에서는 당일 군당과 군인민위원회 및 각 면당과 면인민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영암군 당책임자는 황점택[45]이, 인민위원장에는 박월출이 선임되었으나 3일 만에 최규동으로 바뀌었다.[46] 해남의 경우에는 인민위원회 위원장에 윤웅이, 부위원장에 김창수와 문종식[47]이 각각 임명되었다.[48] 그리고 장흥의 경우에는 김감년이 군당위원장과 인민위원장을 겸임하다가 곧 당위원장은 위재만에게 인계되었으며,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초기에는 광주에서 온 이혁이 맡았으나 곧 송순종과 북한에서 온 한모로 교체되었다.[49] 화순의 경우, 군당 위원장은 박갑출(朴甲出)[50]이, 군당 부위원장은 북에서 파견된 이태학이, 인민위원장은 조정현(趙正顯)이 각각 맡았다.[51] 광양의 경우, 군당 위원장은 이승동이, 인민위원장은 김을수, 부위원장은 정균화와 북한에서 파견된 사람이 각각 선임되었다.[52]

인민위원회의 복구와 함께 민청[53], 농민동맹[54], 부녀동맹[55] 등 옛 남로당 산하 조직도 복원되었으며, 북한군 지원을 위한 조국보위후원회 등과 같은 새로운 단체들도 속속 결성되었다.

이렇듯 당조직과 인민위원회의 구성이 1950년 7월 말경 완료되자 8월부터는 우익인사에 대한 철저한 검거령이 내려졌다. 그 대상에는 낙오된 군경이나 우익정당 및 단체의 임원, 재산가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검거령은 전쟁이 발발한 직후에 이미 김일성과 박헌영에 의해 공식 표명된 사항이었다. 김일성은 전쟁을 일으킨 다음날인 6월 26일 방송연설을 통해 "도처에서 반역자를 처단하고 인민의 정권기관인 인민위원회를 복구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박헌영도 "반역자들을 체포 처단하여 인민들의 원한을 풀어줄 것"을 지시하였다.[5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러한 우익인사에 대한 검거와 탄압은 북한 내무성 산하의 경찰조직인 정치보위부와 북한군 점령 지역의 주민들로 구성된 자위대가 담당하였다. 당시 북한 내무성 정치보위부에서는 북한에서 훈련된 요원들을 시, 도, 군 단위까지 파견하여 도에는 내무성 도지부, 시·군에는 시·군 내무서를 설치하였으며, 시·군 내무서 책임하에 각 면단위 분소를 설치하였다. 면·리 단위에서는 민청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소위 '자위대' 혹은 '치안대'라는 조직이 만들어졌다.[57]

내무서와 자위대에 의한 우익인사 검거는 7월 중순 각 시·군 내무서를 통해 하달된 '검거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지만, 면·리 단위로 내려갈수록 분소장 및 자위대원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검거 대상자가 크게 확대되었다.[58] 이는 전쟁 발발 전후로 정부의 대대적인 좌익 척결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그에 대한 보복의 차원에서 우익 인사의 검거에 적극 나섰기 때문이었다. 이들에 의해 검거된 우익 인사들은 북한군 점령 초기와 말기에 '인민재판'이나 '즉결처분' 등의 형태로 학살을 당하였다. 특히, 전세가 불리해져 북한군이 퇴각하는 점령 말기에 학살은 더욱 더 노골화되었다.

일례로 전북 옥구군에서는 9월 27일~29일 사이에 소위 '반동분자' 및 그 가족 574명이 학살되었으며, 전남 광주에서는 광주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약 2,000명 중 500여 명이 북한군 후퇴시에 살해당했다. 또한 목포에서도 산전동에 있던 구형무소와 목포역에 있는 미곡창고 등에 1,000여명이 수감되었다가 300명 이상이 살해당했으며, 무안에서는 우익 인사로 분류된 80여 명이 불에 타 죽기도 했다. 이밖에도 호남지역에서는 북한군 후퇴시기를 전후해 우익인사를 대상으로 한 크고 작은 학살이 끊임없이 발생하였다.[59] 이러한 우익인사에 대한 학살은 국군이 이 지역을 탈환한 후 우익에 의한 좌익 테러로 이어졌다.

정리하자면 북한군이 점령한 3개월 기간 동안 호남지역에서는 북한정권이 계획한 점령정책에 따라 당조직과 인민위원회가 복구되고 각종 단체들이 신속하게 설치되었으며, 피난하지 못한 주민들은 이들 단체들에 반강제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북한군 점령지역에서의 동원체제 구축은 토착 좌익세력과 북한군 패잔병의 게릴라 전환시 인적·물적인 토대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했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② 북한군의 후퇴와 게릴라부대로의 전환

1950년 8월 15일을 이른바 '제2해방의 날'로 정하고 낙동강 선까지 파죽지세로 남진한 북한군은 인천상륙작전 이후 전세가 불리하게 되자, 9월 23일을 기해 전 전선에서 전면적인 후퇴를 시작하였다. 이에 앞서 북한정권은 9월 중순경 각 지방당에 산악지대로의 이동과 게릴라전 준비를 골자로 하는 다음과 같은 지시 사항을 하달했다.

"가. 전세가 불리하여 후퇴한다. 나. 당을 비합법적인 지하당으로 개편하라. 다. 유엔군 상륙 때 지주가 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라. 라. 군사시설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은 모두 파괴하라. 마. 산간지대 부락을 접수하여 식량을 비축하라. 바. 입산 경험자 및 활동이 가능한 자는 입산시키고, 기타 간부들은 일시 남강원도까지 후퇴케 하라."

이 지시에 따라 각 도당위원회에서는 각 군당에 같은 내용의 조치를 취하게 하는 한편 9월 28일을 전후해 모든 조직들을 자기 도내의 산악지대로 이동시키고 입산자를 규합해 여러 개의 게릴라부대를 조직했다. 이러한 게릴라 부대에는 지방민청원과 자위대원이 주가 되었지만, 북한에서 파견된 내무서원, 정치보위부원, 정치공작대원과 후퇴하지 못한 북한 정규군도 포함되었다.[60]

이러한 북한군의 제2전선 형성은 유엔군의 후방지역을 교란하여 증원부대의 지원을 차단하고 차후 반격으로 이전할 경우 자신들의 전선타격부대와 배합전술을 펼친다는 전략방침에 기초한 것이었다. 이러한 전략방침은 마오쩌둥의 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0월 2일자 마오쩌둥이 스탈린에게 보낸 서신에서 "지금은 군대를 파견치 않고 차후의 전투에 대비하여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북조선은 패배를 겪은 당분간 투쟁방식을 빨치산 전투로 전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61]라고 밝힌 것에서 입증된다. 당시 마오쩌둥은 약 4~5만 명의 북한군이 남쪽에 남아 게릴라부대로서 유엔군 후방을 교란시킨다면 북한지역에서의 작전과 차후 반격작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6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와 같은 마오쩌둥의 구상에 호응하여 10월 6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는 내무기관과 군사동원기관의 구성원 및 특별자위대원들을 핵심으로 게릴라부대를 조직하고 후퇴하지 못한 북한 정규군과 함께 게릴라전을 전개할 것을 결정하고, 각 도당 책임간부들을 선임하였다. 이에 따라 전북도당위원장에는 방준표가, 부위원장에는 조병하가 임명되고, 전남도당위원장에는 박영발이, 부위원장에는 김선우·김향선이 각각 임명되었다.[63]

김일성은 10월 11일 방송연설을 통해 전쟁상황이 불리하여 전략적인 후퇴를 하게된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첫째 당조직들은 비합법적인 지하당으로 전환 개편시킬 것, 둘째 미군이 상륙 진주 때 지주가 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할 것, 셋째 군사시설물로 이용될 수 있는 것들은 파괴할 것, 넷째 산간지대에 식량과 기타 시설설비들을 소개 비축 은닉시키고 쌀 한 알도 미군에 넘겨주지 말도록 할 것, 다섯째 유격전 야산대 활동 경험자와 입산하여 유격전 참가가 가능한 당원들은 전원 입산시켜 유격대에 참가시키고, 그렇지 못한 인원들은 남강원도 지역까지 조직적으로 후퇴시킬 것, 여섯째 입산한 간부 당원 맹원들은 전원 유격대 조직에 참가하여 유격대를 편성하고 도당지도부의 지도 밑에 활동을 전개할 것" 등의 지시를 하달하였다.[64]

이 지시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도당위원장 방준표의 지휘하에 회문산으로 도내 당조직들을 집결시켜 전북도유격대(사령관 : 방준표, 부사령관 : 조병하)를 편성하였다. 휘하에는 이택부대, 보위부대, 백학부대, 돌진부대, 광산부대, 학도부대, 사령부직속부대, 전주유격대, 김제유격대, 임실유격대, 순창유격대, 완주군당유격대, 익산군당유격대, 금산군당유격대, 진안군당유격대, 무주군당유격대, 장수군당유격대, 남원군당유격대, 정읍군당유격대, 고창군당유격대, 부안군당유격대 등이 있었다. 전라남도에서는 도당위원장 박영발의 지휘하에 북부는 백운산, 남부는 월출산으로 입산 집결시켜 지역별로 전남도당유격대를 편성하고 백아산에 도당지휘부를 두고 활동하였다.[65] 이러한 게릴라부대 조직은 국군의 토벌작전과 각 부대의 여건에 따라 다소간의 이합집산이 있었는데, 1951년 1월 31일 현재 호남지구에서 활동하던 게릴라 부대는 다음의 <표 5-9>와 같았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표 5-9> 1951년 1월 31일 현재 호남지구 게릴라 부대 현황[66]

활동지구	게릴라 부대명	병력	
		무장	비무장
전북지구	전북병단, 완주군당, 돌격유격대, 김제유격대, 전북유격대, 담양유격대, 순창유격대, 칠보유격대, 지구기동대 105사령부, 독수리대대, 영광호대, 위라호대	1,800	1,800
지리산지구	107부대, 605부대, 지리산유격대, 백운산유격대	1,330	370
전남지구	전남총사령부 기동대, 광주유격대, 화순유격대, 보성유격대, 나주동부유격대, 전남당기동부대, 영광유격대, 장흥유격대, 남해여단	1,300	1,300

이렇듯 호남지역 내의 게릴라들은 지리산을 중심으로 백운산·회문산·불갑산·백아산·화학산 일대의 험준한 산악지대에 근거지를 두고 호남지구 각처에서 국군과 유엔군의 보급로 차단 및 통신망 절단, 식량약탈·지서습격·차량기습·살인·방화 등의 만행을 저질렀다. 또한 그들은 전남 도처에서 해방지구를 조성하여 보급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지리산 부근의 운봉·곡성·하동 등지에 출몰하여 양민들을 위협하는 한편, 남원-구례-순천에 이르는 전라선 철도를 파괴하고 군용열차를 습격하여 무기와 보급품을 약탈하는 등 아군 후방지역을 극도로 교란하였다. 이들의 행동이 전후방 전역에까지 파급되면서 극심한 민심 동요와 국민사기 저하의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67] 이에 미 제8군사령부와 육군본부는 게릴라 토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사단을 편성해 대대적인 토벌작전에 들어가게 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국군 제11사단의 창설과 게릴라 토벌작전

1950년 9월 국군과 유엔군의 총반격작전으로 인하여 퇴로가 차단당한 북한군의 패잔병들은 후방 산악지역에서 활동하던 지역 게릴라들과 합세해 점차 전력을 재정비하고 국군과 유엔군의 병참선을 차단하거나 전투근무지원시설을 위협하였다.

이 무렵 미 제8군은 원활한 북진작전을 위해 군예비로서 후방지역에서 활동하던 미 제9군단을 청천강 전선에 투입하게 되었다. 이에 육군본부는 '작전명령 제216호'에 의거해 1950년 10월 15일 후방지역작전을 전담할 제3군단을 창설하고 6개의 유격대대로 구성된 유격사령부와 제2사단, 제5사단, 그리고 신편 중에 있던 제9사단과 제11사단을 배속하였다.[68] 이중 호남지구 게릴라 토벌작전은 제11사단이 전담하게 되었다.

제11사단(사단장 최덕신 준장)은 1950년 9월 25일부로 편성을 완료하고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207호'에 따라 1950년 10월 10일 대구를 출발하여 10월 14일 남원에 도착하였다. 당시 제11사단은 제9연대(연대장 김희준 대령), 제13연대(연대장 유흥수 대령), 제20연대(연대장 박기병 대령)를 비롯해 제3, 5, 6, 7, 8경비대대 등 5개의 경비대대를 배속받았다. 제11사단 예하인 제9연대는 1950년 9월 30일 대구에서 총병력 2,979명으로 창설되었으며, 제13연대는 9월 26일 진해에서 3,000명의 병력으로 창설되었다. 그리고 제20연대는 9월 25일 삼랑진에서 육군 제6훈련소를 개편하여 창설된 후 10월 1일에 제주도 제5훈련소로부터 장교 87명과 사병 1,500명을 보충 받아 연대 편성을 완료했다.[69]

이렇게 편성된 제11사단 예하 3개 연대는 게릴라 토벌작전 임무를 부여받고 제9연대가 전남에, 제13연대가 전북에, 제20연대가 지리산지구에 각각 분산 배치되었으며, 배속된 5개 경비대대와 경찰 그리고 청년방위대는 주보급로 및 주요시설 경계임무를 수행했다.[70]

당시 제11사단의 호남지구 게릴라 토벌작전은 작전상 크게 3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제1기 작전은 1950년 10월 1일~10월 25일까지로 사단의 주력이 호남지구에 집결한 후 각 지구 행정기관의 복구 및 적정 수집을 하는 한편, 사병들에 대한 전투 훈련 및 소규모 토벌작전을 병행한 시기였다. 특히 이 기간 중에 퇴로가 차단된 게릴라들은 험준한 산악지대에 근거지를 두고 국군의 보급로를 파괴하고 통신망을 두절시키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제2기 작전은 1950년 11월 1일~12월 31일까지로 이 작전기간은 소위 '견벽청야(堅壁淸野)'작전 개념에 입각해 산간벽지에 있는 민간인들을 소개하고 게릴라의 보급로를 차단해 적을 기아 상태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몰아넣는 한편, 유리한 거점을 확보하여 게릴라 소탕에 주력한 시기였다. 제3기 작전은 1951년 1월 1일부터 4월 초까지로, 이 작전기간에 게릴라들은 중공군의 개입으로 국군과 유엔군이 전략상 후퇴를 하게 되자, 이를 계기로 지역별 연대를 이루며 약탈·납치·방화·기습 등의 활동을 적극 감행하였다. 이에 경찰 및 청년방위대는 주보급로 및 통신망 확보 임무를 담당하는 가운데 제11사단이 게릴라의 근거지를 파괴하는 데에 전 병력을 집중하였던 시기였다. 특히 제11사단은 제3기 작전기간을 최종 게릴라 토벌기로 정하였다.[71]



지리산 토벌부대의 박격포 진지(전북 순창)

중공군의 참전으로 지리산을 중심으로 백운산, 덕유산, 회문산, 불갑산, 백아산, 화학산 일대의 험준한 산악지대에 거점을 둔 게릴라들은 개전 초기와 같은 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믿고 1951년 1월부터 수백명 단위로 보급 열차를 파괴하거나 군경을 습격하는 등 강력한 게릴라전을 벌였다.[72] 일례로 1월 16일 약 800명의 게릴라들이 광양읍을 공격하여 경찰관 4명과 민간인 11명을 죽였으며, 같은 날 군산에서는 미 공병대원 4명이 게릴라로부터 습격을 받아 사망하기도 했다.[73] 또한 22일에는 약 300명의 게릴라들이 전라북도 정읍의 운암발전소를 공격해 발전소 시설물을 파괴했다.[74]

이와 같은 게릴라들의 강력한 저항에 맞서 제11사단은 게릴라들의 근거지 파괴와 지도급 인물 체포를 통해 게릴라의 재집결을 봉쇄한다는 목표를 두고 작전을 전개하였다. 특히 이 시기에는 이전과 달리 유엔 공군의 지원을 받아 육군과 공

군의 합동작전이 전개되었다는 특징을 보였다. 주한미군사고문단 정보보고서에 의하면, 1월 20일 유엔 공군이 게릴라들의 주요 활동 근거지인 전라남도 장흥군 유치면 일대에 항공 폭격을 가하여 511명의 게릴라를 사살하고, 11사단의 지상작전으로 123명이 추가로 사살되었으며,[75] 1월 31일에는 회문산 일대에 대한 합동작전으로 총 429명의 게릴라를 사살했다고 기록하고 있다.[76]

당시 제11사단은 지리산을 중심으로 제9연대(연대장 오익경 대령[77])가 동남쪽을, 제20연대가 서남쪽을, 그리고 제13연대가 북쪽을 담당하면서 토벌작전을 전개했다. 제9연대의 경우, 2월 19일까지 경남 일대에서 작전을 수행한 후 3월 중순경 화순군 백아산 지역과 광양 일대로 이동해 호남지구 게릴라 토벌작전에 임했다.

이 과정에서 제9연대는 3월 17일 화학산 일대에서 게릴라들과 교전해 남해여단장, 부여단장, 참모장, 중앙감찰부장 등 거물급 인사를 비롯해 86명의 게릴라를 사살하였으며, 3월 22일에는 순천을 습격한 게릴라들과 교전을 벌여 전 남로당 문화부장 등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리기도 했다.

<표 5-10> 제3기 작전간 게릴라 사살 및 생포 수

기 간	전 과	
	사 살	생 포
1. 1~9	199	59
1. 10~19	450	30
1. 20~1. 31	1,787	33
2. 1~10	686	81
2. 10~19	507	28
2. 20~29	939	71
3. 1~9	966	37
3. 10~19	974	202
3. 20~29	394	62
4. 1~6	19	0
총	6,921	603

출처 : KMAG, Periodic Intelligence Report, No. 158~24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편 담양, 순창, 화순, 장성, 나주군 일대에서 게릴라 소탕작전을 전개하던 제20연대는 1,500여 명의 게릴라가 회문산을 거점으로 활동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2월 9일 제1, 제2대대를 투입해 본격적인 소탕작전을 전개했다.[78] 또한 2월 20일에는 불갑산에서 활동하던 350여 명의 게릴라를 섬멸하였으며, 3월 3일에는 불갑산에서 대청산으로 이동한 게릴라들을 공격해 격퇴하고 회문산 작전을 종결지었다.

제9연대와 제20연대가 게릴라 토벌작전을 벌이는 동안 제13연대는 정읍군 칠보와 운암발전소의 수문을 경계하는 임무를 수행하다가 대전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제3기 작전기간의 특징은 게릴라 지도급 인물의 검거·사살과 근거지의 완전한 파괴를 통해 게릴라의 재집결을 봉쇄한다는 목표하에 공군까지 동원된 대규모의 토벌작전이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위의 <표 5-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1사단이 이 기간 동안에 거둔 전과를 보면 작전의 규모나 강도면에서 얼마나 크고 강했던가를 짐작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1950년 10월 1일부터 1951년 4월 6일까지 3단계로 진행된 제11사단의 게릴라 토벌작전은 게릴라와 주민들을 분리시켜 게릴라의 조직적인 활동을 분쇄함으로써 후방지역의 치안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제11사단의 토벌작전 성공이 곧 호남지역에서의 완전한 게릴라 축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지만,[79] 초기에 게릴라의 기세를 꺾었다는 점과 작전상의 성과와 오류가 이후 전개되는 게릴라 토벌작전의 중요한 교훈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3) 국군 제8사단의 호남지구 작전

국군 제8사단(사단장 최영희 준장)은 1951년 2월 횡성지구 전투를 치른 후 제천을 경유해 대구로 이동하여 전력을 보강한 후 육군본부 직할로 후방지역 경계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사단은 1951년 4월 3일 제11사단과 게릴라 토벌작전 임무를 교대하기 위해 대구에서 전주로 이동하여 4월 6일 임무교대를 완료하였다.

제8사단은 4월 16일 금산지구에서 활동하던 게릴라들에 대한 섬멸작전을 시작으로 5월 11일까지 금산, 국사봉, 부안 등지에서 게릴라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4월 16일 제21연대 제1대대(대대장 임창모 소령)와 사단공병대대(대대장 소정우 소령)

는 대둔산 북쪽 5㎞ 지점의 덕곡리(논산군 별곡면)에서 공격을 개시해 최초 목표인 662고지(대둔산 동쪽 2㎞)를 탈취한 후 외일양리(662고지 남쪽 5㎞)에서 게릴라 100여 명을 격퇴하였다. 다음날(17일) 사단은 전술지휘소를 양촌에서 당천리로 이동시킨 후 06시에 제21연대 제1대대와 제18전투경찰대대(대대장 차일혁 경감)를 대둔산 공격에 투입하였다. 토벌대는 이날 10시 50분에 대둔산 정상을 점령하고 계속해서 대둔산 부근의 581고지, 700고지, 760고지를 차례로 확보하였다. 그동안 사단공병대대가 원동산과 운대산으로 도주한 게릴라 250여 명을 추격해 큰 타격을 입혔으며, 19일에는 제21연대 제1대대와 사단공병대대가 운암산을 포위하여 다수의 게릴라들을 사살하거나 생포하였다. 4월 16일에서 19일까지 3일간 진행된 토벌작전에서 제8사단은 38명의 게릴라를 사살하고 37명을 생포하는 전과를 올리고, 전사 10명, 부상 16명의 피해를 입었다.

4월 19일 금산지구 작전을 종료한 국군 제8사단은 5월 4일 사단지휘소를 시산리(국사봉 북쪽 5㎞)에 설치하고 국사봉지구 토벌작전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사단은 국사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4면에 부대를 배치하여 국사봉 지역을 포위한 상태에서 수색작전을 전개하였다. 5월 5일 02시 30분에 시작된 국사봉지구 게릴라 토벌작전에는 제10연대 제1대대(대대장 박치옥 중령), 사단공병대대, 사단수색대대, 제1경비대대(대대장 강차완 대위), 제18전투경찰대대가 투입되었다. 제10연대 제1대대는 신영리(국사봉 남쪽 15㎞)에서 작전을 개시해 북쪽으로 진출하면서 여분산 남쪽의 416고지, 418고지를 점령한 후 동쪽으로 공격방향을 전환해 장성군 백학산 일대에서 작전을 전개하였으며, 사단공병대대는 능다리(국사봉 북동쪽 5㎞)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장군봉과 내장산 일대에서, 사단수색대대는 전북도당 유격대사령부가 위치한 것으로 알려진 회문산과 여분산, 백학산 등지에서 작전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제1경비대대는 무성리(국사봉 북쪽 5㎞)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내장산 방향으로 수색작전을 전개한 후 칠보발전소의 경계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제18전투경찰대대는 목남(국사봉 남서쪽 18㎞)에서 동쪽으로 용추봉 일대까지 수색하면서 게릴라들의 남쪽 퇴로를 차단하였다. 국군 제8사단은 5월 9일 토벌부대가 내장산과 백학산의 수색을 완료한 상황을 확인한 후 국사봉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지구 게릴라 소탕작전을 종결지었다. 작전기간 중 사단은 410명의 게릴라를 사살하고 573명을 생포하였으며, 은거지 339개소를 파괴하였다. 반면에 피해는 전사 1명, 부상 2명이었다.

제8사단은 국사봉지구 소탕작전을 완료한 다음날(5월 10) 부안지구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이틀간에 걸쳐 백련리, 신전, 사자동, 쌍선봉, 반화동, 조운암, 월명암 등지에서 부안지구 게릴라 소탕작전을 전개하였다. 5월 11일 17시부로 종료된 이 작전에서 사단은 사단공병대대와 수색대대를 집중적으로 투입해 게릴라 87명을 사살하고 17명을 생포하였다.

이렇듯 국군 제8사단은 1951년 4월 15일부터 5월 11일까지 약 1개월간에 걸친 호남지구 게릴라 토벌작전에서 535명의 게릴라를 사살하고 624명을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으며, 전사 12명, 부상 21명의 피해를 입었다. 부안지구 작전을 끝으로 호남지구 작전을 종료한 제8사단은 5월 19일 육군본부의 지시에 따라 전주를 떠나 충북 제천으로 이동하였다.[80]

3) 작전결과

전쟁 이전부터 호남지역은 좌익세력의 영향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던 지역이었다. 1950년 3월을 기점으로 정부의 대대적인 좌익 척결 방침에 따라 그 세력이 상당히 축소되었지만 지리산을 중심으로 약 200여 명의 게릴라들이 활동하면서 북한의 남침에 호응하였다. 이들 토착 좌익세력은 북한군이 호남지역을 점령하자 재부상하여 각종 좌익 단체의 핵심세력으로 등장하였으며, 북한군 퇴각 시에는 북한군 패잔병과 더불어 게릴라부대의 중심 세력으로 전환하였다.

호남지구에는 지리산, 불갑산, 장흥 유치일대, 백아산 등의 산악지대가 게릴라들의 근거지가 되었으며, 이들 게릴라들은 호남지구 각처에서 국군의 보급로 차단, 식량약탈, 지서습격, 차량기습, 통신망 절단, 살인, 방화 등을 통해 후방지역을 교란하였다.

이에 국군은 9월 25일 남한지역 내의 게릴라 토벌을 목적으로 제11사단을 창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했다. 제11사단의 게릴라 토벌작전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되는데, 그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기 작전은 1950년 10월 1일~10월 25일까지로, 작전의 특징은 본격적인 게릴라 토벌작전에 앞서 준비 단계로써 사단 주력의 호남지구 집결, 수복지구에 대한 행정기능 복구, 적정 수집 등이 이루어지고, 주요 보급로 확보를 위한 소규모 게릴라 토벌작전이 수행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의 작전 성과는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본격적인 토벌작전을 위해 주요 거점을 확보해 나갔다는 점에서 작전상의 의의가 있었다. 제2기 작전은 1950년 10월 26일~12월 31일까지로, 작전의 특징은 산간벽지에 있는 민간인들을 소개하고 게릴라의 보급로를 차단해 적을 기아 상태에 몰아넣는다는 '견벽청야' 작전 개념에 입각해 대규모의 소탕작전이 전개되어 상당수의 게릴라들을 사살하거나 생포하였다는 것이다. 제3기 작전은 1951년 1월 1일~4월 6일까지로, 작전의 특징은 게릴라 지도급 인물의 검거·사살과 근거지의 완전한 파괴를 통해 게릴라의 재집결을 봉쇄한다는 목표 하에 공군까지 동원된 대규모의 토벌작전이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1950년 10월 4일부터 1951년 4월 6일까지 3단계로 진행된 제11사단의 게릴라 토벌작전은 게릴라와 주민들을 분리시켜 게릴라의 조직적인 활동을 분쇄함으로써 후방지역의 치안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제11사단의 토벌작전 성공이 곧 호남지역에서의 완전한 게릴라 축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초기에 게릴라의 기세를 꺾었다는 점과 작전상의 성과와 오류가 이후 전개되는 게릴라 토벌작전의 중요한 교훈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태백산지구 게릴라토벌작전

1) 작전 개요

태백산지구 게릴라 토벌작전은 1951년 2월 13일부터 4월 8일까지 국군 제2사단이 태백산 지구에서 북한군 제10사단 패잔병과 남파 유격대를 섬멸한 작전이었다.

안동지구에서 활동하고 있던 게릴라들은 1951년 1월 중공군의 신정공세시 미 제10군단 지역을 돌파, 영월·단양·영주를 경유 안동까지 침투한 북한군 제10사단과 이현상의 남부군, 그리고 경북도당과 지역군당 게릴라들이었다. 이들은 태백산, 일월산, 속리산을 위시하여 형제봉, 보현산, 동대산을 연하는 일대에서 게릴라전을 전개하였다. 국군 제2사단은 1951년 2월 13일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23호에 의거, 미 제10군단으로부터 배속이 해제되어 육본 직할부대로 전환하여 게릴라 토벌작전을 수행하게 되었다.

제2사단은 제6, 제7경비대대와 국민방위군 1개 연대 병력, 태백산 지구 전투경찰사령부 예하 경찰 2개 대대를 작전통제하여 영남 일대의 군 보급로 경비와 지역 내 게릴라 소탕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사단은 제31연대와 방위군 제3연대를 주보급로 경계 임무를 담당하게 하고, 제17연대와 제32연대를 보현산 일대의 게릴라 소탕작전에 투입하였다. 이후 국군 제2사단은 제31연대가 영주, 풍기, 단양 지역을, 제32연대가 신녕-의흥간 도로경비를, 제17연대가 경주-울산, 경주-영천간 도로경비를 담당하다가 4월 22일 속리산지역 게릴라 소탕작전을 실시한 후 충북 제천으로 이동하였다.

2) 작전 경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태백산 지구의 게릴라들은 1950년 12월 말부터 동부 산악지역으로 침투했던 북한군 제10사단의 패잔병들로 구성되었다. 북한군 제10사단은 1951년 1월 중순 태백산맥을 연한 안동, 의성 부근까지 남하한 부대로, 국군 제3군단의 공격을 받아 퇴로가 차단되어 주변 산악 지역에 거점을 확보하고 게릴라 부대로 전환하였다. 이들은 이미 국군과 유엔군의 후방지역에서 활동 중인 남부군, 경북도당의 안동·영덕·영주·봉화군당 유격대 등과 합세하여 태백산, 일월산, 속리산을 위시하여 형제봉, 보현산, 동대산을 연하는 산악 일대에서 게릴라전을 전개하였다.

북한군 제10사단의 후방지역 활동이 증가하자 중공군의 신정공세 때 피해를 입고 미 제10군단의 예비사단으로 전환되어 풍기에서 재정비 중에 있던 국군 제2사

단이 이들을 격멸하기 위하여 육군본부 직할로 배속됨과 동시에 2월 13일 안동으로 이동하였다.

사단은 제5, 제6, 제7경비대대, 국민방위군 제3연대, 전투경찰 2개 대대를 배속받아 1개월 동안 영천-포항, 영천-안동, 안동-영덕 간의 주보급로를 확보하면서 보현산 일대의 북한군 제10사단의 패잔병들을 소탕하게 되었다.[81]

사단장 함병선(咸炳善) 준장은 2월 16일 제31연대를 안동-영주-단양 간의 주보급로를 경비하게 하고 제17, 제32연대를 보현산 일대의 게릴라 소탕작전에 투입하였다. 이에 양개 연대는 보현산 서쪽의 개산동, 화수동, 용수동, 조락동, 조림산 일대에서 게릴라들을 추격하기 시작하였다.

사단은 2월 28일에 청송 방면의 북한군 제10사단이 북상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이에 사단장은 이들을 원거리에서 포위 격멸하기로 결심하고 예상 통로인 일원산 부근을 차단하도록 명령하였다.

이 방침에 의거해 병참선을 경계하던 제31연대가 일월산 남서쪽의 장갈령을 차단하여 3월 1일 새벽에 북상 중인 북한군 1,500여 명을 기습 공격하여 적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 이 무렵 제17연대와 제32연대도 보현산 일대에서 일월산 남쪽으로 이동하였다. 이리하여 사단은 일월산 일대에 3중으로 차단선을 설치하였고, 북한군 제10사단은 800명과 400명으로 2개조를 편성하여 차단선을 돌파하려 하였다. 사단은 5일부터 전 병력을 투입하여 5일간 일월산-통고산 방면으로 적을 추격하였다. 이로 인해 적은 삼삼오오로 분산되었다.

사단은 이 작전에서 사살 460여 명, 포로 40여 명 그리고 293점의 장비를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반면 사단은 전사 4명, 부상 25명의 손실을 입었다. 작전 중 제31연대장 박노규(朴魯珪) 대령과 제3대대장 이오열(李奧烈) 중령이 일월산에서 전사하였다.

북한군 제10사단이 분산된 채 북상 도주함으로써 이 일대에서의 게릴라 토벌작전은 일단락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은 3월 초순에 유격전술에 능숙한 1,700여 명으로 편성된 제1지대와 제3지대를 다시 이곳으로 남파하였다.[82] 후일 판명된 바에 의하면 북한군 제1, 제3지대는 최초 1950년 11월 초에 맹산에서 3개 유격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여단(2,500명)으로 창설된 후 11월 중순 북한군 제2군단의 엄호하에 양구-인제-오대산으로 침투하던 중 정선 북쪽에서 국군에 의해 큰 타격을 입고 재편성한 부대였다. 이들은 이동 중에 단대호를 조선인민유격대 제1, 제3지대로 개칭하였으며, 중앙당의 직접 통제하에 팔공산에 거점을 확보할 목적으로 침투하였다.

조선인민유격대 제1, 제3지대가 3월 14일 봉화군 소천면 일대로 남하하자 육군본부는 이들을 선제공격하여 섬멸하기로 하고 북한군 제10사단에 대한 추격 임무를 수행 중이던 국군 제2사단을 전담 부대로 투입하였다. 국군 제2사단장은 20일 제17연대에 통고산(通高山) 지역에서 적 제1지대를, 제32연대에 양구동(羊邱洞)에서 적 제3지대를 격멸하고, 제31연대에 안동-영주-풍기-단양 간 도로를 경계하도록 명령하였다.

격멸작전에 나선 제17연대는 주력이 통고산 서쪽의 남회룡리(南回龍里)에서 부대정비를 하는 동안 제3대대가 통고산 북쪽 쌍전리(雙田里) 부근에서 남하 중인 적 400여 명을 발견하고 선제공격을 가해 이들을 소광리로 격퇴하였다. 이후 연대는 통고산, 오미산, 석포리 일대를 정밀 수색하였고, 그 과정에서 생포한 포로로부터 "적이 그간에 있었던 연대의 공격으로 전력이 크게 약화되어 대덕산-고양산을 경유해 퇴각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83] 포로의 진술대로 적은 23일부터 오미산 북쪽의 석포리를 경유해 북상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제17연대는 이 적을 추격하여 창죽리, 대덕산, 노목리를 경유, 정선 동쪽의 고양산까지 추격하였다. 이때 적은 계속된 도주로 인해 사기가 크게 저하된 상태였다. 적을 집요하게 추격한 연대는 26일 풍천으로 진출하여 고양산과 낙동리(樂同里) 일대에서 적 제1지대의 주력을 격멸한 후 추격작전을 종료하고 주둔지 경계를 강화하면서 차기작전을 준비하였다.

한편 적 제3지대 격멸작전에 나선 제32연대는 3월 18일 새벽에 배속된 제7경비대대가 영양 남서쪽 양구동(羊邱洞) 일대를 정찰 중 808고지에서 적 제3지대를 발견하고 추격하기 시작하였다. 대대장 강영훈(姜英勳) 소령은 노출로 인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야간에 적을 공격하여 25명을 사살하고 7명을 포로로 하였다.

제7경비대에 기습을 당한 적은 남쪽의 포도산(葡萄山)으로 잠입하였다. 연대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 적을 추격하는 동안 배속된 국민방위군 제3연대도 연대장 김무용(金武龍) 중령의 지휘하에 동쪽의 명동산을 공격하여 북한군 제3지대 참모장과 제1중대장을 사살하였다.[84]

이후 연대가 추격하는 동안 적은 민가로 잠입하여 완강하게 저항하기도 하였으나 3월 23일을 전후하여 분산 도주함으로써 일시 접적이 단절되었다. 연대가 적을 추격하는 사이에 적은 명동산 남쪽에서 350여 명으로 재편성을 한 후 24일 새벽에 선발대가 신촌동 부근에서 국민방위군 제3연대 매복조와 교전하는 틈을 이용하여 구양동 서쪽의 주산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적은 팔공산 거점 점령을 포기하고 잡목이 울창하여 시계가 제한되는 산악고지를 따라 금장산-통고산으로 북상 철수하였다.

제32연대는 적을 주산에서 일망타진할 목적하에 제2대대와 국민방위군 제3연대를 포위망 구축에 투입하고 제7경비대대를 공격부대로 투입하였다. 제7경비대대는 아군의 화력엄호와 함께 돌격하여 백병전으로 적을 격퇴하였다. 26일 제32연대는 적 제3지대가 죽파동-본신리-금장산으로 퇴각할 것을 예측하고 차단진지를 편성하였다.

사단장은 3월 29일 전반적인 적정을 검토한 결과 당시 150명 규모의 패잔병이 통고산-오미산-연화산을 따라 북상 도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서 제1단계 작전을 종료하고 차기작전을 준비하였다.[85]

이후 사단은 3월 30일부터 4월 8일까지 제17연대를 주축으로 한 제2단계 작전을 전개해 통고산 북쪽 평전지구에서 게릴라 120명을 사살하고 36명을 포로로 획득한 후 작전을 종료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 유격대의 편성과 활동

1) 활동 개요

6·25전쟁 기간 중에는 정규전 못지않게 비정규전 형태의 유격부대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전쟁 초기 북한군의 점령 지역 곳곳에서 일어난 자생적인 반공 유격투쟁은 1·4후퇴 이후에 국군과 유엔군의 지휘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확대되었다.

국군은 적 주력에 대한 견제 전략으로 주전선의 후방을 교란하는 제2전선 형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서 '명유격대대', '백골병단', '백봉부대', '육군 을지병단' 등을 운용했으며, 미군은 서해안에 존재하는 많은 의용군들을 유격대로 활용하기 위해 51년 1월 '에이블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미군은 무기·통신장비·보급 지원을 통해 민간인 유격대원들을 북한 지역에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요원으로 발전시켰다.

이들 유격대원은 평안도·황해도·함경도 등지로 출동해 북한군·중공군 진지 습격, 지하조직 구축, 피난민과 추락한 조종사 구출, 무기 노획 등 여러 작전을 펼쳤다. 또한 이들은 항공정찰만으로 군사시설이나 군대의 이동상황·규모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서쪽으로는 압록강 하구에 있는 대화도, 동쪽으로는 원산 앞 바다를 장악해 북한 지역에 대한 정보를 획득했다. 유격대원의 이러한 전투와 정보수집 활동 결과는 미8군의 서쪽 측면방어를 지원해 주저항선에 있는 북한군과 중공군의 분산을 가져오는 데 기여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활동 경과

(1) 육군 통제 유격부대

① 육군본부 결사유격대

중공군의 참전과 '1·4후퇴'로 한때 잠잠하던 게릴라의 활동이 다시 고개를 들어 군이 후방지역 게릴라 토벌작전을 벌일 무렵 국군과 유엔군도 유격대를 조직하여 적 후방지역에 투입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적의 후방을 교란하고 적 부대의 분산을 강요하여 전선으로 집중되는 적의 충격력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고자 하

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유격대의 활동은 정규군의 작전에 협조함으로써 정규군 작전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적의 부대와 보급 및 병참시설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여 이를 파괴하고 교란하여 적의 작전에 혼란을 초래하게 할 수도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국군이 정식으로 유격대를 편성한 것은 1950년 12월 중순이었다. 이 무렵 육군본부의 정보참모부 공작과가 중심이 되어 극비리에 유격대를 편성하였다. 청년단체의 협조를 얻어 주로 황해도, 평안도의 피난 청년 중에서 인원을 선발하여 대대 규모의 부대를 편성하고 훈련을 시켜 적의 복장과 장비를 지급한 후 12월 말경 적지에 투입하였다. 이들은 문산에서 임진강을 건너 적지에 들어가 활동을 시작했으나 곧 적의 신정공세로 1·4후퇴를 맞아 전선이 남하함에 따라 통신이 두절되어 사실상 작전에 크게 기여하지는 못했다.

이후 육군본부는 정보참모부(공작과)와 작전참모부(편제과)가 협조하여 본격적인 유격대 조직에 착수해 '육군본부 직할 결사유격대'를 편성하였다. 당시 대구의 육군본부 보충대에는 국민방위군 설치법과 국민 총동원령 선포에 따라 청년, 학생, 의용경찰관, 철도경비경찰관, 현역병 낙오자들이 몰려들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참모부에서는 이들 중 애국심이 투철하고 신체조건이 우수한 700여 명을 1차로 선발하여 1951년 1월 4일부터 육군정보학교에서 3주간의 유격 특수교육을 실시하였다.[86] 육군은 이들에게 정규군과는 다른 별도의 임시 계급과 군번을 부여한 후 결사유격 제11, 제12, 제13연대 순으로 편성하였다.

결사유격대가 교육훈련을 완료할 무렵인 1951년 1월 하순, 중동부전선에서는 국군 제1, 제3군단이 영월-삼척선에 방어선을 구축한 상황에서 퇴로가 차단된 북한군 제10사단 소속의 패잔병들이 안동 일대에서 게릴라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게릴라 토벌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결사유격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1951년 1월 30일 먼저 교육을 마친 결사유격 제11연대가 연대장 채명신(蔡命新) 중령의 지휘하에 작전에 투입되었다. 363명으로 구성된 결사유격 제11연대는 영월로 이동하여 청옥산-가리왕산-박지산-하진부리로 침투하기 시작하였다. 이어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서 330명의 결사유격 제12연대가 2월 6일 연대장 이두병(李斗炳) 임시소령의 지휘하에 묵호에서 양구 사명산-신고산-회양을 경유 통천을 목표로 침투하였다. 그리고 결사유격 제13연대도 2월 15일 횡계리에서 중부 내륙을 목표로 연대장 김한철(金漢喆) 임시대위의 지휘하에 침투를 개시하였다.

이때 제11연대는 적에게 노출되지 않고 주문진 서쪽의 퇴곡리로 진출하였으나 후속한 제12연대는 하진부리 북쪽의 두일리에서 적의 주저항선을 돌파하던 중 적에게 노출되어 공격을 받고 월정사로 이동하였다. 게다가 제12연대는 유엔 공군기의 오폭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를 입고 18일 퇴곡리에서 결사유격 제11연대와 합류하였다. 이로 인해 적의 경계가 강화됨은 물론 대관령 일대의 폭설로 기동이 제한되자 제13연대는 중부내륙으로의 진출을 포기하고 월정사 부근으로 이동하여 20일 퇴곡리에 도착함으로써 3개 연대가 집결하게 되었다. 이들 3개 연대는 이곳에서 통합하여 백골병단으로 창설되었다.

백골병단은 2개월간의 계획으로 적에 관한 지식, 정신력과 육체단련, 유격전의 기초지식, 군사훈련, 보급투쟁방법, 민중조직, 첩보수집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면서 적 후방에 침투할 때만을 기다렸다. 당시 중동부전선의 국군과 유엔군은 후방지역에 침투한 적을 완전히 격퇴하고 2월 3일을 기해 일제히 반격작전을 개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2개월로 예정되었던 유격대의 교육은 2주일로 단축되었으며, 백골병단은 긴급히 요구되는 적정 수집을 위해 적 전선 후방으로 투입되었다.

200명의 유격대는 2월 3일 출동 명령을 받고 북한군 복장과 무기를 갖추고 국군 제3군단 예하 제7사단 제3연대 정면의 창리 북방에서 태백산맥을 따라 적 후방으로 침투를 개시하였다. 이들은 적의 방어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지만, 험준한 산악지형에다가 1m 이상의 적설과 영하 20도 이상의 혹한으로 인해서 대원들 사이에 동상, 동사자가 속출하였다. 2월 8일 전지산에 도착할 때까지 부대에는 동사자 6명을 비롯해 신체 허약자와 동상자 44명이 낙오되어 복귀함으로써 잔여 대원이 150명으로 감소되었으며, 16일 오대산 비로봉에 이르렀을 때에는 113명만이 적 후방에 침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대는 계속 북상하면서 유격작전 근거지로 적절한 지역을 선정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하던 중 2월 17일 15시경 비로봉 북방 계곡의 초계리 부락에서 북한군 3명을 생포해 최초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또한 부대는 부락 주민들로부터 초계리에서 계곡을 따라 약 8㎞ 내려가면 북한군의 보급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유격대는 초계리를 유격 근거지에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다음날의 작전을 계획하며 숙영에 들어갔다.

유격대는 2월 18일 대원 15명으로 정찰대를 편성해 구릉령 일대에 대한 정찰을 실시하였다. 이 지역은 외선에 비로봉, 두루봉, 매복산, 칠발골봉, 방대산 등이 있어 유격대 활동에 적절한 조건을 구비한 지형이며, 내선에는 창도리로부터 양양에 이르는 적의 보급로가 협로를 통과하므로 매복공격에 매우 유리한 지형이었다. 구릉령 계곡에 매복하고 있던 정찰대는 이날 북한군 연락군관단 일행 5명(대위1, 중위2, 하사관2)을 생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은 북한군 제2군단 예하 제69여단 소속 연락군관단으로서 여단장이 군단장에게 발송하는 연락문서를 휴대하고 있었다. 이 문서에는 적의 배치 상황과 작전계획 등 중요한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적 군단사령부가 창도리에 위치하고 여단 사령부가 속초에 위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유격대는 이들로부터 향후 유격전을 전개하는데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적의 각종 증명서를 노획하였다. 유격대가 수집한 정보는 즉시 국군 제1군단사령부에 보고되었으며, 유엔 공군이 적 군단사령부와 주요시설물을 정확하게 폭격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유격대는 2월 18~19일에도 30명의 대원을 구릉령에 매복시켜 북한군 연락병 3명을 생포하고, 적 행군병력 50명(무장5, 비무장45)을 습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유격대는 북한군 제69여단이 보충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병력이 4,300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격대는 지금까지 입수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 북한군 제2군단은 지역내의 교통망 결핍과 적설로 인해 보급로와 유선통신망이 두절되고 무전기의 고장 등으로 인해 작전지휘에 극심한 애로를 겪고 있으며 사기와 전투력이 매우 약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유격대는 이러한 기회를 이용해 적의 군단사령부를 기습한 후 초계리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하였다.

2일간의 공격준비를 거친 후 유격대는 21일 14시경 구릉령 일대에 30명의 유격

대원을 배치시켜 후방에서의 적 증원을 차단하게 하고 잔여대원 약 80여명이 북한군 복장으로 위장해 초계리를 출발하였다. 유격대는 북한군 군단사령부로 이어지는 제1, 제2 제3초소를 무사히 통과하였으나 제4초소에서 교전이 벌어져 북한군 초소병 11명을 사살하고 적의 추격을 피해 내창도리로 철수하였다. 유격대는 내창도리에서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22시 초계리로 돌아와 철수 준비를 마치고 구릉령을 넘어 다음날(22일) 12시경 칠발골봉에 도착하였다.

이후 유격대는 2월 24일 갈천리 부락 위원장집에 숙영중인 북한군 통신병 7명을 습격해 정보를 획득하였으며, 3월 1일에는 점봉산 북방계곡의 필네부락에서 내무서원 3명을 생포하기도 했다. 또한 3월 2일에는 군량현 내무서를 습격하기도 했다. 이 무렵 백골병단의 유격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됨에 따라 북한군의 수색활동도 강화되었다. 백골병단은 도처에서 적의 수색대와 교전하면서 1~2명씩의 병력손실을 당했으며, 식량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아와도 싸워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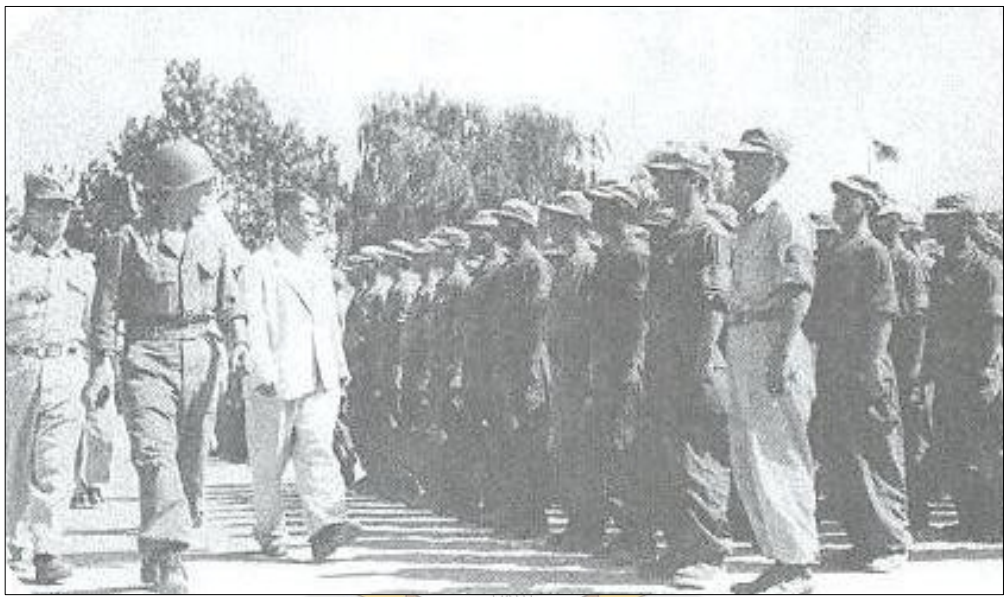
유격대는 20여 일간 적으로부터 추격을 받으며 계속 남하해 3월 24일 현리 남쪽 계곡에 도착한 후 약 5일간 숙영하였다. 이곳에서 유격대는 철수를 위한 지형정찰을 실시하던 중 우연히 국군 제3연대 수색대를 만나 감격적으로 귀환할 수 있었다. 이후 백골병단은 강릉의 육군 전방사령부로 이동한 후 동해안의 육군 을지 제1병단에 흡수되었다.[8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② 육군 을지병단

육군본부는 결사유격대 편성과는 별도로 작전참모부 심리전과 주관하에 철수작전시 북한지역에서 서해안과 동해안으로 탈출하여 자생적으로 유격활동을 전개하던 무장치안대, 반공청년단의 조직을 체계화하고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형태로 을지병단이라는 이름의 유격대를 편성하였다.[88]

먼저 육군본부는 동부전선의 국군 작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해안 지역에서 활동할 을지 제1병단을 창설하였다. 그러나 동해 연안에는 무장치안대나 피난민들이 피신할 수 있는 도서가 없어 함경도와 강원 북부에서 활동하던 무장치안대와 피난민들의 대부분이 1·4후퇴와 함께 대구, 부산 방면으로 월남하여 유격대를



유격대원들을 시찰하는 국방부 차관

편성할 인적 자원이 부족하였다.

이때 육본 작전국 심리전과의 박창암(朴蒼岩) 소령은 적지에서 육군 결사유격대(백골병단)가 복귀하자 이들과 지역내 치안대원, 청년조직 등을 통합하여 동해안 유격사령부로 발전시키려고 하였으나 작전통제권이 미 제8군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리고 육군본부는 을지 제1병단에 이어 1951년 3월 27일에 강화도에서 서해안 도서를 중심으로 활동 중인 자생유격대 조직과 청년들을 규합하여 을지 제2병단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을지 제2병단은 창설된 그 다음날(3월 28일) 앞서 백령도에 창설되어 활동 중인 미 제8군의 표부대(Leopard부대 : 豹部隊)의 작전통제를 받게 되었다. 이때 제2병단은 차동준(車東俊) 소령의 지휘하에 을지 제21, 제22, 제23, 제25, 제26특별연대로 편성되었다.

병단은 기초훈련을 마친 다음 연백군 및 개풍군 일대를 작전지역으로 선정하고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이에 당황한 북한군은 병단의 후방 지역교란을 우려하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전방에 배치된 2개 전투사단을 황해도 해안지역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병단의 활동은 미 제8군으로부터 극찬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휘 및 보급문제로 표부대와 마찰을 빚기도 하여 지휘관이 을지 제22연대장이던 이현서(李鉉瑞)로 교체되었고, 또 부대도 3개 연대로 축소 개편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자 육군본부는 유격대의 지휘통제와 군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을지병단을 미 제8군에 인계하였다.[89]

그 밖에도 같은 시기에 국군 제1사단은 사단 직속의 제5816부대를 강화도에서 잠정 편성하여 운영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한강 북쪽의 개성까지 정찰 및 기습작전을 펼쳐 사단의 임무수행에 일조하였다.

⑵ 유엔군 통제 유격부대

미 제8군은 유격대가 적 후방지역에서 공공연한 전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제한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1951년 1월 15일 미 제8군 작전참모부 예하 기타 업무처에 유격대 업무를 관장하는 지구전과를 신설한 다음 유격대의 조직에 착수하였다.

우선 미 제8군은 1951년 2월 15일에 부산 동래에서 베이커 기지(Baker Section)를 창설하였다. 이는 장차 예상되는 유엔군의 반격작전과 연관하여 공수 특수임무부대를 적 후방지역에 투입시켜 적의 병력, 물자 및 병참선 파괴 활동을 전개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당시 대구에 집결해 있던 방위 사관후보생 중에서 대원들을 선발하여 공수 및 특수전 훈련을 교육시킨 후 제1기생을 배출하였다.[90]

다음으로 서해안에서 활동 중인 자생유격대를 통제하기 위하여 1951년 2월 15일 백령도(白翎島)에 윌리엄 에이블(William Able) 기지를 창설하였다. 백령도 기지의 지휘관은 버크[91] 소령이었다. 초기에는 사령관 외에 작전과 통신을 지원하는 장교가 있었을 뿐이었으나 점차 정보·훈련·특수임무 등을 담당하는 위관급 장교와 행정·보급·통신·취사 등을 담당하는 사병 25명이 파견되었다. 이들이 산하의 유격대를 통제하고 지원했다. 이 기지는 3월에 표(Leopard)부대로 공식 명명되었으며, 4월까지 무장치안대를 유격연대로 개편하고 '동키부대(Donkey)'라는 명칭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을 부여하였다.[92]


유격대가 노획한 무기들

동키부대는 6월 말 15개 연대로 증편되어 평안북도에서 황해도까지 전 서해안 지역의 도서를 중심으로 해안과 내륙으로 침투하여 작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유격대 창설 초기 각 기지 사령부 예하 유격대는 일련의 '연대급' 부대로 편성되었다. 부대 규모는 부대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적을 기만하기 위해 과장되게 편제했으나 규모가 있는 부대의 경우 대대 병력 수준이었다. 동키부대의 각 유격대 규모는 소부대인 경우, 270명으로부터 시작해서 470명, 670명, 870명 단위로 편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동키 제5, 8, 9, 21부대 등은 270명 규모이고, 제3, 10부대는 470명 정도, 제7, 13부대는 670명 규모, 제4부대와 제11부대는 890명 등이었다. 그러나 동키 제16부대는 143명에 불과했다. 각 유격대의 규모는 전적으로 지휘관의 통솔능력에 따라 달랐다. 미군 장교는 유격대를 미군 보병중대보다 규모가 컸으나 대대보다 작았다고 회고했다.[9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각 유격대는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의 무장치안대 조직을 기반으로 편성되었다. 부대 수가 많았던 까닭은 같은 고향사람끼리 편제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즉 황해도 출신의 동키부대는 제1(신천), 제2(은율), 제3~4(장연), 제7(은율군 수월), 제8, 10(안악), 제11(옹진), 제13(신천) 부대 등이고, 평안남도 출신 부대는 동키 제9부대였으며, 평안북도 출신의 동키부대는 제14, 제15부대였다. 각 부대는 자신들의 고향을 작전지역으로 삼았다. 그 이유는 "어느 산골짜기에 동굴이 있고, 어느 냇가에 알맞은 은신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대원 속에 잠입할 첩자의 식별에 유리했기 때문이었다.[94]

유격대원은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등 북한지역에서 피난을 나온 반공청년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지 주민과 남한 출신들도 상당수 모집되었다.[95] 유격대원들은 의무적인 군대복무를 위해 징병되거나 고용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대원들의 입대배경은 다양했다. 이렇게 모집된 유격대원들은 15일부터 1개월 정도 전투훈련을 받았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4 절 분석 및 교훈

리퍼 작전과 킬러 작전 이후 미 제8군사령관의 최대 관심사항은 철의 삼각지대로 계속적인 진출을 보장할 수 있고 또 적의 공세준비가 명백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양호한 방어진지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지형을 점령하는 것이었다. 제8군사령관은 38도선 북쪽 3.2~16㎞에 위치한 고지들을 연결한 캔사스선을 선정하고 러기드 작전을 수행하였다. 이는 협상에 의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했던 미국정부의 방침에 따른 조치이기도 했다. 미국정부는 전처럼 북한 전 지역을 목표로 하는 북진작전은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단순히 전술적 목적을 위하여 38도선을 넘고 안넘고는 유엔군사령관과 제8군사령관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즉, 38도선을 약간 넘어서는 정도의 군사작전은 적과의 협상을 성사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리지웨이 장군의 후임으로 제8군사령관에 임명된 밴플리트 장군도 전임 사령관과 같은 유형의 전투지휘관이었다. 그는 취임사에서 “중공군이 공격해 오면 물러나고 멈추면 반격해 나가는 식의 전투는 이제 청산되어야 하며 아군은 수세가 아닌 공세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듯이 공격 제일주의를 지향했다.

밴플리트 제8군사령관은 부임 후 첫 번째 작전으로 적이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호언장담하는 철의 삼각지대를 완전히 장악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이에 더하여 그는 화천호에서부터 간성으로 이어지는 선을 확보하여 주요 보급선인 인제-간성간 도로를 확보하고자 했다.

반면에 공산군은 4월 7일 방어배치를 조정하고 38선 일대에서 저지와 반격을 서로 결합하는 전법으로 북진하는 유엔군을 타격하기로 전술을 전환하였다. 나아가 평더화이는 4월 12~17일 금천-삭녕-문혜리-산양리 선을 최후 저지선으로 선정하고 유엔군을 유인하여 4월 하순에 총공세를 개시한다는 작전계획을 수립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예하부대에 하달하였다.

이 시기 유엔군과 공산군 양측은 상대방의 작전과 전술에 대해 어느 정도 간파하고 있었다. 중공군은 유엔군이 병력보충을 제대로 못해 매우 피로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캔사스선을 넘어 철의 삼각지대로 공격할 것임을 예견하고 있었으며, 유엔군측은 중공군의 공세가 곧 있을 것을 예측하였으나 그러한 공세는 유엔군과 국군이 충분히 격퇴시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였다. 결국 양측의 작전구상은 4월 21~22일 유엔군의 공격과 중공군의 공세로 현실화되었다.

한편 밴플리트 제8군사령관은 1948년 그리스 미군사고문단장을 지내면서 그리스 공산 게릴라들을 소탕하는 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대비정규전에도 탁월한 지휘력을 발휘한 인물이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후방지역의 게릴라들을 소탕하기 위한 작전에 주력하였다. 또한 제8군사령관은 적 후방지역의 부대와 병참시설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파괴·교란하여 적의 작전에 혼란을 초래할 목적으로 국군과 유엔군이 통제하는 유격대를 적극 활용하였다. 대비정규전과 유격대 활동은 유엔군 후방지역의 안정화와 공산군 후방지역의 교란 및 정보획득이라는 결과로 아군의 정규작전에 기여한 바가 컸다.

대비정규전과 유격전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과 평가를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쟁 이전부터 호남지역은 여순 10·19사건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좌익세력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지역이었다. 비록 1950년 3월을 기점으로 정부의 대대적인 좌익 척결 방침에 따라 그 세력이 상당히 축소되었지만 지리산을 중심으로 약 200여 명의 게릴라들이 활동하면서 북한의 남침에 호응하였다. 이들 토착 좌익세력은 북한이 호남지역을 점령하자 재부상하여 각종 좌익 단체의 핵심세력으로 등장하였으며, 북한군 퇴각 시에는 북한군 패잔병과 더불어 게릴라부대의 중심 세력으로 전환하였다.

호남지구에는 지리산, 불갑산, 장흥 유치일대, 백아산 등의 산악지대가 게릴라들의 근거지가 되었으며, 이들 게릴라들은 호남지구 각처에서 국군의 보급로차단·식량약탈·지서습격·차량기습·통신망 절단 및 살인, 방화 등의 만행을 저질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에 국군은 9월 25일 남한지역내의 게릴라 토벌을 목적으로 제11사단을 창설했다. 제11사단의 게릴라 토벌작전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되는데, 그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기 작전은 1950년 10월 1일~10월 25일까지로, 특징은 본격적인 게릴라 토벌작전에 앞서 준비 단계로써 사단 주력의 호남지구 집결, 수복지구에 대한 행정기능 복구, 적정 수집 등이 이루어지고, 주요 보급로 확보를 위한 소규모 게릴라 토벌작전이 수행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의 작전 성과는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본격적인 토벌작전을 위해 주요 거점을 확보해 나갔다는 점에서 작전상의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제2기 작전은 1950년 10월 26일~12월 31일까지로, 산간벽지에 있는 민간인들을 소개하고 게릴라의 보급로를 차단해 적을 기아 상태에 몰아넣는다는 '견벽청야' 작전 개념에 입각해 대규모의 소탕작전이 전개되어 상당수의 게릴라들을 사살하거나 생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특징을 보였다. 제3기 작전은 1951년 1월 1일~4월 6일까지로, 특징은 게릴라 지도급 인물의 검거·사살과 근거지의 완전한 파괴를 통해 게릴라의 재집결을 봉쇄한다는 목표하에 공군까지 동원된 대규모의 토벌작전이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1950년 10월 1일부터 1951년 4월 6일까지 3단계로 진행된 제11사단의 게릴라 토벌작전은 게릴라와 주민들을 분리시켜 게릴라의 조직적인 활동을 분쇄함으로써 후방지역의 치안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제11사단의 토벌작전 성공이 곧 호남지역에서의 완전한 게릴라 축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초기에 게릴라의 기세를 꺾었다는 점과 작전상의 성과와 오류가 이후 전개되는 게릴라 토벌작전의 중요한 교훈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유격전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특징을 지적할 수 있다. 우선 유격전에서 지휘관의 탁월한 통솔과 지도력은 유격부대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성공 요소라는 점이다. 백골병단은 외부 후원의 결핍과 주민지원의 부족, 그리고 험준한 지형과 혹한 등 어려운 작전환경을 극복하고 유격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들의 작전활동은 적의 후방을 교란하고 적정을 수집하여 아군의 정규작전에 기여한다는 유격부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것이었다. 또한 적의 추격부대와 포위망을 뚫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고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은 지휘관의 탁월한 통솔과 지도력의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 요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활동했던 유격부대에는 몇 가지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도 갖고 있었다. 첫째, 유격전부대는 비정규전을 지휘, 통제,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구에 의해 운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백골병단은 비정규전을 수행할 수 있는 특수기구에 의하지 않고 변칙적인 운용을 함으로써 유격부대의 작전을 지휘, 통제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원이 불가능하였다. 또한 아군과 긴밀히 연락을 유지할 수 있는 통신대책이 중도에 끊어짐으로써 유격부대는 고립무원의 상태로 악전고투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 유격부대 철수시 북한의 후방지역 경계부대가 사단 규모로 투입되었던 사실은 전선을 지원할 수 있었던 적 병력이 타목적을 위해 전환 운용되었던 사실을 지적하는 것으로서 사전에 지상군부대 작전과 밀접히 협조되어 지원되었더라면 작전의 효과를 크게 증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셋째, 유격부대 요원은 고도의 교육훈련으로 단련되었을 때 보다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백골병단의 구성원은 반공정신으로 무장하여 강한 저항의지를 소유한 청년들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정신을 더욱 강인하게 단련시키며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교육훈련인데, 백골병단 구성원들은 교육훈련의 부족으로 최초 침투단계에서 43%에 이르는 많은 희생자와 낙오자를 발생하게 했다.

이러한 초기의 유격대 활동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이후 미 제8군사령부에서 조직적으로 유격대를 양성하고 이를 활용하면서 점차 해결되어 나갔으며, 유격대 조직도 계속해서 확대되었다. 공산군 후방지역에 대한 유격대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유격대원의 애국심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며, 또 유격대원이 북한지역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지 주민들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집필 : 박동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주(註)

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1977, 395쪽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 편)』, 1985, 146~148쪽.

2)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박동구)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2005, 408~409쪽.

3)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위의 책, 410쪽.

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임진강전투(중공군의 4월 공세)』, 1991, 30~33쪽.

5) James F. Schnabel, Robert J. Watson, The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Joint Cheifs Staff: 197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역), 『 美合同參謀本部史 韓國戰爭』(상), 1990, 365~366쪽.

6) 위의 책, 367쪽.

7) 모스맨 지음, 백선진 옮김, 『밀물과 썰물』, 대륙연구소 출판부, 1995, 381쪽.

8) 유타(Utah)선은 전곡(임진강 서쪽)-금학산-광덕산-사창리를 잇는 선이었으며, 와이오밍(Wyoming)선은 전곡(임진강 서쪽)-철원-김화-화천저수지 서쪽을 잇는 선이었다.

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임진강전투(중공군의 4월 공세)』, 1991, 24~26쪽.

10) 제1군단장은 1951년 4월 15일부로 백선엽 준장이 소장으로 진급하여 신임 군단장에 취임하였다.

11) 최용호・김병륜 공저, 『그때 그날』, 삼우사, 2003, 220~221쪽.

12) 모스맨 지음, 백선진 옮김, 『밀물과 썰물』, 대륙연구소 출판부, 1995, 437~438쪽.

13)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409쪽.

14) 모스맨 지음, 앞의 책, 439쪽.

15) 모스맨 지음, 위의 책, 441쪽.

16)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앞의 책, 410쪽 ; 모스맨 지음, 위의 책, 441쪽.

17) 모스맨 지음, 위의 책, 442~445쪽.

1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5권, 661쪽.

1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670쪽.

20) Hq. EUSAK, Command Report, Narrative, April 1951, 군사편찬연구소 사료번호 HD02988 ; Hq. IX Corps, Command Report, Narrative, April 1951, 군사편찬연구소 사료번호 HD02081.

21) 모스맨 지음, 앞의 책, 448~449쪽.

22) 모스맨 지음, 위의 책, 450쪽.

23) 모스맨 지음, 위의 책, 464쪽.

24)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앞의 책, 472~474쪽.

25)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중), 1996, 476~478쪽.

26)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22), 1987, 60쪽.

27)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1995, 275~276쪽.

28) 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 『광주전남현대사』2, 1991, 실천문학사, 213~215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9) 당시 점령지역에서의 당조직 재건방식은 북로당을 중심으로 남한 내의 지역당을 복구 흡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행정구역에 따라 중앙(서울), 도, 시, 군, 면 순서로 당위원회를 조직해 나갔다. 그리고 당원 확충 방식은 신규 당원의 확보보다는 이전에 당 활동을 했던 남로당원들을 재심사해 등록시켰다(김남식, 『남로당연구』1, 1984, 돌베개, 447쪽).

30) 조선노동당출판사, 『조선노동당 역사교재』, 1964, 257쪽. 8월 16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제53차 회의에서 점령지역에서의 노동단체 복구와 노동당 조직의 강화를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당조직이 면단위까지 급속히 확대되었다(같은책, 299~301쪽).

31) 역사문제연구소, 「남로당 지방당 조직의 활동상을 밝힌다」, 『역사비평』 겨울호, 1988, 337쪽.

32) 박영발은 일제 때 토건노동자로 있다가 해방 후 전평 산하 토건노조위원장, 전평 서울평의회 조직부장, 서울시당 노동부부장, 전평 조직부부장, 남로당 중앙당 노동부 지도원을 거쳐 월북했다. 그는 박헌영의 추천을 받아 모스크바 고급당학교에 입교해 3년간의 과정을 마친 후 6·25전쟁 때 전남도당책으로 파견되었다. 그는 뛰어난 공산주의 이론의 소유자로 공산주의 이론상으로는 이현상도 그를 당할 수 없었다고 한다.

33) 전남도당 조직부장에는 김홍배, 선전선동부장에는 선동기, 노동부장에는 오금기, 간부부장에는 정규석, 농민부장에는 이방휴 등이었다.

34) 전북도당 산하 4도(전북, 전남, 경남, 충남) 연락책을 맡았던 김문현은 전라북도 남원군의 경우 7월 20일 각 읍면에서 1명씩 차출되어 18명이 전주에 있던 도당학교에 입교해 일주일간 강습을 받았다고 증언한다(역사문제연구소, 앞의 글, 336~337쪽).

35) 「남반부 해방지역의 군·면·리(동) 인민위원회 선거 실시에 관한 정령」, 『민주노선』, 1950. 7. 15.

36) 중앙선거지도부 성원은 김원봉, 장순명, 김응기, 이종갑, 현훈, 정칠성, 남성민, 이환기, 방학세 등이었다. 여기서 책임자는 김원봉이었으나 실권은 장순명(전 북로당 부위원장)과 방학세(내무성 정치보위국장)가 쥐고 있었다(김남식, 앞의 책, 448쪽).

37)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25,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1981, 302~303쪽 ; 김남식, 위의 책, 448쪽.

38) 서기장이란 실권을 행사하는 직책인데 인민위원회가 공산화작업을 직접 하자면 실무에 경험이 있는 자가 이 자리를 맡아보아야만 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지역 출신자가 맡았고 서기장 또는 부위원장은 북로당계 출신이 맡았다(김남식, 위의 책, 448~449쪽).

39) 전라남도지편찬위원회, 『전라남도지』 제9권, 1993, 142쪽.

40) 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 앞의 책, 215쪽.

41) 光州廣域市史編纂委員會, 『光州市史』第三卷, 1995, 광주광역시, 178~179쪽.

42) 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 앞의 책, 222쪽.

43) 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 위의 책, 229쪽.

44) 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 위의 책, 239쪽.

45) 황점택은 당시 26세로 해방 후 좌익운동에 투신해 민청 영암위원장을 거쳐 남로당 불법화 이후 유치 일대에서 빨치산 활동을 하다가 전쟁을 맞았다. 그는 국군에 의해 영암이 수복된 이후 금정면 국사봉을 중심으로 형성된 게릴라의 사령관을 맡아 1952년까지 활동하였다.

46) 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 앞의 책, 259~260쪽.

47) 문종식은 북한군 후퇴시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출신성분과 기존 활동이 문제되어 좌익계에 의해 피살당했다.

48) 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 앞의 책, 277쪽.

49) 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 위의 책, 284쪽.

50) 박갑출은 화순탄광 노조간부 출신으로 1950년 11월 도당 조직부장이 되었다가 후에 도당 부위원장이 되어 백아산으로 들어가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그는 1955년 3월 3일 최후의 전남도당 책임자로서 화순군 동면에서 처형되었다.

51) 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 앞의 책, 291~292쪽.

52) 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 위의 책, 297쪽.

53) 북한은 민청을 구질서 타파와 대중의 선봉대로 인식하였다. 즉, 여러 대중단체들 가운데 혁명을 위한 폭력적 힘의 원천이며, 투쟁의 선봉대로 간주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당위원회가 복구된 곳이면 예외 없이 민청을 조직하였다.

54) 농민동맹에 가입한 농민은 전라북도가 18세 이상 농민 762,546명 가운데 591,411명, 전라남도가 18세 이상 농민 508,482명 가운데 434,149명이었다(『농민동맹중앙위원회회의록 1950년도』, 권영진, 앞의 논문, 52쪽 재인용).

55) 부녀동맹은 여성들에 대한 정치교양사업을 통해 전쟁과 혁명을 위한 당의 정책에 여성들을 조직동원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특히 부녀동맹에 부여된 중요한 사업의 하나는 북한군의 식사와 세탁을 담당하고 전선 원호품을 수집하는 것이었다(『해방일보』, 1950. 9. 3).

56) 「6월 26일 행한 김일성의 방송연설」, 『조선중앙년감 1951~1952』, 15쪽 ; 민족보위성 문화선전국, 「남반부의 노동당 전체당원들과 전체인민들에게 호소한 박헌영 선생의 방송연설」, 『선전원수책 16호』, 1950. 7. 1.

57) 대검찰청 공안부, 『좌익사건실록』 10권, 331~497쪽.

58) 이 지시문에는 검거 대상자를 친미분자, 민족반역자, 친일분자로 나누고, 친미분자의 범위를 국회의원, 남한정부각료, 도지사, 경찰서장, 악질경찰, 재판소 판사·검사, 우익단체 책임자 등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민족반역자로는 테러단체장, 악질테러단원, 미국을 적극 경제적으로 원조한 자로, 친일분자로는 일제시 총독부 책임자, 도책임자, 도평의원, 군급책임자, 검사, 판사, 일본제국주의를 경제적으로 적극 원조하는 자 등으로 규정하였다(『군·면·리위원 선거사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제망 조직을 강화할 데 대한 지시』, 권영진, 「한국전쟁 당시 북한의 남한 점령지역 정책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90, 82쪽 재인용).

59) 대검찰청 공안부, 『좌익사건실록』 제11권, 1975, 50~64쪽; 전라남도지편찬위원회, 『전라남도지』 제9권, 1993, pp.143~144; 『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 앞의 책, 212~296쪽 참조.

60) 김남식, 앞의 책, 454~455쪽.

61) 「모택동이 필로포프동지에게」(1950. 10. 2), 외무부, 『한국전쟁관련 소련비밀외교문서』 제3권, 1994(미간행).

62) 북경중앙문헌출판사, 『건국이래 모택동문고』(1), 1987, 547쪽, 양영조, 「한국전쟁기 북한 게릴라의 활동과 성격」 재인용.

63) 김남식, 『실록 남로당』, 1979, 한국승공연구원, 529~530쪽.

64) 김일성 「조국의 촌토를 피로써 사수하자」 『김일성전집』 12권, 340~347쪽.

65) 김남식, 『실록 남로당』, 1979, 543~544쪽.

66) 육군본부 정보참모부, 『게릴라연혁』, 1971, 271쪽.

6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1989, 143쪽.

68)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1945~1960)』, 1988, 154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9)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59), 1987, 336쪽, 573쪽, 922쪽.

7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1945~1960)』, 1988, 169쪽.

71)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59), 171~174쪽.

72) KMAG, Periodic Intelligence Report, No. 159, 1951. 1. 7.

73) KMAG, Periodic Intelligence Report, No. 168, 1951. 1. 16.

74) KMAG, Periodic Intelligence Report, No. 176, 1951. 1. 24. 이밖에 27일에는 회문산에 1590명(무장 740명, 비무장 850명) 등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각 지역에 1,000명 이상 단위의 게릴라들이 집결하고 있다는 보고가 수시로 접수되고 있었다(KMAG, Periodic Intelligence Report, No. 181, 1951. 1. 29).

75) 당시 폭격으로 게릴라의 근거지인 5개 마을이 100%, 5개 마을이 50%, 1개 마을이 75% 파괴되었으며, 1개 게릴라 야전병원이 파괴되었다(KMAG, Periodic Intelligence Report, No. 177, 1951. 1. 25).

76) 1월 31일 오후 2시 30분에 감행된 공군 폭격으로 게릴라 319명이 사살되었으며, 항공 폭격 이후 감행된 지상작전으로 110명의 게릴라를 추가로 사살했다(KMAG, Periodic Intelligence Report, No. 186, 1951. 2. 3).

77) 제9연대장은 1951년 1월 23일부로 김희준 대령에서 오익경 대령으로 바뀌었다(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1949~1960)』, 168쪽).

78) 국군 제11사단, 『화랑약사』, 1975, 86쪽. ; 2월 8일~15일까지 제20연대는 약 500~600명의 게릴라와 교전해 557명을 사살하고, 2명을 생포했다고 보고했다(KMAG, Periodic Intelligence Report, No. 194, 1951. 2. 11). 그러나 이러한 전과보고는 다소 과장된 감이 있다.

79) 1951년 3월 25일 현재 호남지역에는 약 4,500명의 무장세력과 약 5,500명의 비무장 세력 등 총 10,000여 명의 게릴라가 활동하고 있었다(KMAG, Periodic Intelligence Report, No. 236, 1951. 3. 25).

8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1949~1960)』, 176~183쪽

8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5권, 613쪽.

82) 육군본부, 『게릴라연혁』, 322쪽.

8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5권, 621쪽.

84) 위의 책, 618~619쪽.

85) 위의 책, 631쪽.

86) 육군본부, 『한국전쟁과 유격전』, 1994, 87쪽.

87) 위의 책, 94~95쪽.

88) 위의 책, 148쪽.

89) 위의 책, 152쪽.

90) 위의 책, 139쪽.

91) 강기천, 『나의 인생여로』, 1995, 계몽사.

92) 육군본부, 『한국전쟁과 유격전』, 1994, 145쪽.

9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의 유격전사』, 154쪽.

94) 위의 책, 155쪽.

95) 김용서, 『당나귀』 6, 1953, 65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6 장 공산군의 제5차 공세와 유엔군의 재반격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1 절	개요
제 2 절	중공군의 4월 공세와 유엔군의 방어
제 3 절	중공군의 5월 공세와 유엔군의 방어
제 4 절	분석 및 교훈

제 1 절 개 요

1. 전장상황 요약

중공군의 제5차 공세와 유엔군의 재반격은 유엔군이 중공군의 제4차 공세를 저지하고 반격작전으로 전환하여 철원-평강-김화 지역으로 공격을 계속중이던 1951년 4월 22일부터 1951년 6월 초까지의 기간중에 공산군측이 3개 병단 15개 군(군단) 47개 사단[1]규모의 병력을 투입하여 두 차례에 걸친 대규모 공세를 실시하고, 이에 맞서 국군과 유엔군이 6개 군단 21개 사단을 동원하여 공산군측의 공세를 저지하고 재반격을 실시한 6·25전쟁 기간중의 최대규모 격돌을 의미한다.

'중공군의 춘계공세'로도 불리는 제5차 공세는 계속되는 유엔군의 반격작전에 맞서 중공군이 다시 서울을 점령함으로써 공산군의 군사적 우위를 과시하여 유엔군의 전쟁의지를 포기하도록 하는 한편, 휴전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실시한 대규모 작전이었다.

제5차 공세 기간 동안 중공군과 북한군은 연합작전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중공군이 주공을, 그리고 북한군이 조공을 각각 담당하였다. 공산군이 사용한 대표적인 전술은 주로 돌파작전과 원거리 양익 포위작전이었으며, 적극적인 게릴라전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현리지역의 포위는 공산군이 적용한 과감한 침투작전과 후방차단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공산군은 작전지역을 동부와 서부지역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별로 병력 섬멸에 주안을 두고 포위작전 위주의 공격을 단행하였다. 특히 공산군측의 작전은 서부전선은 물론이고 동부전선에서도 인해전술을 통해 광대한 정면을 돌파하는 공세적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제5차 공세를 통해 중공군과 북한군은 1951년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된 4월 공세 시에는 서울 점령을 목표로 중서부전선에 주력을 집중시켜 대공세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펼침으로써 서울 북방의 구파발에서부터 강원도 홍천을 연결하는 선까지 진출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1951년 5월 16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된 5월 공세 시에는 국군 주력을 섬멸하는 데 목표를 두고 동부전선에 주력을 집중시켜 홍천-하진부리-강릉을 연하는 선에 대규모의 돌파구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중공군이 6·25전쟁에 참전한 이후 최대 규모이면서 최후의 공세작전이었던 제5차 공세는 서울을 반드시 고수한다는 국군과 유엔군의 확고한 의지에 의해 서울-홍천-하진부리-양양을 연하는 선 이북지역에서 저지되었고, 이어진 국군 및 유엔군의 반격으로 6월 중순경 임진강 하구-연천-철원-김화-화천-간성을 연하는 선의 북방에 새로운 방어선이 형성됨으로써 전선은 전쟁 이전의 38도선 부근으로 회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공군 지도부가 "지구전(持久戰)과 평화회담을 통해 전쟁을 마무리한다"는 새로운 전쟁지도 방침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유엔군도 "6·25전쟁의 해결은 유엔 기구를 통해 추구하되 적절한 휴전협정으로 적대행위를 종결하고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38도선까지 미칠 수 있도록 경계선을 38도선 북쪽에 설정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다음 이러한 당면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침략자에 대해 응징을 가한다"는 새로운 정책을 확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전쟁의 양상은 개전 1년 만에 '일면 전투와 일면 협상'이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작전지역의 특징

중공군의 제5차 공세와 이에 따른 유엔군의 방어 및 반격은 주로 임진강 하구-문산-전곡-운천-화천-양구-간성을 연하는 선의 남북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 지역은 한반도의 중앙지역으로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동고서저의 지세를 이루고 있으며, 작전기간 중 기온은 최저 3.3℃에서 최고 27℃ 수준이었다. 작전지역은 전반적으로 공자에게 불리하고 방자에게 유리한 지형적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이들 작전지역의 특징을 크게 4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서부지역

서부 작전지역은 좌측의 김포반도와 1번 국도인 개성-문산-서울 축선 그리고 3번 국도인 연천-동두천-의정부를 주 축선으로 하는 지역이다.

지역내 주요 철도 및 도로망으로는 경의선 및 경원선 철도와 1번 및 3번 국도가 남북으로 잘 발달되어 있었고, 이를 중심으로 주요 전투가 전개되었다. 그 외에 개성에서 적성-법원리-벽제에 이르는 도로와 횡적 도로망으로 문산-법원리-동두천에 이르는 도로와 함께 고양-벽제-의정부에 이르는 도로가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어 차량 및 전차 기동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도로 이외의 지역은 고지 또는 논으로 형성되어 있어 전차 및 차량 기동이 어려웠다. 주요 도시 및 마을은 좌측에 1번 국도를 따라 북쪽으로부터 개성, 문산, 서울이 위치해 있고, 중앙지역에는 적성, 법원리가 위치해 있으며, 우측지역에는 3번도로를 따라 연천, 전곡, 동두천, 의정부 등이 위치해 있었다. 주요 고지로는 임진강 북쪽에 위치한 개성 고지군과 함께 임진강 남쪽에 파평산과 감악산 등이 위치해 있었으며, 후방지역의 주요 고지로는 월롱산과 서울북방의 고지군이 피아의 기동을 제한함과 동시에 감제관측에 유리한 지점으로 활용될 수 있었다. 주요 하천으로는 북쪽에 예성강과 임진강이, 지역의 좌측에 한강이 그리고 지역의 우측에 한탄강과 백석천 등이 종횡으로 흐르고 있어 피아의 기동에 제한을 주고 있었다. 이 지역의 당시 기온은 약 5~26℃ 정도로 피아의 작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중서부지역

중서부지역은 연천, 전곡, 의정부와 평강, 철원, 포천, 구리, 양평 등 주요 거점 도시를 포함하고 있으며, 지역 내의 지형은 동측의 광덕산 고지군과 중앙의 고대산, 금학산 고지군 사이에 서울-원산을 연결하는 3번 도로, 포천-의정부를 연결하는 43번 도로, 일동-서파-퇴계원-서울을 연결하는 47번 도로가 남북으로 잘 발달되어 있었고, 그 외에 철원평야와 함께 47, 56, 87, 372, 464번 도로망이 발달되어 있었다. 고지대의 경우 표고 400~800m의 고지군과 계곡이 어우러져 기복이

심하고 삼림이 울창한 반면 논과 밭이 산재해 있는 저지대는 표고 100~200m의 구릉지대로 기복이 완만하고 도로망이 발달되어 있었다. 작전지역 중에서 평강일대는 철원축선의 시발점이 되는 지역으로 공산군이 공격준비와 전방증원을 위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요충 지역이었다. 하천으로는 전방지역에 한탄강과 남대천이 후방지역에는 북한강이 흐르고 있었으며, 이 중 북한강은 양측의 작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지형지물이었다. 중공군의 5차 공세당시 이 지역의 기온은 개략적으로 4~27℃ 정도였고, 작전지역의 전방과 후방지역 간에는 1~3℃의 기온차가 있었으며 산악지대에서는 일교차가 심했다. 작전지역의 기온은 쌍방의 작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3) 중동부지역

이 지역은 태백산맥과 그 지맥인 광주산맥 등의 영향으로 1,000m 이상의 고지들이 종횡으로 연결된 험준한 산악지대로 계곡은 협소하고 경사도는 60도에 달했다. 책임지역 내 주요고지는 직경 15~30cm 정도의 소나무와 잡목 그리고 잡초와 칡넝쿨 등이 뒤섞여 우거져 있는 울창한 삼림지대였으며, 수목이 울창한데다 1951년 당시에는 도로망이 발달하지 않아 병력과 장비 모두 기동하기가 쉽지 않았다. 책임지역 내 하천의 유속은 빠르고, 강우시 하천의 깊이와 폭은 불시에 증가했다. 주요 하천인 북한강과 파로호는 양측의 기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소양강도 작전에 영향을 미쳤으나 부평리-남전리-인제 지역에서는 하폭이 50~100m, 수심은 1~2m로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도섭이 가능했다. 내린천은 창촌-현리-인제 지역에서는 하폭이 30~80m, 수심은 1~1.5m로 역시 도섭이 가능했다. 책임지역 내 도로망은 간성-인제-홍천-서울을 연하는 44번 도로가 북으로부터 동서로 이어져 있었다. 그리고 서울-원주-하진부리-강릉을 연결하는 도로가 남쪽지역에서 동서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화천-춘천-홍천을 잇는 5번 도로와 양구-춘천-가평간 46번 도로, 인제-현리-홍천간의 451번 도로가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도로가 굴곡과 함께 노면상태가 불량한 산악도로여서 차량

육군본부 군사편찬연구소

통행에 많은 제한이 있었다. 지역 내의 도시 및 인구 밀집지역으로는 좌측의 가평, 화천, 춘천과 함께 소양강변에 위치한 인제를 중심으로 북동쪽 7km 지점에 원통, 남동쪽 20km 지점에 현리가 각각 위치해 있었다. 아울러 현리 남동쪽 약 25km 지점에 창촌, 창촌 남동쪽 25km 지점에 하진부리가 있었으며, 하진부리 동쪽 15km 지점에 횡계리가 있었다. 이 지역의 춘계 날씨는 대체로 청명하고, 평균기온은 14℃ 정도이며 최고기온은 23.9℃, 최저기온은 5.1℃ 정도로서 밤과 낮의 일교차가 심하고 산악의 고지와 평지의 기온차이는 평균 3~4℃ 분포를 보였다. 1951년 중공군 춘계 공세 당시의 이 지역의 기상은 전반적으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는 가운데 아침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날이 많았다. 바람은 북서풍이 다소 강하게 불었으며, 기온은 16℃ 내외였으나 고지대에서는 통상 10℃ 내외로 떨어졌고, 강한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5℃ 미만이었다.

4) 동해안지역

동해안 지역은 태백산맥의 영향으로 대체로 서고동저의 지세를 갖추고 있었다. 즉 동부는 해안 및 150m 내외의 구릉지역이고 서부는 태백산맥을 연하여 심한 기복 및 1,000m 내외의 고지군으로 인해 급경사를 이루고 있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양양-주문진-강릉-옥계-삼척 등 해안 도시로 이어지는 해안선 일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이 험준한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리고 바다는 조수간만의 차이가 거의 없고 해안선 역시 굴곡이 많지 않아 단조로운 형상을 보이고 있었다. 지역 내의 주요 고지로는 해안선 서쪽 20~30km에서 동해안과 평행선을 이루며 남북으로 뻗은 태백산맥이 북한지역의 황룡산에서 시작하여 향로봉, 설악산, 오대산(五臺山, △1,563), 석병산(石屛山, △1,055), 두타산(頭陀山, △1,353), 태백산(太白山, △1,546) 등의 고지군을 형성하면서 작전지역을 영동과 영서지역으로 분할하고 있어 동서간의 교통을 크게 제한하였다. 지역 내에는 남강, 북천, 양양 남대천, 연곡천, 강릉 남대천 등의 하천과 함께 송지호, 청초호, 영랑호, 경포호 등의 호수가 산재해 있었다. 지역 내의 주요 작전로(作戰路)는

육군본부 군사편찬연구소

동해안을 따라 남북으로 뻗어있는 7번 도로가 종적으로 주축을 이루고, 횡적으로 양양-인제간 도로, 강릉-평창-원주간 도로가 동서를 연결하고 있었다. 이 도로들은 노폭이 좁고 굴곡이 심한데다가 지세마저 험준하여 기갑부대의 기동을 크게 제한하였으며, 특히 진부령과 대관령은 동서를 연결하는 주요 목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동해안 지역은 태백산맥으로 인하여 내륙과 단절된 별개의 전선을 형성하였으며, 지역 내에는 해안선과 연한 동해안 도로가 유일한 기동로였다. 그러나 이 도로는 태백산맥에서 동해로 향한 크고 작은 하천에 의해 잘리고 교량이 많아 군사적으로 큰 취약점을 안고 있었다. 험준한 산악으로 이루어진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게릴라와 같은 소규모 병력의 은밀한 침투는 유리하나 대부대 기동은 불리하였으며, 피아간에 관측 및 사계(射界)도 크게 제한되었다. 지역 내의 춘계기간 중 날씨는 대체로 청명하나 해안선 지역에서는 돌풍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춘계 기온은 최저 2.6℃에서 최고 20.6℃이며 주야간 온도차가 커 안개 일수가 많았다. 또한 산악지역은 4월까지 결빙이 지속되고 해빙과 결빙의 반복으로 도로상태가 나빠져 차량화 부대의 운용 및 보급 활동에 제한을 받았다.

이렇듯 동해안 지역은 횡격실 능선의 발달, 종적도로망의 제한, 협소한 기동공간 등으로 인해 공격보다는 방어에 유리한 지역으로, 특히 해상과 산악지역을 통한 특수전 부대의 침투 및 상륙에 유리한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2 절 중공군의 4월 공세와 유엔군의 방어

1. 개 요

미 행정부와 합참은 1951년 1월 하순 무렵 국군과 유엔군이 반격을 통해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함에 따라 한국 문제를 정치와 군사의 두 가지 노선, 즉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통일 독립국가의 건설,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침략 격퇴와 평화 회복을 통해 해결한다는 전쟁지도전략을 수립하였다. 새로운 전쟁지도전략의 개념은 다시 말해, 군사적으로 전쟁전의 현상을 확보한 후 휴전에 의거 전쟁을 해결하며, 통일국가 수립은 이후 정치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었다.[2)]

이에 따라 미 제8군 사령관 밴플리트(James A. Van Fleet) 중장은 38도선을 전술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임진강 남안-화천저수지-동해안의 양양을 연하는 캔사스선(Kansas Line) 점령을 계획하였다.[3)] 이후 계획대로 1951년 4월 초 캔사스선을 확보한 미 제8군사령관은 중부전선의 전략 전술적 요충지역인 철원-평강-김화 일대에 적이 병력과 보급품을 집결시켜 공격준비에 나서자,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다시 연천-고대산-와수리-화천저수지를 잇는 와이오밍선(Wyoming Line)에 대한 공격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목표선을 향해 진격을 개시한 미 제1군단과 제9군단이 4월 22일 오후 공산군의 강력한 저항으로 진출이 저지되자, 미 제8군사령관은 예하 부대에 공격을 중지하고 신속히 방어태세로 전환하도록 명령하였다.[4)]

반면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으로 후퇴를 거듭하던 공산군은 전황의 반전을 꾀하기 위해 병력을 증원하고 지휘체계를 정비하는 등 대규모 공세작전을 준비하였다. 이를 위해 중공인민지원군사령부는 북한군 제1군단을 추가로 편입받은 제19병단을 임진강 북쪽의 구화리-덕사리 선, 제3병단을 삭령-신탄리 선, 제9병단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철원-김화 선에 배치하였고, 북한군 전선사령부도 예하 제3군단과 제5군단을 양구-원통 선에 배치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산군은 그동안 열세를 보였던 화력과 기동력을 보강하는 한편 식량과 탄약 등 군수능력의 향상에 주력하였다.[5]

<표 6-1> 축선별 주요부대 배치

축선	구화리-덕사리	삭령-신탄리	철원-김화	양구-원통
병단	19	3	9	북한군
군(군단)	63, 64, 65, 북한군 1	12, 15, 60	20, 26, 27, 39, 40	3,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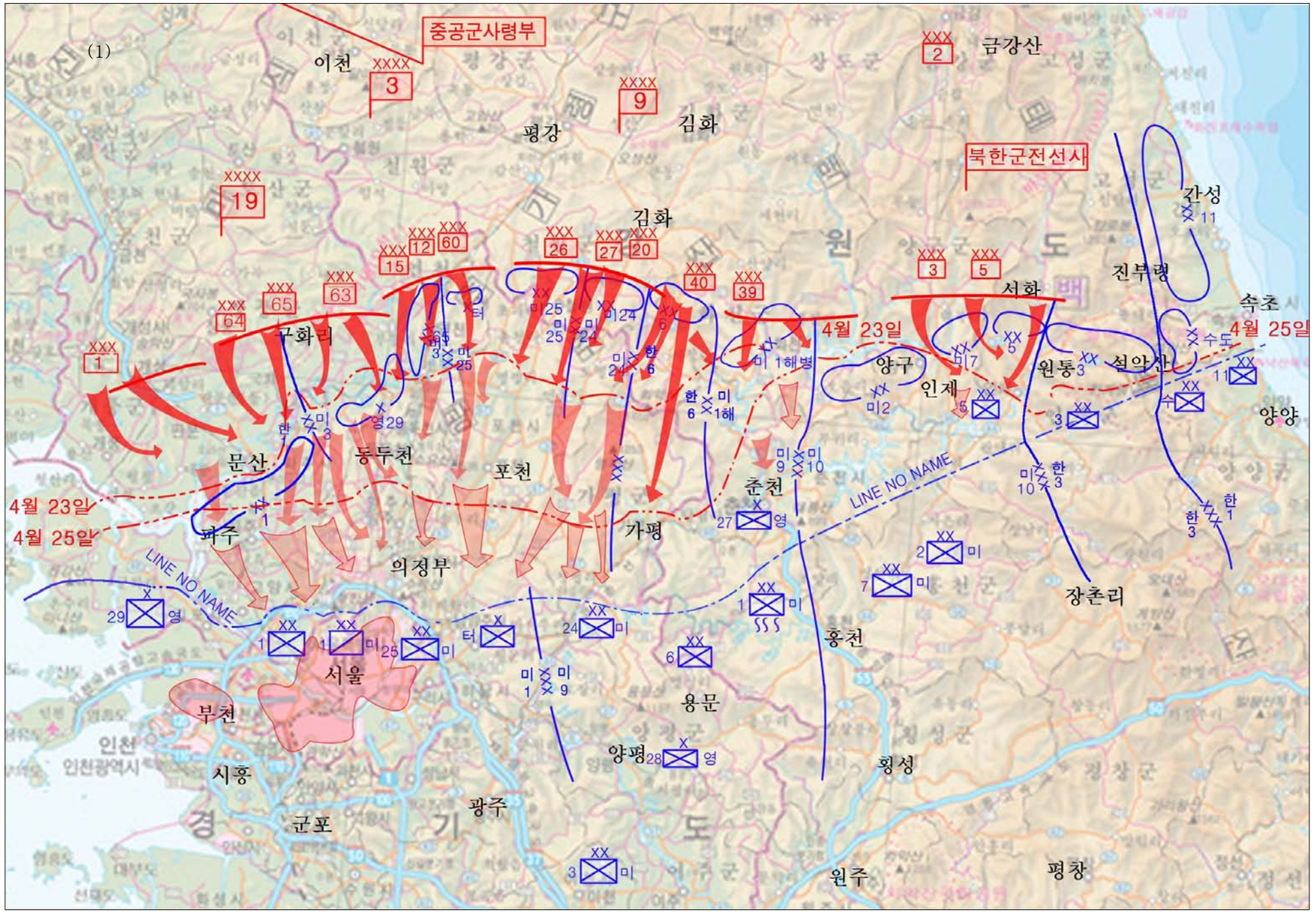
4월 초 중공군과 북한군은 제5차 군·당위원회 확대회의를 통해 제5차 공세의 개시를 결정하고 신속한 공격준비지시를 예하 부대에 하달하였다. 이때 조·중연합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는 대병력으로 서울을 포위하여 유엔군 주력을 격멸하고, 서울을 탈취하여 마오쩌둥(毛澤東)에게 노동절(May Day) 선물로 바치겠다고 호언하였다.[6] 그리고 공산군은 와이오밍선에 대한 공격으로 중동부전선이 돌출된 유엔군의 약점을 간파하였다.

조·중연합사령부의 공격준비 지시에 따라 4월 21일 오전 공격출발진지에 진입을 완료함으로써 공격준비를 마친 중공군과 북한군은 다음날인 4월 22일 해가 질 무렵 제5차 공세, 이른바 4월 공세를 개시하였다.[7] 이때 주공인 제19병단의 3개 군은 임진강 부근, 제3병단 3개 군은 연천 북쪽, 제9병단 5개 군은 김화 부근에서 미 제1군단의 좌우 및 정면을 공격하였다. 그리고 조공인 북한군 제3군단과 제5군단은 양구 남쪽의 미 제10군단과 인제 부근의 국군 제3군단을 공격하였다.[8]

공산군의 4월 공세에 직면한 유엔군은 서부 지역의 국군 제1사단이 파평산 일대에서, 영국군 제29여단이 설마리 일대에서 최대의 혈전을 펼쳤고, 중부 지역의 국군 제6사단이 사창리 일대에서 붕괴되는 대참사를 겪었다.[9] 그러나 공산군의 4월 공세는 유엔군의 강력한 방어와 중공군의 치명적인 한계였던 보급상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6-1> 중공군의 4월 공세(1951. 4. 22~30)



제한 등으로 인해 공세개시 약 일주일만인 5월 초에 종료됨으로써 공산군 최초 의도했던 서울을 탈취하고 유엔군 주력을 격멸하겠다는 작전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하였다.

2. 상황평가 및 의도

1) 공산군측의 상황평가 및 의도

(1) 작전 기도 및 방침

제3차 및 제4차 공세에서 전쟁 수행의 어려움과 작전 지속성의 중요성을 인식한 중국 수뇌부는 1951년 3월 말경 "장기전을 준비하되 최대한 단기전으로 군사작전을 실시한다"는 전쟁수행 방침을 확정하였다. 이들은 무기 및 장비 수준의 현저한 격차가 작전 수행에 있어 상당한 장애로 작용하여 단기간 내에 미군 병력을 대량 섬멸하고 한반도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사상적으로 또는 기타 각종 준비에 있어 장기전에 대비하되 가능하면 전쟁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전쟁을 조기에 종결하려 하였다.[10]

또한 이들은 "우세한 병력을 집중하여 적을 각개 섬멸한다"는 원칙에 따라 공세시 충분한 병력으로 전진하는 국군과 유엔군을 분할함과 동시에 전술적으로는 대집단을 다시 수개의 소집단으로 분할하여 우세한 병력과 화력을 집중함으로써 신속히 섬멸한다는 작전지도 방침을 구체화하였다.[11]

이러한 방침 하에 국군과 유엔군이 38도선 이북지역으로 재반격을 단행하고 중공군 증원부대가 한반도를 향해 이동을 시작하자, 중공군 지휘부는 대대적인 공세를 통해 국군과 유엔군의 진격을 저지함은 물론 전장상황을 전환시키는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국군과 유엔군이 동부 산악지대를 점령한 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서해안 진남포로 상륙한 병력과 연합하여 안주-원산선에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중공군과 북한군간의 보급선이 단절되는 위기상황이 초래될 것으로 보고, 유엔군의 작전기도를 분쇄하고 신속하게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해 제5차 공세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12]

그리고 중공군 3개 병단 11개 군과 북한군 4개 군단의 집결이 완료되면 동두천과 포천, 그리고 춘천 일대에서 대대적인 공세를 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이를 위해 국군과 유엔군을 유리한 지역으로 유인해 운동전으로 저지하는 한편, 시간을 획득하기로 하였다.

(2) 작전계획

제5차 공세 단행을 결정한 중공군 지휘부는 증원부대의 집결이 완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유엔군이 김화-문등리-간성을 연하는 선까지 진출하면 공세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공세 시기는 전황에 따라 결정하기로 하였다. 즉, 유엔군의 전진 속도에 따라 4월 20일 무렵 또는 5월 초순에 공세를 개시하기로 하였다.

중공군 지휘부가 계획한 제5차 공세의 목적은 '유엔군 수개 사단을 섬멸해 유엔군의 작전기도를 분쇄하고 주도권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한 작전계획은 '김화-가평간 산악을 이용해 돌파구를 열어 국군과 유엔군을 동·서로 양분한 후 제9병단과 제19병단으로 서부전선의 유엔군을 양익 우회하며, 이때 제3병단이 정면공격을 실시함으로써 국군과 유엔군을 각개 분할하여 섬멸하고 38도선 이북에서 국군과 유엔군 수개 사단을 섬멸한 후 적의 종심을 향해 전진한다'는 것이었다.[13]

4월 공세의 주요 작전지역은 서부전선의 문산에서 춘천에 이르는 지역이었고, 주요 공격목표는 미 제8군이 지휘하는 5개 사단과 2개 여단이었다. 즉, 미 제1군단이 지휘하는 미 제3사단과 미 제24사단, 미 제25사단, 그리고 국군 제1사단, 영국군 제29여단, 터키여단과 미 제9군단 예하의 국군 제6사단이었다.[1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공군 지휘부는 4월 공세를 단행함에 있어 전역분할과 전술분할을 서로 결합하여 전역포위 우회를 전술포위 우회와 서로 결합하는 작전지도를 구상하였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제9병단에 배속된 제40군에는 김화-가평 선에서 전역 돌파구를 열어 유엔군을 동·서로 분할하는 임무를 부여하였고, 역시 제9병단에 배속된 제39군에는 화천-춘천간의 미군을 견제하여 이들이 서쪽으로 증원되는 것을 차단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또한 제3병단과 제9병단 그리고 제19병단을 집중하여 서부전선에서 미 제1군단과 제9군단을 주로 공격토록 하였다. 이때 제3병단은 정면공격을 담당하고 제9병단과 제19병단은 양익으로 나누어 공격하여 전역우회를 실시토록 하였다. 그리고 먼저 역량을 집중하여 국군 제1사단과 영국군 제29여단, 미 제3사단(-1), 터키여단, 국군 제6사단을 섬멸한 후 역량을 재집중하여 미 제24사단과 제25사단을 섬멸하도록 하였다.

중공군 지휘부는 유엔군의 측후방 해상상륙과 공수 강하에 대비하기 위해 제42군을 원산과 양덕에, 제38군을 숙천에, 제47군을 평양에 위치시켰고, 북한군 제2군단을 회양일대에 제6군단을 사리원과 재령에 각각 위치하도록 결정하였다.[15]

한편 4월 공세의 공격출발선을 유엔군 진격의 최후저지선인 금천-위천리(渭川里)-삭녕-장거리(場巨里)-문혜리(文惠里)-산양리(山陽里) 선으로 설정한 중공군 지휘부는 4월 21일 또는 22일 황혼 무렵에 총공세를 단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각 참전부대에 4월 18일까지 공격위치로 진입하여 4월 20일까지 모든 공격준비를 완료할 것을 명령하였다.[16]

이들은 '서부전선에 주공을 지향하고 동부전선의 인제지역에서 보조적인 작전을 전개한다'는 기존의 계획[17]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작전계획을 마련하였다.

(1) 북한군 제1군단은 개성과 장단의 국군과 유엔군을 섬멸한 후 주력은 임진강을 도하, 문산-고양-서울로 진격해 서울을 점령한 다음 방어임무로 전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하며, 이때 1개 사단은 연안-백천간 해안방어를 담당한다. 북한군 제6군단 주력은 사리원과 재령을 장악해 해안 상륙과 공수 강하를 기도하는 국군과 유엔군을 타격하며, 1개 사단은 해주와 옹진반도의 해안방어를 담당한다.

(2) 중공군 제19병단은 신속히 임진강 서안의 국군 제1사단 방어선을 돌파한 1개 군이 고랑포리(高浪浦里) 부근에서 임진강을 신속 도하한 후 의정부를 우회하여 국군과 유엔군의 퇴로 및 증원을 차단하고, 주력은 고랑포리, 마전리(麻田里), 무등리(无等里) 지역에서 임진강을 도하해 감악산의 영국군 제29여단을 섬멸한 후 동두천리-왕방산-포천 방향으로 진격, 제3병단 및 제9병단과 협동으로 영평-포천의 미 제24사단 및 제25사단을 섬멸한다.

(3) 중공군 제9병단은 병력과 화력을 집중해 신속히 영국군 제27여단을 섬멸하고, 일부는 미 제24사단을 견제해 영국군 제27여단과의 연결을 차단한 후 기산리(機山里)-만세교리(萬世橋里)-포천으로 진격하여 제19병단 및 제3병단 주력과 협동으로 미 제24사단 및 제25사단을 섬멸한다.

① 제40군은 가평 방향으로 전진해 국군 제6사단을 섬멸한 후 춘천-가평간 도로를 차단해 동부 및 서부전선간 국군 및 유엔군의 연결을 차단한다.

② 제39군은 일부 병력이 화천 이북에서 국군과 유엔군을 견제하는 한편 주력은 논미리(論味里)-원천리(原川里) 방향으로 돌격하여 미 제1해병사단과 미 제1기병사단의 서쪽 증원을 견제, 병단의 좌측익 안전을 보장한다.

(4) 중공군 제3병단은 절대 우세한 병력과 화력을 집중해 연천의 미 제3사단과 터키여단을 섬멸한 후 초성리(哨城里)-종현산으로 진격하여 제19병단 및 제9병단과 협동으로 미 제24사단 및 제25사단을 섬멸한다.

(5) 조공으로 동부전선을 담당한 북한군 전선사령부 예하의 제3군단과 제5군단은 일부 병력이 양구 이북에서 중공군 제39군과 연합해 미 제2사단과 국군 제7사단을 적극 견제하고, 주력은 국군 제3사단과 제5사단의 전투지경선 부근인 서호리(西湖里)와 인제를 공격해 국군 1~2개 연대를 섬멸한 후 평창-강릉 방면으로 진격한다. 아울러 북한군 제2군단은 회양 일대에 머물며 일부가 해안경계를 담당하여 통천-양양 일대에서 국군과 유엔군의 상륙을 저지한다.[1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⑶ 지휘관계 및 전투편성

가. 지휘관계

4월 공세 기간 중 공산군의 지휘는 '조·중연합사령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조·중연합사령부가 한반도 내의 중공군은 물론이고 북한군 및 모든 유격부대를 통합하여 공산군 측의 모든 작전활동에 대한 지휘통제를 실시하였다.[19]

<도표 6-1> 4월 공세 시 중공군 지휘관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월 공세에 참가한 공산군 측의 주요 부대는 중공군 3개 병단 예하의 11개 군 33개 사단과 북한군 4개 군단 예하 12개 사단이었다.[20] 중공지원군사령관 펑더화이의 지휘통제 하에 있는 중공군 제3병단과 제9병단, 제19병단 사령관은 예하의 3개 군에 대한 지휘통제를 실시하였다. 이때 제9병단 사령관은 제13병단에서 편입된 제39군과 제40군을 추가로 지휘하였으며, 제19병단 사령관도 북한군 제1군단의 작전을 함께 지휘하였다.

한편 북한군은 김일성이 지휘하는 북한군 최고사령부 예하에 전선사령부와 예비 및 지원사령부를 설치하여 운용하였다. 전선사령부는 전선의 작전을 총괄함은 물론 예하의 각 군단에 대한 지휘통제를 실시하였고, 예비 및 지원부대는 해안을

방어하거나 후방에서 교육 및 훈련을 통해 부대를 재편하고 있었다. 그리고 각 군단장은 예하의 사단에 대한 전반적인 운용을 관장하였고, 전선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있던 제2·제3·제5군단과는 달리 제1군단은 중공군 제19병단 사령관의 작전지휘하에 놓여 있었으며,[21] 제2군단은 총참모부의 예비대이기도 하였다.[22]

나. 주요부대 편성 및 지휘관

4월 공세에 참가한 중공군의 각 병단별 편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19병단은 3개 군(제63·제64·제65군)과 1개 포병사단(제8사단)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제63군은 예하에 제187·제188·제189사단을, 제64군은 예하에 제190·제191·제192사단을, 그리고 제65군은 예하에 제193·제194·제195사단을 두고 있었다. 제3병단 또한 3개 군(제12·제15·제60군)과 1개 포병사단(제2사단)으로 편성되었고, 예하의 제12군은 제31·제34·제35사단을, 제15군은 제29·제44·제45사단을, 그리고 제60군은 제179·제180·제181사단을 각각 예하에 두었다. 제9병단은 기본 편제인 3개 군(제20·제26·제27군)과 1개 포병사단(제1사단) 이외에 제13병단으로부터 2개 군(제39·제40군)을 편입 받아 총 5개 군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제9병단 예하의 제20군은 제58·제59·제60사단을, 제26군은 제76·제77·제78사단을, 제27군은 제79·제80·제81사단을, 제39군은 제115·제116·제117사단을, 그리고 제40군은 제118·제119·제120사단을 각각 예하에 두고 있었다.[23] 중공지원군의 각 제대별 전투서열은 아래에 제시된 <표 6-2>에서 보는 바와 같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표 6-2> 중공군 주요 부대편성

병단	군	사단	단(연대)	병단	군	사단	단(연대)
제3병단	제12군	제31사단	제91,92,93단	제9병단	제39군	제115사단	제343,344,345단
		제34사단	제100,101,102단			제116사단	제346,347,348단
		제35사단	제103,104,105단			제117사단	제349,350,351단
	제15군	제29사단	제85,86,87단		제40군	제118사단	제352,353,354단
		제44사단	제130,131,132단			제119사단	제355,356,357단
		제45사단	제133,134,135단			제120사단	제358,359,360단

병단	군	사단	단(연대)	병단	군	사단	단(연대)
제3병단	제60군	제179사단	제535,536,537단	제9병단	포병	제1사단	제25,26,27단
		제180사단	제538,539,540단	제19병단	제63군	제187사단	제559,560,561단
		제181사단	제541,542,543단			제188사단	제562,563,564단
	포 병	제2사단	제28,29,30단			제189사단	제565,566,567단
제9병단	제20군	제58사단	제172,173,174단		제64군	제190사단	제568,569,570단
		제59사단	제175,176,177단			제191사단	제571,572,573단
		제60사단	제178,179,180단			제192사단	제574,575,576단
	제26군	제76사단	제226,227,228단			제193사단	제577,578,579단
		제77사단	제229,230,231단		제65군	제194사단	제580,581,582단
		제78사단	제232,233,234단			제195사단	제583,584,585단
	제27군	제79사단	제235,236,237단		포병	제8사단	제31,44단
		제80사단	제238,239,240단				
		제81사단	제241,242,243단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월 공세에 참여한 북한군은 전선사령부 예하의 제1・제2・제3・제5군단과 예비 및 지원부대인 제4・제6・제7군단의 7개 군단으로 편성되었으며, 전선사령부 예하의 각 군단은 3각 편제 개념에 따라 각각 3개의 사단을 두고 있었다. 제1군단은 제8・제19・제47사단을, 제2군단은 제2・제13・제27사단을, 제3군단은 제1・제15・제45사단을, 그리고 제5군단은 제6・제12・제32사단을 각각 예하부대로 보유하고 있었다.[24] 반면에 제4군단은 제4・제5・제10사단・제105기계화사단・제26육전여단을, 제6군단은 제9・제18사단・제17기계화사단・제23육전여단을, 그리고 제7군단은 제3・제7・제37・제46사단・제24・제63육전여단을 예하에 두었다. 북한군 주요 부대편성은 다음의 <표 6-3>과 같다.

<표 6-3> 북한군 주요 부대편성

구 분	사령부	군 단	사 단
최고사령부 (총참모부)	전선사령부	제1군단	제8·19·47사단
		제2군단	제2·13·27사단
		제3군단	제1·15·45사단
		제5군단	제6·12·32사단
	예비 및 지원부대	제4군단	제4·5·10사단·105기계화사단· 제26육전여단
		제6군단	제9·18사단·17기계화사단· 제23육전여단
		제7군단	제3·7·37·46사단· 제24·63육전여단

한편 4월 공세를 관장한 공산군측의 주요 지휘관은 조·중연합사령부 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와 이를 보좌하는 중공군측 부사령관 덩화(鄧華) 그리고 북한군측 부사령관 김웅(金雄)이었으며, 부정치위원에는 북한의 박일우(朴一禹)가 편성되어 있었다. 조·중연합사령부 예하의 중국인민지원군사령부는 사령관 겸 정치위원 펑더화이와 부사령관 겸 부정치위원 덩화 그리고 부사령관 홍쉐즈(洪學智)와 한셴추(韓先楚), 참모장 셰팡(解方), 정치부 주임 두핑(杜平)으로 편성되었다.

제3병단의 주요 지휘관은 사령관 천경(陳慶)과 부사령관 왕진산(王近山), 참모장 왕윈루이(王蘊瑞)와 부참모장 리마오즈(李懋之)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예하 각 군의 지휘부는 아래의 <표 6-4>와 같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표 6-4> 중공군 제3병단 예하 각 군 지휘부 편성

구 분	제12군	제15군	제60군
군 장	쩡사오산(曾紹山)	친지웨이(秦基偉)	웨이제(韋杰)
부 군 장	샤오잉인(蕭永銀)	저우파톈(周發田)	차위성(查玉升)
참 모 장	샤오잉인(蕭永銀)	장윈위(張蘊鈺)	덩스준(鄧仕俊)
정치위원	-	구징성(谷景生)	위안쯔친(袁子欽)
부정치위원	리전(李震)	-	-
정치부주임	리카이샹(李開湘)	처민차오(車敏樵)	리저푸(李哲夫)

제9병단의 주요 지휘관은 사령관 겸 정치위원 쑹스룬(宋時輪), 부사령관 타오융(陶勇), 참모장 탄젠(覃健)과 부참모장 왕빈(王彬) 및 쩡수위안(曾更玩), 정치부주임 셰요우파(謝有法)로 편성되었다. 그리고 예하 각 군의 지휘부는 아래의 <표 6-5>와 같다.

<표 6-5> 중공군 제9병단 예하 각 군 지휘부 편성

구 분	제20군	제26군	제27군
군 장	장이샹(張翼翔)	장런추(張仁初)	펑더칭(彭德清)
부 군 장	랴오정궈(廖政國)	장즈슈(張銓秀)	잔다난(담大南)
참 모 장	위빙후이(兪炳輝)	펑딩란(馮鼎蘭)	리위안(李元)
정치위원	장이샹(張翼翔)	리야오원(李耀文)	쩡루칭(曾如淸)
부정치위원	탄요우밍(譚右銘)	-	-
정치부주임	추샹톈(邱相田)	왕즈(王直)	장원비(張文碧)

아울러 사령관 덩화(鄧華)가 지휘하는 제13병단으로부터 제9병단에 편입된 제39군과 제40군의 지휘부는 아래의 <표 6-6>과 같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표 6-6> 중공군 제13병단 예하 제39, 40군 지휘부 편성

구 분	제39군	제40군	비 고
군 장	우신촨(吳信泉)	원위청(溫玉成)	제9병단 사령관의 작전지휘체계에 편입
부 군 장	우궈장(吳國璋)	쉬궈푸(徐國夫)	
참 모 장	장제청(張竭誠)	등웨(鄧岳)	
정치위원	리쉐싼(李雪山)	위안성핑(袁升平)	
부정치위원	허다쩡(賀大增)	-	
정치부주임	스잉(石瑛)	리보추(李伯秋)	

제19병단의 주요 지휘관은 사령관 양더즈(楊得志)와 부사령관 겸 참모장 정웨

이산(鄭維山), 부참모장 캉보잉(康博纓)이었다. 그리고 예하 각 군의 지휘부는 아래의 <표 6-7>과 같다.

<표 6-7> 중공군 제19병단 예하 각 군 지휘부 편성

구 분	제63군	제64군	제65군
군 장	푸충비(傅崇碧)	쩡쓰위(曾思玉)	샤오잉탕(簫應棠)
부 군 장	-	탕쯔안(唐子安)	-
참 모 장	두위화(杜瑜華)	마웨이화(馬衛華)	루안핑(阮平)
정치위원	롱다오취안(龍道權)	왕자오(王昭)	왕다오방(王道邦)
부정치위원	황전탕(黃振裳)	-	-
정치부주임	황전탕(黃振裳)	위안페이줴(袁佩爵)	전이구이(陳宜貴)

4월 공세시 북한군의 주요 지휘관은 최고사령관 김일성(金日成), 민족보위상 겸 부사령관 최용건(崔鏞健), 총참모장 남일(南日) 상장, 전선사령부 사령관 김웅(金雄) 상장과 참모장 최광(崔洸) 소장 등이었다. 최고사령부 예하의 각 군단장은 아래의 <표 6-8>과 같다.[25]

<표 6-8> 북한군 전투서열 및 지휘부 편성

구 분	직 책	계 급	성 명	비 고
최고사령부	최고사령관		김일성(金日成)	
	부사령관	대장	최용건(崔鏞健)	민족보위상 겸임
	참모장	상장	남 일(南 日)	
전선사령부	사령관	상장	김 웅(金 雄)	
	참모장	소장	최 광(崔 洸)	
제1군단	군단장	상장	이권무(李權武)	
제2군단	군단장	상장	최 현(崔 賢)	총참모부 예비
제3군단	군단장	상장	유경수(柳京洙)	
제5군단	군단장	상장	방호산(方虎山)	
제4군단	군단장	소장	박종덕(朴鍾德)	예비 및 지원부대
제6군단	군단장	상장	최용진(崔勇鎭)	
제7군단	군단장	상장	이영호(李永鎬)	

2) 유엔군측의 상황평가 및 의도

(1) 작전목표 및 기도

중공군의 3차 공세에 따른 '1·4후퇴'로 서울을 상실하였던 유엔군은 1951년 3월 중순에 서울을 재수복하고 4월 초에는 주력부대들이 38도선 북쪽의 임진강-전곡-화천저수지-양양을 연하는 이른바 캔사스(Kansas)선까지 진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로써 전쟁전 38도선 일대를 회복하고 방어에 유리한 지형을 확보하게 된 유엔군은 휴전을 모색하기 위한 전략에 따라 이 선에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하게 되었다.

<표 6-9> 축선별 주요부대 배치

축선	임진강-한탄강	석룡산-유촌리	소양강 북쪽	동부전선	
				서측	동측
군단	미 제1군단	미 제9군단	미 제10군단	국군 제3군단	국군 제1군단
사단	미 제3·24·25사단·영국군 제29여단·터키여단·국군제1사단	미 제1해병사단·영연방 제27여단·국군제6사단	미 제2·7사단·국군제5사단	국군 제3·7사단	국군 수도·제9사단 제11사단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때 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은 임진강-한탄강 선에, 중부 전선의 미 제9군단은 석룡산-유촌리(輸村里) 선에, 중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은 소양강 북쪽에 주저항선을 편성하였다. 그리고 국군이 담당한 동부전선은 태백산맥을 경계로 제3군단이 내륙 산악지역에, 제1군단이 동해안 지역에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

당시 미 제8군 예비인 미 제1기병사단은 수도권 지역으로 투입이 용이한 금곡

(金谷) 부근에, 미 제187공정연대 전투단은 대구에 집결 대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육본 직할부대인 제8사단은 대전, 광주, 진주 부근에서, 제2사단은 춘양, 제천, 안동 부근에서 연대별로 후방지역 공비 토벌 작전을 실시하고 있었다.

유엔군이 방어선 보강에 주력하는 동안 공산군도 38도선 북쪽에 방어진지를 편성하는 한편, 중부전선에서 전략 전술의 요충으로 철의 삼각지대라고 명명된 평강, 철원, 김화 일대에 병력과 보급품을 집결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적의 방어진지는 종심이 매우 얕을 뿐만 아니라 후방지역에는 진지를 구축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방어보다 공격을 실시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2) 작전계획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James A. Van Fleet) 중장은 중부전선의 캔사스선 방어종심을 깊게 하고 적의 공세준비를 차단할 목적으로 철원-김화를 통제할 수 있는 연천-고대산-와수리-화천저수지를 연하는 새로운 통제선인 와이오밍(Wyoming)선을 설정하고 미 제1군단과 제9군단으로 하여금 이 선을 점령하도록 계획하였다. 그리고 동부전선에 배치된 적을 고착 견제하여 중부전선으로 증원을 차단함과 동시에, 인제-간성 도로를 점령하여 군수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3군단의 주보급로를 개선할 목적으로 화천저수지 동쪽에 배치된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3군단 및 제1군단도 4월 24일부터 양구-가전리(加田里)-송도진리(松島津里)를 연하는 알라바마(Alabama)선을 공격하도록 계획하였다.[26]

이 계획에 의거 제1단계 작전으로 미 제1군단 예하 3개 사단(미 제3, 제24, 제25사단)과 제9군단의 영연방 제27여단이 4월 11일 캔사스선 북쪽 약 20km에 위치한 금학산-광덕산-백운산을 연하는 유타(Utah)선을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리고 공격제대들은 적의 포격과 강우로 인한 전차의 기동 제한으로 다소 고전하였으나 20일 유타선을 점령하였다. 제1단계 작전이 성공하자 미 제1군단(미 제25, 제24사단)과 제9군단(국군 제6, 미 제1해병사단)은 공격부대를 재편성한 후 21일 항공 및 포병화력의 엄호 하에 본 작전의 최종 목표인 와이오밍선으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이때부터 국군과 유엔군은 공산군측의 한층 강화된 저항으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전방 진출이 부진해졌을 뿐만 아니라 정오가 지나면서 공산군의 대공세가 임박하였음을 알리는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미 제1군단의 수색대는 와이오밍선으로 공격하기 이전에 중공군과 접촉하였던 지점보다 훨씬 남쪽인 임진강변에서 중공군과 다시 조우하였고, 정찰기들도 공산군이 집결지에서 전방으로 이동하기 위한 대형을 갖추고 있음을 관측하였다. 이는 공산군이 전방으로 전개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징후였다. 그리고 전방 사단지역에서 체포된 중공군 포로들은 이구동성으로 4월 22일 야간에 중공군의 대공세가 개시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와이오밍선을 공격 중이던 국군과 유엔군 부대들이 22일 오후 전선의 도처에서 공산군의 포격으로 인해 진출이 돈좌되자 미 제8군사령관은 일몰 전에 공격을 중지하고 신속히 방어태세로 전환하여 공산군의 공세를 저지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와 같이 유엔군은 와이오밍선을 공격하던 중에 중공군의 4월 공세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기존의 캔사스선을 연한 방어계획을 제외한 별도의 방어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격에서 방어로 전환하게 되었다.

(3) 지휘관계 및 전투편성

가. 지휘관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공군의 4월 공세기간 중 유엔군사령부 겸 극동군사령부는 미 제8군을 비롯해 미 극동해군과 극동공군, 주일군수사령부 등에 대한 작전 지휘 및 통제 권한을 갖고 있었다. 이중 지상 작전에 대한 지휘권을 부여받은 미 제8군사령관은 유엔군 소속의 미 지상군 부대는 물론이고 국군과 미 군사고문단에 대한 지휘를 관장하였다. 미 제8군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주요 부대로는 미 제1군단·미 제9군단·미 제10군단과 국군 제1군단·제3군단이 있었다. 해상작전을 지휘하는 극동해군사령관은 유엔 소속의 해상전력을 예속시킨 미 제7함대를 지휘하였고, 공군 작전을 지휘하는 극동공군사령관은 유엔 소속의 공군부대를 예속시킨 미 제5공군과 전략공군사령부를 지휘하였다.[27]

유엔군사령부의 지휘부 구성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사령관으로는 유엔군사령관직

에서 1951년 4월 11일에 해임된 맥아더(Douglas MacArthur) 원수의 후임으로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대장[28]이 새로 부임하였고,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James A. Van Fleet) 중장, 극동공군사령관 스트레트메이어(George E. Stratemeyer) 중장, 극동해군사령관 죠이(C. Turner Joy) 중장은 이전과 변동이 없었다.

나. 주요 부대 편성 및 지휘관

미 제8군의 지휘를 받아 중공군의 4월 공세를 저지하는데 참가한 국군과 유엔군 주요 부대들의 배치는 서쪽에서부터 미 제1군단, 미 제9군단, 미 제10군단, 국군 제3군단, 국군 제1군단 순이었다.

서부전선의 임진강-한탄강선 방어를 담당한 미 제1군단은 미 제3사단, 미 제24사단, 미 제25사단, 국군 제1사단, 영국군 제29여단, 터키여단으로 편성되었다. 이중 영국군 제29여단은 미 제3사단에, 터키여단은 미 제25사단에 예속되어 있었다. 미 제3사단은 제7·제15·제65연대, 미 제25사단은 제24·제27·제35연대, 국군 제1사단은 제11·제12·제15연대로 편성되었고, 영국군 제29여단과 터키여단은 예하에 각각 3개의 대대를 두었다.[29]

미 제1군단의 주요 지휘관은 군단장 밀번 소장과 참모장 밴 브런트 준장, 미 제3사단장 소울 소장, 미 제25사단장 킨 소장, 국군 제1사단장 강문봉 준장, 영국군 제29여단장 브로디 준장, 터키여단장 야지치 준장이었다. 미 제1군단의 전투서열 및 지휘부 편성은 아래의 <표 6-10>과 같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표 6-10> 미 제1군단 전투서열 및 지휘부 편성(1951. 4. 22 현재)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미 제8군	사령관	중장	James A. Van Fleet	
	부사령관	중장	John B. Coulter	
	참모장	소장	Henry I. Hodes	
미 제1군단	군단장	중장	Frank W. Milburn	
	부군단장	소장	Terrell G. Holliday	
	참모장	준장	Rinaldo Van Brunt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미 제3사단	사단장	소장	Robert H. Soule	
	제7연대장	대령	James O. Boswell	
	제15연대장	대령	Dennis M. Moore	
	제65연대장	대령	William W. Harris	
미 제24사단	사단장	소장	Blackshear M. Bryan	
	제5연대장	대령	John L. Throckmorton	
	제19연대장	대령	Ned D. Moore	
	제21연대장	대령	Richard W. Stephens	
미 제25사단	사단장	소장	J. Sladen Bradley	
	제24연대장	대령	John T. Corley	
	제27연대장	대령	Gilbert J. Check	
	제35연대장	대령	Henry G. Fishir	
국군 제1사단	사단장	준장	강문봉(姜文奉)	
	제11연대장	대령	문형태(文亨泰)	
	제12연대장	대령	김점곤(金點坤)	
	제15연대장	대령	김안일(金安一)	
영국군 제29여단	여단장	준장	Thomas. Brodie	미 제3사단 배속
터키여단	여단장	준장	Tahsin Yazici	미 제25사단 배속
벨지움대대	대대장	중령	B. E. M. Crahay	영국군 제29여단 배속
필리핀 제10대대	대대장	중령	Dionisio Ojeda	미 제3사단 배속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서부전선의 석룡산-유촌리(楡村里)선 방어를 담당한 미 제9군단은 미 제1해병사단, 국군 제6사단, 영연방 제27여단으로 편성되었다. 미 제1해병사단은 제1·제5·제7해병연대, 국군 제6사단은 제2·제7·제19연대를 예하에 두었으며, 영연방 제27여단은 군단예비로서 예하에 3개 대대가 편성되어 있었다.[30] 그리고 국군 제1해병연대가 미 제1해병사단에 배속되어 있었다. 미 제9군단의 주요 지휘관은 군단장 호지 중장을 비롯하여 미 제1해병사단장 토마스 소장, 국군 제6사단장 장도영 준장, 영국군 제27여단장 버크 준장이었다. 미 제9군단의 전투서열 및 지휘부 편성은 다음의 <표 6-11>과 같다.

<표 6-11> 미 제9군단 전투서열 및 지휘부 편성(1951. 4. 22 현재)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미 제9군단	군단장	중장	William M. Hoge	
	부군단장	준장	William L. Mitchell	
	참모장	준장	George B. Peploe	
미 제1해병사단	사단장	소장	Gerald C. Thomas	
	제1해병연대장	대령	Francis M. McAlister	
	제5해병연대장	대령	Richard W. Hayward	
	제7해병연대장	대령	Herman Nickerson, Jr.	
국군 제6사단	사단장	준장	장도영(張都暎)	
	제2연대장	대령	김봉철(金鳳喆)	
		중령	차문호(車文鎬)	1951. 5. 1부
	제7연대장	대령	양중호(梁仲鎬)	
	제19연대장	대령	임익순(林益淳)	
영연방 제27여단	여단장	준장	B. A. Burke	제28여단 개칭 ('51. 4. 26부)
한국 제1해병연대	연대장	대령	김성은(金聖恩)	미 제1해병사단 배속

중동부전선의 소양강 북쪽에 주저항선을 구축한 미 제10군단은 미 제2사단과 미 제7사단, 그리고 국군 제5사단으로 편성되었다. 미 제2사단은 제9·제23·제38연대와 함께 프랑스 및 네덜란드 대대를, 미 제7사단은 제17·제31·제32연대, 국군 제5사단은 제27·제35·제36연대를 예하에 두었다.[31] 미 제10군단의 주요 지휘관은 군단장 알몬드 소장을 비롯하여 참모장 거스리 준장, 미 제2사단장 러프너 소장, 미 제7사단장 페렌바우 소장, 국군 제5사단장 민기식 준장 등이었다. 미 제10군단의 전투서열 및 지휘부 편성은 아래의 <표 6-12>와 같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표 6-12> 미 제10군단 전투서열 및 지휘부 편성(1951. 4. 22 현재)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미 제10군단	군단장	소장	Edward M. almond	
	참모장	준장	John S. Guthrie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미 제2사단	사단장	소장	Clark L. Ruffner	
	제9연대장	대령	Edwin J. Messinger	
	제23연대장	대령	Paul L. Freeman	
	제38연대장	대령	George B. Peploe	
미 제7사단	사단장	소장	Claude B. Ferenbaugh	
	제17연대장	대령	Royal Reynolds, Jr.	
	제31연대장	대령	Lloyed R. Moses	
	제32연대장	대령	Charles M. Mount, Jr.	
국군 제5사단	사단장	준장	민기식(閔機植)	
	제27연대장	대령	유의준(兪義濬)	
	제35연대장	대령	홍순용(洪淳龍)	
		대령	고백규(高白圭)	1951. 5. 1부
	제36연대장	대령	황 엽(黃 燁)	
네덜란드 대대	대대장	중령	W. D. H. Eekhout	미 제2사단 배속
프랑스 대대	대대장	중령	Raiph Monclar	

또한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내륙산악지역의 방어를 담당한 국군 제3군단은 제3사단과 제7사단으로 편성되었다. 제3사단은 제18·제22·제23연대, 제7사단은 제3·제5·제8연대를 예하에 두었다. 그리고 동해안 지역의 방어를 담당한 국군 제1군단은 수도사단과 제9사단, 그리고 제11사단으로 편성되었다. 수도사단은 제1·제26·제1기갑연대를, 제9사단은 제28·제29·제30연대를, 그리고 제11사단은 제9·제13·제20연대를 예하에 두었다.[32]

국군 제3군단의 주요 지휘관은 군단장 유재흥 소장을 비롯하여 부군단장 강영훈 준장, 제3사단장 김종오 준장과 제7사단장 김형일 준장이었고, 국군 제1군단의 주요 지휘관은 군단장에 백선엽 소장과 참모장 최홍희 준장, 수도사단장 송요찬 준장과 제9사단장 최석 준장, 그리고 제11사단장 최덕신 준장 등이었다. 국군 제3군단과 제1군단의 전투서열 및 지휘부 편성은 다음의 <표 6-13>과 같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표 6-13> 국군 제3군단과 제1군단 전투서열 및 지휘부 편성(1951. 4. 22 현재)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국군 제3군단	군단장	소장	유재흥(劉載興)	
	부군단장	준장	강영훈(姜英勳)	1951. 4. 27부
	참모장	준장	임선하(林善河)	
제3사단	사단장	준장	김종오(金鐘五)	
	제18연대장	대령	유양수(柳陽洙)	1951. 4. 22부
	제22연대장	대령	장춘권(張春權)	
	제23연대장	대령	김종순(金淙舜)	
제7사단	사단장	소장	김형일(金炯一)	
	제3연대장	대령	정 진(鄭 震)	
	제5연대장	대령	김인철(金仁哲)	
		대령	조성화(趙成華)	1951. 5. 1부
	제8연대장	대령	이현진(李賢進)	
		중령	변응오(邊應梧)	1951. 5. 15부
국군 제1군단	군단장	소장	백선엽(白善燁)	
	부군단장	준장	이준식(李俊植)	
		준장	장창국(張昌國)	1951. 4. 27부
	참모장	준장	최홍희(崔泓熙)	
수도사단	사단장	준장	송요찬(宋堯讚)	
	제1연대장	대령	한 신(韓 信)	
	제26연대장	대령	서정철(徐廷哲)	
	제1기갑연대장	중령	이 용(李 龍)	
제9사단	사단장	준장	이성가(李成佳)	
		준장	최 석(崔 錫)	1951. 4. 27부
	제28연대장	대령	이창정(李昌禎)	
	제29연대장	대령	차갑준(車甲俊)	
	제30연대장	대령	손희선(孫熙善)	
제11사단	사단장	준장	최덕신(崔德新)	
	제9연대장	대령	오익경(吳益慶)	
	제13연대장	대령	최석용(崔錫鏞)	
	제20연대장	대령	박원근(朴元根)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편 미 제8군의 예비전력은 금곡(金谷)과 대구에서 각각 집결 대기하고 있던 미 제1기병사단과 미 제187공정연대 전투단이었다. 미 제1기병사단의 전투편성은

제5·제7·제8기병연대로 이루어졌다. 이들 부대의 주요 지휘관은 미 제1기병사단장 파머 소장과 미 제187공정연대 전투단장 보웬 준장이었다. 또한 한국 육군본부의 예비전력으로는 후방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던 제2사단과 제8사단, 그리고 제12·제13·제15경비대대가 편성되어 있었다. 제2사단은 제17·제31·제32연대를, 제8사단은 제10·제16·제21연대를 예하에 두었다. 주요 지휘관은 제2사단장 함병선 준장과 제8사단장 최영희 준장이었다. 국군 및 유엔군 예비부대의 전투서열 및 지휘부 편성은 아래의 <표 6-14>와 같다.[33]

<표 6-14> 유엔군측 예비대 전투서열 및 지휘부 편성(1951. 4. 22 현재)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미 제1기병사단	사단장	소장	Charles D. Palmer	미 제8군 예비
	제5연대장	대령	Irving Lehrfeld	
	제7연대장	대령	James K. Woolnough	
	제8연대장	대령	Eugean J. Field	
미 제187공정연대 전투단	전투단장	준장	Frank S. Bowen, Jr.	
국군 제2사단	사단장	준장	함병선(咸炳善)	한국 육본 예비
	제17연대장	대령	이정석(李貞錫)	
	제31연대장	중령	조원영(趙原英)	
		대령	신동우(申東雨)	
	제32연대장	대령	조재미(趙在美)	
국군 제8사단	사단장	준장	최영희(崔榮喜)	
	제10연대장	대령	이춘경(李春景)	
	제16연대장	대령	이석봉(李錫鳳)	
	제21연대장	대령	김화산(金華山)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 전투 경과

1) 서울 북방의 전투

서울 북방 전투는 미 제1군단이 4월 22일부터 시작된 중공군의 4월 공세를 맞아 금굴산, 파평산, 설마리, 포천 등지에서 격전을 벌인 전투를 일컫는다. 4월 초 캔사스선까지 진출한 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은 좌전방의 한국 해병 제5독립대대(국군 제1사단에 배속), 국군 제1사단, 영국군 제29여단(미 제3사단에 배속), 미 제3사단을 김포반도-군자산(君子山)에 이르는 방어선에 배치하여 주저항선 방어와 임진강 북쪽지역에 대한 정찰활동에 주력하고 있었다.[34] 그리고 군단의 중앙과 우전방에는 터키 여단(미 제25사단에 배속), 미 제25사단, 미 제24사단을 각각 배치하여 미 제9군단과 함께 와이오밍선으로의 공격을 담당하게 하였다. 와이오밍선을 목표로 공격하던 미 제1군단의 중앙과 우전방 부대들은 4월 20일을 전후해 중공군의 저항이 강력해지면서 공격이 둔화되자 급편방어로 전환하였다. 이때 터키 여단은 대광리 남쪽의 고지군에, 미 제25사단은 금학산-장흥리 일대의 분지에, 제24사단은 신술리-문혜리에 각각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35]

이 무렵 공산군측은 "서부전선의 유엔군 수개 사단을 격파하고 주도권을 회복한다"는 목적하에 제5차 1단계 공세(일명 '4월 공세')를 준비하고 있었다. 4월 6일 중국인민지원군당위원회 확대회의에서 결정된 중공군의 4월 공세 계획은 주요 공세 지역을 서부전선의 문산에서 춘천 간으로 설정하고, 미 제1군단의 국군 제1사단, 영국군 제29여단, 미 제3사단, 터키여단, 미 제25사단과 미 제24사단, 미 제9군단의 국군 제6사단을 공격 목표로 삼았다.[36]

조·중연합사령부는 4월 19일에 공격개시일을 22일 황혼으로 확정하고, 21일까지 공격부대들의 집결을 완료시켰다.[37] 그리고 같은 날인 5월 21일에 공산군 예하부대들에는 조·중연합사령부 명의의 4월 공세 명령이 정식으로 하달되었다.[38] 4월 22일 어둠이 깔리자 중공군의 주공부대인 제19병단은 개성-문산 축선의 국군 제1사단과 영국군 제29여단을, 제3병단은 연천-전곡-동두천 축선의 미 제3사단과 터키 여단을, 제9병단은 김화-포천-의정부 축선의 미 제25사단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24사단을 목표로 야간공격을 개시함으로써 4월 공세의 막이 올랐다.

중공군의 공세가 개시됨에 따라 유엔군측 부대중에서 서부축선을 담당한 미 제1군단은 중공군의 대군을 맞아 우세한 항공 및 포병화력과 기동력을 이용하여 적에게 최대의 출혈을 강요하면서 캔사스(Kansas), 델타(Delta), 골든(Golden) 선으로 이어지는 단계적인 철수작전을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영국군 제29여단(벨기에 대대 배속)이 설마리와 금굴산 일대에서, 국군 제1사단이 파평산에서 중공군과 혈전을 펼치게 되었다.

(1) 설마리-금굴산 전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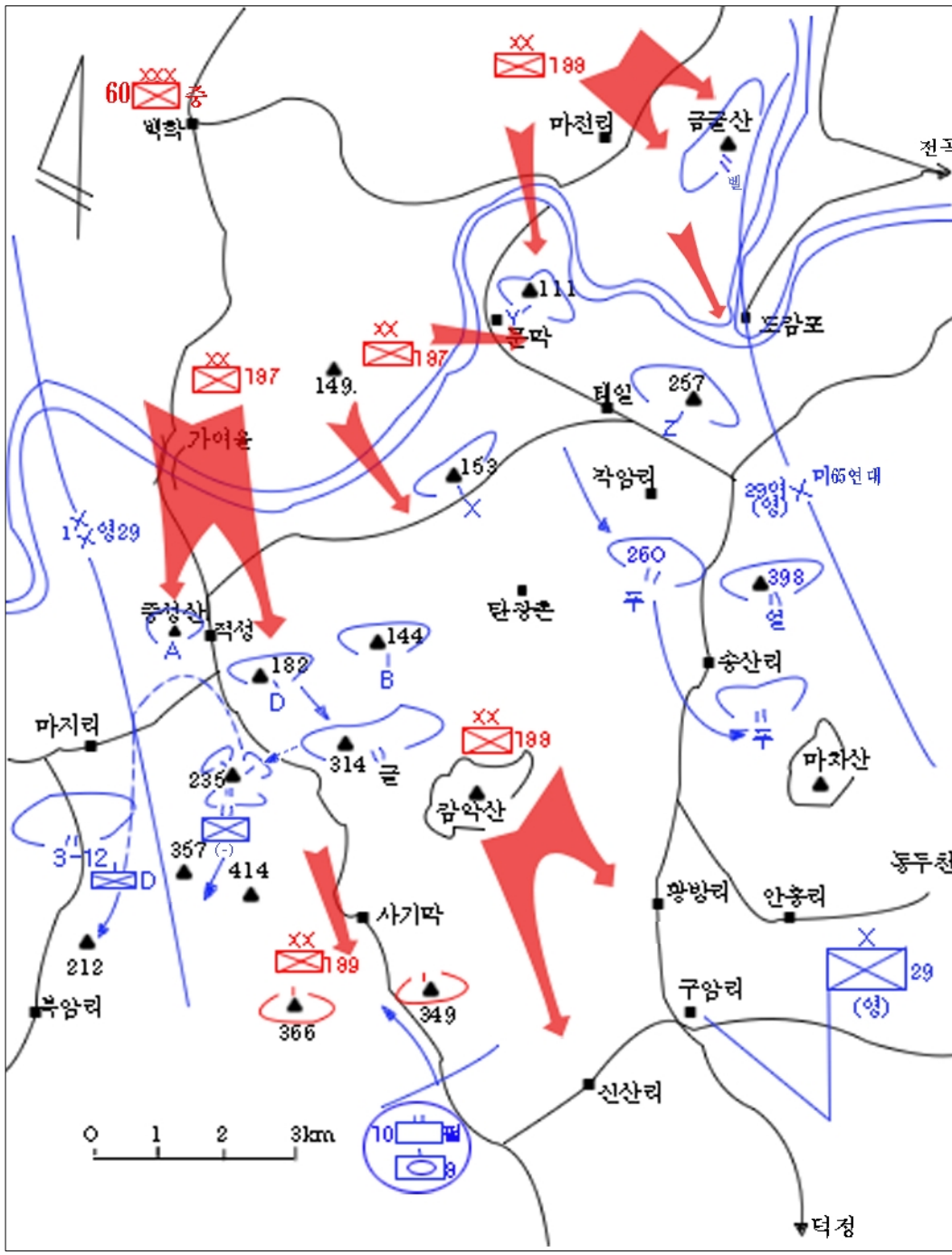
중공군의 4월 공세가 시작될 무렵, 영국군 제29여단은 글로스터(Gloucester) 연대 제1대대(이하 글로스터 대대)를 적성 부근에, 푸실리어(Royal Northumberland Fusiliers) 연대 제1대대(이하 푸실리어 대대)를 감악산 북쪽에, 그리고 배속 받은 벨기에 대대를 금굴산에 배치하고, 얼스터 소총(Royal Ulster Rifles) 연대 제1대대(이하 '얼스터 소총대대')를 봉암리에 예비로 확보하여 임진강을 방어하고 있었다. 여단은 마지리-도감포 간 11㎞의 광정면에 대대단위 거점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대간은 물론 좌우 인접 부대간에도 공백지대가 형성되어 적의 침투나 돌파에 취약한 상황이었다.[39]

영국군 제29여단의 정면인 임진강 주변에서는 4월 22일 아침부터 여단의 정찰대와 중공군간의 접촉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임진강변의 긴장감은 점차 고조되어 갔지만, 공교롭게도 4월 22일이 영국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성 죠지의 날(St. George's Day)' 전야이므로 인해 영국군의 전투준비 태세는 매우 느슨한 상태였다.[40]

이러한 상황에서 4월 22일 22시경 글로스터 대대 정면의 가여울 일대로 중공군 1개 연대가 도하공격을 개시하였다. 글로스터 대대는 방어진지를 사수하기 위하여 결사적으로 저항했으나 중공군의 파상공격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특히 가여울 도섭장을 통제할 수 있는 중성산(△148)의 A중대는 중대장 안지어(P. A. Angier) 소령이 전사하는 등 전·사상자가 속출하여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였다.[4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6-2> 설마리-금굴산 전투(1951. 4. 22~25)



이 무렵 글로스터 대대 우측의 푸실리어 대대와 벨기에 대대 방어 정면에도 중공군의 공격이 있었다. 이곳의 전투는 22일 자정 무렵 중공군 제19병단 예하 제63군 소속 제187사단 정찰대의 침투를 알리는 조명지뢰가 폭발하면서 시작되었다. 푸실리어 대대와 벨기에 대대의 간격으로 침투한 중공군은 주력을 금굴산(△194) 공격에 투입하고 일부 병력을 도감포로 우회시켜 푸실리어 대대의 Z중대가 방어 중인 257고지를 공격하였다.[42]

푸실리어 대대 Z중대는 중공군의 공격을 맞아 격전을 치렀지만, 해가 떠오를 무렵에 257고지를 피탈당했다. 이로 인해 푸실리어 대대 우측의 벨기에 대대는 철수로가 차단되는 위기를 맞았다. 더욱이 이 무렵 중공군은 제60군 예하 제188사단의 증원 병력을 벨기에 대대가 위치한 금굴산에 투입하기 시작했다.[43]

257고지의 피탈로 철수로가 차단된 벨기에 대대를 증원하기 위해 미 제3사단장 소울 소장은 사단예비인 제7연대의 1개 보병중대와 2개 전차소대를 전방으로 추진시켰다. 중공군의 포위망이 시시각각으로 압축되고 있을 무렵 미 전차소대의 도착으로 사기가 고조된 벨기에 대대는 정오 무렵 보전 협동작전으로 피탈된 전방진지를 재탈환하였다. 이 무렵 영국군 제29여단장은 벨기에 대대장의 건의에 따라 미 제3사단장에게 대대가 보유 중인 차량과 장비를 파괴하고 병력만 임진강 동쪽의 전곡으로 철수하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단장은 대대의 철수로 상에 있는 257고지를 미 제3사단 예하 제7연대 제1대대가 공격 중인 점을 감안하여 벨기에 대대의 철수계획을 승인하지 않았다.[44]

벨기에 대대가 금굴산에서 방어전투를 수행하는 동안에 글로스터 대대는 314고지 부근에 방어진지를 편성, 중공군의 야간공격에 대비하였고 우전방 푸실리어 대대는 피탈된 257고지를 탈환하기 위하여 정오경에 보전협동으로 역습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푸실리어 대대의 역습은 이미 이곳에 견고한 진지를 구축한 적의 완강한 저항에 막혀 실패하였다. 푸실리어 대대의 역습이 실패하자 미 제3사단장은 사단예비인 미 제7연대 제1대대를 투입하여 재역습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 공격마저 실패하자 사단장은 금굴산의 벨기에 대대에 철수 명령을 하달하고, 여단 예비인 얼스터 대대를 398고지에 배치하여 도감포-봉암리 도로를 통제하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하였다. 또한 사단장은 영국군 제29여단을 증강하기 위하여 22일 대광리 남쪽 율동 부근에서 중공군과 격전을 펼친 후 안흥리로 철수한 필리핀 제10대대를 여단에 배속시켰다.[45]

적 중에 고립된 상황에서 4월 22일 17시에 사단으로부터 철수 명령을 받은 벨기에 대대는 차량제대와 보병제대로 나뉘어 17시 30분부터 금굴산에서 철수를 시작했다. 차량제대는 항공 및 전차의 엄호하에 교량지역을 강력 돌파하고, 병력은 동쪽의 임진강을 도섭하여 15m 높이의 천연 단애를 기어 넘는 방식으로 철수를 진행해 18시 30분경 남계리의 미 제3사단 제65연대 진지로 철수하는 데 성공하였다[46] 금굴산을 탈출하여 전곡에 집결한 벨기에 대대는 이후 영국군 제29여단의 방어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제대로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곧바로 20시 30분경에 차량을 이용하여 동두천을 경유 봉암리(鳳岩里) 일대에 재배치되어 여단의 예비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47]

한편 중공군 제63군은 임진강 남쪽에 일부 교두보를 확보하였으나 영국군 제29여단의 완강한 저항으로 감악산 점령이 지연되자 예비사단을 투입해 공격제대를 재편성한 후 23일 자정 무렵부터 좌전방 글로스터 대대를 집중적으로 공격하였다. 글로스터 대대는 중공군의 파상공격에 밀려 적성-신산리 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235고지(일명 '설마리 고지')에 집결해 사주방어 진지를 편성하였다. 이때 우전방 푸실리어 대대도 얼스터 대대의 후방 송산리로 철수함으로써 작전지역을 통제할 수 있는 감악산이 중공군의 수중에 들어갔고 24일 새벽에는 글로스터 대대가 중공군 제63군에 의해 포위당하는 위급한 상황이 초래되었다.[48]

영 29여단은 적 중에 고립된 글로스터 대대를 구출하기 위하여 4월 24일 7시 30분에 필리핀 제10대대와 영 제8전차대대 C중대를 이용한 보전 협동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이미 235고지 남쪽 4.8km까지 진출한 중공군이 완강하게 저항하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사기막 고개 부근의 도로 폭이 협소해 전차의 통과가 불가능함으로 인해 보전 협동 공격이 차질을 빚었다. 이에 여단장은 글로스터 대대장 칸(J. P. Carne) 중령에게 자력으로 중공군의 포위망을 뚫고 철수하여 증원부대와 연결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대대장은 그간의 전투로 대대의 전투력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크게 약화되어 중공군의 포위망을 돌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여단장에게 현 위치에서의 증원부대와의 연결과, 바닥나기 시작한 탄약과 식량 등의 추가 보급을 요청하였다.[49]

이런 상황에서 오전 공격에 실패한 필리핀 제10대대가 오후에 공격을 재개했지만, 이마저도 협로에서 선두 천차가 파괴되면서 실패로 끝났다. 설마리 고지의 글로스터 대대는 근접 항공지원과 포병의 지원사격에 의존한 채 증원부대와의 연결만을 학수고대하였으나 공격제대가 연결에 실패하고 철수하자 장병들의 사기가 급격히 저하되었다.

전반적인 상황을 분석한 영 제29여단장은 글로스터 대대장과 협의한 후 대대의 야간철수를 상급지휘관인 미 제3사단장에게 건의하였다. 그러나 사단장은 야간철수가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25일 06시 30분으로 예정된 미 제65연대의 구출작전이 실시될 때까지 글로스터 대대로 하여금 현 진지를 고수하라고 지시하였다.[50] 이에 따라 글로스터 대대는 이날 밤에도 수차에 걸친 적의 공격을 격퇴하고 진지를 고수하였다.

중공군 제63군은 이로 인하여 이 지역 돌파가 지연되어 그들의 공격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자 25일 새벽에 예비인 제189사단을 투입해 총공세작전을 펼쳤다. 여단이 최악의 상황에 빠져들고 있을 무렵인 25일 05시에 미 제1군단장 밀번(Frank W. Milburn) 중장은 주저항선 일부가 무너지자 군단의 예하 부대들에게 캔사스선 후방 6~18km에 설정된 델타선으로 철수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이때 국군 제1사단과 미 제3사단에는 적 중에 포위된 글로스터 대대가 구출될 때까지 현진지를 고수하라는 별도의 명령이 하달되었다. 특히 군단장은 미 제3사단장에게 사단이 역습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철수 이전에 반드시 글로스터 대대를 구출할 것을 강조하였다.[51]

군단장의 명령이 하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중공군 제63군의 1개 사단이 미 제3사단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전곡-동두천 축선으로 이동을 개시하였다. 사단장은 이 적을 저지하기 위해 설마리 고지 역습을 준비 중이던 미 제65연대와 필리핀 대대를 전곡-동두천 축선에 투입하였다. 이에 따라 글로스터 대대의 구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공군의 제5차 1단계 공세(일명 4월 공세) 시 중공군이 임진강을 건너는 모습

작전에는 포병의 화력지원과 항공의 엄호하에 제64전차대대와 제65연대 전차중대만이 투입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영국군 제29여단장은 강력한 보병의 공격 없이 전차만의 공격으로 중공군의 포위망을 돌파해 글로스터 대대를 구출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간파하고 푸실리어 대대를 비롯한 전방대대를 여단본부가 위치한 봉암리에 집결시켜 델타선으로 철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여단장은 델타선으로 철수하기에 앞서 글로스터 대대장에게 중공군의 포위망을 돌파해 철수하든가 또는 중공군에 투항하든가 하는 양자택일의 결정 권한을 위임하였다.[52] 이에 대대장은 미 제65연대 전차중대가 자신들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막연히 남쪽의 계곡만 통과하면 좌인접 국군 제1사단 지역으로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대대에 철수명령을 하달하였다. 이때 대대장은 중대장들을 모아 놓고 "본인은 부상자와 함께 고지에 잔류할 것이므로 대대의 안전한 철수를 당부한다"고 말하였다.

글로스터 대대는 10시경 A중대를 선두로 하산하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군목, 군의관 및 의무요원 등이 50여 명의 부상자와 함께 고지에 잔류할 것을 자원하였으며, 주력의 철수 엄호를 담당한 D중대가 주력과 정반대 방향인 북쪽으로 철수를 하였다. 이후 남쪽으로 철수한 대대의 주력과 설마리 고지에 잔류한 부대원들은 모두 중공군에 포로가 되었으나, D중대는 북쪽으로 이동 후 다시 국군 제1사단 지역으로 남진하여 탈출에 성공하였다.[5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설마리 전투에서 글로스터 대대는 D중대를 제외한 전 대대원이 포로가 된 것을 포함하여 전체 병력의 1/3가량이 손실을 입었다. 그러나 글로스터 대대의 희생은 적성-동두천을 따라 아군의 방어선을 돌파하려고 시도했던 중공군을 3일간이나 고착 견제함으로써 미 제1군단이 주력의 안전한 철수와 함께 서울 방어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획득하는데 결정적으로 공헌하였다. 그 결과 글로스터 대대의 설마리 전투는 6·25전쟁사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실시된 고립방어의 대표적인 전례로 전사에 기록되고 있다.

한편 설마리 전투가 진행되는 동안에 영국군 제29여단 주력은 전차에 200여 명의 부상자를 분승시킨 채 중공군의 포위망을 돌파하여 봉암리로 철수하였다. 이때 전차에는 포탑을 회전시킬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숫자의 부상자가 탑승해 전차는 화력지원과 기동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델타선으로 철수하는 도중에 중공군의 공격과 추격전이 계속되어 여단은 다수의 인명과 장비의 피해를 입고서 분산 철수하여 가까스로 의정부에 집결하였다.

(2) 파평산 전투

미 제1군단의 좌전방 부대인 국군 제1사단은 군단의 주력부대들이 4월 중순 철원 남쪽의 와이오밍선을 공격하는 동안에 임진강 북쪽의 대덕산-백학산-강정리를 연하는 선에서 정찰활동에 주력하고 있었다. 사단은 문산 북쪽의 고지군에 제11연대, 파평산(△496) 일대에 제12연대, 대고령에 예비로 제15연대를 각각 배치하였다.

중공군의 4월 공세가 시작된 22일 저녁에 국군 제1사단 정면에도 중공군의 대규모 병력이 출현했다. 20시를 전후하여 중공군 제19병단 예하 제64군 소속의 중공군이 임진강 북쪽에 진출한 국군 제1사단 수색대의 퇴로를 차단한 후 포위공격을 기도하였고, 중공군 제192사단이 어둠을 이용해 임진강변으로 진출하였다. 중공군은 국군 제12연대 전방의 고랑포를 중심으로 석포, 자지포, 석교 일대의 도하지점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다.

자정 무렵 사단과 연대의 수색대가 중공군의 포위망을 뚫고 임진강을 건너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복귀하자, 사단은 중공군의 도하를 저지하기 위해 고랑포 일대에 포병의 탄막사격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도하준비를 완료한 중공군은 조수(潮水)의 영향으로 강물의 수위가 낮아진 23일 02시 30분경 자지포 일대에서 도하공격을 개시하였고, 임진강 바로 남쪽에 배치된 국군 제12연대 예하 부대들의 완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중공군은 강 남쪽 장좌리 일대에 교두보를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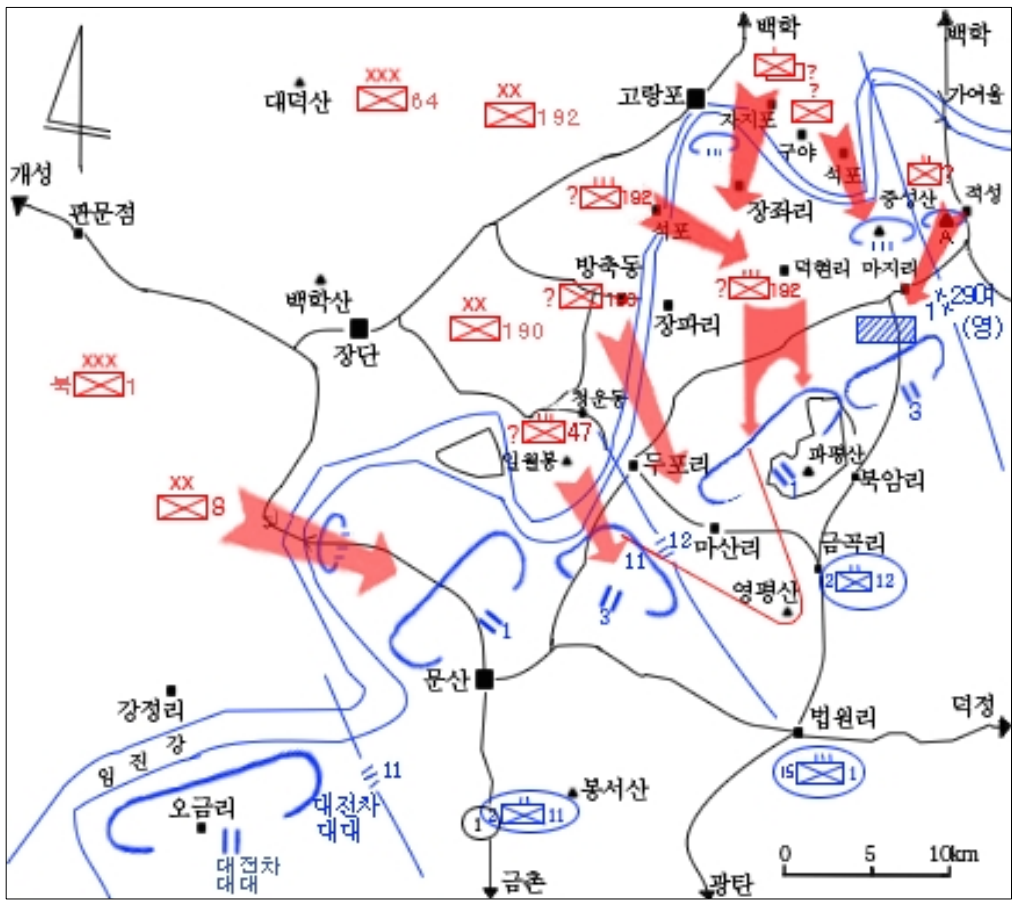
이 무렵 국군 제1사단의 우인접 영국군 제29여단을 공격하여 중성산을 장악한 중공군이 제12연대의 우측방 돌파를 기도하였다. 연대는 이들을 마지리 일대 개활지의 살상지대로 유인한 후 화력을 집중하여 격퇴하였다.[55] 낮 동안 아군의 맹렬한 항공폭격과 포병사격 집중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중공군의 공격 기세는 현저히 둔화되었으나 소규모의 중공군이 파평산으로 침투하였다. 국군 제12연대는 중공군과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면서 강 남쪽의 전초진지를 재탈환하기 위해 4월 23일 14시경 예비대대와 연대에 배속된 미 제73전차대대 C중대로 저녁 무렵까지 보전 협동작전을 펼쳤다. 사단은 이날 항공폭격과 포병의 지원사격, 보전포 공격으로 중공군 3,000여 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림으로써 적의 기세를 일시적으로나마 꺾을 수 있었다.[56]

상황을 분석한 사단장 강문봉 준장은 제12연대 지역으로 적의 공격이 집중되자 연대를 증원하기 위하여 예비인 제15연대 제2대대를 법원리 일대로 추진 배치하였다. 사단이 중공군의 야간공격에 대비하여 방어진지 보강과 경계를 강화하고 있을 무렵인 23일 중공군은 임진강변에 병력을 집중 투입하기 시작하였다. 자정 무렵 중공군 제192사단은 자지포와 구야 일대에서 후속부대를 도하시켜 공격제대를 증원하였으며, 뒤이어 창단에 집결하고 있던 제190사단도 임진강 일대로 남하하기 시작하였다.

중공군은 국군 제1사단의 완강한 저항으로 정면 돌파가 불가능하게 되자 제192사단을 파평산 정면에 투입하고 제190사단을 제11연대와 제12연대의 전투지경선인 두포리-마산리-법원리 축선으로 진출시켜 제1사단의 전선을 분리한 후 연결작전으로 파평산의 제12연대를 포위 격멸하고자 하였다. 적의 기도를 간파한 사단도 전방연대를 증원하기 위하여 봉일천 남쪽의 죽원리 일대에 대기 중이던 제1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6-3> 파평산 전투(1951. 4. 22~25)



연대(-)를 법원리로 이동시켰다.[57] 하지만 전방연대에서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중공군의 파상공격에 부상자가 속출하면서 일부 지역이 돌파되어 방어정면이 파평산 정상 부근으로 축소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중공군 제190사단 제568연대는 24일 새벽 전투에서 국군 제11연대와 제12연대의 전투지경선을 돌파해 4km를 진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날이 밝은 후 개시된 유엔군의 항공폭격과 집중적인 포병사격에 의해 큰 피해를 입고 영평산(△276)과 주변고지에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군 제1사단은 항공

지원과 포병의 엄호하에 전차 1개 중대와 제15연대 2개 대대로 전투지경선 부근에 형성된 돌파구를 회복하기 위한 역습을 개시하였다. 중공군은 제11연대의 퇴로 차단과 제15연대의 보전 협동공격으로 인한 포위를 우려한 듯 경미하게 저항하면서 서둘러 철수하였고, 중공군을 추격한 제15연대는 4월 24일 17시에 돌파구를 완전히 회복하였다.

그러나 우전방의 제12연대는 중공군의 집요한 공격에 사단방어의 요충인 파평산과 그 동쪽의 주저항선에서 물러나고 말았다. 이로써 사단의 주저항선 일부에 중공군의 돌파구가 형성되었다. 사단장은 제12연대 지역이 피탈되자 저녁 무렵 "25일 06시 30분에 사단공격을 실시하여 임진강 남쪽으로 진출한 중공군을 소탕하고 17시까지 주저항선을 회복한다"는 공격 준비명령을 하달하였다.[58]

국군 제1사단이 파평산 일대의 주저항선을 회복하기 위해 공격 준비를 하고 있을 무렵 중공군도 이 지역에서의 공격을 지원하기 위해 예성강변에서 재편성을 완료한 북한군 제1군단을 임진강변으로 진출시켰다.

북한군 제1군단(제8, 제19, 제47사단)은 24일 자정에 선두부대인 제8사단이 철교로 도하하여 제11연대의 좌전방을, 그리고 제47사단의 1개 연대가 청운동에서 임진강을 도하해 제11연대의 우전방을 각각 공격하였다. 이날따라 임진강변에는 지척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안개가 짙게 끼었고, 북한군은 이 틈을 이용하여 연대의 주저항선으로 접근하였다.[59] 쌍방은 전초진지에서부터 수류탄과 총검이 난무하는 일진일퇴의 혈전을 펼쳤다. 정오를 전후하여 안개가 사라지고 기상이 호전되어 유엔군측의 근접 항공지원과 포병화력 지원이 실시되자 북한군의 공격기세는 둔화되었고 연대는 방어진지를 재편성하면서 북한군의 차후공격에 대비하였다.

한편 국군 제1사단의 중앙지대로 진출한 중공군을 격퇴하고 돌파구를 회복하기 위해 실시한 제15연대와 제12연대의 공격은 중공군의 완강한 저항으로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이 무렵 파평산 동쪽의 북암리로 진출해 중공군과 대치하고 있던 제12연대 제3대대가 설마리의 영국군이 중공군의 포위망을 탈출하고 있음을 통보받고 미 전차중대와 함께 보전 협동으로 구출작전을 펼쳐 글로스터 대대 D중대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0명을 구출하였다.[60] 그러나 중공군이 이 틈을 이용해 일부 병력을 제3대대의 우측방으로 우회시켜 연대의 퇴로차단을 기도함으로써 제12연대는 부득이 공격을 중지하고 금곡리로 철수하였다.

한편 4월 25일 오전에 실시된 국군 제1사단의 반격작전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고 상황은 오히려 점차 악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4월 25일 정오경 미 제1군단의 철수명령이 하달됨에 따라 국군 제1사단은 3일간의 공방전을 종료하고 금촌과 문산 사이의 월롱산-부곡리-삼방리를 연하는 델타선으로 철수하였다.[61]

후일 중공군이 이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전역우회 임무를 맡은 제64군이 장파리, 고사동 일대를 점령하는 데에는 성공하였으나 미타사[62] 북쪽에서 국군 제1사단의 저지를 받아 적의 주진지를 신속히 돌파하지 못했다"라고 전사(戰史)에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당시 중공군 제64군의 공세가 국군 제1사단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차질을 빚었음을 알 수 있다.[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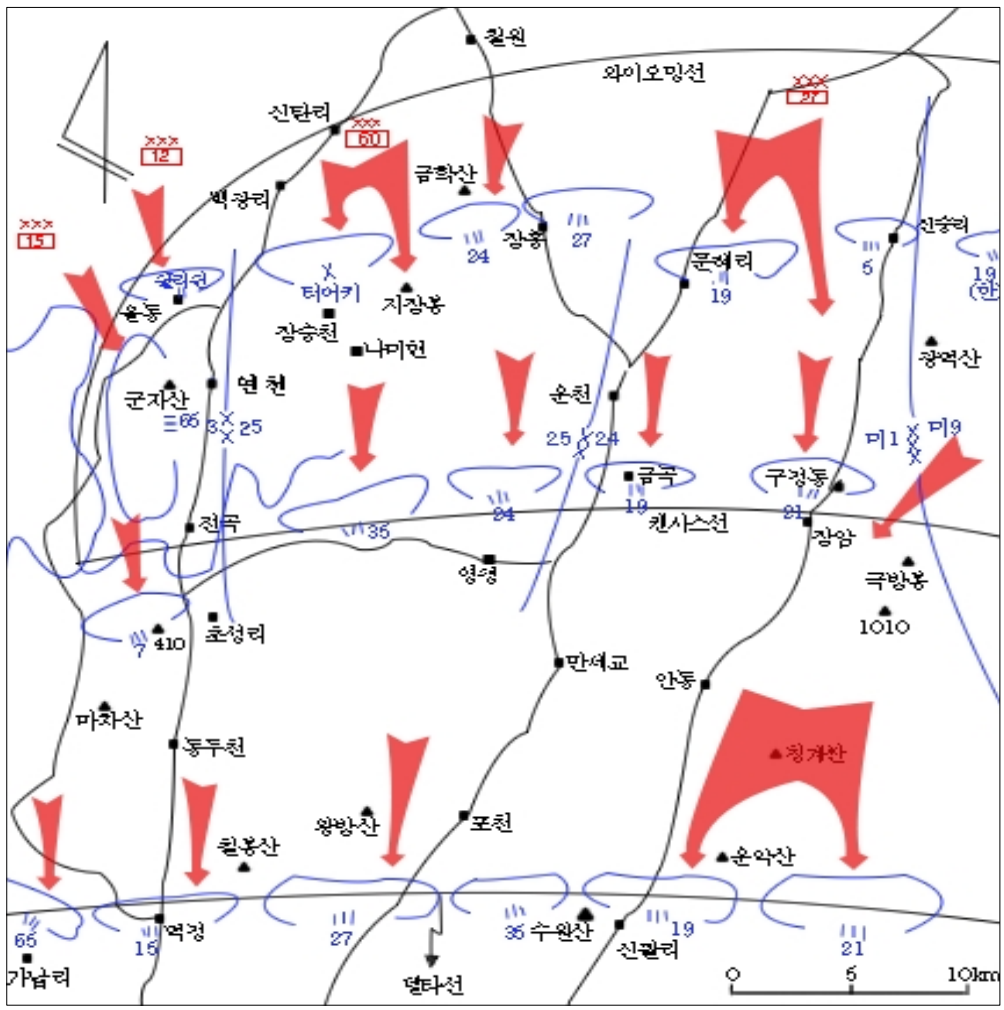
(3) 김화-포천 축선 지연전

연천 동쪽에서 철원 김화를 목표로 공격하던 미 제1군단의 미 제25사단(터키 여단 배속)과 미 제24사단은 4월 22일 중공군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치자 방어로 전환하였다. 이때 좌전방의 터키 여단은 대광리 남쪽 고지군에, 중앙의 제25사단은 철원 남쪽의 금학산(△947) 일대에, 우전방의 제24사단은 문혜리-신술리에 급편방어 진지를 편성하였다. 그리고 터키 여단의 좌인접에는 미 제3사단의 제65연대에 배속된 필리핀 제10대대가 유타선을 따라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공격제대들의 방어진지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군단 포병의 강력한 지원사격에도 불구하고 중공군은 4월 22일 야음을 틈타 공격을 개시하였다. 중공군은 19시에 터키 여단이 배치된 장승천 일대에 40분간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한 후 공격을 개시하였다. 여단은 포병진지와 통신시설이 적의 포격에 의해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내로 접근한 중공군 제60군 예하 제179사단과 공방전을 펼치며 주저항선을 고수하였다. 그러자 중공군은 정면공격과 병행하여 좌인접 필리핀 대대 및 우인접 미 제25사단 제24연대와의 전투지경선 부근으로 1개 연대 규모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6-4> 김화 - 포천 지연전(1951. 4. 22~23)



병력을 투입해 포위공격을 시도하였다. 자정 무렵 터키 여단은 한탄강 남쪽 캔사스선 진지로 철수하라는 사단의 명령을 받고 철수를 개시하였다. 그러나 터키 여단은 중공군이 철수로의 중요 거점인 나미현(羅尾峴)을 먼저 차단함으로써 철수 과정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64]

한편 터키 여단이 격전을 펼치고 있을 무렵 좌인접 율동(栗洞) 부근에 배치된

필리핀 제10대대도 4월 22일 23시부터 중공군 제12군 제34사단의 파상공격을 받아 진내에서 근접전투가 시작되었다. 대대는 적의 포격에 미 제65연대와 통신이 두절되어 지원도 받지 못하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총력전을 펼쳐 새벽까지 진지를 고수해 미 제3사단의 철수를 엄호하였다.[65]



서부전선에서 교전을 준비 중인 유엔군(1951. 4.)

터키 여단과 필리핀 대대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23일 오전 미 제9군단의 사창리 지역에 이어 미 제1군단의 감악산 지역에서도 부분적으로 방어진지가 돌파되자, 제8군사령관은 미 제1군단과 제9군단에 임진강-전곡-화천저수지를 연하는 캔사스선으로 철수하여 방어진지를 편성하도록 명령하였다.[66]

캔사스선으로의 철수 명령에 따라 미 제1군단 우전방지역의 미군 3개 사단(제3, 제24, 제25사단)은 진지 전방으로 중공군의 집결을 유인한 다음 항공지원과 포병의 집중사격으로 최대의 출혈을 강요하면서 우세한 기동력을 이용하여 축차적인 지연전을 펼치며 캔사스선 진지로 철수하였다.[6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사창리-가평 축선의 위기

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과 마찬가지로 중부전선을 담당한 미 제9군단도 4월 21일을 기해 국군 제6사단이 김화로, 미 제1해병사단(국군 제1해병연대 배속)이 화천저수지 북쪽의 와이오밍선을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리고 미 제9군단의 정면에서도 4월 22일을 기해 중공군의 4월 공세가 시작되었다.

중공군은 4월 공세의 조공부대로 제9병단을 화천-가평 축선에 신속히 진출시켜 유엔군의 동서간 증원을 차단하고 주공부대인 제19병단의 동측방을 엄호하기 위해 주공부대에 앞서 제9병단을 미 제9군단 지역으로 투입하여 먼저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이때 중공군은 미 제1해병사단에 비해 전력이 약하고 자신들의 장점인 산악기동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국군 제6사단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였다.

(1) 사창리 전투

국군 제6사단은 4월 21일 석룡산-화악산에서 와이오밍선의 육단리와 복주산(△1057)을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여 좌전방 제19연대가 상해봉(1019고지), 우전방 제2연대가 백적산(△883)을 점령해 중간목표를 확보하였다.

사단이 공격제대를 정비하고 있을 무렵인 22일 오후 항공관측자로부터 사단 전방에 대규모의 적이 집결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사단장 장도영 준장은 16시경 전방연대에 공격을 중지하고 방어로 전환하여 좌인접 부대인 미 제24사단 및 우인접 부대인 미 제1해병사단과 각각 연결을 유지하도록 지시하였다.[68]

중공군은 17시경 방화동과 실내리 일대에 포격을 집중한 후 제20군 예하 제60사단과 제40군 예하 제120사단의 병력을 국군 제6사단의 정면과 연대간의 공간으로 침투시켜 상해봉과 두류산으로 진출하였다.[69]

사단은 이미 후방으로 진출한 중공군에 의해 퇴로가 차단되고 통신마저 두절되면서 예하부대의 통제도 불가능한 혼란 상태에 놓였다. 이때 좌전방 제19연대는 적 중에 고립되었고 우전방 제2연대와 예비인 제7연대는 차량과 장비를 포기하고 일부는 좌·우 인접 부대로, 일부는 중공군의 포위망을 돌파하여 분산 철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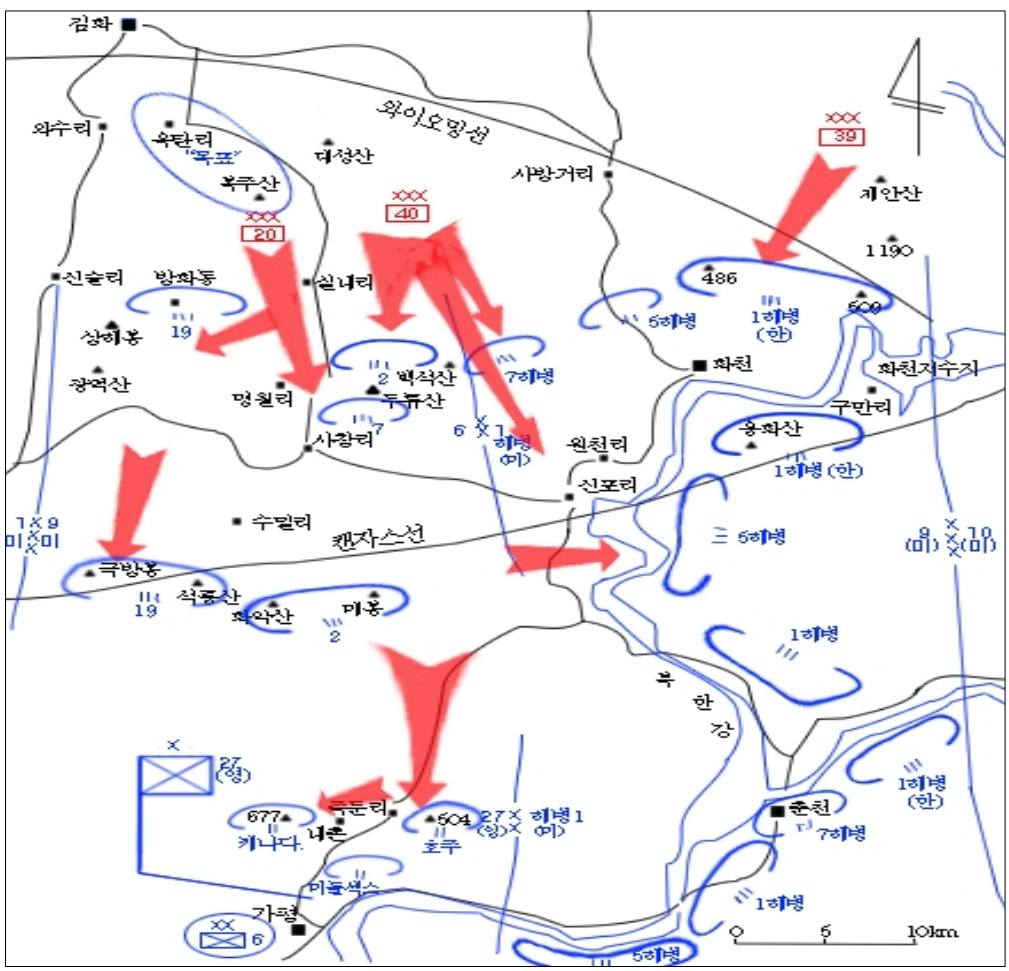
전선을 돌파한 중공군은 계속해서 제7연대 후방의 국군 제27포병대대와 미 제2박격포대대 C중대를 공격하였다. 공격을 받은 부대들은 유일한 철수로인 사창리-춘천간 도로를 따라 신포리로 철수하였다. 사단이 주저항선에서 철수하자 사단을 화력 증원하던 미 포병부대들도 동쪽 북한강 지역으로 이동을 서둘렀다. 이에 따라 사창리에서는 보병과 포병부대들이 뒤섞이면서 큰 혼잡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때 중공군의 기습공격이 가해짐에 따라 미 포병부대들은 다수의 화기를 유기한 채 철수하였다.[70]

한편 국군 제6사단의 우인접 부대인 미 제1해병사단도 제5, 제7해병연대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배속된 국군 제1해병연대가 화천저수지 북쪽의 와이오밍선을 목표로 공격을 실시하다가 4월 22일 중공군으로부터 역습을 받았다. 미 제1해병사단은 중공군 제9병단 예하 제40군 주력의 정면공격과 국군 제6사단의 철수로 말미암아 노출된 좌측방을 통한 중공군의 포위공격으로 인해 심대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위기상황을 맞았다. 하지만 사단은 화력으로 중공군의 공격을 저지하면서 북한강 동쪽으로 철수하여 춘천을 중심으로 한 캔사스선을 점령하였다.

<상황도 6-5> 사창리-가평 전투(1951. 4. 22~24)



4월 23일 날이 밝아 중공군의 공격이 둔화되자 미 제9군단장 호지 소장은 국군 제6사단에 신속히 부대를 재편성하여 캔사스선 방어진지를 점령, 적의 공격을 저지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사단은 이날 오후 제19연대를 국망봉(△1168)-석룡산에, 제2연대를 화악산-매봉 일대에 각각 배치하였으나 적의 야간 공격을 받아 작전의 주도권을 상실한 채 가평 방면으로 철수하였다.

국군 제6사단은 영연방 제27여단의 엄호하에 철수하여 24일 아침 가평 남서쪽 불기산(△601) 일대를 점령하였다. 이때 사단은 소총 2,263정, 자동화기 168정, 2.36″ 로켓포 66문, 대전차포 2문, 박격포 42문, 곡사포 13문 그리고 차량 87대의 손실을 입었다. 사단을 화력 지원한 미 포병부대도 105밀리 곡사포 15문을 비롯하여, 4.2″ 박격포 13문과 242대의 무전기 그리고 차량 73대의 손실을 입었다.

(2) 가평 전투

가평에서는 이곳을 방어하던 영연방 제27여단과 국군 제6사단을 추격한 중공군 제9병단 예하 제118사단 간에 결전이 전개되었다. 영연방 제27여단은 중공군의 4월 공세가 시작되기 직전인 4월 19일에 사창리 서쪽의 방어지역을 국군 제6사단 제19연대에 인계하고 군단예비로 가평에 집결하였다. 이때 한국 파견 근무가 만료된 아길 대대('아길 서덜랜드 하이랜더 연대 제1대대'의 약칭)[71]의 홍콩 원대복귀 문제로 여단의 분위기는 다소 어수선하였다.[72]

23일 미 제9군단장은 저녁까지도 사창리에서 철수한 국군 제6사단의 캔사스선(석룡산-화악산) 점령이 불투명하자 영연방 제27여단 주력으로 하여금 제6사단 후방의 가평천 계곡에 방어진지를 편성하여 춘천-가평 도로를 목표로 진출 중인 중공군을 차단하도록 하였다.

이 명령에 따라 영연방 제27여단은 캐나다 대대[73]를 내촌 부근의 677고지에, 호주 대대[74]를 죽둔리의 504고지 일대에 배치하여 북동쪽에서 가평천 계곡으로 접근하는 중공군을 저지하도록 하는 한편 아길 대대를 예비로 가평 부근에 집결 보유하였다. 그리고 여단은 23일 중공군의 야간공격으로 국군 제6사단이 캔사스선에서 철수하자 사창리 부근에서 이를 지원하던 뉴질랜드 제16포병연대[75]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경계부대인 미들섹스 대대[76]를 철수시켜 가평 북쪽 가평천변에 배치하였다.

국군 제6사단의 철수가 완료된 4월 23일 22시경 국군 제6사단을 추격한 중공군 제118사단의 선두 연대가 호주 대대의 배치 상황을 모른 채 신속히 가평을 점령할 목적으로 종대 대형을 유지하면서 도로와 계곡을 따라 내려왔다. 이에 호주 대대는 대대가 보유한 전 화력과 더불어 지원된 전차 및 포병 화력을 기습적으로 집중하여 중공군을 격퇴하였다.

이후 중공군은 24일 01시경 전방에 배치되었던 영연방 제27여단의 전차 소대가 재보급을 위해 철수하자 즉시 2개 제대로 호주대대에 대해 포위공격을 기도하였다. 호주 대대는 포위된 상황에서도 일부 진지가 피탈되면 즉시 역습으로 회복하면서 새벽까지 504고지 일대의 방어진지를 고수하였다.

날이 밝아 아군의 항공폭격과 포병사격이 집중되자 중공군은 공격을 중지하고 다수의 사체를 유기한 채 철수하기 시작하였고, 즉시 추격작전을 펼친 수색대는 죽둔리 부근에서 중공군 40여 명을 생포하였다.

전반적인 상황을 분석한 영연방 제27여단장 버커 준장은 중공군이 일시적으로 철수하였지만 캐나다 대대와 호주 대대 사이의 공백지역으로 다시 공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그는 호주 대대의 우전방 감제고지인 504고지와 후방의 미들섹스 대대 지역이 적의 포격권에 들어있어 부상자 후송과 재보급도 문제가 되므로 이 지역에 장시간 체류할 경우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여단장은 호주 대대를 미들섹스 대대 후방으로 철수시켰다.[77]

4월 24일 22시경 중공군 제354연대는 박격포와 자동화기의 지원하에 2개 제대로 나뉘어 677고지의 캐나다 대대를 공격하였다. 제16포병연대가 가평천을 도하하는 적을 집중 포격하고 캐나다 대대가 전 화력을 집중하자 중공군의 공격은 현저히 둔화되었고 자정 무렵에는 공격이 중지되었다. 중공군은 25일 02시경 캐나다 대대를 재공격하였으나 D중대의 유인작전에 말려들어 큰 피해를 입고 물러났다.

이로써 영연방 제27여단은 3일간의 혈전을 종료하고 4월 25일 밤 미 제5해병연대에 작전지역을 인계한 다음 양평으로 이동해 군단 예비가 되었다. 이후 신임 여단장 테일러 준장이 취임하면서 부대명칭도 영연방 제28여단으로 개칭되었다.[7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영연방 제27여단의 가평전투 결과 중공군의 유엔군 전선 분할 기도는 완전히 좌절되었으며, 유엔군은 북한강 남쪽에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얻게 되었다.

3) 소양강 부근 전투

미 제1군단과 제9군단이 캔사스선에서 철의 삼각지대로 공격을 개시할 무렵 중동부와 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1, 제3군단은 화천저수지-남전리-한계령을 연하는 캔사스선에 도착하여 전선을 정비하고 있었다.

미 제8군사령관은 4월 20일 중부전선에서 미 제1, 제9군단의 와이오밍선 공격이 순조롭게 진행되자, 중동부와 동부전선 부대들에게 국군 제1군단과 제3군단의 주보급로인 홍천-인제-간성 간의 도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도로의 북쪽 10~22km에 위치한 알라바마선(Alabarma Line, 양구-대암산-가전리-사천리-고성 남쪽)을 목표로 24일부터 공격작전을 개시하라고 명령하였다.[79]

이에 따라 미 제10군단에 배속된 국군 제5사단과 제3군단에 배속된 제3, 제7사단이 공격준비에 주력하는 동안, 공교롭게도 공산군측 4월 공세의 조공인 북한군 제5군단이 양구-원통 선에서 22일 선제공격을 개시함으로써 중서부전선에 이어 동부전선에서도 국군 제3사단과 제5사단이 북한군과 치열한 전투를 펼치게 되었다.

미 제10군단에 배속된 국군 제5사단은 4월 19일 소양강을 도하, 좌전방 제35연대가 가아리, 우전방 제36연대가 원통 북쪽의 봉화산(△579)으로 진출하여 전술적 요충인 인제를 확보하였다. 이 무렵 알라바마선 공격계획에 의거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3군단의 전투지경선이 일부 조정되어 사단은 인제 북쪽의 제36연대 지역을 제3군단의 좌전방으로 투입된 제7사단 제5연대에 인계하고, 양구 동쪽의 좌인접 미 제7사단 제32연대 지역을 인수하게 되었다.[80]

제35연대는 22일 자정부터 정면 돌파를 기도하는 북한군의 집중공격을 받았으나 화력전과 백병전을 펼쳐 돌파를 저지하였다. 물러난 북한군은 정면공격이 부진하자 일부 병력을 연대와 우인접 제7사단 제5연대간의 전투지경선 부근에 생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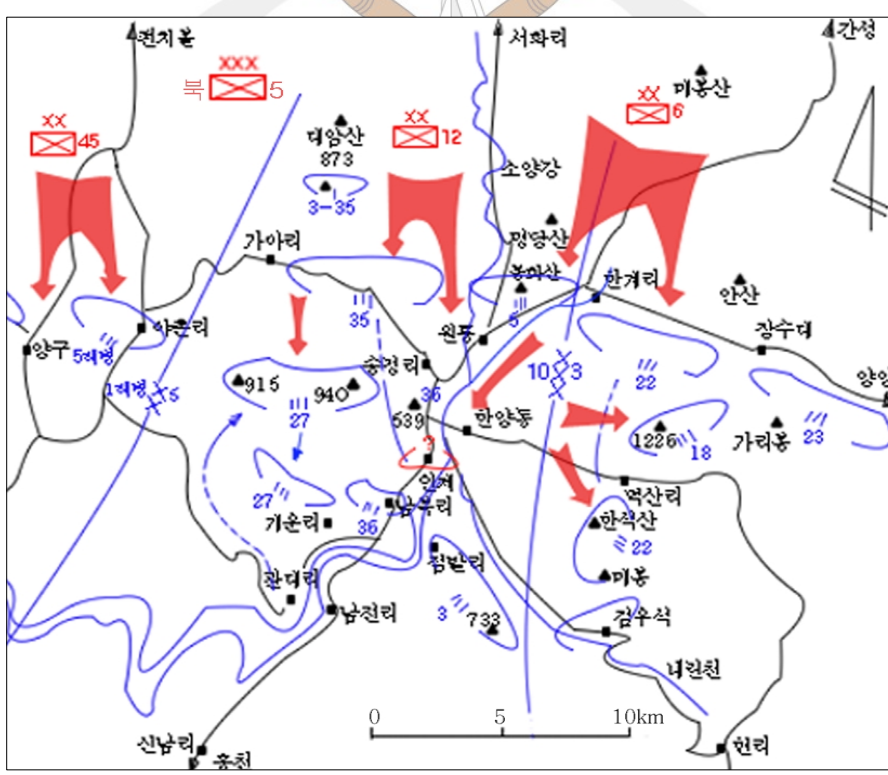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배치 공간으로 침투시켜 동측에서 연대의 퇴로 차단을 기도하였다. 이때 포위당할 것을 우려한 연대의 우전방 제3대대가 원통리로 철수하면서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어 제35연대 주력도 주저항선에서 물러나기 시작하였다.

4월 23일 새벽 중서부전선에 이어 중동부전선에서도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되자 미 제8군사령관은 24일로 계획된 동부전선 부대의 알라바마선 공격을 취소하고 군단간 전투지경선을 조정하여 적의 공세를 저지하도록 명령하였다.[81]

이에 따라 국군 제5사단과 제7사단의 예하 연대들은 제27연대가 인제 북서쪽 고지군에, 제36연대가 인제 북쪽의 고지군에, 제5연대가 원통리에 각각 배치되어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그리고 제3연대는 사단예비로 소양강 남쪽의 한양동에 배치하고 인제 남쪽으로 철수한 제35연대는 재편성을 하도록 하였다.

<상황도 6-6> 소양강 부근 전투(1951. 4. 22~25)



4월 24일 새벽 국군 제5사단은 다시 인제를 적의 수중에 넘겨주고 전선을 재조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인제를 탈취한 적이 공격을 중지하고 방어로 전환함에 따라 미 제10군단장은 25일 전술적 요충인 인제를 탈환하도록 명령하였다. 사단은 25일 오전에 제36연대의 제2대대와 미 제7사단에서 배속된 전차 5대로 보전 협동작전을 전개하여 정오경 인제를 재탈환하였다.[82] 인제를 북한군의 수중에 넘겨준 이후 쌍방간에는 포격전만이 계속 되었고 전투는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한편 미 제10군단의 우인접 부대인 국군 제3군단은 4월 22일 현재 예하부대중 제3사단이 한계리에 제22연대를, 가리봉에 제23연대를, 덕산리에 사단예비로 제18연대를 각각 배치하여 주저항선 방어와 정찰활동에 주력하였다. 그리고 군단예비로 후방지역에서 공비 소탕작전을 전개하던 제7사단이 알라바마선 공격계획에 의거해 22일 오후 미 제10군단에 배속되어 작전 중이던 제5사단의 원통지역을 인수하였다.

그러나 23일 미 제8군의 알라바마선 공격계획이 취소되고 전선 재조정 계획이 실시됨에 따라 8시에 제7사단의 제3, 제5연대가 제5사단에, 제8연대가 제3사단에 배속되고 전투지경선도 제7사단이 투입되기 이전의 상황으로 환원되었다.

북한군 제6사단은 이날 오전부터 공격을 재개하여 정오 무렵 제5연대와 제22연대의 전투지경선 부근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였다. 주저항선을 돌파한 북한군 제6사단은 일부 부대로 하여금 국군 제5사단을 공격 중인 북한군 제12사단을 지원하게 하고 주력을 국군 제22연대 공격에 투입하였다. 이 공격으로 제22연대는 한석산을 피탈당하고 10km를 철수하여 매봉 일대에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국군 제3사단장 김종오 준장은 제22연대가 철수하고 있을 무렵 제18연대의 1개 대대를 제22연대 지원에 투입하고, 연대주력을 제22연대와 제23연대의 배치 공간인 한석산 북동쪽 고지군을 점령하여 북한군의 후방 진출을 저지하도록 조치하였다. 24일 제22연대 제2대대와 제18연대 제2대대는 14시부터 2시간 동안 예측을 불허하는 고지쟁탈전을 펼쳐 힘겹게 한석산을 탈환하였다.

한석산에서 물러난 북한군은 병력을 증원받아 25일 정오경 1개 연대 규모로 한석산을 다시 공격하였다. 한석산의 제22연대 제2대대는 백병전을 펼쳤으나 점차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황이 불리해지고 북한군의 야간 포위공격을 우려하여 또다시 매봉(△1064)으로 철수하였다.[83] 연대는 매봉 일대에서 피아를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하게 전개된 백병전을 수행한 후 피탈된 한석산을 공격하여 재탈환하는 데 성공하였다. 북한군 제6사단과 국군 제3사단은 한석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4일 동안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고지쟁탈전을 펼쳤지만 결국 국군 제3사단이 이 고지의 주인이 되었다.

4) 서울 고수 방어작전

공산군은 주공으로 서부전선에 투입된 중공군 제19병단과 북한군 제1군단이 임진강변에서 국군 제1사단과 영국군 제29여단의 강력한 저항과 항공폭격 및 포병사격으로 막대한 인명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추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서울을 목전에 둔 4월 26일부터 공산군측이 과감하게 주간 공격작전으로 전환함으로써 쌍방은 서울 외곽에서 이번 4월 공세의 분수령이 될 치열한 일전을 펼치게 되었다.

(1) 미 제1군단의 골든선 점령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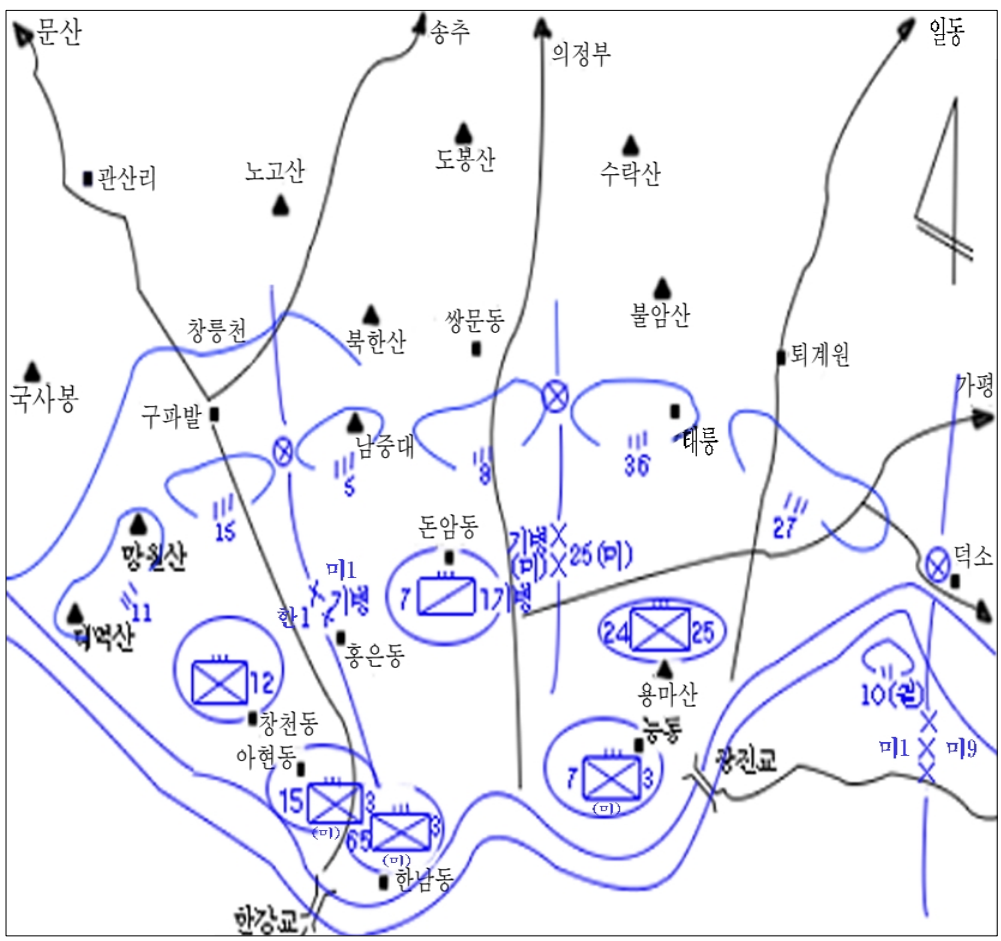
중공군의 4월 공세가 개시되기 전 미 제8군의 작전개념은 공산군의 공격으로 철수를 강요받게 되면 성동리-노고산-덕정-포천-가평을 연하는 델타(Delta)선과 서울 외곽의 수색-북한산-덕소를 연하는 골든(Golden)선, 그리고 한강-양평-횡성-양양을 연하는 네바다(Nevada)선으로 축차적인 철수를 하면서 공산군에게 최대의 출혈을 강요한 후 반격작전으로 전환하여 다시 캔사스선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미 제8군은 미 제1군단이 골든선을 점령하면 다른 군단들도 기 계획된 방침에 의거 네바다선으로 철수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한강 이북의 서울도 포기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미 제8군사령관은 26일 미 제1군단의 예하 사단들이 골든선으로 철수하기 직전에 이 작전개념을 수정하여 골든선 동쪽에서 연결되는 네바다선보다 30~40km 북쪽의 용문산-홍천-한계령-속초를 연하는 새로운 방어선인

노네임(No Name)선을 설정하고 군단간 전투지경선을 일부 조정한 후 골든-노네임선을 방어할 것을 명령하였다.[84]

이와 같은 작전방침에 의거 미 제8군사령관은 미 제1군단이 서울 방어에 주력할 수 있도록 그동안 우측방을 엄호하던 미 제24사단을 미 제9군단으로 배속 전환하여 제1군단의 방어정면을 축소 조정하고, 또한 군 예비인 미 제1기병사단을 미 제1군단에 배속하여 강력한 예비대를 보유할 수 있게 하였다.

<상황도 6-7> 서울 방어배치(1951. 4. 29)



미 제1군단은 중공군의 인해전술에 의한 파상공격에 밀려 4월 25일 성동리-덕정-포천을 연하는 델타선을 점령하였으나 이 선은 캔사스선과 같은 영구적인 방어선도 아니며 또한 방어시설을 갖춘 것도 아니었으므로 군단장은 이 선에서의 강력한 저항이나 지속적인 점령을 고려하지 않았다. 다만 군단이 서울 외곽의 골든선으로 철수하는 단계에서 부대의 철수를 조정 통제하고, 적에게 출혈을 강요하여 전진을 지연시킴으로써 군단의 방어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최대한 획득하기 위하여 이 통제선을 설정하였던 것이었다.

그리고 군단장은 포병부대가 유효사거리 내에 잔류하면서 철수하는 보병부대에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화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델타선과 골든선 사이에 추가로 2개의 통제선을 설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각 통제선에서의 철수는 추격 중인 중공군에게 효과적인 타격을 줄 수 있도록 항공 및 포병사격이 용이한 주간 철수를 실시하기로 하였다.[85]

4월 28일 새벽에 미 제1군단장은 4월 공세가 개시된 이후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야간 기습공격을 감행하던 공산군이 전날 밤만은 야간공격을 중지하자 이를 공산군이 대규모 공세를 준비하는 징후라고 판단하고 예하 사단에 골든선을 점령하여 방어준비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명령하였다.[86]

이에 따라 좌전방 국군 제1사단은 한강하구-구파발에, 중앙의 미 제1기병사단은 구파발-쌍문동에, 그리고 우전방 미 제25사단은 쌍문동-덕소 간의 골든선을 점령하였다. 이로써 군단은 북한산을 연하여 상호 협조되고 요새화된 강력한 방어선을 형성하였고 방어정면도 축소되어 포병의 집중 운용과 충분한 예비대의 확보도 가능하게 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화전리 전투

국군 제1사단은 4월 22일 중공군의 4월 공세가 개시된 이후 파평산 일대에서 격전을 치른 후 4월 25일 델타선으로 철수하면서 북한군 제1군단 예하 제8사단과 금촌, 동거리 일대에서 치열한 지연작전을 전개하여 적에게 큰 타격을 주었으나 전선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서울 외곽으로 철수하였다. 그리고 군단명령에 의거

29일 제11연대는 화전리 일대, 제15연대는 불광동 일대의 골든 선 방어진지를 점령하였다.

이때 사단이 점령한 진지는 미 제8군의 예비계획에 따라 4월 초순부터 은밀히 사단 작전요원들의 감독하에 지역 주민을 동원하여 유개호 진지와 교통호를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방어시설이 완벽하였다.[87]



서부전선에서 교전 중인 유엔군(1951. 4.)

문산-서울 축선으로 진출한 북한군 제8사단은 일산 부근에서 재편성을 한 후 28일 새벽에 1개 연대 규모를 행주나루터로 은밀히 침투시켜 김포비행장 방면으로 도하를 기도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국군 제1사단 수색대에 발견되어 2시간 동안 인천 외항에 대기 중인 순양함 툴레도(Toledo)호의 8인치 함포사격을 받고 다수의 사체를 유기한 채 북으로 철수하였다.[88] 하지만 북한군은 집요하게 공격을 계속하였는데, 특히 이날 자정부터 4시간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무의미할 정도의 돌격을 감행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국군 제1사단 제11연대는 북한군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수류탄과 총검이 교차하는 백병전을 펼쳐 북한군을 격퇴하였고, 집요하게 진지 돌파를 기도하던 북한군은 새벽이 되자 짙은 안개를 이용하여 철수하기 시작하였으며, 제11연대의 전방대대들이 정찰대를 파견하여 진전정찰을 실시한 결과 900여 구의 북한군 시체를 확인하였다.[89]

한편 제11연대가 북한군 제8사단과 혈전을 펼치고 있을 무렵 중공군 제64군의 일부는 북한군 제8사단의 공격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전방 제15연대 지역으로 양동작전을 개시하였다. 연대는 공격 초기에 앵무봉을 피탈당하기도 했지만, 사단장이 피탈된 진지를 회복하기 위하여 30일 사단예비인 제12연대 제1대대와 미 전차중대를 투입함에 따라 보전 협동으로 중공군을 격퇴하였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이 무렵 미 제1군단 예하 미 제1기병사단이 북한산과 도봉산일대로 침투하던 중공군을 격퇴하고 미 제25사단 역시 퇴계원 부근에서 사단의 주저항선 돌파를 기도하던 중공군 제65군을 상대로 포병사격과 항공 폭격을 통해 1,000여 명을 살상하는 전과를 올림으로써 방어진지를 고수하였다. 이로써 중공군 제19병단이 마지막 승부수로 시도한 골든선 공격은 실패하였고 중공군의 4월 공세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5) 정찰기지 확보 작전

중공군의 4월 공세를 격퇴한 국군과 유엔군은 4월 30일을 기해 골든-노네임선에서 부대 재배치와 방어진지 보강에 주력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5월 1일을 기준으로 한 포로들의 진술과 정보판단 결과 공산군측이 4월 공세에서 막대한 인적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체 병력규모가 73만 9천여 명(중공군 54만 2천 명, 북한군 19만 7천 명)에 달하고, 만주지역에 이들을 증원할 수 있는 예비병력 75만여 명이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비해 국군과 유엔군의 병력 규모는 50만 3천여 명(유엔군 26만 9천 명, 국군 23만 4천 명)으로 공산군측에 비해 수적인 열세를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공산군측이 비록 4월 공세에 실패하고 일단 후퇴하였지만 병력을 증원받아 재편성을 완료한 후 공격을 재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90]

이에 유엔군측 각 군단의 전방사단들은 주저항선 전방에 정찰기지를 설치하여 방어종심을 증가시킴은 물론, 적정을 탐지하기 위하여 정찰대를 투입, 화력의 엄호하에 적진 깊숙이 정찰작전을 펼쳤다. 이때 공산군은 전 전선에서 아군과 접적을 회피하는 등 활동이 소극적이었으나 유일하게 국군 제1사단이 방어 중인 문산-서울 축선에서는 북한군 제8사단을 투입하여 정찰기지 설치를 확보하였다.[91]

이에 따라 국군 제1사단은 5월 7일 오후부터 강력한 항공폭격과 보전포 협동작전으로 5시간 동안 혈전을 펼쳐 북한군을 고봉산에서 격퇴하였다. 그리고 5월 8일 공격을 재개한 사단이 최종 목표인 봉일천 동쪽의 명봉산(△248)과 188고지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확보하고 작전을 종료할 무렵 미 제1군단장은 북한군을 계속 공격해 전과를 확대하고 유리한 지형을 확보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에 국군 제1사단은 5월 9일 문산천 주변의 개활지를 통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차후 공격의 발판이 되는 고지군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11연대가 내화산-동거리로 우회 기동하여 북한군의 퇴로를 차단하고 우전방 제15연대가 일련의 연결된 고지군을 따라 동거리로 공격하였다. 이후 사단은 5월 10일 오후에 제15연대를 문산-서울 도로변의 명봉산-대자동-관산리 일대의 정찰기지에 배치하고 사단 주력은 다시 미 제3사단으로부터 주저항선을 인수한 후 골든선의 방어태세를 보강하였다.

6) 주보급로 확보 작전

미 제8군사령관은 중서부전선의 골든-노네임선 방어진지가 강화되고 정찰기지 설치가 완료되자, 유엔군의 전선조정에 따라 노네임선으로 철수함으로 인해 공산군의 수중에 넘겨주었던 중동부전선의 중요 전술도로인 홍천-인제-간성을 연결하는 도로를 탈환하기로 결심하였다.

제8군사령관은 특히 국군 제3군단의 보급지원 문제를 해결하고 차후 화천저수지 동쪽에서 공세작전으로 전환시 유리한 기동로를 확보할 목적으로 미 제10군단에 배속된 국군 제5, 제7사단과 국군 제3군단에 예속된 제3, 제9사단, 그리고 국군 제1군단에 예속된 수도, 제11사단을 투입하여 홍천-인제-간성간 도로의 10~25km 북쪽 가리산-신월리-915고지-1037고지-대진리를 연하는 미주리(Missouri)선 확보를 계획하였다.[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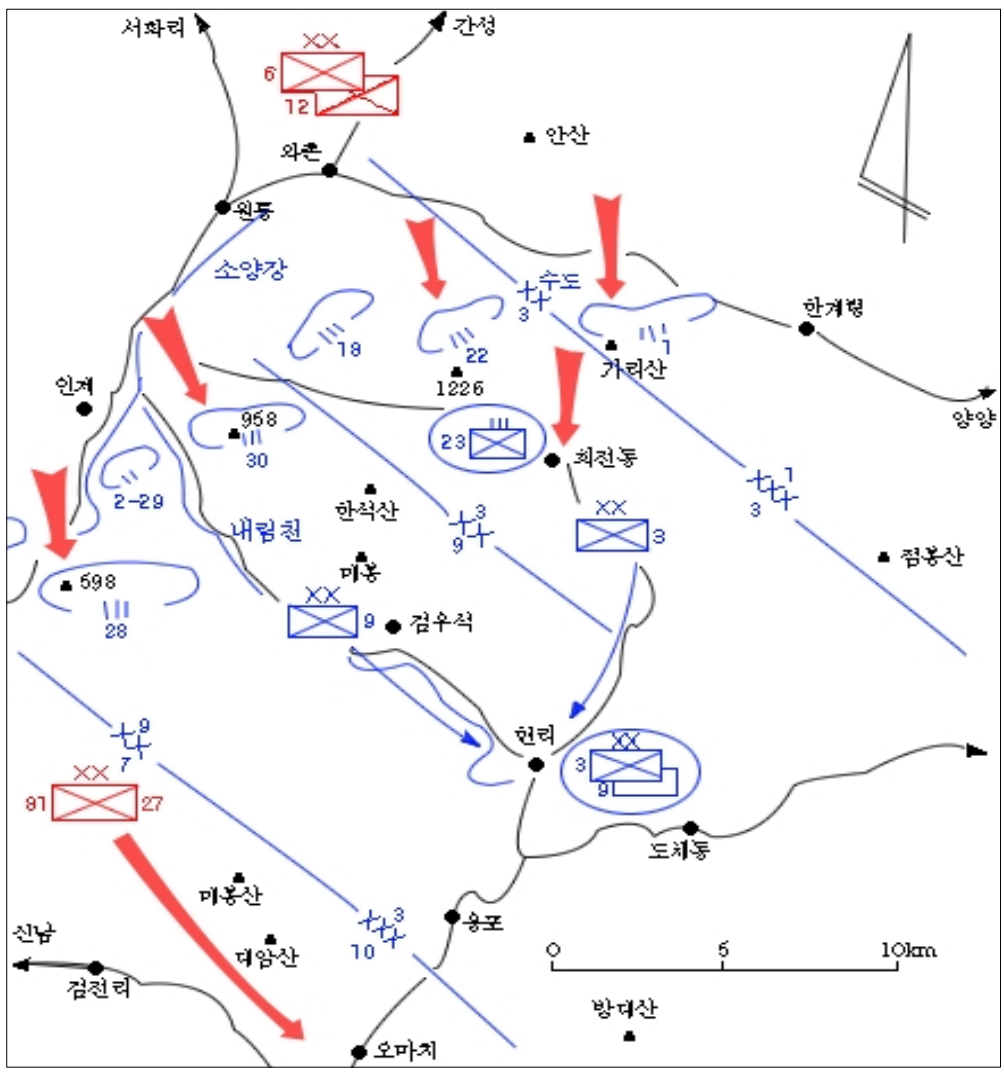
이 계획에 따라 국군 6개 사단(제3, 제5, 제7, 제9, 제11, 수도사단)은 1950년 5월 7일 미주리선을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때 제9사단은 한석산을, 제5, 제7사단은 한석산 좌측에서 소양강 남쪽의 부평리-청구리 일대를, 수도사단은 설악산을 목표로 각각 공격을 실시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 매봉-한석산 전투

중공군의 4월 공세시 국군 제9사단은 국군 제1군단의 예비로 강릉에서 부대를 재정비한 후 4월 25일부로 제3군단에 배속되었으며, 27일에는 이성가 준장의 후임으로 최석 준장이 사단장에 취임하였다. 사단은 5월 2일 제7사단 제8연대 지역을

<상황도 6-8> 매봉-한석산 전투(1951. 5. 7~10)



인수하여 제3군단의 좌전방 사단으로 현리 북쪽 7km의 산악지대를 방어하던 중 7일 인제 북쪽의 미주리선을 공격하게 되었다.

사단의 공격목표인 한석산(△1119)과 그 남쪽의 매봉(△1066)은 4월 25일 제3사단의 제22연대가 북한군에게 피탈당한 고지로서 주변의 현리, 인제, 원통을 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후공격의 발판이 되는 중요 감제고지였다. 이러한 전술적 중요성을 간파한 북한군 제6사단도 소양강에 배수의 진을 치고 이들 고지 일대에 2개 연대 규모로 강력한 거점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제9사단 제30연대 제3대대는 5월 7일 7시에 공격을 개시해 매봉 공격의 발판이 되는 910고지를 13시경에 점령하였다.[93] 제3대대는 8일 매봉을 점령하기 위하여 공격을 재개하였으나 주간공격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이후 대대는 야간공격과 우회기동 등 수차례의 역습 끝에 마침내 공격개시 3일 만에 요지부동인 적을 격퇴하고 매봉을 점령하였다. 이 전투에서 제30연대 제3대대는 390여 명의 전사상자를 낸 반면 북한군 890여 명을 사살하고 다수의 탄약과 장비를 노획하는 대전과를 올려 대대의 전 장병이 일계급 특진하였다.[94] 한편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한 연대는 예비인 제1대대를 투입하여 10일 저녁 무렵 한석산마저 점령함으로써 소양강 건너 인제를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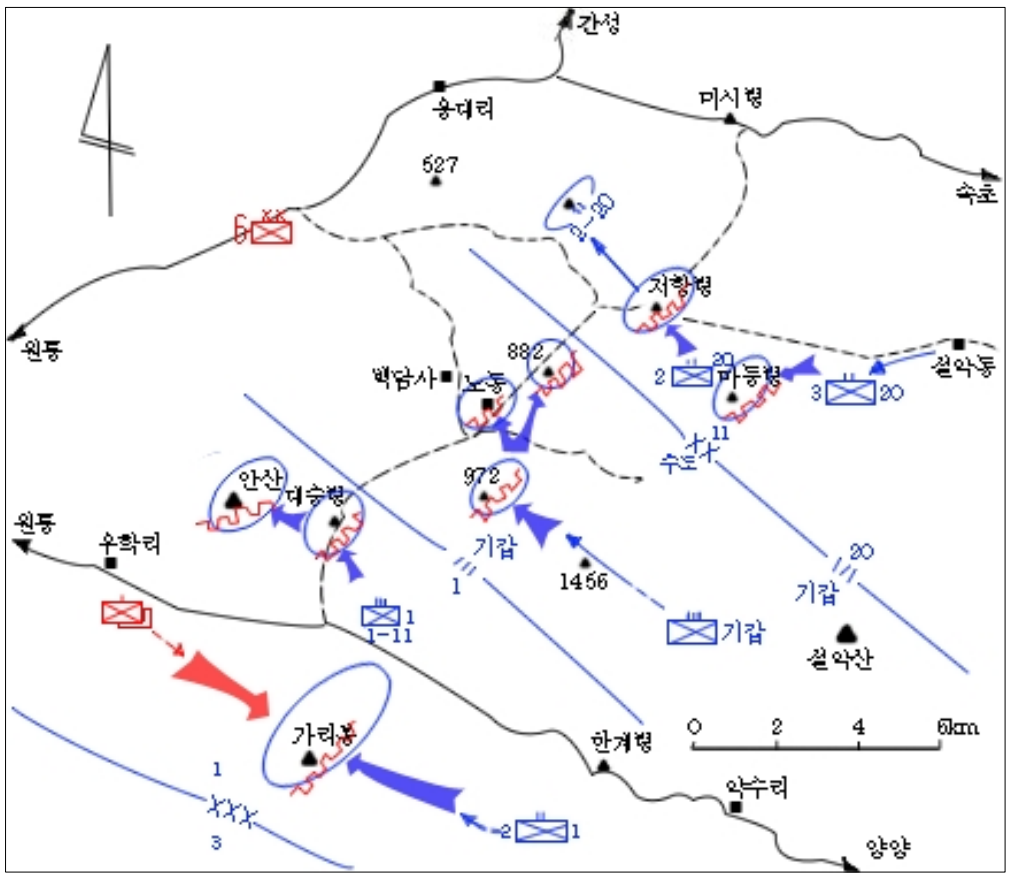
⑵ 설악산 부근 전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계령-오색리-관모봉을 연하는 선에 주저항선을 구축하고 있던 동해안의 국군 제1군단(수도, 제11사단)은 5월 7일 미주리선을 향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때 군단 정면에는 북한군 제6사단이 가리봉-대승령-노동을 연하는 선에 단애와 협곡 그리고 울창한 산림을 이용하여 강력한 거점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수도사단의 공격은 첫날부터 험준한 지형과 산악 특유의 짙은 안개로 지연되어 8일 제1연대가 가리봉(1519고지)을, 제1기갑연대가 노동을 목표로 공격하게 되었다. 제1연대는 공격간 북한군의 강력한 기관총 저지사격에 공격이 일시 저지되기도 하였으나 포병의 엄호하에 근접전투와 치열한 백병전을 펼쳐 힘겹게 가리봉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제1기갑연대도 포병의 화력지원을 받아 노동을 감제할 수 있는

<상황도 6-9> 설악산부근 전투(1951. 5. 7~11)



972고지를 점령하였다.[95]

사단이 공격을 일시 중지하고 공격제대를 재정비하고 있을 무렵인 5월 10일 아침에 2개 중대규모의 북한군이 가리봉을 재탈환하기 위하여 기습공격을 해 옴에 따라 치열한 일진일퇴의 공방전이 다시 전개되었다. 이후 사단은 철수하는 북한군에게 재편성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 11일 새벽부터 보포의 협조된 공격을 개시하여 좌전방 제1연대가 안산(△1430)을, 우전방 제1기갑연대가 노동을 점령하여 차후 공격의 발판을 확보하였다.

한편 수도사단의 우인접 부대로 공격을 실시한 제11사단의 제20연대는 1,000m 이상의 험준한 설악산 준령을 따라 북한군을 추격하였다. 5월 11일 제20연대 제5중대는 저항령 부근에서 북한군과 무려 31시간 동안에 걸친 격전을 펼쳤다. 중대는 예비 병력의 부족과 탄약 및 식량이 바닥나 어려운 상황을 맞기도 하였으나 북한군을 격퇴하고 989고지로 진출하여 좌인접에서 진출 중인 제1기갑연대를 엄호하였다.[96]

5월 11일 미 제8군사령관은 공산군측이 수일 내에 공격을 재개한다는 정보가 입수됨에 따라 중서부전선 부대의 공격계획을 취소하고 동부전선에서 국군의 미주리선 공격도 중지시켰다.

이로써 국군과 유엔군은 5월 초까지 구파발-마석우리-용문산-설악산-대포리를 잇는 골든·노네임선에서 중공군의 4월 공세를 저지한 후 정찰대가 봉일천-의정부-포천-가평-춘천-인제-속초선까지 진출하여 전방지역에 대한 정찰활동을 실시하게 되었다.

4월 공세에서 중공군은 유엔군의 항공폭격과 포병화력을 활용한 조직적인 지연작전으로 인해 그들의 작전목표였던 유엔군 격멸은 고사하고 오히려 서울 북방에서만 7만 5천~8만여 명이 사살되고 5만여 명이 부상당하는 등 심대한 손실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중공인민지원군사령관 펑더화이는 4월 공세의 실패를 자인하고 공세 결과를 마오쩌둥에게 보고하면서 공세의 조기종결을 결심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3 절 중공군의 5월 공세와 유엔군의 방어

1. 개 요

공산군의 4월 공세가 약 1주일 만에 중단되자,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 중장은 1951년 4월 30일을 기해 노네임(No Name)선을 요새화하는 동시에 적정파악을 위한 위력수색을 강화하도록 예하부대에 지시하였다. 이때 유엔군 지휘부는 공산군이 서울 점령을 눈앞에 두고 공격을 중단한 것은 일시적인 어려움 때문이며, 전력을 강화한 후 다시 제2차 공세를 시도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그리고 공산군의 주공방향을 서부나 중부 또는 양쪽 방향에서의 협공으로 예상한 밴플리트 중장은 미 제8군의 중앙부를 보강하는 부대배치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 외곽을 방어 중이던 미 제1군단은 문산 축선에 국군 제1사단, 의정부 축선에 미 제1기병사단과 미 제25사단을 배치하고 영국군 제29여단을 예비로 하는 전투편성을 실시하였으며, 북한강 계곡 통로를 방어중인 미 제9군단은 덕소-예봉산-용문산-금학산을 연하는 선에 서에서 동으로 영연방 제28여단, 미 제24사단, 국군 제2사단, 국군 제6사단, 미 제7사단을 차례로 배치하고 제187공정연대 전투단을 예비로 확보하였다. 그리고 미 제10군단은 춘천-홍천 축선에 미 제1해병사단과 미 제2사단, 소양강 남쪽에 국군 제5사단과 제7사단을 배치하였다. 또한 동부전선의 국군 제3군단은 한석산-가리봉간 산악능선에 국군 제9사단과 제3사단을, 국군 제1군단은 설악산-대포리 선에 국군 수도사단과 제11사단을 배치하였다.[97]

새로운 부대배치가 완료된 후 국군과 유엔군은 전 전선에 걸쳐 위력수색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5월 9일에는 김포반도-봉일천-의정부-가평-춘천을 확보한데 이어 동부전선의 인제와 속초까지 탈환함으로써 4월 공세 당시 상실한 지역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절반을 회복하였다. 이와 같이 상황이 호전되자,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 중장은 38도선을 향한 본격적인 반격작전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의 핵심 내용은 5월 12일을 기해 미 제1군단과 제9군단 그리고 제10군단이 문산-춘천 선을 점령한 후 북동쪽의 인제를 공격하면, 국군 제3군단과 제1군단도 정면공격을 계속하여 38도선 이북에 도달하는 것이었다.[98]

<표 6-15> 축선별 주요부대 배치

축선	문산-의정부	북한강 계곡 통로	춘천-소양강	태백산맥	
				한석산-가리봉	설악산-대포리
군단	미 제1군단	미 제9군단	미 제10군단	제3군단	제1군단
사단	국군 제1사단, 미 제1기병사단, 미 제25사단, 영국군 제29여단	영연방 제28여단, 미 제24사단, 국군 제2사단, 국군 제6사단, 미 제7사단, 미 제187공정 연대 전투단	미 제1해병사단, 미 제2사단, 국군 제5사단, 국군 제7사단	국군 제9사단, 국군 제3사단	국군 수도사단, 국군 제11사단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그러나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 중장은 5월 10일 이후 전 전선에 걸쳐 공산군의 활동이 현저히 강화되고 새로운 공세 징후들이 포착되자 반격계획을 즉시 취소하는 한편, 예하부대에 공산군의 공세에 대응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때 중부 및 중동부 전선에서는 공산군 측의 연막차장이 광범위하게 실시되는 가운데 대규모 병력이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관측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엔군 측은 5월 14~15일에 나타난 기상악화로 인해 5월 공세 직전의 공산군 측 기동상황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한편 4월 공세에 실패한 공산군은 공세 실패에 따른 불리한 전황을 조기에 만회하고 작전의 주도권을 다시 장악하기 위한 방책의 일환으로 5월 공세(제5차 2단계 공세)를 계획하였다.[99] 이러한 공산군측의 조치는 '서울 점령'이라는 정치적 목적보다는 "중동부 산악지역에서 국군 사단들을 격멸하여 고립된 미군을 섬멸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다"는 조·중연합사령관 펑더화이의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따라 공산군은 중동부지역에 배치된 국군 6개 사단을 섬멸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다음 주공을 중서부에서 중동부로 전환하고, 중공군 3개 병단과 북한군 4개 군단 등 총 41개 사단을 집중 투입하는 공세를 계획하였다. 이때 공산군 측의 세부적인 부대 운용 계획은 중공군 제9병단과 제3병단 그리고 북한군 3개 군단을 주력부대로 중동부지역의 국군 정면에 집중 배치하여 운용하고, 중공군 제19병단을 서부지역에서 견제부대로 운용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시 중동부지역에서의 주력부대 운용은 중공군 제9병단과 북한군 제2군단 및 제5군단에 주공 임무를, 중공군 제3병단과 북한군 제3군단에 조공임무를 각각 부여하는 것이었다.

<표 6-16> 지역별 주요부대 배치

지역	서부지역	중동부지역	
병단	19	3	9
군(군단)	63·64·65	15·39·60	12·20·27
	북한 제1군단	북한 제3군단	북한 제2·5군단

이러한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의 대치 상황과 계획을 고려해 볼 때, 공산군 측이 의도한 대로 중동부지역에 배치된 국군 6개 사단이 붕괴될 경우 이 지역의 전선은 완전히 개방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유엔군 측이 중서부전선의 주요 부대들이 고립되는 최악의 위기상황에 봉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작전의 성공을 이용해 유리한 조건에서 휴전회담에 임하려는 공산군의 전략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51년 5월 16일 공세를 단행한 공산군은 현리 일대를 돌파해 국군 제3군단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고, 일부 부대가 하진부리 일대까지 진출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때 공산군 특히, 중공군은 단기간 내에 속전속결로 전쟁을 승리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동전 전법을 구사하였다. 그러나 4월 공세와는 달리 양익포위를 발전시켜 3중으로 국군을 포위 섬멸하는 다중포위를 사용하고, 국군 후방의 주보급로를 다중으로 차단하였다.[100] 그러나 공산군은 그들이 의도했던 국군에 대한 3중 포위에 실패하고 6월 초에는 공세의 한계에 도달하였으며, 오히려 유엔군의 퇴로차단과 종심 깊은 포위작전으로 재기불능 상태가 되어 북으로 퇴각하였다. 이후 감행된 유엔군의 재반격으로 전선은 전전상태로 회복되었고, 양측은 휴전협상에 돌입한 상태에서 지리한 진지전만을 계속하게 되었다.

2. 상황평가 및 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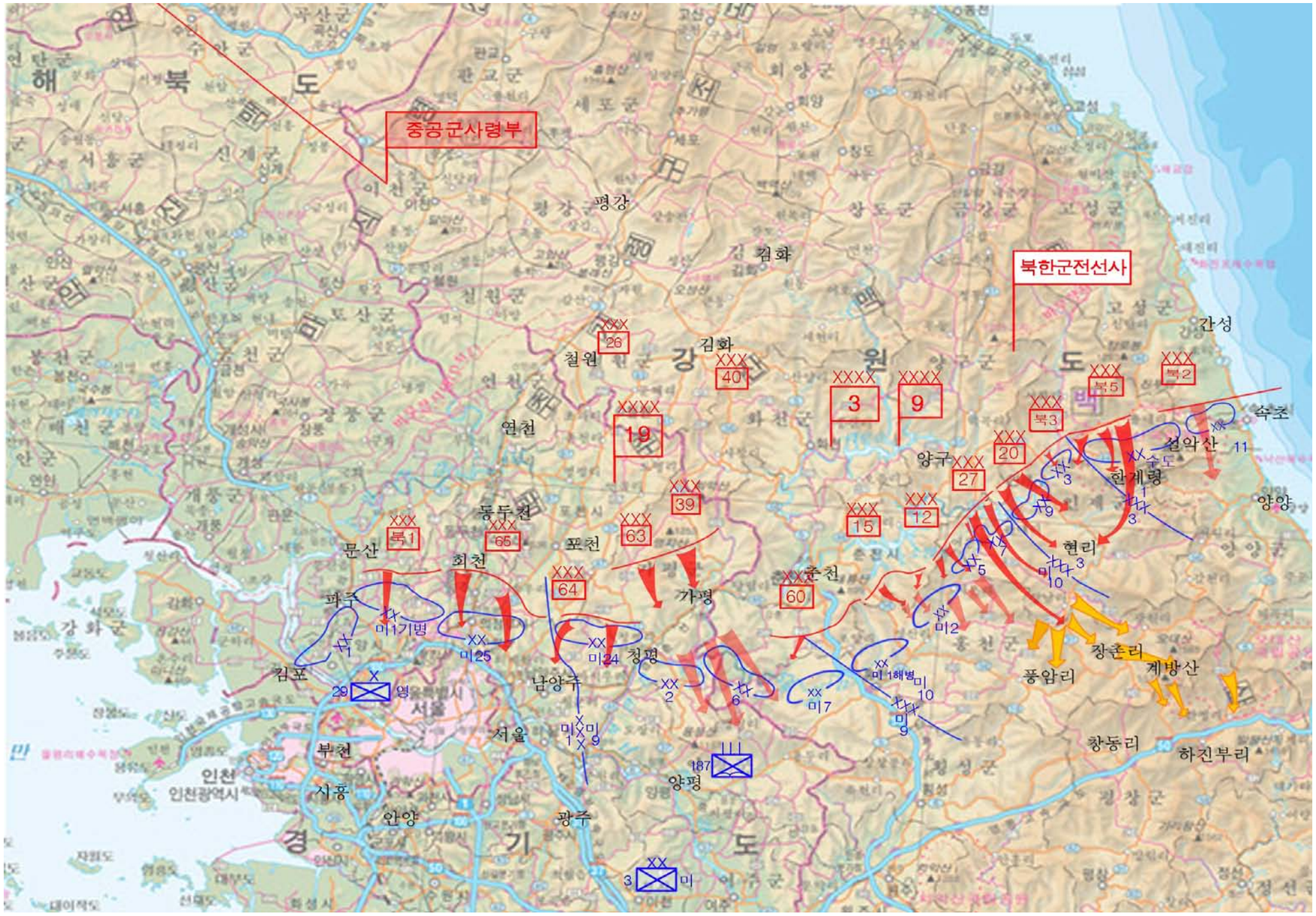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 공산군측의 상황평가 및 의도

(1) 작전목표 및 기도

중공군은 제5차 1단계 공세인 4월 공세를 통해 38도선 돌파에 성공하고 서울에 근접함으로써 전장의 주도권을 회복하였으나, 유엔군 섬멸이라는 최초의 계획을 달성하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군의 유생역량 섬멸을 중시하게된 중공 수뇌부와 조·중연합사령관 펑더화이는 국군에 대한 집중공격으로 미군을 고립, 분산시킨 후 미군을 섬멸할 수 있는 유리한 전기를 마련한다는 새로운 작전 목표를 설정하였다.[101]

<상황도 6-10> 중공군의 5월 공세(1951. 5. 16~22)



이러한 배경에는 그동안 수행해 온 5차에 걸친 대규모 공세의 경험 즉, 병력이 우세하더라도 화력과 장비가 열세하면 승리할 수 없다는 인식이 짙게 깔려 있었다. 따라서 '서울 점령'이라는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목표보다는 "중·동부 산악지역에서 국군 사단들을 격멸한 후 고립된 미군을 섬멸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다"는 목표로 선회하였다.

그결과 공산군측이 기도한 5월 공세의 목적은 주공을 중동부 전선으로 지향해 그곳에 집중된 국군을 격멸하여 미군을 고립시킴으로써 향후 유엔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기 위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102] 그리고 공산군측의 공세목적에는 4월 공세로 인해 중서부 전선에서 타격을 입은 미군이 손실된 역량을 회복하기 전에 중동부 전선의 국군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해 대량 섬멸하는 한편 국군 내부를 와해시켜 유엔군의 대공세 기도를 완전 분쇄한다는 의도도 함축되어 있었다.[103] 공산군은 이를 위해 중서부 전선에 대한 양공작전으로 유엔군이 동부로 이동하는 것을 견제하고 중동부 전선에 대한 차단작전을 병행함으로써 미 제10군단의 동측 연결을 저지하는 방책을 채택하였다.[104]

이상과 같은 공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산군은 우선 현리지역 일대의 국군 4개 사단을 다중포위로 섬멸한다는 기본 작전지침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주공인 중공군 제9병단은 양구-인제 축선을 돌파한 후 신속히 상남리-속사리, 한계-풍암리로 종심 기동하고, 조공인 중공군 제3병단은 일부가 미 제10군단을 고착 견제하는 동안 주력이 국군의 방어선을 돌파해 오마치-창촌-속사리로 종심 기동하는 임무를 각각 부여받았다.

한편 인제 방면에서 진격한 북한군 제3군단은 현리 일대에서 중공군 제9병단과 합류하여 국군을 포위 섬멸한 후 방내리-창촌리로, 한계령을 점령한 북한군 제5군단은 현리 동쪽과 속사리 방면으로, 그리고 속초 일대의 북한군 제2군단은 한계령을 넘어 창촌리-속사리 방면으로 종심 기동해 다중포위에 임하는 임무를 각각 부여받았다. 또한 중공군 제19병단과 북한군 제1군단에는 양동작전을 실시해 서부지역의 미군 주력이 중동부지역으로 전환되는 것을 차단하는 고착 견제임무가 부여되었다.[10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작전계획

5월 공세의 방침이 확정되자 조·중연합사령관 펑더화이는 중공군 주력부대에 휴식과 정비가 완료되는 즉시 지정된 지역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중공군 제3병단과 제9병단은 1951년 4월 28일부터 중동부지역으로 은밀히 이동하여 북한군과 합류한 후 양구-인제 일선에서 공격준비에 돌입하였다. 그리고 5월 6일을 기해 현리의 국군을 섬멸하기 위한 펑더화이의 예비 작전명령이 다음과 같이 하달되었다.[106]

① 중공군 제9병단과 동부전선의 북한군은 상호 협조하여 현리 지역의 국군 제3, 제5, 제7, 제9사단을 섬멸한 후 상황에 따라 수도사단과 제11사단을 섬멸한다.

② 중공군 제3병단은 미군과 국군간의 연결을 차단하고 미 제10군단이 동부전선으로 지원되는 것을 차단한다.

③ 중공군 제19병단은 서부전선에서 양공작전을 개시해 동부전선 작전에 협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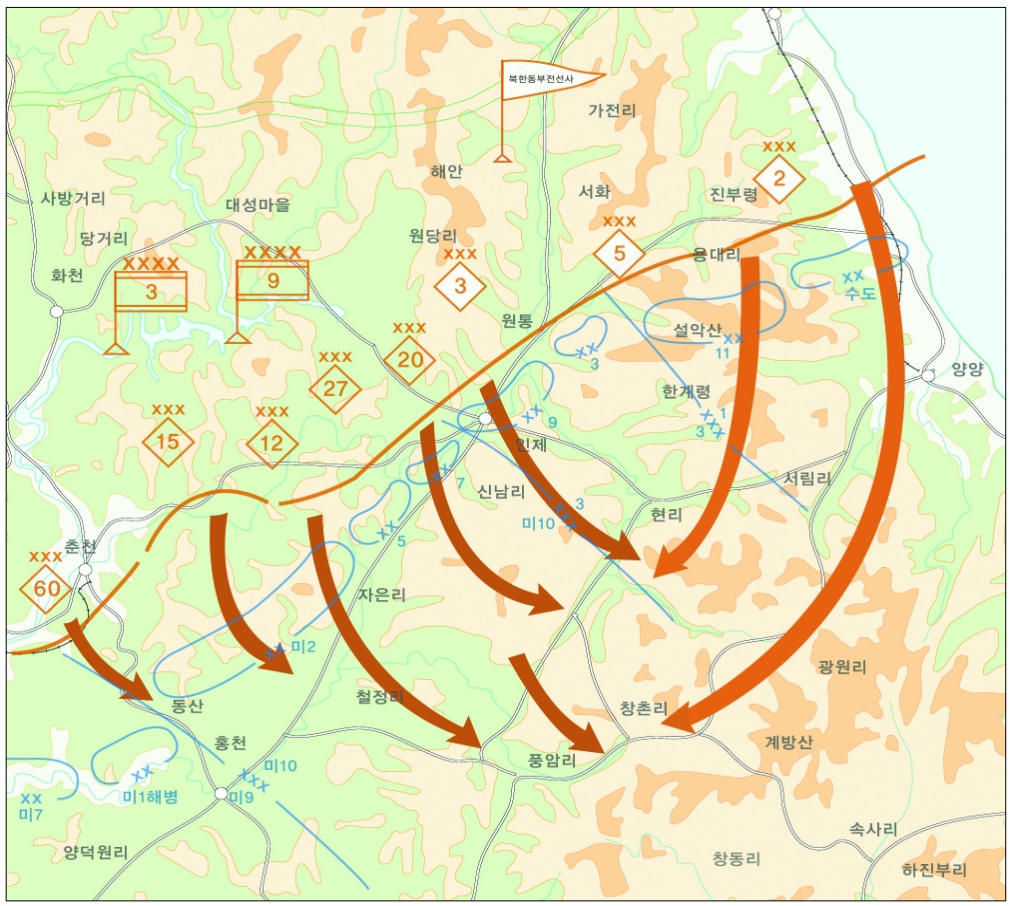
이와 더불어 5월 8일과 9일에는 펑더화이의 지시에 따라 중공군 제9병단과 북한군 동부전선 지휘부가 연합작전회의를 열어 현리에 배치되어 있는 국군 사단들을 섬멸하기 위한 '동부전선 작전계획'을 확정하였다.[107] 그리고 확정된 계획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격부대를 배치하였다.

(1) 중공군 제9병단(제26, 제39, 제40군을 결하고, 제12군을 포함)은 포병 제25, 제26, 제11, 제28연대를 배속받아 주공을 담당한다.

① 중공군 제12군 주력은 동남 방향으로 돌격해 답봉리의 국군 제5사단을 섬멸하고, 증강된 1개 사단으로 장수원-장평리-속사리로 우회해 북한군 제2군단과 협격하고, 형성된 포위망의 남쪽과 동남쪽에서 국군의 퇴로를 차단한다.

② 논리-음양리간을 돌파한 중공군 제27군은 일부 부대가 신속히 침교-이현

<상황도 6-11> 중공군 5월 공세 작전계획



지역의 요지를 점령한 후 북한군 제2군단과 장진평에서 협격해 적의 퇴로를 차단 섬멸하고, 군 주력은 상남리-방내리의 국군 제7사단을, 다른 일부는 중공군 제12군과 연합해 국군 제5사단을 공격 섬멸한다.

③ 부평리-달온리를 돌파한 중공군 제20군은 일부 부대가 신속히 동남쪽으로 진격해 후평리-미산리 부근의 요지를 점령한 후 북한군 제5군단과 협동으로 현리의 국군 제9사단과 제3사단을 섬멸하고, 다른 일부는 중공군 제27군과 연합해 상남리의 국군 제7사단을 공격 섬멸한다.

④ 북한군 제5군단(제3군단 제1사단 포함)은 군량전, 귀둔리, 오작동에서 국군 제3사단 측면을 돌파한 후 일부 부대가 진동리-왕성곡으로 진격해 중공군 제20군과 협격하며, 주력은 번이대-대학동에서 현리 방향으로 진격해 제20군과 협동으로 현리의 국군을 섬멸한다.

⑤ 북한군 제2군단은 마산리와 그 서쪽의 국군 수도사단과 제3사단의 전투지경선을 돌파한 후 1개 사단이 남쪽으로 돌진해 속사리를 점령하며, 중공군 제12군과 합동으로 적시에 하진부리의 국군을 포위 섬멸한다. 주력은 계방산, 창촌리, 장진평의 요지를 점령한 후, 중공군 제27군과 방내리, 이현에서 합동으로 국군의 퇴로를 차단 섬멸한다.

⑥ 제2군단을 후속한 북한군 제3군단(제1사단 결)은 신속히 한계령-대암산-유리봉-서림리를 점령하여 현리의 국군이 동으로 도주하는 것을 차단하고, 양양으로부터의 국군의 증원을 차단해 측면의 안전을 보장한다.

(2) 조공인 중공군 제3병단(제12군을 결하고 제39군을 편입)은 제29군 예하의 2개 사단을 포함해 포병 제29 및 제30연대 각 1개 대대와 대전차포병 제402연대를 배속 받아 서부전선의 미군과 동부전선의 국군 부대를 분할하고, 동부전선의 작전을 보장한다.

① 중공군 제15군 예하의 1개 사단은 평촌리-상걸리를 돌파한 후 계속 진격해 미 제1해병사단과 미 제2사단 간의 연결을 차단하는 동시에 미 제1해병사단의 동쪽 증원을 차단한다. 군 주력은 두 방향으로 나누어 한 쪽은 평촌리-사오랑치를 연한 대거리로, 다른 한 쪽은 물노리-갈곡에서 삼년동을 향해 여걸리, 판항리, 가산리의 미 제2사단 제9연대와 제23연대를 분할한 후 역량을 집중해 미 제9연대를 섬멸하고 구성포리의 미 제2사단 사령부를 협격한다.

② 제60군은 추곡리-대룡산 지역에서 미 제10군단을 견제하면서 예하 1개 사단의 적극적인 공세를 통해 미 제1해병사단의 공격을 유인한다. 아울러 반곡리로 이동하여 전개한 후 양덕원리로 진격해 국군과 유엔군의 퇴로를 차단한다. 군 주력은 춘천 동쪽의 수구동과 그 동남으로 진출해 제15군과 협동으로 분할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군과 유엔군을 섬멸한다.

③ 제39군은 소양강 남안의 수구동-내평리-대동리를 연하는 일선 진지를 견고하게 방어하고, 중공군 주력의 동쪽 이동과 제3병단 주력의 공격위치 진입을 엄호한다. 이후 동부전선의 공격 개시와 함께 제39군은 춘천 지역에서 제3병단의 예비대가 된다.

(3) 중공군 제19병단(포병 제31연대 배속)과 북한군 제1군단은 고양-가평간에 위치한 수락산과 마석우리, 청평천 등에 각각 2~3개의 목표를 선정한 후 병력과 화력을 집중해 국군과 유엔군을 섬멸하고, 공격작전으로 전환하여 서부전선의 미군 주력을 견제하면서 동부전선에서의 국군과 유엔군 섬멸을 위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다. 이때 제19병단 주력은 청평천 서북에서 한강을 건너 전과 확대를 준비한다.

① 제63군은 가평 서북 지역에 집결하여 공세가 시작되면 가용 역량을 집중, 청평천 일대의 국군 제6사단 예하의 2~4개 대대를 섬멸한 후 청평천-사기막에서 도강하여 영평리-원주 방면으로 전과를 확대한다.

② 제64군은 포천 동북쪽 기산 일대에 집결해 공세가 시작되면 마석우리 일대에 우세한 병력을 집중, 미 제24사단 예하의 2~4개 대대를 섬멸한 후 마석우리 동쪽의 외수입리-하삼봉에서 도강하여 양평으로 진격한다.

③ 제65군은 포천에 집결해 공세가 시작되면 1개 사단은 정면의 국군과 유엔군을 견제하고, 주력은 포천에서 내각리로 진격해 국군과 유엔군을 섬멸한다. 아울러 일부 부대는 측후방으로 우회하여 지대 내의 국군과 유엔군을 포위 섬멸한다. 이후 양수리 일대에서 한강을 건너 주력은 수원으로, 다른 1개 사단은 인천으로 진격한다.

④ 북한군 제1군단은 동진하여 중공군 제65군과 연결하고, 공세가 개시되면 국군 제1사단의 1~3개 대대를 섬멸한 후 서울로 진격하여 점령하고 경비를 담당한다.[10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⑶ 지휘관계 및 전투편성

가. 지휘관계

공산군의 5월 공세도 4월 공세와 마찬가지로 조·중연합사령부를 중심으로 단행되었다. 따라서 연합사령관인 펑더화이는 각 병단을, 그리고 각 병단사령관은 예하의 각 군에 대한 지휘 및 통제를 실시하였다. 공세기간 중의 지휘관계는 4월 공세 당시와 비교할 때, 제9병단에 편성되었던 군 중에서 제26군과 제40군이 편성에서 제외되고 제39군이 제3병단으로 전환되었으며 제3병단에 편입되었던 제12군이 제9병단으로 편입되는 변화가 있었다. 또한 세부적으로는 중서부 지역에 배치되었던 제3병단이 중동부로 이동하여 작전에 투입됨으로써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에 군 예하 사단급 부대에 대한 지휘관계와 지휘관 인적사항 등에 일부 조정이 이루어졌다.

북한군은 북한군 최고사령부 예하의 전선사령부가 전선작전의 총괄과 함께 각 군단에 대한 지휘 통제를 실시하였다. 5월 공세에는 4월 공세 당시 중공군 제19병단의 작전 지휘를 받던 제1군단이 전선사령부로 복귀하는 변화가 있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나. 전투편성

1951년 5월 16일을 기해 단행된 5월 공세를 위해 공산군은 중공지원군 3개 병단 9개 군과 북한군 4개 군단을 편성하여 투입하였다. 3각 편제개념에 입각한 중공군 각 병단의 주요 부대편성을 보면, 중공군 제9병단은 제20군과 제27군 그리고 제12군으로 편성되었다. 병단 예하의 제20군과 제27군은 각각 4개 사단을, 그리고 제3병단에서 배속된 제12군은 3개 사단을 두었다. 이에 따라 제20군은 제58·제59·제60·제89사단을, 제27군은 제79·제80·제81·제94사단을, 제12군은 제31·제34·제35사단을 예하에 두고 있었다.

<표 6-17> 5월 공세기간 중 공산군 전투편성

병 단	군 (군단)		사 단	비 고
제9병단	중공군	제20군	제58, 59, 60, 89사단	제26군 제외
		제27군	제79, 80, 81, 94사단	
		제12군	제31, 34, 35사단	
	북한군	제1군단	제8, 19, 47사단	전선사령부 원복
		제2군단	제2, 13, 27사단	
		제5군단	제6, 12, 32사단	
		제3군단	제1, 15, 45사단	제2군단 후속
제3병단	중공군	제15군	제29, 44, 45사단	제12군:제9병단으로 전환
		제60군	제179, 180, 181사단	
		제39군	제115, 116, 117사단	
제19병단	중공군	제63군	제187, 188, 189사단	
		제64군	제190, 191, 192사단	
		제65군	제193, 194, 195사단	

제3병단 또한 예하에 제15군과 제60군, 그리고 제13병단으로부터 배속된 제39군을 두었으며, 각 군은 예하에 각각 3개 사단을 편성하고 있었다. 이 중 제15군은 제29·제44·제45사단을, 제60군은 제179·제180·제181사단을, 그리고 제39군은 제115·제116·제117사단을 예하에 두고 있었다. 제19병단은 예하에 제63군과 제64군 그리고 제65군을 두었으며, 각 군은 예하에 각각 3개 사단을 편성하였다. 제63군은 제187·제188·제189사단을, 제64군은 제190·제191·제192사단을, 그리고 제65군은 제193·제194·제195사단을 예하에 두고 있었다.

연합체제의 한 축이었던 북한군은 4월 공세 당시와 마찬가지로 4개 군단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며, 각 군단은 3각 편제개념에 따라 예하에 3개 사단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제1군단은 제8·제19·제47사단을, 제2군단은 제2·제13·제27사단을, 제3군단은 제1·제15·제45사단을, 그리고 제5군단은 제6·제12·제32사단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10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편 5월 공세기간 중의 공산군측 주요 지휘관은 조·중연합사령부 사령관 펑더화이와 중공군측 부사령관 덩화 그리고 북한군측 부사령관 김웅 등으로서 4월 공세 당시와 변동이 없었고, 중국인민지원군사령부도 4월 공세시와 마찬가지로 사령관 겸 정치위원 펑더화이와 부사령관 겸 부정치위원 덩화 그리고 부사령관 홍쉐즈와 한센추, 참모장 셰팡, 정치부 주임 두핑으로 편성되었다. 5월 공세의 주공을 담당한 제9병단사령부는 사령관 겸 정치위원인 쑹스룬을 비롯해 주요 직위자가 4월 공세기간과 변동이 없었다. 그리고 예하의 각 군장은 제20군장 겸 정치위원 장이샹, 제27군장 펑더칭, 제12군장 쩡사오산이며, 각 군의 지휘부는 아래의 <표 6-18>과 같다.

<표 6-18> 중공군 제9병단 지휘부 편성

구 분	제20군	제27군	제12군
군 장	장이샹(張翼翔)	펑더칭(彭德清)	쩡사오산(曾紹山)
부 군 장	랴오정궈(廖政國)	잔다난(담大南)	샤오잉인(蕭永銀)
참 모 장	위빙후이(兪炳輝)	리위안(李元)	샤오잉인(蕭永銀)
정치위원	장이샹(張翼翔)	쩡루칭(曾如清)	-
부정치위원	탄요우밍(譚右銘)	-	리전(李震)
정치부주임	추샹톈(邱相田)	장원비(張文碧)	리카이샹(李開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공군의 조공 임무를 수행한 제3병단사령부 역시 사령관 겸 정치위원인 전경(陳慶)을 위시한 주요 직위자가 4월 공세와 변함이 없었다. 그리고 예하의 각 군장은 제15군장 친지웨이와 제60군장 웨이제, 제39군장 우신촨이며, 각 군의 지휘부는 다음의 <표 6-19>와 같다.

<표 6-19> 중공군 제3병단 지휘부 편성

구 분	제15군	제60군	제39군
군 장	친지웨이(秦基偉)	웨이제(韋杰)	우신촨(吳信泉)
부 군 장	저우파톈(周發田)	차위성(查玉升)	우궈장(吳國璋)
참 모 장	장윈위(張蘊鈺)	덩스준(鄧仕俊)	장제청(張竭誠)
정치위원	구징성(谷景生)	위안쯔친(袁子欽)	리쉐싼(李雪山)
부정치위원	-	-	허다쩡(賀大增)
정치부주임	처민차오(車敏樵)	리저푸(李哲夫)	스잉(石瑛)

주공을 지원하는 임무를 담당한 제19병단사령부는 사령관 양더즈와 주요 직위자가 4월 공세 시와 변함없이 작전을 지휘 통제하였다. 병단 예하의 각 군장도 마찬가지로 제63군장 푸충비, 제64군장 쩡쓰위, 그리고 제65군장 샤오잉탕이었으며, 각 군의 지휘부는 아래의 <표 6-20>과 같다.

<표 6-20> 중공군 제19병단 지휘부 편성

구 분	제63군	제64군	제65군
군 장	푸충비(傅崇碧)	쩡쓰위(曾思玉)	샤오잉탕(蕭應棠)
부 군 장	-	탕쯔안(唐子安)	-
참 모 장	두위화(杜瑜華)	마웨이화(馬衛華)	루안핑(阮平)
정치위원	롱다오취안(龍道權)	왕자오(王昭)	왕다오방(王道邦)
부정치위원	황전탕(黃振裳)	-	-
정치부주임	황전탕(黃振裳)	위안페이줴(袁佩爵)	전이구이(陳宜貴)

한편 5월 공세기간 중의 북한군 주요 지휘관은 최고사령관 김일성을 비롯하여 민족보위상 겸 부사령관인 최용건, 총참모장 남일 상장, 전선사령부 사령관 김웅 상장 등 4월 공세 당시와 변동이 없었다. 전선사령부 예하의 각 군단장은 제1군단장 이권무 상장, 제2군단장 최현 상장, 제3군단장 유경수 상장, 제5군단장 방호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장으로 4월 공세 당시와 변동이 없었으며, 예하 각 사단장 역시 4월 공세 당시와 큰 변화가 없었다.[110]

<표 6-21> 5월 공세 당시 북한군 지휘관 인적사항

구 분	직 책	계 급	성 명	비 고
최고사령부	최고사령관		김일성(金日成)	
	부사령관	대장	최용건(崔鏞健)	민족보위상 겸임
	참모장	상장	남 일(南 日)	
전선사령부	사령관	상장	김 웅(金 雄)	
	참모장	소장	최 광(崔 洸)	
제1군단	군단장	상장	이권무(李權武)	
제2군단	군단장	상장	최 현(崔 賢)	총참모부 예비
제3군단	군단장	상장	유경수(柳京洙)	
제5군단	군단장	상장	방호산(方虎山)	
제4군단	군단장	소장	박종덕(朴鍾德)	예비 및 지원부대
제6군단	군단장	상장	최용진(崔勇鎭)	
제7군단	군단장	상장	이영호(李永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유엔군측의 상황평가 및 의도

(1) 작전목표 및 기도

미 제8군사령관은 1951년 5월 이전 공산군의 배치상황을 근거로 공산군의 차기 공세는 서부 또는 중부 축선에 주력이 집중되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동안의 공세에서 중공군의 작전한계점은 신장된 전선으로 인한 보급문제였다. 따라서 미 제8군사령관은 도로망이 열악한 중동부 산악지대로 중공군이 주력을 지향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더불어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 간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던 휴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공산군이 수도 서울

점령에 가용역량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미 제8군사령관은 서부 및 중부 축선에 강력한 전투력을 보유한 미군 사단들을 배치하는 한편, 방어에 유리한 지형인 동부전선에는 국군을 배치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전력이 미약한 북한군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111]

이에 따라 미 제8군사령관은 미 제7사단과 미 제187공정연대 전투단을 5월 1일부로 미 제10군단 지역에서 미 제9군단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그리고 미 제7사단의 이동으로 생긴 공간에는 국군 제7사단을, 국군 제7사단 위치에는 국군 제5사단을 배치하였다. 또한 미 제1해병사단의 작전통제권을 미 제10군단장에게 주고 미 제1군단과 미 제9군단의 전투지경선을 우측으로 이동시켰다.[112]

이런 상황에서 화천지역에서의 야간 차량통행 급증과 함께 중공군이 소양강상에 교량을 가설하고 대규모 병력이 동쪽으로 이동하는 등 중공군 주력이 중동부 축선으로 집중되는 일련의 정황들이 포착되었다. 또한 생포된 포로들도 중공군 주력이 미 제10군단 정면을 공격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113] 이런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중공군 주력이 중동부전선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미 제8군은 작전계획이나 전선을 조정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아울러 제대로 방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동부 축선을 향해 중공군의 주력이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예하 부대에 알려질 경우,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장병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최악의 상황으로 전선에서 국군의 대량이탈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이에 따라 미 제8군사령관은 기존의 방어계획을 유지한 채, 미 제1군단의 예비인 미 제3사단을 미 제8군으로 배속 전환하여 군 예비로 운용토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만을 시행하였다.[114]

미 제8군사령관이 행한 최소한의 조치와 병행하여 미 제10군단장도 방어계획을 조정하는 대신 동부 축선의 방어계획을 그대로 두어 그 방향으로 대규모 공세를 펼친 공산군이 동부 산악지역에서 힘을 소진하게 한다는 작전방침을 채택하였다.[115] 이는 중공군이 동부 산악지역에서 돌파구를 형성해 진격해오는 동안 스스로 작전한계점에 도달하도록 하고, 전투력을 보존한 국군 및 유엔군이 반격을 가한다는 의도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작전계획

중공군 주력의 동부지역 이동 징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계획을 최소한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유엔군의 최종적인 작전계획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미 제8군의 좌측인 개성-문산 축선에 국군 제1사단을 배속받은 미 제1군단을 배치하고, 이어 철원-동두천 축선에는 미 제9군단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중공군 주력의 공격이 예상되는 춘천-홍천 축선에 미 제10군단을 배치하고 그 동쪽에는 국군 제3군단과 제1군단을 태백산맥의 동·서측에 각각 배치하였다. 이때 미 제187공정연대 전투단은 미 제9군단의 예비로 하고, 미 제8군의 예비로 미 제3사단을 운용하기로 계획하였다.

<표 6-22> 축선별 주요부대 배치

축선	개성-문산	철원-동두천	춘천-홍천	태백산맥	
				서측	동측
군단	미 제1군단	미 제9군단	미 제10군단	제3군단	제1군단
사단	미 제1기병사단, 미 제25사단, 영국군 제29여단, 국군 제1사단	미 제7사단, 미 제24사단, 영연방 제28여단, 미 제187공정연대 전투단, 국군 제2사단, 국군 제6사단	미 제2사단, 미 제1해병 사단, 국군 제5사단, 국군 제7사단	국군 제3사단 국군 제9사단	국군 수도사단 국군 제11사단
	미 제8군 예비 : 미 제3사단, 캐나다 제25보병여단, 에디오피아 대대 * 국군 예비 : 국군 제8사단, 태백산 전투사령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미 제8군의 작전계획은 철수와 지연을 염두에 두지 않고, 준비된 진지에서 적의 공세를 강력히 저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진지방어전을 계획했다는 점에서 이전의 작전계획과 차별화되었다. 미 제8군은 작전계획을 구현하기 위해 전 전선에 걸쳐 다중의 철조망과 5,400여 개의 지뢰를 설치하였다. 아울러 깊고 견고하게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유개호로 방어진지를 서로 연결함으로써 통신과 보병들의 전투협조가 용이하도록 하였으며,[116] 진지와 장애물을 준비한 후에는 방어계획을 검토하고 반복해서 예행연습도 실시하였다.[117]

(3) 지휘관계 및 전투편성

가. 지휘관계

중공군의 5월 공세가 시작되는 시점의 유엔군의 지휘관계는 큰 틀에서 중공군 4월 공세 당시와 비교할 때 특별히 변화된 사항은 없었다. 그러나 사단급 이하 제대의 지휘관계에는 일부 변경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미 제1군단에 속해 있던 미 제3사단이 미 제8군의 예비로 전환되었고 미 제10군단에 속해 있던 미 제187공정연대 전투단과 미 제7사단이 미 제9군단으로 전환되었으며, 미 제187공정연대 전투단은 미 제9군단으로 전환된 후 군단 예비로서의 임무가 부여되었다. 아울러 미 제9군단지역에 배치되어 있던 미 제1해병사단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미 제10군단장에게 부여되었다.

나. 전투편성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서부전선 개성-문산 축선의 방어를 담당한 미 제1군단은 미 제1기병사단 및 미 제25사단, 국군 제1사단과 영국군 제29여단, 그리고 국군 제13경비대대로 편성되었다. 미 제1기병사단은 제5·제7·제8기병연대를, 미 제25사단은 제24·제27·제35연대와 필리핀 제10전투대대가 배속된 제65연대전투단 및 터키여단을 예하에 두었다. 또한 국군 제1사단은 제11·제12·제15연대를, 영국군 제29여단은 벨지움대대와 국군 제5해병대대를 예하에 두었다.[118]

미 제1군단의 주요 지휘관은 군단장 밀번 소장과 참모장 브런트 준장, 미 제1기병사단장 파머 소장, 미 제25사단장 브래들리 소장, 국군 제1사단장 강문봉 준장, 영국군 제29여단장 브로디 준장, 터키여단장 야지치 준장이었다. 미 제1군단의 전투서열 및 지휘부 편성은 다음의 <표 6-23>과 같다.

<표 6-23> 미 제1군단 전투서열 및 지휘부 편성(1951. 5. 16 현재)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미 제8군	사령관	중장	James A. Van Fleet	
	부사령관	중장	John B. Coulter	
	참모장	소장	Henry I. Hodes	
미 제1군단	군단장	소장	Frank W. Milburn	
	부군단장	소장	Terrell G. Holliday	
	참모장	준장	Rinaldo Van Brunt	
미 제1기병사단	사단장	소장	Charles D. Palmer	
	제5연대장	대령	Irving Lehrfeld	
	제7연대장	대령	James K. Woolnough	
	제8연대장	대령	Eugean J. Field	
미 제25사단	사단장	소장	J. Sladen Bradley	
	제24연대장	대령	John T. Corley	
	제27연대장	대령	Gilbert J. Check	
	제35연대장	대령	Henry G. Fishir	
국군 제1사단	사단장	소장	강문봉(姜文奉)	
	제11연대장	대령	문형태(文亨泰)	
	제12연대장	중령	김한주(金漢柱)	대리
	제15연대장	대령	김안일(金安一)	
영국군 제29여단	여단장	준장	Thomas Brodie	
제13경비대대				
터키여단	여단장	준장	Tahsin Yazici	미 제25사단 배속
벨지움대대	대대장	중령	B. E. M. Crahay	영 제29여단 배속
필리핀 제10대대	대대장	중령	Dionisio Ojeda	미 제25사단 예하 제65전투단에 배속
국군 제5해병대대				영 제29여단 배속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부전선 철원-동두천 축선의 방어를 담당한 미 제9군단은 미 제7사단 및 제24사단과 국군 제2사단 및 제6사단, 그리고 미 제187공정연대 전투단으로 편성되었다. 미 제7사단은 제17·제31·제32연대를, 미 제24사단은 제5·제19·제21연대와 함께 영연방 제28여단을 예속하고 있었다. 또한 국군 제2사단은 제17·제31·제32연대를, 국군 제6사단은 제2·제7·제19연대를 예하에 두고 있었다.[119]

미 제9군단의 주요 지휘관은 군단장 호지 중장을 비롯하여 참모장 피플로 준장, 미 제7사단장 페렌바흐 소장, 미 제24사단장 브라이언 소장, 그리고 국군 제2사단장 함병선 준장과 국군 제6사단장 장도영 준장, 미 제187공정연대 전투단장 보웬 준장과 영연방 제28여단장 버크 준장이었다. 미 제9군단의 전투서열 및 지휘부 편성은 아래의 <표 6-24>와 같다.

<표 6-24> 미 제9군단 전투서열 및 지휘부 편성(1951. 5. 16 현재)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미 제9군단	군단장	중장	William M. Hoge	
	부군단장	준장	William L. Mitchell	
	참모장	준장	George B. Peploe	
미 제7사단	사단장	소장	Claude B. Ferenbaugh	
	제17연대장	대령	Royal Reynolds, Jr.	
	제31연대장	대령	Lloyd R. Moses	
	제32연대장	대령	Charles M. Mount, Jr.	
미 제24사단	사단장	소장	Blackshear M. Bryan	
	제5연대장	대령	John L. Throckmorton	
	제19연대장	대령	Ned D. Moore	
	제21연대장	대령	Richard W. Stephens	
미 187공정연대 전투단	전투단장	준장	Frank S. Bowen, Jr.	
영연방 제28여단	여단장	준장	B. A. Burke	미 제24사단 배속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국군 제2사단	사단장	준장	함병선(咸炳善)	
	제17연대장	대령	이정석(李貞錫)	
	제31연대장	대령	신동우(申東雨)	
	제32연대장	대령	조재미(趙在美)	
국군 제6사단	사단장	준장	장도영(張都暎)	
	제2연대장	대령	차문호(車文鎬)	
		중령	송대후(宋大厚)	1951. 5. 25부
	제7연대장	대령	양중호(梁仲鎬)	
	제19연대장	대령	임익순(林益淳)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동부전선 춘천-홍천 축선의 방어를 담당한 미 제10군단은 미 제2사단과 미 제1해병사단, 국군 제5사단 및 제7사단으로 편성되었다. 미 제2사단은 제9·제23·제38연대와 함께 프랑스대대 및 네덜란드대대를, 미 제1해병사단은 제1·제5·제7 해병연대와 한국해병 제1연대를 예하에 두었다. 그리고 국군 제5사단은 제27·제35·제36연대를, 국군 제7사단은 제3·제5·제8연대를 각각 예하부대로 편성하고 있었다.[120]

미 제10군단의 주요 지휘관은 군단장 알몬드 소장을 비롯하여 참모장 거스리 준장, 미 제2사단장 러프너 소장, 미 제1해병사단장 토마스 소장, 그리고 국군 제5사단장 민기식 준장과 국군 제7사단장 김형일 준장 등이었다. 미 제10군단의 전투서열 및 지휘부 편성은 다음의 <표 6-25>와 같다.

<표 6-25> 미 제10군단 전투서열 및 지휘부 편성(1951. 5. 16 현재)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미 제10군단	군단장	소장	Edward M. Almond	
	참모장	준장	John S. Guthrie	
미 제2사단	사단장	소장	Clark L. Ruffner	
	제9연대장	대령	Edwin J. Messinger	
	제23연대장	대령	Paul L. Freeman	
	제38연대장	대령	George B. Peploe	
미 제1해병사단	사단장	소장	Gerald C. Thomas	
	제1연대장	대령	Francis M. McAlister	
		대령	Wilburt S. Brown	1951. 5. 19부
	제5연대장	대령	Richard W. Hayward	
	제7연대장	대령	Herman Nickerson, Jr.	
국군 제5사단	사단장	준장	민기식(閔耆植)	
	제27연대장	대령	유의준(兪義濬)	
	제35연대장	대령	김익렬(金益烈)	
	제36연대장	대령	황 엽(黃 燁)	
국군 제7사단	사단장	준장	김형일(金炯一)	
		대령	김용배(金容培)	1951. 5. 26부
	제3연대장	대령	정 진(鄭 震)	
	제5연대장	대령	조성화(趙成華)	
	제8연대장	대령	이현진(李賢進)	
		중령	최주종(崔周鐘)	1951. 6. 19부
한국 제1해병연대	연대장	대령	김대식(金大植)	미 제1해병사단에 배속
네덜란드 대대	대대장	중령	W. D. H. Eekhout	미 제2사단에 배속
프랑스 대대	대대장	중령	Raiph Monclar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내륙 산악지역의 방어를 담당한 국군 제3군단은 국군 제3사단과 제9사단으로 편성되었고, 동해안 지역을 담당한 국군 제1군단은 국군 수도사단과 제11사단으로 이루어졌다. 국군 제3군단 예하의 제3사단은 제18·제22·제23연대를, 제9사단은 제28·제29·제30연대를, 그리고 국군 제1군단 예하의 수도사단은 제1·제26연대, 제1기갑연대를, 제11사단은 제9·제13·제20연대를 예하에 두었다.[121] 국군 제3군단의 주요 지휘관은 군단장 유재흥 소장을 비롯하여 부군단장 강영훈 준장, 제3사단장 김종오 준장과 제9사단장 최석 준장이었고, 국군 제1군단의 주요 지휘관은 군단장에 백선엽 소장을 비롯하여 부군단장 장창국 준장, 참모장 최홍희 준장, 수도사단장 송요찬 준장과 제11사단장 최덕신 준장 등이었다. 국군 제3군단과 제1군단의 전투서열 및 지휘부 편성은 아래의 <표 6-26>과 같다.

<표 6-26> 국군 제3군단과 제1군단 전투서열 및 지휘부 편성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국군 제3군단	군단장	소장	유재흥(劉載興)	'51.5.25부 면직
	부군단장	준장	강영훈(姜英勳)	
제3사단	사단장	준장	김종오(金鐘五)	
		대령	백남권(白南權)	1951. 5. 23부
	제18연대장	대령	유양수(柳陽洙)	
	제22연대장	대령	장춘권(張春權)	
	제23연대장	대령	김종순(金淙舜)	
제9사단	사단장	소장	최 석(崔 錫)	
	제28연대장	대령	이창정(李昌禎)	
	제29연대장	대령	차갑준(車甲俊)	
			조성래(趙成來)	1951. 5. 30부
	제30연대장	대령	손희선(孫熙善)	
		대령	송일신(宋一信)	1951. 6. 5부
		중령	김황목(金煌穆)	1951. 6. 22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국군 제1군단	군단장	소장	백선엽(白善燁)	
	부군단장	준장	장창국(張昌國)	
	참모장	준장	최홍희(崔泓熙)	
수도사단	사단장	준장	송요찬(宋堯讚)	
	제1연대장	대령	한 신(韓 信)	
	제26연대장	대령	서정철(徐廷哲)	
	제1기갑연대장	대령	이 용(李 龍)	
제11사단	사단장	준장	최덕신(崔德新)	
		준장	오덕준(吳德俊)	1951. 5. 23부
	제9연대장	대령	오익경(吳益慶)	
	제13연대장	대령	최석용(崔錫鏞)	
	제20연대장	대령	박원근(朴元根)	

한편 미 제8군의 예비 병력은 서울과 이천에 집결 대기하고 있던 미 제3사단과 대구에서 용인 김량장(金良場)으로 이동을 준비하고 있던 캐나다 제25보병여단, 그리고 부산에서 훈련에 임하고 있던 에티오피아대대가 있었다. 미 제3사단의 전투편성은 제7·제15·제65연대로 이루어졌고,[122] 캐나다 제25보병여단은 예하에 3개 대대를 편성하고 있었다. 또한 육군본부의 예비 병력은 후방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던 국군 제8사단과 태백산전투사령부가 있었다. 국군 제8사단은 제10·제16·제21연대를 예하에 두었고, 태백산전투사령부는 3개 경비대대로 편성되었다.[123]

미 제8군 예비대의 주요 지휘관은 미 제3병사단장 소울 소장과 캐나다 제25보병 여단장 로킹험 준장이었고, 국군 예비대의 주요 지휘관은 제8사단장 최영희 준장과 태백산전투사령관 이성가 준장이었다. 유엔군측 예비부대의 전투서열 및 지휘부 편성은 다음의 <표 6-27>과 같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표 6-27> 유엔군측 예비부대 전투서열 및 지휘부 편성(1951. 5. 16 현재)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미 제3사단	사단장	소장	Robert H. Soule	미 제8군 예비
	제7연대장	대령	James O. Boswell	
	제15연대장	대령	Dennis M. Moore	
	제65연대장	대령	William W. Harris	
캐나다 제25보병여단	여단장	준장	J.M. Rockingham	
에티오피아 대대	대대장	중령	Teshome Irgetu	
국군 제8사단	사단장	준장	최영희(崔榮喜)	한국 육본 예비
	제10연대장	대령	권태순(權泰順)	
	제16연대장	대령	이존일(李存一)	
	제21연대장	대령	하갑청(河甲淸)	
		중령	전부일(全富一)	1951. 5. 30부
태백산 전투사령부	사령관	준장	이성가(李成佳)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 전투 경과

1) 중·동부 전선의 전운(戰雲)

1951년 4월 22일부터 29일까지 지속된 중공군의 4월 공세를 저지하는데 성공한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 중장은 1951년 4월 30일을 기해 노네임선을 요새화하는 동시에 적정파악을 위한 위력수색을 강화하도록 예하부대에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미 제8군 예하의 국군과 유엔군은 새로운 부대배치를 완료하고 전 전선에 걸쳐 위력수색을 실시함으로써 5월 9일경에는 김포반도-의정부-춘천-인제-속초를 연하는 선까지 탈환하였다. 이후 미 제8군은 본격적인 반격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전 전선에 걸쳐 공산군의 공세징후가 포착됨에 따라 반격계획을 즉시 취소하고

공산군의 공세에 대비하게 되었다. 한편 동부전선의 국군 및 유엔군은 앞에서 언급된 미 제8군의 반격계획에 따라 5월 7일부터 반격을 개시하여 미주리선(Missouri Line)으로 진격했으며, 이는 전략적 요충지인 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미 제8군은 주요 보급로인 간성지역을 확보함으로써 중동부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국군과 유엔군에게 물자를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보급하고자 했던 것이다.[124] 이 진격에는 국군 제5사단과 제7사단(미 제 10군단), 국군 제3사단과 제9사단(국군 제3군단), 국군 수도사단과 제11사단(국군 제1군단) 등 6개 사단이 참가했다.

중동부전선의 국군 6개 사단이 미 제8군의 작전의도를 구현하기 위해 간성 확보를 목표로 미주리선으로 진격하는 동안 다양하고 방대한 공산군의 공세 징후가 국군 및 유엔군측에 감지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징후들은 4월 공세의 실패를 만회하려는 기도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미 제8군은 중동부지역에서도 즉시 예하 부대에 미주리선으로의 진격을 중지하도록 지시하였고, 이 지역의 국군 및 유엔군 부대들은 5월 13일을 기하여 소양강과 설악산을 연하는 선에 새로운 방어선을 마련하고 방어로 전환했다.

2) 중공군의 중부전선 집중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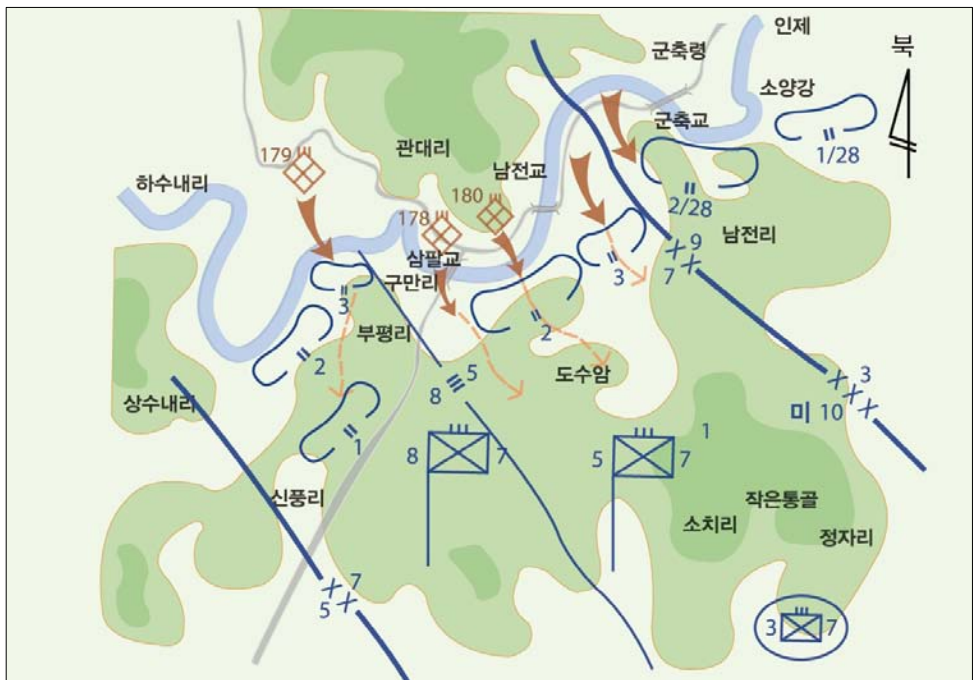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 국군 제7사단의 상황

가. 중공군의 공격준비사격

1951년 5월 16일 16시 30분 중공군은 소양강 남안 국군 제7사단의 방어진지에 강력한 공격준비사격을 개시했다. 중공군 제20군과 제27군이 공격준비사격에 참가했다. 국군 제7사단은 제8연대를 서측에, 제5연대를 동측에 배치하고, 제3연대를 예비로 운용했다. 중공군은 공격준비사격으로 국군 제7사단과 제5사단을 일거에 압도했다.[125] 보병과 포병을 망라한 모든 부대의 화력을 사전에 돌파를 계획한

<상황도 6-12> 국군 제7사단 방어편성



지점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국군 제7사단은 다수의 병력과 시설이 피해를 입었음은 물론 통신선이 절단되어 지휘통제 능력을 상실했다.

중공군은 그 후 5월 16일 17시 30분에 공격을 개시했고 2시간 반 만인 20시경에 방어선을 돌파했다.[126] 국군 제7사단은 이러한 사실을 국군 제9사단이나 국군 제3군단에 일체 알리지 못했다.[127] 심지어 미 제10군단조차 국군 제7사단 전방의 전투 상황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128] 포격으로 유선이 두절되고 연대 지휘소와 대대 관측소가 피격되어 통신 기능이 발휘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129]

국군 제7사단은 중공군의 공격에 대비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또한 사단 책임지역은 60도 내외의 절벽에 가까운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방어에 유리하고 공격은 어려운 곳이었다. 게다가 5월 16일 이전 4일 동안 유엔군이 공산군을 향해 공중폭격과 포격을 끊임없이 퍼부었으므로 심리적인 자신감도 있는 상황이었다.[13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군 제7사단은 중공군이 돌파를 강행하자 그들이 접근하기도 전에 진지를 이탈하였다.[131] 중공군 공격부대는 중공군 제20군과 제27군 예하의 중공군 제58사단, 제59사단, 제60사단, 제79사단, 제80사단, 제81사단 등 총 6개 사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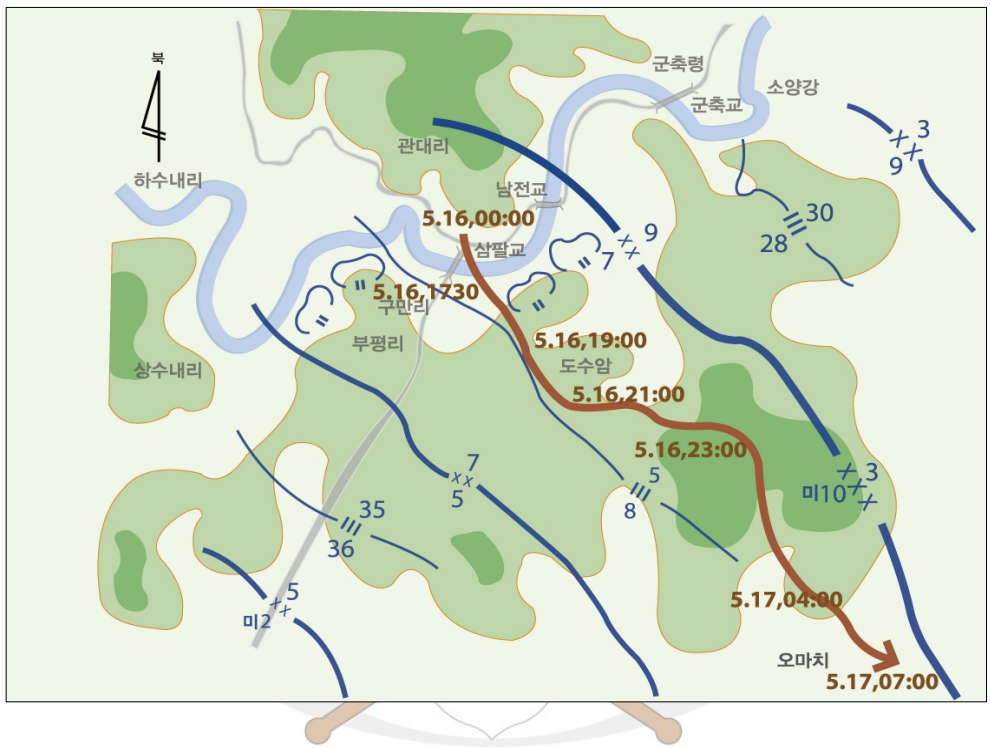
나. 중공군 제20군의 강력 돌파

중공군 제20군은 소양강을 건너 5월 16일 20시경 국군 제7사단의 방어선을 돌파했다. 이때 제20군 예하 제58, 제59, 제60사단은 구만리 일대에서 소양강을 도하하여 공격을 개시했다.[132] 국군 제7사단 제8연대 전방에만 중공군 2개 사단이 집중 돌파를 감행했다.[133] 2개 사단의 집중 돌파에 이은 측면과 종심으로의 맹렬한 공격으로 인해 돌파구가 확장되어 제8연대의 방어선이 쉽게 돌파되고 말았다. 중공군은 24시경 부평리 일대를 모두 장악하였다. 중공군은 방어진지를 돌파한 이후 신속히 종심으로 기동하여 국군의 주보급로까지 돌파종심을 확대하려 했다.[134] 중공군의 공격은 돌파와 우회에 의한 종심기동을 통해 국군 후방의 주요도로, 목과 같은 주요 지형지물을 확보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한편, 미 제10군단장은 국군 제7사단과 제5사단 정면의 상황이 악화되자 5월 17일 01시경 국군 제7사단장과 제5사단장에게 현 방어진지에서 노네임선 일대로 철수하도록 지시했다.[135] 그러나 이 시각 이 부대들은 이미 조직적으로 철수할 수 있는 지휘통제 능력을 상실하고 소부대 단위로 퇴각하는 중이었다.

중공군은 제20군 예하 제60사단에 돌파와 종심기동에 의한 후방차단 임무를 부여했다. 제60사단은 제178연대에 국군이 배치된 간격으로 우회, 종심 기동하여 후방의 오마치 고개를 차단하라는 임무를 부여했다.[136] 이 지역 일대의 유일한 주보급로인 오마치 고개를 차단하면 국군 제7사단과 제5사단은 물론이고 인접 부대인 국군 제3군단까지도 포위 섬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137] 중공군 제178연대 제2대대는 빠른 속도로 기동했고 첨병중대가 04시경, 대대는 07시~08시경 후평리, 오마치 고개 일대에 도달했다.[138] 5월 16일 18시경부터 5월 17일 07시경까지 13시간 동안 무려 25km를 진격한 것이다.[13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6-13> 중공군 제60사단 제178연대 제2대대의 종심기동



중공군 제20군 제59사단은 제20군의 제2제대로서 제60사단을 후속하여 소양강을 강습도하 후 5월 17일 야간에는 사단 전체가 와야골 일대까지 진출했다. 그리고 제20군 예하 제58사단 제173연대는 남전리 일대에서 소양강을 도하하여 현리와 오마치 고개 사이에 위치한 용포 일대를 완전히 점령했다.[140] 이후 중공군 제58사단 주력은 제17연대를 후속하여 5월 18일 01시경 이 지역에 진입했다.[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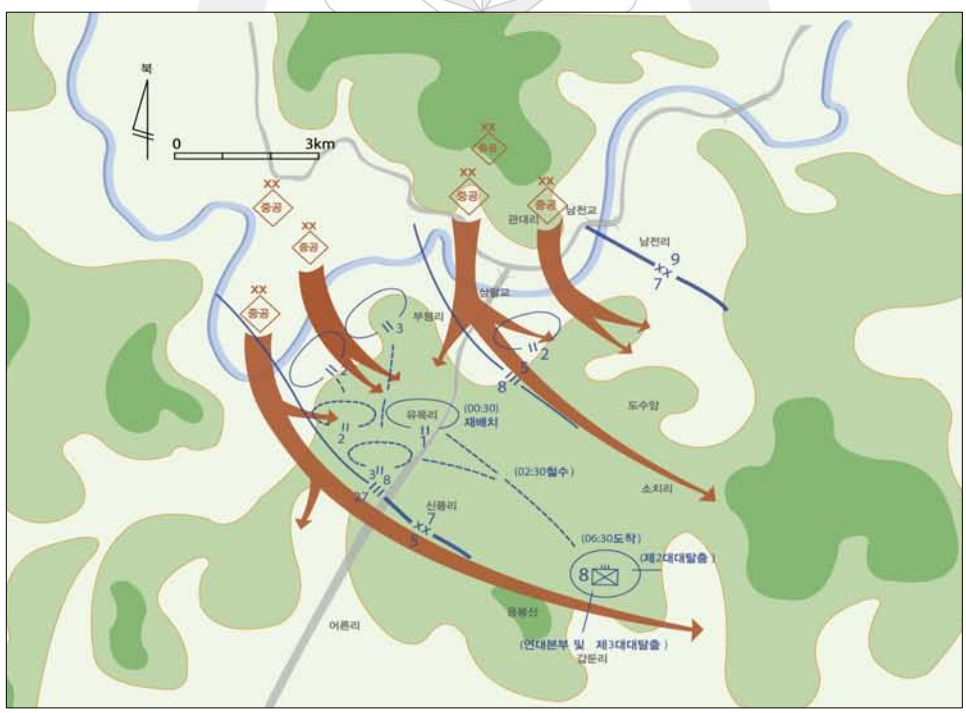
한편 미 제8군은 5월 17일 22시부로 동부지역의 국군사단들에게 와코선(WACO Line)으로 철수하도록 명령하였지만 국군 사단들은 축차적인 철수나 인접부대에 대한 철수 엄호를 하지 못한 채 무질서하게 철수하였다.[142] 이때 국군 제7사단 제8연대는 지휘통제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중공군의 강력한 돌파에 전장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었고, 중공군의 우회에 의한 신속한 종심기동으로 부대의 측후방마저 노출되는 위기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다. 중공군 제27군의 신속한 종심기동

구만리 일대에 방어선을 편성한 국군 제7사단 제5연대는 5월 16일 16시 30분에 시작된 중공군의 공격준비사격에 의해 통신이 두절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상황에서 18시경부터 중공군 제27군 예하 제81사단과 제79사단이 연대정면에 파상공격을 가해왔다. 국군 제5연대는 3시간 동안 격전을 전개하고 21시 30분경 철수하려 했으나 조직적인 철수가 어려운 상황이 초래되었다. 이에 따라 중공군 제81사단과 제79사단이 23시경 구만리, 창막동 일대를 완전히 점령하였다.[143]

중공군은 돌파된 국군을 우회하여 추격하였다. 국군 제5연대는 23시 45분경 소치리의 연대지휘소가 기습을 받아 더 이상 전투를 지속할 수 없었다. 급기야 24시경부터는 지휘통제 체계가 완전히 마비되어 연대예하 부대들은 소부대 단위로 나뉘어 철수하였다.[144]

<상황도 6-14> 국군 제7사단의 철수



한편 국군 제7사단 제8연대는 신풍리 일대에서 저지선을 구축하려 했으나, 이미 중공군 제27군 제81사단과 제20군 제60사단이 신풍리는 물론 도수암과 논리 일대를 연하는 선까지 진격하고 있었으므로 계속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145]

중공군 제81사단은 국군 진지를 돌파한 후 현리 남쪽의 퇴로인 상남리, 암달동 일대를 차단하기 위해 우회, 종심기동을 실시했다. 특히 첨병대대인 제242연대 제2대대는 5월 17일 05시경 국군 방어지대로 28km나 종심깊이 기동하여 암달동 도로 양측의 고지와 방내리 일대까지 점령했다.[146] 뒤를 이어 제81사단 제242연대가 12시경 암달동 일대를 점령했다. 이로써 현리, 율전리, 속사리를 연결하는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3군단의 유일한 주보급로가 적의 수중에 들어갔다.[147]

국군 제7사단 제5연대 지역을 돌파하고 5월 16일 23시경 창막동 일대까지 진출했던 중공군 제27군 예하 제79사단은 이어 옥산동을 거쳐 18일 24시경에는 갑둔리, 직동, 소치리, 김부리 일대까지 점령했다. 이때 국군 제7사단 제8연대는 현리 방면으로 퇴각했다. 중공군 제27군은 이후 중공군 제20군 제60사단과 함께 상남리 일대에서 국군 제7사단과 제3군단에 대한 포위 섬멸에 참가했다.

라. 중공군의 운동전 전법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군 제7사단장은 5월 17일 03시경 사단 예비인 제3연대에 가마봉, 대암산을 연하는 선을 점령하여 퇴각하는 국군 부대를 엄호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때 제3연대는 국군 제5연대 지역을 돌파하는 중공군을 저지하려다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었다. 연대장은 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정자리에서 가마봉, 대암산 일대로 이동하였으나 이 일대의 극히 일부만을 점령하였다.

국군 제3연대는 우여곡절 끝에 5월 17일 04시경 대암산 일대를 점령했지만 중공군 제27군 예하 제81사단 제242연대의 공격을 받고 철수하여 15시경 가마봉 동쪽자락에 진지를 편성하였다.[148] 이후에도 연대는 불리한 전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았지만 연대 예하의 제3대대가 김부리에서 적의 포위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149]

연대는 오마치 고개 남쪽의 암달동조차 중공군의 수중에 들어간 사실을 알았으나 강행돌파 외엔 다른 수단이 없었다. 이에 연대장은 오마치 고개를 공격하여 퇴로를 확보하기 위해 제2대대를 투입하였으나 이 또한 16시경에 실패하였다. 결국 연대는 18시 이후 상남리 일대의 적이 없는 지역에 재집결했다.[150]

국군 제7사단은 다시 제3연대와 제5연대의 일부로 고사리 고개 일대에 저지진지를 편성, 중공군의 진출을 저지하고자 했다. 사단은 고개의 남쪽에 제16포병대대를 포진시키고 공병대대로 하여금 저지진지를 편성케 했다. 그러나 제3연대가 방어진지를 점령하기도 전에 중공군의 공격을 받았다. 제3연대가 분전하고 제16포병대대는 보유하고 있던 포탄 3천 1백발을 모두 사용했지만 역부족이었다.[151]

이후에도 국군 제7사단은 계속해서 율전리 남쪽의 신기, 신흥 일대에 제3연대를, 소부소, 가진포리 일대에 제5연대를 배치하여 중공군을 저지하려 했으나 5월 18일 02시경 미 제10군단으로부터 풍암리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시각 미 제10군단의 상황은 우측의 국군 제5사단과 제7사단 책임지역이 돌파되어 요충지인 오마치 고개 일대가 중공군에게 점령된 가운데, 좌측의 미 제2사단마저 방어선의 일부를 돌파당해 중공군의 돌파구가 급속하게 확장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측의 국군 제3군단마저 퇴각하자 미 제10군단은 방어선을 새롭게 조정하고 공세이전을 위한 여건을 확보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고립된 국군 제7사단에 풍암리로 이동하도록 명령을 하달하였던 것이다.[152]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마. 국군 제7사단의 풍암리 방어

1951년 5월 16일, 국군 제7사단은 중공군 제20군 제58, 제59, 제60사단, 제27군 제79, 제80, 제81사단 등 총 6개 사단 규모의 공격을 받았다. 적의 규모는 포위에 참가한 북한군까지 고려하면 그 이상이었다. 국군 제7사단은 중공군과 계속해서 접촉을 유지하고 중공군의 진격을 결사적으로 저지하려 했다.

국군 제7사단은 최초 방어선이 붕괴된 이래 신풍리, 김부리, 상남리, 방내리, 율전리, 풍암리 등으로 옮겨가면서 적을 저지하려 했으며, 중공군의 진격과 주보급로 상의 오마치 고개 차단을 저지하기 위해 공격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율전리 일대에 도착한 국군 제7사단 제3연대와 제5연대는 5월 18일 14시 50분경 겨우 방어진지 편성을 완료하였다.[153] 그리고 중공군은 17시경부터 율전리 일대로 공격을 시도하였다. 중공군은 이 지역을 확보하여 횡성과 속사리 방면 양측으로 진격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려 했다. 국군 제7사단은 대대규모의 중공군이 먼저 공격을 개시한 다음 야음을 이용하여 2개 연대의 중공군이 파상 공격을 했지만 격전 끝에 이를 저지하였다. 이때 사단은 미 제10군단장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미 제3사단 제15연대의 화력지원을 받았다.[154]

이후 국군 제7사단은 풍암리 일대를 계속 지켰고, 5월 20일에 제3연대와 제5연대는 미 제2사단에 배속되었다. 사단은 이후 유동 일대에서 사단 직할부대와 제8연대를 중심으로 전투력 복원을 하다가 5월 20일에는 풍암리, 태월을 연하는 선에서 12시 30분경 공격해온 중공군 2개 연대와 격전을 치루었고, 이어 22시경 재차 공격해 온 중공군 1개 대대의 공격을 저지하기도 하는 등 중공군 5월 공세 내내 끝까지 전선을 이탈하지 않고 중공군에 맞서 싸웠다.[155]

⑵ 국군 제5사단의 상황

가. 중공군 제12군의 우회와 종심기동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군 제5사단은 5월 7일부로 미 제10군단에 배속된 이래 미주리선으로 진출하여 홍천-인제를 연결하는 도로를 확보하고 논리 북쪽의 고지군을 점령하는 전과를 올리기도 하는 등 강한 전투력을 보유한 부대였다. 미 제8군사령관의 방어준비 명령 이후 사단은 제35연대를 좌측, 제27연대를 우측에 배치하고 제36연대를 예비로 하여 논리 북방의 매봉-상수내리를 연하는 선에 진지를 점령했다. 사단의 좌측에는 미 제2사단 제브라 특수임무부대(TF ZEBRA)가, 우측에는 국군 제7사단 제8연대가 인접해 있었다.

국군 제5사단을 공격한 것은 중공군 제9병단 예하 제12, 제27군이었다. 제12군의 목표는 국군 방어선을 돌파한 후 우회로 종심기동을 실시하여 속사리를 차단, 국군을 포위섬멸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제12군은 5월 16일 16시 30분

공격사격을 실시했고 5월 16일 17시 30분이 되자 내평리 일대에서 공격을 개시했다.[156]

국군 제5사단 제35연대는 최초 중공군 제20군 제60사단 제178연대와 제180연대의 첨병중대와 교전을 벌였다.[157] 20시경에는 중공군 제12군 제31사단이 국군 제35연대의 정면으로 공격해왔다. 중공군 제31사단은 연대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제1대대 책임지역 내의 538고지를 점령했다. 곧이어 22시경에는 바위산, 매봉산의 능선을 따라 제35연대 제2대대를 공격해 왔다.

국군 제35연대는 매봉 일대의 험준한 지형의 이점을 살려 분전했으나 5월 17일 03시 30분경 예하부대에 철수명령을 하달하였다. 정면에서 중공군의 파상공격이 계속되고 인접 국군 제7사단의 퇴각으로 후방이 노출되어 고립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03시부터는 연대와 대대간의 유선이 두절되어 지휘통제도 원활치 못했다.

이에 국군 제35연대는 진지를 이탈하여 괘석리로, 괘석리에서 다시 사단의 지시에 의해 와야리로 철수하여 20시경 이 일대에서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했다. 연대의 지휘소는 와야리 남쪽의 장수원에 설치했다.[158]

나. 중공군 제31사단의 우회시도 저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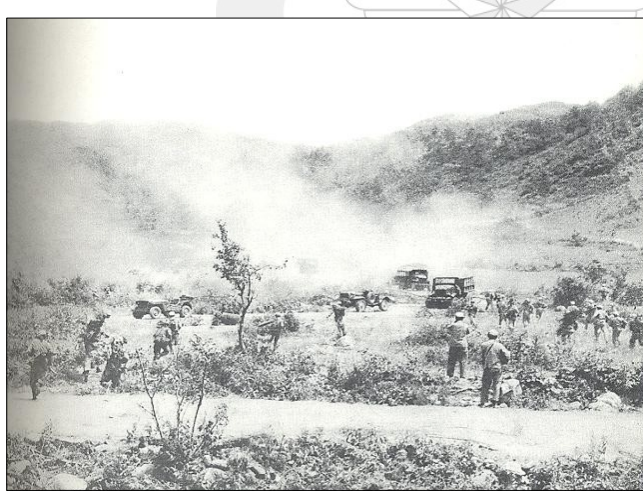
중공군 제12군 제31사단은 5월 16일 23시경 국군 제5사단 제35연대의 방어진지 일부를 돌파한 후 우회, 종심기동을 실시하여 24시경 자은리 북쪽 삼거리까지 진출하였다.[159] 중공군 제31사단은 2개 연대규모를 계속해서 종심으로 진출시킨 후 자은리 남쪽에서 장수원 일대로 진격하려 했다. 그러나 이때 중공군 제31사단은 미 제2사단 제23연대의 탱크 12대를 만나 자은리 일대에서 2시간을 지체하게 된다.[160]

중공군 제31사단은 국군 제5사단의 방어선을 돌파한 이후, 주력은 우회하여 장평리, 장수원, 풍암리 일대로 기동하면서 국군 후방을 차단하는 것이 임무였는데 미군이 등장하자 당황하였던 것이다. 이 시각 국군 제5사단 제35연대는 5월 17일 03시 30분경 예하부대에 철수명령을 하달하고 괘석리 방향으로 이동 중이었다.

국군 제5사단의 예비인 제36연대는 장남리, 가마봉을 연하는 선에 신장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다. 5월 16일 저녁 중공군 제12군의 일부가 국군 제36연대 제3대대가 철수 중인 장남리 일대로 공격하기 시작하자 연대는 제2대대를 투입하였다.[161] 이때 제36연대 제3대대는 19시 40분경 철수하다가 때마침 도착한 제36연대 제2대대와 함께 재차 중공군을 공격하여 안산골 625고지를 탈환하였다.

계속해서 중공군 제31사단이 5월 17일 09시 30분경 응봉 일대로부터 국군 제5사단 제36연대를 공격해왔다. 국군 제36연대는 사력을 다해 방어하였으나 저녁 무렵 연대의 방어선이 돌파되었다. 그러나 연대는 매봉 및 가마봉 일대로 물러나 중공군과 교전하여 중공군의 종심기동을 지연시켰다. 이후 중공군 제31사단의 주력이 풍암리 북쪽에 도달한 것은 5월 18일이 되어서였다. 중공군 제31사단이 가마봉 돌파를 포기하고 우각산 방향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162]

다. 중공군 제27군의 측면 공격



중공군의 제5차 2단계 공세(일명 5월 공세) 시 국군 제3군단을 공격하는 중공군의 모습

중공군 제27군은 하수내리 일대로부터 공격해왔다. 중공군 제27군은 국군 제5사단과 제7사단의 전투지경선을 돌파한 후 종심기동을 시도하여 오마치 고개와 창촌리 일대를 차단하려 했다.

중공군 제27군은 하수내리 서쪽의 662고지를 선점하고 5월 16일 17시 30분을 기해 상수내리에서 옥산동 방면으로 공격을 개시했다. 국군 제5사단 제27연대의 방어선 전방에 있던 662고지는 소양강 차안에 바로 이어지는 절벽과 같은 형태의 고지로 대안상에

돌출되어 있었다. 따라서 국군 제27연대는 처음에 이곳을 점령하지 않고 있다가 중공군이 662고지 일대에 출현하자 5월 16일 12시경부터 6시간에 걸쳐 공격을 실시했지만 이 고지를 탈취하지 못했다.

이후 국군 제27연대는 중공군과 교전하다가 22시경 철수하여 우각산 일대의 노네임선을 점령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인접 국군 제7사단 제8연대 지역을 돌파해 들어온 중공군이 국군 방어선의 후방을 점령하고 있어 적과 근접전을 벌이면서 철수해야만 했다.

국군 제5사단의 예비인 제36연대는 5월 17일 09시 30분경부터 중공군 제31사단과 교전을 벌여 중공군의 진격을 저지하다가 철수를 개시했다. 연대는 19시경 광암리 남쪽의 방어선을 점령했으나[163] 인접 연대인 국군 제 5사단 제27연대와 횡으로 연결하지는 못한 상황이었다. 중공군은 다음날 이 간격을 통해 국군 제5사단 정면을 돌파하려 했다.

한편 662고지 일대에서 중공군 제27군과 교전 후 노네임선으로 철수를 시작한 국군 제27연대는 5월 16일 23시경 가까스로 옥산동 일대를 벗어났지만 이미 퇴로가 차단되었으므로 원거리를 경유하여 광암리 일대에 집결했다. 연대는 중공군이 이미 우각산과 가마봉을 점령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내촌면 879고지 일대에 5월 17일 14시 30분경 방어진지를 편성했다.

국군 제35연대 역시 우각산 일대에 저지진지를 점령할 계획이었으나 같은 이유로 5월 17일 03시 30분경 괘석리를 경유 20시경에 수하리-와야리를 연하는 선을 점령하였다.[164]

라. 중공군의 다중 포위

5월 17일 21시경 국군 제5사단이 광암리 남쪽을 연하는 선에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을 때 우각산에서 남하한 중공군은 소규모 병력으로 방어선을 탐색하다가 5월 18일 01시경부터 제36연대와 제27연대의 간격을 돌파하여 들어오면서 사단 진지의 후방을 공격해왔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군 제27연대는 5월 18일 02시경 중공군이 측후방으로부터 공격을 해옴으로써 대대 단위로 포위될 위기에 놓였다. 연대는 중공군과 치열하게 교전하다가 04시경 진지를 이탈하여 10시경 광암리 남쪽의 내촌면에 집결했다. 그리고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하라는 미 제10군단의 명령을 받고 19시경에 외삼포리 일대를 점령하였다.[165]

국군 제35연대는 국군 제7사단 제8연대 지역을 돌파해 들어온 중공군과, 국군 제5사단 제27연대와의 간격으로 돌파해 들어온 양측의 중공군에게 포위되었다. 그리고 07시에 철수명령을 받았으나 13시 30분경에 포위망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후 어론리까지 철수하여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했다.

한편 국군 제5사단 제36연대는 5월 17일 19시경 광암리 남쪽의 방어선을 점령했으나 적에 의해 고립될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5월 18일 10시에 철수를 개시하여 다시 전선을 정비하고 장평리 북쪽의 고지를 연결하는 선을 점령했다. 이때 좌측방에서는 미 제2사단 제23연대가 자은리 남쪽 3km에 있는 평천을 연하는 선에서 중공군을 저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미 제2사단과 국군 제5사단 사이에는 종심으로 6km에 달하는 큰 간격이 생기게 되었다.

국군 제5사단은 5월 16일 중공군의 공격을 받은 이래 논리, 매봉, 장남리, 가마봉, 괘석리, 장수원, 풍암리에 이르기까지 격전과 철수를 반복하면서 적을 저지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부대가 포위되어 궤멸될 위기를 여러 번 맞았으나 탈출, 재집결 후 새로운 진지를 점령하는 형태로 계속해서 중공군과 싸웠다. 그리하여 장수원 일대에서 국군을 포위 섬멸하려는 중공군의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마. 중공군의 종심기동 실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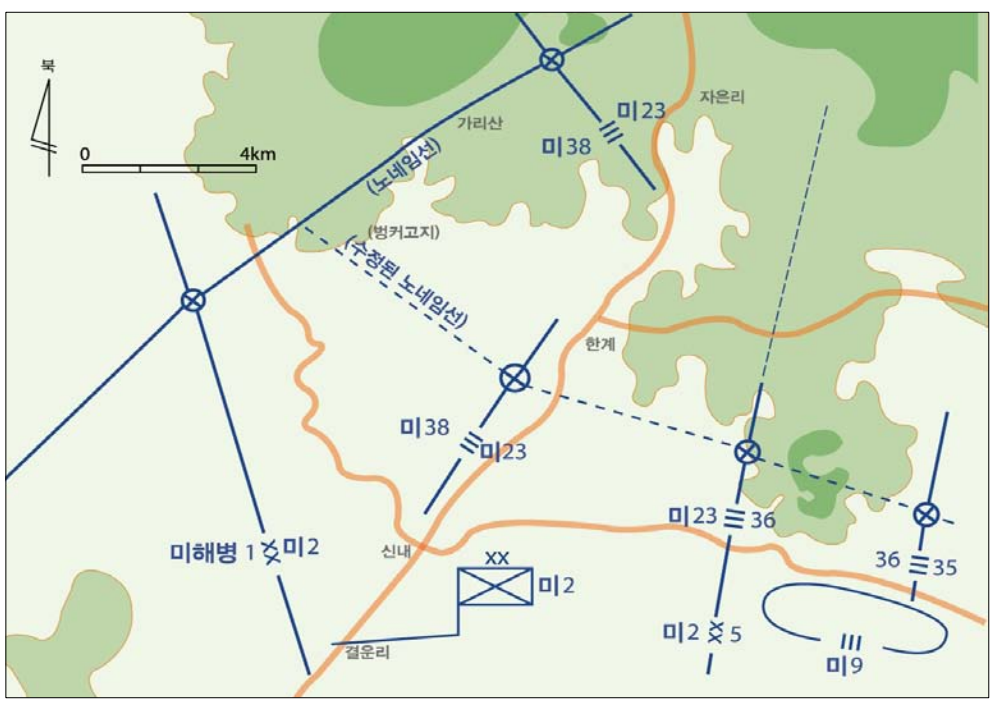
노네임선이 붕괴되자 미 제8군은 새로운 방어선상에서 중공군의 진출을 저지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유엔군이 대비할 시간을 버는 것이 중요했다. 미 제8군은 수정된 노네임선을 설정하고 미 제10군단으로 하여금 한계 일대에서 중공군을 저지하도록 지시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미 제10군단은 5월 18일 12시를 기하여 방어명령을 받고 미 제2사단, 국군 제5사단, 국군 제7사단을 중심으로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했다. 미 제10군단은 미군과 국군을 2중으로 배치하는 작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전선고수의 의지를 보였다. 먼저 미 제2사단 제23연대를 전방에 배치하고 그 후방에 국군 제5사단 제27연대를 배치했다. 아울러 국군 제5사단 제35연대와 제36연대를 전방에 배치하고, 그 후방에 미 제2사단 9연대를 배치했다.

동시에 미 제10군단은 국군 제7사단을 풍암리로 이동시켜 한계 남쪽의 외삼포리, 장평리, 솔치고개, 어론리, 풍암리를 연하는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했다.

<상황도 6-15> 유엔군의 수정 방어선



한편 중공군 제12군은 이틀 동안의 강력한 야간공격에도 불구하고 최초 계획을 달성하는데 차질을 빚고 있었다. 따라서 중공군 제12군은 장평리 일대에서

국군을 섬멸하기 위해 총공세를 펼치기로 결심하고 18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파상공격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국군 제5사단 제35연대는 5월 18일 21시 40분경 방어준비를 미처 마치지 못한 채 중공군의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치열한 전투를 벌인 끝에 5월 19일 02시경 중공군을 격퇴하는데 성공했다. 국군 제36연대 역시 계속된 철수로 지쳐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 제10군단의 항공화력과 미 제2사단 제9연대의 포병지원을 받아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펼친 끝에 5월 19일 15시경 중공군의 공세를 막아냈다. 이 승리는 미 제2사단이 인제-홍천 축선과 벙커고지 전투로 잘 알려진 778고지 일대에서 중공군의 진격을 저지하고 반격의 발판을 마련하는 귀중한 계기가 되었다.

3) 국군 제3군단의 붕괴

(1) 국군 제9사단의 상황

국군 제9사단은 제3군단의 좌전방 사단으로 제28연대와 제30연대를 전방, 제29연대를 예비로 방어 편성을 했다. 국군 제3군단은 모든 전력인 2개 사단을 전방 방어선에 투입한 상황이었다. 제9사단은 16일 20시경 국군 제7사단 제5연대가 전투지경선을 넘어 사단지역으로 들어오게 되자 상세한 전장상황을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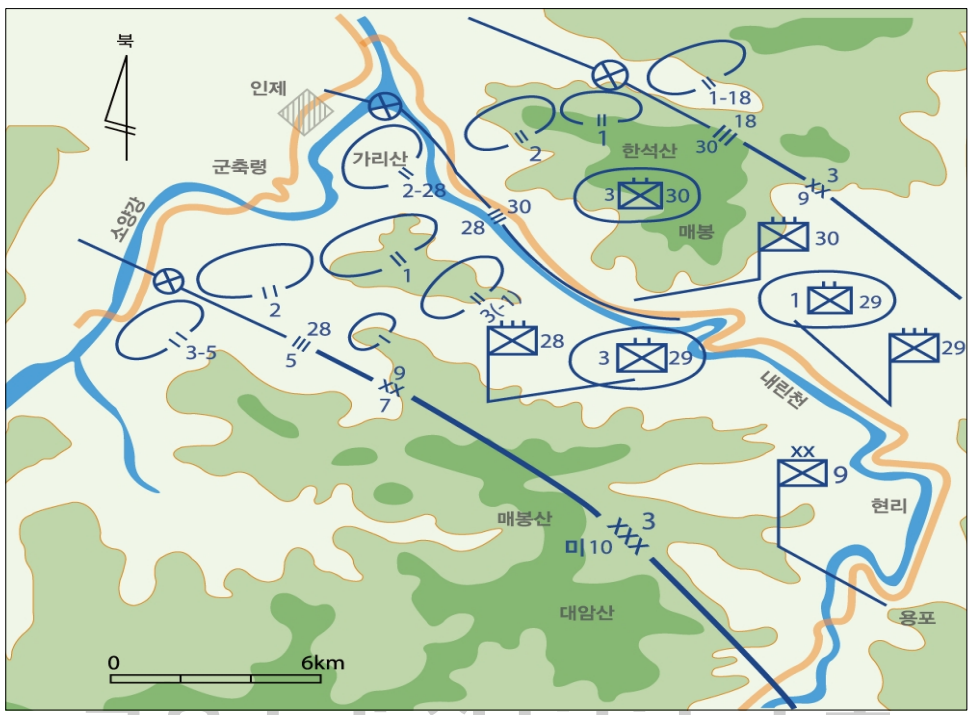
5월 16일 국군 제9사단의 정면에는 중공군의 공격이 없었다.[166] 그러나 제7사단 지역이 돌파되어 후방의 오마치 고개가 차단당한다면 제3군단의 유일한 보급로가 끊기게 되므로 사단장은 제3사단장에게 예비대를 보내 오마치 고개를 선점토록 협조했다. 그러나 국군 제3사단도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누구도 오마치 고개 일대에 부대를 배치하지 못했다.[167]

5월 17일 01시경 사단 좌전방 연대인 제30연대 예하의 제2대대가 중공군으로부터 전후방에 동시타격을 받아 한 시간만인 02시에 돌파되었다.[168] 01시경 사단은 제29연대를 매봉과 원대리의 계곡 북쪽으로 기동시켜 적을 저지하려 했지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여의치 못해 철수했다. 그러자 사단 우전방 연대인 제28연대는 좌우측의 국군 방어선이 모두 돌파당한 가운데 고립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상황도 6-16> 국군 제9사단의 방어계획



제9사단장은 03시경에 군단장에게 철수를 건의했다. 군단장은 미 제10군단에 전황을 물었으나 미 제10군단으로부터 아무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국군 제9사단의 철수를 허락하지 않았다. 야간의 철수가 자칫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고 국군 제7사단의 방어선이 돌파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좀 더 버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169]

이에 제9사단장은 퇴로가 차단당하기 전에 야포와 차량 등 기동장비를 먼저 철수시키기로 결심하고 이 장비들을 이동시켰다. 그러나 이들은 오마치 고개 일대를 중공군이 이미 점령하였으므로 용포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사단장은 상황을 보고받은 후 04시경 예하부대에 철수명령을 하달했다. 이에 국군 제9사단 제30연대와 제28연대는 철수를 개시하여 920고지, 한석산을 연하는 선을 이탈, 용포로 이동하였다. 제9사단 제29연대는 통신소통이 되지 않다가 09시가 되어서야 무전으로 철수명령을 받고 용포로 이동을 개시했다.

사단 예하부대는 10시경 대부분 사단 전술지휘소가 위치한 용포로 집결하였다. 이동하는 동안 수차례 중공군의 요란사격과 기습을 받았다. 사단이 용포 일대에 도착하자 전투지경선을 넘어 들어온 국군 제7사단의 일부도 이미 도착해 있었다.

12시경 용포 서쪽 능선에 적이 나타나 요란사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때는 중공군 제81사단 제242연대가 암달동 일대를 점령하였고,[170] 북한군 제6사단 제1연대가 귀둔리에서 현리로 이동하고 있을 때였다.[171] 그리하여 용포 일대에 집결해 있던 국군 병력들은 사방으로 분산되었다.

국군 제9사단은 북쪽으로 퇴각하여 13시 40분경 현리에 도착했다. 국군 제7사단 지역을 돌파한 중공군이 원대리와 간대를 차단한다면 사단은 용포 일대에서 포위 섬멸당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현리에는 국군 제3사단 및 제3군단의 직할부대, 제7사단 제5연대, 수도사단 제1연대 제1대대의 일부 병력이 혼재되어 있었다. 병력들이 한데 모이자, 대규모 중공군의 공격으로 국군 제7사단이 붕괴되고 오마치 고개가 피탈당한 상황을 모두가 알게 되어 장병들의 불안과 동요가 확산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국군 제3사단의 상황

국군 제3사단은 제3군단의 우측 사단으로 덕적리, 한석산, 가리봉을 연하는 선에 진지를 편성했다. 사단은 제18연대를 가리산 1226고지 일대에, 제22연대를 가리봉 1519고지 서쪽 능선 일대에 배치했다. 또 제23연대를 예비로 하여 전방연대의 후방에 대대별로 방어거점을 점령토록 지시했다. 가리봉의 동쪽 능선부터는 국군 제1군단 수도사단의 책임지역이었다.

사단은 전투가 개시되기 직전 생포한 포로의 진술과 무선 감청을 통해 적의

공격목표가 가리봉으로 지향될 것을 확인하고 적의 공격에 대비했다.[172] 사단의 정면을 먼저 공격한 것은 북한군 제5군단이었다. 북한군 제6사단, 제32사단, 제12사단은 5월 15일부터 1519고지 가리봉 방향으로 공격하여 5월 17일 04시경 이 일대를 돌파했다.[173] 북한군 각 사단은 동시에 국군 진지후방의 지휘소 등을 습격했다. 5월 17일 06시경 회전동 일대에 있던 국군 제22연대 지휘소가 습격을 받았다.

국군 제3사단은 제9사단으로부터 제7사단이 철수 중이며 주보급로인 오마치 고개 일대를 피탈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제3사단장은 군단이 적에게 포위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제9사단 제28연대가 철수를 개시했다는 보고를 받자 5월 17일 08시경 철수명령을 하달하였다.[174]

사단은 제23연대의 엄호 하에 제18, 제22연대 순으로 철수하기로 했다. 제18, 제22연대는 13시경 현리에 집결했다. 비슷한 시각에 제9사단을 비롯한 부대들이 속속들이 현리로 모여들었다. 제23연대는 철수엄호 임무를 마치고 5월 17일 18시 50분에 진다리를 출발했다. 그러나 북한군 제6사단 제1연대가 이미 국군의 퇴로를 차단하고 있었다.[175] 북한군 제5군단이 정면과 후방에서, 중공군 제20군이 좌측방에서 공격한다면 국군 제3사단을 비롯한 국군 제3군단의 주요 부대들이 포위될 상황이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 국군 제3군단의 퇴로 차단

현리 일대에서 만난 국군 제9사단장과 국군 제3사단장은 각각 1개 연대씩을 차출하여 오마치 고개를 공격하기로 했다. 군단장은 5월 17일 14시경 현리에 도착, 작전회의를 열어 공격명령을 하달한 후 15시 30분경 하진부리의 군단 전술지휘소로 복귀했다. 철수간 군단의 지휘권은 국군 제3사단장에게 위임하였다.[176] 군단은 국군 제9사단과 국군 제3사단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따라서 군단장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구두명령을 하달했다.[177]

1. 군단은 현리 후방지역에 형성된 적의 차단진지를 돌파한 다음 주력을

창촌리 지역에 집결케 하여 차기작전을 도모하려 한다. 2. 제9사단장은 주력부대를 중점적으로 사용하여 오마치 고개를 돌파하고 퇴로를 개척하라. 3. 제3사단장은 저지진지를 점령하고 사주방어를 실시하면서 철수준비를 갖춘다. 제9사단이 오마치 고개를 돌파하면 축차적으로 지연전을 펼치면서 철수하라. 4. 철수목표는 우선 창촌리를 연하는 선으로 한다. 5. 철수간의 통제권을 제3사단장에게 부여한다. 6. 군단장은 하진부리에 있는 군단 지휘소로 급히 귀환하여 가능한 포병 및 항공지원과 공수에 의한 보급지원을 요청할 것이다.

한편 육군본부에서는 국군 제3군단의 상황과 미 제10군단의 상황을 종합 검토한 다음 미 제8군과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의 육본 작전명령을 5월 17일 17시경 하달하였다.[178]

1. 제1군단장, 제3군단장은 5월 18일 여명을 기하여 '와코선(WACO-Line)'으로 철수한다. 2. 제3군단장은 수송수단과 장비 및 보급품 등을 와코선 남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기동로상의 적을 섬멸하고 기동의 안전을 보장하라. 3. 와코선을 점령하면 각 군단 간의 연계를 유지하라.

육본의 작전명령을 수령한 국군 제9, 제3사단장은 5월 17일 17시경 오마치 고개 공격계획을 예하 연대에 하달했다.[179] 그러나 세부계획은 세우지 못했고 결과적으로는 오마치 고개에 대한 공격을 실행에 옮기지도 못했다.

사단의 오마치고개 공격계획에 따라 국군 제9사단 제30연대는 제3대대가 오마치 고개를 공격하기 위한 주요 지형인 736고지를 무혈 점령했다. 그런데 785고지를 점령하기로 한 제1, 제3대대가 내린천을 따라 남하하다가 방태산으로 퇴각하고 말았다. 그러자 사단 전체가 방태산으로 퇴각하기 시작했다.[180] 이것이 방태산으로, 광원리로, 을수재로 연달아 군단이 퇴각하게 된 비극의 서막이었다.

한편 국군 제3사단 제18연대는 제9사단 제30연대가 중간 목표를 점령하면 이를 초월하여 오마치 고개를 공격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리 일대에 집결해 있던 병력들이 기습을 받아 방태산으로 흩어지고, 제9사단도 대오를 잃고 방태산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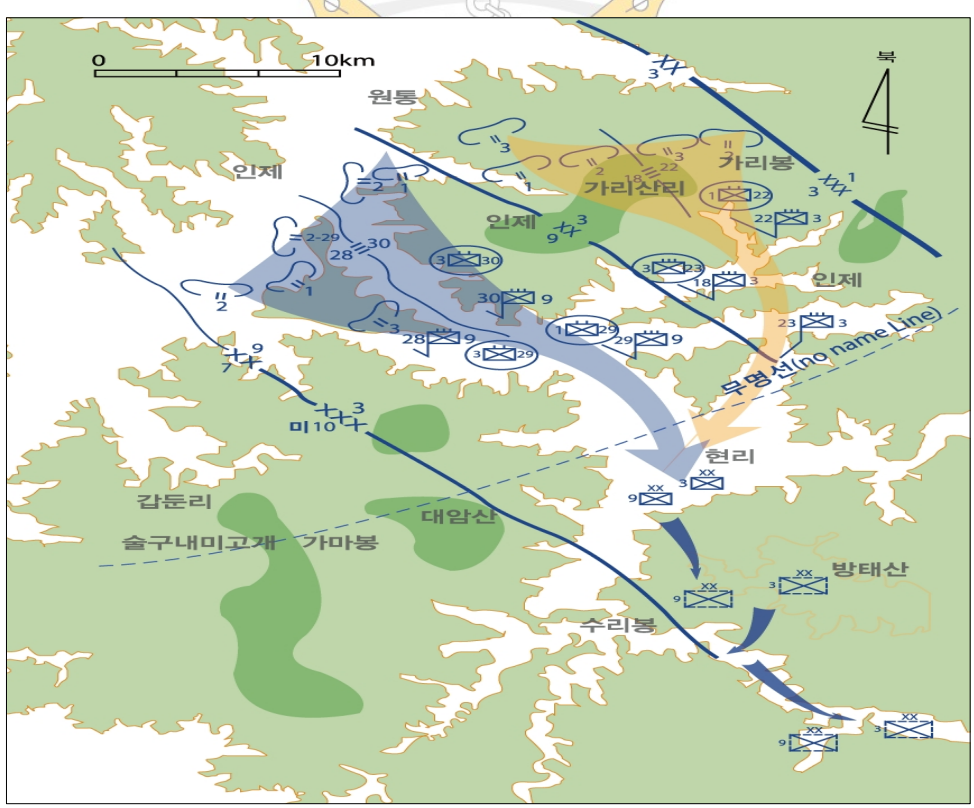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퇴각하자 제3사단장 역시 방태산으로 철수해야겠다고 판단했다.[181] 이에 따라 국군 제3사단장은 예하부대에 5월 18일 03시 30분경 모든 장비를 파괴하고 방태산을 지나 창촌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4) 국군 제3군단의 방태산 퇴각

국군 제3군단은 무질서한 철수를 시작했다.[182] 군단은 장병, 노무자, 위문공연단 등이 뒤섞여 철수하면서 공용화기와 장비를 파괴하거나 유기하고 방태산으로 퇴각했다. 퇴각 후 집결지는 방태산 남쪽의 광원리로 한다고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면서 험난한 주억봉, 구용덕봉을 넘었다.

<상황도 6-17> 국군 제3군단의 철수로



국군의 각급 부대는 밤낮으로 철수하던 중 지휘통제 능력을 상실했고, 보급도 없이 1,436m나 되는 방태산을 오르면서 장병들의 체력과 정신력이 모두 소진되었다. 산을 내려오자마자 칠전동 부근에서 중공군의 습격을 받아 부대가 인근으로 다시 흩어졌다.[183]

현리에서 방태산을 넘는 동안 중공군은 집요하게 국군 제3군단을 추격했다. 이는 방태산을 넘어 광원리 일대에 도착하기까지 계속되었다. 군단 예하 부대들은 중공군의 추격과 습격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자 대오를 추스를 틈도 없이 곧장 창촌 쪽으로 퇴각했다.

군단은 광원리에서 창촌 쪽으로 이동했지만 이곳 역시 5월 18일 18시경부터 중공군이 점령하고 있었다. 퇴각하는 대열에는 국군 제3사단 제18연대도 있었다. 이들은 전군에 백골 연대로 소문난 강한 전투력을 가진 부대로서 창촌에 이르기까지 2천 여 명이 대오를 잃지 않고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제18연대는 5월 19일 새벽, 창촌에 도달한 후 계방천을 도하하다가 공산군의 기습사격을 받아 순식간에 사방으로 흩어졌다. 5월 19일 아침이 되자 창촌으로 가지 못한 병력들은 다시 광원리 일대에 모이기 시작했다.

한편 5월 18일 20시 30분에 미 제8군사령관은 참모들로부터 특별 브리핑을 받았다.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국군 제3군단의 철수에 관한 것이었다. 미 제8군사령관으로서도 중공군의 규모와 기세, 퇴각을 거듭하는 국군 제3군단의 상황은 손을 쓰기 어려운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예하 지휘관들에게 이 지역에서 중공군의 공격이 완전히 멈출 때까지 반격을 개시하지 말라고 지시했다.[184]

미 제8군사령관은 국군 제3군단의 심각한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보다는 중공군이 얼마나 깊이 진격해 왔는지, 중공군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데 집중적인 관심을 보였다. 동시에 미 제187공정연대 전투단과 국군 제8사단에 연락하여 출동에 대비하여 부대를 점검하되 임무가 주어지더라도 미 제8군사령관의 명에 의해서만 움직일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18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편 중공군은 5월 19일 방태산을 넘어온 일부부대를 이용하여 광원리에서 창촌으로 가는 유일한 도로인 원당동 일대마저 차단했다. 그들은 첨병을 보내 도로장애물을 설치하고 주력부대가 후속하여 주변 감제고지 등 주요 지형지물을 점령했다.

국군 제9사단은 원당동 일대에 중공군이 진출했다는 보고를 받고 하진부리로 철수할 계획을 수립했다. 일부 부대들은 02시경 원당동과 광원리 사이를 오가면서 철수할 길을 찾고 있었다. 중공군은 이런 모습을 모두 관측하고 있었으나 중공군에 비해 국군 제3군단의 규모가 더 컸으므로 섣불리 공격하지 않고 낙오병만 사살하거나 포로로 삼았다.

국군 제3군단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퇴로는 경사가 60도에 달하는 1,150고지의 을수재 밖에 없었다. 장병들은 체력과 정신력이 고갈된 상태에서 탄띠, 철모, 군복까지 벗어던지고 맨몸으로 하진부리로 향했다.

군단은 북으로부터 오대산-하진부리, 소계방산-하진부리, 계방산-하진부리를 연하는 선으로 3분하여 뿔뿔이 퇴각을 실시, 그 일부가 5월 19일 15시경 최초로 하진부리 일대에 도달했다. 그러나 하진부리 일대에서 국군이 재편성을 하고 있을 때 공산군이 재차 공격해와 이 일대에 도착했던 국군부대들은 다시 뿔뿔이 흩어졌다.

17시경 군단의 주력은 계방산을 넘어 남하 중에 있었다. 이때 중공군이 추격해 왔으나 제9사단 공병대대와 제7사단 1개 대대의 병력이 창촌 남쪽 운두령에 저지진지를 점령하고 중공군 1개 연대와 교전을 벌인 끝에 제3군단의 주력이 다시 흩어지는 것만은 막을 수 있었다.[186]

5월 20일 중공군은 야음을 이용하여 운두령을 넘어 속사리 북쪽까지 진출했다. 이에 국군 제3군단은 04시 30분경 하진부리로부터 퇴각하여 횡계리로 이동했다. 이것이 제3군단의 해체에 결정적이고도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미 제8군사령관은 국군 제3군단장에게 하진부리 일대에서 더 이상 철수하지 말고 적을 저지할 것을 직접 명령했다.[18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표 6-28> 국군 제3군단 수습병력 현황[188]

3사단			9사단		
구분	지휘소	병력	구분	지휘소	병력
본부	유천리	90	본부	속사리	185
직할대	유천리	860	직할대	속사리	1,167
18연대	피목정	1,052	28연대	속사리	1,350
22연대	척천리	719	29연대	속사리	990
23연대	역두동	900	30연대	속사리	890
계	3,621명(34.2%)		계	4,582명(40.0%)	

그러나 군단은 5월 21일에 다시 퇴각을 하여, 제3사단은 송계리로, 제9사단은 대화로 각각 퇴각하고 군단사령부는 횡계리에서 영월로 퇴각하여 흩어졌다. 5월 20일 16시경 수습된 제3군단의 병력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다. 5월 22일에 국군 제3군단은 해체되었고 국군 제9사단과 제3사단은 각각 국군 제1군단과 미 제10군단에 다시 배속되었다.[189]

4) 미 제2사단의 양쪽 견부 확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 미 제2사단의 역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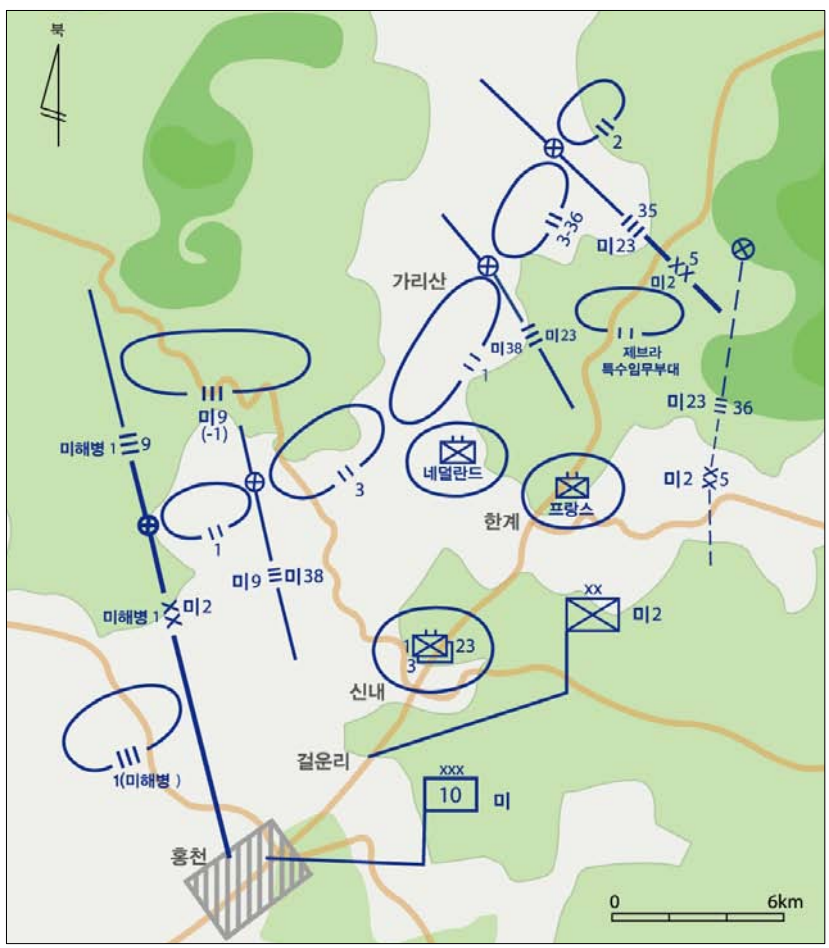
국군 6개 사단이 미주리선으로 진격하는 동안 미 제2사단은 대룡산, 가리산, 매봉을 연하는 견고한 방어진지를 구축했다. 이때 좌로부터 제9연대, 제38연대, 제23연대를 배치했다. 미 제2사단은 중앙의 제38연대에 네덜란드 대대를, 우측의 제23연대에는 국군 제5사단 제36연대 제3대대와 프랑스 대대를 각각 배속했다.

가. 중공군의 공세 개시와 오판

미 제23연대는 제2대대와 배속 받은 공수 1개 중대, 미 제72전차대대 예하 1개

소대로 제브라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여 사단 책임지역의 우전방을 방어토록 했다. 이때 프랑스 대대를 특수임무부대의 후방인 인제-홍천 축선상의 한계에 배치함으로써 중공군의 종심기동에 2중으로 대비했다. 미 제23연대의 주력은 사단의 예비로서 와촌 일대에 집결시켰다. 국군 제36연대 제3대대와 아이반호(Ivanhoe, 국군 1개 중대 규모로 편성된 미 제2사단 지휘소 방호부대) 부대를 전초부대로 운용했다.

<상황도 6-18> 미 제2사단의 방어계획



미 제2사단의 정면을 공격한 적은 중공군 제12군 제31, 제34, 제35사단이었다. 이들은 5월 15일 밤 소양강을 도하한 후 5월 16일 17시 30분을 기해서 미 제2사단의 우측과 정면으로 각각 돌파를 시도했다. 중공군 제31사단은 미 제2사단 우전방의 제브라 특수임무부대 책임지역 쪽으로 공격해 왔다. 중공군 제34사단은 제31사단을 후속하다가 동쪽으로 공격방향을 바꿔 국군 제5사단의 측면을 공격했다. 중공군 제35사단은 미 제2사단 제38연대와 제브라 특수임무부대와의 전투지경선에 걸쳐있는 1051고지를 공격했다.

중공군은 사전정찰을 통해 국군이 방어하고 있는 지역과 그 전투지경선의 간격을 돌파하여 후방을 차단하는 전법을 구사했다. 그런데 중공군 제12군 예하의 부대들이 미 제2사단의 정면으로 공격한 것은 이곳이 국군 제5사단의 책임지역인 것으로 오판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미 제2사단 제23연대에는 국군 제36연대 제3대대와 아이반호부대가 배속되어 있었고 이들은 방어선 전초부대로서 배치되어 있었다. 따라서 중공군은 이 지역 일대가 국군의 책임지역인 것으로 판단했던 것이다.[190]

나. 미 제2사단 제23연대의 인제-홍천 축선 전투

5월 16일 07시 30분경부터 중공군은 소규모의 부대로 미 제23연대 전방에서 전초임무를 수행하던 국군 제5사단 제36연대 제3대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중공군의 병력이 점점 증강되자 미 제2사단은 국군 제36연대 제3대대를 철수시키고 와촌 일대에 집결해 있던 미 제23연대를 사단의 우전방에 투입했다.

미 제23연대는 5월 16일 14시 30분경 제2대대를 좌측, 제3대대를 우측에 배치하고 제1대대는 한계 북쪽에 예비로 보유했다. 중공군이 5월 16일 17시 30분경 공격을 개시한 후, 21시경이 되자 미 제2사단 제23연대 제3대대 정면으로 중공군 제12군 제31사단이 돌파를 시도했다. 중공군 제31사단은 미 제23연대와 국군 제5사단의 간격으로 돌파해 들어왔고 종심기동을 실시하여 24시경에는 자은리 북쪽의 삼거리 일대까지 진격했다. 이 때 중공군 제31사단은 유엔군의 상황과 지형에 관한 정보부족으로 2시간 가량을 지체했다.[191]

중공군 제31사단은 자은리 일대에서 잠시 지체하다가 5월 17일 아침 국군 제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사단을 돌파하고 인제-홍천 도로를 따라 진출하던 중공군 제35사단과 합세하여 계속 진격하였다.[192] 제31사단은 5월 18일 오후 장수원까지 진격하여 국군 후방의 주요 목을 차단한 이후 하진부리, 속사리 일대로 진출하여 국군 제3군단의 퇴로를 차단하였다.[193]

한편 미 제2사단 제23연대 제2대대와 제3대대는 5월 17일과 5월 18일 양일간 축차적으로 진지를 전환하면서 자은리 북방의 삼거리에서 중공군을 저지하였다. 그러나 진지전환의 과정에서 인접 미 제38연대와의 사이에 간격이 발생했고, 중공군 제35사단이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돌파구를 통해 기동하여 인제-홍천간 도로를 점령했다.

미 제2사단은 퇴로가 차단되자, 배속된 프랑스 대대를 평천 일대로 투입하였고 이에 따라 미 제23연대가 한계 일대로 퇴각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미 제23연대는 2대의 전차와 100여 대의 차량을 버리고 도보로 퇴각하기도 했다.[194] 미 제2사단은 철수한 후 부대를 재정비하고 5월 18일 17시부로 한계를 좌우로 연하는 선에서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했다.

다. 미 제2사단 제38연대의 가리산 전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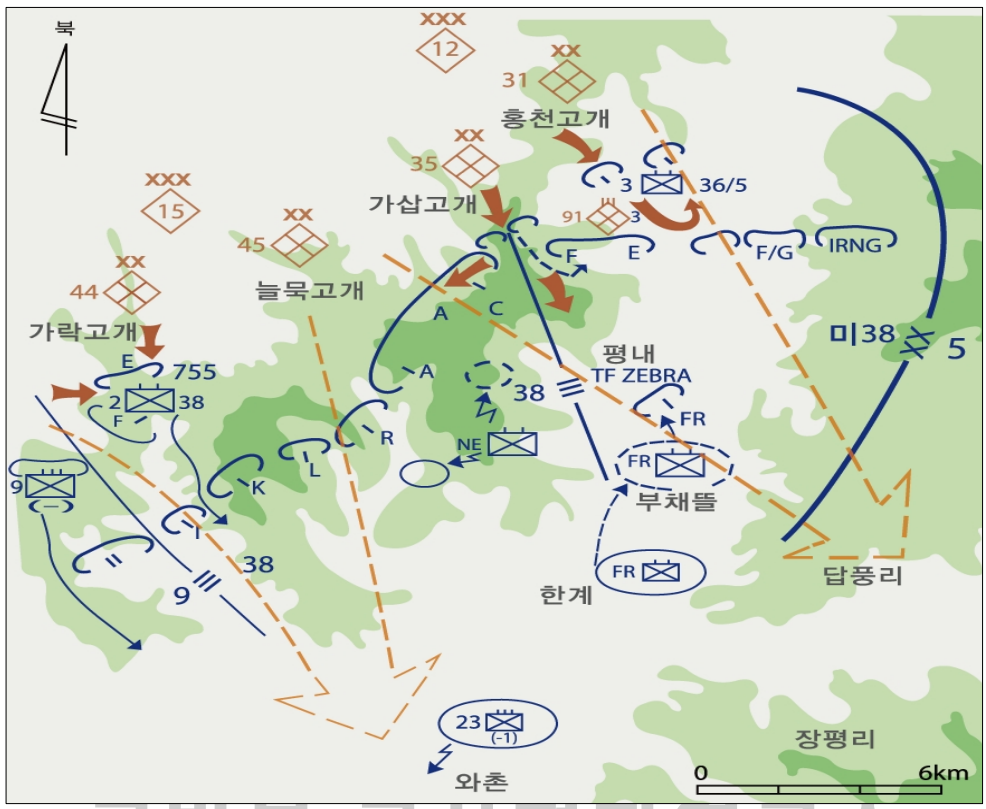
5월 16일 17시 30분경 중공군 제35사단이 미 제2사단 제38연대의 전방으로 공격을 개시했다. 미 제38연대는 이미 전투정찰대 운용을 통해 중공군의 총공세 징후를 감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공군은 미군 중대단위 거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돌파한 후, 측후방으로 돌파구를 확장하는 전법을 취하였다.

5월 17일 01시 30분경 미 제38연대 A중대가 방어하던 가리산 정상이 중공군 제35사단 제103연대의 돌격부대에 의해 피탈되었다. 이후 중공군 제103연대의 주력이 계속 밀고 들어와 5월 17일 03시경 가리산 정상 일대가 모두 점령되었다.[195] 중공군 제103연대는 곧장 평천 계곡을 따라 공격해 내려왔고, 이 일대에 배치되었던 프랑스 대대가 새벽부터 20시까지 이를 저지하였다.[196]

평천에서 중공군의 남하를 저지하는 데에는 네덜란드 대대도 참여했다. 대대는 프랑스 대대의 좌측 능선에 급편방어 진지를 편성하고 중공군 제35사단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6-19> 미 제2사단 전투상황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저지하다가 14시경 적의 공격에 밀려 철수했다.[197] 한편 5월 17일 13시경 중공군 제12군은 미군을 포함한 이 지역 일대의 유엔군을 자은리 일대에서 포위 섬멸시킬 것을 고려했으나, 필요한 조건을 달성하지 못했다.

중공군 제34사단은 중공군 제31사단이 자은리 북쪽 삼거리에서 미 제2사단 제23연대 병력과 교전하고 있을 때 국군 제5사단 쪽으로 공격방향을 전환했다가, 5월 17일과 5월 18일 양일간에는 자은리 일대의 고지에서 미군을 몰아내는 것을 목표로 총공격을 감행했다.[198]

중공군이 모두 가리산 일대에 집결하여 총공세를 개시하자 미 제2사단 제38연대장은 군단 일제사격을 가리산 정상에 요청하여 중공군에게 최대한의 피해를

강요한 후 철수하여 새로운 방어선을 점령했다. 5월 18일 16시 30분경까지 미 제2사단 제38연대가 철수하는 동안 평천 일대에서 프랑스 대대가 엄호했다.[199]

라. 미 제2사단 제38연대 제3대대의 벙커고지 전투

해발 778m 일명 벙커고지 일대는 방어에 유리한 지형은 아니었다. 특히 불과 1.5km 전방에 무명 916고지가 있었기 때문에 공산군이 이 일대를 선점한다면 방어하는 미군에게 매우 불리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916고지 일대에 병력을 배치한다면 방어선이 돌출되어 있어 좌우로 협공당할 우려가 높았다. 전방에 따로 배치할만한 병력이 제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미 제2사단 제38연대 제3대대는 벙커고지 전체에 걸쳐 견고한 엄체호를 구축했다. 한편, 중공군은 방어진지 상의 중·소대 단위 진지에 대한 제한된 공격을 실시하도록 훈련되어 있었다.[200] 특히 야간에 병력과 화력을 집중하여 진지를 돌파하며, 야음과 혼란을 틈타 침투 우회부대를 종심기동시킴으로써 방어하는 부대의 지휘통제 체계를 무력화하려 했다.[201]

5월 17일 21시 30분경 중공군은 야음을 틈타 미 제2사단 제38연대 제3대대를 공격했다. 중공군은 778고지를 향해 은밀 침투를 기도하다가 1차 격퇴 당했으나, 5월 17일 23시경에 재차 공격하여 778고지 정상을 점령했다. 이후 중공군과 미 제2사단 제38연대 제3대대는 밤새 고지를 뺏고 빼앗기는 쟁탈전을 수행하였고, 결과적으로 제3대대가 고지를 방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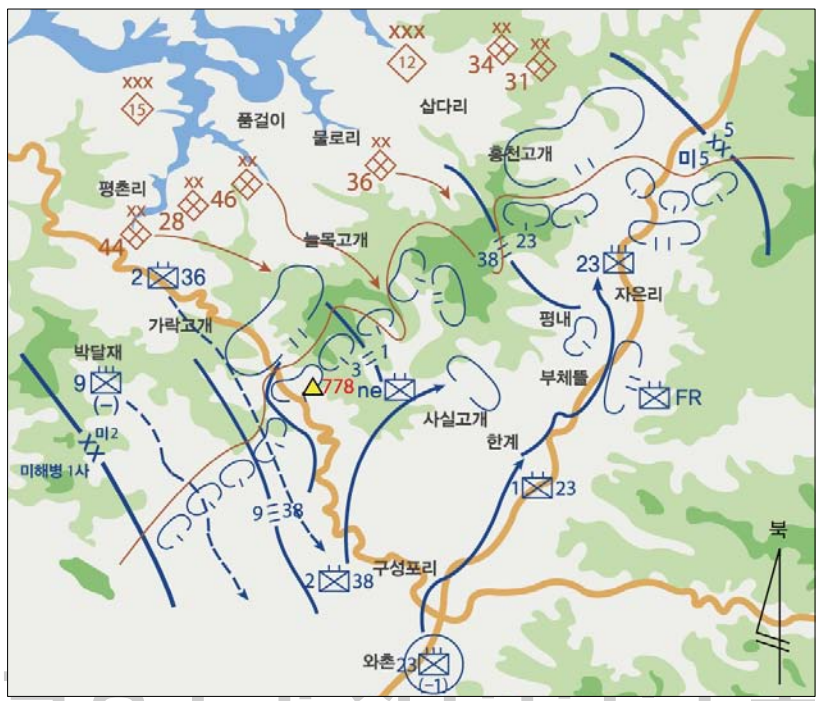
5월 18일 아침, 미 제8군은 778고지를 기점으로 한계-와코선이 연계된 수정된 노네임선을 설정하고 12시를 기하여 병력배치를 완료하라는 명령을 예하부대 내렸다.[202] 이로써 책임지역의 좌로부터 미 제1해병사단, 미 제2사단, 국군 제5사단, 국군 제7사단이 배치된 새로운 방어선이 완성되었다.[203]

문제는 778고지였다. 전선을 재조정한 후 새로운 방어선은 778고지를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 모양이 되었다. 이 고지는 중공군 5월 공세로 형성된 거대한 돌파구의 좌측 견부이기도 했다. 유엔군이 고지를 지켜낸다면 돌파구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음은 물론, 종심이 신장된 공산군의 후방을 역으로 차단할 전기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마련할 수 있었다. 노네임선 상의 작은 무명고지에 지나지 않던 778고지는 새로운 작전계획의 중요한 목표이자 요충지가 되었다.

<상황도 6-20> 벙커고지 전투



이런 상황에서 5월 18일 저녁부터 중공군은 778고지를 목표로 총공세를 펼쳤다. 그리고 벙커고지의 정상을 지키던 미 제2사단 제38연대 제3대대 K중대장은 중공군에게 고지를 점령당할 지경이 되자 최후 방어사격과 진내사격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이날 모두 약 1만 여 발의 포탄이 778고지 위에 집중되었다.[204]

5월 19일 778고지는 결국 유엔군의 전선조정에 의해서 중공군에게 넘어갔다. 미 제10군단은 수정된 노네임선에서의 방어를 위한 작전회의 중, 778고지가 전체적인 방어선보다 너무 북쪽에 있다고 결론지었다. 미 제2사단 제38연대

제3대대를 현재의 위치에서 동쪽으로 재배치시켜 미 제10군단의 방어선을 강화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205]

이에 따라 미 제10군단장과 미 제2사단장이 만나 미 제2사단 제38연대 제3대대의 철수를 결정했고, 미 제1해병사단이 잠시 이 지역 일대에 대한 작전권을 인수하여 미 제3대대의 철수를 엄호한 후 미 제1해병사단도 곧 철수하여 778고지와 고지주변 일대는 중공군이 차지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중공군 제3병단 제15군은 한계를 좌우로 연하는 선에서 미 제2사단과 미 해병 제1사단의 효과적인 방어로 인해 진격이 저지당했다. 그리고 중공군 제9병단 제12군 역시 자은리 북방 벙커고지에서의 교전에서 패배하였다. 이것이 중공군이 속사리로의 종심기동과 다중 포위 임무를 달성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206]

한편 중공군 제12군 예하의 사단들은 5월 18일 미 제2사단이 수정된 노네임 선상으로 철수하자 5월 19일 한계 북쪽에 전 병력을 재배치하고 20일 03시경부터 총공세를 개시했다. 이에 미군은 5월 19일에 B-29폭격기 17대, 5월 20일에도 B-29폭격기 21대를 투입하는 등 가용한 모든 화력을 집중하여 대응했고[207] 중공군은 크나큰 인적 피해를 입으면서 21일부터 전투지속 능력 상실의 뚜렷한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미 제10군단은 5월 22일 14시 30분경 미 제187공정연대 전투단에 공격임무를 부여한 것을 시작으로 반격작전으로 전환했다.[20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국군 제1군단의 우측견부 고수

1951년 5월 16일 17시 30분, 중공군 제12군이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3군단의 협조점이자 유엔군을 동서로 양단할 수 있는 요충지인 속사리를 포위하기 위하여 공격을 개시하자 북한군 제5군단도 국군 제1군단 수도사단 전방의 원통일대에서 공격을 개시했다.

국군 제1군단의 정면으로 공격을 개시한 것은 북한군 제5군단이었다. 5월 16일 국군 제1군단 역시 이들의 강력한 공격에 고전했다. 국군 수도사단 제1연대는 일부

거점을 탈취당하기도 했으나 군사적 요충지인 한계령에서 북한군의 진출을 저지했다. 국군 제1군단 예하 수도사단 제1기갑연대는 내설악에서, 국군 제11사단은 외설악과 동해안을 연하는 선에서 북한군 제5군단과 교전하여 현 전선을 지켰다.

국군 제1군단장은 미 제10군단의 상황을 보고받고 예하 부대들을 주저항선인 한계령-대청봉을 연하는 선에서 일단 철수시켜 가라피리-장승리-양양을 연하는 선에 새로운 방어선을 선정했다. 국군 제1군단은 육군본부로부터 5월 18일 12시를 기하여 와코선으로 철수하여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적을 저지하라는 명령을 수령하였다. 와코선은 미 제8군의 수정된 노네임선의 일부였다.[209]

국군 제1군단장은 이 전투에서 대관령을 확보하는 것이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 판단하고 군단 예비인 국군 제11사단 제20연대를 차량에 탑승시켜 횡계리로 이동시키는 한편, 수도사단 제1연대를 대관령으로 보냈다. 좌측의 국군 제3군단이 현 전선을 지켜내지 못할 경우 중공군에게 전략적 요충지인 대관령을 빼앗기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이 지역의 주보급로가 차단될은 물론 더 나아가 미 공군의 전투비행장이 위치한 강릉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국군 수도사단 제1연대와 제11사단 제20연대는 한계령 일대에서 북한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임과 동시에 5월 18일에는 유천리, 대관령을 연하는 선에 종심 깊은 방어진지를 편성했다.

이런 상황에서 5월 21일 10시경 짙은 안개를 틈타 중공군이 은밀히 침투하여 국군 제11사단 제20연대 우측의 제3대대를 공격했다. 대대는 백병전이 포함된 격전을 벌였으나 중과부적으로 18시에 철수를 개시하여 22시 50분경 연대 전술지휘소가 위치한 횡계리에 도착했다. 국군 제20연대 제1대대는 공산군과의 교전은 없었으나 인접부대가 철수함에 따라 고립될 위기에 놓이게 되어 싸리재 일대로 철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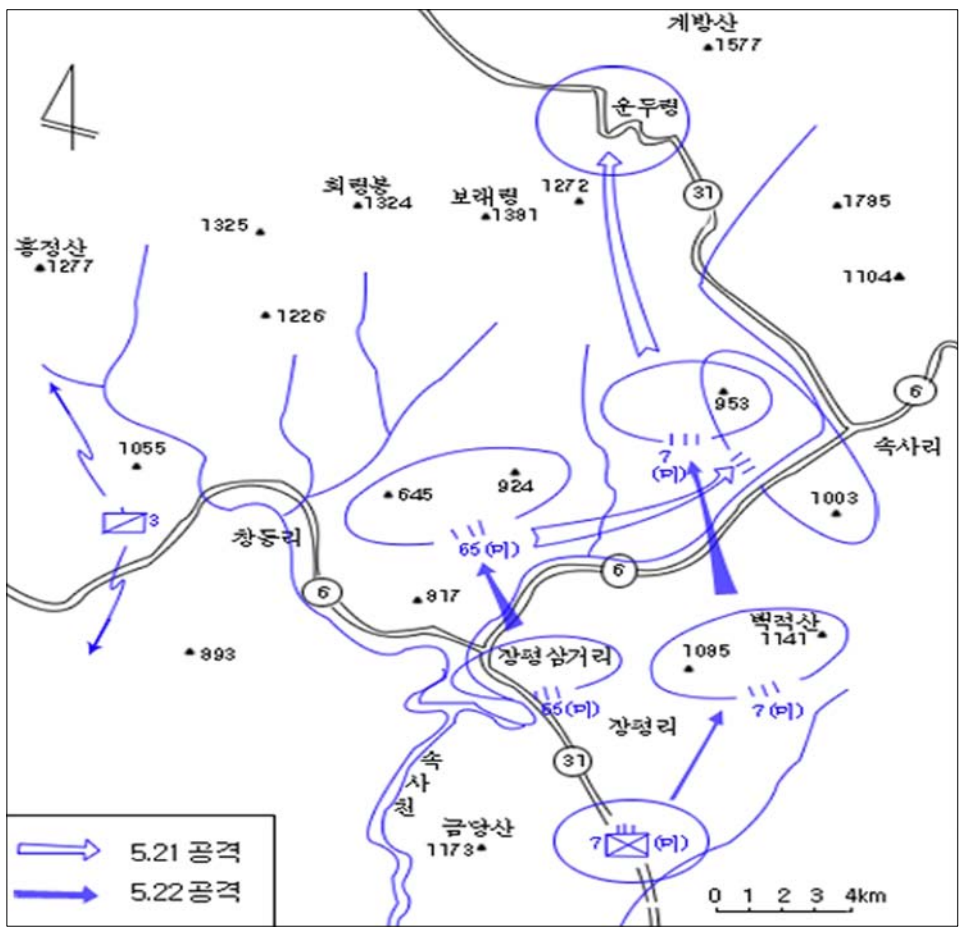
국군 수도사단 제1연대 제2대대는 광정면을 담당하여 중공군과 힘에 부친 전투를 하다가 1150고지 일대로 철수했다. 제1선에서 제3선까지 축차적으로 철수하며 공산군의 진격을 저지하던 수도사단 제1연대와 제11사단 제20연대는 5월 21일 야간에 대관령 일대의 제4선에 방어진지를 편성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5) 유엔군의 반격여건 조성

미 제8군은 중공군이 공격을 개시한 5월 16일로부터 2일이 지나자 중공군의 주공이 미 제10군단 지역으로 집중되었다는 것을 인식했다. 미 제8군사령관은 수정된 노네임선을 방어선으로 설정한 후 미 제8군 예비인 미 제3사단, 미 제9군단의 예비인 제187공정연대 전투단, 호남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 중이던 국군 제8사단 등 가용한 모든 예비대를 미 제10군단 지역에 투입했다.[210]

<상황도 6-21> 유엔군의 반격 전환(1951. 5. 23)



미 제3사단은 제15연대를 국군 제7사단의 작전지역인 풍암리에 투입한 후 미 제3사단의 주력을 형성된 돌파구의 첨단인 속사리 일대에 투입하기 위해 장평리 방향으로 진출시켰다. 5월 20일 아침 하진부리에서 작전회의가 개최되었다. 미 제8군사령관이 주재하고 미 제3사단장, 국군 제1군단장이 참가했다. 미 제8군사령관은 미 제3사단을 서측, 국군 제1군단을 동측 공격부대로 하여 반격할 것을 지시했다.

미 제3사단은 5월 17일 이동을 시작하여 선두부대인 미 제3사단 제15연대가 5월 17일 23시경 횡성 일대에 도착했다.[211] 5월 19일을 전후하여 중공군의 공격기세가 현저히 둔화되었으므로 반격을 개시할 적기로 판단하고 미 제3사단 제7연대와 제65연대가 강원도 평창 장평리 일대에 집결했다.[212] 미 제3사단은 5월 20일 20시부로 미 제10군단에 배속되었다. 미 제3사단은 우선 돌파구 첨단지역인 속사리 부근에서 적의 공격을 차단할 계획을 수립했다.

미 제3사단 제7연대는 백적산 방면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중공군의 주력이 운두령 일대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5월 21일 미 제3사단은 미 제65연대를 서측, 제7연대를 동측 부대로 하여 공격을 개시했다. 중공군은 미 제8군의 이와 같은 조치가 워낙 신속하였으므로, 미 제3사단이 풍암리를 거쳐 운두령을 확보하고 속사리에서 돌파구 첨단을 봉쇄할 것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다.[213]

그러나 순조롭게 진격하던 미 제3사단은 속사리, 하진부리를 연하는 선에 배치되어 있던 국군 제3군단이 공산군의 공격을 받고 퇴각하기 시작하자 우측방으로부터 역습을 당할 위기에 처하였다. 따라서 미 제3사단은 공격을 멈추고 접적이 적었던 서측 공격부대인 미 제65연대를 속사리 방면으로 이동시켜 우측방을 강화한 후 5월 22일 공격을 재개하였다. 미 제3사단 제7연대는 강력한 포병화력의 지원 하에 운두령 일대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여 5월 22일 18시경 마침내 운두령을 확보하였다. 운두령은 서측의 방내리 방면, 동측의 원당동 방면에서 오는 도로가 만나는 주보급로로서 이곳을 빼앗긴 공산군은 마침내 퇴각하기 시작하였다. 공세 초기 국군 제3군단이 후방의 오마치가 피탈되면서 무기력하게 철수했듯이 이번에는 공산군이 그 전철을 밟게 된 것이다.

한편 미 제8군이 중동부 축선의 중공군 공세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다는 위기감을 느낀 것은 5월 18일이었다.[214] 미 제8군은 5월 18일 12시에 수정된 노네임선에 병력을 재배치하고 이후 현 위치에서 공산군의 공격을 저지했다.

중공군 제12군은 공격을 계속하여 제31사단 선두연대가 5월 20일 새벽에 속사리까지 진출했다. 중공군 제60군 제181사단은 5월 21일 속사리에 도착했다. 중공군 제27군은 5월 20일 눌언리, 판궁대, 창촌리 일대를 점령하고, 그 일부는 속사리까지 진출했다. 북한군 제5군단은 광원리, 청도리 일대를 점령했으며 일부는 하진부리 북쪽까지 진출하여 집결한 국군을 계속 공격했다.[215]

미 제8군사령관은 미 제10군단장을 대동하고 국군 제1군단과 미 제9군단을 방문하여 전황을 보고받은 후,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3군단 사이에 벌어진 간격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서 국군이 더 이상 동남쪽으로 퇴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중동부 전선의 중공군이 작전한계점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중공군이 잠시 재충전 후 서부 전선으로 공격방향을 전환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국군과 유엔군이 주어진 책임지역을 잘 지킨다면 화천 방향으로 제1차 반격을, 금화, 철원, 평강의 일명 철의 삼각지대로 제2차 반격을 가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216]

이후 중부전선에서는 미 제8군사령관의 명령에 의해 5월 20일부터 미 제1군단과 미 제9군단이 반격을 개시하여 임진강-의정부-금곡-홍천강을 연하는 선까지 순조롭게 진출했다. 동시에 미 제8군은 군예비인 미 제3사단을 국군 제3군단 지역으로 긴급 투입했다. 미 제3사단은 5월 22일 운두령을 점령함으로써 속사리, 하진부리까지 남진한 공산군의 보급로를 끊었다.

계속해서 중공군이 작전 지속능력 한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한 미 제8군사령관은 미 제10군단에 5월 23일 08시부로 반격작전으로 전환하여 간성을 목표로 진격하고, 국군 제1군단에 북서방향으로 진격하면서 지역 내 공산군을 격멸하라고 명령했다.

동해안에서 작전 중이던 국군 제1군단은 미 제8군의 작전계획에 따라 오대산 일대로 철수한 뒤, 대관령 방어를 위해 2개 연대를 긴급 투입하여 공산군이 동부 축선에서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렇게 확보된 대관령 일대는 국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1군단이 5월 23일부터 군단 역습을 실시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미 제3사단의 운두령 전투는 중공군의 5월 공세에 종지부를 찍고, 유엔군이 반격작전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공군이 공세의 템포를 잃게 되자 미 제10군단은 5월 23일부터 반격작전으로 전환했다. 국군 제9사단을 배속 받은 미 제3사단이 진격을 개시했다.[217]

6) 용문산 승전보

공산군은 5월 16일 공세를 개시한 주공부대들이 중동부전선의 주저항선을 돌파하자 중서부 지역의 유엔군을 고착, 견제하여 중동부전선으로 증원을 차단하고 그들의 주공부대의 진출을 지원할 목적으로 17일 조공부대를 북한강 계곡으로 투입함으로써 중서부전선에서도 혈전이 시작되었다.

이 기도의 일환으로 중공군 제19병단 예하 제63군의 3개 사단(제187, 제188, 제189사단)이 북한강과 홍천강의 합류점 부근을 방어 중이었던 미 제9군단의 중앙사단인 국군 제6사단을 공격해 왔다. 당시 제6사단은 사창리에서 공산군측의 4월 공세시 시련을 겪은 후 전선 조정에 따라 노네임선의 용문산(1157고지) 일대를 점령하고 방어에 주력하고 있었다. 사단은 사창리 전투의 여파로 저하된 사기를 회복하고 약화된 전력을 보강하는 한편 불명예를 씻기 위하여 정신적인 재무장과 훈련에도 전념하였다.

중공군의 5월 공세가 임박한 징후들이 현저하게 나타나자 제6사단은 주저항선이 북한강에서 12~17km 떨어져 있어 중공군이 도하하여 교두보를 확보하면 방어에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제2연대를 홍천강 남쪽에 추진 배치하고 주저항선인 용문산 서쪽에 제19연대, 동쪽에 제7연대를 배치하여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사단수색대를 홍천강 북쪽에 일반 전초로 파견하였다. 이때 제2연대는 사창리 전투의 결과로 연대장과 일부 참모들이 해임되고 송대후 중령이 신임 연대장으로 부임하여 비장한 각오로 방어진지를 준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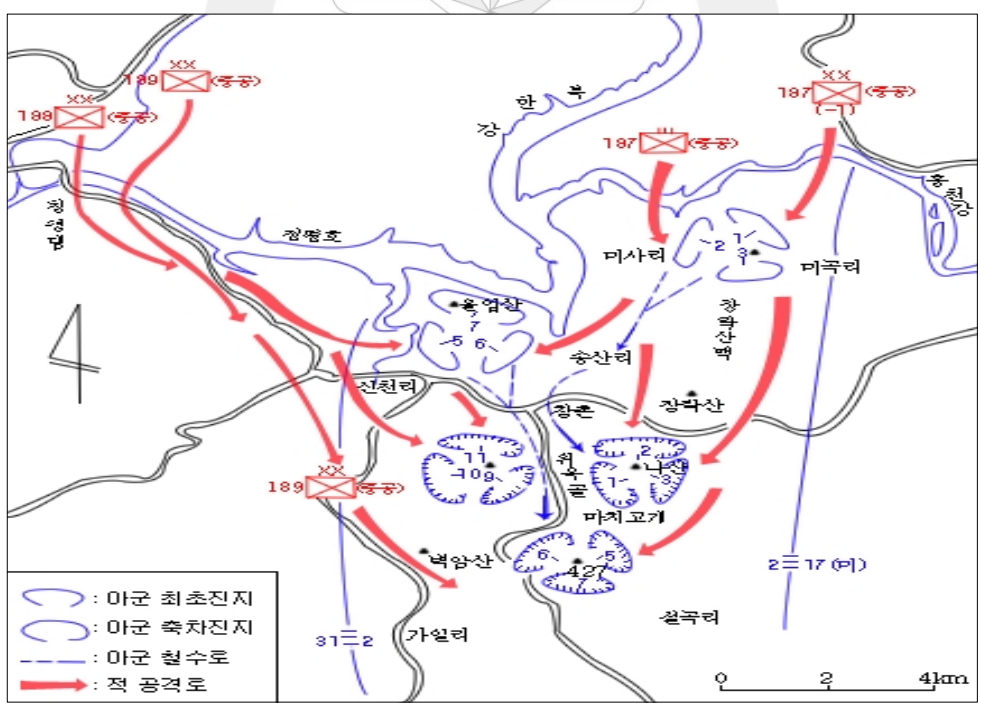
제2대대는 결사라고 색인된 머리띠를 두르고 북한강을 감제할 수 있는 좌전방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울업산(381고지) 일대의 진지를 점령하였고, 우전방 제1대대 장교들은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가 왔다. 이 설욕의 기회를 깨끗이 장식하자"라고 결의하고 홍천강의 감제가 용이한 미사리 부근의 559고지를 점령하였다. 그리고 예비인 제3대대는 울업산 후방의 353고지에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연대의 정찰대는 17일 중공군의 예상도하 지점인 서천리와 강촌리 일대를 탐색 중 이미 도강하여 방하리 계곡에 집결 중인 중대규모의 중공군을 발견하고 격퇴하였다. 그러나 일몰이 되자 중공군은 북한강의 도처에서 도하를 기도하여 정찰대는 복귀하였다. 이 무렵 중공군의 남하로 북한강 일대에서 전운이 감돌기 시작하자 좌인접 국군 제2사단의 제31연대가 화야산에서, 우인접 미 제7사단의 제31연대는 두능산에서 주저항선으로 철수하여 제2연대만 청평호 남쪽의 요지를 방어하게 되었다.

<상황도 6-22> 용문산 전투(1951. 5. 16~21)



18일 낮 동안 중공군은 중대규모로 고성리, 가정리, 상박암리에서 도하 공격을 기도하였으나 격퇴되었다. 어둠이 깔리자 적은 포위공격을 기도한 듯 좌전방 울업산에 대대규모로, 우전방 장락산맥에 연대규모 이상을 투입하여 도하공격을 개시하였다. 연대는 사단 및 군단에서 지원된 5개 포병대대의 조명 및 화력지원을 받아 중공군의 공격을 저지하였으나 일부가 탄막지대를 돌파하고 진내로 접근하여 백병전을 펼쳐 자정 무렵 격퇴하였다.

제2연대가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화력을 지원받아 완강하게 저항하며 진지를 고수하자 중공군은 이곳 전초진지를 주저항선으로 오판한 듯 19일 새벽부터 제187, 제188사단의 주력을 투입하여 돌파를 기도하였다. 중공군은 08시경 홍천강변의 감제고지인 559고지의 제1대대를 연대규모로 포위 공격하였으나 대대는 근접 항공지원을 요청하여 고지를 사수하였다. 아군의 근접 항공지원이 진행되는 동안 중공군의 공격이 잠시 주춤하였으나 폭격이 종료되자 중공군은 즉시 증원부대를 장락산맥 계곡으로 투입하여 제1대대의 퇴로를 차단하였다. 그러나 대대는 3시간 동안 혈전을 펼쳐 중공군의 포위망을 탈출, 연대지휘소가 있는 나산으로 철수하였다.

중공군은 우전방 공격에 이어 이번에는 예비인 제189사단을 투입하여 좌전방 제2대대의 울업산을 집중 공격하였다. 대대는 완강하게 저항하였으나 수적인 열세로 19시 항공 폭격의 엄호 하에 427고지로 철수하였다. 이로써 연대의 방어정면은 353고지-나산을 연하는 사단장 강조선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제2연대는 나산 부근의 전초진지를 고수하고 있었지만 이틀간의 격전으로 다수의 부상자가 속출하고 또 보급을 지원받지 못해 식량과 탄약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재정비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러한 연대의 상황을 간파한 중공군은 20시에 총공격을 개시하였고, 이때부터 제1대대는 나산에서, 제3대대는 353고지에서, 제2대대는 427고지에서 전면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조명 지원하에 진내로 접근한 중공군과 백병전으로 점철된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펼쳤다. 연대는 20일 새벽까지 계속된 전투에서 방어진지 일부가 돌파되고 통신이 두절되어 지휘통제가 불가능한 어려운 상황을 맞기도 하였으나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강력한 정신력으로 진지를 고수하였다.

한편 사단이 적중에 고립된 제2연대를 증원하기 위하여 절치부심하고 있을 무렵인 19일 밤에 미 제8군사령관은 중동부전선에서 적의 공세가 현저하게 둔화되자 중서부전선의 미 제1, 제9군단에 문산 포천-춘천을 연하는 토피카(Topeka)선으로 공격하도록 하였다.

미 제9군단장으로부터 공격명령을 수령한 국군 제6사단장은 주저항선을 방어중이었던 사단에 즉시 공격준비 명령을 하달하였고, 20일 05시에 제7연대와 제19연대는 공격으로 전환하였다. 북한강 남안으로 진출하여 제2연대를 포위하고 있던 중공군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제7 및 제19연대의 기습공격을 받게 되자 이번에는 오히려 자신들이 포위당할 것을 우려하여 서둘러 강 북쪽으로 철수를 개시하였고, 제6사단은 위기상황에 빠진 제2연대와 연결한 후 중공군을 추격하였다.

중공군은 중부전선의 요충인 용문산을 탈취하기 위하여 중공군 제63군이 5일 동안 공세를 펼쳤으나, 국군 제6사단의 용전 분투와 항공 및 포병화력에 의해 치명적인 손실을 입고 21일 새벽 2개 연대규모의 전초부대를 남겨둔 채 주력은 북으로 철수를 개시하였다. 이로써 사단은 사창리 전투의 불명예를 씻고 용문산 전투의 대승이라는 기록을 세워 국군의 위용을 내외에 과시하였다.

제6사단의 용문산 전투는 용문산을 방어하였다는 단순한 전술적 승리보다도, 전략적으로 중부전선에 형성될 수 있었던 적의 돌파를 저지함으로써 전선의 절단을 막아 수도권에 미칠 위험을 배제한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한편 중공군 5월 공세와 유엔군의 방어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4월 22일에 시작된 제5단계 1차 공세(4월 공세)에 이어 5월 16일 중동부전선에 주공을 지향하고 제5단계 2차 공세(5월 공세)를 감행한 공산군은 현리 일대에 종심 약 60㎞에 달하는 대규모의 돌파구를 형성하면서 하진부리-유촌리를 연하는 선까지 진출하기도 하였으나, 5월 20일을 전후하여 주력부대의 공세활동이 현저히 감소되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그리고 중공군은 공세작전을 펼친 5일 동안 국군과 유엔군의 조직적인 지연작전과 강력한 포병 및 항공폭격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이번 공세의 주력부대였던 중공군 제12군이 막대한 손실을 입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공세작전을 더 이상 펼칠 수 없을 정도로 전투력이 약화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지원군사령관 펑더화이는 5월 21일을 기해 공격 중지를 결정하고 모든 예하부대에 신속하게 후퇴하도록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군이 국군 제3군단의 심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공산군의 3원 포위를 통한 국군 섬멸 기도를 저지시키고, 공세로 전환하여 공격을 개시하자 중공군은 퇴로의 차단으로 인한 주력부대의 궤멸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후방으로 퇴각하였다. 그 결과 유엔군은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은 채 순조롭게 반격을 계속하였고, 1950년 6월 초에는 쌍방 간의 접촉선이 전전상태로 회귀(回歸)하였다.

공산군측의 5월 공세와 유엔군측의 방어에 이은 반격으로의 전환은 미 제8군사령부와 중공군 인민지원군사령부가 각자의 군사적 목표달성을 위해 정면으로 충돌한 작전술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중공군이 주력을 은밀하게 서부에서 동부로 전환하는 과정과 이에 대응한 미 제8군사령부의 지휘조치 등은 매우 귀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다. 동시에 중동부전선을 중심으로 주요 전투 및 작전이 전개된 중공군의 5월 공세는 산악지형에서 이루어진 전술적인 차원의 공방전이었지만, 전투의 승패여부가 때로는 작전적 차원에서 전쟁의 국면을 좌우하고, 전쟁 당사자들의 전략적 판단과 국제정치적 흐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전투라고 평가할 수 있다.[21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4 절 분석 및 교훈

1. 작전의 성격과 의의

중공군의 제5차 공세와 유엔군의 방어 및 반격작전의 성격과 의의는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전쟁 개시 이후 최대의 격전이었다는 점이다. 춘계공세 시 중공군은 3개 병단 예하 11개군 총 35개 사단 규모의 대병력을 공세에 투입하였고, 여기에 북한군의 4개 군단이 추가로 공세에 가담함으로써 공산군측의 전체 전력은 15개 군(군단) 예하 47개 사단에 달했다. 공산군측의 공세에 대응한 유엔군측 역시 미 제8군 예하 3개 군단 11개 사·여단에 국군의 3개 군단 예하 10개 사·여단이 가담함으로써 총 6개 군단 예하 총 21개 사단이 작전에 참가하였다. 그 결과 공산군측의 춘계공세와 이에 대응한 유엔군측의 방어에 이은 반격은 6·25전쟁 개시 이후 양측 공히 최대 규모의 전력이 투입되어 공산군측의 대규모 병력을 이용한 인해전술과 유엔군측의 강력한 화력전이 치열하게 전개된 격전으로서 그에 상응한 피해를 초래한 작전이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둘째, 지구전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중공군의 춘계공세와 유엔군측의 방어에 이은 반격은 인해전술을 이용한 공산군측의 제파식 공격을 유엔군측이 화력전을 통해 격퇴한 공방전이었다. 그 결과 양측 공히 심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승기를 쟁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황은 다시 전전상태로 복귀하였다. 이에 따라 공산군측과 유엔군측은 열전에서 벗어나 지리한 진지전을 진행하면서 휴전협상 테이블에서 설전을 벌이게 되었고, 이는 전쟁국면의 중용한 전환점이 되었다. 공산군측은 제5차 공세의 결과를 토대로 6월 중순에 “작전과 평화회담을 통하여 전쟁을 마무리한다”는 새로운 전쟁지도 지침을 채택하였고, 6월 23일 소련이 제시한 휴전협상에 임하게 되었다. 유엔군측도 “한국전쟁의

해결은 유엔기구를 통하여 추구하되 적절한 휴전협정으로 적대행위를 종결하고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38도선까지 미칠 수 있도록 경계선을 38도선 북쪽에 설정하며, 유엔군측이 설정한 당면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침략자에 대하여 응징을 가한다"는 새로운 정책을 확정하였다. 따라서 중공군의 춘계 공세와 유엔군의 재반격은 중공군으로 하여금 더 이상의 대규모 공세를 단념하고 유엔군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게 함으로써 6·25전쟁의 중요한 분기점을 조성한 결정적인 전투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제한전이었다는 점이다. 국군과 유엔군이 중공군의 2월공세를 저지하고 반격으로 전환하여 전전 상태를 회복하였던 1951년 4월 초에 미 행정부 내에서는 대한(對韓)정책을 수정하여, "적절한 휴전 장치하에 전쟁을 종결하고 전쟁전의 상태로 복귀한다"는 새 정책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러한 미 행정부의 방침은 4월 11일 맥아더(Douglas MacArthur) 장군이 유엔군사령관직에서 해임되고 그의 후임으로 리지웨이 대장이 부임함으로써 대통령, 국무 및 국방장관, 그리고 합동참모본부 등 전쟁지도부와 야전군사령부가 전쟁을 제한하려는 정책목표를 일사불란하게 추진하게 되어 더욱 공고해졌다. 한편 공산군측도 양대 공세 공히 공세 초기에는 부분적인 성공을 거두었으나 결과적으로는 특별하게 얻은 것도 없이 오히려 막대한 인명 손실만 입고 참패하게 됨에 따라 "작전과 평화회담을 통하여 전쟁을 마무리한다"는 새로운 전쟁지도 지침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중공군의 춘계공세와 유엔군의 재반격은 작전의 목표를 향후 예상되는 휴전협상에서의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는데 두고, 작전의 범위를 한정한 상태에서 진행된 제한전이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작전술 차원의 분석

중공군의 춘계공세와 유엔군의 재반격은 미 제8군사령부와 중공군 인민지원사령부가 각자의 군사적 목표달성을 위해 맞대결을 벌인 작전술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중공군의 5월 공세 기간중 중공군이 주력을 은밀하게 서부에서 동부로 전환하는 과정과, 이에 대한 미 제8군사령부의 지휘조치 등은 매우 귀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 착안하여 중공군 춘계공세의 핵심인 5월 공세결과를 작전술 차원에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작전목표 면에서의 평가이다. 중공군의 작전목표는 중동부 지역의 국군 4개 사단을 포위 섬멸함으로써 고립된 미군을 섬멸할 수 있는 전기를 조성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중공군은 서부에 배치된 주력을 은밀하게 중·동부 지역으로 재배치했다. 유엔군에게 기도가 노출되지 않토록 하기 위해 주로 야간을 이용한 부대이동과 인력을 이용한 보급품 수송으로 1주일 만에 대규모 병력을 중동부로 이동시켰다. 반면 미 제8군사령부는 중공군의 5월 공세가 임박한 5월 초순부터 항공정찰과 포로의 진술 결과에 의해 “중공군이 중동부 지역으로 병력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첩보를 확인했지만 서울 방어에 대한 부담감, 정보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신뢰 미흡과 함께 동부지형 여건상 대규모 부대의 공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중공군의 공세징후에 대해 적시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미 제8군은 작전적 기습을 허용했고, 이는 국군이 초기 방어에 실패한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둘째, 작전 중심(重心; center of gravity) 면에서의 평가이다. 중공군이 5월 공세에서 선정하였던 작전의 중심은 국군 4개 사단 후방의 퇴로 및 병참선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아군이 점령하고 있는 유리한 지형의 이점을 역이용하여, 부동(浮動)상태에 있는 국군과 유엔군의 취약점을 집중 공격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은 동쪽 방면으로 기동하는 북한군이 국군 제1군단 예하 제11사단과 수도사단에 의해 설악산 일대에서 저지됨으로써, 완전하게 달성되지 못했다. 그결과 국군 3개 사단이 방태산-계방산으로 연결되는 산악통로를 이용하여 방태산의 산길을 넘어 무질서하기는 하였지만 철수를 실시할 수 있었다.

셋째, 결정적 지점(decisive point)면에서의 평가이다. 중공군 5월공세 시 결정적 지점은 국군의 퇴로차단이 가능한 오마치 고개와 국군 제7사단 방어지역이었다. 중공군이 포위망의 목표지역인 오마치 일대로 진출하기 위해 선정한 돌파지역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7사단 방어지역이었다. 중공군 사단에게 부여된 돌파정면은 군단 전체의 공격정면 대비 평균 15% 이하로써 공격이 전 정면에 걸쳐 실시된 것이 아니라 사단 정면의 1~2개 주요 지역에 집중되어 실시되었다. 공격준비 사격 간 돌파 지역에 군단급의 화력이 집중되었고 '공격정면 대비 돌파정면의 비율'은 중공군이 공격정면 전체 중 일부에 집중하여 돌파를 시도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국군은 제파식으로 끝없이 밀려오는 공격부대에 의해 중과부적으로 무너지게 되었다.

넷째, 작전한계점(culminating point) 면에서의 평가이다. 6·25전쟁에 개입한 중공군의 최대약점은 보급문제였다. 5월 공세 시에는 준비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각개병사가 최초 공격 시 휴대한 1일분과 연대 및 대대가 보유한 4~5일분의 보급품이 고갈되면, 그들은 공세를 중지하고 안전지대로 철수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따라서 그들의 작전한계는 작전기간 상으로 5~10일, 작전거리 상으로 50~100km에 불과했던 것이다. 미 제8군 사령관은 중공군의 이러한 취약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작전을 수행했다. 하루만에 28km의 돌파구가 형성되었으나, 가능한 한 적의 공세가 약해지는 중공군의 공격개시 5일 이후 반격을 실시하여 중공군에게 결정적 타격을 주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 전술적 차원의 분석

작전기간 중 중공군과 유엔군의 전술적 특징을 승패요인 면에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공군의 전술적 특징이다. 첫째, 중공군은 작전을 개시하기 전에 강력한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하였다. 중공군은 5월 공세 시 이전의 공세에서는 실시하지 않았던 강력한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하여 유엔군의 허를 찔렀다. 시간은 1시간 가량으로 짧았으나 결정적인 지점에 가용 화력을 집중했기 때문이다. 또 강력한 공격준비사격이 끝남과 동시에 돌파를 실시함으로써 국군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허용치 않았다.

둘째, 공격 시 집요하고 맹렬하게 유엔군측의 방어정면을 돌파한 점이다. 중공군에게 있어 돌파는 모든 공격작전의 중점이었다. 신속한 전투력의 집중으로 작은 틈이라도 벌어지면 파고 들어가 즉각 종심으로 기동하고 후속부대의 종심기동 여건을 보장했다. 이는 장비 면에서 열세이고 보급이 원활치 않은 중공군이 단기간에 가용전투력을 집중해서 적을 초기에 격멸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술이었다.

셋째, 돌파, 종심기동, 후방차단의 다양한 조합이다. 중공군은 제1차 공세에서부터 돌파 후 과감하고 신속한 종심기동을 실시했다. 중공군의 5월 공세시 초기작전의 성공요인은 무엇보다도 종심기동의 속도에 있었다. 중공군의 빠른 종심기동은 최초 방어선을 돌파한 이후, 우회 및 종심기동 부대가 국군의 방어종심을 향해 과감한 종심기동을 실시하여 아군의 후방 요충지를 점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넷째, 전술적 사고의 경직성이다. 중공군은 기계적이고 정형화된 전법을 적용하였다. 유엔군은 중공군과의 몇 차례 대규모 전투를 통해 중공군 전투근무지원의 취약점을 활용하여 반격을 실시하는 등 전술의 변화를 추구하였으나 중공군은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중공군은 자신들이 5월 공세에서 실행한 운동전 전법이 보급이 따르지 못한 상황에서 너무나 후방 깊숙이 침투하여 '복잡한 전투상황'을 만들어 냄으로써 작전실패의 주요한 한 원인이 되었다고 스스로 평가한 바 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다섯째, 취약한 전투근무지원이다. 중공군은 유엔군이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하여 전투근무지원을 위한 수송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중공군 5월공세에서 식량, 탄약과 같은 긴요 물자의 추진보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엔군의 반격 작전 단계에 이르러서는 대부분의 중공군 부대가 '식량이 끊긴 상황' 아래 후퇴를 함으로써 전력을 극도로 약화시켰다.

다음으로 미군의 성공과 패배 요인이다. 첫째, 미군은 중공군의 5월 공세기간중 공산군의 주력 지향 축선에 대해 수차례 오판하였다. 이로 인해 미 제10군단 전방의 2개 국군 사단과 우측의 국군 제3군단 예하 2개 사단은 측후방을 배비할 예비대나 별도의 화력지원 부대도 없이 주보급로가 하나 밖에 없는 곳에서 일종의

배수진을 치고 작전에 임해야만 했다. 미 제8군은 공산군이 서부 축선에 주력을 지향할 것이라고 확신하여 중동부 전선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측후방 공격시 방어에 취약하였다.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3군단이 속수무책으로 철수했던 것은 결과적으로 방어에 취약했기 때문이었다. 측방의 전투지경선에서의 협조된 방어준비, 책임지역 내의 주요 지형지물에 대한 통제대책, 후방의 지휘소 및 보급로에 대한 경계와 대비가 충분히 되어있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군은 중공군이 측후방을 공격하면 크게 동요되는 심리적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셋째, 돌파구 확장 방지를 위한 신속한 지휘 조치였다. 미 제8군사령관의 신속한 지휘 조치의 절정은 중공군 5월 공세의 작전한계점 도달시기를 예측하여 결정적 시기에 반격을 가하도록 한 것이었다. 특히 미 제8군사령관이 지시한 전선 재조정과 미 제3사단의 투입은 이러한 노력의 결정체였다. 그 이전에도 미 제8군은 우선 미 제2사단의 책임지역을 축소함으로써 돌파구가 더 이상 확장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넷째, 효과적인 예비대 운용과 화력지원이다. 미 제2사단이 미 제10군단에 형성된 거대한 돌파구의 좌측 견부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미 제2사단의 치밀한 작전계획 수립 외에도 적절한 예비대 운용과 효과적인 화력협조를 들 수 있다. 이는 중공군 5월 공세 당시 불충분한 장비, 낮은 수준의 교육훈련과 함께 작은 전술적 오판 하나도 만회하기 힘들만큼 다른 통제수단을 거의 보유하지 못했던 국군의 현실과 대비된다.

계속해서 국군의 전술적 측면에서 패인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군과의 협조체제 미흡이다. 중공군 5월공세 초기에 국군은 공산군의 공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했다. 특히 국군 제3군단의 무질서한 퇴각을 초래했던 오마치 고개 일대에 대한 사전 대비가 없었던 것은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3군단 간의 방어 책임지역에 대한 갈등 때문이었다.

둘째, 작전을 위한 준비부족이었다. 국군은 중공군의 공세징후를 감지한 미 제8군으로부터 5월 13일에 방어명령을 하달 받고 2~3일 만에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배 규모에 달하는 중공군의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작전을 위한 사전준비의 부족으로 중공군의 공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방어를 위한 지형숙지, 진지강화 및 장애물 설치, 협조된 방어계획, 전투근무지원 대책 등 거의 모든 것이 충분치 못했다. 국군은 또한 공격에만 치중하여 방어준비를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셋째, 지휘관, 참모의 임무수행 능력 부족 및 조치 미흡이다. 국군은 중공군 5월 공세 시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방어계획 수립 및 준비에 부족을 드러냈다. 국군은 작전실시간에도 경계, 전술적 이동, 방호, 인접부대와의 협조, 철수 등에 대해 제대로 된 지휘 및 참모조치를 하지 못했다.

4. 종합적인 분석 및 평가

1951년 4월 22일부터 6월 중순까지 진행된 중공군의 제5차 공세와 이를 저지하고 반격으로 전환하여 전장 상황을 전전 상태로 회귀시킨 유엔군의 방어에 이은 재 반격은 6·25전쟁이 시작된 이후 쌍방 공히 최대 규모의 전력을 투입하여 격돌한 최대 규모의 격전이었다. 이 작전을 통해 유엔군측은 중공군이 참전한 이후 지속적으로 갖고 있었던 패배의식에서 벗어나 자신감을 회복하고 전장상황을 주도하는 동시에 실지를 회복하여 전쟁이전의 상태로 전선을 회귀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공산군측은 막대한 인명손실을 동반한 두 차례의 대규모 공세에도 불구하고 전장에서의 주도권을 상실한 채 더 이상의 대규모 공세를 계획할 수 없을 정도로 전투력이 약화되어 방어에만 급급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중공군의 제5차 공세를 전술적인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공산군 측이 4월 공세 시에는 횡성 일대에서, 5월 공세 시에는 현리 일대에서 대규모 돌파구를 형성하는 등 부분적인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전략 및 작전적인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공산군 측의 일정지역에서의 대규모 돌파성공이 결과적으로 유엔군 측에 의한 퇴로 차단과 그로 인한 공산군 측의 회복하기 어려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정도의 심대한 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전술적 차원에서의 승리가 작전적 차원의 승리로 반드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교훈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집필 : 김상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주(註)

1) 부대규모는 제5차 공세기간 중 전선에 투입되어 작전에 참가한 중공군 및 북한군 부대를 반영한 수치로서 중공군의 3개병 단(제13병단 예하 2개 군 포함)과 북한군 전선사령부 예하 4개 군단 소속의 사단급 이상 부대임.

2) James F. Schnabel, Robert J. Watson, The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Joint Chiefs Staff: 197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역),『미 합동참모본부사 한국전쟁』(상)(서울 : 삼아, 1990), 365~366쪽.

3) 국방군사연구소,『한국전쟁』(중)(서울 : 신오성, 1996), 458쪽. 이는 전쟁 전의 영토를 회복하고 방어에 유리한 지형을 확보하는 동시에 휴전을 모색하기 위한 방침의 일환이었다.

4) 위의 책, 498쪽.

5) 이 기간 중 중공군이 비축한 군수물자는 식량 18,000톤과 탄약 3~5기수였다.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소 편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中共軍의 韓國戰爭史』(서울 : 세경사, 1991), 135~136쪽.

6) Billy C. Mossman, *United States Army in Korean War : Ebb and Flow, November 1950~July 1951*(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90), p.379.

7)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 연구부 저, 군사편찬연구소(박동구)역,『중국군의 한국전쟁사』2 (서울 : 정문사, 2005), 477쪽, 481쪽.

8) 국방군사연구소,『한국전쟁』(중)(서울 : 신오성, 1996), 501쪽.

9) 위의 책, 496~503쪽.

10) 군사편찬연구소(역),『중국군의 한국전쟁사』2, 458쪽, 464쪽.

11) 위의 책, 471쪽.

12) 위의 책, 466~468쪽 ; 육본정보참모부,『북괴 6·25남침분석』(서울 : 보진재, 1970), 305쪽.

13) 군사편찬연구소(역),『중국군의 한국전쟁사』2, 470쪽.

14) 군사편찬연구소(역),『중국군의 한국전쟁사』2, 469쪽 ; 사회과학원력사연구소,『조국해방전사』2 (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350쪽.

15) 군사편찬연구소(역),『중국군의 한국전쟁사』2, 469쪽.

16) 위의 책, 471~472쪽 ; 소련군 총참모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역), 『소련군 총참모부 전투일지 : 1950년 6월 25일~1951년 12월 31일』(미발간), 292쪽.

17) 육본정보참모부,『북괴 6·25남침분석』, 305쪽.

18) 군사편찬연구소(역),『중국군의 한국전쟁사』2, 472~473쪽; 러시아 국방부(편), 김종국(역),『러시아가 본 한국전쟁』(대전 : 오비기획, 2002), 117~118쪽.

19) 김일성과 펑더화이는 양국군 간의 통일된 지휘체계의 미비로 야기되는 혼란을 인식하고 작전의 통합과 지휘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1950년 12월 초 양국 장교들로 구성된 '조·중연합사령부'를 설치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 중공군 참전과 유엔군의 철수』7 (서울 : 서울신문사, 2010), 401쪽.

20) 군사편찬연구소(역),『중국군의 한국전쟁사』2, 472~473쪽.

21) 위의 책, 473쪽, 572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2) 러시아 국방부 편, 김종국 역, 『러시아가 본 한국전쟁』, 118쪽.

23) 군사편찬연구소(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569~571쪽.

24) 군사편찬연구소(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572쪽.

25) 군사편찬연구소(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572쪽 ; GHQ, FEC,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General Staff, Theater Intelligence Division, *Order of Battle Branch, Order of Battle Information North Korean Army, General History of NKA*(1951. 8. 15) ; 김중생,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서울: 명지출판사, 2000), 175~177, 185~191쪽.

26) Mossman, *Ebb and Flow November 1950~July 1951*, Center of Military History U. S. Army (Washington D.C. : USGPO, 1990), p.374.

27) HQS, United States Forces, Korea, *The US Military Experiences in Korea, 1871~1982 : In the Vanguard of ROK-US Relations,* CHO, SJS, HQS (USFK/EUSA : USGPO, 1983), p.83.

28) 리지웨이 사령관의 부임 당시 계급은 육군 중장이었으나, 1951년 5월 11일부로 육군 대장으로 진급하였다.

29) GHQ, United Nations Command, 「*G-3 Operations Report, from 0001 to 2400, 22 April, 1951*」, pp.1~2.

30) GHQ, United Nations Command, 「*G-3 Operations Report, from 0001 to 2400, 22 April, 1951*」, p.2.

31) GHQ, United Nations Command, 「*G-3 Operations Report, from 0001 to 2400, 22 April, 1951*」, pp.2~3.

32) GHQ, United Nations Command, 「*G-3 Operations Report, from 0001 to 2400, 22 April, 1951*」, p.3.

33) GHQ, United Nations Command, 「*G-3 Operations Report, from 0001 to 2400, 22 April, 1951*」, p.3.

34) 당시 미 제1군단의 좌전방 부대는 서쪽에서부터 한국 해병 제5독립대대(국군 제1사단에 배속)가 김포반도에, 국군 제1사단이 임진강 남쪽의 오금리(吾今里)-마지리(馬智里)에, 영국군 제29여단(미 제3사단에 배속)이 마지리-도감포(都監浦)에, 미 제3사단이 도감포-군자산(君子山)에 각각 배치되어 있었다.

35)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중), 501~503쪽.

36) 군사편찬연구소(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469쪽.

37) 위의 책, 476~477쪽.

38) 위의 책, 472쪽.

39) Mossman, 백선진 옮김, 『밀물과 썰물』(서울 : 대륙연구소 출판부, 1995) 479쪽.

40) 4월 22일은 영국군이 신성 하게 여기는 '성 조지의 날(St. George's Day)' 전야로서 영국군은 주진지의 일부 부대들까지도 전통적인 관례에 따라 칠면조 만찬과 모자에 달 장미를 준비하는 등 행사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C. N. Barclay, *The First Commonwealth Division*(Great Britain : Gale and Polden, 1954), p.61.

41)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중), 512쪽.

42) 위의 책, 504쪽.

43) Mossman, *Ebb and Flow November 1950~July 1951,* 육군본부 (역), 『밀물과 썰물』(서울 : 육군본부, 1992), 481쪽.
4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임진강 전투』, 64~65쪽.
45) 필리핀 대대는 이날 20시경에 영국군 제29여단의 예비로 신산리(莘山里) 부근에 집결하였다.
4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임진강 전투』(서울 : 국방부, 1991), 67쪽.
4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10권(서울 : 서울신문사, 1979), 205쪽.
4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임진강 전투』, 71쪽.
49) Mossman, *Ibid.*, p.412.
50) *Ibid.*, p.414.
51) Mossman, *Ibid.*, p.419.
52) *Ibid.*, p.424 ;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11권(서울: 서울신문사, 1980), 457쪽.
53) Mossman, *Ibid.*, pp.426~427.
5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임진강 전투』, 101쪽.
55) 위의 책, 103~105쪽.
56) Mossman, *Ibid.*, p.397.
5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6권(서울 : 서울신문사, 1973), 58쪽.
58) 위의 책, 60쪽.
59) 국군 제1사단,『전진약사』, 221쪽.
60) Mossman, *Ibid.*, p.427.
6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6권, 61쪽.
62) 미타사 : 파평산 정상부근에 위치한 절로서 이 전투에서 소실되었다.
63) 국방군사연구소,『한국전쟁』(중), 511쪽.
6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11권, 356쪽.
65) 위의 책, 110쪽.
66) Mossman, *Ibid.*, p.389.
67) *Ibid.*, p.420.
68) Mossman, *Ibid.*, p.382.
69) 합동참모본부,『한국전사』(서울 : 합참, 1984), 524쪽.
70) Mossman, *Ibid.*, p.383.
71) 아질대대는 1st Bn The Argyll and Sutherland Highlanders의 약칭.
7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 제11권, 436쪽.
73) 캐나다 대대는 2nd Bn Princess Patricia's Canada Light Infantry의 약칭.
74) 호주 대대는 3rd Bn Royal Australian Regiment의 약칭.
75) 제16포병연대는 16th Field Regiment Royal New Zealand Artillery의 약칭.
76) 미들섹스 대대는 1st Bn The Middlesex Regiment의 약칭.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77) Mossman, *Ibid.*, p.405.
7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1권, 439쪽.
79) Mossman, *Ibid.*, p.374.
8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6권, 31쪽.
81) 육군본부 (역), 『밀물과 썰물』, 427쪽.
82) 국군 제5사단, 『부대 역사』(보병 제5사단사령부, 1969), 182쪽.
83) 국군 제3사단, 『백골사단 역사』(보병 제3사단사령부 : 1980), 332쪽.
84) Mossman, *Ibid.*, p.431.
85) 육군본부(역), 앞의 책, 473쪽.
86) 육군본부(역), 위의 책, 476~477쪽.
8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임진강 전투』, 184쪽.
88) Mossman, *Ibid.*, p.435.
89) *Ibid.*, p.436.
90)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OCMH, Department of Army, 1972), p.387.
91) 육군본부(역), 앞의 책, 482쪽.
92) Mossman, *Ibid.*, p.439.
9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현리 전투』(서울 : 국방부, 1988), 39쪽.
94) 위의 책, 48쪽.
9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6권, 78쪽.
96) 국군 제11사단, 『화랑약사』(보병 제11사단사령부, 1975), 95쪽.
97)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중), 548쪽.
98) Mossman, *Ibid.*, p.440.
99) 徐焰·吳少京, 『抗美援朝戰爭 畵卷』(北京: 中央文獻出版社, 2000), 53~60쪽.
100) 황재찬 외, 『한국전쟁의 작전술적 분석 : 중공군 5대공세 중심』, 육군교육사령부 연구과제(서울 : 육군, 1992), 248~250쪽.
101) 군사편찬연구소(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502쪽.
102) 오소경 저, 육군본부 역, 『중공군의 한국전쟁 교훈』(충남 : 육군인쇄창, 2005), 70쪽.
103)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국해방전사』 2, 351쪽.
104) 황재찬 외, 『한국전쟁의 작전술적 분석 : 중공군 5대공세중심』, 217쪽.
105) 군사편찬연구소(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503~504쪽.
106) 육군본부, 『중공군 공세의지를 꺾은 현리-한계 전투』, (대전 :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2009), 22쪽 ; 군사편찬연구소(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503~504쪽.
107) 펑더화이는 이 작전의 구현을 위한 선행조건을 "① 중공군 제19병단은 양공작전으로 서부전선의 미군 주력을 견제한다. ② 현리지역의 국군을 섬멸하기 위해서는 다중포위가 적시에 예정된 장소에서 성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군이 배치된 양측으로 신속히 우회하여 다중으로 후방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차단함으로써 다중포위를 성공시켜야 한다. ③ 각 군의 종심기동임무를 담당한 부대는 적시에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군사편찬연구소(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504~505쪽.

108) 위의 책, 503~508쪽 ;『중공군 공세의지를 꺾은 현리-한계 전투』, 24~25쪽.

109) 군사편찬연구소(역),『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572쪽.

110) 군사편찬연구소(역),『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572쪽 ; GHQ, FEC,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General Staff, Theater Intelligence Division, *Order of Battle Branch*, *Order of Battle Information North Korean Army, General History of NKA*(1951. 8. 15) ; 김중생,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 175~177, 185~191쪽.

111) 국방군사연구소,『한국전쟁사』(중), 548쪽 : HQS, EUSAK, *Command Report*, Section I : Narrative, RSC CSHIS-5(RI), May 1951, p.6.

112) HQS, EUSAK, *Command Report*, Section I : Narrative, RSC CSHIS-5(RI), May 1951, p.7.

113) X Corps G-2 Section, *Enemy-Tactics: Battle of Soyang River*, Bulletin NO.8(1951, 6), p.2.

114) Thomas S. Grodecki, *From Powder River to Soyang: The 300th Armored Field Artillery in Korea*(Washington, D.C. : Center of Military History, 1989), p.60.

115) HQS, X Corps, *Command Report*, Reports Control Symbol CSHIS-5(RI) May 1951, p.7.

116) Headquaters X Corps, *Battle of The Soyang-River*(Special Report)(1951.1), p.3.

117) Headquarters X Corps, *Command Report*, Reports Control Symbol CSHIS-5(RI)(1951.5), p.2.

118) GHQ, United Nations Command,『*G-3 Operations Report, from 0001k to 2400k, 16 May 1951*』, pp.1~2.

119) GHQ, United Nations Command,『*G-3 Operations Report, from 0001k to 2400k, 16 May 1951*』, p.2.

120) GHQ, United Nations Command,『*G-3 Operations Report, from 0001k to 2400k, 16 May 1951*』, pp.2~3.

121) GHQ, United Nations Command,『*G-3 Operations Report, from 0001k to 2400k, 16 May 1951*』, pp.3~4.

122) 중공군의 5월 공세가 단행될 무렵인 1951년 5월 16일 현재, 필리핀 제10전투대대를 예속한 미 제3사단 예하의 제65보병연대는 미 제1군단의 작전통제 하에 있었다. 중공군의 5월 공세 내용과 상황도는 육군본부,『중공군 공세의지를 꺾은 현리-한계 전투』, 2009를 참조 정리.

123) GHQ, United Nations Command,『*G-3 Operations Report, from 0001k to 2400k, 16 May 1951*』, pp.3~4.

124) Eighth United States Army Korea Headquarters, *Command Report*, p.9.

125) 국군 제7사단,『부대사』(육군인쇄창, 1999), 153쪽.

126) 국군 제9사단,『부대사』(육군인쇄창, 1982), 115쪽.

127) Eighth United States Army Korea Headquarters, *Command Report*, p.18.

128) Headquaters X Corps, Battle of *The Soyang-River*, p.6.

129) 국군 제7사단,『부대사』, 153쪽.

130) Headquaters X Corps, *Battle of The Soyang-River*, p.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31) *Ibid.*, p.7.
132) 中國人民支援軍第二十七軍編,『中國人民支援軍: 第二十七軍戰史』, p.37.
133) 제7사단,『부대사』, 154쪽.
134) 中國人民支援軍第二十軍編,『中國人民支援軍: 第二十軍戰史』, p.37.
135) Eighth United States Army Korea Headquarters, *Command Report*, p.16.
136) 中國人民志願軍抗美願朝戰爭經驗總結編寫委員會,『抗美願朝戰爭經驗的總結 : 三(下), 兵團, 營, 連, 排戰例選輯』(內部文件 草稿, 1956), p.143.
137) 오마치 고개는 홍천과 속사리를 거쳐 현리-인제로 이어지는 유일한 주보급로의 '목'이었으며, 1,000m가 넘는 수림이 울창한 고지군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138) 中國人民志願軍抗美願朝戰爭經驗總結編寫委員會,『抗美願朝戰爭經驗的總結: 四, 對敵軍研究』, pp.147~148.
139) 군사편찬연구소(역),『중국군의 한국전쟁사』2, 513쪽.
140) 中國人民支援軍第二十七軍編,『中國人民支援軍: 第二十七軍戰史』, p.38.
141) 군사편찬연구소(역),『중국군의 한국전쟁사』2, 513쪽.
142) Eighth United States Army Korea Headquarters, *Command Report*, p.17.
143) 제7사단,『부대사』, 154쪽.
144) 中國人民支援軍第二十軍編,『中國人民支援軍: 第二十軍戰史』, p.36 ; X Corps G-2 Section, *Enemy-Tactics : Battle of Soyang River*, Bulletin NO.8(1951. 6), p.7
145) 군사편찬연구소(역),『중국군의 한국전쟁사』2, 514쪽.
146) 위의 책.
147) Hqs X Corps, *Battle of The Soyang-River*, p.8.
148) 제7사단,『부대사』, 155쪽.
149) 위의 책.
150) 위의 책, 155쪽.
15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현리전투 : 중공군 5월 공세』, 88~89쪽.
152) 위의 책, 91쪽.
153) 위의 책, 92쪽.
154) 위의 책, 94쪽.
155) Eighth United States Army Korea Headquarters, *Command Report*, p.107.
156) 中國人民支援軍第二十七軍編,『中國人民支援軍: 第二十七軍戰史』, p.37.
157) 위와 같음.
15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현리전투 : 중공군 5월 공세』, 96~97쪽.
159) 제5사단,『부대역사』(육군인쇄공창, 1979), 237쪽.
160) 中國人民支援軍第十二軍編,『中國人民支援軍: 第十二軍戰史』, p.11, p.13.
161)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현리전투: 중공군 5월 공세』, 100~101쪽.
162) 中國人民支援軍第十二軍編,『中國人民支援軍: 第十二軍戰史』, p.13 ; 제5사단, 『부대역사』, 237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63) 제5사단, 『부대역사』, 238쪽.
164) 위의 책, 245쪽.
165)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현리전투: 중공군 5월 공세』, 103쪽.
166) 제9사단, 『부대사』, 115쪽.
167) 위의 책.
168) 위의 책, 116쪽.
16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현리전투 : 중공군 5월 공세』, 128쪽.
170) Headquaters X Corps, *Battle of The Soyang-River*, p.8.
171) 군사편찬연구소(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515쪽.
172) 제3사단, 『백골사단역사』, 337쪽.
173) 위의 책, 339쪽.
174) 위의 책, 340쪽.
175) 군사편찬연구소(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515쪽.
176) 제3사단, 『백골사단역사』, 340쪽.
177) 제9사단, 『부대사』, 119쪽.
178) 위와 같음.
179) 위의 책, 120쪽.
180) 군사편찬연구소(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514쪽.
181)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현리전투 : 중공군 5월 공세』, 168쪽.
182) 위의 책, 169쪽.
183) 제3사단, 『백골사단역사』, 342쪽.
184) Eighth United States Army Korea Headquarters, *Command Report*, p.102.
185) *Ibid.*, p.103.
186) 제9사단, 『부대사』, 123쪽 ; 제3사단, 『백골사단역사』, 342쪽.
187) 제3사단, 『백골사단역사』, 343쪽 ; Eighth United States Army Korea Headquarters, *Command Report*, p.22.
188) Headquarters X Corps, *Command Report*, *Reports Control Symbol*, ANNEX.
189) Eighth United States Army Korea Headquarters, *Command Report*, p.22.
190) 中國人民支援軍第十二軍編, 『中國人民支援軍: 第十二軍戰史』, p.13.
191) 위와 같음.
192) 위의 책, p.14.
193) 위의 책, p.15.
194) Eighth United States Army Korea Headquarters, *Command Report*, p.98.
195) 中國人民支援軍第十二軍編, 『中國人民支援軍: 第十二軍戰史』, p.13.
196) Eighth United States Army Korea Headquarters, *Command Report*, p.9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7) Ibid., p.94.
198) 中國人民支援軍第十二軍編,『中國人民支援軍: 第十二軍戰史』, p.15.
199) 위의 책, p.15 ; Thomas S. Grodecki, *From Powder River to Soyang*, p.64.
200) 中國人民志願軍抗美願朝戰爭經驗總結編寫委員會,『抗美願朝戰爭經驗的總結 : 二, 戰術經驗總結』, p.134.
201) 위의 책, p.135.
202) Eighth United States Army Korea Headquarters, *Command Report*, p.99.
203) *Ibid*., p.99.
204) *Ibid*., 778고지를 당시 '백만 달러 고지'라고 불렀다.
205) *Ibid*., pp.180~181.
206) 군사편찬연구소(역),『중국군의 한국전쟁사』2, 518쪽.
207) VT신관이 장착된 500t 폭탄으로 공중폭격을 실시하였다.
208) Headquarters X Corps, *Command Report*, *Reports Control Symbol*, pp.12~13.
209) *Eighth United States Army Korea Headquarters, Command Report*, p.106.
210) *Ibid*., p.106.
211) Headquaters X Corps, *Battle of The Soyang-River*, p.8.
212) 육군본부(역),『중공군의 한국전쟁 교훈』, 육군, 2005, 71쪽 ; Headquarters 3D Infantry Division, *Command Report*, p.2.
213) 中國人民支援軍第二十七軍編,『中國人民支援軍: 第二十七軍戰史』, p.42.
214) *Ibid*., p.97.
215) 군사편찬연구소(역),『중국군의 한국전쟁사』2, 518쪽.
216) Eighth United States Army Korea Headquarters, *Command Report*, pp.108~109.
217) Eighth United States Army Korea Headquarters, *Command Report*, pp.22~23.
218) 최용호, "한국전쟁의 작전술 사례 연구",『군사평론』제352호 부록(대전 : 육군본부, 1999), 98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7 장 해군작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1 절	작전 개요
제 2 절	북한해군과 유엔해군 상황
제 3 절	유엔 및 한국 해군작전
제 4 절	분석 및 교훈

제 1 절 작전 개요

1. 지상군 전선개황

중공군과 북한군의 신정공세(제3차 공세)는 1951년 12월 31일 시작되어 유엔군은 후퇴하였고, 중공군이 1월 4일 서울을 점령함으로써 서울은 전쟁발발 6개월 만에 세 번째 주인을 맞게 되었다.

유엔군과 공산군이 남한의 중북부 지역인 원주에서 공방전을 벌이다가 결국 1월 중반, 지상군 전선은 서쪽으로는 평택에서 동쪽으로는 삼척 선을 형성하였다. 미 제8군의 반격작전인 썬더볼트(Thunderbolt) 작전은 1월 25일부터 2월 9일까지 진행되어 수원-원주-삼척 선으로 진격해 나갔다.

유엔군은 공산군의 새로운 공세 준비를 좌절시키기 위한 라운드업(Roundup) 작전을 2월 5일 개시하였고, 미 제10군단이 중부지역의 횡성으로 진격하였다. 유엔군은 2월 10일에는 인천항과 김포비행장을 점령하였으며, 동해안에서는 국군이 38도선을 돌파하여 양양을 점령하였다. 미 제8군은 2월 21일 대규모의 공산군을 격멸하기 위하여 킬러(Killer) 작전을 개시하였고, 유엔군은 2월 28일 한강 이남에서 공산군을 완전히 격멸하였다.

유엔군은 3월 7일 서울 동부 한강을 도하하여 공산군의 반격준비를 분쇄하기 위해 리퍼(Ripper) 작전을 개시하였다. 유엔군이 3월 15일 서울로 입성하였으며, 서울은 전쟁이 시작된 이후 네 번째로 주인이 바뀌었다.

트루먼 대통령은 4월 11일 6·25전쟁에 대한 행정부의 전쟁방침과 외교정책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맥아더 장군을 전격적으로 유엔군사령관과 극동군총사령관에서 해임하고, 후임으로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장군을 임명하였다. 4월 14일에는 밴플리트(James A. Van Fleet) 중장이 리지웨이 장군 후임으로 미 제8군 사령관에 임명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공군과 북한군의 4월 공세는 4월 22일 시작되어 서울 북부 인근까지 남하하였고, 또한 5월 16일에는 동부지역에서 국군에 대해 5월 공세를 시작하였으나 아군의 강력한 반격으로 이를 좌절시켰으며, 5월 말에 유엔군은 주도권을 획득하였다.

유엔군은 6월 초순 공산군의 춘계공세(4, 5월 공세)로 잃었던 지역을 재점령하고 '철의 삼각지대'인 평강-철원-김화로 진입했다. 전선에서 공산군의 세력이 약화되자 6월 23일 말리크(Jacob Malik) 유엔 소련대사가 38도선을 따라 양측의 군사력을 분리하는 유엔군과 공산군의 대표 간 정전협상을 요청했고, 7월 10일 개성에서 임시로 설치된 판문점에서 휴전회담이 개최되었다.

2. 북한해군 및 유엔해군 작전개요

북한해군은 전쟁초기 보유했던 전투함정은 거의 무력화되어 작전 중점은 남한 후방지역에 대한 게릴라 침투를 위한 상륙기습 침투작전에서 유엔해군의 상륙작전을 방어하기 위한 해안방어작전으로 전환되어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작전개념의 전환으로 북한해군은 해군부대를 재편하여 상륙기습임무를 담당하였던 육전대(해병대)의 일부를 육군으로 전환시켰다. 대상륙방어작전의 일환으로 소련으로부터 다수의 기뢰를 도입하여 장병들에게 기뢰부설 교육훈련을 실시하였고, 선박들은 기뢰부설이 가능토록 개조하여 원산항 및 진남포항 등 주요항구에 방어용 기뢰를 부설하였다.

또한 유엔 해군이 북한지역 동·서해안의 전략도서를 확보하여 해상봉쇄작전 및 종심 지역에 대한 전력을 투사함에 따라 북한해군은 이를 교란시키기 위하여 먼저, 해안포병 부대를 재편하였고, 해안포대 장비를 보충하여 유엔함정에 대한 해안포 사격을 실시하였다.

한편, 유엔해군은 이 기간 동안 해상철수작전, 함포지원 및 근접항공지원작전, 해상봉쇄작전, 상륙기만작전, 동·서해안 전략도서 확보작전, 교량폭파 및 화천댐 폭파작전 등을 실시하였는데 개략적인 작전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유엔해군은 지상군의 안전한 해상철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송함, 상륙함 및 MSTS(해상수송부대) 등을 동원하여, 1950년 12월 7일부터 31일까지 인천에서 부산으로 수송된 인원은 32,428명, 차량 1,103대 그리고 화물은 54,741톤에 이르렀다. 또한 중공군이 인천으로 진입하자 1951년 1월 1일부터 1월 5일까지 병력 37,000명, 피난민 64,200명과 수백 대의 차량 그리고 수천 톤의 화물이 추가로 철수되었다.

중공군의 남진(南進)을 제한 또한 지연시키기 위하여 함포지원 및 함재기를 이용한 근접항공지원(CAS)작전으로 중공군 병력에 대한 직접 공격 및 철도, 도로 등 보급로 파괴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한반도 주요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작전을 실시하여 공산군이 병력 및 보급물자 수송을 위하여 북한지역의 항구를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유엔해군의 해상활동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월등한 해상통제권을 확보하고 있는 유엔해군은 지속적으로 북한 해안에 대하여 상륙기만작전을 실시하였다. 공산군은 인천상륙작전에서 쓰라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군의 상륙위협에 대비하여 병력을 분산하여 배치할 수밖에 없었다. 1951년 1월 30일부터 31일까지는 동해 간성해안, 2월 10일에는 인천지역에 실시하였고, 특히 4월 7일에는 청진 남방에 기습상륙하여 주요 철로를 폭파하기도 하였다.

해군은 공세적인 작전을 전개하여 유리한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서해안 전략도서 확보작전을 실시하였다. 초도, 백령도, 덕적도, 군산 인근 도서 및 원산항 내 도서들이 대상이었다. 특히 북한을 재점령하기 위한 전초기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산항 인근 도서들을 점령하였다.

북한군의 보급망과 군수체계를 와해시키기 위하여 교량폭파작전을 실시하였다. 원산과 청진 사이의 북동해안을 따라 있는 철도는 공산군의 보급품과 병력과 장비를 전선으로 수송하는 주요 교통로로 사용되고 있었다. 만일 이 철도망이 파괴된다면 북한군의 군수지원능력은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제77기동부대 항공모함 항공기들은 중점적으로 철도, 교량, 도로 등에 대한 항공차단작전을 실시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특히, 교통의 요충지인 함경북도 길주 근방 도곡리의 교량폭파는 항공차단작전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왜냐하면 이 표적은 만주에서 오는 철도 3개가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한 교량으로 길주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이 교량이 차단된다면 만주에서 북한 동부로 유입되는 보급물자를 차단할 수 있었다. 그래서 1951년 3월 내내 항공폭격을 실시하여 도곡리 철교를 폭파시킴으로써 철도망을 두절시켰다.

북한군의 수공(水攻)작전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화천댐 폭파작전을 실시하였다. 북한군은 1951년 4월 초순 화천댐의 수문을 닫고 수심을 낮게 만들어 유엔군이 진격할 때 수문을 열어 아군의 활동을 제한하려고 하였다. 1951년 5월 1일, 어뢰를 이용하여 화천댐 중간의 수문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다른 수문에도 파공을 입히는 성과를 거두었다. 6·25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항공기에서 투하된 어뢰를 사용한 작전이 되었다.

또한 한국해군은 유엔해군에 배속되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지만, 한국해군 세력으로만 수행된 단독작전도 있었다. 이는 황해도 피난민 철수작전, 제2차 인천상륙작전, 전략도서 확보작전, 소해작전 등이었는데 개략적인 작전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중공군의 침공으로 아군이 38도선 이남으로 후퇴하게 되자, 황해도에도 북한의 수많은 주민이 피난길에 올랐는데 이에 대한 구출작전이 황해도 피난민 구출작전이다. 황해도 피난민 철수작전의 특징은 동해안에서 이루어진 흥남철수작전과는 달리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지역에서 한국해군이 주도한 작전이란 것이다. 1951년 1월 5일부터 31일까지 우리 해군함정에 의하여 구출된 피난민은 62,082명에 달하였다.

제2차 인천상륙작전은 1951년 2월 1일 실시되었다. PC-701함(노명호 소령)과 덕적도 주둔부대(김종기 소령)는 함정에서 지원자 70명을 선발하여 제2차 인천상륙작전을 실시하였는데, 유엔함정과 PC-701함, JMS-301, 302 및 306정이 함포지원을 실시하였다. 2월 11일, 덕적도 주둔 해병대 병력이 추가로 도착하여 인천시내의 잔적을 소탕하고 인천시를 장악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공산군은 해군세력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하여 주요 항구에 대하여 기뢰를 부설하였고, 우리 해군은 1950년 10월 23일 제1소해정대를 창설하여 적극적인 소해작전을 실시하였다. 동해안에서는 1951년 1월 4일부터 38도선인 양양부터 영일만까지 부설된 기뢰를 제거하였고, 특히 전략도서 확보작전의 일환으로 영흥만 일대를 소해할 때는 유엔해군과 대대적인 연합작전을 실시하여 기뢰 49개를 식별하여 폭발시켰다. 또한 서해안에서는 3월부터 백아도, 해주만, 진남포 및 장산곶 해역까지 소해작전을 실시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2 절 북한해군과 유엔해군 상황

1. 북한해군 상황

1) 일반상황

북한해군은 전쟁 초기 보유했던 함정들이 대부분 무력화되어 전투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상대적으로 유엔해군의 함정세력의 전투력이 월등하여 해상통제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해군은 북한지역 해안방어에 작전중점을 두고 있었다.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한 쓰라린 참패와 원산상륙작전에서의 유엔해군의 상륙작전 능력을 고려할 때, 북한해군은 유엔군의 추가 상륙작전에 대한 거부작전을 수행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소련에서 도입된 기뢰를 소형선박에 탑재하여 동·서해안 주요 항구 입구에 부설하여 유엔해군의 해상봉쇄작전을 교란시키는 임무에 중점을 두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또한 북한 해안에 근접하여 작전하는 유엔해군 함정의 임무를 제한하기 위하여 해안포병부대를 재편하여, 아군의 함정 및 전략도서를 확보한 병력에 대한 해안포 사격을 실시하였다.

2) 부대 재편 및 편성

(1) 부대 재편

북한해군은 북한군(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해군 정원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다. 새로운 편제를 구성하는 데 있어 북한해군은 해군 전투장비의 실제 수량 및 단기간 내에 무기(해안포대용) 입수 가능성, 해군조직 및 주요 간부의 유지 필요성, 관측임무와 조직, 기뢰부설 작업 실시, 향후 간부훈련 등과 같이 해군의 제한된 임무 등을 고려하였다.

북한군(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0127호(1951년 2월 18일)에 의거하여, 해군은 1951년 3월 15일 육전대(해병대)를 육군에 이전하였고, 새로운 정원에 따라 해군을 보충하였다. 편제 이외의 인원, 즉 장교 431명, 하사관과 병사 128명이 육군으로 전환되었다.

새로 확정된 편제에 따라 해군 편제에서 청진 해군기지, 해군 조선지휘부, 수병학교, 해군병원, 해군 해안방어/육전여단 지휘부, 고사포 연대, 해군 건설대대는 제외되었다.

육전대 6개 여단 중에서 육전대 2개 대대, 원산 해군 총기지 예하 육전대 1개 대대, 남포 해군기지 예하 육전대 제2대대는 해군에 남게 되었으며, 해안포병 2개 연대는 107mm 포 독립포병 3개 대대와 76mm 포 독립포병 5개 대대로 재편되었다.

기존 해군조직과 비교하여 변경된 편제는 70% 정도로 축소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⑵ 부대 편성

북한해군의 참모부는 정치부, 후방부, 통신부, 운항부, 간부부, 재정부, 의료위생부, 공병부, 정치보위부, 검찰소, 재판소로 구성되었으며, 해군기지는 원산 해군총기지, 남포 해군기지, 해안방어부대, 해군학교, 해군함정으로 조직되었다.

또한 참모부와 해군기관 충원 실태는 1951년 4월 1일 현재, 장교 100%, 하사관 93%, 병사 93.9%, 군사학교 학생 74.5%이었다.

북한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함정은 신의주에 초계함(240톤) 2척, 진남포 해군기지에 스쿠너[1](30톤) 2척, 기뢰부설용 보트(20톤) 4척, 원산 해군기지에 스쿠너 6척, 기뢰부설용 보트 2척이 있었다. 또한 청진항에 스쿠너(35톤) 2척, 기뢰부설용 보트 2척, 나진항에 스쿠너(50톤) 1척, 웅기항에 스쿠너(50~80톤) 5척이었다.

새로운 편제에 따라 해군 총 병력은 7,213명[2]이었으나, 당시 보충된 병력은 장교

1,006명, 하사관 1,828명, 병사 2,593명, 군사학교 학생 1,117명으로 총 6,544명이었다.

라주바예프가 새로운 북한 해군의 조직과 구성에 따라 분석한 내용을 보면, 1951년 4월 당시 북한 해군의 작전중점을 파악할 수 있다. 즉, 북한 해군의 작전중점이 북한지역의 해안방어작전으로 변경됨에 따라 유엔군에 대한 대상륙방어작전과 해상봉쇄작전의 교란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래서 유엔해군을 감시할 수 있는 해안 관측업무, 유엔 함정의 기동을 방해할 수 있는 주요 항만입구에 대한 기뢰부설과 이를 운용할 수 있는 해안방어 간부의 육성에 중점을 두었다.

북한해군은 그동안 소련 무기의 도입으로 운용방법을 습득하여, 기뢰부설이 가능한 소형 선박, 보트 등에 무기와 장비를 설치하였다. 또한 북한 주요항만을 방어하기 위하여 성진, 청진, 원산항 입구에 방어용 AMD-1000형 기뢰 600개를 부설하였다. 서해에서도 진남포항 입구에 AMD-1000형 기뢰 25개를 부설하였다.[3)]

2. 유엔해군 상황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 일반상황

중공군의 개입으로 유엔해군의 임무는 지상군이 북진할 때 동·서해안에서 함포지원 및 항공기 공격 등을 통한 측방지원 임무에서 지상군의 안전한 해상철수와 남진하는 중공군에 대한 직접 공격 및 철도, 도로 등 보급로 파괴 등의 임무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유엔해군은 함포지원사격 및 항공기의 근접항공지원사격으로 중공군의 남진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동시에 극동함대에 소속되어 있는 수송선박을 동원하여 서해안에 집결한 유엔군의 병력과 물자를 수송하였다.

또한 한반도 주요 해역에 대한 해상봉쇄작전을 실시하여 공산군이 병력 및 물자 수송을 위한 항구사용을 저지하고, 아군의 해상활동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해안에 근접하여 함포사격을 실시하고, 함재기를 통한 근접항공지원으로 지상군을 측면에서 지원하였고, 북한지역 해안의 전략도서를 확보하여 측면을 위협함으로써 공산군의 병력과 장비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공산군에 대한 물자수송이 만주로부터 철도 및 도로를 이용하여 북한지역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항공모함 함재기들은 북한군의 군수체계를 와해시키기 위해 보급망에 대한 항공공격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화천댐을 수공작전으로 이용하려는 공산군의 의도를 분쇄하기 위하여 함재기에서 어뢰를 투하하여 폭파시키는 작전을 동시에 수행하기도 하였다.

2) 부대편성 및 지휘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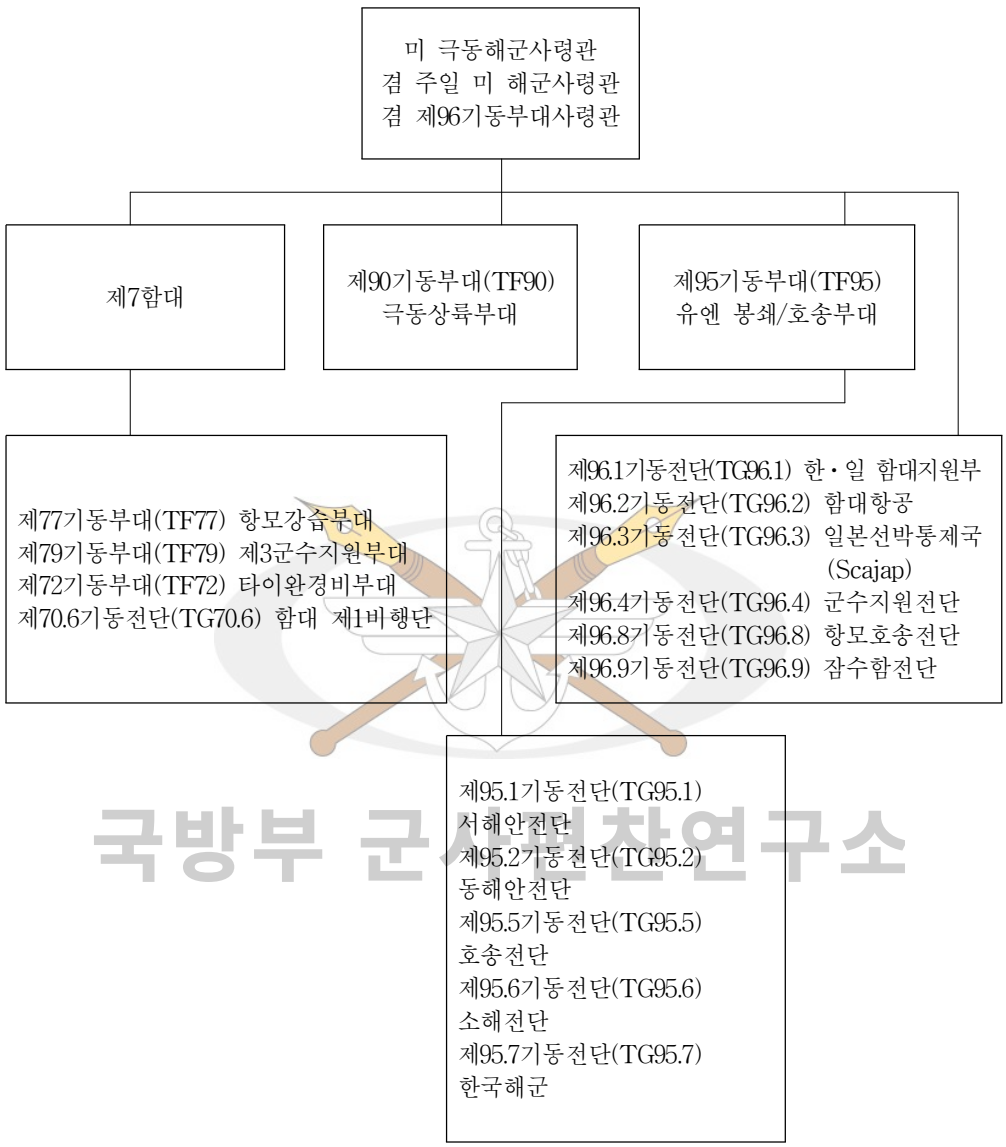
미 극동해군은 미국으로부터 증원전력이 도착함에 따라 전쟁초기부터 1950년 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기동조직을 재편성하였다. 1950년 9월 12일에 세 번째 재편성의 일환으로 제96.5기동전대를 제95기동부대로 승격시켜 기동조직을 재편하였다. 이로써 중공군 개입 시부터 흥남철수작전 기간 동안 제95기동부대가 활발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한국 해군은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이양하기 이전인 1950년 7월 10일 제96. 7기동전단(TG 96. 7)으로 편성되어 미 극동해군의 작전지휘를 받았다. 그리고 9월 12일 기동조직이 재편성될 때 제95.7기동전단(TG 95. 7)으로 편성되어 운용되었다.[4)]

1950년 12월부터 1951년 7월까지 미 극동해군의 부대편성 및 지휘관계는 이전의 형태로 운용되었으며, 해상봉쇄, 원산항 포위, 함재기를 이용한 공산군 보급로 차단 및 주요 철교를 폭파하기 위하여 유용한 조직으로 운용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표 7-1> 미 극동해군의 지휘체계(1950. 9. 1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3 절 유엔 및 한국 해군작전

1. 유엔해군 작전

1)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유엔해군 작전의 제대별 주요 지휘관은 극동해군사령관인 조이(C. T. Joy) 중장, 제90기동부대장인 도일(J. H. Doyle) 소장 예하에 제90.1기동전단장 태크레이(L. A. Thackrey) 소장, 수송전단장 켈리(S. G. Kelly) 대령이었고, 호송 및 봉쇄기동부대장 스미스(A. E. Smith) 소장 예하에는 서해봉쇄전단장 몽크리프(A. K. Scott-Moncrieff) 영국 소장과 동해봉쇄전단장 힐렌코에터(R. E. Hillenkoetter) 소장이었다.

구 분	지 휘 관
극동해군사령관	해군 중장 C. T. Joy
제90기동부대장(CTF90)	해군 소장 J. H. Doyle
제90.1기동전단장(CTG90.1)	해군 소장 L. A. Thackrey
제90.2수송전단장(CTG90.2)	해군 대령 S. G. Kelly
제95기동부대장(CTF95)	해군 소장 A. E. Smith
제95.1기동전단장(CTG95.1)	영) 해군 소장 A. K. Scott-Moncrieff
제95.2 기동전단장(CTG95.2)	해군 소장 R. E. Hillenkoetter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인천철수 및 지상군 지원작전

서부전선에서는 중공군이 개성지구에 투입되었고, 1950년 12월 28일에는 중공 제40군의 정예가 38선을 돌파하여 개성을 점령, 다시 수도 서울을 향하여 남진을 계속하였다. 이제 서울을 포기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1951년 1월 4일에는 서울이 포기되고 한강다리가 폭파되었다.

공산군의 공격이 시작되었을 당시 태크레이(L. A. Thackrey) 제독은 기함인 엘도라도(Eldorado)함과 공격수송함(APA) 2척, 공격화물선(AKA) 1척, 공격수송선(APD) 1척, 도크형 상륙함(LSD) 2척, 미 해군 전차상륙함(LST) 2척, 일본 선박통제국(Scajap) 소속 LST 9척 등을 가지고 있었으며, 일본에 MSTS(군 해상수송부대)가 15척의 상선을 예비로 확보하고 있었다.

비록 미 제8군은 해상이 아닌 육로로 후퇴할 계획이었지만 제90.1기동부대참모들은 13만 5,000명 이상의 병력 긴급수송을 포함한 모든 우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울로부터의 철수가 계획대로 육로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필요하게 되었다.

인천에서는 해상수송이 필요한 다수의 병력과 장비가 있었는데, 최초 3,000~5,000명의 수송을 요청했던 미 육군의 판단은 12월 18일에 이미 초과되어 한달 동안 총 탑재된 수량은 32,000명의 병력과 1,000대 이상의 차량 그리고 5,500톤의 화물 등이었다. 흥남철수작전이 종료되어 6척의 LST와 수척의 MSTS 소속 함정이 증강되었다.

결과적으로 인천에서는 12월 7일부터 육군 군수물자의 탑재가 시작되어 12월 31일까지 인천에서 부산으로 수송된 인원과 물자가 인원 32,428명, 차량 1,103대 그리고 화물이 54,741톤에 달하였다.[5)]

서울주둔 해군본부는 1월 3일 15시 LST 홍주호로 인천을 떠났고, 1월 4일에는 인천경비부 전원이 철수하여 군산에 상륙하였다. 이때 10여 척의 LST와 대한해운공사 소속 선박들이 민간인 수송에 있어 중요한 자산이었으며, 특히 LST 801함은 정부자재 및 요원을 만재하였고, 미 수송선 로빈훗(Robin Hood)호는 제2

국민병 3,117명을 편승시켜 1월 5일 각각 제주에 입항하였다.[6]

중공군이 1월 5일 인천시에 진입하자 태크레이 제독은 유엔군의 제해권 장악을 위해 인천항의 항만시설을 폭파시키고 선박들을 모두 출항시켰다. 1월 1일부터 5일까지 병력 37,000명, 피난민 64,200명과 수백 대의 차량 그리고 수천 톤의 화물이 추가로 인천에서 철수되었다.[7] 인천으로부터의 해상수송은 매우 방대한 것으로서, 차량과 화물 면에서는 흥남철수보다 적지만 병력 면에서는 상당한 숫자였다.

중공군 개입으로 해상철수를 하게 되자 전쟁 초기와 같이 주요 항구가 부족해졌다. 이제 부산항만이 과부하상태로 대형선박들이 계속 입항하게 되었다. 부산의 항만, 도로, 철도 등을 재정비하지 않고 서부전선의 측방을 지원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였다. 그래서 다른 항구를 개항시킬 필요가 있었다.

군산 북방 25마일 지점 천수만 입구에 있는 대천에는 접안 가능한 해안이 있었으며, 이곳에서 도로와 단선 철도를 이용하여 새로 형성된 전선 후방인 천안으로 연결지을 수 있었다. 1950년 12월에 태크레이 제독은 사전조치로 주요 묘박지에 소해를 실시하였고, 1951년 1월에는 카믹(Carmick)함과 스왈로우(Swallow)함으로 검색소해를 실시한 후 인천에서 출항한 LST들이 접안하여 병력과 장비를 하역하였다.

유엔해군 세력들은 후퇴기간 중 중공군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지상군지원작전을 전개하였다. 구축함들은 동해안에서 방어임무를 수행중인 한국육군을 지원하였으며, 오프스티(R. A. Ofstie) 제독의 항공모함들은 한반도 중앙 산악지대와 서울 서측의 병력집결지에 공습을 가하였다. 인천에서 로체스터(Rochester)함 외 2척은 한강으로 진입하여 후퇴하는 지상군을 지원하는 동시에 인천철수작전을 지원하였고, 김포 비행장에 대하여 함포사격을 하였다. 서해에 있는 호위항모인 시실리(Sicily)함 및 바둥 스트레이트(Badoeng Strait)함의 해병 전투기들은 공중초계와 남하하는 공산군에 대한 공격 그리고 김포에 버려진 보급품 폭파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미 제8군이 1월 1일 더 많은 항공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1월 3일 바탄(Battan)함이 서해안 전대에 합류하였다.

동해에서는 1월 7일 필리핀 시(Philippine Sea)함과 레이테(Leyte)함이 일본에서 한반도 작전지역으로 복귀하였으며, 프린스톤(Prinston)함은 수리를 위해 일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사세보로 철수하였다. 그리고 중공군의 공격이 심각함에 따라 밸리 포즈(Valley Forge)함도 작전임무에 투입이 되었다. 3척의 항모가 동해지역에 있었으므로 3교대로 함정을 운용할 수 있어서 2척이 작전에 투입되는 동안 다른 1척은 군수 재보급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군수지원부대의 완벽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1월의 기상이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군수지원에 많은 제한이 있었으며, 1월 12일에는 풍속이 30노트 이상으로 불기도 하였다. 1월 7일, 엄청난 폭설 속에서 태국 프리케이트(Frigate)함인 프라새(Prasae)함이 동해안에서 좌초되었는데, 적극적인 구조작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침몰하고 말았다.



태국 프리케이트(Frigate)함인 프라새(Prasae)함의 좌초 <출처 : 미 해군 군사연구소>

1월 6일부터 9일까지는 구름이 낮게 분포되고 폭설로 인해 항모작전에 지장을 주었으며, 10일에는 더욱 기상이 악화되어 모든 육상기지 항공기들은 이륙할 수 없었다. 그래서 11일부터 13일까지 제77기동부대의 항공기들은 시정이 다소 양호한 한반도 남쪽에서만 작전이 가능하였다.[8)]

3) 해상봉쇄작전

유엔군은 흥남에서 철수하여 재배치한 후 다시 공격작전을 재개하기 위하여 인원, 물자 및 장비의 보강을 지속하였다. 1951년 1월 1일 영국 앤드류스(W. G. Andrewes) 해군 소장이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되었으며, 그 후 6주간은 미 해군 소장 예하에서 계속 근무했다.

1951년 2월 12일 경에 극동해군사령관 조이(C. T. Joy) 제독은 미 해군 참모총장 셔먼 제독으로부터 앤드류스 중장을 봉쇄 및 호송부대(TF-95) 사령관으로 임명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래서 당시 사령관이었던 스미스(A. E. Smith) 소장은 자신을 부사령관으로 앤드류스 중장을 제95기동부대 사령관으로 임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요청이 승인되어 앤드류스 중장이 1개월 반 동안 기동부대 사령관이 되었다.

스미스 소장은 앤드류스 제독이 한국을 떠난 후에 1951년 4월 3일 다시 TF-95의 지휘권을 인수했다. 또한 기동부대의 작전지휘관이 극동해군사령부에서 제7함대 사령관으로 이관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러한 지휘권 변경과 재편성 기간 동안 스미스 제독은 새로운 작전명령을 결정하여, 제95기동부대의 임무를 한반도 해상봉쇄, 동해에서 유엔 지상군을 위한 함포지원, 함포사격, 기뢰 대항전 실시, 호송, 대잠전, 연안 어로 통제, 정보 수집 순으로 시달하였다.

제95기동부대는 두 개의 봉쇄전단이 있어 한반도의 동해와 서해의 봉쇄를 담당했다.

CTG 95.1(영국 해군 장성급 장교)

TE 95.1.1 항모분대 2CVL, 4DD

TE 95.1.2 해상봉쇄 및 초계분대 1CL, 2DD, 3PF, 2AMS, 1LST, 1LSMR, 2PG, 2ARS, 2AMC, 1PC

TE 95.1.5 서해 도서방어분대-한국 해병부대(석도, 초도,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덕적도)

CTG 95.2(DD나 DE함정의 미 해군장교)

TE 95.2.1 원산분대 2DD, 2PB 또는 PF

TE 95.2.2 성진분대 3DD, 1DMS, 1PF

TE 95.2.5 동해 도서방어분대- 한국 해병부대(원산근해 도서, 양도)

TE 95.2.4 흥남분대 1DD[9)]

TE 95.2.8 폭격선 분대 1DD, 1YMS

CTF-95 예하에는 또한 호송전단(TG 95.5), 소해전단(TG 95.6) 및 한국 해군세력(TG 95.7)이 편성되어 있었다. 스미스 제독은 동해 봉쇄전단장(CTG 95.2, Roscoe E. Hillenkoetter 소장)에게 최소한 4척의 함정으로 항상 초계활동을 하며, 38도 이북에서 봉쇄한계선인 청진 북방의 북위 41도 50분까지 2척을 편대로 작전하면서 봉쇄에 관한 국제법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한국 해군(CTG 95.7, Michael J. Luosey 중령)은 연안을 감시하기 위해 남한지역 동해안에 2개의 해상임검소를 설치하였다. 소해된 해역을 제외하고 함정들은 기뢰에 의해 위험을 감소하기 위하여 100패덤[10)]선 외해에서 작전하였다.

서해 봉쇄전단장(CTG 95.1, A. K. Scott-Moncrieff 영국 해군소장)은 영국과 미국 항모 함재기로 서측 전선에 대한 근접항공지원을 제공하였고, 봉쇄를 유지하기 위해 39도선 근해에 위치했다. 해상봉쇄 및 초계분대(TE 95.1.2)는 진남포 연안에 공산군 소형 선박의 운항을 봉쇄하기 위하여 함정 1척을 배치, 유지하며 봉쇄의 북방 한계에서 남쪽까지 해안을 따라 초계하였다.

스미스 제독은 대규모 해군 함포사격을 신속하게 인천지역에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인천지역에 대한 함포사격이 실시되면, 공산군은 인천상륙을 생각하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그 지역을 방어하기 때문에 지상군을 분산시켜 그들의 공격력을 약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인천을 재탈환한다면 유엔군에 귀중한 항구와 보급기지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스미스 제독은 또한 동해에서 원산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함포사격을 실시해야 하고 원산항 근해의 도서를 점령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상륙기만작전의 목적은 공산군을 혼란시키고, 상륙작전에 대한 대비책으로 공산군 병력을 원산에 배치케 하는 것이었다. 특히 원산항은 적의 동해 철도와 도로를 교란하는데 유용한 지점이었다.

북한의 북동 해안의 노출된 수송시설들에 대해 해군 함포로 공격하면 교통량의 약 75퍼센트에서 80퍼센트 정도 감소시켜서 공산군의 수송능력을 크게 저하시킬 것으로 판단했다. 즉, 해군의 주요 임무인 해상봉쇄와 아울러 육상교통의 차단이라는 부차적인 임무수행에도 공헌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유엔군이 흥남에서 철수하여 공세작전을 재개하기 위해 전투력복원을 실시하고 있을 때 공산군들은 유엔해군 봉쇄세력이 노출된 해안선에 대하여 어떠한 작전을 전개할 것인가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측하고 있었다.

첫째, 아군의 상륙작전에 의한 위협이었다.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 이후 공산군은 상륙작전이 얼마나 결정적이며 위력적인지 잘 인지하고 있었다. 전쟁이 끝날 때 공산군은 인천상륙작전과 같은 전략적 타격작전이 언제 어느 곳에 있을지 모른다는 점에 과민해 있었다.

이러한 공산군의 약점을 이용하여 유엔군은 상륙양동작전을 실시하였는데, 제1차 양동작전은 1951년 1월 30일부터 31일까지 동해 간성해안에 실시되었다. 스미스 제독이 기함 딕시(Dixie, AD-14) 함상에서 상륙작전을 지휘하였는데, 함포사격과 소해작전 등을 실시하였고, 몬타규(Montague, AKA-98), 세미놀(Seminole, AKA-105) 및 수척의 LST들이 상륙기만을 실시하였다.

인천지역에 대한 기만상륙은 1951년 2월 10일에 계획되었다. 전함 미주리(Missouri)함이 2월 8일 함포사격을 실시하여 상륙양동작전 준비를 하였지만, 한국해군이 인천 탈환에 먼저 성공하면서 취소되었다. 유엔군은 썬더볼트작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Thunderbolt Operation)이라 명명된 제한된 공세작전을 전개하여 인천지역 공산군의 후퇴를 강요했다. 공산군들이 인천에 두 번째 상륙작전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인천철수를 신속히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1951년 4월 7일에 청진 남방에서 수행되었던 것과 같은 기습특공작전이나 게릴라 기습에 대하여 우려하였다. 순양함전대장 지휘 하의 순양함 1척(Saint Paul, CA-73, Chester C. Smith 대령)과 구축함 2척(Wallace L. Lind, DD-703, Edward B. Carlson 중령 / Massey, DD-778, Ed R. King, Jr 중령)의 엄호 하에 영국 제41 독립해병중대 250명은 청진남방 8마일 지점에 있는 해안철로를 파괴하기 위하여 LSD-22(Fort Marion)와 APD-127(Begor)로부터 해안에 상륙했다. 소해함 4척(Incredible, Osprey, Chatterer, Merganser)이 상륙해안 인근을 소해했으며, 해난구조선 ARS-24(Grasp)가 해안에 대기하고 있었다. 이 기습에 대한 공산군의 저항은 없었으며, 폭약을 설치하여 철로 100피트, 인근의 터널 및 철로 옹벽 등을 파괴했다.

이러한 방법은 전쟁이 종료될 때까지 공산군을 교란시키기 위해 주기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러한 기습작전을 통하여 특공대에 의한 기습작전은 헬리콥터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교훈을 얻었다.

셋째, 공산군을 교란하는 다른 방법은 적의 항구를 봉쇄하는 것이었다. 1951년 2월 중순부터 원산항에 대한 주야 해상봉쇄가 시작되었다. 성진항도 3월 8일 이후 해상봉쇄 되었는데, 순양함 1척(Manchester, CL-83)과 구축함 3척(Evans, DD-754 / C. S. Sperry, DD-697 / Hr. Ms.[11] Evertsen, DD)이 이용되었다. 그 후 1951년 4월 26일 흥남항도 해상봉쇄 되었다.

넷째, 유엔해군이 지상전선의 동·서해안 양쪽에서 공격하는 것이었다. 6·25전쟁 종결 시까지 해군의 함포들은 지상전선의 양 측면의 공산군에 대하여 맹렬하게 함포사격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화력들은 공산군을 제압하는데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이었다. 매일 유엔 지상군은 공산군 병력 집결소, 포대 및 보급소의 위치 정보를 함정에게 전파하였고, 해군은 선택된 목표물에 대해 함포사격을 실시하였다.

뉴저지(New Jersey, David M. Tyree 대령)함이 1951년 5월 20일 6·25전쟁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참전하기 위하여 한국 해역에 도착하였다. 이 전함은 한국 해역에서 작전했던 미 전함 4척 중에서 두 번째 전함이었다.[12]

뉴저지함은 5월 20일 간성에 포격을 실시한 후 원산항 봉쇄작전에 참가하기 위하여 이동했다. 5월 22일 원산에서 뉴저지 함은 공산군의 해안포로부터 사격을 받아 갑판 위에 있던 대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당했다. 원산, 흥남 및 성진에 대한 100일간의 해상봉쇄가 시작된 후 공산군의 해안포 사격의 정확성은 높아졌고, 그 빈도는 증가하였다.

호위 구축함인 에베레트(Everett)함은 1951년 6월 초 공산군 해안포의 명중탄을 맞아 장비의 손상은 경미했으나, 전사 1명, 부상 7명의 인원 손실을 입었다. 이 무렵 순양함 헬레나(Helena)함은 포탄 10,000발을 발사하였고, 순양함 브링클리 배스(Brinkley Bass)함은 단 2주 기간에 3,315발을 발사했다고 보고했다. 6·25전쟁에서 해군 화력의 사용은 점점 증가하고 있었다.[13]

4) 원산항 해상포위 작전

(1) 포위작전 개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원산항에 대한 유엔 해군의 봉쇄는 1951년 2월 16일 시작되었는데, 이는 미 해군 역사상 가장 장기간 동안 실시된 봉쇄작전이었다. 이 작전을 시작할 당시에는 원산항을 항구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계획은 없었다. 원산항 내에 있는 도서 1개 이상을 점령하는 선에서 시작되었으며, 동·서해안의 도서점령 계획의 일환으로 스미스 제독(봉쇄 및 호송부대사령관)에 의하여 최초로 착안된 것이었다.

스미스 제독이 이 계획을 제의했을 때는 유엔군은 중공군의 침공으로 철수작전을 하고 있었다. 1950년 12월은 한반도에서 철수와 제3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가능성까지도 있었던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스미스 제독은 지상군은 철수하는 것에 비하여, 해군은 공세적인 작전을 전개하여 유리한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는 것이 차후 지상전 지원을 위해 유리한 상황을 조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해군은 전략적인 상황평가에 준하여 몇몇 도서들을 점령하는 것이 장차작전 수행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다. 첫째 도서는 진남포 입구의 초도였고, 둘째는 장산곶 남쪽의 백령도, 셋째는 인천항 입구의 덕적도, 넷째는 군산 인근의 1개 도서 및 다섯째는 원산항 내의 도서였다.

스미스 제독의 계획은 이들 도서에 150명 내지 200명 정도의 한국 해병들을 주둔시키는 것이었다. 이들은 처음에는 소총만 보유하고 투입되었으나 나중에 기관총과 수류탄이 지급되었다. 미 제8군이 북진하게 되는 경우 그러한 전략적인 도서들은 군사적 요충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국 해병에게 사수하도록 임무를 부여하였다.

스미스 제독은 이 계획을 극동 해군사령관에게 건의했고, 승인되었다. 따라서 본래의 원산 해상포위작전의 목적은 유엔군이 북한을 재점령하기 위하여 다시 북진할 때까지 원산항 인근의 도서들을 포함한 10여 개의 섬들을 점령하는 것이었다.[14]

⑵ 원산항의 지정학적 특성

원산항은 비교적 조석의 차이가 없는 동해안에 전략적으로 위치한 북한의 주요 항구였다. 그곳은 300평방마일이나 되는 대형 항구로 폭풍으로부터 자연적으로 보호가 되는 천혜의 항구였다. 동북아시아는 늦여름에 발생하는 태풍으로 대부분 지역이 영향을 받지만, 이 항구는 태풍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원산항을 “피항선의 항구”라고 불렀다.

또한 북쪽의 다른 항구와는 달리 원산항은 겨울철에도 동결되지 않는 부동항이었다. 원산의 투묘지는 6내지 8패덤으로 해저는 닻의 파지력이 양호한 지반 위에 진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일본이 1880년 이 항구를 개발하기 이전에는 평화로운 조그만 마을이었다. 1950년 원산은 현대적인 항구를 보유한 도시로 발전하여 주요 철도설비와 해군기지, 우수한 도로망과 산업시설을 갖추게 되어 인구가 10만 명에 이르렀다.

원산은 한반도를 남북과 동서로 가로질러 북한 수도인 평양까지 갈 수 있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철도와 도로망을 갖추고 있었다. 중요 공장들은 연간 200만 배럴에 달하는 400만 평방피트(약 14만평)의 대지를 점하는 거대한 정유소 근방에 위치하고 있었다. 6·25전쟁 발발 이전에 원산 정유소는 사할린에 있는 소련 유전에서 선박으로 원유 공급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산에는 정유공장 이외에 기관차의 제작과 수리를 위한 현대식 철도공장이 있었고, 납 제련공장, 철관공장, 코크 제조공장, 제분소, 조선소, 어류 통조림 공장 및 양조공장 등이 있었다. 또한 원산은 중요한 어항이기도 했다.

원산항은 우수한 항만시설을 보유하고 있었다. 내항에 있는 길이 900피트의 콘크리트 부두는 창고들과 철도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40톤급 대형 이동 크레인, 대소형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선착장 시설이 있었다. 원산항의 이러한 산업시설과 특징 및 항구의 중요성이 원산항에 대한 해상포위를 결정한 요인이었다.

또한 원산항은 아름다운 항구였다. 항구 전방에 펼쳐진 아름다운 섬들, 시내 배후에 솟아 있는 산들, 남으로 호도반도의 아름다운 경치와 원산만의 그림과 같은 해안 곡선과 흰 모래사장으로 이뤄지는 절경은 원산을 하계 휴양지로 유명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지정학적 특성이 6·25전쟁 기간 최장의 포위작전을 감행토록 한 것이다.[1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 해상포위작전의 제한과 유용성

해상포위작전을 위한 원산항 인근해역에서의 활동은 매우 위험하였다. 첫째, 원산항은 내륙으로 둘러싸여 있어 공산군의 해안포 사격에 사면이 노출되어 있었다. 둘째, 1950년 12월 이전에 설치되어 있었던 기뢰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또한 공산군은 소해된 구역에 기뢰를 재부설 했을 것이며, 나아가 항구 내의 모든 수역에 기뢰를 부설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공산군 측의 기뢰 부설은 소형 어선을 이용하여 야간에 은밀하게 실시되었다. 셋째, 원산 해상포위공격은 많은 섬과 사주를 비롯한 항해 장애물과 그 해역에 부설된 기뢰로 인해 함정의 기동과 함포 운용에 큰 지장을 받고 있었다.

한편, 원산항에 대한 해상포위는 많은 이점을 갖고 있었다. 첫째, 원산 해상포위공격을 통해 공산군에게 전방 전선에 투입하여야 할 많은 병력을 측면으로 전환하도록 강요할 수 있었다. 둘째, 원산항을 소해하고 확보함으로써 유엔군이 원산 이북으로 전진할 때 군수지원에 필요한 항만사용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셋째, 원산은 공산군의 중요한 수송 중심지로서 중요한 철도가 이 지역을 통과하고 있었고, 해군 함포로 이러한 중요한 교통망을 교란하고 파괴할 수 있었다. 넷째, 북한에서 가장 좋은 항구를 장악함으로써 공산군의 어뢰활동을 통제할 수 있었다. 다섯째, 공산군에 대한 정보획득과 아군의 게릴라 작전을 위한 유용한 기지의 역할을 할 것이었다. 여섯째, 원산항은 아군 조종사와 항공기를 위한 탐색 및 구조활동에 중요한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주요 항구를 해상포위할 수 있다는 것과 항내의 도서들을 점령하고 육상의 군사목표를 함포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은 공산군 측의 사기 저하 효과를 발휘하고 유엔군의 사기를 높이는 심리적 가치가 있었다.[16]

(4) 해상포위 초기작전

제3소해전대가 1951년 2월 12일 원산항의 기뢰원을 통과하는 소해된 항로를 확보한 후 원산항에 대한 해상포위 초기작전이 2월 16일 미 해군 구축함[17] 2척(Wallace L. Lind, DD-703, E. B. Carlson 중령 / Ozbourn, DD-846, C. O. Akers 중령)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봉쇄부대장인 스미스 제독이 순양함 맨체스터(Manchester) 함상에서 이 작전을 지휘하고 있었다.

구축함은 원산항의 군사시설에 대하여 함포사격을 실시했으나, 소해된 해역이 매우 협소하고 기동이 어려웠기 때문에 투묘된 상태로 포격을 실시하였다.

투묘상태로 있던 구축함 중에서 오즈본(Ozbourn)함이 2월 18일 원산항내에 있는 신도로부터 사격을 받아 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오즈본함은 닻을 끌면서 외항 쪽으로 대피하였으며, 함의 사통장치(Mark-56 디렉터)가 파손되고 갑판에 구멍이 뚫리고 우현 탐조등이 박살났다. 이 구축함이 원산항에서 공산군 해안포의 피격을 받아 손상된 최초의 함정이었다.[1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5) 황토도의 해안사격 통제반

해상포위작전을 위하여 가장 유용하게 함포의 탄착수정용으로 사용된 도서는 황토도였다. 이 섬은 표고 160피트였으며, 나무 하나 없는 황량한 돌섬으로 공산군 해안에서 불과 3,000야드 떨어져 있어서 공산군의 해안포의 사정권 내에 있었다. 또한 황토도는 원산시와 아주 근접해 있어 원산비행장과 원산 남쪽으로 연결된 주요 보급로들을 관측할 수 있었다. 황토도의 관측소에서 탄착수정관들은 원산시를 직접 관측할 수 있었고, 도로 및 철도들을 관측할 수 있었다.

황토도는 1951년 6월까지 인근 해역에 부설된 기뢰의 위험 때문에 소형 어선으로만 접근이 가능했다. 기뢰는 해면 6에서 10피트 이하에 닻으로 계류되어 있었으므로 흘수가 낮은 목선은 위험하지 않았다. 이 섬의 접근수로는 공산군 해안포 사정거리에 위치해 있어 이동은 주로 야간에 이루어졌다. 한국 해병의 상륙주정인 LCVP가 기타 우군 도서에 식량과 보급품 수송에 사용되었으나 황토도로 수송할 때는 사용할 수 없었다.

1951년 7월, 갈마반도의 동부 해안을 보호하는 기뢰들은 2열로 부설되어 있어 주정은 기뢰원을 횡단하지 않고 대도의 중앙에서 황토도의 서쪽 끝까지는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다는 포로의 진술을 들었다. 황토도에 주둔한 소대 병력에게 식량, 탄약과 병력 증원을 위하여 LCVP를 이용하여 포로가 진술한 항로를 따라 안전하게 항해하였다.

1951년 7월 초, 동해봉쇄전단(TG 95.2)의 앤더슨(W. L. Anderson) 대령이 구축함 블루(Blue, DD-744)함에서 함포사격을 좀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였는데, 이 때 표적에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황토도에 전개할 해안사격 통제반을 위한 옷, 침구, 식량, 무장, 탄약과 통신기 등 지참해야할 목록을 작성하였다. 그곳에서 근무할 자원자를 선발하였다. 왜냐하면 그곳은 공산군과 근접한 곳으로 공산군의 포와 각종 화기에 노출되어 있고, 공산군의 상륙이 예상되는 위험한 곳이었기 때문이었다. 공산군이 그 섬의 남쪽으로 소형선박을 이용하여 접근한다면, 구축함이 레이더로 탐지할 수 없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함포지원이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원하였다.

지원자들은 1951년 7월 5일과 6일 야간, 구축함 단정에 탑승하여 황토도로 향했다. 단정에는 레이더 반사경이 장착되어 있어서 구축함들은 단정의 진행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었다. 다른 해안은 험한 암반으로 구성되어 상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공산군 화력에 노출되어 있는 서쪽해안으로 상륙하였다. 그 해안의 인근에는 어민의 가옥 10여 동이 있었고, 해안사격통제반 요원들은 그 가옥 중의 한 집에서 거주하였다. 그 섬에 주둔하고 있던 한국 해병 소대원들은 사격통제반 요원이 이 섬에 온 것을 가장 기쁘게 생각했다.[19]

구축함 에반즈(Evans)와 블루(Blue)함은 해안사격 통제반을 활용하여 원산 보급창과 어뢰 저장소에 함포사격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다. 사격통제반은 4일 정도 그 섬에서 활동 후에 철수하였으며, 1951년 7월 19일 황토도에 미 해병 소대가 파견되어 해상봉쇄작전이 종료될 때까지 주둔하였으며, 이들은 4개월 기간으로 교대되었다.[20]

(6) 해상포위작전 절차

원산항의 해상포위작전의 목적은 공산군의 도로와 철도망을 공격하여 교통망을 차단시키고, 아울러 원산항에 부설되어 있는 기뢰를 소해하고 추가적인 기뢰부설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소해 임무는 매우 어려운 임무로써 소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만 했다. 공산군은 소형 어선 등을 이용하여 간단한 방법으로 소해된 해역에 기뢰를 다시 부설하였다. 소형 어선 1척이 기뢰 4발까지 탑재할 수 있었다.

기뢰를 소해하기 위하여 소해함 4척에서 5척까지 원산 기동전대에 통상 배속되었으며, 그중 2척은 항만과 접근로에 대해 소해작전을 실시하였다. 소형 소해함은 원산 해안으로부터 공산군 포격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구축함 2척 또는 3척이 공산군의 포격을 제압하기 위하여 소해작전을 지원하였다.

소해함은 1951년 4월 말까지 원산항에서 29발의 기뢰를 제거하였으며, 3월 30일에는 소해정 4척이 15발의 기뢰를 소해하고 파괴하기도 하였다.

해상포위작전 초기의 일반적인 작전절차는 구축함의 지원을 받는 소해함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배당된 구역에서 매일 소해를 실시했으며, 소해함이 사격을 받으면 구축함은 대응사격을 하는 것이었다. 함정이나 원산항 인근 도서에 있는 함포사격 탄착수정반이나 항공기에서 새로운 표적을 지정하면 구축함들은 그 표적에 대하여 함포사격을 실시했다.

야간에는 항공모함이나 제5공군의 항공기 정찰결과와 첩보로 수집된 목표에 대하여 공격을 실시했다. 함포사격은 통상적으로 원산항 인근 도서에 위치한 탄착수정 요원에 의한 탄착수정 지원을 받았다.

때때로 원산항의 해상봉쇄는 로케트함인 LSMR[21], 제77기동부대의 전폭기 및 순양함이나 전함의 함포 사격의 지원을 받았다. 1951년 3월 중순에 처음으로 순양함과 구축함에 의한 함포사격이 실시되었다. 순양함 맨체스터(Manchester, CL-83, Lewis S. Park 대령)함과 구축함 린드(Lind, DD-703, Edward B. Carlson 중령)함은 3월 17일 원산에 있는 공산군 막사를 기습 포격하여 북한군 6,000명의 전·사상자가 발생하였다. 3월 19일 전함으로서는 처음으로 원산 해상포위작전에 참가한 미주리(Missouri)함이 16인치 거포로 공산군 해안포 진지를 강타했다.[22]

(7) 원산항에 대한 야간 사격

제95기동부대 함포사격함과 제5공군 소속 제12정찰비행대대의 항공기들이 1951년 4월 초순에 합동작전을 수행했다. 공산군은 항공 및 함포 공격으로 주간에는 물자 수송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원산의 수송망을 통하여 보급은 주로 야간에 실시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공군 정찰기들에게 공산군 전방 보급로로 활용되는 모든 철도와 도로망에 대한 야간 사진정찰 임무가 부여되었다. 제1해병비행단의 야간 비행항공기(주로 F7F 타이거캣[23]과 F4U 코샤르[24])와 제5공군의 야간 폭격기(주로 B-26)들은 가능한 한 많이 공산군의 보급로에 대한 야간 폭격을 감행했다. 해군, 해병 및 공군 야간 공격 항공기들은 제6함대 항공단 소속의 P4Y2[25](해군 정찰기의 일종) 항공기에서 투하된 조명탄의 도움을 받았다.

원산에서 야간작전 항공기들은 지원 함정들과 팀웍을 이루어 임무를 수행하였다. 항공기는 구축함에서 발사되는 조명탄으로 표적을 발견하여 공격하였고, 또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구축함의 함포사격에 대한 탄착수정 임무를 수행하여 상호 지원하였다.

제1구축함전대의 구축함 3척(Floyd B. Parks, DD-884 / Agerholm, DD-826 / John R. Craig, DD-885)에 의해 1951년 5월 5일 밤에 실시한 작전이 해·공 상호 합동작전의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구축함 파크(DD-884)함의 함장 클로디우스(H. G. Claudius) 중령이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파크함은 30일 동안 원산항 근해에 배치되었다. 우리는 주간에 제77기동부대 항공기 그리고 야간에는 공군 항공기와 합동작전을 수행하는 우수한 합동절차를 고안했다. 우리는 공군 항공기에게 표적을 지정해 주었고, 표적으로 유도하면서 조명탄 발사로 위치 식별에 도움을 주었다.

항공기는 폭탄 투하를 종료한 뒤에도 표적 상공에서 30분 내지 40분 동안 계속 체공하면서, 함포사격에 대한 탄착수정을 지원하였다. 해군 함포의 탄착수정 교리에 대해 교육을 받은 공군조종사들은 탄착수정을 효과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합동작전으로 원산에 있는 북한군들의 주야간 보급품 수송은 극히 어렵게 되었다."

구축함 아저홈(Agerholm)함이 조명사격을 실시하고, B-26 1대가 탄착수정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구축함 파크(Parks)함과 크레이(Craig)함은 원산의 한 교량에 대하여 포격을 실시했다. 그 2척의 구축함은 10발을 발사하여 2발을 교량에 명중시켰다. 구축함이 조명탄을 발사하여 조명을 제공하는 동안 B-26은 차량을 공격하여 파괴시켰다. 같은 날 밤, 두 번째 작전으로 다른 B-26은 구축함의 조명사격을 지원받아 원산의 화학공장과 유류탱크를 폭파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2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8) 원산 해상포위작전의 피격함 발생

원산 해상봉쇄작전이 개시된 이후 95일째가 되는 1951년 5월 22일, 공산군 해안포대가 함정을 공격하여 처음으로 사상자가 발생했다. 브링크스 바스(Brinkley Bass)함의 함장인 베이어(A. F. Beyer) 중령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우리가 2주간의 원산작전을 위하여 그곳에 도착했을 때 아름다운 원산항은 평화롭게 보였다. 공산군의 해안포대들은 비교적 활동이 없었고, 우리 함정들은 야간에는 물론 주간에도 투묘하고 있었다. 우리는 사격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투묘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공산군에게 고정표적이 되는 불리한 점도 있었다.

우리 함정이 원산에 도착한 조금 후에 공산군 해안포의 사격을 받았고, 우리는 닻을 절단하고 서둘러 안전구역으로 회피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노출된 갑판에는 인원을 노출시키지 않았으며, 가능한 보호장비를 착용하도록 지시했다."

"1951년 5월 20일, 다른 함정들은 보급과 정비 등으로 원산항을 이탈하였고, 우리는 단독으로 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날 전원 전투배치를 하고 우미도에 있는 해안에 근접하여 그 지역에 40mm로 사격을 실시했으나, 공산군의 반격을 받기 시작했다. 속력을 증가하여 회피기동하면서 공산군 포대를 향해 함포를 발사했으나, 공산군이 발사한 120mm 포탄이 함정의 우현 함미에 명중하여 40mm 포대에 있던 10명이 부상하고, 사격수 브리안(John D. Bryan) 일병이 사망했다. 이날 이후부터 모든 승조원들을 갑판 아래 격실에 위치하게 하고 포대에는 인원을 배치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에 순양함 맨체스터함과 구축함들이 복귀하였고, 우리는 순양함에 부상자들을 이송하고 포격을 계속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구축함 바스에서 부상자가 발생하기 2일 전, 전함 뉴저지(New Jersey)함이 원산의 표적들에 대해 포격하는 동안 제1포대 상부에 공산군의 명중탄을 맞았다. 이 공산군 포탄이 전함의 포대 자체에는 손상을 입히지는 않았으나, 파편으로 인하여 1명이 전사하고 3명이 부상을 당했다.

순양함 맨체스터함과 구축함 브링크스 바스함이 5월 24일 호도반도에서 나오는 소형 선박들을 발견하여 사격을 하였다. 나포한 4척의 선박들을 수색한 결과, 이들은 1척당 기뢰 4발을 수송할 수 있도록 개조된 어선이었다.[27]

⑼ 100일간의 원산 해상포위작전 전과

원산 해상포위작전의 100일이 되는 1951년 5월 27일, 스미스 제독은 전과를 트럭 107대 파괴 및 238대 파손, 병력 8,195명 사상, 건물 149동 파괴 및 466동 파손, 교량 36개 파괴 및 83개 파손, 철도 차량 63개 파괴, 터널 3개 파손, 기관차 11량 파손, 소주정 54척 파괴 및 238척 파손이라고 보고했다.

원산에 있는 북한군은 유엔함정과 항공기의 공격으로 야기된 도로와 철도의 피해를 수리하고 복구하기 위하여 공병부대를 조직하여 운용했다. 그러한 원산 해상봉쇄작전 기간 중 여러 번에 걸쳐 공산군은 격렬하게 해안포를 사용하여 반격을 실시했다. 7월 6일, 제77기동부대의 270대의 항공기가 출격이 있은 이후 7월 17일, 북한군은 해상봉쇄함정에 대하여 해안포 사격으로 보복을 시도했다. 이날 오브라이언(O'Brien, DD-725, C. W. Nimitz, Jr. 중령), 블루(Blue, DD-744, R. S. Burdick 중령) 및 커닝햄(Cunningham, DD-752, L. P. Spear 중령)함 근방에 500회 이상의 물줄기가 공산군 포탄의 낙하로 치솟았다. 이에 대한 대응사격으로 3척의 구축함은 4시간 반 동안의 교전에서 5인치 포탄 2,336발을 퍼부었다. 북한군은 우미도, 갈마반도 및 호도반도 등 세 지역에서 사격을 실시하였지만, 여도 근방에 있던 LST 2척에 파편을 뿌리는 이상의 피해를 우군함정에 가하지는 못하였다.[2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5) 동해안의 교량폭파작전

1950년 크리스마스에 유엔군이 흥남에서 철수하고 나서 제7함대사령관 스트러블 제독은 극동 공군사령관 패트리지(E. E. Partridge) 소장에게 전문을 보냈다. 즉, 고속 항공모함 항공기를 제8군의 동부 측면 부대에 대한 근접항공지원을 제의하는 내용이었다. 그리하여 12월 29일, 패트리지 장군은 리지웨이(Ridgway) 장군이 해군은 폭격제한선으로부터 가능한 한 최북방까지의 동해안 도로들을 공격할 것을 원한다고 회신하였다.

1951월 1월 15일, 항공모함에게 더욱 구체적인 임무가 하달되었다. 패트리지 장군은 해군 항공기들이 철도에 대한 폭파를 요청하였고, 이는 '함흥과 수성간의 주요

교량과 현재 보급물자 수송에 운용중인 열차를 파괴'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스트러블 제독은 해군 항공기가 차단작전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흥남철수 작전에서 효율성이 입증된 근접항공지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리지웨이 장군과 패트리지 장군에게 다음과 같은 전문을 보냈다,

"전선에서 병력과 장비와 보급품의 수송을 저지하기 위한 항공차단과 무장정찰에 지장을 주지않고 근접항공지원 작전을 수행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존하는 조건 하에서 그러한 항공작전은 단지 부분적인 성과밖에 얻지 못할 것임을 이전 작전경험이 말해주고 있음. 나의 의견으로는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다른 형태의 항공작전보다 근접항공지원 작전이 공산군의 전투력에 보다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북한군이 북한 동부 철도를 이용하려고 계획 중이며, 최소한 북한군 1개 사단 병력이 그 철도로 이동할 것이라는 정보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스트러블 제독의 의견은 수용되지 않았다.

제77기동부대의 항공모함은 1951년 1월 29일 북동부 교량들에 대한 차단공격을 개시했으나, 북한지역의 혹독한 추위와 눈보라, 진눈깨비 및 빙상들이 항공기 운용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했다. 극동해군사령관 조이 제독이 제7함대사령관 스트러블 제독에게 발송한 전보에 극동해군세력이 북동부 지역에 있는 철로를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작전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원산과 청진 사이의 북동해안을 따라 있는 철도는 공산군의 보급품과 병력과 장비를 전선에 수송하는 주요 교통로로 사용되고 있다. 공산군들은 이 철도가 파괴되면 신속하게 임시적으로 복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철도의 주요 부분들을 파괴하여 공산군들이 수리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군항공기와 함포는 이 임무에 아주 적합한 수단이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북한 북동부 지역의 철도 체계를 파괴하려는 제77기동부대 작전을 설명하기 전에 북한군의 보급망과 그들의 군수체계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로, 6·25전쟁에서 군수문제는 공산군들에게 더욱 유리했다. 즉 중공군과 북한군은 간단한 식사와 생필품 사용에 익숙해져 있었다. 미군들에게 제공되는 따뜻한 음식, 샤워, 영화상영, PX 보급품 및 주 2회의 우편물의 전달이 그들에겐 없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음식과 탄약을 공급해주는 시설은 육로로 불과 수백 마일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비하여 유엔군의 군수시설은 해상으로 수천마일이나 떨어져 있었다. 따라서 공산군들의 보급문제는 유엔군보다 수월했다. 중공군은 1인당 매일 평균 10파운드의 보급품만을 필요로 하는데, 미군의 1인당 하루 평균 보급품의 소요는 약 60파운드였다. 1만 명의 병력인 중공군 1개 사단이 약 50톤을 필요로 했다.[29] 중공군은 한반도에서 90개 사단 이상을 운용하지 않았고, 전선에는 약 58개 사단이 배치되어 있었으므로 매일 약 3,000톤만 만주에서 전선에 보급품을 수송하면 되었다.

공산군은 철도, 도로, 인도 및 해상 등의 4가지의 중요 수송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북한의 철도체계는 한반도의 척추를 이루는 산맥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동쪽과 서쪽 두 개 지역으로 나누어졌다. 한반도 양쪽에 각각 3개씩 총 6개의 철도가 만주에서 남쪽으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지나서 연결되어 있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만주에서 신의주까지 한반도 서쪽으로 내려오는 3개의 철도는 단선철도로 이어졌고, 신의주부터 평양과 전선까지는 복선 철도로 구성되었다. 신의주부터 전선까지의 복선철도로 평상시에 하루 약 9천 톤을 수송할 수 있었으며, 만주 국경에서 신의주의 철도 교차점에 이르는 3개 단선철도는 하루 약 6천 톤을 취급할 수 있었다. 공습으로 파손된 터널, 교량, 도로 그리고 야간 및 악천 후 등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 서부지역 철도망을 통한 전선의 보급품 수송량은 하루 약 500톤에서 1,500톤으로 판단되었다.

북한의 동부 철도망도 만주에서 시작되었으며, 만주로부터 3개의 철도가 길주 부근에서 합쳐지고, 그곳에서 단선으로 남쪽의 고원에 도달한다. 이곳에서 철로는

분리되어 철로 하나는 서쪽의 평양으로 이르고 다른 한 선은 남쪽의 원산으로 이른다. 원산 이남에서 철로는 다시 분리되어 한 선은 동해안을 연한 해안선으로 남쪽으로 뻗고 다른 한 선은 원산과 철원간의 회랑을 따라 서울로 연결된다.

유엔해군의 장기간의 차단작전의 목표가 된 동부의 철도망은 궤도 길이가 총 1,140마일, 교량 956개, 터널이 231개가 있었다. 북한지역이 산악지형으로 이렇게 많은 수의 교량과 터널이 있었으며, 터널의 평균길이는 1,200피트였다.

동부 철로의 평시 하루 수송용량은 약 5천톤으로 판단되었다. 해군항공기에 의한 차단작전으로 동부 철도망의 수송량은 하루 500톤 이하로 감소되었고, 어떤 기간에는 수송량은 더욱 감소되었다. 유엔군이 북한 철도망에 폭격을 하여 파괴시키면 공산군은 대규모 인력을 동원하여 수리하던지 또는 다른 수송수단을 이용하여 1,000~2,000톤의 화물을 수송할 수 있었다. 즉 유엔 항공력에 의한 차단작전에도 불구하고 공산측의 철도편 만으로도 그들의 보급소요의 약 절반을 수송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공산측이 이용 가능한 둘째의 보급망은 도로였다. 북한의 도로들은 대부분 비포장 상태로 양호하지는 않았지만 철도보다 항공공격하기에는 어려운 목표물이었다. 북한의 도로망도 일반적으로 철도망을 따라 건설되었으며 동·서에 각각 2,000마일의 도로가 있었다. 한반도의 중부지역 전선까지 도로망을 통하여 야간에 매일 1,500톤 정도의 화물을 수송할 수 있었다.

세 번째 보급망은 우마차와 사람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수단이었다. 말과 소 그리고 인부들이 지게로 많은 보급품을 전선으로 나르고 있었다. 도로와 철도를 사용하지 않고 소로와 오솔길을 통하여 농부들이 지게로 나르는 수송체계에 대해서는 항공력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군수보급 체계였다.

네 번째 보급망은 바다를 사용하는 것이었지만 제95기동부대에 의하여 전쟁 발발 이래로 해상에서 완전하게 봉쇄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유엔군 항공력으로 북한 군수체계를 완전하게 고립시키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제77기동부대의 항공차단작전으로 공산군측의 철도망을 무력화시켜 중부전선의 북한군과 중공군의 군수지원은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30]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6) 도곡리 철교 폭파작전

제77기동부대가 1951년 1월부터 6월까지 한반도 북동부 지역 철로를 파괴하기 위한 작전은 함경북도 길주 근방 도곡리의 협곡(일명 : Carlson 협곡)상에 위치한 교량폭파 사례가 대표적인 것이다. 지속적인 철도 포격과 계속적인 공산군의 복구노력을 보면 1951년 전반기에 수행되었던 유사한 사례를 짐작할 수 있다.

항공모함의 주된 임무가 북한 북동부의 차단작전이라는 결정이 내려진 후 당시 제77기동부대장인 오프스티(Ralph A. Ofstie) 소장은 1951년 2월, 동해안 철도망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목표물을 식별하기 위하여 예하 정찰기에게 전 철도시설에 대한 사진 촬영을 지시하였다. 프린스턴 항모와 제5항모전단 정보장교들은 공산군의 철도 교통에 대한 차단효과가 가장 크며 공산군에게 큰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표적들을 결정하기 위하여 항공사진에 근거로 공산군 대공포의 분석, 지형연구 및 표적 선택업무를 수행했다.

제193 전투비행 대대장인 크레이그(Clement M. Craig) 소령은 1951년 3월 2일 아침에 길주 부근에 있는 다른 교량을 폭격하고 돌아오는 길에 완벽한 교량표적을 발견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우리는 철도에 연한 다른 교량들을 폭격한 직후 남으로 귀대 비행을 하는 중에 이 교량을 목격했다. 길이 약 600피트, 높이 최대 60피트로 관측되었다. 협곡 위에 설치된 교량은 5개의 교각이 6개의 교폭을 지탱해주고 있었다. 이 교량 부근에 그와 유사한 교각이 5개가 있었으나 다리는 교폭이 없는 건설중인 교량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교량 양 끝에 터널이 있어 철로가 직통으로 터널을 지나게 되어 있는 것도 주시했다. 무엇보다도 이 표적은 만주에서 오는 철도 3개가 합류하여 남쪽으로 가는 길주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 교량이 차단되고 계속 차단상태로 유지된다면 만주에서 북한 동부에 들어오는 동부 철도망을 마비시킬 수 있는 것이었다.

크레이그 소령은 프린스톤 항모에 착륙 즉시 오프스티 제독에게 이 교량에 대해 보고했다. 공산측이 수리보수하거나 우회로를 건설하기 극히 어려운 중요한 교량이었기 때문에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었다. 3월 2일 오후 폭격을 했지만 경미한 손상만 입혔다. 3월 3일 오전에 프린스톤 함재기에 의해 완전히 폭파되었는데, 제195 전투비행 대대 칼슨(Harold G. Carlson) 소령이 지휘하는 8대의 스카이레이더기(Skyraider)들이 그 교량의 교폭 1개를 완전히 파괴시키고 다른 3개는 손상을 입혔다. 그래서 칼슨 소령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일명 칼슨 협곡이라고 불렸다.

이 교량에 대해 1951년 3월 7일에 다시 폭격되어, 이 때 또 하나의 교폭이 파괴되었다. 공산군은 신속한 보수작업을 시작했으며, 작업은 주로 야간에 진행되었다. 그들은 각목을 서로 연결시켜 쌓아올려 교각을 신속히 건설하고 파손된 교폭을 보강하였다.

정찰기가 3월 14일 촬영한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로 보수작업의 진도를 알 수 있었다. 다리를 재사용하기 위한 공산군 시도를 볼 때 수 일 내로 다시 철도가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 다음날 함재기들은 네이팜탄으로 공격을 하였다. 이 공격으로 6개의 교폭 중에서 2개만 남았다. 3월 내내 항모 항공기들은 도곡리 철교의 북쪽과 남쪽 철도를 폭격하여 대부분의 철도망을 두절시켰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항공기는 1951년 3월 교량폭파에 부가하여 터널폭파 임무가 부여되었다. 후에 제7함대사령관을 지낸 클라크(J. J. Clark) 중장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는 주요한 터널을 폭파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다. 그 중에 하나는 해안에 특공대를 보내어 터널 위에서 구멍을 뚫어 폭약을 넣어서 폭파시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철도 전문가들은 이러한 것은 별로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경미한 손상은 공산군들이 몇 시간이면 복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부분의 터널들은 견고한 암벽을 뚫어 만들었으므로 터널 안에서의 효과는 경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공산군들은 도곡리 교량을 복구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항모 기동부대의 정찰기들은 교량 보수작업에 대한 관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했으며, 야간 작전 항공기들이 그들의 야간작업을 방해하였다. 유엔군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3월 15일 폭격으로 파괴되었던 교량은 2주 만에 완전히 복구되었다. 그래서 제77기동부대 항공기들은 4월 2일 2차에 걸친 폭격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유엔해군의 교량에 대한 지속적인 폭격으로 복구는 더 이상 불가능하였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해결책은 유엔해군이 공격하기 어려운 우회로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북한 북동부의 철도망에 대한 제77기동부대 항공기의 맹렬한 공격의 결과는 1951년 4월 초에 나타났다.[31] 야간 정찰 결과 철도의 교통량이 1951년 2월의 65%에서 4월에는 32%로 떨어졌다고 보고했다. 이와 같은 4월 7일에 성진 남쪽의 소래동에 영국 특공대들이 상륙기습을 감행했을 시 인근 마을에 있는 민간인들에게 질문했다. 북한 민간인들은 40일 동안 단 한 대의 열차도 마을 근처를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포로들과 특공대들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통해 항공공격으로 야기된 철도수송의 장애에 대해 결정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2가지 사건이 발생하여 이러한 철도망 파괴활동을 지속할 수 없었다. 첫째는 제7함대 작전구역인 대만 해협의 위기였다. 4월 2일부터 15일까지 제77기동부대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한반도 북동해안에서 철도 파괴작전을 수행하지 못했다.

두 번째 사건은 두 차례에 걸친 중공군의 춘계 대공세였다. 첫 공격은 4월 22일 밤 22시에 시작되었다. 국군 제6사단 구역에 중공군이 공격을 감행하여 전선은 붕괴되었으나, 미 제1해병사단이 국군 제6사단의 지역에 투입이 되어 중공군의 공격을 분쇄했다. 5월 초에는 유엔군이 역습을 개시하여 전선은 다시 안정되었다.

제2차 공산군의 공격이 준비되고 있다는 첩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제1차 공격에서 큰 타격을 입은 중공군 사단들을 교대하기 위하여 새로운 중공군 사단 병력이 탑재한 수 천대의 차량들이 남으로 이동 중인 것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중공군 공세로 제77기동부대의 주요 임무가 미 제8군을 지원하기 위한 근접항공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지원으로 전환되었다. 그 결과 제77기동부대의 북동부 해안철도에 대한 공격이 제한을 받았고, 이 틈을 타서 공산군들은 파괴된 동측 철도를 보수할 수 있었다.

항모 항공기들은 5월 1일에 차단작전에 복귀하였고, 13일간 북한 북동부의 교량을 폭파시켰다. 교량 31개와 부근에 있는 우회로들이 항모 박서함, 프린스톤함 및 필리핀 시함에서 출격한 항공기에 의하여 파괴되었다.

북동부 지역에 대한 항모 함재기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1951년 6월까지 전선에 대한 보급품은 계속적으로 투입되고 있었다. 공산군이 한 달 동안 대규모 공격이 두 번이나 가능했던 것은 병력과 보급품, 무기들이 중국에서 북한 전선으로 충분히 운반할 수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해군 비행사들의 폭격으로 북동부 지역의 철도망을 통한 공산군 군수품의 유입을 마비시켰지만, 중공군은 다른 방법으로 수송하고 있었다.

첫째, 공산군은 보급품의 이동로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했다. 불행하게도 제5공군은 2,000파운드 폭탄을 가지고 정밀조준으로 교량을 폭파할 수 있는 항공기가 없었다. 둘째, 서부 철도망의 규모가 동측 철도망 보다 더 커서 가용한 항공기로 보급로를 차단하기에는 여력이 부족하였다. 셋째, 중공군은 차량수송에 점점 더 많은 비중을 두었다. 1951년 1월에 공산군의 트럭은 7,300대에 불과하였으나 5월에는 54,000대로 대폭 증가하였다. 넷째, 거의 모든 수송을 야간에만 실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공산군의 기술적이며 고도로 조직화된 보수능력은 아군의 파괴 속도와 비슷해지고 있었다.[3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7) 화천댐 폭파 작전

공산군은 4월 초순과 하순의 두 차례가 걸쳐 길이 250피트의 화천댐 수문을 닫고 북한강의 수심을 낮게 만들어 유엔군이 진격할 때 수문을 열어 아군의 활동을 제한하려고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또한 공군군의 공제 시에 수문을 닫아 도하에 유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공산군의 의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 제8군의 요청으로 공군 B-29기가 고공폭격을 실시하였지만 파괴되지 않았고, 화천댐의

폭파는 시급한 문제로 남아 있었다.

한편 이 무렵 제1해병사단장인 토마스 소장은(G. C. Tomas) 춘천 북쪽에서 공산군에게 공격을 실시하고 있었다.

제77기동부대 사령관 오프스티 소장은 4월 30일 13시 30분에 미 제8군으로부터 화천댐의 수문을 폭파할 것을 요청한 전문을 받고, 항공모함 프린스턴함에 공격명령을 하달하였다.

이리하여 이날 16시에 항공모함 프린스턴함(함장. W. 0. Gallery 대령)에 소속된 제193비행대대의 AD(skyraider)기[33] 6대는 2,000파운드의 폭탄을 적재하고 파커(E. A. Parker) 소령 지휘아래 코샤르(Corsair)기 5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댐을 폭격하였으나 한 부분만이 반파되었을 뿐으로 완파하지는 못하였다.

첫 번째 폭격이 실패되자 두 번째 공격에는 이번 전쟁 처음으로 어뢰가 사용되었다. 5월 1일 10시 30분에 머릭(R. C. Merrick) 중령과 칼슨(H. G. Carlson) 소령이 지휘하는 8대의 AD기는 어뢰를 적재하고 100~500파운드의 VT탄을 적재한 AD(skyraider)기 12대의 호위를 받으며 항모 프린스턴함을 이륙하였다.

이곳 저수지는 높은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동시에 2대의 비행기만이 공격하기 위하여 낙하할 수 있고 다른 비행기는 상공에서 선회하며 기다려야만 하였다. 또한 수직공간이 좁았기 때문에 어뢰를 투하할 때 비행속도를 결정하는 문제가 힘들고 더욱이 주위의 대공포화에 대한 위협이 상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날 11시 30분에 화천댐 상공에 도착한 12대의 스카이레이더기는 공산군의 대공포를 파괴하기 위하여 VT탄을 투하하였다. 곧 이어 2대의 AD(skyraider)기는 급강하면서 2개의 어뢰를 투하하였으며 나머지 6대로 차례로 공격함으로써 중간의 1개 수문은 완전히 파괴시키고 다른 수문에도 10피트 정도의 파공을 만들었다.[34]

화천댐의 수문이 폭파되어 저수지의 물이 방출됨으로써 공산군의 의도는 분쇄되었으며, 6월에는 미 제1해병사단이 순조롭게 진격할 수 있었다. 한편 이 때의 폭격으로 저수지를 경비하던 공산군 약 165명이 사살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함재기 어뢰공격으로 파괴된 화천댐 <출처 : 미 해군 군사연구소>

2. 한국해군 작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 옹진・연백지구 철수작전

(1) 황해도 피난민 철수작전

중공군의 침공으로 전세가 바뀌어 아군이 38선 이남으로 후퇴하게 되자, 북한의 수많은 주민이 아군의 이동을 따라 남으로 피난길에 올랐다. 주로 경의선을 따라 남하하던 피난민들은 군의 신속한 이동을 따르지 못하였고, 뒤따르는 중공군으로 인하여 진로가 막히게 되자 부득이 중도에서 황해도 서해안 즉, 은율, 송화, 장연 지구로 몰려들게 되었다.

공산당 치하의 삶을 거부하고 자유를 찾아 피난길에 오르게 된 북한 주민들은 남쪽으로 향한 피난길이 완전히 차단되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방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애국청년들이 재령(載寧), 신천(信川), 안악(安岳), 장연(長淵), 송화(松禾), 은율(殷栗) 등 각 마을에 9천여 명에 달하는 청년의용군을 조직하고 곳곳에서 공산군과 싸우고 있었다. 비록 병력과 장비, 훈련 등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 만족스러운 것이 없었으나 오직 반공정신과 사기만은 충천하여 곳곳에서 공산군과 싸우면서 아군이 다시 진격해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군이 대군을 앞세워 서쪽으로 진출하자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북한군을 피해 황해도 일대의 주민들과 피난민들은 장연(長連)-송화(松禾)-은율(殷栗) 등 3개 군의 해안지대에 집결하게 되면서 서해에서 활동 중인 우리 해군함정들에게 구출을 요청함으로써 해군의 피난민 구출작전과 청년의용군 지원이 개시되었다.

송화군수 이진언(李眞彦)이 1951년 1월 5일 소형 발동선을 타고 이 해역에서 경비중인 우리 해군의 PF-61함(함장 최효용 중령)을 방문하여 이러한 정황을 전달하고 황해도 서해안에 집결한 피난민의 구출과 청년의용군에 대한 지원이 긴급하다는 것을 호소하며 해군함정의 지원을 요청하였다.[35]

이 당시에 한국해군은 1월 5일 현재 PF-62함(함장 해군대령 박옥규, 朴沃圭)이 703함, 510, 518, 302, 306, 307, 310, 313정 등 각 함정을 지휘하여 해주, 인천 근해의 봉쇄작전을 담당하고 있었고, PF-61함(함장 해군중령 최효용, 崔孝鏞)은 303, 304정을 지휘하여 주로 진남포, 옹진 해상 봉쇄작전에 실시하고 있었다.[36] 송화군수의 지원요청을 접한 최효용 중령은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즉시 해군본부에 보고하는 한편, JMS-303 및 304정을 현지에 출동시켜 지상에 있는 청년의용군 엄호작전을 실시하였다.

한편 이러한 보고를 받은 손원일 해군총참모장은 최효용 함장에게 예하 함정을 지휘하여 청년의용군의 작전을 적극 지원하고 피난민을 구출하여 인근 도서로 수송할 것을 명령하였다.

PF 61함장 최효용 중령은 1월 7일 황해도 월사리(月沙里) 해상에서 청년의용군을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통솔지휘하고 있는 3개 군수 및 3개 경찰서 책임자와 회합하여 작전지원에 대한 협의와 피난민 구출 방안을 결정하였다. 61함은 예하 함정과 더불어 해안을 봉쇄하고, 육지의 청년의용군에 대한 함포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발동선으로 피난민을 철수시키고 양곡을 반출하도록 하였다.

인근 해역의 PC-703함과 309정이 도착하여 이 작전은 더욱 활기를 띠었으며, 해군은 구출된 피난민을 백령도(白翎島), 대청도(大靑島), 초도(椒島) 등 도서로 수송하였다. PC-704함이 1월 9일 의용군에게 공급할 탄약 2만 발을 적재하고 부산을 출항하였다. 동시에 LST 단양호가 피난민의 철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급파되었는데, 피난민의 위생관리를 고려하여 군의관 2명과 위생하사관 6명을 편승시켜 파견하였다.[37]

이때 북한군 제26해안보병독립여단 제5대대 약 800명은 송화읍(松禾邑)을 공격한 후 덕동(德洞)을 향하여 남진하였다. 청년의용군은 다시 덕동을 중심으로 방위대를 구축하고 분전하였고, 아군 함정의 긴밀한 협조와 엄호사격에 힘입어 북한군을 격퇴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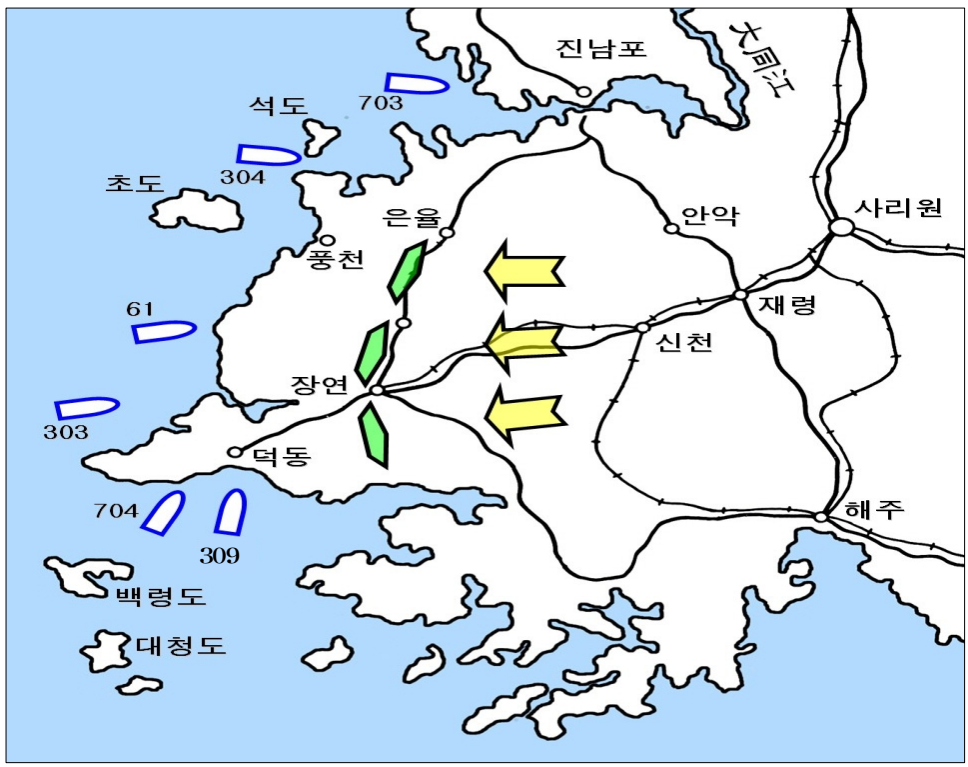
그러나 북한군의 병력은 점차 증가하여 10일에는 드디어 은율-송화-장연 선까지 침공하였다. 무장 경찰대 80명과 육군 대위가 지휘하는 무장의용군 350명은 분투하였으나 거리관계로 함포사격의 엄호를 받지 못하여 결국 월사리로 후퇴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와 같은 전투가 계속되는 동안 해안선으로부터 7마일 일대는 해군함정의 함포사격으로 교두보를 설치하고 북한군의 근접을 방지하였으며, 이 작전의 중요 목적의 하나인 양민의 구출과 양곡의 반출은 동시에 추진되었다.

소수의 의용군은 1월 15일 이후 광대한 지역의 확보가 힘들게 되었으므로 의용군은 산악고지로 분산하여 수년 간 장기적 게릴라전을 전개하였다. 무장의용군 350명과 산악지대의 무장의용군 550명, 비무장 의용군 3천명으로 게릴라 작전이 수행되었다. 한편 초도와 백령도로 이동시켰던 청년의용군을 훈련시켜 황해도 각 해안에 재상륙을 감행하여 북한군의 활동을 더욱 곤란하게 하였으며 양민구출과 양곡반출 작업을 계속하였다.

<상황도 7-1> 황해도 피난민 철수작전(1951. 1. 5~1. 3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당시 피난민 구출의 긴박한 사태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는데 1951년 1월 초 PC 703함은 진남포 외해의 초도 부근에서 발동선 몇 척과 JMS를 지휘하며 해안선을 따라 경비에 임했다. 그러던 중 구월산 유격부대의 요청에 따라 함포 지원사격을 하다가 은율 해변가 산등성이에 약 3,000명으로 추산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보였다. 접근해서 살펴보니 그들은 공산치하를 벗어나려는 북한의 피난민들이었다.

마침 그날은 703함이 LST 단양호로부터 보급을 받는 날이었는데 703함장 이성호 해군중령은 보급을 받고 즉시 은율 해변에 있는 피난민들을 LST를 이용하여 초도까지 이송할 것을 해군본부에 보고했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실시간으로 지휘부와 교신할 수 없었다. 전보를 암호로

조립해 모르스 부호로 송신한 후 다시 모르스 부호로 회신을 받아 해독해야 했던 관계로 교신에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PC 703함장은 시간이 지나도 해군본부로부터 아무런 회신이 없자 초조한 나머지 현장선임장교로서 LST함장에게 해안에 접근해서 피난민들을 모두 싣고 초도로 옮길 것을 명령했다.

LST함장은 해군본부의 지시없이 행동할 수 없다고 명령을 거부했으나 이성호 중령은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발포하겠다고 위협했다. LST는 그때서야 해안에 배를 접안했다.

LST가 두 번째로 피난민을 실어 나를 때, 부산에 있는 해군본부에서는 난리가 났다. 이성호 함장을 군법회의에 회부할 터이니 703함은 즉시 부산으로 귀항하라는 것이었다.

PC 703함이 부산이 입항해 보니 해군본부의 분위기가 냉랭했다. 이용운(李龍雲) 작전국장이 이성호 함장에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묻자 이성호는 본부에 건의했지만 회신이 없어 인도적인 차원에서 피난민들을 구출했고 군사적 차원에서도 피난민들을 남겨 두면 그들이 북한군으로 전환되어 아군과 맞설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취한 행동임을 역설했다.

그 당시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을 피난시켜 놓고 숙식을 해결해 주려다 보니 해군본부로서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해군본부에서 이성호에게 즉시 회신을 못한 것은 피난민들을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703함장이 해군본부의 지시도 받지 않고 임의로 행동한 것에 해군본부 수뇌부가 격노해 함장을 군법회의에 회부하고자 한 것이다.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다. 미 고문관들은 이성호 중령의 행동을 적극 옹호했다. 군법회의에서는 이러한 일은 전쟁 중에 흔히 일어나는 일로 현장선임장교의 건전한 판단이 작전에서 중요하다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져 이성호는 다행히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처럼 해군본부로서는 황해도에서 철수한 피난민의 수가 급증한다는 사실로 인해 이들의 관리와 구호가 또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그리하여 1월 18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해군본부에서 보다 적극적인 작전을 수행한다는 의도 아래 백령도 주둔부대를 창설하여 부대장에 이희정(李熙晶) 해군중령을 임명하였고, 주둔병력으로 소수의 해병대 병력을 배속하였다. 백령도부대는 수용된 피난민을 보호하는 한편, 애국청년 2만 명에게 군사훈련을 시켜 인근 도서의 방어와 함께 황해도 연안에 재상륙을 감행하여 유격활동 및 정보수집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였다.[38]

이들 청년들 중 특히 민첩하고 담력이 큰 젊은이들을 선발해 제식훈련과 소총사격술, 수류탄 투척술, 통신기 조작법 등 기본적인 훈련을 시키고 음어를 만들어 암기시키는 등의 훈련을 한 후 30~50명 단위의 특공대로 조직하였다. 이들은 동키[39]라는 애칭과 함께 소수병력이지만 연대 칭호를 부여받아 각지에서 활약하였다.

당시 서해안의 인천과 진남포 간의 해상은 아군 함정의 강력한 봉쇄로 인하여 공산군의 도서상륙 기도는 좌절되었고, 어선을 가장하고 야음을 이용하여 기뢰를 부설하려던 공산군의 행동도 여지없이 분쇄되었다.

피난민들은 황해도 남·서 연안의 도서에 분산 수용되었지만, 이들의 구호대책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하였다. 이에 따라 해군본부는 구호양곡과 의약품을 수송하여 백령도 부대장으로 하여금 각 도서에 분배토록 하고 의료진을 보내 순회진료를 하는 등 피민의 구호대책에 최선을 다하였다.[40]

우리 해군함정에 의하여 구출된 피난민은 1951년 1월 말까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6만 2천여 명에 이르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표 7-2> 황해도 도서별 피난민 및 청년장정 수용인원[41]

도 서 명	피 난 민	청 년 장 정
덕적도(德積島)	8,000명	2,003명
백령도(白翎島)	2,961명	2,717명
연평도(延坪島)	15,000명	-
초 도(椒 島)	3,000명	1,005명

도 서 명	피 난 민	청 년 장 정
대연평도(大延坪島)	8,000명	-
소연평도(小延坪島)	3,000명	-
대・소청도(大・小靑島)	1,500명	-
어청도(於靑島)	178명	-
무 도(茂 島)	8,000명	-
기린도(麒麟島)	500명	1,708명
어화도(漁化島)		
순위도(巡威島)		
용호도(龍湖島)		
기 타	4,510명	-
계	54,649명	7,433명
합 계	62,082명	

황해도 지구의 피난민 구출작전은 연중 가장 추운 혹한기에 실시되었는데, 영하 15℃에서 20℃의 추위와 심한 풍랑을 무릅쓰고 진행되었다. 더욱이 해안은 결빙되기까지 해서 함정을 직접 접안시킬 수 없었으므로 현지의 소형 목선을 이용하거나 육지와 함정 사이에 로프를 연결하여 승선시키기도 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충을 겪으면서 진행되었다.

황해도에서 이루어진 철수작전의 특징은 동해안에서 이루어진 흥남철수작전과는 달리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지역에서 피난민의 철수를 위주로 한국해군이 주도한 작전이라는 점이다. 유엔해군은 서해안의 철수작전보다는 대규모 병력이 고립된 흥남철수작전에 전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또한 한국해군의 헌신적인 사명감과 청년의용군의 애국심이 빛을 발휘하기도 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 시기에 아군이 남으로 철수함에 따라 자유를 갈망하는 수많은 피난민들이 고립되어 황해도 서해안에 집결하게 되었으며, 이 가운데 애국청년들은 청년의용군을 조직하여 공산군과 치열한 전투를 계속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해군은 1951년 1월부터 외롭게 항전하는 청년의용군을 지원하는 한편, 한겨울의 악조건 속에서도 피난민 구출작전을 헌신적으로 수행하였으며, 피난민에 대한 구호활동도 적극적으로 벌였다. 그 후 청년의용군들은 군사훈련을 받고 북한 해안에 재상륙하여 유격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우군의 지상군작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국해군의 헌신적인 작전과 구호활동은 자유를 갈망하는 피난민의 염원과 애국청년들의 투지에 호응하는 쾌거라고 하겠으며, 황해도 연안에 대한 유격활동의 원동력이 되었다.

황해도의 피난민 철수작전에 전념했던 해군의 헌신적인 노력은 오늘날 서해 5도가 우리의 땅이 된 원인이기도 하며 북한 영토 턱 밑에 해병대 기지를 두게 된 전략적 가치는 물론이거니와 수많은 북한 주민의 피난 통로가 됐던 자유의 상징으로 영원히 기억될 수 있을 것이다.

(2) JMS-306정의 옹진지구전투

1950년 겨울 중공군의 침략으로 인하여 부득이 아군이 전선을 남으로 이동하게 되자, 공산군은 황해도 일원에 침입하였다. 1950년 12월 20일에 해주를 점령한 공산군은 그 일부를 해안선을 따라 연안(延安) 방면으로 진출시키고, 다른 병력으로 황해도 서부의 은율-장연-송화 등지를 거쳐 마침내 옹진반도와 흥미면 등 황해도 남부의 해안지대로 진출하였다.

황해도 남부의 지역은 서울로 출입하는 관문이었을 뿐만 아니라 산재하는 소수도서는 우리 해군의 확보아래 인근 육지로부터 탈출한 수많은 피난민을 수용하고 있었다. 더욱이 피난 나온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방위대의 게릴라 활동의 근거지가 되고 있었다. 따라서 해안을 점거한 공산군은 그에 그치지 않고 집요하게 도서로 진출하려는 의도를 노출시키고 있었다.

1951년 2월 중순 북한군의 배치상황은 다음과 같았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① 옹진군 동남면 사곶리와 도동리에는 북한군 70명이 중기관총 2정과 경기관총 등으로 무장하고 인근 고지에 포진하고 있었으며, 그들은 바로 마주 보이는 신도에 상륙할 목적으로 주야로 사격을 가하고 있었다.

② 옹진군 동남면의 속칭 솔모루里에는 북한군 50명이 완전무장하고 주둔하고 있었다.

③ 옹진군 홍미면 조천리(속칭 귀내리)에는 북한군 40명이 마을의 도로에 개인호를 구축하고 경비 중이었다.

④ 옹진군 홍미면 안악리에는 완전무장한 북한군 70명이 토치카를 구축하고 중기관총 1정과 박격포 1문으로 주둔 중이었다.

⑤ 옹진군 홍미면 석포리(속칭 돌개리)에는 북한군 15명이 완전무장하고 수시로 순찰 경비 중이었다.

⑥ 옹진군 봉치면 낙동리(속칭 낙말리)에는 북한군 70명이 인근 해안가에 토치카를 구축하고 경비 중이었다.

1951년 2월 20일에는 옹진군 동남면의 사곶리(沙串里)와 도동리(桃洞里)에 주둔한 약 1개 소대 규모의 공산군은 바로 앞바다에 있는 신도(申島)에 침입하려고 연일 사격을 가하고 있었다. 이 섬에는 2,000여 명의 피난민과 주민이 청년방위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었으나 이와 같은 공산군의 행동으로 전전긍긍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였다.

이 해역을 경비하고 있던 JMS-306정(정장 최병기 중위)은 신도 동쪽 0.5마일 지점까지 수로를 따라 깊숙이 진입하여 사곶리와 도동리의 적진에 함포사격을 실시하였으며, 22일에도 새벽 2시 50분부터 3시 30분까지 다시 함포사격을 실시하여 마침내 공산군의 신도에 대한 상륙기도를 분쇄하였다.

한편 홍미면 일대의 공산군은 주민들로부터 양곡을 수탈하는 등의 횡포가 막심하여 거의 30,000명에 달하는 피난민과 주민의 생활문제가 심각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군이 확보하고 있는 용호도(龍湖島)와 순위도(巡威島) 등 여러 섬과는 대치하는 위치에 있어 우리 해군함정의 행동에도 커다란 지장을 주고 있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JMS-306정은 2월 23일 아침, 용호도 근해에서 홍미면에 용호도 청년 의용대를 상륙시켜 공산군을 섬멸하는 동시에 주민들을 구출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였다. 용호도의 청년의용대 대장과의 협의 후 2월 24일 02시에 A부대 67명은 범선 3척에 편승하여 306정 엄호사격 하에 상륙을 단행하여 북위 37도 40분, 동경 125도 30분 지점을 확보하였고, B부대 120명은 01시 30분부터 북위 37도 45분, 동경 125도 20분 30초 지점에 상륙하여 소탕작전을 전개하였다.

2차에 걸쳐 청년의용대를 상륙시키고 306정은 07시부터 한 시간에 걸쳐 홍미면 서남부의 구월봉(九月峰)과 구월포(九月浦) 일대에 함포사격을 실시함으로써 상륙부대를 지원하였으며, 그 뒤에는 공산군이 홍미면에 가세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10시 35분에 관각산(冠角山)-낙동리(樂洞里) 등에 함포사격을 집중하였다.

이때 북한군 제23보병여단장 이하 20여 명의 소재를 발견한 A부대는 즉시 306정에 연락하여 함포사격을 함으로써 북한군 일행을 전원 사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동시에 북한군 여단장이 소지하고 있던 병력배치도, 토치카 구축도, 병력장비표, 통신암호서류 등 기밀문서를 노획하였다.

북한군은 여단장 일행이 섬멸되자 주력부대의 대대적인 공격이 A부대를 향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2월 25일, 06시에 306정은 유엔공군에 연락하여 A부대에 대한 공중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상륙부대는 철수하도록 명령하였다. 14시 30분에 이르러 새로이 탄약의 보급을 받기 위해 PF-62함(함장 이재송 해군중령)에 계류하여 40mm 포탄 320발을 수령한 다음 15시 07분에 북한군이 집결하고 있는 덕곡산(德谷山) 기슭의 송산리(松山里)에 함포사격을 가하여 철수하는 A부대를 엄호하였다.

B부대는 2월 26일 19시 30분에 철수하는 도중 안악리(安樂里) 부근에서 공산군과 교전을 벌이고 있었으나 인근 안악리-석포리(石浦里)-율목리(栗木里) 등의 공산군이 지원할 기세였으므로 306정은 20시에서 다음 날 08시 45분 사이에 적진에 함포사격을 집중하여 B부대의 철수를 엄호하였고, B부대는 철수하면서 공산군에게 구금되어 있던 부락민 96명을 구출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제2차 인천상륙작전

(1) YMS-510(강남)정의 인천기습상륙작전

북한군과 중공군은 1951년 1월 5일 각 1개 대대, 합계 700명의 병력으로 인천시를 점령하였다. 그들은 월미도에 82mm 야포 8문과 그 밖에 박격포, 중기관총 등으로 견고한 포대를 구축하였으며, 전차 1대까지 배치하였다. 또한 인천시 중앙 기상대가 있는 220고지에 포대 2개를 구축하였고, 해안선 일대에는 다수의 지뢰를 매설하였으며, 고지와 해안지대 사이는 참호로 연결하고 있었다. 그리고 공산군의 연대본부는 부평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대대본부와 지휘소는 아군의 함포사격을 피해 수시로 이동하는 상태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YMS-510정(정장 함덕창 해군대위)은 1951년 1월 초, 한국군과 유엔군이 서울과 인천에서 철수한 직후부터 인천 앞 해역의 봉쇄경비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1월 11일에 공산군이 장악하고 있는 인천항에 돌입하여 피난민 500여명을 구출하여 덕적도(德積島)에 수송하였으며, 그 뒤 25일에는 또다시 인천항 안으로 돌입하여 인천기계제작소 일대에 함포사격을 가하였다. 또한 인근 도서를 왕래하는 공산군의 범선 10척도 격침한 바 있었다.

이 무렵 서해에서 활동하고 있던 유엔해군은 아군이 후퇴한 이후 경인지구의 적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510정의 용맹스러운 활동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제95기동부대사령관 스미스(A. E. Smith) 제독은 510정장인 함덕창(咸德昌) 해군대위에게 인천지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수집을 요청하였다. 이에 함덕창 대위는 인천에 특공대를 상륙시켜 공산군을 생포하자는 제의를 하여 합의를 하였다.

YMS-510정은 1월 27일 미군 함정으로부터 40mm 포탄 1,000발과 20mm 포탄 2,000발의 보급을 받아 단독으로 06시 58분~07시 36분 간의 만조 때를 이용하여 인천항 안으로 침투하여 들어갔다. 상륙예정지인 인천기계제작소 앞에 이르자 510정의 모든 포문이 터졌으며, 구명보트를 이용하여 특공대 상륙을 감행하였다.

이 지역의 공산군은 약 1개 소대 병력으로 교통호를 구축하고 경비를 하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있었다. 특공대가 상륙하자 공산군은 치열한 사격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피아간에 불뿜는 사격전을 전개하던 끝에 특공대들은 일제히 수류탄을 던지며 참호 속으로 돌진했다.

계속된 함포사격과 특공대의 육탄공격에 압도당한 공산군은 도주하기 시작하였으며, 공산군을 추격한 특공대는 47명을 사살하고, 북한군 1명과 중공군 1명을 생포하고 즉시 귀함하였다.

이와 같이 YMS-510정의 1월 25일, 27일 2차에 걸친 활약에 대하여 스미스 제독으로부터 “Well done to R.O.K YMS-510”이라는 표창 전보가 전달되었다.

이 작전은 비록 소규모의 기습작전에 지나지 않았으나 본격적으로 수행된 제2차 인천 상륙작전에 앞서 적정을 탐색하는 전초전으로서 의의가 컸다.

이 전투에 참가한 특공대의 명단은 조타 삼등병조 김기환(金琪丸), 신호 일등수병 고만길(高萬吉), 통신 일등수병 이구화(李九華), 갑판 일등수병 김용수(金容洙), 갑판 일등수병 김용택(金容澤)이었다.

⑵ 제2차 인천상륙작전

국군과 유엔군이 남쪽으로 철수한 이후 한국함대는 PC-701함(함장 노명호 해군소령)을 기함으로 YMS-510정(정장 함덕창 해군대위), JMS-301정(정장 박기정 해군대위), JMS-302정(정장 홍원표 해군대위), JMS-306정(정장 최병기 해군중위), JMS-310정(정장 모예진 해군대위) 등이 인천 외항과 강화도 해역을 봉쇄하면서 경계임무를 실시하고 있었다.

당시 유엔 함대의 미국 순양함 CA-75 헬레나(Helena)함과 구축함 행크(Hank)함, 그리고 영국 순양함 벨파스트(Belfast)함 등 제95.1.4기동분대가 인천 외항에서 수시로 인천 시내에 함포사격을 집중하고 있었는데 이 당시 지상군은 수원에서 영등포를 공격 중이었다.

PC-701함은 2월 1일 서해지구의 제95.1.4기동분대와 연합작전을 수행하라는 작전명령을 받고 06시에 부산을 출항하여, 2월 2일 10시 50분에는 덕적도 앞바다에 도착하였다. 2월 3일 11시 50분에 적정을 파악하기 위해 공산군이 장악하고 있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인천항 안으로 돌입하여 월미도 전방 1,000m 지점에서 공산군의 포대와 초소에 포격을 실시하였다. 이 작전에서 공산군의 응사로 말미암아 701함의 주포장 최석린(崔石麟) 병조장이 대퇴부를 관통하는 중상을 입었으며 조타사 임인정(林仁正) 수병이 경상을 입었으나 중상자는 곧 미 순양함 헬레나(Helena)함에서 치료받도록 수송되었다.

PC 701함은 월미도에서 돌아오던 중에 김종기(金鍾淇) 해군소령이 주둔부대장으로 있던 덕적도에 들렀다. 김종기 소령은 1개 중대의 해병대를 거느리고 주변의 도서확보와 육지의 정보수집활동을 수행하고 있었다. 수집된 정보에 의하면 육상의 공산군은 아군의 반격으로 서울로 후퇴 중이며 시내의 공산군은 크게 동요를 일으키고 있음이 판명되었다. 701함장 노명호 소령과 덕적도 주둔부대장 김종기 소령은 덕적도 주둔 해병대 병력을 인천에 기습상륙을 계획하기로 협의하였다.

미 순양함 헬레나함에서 2월 8일 두 사람은 인천의 적정을 설명하고 상륙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였다. 즉, 덕적도 주둔 해병대는 2월 10일 18시를 기하여 인천기계제작소에 상륙할 것. 유엔 함정은 상륙부대의 엄호사격과 항공지원을 할 것. 한국해군 함정은 상륙부대의 수송과 엄호를 담당하는 동시에 상륙부대는 상륙 후 공산군의 위치를 정확히 연락하여 해상의 함정으로 하여금 공산군의 주력을 분쇄토록 할 것을 결정하였다.

JMS-310정이 2월 10일 상륙부대인 덕적도 주둔 해병대를 수송하기 위하여 10시 10분 덕적도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이 섬에 분산 주둔중인 해병대를 소집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조수 문제까지 있어 약속한 16시까지 팔미도(八尾島)로 병력을 수송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701함장과 덕적도 주둔부대장은 긴급조치로 각 함정에서 지원자 70명[42]을 선발하여 김종기 소령의 지휘 아래 상륙부대를 편성하고, 310정은 그대로 해병대의 승조를 완료한 후 인천으로 회항토록 지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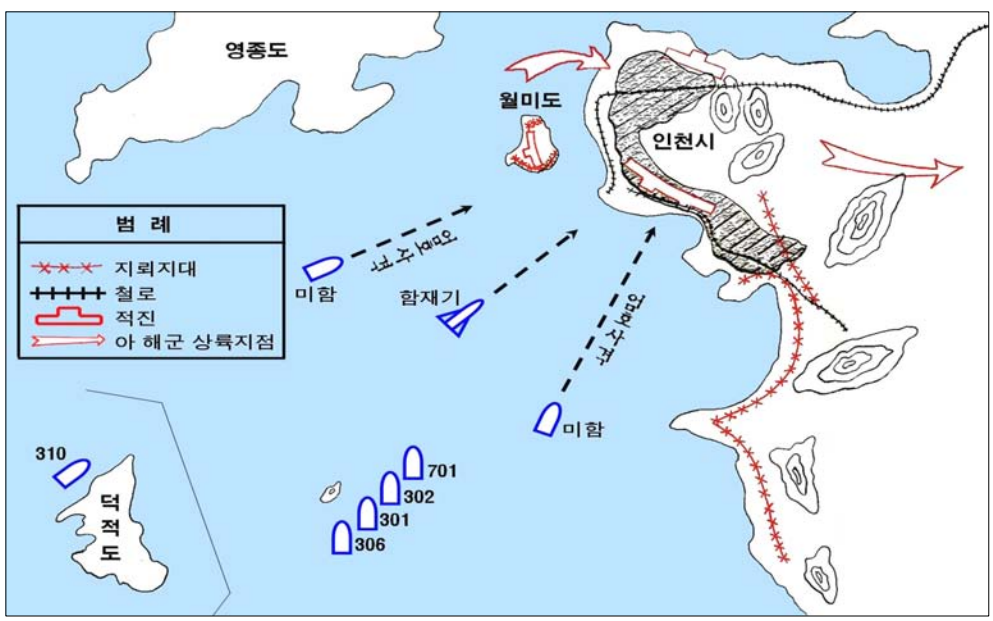
특공대원 70명은 302정 및 발동선 2척에 편승시켜 16시 30분에 701함, 301정, 302정, 306정과 더불어 팔미도를 출발하여 상륙지점인 인천기계제작소 전방 암벽으로 향했다. 18시에는 전날의 계획대로 유엔함정으로부터의 지원사격이 시작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되었고, 동시에 302정과 발동선 2척에 분승한 상륙부대는 인천기계제작소 앞에 접안하여 상륙에 성공하였다.[43]

마침내 특공대의 진격은 개시되었다. 각 대원은 마치 대부대가 상륙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각기 '대대 앞으로' '중대 앞으로' 등의 구령을 고함지르며 돌격해 나갔다. 21시에 부대장 김종기 소령은 도망치는 공산군을 쫓아 기상대 고지에 도착하였는데 도중에 체포한 공산군을 심문한 결과 공산군은 우리 대부대가 상륙한 것으로 착각하고 이미 퇴각하였다는 것이었다.

<상황도 7-2> 제2차 인천상륙작전



차츰 각 대원이 집결하기 시작했고 공산군의 사기를 꺾고 아군의 사기를 드높이기 위해 각지에 불을 피우고 만세소리와 군가소리가 퍼지게 했다. 마침내 전원이 집결하였으며 부대장 김종기 소령은 발광신호로서 '21시 기습상륙부대는 기상대 고지를 점령함'이라는 신호를 기함에게 보냈다. 23시에는 다시 1개 분대를 시청에 파견하여 이를 점령하게 하여 이곳에 부대본부를 설치하였다.

JMS-310정이 2월 11일 07시에는 덕적도에서 해병대 주력부대를 편승시키고, 인천에 도착하여 특공대와 함께 인천시내의 잔적을 완전소탕하고 드디어 인천시를 장악하게 됨에 따라 덕적도 주둔부대는 인천으로 이전한 후 인천시 및 부근의 치안과 경비에 임하게 되었다.

당시 유엔군은 중공군이 후방지역 상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려하였다. 이에 제95기동부대사령관 스미스 제독은 상륙기동부대와 고속항모의 지원을 받아 1월 30일에는 고성에서 상륙기만작전을 시도하였고, 2월 10일에도 인천에서 기만작전을 시도하였으나 한국해군이 인천탈환에 먼저 성공하면서 취소하게 되었다.

한국해군은 1951년 2월 10일 제2차 인천상륙작전에서 소규모 상륙부대로 작전을 수행하여 인천시를 탈환하는 의외의 전과를 거두었다. 원래의 계획은 덕적도 주둔 해병대로 상륙작전을 실시하려고 하였던 것이나, 해병대 수송의 차질로 인하여 함정 승조원에서 상륙반을 선발하여 작전을 감행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 작전은 상륙돌격이라기 보다는 특공대에 의한 상륙기습작전의 성격으로 수행되었는데, 의외로 공산군이 아군의 대부대 상륙작전으로 오인하여 패주하였기 때문에 특공대는 인천시를 점령 탈취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한국해군과 유엔해군의 맹렬한 함포사격과 아울러 수행된 상륙작전이 공산군으로 하여금 지난 해 9월에 감행되었던 인천상륙작전의 공포가 되살아나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인천의 재탈환은 군수지원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었다. 인천철수 후 지난 1개월 동안 부산 한 곳에서 지상군의 군수지원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너무 많았다. 불행히도 제2항구로 적당한 곳이 즉각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인천의 재탈환은 큰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인천항의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작전이 필연적으로 제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난번 철수 시 파괴되었던 항만시설이 복구되어야만 했다. 때문에 철수작전 시 항만시설을 무조건 파괴하는 전략이 반드시 옳은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몇 번에 걸친 항만 재탈환을 통해 철수작전 수행 시에 이른바 '폭파하고 간다(blow and go)' 방식의 철수항 시설 파괴 전략이 과연 현명한 행동인지 미 해군의 고민이 시작됐다.

우선 인천이 우군의 수중에 들어오자 인천의 항만시설을 복구하기 위하여 미 육군의 제2특수공병여단이 일본에서 상륙기동전대 함정 편으로 2월 15일 인천에 도착하였다.[44]

3) 전략도서 확보작전

(1) 참가함정 및 주요 지휘관

여도상륙작전 지휘관은 유해거 중령(LST-801함장 겸임)이었으며, 참가함정 지휘관으로 YMS-505정장 강기헌 중위, YMS-507정장 백인기 중위, YMS-501정장 함덕창 대위, YMS-512정장 박세충 중위, YMS-513정장 채재석 중위였고, 제5삼랑진호 선장은 정원출이었다. 미 해군은 제112 구축함전단장 로더 대령, 린드 함장 칼슨 중령, 오즈번 함장 아커스 중령, 제3소해전단장 윌리암스 대령이었다.

한 측	미 측
여도상륙작전 지휘관 중령 유해거(柳海巨)	제112구축함전단장 대령 B. F. Roeder
LST-801함장 중령 유해거(柳海巨)	Wallace L. Lind 함장 중령 E. B. Carlson
YMS-505정장 중위 강기헌(姜基憲)	Ozbourn 함장 중령 C. D. Akers
YMS-507정장 중위 백인기(白麟基)	제3소해전단장 대령 R. C. Williams
YMS-501정장 대위 함덕창(咸德昌)	
YMS-512정장 중위 박세충(朴世忠)	
YMS-513정장 중위 채재석(蔡在錫)	
제5삼랑진호 선장 정원출(鄭元出)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동해도서 확보작전

한국해군에 의해 인천이 재탈환되기 직전인 1951년 1월 하순부터 국군과 유엔군은 오산(烏山)-장호원(長湖源)-제천(堤川)-영월(寧越)-삼척(三陟)을 연결하는 선에서 전선을 안정시키고 반격으로 전환하여 다시 북진을 개시하였다. 미 제8군 사령관 리지웨이(M. B. Ridgway) 장군은 전선을 평행전진시켜 원주와 강릉 간의 도로를 장악하기 위한 킬러(Killer)작전을 계획하였다. 이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제95기동부대장 스미스(A. E. Smith) 제독은 38선 북방 전략도서 확보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45] 당시까지도 앞으로의 전선이 현재의 휴전선 부근에서 교착될 것이라는 예상은 할 수 없었다.

영흥만에 위치한 공산군의 배후도서에 대한 상륙작전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원산항의 해상봉쇄를 위한 방법으로서 공산군으로 하여금 원산의 방어를 위하여 병력의 분산을 강요하고, 이 해역에 대한 공산군의 기뢰부설을 방지하여 아군의 해군작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었다. 또한 동해안 교통의 요충지인 원산항을 봉쇄하고 해안에 인접한 공산군의 육상 병참선을 차단하는데 있었다. 그리고 아군의 정보 수집과 유격활동의 근거지를 마련하고, 이 지역에 출격하는 우군 항공기나 조종사의 탐색 및 구조작전을 위한 거점을 확보하는 데 있었다. 이러한 영흥만 도서에 대한 상륙작전은 1951년 2월 16일부터 시작된 미 해군의 원산항 봉쇄작전과 관련되어 있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그러나 영흥만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데에는 많은 위험이 따르고 있었다. 즉, 영흥만은 삼면이 육지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공산군으로부터 맹렬한 포격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아군이 소해작전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기뢰가 남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산군은 그 동안에 이미 소해를 완료한 구역까지 기뢰를 새로 부설하였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리고 영흥만에 산재한 도서와 암초 그리고 모래섬 등은 함정의 행동에 제한이 되고 있었다.[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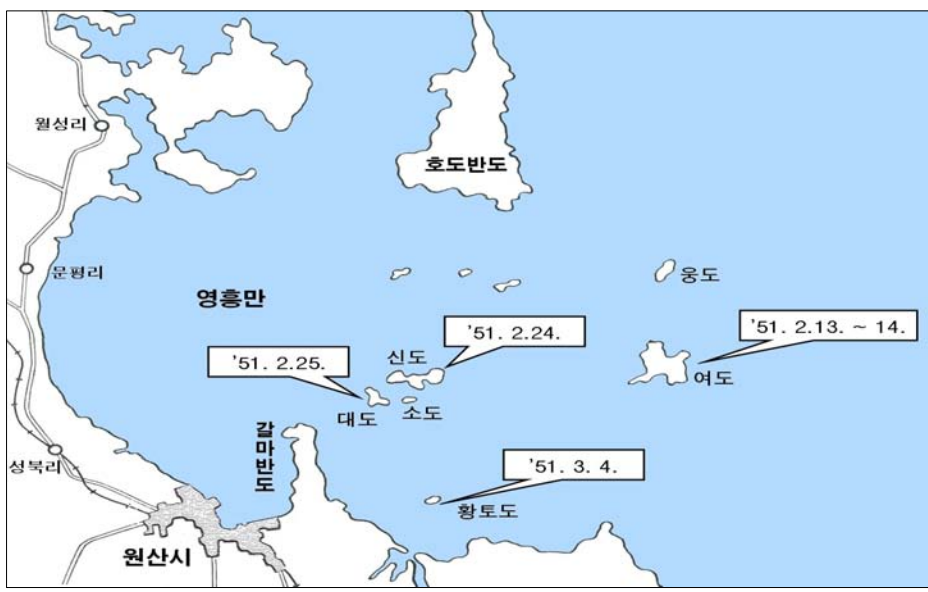
가. 여도 상륙작전

해군본부는 1951년 2월 6일 LST-801함장(유해거 해군중령)을 영흥만의 여도

(麗島) 상륙작전의 지휘관으로 임명하였다. 여도는 영흥만에 있는 도서 가운데 가장 크고, 또한 영흥만의 입구에 있으므로 그보다 안쪽의 도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점령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LST 801함은 2월 7일 오후에 진해에서 해병대 독립 제42중대(중대장 심희택 해병소위)를 탑재하고 묵호를 향해 출항하여 2월 9일 묵호에 입항하였고, 2월 10일 YMS-505정(정장 강기헌 해군중위)과 합류하였다. 묵호사령관으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여도는 1월 16일 경 북한군 87명이 범선에 분승하여 상륙을 기도하였으나 애국청년 300명에게 전멸된 사실이 있다고 한다.[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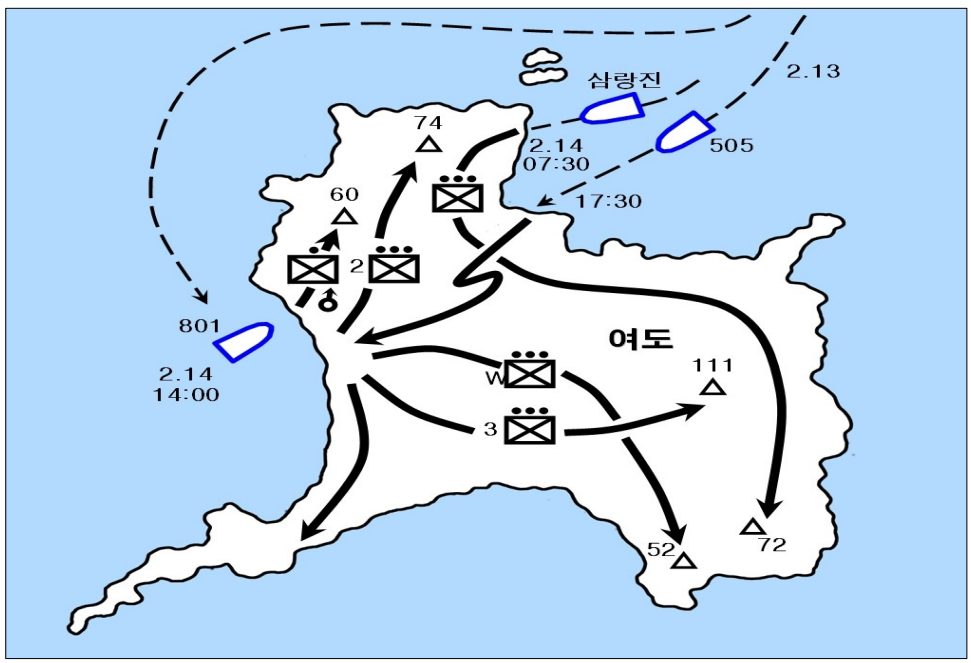
<상황도 7-3> 영흥만 도서 확보작전



미 소해함 DMS-35 엔디컷(Endicott)과 LST 1척 그리고 소해정 7척이 2월 11일 입항하였으며, 이 날 801함장은 미 해군과 회의를 갖고 여도 상륙작전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그 결과 미 소해함정은 11일 야간에 여도에 도착하여 소해작전을 실시하고, 801함은 13일 10시 여도 근해에서 미 소해함정과 상봉하여 작전지역까지 수로로 안내하기로 합의하였다.

LST 801함은 2월 12일, 작전협의에 따라 YMS-505정과 삼랑진호[48]를 지휘하여 묵호를 출항하였고, 미 소해전대는 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여도 근해에 대한 소해작전을 실시하였다. 2월 13일 10시 30분에 여도 근해에 도착한 801함은 엔디컷함과 상봉하였고, 미군 지휘관이 LST 801함에 내함하여 여도 상륙에 대한 시일을 결정한 후 헬리콥터의 비행정찰로 얻은 정보를 주었다. 정보에 따르면 아직 공산군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주민들은 정찰기를 향하여 태극기를 흔들고 환영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상황도 7-4> 여도 상륙작전



같은 날 유해거 중령은 LST 801함에서 YMS 505정으로 승선하여 삼랑진호를 지휘하여 직접 여도의 정보를 수색하였다. YMS 505정이 17시에 삼랑진호와 함께 여도에 도착한 후, 이 섬의 고지에 위협사격을 가해 보았으나, 아무런 저항도 없었으므로 삼랑진호에 탑승해 있던 해병대 수색대 13명을 은밀히 상륙시켜 탐색케

하였다. 수색대가 적정을 탐문한 결과 묵호사령관으로부터 얻은 정보와 같이 북한군 1개 중대가 1월 16일 상륙을 기도하였다가 애국청년 300명에게 전멸을 당했으며, 애국청년들은 범선을 이용하여 남한으로 피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 후 여러 차례 10명 정도의 공산군이 이 섬에 왔었으나 주둔하지는 않았으며, 당시는 주민 200여 명과 피난민 2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었으나 극심한 식량난에 봉착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상륙작전은 2월 14일 07시 30분부터 개시되었다. 801함에 승조하고 있던 해병대 제1소대와 수색분대가 삼랑진호에 옮겨 타고 801함, 505정 및 미 구축함의 함포지원을 받으며 10시 30분에 이 섬 동쪽 해안에 상륙하였다. 801함은 섬을 돌아 12시 30분에 이 섬 서쪽 해안에 해병대 제2 및 제3소대를 상륙시켰다. 상륙한 제2 및 제3소대가 순조롭게 진격을 계속하고 탄약을 비롯한 보급품을 전부 양륙함으로써 제42중대는 이 날 19시에 공산군의 저항이 없는 가운데 이 섬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섬에는 발진티프스 환자들이 다수 발생하였기에 즉시 주민들에게 예방주사 등의 의료지원을 하였다.

아군의 여도상륙 후 미 순양함 3척은 2월 18일 원산지구에 대하여 함포사격을 가하였고 함재기는 원산시 고지에 대하여 파상공격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여도부근의 신도(薪島)와 갈마반도(葛麻半島) 고지에 있는 공산군은 아군 측에 대하여 간헐적으로 포격을 계속했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나. 기타 도서 상륙작전

영흥만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도의 점령에 성공하자 이 섬을 중심으로 소해작전을 비롯하여 함포사격과 항공지원 등 제반 해군작전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보다 본격적인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영흥만 안 쪽의 다른 도서를 점령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이리하여 한국 해군은 제95기동부대장 스미스(A. E. Smith 해군소장) 제독과 협의하여 함재기와 순양함의 엄호 아래 신도, 소도(小島), 대도(大島) 및 황토도

(黃土島) 등 도서에 대한 상륙작전을 차례로 실시하여 점령 확보키로 하였다.

신도는 여도 서쪽에 위치하여 원산과는 보다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공산군의 비행장이 있는 갈마반도로부터 4,000야드 떨어져 있어 함포사격을 위한 관측장소로서 좋은 위치일 뿐만 아니라 원산 시내의 적정을 살피는 것도 유리한 곳이었다. 이 섬의 동·남·북 해안은 전부 암석이며, 서해안은 모래 해안이 되어 촌락이 있고 작은 선박의 출입이 가능하였다.

정보에 의하면 공산군은 이 섬의 동쪽 해안에 75mm 포 3문으로 진지를 구축하고 남쪽 해안에 지휘소를 두고 있었다. 이에 아군은 상륙부대를 양분하여 이 섬의 남동해안과 남쪽 해안에 상륙을 실시하기로 하고 미 해군은 함포지원을 담당토록 계획하였다.

미 해군은 2월 24일 07시 신도 상륙작전에 앞서 제112구축함전단(사령관 B. F. Roeder 해군대령)에 속하는 2척의 구축함 DD-703 왈리스 L. 린드(Wallace L. Lind 함장 E. B. Carlson)함과 오즈본(Ozbourn 함장 C. O. Akers 해군대령)함은 약 2시간에 걸쳐 5인치 포 358발, 3인치 포 259발의 집중포격을 가한 결과 공산군은 거의 전멸하였다.

함포사격이 시작된 후 07시 30분 801함에 승조한 해병대 제1 및 2소대와 중화기분대는 제1차 상륙부대로서 중대장 심희택 소위의 지휘로 513정(정장 채재석 해군중위)의 지원을 받아 신도 동남해안에 상륙을 감행하였다. 그리고 10시에는 제3 및 4소대와 중화기소대로 편성된 제2차 상륙부대가 남쪽 해안에 상륙하였다.

상륙에 성공한 각 소대는 진격을 계속하여 13시 40분에는 이 섬 전체를 완전히 장악함으로써 신도 상륙작전을 성공리에 마쳤다.

신도를 점령한 후 중대장 심희택 소위는 2개 소대를 이끌고, 2월 24일 16시에 신도 남쪽에 있는 소도에 상륙을 실시하였다. 1개 소대는 마을을 향하고 1개 소대는 고지를 점령하여 저녁 8시에는 섬 전체를 완전히 장악하였다.

소도를 점령한 상륙부대는 2월 25일 08시에 인접한 대도의 남동부에 1차 상륙을 실시하였다. 이 때 갈마반도에 있는 공산군 포대로부터 맹렬한 사격이 있었으나, 아군 함정에서 즉각 반격을 가하여 이를 무력화시켰다. 뒤이어 10시 10분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차로 북동부에 상륙하는데 성공하여 대도를 완전히 장악하였다.

여도를 비롯하여 영흥만의 각 도서를 점령 확보한 한국해군은 마지막으로 황토도에 대한 상륙작전을 실시하였다. 황토도는 공산군 진지에서 불과 3,000야드 거리에 있는 황량한 바위섬이나, 원산시와 공산군의 포진지로부터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원산시는 물론 비행장과 공산군의 주요 보급로인 안변(安邊)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육안으로 관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섬의 확보는 작전상 극히 중요하였다.

해군은 2월 20일 먼저 수색대를 파견하여 섬주민 2명을 연행하여 조사한 결과 현재 공산군은 주둔하고 있지 않으나 상륙을 시도할 경우 육지의 공산군 진지로부터 치열한 사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상륙작전은 3월 1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기상상태 악화되어 작전이 3일간 연기되었다. 3월 2일에 영흥만에서 경비를 하고 있던 507, 512 및 513정은 갈마반도로부터 공산군의 포격을 받고 즉각 응전하여 30분간 교전을 벌였다.

상륙부대는 3월 4일 14시 30분에 미 구축함의 지원사격을 받으며 황토도 서쪽 해안에 상륙하여 진격을 개시하자 원산 방면의 공산군이 포격을 가해 왔다. 그러자 해상의 아군 함정들도 함포사격을 집중하여 적의 포격을 제압하였으며, 상륙부대는 진격을 계속하여 16시 30분에 이 섬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영흥만 도서 확보작전은 한국 해군의 801함을 비롯하여 505, 507, 512, 513정 및 삼랑진호 등 함정과 미 순양함 및 구축함 3척, LST 1척 그리고 소해함정의 지원 아래 한국 해병대 독립 제42중대에 의하여 무난히 수행되었던 것이다. 이 작전에서 공산군의 연안 방어용 75mm 포 4문을 노획한 것은 특기할 만한 전과라고 보겠다.

이와 같이 영흥만 일대의 도서를 아군이 점령 확보함으로써 공산군에 대한 아군의 해군작전이 극히 유리하게 되었다. 영흥만에서 작전을 마친 801함은 각 도서의 주민 264명을 부산으로 수송하였다.[49]

다. YMS-514정의 통천지구 기습전

원산시 봉쇄작전 임무를 수행 중이던 한국해군 YMS-514정(정장 현시연 해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대위)은 3월 15일 유엔해군의 요청으로 갈마반도의 공산군 해안포 사정권 내 깊숙이 침투하여 13시와 16시 10분 2차에 걸쳐 공산군과 치열한 포격전을 전개했으며, 20일 13시 40분에는 호도반도(虎島半島) 근처에 추락한 유엔항공기 조종사를 구출하는 등 활약을 하였다.

YMS-514정은 3월 21일 기함인 미 구축함 DD-696 잉글리시(English)함으로부터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정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유엔정보원과 접촉하여 지원과 연락을 취하라는 특수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날 YMS 514정은 18시 북위 39도 16분, 동경 124도 44분 24초 지점에서 미 구축함 DD-777 젤러스함과 상봉하여 미 정보장교 2명과 한국 육군정보장교 1명, 그리고 현지 정보원에게 지급할 자재와 보급물자를 적재한 다음 20시 40분에 목적지를 향해 출항하였다.

목적지인 강원도 통천지구에 이르는 해안선일대는 공산군이 점거하고 있어서 514정은 동해를 우회하여 항해하여, 3월 22일 01시 35분에 목적지인 통천군 칠보리(七寶里) 앞바다에 도착하여 투묘하였다. 그리고 이미 도착하여 육지에 대기하던 정보원에게 무기와 식량 및 기타 자재를 고무보트로 공급한 다음 그들이 수집한 정보를 입수하였다.

칠보리에서 약 1.5마일 남쪽인 패천(沛川) 남쪽 고지 중턱에 북한군 약 270명이 대규모 병사(兵舍)를 짓고 주둔 중이며, 포 3문도 설치해 놓았다는 정보가 있었다. 그리고 공산군은 앞바다에 기뢰를 부설하였는데 그 후로는 방심한 나머지 아군의 해상공격을 예상하지 못하고 취침 중이라는 것이었다.

YMS 514정은 정보에 따라 공산군을 기습섬멸하기로 결정하고 즉시 패천 남쪽 입구 1km 앞까지 과감히 접근하여 때마침 떠오른 보름달의 빛이 공산군 병사(兵舍)를 명확히 비추어 식별할 수 있었다.

YMS 514정은 04시 47분을 기하여 전 포문으로 일제사격을 가하였고 공산군 병사(兵舍)는 일순간에 연소되었다. 불기둥이 솟아올라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새벽 5시 3분에 이르러 목표를 공산군의 포대가 가설된 고지로 옮겨 포탄 세례를 퍼부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기습은 성공하였으며 당시 적진 후방에서 관측하던 정보원에 의하면 공산군의 병력은 거의 섬멸되었고 포대도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하였다. 이 기습전에 514정은 40mm 포탄 208발, 20mm 포탄 550발, 중기관총탄 575발을 소비하였다. 이들은 공산군의 완전붕괴를 확인한 후 07시 20분에 복귀하여 젤러스(Zellars)함 우현에 계류하여 승조하였던 정보장교들을 내려놓고 다시 원산 봉쇄임무에 돌아갔다.

(3) 서해도서(교동도, 백령도, 석도) 확보작전

국군과 유엔군은 1951년 3월 하순에 반격을 전개하여 서부전선에서는 국군 제1사단이 임진강까지 진출하고 있었다. 이 때 서해안의 여러 도서는 아직 공산군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곳에는 해군이 북한 지역에서 구출한 청년의용군으로 편성된 유격대와 이를 통제하는 육·해군의 기관이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서해안 일대의 도서는 방어태세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고 전세가 유동적이었기 때문에, 이들 도서를 아군이 해군작전의 거점으로 확고히 점령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듯 한국해군은 유동적이었던 서해안의 주요 도서를 확고히 점령함으로써 아군의 해군작전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 내륙에서 활약하는 청년의용군의 유격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도서를 거점으로 공산군의 후방을 교란하고 공산군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해군이 서해안의 각 도서를 점령 확보하는 데에는 동해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목적이 있었으며, 그 효과가 크게 기대되었다. 즉 정보활동의 거점을 확보하고, 조직적인 유격활동을 전개하여 공산군 후방을 교란함으로써 공산군의 능력을 분산시키며, 공산군의 기뢰부설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1951년 3월 28일 서해안의 각 도서를 점령 확보하는 임무를 띤 해병대 독립 제41중대(중대장 이동호 중위)가 LST-801함 편으로 서해를 향해 진해를 출항하였다. 해병대가 상륙하여 점령할 목표 도서는 교동도(喬桐島), 백령도(白翎島) 및 석도(席島) 등이었다.

제41중대는 4월 2일 강화도 서쪽에 인접한 교동도에 도착하여 09시 15분부터

상륙을 개시하였다. 이 섬에는 1950년 12월 이후 황해도에서 피난해 온 애국청년으로 편성된 유격대가 있었는데, 이들은 해군에 의해 조직되어 연백군(延白郡)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마주 보는 해안의 공산군이 언제라도 기습적으로 이 섬을 점령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실제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해병대의 상륙은 시의적절 했던 것이었다.

해병대의 상륙을 알아차린 반대편 해안의 공산군이 4월 3일 03시부터 포격을 가해 왔으므로 아군도 즉각 응사하여 5시간에 걸친 포격전을 전개하였다. 해병 중대는 이 섬의 방위태세를 확립하고 적극적인 대민선무(對民宣撫) 활동을 실시하였다. 즉 해병대는 이 섬의 치안을 확보하는 동시에 피난민의 구호대책을 마련하여 민심을 수습하고 유격대를 재편성하여 작전 지휘 계통을 일원화하였다.

JMS-306정은 해병 중대의 함포지원을 요청받아 4월 5일 공산군의 포대를 공격하였고, 10일에는 연안(延安) 일대에 공산군 약 4,500명이 집결하였다는 첩보에 따라 제5공군의 항공기로 하여금 이들을 폭격하도록 하여 공산군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다. 이와 같이 해병 중대는 교동도를 확보한 다음, 유격대를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공산군의 후방을 교란하는 작전을 계속 전개하였다.

해병 제41중대는 20일간에 걸쳐 교동도의 방어태세를 확립한 다음, 4월 23일 백령도에 상륙하여 이 섬을 방어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백령도는 서해안의 해군작전과 정보활동의 중심지였으나, 그동안 이 섬의 방어는 이 해역에서 작전하고 있는 해군 함정에 의존하고 있었다. 백령도에 상륙한 해병 중대는 피난민 청년 약 300명을 훈련시켜 이 섬의 방어태세를 확립하고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대민선무 활동을 실시하여 민·군 일체의 협조체제를 확고히 갖추었다.

제41중대는 5월 7일에 다시 백령도에서 북상하여 대동강 입구에 위치한 석도에 상륙하였다. 해병 중대는 이 섬의 주요 고지에 방어진지를 구축하는 한편 유격대를 조직하고 훈련시켜 장차 내륙에 대한 기습작전을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었다. 이제 아군은 황해도 서북단에서 불과 3km 거리에 있는 석도를 확보함으로써 황해도 일대에 대한 정보활동의 주요 거점을 마련하였다. 또한 아군은 이 섬을 중심으로 유격활동을 전개하여 공산군의 후방을 교란하고 보급로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차단함으로써 공산군의 병력을 분산시켜 전방의 공산군 능력을 약화시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 이후 황해도 연안 일대에 대한 해군의 작전이 계속되었다. 백령도 주둔부대로부터 파견된 장연, 송화, 은률, 해주의 각 유격대는 2월 초부터 5월 말까지 공산군 사살 약 1,000명, 생포 111명, 기타 다수의 무기를 노획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아군의 피해는 전사자 45명, 부상자 150명이 있었다.[50] 1951년 6월 현재 연백지구 해안에 15,000명의 북한군과 중공군의 혼성부대가 주둔하여 해안선 일대의 경비를 강화하고 있었는데,[51] 이는 해군의 봉쇄작전과 해안포격 그리고 유격활동이 그만큼 공산군으로 하여금 세력을 분산하도록 작용했다는 것이다.

당시 서해안은 전세가 유동적이었고 공산군이 언제라도 이들 도서를 기습적으로 탈취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서해안의 주요 도서에 대한 상륙작전은 아주 시의적절하였다. 그리하여 해군은 이들 도서를 중심으로 공산군의 배후를 교란하고 공산군의 기뢰 부설을 미연에 방지하였다. 또한 해군은 해안지역에 집결한 피난민을 구출하고 유격대를 조직하여 내륙에 대한 조직적인 유격전을 전개함으로써 공산군의 능력을 분산시켰던 것이다.

만약 공산군이 먼저 교동도를 점령하였다면, 공산군은 쉽게 강화도에 침입하고 여기서 김포반도를 거쳐 인천을 위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동도 상륙은 경인지구에 대한 아군의 방어를 강화하였다는 전략적 의의를 가졌다고 보겠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 동·서해안 소해작전

(1) 주요 참가함정 및 지휘관

제1소해정대사령관은 윤영원 중령이었고, 참가함정 지휘관으로 YMS-501정장 이완용 대위, YMS-502정장 강경원 대위, YMS-503정장 장근섭 중위, YMS-506정장 김정호 중위, YMS-507정장 백인기 중위, YMS-512정장 박세충 중위, YMS-515정장 정일찬 대위였다.

구 분	지 휘 관
제1소해정대사령관	중령 윤영원(尹英遠)
YMS-501정장	대위 이완용(李玩鏞)
YMS-502정장	대위 강경원(姜景遠)
YMS-503정장	중위 장근섭(張瑾燮) / '51.4.8까지 중위 김정곤(金正坤) / '51.4.18까지 대위 김주배(金주培)
YMS-506정장	중위 김정호(金楨浩)
YMS-507정장	중위 백인기(白麟基) / '51.3.14까지 중위 신광영(申光永)
YMS-512정장	중위 박세충(朴世忠) / '51.3.12 대위 강수복(姜壽福)
YMS-515정장	대위 정일찬(鄭一燦)

(2) 소해작전 이전 상황

중공군이 1950년 겨울 전쟁에 개입하여 아군은 부득이 하게 38도선 이남으로 전략적인 후퇴를 하게 되었는데, 이 같은 전황은 우리 해군의 기뢰전에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즉, 북한의 전 해안을 다시 차지하게 된 공산군은 반드시 주요 항만과 해안에 또다시 기뢰를 부설할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전투에서 공산군은 해안 봉쇄와 함포사격 그리고 전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상륙작전 등 해군작전에 의하여 막대한 타격을 받았었다. 그래서 공산군이 해상세력의 일방적인 열세를 만회하기 어려운 처지에서 취할 수 있는 대책은 해안포대의 증강배치 또는 보다 많은 기뢰를 부설할 것이라는 것을 아군 지휘부에서는 예상할 수 있었다.

지난 인천, 진남포, 원산 등지에서 부설된 계류기뢰와 동·서 해역의 도처에서 표류하는 기뢰로 말미암아 함정 운용에 커다란 지장을 받았었고, 다수의 함정이 피해를 본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예상되는 공산군의 이 같은 대응조치에 맞서기 위해 우리 해군의 기뢰전의 태세도 지난날에 비교하여 여러모로 발전되어 준비하고 있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첫째는, 소해작전을 전담하기 위하여 한국해군에 제1소해정대가 창설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한 것을 들 수 있다. 1950년 10월 23일 소해정대의 발족 이전에도 우리 해군에는 미국으로부터 이양을 받은 소해정(AMS)과 일본해군에서 접수한 소해정(JMS)이 있기는 하였지만 본래의 임무인 소해작전보다도 주로 연안경비에 전력하고 있었다.

따라서 1950년 가을에 진남포, 인천, 원산 등지에서 유엔군의 작전상 필요에서 소해문제가 대두되었을 때에도 한국해군으로서는 소해작전을 수행할 편제나 장비 그리고 훈련된 승조원을 갖추지 못하여 적극적인 소해작전을 수행하는데 제한이 많았다.

둘째는, 장비와 기술면에서의 질적 향상을 들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당시 한국해군의 소해정이 갖춘 장비나 승조원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은 보잘것이 없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소해정대가 발족한 뒤에는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가 곧 소해장비의 개선과 승조원의 교육훈련이었다.

이 정대는 창설 사흘 뒤인 10월 26일에 소속 함정 중 YMS-501정(정장, 이완용 중위)과 YMS-502정(정장, 강경원 대위) 그리고 YMS-503정(정장, 장근섭 중위)과 YMS-506정(정장, 김정호 중위)을 비롯하여 YMS-507정(정장, 백인기 중위)과 FS-김해호(대한해운공사 소속, 해군 징발선, 선장 姜奉俊) 등을 일본 사세보항에 파견하여 미 해군으로부터 소해장비의 보강과 승조원의 훈련과 교육을 받게 하였다.

다음해인 1951년에 들어서자 제2차로 1월 6일에 YMS-515정(정장, 정일찬 대위)과 YMS-502정(정장, 강경원 대위) 및 YMS-503정(정장, 장근섭 중위) 등을 파견하였으며, 제3차로 4월 25일에 YMS-505정(정장, 姜基憲 중위)과 YMS-510함(정장, 咸德昌 대위) 및 YMS-501정(정장, 蔡在錫 중위)를 또다시 사세보에 파견하여 장비개선과 기술연마를 위해 파견을 하였다.

이밖에도 지난해의 소해작전보다 달라진 양상으로서는 지난해에 있어 해군이 인천, 진남포, 원산 등지에서 소해작전을 실시할 때에는 현재 항만의 형편과 공산군의 기뢰부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 위험성과 시간소모가 많았으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으로는 지난해의 경험을 유효하게 살릴 수 있으며, 또한 지난해의 소해작전이 항시 촉박한 시한을 두고 실시된데 비하여 앞으로는 보다 여유를 갖고 계획적인 소해작전이 가능하였다.

이 기간에 미 해군의 제3소해전단 사령관으로서 참전하여 한국해군의 제1소해정대와 연합작전을 전개한 바 있는 리챠드 윌리엄(Richard C. Williams) 대령은 소해임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52]

"첫째로, 1951년 소해작전의 주목적은 유엔함정이 함포사격이나 공산군의 교통로 차단을 위하여 공산군의 해안선에 보다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었다.

둘째 목적은 전술상의 기만책을 강구하는 것이었다. 아군의 상륙작전이 개시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공산군의 병력과 장비의 분할사용을 강요하여 지상의 전선에서 아군에 대한 공산군의 압력을 감소시키려는 것이었다.

셋째로, 소해정들이 항구 사이에 안전 항로구역을 마련함으로써 유엔함정의 봉쇄작전이나 항공지원 시 효과를 높이며,

넷째로, 한반도 주변을 항해하는 함정과 선박에 대한 공산군의 부유기뢰의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었다."라고 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 소해활동의 개요

한국함대의 제1소해정대 사령관 윤영원 중령은 해군본부로부터 동해안의 38도에서 영일만에 이르는 해안의 기뢰를 소해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자 곧 예하 함정인 YMS-501정(정장, 이완용 대위)과 YMS-506정(정장, 김정호 중위) 그리고 YMS-512정(정장, 박세충 중위)과 FS-나리(裸里)호(해군징발선)의 4척을 거느리고 1951년 1월 3일 12시 30분에 부산항을 출항하여 양양을 향하여 출동하였다.

이 출동은 소해정대가 창설된 이래 처음으로 실시된 대규모의 소해작전으로서 29일간에 걸쳐 부여된 소해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을 뿐 아니라 작전

기간 중에 해당지역에서의 피난민의 후송과 육군의 군수물자 수송에도 협력하여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소해정대는 1951년 1월 4일 11시 20분에 양양 근해(북위 38도 00분 00초, 동경 128도 45분 20초)에 도착하여 투묘하고, 미 해군의 소해함대와 조우하였다. 제1소해정대 사령관 윤영원 중령은 미 소해모함에 직접 방문하고 앞으로 실시할 소해구역 분담을 협의하였다. 그리고 1월 5일 07시 30분에 양묘하여 38도선에서 주문진항 근해까지 소해를 완료하고 17시 30분에 주문진항에 입항하였다.

다음날부터 동 정대는 피난민 후송과 육군 군수물자 수송 임무를 수행하였다. 1월 6일 08시 30분에 주문진항을 출항하여 12시 묵호항에 입항하였고, 14시부터 각 함정은 유류와 청수의 공급을 받아 피난민 수송을 준비하였다. 1월 7일부터 1월 8일 17시까지 육군용 군량미인 백미 228가마니와 포탄 132상자 그리고 피난민 1,500명을 각 함정에 분승시키고 묵호항을 출항하여 22시 죽변항에 도착하여 피난민과 군수물자를 하륙하였다.

YMS-506정과 YMS-512정은 1월 10일 묵호항에서 피난민을 승선하고 외항에 정박중인 스미스(KBM Smith)호에 두 차례에 걸쳐 왕복하여 총 4,000명을 수송하였다. 그리고 다음날인 11일 피난민을 YMS-506함에 450명, YMS-512함에 500명을 각기 편승시켜 묵호항을 출발하여 19시에 죽변항에 하선시켰다.

YMS-506정은 소해정대사령관을 편승하고, 1월 13일 07시 45분 묵호항을 출발하여 예정된 덕산과 임원 간의 소해작전을 완료한 다음 죽변항에 입항하였다. 1월 14일부터 1월 30일까지 죽변, 후포, 축산, 영일만 근해까지 계획된 지정구역에 대하여 소해작전을 완료하였으며, 만 29일간의 소해임무를 완수하고 제1소해정대는 1월 31일 18시 10분에 부산에 도착하였다.

지상의 서부전선에서는 2월부터 아군의 반격작전이 시작되어 완강히 저항하는 공산군을 공격하여 북상을 계속하고 있을 때 지상군보다 앞서 한국 해군의 PC-701함(함장, 盧明鎬 소령) 등 해군함정에서 선발된 특공대가 2월 10일 인천에 상륙작전을 감행하여 인천시를 점령 확보하였다.

이 무렵 지상군의 후퇴로 동, 서해의 인천과 원산 등 항구를 사용할 수 없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되어 해외로부터 도착하는 군수물자의 양륙항으로는 오직 부산 일대뿐이어서 다수의 물량을 소화하는데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다. 추가적인 양륙항인 인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산군이 새로이 부설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뢰를 제거하는 문제해결이 선행되어야 했다.

인천을 점령한 직후인 2월 11일에 해군본부에서는 PC-701함에 명령하여 인천 근해의 공산군의 기뢰부설 여부를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하였으며, 12일에는 제1소해정대 사령관 윤영원 중령이 예하 YMS-501정(정장, 이완용 대위)과 YMS-507정(정장, 백인기 중위), 그리고 FS-이리호를 거느리고 인천 근해를 소해하기 위해 부산을 출항하였으며, 다음 날(13일) YMS-506정(정장, 김정호 중위)과 YMS-512정(정장, 박세충 중위)이 그 뒤를 이어 인천으로 출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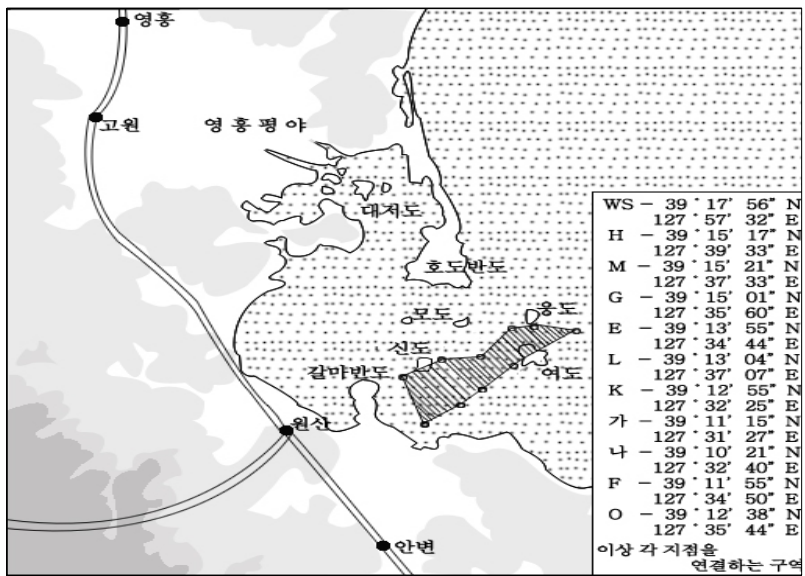
한편 동해에서는 원산근해 영흥만의 여도 점령작전이 한국해군과 해병대 그리고 유엔해군의 연합작전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2월 14일에 여도를 점령하게 되자 이 섬을 근거지로 전개될 앞으로의 작전을 위하여 영흥만의 소해작전을 유엔해군과 함께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

해군본부는 2월 17일, 인천 근해의 소해작전을 위해 출동 중인 제1소해정대에게 인천해역의 소해작전이 종료되면 즉시 원산으로 회항하여 미 소해함대와 합세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YMS-507정과 YMS-515정이 영흥만에 도착하여 4월 2일까지 소해작전을 수행하였으며, 4월 3일에는 YMS-501정을 비롯하여 YMS-507정과 YMS-513정이 영흥만 해역에 도착하여 23일까지 소해작전을 수행하였다.

영흥만에서의 한미연합 소해작전의 결과 4월 16일까지 기뢰 49개를 식별하여 폭발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성진만[53]과 원산만 부근의 주요 수로의 소해가 완료된 구역은 다음과 같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7-5> 원산만 근해 소해완료된 구역



WS - 39도 17분 56초 N, 127도 57분 32초 E
H - 39도 15분 17초 N, 127도 39분 33초 E
M - 39도 15분 21초 N, 127도 37분 33초 E
G - 39도 15분 01초 N, 127도 35분 60초 E
E - 39도 13분 55초 N, 127도 34분 44초 E
L - 39도 13분 04초 N, 127도 37분 07초 E
K - 39도 12분 55초 N, 127도 32분 25초 E
가 - 39도 11분 15초 N, 127도 31분 27초 E
나 - 39도 10분 21초 N, 127도 32분 40초 E
F - 39도 11분 55초 N, 127도 34분 50초 E
O - 39도 12분 38초 N, 127도 35분 44초 E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WS 부표로부터 H 부표까지는 모든 부표를 연결한 선을 중심으로 하여 양측 100야드가 소해완료되었다. H 부표로부터 M 부표까지는 M 부표를 중심으로 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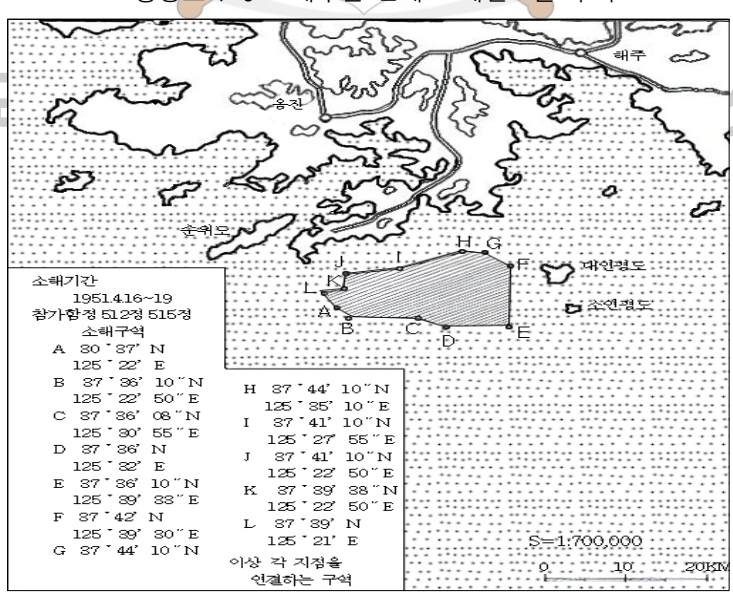
반경 500야드의 원을 그려서 H 부표 중심으로 한 양측 100야드의 선상에서 이 원에 절선을 그은 내부와 G 부표와 E 부표에서 역시 절선으로 연결한 선의 내부가 소해완료 되었으며, 또한 G L K 가 나 F O E 각 부표를 연결한 내부가 소해완료구역이다.

한편 서해에서의 소해작전도 계속 활발히 진행되었다. 3월 9일 해본 명령 갑 제129호로서 YMS-502정(정장, 강경원 대위)과 YMS-503정(정장, 장근섭 중위)을 백아도 근해에 출동시켜 PC-702정(정장, 李鐘徹 소령)과 유엔함대의 CTE 95.1.2와 협동하여 소해작전을 실시케 하였다.

제1소해정대는 4월 19일에서 26일까지 YMS-512정(정장, 姜壽福 대위)과 YMS-515정(정장, 정일찬 대위)으로 하여금 해주만 일대의 소해작전을 실시케 하였다. 그 결과 4월 26일의 작전 때 기뢰 2개를 절단하여 부상시켜 이를 폭발시켰다.(12시 25분에 북위 37도 43분 20초, 동경 125도 34분 지점에서 1개, 15시 07분에 북위 37도 42분 30초, 동경 125도 32분 30초 지점에서 1개)

위의 소해가 완료된 구역은 다음과 같다.

<상황도 7-6> 해주만 근해 소해완료된 구역



A	37도 37분	N,	125도 22분	E
B	37도 36분 10초	N,	125도 22분 50초	E
C	37도 36분 08초	N,	125도 30분 55초	E
D	37도 36분	N,	125도 32분	E
E	37도 36분 10초	N,	125도 39분 33초	E
F	37도 42분	N,	125도 39분 30초	E
G	37도 44분 10초	N,	125도 37분 30초	E
H	37도 44분 10초	N,	125도 35분 10초	E
I	37도 41분 10초	N,	125도 27분 55초	E
J	37도 41분 10초	N,	125도 22분 50초	E
K	37도 39분 38초	N,	125도 22분 50초	E
L	37도 39분	N,	125도 21분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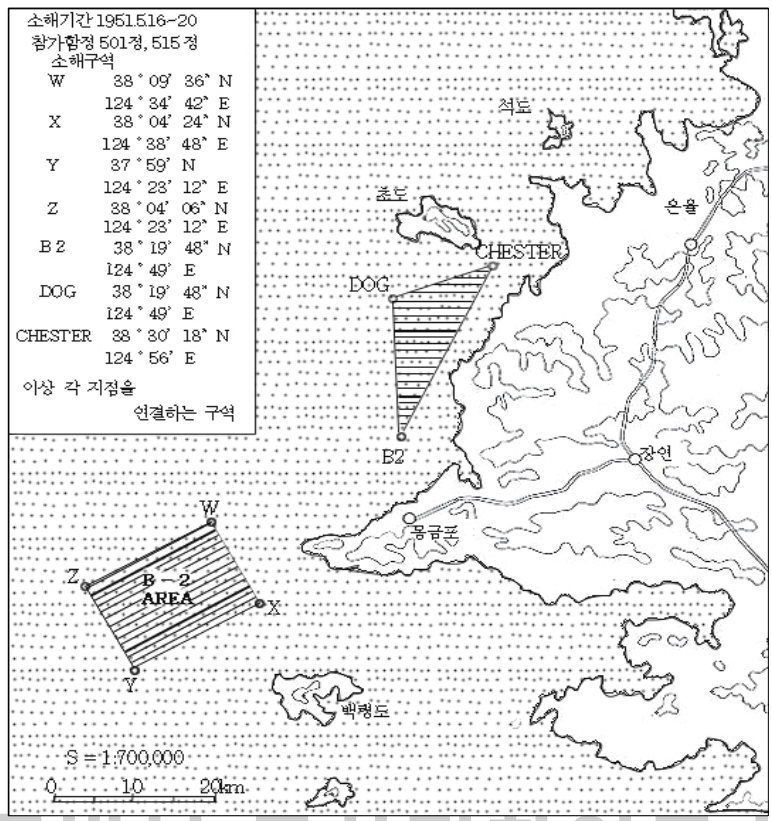
5월에 들어서자 서해경비를 맡고 있던 영국함정으로부터 새로운 소요 요청이 들어왔다. 지난 해 11월에 실시한 진남포 근해의 소해완료구역에 대한 검색소해(Check Sweeping)의 긴급요청이 그것이다. 원래 일단 완료된 소해구역이라도 공산군이 다시 기뢰를 부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시 끊임없이 감시가 있어야 하나, 그 지역이 거리상으로나 기타 조건으로 계속적인 감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시로 검색소해를 하여야 했다.

위의 영국함정의 요청에 따라 미 해군에서는 4척의 소해정과 기타 지원함이 지정되었으며, 우리 해군에서는 YMS-501정(정장, 이완용 대위)과 YMS-515정(정장, 정일찬 대위)이 참가하였다.

해본 작명 갑 제280호에 의거하여 검색소해에 참가하게 된 YMS-501정과 YMS-515정은 5월 15일에서 20일까지 서해의 초도와 석도(席島)근해에서 장산곶(長山串)에 이르는 해역의 소해작전을 완료하였으며 그 완료된 구역은 다음과 같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7-7> 장산곶 근해 소해완료된 구역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다음의 W X Y Z 4개 지점을 연결한 사각형 내부

  W - 38도 09분 6초 N, 124도 34분 7초 E

  X - 38도 04분 4초 N, 124도 38분 9초 E

  Y - 37도 59분 N, 124도 27분 2초 E

  Z - 38도 04분 1초 N, 124도 23분 2초 E

- 다음의 B2, DOG, CHESTER 3개 지점을 연결한 삼각형 내부

  B2 - 38도 19분 8초 N, 124도 49분 E

  DOG - 38도 29분 3초 N, 124도 49분 3초 E

  CHESTER- 38도 30분 3초 N, 124도 56분 E

이 밖에도 여러 곳에서 부유기뢰가 발견되어 폭발 처리되었다. 3월 2일에 강원도 영덕군 창포동(昌浦洞) 근해에서 부유 중의 기뢰 1개를 포항경비부에서 발견하여 폭발시켰다. 3월 19일에는 JMS-302정(정장, 洪元杓 대위)이 북위 38도 17분, 동경 124도 51분 해상에서 부유기뢰 1개를 발견하여 사격을 하였으나 폭발되지 않아 인근의 각 함정에 연락하여 주의를 환기시켰다. 4월 3일에는 전라남도 무안군 장산면(長山面) 다수리(多水里) 연안에 표류중인 대형기뢰 1개를 폭발시켰고,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鳥島面) 방섬 근처에 표류중인 대형기뢰 1개도 역시 폭발시켰다.

<표 7-3> 기뢰처리 종합통계표[54]

구분	일자	종류	함정	수량	위치
1	1950.12.31	부유기뢰	304	1	38도39분30초N 125도00분30초E
2	1951.1.14	〃	61	1	38도02분50초N 124도34분04초E
3	2.5	〃	309	1	37도52분30초N 124도53분30초E
4	3.2	〃	501	1	38도17분00초N 124도44분00초E
5	3.14	〃	502	1	37도48분00초N 124도39분00초E
6	3.14	〃	503	1	38도03분00초N 124도42분00초E
7	3.27	〃	포항경비부	2	36도20분00초N 129도20분00초E
8	3.27	〃	〃	1	36도27분00초N 129도25분00초E
9	3.30	〃	506	1	39도14분33초N 127도48분54초E
10	4.1	〃	506	1	39도14분57초N 127도48분48초E
11	4.16	계류기뢰	512	1	37도43분00초N 125도34분00초E
12	4.16	〃	512	1	37도42분10초N 125도32분30초E
13	4.26	〃	515	1	37도43분03초N 125도32분00초E
14	4.26	〃	515	1	37도43분00초N 125도33분00초E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4 절 분석 및 교훈

1. 작전의 성격과 의의

중공군의 제3차 공세(신정공세; 1950. 12. 31~1951. 1. 8)가 시작된 1950년 12월 31일부터 휴전회담이 시작된 1951년 7월 9일 기간에 유엔군의 38도선 방어작전에도 불구하고, 중공군은 38도선을 넘어 서울을 점령하였고, 유엔군은 평택-삼척선까지 후퇴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해군이 설정한 최초의 해군작전목표는 가능한 많은 수송선을 지원하여 인천, 옹진, 연백지구에 집결한 병력 및 피난민을 안전하게 후방으로 수송하고, 함재기 및 함포지원 사격으로 공산군 병력을 공격하고, 보급망을 파괴하여 지상군의 측방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북한 지역 동·서해안의 주요항구를 해상봉쇄하여 공산군이 보급기지로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우리 해군의 해상활동을 보장하여 해상에서 지상으로 전투력을 투사할 수 있었다. 병력을 분산시키는 전략으로 인천, 청진, 간성 등에 상륙기만작전을 실시하여 주요 도로 및 철도 등을 폭파하였다.

지상에서는 철수하고 있었지만, 해군은 공세적인 작전을 수행하여 동·서해안 북한해역의 주요 도서들을 점령하기 위한 전략도서 확보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 즉, 북한을 재점령하기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동해안에서는 원산항 외곽에 있는 여도, 신도, 모도, 사도, 대도, 웅도 및 황토도 등을, 서해안에서는 초도, 백령도 및 덕적도 등을 점령하였다.

함재기에 의한 교량폭파작전을 실시하여 만주로부터 북한지역으로 연결된 철도 및 도로망을 파괴하였다. 만주에서 신의주까지 한반도 서쪽으로 내려오는 3개의 철도와 한반도 동쪽으로 연결되는 3개의 철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습을 실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하였다. 그러나 철도파괴에도 불구하고 공산군은 도로와 우마차 그리고 인력을 이용하여 보급품을 수송하였다. 유엔군의 항공력으로 북한 군수체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지는 못했지만 유엔군의 공습으로 공산측의 군수지원은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

한국해군은 황해도에 집결한 피난민과 청년의용군 철수작전을 실시하여 다수의 인원을 수송하였고, 청년의용군들은 다시 공산군 해안에 상륙하여 우군의 지상작전을 지원하였다. 또한 유엔해군의 지원사격 하에 한국해군은 특공대 및 덕적도 주둔 해병대로 제2차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하여 점령하였다. 그리고 해상세력의 일방적인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공산군에 의한 북한의 전 해안에 대하여 기뢰부설이 예상되어 동·서해안의 주요 해역에 대한 소해작전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성공적으로 유엔 및 한국해군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해상통제권을 바탕으로 항공모함에 탑재된 항공기에 의한 교량폭파작전과 근접항공지원작전이 매우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해군의 적극적인 해상철수작전과 소해작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2. 작전 결과 및 교훈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유엔해군과 한국해군은 원산항 해상포위작전, 항공기에 의한 교량폭파 및 화천댐 폭파작전, 황해도(옹진·연백지구) 피난민 철수작전, 제2차 인천상륙작전, 소해작전 등을 수행하였는데, 작전 결과 및 교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원산항에 대한 해상포위작전으로 다음과 같은 작전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첫째, 원산 해상 포위공격으로 공산군 병력을 측면으로 전환시킬 수 있었다. 둘째, 원산항을 확보하여 유엔군이 원산이북으로 북진할 때 군수지원이 가능한 항구를 활용할 수 있었다. 셋째, 원산에는 양호한 교통망이 있었는데 함포 및 항공강습으로 교통망을 교란하고 파괴하여 공산군이 원활하게 사용치 못하게 하였다.

넷째, 북한에서 가장 좋은 항구를 장악함으로써 공산군의 어뢰활동을 통제할 수 있었다. 다섯째, 공산군에 대한 정보획득과 아군의 게릴라 활동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여섯째, 원산항은 아군 조종사와 항공기 탐색 및 구조를 위한 전초기지로 사용할 수 있었다. 일곱째, 북한의 주요 항구를 해상포위하여 육상 군사목표를 함포로 공격한다는 것은 공산군 측에게는 사기저하의 효과가 있었고, 아군에게는 사기를 높이는 심리적인 가치가 있었다.

둘째, 교량폭파 및 화천댐 폭파작전의 결과로써, 이 작전으로 북한지역의 보급망을 완전하게 무력시키지는 못했지만 철도망은 거의 무력화되어 공산군의 군수지원은 엄청남 고통을 받아야만 했다. 또한 교량폭파작전의 대표적인 작전인 도곡리 폭파작전으로 공산군의 보급물자 수송을 지연시켰으며, 공산군은 다른 수단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즉 공산군은 보급품의 이동로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였고, 중공군은 철도수송에 어려움에 봉착하자 차량수송에 점점 더 많은 비중을 두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수송을 야간에만 실시하였다.

또한 공산군이 화천댐의 수문을 이용하여 "수공작전(水攻作戰)"으로 아군의 활동을 제한하려 하였으나, 6·25전쟁 기간 중 함재기에 의한 최초 어뢰공격으로 화천댐을 폭파시켜 공산군의 의도를 분쇄하였다.

셋째, 황해도(옹진·연백지구) 피난민 철수작전은 한국 해군이 주도한 작전이었다. 피난민 가운데 애국청년들은 청년의용군을 조직하여 공산군과 치열한 전투를 실시하였고, 한국해군은 1951년 1월부터 이를 지원하였다. 그 후 청년의용군들은 군사훈련을 받고 공산군 해안에 상륙하여 유격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우군의 지상군작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황해도의 피난민 철수작전으로 오늘날 서해 5도가 우리의 영토가 될 수 있었으며, 북한 영토 바로 앞에 해병대 기지를 두게 된 전략적으로 의의가 있는 작전으로 평가될 수 있겠다.

넷째, 제2차 인천상륙작전에서 한국 해군은 소규모 상륙부대로 작전을 수행하여 인천시를 탈환하는 의외의 전과를 거두었다. 인천의 재탈환은 군수지원 측면에서 매우 시의적절하였다. 지난 1개월 이상 부산항 한 곳에서 지상군의 군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지원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과중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인천이 우군의 수중에 들어오자 인천의 항만시설을 복구하기 위하여 미 육군의 제2특수공병여단이 일본에서 상륙기동전대 함정 편으로 2월 15일 인천에 도착하였다.[55]

소규모 기습작전에서 공격 기세의 유지는 중요하다. 제2차 인천상륙작전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한국 해군이 보여준 공격 기세의 유지와 감투정신이라 하겠다. 한국해군의 상륙부대는 육전의 경험이 별로 없었지만, 처음부터 공격 기세를 유지하여 공산군의 기선을 제압하였으며, 배수의 진을 치고 적진에 돌입함으로써 공산군을 압도하였던 것이었다. 그리하여 당황한 공산군은 이를 대부대의 본격적인 상륙작전으로 알고 패주하였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서해안 소해작전을 실시하여 함정들이 원활하게 작전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 특히 원산항 근해의 소해작전은 전략도서를 확보,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소해작전으로 얻은 교훈은 첫째,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는 기뢰대항책에서 성공의 전제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원산항 소해작전 이후 기뢰대항책에서 정보의 획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기뢰대항책에서 최선의 방법은 공산군의 기뢰 저장소 위치를 알고 그것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소해작전은 물론 불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으로 공산군의 기뢰부설 수단을 파괴할 수 있다면, 공산군이 부설하려는 기뢰의 수를 제한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공산군 기뢰원의 위치와 그 구성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면, 기뢰대항책 문제가 비교적 단순해질 것이며, 소해가 어려운 경우에 해군부대는 기뢰원을 회피하여 작전할 수 있을 것이다.

(집필 : 최권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유엔함정 주요제원>

1. 미국

● 항공모함

함정명	유형	주요제원	비고
Boxer	CV-21	• 톤수: 27,100톤, 전장: 1,888피트 전폭: 147피트, 속력: 33노트 승조원: 3,448명 • 무장: 5인치 12문	8 battle star

● 전함

함정명	유형	주요제원	비고
New Jersey	BB-62	• 톤수: 45,000톤, 전장: 1,887피트 전폭: 108피트, 속력: 33노트 승조원: 1,921명 • 무장: 16인치 9문, 5인치 20문	4 battle star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구축함

함정명	유형	주요제원	비고
English	DD-696	• 톤수: 2,200톤, 전장: 1,376피트 전폭: 40피트, 속력: 34노트 승조원: 336명 • 무장: 5인치 6문, 어뢰, 폭뢰	4 battle star
Charles. S. Sperry	DD-697	• 톤수: 2,200톤, 전장: 1,376피트 전폭: 40피트, 속력: 34노트 승조원: 336명 • 무장: 5인치 6문, 어뢰, 폭뢰	4 battle star

함정명	유형	주요제원	비고
Hank	DD-702	• 톤수: 2,200톤, 전장: 1,376피트 전폭: 40피트, 속력: 34노트 승조원: 336명 • 무장: 5인치 6문, 40밀리 12문, 20밀리 11문, 어뢰, 폭뢰	4 battle star
Wallace L. Lind	DD-703	• 톤수: 2,200톤, 전장: 1,376피트 전폭: 40피트, 속력: 34노트 승조원: 336명 • 무장: 5인치 6문, 40밀리 12문, 20밀리 11문, 어뢰, 폭뢰	4 battle star
O'Brien	DD-725	• 톤수: 2,200톤, 전장: 1,376피트 전폭: 41피트, 속력: 34노트 승조원: 336명 • 무장: 5인치 6문, 어뢰, 폭뢰	5 battle star
Blue	DD-744	• 톤수: 2,200톤, 전장: 1,376피트 전폭: 40피트, 속력: 34노트 승조원: 345명 • 무장: 5인치 6문, 어뢰, 폭뢰	6 battle star
Massey	DD-778	• 톤수: 2,200톤, 전장: 1,376피트 전폭: 41피트, 속력: 34노트 승조원: 336명 • 무장: 5인치 6문, 40밀리 12문, 20밀리 11문, 어뢰, 폭뢰	4 battle star
Agerholm	DD-826	• 톤수: 2,425톤, 전장: 1,390피트 전폭: 41피트, 속력: 35노트 승조원: 367명 • 무장: 5인치 6문, 40밀리 4문, 어뢰, 폭뢰	4 battle star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함정명	유형	주요제원	비고
Ozbourn	DD-846	• 톤수: 2,390톤, 전장: 1,391피트 전폭: 41피트, 속력: 35노트 승조원: 363명 • 무장: 5인치 6문, 40밀리 16문, 20밀리 17문, 어뢰, 폭뢰	6 battle star
Floyd B. Parks	DD-884	• 톤수: 2,425톤, 전장: 1,390피트 전폭: 41피트, 속력: 35노트 승조원: 367명 • 무장: 5인치 6문, 어뢰, 폭뢰	
John R. Craig	DD-885	• 톤수: 2,425톤, 전장: 1,376피트 전폭: 41피트, 속력: 34.5노트 승조원: 367명 • 무장: 5인치 6문, 40밀리 16문, 20밀리 20문, 어뢰, 폭뢰	4 battle star
Brinkley Bass	DD-887	• 톤수: 2,425톤, 전장: 1,390피트 전폭: 40피트, 속력: 34.6노트 승조원: 345명 • 무장: 5인치 6문, 40밀리 16문, 어뢰, 폭뢰	7 battle star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초계함

함정명	유형	주요제원	비고
Everett	PF-8	• 톤수: 1,264톤, 전장: 1,303피트 전폭: 37피트, 속력: 20노트 승조원: 190명 • 무장: 3인치 3문	4 battle star
Evansville	PF-70	• 톤수: 1,264톤, 전장: 1,303피트 전폭: 37피트, 속력: 20노트 승조원: 190명 • 무장: 3인치 3문	

● 소해함

함정명	유형	주요제원	비고
Carmick	DMS-33	• 톤수: 1,630톤, 전장: 1,348피트 전폭: 36피트, 속력: 35노트 승조원: 208명 • 무장: 5인치 4문, 어뢰	
Endicott	DMS-35	• 톤수: 1,630톤, 전장: 1,348피트 전폭: 36피트, 속력: 35노트 승조원: 208명 • 무장: 5인치 4문, 어뢰, 폭뢰	
Merganser	AMS-26	• 톤수: 272톤, 전장: 1,136피트 전폭: 25피트, 속력: 15노트 승조원: 34명 • 무장: 3인치 1문, 20밀리 4문, 폭뢰	9 battle star
Osprey	AMS-28	• 톤수: 270톤, 전장: 1,136피트 전폭: 24피트, 속력: 15노트 승조원: 34명 • 무장: 3인치 1문, 20밀리 2문	10 battle star
Swallow	AMS-36	• 톤수: 360톤, 전장: 1,136피트 전폭: 24피트, 속력: 12노트 승조원: 33명 • 무장: 3인치 1문	
Chatterer	AMS-40	• 미 해군연구소에서 공개된 자료는 없으나 다른 AMS 함정과 유사할 것으로 추측됨.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상륙함/수송함/지원함

함정명	유형	주요제원	비고
Fort Marion	LSD-22	• 톤수: 4,490톤, 전장: 1,457피트 전폭: 72피트, 속력: 15노트 승조원: 326명 • 무장: 5인치 1문	5 battle star
Montague	AKA-98	• 톤수: 6,761톤, 전장: 1,459피트 전폭: 63피트, 속력: 16.5노트 승조원: 474명 • 무장: 5인치 1문, 40밀리 8문, 20밀리 18문	4 battle star
Seminole	AKA-104	• 톤수: 14,160톤, 전장: 1,459피트 전폭: 63피트, 속력: 16.5노트 승조원: 425명 • 무장: 5인치 1문, 40밀리 8문, 20밀리 16문	6 battle star
Begor	APD-127	• 톤수: 2,130톤 전장: 306피트 전폭: 37피트, 속력: 23.6노트 승조원: 204명, 상륙군 162명 • 무장: 5인치 1문, 40밀리 6문	6 battle star
Dixie	AD-14	• 톤수: 9,450톤, 전장: 1,530피트 전폭: 73피트, 속력: 18노트 승조원: 1262명 • 무장: 5인치 4문	5 battle star
Grasp	ARS-24	• 톤수: 1,360톤 전장: 213피트 전폭: 39피트, 속력: 15노트 승조원: 120명 • 무장: 40밀리 4문, 50CAL 4문	
Rainer	AE-5	• 톤수: 13,876톤 전장: 459피트 전폭: 63피트, 속력: 15.5노트 승조원: 281명 • 무장: 5인치 1문, 3인치 4문, 40밀리 4문, 20밀리 10문	4 battle star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네덜란드(구축함)

함정명	유형	내용	사진자료
Evertsen	DD-0802	• 관련 자료 없으므로 사진으로 대체함.	

3. 태국(호위함)

함정명	유형	내용	사진자료
Prasae	FF	• 1951년 1월 7일 폭풍우로 인해 동해안에서 좌초 후 침몰됨.	

국방부 군사

주(註)

1) 통상 2개 이상의 돛대를 가진 범선

2) 장교 : 1,006명, 하사관 : 1,946명, 병사 : 2,761명, 군사학교 학생 : 1,500명

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2(서울 : 국방부, 2001), 156~160쪽.

4) James A. Field,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Korea* (Washington, 1962), p.211.

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5권(서울 : 국방부, 1972), 195쪽.

6) 해군본부, 『대한민국 해군사 : 작전편』 제1집(서울 : 해군본부, 1954), 148쪽.

7) Field, op.cit., p.312.

8) Ibid., pp.312~314.

9) 이 부대는 1951년 11월 27일 이후 창설되었다. CTE 95.2.4의 임무는 흥남지역에서 적정에 대한 감시, 어로통제, 기뢰부설 방지 및 소해세력에 대한 함포지원이었다.

10) 패덤(fathom) : 깊이의 단위. 주로 바다의 깊이를 재는 데 쓴다. 1패덤은 약 1.83미터에 해당한다.

11) Hr. Ms : 네덜란드 해군 함정명 앞에 붙인다.

12) 첫 번째 미주리(Missouri) 함, 세 번째 위스콘신(Wisconsin) 함, 네 번째 아이오와(Iowa) 함.

13) Malcolm W. Cagle and Frank A. Manson, *The Sea War in Korea* (Annapolis : U.S. Naval Institute, 1957), pp.301~307.

14) Ibid., pp.398~399.

15) Ibid., pp.399~400.

16) Ibid., pp.400~401.

17) 제112구축함전대 소속으로 전대장은 B. F. Roeder 대령이었다.

18) Cagle and Manson, op.cit., p 401.

19) Ibid., pp.404~405.

20) 1951년 11월 28일부터 29일 밤에 북한군이 소형선박을 이용하여 황토도에 침투하여 한국 해병 7명, 민간인 1명을 죽이고, 민간인 5명을 포로로 잡아갔다. 그리고 10채의 가옥은 전소되었다.

21) LSMR함들은 원산에 5인치 총 12,924발을 발사했다.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LSMR-401, 403함은 35분 동안에 4,903발의 로켓트를 원산의 표적에 퍼부었다.

22) Cagle and Manson, op.cit., pp.406~407.

23) 6·25전쟁 기간중에 1950년 7월 야간공격 투입을 시작으로 1951년 7월 1일 야간전투에서 공산군 PO-2 1대를 격추하였으며, 9월에도 1대를 격추하였다.(공군본부, 『6·25전쟁 항공전사』(계룡 : 공군본부, 2002), 841쪽

24) 1950년 7월부터 참전하여 주로 대지공격 임무를 수행하였다.

25) 낙하산이 부착된 조명탄을 투하하여 야간공격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26) Cagle and Manson, op.cit., pp.407~408.

27) Ibid., pp.408~41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8) Ibid., p.410.

29) 50톤은 식량 48%, 피복과 무기와 장비 22%, 유류 10%, 탄약 20%로 구성되었다.

30) Cagle and Manson, op.cit., pp.229~232.

31) 1951년 2월 24일부터 1951년 6월 13일까지 해군 항공기는 1,223회의 출격으로 철도의 151개 지점을 단절시켰으며, 109개의 도로를 단절시켰다.

32) Cagle and Manson, op.cit., pp.233~240.

33) 1951년 10월부터 참전했으며, 근접지원과 탐색구조 임무에 투입되었다. 20밀리 4문과 로켓, 폭탄 2,000파운드 적재 가능하다.

34) Cagle and Manson, op.cit., pp.240~241.

35) 해군본부, 『대한민국 해군사 : 작전편』 제1집(서울 : 해군본부, 1954), 148~149쪽.

36) 위의 책, 149쪽.

3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5권(서울 : 국방부, 1972), 184쪽.

38) 해군본부, 앞의 책, 151쪽.

39) 특공대에 지급된 통신기(AN/GRC-9)의 충전 모습이 당나귀 같다고 해서 붙여진 애칭임.

4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5권(서울 : 국방부, 1972), 187쪽.

4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5권(서울 : 국방부, 1972), 186쪽.

42) 당시 특공대 지휘관 김종기 소령, 302정 정장대리 정낙중 소위 등 참전자의 증언에 따르면 37명을 선발하여 상륙작전을 했다고 한다.(김종기 증언 · 1964년 7월 28일, 정낙중 증언 · 1965년 8월 9일)

43) 인천기계제작소를 상륙지점으로 정하게 된 것은 당시 701함 함장 노명호 소령이 인천상고 출신으로 인천지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김종기 덕적도 부둔부대장과 작전회의 때 상륙지점으로 추천함으로써 결정되었다.(노명호 증언. 1964년 7월 31일)

44) Field, op.cit., p.324.

45) Ibid., p.326.

46) Cagle and Manson, op.cit., p.400.

47) 해군본부, 앞의 책, p.161.

48) 사료에 따라 삼랑진(三浪津), 삼영환(三榮丸), 삼랑환(三浪丸) 등으로 혼용되고 있으나 여기서는 「대한민국 해군사 : 작전편」 제1집의 예를 따른다.

49) 해군본부, 앞의 책, 165쪽.

50) 위의 책, 181쪽.

51) 위의 책, 183쪽.

52) Cagle and Manson, op.cit., p.194.

53) 성진만 소해완료된 구역은 다음과 같다. 40도 23분 30초 N, 129도 07분 36초 E(A지점), 40도 35분 48초 N, 129도 21분 48초 E(B지점), 40도 39분 42초 N, 129도 18분 42초 E(C지점), 40도 26분 36초 N, 129도 03분 30초 E(D지점)

54) 해군본부, 『대한민국 해군사 : 작전편』 제2집(서울 : 해군본부, 1958), 266~268쪽.

55) Field, op.cit., p.32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8 장 공군작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1 절	작전 개요
제 2 절	북한 및 소련공군 활동
제 3 절	유엔 및 한국공군 작전
제 4 절	분석 및 교훈

제 1 절 작전 개요

1. 전선개황

1950년 12월 31일부터 시작된 중공군과 북한군의 제3차 공세(신정공세)로 인해 유엔군은 서울과 인근의 수원, 김포기지를 상실하게 되었다. 1951년 1월 3일 대규모의 중공군이 서울 동부와 서부의 결빙된 한강을 건너자 미 제8군은 서울 철수를 시작했고 한국 정부는 부산으로 이동했다. 1월 4일 중공군이 서울을 점령함으로써 서울은 전쟁발발 6개월 만에 세 번째 주인을 맞게 되었다.

유엔군과 공산군은 남한의 중북부 지역인 원주에서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벌였다. 1월 8일 유엔군은 원주 남부 3마일 미천리 지역에 새 진지를 정하고 원주 시내에서 철수하자 1월 14일 중공군은 진격을 확장하여 원주지역을 점령하였다. 유엔군이 전선 중부지역에서의 공중우세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1월 중반에 공산군의 공세는 서쪽으로는 평택과 동쪽으로는 삼척선에서 중지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월 25일에 시작된 미 제8군의 첫 번째 반격작전인 썬더볼트(Thunderbolt)작전은 2월 9일까지 진행되어 유엔 지상군은 느리지만 꾸준하게 수원-원주-삼척선으로 진격해 나갔다. 미 제8군의 작전목표는 한강 이남의 공산군을 소탕하고 인천항과 수원비행장을 재탈환하는 것으로 작전기간 동안 동·서 해안에 걸쳐 최대 12~15마일을 북상하였다.

2월 5일 공산군의 새로운 공세 준비를 좌절시키기 위한 라운드업(Roundup) 작전이 개시되었고 미 제10군단이 중부지역의 원주 북서쪽 횡성으로 근접항공지원과 함께 진격하였다. 2월 9일에 유엔군은 서울 동남방 7마일상의 한강에 도달하였고 2월 10일에는 인천항과 김포비행장을 점령하였으며 동해안에서는 국군이 38도선을 돌파하여 양양을 점령하였다. 2월 11~12일에 서울 동부 50마일상의

중부전선에서 중공군과 북한군이 횡성 북부와 북서부에 위치한 국군 제3, 8사단을 공격하여 이틀 만에 횡성을 점령하였고 이로 인해 유엔군은 원주로 후퇴해야 했다. 2월 13~16일간에 중공군 3개 사단이 미 제23연대전투단과 프랑스 대대를 포함한 유엔군을 중부지역인 주요 교통 분기점인 양평 근처 지평리에서 포위하였다. 2월 21일 제8군은 대규모의 공산군을 격멸하기 위하여 킬러(Killer) 작전을 개시하였고 2월 28일 유엔군은 한강 이남에서 공산군을 완전히 격멸하였다.

3월에는 유엔 지상군은 느리지만 진격을 계속했고 평균 약 30마일 이상 북쪽으로 전선을 이동시켜 압박하였다. 3월 7일 유엔군은 서울 동부 한강을 건너 공산군을 격멸하고 이들의 반격준비를 분쇄하기 위해 리퍼(Ripper) 작전을 개시하였다. 3월 14일 미 제8군이 한강 북부 도시주변의 고지군(高地群)을 점령하자 공산군은 전투 없이 서울을 포기하였고 3월 15일 유엔군이 서울을 탈환했다. 이로써 서울은 전쟁이 시작된 이후 4번째로 주인이 바뀌었다. 3월 23일 맥아더 장군이 전쟁발발 이후 처음으로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에게 정전회담을 제의하였고 유엔 수송기들은 3월 마지막 주에 맥아더 장군의 정전제의 전단 7,000매를 북한 지역에 살포하였다. 3월 31일 미 제8군 일부 제대가 38도선을 넘어 북진했다.

유엔 지상군은 4월 1주~3주 동안 중부전선 화천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전진하였다. 이런 와중에 4월 11일 트루먼 대통령은 6·25전쟁에 대한 행정부의 전쟁방침과 외교정책을 수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비난한 맥아더 장군을 전격적으로 유엔군사령관과 극동군총사령관에서 해임하고 후임으로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장군을 임명하였다. 뒤를 이어 4월 14일에는 밴 플리트(James A. Van Fleet) 중장이 리지웨이 장군 후임으로 제8군 사령관에 임명되었다. 4월 17일 트루먼 대통령은 전쟁기간 동안 부족해진 현역을 증원시키기 위해 미군 사병의 의무 복무기간을 9개월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을 승인했다. 4월 22일 중공군과 북한군은 대규모 춘계공세를 개시하여 4월 말에 서울 북부 인근까지 남하하였으나 유엔군의 지상과 공중공격에 직면하여 병력증원과 보급품 지원이 한계에 도달하여 공세를 중지할 수밖에 없었다.

5월 전반부에 유엔군의 활동은 주로 공산군의 또 다른 공세에 대한 경계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공세에 대한 반격준비에 집중되었다. 예상대로 공산군은 5월 16일에 유엔군에 대한 마지막 총공세의 일환으로 동부지역에서 국군에 대해 5월 공세를 시작하였고 5월 20일 미 제8군은 보급선이 과도하게 연장된 공산군의 공세를 지속적인 공중공격의 지원을 받아 좌절시켰다. 5월 말에 유엔지상군은 주도권을 획득하고 전 전선에서 15~30마일 북쪽으로 전진하였다.

6월 초순 유엔군은 공산군의 춘계공세로 인해 잃었던 지역을 재점령하고 '철의 삼각지대'인 평강-철원-김화로 진입했다. 철의 삼각지대는 38도선의 상부에 위치하여 유엔군이 공산군으로 하여금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3번 국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곳이었다. 전선에서 공산군이 세력이 약화되고 전의가 상실되자 6월 23일 말리크(Jacob Malik) 유엔 주재 소련대사가 38도선을 따라 양측의 군사력을 분리하는 한국에서의 정전을 위해 유엔군과 공산군의 대표 간 협상을 요청했고 7월 10일 개성에 임시로 설치된 판문점에서 휴전회담이 개최되었다.

2. 북한 및 소련공군 작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50년 12월 31일부터 1951년 7월 9일까지의 작전기간 동안 북한과 소련공군 전력은 더욱 확대되고 증강되었다. 먼저 북한은 기존 1950년 11월 1일 창설되어 신의주에 배치해 유엔지상군에 대한 소규모 공습과 대지공격을 실시했던 혼성비행사단 외에 중국 훈춘(琿春)에 LA-9 30대로 구성된 추격기 연대를 보유하게 되었고 신의주에 PO-2기로 구성된 독립비행대대를 두어 야간 폭격임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이 시기 북한공군은 이러한 전투전력 증강 외에도 중국 둥펑(東鳳)에 MiG-15기 조종사 및 기술요원 양성을 위한 기관으로 항공기술사단과 옌지(延吉)에는 비행기술항공학원을 설치하였고 전투비행부대와 항공기술사단, 비행기술항공학원을 지원하고 방호하기 위한 후방지원부대로 항공기술대대와 독립항공경비대를 편성하였다.

이로써 북한 공군은 와해된 공군에 대해 체계적인 복원을 일정수준 마치게 되었고 이전 보다 증강된 전력과 체계적인 후방지원에 힘입어 보다 활발한 전투 활동을 벌였다. 북한이 소위 '3차 작전'이라고 부르는 1950년 12월 25일부터 1951년 1월 24일까지의 기간 동안 북한 공군은 전선서부에서 중요시설물을 방호하고 지상전투부대를 지원함은 물론 유엔공군과 공중전을 치렀고 특히 평양-남포 이북 상공과 남포-신의주를 잇는 해안선에 대한 방공활동에 치중하였다. 또한 4차 작전(1951년 1월 25~4월 21일) 기간 중 북한 공군은 전선 서부의 시설 방호와 방공임무에 주력하였는데 추격기들은 4~8대로 편대를 구성하여 전투초계 비행을 통해 유엔 공격기들에 대한 방공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습격기와 야간 폭격기는 아 지상군의 방어전선과 종심에 있는 주요 시설물에 대한 공격과 병력이 집결되어 있는 서울, 인천, 수원, 용인, 평택, 천안, 이천 등의 지역에 대한 정찰활동 및 전단 살포임무도 수행하였다. 1951년 6월 이후에는 PO-2기를 이용하여 야간시간대에 수원, 김포 등의 아군 비행장과 아 지상군 집결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였다.

또한 북한은 대공방어부대 확장에도 노력을 경주하였다. 1950년 11월 말 2개 대공포 연대만을 보유했던 북한은 1951년 4월에는 추가적으로 3개 독립 대공포연대를 추가 창설하여 제19~23독립대공포연대 체계를 갖추었다. 이로써 북한 지상군은 각 보병사단 지원을 위한 고사포대대로부터 군단 지원을 위한 독립 대공포연대가 창설됨으로써 수적으로는 열세이지만 일정 부분 대공방어망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대공 전력 강화노력의 일환으로 장비의 절대적인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자 도출된 대안이 김일성이 1950년 12월에 지시한 소위 '비행기 사냥꾼 조' 운용이다. 전 전선 및 후방 보병부대에 하달된 이 명령은, 각 보병사단장 책임하에 '비행기 사냥꾼 조'를 조직하여 유엔공군의 내습이 빈번한 목표물 부근 고지에 화기진지를 구성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대별로 중기관총 및 경기관총을 포함한 보병 소화기로 무장한 2~3개의 '비행기 사냥꾼 조'가 구성되었고 1951년 1월 중순 이후부터 지상 군단 모든 부대와 동·서해 연안을 방어하고 있던 전 부대에서 대규모로 운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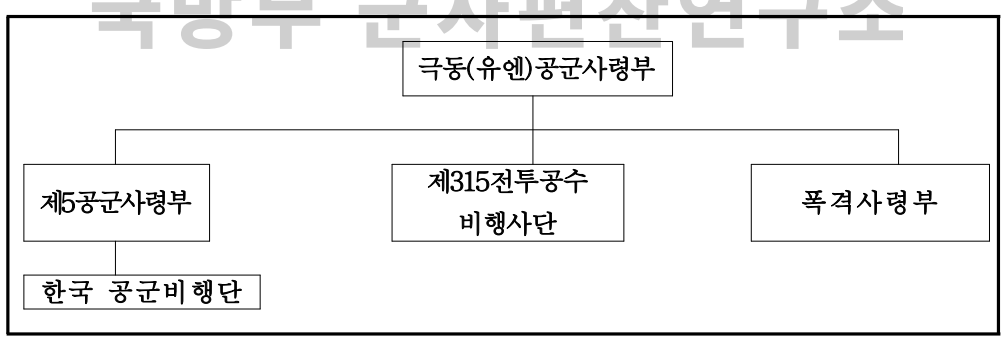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공군 제64전투비행군단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엔공군의 공습과 공중정찰로부터 중국 동북지역의 주요 정치, 행정 및 경제중심, 산업시설, 철도거점, 교량, 병력집결지 및 기타 중요한 목표에 대한 엄호임무에 치중하면서 중국 및 북한 공군 조종사의 양성에 주력하였다. 기간 중 제1기 작전부대인 제28, 50비행사단을 대체하여 제303, 324전투비행사단이 교체 투입되었으며 야간임무를 전담하기 위해 제351야간전투비행연대가 1951년 5월에 새로이 투입되었다. 또한 이들 전투비행사단을 지원하기 위해 제18비행기술사단과 기지 대공방호를 위해 제87, 92고사포병사단이 추가로 배치되어 전투력 규모면에서 실질적인 증가가 이루어졌다.

이 시기 소련 공군은 북한에 진입한 중공군에 대한 공중엄호와 근접항공지원임무를 조속히 시행해 달라는 중국의 빗발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같이 미그회랑(MiG Alley)내에서의 작전임무만을 고수하였고 이로 인해 조·중연합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와의 갈등이 노출되었다.

3. 유엔 및 한국공군 작전

<표 8-1> 유엔공군 지휘관계(1951년 6월 말 기준)



1950년 12월 31일부터 1951년 7월 9일까지의 유엔공군의 작전형태는 1950년 10월 말 중공군이 참전하고 1, 2차 공세를 펼치던 1950년 11월 및 12월과 유사한 작전

환경과 조건하에서 이루어졌다. 우선 작전 환경상 가장 큰 유사점은 중공군의 대규모 병력 참전과 지속되는 공세로 인해 아군의 후퇴가 있었고 이를 격퇴하기 위해 유엔 지상군에 대한 근접지원과 함께 공산군의 병력증원과 보급물자 차단작전이 최우선순위를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작전 환경하에서 극동공군사령부의 임무는 이전과 변동 없이

① 제공권 유지를 통한 공산군 항공활동 통제

② 항공차단 작전을 통한 공산군의 증원 및 보급차단과 잠재적인 전투 역량 파괴

③ 아군 지상군에 대한 직접적인 화력지원을 통한 공산군 전투력 파괴를 우선임무순위로 정했고 부가적으로 각종 보급품 및 공정요원 투하와 같은 공수 임무가 부여되었다.

1951년 들어서면서 극동공군은 많은 지휘관의 교체와 일부 예하부대에 대한 편제 개편이 이루어졌다. 지휘관의 변동은 극동공군사령관인 스트레이트메이어(George E. Stratemeyer) 중장의 심장발작으로 인한 용퇴로 인해 예하 지휘관들의 변동 폭이 넓게 이루어졌고 부대 개편은 중공군의 참전으로 인해 전쟁의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부분적으로 단행됐다.

우선 극동공군사령부 예하에 임시기구로 편제되어 한국 전구의 공수를 전담하던 전투공수사령부(Combat Cargo Command)가 1951년 1월 25일 제315전투공수비행사단(315th Air Division : Combat Cargo)으로 정식 편제화 되었다. 이로써 제315전투공수비행사단은 극동공군 직속부대로 전환되어 제5공군의 행정과 병참지원에 의존하지 않게 되었으며 인원보충과 보급지원에서 보다 원활하고 직접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기간 극동공군의 지휘관 교체는 대폭적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2월 8일 헤네브리(John P. Henebry) 준장이 터너(William H. Tunner) 소장 후임으로 제315전투공수비행사단장에 임명됨으로써 한국 전역 공수를 책임지는 지휘관으로 임명되었다. 또한 미 전략폭격사령부는 가능한 많은 장교들에게 전쟁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폭격사령관을 매 4개월마다 교체하기로 결정하고 1월 10일 오도넬(O'Donnell) 소장 후임으로 브릭스(James E. Briggs) 준장을 폭격사령관으로 임명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하였다. 이후 4개월 주기 지휘관 교체 방침에 따라 5월 23일 테릴(Robert H. Terrill) 준장이 브릭스 장군 후임으로 폭격사령관에 취임하였다. 5월 20일 극동공군사령관 스트레이트메이어 장군이 신병 이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이에 따른 임시조치로 5월 21일 패트리지(Earle E. Partridge) 장군이 극동공군사령관에 임명되었고 팀버레이크(Edward J. Timberlake) 소장이 제5공군사령관이 되었다. 이러한 임시 조치는 6월 1일 에버레스트(Frank F. Everest) 소장이 팀버레이크 장군 후임으로 제5공군사령관에 임명되고 6월 10일 웨이랜드(Otto P. Weyland) 중장이 패트리지 장군 후임으로 극동공군사령관에 임명됨으로써 마무리 되었다.

중공군의 3차공세로 인해 서울이 함락당하고 유엔 지상군이 후퇴하여 평택-삼척선에서 전선이 형성된 1951년 1월 말부터 서울을 회복한 3월 중순까지 유엔공군은 미그회랑지역에 대해 일시적으로 소련공군에게 제공권을 상실한 것을 제외하고는 한반도 상공에서의 제공권을 지속 유지하였다. 이는 한국에서 지상전 상황 악화로 인해 제트전투기들이 전면적으로 일본기지로 철수함으로써 미그회랑지역 체공가능 시간이 최대 20분이 넘지 못하게 되자 발생한 일시적인 문제였다.

제공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유엔공군은 후방차단과 무장정찰임무에 전체비행운영중에서 가장 많은 약 35%를 할당하여 중공군의 병력, 보급물자, 수송 및 통신선과 비행장 파괴 등에 주력하였다. 이러한 항공차단임무를 통해 유엔공군은 공산군의 보급품 약 30~40%를 전선에 도달하기 전에 파괴하였다. 또한 중국이 1951년 1월~4월까지 연인원 약 200만 명과 시멘트 3만톤, 철제포장제(유공철판 ; Pierced Steel Plank, 길이 300cm × 폭 38cm 강철판) 3만 6천 톤과 기타 장비 등 엄청난 물량과 인력을 투입한 북한 내 비행장 복구 및 건설공사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소련 및 중국공군의 북한 지역 전개를 막고 중국공군의 참전을 지연시키는 전략적 효과를 달성하게 되었다.

유엔공군이 후방차단 및 무장정찰임무 다음으로 주력한 전투임무는 근접항공지원작전(CAS)으로 이 시기 실시된 근접항공지원은 전체 비행운영 중 약 14%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이전 작전시기에 약 20% 내외의 비중을 차지했던 것에 비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매우 낮은 비율이며, 또한 지상에서의 접전이 거의 없이 북진을 감행했던 1950년 10월(3,340소티)과 11월(3,652소티)보다 감소한 규모인 동시에 전쟁 발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공군은 근접지원작전을 통해 3차례에 걸쳐 감행된 공산군의 날카로운 공세의 예봉을 꺾었으며 유엔지상군의 공세시기에는 아군 전방에 위치한 공산군에 대한 직접적인 살상을 통해 아군의 진격을 지원하였다. 또한 공산군의 공세가 집중된 야간에 근접항공지원을 위해 지상 MPQ-2 레이더 이동 유도반을 운용하여 타격정밀성을 증가시키고 폭발 시 직경 150피트 넓이에 15,000개의 철제 파편이 비산(飛散)되어 인명살상 효과가 대단히 큰 근접신관폭탄을 사용하는 등 야간 근접지원임무에도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전투임무 외에도 유엔공군은 공수임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전체 비행임무 중 약 30%를 차지하여 항공차단 및 무장정찰 임무 다음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 시기 공수임무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육상수송로의 기능 저하 및 공산군에 의한 지상접근로 차단으로 인해 지상군에 대한 공수소요가 증가하였고 특히 전 기간에 걸쳐 미 10군단 작전지역인 동부전선지역에 대한 탄약, 유류, 식량, 보급품 등의 공중투하가 증가하였다. 또한 3월 하순에는 문산 지역에 미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의 대규모 공수강하가 실시되었고 이들 공정요원에 대한 보급지원도 유엔공군이 담당하였다. 작전기간 동안 제315전투공수비행사단은 극동공군 및 유엔 지상군에 대한 물자수송 뿐만 아니라 전방지역에서의 부상병 후송, 병력 공수, 전단 살포, 통신 중계 등 다양한 임무를 통해 공산군의 공세저지와 유엔군의 반격작전에 기여하였다. 극동공군은 공수지원 외에도 제5공군 예하 탐색 및 구조부대를 통해 공산군 지역에 추락한 아군 항공기 및 조종사의 탐색 및 구조, MiG-15기 기술정보 수집을 위한 정보작전 지원 등의 활동도 실시하였다.

한편 C-47 수송기 3대로 편성된 태국 공군수송대가 1951년 6월 18일 태국의 돈무앙(Don Muang)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6월 23일 일본 다치카와(立川) 기지에 도착함으로써 6·25전쟁 기간 중 유엔공군을 구성하는 참전국 모두가 전선에 배치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 시기 한국 공군비행단은 1950년 12월 말 제주기지(K-40)로 이동하여 1951년 6월 말까지 조종사 양성교육에 전념하였고, 1951년 3월 15일 아군의 반격으로 서울이 재탈환 되자 3월 31일에는 제주기지에서 F-51 전투기로 기종 전환훈련을 마친 전투조종사를 여의도기지로 파견하여, 4월 3일부터 5월 말까지 중부전선 지역의 공산군 증원 전력을 차단하기 위한 후방차단작전을 수행하였다. 한편 정찰비행전대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육군 3개 군단 파견대를 두고 군단과 전선을 이동하면서 군단 작전지역에 대한 정찰, 포병관측, 연락업무 등을 지원하였다.

한국 공군 단독작전과 전력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사천기지(K-4)로의 작전부대 통합과 전개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공군비행단은 1950년 5월 31일부로 여의도기지 작전을 전격 중지하고 6월 하순 사천기지로 전개하였다. 정찰비행전대 또한 각 군단 파견대의 임무를 육군 항공대에 이관하고 1950년 6월 하순 사천기지로 전 병력이 이동 전개하여 차후 작전준비에 전념하였다.

<표 8-2> 공군 주요부대 및 지휘관(1951.6.30. 기준)

부 대		주둔기지	주력 기종	지 휘 관
한국	공군본부	대 구		총참모장 : 소장 김정렬
	항공기지사령부	대 구		사령관 대리 : 중령 홍윤범
	공군비행단	사 천	F-51, T-6	단장 : 대령 장덕창
	공군 정찰비행전대	사 천	L-4, L-5	전대장 : 소령 오점석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도쿄(東京)		중장 Otto P. Weyland
	제5공군사령부	이다쯔게(板付)		소장 Frank F. Everest
	제8전폭비행단	일본 존슨(Johnson)	F-80	대령 Charles W. Stark
	제18전폭비행단	이다쯔게(板付)	F-51	대령 Curtis R. Low
	제49전폭비행단	요코타(横田)	F-51, F-80	대령 Aaron W Tyer
	제35전투요격비행단	미자와(三澤)	F-51	대령 Jack D. Dale Jr.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부 대		주둔기지	주력 기종	지 휘 관
미국	제51전투요격비행단	이다쯔게(板付)	F-80	대령 Oliver G. Cellini
	제27전투엄호비행단	이다쯔게(板付)	F-84E	대령 Ashley B. Packard
	제4전투요격비행단	일본 존슨(Johnson)	F-86A	준장 George F. Smith
	제3폭격비행단	이와쿠니(岩國)	B-26	대령 Henry S. Brady
	제452폭격비행단	이다쯔게(板付)	B-26	준장 Luther W. Sweetser
	폭격사령부	요꼬타(横田)		준장 Robert H. Terrill
	제19폭격전대	가데나(嘉手納)	B-29	대령 Payne Jennings. Jr.
	제98폭격전대	요코타(横田)	B-29	대령 Richard H. Carmichael
	제307폭격전대	가데나(嘉手納)	B-29	대령 John A. Hilger
	제315전투공수비행사단	히가시후주(東府中)		준장 John P. Henebry
	제314공수비행전대	아시야(蘆屋)	C-119	대령 Richard W. Henderson
	제374공수비행단	아시야(蘆屋)	C-46/47/54	대령 Charles W. Howe
	제437공수비행단	일본 브래디(Brady)	C-46/54	대령 John R. Roche
	제61공수비행전대	아시야(蘆屋)	C-54	대령 Frank Norwood
호주	제77전투비행대대	수영(K-9)	F-51	대대장 R. C. Cresswell
남아공	제2전투비행대대	진해(K-10)	F-51	대대장 중령 R. F. Armstrong
그리스	제13공수비행대	다치카와(立川)	C-47	소령 Demiris Panagiotis
태국	공수비행대	다치카와(立川)	3/C-47	소령 Pramoth Puthipanta
캐나다	제426공수비행대대	미 맥코드(McChord)	6/C-124	대대장 중령 C. H. Mussels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2 절 북한 및 소련공군 활동

1. 북한공군

1) 북한공군의 확대 및 활동

6·25전쟁 개전 시 약 2,800여 명의 병력과 Yak-9, IL-10 등 총 226대의 항공기를 보유한 상태에서 김포, 여의도, 수원 등의 아군의 전방 소재 비행장과 서울, 인천, 부평, 영등포, 수색 등 주요 철도역과 주변 군수공장 및 군용 창고, 막사 등에 대해 활발한 공격을 감행했던 북한공군은 1950년 6월 27일 전격적인 미 공군의 참전과 더불어 궤멸상태에 이르렀다. 1950년 11월 1일 소련의 지원으로 중국 안둥(安東) 기지에서 소련 고문관 페트라체프(Петрачев) 대좌의 지도아래 혼성비행사단을 창설하였고 사단장에는 이활(李闊)이 임명되었다. 이 혼성비행사단은 Yak-9기 24대와 조종사 26명으로 구성된 추격기 연대와, PO-2기 6대와 조종사 14명, IL-10 조종사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IL-10기는 보유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로써 궤멸상태에 이르렀던 북한 공군은 소련의 지원으로 중국 땅에서 전투력을 복원하게 되었다. 새롭게 전투력을 복원한 북한 공군은 1950년 11월에 염주, 선천, 정주, 신의주, 강계, 안주, 평양 상공에서 유엔 공군과 공중전을 벌이는 등 이들 지역에서 북한 지상군 엄호임무와 국군과 유엔군 지상부대에 대한 공습을 실시하였고 청천강상의 교량과 아군 집결지역, 기지, 도로 등을 폭격하여 아군의 군수물자 수송과 예비대의 진출을 저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양, 순천 일대에 전단 살포 임무도 수행하였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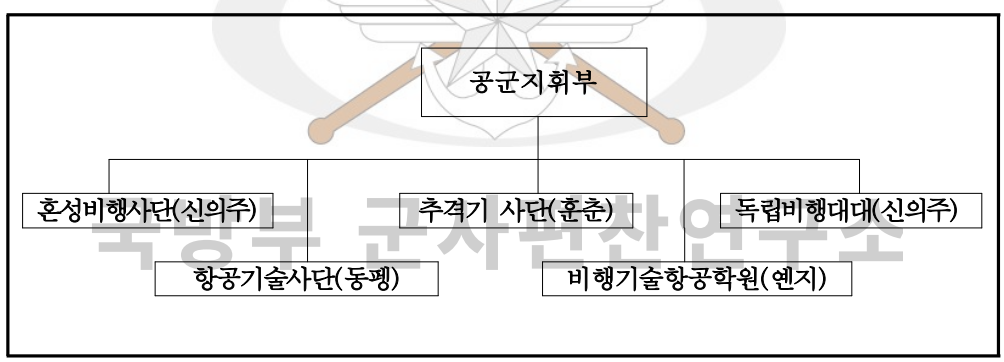
전투력 복원 즉시 활동을 재개했던 북한 공군은 중공군이 지상전에 개입하고 더불어 중국 주둔 소련공군이 참전함으로 인해 압록강지역의 공중방호가 가능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지고 북한 서북부 지역이 안정화되자 혼성비행사단을 1950년 11월 중에 신의주기지(K-30)로 전개하였다.[2)]

1951년 4월에 이르러 북한 공군은 더욱더 그 규모와 실전능력 면에서 전쟁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였다. 우선 부대규모와 체제에서 이전의 전투부대와 지원부대가 체계적으로 복원되었다. 1951년 4월 기준 공군지휘부가 구성되었고 예하에 2개 공병대대 및 각 1개씩의 비행기 수리소, 공군병원, 통신 중대가 편성되었다. 전투비행부대로는 1개 혼성비행사단과 추격기 사단, 독립비행대대가 편성되었고, 또한 중국지역에 MiG-15기 조종사 및 기술요원 양성을 위한 기관으로 항공기술사단을 두었고 옌지(延吉)에 비행기술항공학원을 두었다. 전투비행부대와 항공기술사단, 비행기술항공학원을 지원하고 방호하기위한 후방지원부대로 항공기술대대와 독립항공경비대가 편성되었다.

<표 8-3> 1951년 4월 기준 북한공군 조직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신의주기지에 배치된 혼성비행사단은 IL-10 습격기(폭격기) 1개 연대와 YAK-9 요격기 1개 연대로 구성되었고 이들의 임무는 아 지상군에 대한 공습(폭격 및 기총사격)과 유엔 공군기에 대응하여 공중전을 수행하는 방어제공임무였다. 중국 훈춘에 위치한 추격기(요격기) 사단은 LA-9 요격기 연대로 구성되어 중고도 요격임무 및 지상표적에 대한 공격임무를 부여받았고 신의주에 배치된 독립비행대대는 PO-2를 보유하고 주로 야간 중고도 폭격임무를 담당하였다.

옌지에 소재한 비행기술항공학원은 1개 습격기 연대, 1개 요격기 연대 및 2개 항공기술대대로 편성되어 1951년 4월 기준 조종사 570명, 초급 항공지원요원(기술 전문가) 964명을 교육하고 있었다. 이들 교육생 중 LA-9 조종사 32명과 지원요원 122명 및 IL-10 조종사 32명과 지원요원 161명은 1951년 7월 1일까지 교육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며, 1951년 12월 15일까지 LA-9 조종사와 지원요원 244명, IL-10 조종사 64명과 TU-2 사격수 및 무선통신사(항법사) 322명의 양성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1952년에 교육을 종료할 계획이었다.

<표 8-4> 1951년 4월 기준 북한공군 전력 현황[3)]

부 대	조종사	보유항공기	배치기지
혼성비행사단 • IL-10 습격기 연대 • YAK-9 추격기 연대	21 17	IL-10 / 30 YAK-9 / 30	신의주
추격기 사단	23	LA-9 / 30	훈춘(琿春)
독립비행대대	18	PO-2	신의주
비행기술항공학원	학생조종사 570명	YAK-18 / 15 YAK-11 / 15 YAK-9v / 8 YAK-9p / 5 UIL-10 / 6 IL-10 / 6 LA-9 / 8	옌지(延吉)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북한군 조종사에 대한 MiG-15기 전환교육은 1950년 12월 25일 중국 둥펑(東鳳)에 전개한 소련 제324전투비행사단에게 부여되었고 교육은 1951년 1월 5일부터 시행될 계획이었다.[4)] 둥펑에 위치한 항공기술사단은 MiG-15기 조종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조종사 65명과 2개 연대, 2개 항공기술대대로 편성되어 MiG-15기 운영을 위한 조종사 및 기술요원 양성임무를 수행하였다. 이 밖에도 소련 연해주에서 1951년 4월부터 6월까지 100명의 북한공군이 LA-9 조종사 양성을 위한 비행훈련에 참가하고 있었다.

1951년 4월을 기준으로 북한 공군의 작전능력은 즉각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조종사는 60명으로 기종별로는 IL-10기 21명, YAK-9기 13명, LA-9기 18명, PO-2기 8명이었다.[5] IL-10기 조종사들은 통상적인 비행 기상조건 하에서 주간에 중·저고도 편대규모로 지상군대형과 도로, 항만에 대한 공습임무를 수행할 기량을 보유하고 있었고, YAK-9기 조종사들은 주간 중고도에서 전폭기엄호, 공중전 수행, 육안정찰 등의 전투임무가 수행가능하며, LA-9기 조종사들은 주간 중고도에서 공중전 및 도로상의 밀집된 병력에 대한 공습임무수행이 가능했다. PO-2기 야간 폭격 조종사들은 야간 중·저고도에서 대지폭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항공기의 부족으로 임무수행이 제한되었다. 비상대기 편조는 경보가 발령되면 2~6분 사이에 이륙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고, 이륙 후에 무선통신을 통해 구체적인 전투임무 접수가 가능하였다.

한편 1951년 1월부터 북한 지역에 위치한 비행장에 대한 복구와 건설작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는데, 강동(江東), 의주(義州), 강계(江界) 등의 프로펠러 항공기용 비행장들이 새롭게 건설되거나 건설 준비 중에 있었고 미림(제트항공기용), 신의주, 평양, 풍천, 온정리 등 기존비행장은 복구·확장 작업과 함께 엄체호가 구축되었다.[6] 그러나 북한 지역에 대한 비행장 건설 및 복구 작업은 유엔공군의 지속적인 폭격으로 인해 난관에 봉착했는데 복구와 파괴가 반복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결국 1951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항공기를 배치하여 작전이 가능할 정도의 공사진척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소련고문단은 비행장 건설과 관련하여 "북조선 전역에서 동시에 실시해서는 안 되며, 고사포와 특히 안둥(安東)과 신의주 비행장에 배치된 전투기들에 의해 엄호를 받을 수 있는 서북지역의 개별 지대로부터 건설을 시작"[7]할 것을 권고했다.

북한 공군은 이전 보다 증강된 전력과 체계적인 후방지원에 힘입어 보다 활발한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전투 활동을 벌였으며, 북한이 소위 '3차 작전'이라고 부르는 1950년 12월 25일부터 1951년 1월 24일까지의 기간 동안 북한 공군은 전선서부에서 중요 시설물을 엄호하고 지상전투부대를 지원함을 물론 유엔 공군기들과 공중전을 벌였다. 특히 평양-남포 이북 상공과 남포-신의주를 잇는 해안선에 대한 방공활동에 치중하였다. 1951년 1월 16일, 평양상공에서 북한 공군의 추격기 편대(편대장 : 백기락)는 유엔 공군의 B-26 폭격기에 대한 요격임무를 수행하였고, 1월 22일에도 유엔 공군전투기들과 공중전을 벌였다.[8] 또한 4차 작전(1951년 1월 25~4월 21일) 기간 중 북한 공군은 전선 서부의 시설 방호와 방공임무에 주력하였는데, 추격기들은 4~8기 1개편대로 전투초계 비행을 실시하여 유엔 공격기들에 대한 방공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습격기와 야간 폭격기는 유엔지상군의 방어전선과 종심에 있는 주요 시설물에 대한 공격과 병력이 집결되어 있는 서울, 인천, 수원, 용인, 평택, 천안, 이천 지역에 대한 정찰활동과 함께 선전물 살포임무도 수행하였다.[9]

북한공군의 활동 중 유엔군을 특히 괴롭힌 것은 6월 중순부터 시작되어 7월 12일까지 이어진 PO-2기 활동이었다. 1951년 6월 14일 03시경 미 제606항공통제 및 경보중대 레이더에 포착된 비행물체가 수원비행장과 서울 서남부 10마일 지점인 독산리 미 제8군 주차장에 각각 40파운드와 200파운드 폭탄 4발을 투하한 후 북으로 도주하였다.[10] 이 공격으로 인한 아군의 피해는 없었고 이후 확인결과 이는 PO-2기로 판명되었다. 6월 14일 이후 이들 PO-2기는 수원, 김포비행장과 유엔 지상군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였다. 이들은 통상 폭탄투하 지역에 약 100~1,000피트의 저공으로 침입해 폭탄을 투하하는 전술을 사용하였는데 가장 피해가 컸던 것은 6월 17일 새벽에 감행된 수원 비행장에 대한 공격이었다. 이날 01시 40분에 PO-2기 1대가 폭탄 4발을 활주로 지역에 투하하여 미 제335전투비행대대 주기장에 있던 F-86기 1대가 완파되고 8대에 손상을 입혔는데 이중 4대가 대파되었고 인원 2명이 부상당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날 PO-2기를 조종한 북한 조종사는 나운영이었고 그는 일기에 "내가 투하한 폭탄으로 많은 적기가 파괴된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적었다.[11] 6월 23일 제8폭격대대 소속 B-26폭격기 조종사 허맨(Dick Herman) 대위는 김포 항공관제센터의 지시로 00시 15분 PO-2에 대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추격을 시작하여 문산 북동부 13마일 상공에서 PO-2기 1대를 격추하였으며, 6월 30일 밤에는 미 해병비행단의 롱(E. B. Long) 대위가 조종하는 F-7F이, 7월 13일에도 F-7F기가 PO-2기를 각각 추적하여 격추하였다.

이들 PO-2기는 자정 전후 시간대에 1~2개 편대를 지어 아군 비행장과 지상군 병력 숙영지 및 시설들을 공격하였으나 6월 17일의 수원비행장 공격에서 성공을 거둔 것을 제외하고는 아군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는 못했지만 아군에게 심리적인 불안과 공포를 안겨주어 미군 병사들에게 '취침점호관'(Bedcheck Charley)으로 불리게 되었다.[12)]



PO-2기 제원 및 성능

기 장/폭/고(m)	8.2/11.4/3.1m	최대/순항속도(mph)	80/67
중 량(lbs)	2,184	최대상승고도(ft)	18,800
제 작 사	소련 Polikarpov社	항속 거리(NM)	268

2) 대공방어능력 증강

북한의 대공방어능력은 매우 미약한 수준에서 출발하였는데, 이는 속전속결식의

남침전략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김일성은 단기에 한반도를 석권할 구상으로 남침을 개시하였고 북한지역의 대공방어는 애초 염두에 두지 않았다. 따라서 개전 시 북한의 대공 전력은 37㎜ 소구경 대공포 24문과 85㎜ 중구경 대공포 12문을 보유한 대공포연대 2개가 전부였다. 그러나 이마저도 1개 연대는 지상군에, 1개 연대는 해군에 배속시켜 통합된 전력발휘를 어렵게 하였다[13]. 그러나 막상 전쟁이 시작되자 유엔공군은 제공권을 장악하고 전선과 무관하게 북한지역에 대한 가공스런 공습을 감행하였다. 북한군이 기습으로 서울을 점령한 다음날인 1950년 6월 29일 미 공군 B-29 중폭격기 21대가 평양비행장에 폭탄 약 200여발을 투하하였고, 7월 3일에는 F-80기 및 F-81 전폭기 76대가 평양시내의 공항과 철교를 공격하였으며, 7월 5일에는 B-29기가 평양 시내를 폭격하는 등[14] 김일성은 지상에서의 선전과는 달리 공중에서는 완전한 패배를 체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유엔공군의 압도적인 위력 앞에서 2개 대공포 연대만으로 북한 전역을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따라서 북한 지도부는 대공포부대를 증가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1950년 11월까지 1개 대공포연대와 독립 대공포 대대 10개, 대공기관총 중대(12.7㎜ 대공기관총 보유) 2개를 추가로 신설하였다. 1951년 4월에는 3개 독립포병연대가 추가 신설되었다. 이로써 제19~23독립대공포연대가 완비되었는데 이들 연대는 각기 편제상 군관 170여 명을 포함 총 1,440여 명의 병력에 12.7㎜ 대공기관총 36~41문, 37㎜ 소구경 대공포 24문을 보유하였다.[15] 또한 보병 각 군단 예하 보병사단에는 각기 대공기관총 30문과 37mm 소구경 대공포 6~8문으로 편제된 고사포 대대가 편성되었다. 이로써 북한 지상군은 각 보병사단 지원을 위한 고사포대대로부터 군단 지원을 독립대공포연대가 창설됨으로써 수적으로는 열세이지만 어느 정도 대공방어망을 갖추게 되었다.

북한군은 대공방어수단의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대공방어를 위해 대공 부대를 경량화하고 기동화하기 위해 37㎜이하 소구경포 이하의 대공포로 구성하고 이동포대로 운용할 것을 지시하였다.[16] 이러한 방안은 소규모 지역 방어에 효과를 보였는데 1950년 12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1개 소구경대공포 이동대대가 방어한 평양-강계 간 도로에서 항공기의 상시 비행경로를 따라 화기진지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구축하였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유엔 항공기들이 피해를 입었다.[17] 유엔공군의 항공기에 위협적인 무기는 37㎜대공포였으며 피해 항공기의 70%가 37㎜자동대공포에 의한 피해였으며 12.7㎜ 고사기관총의 항공기는 격추 비율은 2%에 지나지 않았다.[18]

그러나 이러한 대공방어능력 증강에도 불구하고 이는 유엔공군에 대항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전력이었으며 중요시설과 철도, 교량 등의 전략목표를 방호하기에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따라서 전투임무를 수행 중인 북한군은 공중 전력의 엄호는 물론 대공포의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유엔 공군의 공중 전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었고 이로 인한 손실은 매우 심각했다. 이로 인해 북한군은 '항공기 공포증'이 확산되었고 도보이동을 포함한 주간의 모든 이동이 금지되었다.[19]

이러한 장비의 부족과 대공방어 전력의 심각한 열세를 극복하고자 나온 대안이 김일성이 지시한 소위 '비행기 사냥꾼 조' 운용이다. 1950년 12월 29일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238호("비행기 사냥꾼 조를 조직할 데 대하여")[20] 로 전 전선 및 후방 보병부대에 하달된 이 명령은 각 사단장 책임하에 '비행기 사냥꾼 조'를 조직하여 운용하라는 것으로 유엔공군기의 비행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유엔공군 전투기로부터 자주 공습당하는 목표물 부근 고지에 화기진지를 구성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대별로 2~3개의 '비행기 사냥꾼 조'가 구성되었고 중기관총 및 경기관총을 포함한 보병 소화기로 항공기에 사격을 가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었으며 1951년 1월 중순 이후부터 지상 군단 모든 부대와 동·서해 연안을 방어하고 있던 전 부대에서 대규모로 운용되었다. 이들 '비행기 사냥꾼 조'는 아군 항공기를 유인하기 위하여 배치지역을 은폐하고 모의차량과 대포들을 설치하는 등의 기만활동을 하였고 이는 매우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다주었다.[21] 북한 지도부는 '비행기 사냥꾼 조' 활동성과를 높이기 위해 유엔 항공기를 격추시킨 기관총 사수는 '영웅칭호'를 받을 권리를 주었고, 6대의 항공기를 격추시킨 자는 이중(二重) 영웅칭호를 받을 권리를 부여하였다.[22]

그러나 이러한 북한지도부의 대공방어능력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엔 공군의 파상적인 공습을 막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지만, 이전과 달리 유엔 공군조종사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에게는 지상 대공화기의 위협이라는 작전 장애요소가 발생되었고, 북한군은 유엔공군의 공습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던 이전의 상태를 벗어나 미비하나마 대응수단을 보유하게 되었다.

2. 소련공군

1) 소련공군 참전규모 확대

소련 자료들은 6·25전쟁에서의 소련 공군작전을 3단계로 나누고 있다.[23] 1단계 기간은 1950년 11월부터 1951년 3월까지로 이시기 소련 공군이 압록강 상공에서 유엔군에 대해 제한적인 행동범위, 즉 소극적 방어제공작전 범위 안에서 전투를 수행했던 시기로써 MiG-15기의 기술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미 극동공군사령부의 F-80기, F-84기, F-86기 등 전투기에 대항하여 제트기 실전 경험을 늘리며 공중전에서의 자신감을 회복하는 시기였다. 이 시기 제64전투비행군단에 배속되어 실전에 투입되었던 부대는 제28, 50, 151비행사단이었다. 2단계는 이전에 참전했던 부대를 대체하여 1951년 4월에 제324전투비행사단, 5월에 303전투비행사단의 교체투입과 함께 시작되어 이들이 임무를 종료한 1952년 초까지 이어졌다. 이들 2개 비행사단의 거의 모든 조종사들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실전경험이 풍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MiG-15기 비행시간을 축적하였기 때문에 소련 공군은 이 시기 작전을 "한국 상공에서 유엔공군의 지배를 역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압도적 승리를 성취"[24]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3단계는 1952년 초에 시작되어 6·25전쟁 종료 시까지로 이 기간 중 소련은 13개 비행연대를 6·25전쟁에 참전시켰으나 2단계의 제2차 세계대전 참전자부대를 대체하여 투입된 조종사들이 경험이 부족하여 MiG기의 대량손실이 발생했고 유엔공군의 피해는 미미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소련공군은 이 시기의 소련 공군작전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미군과 유엔공군이 6·25전쟁 초기단계에서 확보했던 공중우세의 재확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따라서 1950년 12월 31일부터 정전이 개시되는 1951년 7월 9일까지의 소련공군 활동은 위에서 언급한 1단계 후반부와 2단계 초기단계가 겹치는 시기로서 1단계와 2단계의 작전양상이 혼재하고 있다. 즉 소련공군의 참전을 망설이던 스탈린이 참전을 결정한 이후 참전규모의 확대를 염려하여 소극적으로 일관하던 자세를 버리고 참전규모 확대와 함께 미 공군과의 공중전에서 전투 강도의 심화를 결심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는 중공군의 투입만으로 완전한 승리가 가능하리라는 마오쩌둥과 스탈린의 예상을 깨고 중공군이 초기의 승기를 유지하지 못한 채 1951년 2월 이후 전세가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그 원인이 공중엄호의 부재에 있다는 평가에 따라 스탈린의 의지와는 별개로 분출하는 중공군 전선지휘부의 불만에 떠밀려 결정된 것이다.

소련 공군의 중공군에 대한 공중엄호 기피와 관련하여 가장 강하게 불만을 제기한 사람은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인 펑더화이였다. 펑더화이가 제3차 공세를 1951년 1월 8일 전격적으로 중지하자 북한 주재 소련대사이자 군사고문단장인 라주바예프(В. Н. Разуваев)가 격렬하게 비판하였다. 라주바예프는 중국인민지원군은 "승리의 절정"에서 진격을 중지해서는 안 되며 적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기 위하여 공격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5] 이에 대해 펑더화이는 오히려 "휴식과 공중지원, 보급 없이 우리 병사들이 적을 발로 따라잡고 전멸시키는 것을 불가능하다."[26]며 이에 굴복하지 않았고 소련공군의 공중엄호 부재로 인한 중공군의 손실과 보급품 차단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펑더화이는 지난여름 북한군이 병참과 통신선을 과도하게 늘여 유엔공군의 공격에 대책 없이 당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펑더화이의 주장은 외관상으로도 중국인민지원군에 대해 적절한 지원을 하지 못한 소련의 실패를 언급한 것이었고 그는 실질적으로도 1950년 11월 이후 압록강 상공에서 소련 MiG-15기와 유엔 항공기들 간의 교전이 있었음에도 1951년 초의 지상전에서의 공산군의 승리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중국 수뇌부의 압력과 불만에 따라 소련은 외형상 제64전투비행군단의 예하 부대 편성을 강화하였다. 우선 1950년 11월 군단 창설시 배속시켰던 제2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50, 151전투비행사단 중 1950년 12월 말에 전투임무를 종료한 제28전투비행사단과 1951년 2월 초까지 전투임무를 지속했던 제50전투비행사단을 대체하여 소련공군의 최정예부대인 제324, 303전투비행사단을 1951년 4월과 5월에 각기 제64전투비행군단 예하부대로 편성하였다. 그리고 제151전투비행사단은 군단 제2제대 예비전력으로 선양기지에 배치하였고 제87, 92고사포사단과 제10공중탐지기연대, 제18항공기술사단을 추가적으로 배속했다.

<표 8-5> 소련 제64전투비행군단 편성(1951. 1～1951. 6)

구 분	보유 장비	주둔 기지	활동 기간	지 휘 관
제64전투비행군단		선양		근위중장 벨로프
제151전투비행사단	60/MiG-15기	선 양	'50.11～'51.9	중좌 사포즈니코프 A. Y.
제50전투비행사단	60/MiG-15기	안 둥	'50.12～'51.2	대좌 파쉬케비치 A. B
제303전투비행사단	90/MiG-15기	안둥, 먀오고우	'51.5～'52.2	소장 로보프 (Georgiy A. Lobov)
제324전투비행사단	60/MiG-15기	안 둥	'51.4～'52.1	대좌 코체두브 (Ivan N. Kozhedub)
제351야간전투비행연대	20/La-11	안 둥	'51.6～'53.1	
제18비행기술사단		안 둥	'51.6～'53.8	
제87고사포병사단	37/85mm 고사포	박 천	'51.6～'53.1	
제92고사포병사단		안 둥	'51.6～'53.1	
제10탐조연대		안 둥	'51.6～'53.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새로 배치된 고사포사단은 5개 연대로 구성되었고 각 연대는 37㎜ 소구경 고사포 6문을 각기 보유한 4개 포대와 85㎜ 중구경 고사포 8문을 각각 보유한 4개 포대(砲隊)로 구성되었다. 표적획득과 방향 탐지 레이더 및 컴퓨터가 이들을 지원

하였다. 이들 고사포사단의 기본 임무는 북한 지역에 건설 중인 비행장 4개를 방어하고 안둥지역 교량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또한 소련은 유엔 공군의 야간 공습을 대비하기 위해 야간 전투비행연대인 제351요격연대를 안둥으로 전개시켰다.

형식적으로는 제28전투비행사단을 교체하여 투입된 제324비행사단은 제2차 세계 대전 시 소련의 최고 에이스 중의 한명이며 소련 영웅칭호를 세 번이나 받은 코체두브 대좌(Ivan N. Kozhedub)가 지휘하고 있었고 예하에 제196요격비행연대와 제176근위요격연대를 두고 있었다. 제324전투비행사단 소속 조종사 대부분은 세계 2차 대전 참전자였으며 공군 창설일에 붉은 광장과 투시노(Tushino)에서 공중사열에 자주 참가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MiG-15기를 비롯한 많은 제트항공기 비행시간을 축적하고 있었다. 코체두브 대좌와 그의 부대는 1950년 11월 중순 모스크바 근처의 모기지인 쿠빈카(Kubinka)를 출발하여 그해 12월 23일 중국 지린(吉林)성 둥펑(東鳳) 비행장에 도착하여 이전까지는 주로 중국 조종사에 대한 교육임무를 실시하였다.

미군 조종사들이 '최상의 조건'과 '높은 수준의 기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324비행사단 조종사들은 1950년 12월부터 1951년 3월까지 치밀한 전투훈련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장차행동을 준비하였다. 제324비행사단이 참전을 지시받았을 때 제196전투비행연대장 페페랴예프 중좌는 사단 내 조종사들은 잘 훈련되었으며 제196전투비행연대 조종사들은 사단 조종사들 중 최고로 훈련된 조종사라고 주장하였다.[27]

스탈린은 최초 제64비행군단 소속 2개 비행사단(제151, 324 비행사단)을 평양으로 파견함으로써 소련 조종사들이 유엔군의 공중우세확보에 도전할 수 있도록 소련의 개입을 확대시킬 계획이었다.[28] 그러나 안주와 평양 사이의 공산군의 비행장 건설에 대한 유엔 공군의 지속적인 공중공격은 이 계획을 포기하게 만들었고, 중국에 주둔하면서 작전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소련 공군부대의 북한지역으로의 파견이 좌절되자 스탈린은 압록강상의 철교와 수력발전설비의 안전에 우려를 표명하였고 따라서 소련으로부터 대규모 전투비행사단을 파견하여 그 지역의 방공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과업은 각기 30대의 MiG-15기를 보유한 3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비행연대(제17, 18, 523전투비행연대)로 편성된 제303전투비행사단에게 부여되었는데, 제303전투비행사단은 1950년 초에 소련공군 최초로 MiG-15기로 기종 전환되었고 6·25전쟁이 발발한 후 잠시 극동관구로 소속이 전환되었다. 로보프(Georgiy A. Lobov) 소장이 지휘를 맡고 있었고 1951년 3월 말 중국으로 전개했고 5월에 안둥을 거쳐 6월 다둥고우(大東沟) 비행장[29]으로 이동하여 본격적인 작전을 수행하였다.

2) 소련공군 활동

1950년 12월 31일 중국인민지원군과 북한군은 제3차 공세를 개시했다. 간단없는 포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지상군은 대단한 기세로 38도선을 연한 유엔군의 방어선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시작했고 미 제8군사령관인 리지웨이 장군은 서울로부터 전격적인 후퇴를 고려했다. 새해가 시작된 다음날 미 제4전투비행단 소속 세이버 전투기는 김포기지로부터 일본 존슨기지로 철수했고 1951년 1월 4일 제51비행단의 F-80기는 서울이 재점령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일본 쯔이끼(築城) 기지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후퇴과정에서 가장 놀라운 모습은 공산측 공군이 활동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지상군 공세에 대한 지원노력이 전무했으며 MiG기의 작전이 오히려 감소했다는 점이다.[30]

제64전투비행군단에게 부여된 임무는 중국 동북지방 주요지역 및 시설의 유엔공군 공격으로부터 방어, 북한 지역에 진입한 중공군의 주요 후방시설물 방호, 그리고 부가적인 성격의 임무인 중국 및 북한 조종사 양성이라는 창설 당시 부여된 세 가지 임무에서 변화는 없었다. 그러나 이 시기 중국군 지휘부, 특히 전선지휘관들이 요구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북한지역에 진입한 중공군에 대한 근접항공지원과 같은 전선에서의 직접적인 작전지원과 더불어 북한지역 내의 병참 및 통신선 방호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스탈린과 소련 공군지휘부는 참전 초 구상대로 미국과의 직접적인 접전회피 전략을 지속하였다.

1월 초순이 비교적 조용하게 지나가고 1월 19일부터 31일까지 미 극동공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폭격사령부와 제5공군사령부의 미그회랑 지역 내의 철교, 보급품 야적장에 대한 격렬한 공격이 북한 북서부 지역에서 다시 재개되었다. 같은 시기 소련 제50전투비행사단 조종사들은 유엔공군 전투기와 전폭기에 대해 격렬한 전투를 수행하며 대응하였다.

1월 21일 소련 조종사들은 이전 보다 더 남쪽으로 비행하였고 북한의 핵심 철로 연결지점인 안주와 순천 상공에서 미군과 유엔 공격기들에 대해 보다 공격적인 방법으로 작전을 수행하였다. 모든 MiG기가 중국의 기지로 안전하게 돌아온 이후 제50전투비행사단은 F-84기 8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31] 1월 23일 08시 05분경 유엔공군 F-84기 2개 대대가 신의주 비행장을 공격하고 있을 때 소련 제29요격전투연대 소속 MiG-15기 14대와 중국 전투비행연대 소속 MiG-15기가 비상 이륙했고 공중전이 벌어졌다. 전투가 종료되었을 때 소련은 자신의 전투기는 1대가 격추된 반면 F-84기 6대를 격추시켰다고 주장했다.[32] 그러나 공격이 있은 후 이틀 뒤 MiG기 4대가 격추된 것이 확인되었고 3대가 추가로 격추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4대가 손상을 입었고 F-84기의 손실은 없었다는 주장이 보고되었다.[33]

1951년 1월 말에서 2월동안 유엔 공군의 북한 북서부의 공중우세는 점차 감소했고, 미군 조종사들이 MiG기와의 공중전을 회피해야 했다. 이는 지상전투상황이 불리해 짐에 따라 유엔공군 제트기들이 일본으로 모두 철수하였기 때문에 벌어진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북한 북서부에서 가졌던 소련 공군의 초기 우세에도 불구하고 승강타 문제와 같은 몇몇 기술적 약점들이 금방 눈에 띄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승강타가 완전히 정지되어 결과적으로 제50전투비행사단 소속 2대의 MiG기가 추락하고 조종사 2명이 사망하였다. 기술자들이 승강타의 조잡한 설계를 수정했지만, 소련 조종사들은 승강타에 높은 하중을 가하는 급가속기동을 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기총 조준경이었는데 시속 800㎞ 이상이 되면 표적에 정확한 선도각(leading angle)을 선택할 수 없었다.

2월 3일 제50전투비행사단은 유엔공군기 61대를 격추하고 단지 사단 소속 전투기 7대만을 손실하는 경이적인 기록을 남기고 2달간의 한국에서의 임무를 마쳤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공중전투는 제151전투비행사단에게 돌아갔고 예하 제28비행연대가 2월 8일부터 초계임무에 들어갔다. 소련 조종사들은 미 공군의 F-80기, F-84기, F-51전투기와 교전하면서 그들의 능력을 검증하였다. 낮은 수준의 유엔공군 활동과 겨울 기간의 북한 북서부 지역의 불량한 기상 조건으로 인해 3월 1일까지 대규모 공중전은 없었으며 기간 동안 소련 조종사는 F-84기 1대, B-29기 3대를 격추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며칠 후 F-86기의 전투 활동이 재개되자 작전속도는 빨라졌고 소련 조종사들의 부족한 경험과 기량이 노출되었다. 3월 중순 한 주 동안 중간규모의 공중전이 2번 있었다. 첫 번째 교전은 제28비행연대 소속 MiG-15기 2대였고 두 번째는 제 72비행연대 소속 MiG-15기 1대와 상대는 F-80기 1대였다.

코체두브가 지휘하는 제324전투비행사단은 1951년 4월 2일 안둥에 처음으로 조종사를 일괄 교체하여 배치되었고 다음날인 4월 3일 첫 번째 전투임무를 받고 출격하였다. 그러나 소련 조종사들에게는 매우 불행하게도 유엔군 공군기와의 교전에서 MiG-15기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34] 제196요격비행연대장 페페랴예프 중좌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제176근위요격전투연대의 훈련 기간 중 받은 “빈약한 전투 지침” 탓으로 돌렸다.[35] 이전에 제196연대 편대장을 역임했던 아바쿠모프(Boris S. Abakumov) 대좌는 그들은 압록강상의 교량을 폭격하고 있는 전폭기를 요격하라고 명령을 받았으나 3배 이상 많은 수적 우세를 가지고 구름 뒤에 있다가 그들을 공격하는 유엔 공군 전투기(엄호기)의 존재를 망각하였다고 회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 자료들은 이날 MiG기 1대만 손실되고 3대가 손상을 당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4월 6일 제324전투비행사단 아바쿠모프는 F-86기 두 대를 타격하였는데 그 중에 한 대는 추락하였고 미군 조종사는 포로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소련지도자들을 우려하고 있는 가장 큰 근심거리는 장거리 핵 폭격기의 위협이었다. 제2차 대전 시 독일의 대공습에 대한 기억은 생생하게 남아있었고 이것은 소련으로 하여금 방공체제 구축에 거액의 비용을 소모하게 하였다. 6·25전쟁은 이러한 소련의 방공체제를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6·25전쟁에서 소련 공군부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B-29기에 대한 대응이었다. 그러나 MiG기들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에 참전한 이후 B-29기에 의해 격추되었고 B-29기는 북한 주요표적에 대한 공습을 지속하였다.

그러나 4월 12일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이날 소련 조종사들은 유엔 폭격사령부의 전력을 맹렬하게 공격했다. 코체두브의 제324전투비행사단 소속 MiG-15기 36대는 압록강을 따라 표적을 향하여 비행하고 있는 40대의 B-29기를 요격하기 위해 출격하였다. 유엔 전투기의 엄호를 무시하고 이들 MiG기는 B-29기 편대 상방과 후방에서 강하하여 자동기관포를 B-29기 편대에 퍼부었다. 많은 B-29기폭격기가 불타고 추락했으며 장착된 폭탄을 조기에 투하하고 해상으로 빠져나갔다. 전투가 끝나고 소련은 이날 MiG기 손실 없이 B-29기 10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36]

<표 8-6> 소련 전투비행사단 전투성과(1950. 11. 1~1951. 9. 15)[37]

구 분	전투 기간	전투출격 (회)	유엔공군기 격추	손 실	
				항공기	조종사
제28비행사단	1950.11.1.~11.30	151	16	2	2
제50비행사단	1950.11.1.~1951.2.5	1,196	61	5	7
제151비행사단	1950.11.1~12.2 1951.2.8~3월	993	39	5	6
제324비행사단	1951.4.3~	2,731	82	6	17
제303비행사단	1951.5.8~	3,757	102	7	15
계		8,828	300	25	4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3 절 유엔 및 한국공군 작전

1. 유엔공군 작전

1) 극동공군사령부(FEAF)의 작전 준비

1950년 10월말에 중공군의 참전 이후 두 차례의 공세를 통해 북한지역 대부분의 영토를 회복하고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고 판단한 중국 지도부는 기존의 승리를 확대하고 추가적인 전과확대를 위해 제3차 공세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결정과정에서 현지 지휘관인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는 병력손실과 진지전으로 변화된 전장상황의 극복을 위해서는 휴식과 부대 재편성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마오쩌둥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는 유엔군이 정전을 빌미로 시간을 벌어 재무장을 꾀하고 있고 유엔 참전국들 간에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이 상충하고 있어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런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는 현 시기에 한국군을 집중적으로 섬멸하여 미군과 유엔군을 고립시키고 그 후 미군의 수개 사단을 섬멸할 경우 한반도 문제가 쉽게 해결 될 것으로 판단하고 1950년 12월 19일 공격개시 명령을 하달하였다.[38]

김일성 또한 12월 하순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유엔군과 국군이 38도선 방어선을 완벽히 구축하기 전에 동부 전선의 산악지형을 이용하여 방어가 취약한 전투지경선 부근으로 침투하여 후방에 강력한 제2전선을 형성한 후 중서부 전선에서 중공군이 유엔군의 주저항선을 돌파하면 이와 연결 작전을 실시하여 유엔군과 국군은 포위, 섬멸한다는 작전 지침을 하달하였다.[39]

한편 교통사고로 사망한 워커 중장을 대신하여 1950년 12월 26일 미 제8군사령관에 취임한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장군은 부산으로의 철수를 주장하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워커 장군과는 달리 38도선에서 부산까지의 공간지역에 방어에 유리한 6개의 축차 방어선을 설정하고 이를 활용한 지연전을 펼쳐 적의 출혈을 강요한 후 공세작전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세웠다.[40] 그러나 리지웨이 장군이 부임 후에 확인한 유엔군의 사기는 전반적으로 우려될 만한 상황이었다.[41] 이와 함께 1950년 12월 26일 현재 유엔 지상군의 병력은 약 35만 명이었으나 미 7개 사단 중 3개 사단만이 전투에 투입되어 있었고 나머지 부대들은 재편성 중이거나 마산과 부산항에 도착하였거나 이동 중에 있었다.[42] 또한 중공군과 북한군의 동향에 대한 정보파악에도 상당한 난맥을 보이고 있었다. 맥아더 장군은 당시 100만 명 이상의 중공군이 참전하여 유엔군과 대항하고 있다고 발표한 가운데 미 극동군사령부 정보담당자들은 중공군의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리지웨이 장군이 부임하여 미 제8군 지휘소 상황판에서 확인한 중공군의 위치는 "커다란 붉은 점(big red goose egg)"[43] 하나로 표시될 만큼 적군의 이동에 관한 정보는 한심할 정도로 빈약하였다.

1950년 12월 20일 스트레이트메이어 극동공군사령관은 이러한 상황을 깨닫고 제5공군 사령관인 패트리지 장군에게 그의 가용한 정찰자산을 총동원하여 중공군의 위치를 파악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후 10일간 미 제8군 방어선 후방 약 40마일 종심지역에 대한 공중사진 정찰활동이 매일 이루어졌고 촬영된 27,643매의 사진을 판독관들이 분석하였으나 성과는 미미했다. 12월 말이 되어서야 극동군사령부는 공산군에 대한 규모와 의도에 대한 비교적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있었는데, 극동군사령부가 평가한 중공군의 규모는 제4야전군 소속 177,018명, 제3야전군 101,560명이었고 북한군은 제1군단 14,139명, 제2, 5군단은 도합 24,305명이었다.

극동공군사령부는 중국공군의 전면적인 참전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 극동공군사령부는 당시 중국공군이 최소한 650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롄(大蓮) 부근에 주둔한 소련 공군 소속 전투기 400~500대가 전투대기하고 있어 언제든지 대규모의 지속적인 공중공격을 감행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했다. 만약 중국 공군이 전면적으로 참전한다면 유엔공군이 유엔지상군을 지원하고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장비 및 인력을 공수하는데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었다. 또한 중국공군의 참전은 한국과 일본 남부의 유엔 해군 함정 및 시설에 대한 공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습피해 발생 및 공산군 지상 작전에 대한 직접지원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유엔지상군은 더욱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 명확하였다. 특히 스트레이트메이어 극동공군사령관은 현실화되지는 않았으나 오끼나와에 주둔하고 2개 B-29기 중폭격기 전대가 공격을 받을 것을 우려하였다.[44]

이러한 우려 속에 12월 27일 동경의 메이지(明治)빌딩에서 모어하우스(A K. Morehouse) 준장과 웨이랜드(Otto P. Weyland) 소장은 그의 참모들과 더불어 해·공군 간 협조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하였다.[45]

① 해·공군 간 항공협조반 편성
② 극동 해·공군사령부 정보작전참모부 관계자들의 주간 회의 개최
③ 극동 해군 관계자의 극동공군 표적선정위원회 참여
④ 극동 해군 관계자의 항공전술통제반 참여
⑤ 동경과 제7함대에 항공정보 제공

회의가 끝난 다음날 극동해군사령관 조이 제독은 제77항모전단 조종사들이 통상임무인 현 전선의 동단(東端)에 대한 항공지원 수행은 물론 긴급 상황 시 함재기들이 서울 지역에서의 근접항공지원임무를 수행할 것과 만약 공군 통제관으로부터 할당된 표적을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전선 이북지역으로 나가 무장정찰 활동을 실시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극동공군사령부는 B-29 중폭격기 운용에 관해서는 미 제8군이나 제5공군사령관의 요청에 의한 평양 공습과 같은 사례를 제외하고는 폭격사령부 예하 전력의 1/3 또는 1/4을 철도차단작전에 사용하고 잔여전력은 전선근처의 병력과 보급품이 집중된 도시에 대한 공격에 운용하는 것으로 구상하였다. 이에 따라 제5공군사령부의 임무는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MiG-15기에 대응하여 제공권을 확보하고 주요 수송로와 통신선에 대한 차단작전, 아 지상군에 대한 근접지원 작전임무가 부여되었다. 정세의 중대성을 인식한 패트리지 제5공군사령관은 12월 31일 예하 비행단장에게 지휘서신을 보내 앞으로 수일간의 노력이 한국에서의 유엔군 목표의 성패(成敗)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46] 이로써 극동공군사령부는 이전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크게 달라지지 않은 임무와 작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공산군과의 일전을 기다리고 있었다.

2) 주요작전형태별 비행운영

<표 8-7> 1951년 1월~6월간 비행활동[47]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
비행활동(소티)	20,374	18,710	23,786	22,611	23,489	21,395	130,365

1951년 1월부터 6월간 유엔공군의 비행활동은 총 130,365소티(sortie), 월 평균 약 21,720소티로 중공군이 참전한 1950년 10월 이후 12월까지의 월 평균 비행활동 17,640소티에 비해 약 4,000여 소티(23%) 증가한 수치이다. 이 수치는 개전 초(1950년 6-7월)를 기준으로 할 때는 약 2.5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이러한 공군 비행활동의 증가는 전쟁규모의 확대와 함께 전세의 급박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표 8-8> 1951년 1~6월 중 주·야 항공기형태별 비행활동 현황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
주/야	주간 비행 활동	19,318	17,409	21,023	19,802	21,186	18,691	117,429
	야간 비행 활동	1,056	1,301	2,763	2,809	2,303	2,704	12,936
계		20,374	18,710	23,786	22,611	23,489	21,395	130,365
항공기형태별	중폭격기(B-29기)	794	717	786	565	547	447	3,856
	경폭격기(B-26)	1,470	1,248	1,425	1,617	1,711	1,554	9,025
	제트 전투기	6,941	5,896	8,961	7,342	7,381	6,239	42,760
	프롭 전투기	2,136	1,856	3,036	3,689	3,773	3,201	17,691
	정찰기	898	787	1,052	1,117	944	945	5,743
	수송기	6,529	6,574	6,832	6,357	7,528	7,328	41,148
	기타	1,606	1,632	1,694	1,924	1,605	1,681	10,142
계		20,374	18,710	23,786	22,611	23,489	21,395	130,365

이 기간 중 주간비행은 117,429소티이고 야간 비행은 12,936소티로 야간비행활동비율은 약 9.9%에 지나지 않았다. 항공기 형태별로는 제트 전투기 42,760소티, 프롭전투기 17,691소티, 폭격기(B-29기/26) 12,881소티, 수송기 41,148소티, 정찰기 5,743소티, 전술통제, 구조 등 기타 비행활동 10,142소티를 각각 운영하여 제트전투기(32.8%), 수송기(31.5%) 순으로 활동비중이 높았다.

<표 8-9> 1951년 1월~6월 작전형태별 비행운영

구분	근접 지원	무장정찰/ 항공차단	제공	정찰	구조	수송	항공 통제	기타	총 계
1월	2,671	7,794	876	1,322	100	6,517	232	862	20,374
2월	3,002	6,178	536	1,332	171	6,600	72	819	18,710
3월	5,405	7,371	1,159	2,259	163	6,551	509	369	23,786
4월	2,598	8,655	1,576	1,847	173	6,006	594	1,162	22,611
5월	2,824	8,224	1,748	1,602	116	7,183	330	1,462	23,489
6월	2,030	7,037	1,599	1,658	296	7,136	157	1,482	21,395
총계	18,530	45,259	7,494	10,020	1,019	39,993	1,894	6,156	130,36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또한 작전형태별 비행 운영은 근접항공지원작전 18,530소티(14.2%), 무장정찰 및 항공차단작전 45,259소티(34.7%), 제공(요격)작전 7,494소티(5.7%), 수송작전 39,993소티(30.6%)를 실시하였다.

기간 중 비행운영상의 주목할 만 한 점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1951년 3월부터 이루어진 제공(Counter Air:요격)작전의 급격한 증가로 이는 소련공군의 양적인 증강과 더불어 비교적 훈련이 잘된 제303, 324전투비행사단의 교체 투입으로 전투력에서도 자신감이 충만한 소련공군의 유엔 공군에 대한 적극적인 요격시도 증가와 북한 공군의 전력증강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무장정찰

및 항공차단 작전이 지속적인 증가세 유지와 3월을 제외한 근접항공지원임무의 감소로 이는 38도선을 중심으로 피·아간에 진퇴를 교차하면서 혼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공군의 전력증강과 병참 및 통신선을 차단하고 북한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비행장 복구와 건설을 포기시키는 후방차단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유엔공군은 미그회랑지역에서 이전보다 증강된 소련공군에 대응하여 공중우세확보를 통해 유엔공군의 차단 및 전략지역 폭격을 용이하게 하면서 근접항공지원을 통해 공산군 지상군 병력을 살상함으로써 유엔지상군의 공세 유지를 지원하였고, 무장정찰 및 후방차단을 통해 연장된 공산군의 병참지원선을 차단함으로써 중공군의 공격 기세를 둔화하거나 좌절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공중수송작전을 통해서는 아군이 공산군에게 포위된 위급한 상황하에서 장비 및 물자를 공중에서 투하하여 전력을 유지하고 전투의지를 고양하는 역할을 담당함은 물론 지상군 공정부대 투하를 통해 전력을 전투지역에 직접 투사하여 전과를 확대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6·25전쟁 발발 이후 1951년 6월 말까지 극동공군(유엔공군)이 거둔 전과로 병력살상은 약 156,500여 명, 항공기 약 390대를 파괴하거나 손상을 입혔으며 차량 약 19,000여 대를 파괴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표 8-10> 1950. 6. 27~1951. 6. 30 극동공군 전과 현황[48]

병 력	항공기		전차		차량		교량		건물	
	완파	손상	완파	손상	완파	손상	완파	손상	완파	손상
156,524명	159	234	1,181	1,225	19,393	13,729	387	1,132	85,781	118,231
철도절단	철로차량		터널		포진지		지하갱도		함선	
	완파	손상	완파	손상	완파	손상	완파	손상	완파	손상
1,235	3,956	11,615	29	623	2,318	1,311	13	23	316	435

이러한 주목할 만한 성과 이면에는 유엔공군의 피해도 상당했는데 항공기 총 손실은 기간(1950.6.27.~1951.6.30.) 중 702대이며 공산군에 의한 손실은 245대로 총 손실 중 약 35%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8-11> 1950. 6. 27~1951. 6. 30 극동공군 항공기 손실 현황[49]

작전 손실					비작전 손실		계
적 활동			비 적대 활동	불명/ 실종	비행 사고	기 타	
공대공	대공포	불명					
24	217	14	220	110	87	30	702

(1) 제공(Counter Air : 요격)작전

<표 8-12> 공대공 비행활동 및 공대공 전투간 피·아 항공기 손실[50]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
비행(소티)	876	536	1,159	1,576	1,748	1,599	7,494
아군항공기손실	2	0	2	4	0	7	15
적 항공기 손실	7	1	9	14	8	18	5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공군이 참전을 개시한 1950년 11월 이후 소위 미그회랑(MiG Alley)이라고 불리는 북한 서북부 상공은 피·아 공군간의 공중우세 확보를 위한 격렬한 전투공간이 되었다. 극동공군의 제공비행활동은 1950년 11월 916소티, 12월 760소티였고 1951년 1월에는 876소티로 대등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 기간 소련공군 제64전투비행군단에 소속되어 참전하고 있던 부대는 소련 제151전투비행사단과 50전투비행사단으로 각기 2개 연대에 사단별로 약 60대의 MiG-15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1951년 들어 제50비행사단이 2월 5일에 임무를 종료하고 제151비행사단이 3월에 제2제대로 변경된 후 후속 제대로 제303, 324전투비행사단이 증강

배치되었고 야간 전투를 위해 제315야간전투비행연대가 추가로 배치됨으로써 소련공군의 참전전력은 실질적으로 약 1개 비행사단(2개 연대)이 증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전력변화는 곧바로 3월 이후의 미그회랑에서의 공중전투 증가로 이어지게 되었다.

중공군의 제3차공세가 시작된 이후 유엔공군의 수원과 김포기지 상실과 이로 인한 일본과 대구기지로의 공중 전투전력 철수로 1951년 1월 중순까지 공중전은 소강상태를 보였다. 1950년 12월 30일 이후의 소강상태가 깨진 것은 1951년 1월 20일로 군우리 상공에서 F-84기 한 대가 MiG-15기 5대의 공격을 받아 날개와 캐노피에 손상을 입고 기지로 귀환한 이후였다. 1월 21일에는 소련 공군 제50전투비행사단과 중국공군 제28비행연대 소속 MiG-15기 12대가 신의주 상공에서 RF-80기를 엄호하던 F-80기 4대를 공격하여 F-80기 1대가 손실되었다. 또한 이날 MiG-15기 16대가 평상시 보다 훨씬 남쪽으로 내려와 대담한 기습을 감행하였는데 청천강상의 교량을 폭격하고 있던 12대의 F-84기를 공격하였고 공중전 결과 피·아 각각 한 대씩의 항공기 손실을 입었는데 제523전투비행대대장 버트람(William E. Bertram) 중령이 MiG-15기 한 대를 격추하였다.[51]

1월 23일에는 평양폭격과 신의주 비행장을 동시에 공격하기 위한 작전이 시행되었다. 우선 평양폭격은 대구에 주둔하고 있던 제49전투비행단 소속 F-80기 46대가 오키나와에서 출격하는 제19, 307폭격전대 소속 B-29기 21대를 엄호하고 신의주 비행장 공격은 제27전투비행단 소속 F-84기 33대가 동시에 공격하는 것으로 소련공군의 주의를 분산시켜 전력집중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먼저 신의주 비행장 공격을 위해 F-80기 33대가 새벽시간대 대구기지를 이륙하여 신의주 상공에 도착 후 이중 8대가 신의주 비행장을 기습하자 압록강 건너 안둥기지에서 MiG-15기 30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이륙하는 것이 관측되었고 이어서 양측 간의 공중전이 실시되었다. 공중전 결과 MiG-15기 4대를 격추확인하고 추정 3대 격추, 4대를 파손하는 전과를 수립하였다.[52] 한편 평양공습편대는 F-80기가 먼저 평양지역의 대공포 진지를 기총, 폭탄, 로켓을 이용해 무력화하자 이어 도착한 B-29기 편대가 적재폭탄 90%를 평양비행장에 집중 투하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러한 성공적인 공격으로 극동공군의 북한 서북지역상공에서의 공중우세 확보가 기대했으나 지상에서의 전세가 불확실하게 지속되자 제5공군사령관은 대구기지를 폐쇄할 것을 결심하고 1월 26일 제49전투비행단은 일본 쯔이기 기지로, 제27전투비행단은 일본 이다즈께 기지로 철수하였다. 이로써 한국에 주둔한 제트 전투기 전력은 전무하게 되었고 프롭 전투기인 F-51만이 진해와 대전기지에 잔류하게 되었다. 이후 극동공군은 미그회랑에서의 공중전 상황은 가급적 회피하게 되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2월에는 압록강지역의 정찰을 위해 이륙한 RF-80기에 대한 엄호비행만이 유일한 미그회랑 상공 진입 비행이었다. 2월 중에 거둔 유일한 공중전 승리는 2월 5일에 제67전폭기대대 멀린스(Arnold Mullins) 소령이 조종하던 F-51기가 평양상공에서 북한공군 YAK기 한 대를 격추한 것이다.

지상에서의 전세가 회복되면서 제5공군은 한국으로의 제트전투기 배치를 서둘렀고 2월 22일 제4전투비행단 소속 제334요격비행대대 F-86기를 대구에 전개하면서 수원기지를 중간경유기지로 사용할 계획으로 재보급 및 무장 분견대를 파견하였다. 그러나 당시 수원기지는 활주로가 피폭이 심한 상태여서 작전기지로서 활용되기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미그회랑에서의 공중우세를 소련 공군에 점령당한 제5공군과 압록강을 건너 유입되는 대규모 물자와 병력에 대한 차단에 조바심을 가지고 있던 극동공군 폭격사령부는 미그회랑지역에 대한 출격을 3월 1일부로 재개하기로 결심하고 실행에 옮겼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폭격사령부 예하 제98폭격전대 소속 B-29기 18대를 F-80기 22대가 엄호하는 전투계획이 수립되었고 F-80기 편대가 합류지점에 먼저 도착하였으나 일본에서 이륙한 B-29기 편대의 도착이 지연되자 연료부족으로 호위임무를 포기하고 F-80기 편대가 귀환해 버렸다. 이 상태에서 17시 26분경 엄호 없이 정주 부근 고군영지역 교량을 폭격하던 B-29기 4대에 대해 MiG-15기 6대가 공격을 가하였고 이 과정에서 B-29기 2대가 손상을 입어 대구와 부산기지에 불시착 하였으나 B-29기 후미 사격수들도 MiG-15기에 사격을 가해 1대를 격추하고 1대에 손상을 입혔다.[53] 또한 이에 앞선 15시 45분경 선천부근 상공에서 F-80기 4대와 MiG-15기 12대가 조우하여 공중전을 벌여 MiG-15기 3대에 손상을 입혔다.

이러한 작전결과는 제5공군으로 하여금 수원기지로의 전개를 서두르게 하였고 결국 3월 6일부터 수원을 중간기지로 경유하여 압록강 상에 대기하면서 초계활동을 시작했으며 소규모 주기장과 숙영천막이 설치된 3월 10일 제334요격비행대대는 수원으로 배치되었고 같은 시기 일본에 주둔한 제336요격비행대대 예하 F-86기도 대구로 전개 배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력으로는 미그회랑에서의 공중우세를 확보할 수 없었고 제5공군은 F-86기를 미그회랑 내 여러 지점에 분산하여 전투초계임무 위주로 활용하였다.

3월 들어서면서도 소련 공군의 유엔공군에 대한 요격활동은 MiG-15기보다 전투성능이 떨어지는 F-80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F-86기와의 교전은 소련공군도 회피하는 경향을 보였다. 3월 12일 F-86기 편대가 MiG-15기 편대를 감시하고 있는 동안 다른 12대의 MiG-15기가 남시(南市) 근방에서 임무 중인 제8전대 F-80기 4대를 공격하였는데 교전 중 MiG기 2대가 서로 충돌하여 추락하였고 3월 17일에는 선천 부근 상공에서 3대의 MiG-15기가 제8전대 소속 F-80기 1개 편대를 공격하던 중 상호 충돌하여 각각 1대씩 추락하였다. 3월 23일에는 F-86기 45대가 압록강 상공에서 MiG기들과 교전하는 동안 제19 및 제307폭격전대 소속 B-29기 22대가 고군영과 정주지역 철교를 폭파하기 위해 미그회랑으로 진입하였지만 소련 공군의 저항은 없었다.

3월 말이 되어 압록강의 해빙이 시작되자 막대한 인적, 물적 교통로인 신의주와 안둥을 연결하는 철교와 교량의 폭파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폭격사령부는 제5공군에 강력한 엄호를 요청하였고 제4요격비행단에는 임무상공에서의 초계임무가, 제8 및 제49전폭비행단에는 발진기지인 이다즈께기지로부터 임무지역까지의 엄호임무가 배정되었다. 3월 20일 압록강상의 교량에 대해 폭격사령부 예하 제19, 98, 307폭격전대 소속 각기 B-29기 12대씩 총 36대가 청성진, 만포진, 남산리 철교를 폭격하였고 제19폭격전대 소속 B-29기가 MiG기와 조우하여 B-29기 폭격기 사격수가 MiG기 2대를 파괴하고 소련공군 공격으로 B-29기 1대가 손상을 입었다.

4월의 공중전 양상은 이전보다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가장 달라진 점은 소련공군의 전투의지가 이전보다 강해졌고 조종사의 전투기량자체가 상승한 것이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전의 소련공군 조종사의 전투기량은 MiG-15기의 우수성을 살리지 못했고 전투의지 또한 빈약하여 소극적 자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4월 초까지는 이전의 행태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4월 3일과 4일에 벌어진 공중전에서는 F-86기에 의해 이틀 동안 4대의 MiG-15기가 격추되고 F-86기는 어떠한 손실도 없었다. 또한 4월 7일에도 제27요격비행단 소속 F-84기 48대가 엄호하는 가운데 제98, 307폭격전대 소속 B-29기가 의주의 국도교량과 신의주 철교를 폭격하는 가운데 MiG-15기 30대가 공격을 시도하였으나 1대만이 F-84기의 엄호망을 뚫고 들어와 B-29기 1대를 격추하는 성과만을 올렸고 F-84기에 의해 MiG-15기 한 대가 격추되었다.

그러나 4월 중순이 되면서 MiG기의 공격형태가 이전보다 과감해지고 조종기량은 훨씬 우수해졌다. 신의철교를 폭파하기 위해 39대의 B-29기가 출격하였고 이를 F-84기와 F-86기가 엄호하였다. 그러나 목표 도착 3분전에 제19폭격전대 소속 B-29기 8대에 MiG-15기 40~50대가 공격을 가하여 1대를 격추하고 5대에 심한 손상을 입혔고, 제307폭격전대 소속 B-29기 12대에 MiG-15기 20대가 공격을 가해 1대가 격추되고 1대는 심한 손상을 입고 수원기지로 급히 귀환했다. B-29기 3대가 한꺼번에 손실을 입자 스트레이트메이어 극동공군사령관은 폭격기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되기까지 당분간 B-29기의 미그회랑지역 내 출격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F-84기의 폭격기 엄호임무를 중지시키고 F-86기만 엄호임무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4월 16일과 18일에 벌어진 공중전에서는 소련 조종사들은 더욱 더 진일보한 전투기량을 발휘하였는데 이날 공중전에서 F-86기는 한 대의 MiG기도 파괴하거나 손상을 입히지 못했다. 이날 전투 이후 유엔공군은 소련 조종사에 대해 이전보다 더욱 공격적이고, 미그회랑지역에 대한 단호한 방어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훌륭한 부대훈련을 연마하고 4대에서 16대에 이르는 편대대형 운용에 점차 숙달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54]

4월 16일 극동공군의 영상(사진)판독관들이 북한 지역 내 비행장 복구 및 건설공사가 완료단계에 있어 이들 비행장공격 시점이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이에 따라 스트레이트메이어 극동공군사령관은 폭격사령부에 전 역량을 투입하여 4월 17일부터 북한 내 비행장을 파괴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다. 이러한 임무수행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위한 전제조건이 미그회랑지역에서의 F-86기에 의한 제공권 확보가 우선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제5공군은 MiG기 조종사들의 16기 편대운영능력이 향상된 점을 고려할 때 미그회랑에서의 F-86기 초계비행의 수적 증가가 절실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이에 따라 대구기지에 주둔하고 있던 제336전투비행대대의 수원배치를 4월 6일 개시하여 4월 22일에 완료함으로써 기존에 수원기지에서 작전 중이던 제334전투비행대대와 작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4월 22일부터 제4요격비행단은 기존 F-86기 4기 2개 편대에서 6기 2개편대로 증강하여 미그회랑 초계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고 이날 오후 초계임무를 마치고 귀환하려는 F-86기 편대를 공격하기 위해 36대의 MiG-15기가 안둥에서 출격하였고 이들은 임무를 교대하기 위해 임무지역에 진입한 다른 F-86기 2개 편대(12대)와 조우하여 공중전이 전개되었으며 그 결과 MiG-15기 4대가 격추되고, 4대가 심한 손상을 입고 공중전이 종료되었다. 이러한 공중전의 결과는 이후 소련공군을 또 다시 소극적 전술행동으로 전환하게 한 반면 극동공군에게는 북한 북서부 지역에서의 공중우세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을 갖게 하였다. 이후 북한 지역 내 비행장 폭격 임무는 커다란 저항 없이 진행되어 주간에는 폭격사령부 B-29기 중폭격기가, 야간에는 제5공군 B-26 경폭격기가 폭격을 계속하였고 F-86기조차 초계임무를 종료하고 귀환 중에 평양지역 비행장 복구 인원에게 기총사격과 폭격을 할 만큼 북한 지역 비행장 폭격임무를 '오리 사냥(Shooting sitting ducks)'큼이나 쉽게 생각했다.[55]

소련공군의 소극적인 대응은 5월 9일 신의주 비행장 폭격 시에도 나타났는데 신의주비행장에서의 기지 확장과 항공기 활동 증가에 따라 기지 폐쇄를 목표로 제5공군 및 미 제1해병비행단 전투기 총 312대를 동원하여 폭격을 가하였고 이날의 공중엄호전력은 제4요격비행단의 F-86기를 대신하여 제27비행단의 F-84기와 미 제1해병비행단의 F-9F 전투기가 담당했다. 이에 대응하여 MiG-15기 약 50대가 안둥기지를 이륙하였으나 18대만이 압록강을 건너와 접근하였으나 적극적인 전투행위를 하지 않은 채 지나쳤으며 결국 MiG-15기 한 대가 손상을 입는데 그쳤다. 이날 신의주 비행장 공격 결과 지상에 주기된 항공기 대부분이 파괴되었으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건물 106동, 대규모 유류저장고 1개소, 보급창고 및 탄약고 29개소가 폭파되었고 건물 밖으로 대피하던 병력 상당수가 사살되었다.

5월 20일에는 유엔공군 F-86기 36대와 MiG-15기 50대가 맞붙은 대규모 공중전이 미그회랑에서 벌여졌다. 공중전 결과 MiG-15기 3대가 격추되었고 1대가 격추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5대가 손상을 입었다. 이 전투에서 제334비행대대 소속 자바라(James Jabara) 대위[56]는 보조연료탱크 1개가 떨어져나가는 어려운 상황에서 전투에 임해 MiG기 2대를 격추함으로써 항공전 사상 첫 번째 제트전투기 에이스(Ace : 공중전에서 공산군기 5대 이상을 격추한 조종사에게 주어지는 호칭)가 되는 영광을 차지하였다. 5월 20일 전투 이후 소련공군의 활동은 중지되었고 5월 31일 MiG-15기 12대가 신의주 남방 75마일 상공에서 F-86기의 엄호를 기다리고 있던 제19폭격전대 B-29기 2대에 대한 공격을 함으로서 활동이 재개되었는데 이날 전투에서도 B-29기 후미사격수에 의해 1대가 격추되고 이어 도착한 F-86기에 의해 2대가 격추되었다.

6월 1일에는 신안주 서남방에서 철교를 폭파하고 있던 제98폭격전대 소속 B-29기 4대를 호위하고 있던 F-86기가 연료부족으로 기지로 귀환한 틈을 타 MiG-15기 25대가 B-29기를 공격하여 B-29기 1대를 격추하였으나 B-29기 사격수에 의해 1대가 격추되고 이어 구조요청을 받고 긴급 출동한 F-86기에 의해 다른 MiG기 2대가 격추당했다. 6월 17일 F-86기는 미그회랑 초계비행 중에 MiG-15기 36대와 5차례 공중전을 벌였고 이날 교전 결과 MiG기 1대를 격추하고 6대에 손상을 입혔고 6월 18일에는 약 40대 이상의 MiG기와 F-86기 32대가 교전을 벌여 MiG기 4대를 격추하였으나 F-86기 1대가 격추되어 조종사가 귀환하지 못했다. 6월 20일에는 북한 공군이 IL-10기를 이용하여 신미도를 대상으로 시험폭격을 실시하였고 제18전폭전대 소속 F-51기가 이를 발견하여 2대를 격추하고 3대에 손상을 입혔고 각기 지원요청을 받고 출격한 Yak-9과 또 다른 F-51기 편대가 교전하여 Yak-9 1대가 격추되었다. 이어서 F-86기 엄호하에 도착한 F-51편대와 MiG-15기와의 교전에서는 F-86기가 MiG기 4대에 손상을 입혔으나 MiG-15기 1대가 F-51기 1대를 격추하였다. 6월 22일에는 신의주 비행장을 공격하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F-80기에 대해 공격을 가하려는 MiG-15기와 이를 엄호하던 F-86기와 교전이 벌어져 MiG기 2대를 격추하였으나 F-86기 1대도 손실 당했다.

6월 이후 소련공군 조종사들의 활동은 이전보다 치밀하고도 대범한 활동을 보였는데 우선 미그회랑을 벗어나 평양-진남포 이남까지 활동영역을 확장하였고, MiG-15기의 장점인 고고도에서의 기동성과 F-86기를 추월하는 상승속도 등을 공중전에 활용했었을 뿐 아니라 F-86기의 초계비행을 회피하여 F-80기, B-29기 등을 공격하는 등 보다 세련된 전술을 구사하였다. 6월 24일에는 신의주 비행장을 공격하고 있던 F-80기에 MiG-15기 편대가 공격을 가했으나 F-80기는 아무런 피해 없이 MiG기 4대에 손상을 입혔고, 6월 26일에는 MiG-15기 12대가 F-86기의 엄호를 뚫고 들어와 영유비행장을 폭격하고 있던 B-29기에 대해 공격을 가했으나 F-84기가 긴급히 엄호전력으로 투입되어 MiG-15기 한 대를 격추하고 임무를 종료하였다. 또한 6월 28일과 30일 MiG-15기 6대가 신안주와 성천에서 F-51기를 공격하기도 하였으나 F-51기들은 무사히 탈출하였다.

이로써 중공군의 3~5차 공세 시기 공중전은 초기 소련공군의 소극적인 전략과 전투의지, 조종사 기량 미흡에 따라 유엔공군의 우세를 보였고, 4월 중순 이후에는 소련 공군이 이전보다는 적극적인 자세와 조종사의 기량 향상을 보였지만 유엔공군의 공중 전투 전력의 우세, 조종사의 전장 환경에 대한 높은 적응력과 전투기량, 적극적인 전투의지 등에 의해 점차 미그회랑에 대한 공중우세는 여전히 유엔공군에 의해 지배되게 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근접항공지원작전(Close Air Support)

<표 8-13> 1950년 6~12월 근접항공지원 비행활동 현황[57]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
근접지원 비행(소티)	2,671	3,002	5,405	2,598	2,824	2,030	18,530

공군의 근접항공지원작전은 규모는 통상 피·아 지상군의 접전정도와 규모에 비례한다. 즉 지상군의 접전정도가 치열하고 규모가 증대될수록 근접항공지원의 실시량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 실시된 근접항공지원은 월 평균 3,088소티로 아군의 방어기(1950년 6월~9월)의 월 평균 약 5,600소티, 북진기(1950년 10월~12월)의 월평균 약 3,440소티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월별로 분석해 보면 3월의 5,405소티를 제외하고는 3천소티 미만의 근접지원비행을 실시하여 지상에서의 접전이 거의 없이 북진을 감행했던 1950년 10월(3,340소티)과 11월(3,652소티)보다 상당한 줄어든 규모이다. 이를 근거로 볼 때 3월을 제외한 시기의 근접지원은 매우 저조한 실적으로 공군의 지원능력이 감소되지 않았을 경우 이는 지상군의 접전의 정도나 규모 혹은 긴박성이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유엔군이 적절한 준비로 중공군과 북한군의 공세에 적절한 대응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3월 들어 근접지원이 급증한 것은 1951년 1월과 2월의 중공군 3~4차 공세를 저지한 유엔 지상군이 본격적인 공세작전으로 전환하여 양평-횡성-평창선의 공산군을 격멸한 후 서울을 수복하고 38도선까지 진출하여 공산군의 공세준비를 분쇄하기 위한 킬러(Killer)작전과 리퍼(Ripper)작전이 감행된 시기로 다른 시기보다 유엔과 공산군의 지상군의 접전이 대규모적이고 격렬하게 벌어졌기 때문이다.

워커장군 후임으로 미 제8군사령관으로 부임한 리지웨이 장군이 1951년 1월 20일 제시한 “지상군의 안전을 위해 지역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공산군을 찾아내어 격멸해야 한다.”[58]는 새로운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군과 지상군의 보다 긴밀한 협조와 치밀하게 계산된 전술행동이 필요했다. 1951년 1월 초에 미 제8군과 제5공군은 이러한 공·지 합동작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구에 합동작전본부(JOC)를 이동 설치하였고 육군 장교가 전술항공지원을 요청하면 공군장교가 항공기의 출격을 지시하는 작전운용기구로 유지되고 있었다. 또한 제5공군과 제8군 참모들은 쌍방의 작전회의에 참가하는 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러한 체제는 미8군 사령관인 리지웨이 장군이 원하는 곳 어디는 제5공군의 전력을 집중할 수 있게 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51년 1월 출격을 위해 엔진 예열(warm-up) 중인 제35전투비행전대 F-51전투기

1951년 1월 25일 미 제1, 9군단이 한강 이남지역에 대한 위력정찰작전인 썬더볼트(Thunderbolt)작전을 개시하자 제5공군은 이들 2개 군단에 근접항공지원역량을 집중시켰다. 이들 작전지원을 위해 대구동촌비행장(K-37)에 주둔 중이던 미 공군 제6147전술항공통제대대 소속 모스키토(T-6) 전술항공통제기를 대전기지로 전진 배치하였고 이로써 모스키토기는 전방 작전지역에서 3시간동안 체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합동작전본부(JOC) 및 제5공군 전술항공통제본부(TACC)와의 통신망 연결을 위해 전선과 대구기지 간에 1월 26일부터 고주파(VHF) 20개 채널을 중계할 수 있는 C-47 공중중계기를 체공시키는 획기적인 조치를 단행하였다.[59] 모스키토 항공통제기는 전선 20마일 후방에 체공하면서 이동하거나 은거중인 공산군을 발견하여 SCR-300 무전기로 지상군부대 및 전투비행부대와 연락하여 전폭기를 표적지역으로 유도하고 전술항공통제반(TACP), 전술항공통제소에 통보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이들의 활약은 공산군의 공세 예봉을 꺾는데 대단한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2월 3일 래빈(Edwin W. Lavigne) 대위가 조종하는 모스키토기는 미 제25사단 진로상의 대규모 공산군 병력을 발견하고 약 2시간 동안 체공하면서 10개 전폭기 편대를 안양, 인천, 영등포 지역으로 유도하였고, 2월 6일에는 윌킨슨(Dorrence E. Wilkinson) 대위가 양평인근에서 대규모 병력의 공산군을 발견하여 F-84기 4대, F-4U기 6대, B-26기 6대를 공산군 병력집결지점으로 유도, 공격을 감행하게 하여 약 3,000명 이상의 공산군을 살상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썬더볼트 작전이 2월 9일 성공적으로 종료되자 2월 10일 저녁 무렵 유엔 지상군은 김포비행장과 인천항을 다시 점령하게 되었다. 이러한 서부전선에서의 성공에 고무된 리지웨이 장군은 2월 5일 라운드업 작전을 개시하여 미 제10군단으로 하여금 동부지역에서 인민군 제2군단을 섬멸하고 북진하여 홍천-대관령-강릉 선을 회복할 것을 지시하였고 2월 10일 이후 리지웨이는 근접항공지원의 최우선을 미 제10군단에 할당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서부지역 미 제 1, 9군단을 지원했던 항공전력 대부분이 중동부 전선 지원으로 임무를 전환하게 되었다. 2월 12일 공산군이 횡성지역의 한국군을 공격하자 오전에는 에딘버그(Aubrey C. Edinburgh) 중위가 조종하는 모스키토기는 공산군 병력 약 400여 명을 발견하고 F-4U, F-80기, F-84기, F-51기 등 5개 편대의 네이팜탄 및 로켓공격을 유도하였고, 이날 오후에는 윌키스(Charles R. Wilkis) 중위가 조종하는 모스키토기가 공산군에게 봉쇄되어 있는 한국군 1개 대대를 발견하고 전폭기 3개 편대를 유도하여 포위망을 벗어나게 했다.

2월 13일부터 16일까지 지평리 전투에서도 모스키토기는 매일 10회 이상 출격하여 모든 종류의 전폭기를 유도하여 미 제23보병연대와 프랑스 대대를 포위한 공산군을 격멸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전투가 종료된 후 미 제2사단장인 루프너(Ruffner) 장군은 지평리 방어진지에 연결된 경사면에서 네이팜탄에 의해 이제껏 보지 못한 많은 공산군 병력의 시체를 보았다고 진술하였다.[60]

중공군의 4차 공세는 중·서부 전선에서 유엔군의 강력한 공격으로 실패를 하였으나 동부 산악지역에서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어 제천까지 내려왔다. 리지웨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장군은 동부산악지역으로 침투하여 양평-횡성-평창선 이남에 배치된 공산군을 격멸시키기 위해 미 제9, 10군단을 동원한 킬러(Killer)작전을 전개하였다. 킬러작전 수행기간(1951. 2. 21.~3. 6) 동안 유엔 지상군의 차량과 기동장비를 이용한 뛰어난 기동성과 유엔 공군의 적시적인 공중공격으로 병참선과 통신선이 지나치게 확장된 공산군은 커다란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었다. 2월 22일 서울 동북쪽에서 모스키토기는 전투기 11개 편대를 유도하여 공산군 약 1,000여 명을 살상하였고, 2월 25일에도 횡성 부근 참호 속에 매복한 채 국군 6사단의 진로를 차단하고 있던 공산군 병력을 발견하고 전폭기 7개 편대를 유도하여 약 200여 명을 사살하고 약 300여 명을 부상시키는 전과를 거두었다. 2월 24일~26일간에는 평창지역으로 진격하는 미 제7사단에 대해 15회의 근접항공지원을 실시하였고, 작전이 성공적으로 종료된 후 미 제7사단장인 페렌바흐(Claude B. Ferenbaugh) 장군은 "우리에게 제공된 근접한공지원은 .... 매우 훌륭했다. 공습의 훌륭한 결과로 인해 최소한의 희생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61]라고 제5공군에게 감사를 표했다.

킬러작전의 성공으로 한강선 이남에서의 공산군을 완전히 격멸한 유엔 지상군은 해빙으로 넓어진 서울 방향 한강 정면을 도강하기 보다는 중부지역에서 바로 북상하여 서울 동부지역으로 우회하여 서울을 점령하고 공산군을 서울 이북으로 몰아내기 위해 3월 7일부터 미 제9, 10군단을 동원한 리퍼작전을 감행하였다. 이 작전의 결정적 단계는 미 제9군단 예하의 제25보병사단이 공산군의 포화를 과감히 제치고 서울 동부 15마일상의 남·북한강의 합류지점에 교두보를 설치하는 초기작전단계로 3월 7일부터 1주일 동안 제5공군은 1일 평균 182소티를 근접항공지원에 할당하였고 제25사단의 도강 시에 집중적으로 575소티를 지원하였다.

3월 14일 뜻 밖에 공산군이 별 저항 없이 서울을 포기하고 후퇴하기 시작했고 미 제8군이 3월 15일 홍천을 점령하자 공산군은 전 전선에서 퇴각을 시작했고 이에 따라 극동공군은 매일 1,000소티 이상의 출격을 감행하여 북상하는 공산군을 공략했다. 3월 16에는 홍천에서 북상 후퇴하는 공산군 병력 1,200명을 발견한 모스키토 2대가 전투기 6개 편대를 유도하여 600여 명을 사살하고 300여 명에 대해서는 부상을 입혔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월 하순부터 3월 말까지 진행된 킬러작전과 리퍼작전의 성공으로 유엔지상군은 서울 수복은 물론 공산군을 38도선으로 축출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2월과 3월에 각기 북한지역으로 진입하기 시작한 중공군 제2전략예비대인 제19병단과 제3병단이 4월이 되자 각기 전선에 도착하여 대규모 병력 증강이 이루어졌고 3개 병단 체제로 개편이 이루어져 제19병단(제63, 64, 65군)은 서부전선 배후에 포진시켰고 제3병단(제12, 15, 60군)은 중부전선에 진출했고 1950년 12월 전투에서의 손실을 보충한 제9병단(제 20, 26, 27, 39, 40군)은 중동부 전선으로 증파 포진되어 증강되어 있었다.[62]

증편을 마친 중공군은 1951년 4월 22일 박모(薄暮) 시간을 기해 5차 공세를 감행하였는데 이들은 미 제1, 9군단을 이중 포위하여 섬멸하고 한반도를 가로질러 서울과 간성을 잇는 도로를 차단하여 서울을 재점령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중공군의 공격이 개시되자 B-29기는 철원 남방 및 문산 북방의 중공군 집결지에 대해 폭격을 가했으며 야간에 중공군 제19병단 예하 제64, 65군이 임진강을 도하하자 지상 MPQ 레이더의 유도로 B-26기가 야간 공습을 가하였고 날이 밝기 시작하자 극동공군 전 가용전력을 총동원 4월 23일 하루 약 1,100여 회의 근접지원 비행을 실시하였다. 이날 제35전폭기대대 소속 F-80기 2대는 임진강 상공에서 근접지원을 실시하여 갱도로 숨어들려는 공산군 200여 명을 발견하고 260파운드 폭탄 4발과 로켓과 50mm 기관총 3,600발을 발사하여 최소 175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세웠다. 이날 하루 제5공군 조종사들은 약 2,000여 명의 공산군 병력을 사살한 것으로 추정하였고 이에 대해 지상 관측자들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63]

그러나 유엔군의 총력적인 저지에도 불구하고 공산군의 강력한 공세로 인해 김화에서 국군 제6사단이 붕괴 되는 등 전반적으로 어려운 전세로 전환되자 밴플리트 장군은 유엔 지상군에게 후퇴하면서 전투를 지속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미 제9군단 지역의 근접지원은 미 해군 제77특별기동함대 항모 탑재기가 전 전력을 동원한 근접항공지원으로 서울-간성간의 도로 확보를 위해 반격에 나섰고, 미 제1군단 지역은 극동공군이 폭격기와 전폭기를 동원하여 서울 북방 3마일까지 유엔군이 안전하게 후퇴할 때까지 엄호하였다. 이러한 해·공군의 공중엄호는 공산군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주간 활동을 최대로 억제하여 야간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해주는 효과를 주었다.

이 기간 중 여의도기지에 주둔하고 있던 제35전투비행전대 소속 F-51기의 활동이 주목할 만한데, 이 부대는 1일 100회 이상 출격하여 유엔 지상군을 지원하였으며 4월 27일에는 강우 중에 서울 북방에서 남진 중인 공산군을 발견하고 네이팜탄으로 공격을 가했고 한강도하를 시도하는 공산군 6,000여 명에게 재차 기총 소사를 가하여 사상을 입혔으며 도강에 성공한 일부 공산군들도 국군 해병대에 의해 가볍게 제압되었다. 중공군의 제5차 1단계 공세(4월 공세)는 대단히 많은 손실을 입고 4월 29일에 종료되었다.[64]

이 시기 유엔공군의 이전과 두드러지게 달라진 전술적 변화는 주간과 다름없는 대담한 야간 근접지원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지상에 위치하여 폭격기를 표적에 근접 유도하여 폭탄을 투하시키는 임무를 수행한 MPQ-2 레이더 파견대의 활약에 힘 입은 바 크다.[65] MPQ-2 레이더 유도반은 미 제1, 9, 10군단을 지원하기 위해 3개 이동반(Moving Post)을 구성하여 차량에 레이더를 탑재하고 임무 군단의 이동에 따라 전선 가까운 곳에 주둔하면서 야간 폭격기 유도임무를 수행하였는데, 유엔 지상군이 요청한 표적 425개소에 대해 450회의 폭격을 유도하여 공산군에게 막심한 인명피해를 입혔다. 야간 폭격 시 B-29기의 경우 500파운드 근접신관폭탄 40발을 투하하였는데, 1발 폭발 시 직경 150피트 넓이에 15,000개의 철제 파편이 비산되어 인명살상에 대단히 효과적이었다. 4월 26일에는 미 제9군단을 지원하기 위해 B-29기 1대가 공격 집결중인 공산군에 폭격을 가하였고 이로 인해 그날 밤 공산군의 공격은 실시되지 않았으며, 다른 지역에서 B-26기 2대가 260파운드 파열폭탄으로 공산군에 대해 폭격을 가했는데 다음날 유엔군 지상수색대가 확인 결과 공산군 시체 약 400구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야간 근접지원의 성과는 곳곳에서 나타났는데 B-29기 1대가 야간 근접지원을 실시 한 다음 날 가평근처에서 지상군 수색대는 600구 이상의 공산군 시체를 확인하였고, 동부 전선 인제 근처에서는 B-29기 1대가 국군의 요청에 의해 야간근접지원을 실시하여 공산군 약 800여 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6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공군의 제5차 2단계 공세(5월 공세)가 동부전선의 한국군 2~3개 사단과 미 제2, 7사단 일부를 섬멸하여 차후 작전의 유리한 기반을 조성할 목적으로 시작되었다.[67] 중공군과 북한군은 5월 15일까지 춘천-인제를 잇는 전선에 병력 약 125,000명을 집결시켜 다음날인 5월 16일 18시를 기해 잠깐의 공격준비포격을 실시한 후 서부 및 중동부 전 전선에서 공격을 개시하였다. 공격 개시일인 5월 16일은 안개와 강우로 인해 유엔공군의 작전에 방해를 받았고 이러한 상황은 수일간 계속되었으나 어려운 작전여건에도 불구하고 여하간의 희생을 치르더라도 끝을 보겠다는 결의로 달려드는 공산군[68]을 저지하고 초기 수세에 몰린 유엔지상군의 지원을 위해 근접항공지원은 계속되었다. 극동공군은 수세에 있는 동부전선 미 제10군단 관할지역에 5월 17일부터 매 시간당 3~4회 근접지원 공격을 실시했으며, 5월 17일 하루 동안 미 제2사단 정면에서의 근접항공작전을 통해 최소한 공산군 약 5,000여 명을 사살하였다. 또한 5월 18일부터 미 해군 제77특별기동함대 항공모함 3척이 근접항공지원 준비가 완료되고 극동공군이 공산군의 공세저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는 가운데 유엔지상군의 견고한 방어와 포병화력이 더해져 중공군의 제5차 2단계 공세는 초기 공산군이 일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것이 전쟁의 흐름 자체를 바꾸지 못했다.

미 제10군단장 알몬드 장군은 공산군이 야간에 대규모 공격을 가해옴에 따라 대규모 화력을 일시에 집중할 수 있는 MPQ-2 레이더 유도에 의한 B-29기의 근접지원을 선호하였다. 5월 19일 공격준비를 하고 있던 공산군에게 B-29기 8대가 근접신관폭탄 80톤을 투하하였고 이로 인해 공산군의 공격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5월 20일에도 B-29기 15대가 미 제2사단 정면에 집결 중인 병력에 대해 공격을 가해 약 1개 대대 병력을 사살하였고 혼란 중에 포로로 잡혀있던 미 공군 조종사 1명도 탈출할 수 있었다. 5월 21일에도 B-29기 8대와 5대가 한계와 춘천지역에 집결 중인 공산군에 대해 각각 공격을 가하여 많은 병력을 살상하였다.

이러한 유엔군의 대응으로 인해 공산군의 공격 예봉이 5월 20일부터 꺾이기 시작하자 밴플리트 미 제8군사령관은 공세로 전환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 명령에 따라 미 제1, 9, 10군단은 공산군의 주보급로를 차단하고 병력을 섬멸하기 위한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반격에 나섰고 극동공군은 지상군의 반격을 위한 준비공격으로 일본에 주둔한 제19, 307폭격전대 소속 B-29기 22대와 제3폭격전대 소속 B-26 경폭격기 11대를 동원하여 5월 22일과 23일 야간에 지상 MPQ-2 레이더 이동반의 지원을 받아 전 전선에 걸쳐 공산군 병력 및 진지에 대한 폭격을 실시하였고 폭격결과 중공군 2개 연대와 1개 대대 병력이 사살된 것으로 판명되었다.[69]

5월 마지막 주에는 기상이 좋지 않은 가운데 후퇴하는 공산군에 대한 유엔지상군의 반격이 강화되고 극동공군의 근접항공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자 많은 공산군의 투항이 이루어졌는데, 5월 28일 미 제1군단은 의정부와 문산을 점령하고 있었고 미 제9군단과 10군단이 화천저수지 남쪽의 공산군을 차단하기 위해 화천에 진입하였는데 고지에 대한 유엔 지상군의 포격이 이루어진 후 유엔 공군 전폭기 편대가 도착하여 폭격을 시작하려하자 공산군은 고지에서 백기를 들고 내려와 항복하였다. 유엔지상군의 반격이 시작되고 5월 말까지 중공군과 북한군 11,526명이 유엔군에 투항하였다.

(3) 무장정찰 및 항공차단작전

중공군의 참전과 그들의 1, 2차 공세로 유엔군의 방어선이 임진강 하구에서 양양선까지 후퇴한 1950년 12월 28일 당시 극동공군사령부 부사령관이었던 웨이랜드(Otto P. Weyland) 소장은 "장기전에 있어 전술 공군은 불충분한 제공권을 강화하기 위한 여타 임무보다는 잘 계획된 후방차단 임무를 통해 지상군의 성공과 전구공군사령관의 모든 임무 성공에 공헌할 수 있다."고 피력한 바 있다.[70]

이러한 견해는 6·25전쟁 초기부터 극동공군사령관인 스트레이트메이어 장군도 공감하는 바였으며 수적으로 우세한 중공군을 맞아 유리한 국면 조성을 위해서는 후방으로부터 전선으로 연결되는 병참지원선을 파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었다.

중공군의 3차 공세가 둔화된 1951년 1월 둘째 주부터 극동공군사령관은 제5공군과 폭격사령부에 공산군의 병참지원선을 차단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 기간 동안 실시된 무장정찰 및 후방차단 작전은 월 평균 7,543소티로 6·25전쟁 발발 이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전에 비해 수치상으로는 2.5배 이상 증가되었다.[71]

이렇게 무장정찰 및 후방차단작전이 증가된 것은 첫 번째로 중공군의 참전과 유엔군의 후퇴로 중공군 및 북한군의 병참선이 확대되어 후방차단의 중요성이 증가된 데 따른 것이고 두 번째는 무장정찰 임무가 급증하였는데 전선의 이동이 빈번한 가운데 공산군의 고정표적 공격보다는 이동공격표적이 증가함에 따른 결과이다. 이점은 작전기간 동안 제5공군 전폭기들이 공산군의 보급수송차량 공격에 무장정찰 전력의 대부분을 할당하였다는 점이 증명하고 있다.[72] 또한 후방차단 및 무장정찰임무는 이 시기 극동공군 전체 비행운영의 약 35%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임무비율을 기록하였다.

<표 8-14> 1951년 1~6월 무장정찰/항공차단 비행활동 현황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
무장정찰/후방차단(소티)	7,794	6,178	7,371	8,655	8,224	7,037	45,259

기간 중 무장정찰 및 후방차단작전은 3가지 공격목표에 집중했는데 그 첫 번째는 도로, 교량, 철도, 보급창, 철도조차장 등 수송로와 병참지원선에 대한 차단이며 두 번째는 보급품을 운반하는 수송차량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을 통한 차단이며 세 번째는 북한 지역 내 복구되거나 건설되고 있는 비행장에 대한 폭격을 통한 작전능력 차단이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가. 수송로 및 병참지원선 차단 작전

1951년 1월 둘째 주부터 시작된 극동공군의 항공차단작전계획은 1950년 12월 15일에 하달된 극동공군사령부의 차단작전계획 제4호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 차단작전계획 제4호는 북한전역을 11개 구역으로 구분하고 모두 172개소의 파괴대상목표를 선정, 식별부호를 부여하였는데 철교 45개소, 교량 12개소, 터널 13개소,

철도조차장 39개소, 보급소 63개소가 망라돼 있었다. 스트레이트메이어 극동공군 사령관은 북한의 서북부와 중부 국경에 이르는 모든 철교와 철도조차장을 가용 전력을 모두 동원하여 파괴할 것을 폭격사령부에 지시했고, 제5공군 전폭기들은 중부전선과 연결된 모든 주요 철도와 간선도로의 교량을 파괴하도록 임무를 부여하였다. 이 지시에 의거 1월 19일부터 31일까지 제5공군과 폭격사령부는 북한 중부와 북서부의 모든 목표에 대해 6·25 전쟁 기간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지속적인 차단작전을 실시하였고 13일 동안 80개소 이상의 철도와 도로를 공격, 파괴하였으며 철도조차장, 보급소와 같은 기타 표적도 공격하였다.

이러한 극동공군의 북한 서북부의 주요 수송로에 대한 공격으로 이 지역으로의 수송이 불가능해지자 공산군은 동부지역 해안에 인접한 철도와 도로로 전환하여 보급품수송을 계속하였는데, 1월 24일 동해안의 길주와 청진 철도조차장에서 500량 이상의 철도화차가 발견되었고 2월 초에는 회령에서 청진, 함흥, 원산에 이르는 함경선을 따라 대규모 중공군이 이동 중임이 식별되었다. 2월 1일 이 지역에 대한 폭격을 명령받은 제307폭격전대 B-29기는 주을온천-홍원-단천에 이르는 9개 철교의 교량을 폭격하여 경간을 파괴하였다.

2월 6일 맥아더 장군은 북한 중부와 동북부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산군에 대해 극동공군에게 공격을 명령하였고 2월 7일 폭격사령부는 교량, 도로교차점, 터널입구를, 제5공군은 이동 혹은 정지 중인 철도화차에 대한 공격을 분담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폭격사령부 예하 B-29기는 강계와 장진사이의 표적을 공격하여 동해안 초리 근교의 철교를 파괴하였고 제5공군 B-26 경폭기는 교량 4개소와 함경선의 유개화차를 공격하였다. 2월 8일에도 B-29기는 독실리-고무산-주을온천상의 철도 교량 및 철도와 병행하여 설치된 도로를 폭격하였고 제5공군 B-26기는 함흥 조차장에 계류된 화차를 공격하였고, F-51기, F-80기는 길주 근교의 교량 7개소, 터널 11개소를 파괴하였다. 이들 지역에 대한 공격은 기상이 악화됨에 따라 2월 9일에는 MPQ-2 레이더에 의해 유도를 받는 B-29기 만이 함흥조차장에 대한 공격을 실시하였다.

2월초 제5공군은 청천강 이북 신의주 지역에 대한 항공차단작전을 위해 폭격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사령부의 B-29기를 호위하는 임무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였고 오히려 제5공군 전폭기로 직접 차단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후 수 주 동안 제5공군 전폭기로 차단작전을 실시한 결과 전폭기로는 MiG-15기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은 유용하였으나 표적파괴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2월 26일 극동공군사령부에 요청하여 B-29기 호위 작전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폭격사령부는 3월 1일부터 항공차단계획 4호(Air Interdiction Campaign No. 4)의 최우선 순위인 신의주 지역에 대한 차단작전에 B-29기를 동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근접항공지원작전에 투입되었던 해군 함재기들이 지상군 상황의 호전에 따라 2월 16일부터 차단작전으로 전환됨에 따라 북서부 및 동부에 이르는 전 지역의 차단목표에 대한 작전이 가능하게 되었고 극동공군과 해군은 동시에 이들 전 지역 표적에 대한 차단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다. 2월 20일에는 해군함재기와 해상 함포의 협동공격으로 동해안 공산군 철도선에 대한 대대적인 차단작전이 실시되었고 해군은 "3월 8일 경에 동해안 지역 차단목표가 모두 파괴되었으며 차단작전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73]

폭격사령부는 미 해군이 차단작전을 담당하고 있던 동부 일부지역 내에 교량 60개소, 조차장 39개소, 보급 및 수송본부 35개소에 대한 차단책임을 지고 있었고 폭격사령부 예하 제98폭격전대에서 1일 24회, 제19, 307폭격전대가 각각 12회씩 하루씩 분담하여 도합 이틀간 작전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차단 작전을 수행하였다. 폭격사령부의 만포진 이남의 주요 교량에 대한 파괴 작전은 3월 중에 주기적으로 지속 실시되었으나 3월 1일 고군영에서 MiG-15기의 공격으로 B-29기 10대가 손상을 입은 후에는 신의주 근방의 차단목표에 대한 B-29기의 공격을 중지하였다. 신의주 근방 표적에 대한 공격은 F-86기 전투기가 MiG-15기에 대해 공중우세를 확보하게 된 3월 23일 재개되어 제19, 307폭격전대 B-29기 3개 편대가 신의주와 신안주를 연결하는 철도의 3대 요충인 고군영, 곽산, 정주의 주요 철교를 폭격하였고 다음날에도 만포진 남쪽의 2개 철교와 희천, 군우리, 숙천의 교량을 폭격하여 만포진에서 신의주간을 연결하는 철도를 차단하는데 성공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러한 차단작전에 맞선 공산군은 대단한 복구능력을 과시하였는데, 신안주에 청천강을 횡단하는 3,500피트의 철교의 경우, 1951년 1월에 유엔군이 후퇴하면서 이 철교의 경간 수개를 폭파하였는데 공산군은 2월 4일 차량통행이 가능한 보조교량을 건설하였다. 또한 3월 1일 B-29기가 이 보조교량 경간 몇 개를 폭파하였으나 공산측은 3월 12일 이 교량에 대한 보수를 진행하고 있었고 3월 24일에는 보조교량 측면으로 또 다른 우회통로를 만들었으며, 3월 26일에는 보조교량으로 수송을 재개하였다. 이러한 공산군의 보수능력은 차단작전을 지루한 양상으로 이끌었다.

3월 하순이 되면서 압록강이 해빙되자 극동공군사령관은 3월 27일 폭격사령관에게 압록강상의 북한과 중국을 연결하는 국제교량을 다시 파괴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3월 29일부터 4월 12일까지 5차례 실시된 B-29기의 신의주, 청성진, 만포진 등의 교량 공격에서 3월 30일에 청성진 인도교 교량 경간 2개를 파괴하고, 4월 7일에는 의주 인도교를 파괴하였으나 신의주 철교는 4월 12일 재차 공격에도 불구하고 파괴할 수 없었다. 이후 스트레이트메이어 극동공군사령관은 B-29기의 신의주 철교 공격을 재차 중지시켰는데 이는 B-29기의 희생을 고려한 것이었다. 4월 9일까지 폭격사령부가 거둔 차단작전의 성과는 교량 목표 60개 중 48개, 철도조차장 39개소 중 27개를 사용불능 상태로 파괴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3월부터 4월 14일까지 B-29기 8대와 탑승 승무원 전원이 손실되었고, 전투 중 파손되어 임무 중지된 항공기를 제외하면 4월 14일 당시 작전가능 B-29기는 75대에 불과하였다. 이에 스트레이트메이어 장군은 공군본부에 인가전력 99대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반덴버그(Hoyt S. Vandenberg) 총장은 이를 수락하였으나 1일 12소티를 초과하여 운영하지 않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폭격사령부의 B-29기 운영은 1일 12소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지시되었으나 4월 22일 중공군의 제5차 1단계 공세(4월 공세)가 시작되자 극동공군사령관은 1일 18회로 B-29기의 출격횟수를 늘이면서 우선순위를 첫째 공산군 비행장, 둘째 지상군 근접지원, 셋째 차단작전으로 정하였다. 4월과 5월의 폭격사령부의 차단작전은 1일 출격제한과 임무우선순위에 밀려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임무자체가 중지된 것은 아니었고 5월 중순 이후에는 철도, 교량, 도로 차단임무는 제5공군에게 이양하고 철도조차장, 보급소 및 수송 중심지역의 차단임무에만 전념하였다.

한편 제5공군은 2월 이래 수송로와 병참지원선 차단을 위해 보유 전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방안에 몰두하여 제452폭격비행단 소속 B-26 경폭격기들은 원산-평양선 이남의 경량급 철교에 대해 낙하산 부착 저고도폭발신관폭탄으로 공격하였고 잔여 전폭기들은 3월 중에 한반도를 종횡으로 관통하는 철도선상의 많은 터널을 500파운드 및 1,000파운드 지연신관폭탄을 사용하여 공격하여 은닉된 장비와 인원을 살상하였다.

5월 31일 제5공군은 공산군의 교통선을 차단하기 위한 대대적인 스트랭글(Strangle)작전을 제1해병비행단, 미 해군 77기동함대와 합동으로 이들 부대 작전구역에서 동시에 개시하였다. 이 작전은 6월 초까지 유엔 지상군의 반격과 병행실시 됨으로써 퇴각하는 공산군에 대해 효과적이었으나 6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미 제8군이 진격속도를 늦추고 공산군에 대한 압력을 감소시키자 공산군이 파괴된 수송로를 복구할 수 있는 여유를 주게 되어 작전 성과는 감소되고 말았고 이 틈을 타 공산군은 부대 재보급과 재편성을 기할 수 있었다.

나. 수송수단(이동차량) 차단작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공군과 북한군의 보급물자 수송수단은 철도화차와 트럭(소련제 GAZ-51) 이외에도 전근대적이지만 우마차, 손수레, 노새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였다. 그러나 주 수송수단은 기차화차와 소련제 트럭이 이용되었는데 기차 화차 1대 화물적재 량은 20톤이며 트럭은 2톤가량 적재 가능하였다. 중공군과 북한군의 각 사단이 야전에 필요한 보급품은 1일 유류 8톤, 식량 10톤, 탄약 30톤과 기타 보급물자를 포함하여 총 48~50톤으로 추정되었고 1950년 12월 말 기준 북한지역에 들어와 있는 중공군에 대한 1일 소요보급량은 총 2,000톤으로 화차로는 100대분, 트럭으로는 1,000대분에 달했다.[74] 공산군의 재편성과 보급지원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병참지원선의 차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수송수단의 파괴였다. 그러나 중공군은

공중식별로부터 회피하기 위해 주로 야간에 이동을 하였고 주간에는 차량을 은닉하는 수법을 사용하여 공습이 용이하지 않았다.

물자보급차량에 대한 공격임무는 제5공군에게 부여되었고 사령관 패트리지 장군은 주간에는 전폭기를 이용한 무장정찰임무를 통해, 야간에는 주로 B-26기의 야간정찰 및 공습 임무를 확대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다. 1월 중 공산군 수송차량에 대한 무장정찰 주 전력인 F-80기와 F-84기가 일본 이다즈케 기지에서 발진함으로서 임무지역 체공시간이 30분도 채 안 되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전에 이동 차량 식별을 위해 먼저 적진에 침투시킨 T-6기가 공산군의 대공 포화에 노출됨으로써 공격성과가 부진하였다. 이에 따라 2월 둘째 주에 제5공군은 새로운 작전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폭격선 이북 50마일 지역을 3개 무장정찰구역으로 나누어 제18, 35비행단과 미 제1해병비행단에 각각 1개 구역씩을 할당하였다. 이들 3개 비행단은 F-51과 F-4U(Corsair) 전투기로 하여금 담당 구역 상공을 초계하도록 하고 이동표적이 발견되면 이를 공격하게 했다. 이는 각 부대가 할당된 구역 및 도로에서 임무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임무 조종사들이 지형숙지와 표적식별을 용이하게 하였고 매일 아침 임무 전 야간정찰을 통해 식별된 이동표적목록을 배부하여 임무조종사에게 숙지케 함으로써 매우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2월 12일 새로운 무장정찰 및 이동표적 파괴 작전이 시작될 무렵 공산군은 원주와 횡성을 잇는 축선에서 대규모 공세를 개시하였고 이들 전선에 대한 보급품 조달을 위해 주간에도 필사적인 차량 수송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제5공군 F-51기들은 2월 13일 횡성지역에서 차량 236대를 완파하고 83대를 파손시켰고 제49전대 소속 F-80기도 차량 40대를 파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3월 초 제5공군은 연료소모율로 인해 무장정찰구역에서 초계비행에 제한을 받고 있는 제트전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제45전술정찰대대 소속 RF-51기를 차량집결 예상 지점에 미리 출격시켜 10마일 반경의 지역을 선회탐색 후 차량표적이 발견되면 F-80기와 F-84기를 이 지역으로 유도하여 차량을 공격하는 써클-10(Circle-10)작전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이에 대해 F-80기와 F-84기 조종사들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적극적으로 환영하였고 작전성과도 매우 좋았다. 이 기간 차량공격에 가장 높은 전과를 보인 것은 로저스(Turner C. Rogers) 대령이 지휘하는 제18전폭기전대 소속 F-51기로 부대 조종사 전원에게는 제5공군사령관인 패트리지 장군이 "제5공군 트럭 파괴 영웅(Ace Truck Busters of the 5th Air Force)"이라는 칭호를 부여하였다.

공산군이 2월 이후 유엔공군의 공습에 대비하여 대공포를 현저히 증강하기 시작하자 유엔공군기 특히 F-51기에 대해 치명적인 위협이 되기 시작했다. 이에 대응하여 제5공군은 4월 15일부터 모든 작전에 RF-51 2대를 발진시켜 1대가 지상을 정찰하는 동안 다른 한 대는 고공에서 공산군의 대공포진지를 감시하게 하였고 F-51기 무장정찰 편대는 4기 편대로 구성하여 1개조가 300피트 저공에서 표적을 확인하면 다른 1개조는 3,000피트 상공에서 공산군의 대공진지를 제압하고 공산군 전투기 내습에 대비하는 작전을 구사하였다.

3월 31일 중공군은 대규모 차량을 철원-김화-평강 지역에 집결시키고 있었고 이들은 연대별로 저고도 항공기에 매우 효과적인 12.7mm 대공포로 무장한 대공방어중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5월에 접어들면서 중공군은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병참부족을 해결하기위한 방책의 일환으로 수송망과 수송수단을 보호하기 위해 대공화기를 증강시키고 있었고 37mm M-1939 자동대공화기를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제5공군은 5월중에 공산군이 보유한 대공포 252문, 대공자동화기 673정의 위치와 함께 대공포는 주로 고정시설 주변에 배치되고 M-1939 자동대공화기는 트럭에 탑재하여 주보급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유엔공군기에 대해 사격을 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공산군의 대공위협 증가는 6월까지 지속되었고 이에 대해 제5공군은 무장정찰편대의 경우 전력을 증가하여 출격하였으며 F-51기는 4월 이후 지속된 4기 편대를 지속 유지하였고 F-80기는 기만비행과 고고도 비행을 통해 대공 포화를 회피하면서 작전을 수행해야만 했다.

이러한 공산군의 대공방어능력 증강은 유엔공군의 피해로 직접적으로 이어졌는데 3월부터 6월까지 대공포에 의한 제5공군 항공기손실은 81대에 이르렀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저공에서 장시간 이동 차량을 탐색하고 파괴하는 제5공군의 이동차량 파괴 작전 환경은 점차 악화되었다.

<표 8-15> 1951년 1월~6월간 제5공군 공산군 차량파괴 현황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
차량	파괴	599	1,366	2,261	2,336	1,245	827	8,634
	파손	683	812	1,326	1,496	1,624		5,941

이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제5공군은 이 기간 동안 이동하는 공산군의 수송차량 약 14,500여 대를 파괴 또는 손상시켜 전선으로 이어지는 보급물자를 차단함으로써 공산군의 전투의지를 약화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주간 무장정찰에 의한 수송수단 차단작전과 병행하여 철도 화차와 트럭의 이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야간시간대 차단임무도 시행되었다. 야간 시간대에 수송차량 차단임무는 제5공군 소속 B-26 경폭격기와 미 제1해병비행단 소속 VMF-513 해병비행대대 F-4U기와 F7F-3N(Tigercat)기가 담당하였다. 제3폭격비행전대는 1950년 8월 이래 수송차량 차단작전을 시행해오고 있었고, VMF-513 해병비행대대는 1950년 추계작전 기간 동안 F-4U기를 이용하여 일본 이다즈케, 원산, 연포기지에서 야간 폭격작전을 수행했지만 이들 부대의 임무에 대한 평가는 만족스럽지 못했다.[75]

1951년 1월부터 4월 중순까지 일본 이와쿠니(岩國)에 주둔하고 있던 제3폭격비행단[76]은 야간공습, 지상군 지원 및 고정표적에 대한 레이더 유도공격 등 야간임무 수행을 위해 매일 38회의 출격을 지시받고 있었다. 그러나 대구기지를 중간 경유지로 활용함에 따라 일본 주둔기지와의 통신문제가 발생하고 대구기지에서의 유류공급과 폭탄공급이 불충분하고 대구기지 활주로의 철제포장판(Pierced Steel Plank)에 B-26의 바퀴가 파열되는 등 만족할 만한 작전성과를 얻기는 곤란한 실정이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지상의 전투 국면이 긴박하게 전개되자 제5공군은 제3폭격비행단에 4월 23일부터 일일 야간 출격회수를 48회로 증가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제3비행단은 작전요구 충족을 위해 대구에서 야간에 1일 2회 출격하였고 첫 번째 출격편조에는 차단작전을, 두 번째 출격편조에는 지상군 근접지원임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같은 시기 구형인 F-4U기를 F7F-3N기로 교체한 VMF-513해병비행대대는 부산기지(K-1)에서 1일 24회(야간공습 18소티, 야간초계 6소티) 출격하였다.

야간 이동표적공격 성공의 관건은 표적의 식별(위치, 이동방향, 이동속도 등)과 표적에 대한 정확한 타격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야간에 표적을 식별하고 타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육안에 의한 식별이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조종사의 시계확보가 필수적이었고 이를 위해서는 조명탄 투하만이 유일한 방안이었다. 이를 위해서 제5공군은 C-47이 선도하여 조명탄을 투하하면 이를 이용해 B-26폭격기가 표적을 식별하고 타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고, 1951년 1월 C-47기에서 야간 조명이 성공하자 제3폭격비행단은 조명탄 투하용 C-47기(Firefly) 6대를 마련하고 대구기지에 배치하였다.[77] 2월부터 C-47기의 야간조명지원을 받는 B-26기의 야간 이동표적 공격이 시작되었고 이와 병행하여 야간 이동차량의 바퀴에 손상을 주어 차량을 정지시킨 후 이튿날 아침에 공격할 목적으로 C-47기를 이용하여 도로상에 쇠못을 살포하는 작전이 시작되었다. 또한 이와 함께 저속이며 비무장인 C-47기가 공산군 후방 깊숙이 침투할 수 없는 한계점을 고려하여 제3폭격비행단은 2월과 3월 두 달간에 걸쳐 B-26기에 MARK-VI 조명탄과 100파운드 폭탄을 운반, 투하할 수 있도록 개조하였다. 이에 따라 B-26기들은 전에 없이 밝은 조명하에서 폭격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조명탄의 불발률은 감소되지 않았다. 제3폭격비행단 소속 B-26 경폭격기의 경우 평야지대가 많은 서부지역에서는 1,500~2,000피트 상공에서 공격을 개시하였으며, 산악지대인 동부지역에서는 대개 5,000~6,000피트에서 진입을 시작하여 1,500~2,000피트 상공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전술을 구사하였으나 이러한 사격거리는 정확도를 기하기에는 너무 멀었다.

제3폭격비행단의 B-26이 북한 북부지역에서 차단작전을 실시하고 있는 한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해병 VMF-513 해병비행대대는 3월 1일부터 C-47기와 F-4U기 및 F-7F기 합동으로 전선에 인접한 주보급로에 대한 야간 차단작전을 개시하였다. 이들은 부산비행장에서 교대로 출격하여 약속된 도로 상공에서 대구에서 출격한 C-47(Firefly)기와 합류하여 공산군 차량을 탐색 후 급강하하여 로켓, 네이팜, 파열폭탄으로 차량을 공격하고 한편으로는 공산군의 대공포진지 공격에는 목표 상공에서 1시간 30분 동안 체공하면서 500파운드 근접신관을 사용하여 공격 후 다음 임무 편조와 임무를 교대하는 형태로 차단임무를 수행하였다.

극동공군 제3폭격비행단과 미 VMF-513 해병비행대대는 5월까지의 차단작전을 지속 시행하였고 3폭격비행단은 4월에 기관차 16대, 차량 227대를, 5월에는 기관차 5대, 차량 629대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으며, VMF-513 해병비행대대는 3개월 동안 차량 11,980대를 공격하여 그중 1,420대를 파괴한 것으로 평가했다.[78]

제5공군은 야간 폭격능력을 증강하기 위해 5월 23일 제452폭격비행단을 부산 수영기지(K-9)로 이동하여 배치하여 6월부터 작전에 투입하였다. 6월에도 VMF-513 해병비행대대는 C-47기와 합동으로 평양 남쪽 4개 도로상의 이동표적을 공격하였으며 원산 남쪽 도로상의 이동표적을 공격할 때에는 PB-4Y기의 조명지원을 받기도 하였다. 6월 중에 제3폭격비행단은 차량 403대를 파괴하고 1,048대에 손상을 주었고 제452폭격비행단은 차량 151대를 파괴하고 224대에 대해 손상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러한 차단작전 성과에 대해 제5공군사령관 패트리지 장군은 “적의 열차, 트럭 및 기타 장비를 파기하기 우리의 일치된 노력으로 적은 한층 더 곤경에 빠져 있음이 분명하다.”고 언급하면서 만족을 표시했다.[79]

다. 비행장 복구 및 건설 저지 작전

비행기지(Air Base, Airfield)는 항공작전의 시작이며 종결점이다. 즉 비행기지로부터 항공기가 이륙하면서 공군작전은 시작되고 기지에 착륙하는 순간 작전이 종료되는 것이다. 임무지역에서의 작전성과가 아무리 높더라도 임무항공기가 비행기지로 돌아오지 못하면 작전은 반쪽의 성공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공군

작전에서 비행기지의 존재와 생존능력은 항공작전의 성패여부를 결정짓는 최대요소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 공군은 개전 초 비행장 모두가 유엔공군의 폭격에 의해 운용불능상태가 됨으로써 와해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과 북한, 소련 공군은 지상 작전부대의 원활한 지원과 공군 작전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북한지역내의 비행장 복구와 건설이 최우선의 과제가 되었고 중공군이 1, 2차 공세를 통해 대부분 북한지역을 수복하자 12월 중순 북한지역 내 파괴된 비행장 복구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1951년 1월부터 중국의 안둥기지가 인접하여 MiG-15기의 공중엄호가 가능한 청천강 이북의 북서부 지역에 위치한 비행장부터 복구 및 건설작업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공산군의 움직임에 대하여 2월부터 면밀할 감시활동을 벌이기 시작한 극동공군 정보 분석관들은 4월 초 공산측이 건설된 비행장에 항공기를 이동시킬 준비가 된 것으로 판단했고 이 보고를 접한 스트레이트메이어 극동공군사령관은 폭격사령관 브릭스 준장에게 이들 비행장에 대한 폭격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브릭스 준장은 공산군의 대규모 노동력 투입에 의해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대규모 병력 투입에 의한 보수능력이 탁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행장의 작전화가 최대한 진전된 시점에 공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공격 시기를 가능한 한 늦추고 있었다. 드디어 4월 16일 이들 비행장을 공격할 시기가 되었다는 보고가 정보 분석관으로부터 극동공군사령관에게 이루어졌고, 극동공군 사령관은 4월 17일부터 공격을 개시할 것을 명령했다.

MiG기의 공중공격이 염려되었지만 다행히 4월 중순 이후 수원기지로 제336요격비행대대 소속 F-86기가 이동전개함에 따라 기존 제334요격대대 F-86기와 함께 작전이 시작되었고 미그회랑지역에서의 공중우세가 유엔공군에 의해 장악되어 북한지역 비행장공격은 무리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4월 17일부터 23일까지 1일 평균 12대의 B-29기가 출격하여 평양비행장(K-23), 평양 미림비행장(K-24), 안악, 사리원, 강동, 연포, 함흥, 신막, 순안 비행장 활주로에 지연신관폭탄을 투하하여 수많은 폭파구를 형성하여 무력화하였다. 이 기간 동안 B-29 중폭격기는 물론 제5공군 소속 전폭기들도 수차례 이들 비행장에 대한 공격을 반복하였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B-26 경폭기는 야간동안의 보수작업을 좌절시키고자 야간공습을 지속하였다. 공산 공군기들의 저항이 없는 가운데 이루어진 이들 비행장 공격에 대해 유엔공군 조종사들은 '오리사냥(Shooting sitting ducks)'으로 비유하였고 4월 23일부터는 폭격사령부 B-29기를 병참선차단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을 만큼 만족스런 성과를 거두었다.[80]

그러나 아직도 안둥비행장에 주둔한 소련 MiG-15기의 완벽한 엄호하에 있는 신의주비행장에서는 북한공군의 지속적인 비행활동과 함께 기지 및 시설확장은 물론 YAK-9기 38대를 포함한 IL-10기, LA-5기 등의 항공기 추가배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던 극동공군은 5월 9일 14시경 제5공군과 제1해병비행단 소속 전폭기 총 312대를 출동시켜 신의주 비행장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때 안둥비행장에서 MiG-15기 약 50여 대가 이륙하여 약 18대만이 압록강을 건너왔으나 전투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스쳐지나갔다. 이날 공격은 제5공군 소속 F-84기 및 F-86기와 미 제1해병비행단 소속 F-9F(Pander Jet)기가 선두에서 공중엄호를 제공하는 가운데 제5공군 예하 제 8, 49, 51비행단 소속 F-80기가 공산군 지상 대공망을 지연신관폭탄과 로켓으로 무력화하면서 제1해병비행단 F-4U(Corsair)기와 제5공군 제18비행단 소속 F-51기가 비행장 중심 10평방마일 지역에 대해 폭탄과 로켓, 네이팜탄을 발사하여 비행장에 노출된 항공기 전부와 건물 106동을 파괴하였으며 대규모 유류저장소 1개와 보급창고 및 탄약고 등 26개소를 전소시켰다.

미 공군 정보 분석관들은 평양시내 도심지역에서 한 직선포장도로 주변 건물을 철거하는 공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5월 초 이것이 길이 7,000피트 폭 375피트의 견고하게 포장된 활주로를 가진 비행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미 공군 정보분석관들은 이를 평양도심비행장(Pyongyang Downtown Airfield)으로 명명하였다.[81] 이에 제5공군은 5월 24일과 25일 제3폭격비행단 소속 B-26 경폭격기를 출동시켜 야간 감시와 함께 공습을 감행하여 공사 진행을 방해하였고 5월 28일에는 이전 야간임무 시 영유(永柔)비행장(평양 서북방 25마일)에서 기종불명의 항공기 이륙하는 것이 관측되자 평양도심비행장과 영유비행장에 대해 제19 및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07폭격비행전대 B-29기가 출동하여 이들 두 개 비행장 활주로를 공격하여 파괴하였다.

6월 6일 항공사진 판독결과 북한 지역 내 모든 비행장이 사용불능 상태로 판명되었다.[82] 그러나 대규모 병력이 투입된 상황하에서 북한 비행장 대부분이 콘크리트 포장이 아닌 잔디나 흙으로 이루어진 활주로로 1주 사이에 복구되어 경비행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으로 극동공군은 판단하고 있었고 실제 6월 14일부터 PO-2기의 활동이 계속되자 7월 초에 이르기까지 유엔공군의 북한 비행장에 대한 공격은 계속되었다.

불량한 기상 때문에 6월 17일 재개된 비행장폭격임무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B-29기는 거의 매일 비행장을 비롯한 주변지역을 포함한 광역폭격을 실시했고 제5공군 전투기들과 B-26 경폭격기는 주간에 활주로를 파괴했으며 B-26은 야간에 활동이 의심되는 비행장에 대해 5회 이상 공습을 가했다. 6월 24일에는 제51비행단 소속 F-80기가 신의주 비행장을 공격하였고, 6월 26일에는 B-29기가 영유비행장에 폭격을 가했다. 7월 3일에는 평양도심비행장을 무력화하기 위한 공격이 재개되어 F-84기 32대가 평양 시내 대공포를 무력화하는 동안 F-86기 33대의 호위를 받으며 B-29기 6대가 활주로에 100파운드 폭탄 850발 이상을 투하하였다. 7월 9일에는 F-51편대가 강동비행장을 공격하였고, 7월 9일에는 제19폭격전대 B-29기 6대가 신안주비행장에 대한 폭격을 실시하였다. 7월 12일이 되자 PO-2를 포함한 모든 비행활동이 일시 중지 되었고 비행장 복구활동도 중지되었다.

4월 이후 7월 초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된 유엔공군의 북한비행장에 대한 전면적이고도 집중적인 공격은 중국과 소련공군의 북한 내 진입을 좌절시켰고 결국 4월과 5월의 중공군 춘계공세에도 공산 지상군이 소련 및 중국공군으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4) 공수 작전

북한지역 연포비행장으로부터 10군단 철수를 위한 공수작전이 종료된 1950년 12월 17일 이후 약 2주간 전투공수사령부는 이전보다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있었다. 그러나 중공군의 3차 공세가 시작되자 이들의 휴식은 종료됐으며 1951년 1월 1일부터 긴급철수를 위한 공수작전이 시작되었고 서울이 중공군에게 점령당한 1월 5일 전날인 1월 4일까지 4,757톤의 화물과 2,297명의 환자를 후방지역으로 공수하였다 .

<표 8-16> 1951년 1~6월 공수비행 활동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12월	계
공수비행(소티)	6,517	6,600	6,551	6,006	7,183	7,136	39,993

이를 시작으로 전투공수사령부는 이전과 같이 매우 분주하고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1951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시된 공수비행은 총 39,993소티로 월평균 6,665소티로 이전 작전기간(1950년 6월~12월)의 월 평균 4,275소티 대비 약 56% 증가한 것이고 가장 많은 비행을 실시했던 1950년 11월의 6,772소티와 대등한 수준이다.

1951년 1월에 한국에 주둔한 유엔군은 중공군의 공세로 인한 철수와 강설, 결빙으로 육상 수송로 활용이 곤란해짐에 따라 각종 물자수송과 병력이동을 대부분 공수에 의존해야 했다. 그러나 서울, 김포, 수원기지가 공산군에 점령당함에 따라 대형수송기 이착륙이 가능한 곳은 대구와 김해(K-9) 비행장뿐이었고 대전비행장은 활주로가 얼었을 때는 대형수송기의 착륙이 가능했지만 땅이 녹을 경우 착륙이 불가능했다. 실제로 1951년 1월 14일 대전비행장에 착륙하던 C-54 수송기가 미끄러져 활주로를 이탈하여 조종사 2명이 사망하고 항공기가 대파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C-46기 이상의 중량을 지닌 항공기의 이착륙을 금지하였다. 동부전선을 담당하고 있던 10군단은 강설과 공산군 게릴라의 출몰로 육상을 통한 보급이 어려워지자 1951년 1월에 긴급히 원주와 충주에 길이 2,000피트 비상활주로를 건설하였는데 이들 비행장은 활주로 길이가 짧고 지면이 진흙으로 이루어져 수송기의 이착륙이 곤란하였으나 긴급 상황을 고려하여 공수작전을 감행하였다. 1월 초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원주지역을 방어하고 있던 미 제2사단에 대한 물자보급과 부상병 후송을 위해 제21공수대대 소속 C-47기가 원주비행장에 화물 115톤을 공수하였고 제314공수전대 소속 C-119기는 물자 460톤을 공중 투하하였다. 충주비행장에 대한 공수는 C-46기가 담당하기로 결정되었지만 활주로 길이가 문제가 되자 공병대가 400피트를 추가로 연장하였고 1월 8일부터 첫 공수임무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1월 8일과 11일에 결빙으로 인해 착륙 간 활주로 이탈로 C-46기 6대가 손실되고 승무원이 사망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자 C-46기에 의한 직접 공수는 취소되고 C-119에 의한 공중투하로 전환되었다. 1월 8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된 충주지역에 실시된 보급품 공수실적은 약 495톤에 달했다. 또한 1월 25일부터 2월 9일까지 공세를 지속하기 위해 68대의 C-119가 5일 동안 연료, 유류, 침낭, 식량, 통신선을 포함한 보급품 1,162톤을 충주기지에 공중투하하였다.

전투공수사령부는 1월 1일~24일까지 미 제10군단에 대한 공수지원을 포함 미 제8군에 대해 7,445톤, 제5공군 병력 및 화물 5,041톤을 공수하였으며 10,489명의 환자를 후송하였다.

1월 25일 유엔군의 썬더볼트작전이 시작됨과 더불어 이전 임시조직이었던 전투공수사령부가 정식편제인 제315전투공수비행사단으로 전환되었고, 1월 26일 수원기지가 유엔지상군에 의해 탈환되었다. 1월 28일 탈환 후 처음으로 호튼(James F. Horton) 중위가 이끄는 C-46 수송기가 수원기지에 착륙하여 화물을 하역하였으며 이후 공수작전의 중심기지가 되었고 1월 30일 본격적인 공수를 시작한 첫날 270톤을 하역하였다.[83]

2월 한 달 동안 수원기지를 통해 3,000톤의 보급품이 공수되었고 4,000명 이상의 부상병이 후송되었으며, 제314공수비행전대 소속 C-119를 통한 지상전선으로의 보급품 공중투하도 계속되어 총 614소티를 실시하였고 이중 대부분이 기 계획된 것이었으나 지평리 전투지역 공중투하와 같은 긴급소요도 있었다.[84]

2월 13일 야간에 중공군은 지평리에 주둔한 미 제2사단 제23연대와 프랑스대대 진지를 공격하였고 긴급한 탄약 재보급을 위해 14일에 C-119기 24대가 출동하여 공중투하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14일 야간에 중공군의 재공격으로 인해 81mm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박격포탄은 90발, 4.2인치 포탄은 140발 밖에 남지 않게 되자 15일 C-119기 30대를 동원하여 1평방마일 이내 지역에 탄약을 공중투하하였고 이로써 후속제대가 도착한 2월 16일까지 지평리를 방어할 수 있었다. 지평리 방어기간 동안 제314공수비행전대 C-119기는 총 84회 공중투하를 실시하여 400톤 이상의 탄약을 보급하였고 작전 동안 공산군 대공포에 의해 총 6대의 항공기가 손상(damaged)을 입었다.[85] 또한 제314공수비행전대는 킬러작전이 시행되면서 이른 봄비와 해빙으로 육상수송로가 진창으로 변해 보급품 수송이 어려운 중부전선의 미 제9군단과 10군단에 대해 2월 23일~28일간 총 256회에 걸쳐 1,358톤의 보급품을 원주지역에 공중투하하였다.

3월 중에는 제315전투공수비행사단의 화물공수는 줄어든 반면 인원 수송은 증가하였다. 극동공군은 미 육군 공병대가 서울과 김포기지를 재건할 기간 동안 새롭게 건설된 원주기지로 공수를 시작하였다. 수송기는 2,300톤의 장비, 보급품, 심리 전단을 공중 투하하였다. 3월 4일 C-119 41대가 미 제1해병사단에 260톤의 보급품을 투하하였는데 이는 3월 중 이루어진 최대 공중투하였다.

3월 21일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의 공수투하를 위해 제314공수비행전대 C-119기 80대와 제437공수비행단 C-46기 55대가 대구기지에 집결하였다. 3월 23일 문산지역에 6·25전쟁 중 두 번째 공정작전이며 일일 최대 규모인 토마호크(Tomahawk) 작전이 시작되었다. 우선 07시까지 제187공정연대전투단 공정요원들이 C-119기 78대와 48대의 C-46에 탑승을 완료하자 07시 30분 제315전투공수비행사단장 헤네브리 준장이 탑승한 선도기가 이륙하였고 뒤를 이어 제5파로 나뉘어 수송기의 이륙이 시작되었다.

이 시각 일본 기지에서 출격한 제452폭격비행단 소속 B-26 폭격기 32대와 제3폭격비행단 소속 B-26기 24대는 각각 서울과 문산에 이르는 도로지역과 강하지역 주변의 공산군 병력과 대공진지 소탕에 나섰고 수송기가 공산군지역 상공에 도착하자 16대의 F-51기가 엄호를 시작하였다. 이날 일몰 전까지 C-119기 72대는 공정요원 2,011명과 보급품 204톤을 투하했고, C-46기 48대는 공정요원 1,436명과 탄약, 식량, 통신 장비 등 15.5톤을 공수투하하였다. 이날 작전의 손실은 공정요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착지부상 84명, 전투부상 18명, 강하 중 공산군의 사격에 의해 1명이 사망하였고 C-119기 5대가 공산군의 지상화기에 의해 경미한 손실을 입었고 1대가 대공포에 의해 손실되어 정·부 조종사 2명이 사망하였다.[86]



1951년 3월 23일 문산 지역 공중침투를 위해 대구기지에 대기 중인 C-119기와 제187공정연대전투단 요원들

3월 23일의 작전 후속조치로 제187공정연대전투단에 대한 보급품 공수가 실시되었는데 3월 24일에는 C-119 36대가 병력 40명과 보급품 187.7톤을, 3월 26일에는 C-46기 4대가 보급품 10톤을, 3월 27일에는 C-119기 12대가 65.8톤을 공중투하 하였다.

3월 31일 제315전투공수비행사단은 개조와 보수를 위해 C-119수송기 75대를 운항중지 시켰고 4월 19일이 되어서야 개조와 보수를 마친 C-119가 임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제315수송비행사단의 공중투하작전은 4월 대부분에 걸쳐 C-46에 의존해야만 했고 4월 중 총 15,900톤을 공수하였다.

5월 16~26일 간에 제315전투공수비행사단은 공산군의 공세를 저지하고 있는 유엔 지상군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에서 한국으로 일일 평균 1,000톤의 보급품을 수송하였는데 특히 5월 23일에는 가용수송기 총 222대를 총동원하여 409회 비행을 실시하여 1,534톤의 화물을 공수하였는데 이는 사단의 1일 최대수송능력인 1,291톤을 초과하는 것이었고 5월 중 총 21,300톤의 물자를 공수하였다.

6월 들어서면서 진격 중에 있던 미 제8군의 육상수송로는 폭우로 곤경에 처했고 이로 인해 보급품의 수송을 전적으로 공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중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1군단은 공중투하와 수송기의 공수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제314공수비행전대 소속 C-119수송기는 동부 산악지역에서 투하지역 표식도 엉망인 상태에서 800피드 저고도에서 보급품을 공중 투하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와중에 아군의 대공포에 손실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6월 3일 국군 제5사단지역에서 공중투하임무를 수행하던 C-119기 2대가 아군에 의해 오인피격 되었다. 이 사고로 제315전투공수비행사단장 헤네브리 준장은 공중투하임무 시 임무지역 진입 전에 반드시 모스키토 통제관이나 전술항공통제반(TACP)과 무선접촉을 실시할 것을 임무조종사들에게 지시하였다. 6월 10일에는 자갈과 모래로 이루어진 4,200피드 활주로가 춘천비행장에 마련됨으로써 C-54기가 동부전선에 진출한 유엔지상군에 대한 공수임무가 가능하게 되었고 6월 중 제315전투공수비행사단은 총 22,472톤을 공수하였다. 이로써 6·25전쟁 발발 이후 1951년 6월까지 전투공수사령부(제315전투공수비행사단)는 화물 176,000톤과 인원 427,000명을 공수하는 실적을 올리게 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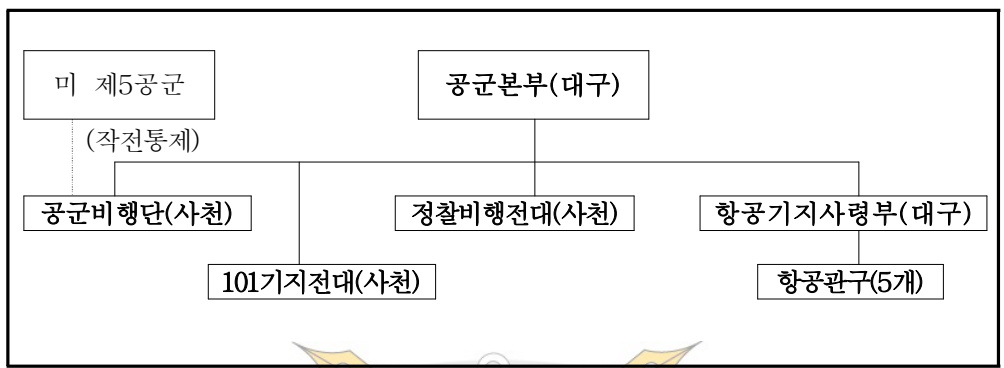
2. 한국공군 작전

1) 한국공군 편성 및 지휘관계

이 시기 한국공군 비행단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작전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채 미 제6146기지부대의 자문과 지원을 받으며 제5공군사령부의 작전통제 하에 전투임무를 수행하였다.

<표 8-17> 한국공군 지휘관계(1951년 6월 말 기준)



1951년 6월 30일 기준 한국공군의 조직과 편성은 공군본부(총참모장 : 김정렬 소장) 예하에 비행부대로는 비행단(단장 : 장덕창 대령)과 정찰비행전대(전대장 : 오점석 중령)를 두고 있었고, 사천기지에 집결한 작전부대에 대한 방호, 보급, 시설 등 각종 지원을 위해 1951년 4월 여의도기지에서 창설된 101기지전대를 이동 배치하였다. 항공기지사령부(사령관 대리 : 홍윤범 중령[87])는 이전과 같이 전국을 5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이들 지역을 관할하는 5개 항공관구(航空管區)를 두었고 항공관구는 예하에 각 기지를 지원하는 기지대(基地隊)를 두었다.

공군본부는 예하 참모편제에 변동이 있었는데 1951년 2월 1일 감찰감실을 창설하여 비행 및 지상안전과 검열업무를 수행하였으며, 3월 1일에는 의무감실을, 3월 10일에는 일반참모비서실을 신설하였다. 또한 4월 1일에는 미국의 군원도입이 활발해짐에 따라 군수보급업무가 확대되자 병참감실을 해편하고 대구에 보급창을 설치하였고 4월 15일에는 휼병감실(恤兵監室)을 신설하였다. 4월 25일에는 본부중대를 본부사령실로, 재무감실을 재무국으로 확대 개편함과 아울러 6월 29일에는 임시수도인 부산에서의 업무지원을 위해 공군본부 부산분실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공군본부는 1개창(보급창), 5개국(인사, 정보, 작전, 군수, 재무), 8개실(고급부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법무감, 정훈감, 감찰감, 의무감, 휼병감, 일반참모비서, 본부사령)로 구성되었고 또한 기타 교육 및 지원부대로 공군사관학교, 통신대, 헌병대, 기상대, 병원 등을 설치 운영하였다.

한편 이 기간 특기할만한 성과는 공군본부 예하 정보국 특수임무부대와 니콜스(Donald Nichols) 대위가 지휘하는 미 제6004항공정보대대(6004th Air Intelligence Service SQ)가 실시한 한·미 연합 정보작전이다. 이는 1951년 4월 17일 공산군 후방지역인 개천지역 청천강 변에 추락한 MiG-15기에 대한 정보획득을 위한 정보작전으로, 당시 한국 특무대 전선지구 총파견대장인 윤일균(尹鎰均) 대위와 이봉진(李鳳鎭) 소위를 포함한 공군 특무대원 9명은 니콜스 대위의 지휘아래 미 제315전투공수비행사단 소속 C-119 수송기에 탑승하여 약 80여대의 극동공군 전폭기의 엄호를 받으며 북상하여 임무지역인 개천 군우리 청천강 변에 14시경에 공수투하되었다.[88] 3주간의 사전훈련을 통해 교육된 절차대로 분사구, 엔진, 통신기 등 핵심부품을 분리하고 사진촬영 및 실측을 통해 정확한 제원을 측정하는 등 2시간 동안의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군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공격을 시작하였고 상공에서 아군 전투기가 기총소사로 아군 정보요원을 방호하였다. 그러나 작전 중 한국 공군 특무대원 1명이 공산군 사격에 희생되었다. 임무 종료 후 미 제3항공구조대대 YH-19 헬기가 도착하자 이들은 확보한 MiG-15기 핵심부품을 싣고 귀환하던 중 공산군의 지상사격을 한 차례 받아 프로펠러 1개가 파괴되어 인근 초도기지에 비상착륙하였다가 영국 함정 편으로 서울로 무사히 귀환하였다.[89] 이 작전의 성공으로 미국과 유엔군은 MiG-15기에 대한 상세한 기술정보를 획득하게 되었고 이는 향후 MiG-15기 대응 작전을 한 차원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공군비행단 작전

(1) 제주기지 조종사 양성훈련(1950년 12월 말~1951년 6월)

중공군의 제2차 공세에 밀려 서울 여의도기지 및 대전기지(K-5)로 이동했던

공군 비행단은 공군본부 작명 58호[90]에 의거 12월 19일부터 이동을 준비하여 공로와 해군 수송선으로(홍천호) 제주기지(K-40, 현 제주공항)[91]에 도착하였다. 제주기지에 도착한 비행단은 예하에 제11전투비행중대와 제12비행중대를 두고 12월 말부터 본격적인 조종사 양성을 위한 비행훈련을 시작하였다.

비행단의 제주기지지로의 이전은 미림기지에서 대전기지로의 이동이 완료된 직후부터 김정렬 공군 총참모장과 미 제6146부대(Air Base Unit)장인 헤스(James D. Hess) 중령 간에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헤스 중령은 12월 17일 한국 공군의 조종사 비행훈련을 위해 크레이그웰(Ernest Craigwell Jr.) 중위와 사병 7명을 제주기지로 파견하였다. 비행훈련은 제12비행중대가 담당하여 실시하였는데 크레이그웰 중위와 함께 경험이 많은 한국 조종사들과 비행교관을 담당하였다.[92]

전투조종사 양성훈련을 위한 F-51D 기종 전환 훈련은 비행단 및 정찰부대에서 활동 중이던 기성조종사를 대상으로 제12비행중대가 담당하였고 3차례에 걸쳐 총 24명이 훈련을 마쳤다.[93] 기종 전환 훈련은 F-51에 대한 공중조작 5시간, 편대비행 1시간, 대지공격 2시간으로 이루어졌고 이 훈련을 마친 다음 11전투비행중대로 전환되어 실질적인 F-51기 전투비행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조종사 양성비행훈련을 위해 제주기지에는 1951년 1월에는 F-51 6대가 배치되어 훈련을 실시하였다[94]. 1950년 12월에 전환비행과정을 종료한 10명의 기성조종사에 대한 전투비행훈련은 1월중에 완료되었는데 전투비행훈련은 대부분의 시간을 편대비행(일일항공기 1대당 6시간)에 할당되었다. 제주기지에서의 비행훈련은 비행단이 사천기지로 이동한 6월 말까지 계속되어 전투조종사 24명을 양성하였다.

이 시기에는 또한 이들 조종사들에 대한 계기비행교육이 실시되었는데, 이전 미림비행장 전개 시 야간작전에 참여하지 못한 사례에서 보듯이 한국 공군조종사들은 시계비행에만 의존하여 전투임무를 수행하였고, 이는 주간에도 기상이 불량할 경우 임무에 제한을 받는 요소로 작용했다. 계기비행교육은 11전투비행중대에서 전투비행훈련이 종료된 조종사와 기성조종사를 대상으로 일본 존슨(Johnson) 기지에서 약 2주 과정으로 2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1차 교육은 1951년 4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 14명(통역사관후보생 3명 포함)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2차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교육은 4월 27일부터 5월 12일까지 15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2) 대전기지(K-5) 작전(1951년 1월~3월)

1950년 12월 초순 미림기지로부터 대전기지로 철수한 한국 공군 비행단과 미 제6146기지부대는 대전기지 활주로의 열악한 상황으로 작전이 곤란한 상황이었으나,[95] 대전기지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미 제6146부대는 잔류하여 전투임무를 계속하고 한국 공군은 시급한 조종사 양성문제와 차후 안정적인 작전역량 구비를 위해 제주기지로 철수하였다. 이때 한국 공군 비행단은 미 제6146기지부대의 항공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김신(金信)중령을 부대장으로 8명의 정비지원 병력을 대전기지에 잔류시켰는데 이 부대를 일명 '백구(白鷗)부대'로 불렀다.[96]

미 제6146부대와 백구부대가 대전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동안 전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는데 중공군의 신정공세(3차 공세)로 1951년 서울이 함락되었고 1월 24일에는 중공군은 오산남방까지 진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여의도(K-16), 김포(K-14), 수원(K-13) 비행장이 공산군의 수중에 떨어졌고 이로써 대전기지는 전선에 가장 인접한 비행기지가 되어버렸다. 이에 패트리지 장군은 전방작전기지 확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적군이 우리기지 울타리에 발을 디디는 날까지 기지를 양호한 상태로 사수"[97]할 것을 헤스 중령에게 지시하였다.



1951년도 당시 대전기지 관제탑

1951년 1월 25일 미 제8군이 서울 탈환을 위한 총반격을 감행하기에 앞서 한강이남 지역에 대한 종심 깊은 강력한 위력수색작전인 썬더볼트(Thunderbolt) 작전을 개시하자 대전기지는 전방으로의 지상군에 대한 보급품 수송을 위한 수송기

이착륙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2월 10일경 인천-서울 남방- 곡수리를 잇는 선으로 지상 병력이 진출하게 되자[98] 대전기지는 이들에 대한 보급품 수송기지가 되어 미 수송기들이 대거 몰려들어 기지는 더욱 혼잡하게 되었다. 이로써 3월 27일 미 제6146부대가 여의도기지로 이동할 때까지 대전기지는 미 제6146부대 전투비행기지 및 미 공군의 전방 보급품 수송기지로 활용되었다.

이 시기 대전기지에서의 미 제 6146기지부대의 미군 조종사에 의한 전투 활동은 1월에는 총 37회의 전투출격이 실시되어 500파운드 일반폭탄 74발, 5인치 로켓포 222발, CAL-50 기총 76,030발을 소모하였다.[99] 2월에는 65회 전투출격을 감행하였고 500파운드 일반폭탄 130발, 5인치 로켓포 390발, CAL-50 기총 110,500발을 소모하였다. 2월의 전과로 공산군군 175명을 공격하여 사상시켰으며 공산군의 우마차(22대 파괴, 3대 손상), 트럭(3대 파괴, 1대 손상), 건물(1동 파괴, 1동 손상)에 대해 피해를 주었다.[100] 3월 중에는 부대이동 준비 및 미 공군 요원의 순환 근무계획에 의한 병력의 교체로 전투임무는 실시되지 않았으나 한국 조종사 및 통신요원 등 지상근무요원에 대한 교육은 계속되었다.

기간 중 대전기지에서 발생한 아군 항공기 손실은 1951년 1월 14일 미 공군 소속 C-54 수송기 1대가 대전기지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활주로를 지나쳐 불시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승무원 4명 중 2명은 현장에서 즉사하고 2명은 대전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다음날 모두 사망하였다.[101] 또한 2월 19일에는 미 제6146기지부대 소속 윌슨(Harold H. Wilson) 소령이 조종하던 F-51기가 대전기지 서쪽 약 2마일 상공에서 엔진정지로 비상착륙하여 항공기가 완파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윌슨 소령은 탈출하여 무사하였다.

유엔 지상군이 반격에 성공하고 3월 15일 서울이 재탈환되자 헤스중령은 미 제5공군사령부에 여의도기지로의 이동을 요청하여 3월 22일 미 제6146부대의 여의도기지 전개가 공식적으로 승인되자 이동을 시작하였다. 이동은 비행기는 공로로 여의도 기지로 이동하였고 병력과 장비, 탄약, 유류 등은 육상으로 이동하여 3월 27일 이동을 완료하였다. 이때 대전기지에 주둔하고 있던 백구부대도 여의도기지로 미 공군과 함께 전개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⑶ 여의도기지 작전(1951년 4월 3일~5월 31일)

미 공군 제6146기지부대의 여의도기지로의 전개가 이루어지자 한국 공군비행단의 움직임도 바빠지기 시작했다. 우선 공군비행단은 비행단 작명 제3호(1951.4.2.)를 통해 제주기지 제11전투비행중대 소속 조종사 4명(이세영, 최종봉, 오춘목, 이강화 대위)이 3월 31일까지 여의도 기지에 도착하여 미 제6146부대와 합류하여 작전을 실시할 것과 주종철(朱鐘哲) 대위 이하 정비요원 23명 또한 4월 2일까지 여의도기지로 전개할 것을 명령하였다. 또한 4월 19일에는 비행단 작명 제5호를 발령하여 제11전투비행중대 전 요원을 4월 20일 09시까지 여의도기지에 전진배치하였다.

이러한 전투비행부대의 전진 이전에 여의도 기지의 작전을 위한 기지복구를 위해 항공기지사령부 예하 병력들이 사전에 여의도 기지에 배치되었다. 서울이 재탈환된 3월 15일 항공기지사령부는 우선 진해기지(K-10)에 파견될 제1항공관구 병력 15명을 3월 17일까지 대전기지로 전환 배치시키는 조치(항기사 작명 제15호)를 단행했으며, 3월 23일에는 다시 이들 병력을 여의도 기지로 전개시키는 조치(항기사 작명 제17호)를 시행하였다. 또한 3월 18일에는 제1항공관구장 김연기(金練器) 대위로 하여금 진해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관구병력 전원을 여의도기지로 3월 20일까지 이동하여 3월 31일까지 기지보수를 종료(항기사 작명 제16호)할 것을 지시하였다. 당시 여의도기지는 미 공군이 중공군의 신정공세에 밀려 철수할 때 공산군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B-26 경폭기로 500파운드 폭탄을 투하하여 활주로에 폭파구(爆破球)가 형성된 상태였다. 김연기 대위 지휘로 3월 20일부터 시작된 활주로 복구공사는 활주로에 형성된 폭파구(직경 5미터, 깊이 2미터) 32개를 트럭 25대 분량의 모래와 자갈로 메운 후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작업이 끝난 3월 31일에야 종료되었다.[102]

여의도기지 보수가 종료되고 작전이 시작되자 서울지역 주둔 부대와 여의도 주둔 비행단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제101기지전대(전대장 김신 중령)가 편제 병력 100명으로 4월 1일 여의도기지에 창설되었다(공본 일반명령 제22호). 공군 제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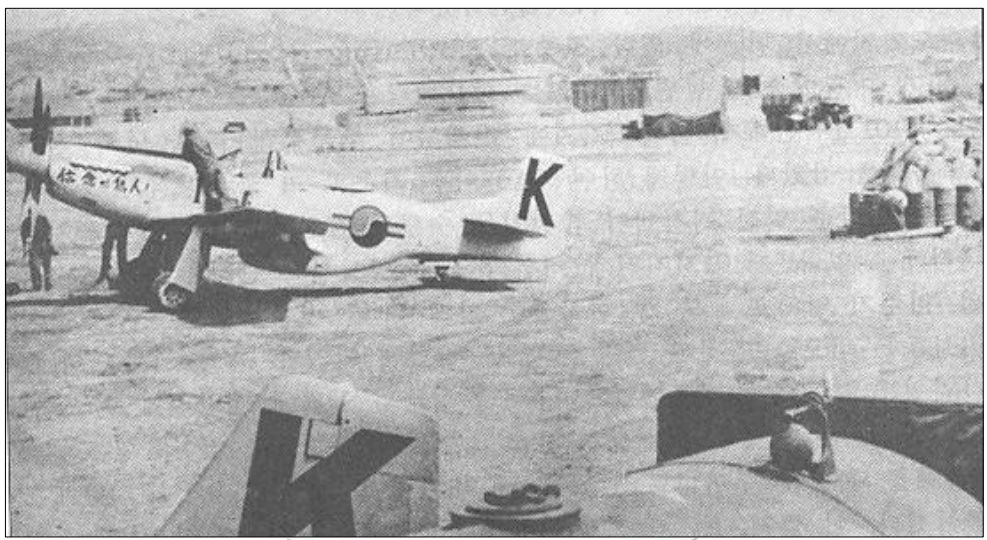
기지전대는 여의도기지에 주둔하고 있던 헌병대, 시설대, 통신대, 기상대 등을 통합 운영하면서 4월부터 2개월 동안 여의도기지 확장공사를 통해 비행기 엄체호 20동 신축 및 활주로 500미터 연장, 기지 확장 20,000㎡ 등의 실적 수립과 아울러 F-51기 10여대가 적시적인 작전이 가능한 정비지원능력을 확보하는 등 여의도기지의 전투비행능력 향상에 주력하였다.

당시 유엔지상군은 3월 27일 전 전선에서 38도선을 돌파하여 다시금 북진을 시작하였고 유엔공군은 중부전선 후방지역에 위치한 공산군의 보급로와 기동로를 차단하고 탄약과 같은 전투군수물자가 저장된 전술목표를 선정하여 폭파하는 등 공산군 증원전력 차단과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의도기지에서의 공군비행단(일부 병력)과 미 공군 제6146부대의 연합출격은 4월 3일부터 시작되어 5월 31일에 종료되었다. 작전계획이 완료된 4월 1일 기준으로 공군비행단과 미 제6146부대가 보유한 전력은 F-51 4대(대전기지 전개 4대)와 전투조종사 8명에 불과했다.[103]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미 제5공군사령부로부터 이들 부대에게 부여된 임무는 이천(伊川)을 중심으로 신계(新溪)-남천점(南川店)-송정리(松亭里)-은행정리(銀杏亭里) 등 중부전선으로 집결하고 있는 공산군의 후방에 산재한 보급품 집적소와 군수품 수송차량, 진지를 공격하고 기동로를 차단하는 등 공산군의 진격속도를 약화시키는 것이었다.[10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여의도기지에서의 첫 출격은 4월 3일에 이루어졌다. 이날 06시 30분 헤스 중령과 최종봉 대위는 F-51 2기 편대로 이천(伊川) 북방에 위치한 연료 집적소 2개소와 건물 3동, 교량 1개소를 공격하여 파괴시켰으며, 이날 14시 40분에는 오춘목, 이세영 대위 및 헤스 중령, 매케프(George N. MetcalF) 대위로 구성된 F-51 4기 편대가 이천 서북쪽의 송정리 부근에 위치한 건물 5동과 교량 1개소, 탄약집적소 1개소를 공격한 후 기지로 귀환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4월 10일까지 이천지구를 비롯한 평강(平康)지역을 중심으로 공산군의 병참차단을 위한 공격을 지속하였고, 이천, 평강, 해주(海州), 개성(開城), 시변리(市邊里) 등 중·서부 전선에 출격하여 공산군보급로, 보급품 집적소, 수송차량, 군용건물 등을 파괴하였다.



1951년 당시 여의도 기지 작전 준비 상황

4월 중 이들 한·미 공군은 총 182회의 전투출격을 감행하여[105] 공산군 인원 75명, 차량 180여 대와 공산군 보급기지 및 건물 등을 파괴하는 전과를 기록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4월 19일 미 제6146부대에게 그동안의 전투성과를 기리기 위하여 대통령 부대표창을 수여했고, 김정렬 총참모장이 직접 부대를 방문하여 황소 1마리와 함께 시상하였다.[106]

5월 작전은 처음부터 활기를 띠었다. 우선 5월 1일에 신유협, 강호륜 소령과 함께 미 공군 조종사 2명도 여의도 기지에 추가로 증원되었고 F-51기 2대가 추가 전개함으로써 한국 공군 조종사는 6명, 미 공군조종사는 6명으로 증가하였고 F-51전폭기도 8대를 보유하게 되었다.

4월 동안의 유엔군의 작전으로 동부지역에서의 중공군의 공세가 어느 정도 좌절되자 중공군은 서부지역으로 주공을 전환함에 따라 비행단의 공격중점도 사리원(沙里院)-수안(遂安)-개성(開城) 등의 중서부지역으로 변화하였다. 중서부 지역은 지형이 불리한 이천(伊川) 지구에 비해 평야지역으로 공중정찰을 통한 표적식별이 용이해 항공작전수행에 유리한 지형으로, 보급로와 작전로 상의 대량수송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표적과 대형 보급품 집적소 및 창고의 식별과 폭격이 매우 수월하였다. 5월 1일~11일간에는 이천을 중심으로 법동(法洞)-양덕(陽德)-곡산(谷山) 방면의 보급로와 교량, 대공포진지 등에 대한 공습을 실시하였고 5월 12일~31일까지는 김화-철원-화천-운산(雲山)-사리원-수안-개성 등 중서부 전선의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후방차단 작전을 실시하였다. 5월 중 공군비행단과 미 제6146부대는 총 104회의 전투출격을 시행하였고 공산군병 116명을 사살하고 건물 15동, 차량 32대, 보급품 집적소 6개소, 유류저장소 3개소 등을 완파하는 전과를 거두었다.[107]

<표 8-18> 1951년 4월~5월 전과 현황[108]

구 분	4 월		5 월	
	완 파	파 손	완 파	파 손
병 력	75명		116명	
차 량	180대	8대	32대	3대
보급품(탄약) 집적소	53개		6(1)개	
유류저장소	10개		3개	
교 량	1개	3개	4개	18개
건물(가옥)	110동		15동	
우마차	19개		20개	
포진지	8개	4개	2개	4개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이로써 공군비행단은 미 제6146부대의 연합작전공격을 통해 중공군의 춘계공세에 대한 유엔 지상군의 반격을 지원하고 후방차단을 통해 공산군의 공세를 저지하는 전과를 거두게 되었다.

3) 정찰비행전대 작전

정찰비행전대는 유엔군 북진 반격시기와 마찬가지로 제2차 후퇴작전 이후에도

육군 제1, 2, 3군단에 각각 파견대를 설치하여 지상군 작전에 협력하였다. 전선과 이동에 따라 군단 작전지역에 정면에 대한 공중정찰, 포병관측, 아군 전투기의 표적 유도, 각 군단간의 연락 및 지휘관 수송에 임하였다. 각 군단 파견대의 작전 및 이동 경로는 다음과 같다.

① 제1군단 파견대(대장 : 소위 나창준)

제 1군단 파견대는 L-4기 1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1950년 12월 7일 중공군이 참전과 더불어 아군의 후퇴에 따라 함흥에서 여의도기지로 후퇴하였다가 1951년 1월 10일에는 경주기지로, 1월 13일에는 울진으로, 1월 15일에 강릉기지(K-18)로 이동하여 군단작전을 지원하였다. 그 후 2월 12일에는 충주기지로 이동하여 일시적으로 제3군단 작전을 지원하다가 2월 14일 제천기지로, 3월 4일에는 재차 강릉기지로 전진하여 군단작전을 지원하였다.

② 제2군단 파견대(대장 : 중위 박재호)

1950년 12월 5일 순천에서 강동을 거쳐 전대본부(서울기지)로 복귀하였으며 12월 13일 제2군단에 파견되었다. 그 후 1951년 5월 29일까지 6개 기지를 이동하면서 군단작전을 지원하였다.

③ 제3군단 파견대(대장: 중위 구선진)

제3군단 파견대는 서울과 대전기지를 중심으로 활약하였다. 1951년 1월 2일에 영주로 이동하였고 1월 18일에는 다시 봉화군 내성(乃城)으로 이동하여 주로 포병관측과 공산군 후방지역 정찰임무를 수행하였다. 그 후 영월(2월 4일), 내성(2월 18일), 영월(2월 23일), 하진부리(下珍富里)로 이동하여 지상 작전 지원에 임하였다.

④ 전대본부

전대본부에서는 서울기지로부터 1950년 12월 31일에 대구 동명기지로 이동한 후 기지를 중심으로 전선정찰 및 작전연락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즉 각 군단과 육군 본부, 미 제5공군사령부 간의 연락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각 군단 파견대 임무도 지원하였다.

정찰전대 소속 각 군단파견대는 정찰 및 연락임무를 육군 항공대에 이관하고 철수를 단행하였다. 우선 1951년 4월 17일에 1군단 파견대를 철수하여 전대본부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복귀시켰고, 5월 29일에는 제2, 3군단 파견대를 철수시켜 대구 동명기지로 전력을 복귀시켰다.

<표 8-19> 정찰전대 월별 항공기 보유현황

구 분	'50.12	'51.1	'51.2	'51.3	'51.4	'51.5	'51.6
L-4	3	1	1	1	5	12	11
L-5	1	1	3	3	3	5	4
L-17			1	1	1	1	1
L-19					1	2	2

이후 정찰전대는 1951년 5월 14일 주력부대를 사천기지로 전개시킨 후 6월 24일 동명기지에 있던 전대본부를 포함한 잔여전력을 사천기지로 이동하여 전력배양을 위한 조종사 양성 및 정비사 교육임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1951년 3월 28일에는 권중희(權重熙) 중위가 육군 제1군단장 김백일(金白一) 준장과 동승하여 여의도기지에서 강릉기지로 이동하던 중 기상불량으로 추락하여 조종사와 탑승자 모두가 사망하는 불행한 사례가 발생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표 8-20> 정찰전대 비행활동(1950. 12. 13~1951. 6. 30)

기 종	L-4		L-5		L-17		L-19	
임 무	정 찰	연 락	정 찰	연 락	정 찰	연 락	정 찰	연 락
비행활동	62	309	66	524	0	60	13	47

4) 한국공군 재정비를 위한 사천기지 전개

1950년 10월 중공군의 참전은 전쟁의 장기화를 예견하게 하였고 김정렬

총참모장을 비롯한 공군수뇌부는 가능한 단기간에 전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비행단을 1950년 12월 제주기지로 이동하여 시급한 전투조종사 양성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한편 1951년 1월 9일에는 공군 총참모장 김정렬 소장과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일행 7명[109]이 미 극동공군사령관 스트레이트메이어(George E. Stratemeyer) 중장의 초청을 받아 동경의 미 극동공군사령부를 방문하게 되었다.

이 방문을 통하여 대한민국 공군은 그동안 미 공군으로부터 비공식적인 지원을 받던 한·미 관계를 공식화하는 한편, 장차 획득할 수 있는 군사원조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미 공군으로부터의 군수물자 보급에 관한 원칙적인 합의를 통하여 보급업무의 정상화에 합의하였다.

3월에 중공군에 대한 아군의 반격작전이 시행되고 여의도기지로 미 제6146부대가 전개하자 미 공군조종사와의 합동 전투 경험을 통해 전투기량을 증진하고자 전투비행훈련을 종료한 비행단 소속 제11전투비행중대 조종사를 파견하여 실전 경험을 습득하게 하였다. 그러나 4월에 발생한 2건의 조종사 손실을 현실적인 장벽으로 다가왔고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발전과 확장을 통한 유엔공군의 전투단위부대로서 한국 공군의 독자적인 작전수행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를 위해 김정렬 총참모장은 다음과 같은 계획을 수립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첫째, 전 공군부대를 전시 전투편제로 재편성하고,
둘째, 조직적인 비행훈련을 통하여 전투기량을 연마한 다음,
셋째, 하나의 전투단위부대로 본격적인 전투작전을 한다.

이와 같은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총참모장 김정렬 소장은 여의도기지에서 한국공군 조종사의 출격작전을 중지하는 문제를 미 제6146기지부대장(헤스 중령)과 논의하였다.[110] 이후 공군 총참모장은 1951년 5월 15일 미 제5공군사령관 패트리지 중장에게 '대한민국 공군 전력 확장에 대한 제의'

라는 서신을 보내 대한민국 공군은 차기작전을 자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5월 31일부로 여의도기지에서 수행하던 미 제6146기지부대와의 연합출격을 중지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여의도기지 작전(제11전투비행중대 작전)을 종료한 공군 비행단은 비행훈련기지를 물색한 결과, 미 공군이 사용하지 않고 있던 사천기지(K-4)를 선정하였다. 비행훈련기지로 사천기지가 결정되자 공군은 1951년 6월 12일 그동안 각 기지에 분산 전개하여 활동 중이던 전투부대와 지원부대를 사천기지로 집결시켜 자주적인 작전준비에 대비하도록 공군본부 작전명령 제31호를 하달하였다. 이 명령에 따라 여의도기지(K-16)에서 작전 중이던 제11전투비행중대와 제101기지전대는 6월 14일 부대이동을 시작하였다. 지상부대는 6월 20일까지 전 부대가 사천기지로 이동 완료하였으며, 비행부대는 C-47 수송기편으로 전 항공기와 함께 공로로 이동하였다.

한편 제주기지의 비행단 주력인 제12비행중대와 그 지원부대도 6월 22일부터 29일까지 3차에 걸쳐 지상부대와 비행부대가 사천기지로 이동하였다. 대구 동명기지에 주둔하고 있던 정찰비행전대도 6월 24일 사천기지에 도착함으로써 6월 30일에는 공군의 모든 전투부대가 사천기지에 집결 완료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4 절 분석 및 교훈

1950년 11월과 12월의 2차례에 걸친 공세를 통해 유엔군이 점령하고 있던 북한지역 대부분을 회복한 중국과 북한 지상군은 전세의 완벽한 역전을 기하고 한반도에서 유엔군을 축출하고자 1950년 12월 31일부터 제3차 공세를 시작하였고 이후 4차(2월 공세) 및 5차 공세(춘계공세)를 실시하였으나 유엔군의 반격에 밀려 1951년 6월 말에는 한강 하류-문산-전곡-연천-철원-김화-펀치볼-서화-거진을 연하는 선까지 후퇴하였다. 이는 유엔군이 계획한 휴전에 대비한 방어선인 동시에 공산군을 휴전회담에 임하도록 강요하기 위한 제한공세작전의 전진한계선이었다. 이로써 유엔군과 공산군 양측은 그간의 출혈로 인한 피로감으로 인해 협상을 통한 전쟁종결 전략을 추구하게 되었고 마침내 7월 10일 휴전회담을 시작하였다. 이 기간 동안 유엔군 및 공산군 공군 작전의 특징과 양상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 공산군 공군 작전

이 시기의 소련과 북한공군 작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시도와 좌절'로 표현할 수 있다. 먼저 소련 공군은 안둥비행장과 다둥고우(大東沟) 비행장에서 기존 2개 전투비행사단보다 기량과 전투력 면에서 월등한 2개 전투비행사단을 교체 투입하였고, 결과적으로 이전보다 약 1개 전투비행사단(2개 전투비행연대)이 증가된 전력으로 유엔공군과 공중전을 벌였다. 그러나 유엔지상군의 후퇴로 유엔 공군의 제트 전투기들이 일본기지로 전면적으로 철수한 1915년

1월 말에서 2월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소련공군은 그들이 의도한 북한 서북부 상공에서의 공중우세를 달성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제64비행군단장 벨로프 소장은 1951년 10월에 소련 공군총사령관에게 올린 작전결과 조사보고서에서 이 시기의 작전에 대해 “안둥-선천 지역 후방목표물과 교통로를 방호하는 전투임무는 기본적으로 완수” 되었지만 “안주-평양지역 목표물 방호와 관련된 전투임무는 완수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적 비행대는 최근까지도 이 목표물에 체계적인 폭격과 습격을 계속하면서 중국군과 조선군의 후방사업에 커다란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111] 이는 안둥비행장과 압록강 일대의 유엔공군 비행기피지역을 제외한 여타 지역에서는 소련공군의 전투임무가 실패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참전 이후 지속돼온 소련공군의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전투방침과 유엔공군 대비 양적, 질적인 전투력 열세를 가장 큰 원인으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궁극적으로는 미국과의 확전방지를 고려한 스탈린의 고도로 계산된 소극적 참전전략에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공군은 이전보다 증강된 전투력을 보유한 채, 신의주비행장 주둔 La-9기 및 Yak-9기 전력을 중심으로 평양지역 주요시설에 대한 제한적인 방호임무를 수행하였으며 1951년 6월 이후에는 PO-2를 동원하여 서울, 김포, 수원 비행장 및 유엔 지상군 집결지에 대한 야간공격을 감행하였다. 또한 대공방어능력을 증강을 위해 3개 독립 대공포연대를 신설하고 김일성의 지시로 전 보병부대에 이른바 ‘비행기 사냥꾼 조’를 운용하였다. 그러나 북한공군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보유한 전력의 열세로 인해 이들의 임무는 공간적으로나 임무 면에서 매우 제한적인 활동만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영향 또한 매우 미미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소련 및 북한공군은 전력을 증강하고 전장에서의 역할과 능력을 확대하려는 기도를 하였고, 이에 따라 북한 서북부 미그회랑지역에서의 유엔공군 B-29 중형폭격기의 임무를 제한하고 대공방어능력을 신장하는 등 일정부문 긍정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유엔공군의 압도적인 공중우세 확보의지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전력에 밀려 1951년 3월 이후에는 다시 압록강 주변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활동을 벌이게 되었다.

2. 유엔 및 한국공군 작전

이 시기(1951년 1월~6월) 유엔공군의 비행활동은 총 130,365소티(월 평균 약 21,720소티)로 중공군이 참전한 1950년 10월 이후 12월까지의 월 평균 비행활동 17,640소티에 비해 약 4,000여소티(23%) 증가했고 개전 초기(1950년 6~7월)를 기준으로 할 때는 약 2.5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이러한 공군 비행활동의 증가는 단적으로 전쟁규모가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엔공군은 제공권 확보를 기본전제로 상정한 채 중공군의 후속 증원전력 및 전선으로 이동되는 보급물자 차단을 작전의 최우선 목표로 삼았고, 이에 따라 비행 운영에서도 항공차단 및 무장정찰(34.7%), 공수(30.6%), 근접항공지원(14.2%), 요격작전(5.7%) 순으로 전력을 할당하였다.

유엔공군은 이 시기 미그회랑지역을 포함한 전 한반도 상공에서의 제공권을 확보하고 소련 및 북한공군의 평양-신안주 이남 진출을 제한한 상태에서, 항공차단 및 무장정찰 임무에 가장 많은 전력을 할당하여 공산군의 전력 증원 및 보급물자수송을 차단하였다 또한 북한 지역 내 비행장 파괴를 통해 소련 및 중국공군의 북한 전개를 좌절시킴은 물론 공산군의 '항공작전 원천'을 봉쇄하여 작전계획자체를 수포로 돌아가게 하였다. 그리고 근접항공작전을 통한 직접타격을 실시하여 공산군 공세의 예봉을 둔화시킨 것은 물론 공수(空輸)작전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탄약, 장비, 물자 등을 공급함으로써 유엔지상군의 방어와 반격작전 간 중대한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유엔공군작전의 성과와 관련하여 1951년 8월 중에 있은 휴전회담에서 북한 수석대표 남일(南日)은 유엔 대표를 향해 "솔직히 말하자면 전술항공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폭격의 직접지원 없이 유엔지상군 단독으로는 현재의 위치를 확보할 수 없었다. 그리고 유엔지상군이 현 전선을 겨우 일시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전선정면에 대한 전술항공폭격보다도 우리 지역에 대한 전략항공폭격 때문이다."[112] 라고 언급하였다.

이 시기 한국공군은 준비와 도전, 엄정한 현실인식이 공존한 시기였다. 1950년 12월 하순 전쟁장기화에 따라 전력 재정비와 전투조종사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해 제주기지로 전개했던 공군비행단은 1951년 6월까지 조종사양성훈련을 통해 전투조종사 24명을 양성하는 한편 서울이 회복되자 양성된 일부조종사를 여의도기지로 파견하여 1951년 4월부터 5월 말까지 공산군의 춘계공세 저지를 위해 미 제6146부대와 연합으로 중부전선에 대한 차단작전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4월과 5월의 여의도 기지 작전은 보다 체계화된 양성과정을 통해 배출된 조종사의 도전이자 시험무대였으나 현실은 냉혹했다. 4월에 발생한 2명의 조종사 손실은 현실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 제6146부대의 일부로 전투에 임하고 있는 수준을 넘어 체계적인 발전과 확장을 통해 독자적인 전투단위부대로서 역량을 보유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사천기지(K-4)로의 작전부대 통합과 전개 계획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공군비행단과 정찰전대는 1951년 6월 하순 사천기지로 전병력이 이동 전개하였다. 이로써 한국 공군은 1951년 8월 작전이 재개되기까지 자체역량을 평가하고 재편성하여 향후작전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갖게 되었다.

(집필 : 이근석)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주(註)

1) 북한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제26권(평양 : 북한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1981), 155, 209쪽

2) 이와 관련 1950년 11월 30일 소련의 중국 파견 비행사단 편성과 배치에 관해 작성된 소련군 총참모부 작전총국의 조사보고서에는 "조선 혼성비행사단은 신의주에 배치"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국사편찬위원회, 『6·25전쟁, 문서와 사료, 1950~53년』(과천 : 국사편찬위원회, 2006), 125쪽)

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2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135~137쪽

4)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34쪽

5) 위의 책, 146쪽

6) 위의 책, 135쪽

7) 위의 책, 152쪽

8)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백기락 편대'가 1951년 1월 16일 공중전에서 유엔 공군 B-26 폭격기 4대를 격추하였다고 주장〔북한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 전사 26』,(평양 : 북한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1), 259쪽〕 하고 있으나 미 공군 자료에는 평양 상공에서 2대의 B-26이 Yak-9 2대의 공격을 받았으나 B-26의 사격으로 Yak-9 1대가 불타고 B-26은 전혀 피해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다.(Headquarter US Air Force, *Summary of The Situation in Korea 16 January 1951*, RG341 Record of The Headquarter US Air Force, 국립중앙도서관)

9) 북한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앞의 책, 332쪽

10) Headquarter US Air Force, *Summary of The Situation in Korea 15 June 1951*, RG341 Record of The Headquarter US Air Force, 국립중앙도서관

11)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 Air Force in Korea 1950-1953*(Washington D.C. : Office of Air Force History United State Air Force, 1983), p.309

12) Ibid., p.310

1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1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278쪽

14) 위의 책, 404쪽

1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3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256쪽

1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1 258쪽

17) 1950년 12월 18일부터 24일 동안 평양-강계 간 도로에서 이들 대공포부대가 5대의 항공기를 격추시켰다고 주장(위의 책. 258쪽) 하고 있으나 이는 매우 부풀려진 것이며, 1950년 12월에 북한 대공포에 의해 손실된 유엔군 항공기 총 7대에 불과하다.(미공군역사연구소(AFHRA) 홈페이지 6·25전쟁 통계자료(http://www.afhra.af.mil/shared/media/document/AFD-090611-098.pdf)

18) 위의 책, 412쪽

19) 위의 책, 256쪽

20) 북한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제26권, 260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1) 북한 및 소련측 관련자료는 '비행기 사냥꾼 조'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과장된 성과를 곳곳에서 열거하고 있는데, 1951년 1월~4월 4일까지 유엔 항공기 401대 격추, 1951년 6월 25일까지는 1,018대를 격추(위의 책, 257쪽)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1951년 1월부터 3월까지는 각 보병부대에서 총 403대를 격추(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소련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2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80쪽)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터무니없는 것으로 1951년 1월~6월까지의 유엔공군항공기 손실 중 북한군의 활동에 의한 손실은 총 137대에 불과하다.(미공군역사연구소(AFHRA) 홈페이지 6·25전쟁 통계자료(http://www.afhra.af.mil/shared/media/document/AFD-090611-098.pdf)

22) 위의 책, 257쪽

23) Xiaoming Zhang, *Red Wings over The Yalu*(Texas : Texas A&M University, 2002), p.123

24) *Ibid.*, p.123

25) *Ibid.*, p.123

26) *Ibid.*, pp.123~124

27) *Ibid.*, p.126

28)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48쪽

29) 중국 안둥(安東; 현재 단둥)시 둥강(東港) 다둥고우(大東沟)에 위치한 비행장으로 1951년 6월 1일 작전화 되어 소련 제303전투비행사단 전력이 주둔하기 시작하였고 먀오고우(庙儿沟)비행장으로 불리기도 했다. 안둥비행장(일명 : 랑토우(浪頭) 비행방) 서남방 약 14.5㎞ 지점(E 39° 57′00″N 129° 08′42″)에 위치

30) 1950년 12월 30일 이후 1951년 1월 9일까지 소련 및 북한 공군활동은 없었으며 1월 10일 신안주 상공에서 B-29기 1대에 대해 MiG-15기 15대가 대응하였으나 상호간 피해는 없었고 이후 약 9차례 북한공군의 아 지상군에 대한 공격이 있었다. 이후 1월 20일이 되어서야 피아 전투기간에 공중전이 재개되었다.(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 Air Force in Korea 1950-1953(Washington D.C. : Office of Air Force History United State Air Force, 1983), p.281)

31) 미 공군측 자료에 의하면 1951년 1월 21일에는 4차례의 공중전이 전개되었고 이날 미 공군은 미군 RF-80기 조종사가 F-80기 한 대가 추락(파괴)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F-84기 한대가 격추되고 1대가 심하게 파손되었으며, 소련공군은 MiG-15기 1대가 격추되고 2대가 파손되었다.(Headquarter US Air Force, *Summary of The Situation in Korea 22 January 1951*, RG341 Record of The Headquarter US Air Force, 국립중앙도서관)

32) Xiaoming Zhang, *op.cit.*, p.124

33) Robert F. Futrell, *op.cit.*, p.288

34) 1951년 4월 3일 소련공군과 유엔공군은 10차례의 공중전을 치렀다. 이날 전투에서 소련은 MiG-15기 65~70대, 유엔공군은 F-86기 22대, F-80기 17대가 동원되었고 공중전 결과 유엔공군측은 F-80기 1대가 파손되었고, MiG-15기 3대가 파괴되고 5대가 파손되었다.(Headquarter US Air Force, *Summary of The Situation in Korea 4 April 1951*, RG341 Record of The Headquarter US Air Force, 국립중앙도서관)

35) Xiaoming Zhang, *op.cit.*, p.127

36) 미국 측 자료에 의해 이날 전투를 정리하면 B-29기 32대가 신의주 상의 교량을 폭파하기 위해 F-84기 54대, F-86기 46대의 엄호를 받으며 출격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100대 이상의 MiG-15가 출격하여 교전을 벌였다. 교전결과 B-29 2대가 추락하고 7대가 손상을 입어 수원, 대구, 김포

등 아군기지로 귀환하였고 B-29기 1대는 적 대공포에 피격되어 이날 미 공군은 총 3대의 B-29기를 잃고 7대가 손상을 입었다. 반면 소련공군피해는 MiG-15기 7~8대가 격추(파괴)되었고 11대가 손상을 입는 피해를 입었다.(Headquarter US Air Force, *Summary of The Situation in Korea 13 April 1951*, RG341 Record of The Headquarter US Air Force, 국립중앙도서관)

37) 이 자료는 전적으로 소련 측 자료에 의존한 것으로 극동공군자료는 참고하지 않았음.(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327쪽 및 소련공군 자료 발췌) 소련 측 주장에 의하면 기간 중 유엔공군기 총 300대를 공중전을 통해 격추한 것으로 집계되지만, 유엔공군 주장은 1950년 11월~1951년 9월 기간 동안 공중전에서 공산 측에 의해 격추된 항공기는 총 28대이고 공중전, 지상대공포에 의한 피격 등 공산군 활동에 의한 손실은 총 240대이다. 한편 극동공군은 이 기간 동안 공중전에서 MiG-15기 82대를 격추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공군역사연구소(AFHRA) 홈페이지 한국전 통계자료(http://www.afhra.af.mil/shared/media/document/AFD-090611-098.pdf)>

38) 국방군사연구소,『한국전쟁』中, (서울 : 국방군사연구소, 1996), 288쪽

39) 위의 책, 289쪽

40) 리지웨이가 구상한 6개 축차 방어선은 임진강 하구-양양에 이르는 38도선 주저항선(제1통제선), 수원-양평-홍천-주문진을 연하는 제2통제선, 평택-안성-원주-삼척을 연하는 제3통제선, 금강 남안과 소백산맥을 연하는 제4통제선, 소백산맥 선상의 제5통제선, 낙동강 방어선인 제6통제선을 지칭한다.(위의 책, 290쪽)

41) 리지웨이는 그의 회고록에서 당시 미8군의 사기문제에 대해 "솔직히 말하면, 미 제8군의 사기는 나에게 커다란 걱정을 주었고" 그의 부대들을 시찰 할 때 "신경질적이고, 암울한 전망과 망연자실한 분위기, 그리고 미래에 빌어질 일에 대한 우려감"을 감지했다고 술회하고 있다.(Matthew B. Ridgway, *Soldier : The Memory of Matthew B. Ridgway*(New York: Harper and Brother, 1956), pp.204~205)

42) 당시 미 제2사단은 후퇴 시 심각한 손실로 재편성 중에 있었고, 12월 26일 미8군에 편입된 제10군단은 전투에 투입되지 않았으며, 제1해병사단은 마산에 대기상태로, 제3, 7보병사단은 선편으로 부산항으로 이동 중에 있었다.(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 Air Force in Korea 1950-1953*, p.271)

43) *Ibid.*, p.205

44) *Ibid.*, p.275

45) 공군본부,『스트레이트메이어 장군의 6·25전쟁 일기』(충남 계룡 : 공군본부, 2005), 268쪽

46) Robert F. Futrell, *op.cit.*, p.275

47) 여기에 인용된 유엔공군 비행관련 통계자료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미공군역사연구소(AFHRA) 홈페이지 한국전 통계자료(http://www.afhra.af.mil/shared/media/document/AFD-090611-098.pdf)를 인용한 것이며 다른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주(註)로 처리하였음.

48) 미공군역사연구소(AFHRA) 홈페이지 한국전 통계자료(http://www.afhra.af.mil/shared/media/document/AFD-090611-098.pdf)

49) 미공군역사연구소(AFHRA) 홈페이지 한국전 통계자료(http://www.afhra.af.mil/shared/media/document/AFD-090611-098.pdf)

50) 미공군역사연구소(AFHRA) 홈페이지 한국전 통계자료(http://www.afhra.af.mil/shared/media/document/AFD-090611-098.pdf) 여기에 기록된 공산군기 손실은 유엔공군 조종사의 주장에 기초한 것이며 완전파괴(destroyed)된 것만 인용하였고 손상(damaged) 된 숫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51) Robert R. Futrell, op.cit., p.287

52) *Ibid.*, p.288

53) Headquarter US Air Force, *Summary of The Situation in Korea 2 March 1951*, RG341 Record of The Headquarter US Air Force, 국립중앙도서관

54) Robert R. Futrell, *op.cit.*, pp.300~301

55) *Ibid.*, p.302

56) 자바라 대위의 본래 소속 부대인 제334비행대대는 5월 7일 제335비행대대와 임무를 교대하고 일본으로 돌아갔으나 자바라 대위는 이미 4대의 MiG-15기를 격추한 상황에서 후속 제대인 제335비행대대에 잔류해 전투를 계속했다.

57) 미공군역사연구소(AFHRA) 홈페이지 한국전 통계자료(http://www.afhra.af.mil/shared/media/document/AFD-090611-098.pdf)

58) Robert R. Futrell, *op.cit.*, p.340

59) 이전까지 통신 중계는 2개의 무선 채널을 보유한 모스키도기가 담당했는데, 이로써 쇄도하는 전술통제임무를 중계하기는 불가능하였다. 이 임무의 C-47의 도입은 현재의 공중경보 및 통제기(AWACS)의 효시가 되었다.

60) *Ibid.*, p.345

61) *Ibid.*, p.347

6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박동구 역), 『중국군의 한국 전쟁사』 2, 569~570쪽

63) Robert R. Futrell, *op.cit.*, p.364

64) 중공군이 제5차 1단계 공세를 조기에 종료시킨 이유는 중공군의 대규모 손실도 있었지만 중공군 전선지휘부는 작전지도측면에서 ① 공세시기가 급하게 이루어져 전술준비, 식량 탄약의 준비, 신규참전병력의 지형숙지 등 사전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작전행동에 제약을 받았고 ② 역량에 비해 공산군 섬멸의도가 과도하게 확장되어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③ 전역우회를 담당한 지원부대가 저지를 받아 포위작전이 이루어지지 못해 작전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점을 들고 있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박동구 역), 앞의 책, 500~501쪽)

65) MPQ-2 레이더 파견대는 1950년 9월 한국에 배치되었고 이들의 원 소속 부대는 미 공군 제3903레이더폭격유도대대(Radar Bomb Scoring SQ)이며 한국에는 3개 파견대(C, K, N)가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들은 1951년 3월 이후 미 제1군단을 지원하기 위한 아일랜드(Island)반은 서울 북방에, 미 제9군단을 지원하는 바우드빌(Vaudeville)반은 홍천 근방에, 미 제10군단을 지원하는 호브노브(Hobnob)반은 원주 동부에 위치하여 유엔공군의 야간 폭격기(주로 B-29기)를 표적까지 유도하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MPQ 지상통제관은 폭격기의 고도, 속도 및 비행경로를 지시하고 표적 상공에 도착하면 조종사에게 폭탄창 및 안전핀 제거명령과 폭탄투하 지시까지 수행하였다.

66) *Ibid.*, p.365

6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박동구 역), 앞의 책, 502~503쪽

68) 이 시기 유엔 공군 전폭기 및 모스키토 조종사들의 보고에 따르면 중공군 제5차 2단계 공세 시 공산군은 주간에도 유엔공군 전투기가 비행 중임에도 이전과 달리 은폐조차 하지 않고 공세를 지속했다.(Robert R. Futrell, op.cit., p.366)

69) *Ibid.*, p.36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70) *Ibid.*, p.313

71) 1950년 6월 이후 실시된 무장정찰 및 항공차단작전은 1950년 6~7월에 2,199소티, 8월 3,299소티, 9월 3,281소티, 10월 4,474소티, 11월 4,210소티, 12월 6,462소티로 6개월 평균 2,910소티이다.

72) *Ibid.*, p.333

73) *Ibid.*, p.318

74) *Ibid.*, pp.316~317

75) *Ibid.*, p.325

76) 제3폭격비행단은 제6133전술비행단이 1950년 12월 1일 극동공군사령부의 편제개편에 따라 변경된 것이며 제3폭격전대는 제6133전술비행단 편제하에 존속했던 부대임.

77) 야간조명탄 투하용 C-47기는 1951년 5월 초 신편된 제67전술정찰비행단 소속으로 전환됨.

78) *Ibid.*, p.330

79) *Ibid.*, p.330

80) *Ibid.*, p.302

81) *Ibid.*, p.308

82) 당시 비행장의 운영여부 판단은 3,000피트 연장의 활주로가 사용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기준이 되었다.(Ibid, p.308)

83) *Ibid.*, p.308

84) William M. Leary, *Anything, Anywhere, Anytime Combat Cargo in the Korean War*, 2000, p.27

85) *Ibid.*, p.28

86) Robert R. Futrell, *op.cit.*, p.353

87) 1950년 11월 28일 사령관이었던 최용덕 준장이 공군본부 참모부장에 임명되어 전속되자 대리체제로 운영됨.

88) 윤일균,『한·미 합동첩보비화 6006부대』(경기 파주 : 한국학술정보(주), 2006), 25쪽

89) 앞의 책, 25~26쪽

90) 공군본부,『작전명령('50~'53)』(충남 계룡 : 공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2001)

91) 당시 제주도에 소재한 작전 가능한 비행장은 제주기지(K-40)와 모슬포기지(K-39)가 있었다. 제주기지는 당시 길이 5,000피트와 6,075피트 활주로 2개가 있었고 모슬포기지에는 길이 4,000피트 활주로가 있었다.

92) 1950년 12월 8일 기준 미 제6146기지부대 소속 비행장교는 5명밖에 없었다.(공군본부,『미 공군 제6146부대 부대사』제1집(충남 계룡 : 공군본부, 2010), 30쪽) 이들 중 크레이그웰 중위가 12월 17일 제주기지로 파견됨으로써 대전에 주둔하여 전투임무를 수행하던 미 제6146기지부대는 4명으로 비행 운영을 할 수 밖에 없었다.

93) 1차 훈련수료자는 총 6명으로 최종봉(崔鍾奉), 오춘목(吳春睦), 이세영(李世瑛), 이강화(李康和), 권성근(權成根), 윤응렬(尹應烈)이고, 2차수료자는 총 11명으로 옥만호(玉滿鎬), 최호문(崔浩文), 주영복(周永福), 장성태(張星太), 김금성(金錦成), 박재호(朴在浩), 구선진(具仙鎭), 신철수(辛鐵洙), 정주량(鄭周良), 이기협(李基陜), 변희주 임. 3차 수료자는 손홍준(孫興俊), 박완규(朴完圭), 서상순(徐商純), 나창준(羅昌俊), 유치곤(兪致坤), 손재권(孫在權), 이일영(李日泳) 등 총 7명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94) 미 공군 제6146부대는 기존 6대에 불과했던 F-51을 1951년 1월 4대를 추가로 보급받아 총 10대를 보유하게 되었고, 이중 대전기지에 4대(전투임무용 3대, 대기전력 1대)를 배치하고 6대를 제주기에 배치하여 한국군 조종사 양성훈련을 실시하였다.(위의 책, 33쪽)

95) 12월의 대전기지 활주로 상황에 대해 미 제6146기지부대장인 헤스 중령은 "12월의 대전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진창이다. 트럭 바퀴, 비행기 바퀴 그리고 우리가 신은 군화의 발목까지 온통 진흙투성이였다."(이동은 역, 『신념의 조인』(서울 : 도서출판 플래닛미디어, 2010), 301쪽)라고 술회하고 있다.

96) 당시 백구부대는 김신 중령을 제외하고는 조종사가 보직되지 않은 채 정비사 및 지원요원만으로 편성되었고 백구부대는 1951년 4월 19일 제주기지에서 비행단 예하 제11전투비행중대 전원이 여의도기지로 전개 시 제11전투비행중대에 편입되었음.

97) 위의 책, 301쪽

98)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中), 385쪽.

99) 공군본부, 『미 공군 제6146부대 부대사』 제1집, 34쪽

100) 위의 책, 36~37쪽

101) 위의 책, 33쪽

102) 공군본부, 『항공 전사 -6·25전쟁-』(계룡 : 공군본부, 1989), 155쪽

103) 한국 공군 조종사는 3월 31일에 제주기지에서 이동해온 이세영, 최종봉, 오춘목, 이강화 대위와 미 공군조종사 또한 4명으로 헤스 중령, 매케프(George N. MetcalF) 대위, 크레이그웰(Ernest Craigwell Jr.) 중위, 길스파이(James J. Gilliespie) 중위였다 .

10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6·25전쟁사 제5권』(서울 : 국방부, 1972), 897쪽

105) 위의 책, 41쪽

106) 위의 책, 41쪽

107) 위의 책, 46쪽

108) 위의 책, 43쪽, 46쪽

109) 준장 최용덕, 대령 김창규, 중령 한용현, 중령 김영환(金英煥), 소령 전명섭, 대위 이규성, 중위 이순용

110) 공군 총참모장(김정렬 소장)은 대한민국 공군의 핵심요원인 전투조종사가 계속 희생되면 공군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가진 상태에서 충분한 전투훈련을 마치고 완전한 하나의 전투단위부대로 출격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반면 미 제6146기지부대장(헤스 중령)은 대한민국 공군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미군 조종사들과 함께 출격하여 전투기량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111)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328쪽

112) Robert R. Futrell, *op.cit.*, p.372에서 재인용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9 장 총 평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1 절	전쟁지도
제 2 절	작전 및 전술
제 3 절	결론

제 1 절 전쟁지도

『6·25전쟁사 : 중공군 총공세와 유엔군의 재반격』 제8권은 중공군의 제3차 공세 이후부터 휴전협상이 전개되기 직전인 중공군 제5차 공세와 유엔군의 반격작전까지의 상황을 분석 정리했다.

이 책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총평에서는 먼저 제1절에서 양측의 전쟁지도에 대한 분석을 기술했다. 제2절은 작전 및 전술적 측면의 평가로 양측의 작전조치 사항을 분석했으며, 마지막 제3절에서는 본 책자 구성의 주요 내용과 의의 및 본 작전기간 전쟁의 교훈 등을 정리했다.

1. 북한과 소련 · 중국의 전쟁지도

마오쩌둥(毛澤東)은 1950년 12월 말 현지 지휘관인 조중연합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의 휴정(休整) 건의에도 불구하고 김일성과 소련 군사고문관들의 요청, 특히 스탈린(Joseph V. Stalin)의 남진권유 입장을 고려하여 재차 38도선을 돌파해 유엔군을 대량 살상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는 나아가 조기에 유엔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고 전쟁을 종결해야 한다는 전쟁 목표를 하달하였다.

제3차 공세의 강행을 둘러싸고 공산군 내부에서는 큰 갈등이 있었다. 펑더화이는 남진을 미루자는 입장이었고, 이에 대해 김일성과 소련 군사고문관들은 강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양자간의 논쟁이 격화되자, 마오쩌둥이 스탈린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남진 강행을 명령하였다.

결과적으로 중공군은 유엔 참전국과 미국을 압박하는 등 정치적인 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펑더화이는 제3차 공세의 성공이 자력으로 성취한 것이 아니라 유엔군의 계획된 철수작전의 결과라는 것을 전투과정을 통해 잘 알고 있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그리하여 그는 유엔군이 공산군을 유인하는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37도선 북쪽에서 추격을 중지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 강행된 제4차 공세 역시 마오쩌둥과 스탈린의 적극적인 공세 권유가 작용한 것이었다. 펑더화이로서는 보급과 장비 면에서 큰 부담을 갖고 있었으나 작전을 강행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다. 결과적으로 공산군은 유엔군의 선전으로 큰 타격을 받고 전력의 한계로 인해 1주일 만에 공세작전을 종료하였다.

스탈린의 종용으로 공산군의 지휘부는 4월 말경 계속 공세작전을 계획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펑더화이는 국군을 대량 섬멸하여 4월 공세 참패에 대한 책임을 조기에 수습하고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5월 공세를 결정하였다.

중공군은 예상되는 휴전회담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목적으로 최대 규모의 병력을 동원하여 공세작전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중공군은 유엔군의 압도적인 화력에 밀려 더 이상 진출하지 못한 채 엄청난 인적, 물적 손실의 대가를 치르며 작전을 종료하였다. 그 후 펑더화이는 물론이고 마오쩌둥도 더 이상 공세작전을 수행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스탈린의 묵인하에 유엔에서 제의한 휴전협상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 한국정부의 전쟁지도

한국정부는 중공군의 제3차 공세가 개시되기 직전에 서울시민들이 무사히 피난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누증하는 범죄의 단속과 부상군경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처우, 전재민(戰災民), 주택, 질병 문제 등 당면의 산적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주력하였다.

정부는 1·4후퇴의 위기를 넘기면서 37도선에서 간신히 전선의 안정을 기하자, 중공군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기 위하여 총력전 결의를 다지면서 대응책을 강구하였다.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의 결전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정부는 전쟁초기에 이어 두 번째로 남한 전 지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중공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한 국민결의대회를 개최하여 단합을 촉구하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대한청년단 50만 명을 무장시키기로 결심하고 미국에 장비의 제공을 요구하였고, 장면(張勉) 대사도 직접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을 방문하여 무장지원을 제의하였다. 이때 미국 정가 일각에서는 국군의 확장문제가 유엔군의 전력증강을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검토되기도 했다.

정부는 국민방위군의 편성, 대한청년단의 무장 시도 등 총력전태세 구축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유엔을 무대로 외교 활동도 강화하였다. 이때 정부는 중공의 불법 침략을 알리고, 또 세계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국제적 지원을 획득하는데 외교활동의 중점을 두었다.

전황이 호전되어 국군과 유엔군이 서울을 재탈환하고 유엔군과 미국 지도부에서 휴전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자, 정부는 통일을 염원하며 휴전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것은 당시 휴전을 반대하고 한반도의 통일을 염원하는 한국 국민들의 총의를 대변한 것이었고, 차후 한국정부와 유엔군사령부와의 심각한 갈등을 예고하는 중요한 사안이었다.

한편 정부는 중공군의 공세에 따라 국군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병력과 장비 면에서 큰 손실을 보게 되자, 다시 전투력을 회복하여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후방지원 조치를 강화하였다. 국군은 인사 군기를 강화하여 지휘관의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고 인력 손실을 막으며 각 군이 인사체제를 정비함으로써 병력의 확보 및 원활한 인사 운영에 노력하였다. 군수지원 면에서는 보급체계, 정비체계 등을 정비하였고, 각 기술병과 지원부대들이 발전을 거듭하여 많은 업적을 내었다. 민사지원 면에서도 우방국의 지원하에 이재민과 피난민 구호에 주력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 미국과 유엔의 전쟁지도

유엔군은 1950년 말 공산군에 의해 38도선까지 밀리게 됨으로써 이제 철군이냐, 확전이냐 하는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했다. 특히 미국의 지도부는 확전이나 철수

보다는 유엔 주도하에 38도선에서 휴전을 이룩하는 것을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고려하였다. 이는 사실상 유엔의 새로운 전쟁지도 지침으로서 휴전정책이 확정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미 합참은 유엔군이 직면한 엄중한 상황을 직시하고 맥아더 장군으로 하여금 적에게 최대의 피해를 가하면서 축차적인 진지에서 방어를 실시하되, 인력과 물자의 심대한 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할 경우 일본으로 철수하라는 지침을 하달하였다. 그러나 군사적으로 한반도에서 계속적인 저항이 불가능할지라도 철수 후 제주도와 같은 근해 도서에서 저항을 계속할 것을 함께 제의하였다.

당시 미 정책 당국의 결정은 「NSC 101」과 「NSC 101/1」의 형태로 정리되었다. 여기서 미 정책 당국은 자국의 전쟁 목적이 아시아 근해의 방위선을 유지하고 대만을 방어하며 실행 가능한 한 남한을 지원함과 더불어 대소 전면전을 회피하는데 있다고 분명히 하였다. 결국 유엔군은 전쟁수행 1년 만에 전선이 전쟁전의 현상으로 회귀하여 38도선 부근에서 교착되자, 군사적 수단 대신 정치적 수단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한편 1950년 12월에 접어들면서 유엔 참전국 중 서방국가들은 자신들의 직접적인 국가이익인 유럽안보를 위해 유엔에서의 발언권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영국은 6·25전쟁에서 서방국가들이 중국과의 전쟁에 휩싸여 군사력을 분산시키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련을 유리하게 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이 무렵 유엔에서는 당시 참전중인 14개국 외에 다른 유엔 회원국들의 참전을 확대시킬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와 관련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경주하였다. 이 당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은 추가 파병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며, 몇몇 남아메리카, 특히 브라질과 멕시코도 효과적으로 전쟁수행에 기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유엔은 유엔회원국들의 참전 확대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1951년 6월까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2 절 작전 및 전술

1. 공산군의 작전지도

조중연합사령관 펑더화이는 맥아더(Douglas MacArthur) 유엔군사령관이나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미 제8군사령관이 제2차 세계대전시 풍부한 물량과 비교적 유리한 조건 속에서 작전을 수행했던데 비해 항일전쟁 및 국공내전 시 매우 열악한 조건 속에서 작전을 수행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이 때문에 그는 6·25전쟁에 개입하면서 그 나름의 경험에 바탕을 둔 작전지도로 공세작전을 전개하였다.

펑더화이가 작전 지휘에 있어 가장 주의를 기울인 것은 부족한 전투근무지원 문제였다. 중공군의 5차에 걸친 공세 모두가 단기에 치열하게 전투를 실시한 후 접적 이탈하여 휴식 및 정비를 취하고, 다음 공세를 준비하는 기간을 갖는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이것은 모두 전투근무지원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다. 특히 제3차 공세는 중공군이 제1, 2차 공세를 통해 많은 손실을 입었고, 병참선도 과도하게 신장되었으며, 전투 피로도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마오쩌둥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수행되었으므로 군사지도자로서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에서 공세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중공군 지도부는 보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적인 현지조달을 실시하여 북한지역에서 3만 톤의 식량을 확보하였으며, 이 외에도 후방의 보급수송과 후방기구를 강화하였다. 이때 중공군은 병참선이 신장되어 현지조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민간인과의 관계를 중요시 하였다. 특히 모택동은 중공군 참전 시 “조선의 산천초목을 애호하고, 조선 인민으로부터 바늘 한 개, 실 한 바람이라도 빼앗지 말 것”을 요구하여 주민들에 대한 유화정책을 통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점령지역을 작전기지화 하였다.

중공군은 작전수행 시 항상 기습과 함께 유엔군 후방 종심으로의 기동을 강조하였다. 기습을 달성하기 위해서 펑더화이는 원거리부터 접근하면서 유엔군을 공격하는 계획을 구상하였으며, 실제 이동 간에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소규모로 집결하면서 이동하였다.

또한 공격개시 시기를 아군의 경계가 느슨해질 때로 선정함으로써 시간적인 기습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유엔군 후방 종심으로의 기동을 위해서는 이미 유엔군이 견고하게 방어진지를 구축한 상태였으므로 우선 우세한 병력과 화력을 집중해서 돌파구를 개척한 후, 유엔군에 대한 분할포위를 진행함과 동시에 종심을 향해 진격을 감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전투력을 편성하였다. 또한 동부전선의 배치가 취약하고 방어간격이 비교적 넓으며 한국군만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감안해서 동부전선을 집중적으로 압박하여 서부전선의 측방을 위협하였다.

중공군 지도부는 부분적인 전과에 도취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공격을 멈출 줄 알았다. 대부분의 지휘관은 적이 철수할 경우 승리감에 도취되어 객관적인 상황판단은 뒤로한 채 추격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로 인해 패망의 길로 접어들었던 것을 대부분의 전례가 증명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중공군 지도부는 서울을 점령하여 정치·군사적 목적을 일단 달성하자 일부의 병력만으로 추격 작전을 실시하고 나머지 병력은 휴식과 정비를 취하도록 했던 것이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펑더화이 등 중공군 지도부가 제3, 제4, 제5차 공세에서 공격을 정지시킨 시점은 대략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먼저 중공군이 연속된 작전으로 이미 피로해 있고, 병력손실도 엄청났다는 점이다. 다음은 중공군이 부분적으로 승리를 하긴 했으나 결정적으로 유엔군의 주력을 격멸하지 못한 관계로 피아 전력비에 큰 변화가 없어 아직은 결전의 시점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동시에 보급수송에 큰 어려움이 있으며 현지조달 역시 그 수요를 채우기에는 부족하였다. 마지막으로 동서해안 방어에 허점을 보여 유엔군이 또 다시 상륙작전을 실시할 경우 인천상륙작전의 재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1)]

2. 유엔군의 작전지도

유엔군의 작전지도 방침은 아군의 인적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적에게 최대한의 출혈을 강요하면서 저항을 계속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국군과 유엔군은 축차 방어라는 작전개념 아래 중공군의 공세를 성공적으로 저지하였다. 유엔군 작전지도의 특징을 몇 가지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2)]

첫째, 축차적인 방어선을 설정하여 아군이 작전한계점에 도달함으로써 적으로부터 결정적인 피해를 입기 이전에 병력을 보전하기 위한 작전을 구상하였다. 실례로 1950년 12월 26일 유엔군은 미 제1, 9군단이 철수할 경우 이를 엄호하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 북쪽에 중간통제선인 서울 교두보선을 설정하였다. 교두보선은 한강에 설치된 부교들이 적의 포격권에 들지 않도록 종심을 유지하기 위해 행주 부근의 한강제방-의정부 남쪽-서울 동쪽을 연하는 반원형으로 설정하였다. 유엔군과 미 제8군사령부는 미 제1, 제9군단장에게 이 선으로 철수할 경우 공격해 오는 적을 역공하면서 철수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적이 통과할 도로변의 감제고지에 보병과 기갑으로 편성된 강력한 부대를 배치하여 주력부대들이 교두보선으로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적의 진출을 저지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한국정부에 3만 명의 노무자를 요청하여 1950년 12월 27일부터 1만 명은 한강을 중심으로, 2만 명은 평택지역에 투입하여 진지를 구축하고 종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적의 작전한계점에 대해 인식하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작전을 구상하였다. 즉 중공군의 공세지속능력이 7~10일을 넘기지 못한다는 것을 판단한 후, 그것을 이용하는 방안으로 37도선까지 적을 끌어들여 작전한계점에 봉착하도록 유인하였다. 유엔군은 적이 작전한계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으로 37도선을 선정하였으며, 이 선에서 결정적인 전투를 통해 적의 주력을 격멸하고자 하였다. 실제로 유엔군은 중공군의 제3차 공세가 끝나자 반격으로 전환할 시점이 다가올 것으로 판단하고 지체 없이 반격작전을 실시함으로써 중공군에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물리적, 심리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가하였다. 결국 중공군은 3월 이후에야 공세를 실시한다는 작전방침을 변경하고 강요에 의해 1951년 2월 제4차 공세(일명 2월 공세)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셋째, 중공군의 작전템포를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방자의 입장에서 공자의 작전템포를 저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적에게 계속적으로 마찰을 증대시킬 수 있는 '공세적 방어'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최소의 교전으로 결정적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공자의 기도를 좌절시킬 수 있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유엔군은 병력 대신 미군의 강점인 화력을 이용하여 아군의 전투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적에게 최대한 출혈을 강요하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였다.

넷째, 유엔군은 정치적 목적보다는 군사적 목적 달성에 우선 중점을 두었다. 이것은 맥아더 장군이 신임 미 제8군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에게 최대한의 권한을 부여한 조치 결과이기도 했다. 즉 서울을 포기한다는 것에 대해 정치적, 전략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리지웨이는 군사적 목적을 중요시 여겨 서울을 고수하기 위해 전투력을 소모하지 않도록 하였다. 따라서 그의 입장에서는 반격을 통한 적 부대 격멸이 주목적이므로 서울을 포기하더라도 적의 작전한계점 도달시기를 고려하여, 아군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서 적이 주력을 격멸함과 동시에 아군의 전투력은 결전을 위해 보전하려는 작전을 구상하였다.

다섯째, 적이 작전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즉각 공세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전방침을 사전에 구상하였다. 유엔군사령관은 축차 방어선이 철수를 위한 단계별 저지선이 아니고, 각 단계마다 적에게 최대한의 출혈을 강요하고 기회를 보아 즉시 반격으로 전환하기 위한 선임을 분명히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미 제1, 9군단이 D선에 방어진지를 구축할 무렵 리지웨이 장군은 양 개 군단이 철수 시에 적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지도 못하고 실질적인 지연전도 펼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엄중 경고하였다.

유엔군의 전쟁지도는 피아의 작전한계점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아군의 전투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적으로 하여금 조기에 한계에 도달토록 하여, 결정적인 시기가 도래하면 어떻게 공세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 중공군 제3차 공세

미 제8군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은 제3차 공세 직전 중요한 시기에 워커 장군이 사망하여 그 후임을 맡게 되었다. 그는 우선 유엔군이 작전한계점에 도달하기 이전 적절한 시기에 방어에서 자의에 의한 철수로 작전의 형태를 변경하되, 적에게 화력을 통한 최대한의 피해를 강요하도록 결정하였다. 그에게 부여된 최우선의 임무는 인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우선 전력을 보존하고 정비한 다음 적절한 시기에 공세로 이전한다는 복안을 갖게 되었다. 부임 직후 그는 무엇보다 지휘통솔력을 회복하는 것과 적에 대한 정확한 정보 평가를 강조하였으며, 아울러 축차 방어작전의 전개와 효율적인 화력운용, 그리고 엄격한 보급 통제 등을 강조하였다.

그는 중공군 제3차 공세 시 먼저 서부전선의 유엔군에게 철수명령을 하달하면서 미 제1, 제9군단이 상호협조 하에 철수하되 병력의 손실이 없도록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중동부전선이 위기에 처하자 흥남에서 철수한 미 제10군단을 조기에 투입하였으며, 철수작전 시 아군의 장비와 물자를 수송하거나 적이 사용할 수 없도록 거부대책을 적절히 시행하였다.

반면 조중연합사령관 펑더화이는 유엔군과의 2차에 걸친 작전에서 미군의 병참선이 차단되면 쉽게 붕괴된다는 약점을 지닌 반면에 중공군은 최소의 보급지원 하에서도 전투할 수 있고, 도보에 의한 산악 주파 능력이 뛰어나다는 장점을 중요시하였다. 펑더화이는 중공군의 병참선이 과도히 신장되어 작전한계점에 이르지 않도록 작전을 구상하였으며, 중공군이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전투근무지원의 문제점을 최대한 해소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중공군은 1950년 12월 마지막 날 제3차 공세를 개시하여 38선 이남으로 남진하고 서울을 점령하였지만, 더 이상 전과를 확대하지 못하고 1951년 1월 8일 37도선 이북에서 공격을 멈추었다. 중공군의 서울 점령은 전적으로 유엔군이 사전에 계획된 철수계획의 결과였다. 중공군은 유엔군이 사전에 계획한 철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계획에 따라 이미 주력이 철수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접전 없이 38선 이남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유엔군은 중공군이 공세를 멈추고 더 이상 남진하지 않자, 위력정찰수색작전을 전개하고 이어 반격계획을 수립하였다.

4. 유엔군의 재반격과 중공군의 제4차 공세

중공군의 제3차 공세 이후 제8군사령관은 중공군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일정한 지역의 확보보다 우세한 화력과 기동력을 앞세워 중공군을 타격해 그들의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엔군은 위력수색작전을 통해 적정을 확인한 후 축차적인 작전통제선을 설정하여 울프하운드 작전과 썬더볼트 작전을 실시했다. 유엔군은 중공군이 개입한 이후 만연해 있던 패배의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공세로의 전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유엔군은 중동부전선에서 적의 압력을 제거하고 서울 탈환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라운드업 작전을 실시했으나, 중공군의 2월 공세에 맞부딪혀 중동부지역에 대규모 돌파구가 형성되는 위기를 초래하였다. 당시 중공군은 횡성지역을 주요 공격목표로 정했다.

중동부전선에서는 또다시 대돌파구가 형성될 위기에 놓였지만, 제8군사령관의 사수 명령에 따라 지평리 방어작전이 성공함으로써 유엔군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전투를 계기로 제8군사령관은 보다 더 적극적인 공격작전을 추구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미 제10군단의 킬러 작전이었다.

결국 중공군의 2월 공세는 실패로 끝났다. 중공군의 2월 공세로 인해 중동부전선을 담당하던 국군의 피해가 상당히 컸지만, 결국 중공군의 공세를 저지하고 반격작전으로 전환하였다. 유엔군은 서울의 재탈환과 38도선 진출을 목적으로 한 리퍼작전을 3월 말까지 전개해 문산-동두천-춘천-현리-양양을 잇는 선까지 진출하는 데 성공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5. 유엔군의 38선 확보와 후방지역작전

미 제8군사령관의 최대 관심사항은 철의 삼각지대로 계속적인 진출을 보장할 수 있고 또 양호한 방어진지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지형을 점령하는 것이었다. 제8군사령관은 캔사스선을 선정하고 러기드작전을 수행하였다.

밴플리트 제8군사령관은 부임 후 첫 번째 작전으로 적이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호언장담하는 철의 삼각지대를 완전히 장악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반면에 공산군은 방어배치를 조정하고 38선 일대에서 저지와 반격을 서로 결합하는 전법으로 북진하는 유엔군을 타격하기로 전술을 전환하였다.

이 시기 유엔군과 공산군 양측은 상대방의 작전과 전술에 대해 어느 정도 간파하고 있었다. 중공군은 유엔군이 캔사스선을 넘어 철의 삼각지대로 공격할 것임을 예견하고 있었으며, 유엔군측은 중공군의 공세가 곧 있을 것이지만 유엔군과 국군이 충분히 격퇴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결국 양측의 작전구상은 4월 21~22일 유엔군의 공격과 중공군의 공세로 현실화되었다.

한편 밴플리트 장군은 후방지역의 게릴라들을 소탕하기 위한 작전에 주력하였다. 또한 제8군사령관은 적 후방지역의 부대와 병참시설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파괴·교란하여 적의 작전에 혼란을 초래할 목적으로 국군과 유엔군이 통제하는 유격대를 적극 활용하였다.

국군과 유엔군의 대비정규전과 유격대 활동은 유엔군 후방지역의 안정화와 공산군 후방지역의 교란 및 정보획득이라는 결과로 아군의 정규작전에 기여한 바가 컸다.

6. 중공군 제5차 공세와 유엔군의 반격

중공군의 제5차 공세 시 양측의 공방전은 전쟁 개시 이후 최대 규모의 격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었다. 이 작전을 통해 유엔군 측은 중공군이 6·25전쟁에 참전한 이후 지속적으로 갖고 있었던 패배의식에서 벗어나 자신감을 회복하고 전장상황을 주도하는 동시에 실지를 회복하여 전전상태로 복귀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유엔군은 공산군측의 인해전술 공격을 화력전으로 격퇴하였지만, 어느 일방도 결정적인 승리를 달성하지 못함으로써 휴전협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양측은 작전의 목표를 향후 예상되는 휴전협상에서의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는데 두고 작전의 범위를 한정한 상태에서 진행하였다.

양측은 각자의 군사적 목표달성을 위해 독특한 작전술을 구사하였다. 특히 중공군의 5월 공세 기간 중 중공군이 주력을 은밀하게 서부에서 동부로 전환하는 과정과 이에 대한 미 제8군사령부의 지휘조치 등은 매우 귀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다. 반면 미 제8군사령부는 5월 초순부터 중공군의 움직임을 확인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

중공군은 고질적인 약점인 보급문제를 해소하지 못함으로써 전과를 확대하지 못했다. 중공군은 4~5일분의 보급품이 고갈되면 공세를 중지하고 안전지대로 철수하는 수밖에 없었으므로 작전기간 상으로 5~10일, 작전거리 상으로 50~100km밖에 기동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유엔군은 돌파구 확장 방지를 위한 신속한 지휘 조치 및 효과적인 예비대 운용과 화력지원으로 중공군의 대공세를 방어할 수 있었다. 미 제2사단이 돌파구의 견부를 방어한 것은 치밀한 작전계획 수립 외에도 적절한 예비대 운용과 효과적인 화력협조 때문이었다. 반면, 당시 국군은 미군과의 협조체계 미흡이나 작전을 위한 준비부족, 그리고 지휘관, 참모의 작전수행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작전상 한계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중공군은 제5차 공세에서 현리 일대의 대규모 돌파구를 형성하는 등 부분적인 성공을 거두었지만, 유엔군의 퇴로차단으로 인해 큰 인명 피해를 입고 물러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고 평가된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7. 해군 작전

중공군의 제3차 공세에 대항하여 유엔군은 38도선에서 방어작전을 실시하였지만, 결국 중공군은 38도선을 넘어 서울을 점령하였고, 지상군의 전선은 37도선인 평택-삼척선까지 후퇴하였다.

이 기간 동안 유엔 및 한국해군이 설정한 최초의 작전목표는 인천, 옹진 및 연백지구에 집결한 병력 및 피난민을 안전하게 후방으로 수송하기 위하여 가능한 많은 수송선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또한 함재기 및 함포지원 사격으로 공산군 병력을 공격하고, 보급망을 파괴하여 지상군의 측방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유엔해군은 인천철수 및 지상군 지원작전, 해상봉쇄작전, 원산항 포위작전, 교량폭파작전 및 화천댐 폭파작전 등을 수행하였고, 한국해군은 유엔해군에 배속되어 옹진·연백지구 철수작전, 제2차 인천상륙작전, 전략도서 확보작전, 동·서해안 소해작전 및 PF-62함 신미도 전투 등을 주도적으로 실시하였다.

먼저 유엔 해군작전의 주요작전으로 북한지역 주요항구를 해상봉쇄하여 적이 보급기지로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우리 해군의 해상활동을 보장하여 해상에서 지상으로 전투력을 투사할 수 있었다. 또한 원산항 외곽에 있는 주요 전략도서를 확보하여 북한군을 측면에서 공격함으로써 병력을 분산시킬 수 있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항공모함에 탑재된 함재기를 이용하여 교량폭파작전을 실시하여 만주로부터 북한지역으로 연결되는 철도와 도로망을 파괴하여 공산군의 군수체계를 무력화시켰다. 공산군은 화천댐을 이용하여 '수공작전(水功作戰)'으로 아군의 활동을 제한하려 했으나, 유엔 항공기의 어뢰로 댐을 공격하여 수문을 파괴시킴으로써 공산군의 의도를 분쇄시킬 수 있었다.

한국해군은 옹진·연백지구 작전을 수행하여 황해도 지역에 집결한 피난민과 청년의용군을 수송하였고, 청년의용군들은 다시 적 해안에 상륙하여 아군의 지상작전을 지원하였다. 또한 한국해군의 특공대 및 덕적도 주둔 해병대로 제2차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하여 인천을 점령하였다.

공산군은 해상세력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하여 북한지역 해안에 기뢰부설을 하였지만, 한국해군은 원산상륙작전 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해작전을 원활하게 실시하여 전투함의 안전항해를 지원할 수 있었다.

8. 공군 작전

소련공군은 중공군 공중엄호와 참전규모 확대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지만 스탈린의 최소한의 개입 전략에 부응하기 위해 마지못해 1개 비행사단 규모 정도로 제한하여 참전시켰다. 이것마저 압록강을 연한 북한 서북부 지역 방호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소련공군 제64전투비행군단은 야간전투능력과 대공방어능력, 후방지원능력을 개선하고 북한 인접전투기지로 비행장을 확보하여 전투접근성을 확대하였지만, 유엔공군에 비해 항공전력이 열세하여 그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중국공군은 1950년 12월부터 3월까지 소련공군 전투비행사단에 편입시켜 안둥기지에서 실제 전투에 참가하고 아울러 대규모 공지합동전투훈련과 연합지휘체계를 확립하는 등 본격적인 참전준비를 서둘렀지만 여러 가지 제약으로 참전을 연기하였다.

북한공군은 신의주비행장 주둔 La-9기 및 Yak-9기 전력을 중심으로 평양지역 주요시설에 대한 제한적인 방호임무를 수행하였고 또 대공방어능력의 증강을 위해 3개 독립포병연대를 신설하여 국군과 유엔공군의 공격을 방어하였다. 하지만 전력의 열세로 인해 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반면 유엔공군은 미그회랑 지역을 포함한 전 한반도 상공에서의 제공권을 확보하여 소련공군과 북한공군의 평양-신안주 이남 진출을 제한한 상태에서 많은 전과를 달성하였다. 또한 근접항공작전을 통한 직접타격을 통해 공산군 공세의

공군본부 군사편찬연구소

예봉을 둔화시킨 것은 물론 공수(空輸)작전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탄약, 장비, 물자 등을 공급함으로써 유엔지상군의 방어와 진격작전 간 중대한 기여를 하였다.

한국공군은 1950년 12월 하순 제주기지로 전개해 1951년 6월까지 조종사양성에 전력을 투입하는 한편 공산군의 춘계공세 저지를 위해 미 공군과 연합으로 중부전선에 대한 차단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그러나 작전수행 과정에서 독자적인 전투단위부대로서의 역량보유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한국공군은 향후작전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기지통합 등 준비기간을 갖게 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3절 결 론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1개월여 동안 계속된 6·25전쟁은 그 성격으로 볼 때 초기에는 북한의 남침에 의한 내전 형태로 시작되었지만 곧바로 미국과 유엔 회원국 등 자유진영과 소련·중국 등 공산권 국가들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국제전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전쟁주체를 기준으로 구분한다면 6·25전쟁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북한군 기습남침 시부터 한강방어선전투까지 북한군과 국군이 전투했던 시기다. 둘째, 유엔군 참전으로부터 압록강 진격까지로 자유진영 국가들이 북한 침략자를 공동의 적으로 설정하고 대결했던 시기다. 셋째 중공군의 참전으로부터 정전까지 자유진영 참전국들이 북한, 중국 등 공산권 침략자들을 상대로 싸웠던 시기다.

한편 6·25전쟁은 중공군의 참전을 계기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양상의 전쟁이 전개되었음을 고려한다면 중공군 참전 이전과 참전 이후의 2단계로 구분할 수도 있다. 그 같은 관점에서 총 11권으로 계획된 6·25전쟁사 편찬도 크게 제1~2부로 구분된다. 즉 제1권 『전쟁의 배경과 원인』, 제2권 『북한군의 전면남침과 초기 방어전투』, 제3권 『한강선 방어와 초기 지연작전』, 제4권 『금강-소백산맥선 지연작전』, 제5권 『낙동강선 방어작전』, 제6권 『인천상륙작전과 반격작전』을 제1부로 보고 제7권 『중공군 참전과 유엔군의 38도선 철수』 이후를 제2부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점을 감안해 제2부의 시작인 제7권은 전쟁의 국제전적인 측면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6·25전쟁사 : 중공군의 총공세와 유엔군의 재반격』 제8권에 대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유엔군과 공산군이 본격적으로 충돌한 것은 제4, 제5차 공세였다고 분석된다. 중공군은 제1, 제2차 공세에서 기습의 효과로 전과를 확대하였고, 제3차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공세에서는 유엔군의 사전 철수계획 덕분에 큰 접전 없이 37도선 북쪽까지 진출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제3차 공세까지는 양측이 정면 승부를 건 전투를 수행한 것이 아니었다. 결국 제4, 제5차 공세에서 양측은 모든 전력을 동원하여 사활을 건 공방전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중공군은 큰 손실을 입고 힘의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또 하나 본 내용에서 분석된 교훈은 전쟁지도의 향방이 국제정세의 추이에 따라 결정되었다는 점이다. 1·4후퇴 전후 시기 유엔군에 의한 한국정부의 제주도 이전계획이나 휴전정책 등은 우리 국민이나 정부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다. 오늘날에도 6·25전쟁 당시 한반도를 놓고 전개되었던 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가 큰 변화 없이 계속되고 있다. 국제무대에서의 활동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번 연구를 통해 분석된 역사적 사실들은 향후 자유민주 통일을 달성해야 할 대한민국에게 매우 유용한 교훈이 될 것이다.

(집필 : 양영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주(註)

1) 전종순,「중공군 정월공세 시 리지웨이와 펑더화이의 작전지도」, 군사편찬연구소,『군사』제45호, 2002, 102~104쪽.

2) 위의 논문, 97~99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부 록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 영문약어
2. 연표

1. 영문약어

ADCOM — Advance Command and Liaison Group 전방 사령부
AGC — Amphibious Force Flagship 상륙전 기함
AKA — Attack Cargo Ship 공격 화물 수송함
AMS — Motor Minesweeper(YMS의 신형) 소해정
ANGLICO — Air and Naval Gunfire Liaison Company 항공·함포 연락 중대
APA — Attack Transport 공격 인원 수송함
APD — High Speed Transport 고속수송함
ASCOM — Army Service Command 육군 기지창
ATF — Fleet Tug 예인함
BB — Battleship 전함
BLT — Battalion Landing Team 대대 상륙단
CA — Heavy Cruiser 중(重) 순양함
CP — Command Post 지휘소
CL — Light Cruiser 경(輕) 순양함
CV — Aircraft Carrier 항공모함
CVE — Escort Aircraft Carrier 호위 항공모함
CVL — Light Aircraft Carrier 경항공모함
DD — Destroyer 구축함
DE - Escort Destroyer 호위 구축함
DUKW — Amphibious Truck(Dual Utility Cargo Waterborne) 수륙양용트럭
FBHL — Force Beach Head Line 해안두보선
FMF — Fleet Marine Force 함대해병대
GQ — General Quarters 전투 배치
JSPOG — Joint Strategic Plans and Operations Group 합동전략 계획단
JTF — Joint Task Force 합동기동부대
KLO — Korean Liaison Office 한국연락사무소
LCM — Landing Craft, Medium 중형 상륙정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LCVP — Landing Craft, Vehicle and Personnel	상륙 주정
LD — Line of Departure	공격개시선
LF — Landing Force	상륙군
LSD — Landing Ship Dock	상륙 선거함
LSMR — Landing Ship Medium-Rocket	로켓 포함
LST — Landing Ship Tank	대형 상륙함
LSU — Landing Ship Utility	대형 상륙정
LVT — Tracked Landing Vehicle	수륙 양용차
LVT(A) — Armored Tracked Landing Vehicle	장갑 수륙 양용차
MAG — Marine Aircraft Group	해병 비행 전대
MAW — Marine Air Wing	해병 항공 사단
MTT — Mobile Training Team	이동 교육반
OP — Observation Post	관측소
PC — Submarine Chaser	구잠함
PF — Frigate	호위함
RCT — Regimental Combat Team	연대전투단
RLT — Regimental Landing Team	연대상륙단
SFCP — Shore Fire Control Party	해안 사격 통제반
TAC — Tactical Air Command	전술 항공 본부
TF — Task Force	기동부대, 특수임무부대
TG — Task Group	기동전대
TTU — Troop Training Unit	부대훈련대
USAFIK — U. S. Army Forces in Korea	주한 미 지상군
VMF — Marine Fighter Squadron	해병 전투기 대대
VMF(N) — Marine Night(All-weather) Fighter Squadron	해병 전천후 전투기 대대
YAK — Russian Fighter Aircraft	소련제 전투기
YMS — Motor Minesweeper(AMS의 구형)	소해정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연 표

연도	월 일	사 건 내 용
1950	12월 31일	• 중공군의 제3차 공세 개시
1951	1월 1일	• 미 제8군사령관, 미 제1, 제9군단의 서울 교두보선 점령 및 국군 제1, 제2, 제3군단의 C방어선 점령 지시
	1월 2일	• 국군 제1, 제6사단 한강 남쪽으로 철수
	1월 3일	• 정부, 부산으로 천도 • 국군과 유엔군 서울 남쪽으로 철수
	1월 4일	• 서울 재실함.
	1월 5일	• 국군 제1, 제3군단, 원주 - 삼척 선으로 철수
	1월 6일	• 국군 제1사단, 안양 부근에서 중공군과 교전 • 서부전선의 미 제1, 제9군단, 평택 - 장호원 선 점령 • 미 제2사단, 원주 쟁탈전
	1월 7일	• 국군과 유엔군, 충주 - 삼척 선에서 공산군 저지
	1월 8일	• 중공군, 신정공세 종료
	1월 9일	• 유재흥 소장 제3군단장 부임
	1월 10일	• 국군 제2군단 해체
	1월 14일	• 국군과 유엔군, 평택 - 삼척의 신방어선 구축
	1월 15일	• 콜린스 및 반덴버거 한국 방문 • 미 제8군, 오산 - 수원 수색작전 전개
	1월 17일	• 정부, 정전안 반대
	1월 24일	• 아시아, 아랍 13개국, 한국 휴전안 제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연도	월 일	사 건 내 용
1951	1월 25일	• 국군과 유엔군 한강 남쪽에서 위력 수색작전 개시
	1월 26일	• 이 대통령, 한일 우호관계 희망 • 터키 여단 금장량리에서 격전
	1월 30일	• 국군, 인민군 제2군단 격멸작전 종료
	1월 31일	• 유엔총회, 한국전쟁 휴전제안 가결, 중공 거부
	2월 1일	• 유엔총회, 중공을 침략자로 결의
	2월 5일	• 이 대통령, 북진 중지설 반발 • 국군 제3군단과 미 제10군단, 홍천 포위공격 개시
	2월 7일	• 수도사단, 강릉 및 대관령 확보 • 국군 해병대, 동해 도서 확보작전 개시
	2월 10일	• 국군 제1사단, 한강변으로 진출
	2월 11일	• 중공군 2월 공세 개시
	2월 12일	• 거창사건 발생 • 국군 제8사단 횡성에서 분산 철수 • 네덜란드 대대 횡성 방어작전
	2월 13일	• 미 제10군단, 횡성 포기 원주 - 평창 방어 • 미 제2사단 제23연대, 지평리 고립방어
	2월 18일	• 국군과 유엔군, 양평 - 원주 진출 • 제천선에서 중공군의 2월 공세 저지
	2월 21일	• 국군과 유엔군, 양평 - 횡성 - 평창을 목표로 격멸작전 개시 • 미 제9군단장 무아 장군 헬기 사고로 전사
	3월 6일	• 국군과 유엔군, 격멸작전 종료
	3월 7일	• 국군과 유엔군, 전선 절단작전 개시
	3월 12일	• 리지웨이, 38도선에서 휴전되면 유엔군의 승리라고 담화 발표 • 국군과 유엔군, 알바니선 점령
	3월 15일	• 서울 재탈환
	3월 17일	• 미 제10군단, 전선 절단작전 완료
	3월 22일	• 미 제1군단, 용진작전 개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연도	월 일	사 건 내 용
1951	3월 23일	• 맥아더, 중공 지원군사령관과 현지 정전회담 제의
	3월 24일	• 이 대통령, 한만국경선 진출 이전에는 휴전 반대 성명 발표
	3월 27일	• 국군 제1군단, 양양 점령
	3월 28일	• 제1군단장 김백일 소장 비행기 사고로 전사 • 국군 해병대, 서해도서 확보작전 개시
	3월 31일	• 국군과 유엔군, 전선 절단작전 완료
	4월 3일	• 국군과 유엔군, 요철작전 개시
	4월 5일	• 국군과 유엔군, 문산 - 화천저수지 - 양양 선을 목표로 진격 개시
	4월 6일	• 미 제1군단 캔사스선 진출
	4월 11일	• 미 제1군단 및 제9군단, 불굴작전 개시
	4월 12일	• 트루먼, 맥아더 원수를 해임, 리지웨이를 유엔군사령관에 임명 • 미 제9군단, 캔사스선 진출
	4월 14일	• 유엔군, 철원 진격
	4월 20일	• 미 제1군단과 제9군단, 유타선 점령
	4월 21일	• 미 제1군단과 제9군단, 와이오밍선 공격 개시
	4월 22일	• 중공군 4월 공세 개시 • 국군 제6사단 사창리전투 개시 • 국군 제5사단 인제전투 개시 • 벨기에 대대, 금굴산전투 개시 • 영 제29여단, 설마리전투 개시 • 터키 여단, 장승천전투 개시
	4월 23일	• 영 제27여단, 가평전투 개시
	4월 25일	• 국군 제1사단, 영 제29여단 글로스터 대대원 40명 구출
	4월 28일	• 미 제 2군단, 서울북방 골든선 점령 • 국군 제1사단 화전리전투 개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연도	월 일	사 건 내 용
1951	4월 30일	• 국군과 유엔군, 적 4월 공세 저지, 김포 - 서울북방 - 금곡리 - 대포리선에 방어선 형성
	5월 4일	• 국군 및 유엔군 반격재개, 봉일천 - 춘천 - 인제 - 속초 북방선으로 진격 개시
	5월 7일	• 신성모 국방장관 퇴임, 이기붕 국방장관 취임 • 국군 6개 사단 미조리선 공격 개시
	5월 9일	• 국군 제9사단, 매봉 점령
	5월 11일	• 국군 제1, 제3군단, 미조리선 공격 중지
	5월 12일	• 국민방위군 설치법 폐지
	5월 16일	• 중공군 5월 공세 개시
	5월 17일	• 트루먼, 새 대한정책(NSC 48/5) 결정 • 미 제2사단, 벙커고지 전투
	5월 18일	• 현리 지역 대돌파구 형성
	5월 19일	• 국군 제6사단, 용문산전투 개시
	5월 20일	• 국군과 유엔군, 토페카선을 목표로 공격 개시
	5월 23일	• 국군 제1군단, 대관령 확보
	5월 24일	• 국군 제1사단, 임진강 진출
	5월 26일	• 국군 제3군단 해체
	5월 28일	• 미 제9군단, 캔사스선 점령
	5월 29일	• 국군 제1군단, 간성 점령
	5월 31일	• 조지케난과 말리크 휴전협상 위한 막후 접촉
	6월 1일	• 유엔 사무총장, 38도선에서 휴전성명 발표 • 미 합참, 유엔군사령관에게 새로운 임무하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연도	월 일	사 건 내 용
1951	6월 3일	• 미 제1군단, 말뚝박기 작전개시 • 국군 수도사단, 향로봉전투 개시
	6월 8일	• 이 대통령, 38도선에서 휴전 반대 성명 • 미 국방장관 마샬, 미 제8군 방문 • 국군 제7사단, 군량현전투 개시
	6월 9일	• 미 제9군단, 와이오밍선 좌반부 점령
	6월 10일	• 정부, 부산에서 휴전반대 궐기 대회
	6월 11일	• 미 제9군단, 와이오밍선 우반부 점령
	6월 13일	• 국군 및 유엔군, 임진강하구 - 철원 - 김화 - 해안분지 - 거진 북방에 방어선 형성
	6월 13~14일	• 조·중·소 전략회담, 38도선에서 휴전전략에 합의
	6월 17일	• 미 제10군단, 캔사스선 점령
	6월 22일	• 노르웨이 의료지원부대 도착
	6월 23일	• 이종찬 소장 육군 참모총장 취임 • 말리크, 한국전쟁 휴전협상 제의
	6월 30일	• 이 대통령, 휴전협상 반대성명 발표 • 유엔군사령관 리지웨이, 공산군사령관에게 휴전회담 제의
	7월 1일	• 공산군, 휴전제안 수락, 7. 10~15일 개성 개최 제의
	7월 2일	• 국회, 휴전반대 결의안 결의
	7월 8일	• 휴전회담 예비회담
	7월 10일	• 휴전회담 개성에서 개막 • 한국측 대표, 백선엽 소장 부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참 고 문 헌

Ⅰ. 국문 문헌

명령, 작전보고서 등 문서, 자료집

「국무원 공고 제12호 비상계엄 해제에 관한 건」 행정자치부,『관보 1951년 4월 4일자」『전자관보』. http://gwanbo.korea.go.kr/main.jsp.
「국민방위군 해산에 관한 건」, 대통령기록관,『이승만대통령기록물』(1951년 5월 12일), http://www.pa.go.kr/online.contents.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제1권(서울 : 군인공제회 제1문화사업소, 2001년).
국방부,「일반명령」제47호(1951. 6. 20).
국방부,「일반명령 제33호」(1951. 2. 10).
육군본부,「작전명령 제251호」(1950. 12. 10).
육군본부,「작전명령 제256호」(훈령 제2호 부록).
육군본부,「작전명령 제257호」(1950. 1. 2).
육군본부,「작전명령 제257호」(1950. 1. 3).
육군본부,『전투상보』(제1기갑연대 1950. 12. 30).
육군본부,『전투상보』(제26연대 1951. 1. 3).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21), (대전 : 육군본부, 1987년).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49), (대전 : 육군본부, 1987년).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53), (대전 : 육군본부, 1987년).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55), (대전 : 육군본부, 1987년).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56), (대전 : 육군본부, 1987년).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59), (대전 : 육군본부, 1987년).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105), (대전 : 육군본부, 1997년).
국군 제1군단사령부「작전명령 제127호」(1950. 12. 21).
국군 제1사단사령부 제15연대「작전명령 제38호」(1951. 1. 1)
국군 제2군단사령부「작전명령 제100호」(1950. 12. 15).
국군 제2군단사령부「작전명령 제102호」(1950. 12. 20).
국군 제3사단사령부「작전명령 제63호」(1950. 12. 26.).
국군 제6사단사령부「작전명령 제61호」(1950. 12. 15).
국군 제9사단사령부「작전명령 제3호」(1950. 12. 21).
국군 제9사단사령부「작전지시 제4호」(1951. 1. 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군 제9연대본부「작전명령」제5호(1951. 2. 2).
국사편찬위원회(편역),『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과천 : 편역자 출판, 2006년).
國史編纂委員會,『大韓民國史資料集』제29집(과천 : 편자 출판, 1996년).
대검찰청 공안부,『좌익사건실록』제11권(서울 : 대검찰청, 1975년).
대한민국 외무부(편역),『韓國戰爭 關聯 蘇聯極秘外交文書』(서울 : 미발간, 1994년).
大韓民國公報處,『大統領李承晩博士談話集』(서울 : 편자 출판, 1953년).
사회부,「피란민구호상황주보」제4호(1951. 2. 3).
외무부,『한국전쟁관련 소련비밀외교문서』제3권, 1994(미간행).

신문, 방송, 사전, 연감, 일지

『경향신문』1951년 6월 13일자 ; 1951년 4월 24일자 ; 1951년 5월 8일자 ; 1951년 6월 13일자 ; 1950년 12월 22일자.
『대구매일』1951년 3월 25일자 ; 1951년 1월 9일자.
『동아일보』1951년 2월 9일자.
『민주신보』1951년 1월 24일자 ; 1951년 1월 6일자.
『부산일보』1951년 4월 19일자 ; 1951년 1월 17일자.
『서울신문』1950년 12월 14일자.
『朝鮮日報』1950년 12월 18일자.
공보처통계국,『대한민국통계연감』(서울 : 통계국, 1952년).
大韓民國國防部政訓局戰史編纂會編,『韓國戰亂一年誌』(서울 : 편자 출판, 1952년).
동아일보사,『비화 제1공화국』제2집(서울 : 홍우출판사, 1975년)
사회과학출판사,『조선지명편람(함경남도)』(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2002년).
연합뉴스,『2009 북한연감』(서울 : 편자 출판, 2009년).
조선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한국 평화문제연구소 공저,『조선향토대백과』(서울 : 한국평화문제연구소, 2004년)
朝鮮中央通信社,『朝鮮中央年鑑』(平壤 : 편자 출판, 1952년), 國內篇(1951~1952年).
崔鍾泰 編著,『韓國戰爭日誌』(서울 : 軍事問題硏究所, 1991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한국인물대사전』,(서울 : 중앙일보사, 1999년).

부대사, 증언집, 회고록, 전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최영희 증언"(1965. 3. 29),『면담록』, HA0304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국방사』제2집(서울 : 국방부. 1987년).
국방부,『국내 군수 지원 능력 및 현황』(서울 : 국방부, 1969년).
국방부,『한국전란 1년지』(서울 : 국방부, 1951년).
국방부,『한국전란 2년지』(서울 : 국방부, 1953년).
병무청,『병무행정사, 상권』(서울 : 병무청, 1985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공군본부,『6·25전쟁 증언록』(계룡 : 공군본부, 2002년).
공군본부,『전투요보』(계룡 : 공군본부, 2000년).
공군역사기록단 역,『미 공군 제6146부대 부대사』제1집(계룡 : 역자 출판, 2010년).
해군본부,『해군편제사』제1권(서울 : 해군본부, 1970년).
해병대사령부,『해병발전사』(서울 : 해병대사령부, 1961년).
보병 제1사단,『전진역사』(대전 : 인쇄창, 1966년).
보병 제7보병사단,『상승칠성부대-전사를 중심으로(1946. 1. 29~2007. 8. 31)』(대전 : 육군인쇄창, 2007년).
보병 제8사단사령부,『오뚜기 약사』(대전 : 인쇄창, 1969년).
매튜 B. 리지웨이, 김재관 역,『한국전쟁』(서울 : 정우사, 1984년).
白善燁,『6·25전쟁 회고록 : 軍과 나』(서울 : 재단법인 대륙연구소, 1989년).
서울대 법학연구소,『거창양민학살사건자료집』Ⅰ(서울 : 서울대출판부, 2003년).
서울특별시,『시세일람』(서울 : 서울시, 1957년).
劉載興,『激動의 歲月』(서울 : 乙酉文化社, 1994년).
林富澤,『林富澤의 韓國戰爭秘錄 : 洛東江에서 楚山까지』(서울 : 그루터기, 1996년).
장도영,『望鄕 : 전 육군참모총장 장도영 회고록』(서울 : 숲속의 꿈, 2001년).
장성환,『나의 항공생활』(서울 : 공군본부 정훈감실, 1954년).
정부기록보존소,『한국전쟁관련 중국자료선집』Ⅱ(대전 : 신진기획, 2002년).
정일권,『정일권 회고록』(서울 : 광명출판사, 1996년).
丁一權,『丁一權회고록 : 6·25秘錄 전쟁과 휴전』(서울 : 동아일보사, 1986년).
조병옥,『나의 회고록』(서울 : 해동, 1986년).
주영복,『내가 겪은 조선전쟁』(서울 : 고려원, 1991년), 제1권.
중앙일보사,『민족의 증언』제3집, 제4집(서울 : 중앙일보사, 1985년).
韓徹永,『自由世界의 巨星 : 李承晩大統領』(서울 : 文化春秋社, 1953년).
韓豹頊,『韓美外交 요람기』(서울 : 중앙일보사, 1984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 저서 및 논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1권(서울 : 국방부, 1977년).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5권(서울 : 국방부, 1972년).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6권(서울 : 국방부, 1973년).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10권(서울 : 국방부, 1980년).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11권(서울 : 국방부, 1981년).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 편)』(서울 : 국방부, 1985년).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전투사 : 용문산전투』(서울 : 국방부, 19835년).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전투사 : 임진강전투』(서울 : 국방부, 1991년).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전투사 : 횡성강전투』(서울 : 국방부, 1995년).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역),『미 합동참모본부사 : 한국전쟁』(상)(서울 : 국방부, 1990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6·25전쟁사』제6권(서울 : 국방부, 2009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주한 미군의 정보보고 체계(1945~1953년 미 정보보고서 중심으로)』(서울 : 군사편찬연구소, 2007년).

국방군사연구소,『한국전쟁』(중)(서울 : 신오성, 1996년).
국방군사연구소,『한국전쟁지원사』(서울 : 신오성, 1995년).
공군본부,『항공 전사 : 한국전쟁』(서울 : 공군본부, 1989년).
공군본부,『6·25전쟁 항공전사』(계룡 : 공군본부, 2002년).
소련군 총참모부 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소련군 총참모부 전투일지 : 1950년 6월 25일 ~1951년 12월 31일」(미발간)
예프게니 바자노프, 나딸리아 바자노프 저, 김광린 역,『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전말』(서울 : 열림, 1998년).
김종국 역, 러시아 국방부편『러시아가 본 한국전쟁』(서울 : 오비기획, 2002년).
남정옥,『한미군사관계사』(서울 : 군사편찬연구소, 2002년).
대한민국 국회,『국회사』(서울 : 국회, 1972년).
모스맨 지음, 백선진 옮김,『밀물과 썰물』(서울 : 대륙연구소 출판부, 1995년).
부산일보사,『임시수도 천일』(상)(부산 : 부산일보사, 1984년).
박명훈,『조선지명편람(평안북도)』(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2002년).
와다 하루끼 지음, 서동만 옮김,『한국전쟁』(서울 : 창작과비평사, 1999년).
서용선 외,『한국전쟁 점령정책·노무운용·동원』(서울 : 국방군사연구소, 1995년).
서상문,『毛澤東과 6·25전쟁』(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년).
서울신문사 편저,『주한미군 30年』(서울 : 행림출판사, 1979년).
신형식 역,『한국전쟁 해전사』, (서울 : 21세기군사연구소, 2003년).
국가보훈처,『아테네의 후예들 : 그리스군 6·25전쟁 참전사』(서울 : 국가보훈처, 2006년).
양영조,『한국전쟁과 동북아 국가정책』(서울 : 선인, 2007년).
오진근, 임성채 공저,『손원일 제독』(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6년).
마이클 살러 지음, 유강은 옮김,『더글라스 맥아더』(서울 : 이매진, 2004년).
이충환,『미국비밀 문서로 본 한국현대사 35장면』(서울 : 삼인, 2003년).
육군본부,『6·25사변 후방전사 : 인사편』(서울 : 육군본부, 1953년)
육군본부,『중공군이 경험한 6·25전쟁』(하)(계룡 : 육군본부, 2009년).
육군사관학교 전사학과,『한국전쟁사』(서울 : 일신사, 1996년 수정판).
육본정보참모부,『북괴 6·25남침분석』(서울 : 보진재, 1970년).
이태호,『압록강변의 겨울 : 납북 요인들의 삶과 통일의 한』(서울 : 다섯수레, 1991년).
일본육전사연구보급회 편, 이원복 역,『한국전쟁』제5권(서울 : 명성출판사, 1991년).
일본육전사연구보급회 편, 이원복 역,『한국전쟁 : 진지전으로의 전환』제8권(서울 : 명성출판사, 1991년).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박동구) 역,『중국군의 한국전쟁사』2(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년).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조선전사』제26권(평양 :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1년).
정일형,『유엔과 한국문제』(서울 : 신명문화사, 1961년).
전쟁기념사업회,『한국전쟁사』제5권(서울 : 저자 출판, 1992년).
데이비드 햅버스탬 지음, 정윤미, 이은진 옮김,『The Condest Winter : 한국전쟁의 감추어진 역사』(서울 : 살림출판사, 2009년).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중공군의 한국전쟁사』(서울 : 세경사, 1991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서울 : 편자 출판, 1991년), 제25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민족문화연구소,『내가 겪은 해방과 분단』(서울 : 선인, 2001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해본본부,『해군작전사 개설』제1집(계룡 : 해군본부, 2001년), 제3편.
해군본부,『대한민국해군사 : 작전편』제1집(서울 : 해군본부, 1954년).
해군본부,『해군 30년사 1945~1975』(서울 : 해군본부, 1978년).
한표옥,『한미외교 요람기』(서울 : 중앙일보사, 1984년).
홍학지 지음, 홍인표 옮김,『중국이 본 한국전쟁』(서울 : 고려원, 1992년).
홍학지 저, 홍인표 역, 『중국인민지원군 부사령관 홍학지의 전쟁 회고록 : 중국이 본 한국전쟁』(서울 : 한국학술정보, 2008년).
김계동,「중국의 한국전 개입에 대한 영국의 정책」, 박두복 외, 『한국전쟁과 중국』(서울 : 백산서당, 2001년).
김영호,「6·25전쟁과 유엔의 역할」『軍史』, 제59호.
남정옥,「국민방위군」『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제1권(서울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1년).
沙江,「항미원조전쟁의 군사목표와 전쟁지휘」, 정부기록보존소,『한국전쟁관련 중국자료선집』Ⅱ(대전 : 신진기획, 2002년).
신범식,「소련의 북한 군사 지원」『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제1권(서울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1년).
楊奎松,「중국군의 정전협상전략」, 군사편찬연구소,『한국전쟁의 새로운 연구』제1권(서울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1년).
牛軍,「중국 참전과 국제정치」, 군사편찬연구소,『한국전쟁의 새로운 연구』제2권(서울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2년).
원태재,「6·25전쟁과 영국의 역할」『軍史』제59호.
이종석,「한국전쟁 중 중·조연합사령부의 성립과 그 영향」『軍史』제44호.
일본육전사연구보급회 편,『한국전쟁 : 유엔군의 재반격』7(서울 : 명성출판사, 1986년).
전종순,「중공군 정월공세 시 리지웨이와 펑더화이의 작전지도」『軍史』제45호.
전현수,「소련공군의 한국전 참전」『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제1권(서울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1년).
조창래, 「한국전시 릿지웨이 장군의 작전지도에 대한 고찰」,『군사평론』제350호 부록(대전 : 육군본부, 2001년).
解方,『關于朝鮮開城停戰談判的回憶』, 정부기록보존소,『한국전쟁관련 중국자료선집』Ⅱ(대전 : 신진기획, 2002년).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전쟁기 전쟁수행과 그 영향 학술회의』(서울 : 한역연, 2010년 6월).
황순필,「국군 제8사단의 횡성지구 재평가」『군사평론』 제385호(대전 : 육군본부, 2006년).
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광주전남현대사』2(서울 : 실천문학사, 1991년).
김남식,『남로당연구』1(서울 : 돌베개, 1984년).
역사문제연구소,『역사비평』겨울호(서울 : 역사비평사, 1988년).
전라남도지편찬위원회,『전라남도지』제9권(광주 : 광주광역시, 1993년).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 휴전사』(서울 : 국방부, 1989년).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대비정규전사(1945~1960)』(서울 : 국방부, 1988년).
중앙일보사 편,『민족의 증언』3(서울 : 을유문화사, 1975년).
육군본부,『한국전쟁과 유격전』(대전 : 육군본부, 1994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한국전쟁의 유격전사』(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Ⅱ. 외국어 문헌

영문 자료

국방군사연구소, 『*The U.S. Department of State Relating to the Internal Affairs of Korea XV*, 한국전쟁 자료총서』 제53집(서울 : 국방군사연구소, 1996년).
AFHRA, http://www.afhra.af.mil/shared/media/document/AFD-090611-098.pdf.
CIA DAILY REPORT KOREAN BULLETIN(1950. 12. 23) ; (1950. 2. 26) ; (1951. 1. 17) ; (1950. 12. 8) ; (1951. 3. 27) ; (1951. 2. 10) ; (1950. 12. 8) ; (1951. 12. 12) ; (1951. 2. 9) ; (1951. 10. 17) ; (1951. 5. 24) ; (1951. 10. 25).
Eighth Army G4 SS Rpts, 20 Dec 50; Eighth Army Trans SS Rpts, 10 July 51.
FEC GHQ, *Logistics in the Korean Operations*(Unpublished :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1951).
GHQ UN, *G-3 Operations Report*, No. 190(1950. 12. 31), No. 191(1951. 1. 1), No. 194(1951. 1. 4), No. 192(1951. 1. 2), No. 193(1951. 1. 3), No. 195(1951. 1. 5), No. 196(1951. 1. 6), No. 197(1951. 1. 7), No. 198(1951. 1. 8), No. 201(1951. 1. 11), No. 202(1951. 1. 12).
Hq. I Corps, *Command Report*, January 1951.
Hq. I Corps, *Command Report*, February 1951.
Hq. I Corps, *Command Report*, March 1951.
Hq. I Corps, *Command Report*, April 1951.
Hq. IX Corps, *Command Report*, January 1951.
Hq. IX Corps, *Command Report*, February 1951.
Hq. IX Corps, *Command Report*, March 1951.
Hq. IX Corps, *Command Report*, April 1951.
Hq. 25th Infantry Division, *Command Report*, January 1951.
Hq. 25th Infantry Division, *Command Report*, February 1951.
Hq. EUSAK, *Command Report*, January 1951.
Hq. EUSAK, *Command Report*, February 1951.
Hq. EUSAK, *Command Report*, March 1951.
Hq. EUSAK, *Command Report*, April 1951.
Hq. X Corps, *Command Report*, January 1951.
Hq. X Corps, *Command Report*, February 1951.
Hq. X Corps, *Command Report*, March 1951.
Hq. X Corps, *Command Report*, April 1951.
HQS, EUSAK, *Command Report* No.1(1-31 December 1950), 10 April 1951.
HQS, EUSAK, *Periodic Information Report*, No. 142(1950. 12. 1) - No. 203(1951. 2. 1).
HQS, EUSAK, *Command Report, Narration*, Dec. 1950, Box 2436.
HQS, EUSAK, *WAR DIARY, SECTION I : SUMMARY(30, Dec 1950 - July 1951)*, July. 1951.
KMAG, *Periodic Intelligence Report*, No. 159(1951. 1. 7), No. 168(1951. 1. 16), No. 176 (1951. 1. 24), No. 177(1951. 1. 25), No. 181(1951. 1. 29), No. 186(1951. 2. 3), No. 194(1951. 2. 11), No. 236(1951. 3. 2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HQs of R.O.K., *Units Short History ROKA*(Seoul, Headquarters ROKA, 1955).

U.S. Air Force/Air Staff, RG341 Records of Headquarters U.S. Air Force/Air Staff, Deputy Chief of Staff, *Operations Director of Intelligence*, Deputy Director for Estimate Topical Intelligence Division, *Current Intelligence Branch korean Daily Reports, Apr. 1951-July 1953.*

U.S. Air Force/Air Staff, RG341 Records of Headquarters US Air Force/Air Staff, Dec 1950.

U.S. Air Force/Air Staff, RG341 Records of Headquarters US Air Force/Air Staff, Jan 1951 - July 1951.

U.S. Dep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 Vol.Ⅶ(Washington D. C. :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2).

Xiaoming Zhang, *Red Wings over The Yalu*(Texas : Texas A&M University, 2002)

Acheson, Dean, *Present At the Creation : My Years in the State Department*(New York : W. W. Norton & Company, Inc., 1969).

Air Force Historical Research Agency, www.afhra.af.mil, *USAF Organizations in Korea 1950-1953.*

Alexader, Joseph H., *Fleet Operations in a Mobile War, September 1950-June 1951*, Ed. by Marolda, Edward J., *The U. S. Navy in the Korean War*(Annapolis Maryland : the United States Naval Institute Press, 2007).

Appleman, Roy E., *Disaster in Korea, The Chinese Confront Macarthur*(Texas : A&M University Press, 1989).

Appleman, Roy E., *Escaping the Trap, The US Army X Corps in Northeast Korea, 1950* (Texas : A&M University Press, 1988).

Cagle, Malcolm W. and Manson, Frank A., *The Sea War in Korea*(Annapolis : U.S. Naval Institute, 1957).

Clausewitz, Carl Von, *On War*(Princeton, New Jerse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edited and translated by Howard, Michael and Paret, Peter.

Cowart, Glenn C., *Miracle in Korea*(Columbia, 1992).

Crane, Conrad C., *American Airpower Strategy in Korea, 1950-1953*(Lawrence, Kansas :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0).

Field, James A.,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 Korea*(Washington, 1962).

Futrell, Robert R.,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Washington D.C.: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Hammel, Eric M., *Chosin : Heroic Ordeal of Korean War*(CA Novato : Presidio Press, 1990).

K. Spate O. H.,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Capital Cities", D., Jackson W. A., ed., *Politics and Geographic Relationships : Readings on the Nature of Political and Geography*(Prentice Hall : Englewood Cliffs, 1964).

Kesaris, Paul, ed., *Records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Part Ⅱ : 1946-1953 The Far East, Washington*, A Microfilm Project of University Pub. of America, Inc., 1979, No.9.

Kissinger, Henry, *Diplomacy*(New York : Simon & Schuster, 199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Leary, William M., *Anything, Anywhere, Anytime Combat Cargo in the Korean War*, 2000.
MacArthur, Douglas, *Reminiscence*(New York : McGraw-Hill Book Company, 1964).
Mossman, Billy C., *United States Army in Korea War : Ebb and Flow November 1950-July 1951*(Washington, D. C. :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90).
Panikkar, K. M., *In two Chinas : Memoirs of Diplomat*(London : George Allen & Unwin LTD., 1955).
Rober K.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KMAG in Peace and War*(Univ. Press of the Pacific Honolulu, 1988).
Schnabel, James F., *Policy and Direction : The First Year*(Washington, D. C. :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88).
Shrader, Chares R., *Communist Logistics in the Korean War*(London Westport : Greenwood Press, 1995).
Stratemeyer, George E., *The Three Wars of Lt. Gen. George E. Stratemeyer His Korean War Diary*(Washington : Air Force History and Museums Program, 1999), Edited by Blood, William T. Y.
Stueck, William, *The Korean War : An International History*(New Jersey,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The Air University of USAF, *United States Air Force Operations in The Korean Conflict 1 November 1950 - 30 June 1952*, 1955.
Truman, Harry S., *Memoirs : Years of Trial and Hope*(Garden City, New York : Double day & Co., Inc., 1956).

중문 자료

當代中國人物傳記叢書編輯部,『彭德懷傳』(北京 : 當代中國出版社, 1993年).
杜平,『在志願軍總部』(北京 : 解放軍出版社, 1989年).
師哲,『在歷史巨人身邊 : 師哲回憶錄』(北京 : 中央文獻出版社, 1995年).
沈志華編,『朝鮮戰爭 : 俄國檔案館的解密文件』(上冊), (中冊). (臺北 : 中央研究所近代史研究所, 2003年).
王焰主編,『彭德懷年譜』(北京 : 人民出版社, 1998年).
外國文出版社編,『金日成著作集』(平壤 : 編者出版, 1981年), 第6卷.
中共中央文獻研究室,『建國以來毛澤東文稿』第1冊(北京 : 中央文獻出版社, 1987年).
中共中央文獻研究室彭德懷傳記編寫組編,『彭德懷軍事文選』(北京 : 中央文獻出版社, 1988年).
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毛澤東文集』第6卷(北京 : 人民出版社, 1999年).
中國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部, 『抗美援朝戰爭史』第2卷(北京 : 軍事科學出版社, 2000年).
中國人民抗美援朝總會宣傳部編,『偉大的抗美援朝運動』(北京 : 人民出版社, 1954年).
陳章華、榮肇隆主編,『中國軍事史辭典』(武漢 : 湖北人民出版社, 1993年).
彭德懷自述編輯組,『彭德懷自述』(北京 : 人民出版社, 1981年).
洪學智,『抗美援朝戰爭回憶』(北京 : 解放軍文藝出版社, 1991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일문 자료

宋榮福松,『朝鮮人民軍の南侵と敗退』(東京 : コリア評論社, 1979年).
陸戰史硏究普及會,『中共軍の攻勢』(東京 : 原書房, 1971年).
佐佐木春隆, 『朝鮮戰爭』(中)(東京 : 原書房, 1979年).
A. V. トルクノフ著, 下斗米伸夫, 金成浩譯,『朝鮮戰爭の謎と眞實』(東京 : 草思社, 2001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찾아보기

ㄱ

가평 219, 319
간성 359
강릉 217, 312, 319
강문봉 43, 377, 512
강석봉 397
강영훈 412, 516
강차완 407
개성 101, 106, 111
개풍군 360
거창사건 37, 44, 45, 393
검단산 248
게이(Hobert R. Gay) 228
경운산 362
경의선 109
경제협조처(ECA) 36
경춘선 325
고대산 375
고랑포 117, 122, 130
고백규 171, 230
고시복 171, 230
고양 101
곡릉천 361
곡성 402
골든선 70, 388, 463, 483
공화구락부 38
관대리 384
관악산 245
광양 398
광원리 538
구례 402
구화리 106, 111
국가안전보장회의 55
국기열 397
국민방위군 37, 39, 40, 41, 42, 44, 82
권태순 229
그로우던(John S. Growdon) 330
그리스 23
글로스터 463, 466, 467, 468
금산 394
금화 106
길원팔 168
김광협 223, 287, 372
김동수 230
김량장리 232, 239
김무용 413
김방호 39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김백동 397
김백일 123, 171, 230, 290, 340
김병로 37
김봉철 146, 228, 378
김상운 171
김선우 395, 401
김성수 38
김성은 458
김수평 398
김안일 241, 377
김영우 397
김영재 397
김용주 188
김웅 285, 452, 508
김원봉 396
김윤근 42, 43
김인문 171
김인철 230
김일성 48, 107, 219, 223, 287, 371, 398, 401, 447, 452, 508
김점곤 131, 377
김종갑 128, 171, 174, 230, 290
김종순 230
김종오 128, 154, 379, 460, 482, 516
김창수 398
김포 218, 310
김포비행장 158, 327
김형일 230, 290, 379, 460, 515
김화 219, 367, 387, 389
김희준 403

ㄴ

남대리 256
남원 402
남일 452, 508
남한산 343
네덜란드 대대 180
네바다선 70, 388, 483
뉴질랜드 23, 756

ㄷ

다둥고우(大東沟) 비행장 683
단양 217
대관령 318
대둔산 407
대성산 375
대통령직선제 38
대한청년단 81, 82, 755
덕소 319
덕적도 192
덩화(鄧華) 114, 222, 282, 300, 370, 451
델타선 70, 388, 463, 483
도감포 133
도곡리 578
돈틀리스 작전 366
동두천 143, 333
동로초등학교 255
동키부대 42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두핑 222, 287, 370
뚝섬 312

ㄹ

라우(Benegal Rau) 30
라운드업 작전 226, 268, 344
량싱차오(梁興初) 145, 146, 222, 287
러기드 작전 366, 374, 381
러스크 62
러프너(Clark L. Ruffner) 289, 378
로신(N. V. Roschin) 27
리즈민 370
리지웨이 51, 58, 69, 71, 73, 78, 99, 100, 122, 123, 124, 125, 126, 140, 152, 155, 159, 188, 195, 217, 224, 288, 302, 326, 341, 359, 380, 387, 456, 757
리퍼 작전 281, 322, 366
링컨선 328

ㅁ

마샬(George C. Marshall) 75
마오쩌둥(毛澤東) 29, 33, 47, 48, 50, 219, 283, 400, 440, 753, 754
마차리 312
마차산 143
만포선 109
매봉 362
맥아더 34, 59, 60, 61, 62, 67, 70, 82, 329, 359, 373, 387, 757
맥클루어 180
머제트(Gilman C. Mudgett) 330
멕시코 24, 756
명지리 339
모락산 245
무갑산 310
무어(Bright E. Moore) 146, 228, 289, 305
무초 189
문산 101, 330, 366
문산천 361
문종식 398
문형태 131, 377
민기식 128, 229, 289, 378, 379, 384, 453, 455, 458, 459, 494, 510, 511, 515
미주리선 488, 492, 488, 492
밀번(Frank W. Milbeun) 41, 228, 289, 376

ㅂ

박갑출 398
박기병 403
박노규 229, 411
박영발 395, 401
박월출 398
박익순 146
박일우 28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박종덕 115, 452, 508
박창암 419
박치옥 407
박헌영 398
박현수 229, 379
반공총궐기대회 39
반덴버그 61, 66
방준표 395, 401
방태산 168, 536, 537
방호산 115, 223, 287, 372, 452, 508
배동걸 252
백골병단 416
백령도 420, 634
백선엽 128, 131, 133, 154, 228, 289, 376, 377, 459, 460, 517
밴플리트 69, 70, 71, 359, 387, 388, 439, 454, 456, 494, 763
버팔로선 320, 323
법원리 117, 130
벙커고지 545
베빈(Ernest Bevin) 26, 56
베이징 107
벨기에 대대 465
병사구사령부 83
볼리비아 24
부산극장 76, 77
부안 394
부용산 362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24, 53
북한강 362
북한군 478, 484
북한군 제1군단 445, 472, 483
북한군 제2군단 495, 499, 502
북한군 제3군단 502\
북한군 제5군단 499, 502
북한군 최고사령부 447
분원리 325
불굴작전 69, 70
브라이언(Blacksheas M. Bryan) 289, 376
브라질 24, 756
브래들리(J. S. Bradley) 325, 376
브릭스(James E. Briggs) 666
브로디(T. Brodie) 138, 228, 289, 376
비상계엄 35, 79

ㅅ

사리원 111
사미천 361
사창리 362, 389
사천 361
삭녕 106, 111
삼랑진 403
삼마치 271
삼척 100, 125, 127, 217
삼척선 105
상남리 524
샤오신화이 222, 287
샤오잉탕(簫應棠) 452, 50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서울 325
서정철 230
설악산 340
설마리 469
셔먼 60
셰요우파(謝有法) 371
셰팡(解方) 114, 222, 287, 370
소울(Robert H. Soule) 228, 289, 376
소정우 406
소해작전 637
속사리 318, 320, 334, 337, 550
송요찬 128, 230, 290, 379, 459, 460, 517
수리산 244
수원 217, 232
순천 402
쉬빈저우(徐斌洲) 301
스미스(Oliver P. Smith) 314
스탈린(Joseph V. Stalin) 27, 51, 219, 753
스트레이드 메이어 188, 456
시룬고개 362
신갈 237
신당리 362
신산리 117, 130
신상철 128
신성모 37, 42
신원면 44
신정공세 50, 100, 105
신정동지회 38
신포리 362
썬더볼트 작전 226, 344, 762
쑹스룬(宋時輪) 371

ㅇ

아르헨티나 23
아리조나선 319
아시아-아랍위원회 27, 29, 31
아이다호선 334, 336
안리 310
안양 218
안춘생 43
알라바마선 480, 482
알몬드(Edward M. Almond) 178, 180, 289, 378, 304
알바니선 319, 323
애치슨(Dean G. Acheson) 23, 33
애틀리(Clement Attlee) 26, 54
야찌스(Tahsin Yazici) 228, 289, 376
양구 384
양더즈 370
양수리 218, 320, 327
양양 99, 366, 380
양원제 38
양중호 228, 378
양평 312
어성전리 339
에티오피아 23
엔테잠(Nasrollah Entezam) 30
여도 62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여수 398
여주 218
연곡천 338
연백군 360
연천 99, 101, 106, 111, 375, 380
영국 756
영광 398
영등포 310, 328
영암 398
영월 260
예성강 360, 361
오마치고개 533
오색리 340
오스트레일리아 23
오스틴(Warran W. Austin) 34
오음산 271
오익경 44, 405
와수리 375
와이오밍선 69, 71, 73, 387, 389, 439, 454, 455, 462, 476
와코선(WACO Line) 522, 536
왕빈(王彬) 371
왕윈루이 370
왕진산 370
요철 작전 68
용문산 322
용포 534
우루과이 23, 24
우루이린 222, 287
우수츄안(伍修權) 27
우신촨(吳信泉) 131, 222, 287, 301, 451, 507
우타선 375, 389
운봉 402
울프하운드 작전 233, 762
워커(Walton H. Walker) 99, 122, 123
원산 374
원위청 222, 287, 451
원주 176, 182, 186, 217, 311
웨이제(韋杰) 450, 507
웨이랜드(Otto P. Weyland) 667
월암동 334
유경수 115, 452, 508
유목윤 398
유의준 379
유재성 245
유재흥 123, 230, 290, 379, 460, 5160
유천리 318, 339
유타선 69, 71
유홍수 403
용문산 552, 555
윤웅 398
윤익헌 42, 43
율동 474
을지병단 418
의정부 122, 149, 330, 333
이권무 115, 223, 287, 372, 452, 508
이기붕 37, 43, 75, 188
이상조 223, 287, 371
이상철 229
이선근 4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성가 128, 379, 460, 518
이순용 37
이승만 37, 39, 43, 152, 188, 329, 366, 754
이시영 37, 43
이영호 452, 508
이오열 411
이용문 43
이정석 229
이존일 229
이종찬 43
이준식 340, 379, 460
이창정 230
이현서 420
이현진 230
이형근 176
인구리 339
인민위원회 394
인제 106, 359, 384
인천 621
인플레 35
임문항 37
임병직 57, 82
임부택 146
임시의사당 76
임익순 228, 378
임진강 99, 101, 129, 360, 361, 380
임진강 부근 142
임창모 406
임충식 171, 230
입석리 311

ㅈ

장도영 146, 148, 229, 378, 458, 476, 514
장런추(張仁初) 222, 287, 451
장면 57, 73, 81, 83
장이샹(張翼翔) 451, 506
장성 394
장용후이(江擁輝) 146
장제스(蔣介石) 26
장춘권 230
장파리 361
저우언라이(周恩來) 27, 32, 33, 47
적성리 251, 361
전경 370
전투공수사령부 670
절단 작전 68
정진 230
정선 217, 312
정웨이산 370
정읍 394
정일권 43, 75, 158, 366
정태성 398
제브라 특수임무부대(TF ZEBRA) 526
제1통제선 124
제2국민병 83
제2통제선 124
제3통제선 124
제315전투공수비행사단 666
제324전투비행사단 665
제4통제선 12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5공군사령부 669
제5통제선 124
제6통제선 124
제64전투비행군단 766
제95기동부대 583
조국보위후원회 398
조병옥 37
조병하 395, 401
조선노동당 394
조안리 326
조이 188
조재미 131, 229
조·중연합사령관 31, 33, 113, 155, 440, 495, 761
조·중연합사령부 106, 107, 286, 367, 447
조진만 37
죠이(C. Turner Joy) 456
종현산 143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 113
쥬오중루(翟仲儒) 146
지구리 334
지평리 218, 267, 280, 300, 305, 342
진해 403
쩡사오산(曾紹山) 450, 506
쩡쓰위(曾思玉) 452, 507
쩡쩌성 222, 287

ㅊ

차동준 419
차일혁 407
창촌 538
채명신 416
처치(John H. Church) 228
천보산 333
천셴루이 370
철군계획 63
철수계획 762
철원 106, 367, 387, 389
청계산 248
청년방위대원 45
최광 452, 508
최석 128, 163, 230, 258, 290, 459, 516
최규동 398
최덕신 459, 460, 517
최영희 229, 289, 291, 379, 461, 518
최용건 223, 287, 371, 452, 508
최용진 452, 508
최현 115, 169, 223, 261, 287, 372, 452, 508
최형순 245
최홍희 459
춘계공세 433
춘천 99, 122, 161, 319, 324, 383
충주 127
친지웨이(秦基偉) 450, 507
칠레 24
칠레스(John H. Chiles) 30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ㅋ

카슈미르 24
카이로선 320, 324, 330, 339
캐나다 478, 756
캔사스선 68, 72, 366, 380, 383, 439, 453, 454, 463, 474, 480, 763
케이스(John W. Keith) 292
코드(Basil A. Coad) 229, 289, 378
콜린스 60, 61, 66
쿠바 23
쿨터(John B. Coulter) 소장 149
크롬베츠 308
킨(William B. Kean) 138, 228, 241, 289, 325
킬러 작전 281, 322, 762

ㅌ

타오융(陶勇) 371
타이완 해협 26
탄젠(覃健) 371
탕칭산(唐青山) 146
태기산 320, 334, 384
태백산 409
터키 23, 128, 154
텐진(天津) 107
토마스(Gerald C. Thomas) 378
토마호크 작전 330
토피카(Topeka)선 555
통한(統韓)결의 55
툴레도(Toledo)호 486
퇴계원 149
트루먼(Harry S. Truman) 53, 60, 65, 67, 81, 373, 387
트리그브 리(Trygvy Lie) 27
특공대대 256

ㅍ

파주 101
파키스탄 24
파평산 360, 469
판대리 311
팔머(Charles D. Palmer) 228, 289, 377
퍼거슨(Robert G. Ferguson) 288
펑더칭(彭德淸) 451, 506
펑더화이(彭德懷) 29, 33, 46, 47, 50, 51, 107, 110, 155, 161, 219, 222, 240, 282, 300, 368, 440, 495, 753, 754, 757, 758
페렌바우(Claude B. Ferenbaugh) 289, 378
평강 367, 387
평택 100, 105, 121, 125, 127, 217
포로수용소 83
포천 333
폭격기사령부 670
푸충비(傅崇碧) 452, 507
프랑스 대대 544
프리만(Paul L. Freeman) 30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플레빈(Rene Pleven) 54
피난령 100
피난민 191, 193
피어슨(Pierson) 30
필리핀 대대 467

ㅎ

하갑청 229, 292
하동 402
하진부리 218, 312, 337
한석산 482, 489, 490
한신 230
한계리 319
한동석 44
한셴추(韓先楚) 114, 222, 285, 370
함병선 128, 229, 289, 411, 461, 514
해상봉쇄작전 576
해상통제권 577
핵무기 53
행주 149
헤인스(Loyal M. Hanynes) 292
헤네브리(John P. Henebry) 666
현리 168
호주 478, 756
호지(William M. Hodge) 289, 322, 377
홍쉐즈(洪學智) 114, 222, 287, 370
홍천 106, 319
화순 398
화악산 362
화천 390
화천댐 367, 382, 577
화천저수지 68, 375, 380, 383
화폐발행고 36
황엽 229, 379, 385
황우선 176, 179, 251
황점택 398
회문산 406
횡성 218, 268, 276, 290, 296, 312, 319
히어스(Johnnie M. Hiers) 30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집 필 자**

김 상 원 전쟁사부장
박 동 찬 선임연구원
이 근 석 연구원
양 영 조 책임연구원
최 권 삼 연구원

□ **자문위원**

백 선 엽 자문위원장
김 동 호 자문위원
정 용 근 자문위원

□ **감 수**

한 용 원(한국교원대학교 교수)
허 남 성(국방대학교 교수)
윤 일 영(대전대학교 교수)
김 희 철(해군 역사기록관)
온 창 일(육군사관학교 교수)
정 토 웅(육군사관학교 교수)
오 규 열(한국디지털대학 교수)
이 원 석(공군 역사기록관)

□ **상황도 CG :** 안 상 은

6·25전쟁사 8

중공군 총공세와 유엔군의 재반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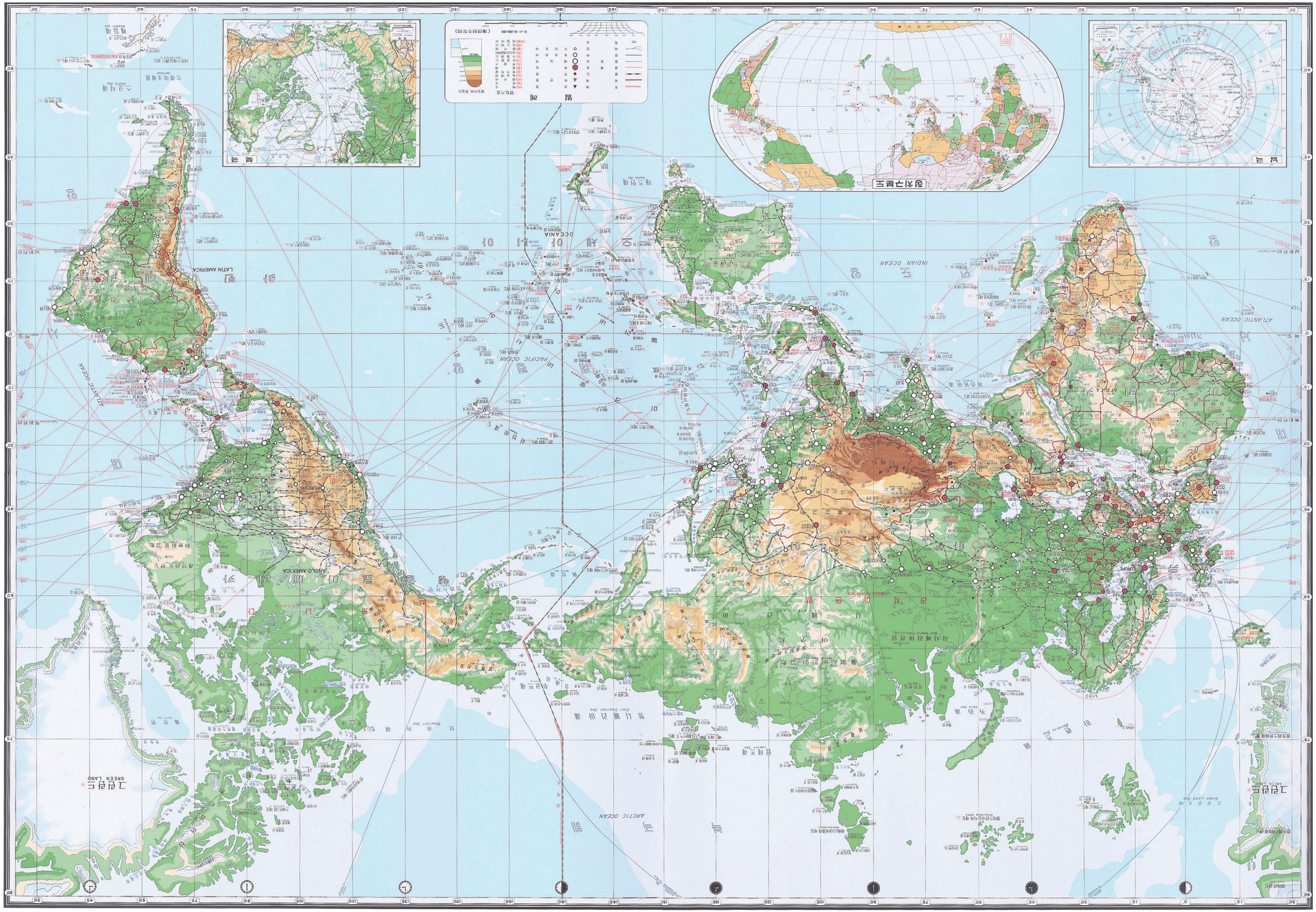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1년 6월 27일 인쇄
2011년 6월 30일 발행

발 행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인 쇄 : 국군인쇄창(11059305)

간첩·테러범·방산스파이 신고는 ☎1337번으로!
간첩선(1억 5천만원), 간첩(1억원)
국 군 기 무 사 령 부

이 책자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집필 및 편집한 내용을 인쇄한 것입니다.



LATIN AMERICA
ANGLO AMERICA
OCEANIA
PACIFIC OCEAN
INDIAN OCEAN
ATLANTIC OCEAN
ARCTIC OCEAN
GREEN LAND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용산동1가 8번지)